

Apoc Theory

Apoc

2020년 2월 22일

Preface

콕콕 공지

1. 본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의 입장은 콕콕과는 무관하며, 본 게시판은 콕콕 운영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콕콕과는 무관한 게시판임을 밝힙니다.
2. 본 게시판에 작성된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인 Apoc님에게 있습니다. Apoc님은 현재 아이디 이용 권한 박탈 이후 사이트 활동을 중단하신 상태입니다. 저작권자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즉각 삭제될 수 있습니다.

차 례

Preface	1
차 례	3
제 I 편 For examinee	19
제 1 장 정리론	20
1.1 [정리론 001] 시험 때까지 하지 말아야할 것은 무엇인가.	21
1.2 [정리론 002] 문제를 풀고 정리한다의 의미.	25
1.3 [정리론 003] 단권화에 대하여	26
1.4 [정리론 004] 수능접수시즌과 추석	29
1.5 [정리론 005] 회독수	30
1.6 [정리론 006] 친구	32
1.7 [정리론 007] 광신	34
1.8 [정리론 008] 투자자 마인드 1	38
1.9 [정리론 009] 투자자 마인드 2	40
1.10 [정리론 010] 인강듣기 수준이 위험한 경우.	41
1.11 [정리론 011] 공부를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건 아닌 듯요.	43
1.12 [정리론 012] 채팅방의 콕콕충	45
1.13 [정리론 013] 미래를 위한 선택인데 어째서 현재가 기준인가?	48
1.14 [정리론 014] 문제집에 오답을 남기기 싫어하는 이상한 착각	50

1.15 [정리론 015] 실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52
1.16 [정리론 016] 정리시점에서 듣는 인강이라면	55
1.17 [정리론 017] 수험을 대단한 걸로 생각하면 망한다.	56
1.18 [정리론 019] 자기불신이 중요하다.	58
1.19 [정리론 020] 시험모드로 들어가기	61
1.20 [정리론 021] 실모 고민하실 분	62
1.21 [정리론 022] 오답이 난다면 어디서 날까.	65
1.22 [정리론 023] 계획을 짜면 왜 망하는지 설명해드리겠음.	70

제 2 장 학습공학 74

2.1 [학습공학 001] 공부는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는 것이다.	75
2.2 [학습공학 002]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해야한다.	77
2.3 [학습공학 003] 잡몹 죽여서 렙업하기	79
2.4 [학습공학 004] 자존심 환자들	82
2.5 [학습공학 005] 행복	85
2.6 [학습공학 006] 순서	88
2.7 [학습공학 007] 고정관념	91
2.8 [학습공학 007] 황금의 3개월	93
2.9 [학습공학 007-2] 읽는 법에 대해서	98
2.10 [학습공학 008] 흙수저의 공부법	100
2.11 [학습공학 009] 야수 길들이기	102
2.12 [학습공학 010] 명문고의 방식	105
2.13 [학습공학 011] 생략과 속도	107
2.14 [학습공학 012] 도그마틱	110
2.15 [학습공학 013] 논리적인 사고란?	112
2.16 [학습공학 014] 지성 vs 악성	114
2.17 [학습공학 015] 시스템 올라타기	117
2.18 [학습공학 016] 인강듣는 요령 제시	118
2.19 [학습공학 017] 추상과 구체	120
2.20 [학습공학 018] 맹목도	122

2.21	[학습공학 019] 끈다	126
2.22	[학습공학 020] 암기	129
2.23	[학습공학 021] 공부는 수동태	133
2.24	[학습공학 022] 금단증세와 역금단증세	136
2.25	[학습공학 022] 결국 성공을 바라는 속물들이 아닌가.	138
2.26	[학습공학 023] 계획술의 핵심은 줄이는 것	141
2.27	[학습공학 024] 문제해결의 핵심	142
2.28	[학습공학 025] 공부를 환경으로 바꿀 것	143
2.29	[학습공학 026] 어째서 공부할 때 달콤한 걸 먹는 게 좋을까.	144
2.30	[학습공학 027] 복리효과	146
2.31	[학습공학 028] 여우와 곱	148
2.32	[학습공학 028] 일주일에 며칠 공부?	150
2.33	[학습공학 029] 정신적 거세	152
2.34	[학습공학 030] 후행학습	153
2.35	[학습공학 031] 라이벌을 구입하라	154
2.36	[학습공학 032] 엉터리 계획술	156
2.37	[학습공학 033] 수험 RPG	159
2.38	[학습공학 034] 교재 집착증	162
2.39	[학습공학 033] 성공부등식과 실패부등식	164
2.40	[학습공학 034] 수평적 사고(lateral thinking)	167
2.41	[학습공학 035] 스피드	169
2.42	[학습공학 036] 시간 감도	172
2.43	[학습공학 037] 수학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법	174
2.44	[학습공학 038] 문제의 인식과 해결	177
2.45	[학습공학 039] 눈 먼 자의 숫자	179
2.46	[학습공학 040] 눈 먼 자의 숫자 2편	182
2.47	[학습공학 041] 눈 먼 자의 적응과 습관	186
2.48	[학습공학 042] 후행학습의 필요성	188
2.49	[학습공학 043] 강사 대처법	190
2.50	[학습공학 044] 논리의 해악	193

2.51 [학습공학 045] TOC 이론 - 개괄	195
2.52 [학습공학 045-1] TOC 이론 - 실천	197
2.53 [학습공학 046] 원리중심적 사고와 목적지향적 사고	198
2.54 [학습공학 047] 랜체스터 법칙	201
2.55 [학습공학 048] 쪽지 퀴즈	204
제 3 장 실패와 재도전	206
3.1 실패와 재도전 01	207
3.2 실패와 재도전 02 - 노오력 이야기	209
3.3 실패와 재도전 03 - 출제경향과 어리석은 다수 이야기	211
3.4 실패와 재도전 04 - 나쁜 공부 야기	212
3.5 실패와 재도전 05 - 상식 파괴	215
제 4 장 교재 이야기	218
4.1 교재 이야기 ; 숨마쿰(Blueprint)	219
4.2 교재 이야기 : 풍산자썹	220
4.3 교재 이야기 : 말이 필요없는 증명 셤	223
4.4 교재 이야기 : 교과서썹 1	224
제 5 장 교재 뒷담화	229
5.1 교재 뒷담화 : C D E F	230
5.2 교재 뒷담화 : G H I J K	233
5.3 교재 뒷담화 : L M N	239
5.4 교재 뒷담화 : O P Q	242
5.5 교재 뒷담화 : R	246
제 6 장 일지 가이드	248
6.1 [일지 가이드 160108] 가이드 제시	249
6.2 [일지 가이드 160110] 강의	250
6.3 [일지 가이드 160111] 수학 개념 증명해보기	252
6.4 [일지 가이드] 30번 쓰신 분들 이상	254

6.5 [일지 가이드 160116] 지금 공부가 되고있는 증거	255
--	-----

제 7 장 etc	257
------------------	------------

7.1 일격 레이드 들어갑니다.	258
7.2 공부법 책은 사실 거의.	259
7.3 실모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 다시 적습니다만.	260
7.4 국어는 양답이 없습니다.	262
7.5 공부 못 하는 애와 잘 하는 애의 결정적인 차이.	264
7.6 2016년도 9평 A형, B형 수학 분석	267
7.7 수재의 조건	271
7.8 수학 B→A형 돌릴 때 참조하실 것.	274
7.9 이 시점에 감성파든 열심히 한다 하지 마셈.	275
7.10 콕콕에서 노력한다고 보이는 수험생	278
7.11 10일 남았는데 입시에만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280
7.12 자기 머리를 믿으세요.	282
7.13 학별의 장점.	284
7.14 수능출제는 통수	286
7.15 교재퀴즈	288
7.16 개념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291
7.17 그냥 평상시대로 하십시오.	295
7.18 운명	299
7.19 콕콕에서 교재평할 때 룰을 정해드리겠음.	303
7.20 실패의 원인은 계량 실패	306
7.21 기싸움	309
7.22 검증되었네요.	313
7.23 장사철과 광고시즌 시작이군요.	314
7.24 문제 평	315
7.25 고1수학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318
7.26 ebs 인강을 완강하고 사설 들으세요	319
7.27 수험판의 세뇌	320

7.28	중하위권이 희망이 없을 리는 없고	322
7.29	+1수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323
7.30	교재 vs 놀이 하지 마세요	327
7.31	죽음의 절벽	329
7.32	문과 이과 전향에 대한 썰	333
7.33	n수하지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338
7.34	독학을 권유하는 이유	340
7.35	n수할 때 부모말을 들어야하나	342
7.36	여러가지.	343
7.37	개정 과정	344
7.38	수학문제풀이에 있어서 국어의 중요성	345
7.39	그러니까 노력한 근거를 대야지	348
7.40	개정 해매는 분들을 위한 조언	349
7.41	모의고사만 출창 푸는 게 안 좋은 이유	352
7.42	교재 : 한국사 강의없이 틀잡고 싶다면	353
7.43	몰입한 상태	354
7.44	인터넷 강의 문제점	355
7.45	영어에 관해서	360
7.46	벗개념에 대해서	362
7.47	최근의 동태에 대한 비판입니다만	363
7.48	고1수학 풍산자 풀고있는 팀	366
7.49	EBS에 꿀강의 많으니 그거나 들으셈.	366
7.50	선택과목 고를 때는	368
7.51	강사 오개념 발생하는 이유	369
7.52	자존심을 버려야 자신감이 생긴다.	370
7.53	메모 : 시스템	371
7.54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	373
7.55	정말 돈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375
7.56	인강을 들을 때 처음부터 배속 높이진 마실 것.	376
7.57	하나마나한 이야기	377

7.58	공부시간 산정법	379
7.59	개인적 검증	383
7.60	첨단장비의 노동환원	384
7.61	잡담	386
7.62	다수의 선택	388
7.63	과거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	389
7.64	[콕콕운영제언] 콕콕사이트의 보수적 운영	391
7.65	여러가지	395
7.66	괴담	400
7.67	학생 모의고사는 단 한번도 검증된 적이 없죠.	403
7.68	해설은 읽는 것이죠	408
7.69	과잉언급되는 천재들	413
7.70	인강 활용법	420
7.71	수학에서 꿀교재 찾으려는 망상은 버리시길.	423
7.72	일지 뉴비들에게	426
7.73	표절	427
7.74	확통에 추가된 분할	430
7.75	카스트 제도	431
7.76	문과의 시대가 다시 오지요.	435
7.77	자위권 해결 실천편	438
7.78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도전을 못 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439
7.79	[공지] 콕콕 총회	440
7.80	각자에게 맞는 배우는 방식은 다릅니다.	441
7.81	계획을 짜고 실천하는 법	443
7.82	부채도사	444
7.83	수학 기본서 평가	446
7.84	[교재글] 개정교육 과정인데 비싼 교재 살 필요가 있나요.	451
7.85	수험계의 착취	453
7.86	여러가지 잡담	455
7.87	국어에 정답이 있을까.	458

7.88	실패하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음	459
7.89	우유부단한 게 가장 최악	461
7.90	콕콕에서 연구할만한 주제들	463
7.91	모 강사 자서전(?)을 읽고	465
7.92	라이벌	468
7.93	계획을 짜는 알고리즘을 간략히 적어보자.	470
7.94	슈퍼 마리오로 설명하는 입시	472
7.95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이유	472
7.96	슈퍼 마리오로 설명하는 고수	474
7.97	통과의례	475
7.98	선택을 못 하는 이유	477
7.99	수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479
7.100	공부는 자기 좋으라 하는 겁니다.	480
7.101	재종학원이 나은 이유	482
7.102	수험은 중국무술이 아닙니다.	483
7.103	아주 흔한 수험패망의 루트	486
7.104	과외 구할 때	489
7.105	계획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음	493
7.106	데드라인	495
7.107	수학 커리	497
7.108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	498
7.109	반도의 수학교재	499
7.110	승부는 곧 결정냅니다.	501
7.111	친구나 가족 다루기	502
7.112	사설 인강 따라가고 있으면 그걸 그만둬야하느냐.	504
7.113	불행중독증	505
7.114	미래준비자	508
7.115	[수험교양 001] 장우석, ”수학멘토” & ”수학 철학에 미치다” . . .	510
7.116	입시 분석이 무의미할 수도 있는 이유	511
7.117	3평 가형문제 평	513

7.118	실력정석은 막판에 봐야 진가를 발휘	514
7.119	내신따기 힘들어진 건 사실이죠.	515
7.120	올해도 똑같네	516
7.121	수험커뮤니티는 자칫하면 사이비 종교화되기 쉽죠.	518
7.122	공부에 있어서 회독수	521
7.123	회독학습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간략히 적죠.	523
7.124	1인자와 2인자	526
7.125	몇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528
7.126	진도	530
7.127	뭔 교재 보았냐 물어보지 말고	532
7.128	집착	533
7.129	교과외적(?)인 증명과정이 필요없는 게 아닐텐데	534
7.130	잔인한 4월	537
7.131	개정수학이 개정 전 수학과 다른 것.	538
7.132	양민들을 위한 수학교재테크트리	539
7.133	올해 시험치는 분들을 위한 테크트리	543
7.134	콕콕에 자주 들어와서 공부를 못 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을 위한 과제	544
7.135	변명	545
7.136	다시 적는 인강에 대한 비판적 접근	547
7.137	수학 사교육이 학생 발목을 잡는 경우	548
7.138	국어나 영어의 스킬적 접근이 문제인 경우	549
7.139	어른들이 공부만 하라는 거	552
7.140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다.	553
7.141	왜 실패하는가	555
7.142	인터넷의 수험정보	557
7.143	수학은 결코 쉬워진 게 아님.	558
7.144	수학강의에 휘둘리는 사람들	560
7.145	[임시 공지] 6평을 치르실 분들은	561
7.146	수학교재 중간리뷰	561
7.147	6월 지나면 힘듭니다.	562

7.148 [수학교재] 풍산자 필수유형	563
7.149 모 수학교육에 관한 책을 읽어보았는데	564
7.150 더위 한방에 무너지는 공부	565
제 8 장 상담	566
8.1 [상담 001] 모범적인 사례 + 추가답변	567
8.2 [상담 002] 군대간 케이스	571
8.3 [상담 003] 강의 듣는 법	574
8.4 [상담 004] 막판정리	574
8.5 [상담 005] 탐구대비	578
8.6 [상담 006] 문과 마무리	581
8.7 [상담 007] 모범사례 분의 추가 질문	586
8.8 [상담 008] 수학 해설 비교	589
8.9 [상담 009] 패자부활전	591
8.10 [상담 009] EBS 교재, 기출, 교과서만으로 100점	594
8.11 [상담 010] 예체능의 경우	595
8.12 [상담 011] 하밀카르님의 경우	598
8.13 [상담 012] 9수생의 경우	602
8.14 [상담 013] 감기	609
8.15 [상담 014] 다시 가닥잡기 시작하는 장수생	611
8.16 [상담 015] 고학생	612
8.17 [상담 016] 디메님	615
8.18 [상담 017] 목표는 타율적인데 방법이 자율적인 케이스	618
8.19 [상담 018] 공대계열진학	620
8.20 [상담 019] 이과수학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케이스	620
8.21 [상담 019-1] 이과수학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케이스 2	622
8.22 [상담 020] 느리게 가는 법?	625
8.23 [상담 021] 자위권	628
8.24 [상담 022] 글쎄올시다.	630
8.25 [상담 023] 내년 바라봐야하는 케이스	637

8.26 [상담 024] 슬로우비디오가 필요한 경우	639
8.27 [상담 025] HOT6의 경우 : 실적내지 못 하는 건 버린다	643
8.28 [상담 026] 막연하디 막연한 목표	644

제 II 편 general 647

제 9 장 세뇌론 648

9.1 [세뇌론 001] 시작하면서	649
9.2 [세뇌론 002] 인생은 곧 세뇌	650
9.3 [세뇌론 003] 교주들의 등장	651
9.4 [세뇌론 004] 마법사들의 암약	653
9.5 [세뇌론 사례 01] 외모와 인기	655
9.6 [세뇌론 005] 모두가 세뇌당하고 싶어한다	656
9.7 [세뇌론 사례 02] 우상화, 동양사상	659
9.8 [세뇌론 006] 보잘 것 없는 운명관	664
9.9 [세뇌론 007] 원론	669
9.10 [세뇌론 008] 간단한 테크닉	672
9.11 [세뇌론 사례 03] 긍정적인 활용 : 일지	675
9.12 [세뇌론 사례 04] 나르시시즘	677
9.13 [세뇌론 사례 05] 언행일치	679
9.14 [세뇌론 009] 반복은 덮어쓰는 과정	682
9.15 [세뇌론 010] 교주와 교단이 갖춘 무기	686
9.16 [세뇌론 011] 본인이 강하지 않으면 극한으로 공부하지 말 것.	687
9.17 [세뇌론 012] 집단세뇌	689
9.18 [세뇌론 013] 분노의 에너지와 악의 저주	690

제 10 장 미래공학 692

10.1 [미래공학 001] 다보스포럼의 일자리 경고	693
10.2 [미래공학 002] 의료인의 정원통제	695
10.3 [미래공학 003] 돈의 악취	697

10.4 [미래공학 004] 인구 없는 화폐는 휴지	699
10.5 [미래공학 005] 기계와의 결합 시대	702
10.6 [미래공학 006] xx에 가라고 하는 어른들 얘기를 믿어야할까	703
10.7 [미래공학 007] 젊은이에게 빛을 지우는 사회	705
제 11 장 중2론	707
11.1 [중2론 001] 원인이냐 결과냐	708
11.2 [중2론 002] 면 산일수록 작아보인다	711
11.3 [중2론 003] 전부 아니면 꽝	713
11.4 [중2론 004] 선택은 기회비용	716
11.5 [중2론 005] 돈을 버는 방법	718
11.6 [중2론 006] 노오력은 어디까지 해야하나	722
제 12 장 헬조선	725
12.1 [헬조선 001] 로스쿨	726
12.2 [헬조선 002] 도서정가제	728
12.3 [헬조선 003] 공대의 황혼	729
12.4 [헬조선 004] 과학만능주의	730
12.5 [헬조선 005] 전문가	732
12.6 [헬조선 006] 관료주의	734
12.7 [헬조선 007] 민낯	736
12.8 [헬조선 008] 혐오발언은 계층화의 시작(메갈의 탄생)	738
12.9 [헬조선 009] 산부인과 참관문제	742
12.10 [헬조선 010] 시체팔이	743
제 13 장 etc	746
13.1 세상보는 가치관에 대한 지적	747
13.2 심심해서 쓰는 질문들	752
13.3 예쁜 자식은 매 하나	753
13.4 어머니와 아들의 싸움	755
13.5 OX	758

13.6	위대한 세기 – 코셈 술탄 1회	762
13.7	서적 : 동경대 강의록,	764
13.8	[게임] 46억년전 이야기.	765
13.9	서적 : 카지노(김진명)	766
13.10	[게임] 화이트데이 신판	767
13.11	머리가 좋은 경우	770
13.12	위대한 세기 – 코셈 술탄 2화	770
13.13	환경 얘기	774
13.14	A, B, C의 비교	777
13.15	빚개념에 대해서	779
13.16	산업공학에 관하여(초안)	780
13.17	20대를 넘기면 부모가 아니다.	781
13.18	환경 넘어서기	782
13.19	3s	784
13.20	메모 : 칭찬	785
13.21	글을 읽을 때 3가지 문장과 3가지 틀	788
13.22	자아 집착	790
13.23	평가라는 건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793
13.24	머리좋은 사람들의 꼼수	794
13.25	미래예측	796
13.26	공포게임에 등장한 참고서들	800
13.27	부모 자격	801
13.28	저녁이 있는 삶이 불가능한 이유	803
13.29	외모지상주의	804
13.30	머리가 좋다는 것의 정리	806
13.31	인간의 탐욕	808
13.32	화낼 줄 아는 법	810
13.33	공부보다 인간성이 중요하다?	811
13.34	하류교육	812
13.35	대중의 선택이 혁명한가	817

13.36 교육격차와 지리격차	820
13.37 복부인들	822
13.38 고소득층 교육비가 7.8배	825
13.39 특혜	827
13.40 혁신	828
13.41 교육비 격차 : 가축에게도 밥은 먹인다.	830
13.42 수학 과학 과잉	833
13.43 강남강북격차	834
13.44 결혼 격차	836
13.45 쉬운 수능이 격차를 더 벌였다.	837
13.46 어째서 하류가 더 막장이 되었나	841
13.47 전문가 드립	845
13.48 관계 = 돈	849
13.49 대안없는 비판	851
13.50 ”때리면서 말렸어야죠”	853
13.51 직업소득 비교가 한심한 이유	855
13.52 가격 가치	857
13.53 심리회계 – 원금을 어느 선으로 둘 것인가.	859
13.54 이미지 차크라	860
13.55 제가 느낀 10대 후반~20대 중반의 문제	862
13.56 정치적 낭만주의의 종말	864
13.57 딜레마 : 진보는 강자들에게 유리하다.	866
13.58 인공지능	869
13.59 실패를 미리 경험해보라고 하는 어른들	871
13.60 인공지능이 무서운 점.	873
13.61 메이드 로봇의 꿈이 멀지 않았다.	874
13.62 인공지능처럼 공부하면 된다.	875
13.63 인공지능 소녀 vs 아이돌	876
13.64 금융, 제조, 실업이 궁금하면	877
13.65 신용	878

13.66	M갈리안 현상	880
13.67	인공지능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	882
13.68	금수저의 시대	884
13.69	그 분들도 피해자들입니다	885
13.70	먹방이 뜨기 시작한 이유	889
13.71	그들이 원한 건 평등이 아님	890
13.72	목소리만 내면 뭔 소용이 있나	894
13.73	질적 교육	896
13.74	인공지능이 나왔으니 공부를 안 해도 된다?	898
13.75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경우는 불길하다	899
13.76	만우절 기념 폭론	900
13.77	스포츠와 게임	901
13.78	트럼프가 인기를 모으는 이유	903
13.79	성격이 급한 사람의 문제	906
13.80	혼인율 최저	908
13.81	자전 확대	911
13.82	취업과 결혼	912
13.83	롯데월드타워	914
13.84	국가 신용등급	915
13.85	[인물 vs 인물 001] 제갈량과 사마의	917
13.86	관상술과 사주팔자의 문제	919
13.87	성과 계급	922
13.88	소수자의 딜레마	924
13.89	양적축적은 질적변환을 초래한다	926
13.90	지식	928
13.91	제2의 IMF	930
13.92	목숨값 : 마이크로모트	932
13.93	역산적 사고법	936
13.94	붕괴	937
13.95	인간관계	939

13.96 커뮤니티 활성화 방법 – 자존심 상처입히기	942
13.97 고민의 절반 이상이 과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943
13.98 1년 뒤 일은 고민해보았자 무의미하다.	944
13.99 일본 로스쿨 정원미달	945
13.100 안중근 의사 논란	946
13.101 국가입장에서는 전문연 이제 해줄 이유가 없어요.	949
13.102 전문연 논란	950
13.103 남혐 여혐을 막을 필요가 없음.	952
13.104 마이크로소프트 입사시험 마지막 문제	953
13.105 그래서 남혐 여혐의 대안이?	953
13.106 [영화] 님포매니악 1, 2 (스포 주의)	955
13.107 [논란주의] 여혐 프로파간다의 이유	957
13.108 [논란경고] 여자가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권리	960
13.109 [논란경고] 한국의 치안지수	962
13.110 주식할 때 망하는 패턴 중 하나가	964
13.111 인공지능의 김대식 교수 썰	965
13.112 일본의 풍토 : 곤카쓰	968
13.113 강남역이 시사하는 것	970
13.114 그리고 떠들게 냅두지 왜 끼어드는지.	972
13.115 [만화] 보이즈온더런	974
13.116 [논란주의] 동영상	975
13.117 희생자 오빠의 반응	976
13.118 도서정가제	981
13.119 갚으면 된다	983
13.120 금전거래는 부모자식형제도 정확히 해야한다.	985
13.121 [뉴스] 올해 가장 더운 여름 확률 95%	989

제 I 편

For examinee

제 1 장

정리론

1.1 [정리론 001] 시험 때까지 하지 말아야할 것은 무엇인가.

2015.07.26

학습론이 연초에 공부 시작하는 방법과 방향을 통틀어 말한 것이라면 정리론은 이제 본 시험에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정리 겸 해서 올릴 것이고 시험 이후에 지울 것입니다.

그럼 왜 정리론이냐고 하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학습'이 아니라 정리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멘탈정리와 정신적 자세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아마 현실적인 문제풀이 및 정리에 대해서 갈 것입니다.

자, 이제 100일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학습론에서 얘기했던대로 양치기를 꾸준히 했고 EBS 스펙 따라잡았은 분들이라면 '많이들 지쳐있을 터이고', "내가 이래서 성적이 올라갈 것이긴 하느냐"하는 회의가 들겠지만 무엇보다 지쳐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여름이 되면 공부하기 매우 힘들어지고, 특히 체력 때문에 맛이 가버린다, 겨울방학 때부터 봄까지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다.

아무튼 지나간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부터 넘들이 해야하는 건 학습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학습론에서 말하는 학습이 "점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이제부터 쓰는 정리론에서 말하는 정리란 "점수를 깎아먹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을 적자면, "먼저 하지 말아야할 것"을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 첫째,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역시나 7월 정도 되어서 공포심을 매개로 마케팅을 하는 세력들도 등장합

니다. 사실 이런 상품 따라간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걸로 점수가 올라갔다면 모두가 그런 상품을 소비하겠지요. 또한 각종 사이트에서 수험생들의 마음을 흔드는 온갖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보시길. 그 중 하나라도 실제 도움되는 게 있는지. 딱 하나 도움 된다면, 공부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핑계거리 찾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수험사이트 같은 데를 방문한다면 그냥 베스트로 올라오는 낄낄거리기 좋은 막장글이나 논쟁글 보면 되는 것이지 그 외 수험정보 글은 실제로는 마케팅을 배후에 깔고 있다는 데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님들이 지금 멘탈 추스리고 시간을 투입하면 그나마 수능점수를 지킬 수도 있지만 시험보는 날까지 그런 노이즈에 좌우되면 올해도 정말로 물건너가겠고, 사람에 따라선 자기 인생에 대한 강력한 회의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 둘째, 책을 늘리지 마라.

이건 양치기를 어느 정도 했다는 걸 전제하기도 하지만, 사실 양치기가 안 된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책이든 실모든 사로잡히지 말아야합니다. 대놓고 말합니다만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 대부분은 시중교재에 나온 것 그대로입니다. 퀄러는? 새로 판촉되는 책들이든 실모든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보았던 책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회독수를 높이고, 무엇보다 내가 어떤 단원, 어떤 문제에 약한가, 주로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를 점검해보는 게 좋으며, 특히 "나노 단위로 공부해야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것 이 낫습니다.

간혹 수험사이트에 보면 참고서를 한번만 보고 집어던지면서 건방지게 문제집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좋은 학습태도가 아닐 뿐더러,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실적을 거두는지도 의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서는 5번은 보아야 제대로 보았다고 할 수 있을 뿐더러, 10

회독 이상 가면 처음에는 몰랐던 행간의 지식이 드러나게 되고 그 이후 회독수가 높아질수록 거기서 배운 지식이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이건 경험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쎈을 한번 돌려도 1등급이 안 나온다... 라는 이야기의 문제는 그 것이죠. '1번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책이든 1번만 보면 그건 제대로 공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번 돌리고 자기가 취약한 부분 빠짐없이 다시 점검하고 책 내용 구석구석을 훑어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태껏 보았던 교재들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돌리고, 틀렸던 문제나 의문이 갔던 것 또 풀어보고 자기만의 약점노트에 정리하며 - 약점노트를 만들기 싫으면 페이지를 따로 표시해서 다시 찾아볼 수 있게 색인을 만드는 것을 권합니다 - 그렇게 해서 교재 한권의 회독수를 10번 이상 만드는 데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돌리면 돌릴수록 한 겨울 302동에서 굴린 눈덩이가 사 대문을 박살내듯 님들의 지식은 미친 듯이 불어나게 됩니다.

- **셋째, 비판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걱정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은 비판은 안 합니다. 그냥 뭐가 부족한가 지적만 하겠지요. 그런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이 시점에서 근거없이 까내리거나 비난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사실 ”너 망하라”고 하는 이야기이니 짹 무시해도 좋지만, 일단 그런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재앙바이러스 감염자거든요.

실제로 수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런 사람들은 자기 친구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찡그리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속으로 고소해하면서 겉으로 위로하는 척 합니다. 하지만 더 비극적인 사실은 저런 사람들 자체가 결과가 좋은 경우가 별로 없는데다가, 그러다가는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케이스도 있단 것이죠. 저런 자살예정자들의 한마디에 휘둘려서

입시날까지 망하는 웃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귀를 씻길 바랍니다.

- **넷째, 공부환경에 있어서 돈이나 다른 자잘한 걸 생각하지 마라.**

1시간 이상 쾌적하게 집중할 수 있다면 그 1시간에 5000원을 지불하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문제이니까요. 적어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이면 지금부터 시험 보기까지 1시간은 5월 이전의 하루에 맞먹는 가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루에 10만원이면 1000만원 꼴일 것인데, 이건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가서 갚는다라고 마음먹고 그 정도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다거나 좋은 필기구를 쓰고 싶다, 고급독서실에 다니고 싶다 - 돈 생각하지말고 하길 바랍니다. 이래야만 '포기하고 싶어하는 자기 내면의 또 다른 악마'가 설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악마는 어떤 평계거리를 찾아내서 무조건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막판에는 자기 주인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걸 자기 사명으로 삼고 있죠.

- **다섯째, 시간을 날렸다 하더라도 그건 '필연적인 휴식'으로 생각할 것. 절대 낙담하지마라.**

가령 하루이틀 뺐었다면 그건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나가야 할 '세금'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한여름이면 일주일에 하루이틀 정도 그러는 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꽤 넘치 말고 지금부터 형식 구애 안 받고 '그동안 풀었던 교재들'을 정리하는 즐거움을 삼길 바랍니다. 시험 당일날 문제가 되는 건 문제를 못 풀어서가 아니라, 가령 그ㄴㄷ 선지가 있는데 한 단어나 짐작어 한 글자 차이로 헷갈리는 것. 그 1인치의 차이 때문이라는 걸 상상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다섯가지만 지키더라도 많은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 [정리론 002] 문제를 풀고 정리한다의 의미.

2015.07.26

1. 단순히 답만 맞춘다
2. 해설을 읽고 이해한다.
3. 각 선지에 대한 해설을 모두 기억하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다.
4. 자기가 보았던 기본서나 강의까지 덧붙여 그 해설들을 평하고 보강할 수 있다.
5. 새로운 해설을 만들 수 있다.

보통 공부했다고 한다는 게 1, 2번에서만 그치는 게 문제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3번부터 출발해야 하며 지금부터 시작해야하는 정리론에 따르면 5번 경지까지 이를 수 있어야합니다. 새로운 해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새로운 문제를 보고 즉석에서 해설을 만들 수 있으니, 그만큼 정답률이 높아지겠지요.

또한 기출 정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 기출에 대해서도 자기가 직접 해설을 쓸 수 있도록 그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개념정리를 해야합니다. 그것도 자기의 학습 스타일과 주로 하는 실수패턴으로 말이지요. 가령 그림에 강한 친구라면 기존 해설을 '그림'으로 고쳐서 생각,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반면 논리가 강한 친구라면 그림 해설조차도 논리적 명제로 환원시켜 정리할 수 있어야겠지요.

눈치빠른 친구들은 파악할 겁니다. 예, 저렇게 하면 지금 절대시화되는 강의라는 건 정말 보조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강의는 강사 편의적으로

재해석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정리하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무기를 갖고 닦고 탄환을 넉넉히 준비해나가는 것입니다. 학습량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풀어보아야 많은 오답이 나오고 많은 오답이 나와야 자기 문제를 더 많이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양치기하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양치기를 해야 ”나 자신의 공부가 어디서 문제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해야합니다. 100문제 중에서 오답이 30개라면, 1번 정리해서 15개로, 2번 정리해서 5개로, 3번 정리해서 2개로. 이런 식으로 줄여서 자기가 틀리거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고, 왜 틀렸는지 철저히 반성문을 쓰고 파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출된 순도 100%의 자기 약점을 커버해줄 수 있는 부분만 다른 교재를 발췌해 보거나 EBS 인강을 발췌해서 듣습니다. 하다 못해 콕콕에서 그런 걸로 질문하고 토론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입니다.

웃긴 것이 겨울방학 때 수험사이트에서 놀다가 여름에 와서 뒤팡게 학습량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또 이러면 이러는데로 망합니다. 저는 분명 겨울방학 때부터 봄까지 양치기하라고 했지, 늦여름까지 질질 끌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학습량을 막 늘리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이제는 정리를 제대로 해야할 시기이고, 사실 지금부터 출발해도 정리가 늦습니다. 굳이 학습량을 늘리고 싶으면 저런 정리를 꼼꼼히 한 후 자기 약점을 파악한 뒤, 그 약점에 해당하는 부분만 드릴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설령한 농담입니다만 양치기를 했으면 이제 양의 텔을 깎아야하지요.

1.3 [정리론 003] 단권화에 대하여

2015.07.27

현실적인 단권화

”한권으로 몰아넣는다”

”자기가 익숙하고 가필하기 쉬운 책을 중심으로 핵심정보 인덱스만 적어나간다”

단권화를 시중 기본서로 할 것인지 교과서로 할 것인지 해설 풍부한 기출 문제집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모의고사집으로 할 것인지는 자기 마음입니다만. 보통 중하위권이면 EBS 중심으로 가시게 되시겠지요.

보통 단권화라함은 온갖 잡다한 것을 다 알고있어야하는 고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과거'에 쓰던 작업입니다. 각 교재마다 서로 부족하거나 잘못된 기술이 있으니 그걸 바로 잡아서 한권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 이거야말로 진정 한권으로 완성한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마케팅을 위해서 제목만 그럴싸하게 붙인 게 아니라 - 하지만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곧 사라지는 고시든 공무원 시험이든 나오는 기본서가 이미 단권화된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나올 겁니다. 수능은 사고력 테스트인데 단권화가 필요한가.

단권화할 대상을 바꿔 말하면 되겠지요. 그건 겨울방학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확인하고 정리한 스스로의 '약점'들입니다. 잘 이해하지 못한 개념이라거나 틀린 문제 등을 빨간펜 처리하면서 개념 - 기본문제 - 기출 - 변형문제 - 고급문제 - 논술급 문제의 연계관계까지 잘 고려해서 자기가 약하거나 잘 모르는 것, 혹은 출제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리해서 손에 익은 교재에 가필하거나 다른 문제집 문항이나 기출문항을 표시하고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그것이 훌륭한 단권화입니다. 책 이것저것 다 필기할 필요 없이, "자기가 정말 모르거나 약한 부분"만 추려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대상은 자기에게 손이 익은 것으로 해야합니다. 수능 시험장에 가져갈 것으로 정한 다음 거기다 적어두면 되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주 보는 교재 중심으로 해야합니다.

그렇게 단권화를 시키다보면 1차원적으로 쓰여져 있는 개념이나 기본문제

를 스스로 변형하거나 재창조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내가 출제자라면 어디서 까다롭게 낼까를 생각해보게 될 것이고, 그런 출제자의 마인드를 흉내낼 수 있게 되면 이것이 점수 향상으로 이어지죠.

정리할 때는 막연히 보기보다는 서브노트를 만들던가 단권화를 하든가 해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요리할까라고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맞게 어떻게 대처할까 게임하는 기분으로 전략을 짜야합니다. 님들이 학원이나 인강에서 시시콜콜 적어주는 필기는 사실 별 소용이 없습니다(대부분은 시중 두꺼운 기본서에 있거나 스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약점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만큼은 반드시 기록하고 정리해야 합니다(그 점에서 족족 일지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요)

중요한 것을 추리는 건 8:2 파레토의 법칙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리과정을 밟으면서 그동안 공부한 것 중에 자기에게 크리티컬한 20%를 찾아 그걸 반복할 것이며 그 20%에서 또 20%를 추려내는 식의 등비수열적인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 국어

- 문법서 : 아무거나 한권 제대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 문학, 비문학독해 : 스스로 글을 읽고 사고하는 법을 정리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수학 - 시중교재 어떤 것이든 좋으나, 자기가 빈번하게 까먹거나 약한 공식, 개념, 스킬, 그리고 특정문제만 따로 정리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 영어 - 영문법 중 정말 취약한 20%만 추려서 보실 것, 그리고 역시 EBS에서 중요한 것만 추려서 보실 것.

- 탐구 - 시중 기본서, EBS, 그리고 사설을 다 돌린 뒤 중요한 것만 자기가 손에 익은 책에 가필해두는 게 좋으시겠죠

정리과정은 양치기보다도 힘든 겁니다. 양치기가 점수의 외연을 넓히는 과정이라면 - 즉 마그마가 분출해 용암으로 흐른다면 정리는 그 용암이 굳어져서 산이나 고지대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치기를 그동안 안 하시고 왜 지금까지 하시느냐라고 여쭙는 건 좀 잔인한 짓이긴 한데 잊지는 마시길. 양치기한만큼 정리해야할 것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만약 양치기를 많이 했고 정리도 그만큼 했다면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양치기를 못 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양치기 끌고가면 '공부는 했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게 당연해집니다. 정리를 못 했으니까요. 즉, 정리없는 양치기는 소용없단 것입니다. 목표한 것의 1/3 정도 밖에 못 했다면, 그 1/3을 먼저 '정리'하는 게 8월부터 취해야 할 과정입니다.

적어도 스케줄에 있어서는 뒷북 안 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 충고대로 해서 손해보는 일은 적을 겁니다. 아울러 9평의 경우도 몇등급 나왔느냐보다도, 철저히 오답정리를 해서 단권화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1.4 [정리론 004] 수능점수시즌과 추석

2015.07.27

12월달부터 꾸준히 하라는대로 공부한 사람들이면 드라마틱한 변곡점을 겪기 마련인데 그 시기가 바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입니다. 수험 생활을 잘 꾸려오던 여학생들이 체력 때문에 무너지고, 반면 곰팅이 같은 남학생들이 반복학습으로 치고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하죠.

11월달까지 본의아닌 불연속점을 최소 2개 이상은 거치게 되어있으니 하나는 수능점수, 다른 하나는 추석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아무개는 어디 추천받았더라, 지균 전형 TO 먹었다다더라, 누구는 그냥 재수한다더라하는 노이즈 속에서 공부한 것은 없는데 벌써 점수야, 수능 응시일이 한달만 늦춰졌으면 좋겠다라고들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가 권하는 건 간단합니다. 자기가 가는 응시전형만 바라보고 남들이 뭐라하건 그건 일체무시하십시오.

그런데 유별나게 신경써야하는 건 바로 추석이온데 고향에 내려가야한다 부모님 도와야한다 그러겠지만, 이건 지금부터라도 부모님께 확약받아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돌리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시골에 내려가야한다거나 내려가지 않더라도 집안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 "열외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강조하고 확인받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 때 어디가서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도 미리 잡아두고 뭘 공부할 것인가 - 문제집을 정리할 건가 파이날 강의를 들을 건가 이런 것을 미리 스케줄 잡아놓아야 추석 때문에 말아먹는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시학원이라면 이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 역시 미리 준비하십시오)

헛된 희망 중 하나가 그동안 공부 못 한 걸 추석 때 다 해소할 수 있다하는 건데 현실은 하루만 놀자 하다가 결국 끝까지 탱자탱자 놀아먹고 더 좌절해버리는 비극이지요. 저런 준비를 안 한다면, 차라리 추석 전까지 밤새면서 미친 듯이 공부하고 추석 때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즉, 정말 지금부터 추석을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스케줄 세우고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용하든가, 아니면 추석 전까지 체력 잡아먹으면서 하루 3~4시간 자고 카페인 음료 마시면서 공부하고 추석 연휴동안 힐링하든가.

저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아, 추석에 공부해야지"라고 해보았자 절대 안 합니다. 그거 할 사람이었으면 이미 지금 해야할 공부 다 마쳤죠.

1.5 [정리론 005] 회독수

2015.07.29

똑같은 시간을 할당한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독서는?

a - 밑줄 그으면서 책을 정독한다

b - 메모해나가면서 읽는다

c - 빨리 10번 읽는다

어떤 것이 효과적인 공부법인가?

a - 노트필기를 한다.

b - 인강을 듣는다

c - 백지에 써본다.

정답은 캠퍼스 커플.

수험공부는 백지를 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못 하더라도 이끌어내는 능력에 좌우된다. 이걸 요약하면 ”백지인출력”이라고 하겠는데 사실 깊은 이해 이든 어떤 신박한 암기든, 저 백지인출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냄새나는 시험지를 받아보면 한문항을 볼 때마다 자기가 공부 한 것들을 ’짜임새있게 인출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독서법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사례나 직접 임상실험(?)시켜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밑줄도 형광펜도 심지어 노트필기도 ”그냥 많이 반복해서 읽는 것”을 못 따라간다는 것. 당연히 반복해 읽는다는 것은 그에 따른 문제풀이나 백지에 서술형 요약문 써보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좋은데 아무튼 밑줄은 100줄 당 한줄, 형광펜은 한쪽에 한 단어 정도면 족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면 책갈피에 페이지 표시하고 키워드 적으면 되고 그 외는 그냥 부지런히 읽고, 소리내어 읽어서 남들이 3번 읽으면 난 30번 읽는다는 걸 실천에 옮기는 게 ’반박할 수 없는 공부법’이 아닐까.

그런데 재밌는 건 하라는 양치기를 안했던 사람들이 하필 이제 와서 양치기를 시작하며(...) 더군다나 실모라든지 요약교재 같은 것을 마구 추가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것 떠나서 이거 타이밍이 정말 안 맞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풀이를

처음에 많이 해보고, 그렇게 약점파악을 한 후, 그 다음에 개념서를 더 자세히 반복해 보면서 숙달한다가 좋은 게 아닐까. 지금부터 해야하는 것은 자기가 풀었던 문제집 다시 훑고 그 회독수를 늘려나가면서 그래도 모자라면 교재를 추가하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양치기 하면 안 되어요하다간 정말 날라가버릴 수가 있다(왜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뒤늦게 하는지)

지금까지 그래도 꾸준히 해서 기본서 한권이 제대로 숙달되어 있다면, 그 기본서를 이틀이나 사흘에 한번씩 돌리면서 계속 가필하고 참조할 것 색인번호 적는 식으로 단권화하면서 자기가 틀리거나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설을 만들어보는 게 지금부터 해야할 일이다. 뒤늦게 양치기하는 애들은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 못 하다가 나중에는 양에 못 이겨서 넉다운당한다. 이와 달리 여러분들이 하셔야하는 것은 이제 옥석경증을 가리고 보았던 교재 다시 반복해보면서 숙달을 하는 것이고 어느 과목이든 매우 어렵다고 느껴지던 기출문제의 풀이를 기본교재 어디서 '추론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 머리를 굴려 사고해보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안 하면 킬러를 푸는 풀이는 자칭 고수들이 독점하고 있으니 그런 것을 비싼 돈 주고 강의를 들을까 교재를 살까 낚이게 되는 것이다.

중하위권 기준으로 보자면 EBS 수특 수완은 10회독 이상할 것. 9번이면 어떻고 8번이면 어떻느냐, 그건 해보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이다. 특히 수학의 경우는 기본 개념, 공식, 관련 정의는 정말 여러번 백지에 따라써서 마치 정확한 영어대사처럼 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영어나 탐구는 뭐. EBS 교재는 매일 하루에 돌려서 시험 전날에는 달달 외우고 있다... 는 건 기본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1.6 [정리론 006] 친구

2015.07.30

유명한 만화 ”쥐” 첫장면.

수험에 있어서 서로 격려해주는 친구는 ”나보다 못 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너무 월등해 내가 얻어먹을 게 많다” 이외에는 사실 없다고 봐도 좋다. 왜 이리 인생을 비관적으로 사세요라는 지적이 먼저 들리니까 얘기하지만 그런 지적한 녀석들이 100% 다 나중에 비관주의로 전향하더라는 개인적 경험, 그리고 이건 절대 과거완료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여담이지만 친구관계가 오래가기 위한 비결은 3가지

첫째 , 금전적인 것은 아예 언급을 피한다

둘째 , 가능하면 ’덜’ 만난다.

셋째 , 서로 일하는 분야가 ’꼬인’ 관계다.

앞으로 수험생들은 수능날까지 적지 않은 noise에 시달릴 것이다. 하나는 수험생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cash에나 관심이 많은 장삿꾼들이 발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험에 투자한 부모님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초보투기꾼 간섭을 하신다거나, 주변 친구들이 격려를 가장한 악담을 퍼붓는 것이다.

실제로 자기 친구가 너무 스펙이 좋아서 내가 뭘 빨아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계산이 아니라면 자기 친구가 좋은 대학에 간다라는 건, 설사 내가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기분나쁜 일인 것은 틀림없다. 그게 왜 그럴까 묻는다는 건 동물의 본성을 이성적으로 풀이하겠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 관점을 바꿔 말하면 어느 정도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한, 친구에게 수험 이야기를 주고받는 건 어리석은 짓이란 얘기다.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드는데 왜 상호격려를 못 하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괜히 사촌이 땅 사면 대장항문외과에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사실 수험사이트에 가서 시험 경향이 어떤지 자기가 몇등급인지 그런 것 따질 필요가 없다. 시험 경향을 수험사이트에서 적중시킨 경우는 별로 없고(게다가 적중시킨 경우라고 하더라도 바넘효과스러운 애매모호한 이야기) 자기가 몇등급이냐 그런 것 따질 시간에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등급을 높이는 게

낫다. 그럼 3등급이면 만족하고 공부를 중단하고 1등급이면 평평 놀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더욱 중시해야하는 건 '친구'라고 여겼던 애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 특히 그들의 언어가 비수로써 자신의 수험을 좌지우지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인데 그들이 격려를 가장한 악담을 하는 경우라면 그냥 "너나 잘 하세요"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대꾸해주는 것이 좋다. 사실이 경우라면 험한 말을 해도 좋다고 보는 게, 그런 식으로 간사하게 공격하는 녀석은 정면돌파로 대처해주는 게 가장 낫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서 진심이 드러난 이상, 이 녀석은 영 안 되겠어라는 경우는 "절교"까지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친구가 없어서 꼬인 삶보다는 친구를 가장한 좋지 않은 인연에 꼬여서 망한 삶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아무튼 정리에 들어간 수험생들은 외부로부터의 신호라는 것을 수능날까지 더욱 더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도움되는 정보, 그딴 건 아무 것도 없다. 만약 특정과목이 ~하게 나온다라는 정보가 공개된다? 그럼 그 정보는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쓸모가 없는 것이다. 혹시 매우 좋은 교재가 있지 않을까요? 저자 능력도 의심스러운데 마케팅만 해댄 비싼 책들이 적중한 적은 역시 단 한번도 없다. 수능에서 실점하는 문제들은 모두 시중교재를 수회독씩 하고 정리하다보면 도출해낼 수 있는 것들이다.

수험에 유의미한 signal은 봄부터 같이 해와서 내 손때가 탄 교재에만 있다 는 걸 명심하면 된다.

1.7 [정리론 007] 광신

2015.07.30

수험과 투자의 공통점은 많지만 그 중 하나는 "피리부는 사나이를 쫓아다니는 풍토".

수험과 투자는 공통적으로 정보비대칭성이 잠재돼있다. 그래서 과학적 접근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뭔가 수상쩍은 사람의 말과 글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 이 글도 비슷한 범주에 들지 않을까 싶으니 읽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걸러 읽으시길 바란다 -

인강 강사나 교재 저자는 절대 교주가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모든 컨텐츠 생산자들은 사실 혹독한 비판을 받고 그걸 넘어섬으로써 고객을 만족시켜 먹고사는 것이고 이게 당연하다. 하지만 시장은 비이성적인 광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공포심이 좌우하기 좋은 수험계일수록 이게 심하다. 특정 강사나 특정 저자를 맹신하고 심지어 팬덤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공포심**”을 가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당신은 100년 안에 뛰어집니다라는 예언을 듣고 그 점술가나 무당에게 수천, 수억원을 펴다주듯이 말이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라면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인지부조화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 상대가 아무 것도 아닌데다가 내놓는 것도 형편없고 거기다가 자기가 속은 사실까지 확인되어도 그 대상에 대한 맹신이 압도적인 나머지, 그 맹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식’이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누군가의 음모라고 모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소수가 아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유리 수라면, 저런 맹신도 혹은 그런 예비맹신도들은 초월수이다. - 중간 퀴즈 : 유리 수와 초월수 중 어느게 많을까?

여기서부터는 민감한 이야기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니면 글이 재미가 없으므로 쓸 필요가 없다는 변명. 공부경력이 없는 고3과 짬밥있는 n수 중 어느 쪽이 희망적이냐하고 하겠냐면 난 당연히 ’영계’를 고른다 그건 젊어서도 힘이 좋아서도 아니다. 그냥 고3들은 최소한 ”맹신”에 타락했을 확률이 낮다. 그런데 n수 이상부터는 본인들은 부정하겠지만, 적어도 내 입장에서 보자면 ”낙방”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계획과 행동을 냉정하게 하는 것은 이미 물건너갔고, 오히려 어떤 객관성이나 확률을 가장한 **일종의 맹신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맹신 증세를 보이지 않는 냉정한 사람이라면 우선

기출분석을 냉정하게 일주일만에 끝낼 것이고 그 문제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교과서 문제집 등을 확인해보고 자기 약점이 무엇인가 따진 뒤 그에 해당하는 것만 공부하지 아무개 강사가 좋다더라 어떤 야매책 꼭 봐야한다더라는 '노이즈' 같은 건 그냥 차단해버릴 것이다. 노이즈를 차단하고 자기가 정한 커리를 뚝심 있게 밀고나간 뒤 그 다음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약점파악한 후 그 때 그 때 건전한 대책을 만들 것이다. 사실 저거야말로 '가장' 쉬운 것이고, 그리고 공부시간을 많이 확보하며 집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다수의 n수생들이 보이는 경향은 "특정상품"에 대한 맹신을 보여준다. - 그게 여기 주인장님이 내신 교재라고 할지라도 예외없는 건 당연하다 - 아무개 강의를 들어야 한다거나 모 교재만 보면 된다거나 하면서 1년의 절반을 오락가락 노이즈에 좌우되어 허송세월한다. 그러니 처음에는 반짝 하지만 성과가 나올 리가 없다. 그리고 자기 공부 기준은 이미 날려먹어서 제조업 사업 망한 그리스나 똑같다. 그래서 여름이 되어서야 이제 양치기를 해볼까 하는데 또 되는 게 없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또 다시 '한권'에 올인해보자라면서 수상쩍은 교재나 인강에'만' 의존한다 - 그리고 자기의 문제점이 뭔지 바로잡지 못 한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저 맹신은 3~4년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심하면 10년 이상도 간다는 얘기다.

구소련이나 나치독일이나 북한에서 포로들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이거라든가

- 24시간 빛이 안 드는 곳에 가둬버린다.
- 3일 내내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 구덩이를 파게 한다. 또 메꾸게 한다. 다시 파게한다. 또 메꾸게 한다.

고작 수능시험에 2~3번 실패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사실상 그로써 계슈탈트 붕괴까지 이르는 경험을 2~3년간 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날려버린 세월을 한번에 보상받아야겠다는 초조함이 오히려 정상적인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

러다보니 그들이 xxx 최고예요라고 하는 신도로 전락하는 건 일이 아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신도로 만들어 돈, 노동력, 심지어 몸과 자녀들까지 갈취해먹는 방법이기도 하다.

재밌는 건 그 맹신도들이 이런 글을 보면 절대로 자기들이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강한 거부감이나 공격을 드러낸다. 왜냐면 진실을 인정하는 건 "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건 '세뇌된' 캐 이스라고 할 수 있는 바인데, 이건 정말 어지간해서는 풀리기 어렵다. 그렇다고 내가 당사자에게 "너 세뇌되었어"라고 해보았자 칼맞지 않겠나.

이와 관련해 또 재밌는 경험을 적으면 그렇다. 상대가 나에게 어떡하냐고 물어본다 나는 ~ 하라고 가르쳐준다(그건 너무 상식적이고 사실 너무 당연해서이다) 상대는 ~ 보면 안 되느냐, ~ 하면 안 되느냐라고 반문한다. 나는 다시 반론하면서 ~ 는 ~ 해서 문제고 ~는 ~ 해서 그렇다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결론은? 10명이 물어보면 결국 8명은 자기 하고싶은대로 하더라는 것. 그럼 애당초 왜 질문을 던진단 말인가. 아니, 그런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것이다. 자기 방법이 '옳다'라고 지지를 얻고 싶었던 것이다. 그건 그 사람이 자기 방법이 타당한가 아닌가 그런 건 관심없이, 자기 방법을 '믿음'의 영역에 두고 있단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수험 방법이 비판, 비난당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못 한다. 가령 야매교재를 보는 사람이 건전하다면 그 야매교재의 문제점이 지적되면 그 점을 감안해 보완하려고 하는 게 맞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야매교재 왜 까나요 하면서 키배를 벌이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수험의 결과이고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걸 바로잡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왜 까나요라고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재밌는 건 이런 사람들도 타 교재를 까거나 그런 흐름에 동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위와 비슷한 이야기는 학습론으로 작년 말 정도에 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 이후로 쭉 관찰하고 보았지만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으로 안다. 잔인한

지적을 하자면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자기 인생이 어떻게 풀리느냐가 아니라, 현재 이 상태의 '자존심'이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신경쓰고 싶지않아 부모님이 다 해줄거야. 하지만 내 자존심에 상처입히지마!

1.8 [정리론 008] 투자자 마인드 1

2015.07.31

퀴즈

2개의 문제집이 있다. A는 3년간 이의제기도 없고 오탈자가 발견된 적도 없다. 그리고 그걸 푸는 사람들은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B는 꼭 특정단원에서 무리수를 두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특정단원만 갈 때마다 가필이나 수정을 해야한다는 악평이 있다. 단 B도 끈 사람들이 합격하는 경향이 있다. 이 중 한권을 골라야한다면 어느 것을 고르겠는가.

만약 당신이 평범한 수험생이라면 A를 당연히 고르는 것이다. B를 고르는 건 미친 짓이기 때문이다. A 문제집은 특히 '우등생'을 좋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자면 우등생 문제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대국적 관점을 보는 투자자라면 다르다. 나도 그렇지만 B를 선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B가 특정단원에서 무리수를 두는 경향이 있으며, 가필과 수정을 해야한다는 리스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고있는 리스크인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다.

반면 A는 어떤가.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그런 상태가 계속 보장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경우 특정시험에서 A를 본 친구들이 아작이 나버리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도 문제제기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치러질 시험이 A의 약점을 겨냥한 것이면 A만 믿고 가는 사람들은 크리티컬을 제대로 먹게 되어있다.

고3들은 그래도 학교나 부모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받는다. 기대수익(=기

대점수)은 낮을지라도 변동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n수 이상들의 문제는 아래에서 지적한 대로 일종의 종교를 믿는 경향도 있지만 자기들이 응당 해야하는 리스크 관리를 '안 한다'라는 문제가 있다. 리스크 관리를 안 하면서 점수만 높이려고 한다.

투자자의 목표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얼마나 리스크를 줄이느냐이다.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 투자액 전체가 제로, 심지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다. 1년동안 모든 것을 투자하는 수험생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줄일까 고민해야하고 자기가 실제 시험에서 감점당하는 부분이 어디일까 하는 것들을 추려서 이걸 공략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열심히만 공부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부는 노동이지만, 시험은 도박이자 투기장에 가깝다. 노동을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해 주는가? 갑이라는 애는 평균 10개 정도 틀리는 녀석이다. +-1개이다. 을이라는 애는 평균 5개 정도만 틀린다. 그런데 +-20개 - 즉 만점권 아니면 25개까지 틀리는 녀석이다.

계속 실패하는 n수생들은 '을'의 입장이 많다.

정리론의 핵심은 기대점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명심하자. 물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고2 이하라면 리스크는 신경 쓰지 않고 기대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양치기를 해야한다. 그러나 올해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리스크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다는 경고를 해야겠지만.

각설하고 강의든 교재든 현재 선택한다면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고 그렇다면 찬양되는 것보다는, '해결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을 고르는 것이 사실은 현명한 것이다. 만약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꾼, 즉 리스크를 신경쓰지 않고 질러서 고수익, 즉 고점수를 원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상품 - 그것도 생각없는 사람들의 찬양성 댓글이 달린 것들

로 가도 좋다. 하지만 망하면 그건 본인 책임임을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다.

1.9 [정리론 009] 투자자 마인드 2

2015.08.01

콕콕 수험생 A와 B가 똑같이 오답갯수 -5로 목표를 잡고 수험에 몰두했다.

그리고 실제로 모의시험을 친 결과 A는 1개를 틀렸고 B는 4개를 틀렸다.

저번 글을 읽은 사람은 ”또 B를 예찬하려고 그러지요”라고 그럴 것이다. 그리고 뜰뜰한 사람은 ”얼마나 목표에 접근했느냐 하는 오차를 가지고 얘기하려 하지요”라고 선수를 칠 것이다.

자, 그럼 부연 설명을 하자. 만약 이게 본 시험이라면 승자는 무조건 A다. 어찌되었든 시험은 고득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원하는 대학만 들어가면 장땡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점수라는 건 본인의 ”실력”(평균)에다가 ”운세”(편차)가 더 해진 결과란 사실이다.

그렇다면 모의평가로만 보자면 당연히 B 쪽이 더 안정적이다. 이 경우는 본인의 약점을 분명히 짚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시험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 글 보고 찔리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3평부터 뽕맞고 그 다음 해롱해롱한 사람이 어디 한두명이겠는가.

”만점을 받겠다”라는 포부와 ”시험에서 4개 정도 틀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진술은 병치가능하다. 목표는 높을 수록 좋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게 지적해야 한다. 자기 현실에 냉정해질수록 본 시험에서 ’운세’ - 즉 변동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더 많은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실제 시험은 자기 실력대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시험에서 행운과 불운은 둘 다 경험한다. 운이

좋아서 5개를 더 많이 맞는다 치자, 다만 운이 나빠서 6개를 틀려서 -1개가 되는 것이다. 행운을 늘릴 수는 없다. 그건 평소에 대머리 아재에게 예의바르게 굴었는가 하는 선행이 좌우할지는 모르지만 이건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본인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침착하게 집중하고 자기가 취약하거나 잘 낚인다고 하는 분야 준비를 한다면 실점을 막을 수는 있다.

많은 수험생들이 킬러에 '만' 긴장을 한다. 그리고 킬러에서 득점하고 자기가 취약한 비킬러에서 실점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론에서 강조하는 것이 가능하면 일찍, 많이 공부하고 양치기해서 스노우볼 효과를 노려 평균을 높이라는 것이며 정리론에서 강조하는 건 시험 당일의 '변동'을 가능하면 플러스로 유지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쭉 정리해나가면서 실제 시험에서 자기가 털리거나 실수하는 '단원', '패턴' 등을 정리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나 사고패턴을 고치고 그 단원에서 긴장하고 주의하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실점을 철저히 막아야하는 것이다.

앞에서 든 예시대로지만 본인이 고수가 되는 건 '만점 받을 거야'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문제를 푸면 정답율이 얼마일지 몇개를 틀릴지, 그리고 다 푸는 데 얼마나 소요하는지 개략적으로 예측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1.10 [정리론 010] 인강듣기 수준이 위험한 경우.

2015.08.01

인트로

만약 '인강'을 듣지 않으면 공부가 아예 안 된다 수준이면. 이건 학습이 문제가 아니라, "세뇌" 된 것을 걱정해야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알고싶다 같은 데 보면 교주나 무속인이 호화사치를 부리거나 섹스 스캔들이 있어도 거기에 낚인 호구피해자들이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속아넘어간' 것 이상이 아닙니다. "세뇌되어서" 그런 것이죠.

세상을 보고 읽는 틀을 넘어 생각하는 방법부터 문제푸는 것까지 '강사'에게 의존하는 것을 지속하다보니 강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원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보이는데) 그 강사는 학생에게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비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쳐도 무의식적으로는 그렇게 반복 자극을 받으면서 그 강사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에 돌입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학습에 도움이 되느냐. 그건 실적을 봐야하겠지만 꽤 회의적인 면도 많습니다. 점수가 오른다고 쳐도 그게 '세뇌된 것'에만 이끌려나온 것이라면 그 점수가 오래 갈 리도 의문이고 본인 멘탈은 안전할 것인가. 똑같은 강의라고 쳐도, 위 cowboy bebop brain scratch 에피소드에 나오듯이 그게 TV 화면의 형태를 띠면 무시무시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게 EBS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고요? 강사 카리스마가 그나마 '덜' 발휘되니까요. 카리스마가 덜 발휘되고 교육 내용 전달에 집중하니까 재미는 없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더욱 안전한 것이죠. 거기다가 '부분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강사의 커리 끝까지 따라가서 거기에 물드는 것은 아무래도 덜 하다는 점도 있죠.

만약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인강은 단지 보조도구일 뿐이야, 스스로 개념서 읽고 문제풀이 알아서 만들어 푼다 하면 별 걱정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생각 외로 '인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넘어 금단현상까지 겪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 본인은 모르겠지만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증발되어버리고 나중에는 인강을 안 들으면 아예 공부가 안 되고 마음도 휘청거립니다.

뜬금없지만 중세가 날라가고 근대가 시작되는 전환의 변화를 보면 구어가 문어로 바뀌고 말씀이 서적으로 교체될 때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쇄술 발달로 책이 보급되었다는 건, 각 개인이 혼자 책을 차분히 읽고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보니까 다시 '말씀이 책'을 앞섭니다. 다시 신중세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길 정도지요.

1.11 [정리론 011] 공부를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건 아닌 듯요.

2015.08.03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라는 건 아무리 보아도 ’거짓 말’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온라인에서는 일지, 그리고 오프에서는 공부량 비교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해당 과목을 못 하는 건 엄밀히 학습량 추적해보고 어떤 참고서 몇회독했느냐 따져보면 거의 예외없이 일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최소한 어느 과목이든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본과 패턴 5회독 이상은 분명히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판에 낼 수 있다.
- 그런데 보통 어떤 책을 보았다고 하는 경우, **딱 한번만 보거나 인강만 듣고 가필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패턴은 지겹게 확인되거나 무엇보다 공부량에 대해서 각자 기준이 너무 다른데 평범한 학생이 교재 2권에 한 3번 돌리는 걸 기준으로 하면, 잘 하는 애들은 교재 8권에 4번은 돌린다... 라는 재미없는 사실이 너무 잘 드러납니다. 그게 꼭 교재 8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신 회독수가 높거나, 다른 강의를 많이 들어서 그런 효과를 낸다거나.

5등급 정도의 하위권이 자신감을 가지려면 최소 3회독을 해야합니다. 아래 야 뭔가 ’겨우 알 수 있다’ 정도이고 5회독 이상은 가야지 그럭저럭 2~3등급 수준으로 풀 수 있고, 그 이후 해야하는 공부량은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교육을 받거나 공부훈육을 잘 받은 경우는 틀이 잘 잡혀 있어 효율적이지만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는 정말 20회독을 해야 99%는 보장되지 않느냐... 라는 것은 아마 부정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냉정히 지적하면 올해 시험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서 좌절하는 케이스도 많을 것인데 이 경우 다들 본인들이 프라이드 문제가 걸리고 아픈 상처 왜 후비느냐할지 모르지만 미래를 향해서는 분석 들어가야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결국 원인이 분명히 나온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만약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시험 끝난 뒤 일주일만에 다시 미친 듯이 시작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11월달부터 시작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의 차이가 사실 과장해 말하면 20배 차이 는 난다고봅니다(...)

작년말부터 올초부터 쭉 정리해보지만, 사실 안 되는 분들은 교재 문제도 학원 문제도 아닙니다.

- 첫째로 충고를 안 드는 경향이 있어요. 뭐 제 충고가 신뢰성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 그런데 안 들어서 지금 후회하는 사람 계시죠?
- 둘째로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이 오면 바로 포기하고 밖으로 도는 게 있습니다. 이거 공통적으로 확인된 케이스입니다.
- 셋째로 지나치게 공부에 있어서 타율적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는 명문대 합격자들은 '자율적'인 경향이 강한데 말이지요.

사실 제가 관여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만약 내년에도 콕콕이 수험정보사이트로 명맥유지하고 있다면 허혁재님이나 기타 분들이 어떻게 스터디 조직 잘 꾸리시든지 감시망 조직 만들든지 해서 최소 30일간은 정말 특훈시키는 그런 것을 좀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제안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실패할 거라고 보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사실 저런 스파르타식 특훈을 거쳐서 본인의 벽을 넘어섰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 이거 일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더군요. 일지를 읽어보거나 상담해보면서 느낀 건 정말 분신이라도 보내서(...) 사정없이 아주일이라도 후려잡고 싶다 생각도 들더라능.

아, 그리고 잊기 전에 적으면 아마도 학습일지나 콕콕일지도 결과는 '꾸준히 한 분이 잘 나올 거다'라는 상식적이지만 이게 꼭 이변으로 들리는 쪽에 걸겠습

니다. 지금부터 11월까지 꾸준히 하는 분들이라면 - 이제 정리모드 잘 들어가서 단점 잡은 분이라면 좋은 성과 나올 거예요.

1.12 [정리론 012] 채팅방의 콕콕충

2015.08.04

게시글을 가장한 광고글도 올라오지 않는 K 모 사이트가 있었다. 어느 날 챗방에 콕콕충들이 번식하기 시작했다 그 우두머리 H씨의 스캔들이 터지면서 H씨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안티들이 이제 발 뻗고 누워잘 수 있다 등장한 것이다. 콕콕충들은 분열해서 1분만에 그 수가 2배씩 늘어났다. 10분이 지나자 최대 인원의 절반까지 번식했다. 이 채팅창 인원이 꽉 차서 방이 터질 때까지는 몇분이 걸릴까?

(가짜)정답 : 20분.

페이크다 병신들아 진짜 정답은 11분이지.

이것도 못 맞추냐.

햄스터로 위를 긁어본 다음에 아래 글을 읽어보자.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수일 수 있으나 작년 말부터 소감을 보면 그렇다. 성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의 원래 위치보다 나아졌다 보는 케이스는 11월달부터 어떻게든 공부한 케이스고 그거 안 하고 2, 3월부터 공부한 사람들인 내가 보기에는 실력 향상이 그리 크지 않다. 나는 충고만 했을 뿐인데 왜 5월달에 공부가 끝나냐고 이의제기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원하는 건 장사가 아니라 '최적의 시스템' 찾기. 물론 이 최적의 시스템은 장사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최적의 시스템을 찾는다면 이건 수험말고 다른 데에서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왜 5월 이후의 공부는 극단적으로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걸까.

그건 복리효과 때문이다.

학습능력을 X라고 치고, 시간을 하루단위로 T 라고 하자. 그럼 실력은 X^T 의 함수대로 따라가게 되어있다. 72 법칙에 따르면 (공비)(%) X 시간단위수 = 72 :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함수다. 만약 원금이 100만원이고 이자가 연 10% 붙는다고 하면 200만원이 되기까지는 7년이 걸리는 것이다. 이건 공부도 마찬가지이다. 하루에 12시간 공부(가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해서 30일하는 경우 12^30 과 하루에 6시간 공부해서 90일 하는 경우인 6^90 중 어느 쪽이 큰지는 암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이거 못 하면 수1 공부 안 한 거지 뭘)

이제 100일차이다. 성적이 어떻든 간에 꾸준히 공부해 온 사람들은 이 100일동안 엄청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학습양을 줄이고 정리에 치중하더라

도, 이제 막 14시간 미만잡거리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습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정 하에서든 여태까지 꾸준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100 일동안 누릴 수 있는 건, 저 꾸준파에 한참 못 미친다. 합격에 필요한 공부량의 절반을 달성한 사람이면 50일 안에 목표에 도달하겠지만 이제야 출발한 사람이면 100일 안에 채울 수 있을 가능성은 냉정히 말하면 '낫다'.

그래서 작년 말에 무조건 일찍 시작하라고 한 것이다. 뭘 하든 일찍 시작하고 처음부터 양치기를 하는 것이 이 점에서 좋은 것이다. 그런데 수험 커뮤니티를 돌아보거나 게시물을 보면 이제야 양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복리효과를 모르는 것이 아닌가. 아니 수1을 공부하면서 지수함수나 등비수열의 합을 자기 학습에 응용하지 못 한다는 이야기이다.

날카로운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스트레스는 어떠 하나요.

이것도 참 빈익빈부익부다.

연초부터 졸라 빨리 시작한 사람들은 성적 향상을 맛보면서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공부로써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그런데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100 일에 들어서 겨우 성적이 오르거나, 오르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여기서도 또 격차가 벌어져버린다.

작년 말에 글 쓰면서 이러면 안 될 터인데 느끼는 것. "내가 쓰는 상식적인 충고를 본인이 꼭 '경험'해보아야만 납득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일텐데"

우선은 복리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수능까지는 달리시길 바란다. 절대 결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플랜 B 정도는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만약 현재 하는 공부를 내년까지 이을 수 있다면 그럼 엄청난 복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지금 와서 무슨 희망고문하느냐라고 하지만 이 글쓰는 사람은 말 바꾼 적 없습니다. 분명 5월까지가 좌우한다고 얘기했으므로

+ 개인이 자신의 학습 복리 시스템을 만드는 건 입시와 상관없이 매우 중요

한 일, 그 학습 습관과 환경을 포괄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대학 입학 이후에도 유용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 가끔 시중교재 추천하는 것 가지고 시비(?)거는 사람들 보고 느끼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공부 제대로 한 사람들이 아니다. 회독수 높이고 복리 효과 누리다보면 **교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것이고 어떤 교재든 그거 10회독, 20회독 이상하다보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행간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한다.** 야매교재는 정말 이런 게 없다, 교과서나 시중교재는 가능하지만.

+ 어차피 입시는 붙는 게 장땡이지만, 요행으로 합격해서 잘 먹히는 건 넘 들 부모님 세대들까지고(학점 신경 안 써도 기업에서 취업해달라 사정) 대학 4년이 입시보다 더 징하다죠.

1.13 [정리론 013] 미래를 위한 선택인데 어째서 현재가 기준인가?

2015.08.08

”그 아파트 많이 올랐구나. 당장 사야지” ”이 주식 어제도 상한가고 오늘도 상한가네. 질러볼까”

당연히 저렇게만 생각하면 어리석은 선택이다.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 이지 현재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클라우드 펀딩이든 하다 못해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이다.

의치한에 가야한다면 미래에 의치한이 어떨까 그것 정도는 당연히 시나리오는 쓰고 가야한다. 하다 못해 철학과를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철학과에서 배운 것으로 ~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비웃음당할 게 아니다. 오히려 비웃음당해야하는 건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선택하는 것이다. 요즘은 9급 공무원이 좋다고 한다고 하니까 또 이것만 따라가는 풍조도 있지만, 이 역시 남들의

카더라, 그리고 ”현재 상태”만 본 것이다.

투자는 한번 선택하고 나면 ’손해’를 보지 않고서는 그걸 다시 무를 수가 없다. 그래서 선택을 신중히 해야한다. 대신 선택을 제대로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땀짓을 하더라도 return이 돌아온다. 내가 투자한 시간이나 돈이 마치 대신 일해주면서 수익을 뽑아주는 것이다. 가령 서울대에 가면 얻는다는 서울대 학벌도 서울대 졸업한 선배나 동기후배들이 대신 일해주 는 걸 조금씩 받아먹는 것과 같다.

물론 수험생에게 20년 뒤 미래까지 내다보고 판단하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입시공부보다 어렵느냐하면 그것은 아니다. 거시적인 움직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되기 때문이다. 가령 의치한이 무조건 좋은가. 뉴스 검색을 해보거나 수익이 어떻다는 찌라시 글이라도 찾아 읽거나 특히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를 찾아보면 되는 일이다.

대한민국 직업사를 살피면 꿀빠는 직업군은 정작 입시 때에는 인기가 적었다. 의느님들 잘 나가신다... 하시는데 그 40대 이상 때는 의치한 열풍이라는 게 없었다. IMF 이후 살인적인 경쟁률 시절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선배만큼이나 꿀빨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당연 회의적. 공대가 좋다 소리가 다시 나오지만 현재 공대 나와 취업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꿀빠는 세대는 상대적인 입결 하락으로 득본 사람들이다. 사법시험은 어떨까. 인원수 줄여 헬게이트 된 시험부터 합격한 수재들이 받는 대우는 ?

즉, 입결이 실제로 그 분야가 잘 나간다라는 걸 보장해주지 못 한다는 이야기이다.

정말 잘 나가느냐를 좌우하는 것은 ”수급” - 수요와 공급 뿐이다. 그 점에서 선택을 한다면

- 미래에 업그레이드 되거나 다시 수요가 발생하리라고 보는 분야
-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신경쓰지 않아 저평가된 분야

이걸 고르는 게 탁월한 선택일 것이다.

난 열심히 공부했고 국영수 잘하니까 대학 졸업하면 나라가 일자리 보장해 줘야해... 라는 게 혼한 착각이겠지만 현실은 그딴 것은 없다는 데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00% 확실한 건 현재 꿀빤다고 하는 것 반드시 또 내려갑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적 없다 하는데 그거야 당연하죠. 그동안은 정말 고성장이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힘들어도 말도 못 하고 심지어 정권 탓이다라고 시위도 안 하죠. 이런 게 "저성장"인 겁니다. 과거에야 싸워서 이기면 그래도 더 나눠먹을 건 있겠구나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 조차 없습니다.

1.14 [정리론 014] 문제집에 오답을 남기기 싫어하는 이상한 착각

2015.08.08

흔히 공부 잘 했다는 학생들의 습성.

1. 중학교 때는 잘 나갔어요.
2. 전교에서 놀았던 적도 있어요.
3. 지금은 시궁창이예요.

과거의 좋았던 시절에 집착하는 건 망조의 실마리다. 중학교 때 잘 한 케이스가 사실 가장 위험하다. 중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는 다른데도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잘나갔던(?) 중학교 시절의 중세시절 공부법만 고민하다보니 기관총이 등장하는 고등학교 교과목에 맞는 학습으로 진화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가지만 예를 들자면 - 아니 이 글의 핵심인데 중학교 공부는 '오답'이 정말 해악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문제집을 빨리 풀고 무조건 다 맞고 그 다음 부모나 선생님에게 칭찬받는다. 라는 패턴을 고수하려 한다.

중학교 공부의 주인공이 정답이라면, 고등학교 공부의 주인공은 오답이다. 중학교 마인드에 찐 사람들은 100개에서 99개는 맞아야 공부가 되는 거라고 착각한다. 99개를 맞을 실력이 될 때까지 인강 듣고 기본서만 읽으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착각. 그렇게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하지만 고등학교 학습은 오히려 '오답'이 나야한다. 오답을 탐구해야만 근본적인 실력이 늘기 때문이다.

중학교 수험은 대평원에서 떼거지 저글링 러쉬만 보내면 되는 유치한 빠른 무한 스타크 유즈맵 게임과 같다. 그에 비해 고등학교 수험은 '롤'에 가깝다(그렇다고 롤한다고 성적은 오르지 않으니 착각하지 말자) 어떤 과목이든 출제자가 뭘 겨냥하는지 정확히 읽고, 그에 부응한 풀이과정대로 정밀한 답을 도출해야 한다.

이걸 모르다보니까 문제집을 풀면 점수가 안 나오네 평소에 모의는 잘 나오는데 실모는 낫네 그러고 있지만. 중요한 건 본 시험의 점수이지, 자기가 공부하는 참고서나 모의 점수가 아니다. 물론 그 점수가 낫은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점수가 안 나온다면 그 근본원인을 찾기 위해 오답정리를 해야지 전혀 소득이라고는 없는 타인과의 비교나 신세한탄이나 하는 케이스가 많으니 문제다.

오답을 내기 싫어하는 결벽증의 극단적 사례는 레알 수능 직전까지 유명강사 인강만 듣는 케이스다. 강의 다 듣고 해야만 문제집을 풀면 오답이 없을 거야라는 전혀 근거없는 확신만 가지고 밀어붙인다. 그런데 정작 문풀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 실제 시험에서는 빨려버리지.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런 자기 공부법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사실 누가 자기 오류를 인정하고 싶겠는가) 그래서 또 ”n수험적 귀납법” 인생을 살면서 $n=k+1$ 과정에서 또 다른 인강을 찾고 있거나 어디 전설의 교재가 없나 그런다. 시간 낭비는 당연한 것이고 더욱 심각한 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마저 상실해버린다라는 것이다.

10개에서 9개를 틀리건 100개에서 99개를 틀리건. 그게 본 시험이 아니라면 신경쓸 바는 아니다. 단지 오답정리를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그 틀린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자기 오류를 정정하느냐가 문제다. 수험생들이 xx 책을 보았다라는 것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게, 그거 1번만 보고 심지어 오답정리도 안 하고 보았다 하는 게 대부분이어서이다. 저 xxxx 보았는데요... 그게 뭔 소용이 있나. 오답 정리 분명히 하고 맞은 것도 재확인하고 하는 식으로 회독수를 오진수 두자리는 만들어야지. 그 정도까지 하다보면 교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할텐데. 오답 정리를 안 하면서 인강을 들으면 뭔가 그럴싸하게 느껴지긴 한다. 그런데 이것도 치명적인 단점. 강사가 정리해주는 건 - 특히 뛰어난 강사일수록 자기 수강생의 평균치에 맞는 처방을 해준다. 그럼 그 평균치 수험생과 나의 편차는 해결될 수 있을 건가?

몇점이 나오니 몇개가 틀리니 하지 말고 오답정리나 꾸준히 하시기들 바랍니다.

1.15 [정리론 015] 실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015.08.11

아마 제작자들이야 실모가 신나게 팔려서 - 말로는 수험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 **본심은 돈벼락맞아 죽고 싶다가 될 것이다.** (정말 돈생각을 안 했다면 그냥 무료공개했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생각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품질이 가격이 비례하느냐는 것. 이렇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실모를 '선택적으로 본다면' 모를까, 반드시 봐야한다는 어떤 이유도 없다. 수년간 그런 실모를 통해서 극적인 점수향상을 했다던가, 기출문제 적중을 했다던가하는 것도 역시 검증된 바 없다. (혹자 비슷한 문항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수준이면 시중교재는 100% 적중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모를 굳이 보아야한다면 다음과 같은 걸 유념하자

1. 브랜드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좋다.

소위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 검증된 경우, 그리고 그 업자가 그 브랜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개인 이익까지 포기한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참고서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하다 못해 브랜드라고 하려면 10년 넘게 시장에 버티고 있어야하는 게 아닌가. 여기도 일격 필살과 무관치 않은 곳이라고 하지만, 일격필살이 좋다 안 좋다 그런 건 그냥 흘려들어도 된다는 이야기다.

2. 가격 / 문제숫자로 일단 계산해보자.

이번에 일격을 검증(?)해보기로 마음먹은 게 그나마 이 점이 높다고 보여서이다. 21600원하니까 으악 졸라 비싸네 그러는데 12회분이라고 하면 $21600\text{원}/360\text{문항}=60\text{원}/\text{문항}$ 이므로 오히려 싼 것이다. 다만 그 12회분이 그냥 대충 질소문제인가 하는 건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생각해보면 다른 실모들도 그런 점이 검증되었는가 하면 그냥 '숫자상'으로 본다면 이 접근은 그래도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단 이렇게 보자면 그렇게 욕처먹던 웬, RPM, EBS가 얼마나 혜자스러운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 막판 정리용이 아니라 막판 정리를 위한 촉매용이라고 보자.

가장 바보같은 사람들이 이 점수가 90이 안 나왔니 만점이 안 나왔니하는 건데. 고교수학은 원래 오답을 통해 실력을 키우는 것이지, 중학교 때처럼 100개 풀고 100개 다 맞는 그런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실모 문제는 어찌되었든 평균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중 출제경향과 편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실전에서 도움이 될지 아니면 방해가 될지는 그걸 구입한 사람의 도박이겠지만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문제를 맞추는 게 아

니라, 틀릴 수 있으면 최대한 틀린 뒤 오답정리 제대로 하고 자기가 어디가 부족한지 재차 확인한 후, 교과서-시중기출-시중교재로 열심히 보강을 하는 것이다. 막판정리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가 부족한 것을 베꾸는 것 이지 한권으로 완성한다.. 가 아님을 유의하자.

4. 실모를 마구 사두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풀지도 않을 참고서를 사두는 케이스, 찔리는 사람들 당연히 많을 것이다. 실모는 하나 정도, 그게 모자라면 2개 정도면 족할 것이고 그걸 풀 시간이 있으면 교과서 기출 그리고 실력정석 같은 것이나 수리논술 문제를 풀어보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실모 사두고 결국 못 풀거나, 다 풀었는데 정작 효과가 없는 케이스가 사실 많다. 실모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관점에서 자기 실력을 평가한다” 그 수준 정도일 뿐이라는 점을 유의하자. 다년간 교정, 교열되고 검증을 거쳐 현직 전문가급 분들이 만든 시중교재를 무시하고 그저 남들이 푸다니까 무조건 실모사서 푸다는 것은 아무리보아도 바보같지 않은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 시기에 양 무조건 늘리는 건 이제 바보같은 짓이다(늘릴 때는 안 늘리고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이 시기에는 잘 정리된 오답문제가 대충 푼 100문제보다 낫다. 특히 학생들이 모르는 건 대충 풀어서 맞은 문제가 시험 때 통수치지만 틀려도 오답정리 잘 되어서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문제는 반드시 보답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계을리하면서 xx만 들으면 돼, xx만 풀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 웰로 레이드갈까 하다가 일격을 구매했다. 그런데 망할 인터넷 서점이 배송을 뒤늦게(...). 그 4만원이면 금발로리안경녀가 나오는 쪽국화집을 사볼 수 있었을텐데. 12회분이면 이걸로 충분할 것 같다. 혹자는 너 돈받아먹었냐 광고 해주느냐 할지 모르겠는데 그 딴 것은 없고 풀면서 문제되거나 해설이 불친절한 건 매의 눈으로 지적할 궁리 소비자의 권리 행사하는데 너 고소미 혹은 2D 안경녀 그럼 찢는 만행이 없기만을 바랄 뿐.

1.16 [정리론 016] 정리시점에서 듣는 인강이라면

2015.08.13

공부를 초기에 시작했다면 '다수가 듣는 메이저 인강'을 권하겠죠. 왜냐면 메이저는 '평균'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고 평균을 따라간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정리시점이 되면 달라지죠.

이 때에는 '평균'이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타강사를 듣는다가 현명한 전략이냐.... 하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자체는 만족스러울지도 있죠. '평균치'로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마다 왜 그런 메이저 강사를 따라간 사람들이 별로 이득이 없느냐를 설명해주는 원리입니다.

막판에 인강을 듣는다면

- 첫째, 저평가되어있을 것.
- 둘째, 광고나 자본의 도움이 없는데도 성장하고 있는 케이스임.
- 셋째, 듣는 사람이 적을 것.

이걸 고르는 게 낫죠. 저평가된 것 : 설명이 필요? 광고나 자본의 도움이 없는데 성장한다 → 이거야말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적을 것 : 그래야 평균에 묻어가는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수험생이 인강주의 전략을 편다면 수험초기에는 메이저 인강을 빨리 들어 끝냈을 것이고 시험 100일차에 와서는 아마 메이저 인강을 탈피해서 마이너하지만 저평가에 성장하는 케이스를 고르겠죠. 이 경우 일타를 고른다는 건 결국 남들과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균도 안 되니까요”한다면 물론 이런 전략은 피해야겠지만. 사실 이 시점에서 평균도 안 되면 결과야(...)

그러나 수험생도 군중심리를 이기긴 힘들고 더군다나 결과는 알 바 없지만 일단 불안하지 않은 심리, 그러니까 남들도 다 듣는 것 자자라고 가기 때문에 이 정리론이 먹힐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1.17 [정리론 017] 수험을 대단한 걸로 생각하면 망한다.

2015.08.13

관찰해보면 실제로 답답한 케이스 중 하나가 무슨 수험을 '예술'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난 반드시 xxx 인강 풀커리 소화해야해” ”필기노트 예쁘게 만들고 말겠어”
”열심히 해서 실모 내서 돈 많이 벌거야”

다 들어보면 그럴싸한데 그거. 시험장에서 문제 하나라도 더 틀리면 끝이다. 반면 인강을 대충 듣던, 필기를 지저분하게 하든, 돈생각없는 수험생이라도 한 문제라도 맞추면 성공한 것이다.

사교육을 넘어서 수험산업, 아니 수험파생상품들까지 넘쳐나는 미쳐돌아가는 판이다보니까 온갖 사이비 예술 과대망상까지 판친다. 특정 강사 인강을 듣던 교재를 풀건 그건 ”본 시험에서 점수를 못 올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수험이 대단한 것이라고 보나? 수능시험은 일단 인격 검증은 거의 못 한다. 성격 더럽거나 치졸한 변태에다가 싸이코패스도 대학에 보내는 게 수능이다. 아니, 수능시험이 지적능력을 제대로 평가한다고 보나? 그런 점도 없지 않지만 잘 보면 구멍이 송송 뚫려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점수만 잘 맞으면 되는 게 수험이다. 착실하게 공부하고 진리를 깨달아야죠... 라는 절규가 나오면 그 친구는 참 멍청하다고 한소리하겠다. 야, 그럼 교과서 보고 양치기 하라는 건 왜 그러는데? 그거야 다행히도(?) 이 정도는 해야 점수가 나오니까 그런 것이지. 수험의 본질은 극단적으로 말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점수만 잘 나오면 되는 것인 거다. 꿈에서 조상님이 가르쳐준 번호만 체크해서 만점이 나오든, 본인이 샤프 굴리기를 잘 해서 만점이 나오든 그건 어찌되었든 성공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목적보다도 수단을 더 중요시하는 웃지 못 할 사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가령 인강을 듣다가 시간이 없으면 과감히 끊어버리고 문풀로 가야하는 데도 끝까지 들으면 나오겠지하는 케이스. 그냥 필요한 문제만 풀고 나머지 문제는 안 풀어도 좋은데도 한권 샀으면 다 뽕뿅 아야지 하며 시간낭비하는 케이스. 오답 정리만 하면 점수가 오를 수 있는데도 다른 친구들이 보는 교재나 강의가 끌려서 거기에 낚이는 케이스.

독학재수가 실패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도 이것이다. 차라리 학원에 다니는 경우는 다른 친구들의 평균적인 데 묻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에 틀어박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독학의 경우 처음부터 완벽히 짰다고 믿는 자신만의 과대망상에 빠져서 나중에는 자기 방법이 맞다고 고집해버리며 폐인이 된다. 그냥 수험은 점수만 잘 맞으면 되는 일종의 도박이자 요식행위라는 것을 모른 채 수험의 의미를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려하다가 스스로 사이비 종교 교주 겸 호구의 자웅동체 무간도에 휘말리는 것이랄까.

본질 하면 무슨 아름답고 숭고하며 어찌구...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모두 개소리다. 예컨대 음식의 본질은 자연과 태양이 빛은 요리사의 혼... 은 오글거리는 혀소리다. 건강에 좋고 맛있으면 장땡인 것이다. 만약 돈을 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느냐 관계없이 - 똥을 치우든 남에게 욕을 먹더라도 그냥 '많이 벌면' 되는 것이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하면 무슨 존스홉킨스니 판검사니... 이전에 적당히 돈벌고 욕먹지 않은 일 하면서 선행하고 베풀면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냥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들인데 의미과잉 때문에 이성을 잃고 해메는 경우가 많다. 수험에서 성공하는 것도 ”내가 더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떡하지”라는 것을 실전적으로 고민하면 된다. 실패하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나열해보고, 그것들을 더 요약, 압축해보면서 실험하다보면 자기 문제점을 발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그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해나가면 된다.

그런데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다. 만화나 영화의 악영향이랄까. 그런데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빨리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거야 그 부분이 생략되어서 그렇지. ’개선’이라함은 조금씩 이뤄지는 것이다. 조금씩 이뤄진다는 건 이게 결국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또한 고통이 따르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다들 이걸 모르고 왜 빨리 안 고쳐지지 초조해한다. 단기 간에 개선되는 건 아무 것도 없다. 3일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30일은 각 오해야 한다. 그 30일동안 인내하면서 고쳐나가야 성과를 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계속 같은 바보짓을 하게 된다. 반성(反省)이란 말은 바꿔 말해서 반복(反復)을 생략(省略)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입으로만 반성 어쩌구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잘못된 습관이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생략하는 게 반성이란 얘기다.

10분 정도만 생각하면 자기 수험생활에 겉힌 거품이 보일 것이다. 그걸 과감히 걷어내야하는데 쉽지 않다. 데이트에 나간 여자들이 화장을 벗겨내고 민낯을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 즉, 수험의 거품은 자아도취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이나 비장미(?) 같은 게 있다. 그런 만큼 눈감고 그런 걸 걷어내야 한다.

1.18 [정리론 019] 자기불신이 중요하다.

2015.08.18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만큼 사실 무의미한 것도 없다. 사교육계 쪽에서 공

교육을 살리자라는 매우 위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피식 웃을 수 밖에. 그들이 원하는 공교육은 지금과 같이 물반고기반으로 먹을 것을 많이 던져주는 막장 공교육이다.

교육을 구분하려면 자율 교육과 타율 교육으로 나눠야한다. 쉽게 말해서 독학이냐 타학이냐로 부르면 될 것이다. 그런데 독학 vs 타학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게 대등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실제로 독학이 성공하는 비율은 1%도 되기 어렵다.

후까시를 잡으면서 이런 질문부터 던지자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정말 자유의지를 갖추고 있느냐” 뭔 더운 날에 뜨거운 캔커피 마시며 하악대는 개소리냐고 하면 쉽게 말해보자 ”너, 혼자 공부하라고 하면 정말 땀 짓 안 하고 할 수 있니?”

실제로 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다. 까놓고 말하면 내 입장에서는 - 그 정도로 애새끼들이 배가 부르다. 왜 갑자기 막말하느냐라고 하는데 연초에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복수할 거야 만점 받을 거야 하는 애들이 여기 콕콕 회원들도 예외가 아니지만 한달도 안 되어서 초심이고 나발이고 다 버린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아재새끼도 배부른 놈인 것은 확실하다. 나 역시 지키지 못 한 약속이나 실천하지 못 한 게 훨씬 많다.

그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독학할 수 없으면 뭐하려 독학을 고집하나, 타학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자. 아니, 독학과 타학을 적당히 섞을 수도 있어서 자기에게 좋은 배합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내 경우는 오프라인 학원을 권한다. 강의 질이고 그 이전에 ’독학’의 해악은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에서 공부가 안 되면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가면 좋은 것이 그것이다. 공부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강제해주기 때문이다. 공부를 할 수 없으면 **공부하는 상태로 끌려가면 되고, 공부하기 싫으면 ’지식노동’을 하면 된다.** 성적이 높은 애들이 난 공부 안 하는데...

라는 건 이 점에서 진실일 수도 있다. 그들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등에게 끌려가 지식노동형을 수행 중이기 때문이다.

공부를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있을까. 이게 소위 '수험론' 같은 게 안 먹히는 이유일 것이다. 수험론들은 개인 의지를 강조한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보는 한, 수험생의 의지는 정부의 약속만큼이나 믿을 수 없다. 반면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에게 의지? 그런 건 없다. 다만 그들은 지식노동을 하는 고통을 못 느낀지 오래다.

그럼 수험의 시작은 "자기불신"이다. 즉 "나란 놈년부터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를 훈육하고 강제노동시키는 것 밖에 없다. 우선 이것부터 지켜진 다음에야 수험사이트 허세질이라도 하는 것 아니겠나.

+

그리고 역시 우려한대로 이 시기에 새로운 교재를 마구 사들이는 풍조가 보이는데 **이거 99% 망한다**. 지금 봐아하는 교재들은 연초부터 돌린 그것이어야 한다. 사실 그거라도 제대로 보고나서 실모를 본다고 하는 건가. 정말 양심적인 업자들이면 '스케줄'에 맞게 소화할 수 있게 일찍 책을 내줘야한다. 그런데 지금 책을 '모의고사' 형식으로 낸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효용이 있을까.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저런 쇼핑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공부한다", "나의 의지를 믿어", "난 자유롭다"라는 착각이다. 즉, 수험생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대한 착각은 성적은 올려주지 못 하지만 **쇼핑의 평계로는 충분하다는 것**. 그래 놓고 나서 또 수능이 끝나면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징징징 뭐 이러겠지.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수험생은 그냥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게 맞다. 실력을 갖춘 다음에야 르네상스로 가는 거지, 그게 없으면 아무 생각 말고 지식노동을 하는 게 맞다. 지식노동을 강제당해서 망한 케이스는 사실 없다. 혹자 수험사이트에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망했다... 그거 본인 이야기이지 겸증된 것 있나? 재미난 것은 명문대에 합격한 애들은 열심히 공부했단 말은 정말 별로 안 한다.

반면 실패한 애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정말 강조해댄다.

앞으로 멱힐 사업은 폭력 시비가 덜한 스파르타 밖에 없지 않나 아니 사실 교육의 본질은 이런 게 아닌가. 그냥 내비두면 모글리 꼴 나는 애들을 두들겨 패서 **문명을 세뇌시켜 인간 만들기**. 정작 매와 교과서로 인간이 된 사람들이 ”아이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창의적인 게 중요해요”라는 것만큼 우스운 게 없지 않나.

1.19 [정리론 020] 시험모드로 들어가기

2015.08.19

”노동도 하지 않는 자본가들이 돈을 버는 것은 착취”이다라는 건 흔한 초보들의 궤변 아닌 궤변이다. 사실 공짜는 없지 않는가. 돈을 굴리는 사람들도 대가를 치른다. 그건 ”투자한 돈이 허공에 증발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함”이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것을 잃는다. 다만 조기에 잃어서 게임을 포기한 루저들과 다른 건, 전재산을 날렸더라도 그런 실패로부터 얻은 지혜와 경험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다.

수험이 공부라는 건 헛소리이다. 공부가 필요한 건 맞다. 그러나 수험은 절대로 공부가 아니다. 다만 공부하면 다소 유리해지는 투기인 것이다.

정리모드로 들어간 사람들이 해야하는 작업은 첫째로는 그동안 양치기했던 교재들의 오답정리가 되겠지만 둘째로는 바로 실전형으로 들어가 더욱 많이 깨져보면서 그 불안과 고통을 즐겨야하는 것이다.

알보칠을 빌라보신 적이 있는가.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직접 빌라보지 않으면 모른다. 재밌는 건 바르다보면 어느새 두근두근해진다는 것이다. 5분 정도 괴로워하다보면 구내염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치유되어간다는 ’새로운 쾌감’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불안과 고통을 즐기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직접 실전형으로 제한시간을 두고 시험모드로 돌려본다(실모는 비추) 오답을 가능한 한 내본다. 그리고 오답을 정리해 본다. 그 다음 같은 시험지나 비슷한 문제로 또 시험모드 들어가 이전의 모의시험보다 '개선된' 걸 확인한다.

지금부터 해야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30문제를 치른다고 하면 10문제는 오답이 나오도록 일부러 시험시간을 줄이면서 빽세게 친다. (하지만 실모는 비추. 왜냐? 그거 업자들이 정말 제대로 적중시키는 문제 내는 건 드물고 변태같은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일부러 빽세게 치면 조금이라도 실력에 균열이 가있는 부분은 여지없이 걸린다. 그럼 그 부분만 정말 집중 케어한다.

그 다음 비슷한 시험을 쳐서 그 문제를 안 틀리는 걸 확인하고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실제 시험에서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방법은 단 하나이다. 그 두려움과 공포를 쾌감의 원천으로 삼는 수 밖에. 쾌감을 얻으려면 절대 피해서는 안 된다. 사전에 겪고 그걸 넘어서 동기부여의 단계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똘똘이 스마프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공부하면 안 틀리는데 뭐하러 일부러 틀리고 앓아있느냐. 말도 안 되는 혀소리이다. 명품 인강 하나 듣는 것 보다는 제대로 틀려보고 그 다음 오답 정리해서 극복하는 게 훨씬 낫다. 본인이 그런 두려움과 공포로 졸아보고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그걸 쾌감의 원천으로 삼는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해야 한다.

1.20 [정리론 021] 실모 고민하실 분

2015.08.27

어차피 실모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님.

- 국어 - 마땅한 게 없음, 기출 돌렸으면 EBS 보시고, EBS 다 보았을 경우
 - 자신이 중상위권이다 → LEET나 PSAT 한번 도전해보시고
 - 자신이 중하위권이다 → 오답정리나 하셈
- 수학 - 쓸데없는 실모가 너무 많아서.

개인적인 추천 : 일격필살 A, B형(올해판), 신승범 모의고사 이것 빼고 나머지는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음. 솔직히 일격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싶고 저 정도 풀어본 다음에 오답정리하고 EBS 수특 수완과 4점 기출 오답정리하거나 웬, 라벨, 정석 어려운 문제'만' 골라보기 이것만 해도 시간 모자랄걸?

- 영어 - 사실 이거 실모가 필요하나 의문 개인적으로 변형류는 비추합니다. 연계교재라면 그 시간에 EBS 지문 달달 외우는 게 낫고, 비연계 대비할 거라면 다른 것 보셈. 연계류라면 그냥 그 시간에 지문 해설 20번 이상 돌려 읽기를 권하겠고 비연계 - 빈칸추론 대비할 거라면 정말 어려운 것 하나 사서 푸시는 게 나음. 추천할만한 교재가 없는 건 아닌 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밀보안. 서점 가서 자알 찾아보셈(저평가된 것 하나 있음)

역시나 하고 또 실모 대홍수인데 그거 솔직히 수험생들 쳐지 고려해주는지 의문이고 - 좌절시켜서 실모신앙 강화시킨다면 모를까 - 지금 가야하는 건 이제 마무리에다 정리이지 혹시나 하고 욕심내는 게 아니죠. 찬바람 부니까 분발, 어찌구할 건데 그런 거 망상입니다. 추석 때 또 한번 퍼지게 되어있다가 10월에 정말 최종자포자기 모드 맞이합니다.

시험 때 어디서 점수 나갔을까 가정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런 거 실모 안 풀어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점검하지 못 했던 실수패턴이나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혹은 킬러문제를 침착하게 푸는 실력이 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일 게 뻔하니까 이런 거나 잘 단속들 하시는 게 나음.

분명 실력은 있는데 수험판에서 이상하게 옛먹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이상할 게 없습니다. 고난이도는 열심히 추구하죠, 그런데 고난이도 뽕 맞아서 자기의

불량을 못 보아서 시험 때 털리는 거예요. 성능이 아무리 좋아보았자 결정적일 때 빠나고 고장나면 답없는 것임.

공부를 잘 한다라는 건 세가지임.

- 첫째, 기본이 정말 잘 되어있어서 실수를 잘 하지 않는다
- 둘째, 상위권 마인드가 잡혀있다.
- 셋째, 특정 과목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 훈련이 되어있다.

저건 평소에는 하나라도 어긋나더라도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시험 때는 저게 확 드러나버리지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럼 실모들 보는 게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과 같은 과열풍조는 제가 보기엔 '거품'입니다. 정말 도움이 되려면 실모에서 나온 문제가 그 해 기출에서 나왔다... 여야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죠. 그러나 기본적인 데 털려서 오답 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이 재밌는 건 확률이 높은 건 신경을 쓰지 않고, 확률이 낮은 것만 신경쓰더군요. 교통사고나 죽을 확률과 희귀병 걸려 죽을 확률 중 전자가 높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차조심은 안 하면서 무슨 바이러스 퍼진다라고 하면 나 그걸로 죽는 거 아냐라고 3일간 호들갑을 떨죠. 수능도 마찬가지임, 본인이 오답이 난다면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여서가 아니라, 난이도가 낮지만 함정이 있어서 실수하기 쉬운 문제일 건데 대부분 어려운 문제만 대비하려고 하고, 실점 가능성이 높은 문제는 대비하지 않죠. 특히 후자는 수험고수일수록 정말 자주 겪는 게 보이답니다.

현명히들 처신하시기를. 올해도 이변이 없는 한(이변이 있다고 하도 집단이 응시하니 어차피 달라질 건 없음) 저 지적대로일 겁니다.

1.21 [정리론 022] 오답이 난다면 어디서 날까.

2015.08.28

만약 당신이 출제자라면 어디서 애색기들이 틀리게 만들까 그런데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함

- a) 애들 자살하는 소리 나오지 말게 어렵게만 내지마라
- b) 컷에 따라 아름다운 분포가 나오도록 조절하라
- c) 강남 대치동과 사설학원가에 유리하게 내지마라
- d) 계산 너무 지저분하게 하지마라

자,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바로 보이지가 않음?

저건 지금 잘 팔리는 사교육 상품이나 소위 실전모의고사와는 k 배 닮음변환($k \neq 0$)이라는 것 오메, 닮음변환이면 똑같은 방향이잖아요. 개뿔, 닮음변환은 $k=0$ 인 경우도 있잖아요.

저거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상에 빠져있는지 알지요.

수험에는 attack 모드와 defense 모드가 있죠. attack 모드는 남들이 못 푸는 어려운 것을 짹짜 풀어내겠다는 것 defense 모드는 사소한 것도 틀리지 않는 것, 즉 출제자의 공격을 방어해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유명한 수험상품 어떤 것도 defense 모드는 절대 생각해내지 않습니다. 한데 올해보다 광기가 서렸던 작년 시험에서 수험고수들이 망한 게 별 게 아니죠. defense에서 죄다 털렸어요. 반면 최상위권을 감히 생각 못 했지만 기본에 충실한 친구들은 난이도 혜택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실점이 거의 없으니까 일어나고보니 만점자 수준 나온 거죠.

그럼 올해도 뭐가 유리할까. 최소한 'defense'가 attack보다 유리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수험생들의 문제는 '집단의 레밍즈 광기'에 결국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약점을 잡을 시기에 쓸데없는 교재들을 막 늘리고 있죠. 그런데 그 교재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수험생들 생각해줄 리야 없지 않습니까. 참신한 문제를 내겠다.. 그거 좋은데요, 그것만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attack 모드에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게 수험생들의 약점을 잡는데 도움이 될까요?(이게 제가 실모비관주의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이럴 때에는 개나소나 푼다(?)하는 실모 보는 것보단 자기 약점 철저히 정리해서 그 약점 보완해줄 교재만 선별해 보는 게 승률이 높습니다. 자기 방어선 철저히 하고 약점공략을 해야 통수맞는 일 없지, 아, 남들 푸는 x모 풀 거야하다가 빈집털이 신나게 당하지요.

가끔 실모 잘 팔린다라고 거드름피우는 경우 그냥 한마디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중시켰나요” 유감스럽지만 그런 예는 단 한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출제문제가 비슷하다고 내는 예시 논리대로라면 EBS, 웬 등은 적중율이 99%이게요.

이건 증권방송과 똑같은 겁니다. 증권은 뉴스에 호재라고 하면 오히려 떨어지고, 뉴스에서 다루지 않을 때 올라가죠. 교재 만드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뭔가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런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꼼수로 예측율을 높이는 방법은 있죠.

”수험은 다수가 실패하는 게임이다” ”다수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면 망하지 않는다”

이 논리대로 가서 다수가 안 하는 방향으로 예측질을 하면, 적중률이 높아지는 건 정말 당연한 겁니다. 수험과 같은 일종의 도박은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가 없으니까요. 100명 중에 5명이 성공하는데 80명이 하는 방향대로 가보세요. 그게 성공할 수가 있나 - 그게 맞으면 80명이 다 대박나야하는데요? 수험 중에는 나머지 20명의 소수전략이 비웃음을 삽니다. 그런데 수험이 끝나

고 20명이 그럭저럭 성공하면 그 20명의 전략이 정론이 되고, 심지어 그 20명을 비웃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기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말바꾸기 시작하죠.

요즘은 업자들이 자기 교재를 홍보하면서 기출과 교과서를 봐야한다고 얘기 하죠. 그런데 이건 더 간단하지 않나요? 그 교재 안 보고 그냥 **기출과 교과서만 보면 되지** 업자들이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고 자기가 바른 말을 했다고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 **물타기하는 거죠**. 그럴 바에는 기출과 교과서를 볼 필요도 없도록 자기 교재나 업그레이드 하면 될 건데, 그럴 자신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의 책을 보면 교과서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험생이라면 - 아마 이건 꽤 어그로 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마디해야겠어요 - **재수 없이 현역으로 합격한 사람 말을 재수 이상보다 더 신뢰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빡치겠지만,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합시다. 한번에 합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게 투명해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건 일종의 '마인드'와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한가지 예만 들면 제가 관찰하거나 경험해본 '현역합격자'들은 정말 소박합니다. 절대 화려하지가 않아요, 한데 특징은 "쓸데없는 것을 안 한다", "낭비 같은 것도 안 한다", "수험에만 집중한다"입니다. defense는 당연히 잘 되어있죠. 그에 비해서 $n_c=2$ 인 사람들은 정말 낭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만 가도 되는데 더 가서 평양까지 가려합니다(...) 게다가 수험 후반이 되면 불안감을 이기기 위한 과대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시험이건 분석해 보면 정말 단기에 실패없이 합격한 사람들이 쓰는 수기나 내는 책. 정말 '간결'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만 담고 있더군요. 그에 비해서 실패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정말 '장황'합니다. 중요한 것 외에 중요하지 않은 것도 담고 있고, 그래서 그걸 보는 수험생들도 똑같은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 대목에서는 제가 생존율이 낮아지지 않나 하겠습니다만 진실은 진실대로 적어야죠. 그리고 당사자들이 배포가 크다면 저걸 인정하면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메시지가 재미가 없죠 지금

잘 팔린다는 x모니 뭐니하는 것들의 대부분 문제는 저기서 고스란히 확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머리 아프기 싫으면 그러니까 교재 이제 쓸데없는 것 늘리지 마시고 약점공략만 하시길요.

+

수험생이 얼마나 우매한지 확인할 수 있는 현상. 그건 작년에 기억나는데 국어가 어렵게 나온다, 탐구에 정말 집중해야한다고 했을 때 공격먹었죠. 하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아, 물론 수학이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죠.

그런데 저 예측도 별 게 아님. 딱 돌아가는 걸 보면 수험생들이 국어와 탐구를 우습게 보았거든요. 그럼 평가원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다수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예측이 맞아떨어지기 쉬운 거죠. 다만 설마 수학까지 건드리겠어라는 것은 저도 생각 못 했던 것이고.

끝까지 이성의 끈을 놓지 말고 자기 약점만 공략해나가는 게 답입니다. 전반 양치기 잘 되었다면 지금 그거 되겠고 뭐 자기 고집대로 인강만 듣겠다하면서 문풀량 달성 못 한 친구들이야 지금 정신 혼 나가있겠고

+

일격을 추천한 이유는 실모로서라기보다는 생각할 껌덕지를 주는 문제들이 '가격'치고는 많이 있어서입니다. 만약 6회였다하면 당연히 추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정도 가격까진 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 가격을 문제수로 나눠서 대략 50~70원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비싸면 정말 좋은 문제고 해설이 괜찮냐하는 건데 냉정히 말하면 아직까지도 실모는 기대 이하인 경우입니다. 수험생들이야 "너희 대학도 못 가면서 뭘 평가해"라고 하니까 말을 못 하겠지만, 저는 그럴 입장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격은 더 쓴소리할 겁니다.

욕먹는 그런 실모 집단에 계속 낄 이유가 없으니 말입니다. 챙모는 그래도 가능성비 좋다고 봅니다. 달라붙은 검토위원 명단들에 비해 해설이 간단하단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이건 돈값을 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위 두가지는 제가 권하던 전통적인 시중교재 위주의 학습에서 빠지기 쉬운 걸 제대로 보충해주고 있다고 체감해서리 그러나 반드시 봐야한다...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남들이 하니까 나도 실모 봐야겠어하면 우선적으로 검토해보라는 거지 아마 다른 실모를 본다고 해도 저것 이상으로 만족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네요. 게다가 어떤 실모든 그건 attack 모드에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자들 스펙과 문제 성향을 분석해보면서 '역시 그랬군'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

지식보다 중요한 건 습관과 마인드입니다. 통칭해 성격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시험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분들은 업자들 말 듣지 말고 콕콕 사이트든 어디든 정말 '합격자'들 말 잘 취합해 보시고, 특히 현역합격자들 층고 잘 추려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재를 보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거 추려서 공통점 추출해내고 따라가십시오. 그게 일지를 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확인해보면 되겠지만 사실 별 건 없습니다.

콕콕 하면 똑같이 5수한다... 주인장 디스이기도 할 건데 진짜 주인장 빠치실 수도 있겠지만, 근거없는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선도자의 마인드나 습관에서 안 좋은 것도 '걸러지지' 않고 전파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글 안 올라오면 저 살해당한 줄 아셈, 범인은 선량한 시민이라고 적어놓겠음) 뭐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거르느냐고 주인장 분도 열린 분이니 오히려 그걸 자산으로 삼겠지만 적어도 제가 관찰한 바로는 수험사이트의 선도자 상당수가 자기의 실패까지 전염시키는 걸 막는 구조는 절대 아니랍니다. 참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강조하고, 그걸로 '장사'한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저자들 스펙을 확인해보면 역시... 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예만 들면 수험고수들은 수학을 고급화된 '자기만의 방법' - 즉 한가지 방법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상깊게 배운 방법이나 마인드를 강조하는 건 좋지요. 그건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니까요. 하지만 평가원은 병아리 감별사 집단입니다. 수평아리들을 분쇄기에 넣는 걸 서슴치 않는 잔인한 집단이죠. 문제가 아름답게 풀리든 말든 그런 것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잘 내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건 업자들이나 수험고수들은 평가원에 대해 맹목적 추종과 비판 양쪽에서 와리가리한다는 것이지요) 평가원이 잘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잘 걸러낸다, 그것이죠. 작년과 올해 모평 추세를 보면 정말 사설부터 인강까지 저격질만은 제대로 합니다. 문제가 좋은지 아닌지 떠나서요. 2014 출제와 2015 출제 중 저는 당연 후자를 높이 칩니다. 그렇게 난이도 낮추면서도 참 잘 걸러내고 제대로 한방 먹였다 생각이 들어서이죠.

업자들이 하는 말은 사실 거짓말이지요. ”**평가원이 우리 업자들을 노리고 있다**”라는 진실이면 끝나지 않나요? 성공한 출제란 업자들을 엿먹이는 출제고, 실패한 출제는 업자들과 내통한 출제겠죠 난이도가 문제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난이도가 불지옥반도라도 출제경향이 사교육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게 물수능이 되는 것입니다. 난이도라는 건 출제하는 문제와 그걸 푸는 수험생들의 수준이 조응해서 나오는 경향이지 단지 쉽게 낸다 어렵게 낸다 그 수준이 아니죠.

1.22 [정리론 023] 계획을 짜면 왜 망하는지 설명해드리겠음.

2015.09.04

계획에 대해선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사실 거의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임. 그리고 계획을 쓰는 경우 지키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나도 역시 그렇고) 이 역시 나름대로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이 있는데 다 쓰면 밑천이 떨어지므로 암시를 드리겠음.

식량이 주어짐, 일주일동안 그걸로 버티라고 함 100kg 나가는 살아있는 돼지 한마리 vs 삼겹살 두근, 족발 10인분, 햄 5인분. 당신의 선택은?

이거 십중팔구 다 '전자' 선택함. 왜냐고. 다들 이렇게 대답하죠. "100kg짜리 돼지가 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맥들이 계획을 세우면 실패하는 이유죠.

저기서 계량해야 할 건 고기근이 아니라, "내가 당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임 살아있는 돼지는 도축시키는 것부터 시작해 요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까지가 매우 '귀찮은' 작업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단 놓쳐버릴 것이고 심하면 내가 거꾸로 잡혀먹힐지도 모릅니다..

계획실패의 주된 원인은 살아있는 돼지를 선택해서입니다. 선택하려면 당장 먹을 수 있는 손바닥만큼의 햄을 선택해야지요. 앞의 것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거니와, 중간에 귀찮은 일을 많이 해야하지만, 뒤의 것은 양이 적더라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나의 양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짤 때에는 첫째, 반드시 '바로 실천가능한 단위'까지 세분화시켜야하고 둘째,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하며 셋째, 그 계획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쎈수학 한권 다 풀기"라는 것과 "쎈 수학 매일 1문제씩 풀기"라는 계획 양으로 친다면 후자는 1년에 365문제 밖에 되지 않으니 영터리 계획이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현 단계에서 성공한 계획은 후자입니다. 에게게, 1문제 밖에 안 돼?라는 이야기는 '바로 실천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쎈수학 한권을 빨리 풀어라... 이거 몇명이나 실천하겠습니까. 바로 중도포기해버리죠. 그리고 1문제 풀다가 이게 넘 적다면 대략 4~50문제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실천 가능하면 그게 적정량을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플래너 과시나 자랑을 할 때에 이 점을 읽어야죠 플래너를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은 ”누가봐도 즉시 실천가능한 프로세스”로 적습니다. 막연하게 ~하기라고 적지 않아요. 그런 플래너를 쓰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플래너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살아있는 돼지가 도망간다고 했죠? 나 올해 서울대 갈거야라는 목표가 그런 겁니다. 처음에야 저 돼지 근수가 많이 나오겠구나 좋아합니다만, 정작 도살을 시작하려할 때부터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 돼지를 잡아야하나 말아야하나부터 고민하죠. 목표를 크게 잡은 사람들이 개똥철학에 빠져서 중도 방황하다가 막판에 자빠지는 패턴이 괜한 게 아닙니다. 반면 ”하루에 30문제만 꾸준히 푼다”라고 하는 사람은 연초부터 했다면 별써 6000문제는 풀어서 별써 성장했겠지요.

돼지에게 먹혀버리는 것은 바로 이 시점의 멘붕일 것입니다. 차라리 목표를 크게 잡지 않았다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건데, 목표를 너무 크게 잡고 시간낭비만 하다가 지금 완전히 다운된 상태죠. 이런 친구들은 돼지에게 잡아먹힌 다음에 환생해도 그 다음 소에게도 잡혀먹힐 것입니다.

현재 xx 과목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수험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인강이든 교재든 추천받아보았자 그거 별 의미없습니다. 당장 필요한 건 그냥 평범한 교재 찾아서 10문제라도 풀어보고 틀리면서 깨지고 오답정리하는 ‘실천’입니다. 그런 경험을 계속 하면서 문제점의 평균을 찾아낸 뒤 해결하라고 수학에서 ‘통계’를 배운 게 아닐까요?

물론 새로울 건 없지만 여기서도 수험상담하거나 일지쓰거나 중도이탈하는 케이스들 보면서 정리한 건 그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는 쪽은 ‘실천’하는 쪽입니다. 본인은 처음에는 성과가 없다고 하지만 그냥 생각없이 실천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높아져있지요. 대신 그만큼 ‘눈높이’도 높아졌기 때문에 자기 성적이 불만이 되죠. 이건 꽤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 더 운이 안 좋다고 해도 내후년이면 목표는 이룹니다.

하지만 정말 불치병인 친구들은 한문제라도 안 풀면서 난 xx대에 갈꺼야, 의

치한에 수석합격이야라고 꿈만 꾸는 사람들이죠. 곱등이도 못 잡는 주제에 살아있는 돼지 키워서 잡아먹을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결과는 그 돼지가 eaten하는 게 아니라 eating 하는 것이겠습니다만요.

제 2 장

학습공학

2.1 [학습공학 001] 공부는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는 것이다.

2015.09.23

샐러드에 소스를 넣는 건 그건 야채 자체는 더럽게 맛이 없기 때문이죠. 몸에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라면을 먹는 것은 중독성 강한 수프 때문이죠.

인간의 행동은 합리성과는 거리가 멍니다. 케인즈의 그 유명한 명언을 바꿔하면 우리 모두는 장기적으로 '중독자'입니다.

공부를 잘 한다라는 말 자체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성적이 높은 사람들은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는 것과 하게되는 것의 차이는 친절하게 대화로 해결하는 대인배와 사소한 것도 고소미 먹이는 소인배만큼이나 크지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마치 드래곤볼의 베지터처럼 심각한 인상을 쓰고 나 공부할 거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지라는 건 길어보았자 하루 가나요. 그리고 의지만으로는 절대 스트레스와 고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딴짓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나 공부할 거야"라고 재도전, 또 딴짓, 재도전, 딴재. ⚡⚡⚡ 찔리는 분들의 숫자만 상용로그로 취하면 지표가 최소 3 이상은 나오려나요.

실제 우등생들은 공부를 한다는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숨쉬듯이 공부를 하게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는 비결은 "환경"입니다. 지적 자극을 매일 받는 동시에 지적인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마침내 공부중독에 이르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이론이 설명하는 건 왜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면 공부가 잘 되느냐일 것입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인강은 '조리료'에다가 '진통제'까지 갖추고 있어서입니다. 입담 좋은 강사의 셀을 듣고 있는 것이 혼자 책읽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덜 하고 하라는대로 필기하다보면 최소한의 공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강 정도 듣다보면 혼자 공부할 거야와 달리 일정량의 학습량이 완성됨으로써 마이크로한 중독상태에 빠지는 것입죠. 즉, 인강은 돈주고 구입하는 가상의 '공부환경'인 것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성과가 미미하다는 분들은 절대 자신의 의지 따위는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제 의지 따위는 그리 믿지 않습니다. 믿어야 하는 건 오직 자기가 속한 환경입니다. 남들이 공부하는 공간적, 시간적, 인적 환경이 정말 공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는가 단 하나라도 예외가 없는가 하는 걸 마음에 안 드는 예비 며느리의 국을 마시는 시어머니처럼 점검해야합니다.

머리? 유전? 동아시아의 빈민국이나 아프리카 남미의 10대들은 그럼 머리가 다들 나빠서 그런 건가요. 인강? 교재? 분명 이런 공부환경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일타강사들을 소비한 그 많은 학생이 전부 다 성공했습니까?

이 시점 되어서 수능 양 포기하자 혹은 올해는 올림픽 정신으로 치고 내년에 재응시하자 별별 분들이 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 무성의한 답변을 짐작하면서도 쪽지보내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건 그겁니다. 먼저 환경부터 점검하십시오, 본인이 술이나 연애에 찔더라도 공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 책상에 앉으면 맷폰 컴퓨터는 일체 차단된다
- 어떤 사람도 방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부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 필기구와 연습장, 그리고 지우개는 절대 학습에 지장을 주긴 커녕, 그걸 쓰는 쾌감이 크다.
- 공부하면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일주일에 한번 풀 수 있다.
- 모르는 문제나 내용을 언제든지 물어보거나 요청할 수 있다.
- 하루 순공부 6시간이 확보된다.

적으려면 끝이 없겠죠. 아무튼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환경을 경시하죠. 그래놓고 망해놓고 원인을 엉뚱한 데 찾는 게 현실입니다. 환경을 갖추려고 고심하는 데는 일주일 정도만 걸립니다. 아무리 길어도 한달? 돈의 문제가 걸린다고 하지만 그것도 대부분은 익스큐즈 가능하죠.

다시 강조하지만 공부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도 '하게되는 것'이고 내가 싫어도 하려면, 달리기 싫어도 뛸 수 밖에 없는 런닝머신과 같은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환경을 만드는 건 "공부하기 싫어"라는 평계가 안 먹히겠죠.

2.2 [학습공학 002]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해야한다.

2015.09.25

그렇다면 학습환경의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여기서 우리는 편견을 깨야한다.

친부모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 한분일 수 밖에 없고 가능하면 배우자도 한명 이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도 알려진 것으로는 한번이다.

하지만 수험은 어떤 과목이든 한번에 끝낼 수도 없고 아니 끝내서도 곤란하다. 한권으로 정리하거나 완성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없다.

다수 수험생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수험상식을 갖고 있어서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한번에 모든 걸 끝내겠다"**이다.

학습의 원천은 반복이다. 토하고 싶어질 때까지 반복해야 지식과 기술은 우리 것이 된다. 그럼 인간은 왜 반복을 하지 않으면 학습이 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매우 심플하면서도 철학적이다. 간단하다. 반복을

하지 않고 단 한번만 접촉한 것 감각대로 학습되어버리면 우리는 자아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어느 환경에서든 자기다움을 유지하는 것이고, 자기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함부로 학습하지 않는 데 있다. 함부로 학습해버리면 어떤 자극에도 조정당하는 좀비로 전락한다.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함부로 학습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복학습의 방어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술, 섹스, 담배, 마약에 절어버린 케이스로 충분히 설명된다. 그것들은 반복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한번의 접촉만으로 우리는 이성을 잃고 끌려다녀버리게 된다. 생각해보면 그것들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서 나다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요컨대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반복' 없이는 함부로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문제를 푼다면 적어도 3~4번은 다시 반복해서 풀어보아야 한다. 개념서를 읽더라도 한번 읽고 끝낸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반복을 꾸준히 해야한다. 하수들은 그 반복이 매우 지루하고 무의미하다고 착각한다. 고수들은 반복이 매번 똑같지 않으며 한번 할수록 즐거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가령 500문제를 1번 푼 것과, 100 문제를 5번 푼 것은 얼핏 초딩 산수로 보면 똑같아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 질적인 것은 달라진다. 100문제를 5번 풀게 되면 처음 볼 때에 몰랐던 행간의 내용까지 파악하게 되고 반복하기 때문에 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을 학습하여 자아를 바꾸게 되며 틀린 문제들을 다시 보고 각성함으로써 오답률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500문제를 1번 풀고 던지면? 뇌에서는 그것을 중요시 하지 않게 여기고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학생들은 머리가 나빠서 그것을 까먹린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이건 뇌가 일부로 잊어버리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500문제를 1번만 푼다면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이고 괴로운 마음도 들 것이다. 그런 정보를 뇌에서 바로 학습하겠는가. 하지만 100문제를 5번 푼다면 정답률은 현저히 올라갈 것이고, 아는 것을 더 자세히

알게되니 순탄해지거니와 기존에 안 보이던 것도 보이게 되어 즐거워진다. 이럼
뇌에서도 경계심을 풀고 그 내용을 학습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수험생들은 이렇게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권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다고 믿거나 그렇게 자처하는 교재를 보는 경우
- 시험이 다가오는데 기존에 풀었던 것을 오답정리하지 않고 저 실모 좋다면
서 교재 놀리거나 다른 인강만 듣는 경우

학습의 핵심엔진인 반복, 그리고 3편에 언급할 그 반복에 의한 복리효과를
누리지 못 하는 이들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까. 미소짓는 건 오직 장사치일
뿐이다.

2.3 [학습공학 003] 잡몹 죽여서 렘업하기

2015.09.29

경험치 10,000을 달성해야 한다.

한마리 죽일 때마다 100 주는 잡몹을 100마리를 죽일 것인가 한마리 죽일
때마다 5,000 주는 보스몹 2마리에 도전할 것인가.

속칭 버스 타지 않고(즉, 잘 하는 파티에 섞여서 경험치 나눠먹기 : 물론 이
것이 소규모 가애 혹은 학원행이겠지만) 혼자서 사냥해야하는 경우라면 무얼 선
택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도 없다.

100 주는 잡몹은 죽일 때마다 그 경험치가 내 것이 되고, 그 와중에 렘업도
이뤄져버리고, 잡는 패턴도 숙달되어서 속도가 빨라진다. 하지만 5000 주는 보
스몹은 내가 잡히기 좋은 데다가 이걸 잡아야지 하면서 시행착오로 시간과 돈을
날리고 나중에는 자존심 문제가 걸린다.

앞의 칼럼에서 공부에 관한 진실 두가지를 언급했다.

- 첫째, 공부는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공부하기 싫어한다.
- 둘째,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비결이 바로 함부로 학습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 '학습'해야하는 걸 납득시키기 위해서 반복횟수를 늘리라는 것.

세번째 진실은 공부 못 하는 애들의 특징은 ”과식”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일단 공부를 못 하는 녀석들은 무조건 거창한 계획을 잡는다. 1년동안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갈거라는 등, 일주일 내에 문제집 10권을 다 끝낸다는 등. 하지만 계획은 바로 실천가능한 게 아니면 '몽상'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해당초 실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건데, 못 하는 사람들일수록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막상 실천할 때 포기해버린다. 그리고 그런 포기를 '학습'해버림으로써 구더기 수준으로 낙하해버리는 것이다. 잘 하는 친구들은 절대 과식은 안 한다. 정해진 단위시간 내에 100문제와 10문제를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10문제를 택한다. 첫째로, 100문제는 다 풀지 못 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꽂피겠지만, 10문제는 어찌되었든 풀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다 풀지 못 한 100문제는 데미지는 심하게 입혔지만 퀄을 못 해서 경험치에 가산되지 않지만 다 풀고 오답정리한 10문제는 비록 양이 작을지라도 바로 나의 경험치에 가산되기 때문이다. 유식하게 말하면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든 소량의 학습량은 "재투자 가능한 자본"이 된다. 그러나 다 끝내지 못한 미완의 학습량은 "재고"가 되어버려서 처치곤란해져버린다. 경험치 가산이 되지 않거나와 좌절감만 안겨준다. 그리고 이것이 일주일, 한달 그렇게 넘어가버리면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킨다. 만약 700문제를 푼다고 하자. 기한은 일주일 A는 하루에 700문제를 풀고 6일간 놀겠다고 하고, B는 하루에 140문제를 푼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는 이를간 한 게 400문제. 그리고 바로 지쳐버려서 3일 째에 놀다가 다시 벼락치기 모드로 가서 악순환이 벌어진다. B는 140 140 갑자기 사건 사고 140 140 휴식 140.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되었든 끌낼 수는 있다. 거기다가 A와 B는 중대한 차이가 벌어지는데 A의 경우는 처음에 허겁지겁 풀다가 오답정리도 못 해서 푼 문제가 자기 것이 되지 못 하

지만 B는 목요일부터는 앞에 풀었던 280문제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학습 수준이 높아셔 문풀 스피드나 정확도가 높아진 상태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학습복리의 마법이다. 보통 수학에서는 $an = a + a + a + \dots + a + a$ (n번 더 하기)로 나오므로 사람들은 실제로 학습도 저렬 거라고 착각을 한다. 그러나 실제 학습에서는 $an < a + a + \dots + a$ 이다. an 을 한번에 하지 않고 n 회로 쪼개면 $a(1 - (r)^n)/1 - r$ 과 같은 등비수열의 합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하려는 것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매일 적정량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훨씬 많은 보답을 해준다. 고수들이 느긋한 건 품잡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잘게 쪼개서 학습의 복리효과를 누려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하수들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사실 공부를 하지 않는다. 정말 자신없는 과목에 접근하는 방법은 별개 아니다. 초반에는 공부를 한다는 생각은 버린다. 탐색한다고 생각하고 책을 끝까지 주욱 훑는다. 지루한 건 당연하고 이해 안 가야 정상이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뇌에서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는 있다. 적어도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걸 알았으니 무서운 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매우 쉬운 기출문제집을 가져온다. 그리고 하루에 12개씩으로 못 박는다(그 이상 가면 스스로를 꾸짖는다) 가장 쉬운 기출문제를 매일 12개씩 보고, 그 해설을 읽는다. 그 다음 그 기본서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 읽어본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가면 84개는 풀게... 가 아니라 사실 100문제를 풀게 된다. 인간의 숫자 심리는 반올림 욕망이 있어서 조금만 더 하면 100 달성 가능하잖아 라고 하면서 더 공부하게 되어서이다. 그럼 일주일동안 당사자는 무려 100문제를 풀었고, 기본서와 대조해보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25일간 조심스럽게 진도를 나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풀량을 늘릴 수 있고, 기본서가 훨씬 더 잘 읽히게 되는 것이다. 학습도 확실히 '소식'을 해야한다. 물론 반드시 '소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소식하는 것. 절대 욕심은 부리지 말고, 바로 내가 착수하고 완료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학습량을 잡고 매일 실천해나가면 된다. 대략 50일이 지나면 가장 못하는 과목도 3~4등급에 비칠 수 있다.

2.4 [학습공학 004] 자존심 환자들

2015.10.05

보통 30일을 앞두고 낙담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는 공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케이스이다. 이런 경우 해결책은 ”올림픽 정신으로 치른다”라고 다짐하고 그 다음 해를 기약할 것, 그리고 절대 11월부터 2월까지 놀리지 말아야한다. 오히려 이 기간동안은 하루 9시간 공부를 해야한다.
- 둘째는 공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케이스이다. 이건 마치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수증기압이 높아져 절대습도가 낮아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공부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동시에 ’기대치’가 늘어나면서 자기 공부량이 형편없이 보이는 것이다.

위 두가지는 양립가능하다. 그러나 사실 위 두가지는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다. 어찌되었든 수험은 학습량이 많아질수록 확률적으로 유리해지는 도박이니 결과 신경쓰지 말고 그냥 공부하는 게 답인 것이다. 그러나 왜 불안할 수 밖에 없냐면 이건 간단하다. 이맘 때쯤 어떤 문제를 풀어도 다 만점이 나오고 수험사이트에서 자랑질할 걸 계획했기 때문이다.

자존심은 윤리적인 분야를 제외하곤 쓸모가 없는 것이다. 내가 바쁜 일을 했고 선행을 했다는 데에는 자존심을 얼마든지 가져도 좋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번다든가 외모가 뛰어나다거나 하는 것에서 가지는 건 무의미하다. 그런 건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런데 ”수험생활” 자체에 자존심이나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게임의 승패보다는, 어떤 마우스나 키보드를 쓸 것인지 신경쓰는 부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의 문제는 ”목표”라는 게 없다는 것이다. 아니 서울대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냐 하겠지만, 틀린 이야기이다. ”서울대에 갈 거야”라는 것과 ”내 수준에 맞춰 현실적으로 서울대에 가기 위한 점수를 따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다시 말해 똑같아 보이는 목표라도 추상적이고 허황된 목표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는 설정과 소금만큼이나 다른 것이다.

전자의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무중력 상태에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험을 할 때에도 온갖 수험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최고인 커리를 골라 그걸로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은 시중에 유명하다는 교재들은 다 갖고 있다, 게다가 교재들도 너무나도 깨끗하다. 그러다가 100일 정도 다가오면 어 이거 아니라 느끼다가 50일 정도 오고 나서야 계산해 보고나서 도저히 올해는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들은 수험생으로서의 미학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합격을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 ’아름다운 수험’, 으로서 남들에게 자랑질할 걸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이 사람들 중에 말이 적은 사람이나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걸 지적해두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는 합격할 생각도 없는 것이다. 본인은 인정 안 하지만 수험생 생활이 가장 편하다고 몸이 인식하고 있다. 정말로 배고프고 헐벗어서 당장 합격 못하면 나가 죽을 거라면 연초부터 게으름을 피우면서 수험생 코스프레질은 안 했을 것이고 어떤 교재가 좋아요 그딴 질문은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로 수험에 매진하려면 ’2년’간의 기간을 둬야한다. 그리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 해야 한다. 저승사자조차도 대학에 합격하기 어려운 시대다.

정말로 합격이 절실하다면 목숨이 걸렸다면 시간을 아꼈을 것이다 교재는 뭐가 좋아요 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대로 다 미리 풀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수험에 미치면 어떻게 신이 내려오는지 그것도 보여줄 것이다.

다시 말해 진짜 합격을 향하는 수험생이라면 미학 따위는 없다. ’추해져도 좋으니 합격만 한다’라는 마인드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그런

진흙탕과 땀내의 지저분함이야말로 역설적인 아름다움인 것이다. 이런 데 빠져든 사람들은 나중에 합격 불합격도 이제는 잊어버린다. 왜냐면 그 경지를 넘어서 대가를 이루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기는 사실 한참 미쳐있어야 한다. 물론 그걸 콕콕리든 누구든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충분치 않지만 그걸 일부나마 맛본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따지는 사람들이 떨어질 가능성은 당연히 높지만, 별로 공부가 기대 안되었지만 꾸준히 하면서 과목이 재밌다고 느끼는 걸 넘어 스스로 품질관리까지 가는 사람은 대박기둔단 것이다. 설령 출발점이 늦은 사람일지라도 한번 더 도전하면 승률은 매우 높아져있는 상태다.

앞으로 시간나면 여러개 적겠지만 수험생들의 문제는 교재나 인강이 아니라, 지나치게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있다는 것이다. 가령 교재 따지는 것을 보자. 나쁜 교재라고 배척하고 그럴 것인가? 물론 내 경우는 쓰레기 같은 교재들은 가능하면 안 팔리는 게 좋다고 본다. 그 저자들도 인성이 의심될 정도인 케이스도 있다. 하지만 수험생은 일단 교재 구입에 있어서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 나쁜 교재라도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활용할 때는 활용하는 것이다. 수험 초기에는 돈을 많이 지불해서라도 '정보'를 갖춰야 한다. 이게 수험에서 가장 절실한 자원인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면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정작 1만원, 2만원 이런 걸로 교재 어느 게 좋냐 타령하면서 수어시간을 헛되게 낭비한다. 그리고 교재를 사서 좋다 나쁘다 평가... 하는 것도 비웃을만한 게. 적어도 10회독은 해야지 뭔가 아는 건데 그 정도까지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평론가인 것처럼 나선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다음 해에도 수험생 시즌 2를 시작한다. 소름끼치는 건 이 사람들은 타인들이 자기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 비웃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면 "내가 바보란 말이예요?" 반응을 보인다.

만약 내년을 대비하시는 분이라면 쓸데없는 자존심, 수험생의 미학, 그런 건 버려야 한다. 서재에 손도 안 댄 교재들(특히 실모)이 많다면 그건, "자존심 때

문에 소비한 결과”라고 생각하시길 바란다.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존심과 미학이 어딨나?

지금 불안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시험 결과가 두려운 게 아니다. 이 시점 오고 나서야 뭔가 자기 실상이 보이는데, 그게 연초에 기대했던 자신의 수험생 미학과 모순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존심이 확 상해버린 것인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건 매우 쓸데없는 망상이다.

시험날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그냥 가서 실력대로 치르고 오면 된다. 요행 따위는 기대 안 하는 게 좋다. 요행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력대로 치르고 결과를 묵묵히 받아들인 다음, 그 결과대로 갈지, 다른 길로 갈지, 다시 시작할지 빨리 결정짓고 시간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 글을 읽더라도 안 되는 사람들은 내년 3월까지 그 자존심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날려먹는다는데 머리털을 걷다.

2.5 [학습공학 005] 행복

2015.10.11

한국은 행복한 국가 그만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럼 무인도에 가면 됩니까? 아니, 한국인은 절대 혼자서 행복해질 수 없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하면서도 어차피 끝까지 읽을 거니까 반론하지 말고 들어보자. 행복은 부등식이다. 적어도 한국인의 행복은 평정심이라거나 아가페와는 거리가 멀다. 인삿말인 ‘안녕하십니까’부터가 살기힘들었던 현실을 반영, “밥은 먹고 다니냐”도 짖고 다녀야했던 선조들의 현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행복은 ”남보다”라는 관용구가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수험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재수부터 힘들어지는 이유는 그 때부터

는 자기보다 잘 하는 애나 잘 나가는 케이스와 '비교'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해, 아니 난 행복해라는 명제를 도출해낸다. 현역에 서울대 합격하고 연애 잘 하고 유명해진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만 떠올려도 n수생이고 모쏠이며 은둔형인 자기가 원망스러워진다.

이런 심리를 실험해보기 위해 제가 직접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가 아니라 가끔 대전형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신기한 건, 딱 한판만 해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열판짜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왜 그런가 싶다면 이기면 이긴대로 즐거워하게 되고, 지면 지니까 열받아서 만회한다고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도박판에서 100만원을 잃고 별충한다고 1000만원 끌어박았다가 또 잃어서 다시 만회한다고 1억 퍼붓고하는 케이스와 비슷한데 이런 것의 '승패'는 사실 무의미한 것이다만, 사람이 게임에 몰두하게 되는 건 아무래도 '사냥'을 하던 본능 때문이 아닐까 싶다.

타인과 비교해야 행복해지고 수험생 신분이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것은 그것들의 미묘하게 우리들의 본능과 불륜관계여서인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성적으로는 적어도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는 모델을 한명 정한 다음 그 모델을 따라가는 건 매우 팬찮은 전략이다. 그러나 감성적으로 열폭할 게 아니라, 그 모델의 '노하우'라는 걸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하루에 몇시간 공부했느냐, 어떤 교재를 몇회독했느냐, 어디서 공부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었는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분석한 다음 그대로 '흉내내는' 걸 권한다. 대신 그 사람보다 2등 아래라고 생각하자.

왜 2등 아래로 생각하냐는 건 간단하다. 그 사람을 흉내내면서 좋은 것만 받아먹으면서 뒤를 졸졸 쫓다보면 상대도 사람인지라 언젠가는 추락할 때가 오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앞선다면 내가 먼저 추락했을 것이고 같은 등수 이거나 1등 아래라고 한다면 동반추락할 위험이 높다. 그러나 2~3등 아래라면 나까지 추락하려면 시간이 남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날린 시간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 날린 건 후회한다고 해도 절대 1원도 받아낼 수가 없다. 게다가 후회하는 시간동안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고 잘 나가는 모텔 3명 정도를 추린 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장단점이 어떤지 추리고 가면 된다.

그리고 이런 콩라인들이야말로 꿀을 잘 빤다. 사실 1등은 영예로울 것 같지만 시선도 부담스럽거나와 가장 먼저 힘든 일을 겪는데 대가는 보잘 것 없는 경우가 많다. 1등을 하면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가야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 그러나 2등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나름 상위권 이면서도 주목을 덜 받지만 실속은 많이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그렇거니와 당사자들이 굳이 감정적으로 비교하라면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셨으면 한다. **과거보다 나아졌느냐 아니면 떨어졌느냐**. 이것이야말로 절대 기준이다. 작년 수능에 비해서 올해 수능을 쳤는데 떨어졌지만 1등급씩은 올랐다라고 하면 결코 헛되이 보낸 건 아니다. 과거보다 올라갔다는 건 시간이 걸릴 뿐 목표는 성취할 수 있단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불안함도 긍정적인 신호다.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포기한 사람' 빼고는 없다. 최상위권은 그럼 행복한가. 매일매일 자기가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한다. 당연히 안 그런 척 꾸밀 뿐인 것이다. 좋은 대학에 가려는 것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행하지만 가난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위로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이 불안해지기 위해서, 그 불안함을 먹고 사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이다.

그럼 질문을 바꿔보자. 굳이 행복해질 필요가 있는가? 남과 비교하고 열폭하며 불안해하는 거야말로 살아있단 증거가 아니겠나. 욕심을 버리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며 착하게 살아라.... 헛소리가 아닌가. 결국 구질구질하게 남들 호구짓이나 해주는 식물인간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욕심이 많아야 인생이 재밌는 거다. 욕심이 많으니 늘 불만이 쌓이고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려고 노력하니 심신이 안정되긴 하겠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 것을 많이 불려야하고 남보다 앞서야하는데 착하게 살아야한다고?

시험을 앞둔 이상 불안한 건 당연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긍정적 신호인 불안을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여 자포자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야 수험생다운 탐욕을 부리면서 생긴 불안감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힘들구나라고 잘못 해석되는 해프닝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불안해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 그냥 포기하면 된다.

”그럼 실력자가 된다는 건” ”매일 눈 감으면 파산, 몰락, 지구멸망 등의 상상은 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모평 전부 만점받는 사람일지라도 실제 본 시험에서 어이없는 실수로 후두득 비가 내리는 것 정도까지 상상하고 감수해야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최악의 케이스까지도 담담하게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최악을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2.6 [학습공학 006] 순서

2015.10.18

누군가 논리가 뭔가 물어보면 난 간단히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납득할 수 있는 순서”

이해와 암기는 여기서 하나가 되어가는데. 한 예를 들자면 잘 정리된 그림이나 도표가 줄글로 이뤄진 텍스트보다도 기억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한 일본인 저자가 쓴 책을 읽고 나서 깨달았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기호의 수열”이다.

사실 인지심리학 인간공학적으로 더 상세히 정의할 필요가 있지만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의미' 기억이며, 이 의미기억은 '순서'를 대단히 중시 한다. 사실 이미지 기억조차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순서를 따라간다는 점에서 기억의 핵심은 좋은 머리, DHA, 정체불명의 머리좋아지는 약이 아니라 "납득 할 수 있는 의미들을 가장 올바른 순서"대로 반복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책을 혼자 읽는 건 매우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작업이 되어 가는데. 강의가 책보다도 소화가 빠른 이유는, 탁월한 강사라면 그 의미들을 더 '잘개' 조개서 책보다도 타당한 순서대로 정리해주기 때문이다. 즉, 강의란 더 흡수율이 좋으며 호소력을 갖춘 의미들의 '재배열'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 탁월한 reader라면 책읽기에 있어서 저자의 고리타분한 문장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며 반드시 그 의미들을 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재배열할 것이란 사실이다.

노오력을 해도 되지 않는 공부의 문제는 '논리'가 없다는 것이고, 논리가 없는 이유는 '순서'를 갖추지 못해서이다. 순서를 갖추지 못한 건 본인들이 그런 순서의 '프레임'을 알지 못해서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보면 결국 초기 교육과 독서로 귀결된다. 우리가 배우는 그 고리타분한 예의범절, 이런 걸 지키는 사람들이 계속 상위계급에 위치해있을 수 있는 이유. 그건 바로 '순서'대로 하는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공부시간이 많은데도 성과가 없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 사실 인간은 학습하면 안 되는 동물이라서 공부를 싫어하고 성과가 적어야 당연하지만.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게든 '순서'의 스키마가 있는 반면,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은 그런 걸 갖추지 못 했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머리가 좋건 나쁘건 그건 사실 알기도 힘들고 오히려 머리좋다고 여긴 놈들이 딴 길로 빠지는 것도 적잖게 보았지만, 그 부모가 매우 보수적이고 형식을 중요시하는 경우라거나, 어린 시절부터 독서의 틀을 잡아준 경우는 매우 괜찮다고 보고 있는 중이다.

순서 하나 잘 지키면 이해와 기억까지 모두 확보하고 이것이 연쇄적 반응을

일으켜... 반대로 순서를 지키지 못 하면 그만큼 많은 것을 잃게 된다. 빈익빈 부익부는 이렇게 예정된 것이었을까. 자신들이 깨어있는 척 하던 자칭 참교육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것인데 사실 생각하는 방법이란 것도 결국 인류의 역사에서 확립된 보편타당한 논리적 순서를 따라가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국어, 수학, 영어에서 배우는 것도 결국 '순서' 컴퓨터는 0 1 이진법으로 입력해야 한다. 우리의 뇌가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순차적인 의미'들일 뿐이다. 모든 작업도 순서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 감각의 완전함을 믿은 나머지 그 순서를 종종 무시하곤 하는데... 사실 수능 시험도 "더 효율적이고 타당한 순서대로 입력된 기호들을 더 압축된 순서로 인출할 수 있느냐"로 결정남.

가령 1번문제에서 A라는 단서를 준다.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Z를 연상해낸 사람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2가지로 나뉜다. A→Z인 경우와 A→B→ ... →Z인 경우.

보통은 A→Z를 선호할 것이다. 당연히 쉬운 문제는 이렇게 풀린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간의 B, C, ... X, Y까지 연상해내야한다. 실제로 수학 4점이든 탐구 3점은 많은 논점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가 득점을 좌우한다. 그런데 A→Z로만 학습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못 풀어낸다.

이건 비단 수험 뿐만은 아닌 것 같다. 일반적인 대중은 A에서 Z만 연상하고 나머지는 몰라라하지만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은 A에서 Z를 도출하기 위해 B,... Y까지 다 유도해내고 거기서 쓸 수 있는 건 없나 빛의 속도로 떠올리며 그것도 모자라 가나다라마사부터 일본의 가나문자까지 동원해대기 때문이다.

어떤 강의가 좋냐 한다면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닌가 싶다. 교과서에서는 A→Z로 나와있더라도 이걸 ABCDEFGHIJKLMNOPQRSTUVWXYZ로 짹 풀어 설명해주는 강사. 그것도 알파벳송을 붙여서 뮤지컬스럽게 가르칠

수 있으면 더할나위없이 좋다.

그런데 대다수가 이걸 알리는 없지 않나. 우리의 기억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또한 회상과 연상 역시 '순차적'으로 이뤄질 뿐이다. 이건 매우 간단하지만 중요한 진리이겠지만 이걸 알아먹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경험'해보면서 직접 검증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7 [학습공학 007] 고정관념

2015.10.18

제목만 보면 또 이 꼰대가 뭔 잔소리를 하느냐.... 전혀 오해마셨으면. 뻔한 이야기는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하기도 하는데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라고 하여 공부를 많이 하고 잘 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라는 부작용이 따라온다라고 믿고 있다. 그런데 학습공학 앞선 글에서 논했지만 인간은 자아정체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함부로 학습하는 걸 꺼리는 동물이다. 닥치는대로 학습한다면 그건 공기 중에 노출된 나트륨처럼 대책없이 연소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부가 힘든 이유는 간단하다, 공부한다고 얘기해도 뇌에서 그걸 함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콧대 높은 미녀에게 밀당을 잘 하고 선물, 편지 공세에다가 온갖 심리전을 써야 그나마 데이트가 가능하듯 여러번 회독수를 높이고 강의도 듣고 문제도 많이 풀고 깨져보는 경험을 해야 그나마 뇌에서 에라 모르겠다하면서 흡수해서 공부가 되는 건데. 뇌는 쾌감을 주는 자극도 잘 받아들이지만(음식, 게임, 성 기타 등) 무엇보다 '생존'과 관련된 자극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왜 지칠 때까지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 하는가하는 걸 맥빠진 결론으로 파악할 수 있다. A라는 학생이 공부시간을 늘려서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한다. 당연히 스트레스를 와장창 받게 되고 피로감이 쌓여서 미칠 지경이다, 게다가 타인과 경쟁하고 비교하는 맛에 들린다. 그런데 이것이 "내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신호로 뇌에서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뇌에서는 그 학습을 위험한

경험이라고 여기며 공부하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려 할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12시간 해서 우왕 잘 된다 하는 애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놀아제끼거나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계속 공부해야하는 상황이 온다고 치자. 이런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 첫째, 뇌에서는 그렇게 학습해야 하는 상황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문을 열고 학습하려는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둘째, 정신없이 공부해서 뚱뚱해지고 지쳐버리면 '일상감각'이 사라진다. 그 때문에 그 공부하려는 내용이 직접 무의식으로까지 들어오게 된다. 다시 말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결과가 좋고 힘들어진다.... 라는 통념과 달리 공부를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에 놀리고 피로감이 생기며 제정신이 아니다보니까 뇌에서는 학습하지 않으려던 기존의 쉴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습'해버리는 상태에 도달, 그래서 비로소 공부가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 지금 적으면서도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이든 관찰이든 그동안 설명되지 않던 학습현상이 이걸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가령 학습법에 관한 책을 읽고 집중한다 하는 친구들이 정말 공부를 잘 하나, 유감스럽지만 단 한건도 없다. 나 역시 그런 집중법에 대해선 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실습해보았다, 당연히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어떤 시험이건 성과를 잘 거두는 친구들은 그런 효율성 신경쓰지 않고 아주 무식하고 피곤하게 공부한 녀석들이었다. 절대 편하게 공부한 녀석들은 성적이 좋지 않았다. 우리의 통념은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사실 가장 위험한 착각이 아니었을까. 오히려 피로와 스트레스가 뇌를 항복시켜 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간다고 본다면 효율성이든 뭐든 신경쓰지 않고 무식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결국 잘 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반대로 편한 환경에서 유유자적하게 마치 자기가 제갈량인 듯 한 포즈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정작 결과는 개판인 이유도 설명이 된다. 수험에 대해선 이것저것 만물박사급으로 알고 있지만 성과가 미진한 뜰뜰이 스며프류들도 설명할 수 있다. 오히려 학습효과를 늘리려면 스트레스를 와장창 받고 신체적 피로도 적당히 느껴야 '뇌'를 협박하여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졸렬한 건 비단 손오공도 나뭇잎 마을도 아니다. 바로 우리의 '뇌'이다. 뇌가 우리의 지적행위와 감정 등을 총괄한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뇌는 순결하다능, 깨끗하다능, 공부하기 좋아한다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뇌가 원래 그렇게 완전무결하면 막장드라마가 현실에서 벌어질 리는 없지 않나. 오히려 뇌는 학습하기 싫어하고 말초적인 쾌감을 추구하는 등 우리를 소인배로 몰아가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강제를 해서라도 뇌가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해야한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자면 '스트레스 받지마라'하거나 '신체적 피로를 피하라'하는 건 오히려 위험한 이야기가 아닌가. 학습을 하게끔 하려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나 강한 압박에 시달려야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절대 공부환경은 편해서는 안 된다. 매일 눈물바다에다가 짜증도 부리고 악도 지르며 주먹질도 기물파손도 해야하면서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맛보게 된다라는 걸 뇌가 납득해야한다는 이야기로 간다면 그동안 '학습이론'과 맞지 않는 현상들의 딜레마가 명쾌히 설명될 수 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게 낫다라는 것도 역시 배격해야 할 고정관념일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선 차라리 이틀사흘 밤샘하거나 잠 못자는 식으로 벼락치기로 공부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단 이야기이다. 그 절박한 경험을 해야만 뇌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2.8 [학습공학 007] 황금의 3개월

2015.10.21

공부의 단계를 ABCDEFGHIJKLMNOPQRSTUVWXYZ라고 합시다.

우선 기본서는 저걸 다 커버하긴 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음. 눈에 보이는 문자는 딱 ABC까지만 나타냅니다. 나머지 EFGHIJKLMNOPQRSTUVWXYZ는? 행간에 숨어있습니다요. 행간에 숨어있단 의미는? ABC를 철저히 마스터해서 이걸로 알아서 추론해야한다는 이야기임요. 그럼 왜 애당초 저자들이 저걸 싣지 않지? 그건 두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 그걸 다 싣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다 싣는다 하면 교재 분량이 10배로 늘어납니다. 둘째, DEF의 영역부터는 책에 싣는 건 어려운 '경험적', '실무적' 방법이나 절차여서입니다.

그럼 기출은? 대략 QST의 단계입니다. 기본서의 ABC와 기출의 QST 사이를 메꾸는 것이 학습이겠지요. 혹자 왜 기본서를 보느냐, 기출과 동떨어졌는데.

맞는 지적입니다. ABC와 QST는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알파벳은 QST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저 QST는 ABC로 시작되는 체계에서만 온전한 의미를 갖추는 것이죠.

그럼 문제집은? 대략 DEFGHI순입니다. 그리고 인강은? 초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대략 A~T까지 상당히 왔다갔다 거리는데 문제는 이게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커버 범위는 넓다하더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건 3개입니다. ABC냐 DEF냐 GHI냐, JKL이냐. 이런 식으로요

학습이란 결국 ABC와 QST 사이를 있는 DEFHGIJKLMNOP까지를 본인이 ABC와 QST를 열심히 암기, 이해하고 문풀하면서 채워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역에서 인강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책임'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C에서 Q 사이는 본인이 채워가야 유효합니다. 그래야 T 다음의 UVWXYZ까지도 도달할 수 있죠.

보통은 A~X까지만 해도 최상위권에다가 괴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불완전한 상태에서 문자 10개 수준으로 와리가리거리지만요. 다만 뛰어난 강사라면 QST를 설명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A,B,에서 연유하는지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제목은 황금의 3개월인데 이 녀석은 뭔 알파벳 타령을 하고 있으느냐 일 건데요 이 시점에 오면 3개월만 더 있었으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우선 ABCDE까지, 그리고 OPQRST까지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즉, 공부할 맛이 생겼단 것이죠 그러나 FGHIJKLM은 아직 미완성이거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죠. 이 영역은 학이 아니라 습(習)에 속합니다. 본인이 문제를 풀고 기본서를 읽고 깨져보고 생각하고 고뇌하고 울어보고 소리질러야 달성됩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나면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은 ABC와 QST를 다시 시작합니다. FGHIJKLM을 채워야하는데 그걸 모르고 삽질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더 일찍해서 3개월동안 FGHIJKLM을 스스로 채웠다면 그 때부터는 고수의 반

열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진입에 겨우 성공해서 매출확대하여 브랜드를 알리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시험 직전에야 이 단계에 도달해버리죠.

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은 '시간'이란 것이지요. 1m만 더 파면 금맥에 도달하는 건데라는 교훈으로 인식되죠 제가 보는 수험은 결국 본인이 저 FGHIJKLMNOP까지를 직접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하는 OX로 결정납니다. 이걸 채우고 공부한다면 가치투자가 되는 것이고, 이걸 못 채우고 ABC 와 QST에서 맴돈다면 도박이 되어버리지요.

뭔가 수험생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장사질하는 수험고수들은 QSTWXYZ만 강조합니다라는 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뭘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ABC입니다. 그래야 그 사이를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FGHIJKLMNOP을 채우는 과정이 힘든 건, 이게 바로 결과가 나타나진 않아서입니다. 기출이나 모의 대부분은 QST 이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QST 이상의 과정을 외우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지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가려면 반드시 FGHIJKLMNOP을 스스로 채워야합니다. 그래야만 QST 이상의 내용이 더 이상 '암기'가 아니게 됩니다. 이 스스로 채워야하는 영역은 강사들이나 고수들이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요. 섹시 이미지로 수억씩 벌어대는 미녀들이 자신들의 성형수술을 공개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올해 시험을 치르고 불만족스러우면 일주일만 신나게 놀고, 바로 다시 '문풀'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요. 님들 시험 망했다고 아무도 놀리진 않음. 요즘 수능은 도박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도박을 확실성의 영역으로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나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 수험과목에 대해서 출제자들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은 수능이란 시험에 응시한다는 것 이상으로 꽤 가치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교활, 사악해집니다(...)

+ 할머니심, 아니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면 시험 직전에야 '아, 진작 이렇게 공부할 걸'이라고 깨닫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저도 겪고 후회하는 감정이기

에 적습니다만, 우리들은 비겁해서 '시험 직전'에야 절박하게 공부해서이죠. 예, 공부라는 별로 자연스럽지 않은 지적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 절박해야합니다. 하지만 늘 절박하다간 우울증 걸려 사망할 테니 이걸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기왕 절박한 감정을 누릴 거라면 진짜가 좋겠죠, 지금 남들이 누리는 그 절박한 느낌을 내년에 재도전한다면 그대로 가져가야합니다. 다른 경쟁자가 3~5월에 강사만 따라가면, 교재만 충실히 풀면 되겠지 안심할 동안에, 남들은 11월의 쌀쌀한 가을바람 속에서 공부해야합니다.

공부할 때 드는 감정은 성취감이 아닙니다. 성취감이야말로 부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수억 벼는 사람이 만족스럽게 사나요? 아니죠. 1억 벼는 사람은 왜 2억이 아닐까, 50억 벼는 사람은 왜 100억이 못 될까 늘 불만입니다. 성취감은 순간적인 쾌감일지 모르겠죠.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만약 강사들이 성취감을 얘기한다면 그건 사이비입니다. 만점이 나오더라도 늘 불안할 수 밖에 없고, 1권을 풀고나면 다른 2권을 더 풀어야만 잠이 올 것 같아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성은 개차반이 되고 여기저기 성질 다 부리고 다니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경멸하고 다 때려죽이고 싶고(...)가 정상(?)이란 것이죠. 대중매체는 흔히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을 인간승리로만 묘사하는데 그건 대중들의 입맛에 맞게 꾸며댄 결과입니다.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악마들이지요. 천사로 살면 도저히 공부 못 합니다. 혹자 자기가 천사라고 하는 수재 양반은 남에게 악마로 보인다라는 것을 모를 뿐이죠. 단, 악마로 안 보이는 방법은 같은 악마들 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상담받는 사람 중에서 성격이 매우 더러워지고 깐깐해지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시험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긴다라는 건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사람의 탈을 쓰고 공부하는 다른 악마, 악귀, 귀신, 사탄 등과 두뇌로 승부하는 게임이죠.

++ 망하는 지름길은 딱 하나입니다. '만족'하는 것이지요. 흔히 욕심, 탐욕을 경계하라 합니다. 그런 말은 '의식주'도 책임 못지면서 마누라에게 일 다 시

커먹으며 첨질하는 선비들이 현재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 기득권 유지하던 동아시아 고대, 중세 국가에서나 나온 위선적인 이야기이죠.

주부의 낮잠, 침 질질 흘리고 게걸스럽고 우웩거립니다. 이걸 ”누님의 오수”로 바꾸면 저작권 인정 안 된다는 일본의 창작물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나죠.

사람들은 욕심에 대해선 거부감을 느끼는데, 운명을 개척하라에 대해선 오오~ 그렇지요. 그런데 개척의 전제 자체가 ’욕심’이자 ’탐욕’이 아닌가요? 그리고 개척의 결과가 바로 빈부격차 형성과 자연파괴 아닌가요? 그런 것 없다라고 말장난할 게 아니라, 실제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말의 몇에만 신경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족하며 살면 가난해진다라는 말이나, 개척 안 하고 멈춰있으면 빙곤해진다라는 말은 똑같은데 전자는 비난먹고 후자는 찬양받죠.

위선적인 건 질색이죠. 여기 수험판만 하더라도 적잖은 장삿꾼들이 수험생을 위한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인세’나 ’수업료’를 더 바란 것 아닌가요? 좋은 문제 공유? 기실은 왜 더 많이 안 팔리느냐, 쓸데없는 실○가 쏟아진다하던 게 그들의 내심이 아닌가요? 좋은 의도라는 것도 그게 현실에서 ’금전거래’와 결부되면 일단 의심받는 게 당연하죠.

이 글 읽는 수험생 분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기적인 방향으로 가세요. 이런 생각도 하겠죠, 내가 윤리적이지 않으면 세상 안 굴러가는데.... 나중에 더 많이 경험해보시면 아십니다. 이 사회가 무서운 것이 -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회를 설계한 문과계열인들이 무서운 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게걸스러운 탐욕에다가 발바리스러운 성욕을 지닌 인간이란 짐승들이 그나마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설계도를 짜놓았단 것이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항상 자기 처지에 불만을 느끼고 더 많이 얻을 수 없을까,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훔칠 수 없을까 고뇌해야합니다. 그래야 진보합니다.

2.9 [학습공학 007-2] 읽는 법에 대해서

2015.10.21

그냥 보는 것과 읽는 것은 다름. 본다는 건 그 그 이미지로 느끼는 것이고 읽는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로 분석한 다음 의미를 읽어내는 것임.

의미를 읽어내면 추상적 명제들로 나눌 수 있고 그 추상적 명제들의 조합으로써 그 읽은 문장의 전제와 결론을 추론해볼 수 있고 그런 추론 과정에서 과거를 추적하거나 미래를 예견해볼 수 있는 것임.

수학에서 배우는 것이 그것인데 수학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은 주어진 문제들을 분석해 읽은 뒤 그 조건, 공식, 그래프 등이 뭘 의미하는가 위에서 말한 과정에서 읽어내어서 해답을 구하기 위한 풀이과정을 '순서'대로 나열, 즉 논리적 풀이를 해나가는 것임. 물론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번거롭다 거치지 않고 자기가 암기한 패턴대로 풀어댐. 당연 올해 치를 수능시험의 21, 29, 30은 그렇게 내지 않겠죠.

우리가 음식물을 그냥 먹는다고 영양분이 되는 게 아니지요. 소화를 시켜나아가야지. 꼭꼭 잘 씹고 적당한 양을 적시에 섭취해야 소화기관에서 기계적, 화학적 소화를 시켜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읽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라는 건 양날의 검이지요. 강의가 책보다 잘 들어오는 이유는, 보통은 강사가 '소화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강사는 교과서나 참고서를 가지고 실제 시험문제를 풀 수 있게 자기만의 해석을 전달하는데 그 해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득점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강의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두셔야 함, 져건 강사의 해석이지 님들의 해석이 아니라는 것. 교과서나 참고서가 아무리 풍부한 내용을 담았다고 한들 그걸 본다고 실력

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읽어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번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내용을 기억할 건 기억하고 나에게 맞는 의미로 소화시켜 숙달시켜야죠. 게다가 읽을 '관점'과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지요. 초기에는 정독이 무리라서 속독으로 대충 읽으면서 지도를 파악하겠죠. 그러나 가랑비에 옷젖듯이 반복해 읽다보면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 내용이 숙달되기 시작하면서 '정독'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스스로 풀면서 "왜 그런 결론이 나오나", "xx한 문제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나"라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실력이 오르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교재 추천해달라 어떤 교재 좋냐 하는 사람들을 강경하게 취급해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저런 단계는 도달도 못 해보았단 이야기 이거든요. '읽는다'의 경지까지 가면 교재간 차이는 - 적어도 시중교재만 보면 무의미해집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이고, 또 어떤 읽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일상어처럼 자유자재로 쓰느냐여서입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즉 읽는 걸 못 하니까 더 새로운 내용이 있을지 모르는 교재를 찾거나 다르게 해석해주는 강의를 찾는 거죠. 국가로 비교하자면 제조업 자체가 없어서 농업에 의지해 선진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규칙적 운동을 해서 건강한 사람이야 그냥 소박한 백반만 먹어도 날라다니겠지만, 비실비실거리는 멀치나 파오후거리는 뚩보는 현기증난다고 무턱대고 보약지어달라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수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험입니다(논술시험도 마찬가지이겠지만요) 님들이 문제집을 푸는 건 '읽는 과정'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답을 함부로 보지말라하는 것도 그것이죠. 스스로 문제를 읽고 답에 도달하기 위한 추론과정의 틀을 해설에서 배우긴 합니다만 일정단계에서는 직접 해설을 만들어야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변별력을 좌우하는 퀄리문제의 공통점은 그런 읽기-해석을 10계단 정도 끊어야하거나와 아주 정확히 논증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강의에서 퀄리 공략법을 내세워보았자 소용없는 것은 이런 것들은 결국 매우 정확한 논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

다.

올 1년동안도 쭉 관찰을 하고 교차해보았지만 교재 가리지 않고 그냥 하나 딱 정해서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덜 됩니다. 가장 현명한 건 작년 11월 이후에 바로 빨리 시작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이 역시 시간이 모자라다 아우성이지만요)

반면 똑똑은 한데 이상하게 시험에서 나가리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당연히 왜 그런가 생각해보고 탐구해보지만 첫째, 공부량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함. 연습이 덜 되어있음. 둘째, 특정 인강이나 특정 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고 절대 거기에서 안 벗어나려함(이른바 '닫혀있는' 케이스) 셋째, "읽는 능력" 자체가 부족함.

다시 말해 본인은 매우 똑똑하고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망가짐 - 그리고 특히 이런 케이스가 이공계에 많음. 왜 그런가 하면서 내세울 수 있는 가설은 그겁니다. 지나치게 특정한 틀에 매여있는 것도 그렇거니와 "읽는다"는 걸 하지 못 합니다.

2.10 [학습공학 008] 흙수저의 공부법

2015.10.23

랩새가 황새따라한다라는 속담도 있죠. 흙수저의 문제점은 흙수저답게 공부해야하는데 자꾸만 금수저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10대 분들은 '자본'이나 '가정환경'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관념적으로만 알지, 이걸 체감상 느끼기는 힘들 것입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교수나 전문직급 부모 아래에서 독서도 많이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명문학교 간 학생과 맞벌이 부모 밑에서 울며겨자먹기로 뾰로로나 보다가 pc방에 맡겨져 그냥 평범한 학교간 학생은 정말 '같은 인간이 맞나'할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저 명문학교 간 학생이 ”인간은 평등하다”란 말을 외친단 것이죠 ㅋ 인권적 메시지조차도 실은 상류층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흙수저 입장에서든 저런 걸 보는 제 입장에서든 인간이 정말 평등한 것 맞아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수험사이트에서 최상위권 학생이 만들었다는 교재들은 흙수저를 배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걸 가장 많이 구매하는 건 흙수저입니다. 뚱배나온 아줌마들이 드라마의 여주인공들이 입는 옷이나 걸치는 장신구를 구매하는 것과 똑같죠. 반면 정말 흙수저에게 필요한 책들은 수준이 낮다고 까이죠.

그 비극은 흙수저들의 컴플렉스 때문입니다. 실상은 흙수저지만 나는 절대 흙수저가 아니야라고 소리치고 싶죠. 창조경제 어쩌구 이전에 ’마케팅’의 강력한 무기는 상대방의 컴플렉스 자극이라고 하죠. 하위권이기 때문에 1등 교재에 집착하고, 상위권들이 모인다는 수험사이트의 글을 열심히 읽습니다. 정말로 뱃새가 황새 따라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지요.

흙수저가 정말 흙수저를 벗어나려면 흙수저의 장점을 살린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보다는 암기를 해야하고, 스킬에 집착하기보단 양치기로 가야하며, 나는 저 금수저보다 머리가 10배는 나쁘다, 그 대신 엉덩이도 10배는 무겁다라고 가며 너희 금수저놈들이 이 진흙탕에 들어오면 내 먹이다, 나는 나만의 ’노예 방식’으로 너희들을 압살해주겠다라고 하며 가야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흙수저들은 금수저들에게 훌려서 금수저에게나 먹히는 방식으로 가다가 더 좌절해버리죠.

다이아몬드나 흑연이나 성분은 똑같죠. 흑연수저가 더욱 흑연을 많이 모아 고온고압 상태에 가면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는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노오력이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감부터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노오력 말고 다른 길이 있느냐 물어보면 단 한명도 답을 못 하답니다. 흑자 이 사회를 바꾸면 된다 하는데 그래보았자 그런 걸 원하는 머리좋은 사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뿐이죠.

2.11 [학습공학 009] 야수 길들이기

2015.10.29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보자. 낙서가 많이 된 5년 묵은 오피스텔 투성이 EBS 교재를 던져주고 사흘동안 공부해서 2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 상황이 온다라고 해서 공부하면 과연 성적이 오를까 안 오를까.

이게 뭔 소리요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실제로 공부를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다.

엄밀히 말하면 공부는 '뇌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강의를 듣는다거나 책을 펼친 뒤 안구를 굴린다거나 사실 그것 밖에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뇌를 특정환경에 놓아 자극을 받도록" 관리하는 것 빼고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란, 뇌가 알아서 공부하도록, 즉 공부가 되도록 하는 환경을 준비하고 유지하는 것 빼고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결심할 필요없다. 그래보았자 30분도 안 지나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보다는, 주변을 청결히 하고 공부할 책만 갖다놓으면서 진도가 얼마나 나갔나 체크하면서 공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낫다.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배에 왕자를 새기거나 섹시한 하반신을 만들듯이 뇌를 단련시키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뇌가 자극받아 변하고 난 다음에야 공부의 맛을 알기 때문에 뇌는 더욱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원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공부에 중독되는 것이고, 이렇게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실제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라는 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얘기다.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의지가 강하다거나 패기를 발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렇다고 손모 선

생이 얘기한대로 유전자가 특별히 좋아서도 아니다(유전자만큼 불확실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나) 단지 그 친구들은 뇌가 그렇게 공부의 맛을 아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환경에 장시간 놓여있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공부는 능동태가 아니다. 그냥 뇌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보다 더한 쾌감을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 드라마, 야동 등을 멀리해야 한다. 공부하다가 30분도 안 되어서 접속한다면 그냥 인터넷을 잘라버려야 한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뇌가 다른 마약에 중독되지 않고 공부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자기는 공부 열심히 하려 하는데... 라고 다짐하면서 2년 이상 뺄짓하는 인간들의 문제는 우선 본인이 직접 밥벌이도 안 하고 고생해보지도 않으면서 그저 엄마가 주는 세끼밥이나 챙겨먹으면서 언젠가는 자기가 공부를 잘 해서 이 모든 것을 만회하겠다는 전혀 현실성 없는 착각을 하고 있단 것인데 난 진실만 말한다. 100명 중 1명 정도만 가능하나? 나머지는 그냥 허송세월하다 집안 말아 먹고 사건사고 기사에 날 가능성이 높다. 공부한다고 평계대면서 노동을 회피하고 잉여질하는 상태만큼 '뇌'가 좋아하는 게 없다. 그 상태에서는 공부한다는 의지나 각오조차도 뇌의 평계 수단으로 전락할 뿐이다. 이런 친구들은 가차없이 식민통치 당하는 수 밖에 없다. 군대도 좋은 약일지도 모른다.

자, 공부라는 건 뇌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건, '공부하기 싫어하면서 마약, 게임, 섹스'나 좋아하는 뇌를 혼내고 길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뇌는 교묘히 우리의 이성을 잠식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다. 인강과 교재를 선택하는 것조차도 기실은 **야동을 골라보는 것과 똑같다**. 공부가 더 잘 된다는 건 개뿔이고, 실제로 뇌는 덜 고생하고 덜 공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다. 그래서 **인강과 교재를 선택한다는 평계로 그 기간동안은 '공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생각없이 양치기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다. 양치기만큼 뇌를 굴복시키는 합리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수능시험으로 가보자. 지금부터 뭘 해야하나 실모나 직모를 푼다? 난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 본다.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그건 올해 여름, 늦어도 9월까지이다. 왜냐면 이 때까지는 척척히 깨져보아야하고 뇌를 재조립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까지는 실패경험을 해도 좋다, 왜냐면 10월에 만회할 수 있어서이다.

무슨 이야기냐고 하는 분은 다시 윗 주제를 보자. 공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공부는 뇌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뇌의 조련사일 뿐이다. 뇌가 시험에 최적화되도록 달래거나 설득하거나 협박하거나 억지부리거나하는 게 우리의 몫이다.

시험이 10일도 남지 않은 지금은, 오히려 '성공 경험'을 해봐야한다. 그 점에서 좋은 건 '쉬운 문제'를 시험형식으로 제 시간에 맞춰 풀거나, 아니면 과거에 풀었던 기출을 다시 보는 것이다. 만약 이런 것들도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면, 내년 수능을 치르는 게 낫다(이건 실력이 태부족이기 때문이다) 시험문제를 다 맞거나 아니면 1~2개로 선방하는 그런 체험을 해봐야 뇌는 '고득점'의 의욕을 불태우게 되고 그래서 시험 당일날에도 컨디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었다면 극단적인 비율로 줄여보시길 바라고, 전에 말한대로 아침 5~6시에 기상해서 시험시각에 맞춘 과목실전연습을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로 하시길 바란다. 그래야 뇌가 시험을 좋아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시점에서 어려운 문제 푼다고 실모 간다거나 직모 가는 건 점수가 잘 나오는 최상위권 아니면 비추다. 그런 문제들을 풀었다가 좌절하는 경험을 해보았자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들이 실제 시험에 나오다는 보장도 없고(만약 적중한다면 적중하는대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버린다) 사실 그걸 내는 사람들은 응시자들이 시험이 망하건 말건 책임질 일은 없기 때문이다.

과거 기출이나 교육청 기출 등을 똑같은 시간 내에 분량을 1.5배로 늘려서 본인들이 실전연습을 해보는 게 낫다. 시험 당일날 가장 중요한 건 문제푸는 체력이다. 중간에 기진맥진하거나 지쳐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다. 마라토너

들이 트레이너들의 관리로 당일 뛰기 위한 포도당을 비축해놓듯, 수험생들도 당 일을 위한 리허설을 해둬야한다.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그건 역시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다. 시험문제는 뇌가 알아서 푸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곤 뇌가 실수하지 않게 보조하는 것 뿐이다. 본인들이 단련한 뇌를 믿는 수 밖에 없고, 뇌가 불안해하면 다독이면서 '시험쾌감'을 주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할 일이다.

'제 뇌는 못 믿겠는데요'하는 사람이야 쿨하게 올 시험 강 올림픽 정신으로 치르고 다시 시작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어?

2.12 [학습공학 010] 명문고의 방식

2015.11.07

노력보다 습관이 중요하고 목표보단 성격이 강조된다.

그럼 이를 위해선 어찌해야하나, 바로 환경을 바꿔야하는데 수험생에게 환경이란

- 공간 : 공부와 체육과 과외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 시간 : 규칙적인 기상과 취침, 제 때에 하는 식사, 그리고 뇌를 위한 효율적 스케줄링
- 도구 : 매우 효율적인 교재, 책걸상, 필기도구 등.

이런 걸 잘 종합한 게 바로 명문고 - 딱히 표현할 말이 없어서리 - 가 아닌가 싶다. 아래 영상은 두고두고 공부하실 분들이 봐야할 영상이 아닌가 싶은데

척 봐도 공부하는 것에만 쾌감을 느끼게 생긴 학생들인자라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저기서 눈여겨보아야할 것은 바로 '정체성'이다.

명문학교가 일단 사기캐로 먹고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너는 명문학교 학생이다”, ”우수한 녀석이다”라는 자부심이 일단은 고민거리를 확 덜어준다는 것 그리고 라이벌들과 경쟁구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징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덤으로 말하면 저기에서 좋은 교재 나쁜 교재도 알아서 검증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교재선택고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런데 이런 특징이 N수생들에게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자기가 N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자존심이 확 상해버리면서 의욕상실이 나타난다는 것. 혼자 공부하는 경우가 많거나, 학원에서의 라이벌 구도라는 건 그다지 강하지 않아서 싱크로나이징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명문학교에 들어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 다시 말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이건 명문학교에 들어간 애가 우수해서만이 아니다. 명문학교의 시스템 자체가 입시에 매우 최적화되어있기 때문에 - 물론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도 많지만 - 저 시스템에서 시간을 보낸 우수한 학생이 저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는 우수한 학생을 추월하는 일들이 생긴단 것이다.

내년 시험을 앞두는 학생들이라면 우선 저런 시스템을 따라갈 수 없을까, 아니면 따라가기 힘들면 저걸 본딴 자기만의 미니 시스템을 가족들의 협조, 혹은 친구들과의 계모임으로서 구현할 수 없을까 고민해보는 게 좋다. 별써 지금 포기각이 나온 사람도 있고 열심히 달린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작년에 내가 한 얘기 -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걸 절감할 것이다. 그러나 학원에 간 사람은 학원에라도 안 갔으면 어찌되었을까, 도서관에 간 사람은 도서관에 안 갔으면 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공부가 안 되신다거나 지금 다 때려치고 싶다는 분들은 저 영상 한 30분동안

보시길. 공부에 의욕을 주는 영상이나 그림 따로 모아서 게시할까 모으고 있는데 저 영상도 그 중 하나임.

+ 물론 저거 방송한다니까 좀 과장한 것도 있을 것이다. 방송용 이미지는 따로 있는 법이니까.

+ 그리고 명문학교일수록 노는 것도 잘 논다. 공부만 한다고 보는 건 무리
- 나만 하더라도 고딩 때 가장 많이 논 것 같다(...)

2.13 [학습공학 011] 생략과 속도

2015.11.10

성적이 주로 떨어지는 시기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다. 단지 고등학교 과정이 힘들어져서 그러는 건가라고 의심할 수 있긴 한데 사실 생각해보면 중학교 과정도 그리 만만치 않은 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거 바로 ”거품”

중학생들이 성적을 올릴 때에 받는 유혹은 무조건 ’빨리’ ’많이’ 푸는 것이다. 많이 푸는 건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빨리’ 푸는 과정에서 우유에 물 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중학교 수학 출제의 맹점은 ”논리적 조건을 꼼꼼히 따지거나 개념을 음미하지 않아도 패턴만 암기하면 점수가 잘 나온다”는 것이다. 반대로 개념을 꼼꼼히 이해하고 논리적인 조건을 다 따지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진학 후 어떻게 맛이 갈지 뻔한 것이다.

고교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꼼꼼한 논리다

ABCDEFIGHJKLMNOPQRSTUVWXYZ를 전부 빠짐없이 연상해 나가면서 풀어야한다. 사실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4점짜리 퀄리티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다.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은 A F O T W Z 이런 식으로 생략해나가면서 스피드업을 한다. 이래서 단축되는 시간은 사실 그리 쓸만하지 않다. 왜냐면 저런 생략 때문에 놓치는 논점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사실 고교수학은 생략은 독이다. 오히려 검증체계를 갖춰도 힘든 판에 - 가령 계산실수를 막으려면 효율적인 검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숫자 계산을 할 때에도 식 뿐만 아니라 수평선까지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라도 틀리는 경우면 수년간의 공부가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학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지? 저렇게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다 밟으라고 가르칠 수 없다. 한정된 시간에 요점만 전달하는 축사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럼 인강은 어떤가,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물론 떠먹여주며 꼼꼼히 가르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꼼꼼히 따지고 논리적인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 교과서에 ABCDE 가 쓰여져있더라도 AA'A"BB'B"CC'C"DD'D"EE'E" 이렇게 더 심화시켜보는 '습관'이 중요한 것이다. 강사가 떠먹여줘보았자 한계가 있다. 나중에는 자기가 할 줄 몰라서 끝가지 강의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야매 교재는 절대 볼 게 아니란 것이다. 야매 교재가 좋은 건 하나다. 출제 패턴에 참 근접하게 써놓았다는 것 그래서 당장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여기서 익힌 방식으로는 절대 꼼꼼하게 갈 수가 없다.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온 경우? 수저가 금속이거나 다른 사교육을 받는 등 그래도 기본이 되어있는 케이스다. 내가 아는 한 중하위권 이하가 야매교재를 보는 경우는 올라가기 참 힘들다. 더 웃긴 건 본인들이 공부를 안 해서 야매교재가 나쁜 걸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망친다.

수학은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 세밀화를 그리듯이 꼼꼼히 학습하고 풀기 싫은 것도 풀고 그렇게 거북이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르다. 하지만 중하위

권일수록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려한다. 그래서 결국 더 늦게 가버리는 것이다. 세밀화 방식으로 꼼꼼히 논리적으로 가는 사람, A~Z를 AA'A''A'''A''''A'''''.... A'''''''''''''''''''' ~ ZZ'Z''Z''Z'''Z'''''.....Z'''''''''''' 까지 학습하면 그런 야매 교재에서 선심쓰는 척 하는 스킬이나 꼼수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게 될 것이며 괜히 교과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그런데 상담이라는 것을 해봐도 느끼지만 수험생들 다수는 참 서두른다. 뭔가 지름길이 있다고 착각해대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둘러서 결과가 좋은 케이스는? 유감스럽지만 단 한건도 없다. 그렇다고 1년이란 시간을 알차게 쓰나. 어림잡아 5개월이라도 공부하면 다행일 것이다. 교재나 인강 좋은 것 고른다고 하지만 정작 쇼핑해놓고 제대로 듣는 케이스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결국 문제는 '편한 길로만 빨리 가려는 것' 때문에 결국 수년간 정말 '백수'처럼 편안히 지내는 것이다.

비단 수학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렇다. 어떤 일이든 결국 잘 하기 위해선 사전에 정말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는 걸 느낀다. 주어진 절차나 매뉴얼을 하나하나 꼼꼼히 지키면 실패할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뭔 일이 생긴다 하면 그건 결국 집단적으로는 인재, 개인적으로는 내 부주의, 준비부족, 그리고 자만심 때문인 걸로 판명난다.

수학을 잘 한다는 천재들에 대해서 말이 많다. 문제지를 적게 풀고 놀 건 다 놀면서도 성적이 높은 괴수들. 그런 친구들 절대 성격 급하지가 않다. 여유롭게 호기 부리면서도 스나이핑을 정말 잘 한다. 그럼 스나이핑을 잘 하는 건 유전자가 좋아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린 가정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기본바탕이 잘 되어있는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수학을 잘 한다라면 그렇지 못 한 환경에 자란 친구들로서는 서운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대안은 간단하다, 그런 환경에서 못 자랐다면 본인이 그런 환경을 만들면 된다.

스피드업을 하기 위해선 '생략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만약 하나라도 빼먹는다, 절대 스피드업을 하면 안 된다. 그 순간 인생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다. 나사 하나라도 잘 안 조여진 우주왕복선

을 타는 미친 놈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너무 자만해 나사를 대충 조인다. 아무리 수학문제가 답이 다 맞더라도 본인의 풀이과정에 핵심적인 게 누락된다면 그게 결국 발목을 잡게 되어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을 학습하는 시기가 바로 중2~3 때이고 그게 고2~고3까지의 장기간 침체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2.14 [학습공학 012] 도그마틱

2015.11.17

제대로 된 개념서를 보아야한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만약 A라는 개념을 다른 퀄리문제가 있다면, 출제자는 어디까지 내려고 할까? A라는 개념을 그대로 내진 않을 것이다. 그럼 너무나도 쉬워진다.

문제에는 A2나 A3으로 변형해 제시한다. 그건 그래프일수도, 식일수도 있고 혹은 B나 C라는 조건을 정리해보았을 때에만 비로소 A라는 개념이 쓰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A라는 개념이 쓰이는 걸 학생이 알아도 그대로 풀게 할까? 그건 아니다. 교과서나 개념서에서는 A라는 개념은

A의 정의 A' A의 배경 A'' A의 성질 A''' A의 공식 A'''' A의 지엽논점 XYZ

로 제시되어있다. 당연히 출제자는 A를 그대로 내지 않고 저기서 A'와 XYZ를 조합해서 풀 수 있게 낸다.

자 그럼 이것이 새로운 것인가? 어디서는 이게 무슨 특효약인 줄 알려져있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다. 저 방법은 우리나라 고시 2차 시험에서 답안작성할 때 쓰이는 방법이다. 그럼 그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나? 아니지. 우리나라

학문은 대놓고 일본 것을 베껴온 것인데 무슨(궁금해서 일본 책도 수입해보았는데 일본 책이 더 잘 나왔더라) 그럼 쪽발이들은 자기들이 다 개발했나? 아니지, 얘들이 수입한 건 독일학문이다. 저런 식의 사고방식이 바로 Dogmatik이라고 하는 것이라. 그럼 독일 얘들은 오딘 신에게 받았겠나. 칸트나 헤겔이나 그 제자들이 발전시켰겠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로마 학문을 발전시킨 결과지.

이런 것 야매로 해서 돈버는 병신들은 별 신경도 쓰긴 싫다(사실 언급할 가치가 있나) 저게 뭐가 대단한 것인양 숭배하고 찬양하는 광신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인터넷 시대의 원시부족 추장놀이도 아니고. 하지만 자기들이 공부하는 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나 그건 치열하게 추적하고 근원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 놈의 나라는 외국 것을 그냥 무단으로 베껴다가 자기가 개발한 것인양 얘기하면서 교주놀이하는 병신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럼 수학을 잘 하고 싶은 길은 저런 도그마틱을 철저히 익히고 암기하고 계속 개발시키는 것이다. 내가 야매교재로 분류하는 책들의 문제는, 도그마틱을 구현해도 참 어설프게 구현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책들을 칭찬하는 친구들의 수험기를 보면 본 책들의 수준이 참 비슷하다.

도그마틱 수학의 대표가 뭔지 아나? 바로 정석이다. 사실 정석이야말로 '이게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저런 도그마틱 체제를 정말 잘 구현한 책이다. 그런데 정석이 참조(?)했던 것으로 보이는 차트식 수학과 비교해보면 그렇다. 정석은 변화가 없는데 차트식은 정말 진화를 하더란 것. 아무튼 우리나라 수학문제집은 사실 거의 다 저 '뭔가 정체한' 정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석을 참조해서 만들어진 것임은 좋은데, 도그마틱의 정신(?)이 망각되기 시작한 거지. 수험사이트의 수학고수들? 개들이 머리가 좋아서? 웃기는 소리다. 머리가 좋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는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나도 지금까지도 모른다. 다만 수학 잘 한다는 얘들은 저 도그마틱이 머리에 잘 박혀 있고 그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단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비밀인 것 같은데?

궁금하면 올해 수능부터 시작해 역대 수능 퀄러문제의 해설 그리고 수리논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시중 개념서와 교과서의 저런 정의, 성질, 공식과 대응시켜보길 바란다. 그래야 왜 '교과서가 강조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웃긴 게 도그마틱을 달달 외운 녀석들은 수학 잘 한다라고 거드름피우면서 정작 자기들 교재에는 도그마틱을 반영해놓지 않았다. 불성실한 건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영업기밀을 누설하기 싫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식의 장사는 하기 싫은 나는 양 말하지. 잡소리 집어치우고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우라고. 그걸 순서대로 구현할 수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런 도그마틱 방법론은 수학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비롯된 모든 학문에 다 쓰이는 방법론이라고. 심지어 국어, 영어, 탐구도 마찬가지라는 것. 이런 쓸데없는 돈을 쓸 필요는 없다. 저기까지 가야 아, 자기가 얼마나 병신같이 신비주의적 마케팅에 사로잡혔나 깨닫고 이불킥 성충권까지 시원하게 차올리겠지. 그리고 도그마틱에 맛들이면 그 다음부터 서양의 온갖 학문을 섭렵하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이런 방법론은 남들에게 알려줄 건 없고(어차피 이 글 읽은 애들도 새 가슴이라서 대부분 또 휘둘리겠지) 그냥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 보시길 바란다. 최소한 3년간 내가 보는 수학 사교육은 갓가원을 못 따라잡았거든.

2.15 [학습공학 013] 논리적인 사고란?

2015.11.22

1. 대상을 기본 단위들로 쪼갠다.
2. 기본 단위에 순서를 매긴다.

3. 그 순서대로 생각하고 실천한다.

고교과정에서 말하는 논리적인 사고는 이걸로 끝. 연역추론이나 귀납추론이라는 건 하나의 기술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 어느 단위까지 쪼개느냐. 그야 우리가 익숙한 $P \Rightarrow Q$ 사고가 가능한 기본명제나 기본작업단위까지 쪼개면 된다. 실제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논리학에 익숙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건 간단하다. ”순서대로” 하기 때문이다.

혼자 공부하지는 못 하는데 인강, 학원을 따라가거나 집단으로 공부하면 되는 이유? 그건 간단하다. 대부분의 강의는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순서를 지키지 못하면 전달이 현격히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공동으로 일을 하면 서로 호흡을 맞춰나가야기 때문에 역시 순서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혼자 공부하는 경우는 지켜야 할 순서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자기 멋대로 해도 되기 때문이다.

책은 논리적이다. 페이지든 목차든 다 번호가 붙어있다, 내용도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다. 물론 그 순서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재배열하는 경우가 좋은 경우도 있다. 그럴 때에 강의가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건 본인이 재배열해보는 것이다.

중학교 때까지는 왜 스피디한 풀이가 가능했는데 고등학교부터는 안 먹히느냐? 중학교 때까지는 순서가 그리 필요없다. 모두가 $P \Rightarrow Q$ 의 원샷원킬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학습은 $A \Rightarrow B \Rightarrow \dots \Rightarrow S$ 이런 식으로 단계 순서를 정확히 밟아줘야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텍스트를 천천히 읽으라고 하는 것이며 자잘한 꼼수나 스킬은 일단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다. 본인들이 순서를 지키는 것조차 못 하는데 무슨 입시고수의 스킬을 배운다? 주화입마에 빠져버리고야 만다.

형식과 개요 모두 순서에 속한다.

어떤 교재를 봐야하느냐는 건 당연히 자기에게 모자란 것을 보충해주는 것이 되겠지만, 개인의 특성을 제외하고 좋은 교재와 나쁜 교재를 구분하면 순서를 지키면서 순서대로 사고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재가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재가 나쁜 교재인 것이다.

재밌는 건 수험가에서는 후자가 선호되고, 그래서 망한 학생들도 적지않게 보인다는 것이고 실제로 저자들을 추적해보면 공부라는 것을 하는지 의심스럽거나와 기본 사고나 성격조차 의심되는 경우도 많다.

교과서를 보라는 이유는 별것이 아니다. 올바른 순서대로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자꾸만 뭘 봐야하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검증된' 것을 보면 된다. 검증된 것을 보지 않고 과대광고된 교재 보는 사람들이 정말 성과들이 좋았나 확인해보시길, 그딴 것은 없기 때문이다.

머리가 좋냐 안 좋냐는 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순서를 지키느냐. 즉 예의를 지키며 형식적인 것을 준수하느냐는 건 정말 차이가 난다.

2.16 [학습공학 014] 지성 vs 야성

2015.11.26

섬세한 대신 약하게 준비하느냐 아니면 섬세함을 버리고 강하게 준비하느냐 차인데 승률은 뒤의 것이 더 나아보입니다.

섬세한 플레이가 유효한 건 명중률 - 즉 적중률이 높을 때를 말하는 건데 최근 3년간 출제를 보면 그런 걸 기대하기 매우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xx 강의나 xx 모의고사만 보니까 잘 나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임요.

그냥 아무 생각없이 구할 수 있는 교재를 다 구해서 풀어대는 게 낫다는 이

야기입니다. 물론 기본 - 유형 - 기출 - 탈패턴 -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기 - 논술
급도 손대보기는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사실 입시정보라는 건 수능이 잘 나와야 의미가 있지, 그 외에는 쓸모가 없죠. 아울러 입시강사들이나 교재저자들은 입시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입시정보나 특정 강사 및 교재에 치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도 수험생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저기 들일 돈이 있으면 차라리 이 시점에 운동하는 게 나을 겁니다. **6월부터는 다시 체력에 협력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그럼 극단적으로 A 강사 커리를 따라가는 것과 그냥 교재 *그는 알고 싶다*를 풀어대는 것 중 후자가 낫다는 이야기냐 할건데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것임.

강사가 말하는 것 대부분은 개념서, 기출 해설에 있습니다. 그 강사만의 특유한 스킬이나 노하우는 사실 여름 정도 되어서 강의 평가 올라올 때 그거 따라들으면 되는 것이죠. 오답에 얻어맞더라도 문풀을 해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인 상태라면 그 이후에 인강 흡수율도 좋지만, 반대로 인강만 따라들었다가 나중에 문풀로 가는 경우 인강을 안 들은 것과 큰 차이가 없어서 다른 인강을 찾습니다.

대략 관찰해보면 왜 수험에 빠삭한 사람들이 n수를 하느냐.

지성은 과다, 야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성이 너무 치우쳐져있고 지성이 부족한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만. 이건 콕콕 대다수가 다 해당되는 얘기죠.

야성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학생들이지요**. 다시 말해 여자들은 야성이 넘치는데 남자들은 야성이 부족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싶냐 들어가면 진화심리학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보겠

음.

- 여자는 남자보다 자기 현실을 바꾸고 싶어하는 절박한 심정이 강하다.
- 남자들보다 터프하다(* 와타나베 준이치의 칼럼을 읽어보면 여자들이 얼마나 둔감력이 강한지 나와있죠)
- 애까지 낳으면서 그 애를 키울 준비도 되어있다.
- 여자들의 사랑은 그리 로맨틱하지가 않다
- 여자들은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간다.

남자가 야성이 넘치고 여자가 야성이 없다라는 건 편견이죠. 수험 뿐만 아니라 실제 전분야 보면 여자들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수험은 오히려 적절한 조언만 뒤따르고 체력만 뒷받침되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안 그러죠. 자기들이 야성이 넘치고 씩씩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천만에~ 섬세하고 우유부단한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멋지게 보여야한다는 강박 때문에 터무니없는 선택도 하죠. 거기다가 여자들에 비하면 덜 절박감도 느껴서 그런가 그렇게 처절하지 않으며 일관된 공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콕콕에 오면 흔히 5수는 기본이다라는 말이 웃고 넘길 게 아닙니다. 이건 수험사이트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수험적 귀납법이 성립하는 이유는 다들 너무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온갖 상술에 휘말리면서 나중에 입시는 잊고 교재와 강의 포트폴리오 짜기에 여념이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수험멘토라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이 하는 조언은 전혀 마초적이지가 않습니다. 즉, 야성 결핍증에 시달린다는 얘기죠.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가 아니라 일단 '닥돌'하는 걸 개인적으로 권하겠습니다. 탐구과목 선택이라든가 하는 건 신경써야할지 몰라도, 그 외는 그냥 닥치고 문제푸는 게 답입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게 느껴지 때에나 강의나 Q/A

요청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채어보았자 의미가 없죠. 어떤 운동이 든 해야 몸이 좋아지는 거지, 1년째 계속 상담만 받기만 한다면 근육이 생길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부족한 건 지성이 아니라 약성입니다.

2.17 [학습공학 015] 시스템 올라타기

2015.12.02

KTX를 타면 그 안에서 맷폰으로 영화를 보든 책을 읽든 연인과 키스를 하던 그 관성계 내부에서는 가속, 감속 구간을 제외하고는 달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돈을 내고 '교통 시스템'을 산다. 그리고 우리의 시공간은 그 시스템에 얹혀 목표한 상태로 도달한다. 피트니스 클럽의 밀쓰레드도 마찬가지다. 일단 가동시킨 이상 안 달릴 수가 없다. 운동이 강제되는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다.

학원 (현강)의 장점도 강제성이다. 인강은 본인이 중단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현강은 내 의지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따라가야하면서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가 억제된다. 얼핏 보면 자유로운 인강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역설이 되겠다. '자유'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우리는 물론 노력을 해야하지만 점점 중요해지는 건 "어떤 시스템"에 올라타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에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시스템들을 구입하여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건 시스템의 효율성과 부작용 정도일 것이다.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가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고 제어할 능력이 없다면 실패해 버린다. 혼한 독학의 실패 이유다. 학원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인의 학습 시스템을 예비해놓아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타야 할 시스템과 타지 말아야 할 시스템이 있다. 어머니들이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아이들 교육에 극성인 과정도 현란한 시스템 교환이다.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 아이만큼은 좋은 시스템 위에 올려놓는다는 건 정말 유효한 전략이다. 분명 여자들은 남자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감이라는 게 있다. 천성적으로 우월한 시스템을 알아보고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감.

독서실에서는 공부가 안 되는 사람도 교실 자습 - 야자의 교실책상과 의자에서는 공부가 잘 되는 이유다. 여렷이서 하면 잘 되는 건 공부 뿐만 아니라 운동과 노래도 마찬가지이다. 여렷이 비슷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개인 시스템보단 집단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다. 우선 개인 자유가 줄어드니 변덕을 부리기 어렵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대로 페이스를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인강도 아프리카처럼 만약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시스템이면 현강보단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용구조상 그러기 어렵지 않을까) 사람은 열악한 시스템보다 우월한 시스템에 더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개인이 공부하다가 인터넷이나 게임에 빠져드는 것도 그렇다. 인터넷과 게임은 매우 정교하고 우월한 시스템이다.

2.18 [학습공학 016] 인강듣는 요령 제시

2015.12.06

EBS만 해당

1. EBS에서 동영상 파일과 음성파일을 다운로드받을 것
2. 곰플레이어 등으로 배속 조절하며 보시는 시스템 만들 것
3. 처음에 1.0~1.2 배속으로 들으면서 필기를 연습장이나 A4에 해놓을 것

4. 문풀, 다른 문제를 푸실 것. 그리고 다른 개념서를 보아도 됨
5. 2~3일 지난 후에 음성파일만 1.5~1.8배속으로 들으면서 필기를 교재에 단권화하거나 알아서 추릴 것.

강의를 한번만 듣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강의 들을 필요 없이 일단 자기가 선택한 강의를 여러번 배속수 늘려주면서 들어주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동강으로 판서를 하고 흐름 잡되, 그 다음에는 음성강의를 병행하면서 책과 문제를 읽어주고 그러면서 배속수를 늘려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 동영상강의의 경우는 입문을 위해서 쓸데없는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보면 그 다음 버려야할 게 많죠. 거기서 필기한 것만 따로 추린 다음에, 그 다음 똑같은 강의를 음성강의로 빨리 들어야 뇌에서 이걸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걸어다니거나 운동하면서 판서노트 없이 음성강의를 1.5 배속 이상 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최소 2~3회청 이상이 되죠. 이게 쓸데없긴... 오히려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1번 들으면 뛴미 하던 것이 반복해서 들으면 강사가 무얼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숙지된 상태에서 헤드폰 끼고 걸어다니면서 들을 수 있다면 더욱 좋죠. 같은 내용이 반복되므로 숙달되는 것입니다. 배속수를 높이는 이유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베르니케 증추가 활성화되어서 사고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학과 과학의 경우이거나 판서가 필요한 경우라면 아무래도 교재를 들고다녀야할 것인바인데 이 경우라면 1회청할 때 판서한 것을 경량화시켜 들고다니는 것도 권해볼만하겠지만 아무래도 수학의 경우라면 그냥 걸으면서 듣는 건 무리. 그러나 국어, 영어, 탐구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공짜로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하게 하는 EBS 강의가 용이하게 먹힙니다.

독학재수를 하는 분이고 돈이 없다면 이 방법대로 가면 됩니다.

2.19 [학습공학 017] 추상과 구체

2015.12.16

생각은 크게는 추상적인 것(이론, 논리)과 구체적인 것(사례, 이미지)로 구분.

그래서 여기서 변환이 일어나는데

- ① 추상 → 추상
- ② 추상 → 구체
- ③ 구체 → 추상
- ④ 구체 → 구체

천재들이 잘하는 건 ①과 ④입니다.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기호를 가지고 하루종일 골몰하는 것이 바로 ① 소위 직감과 육감으로 승부하는 것이 바로 ④입니다. ①의 경우는 사례나 이미지 없이 바로 추상적인 이론과 논리에서 다른 추상적인 이론과 논리로 이어집니다. 이 정도면 평범한 인간이 아닌, 전파계이거나 그 분이 오셨네 수준. 흔한(?) 대학수학교재나 철학서를 보시면 됩니다. ④의 경우는 논리나 이론으로 정리하지 않고 바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승부에 임하는 투기꾼이나 도박사나 달인. 본인도 자기가 왜 잘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몰입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죠

일반인들이 택할 수 있는 건 ②와 ③이죠. 제가 칼럼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준은 일반인들입니다. 특히 강조하는 건 ②와 ③입니다. 왜 ②부터 강조하느냐, 그거야 일반인들은 추상적인 것들이 박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목이든 양치기를 하라는 건, ”구체적인 문풀”을 하면서 본인들의 추상적인 이데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수학도 개념과 문풀로 승부해서 5000문제 풀다보면

본인만의 '감성'과 '이론'이 뒤섞인 추상적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추상적 객체를 본인 스스로 '사례화'시켜보거나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구체화시키는 ⑥ 과정으로 가면 응용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패턴화라는 것 자체가 바로 구체적인 경험을 쌓으라는 이야기고 탈패턴화라는 건 그 구체적 경험들을 반복해 그 중 공통분모만 찾아내 체화시켜 추상적 세계를 완성하라는 겁니다.

수학에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초심자들은 해설을 보고 어떻게 하라 '지시'받길 원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 것을 무단계수한 책만 보고 이해가 안 가서 헤매겠죠. 하지만 양치기를 해서 ④, ⑥를 완성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추상적인 수학 메뉴로써 '스스로 풀이'를 만들어냅니다. 수학고수들은 해설 같은 걸 일부 빼고는 다 잊어버립니다. 스스로 성질과 정리를 유도하고 풀이도 그 때 그 때 만들어내거든요. 추상적 세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구체적 사례나 이미지를 제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교재저자들은 이런 걸 모르고 마치 수학에 비법이 있는 양 짜깁기서를 내지만 그건 분수도 모르는 걸 넘어 학습이 뭔지 연구 안 해본 것이죠. 수학을 잘 하려면 본인만의 추상적인 수학세계가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험수학은 ④와 ⑥에 숙달되면 극복됩니다. 만약 본인이 뛰어난 학문의 대가로 올라가고 싶다면 ④를 잘 해야겠죠.

그럼 ④는? 학문의 영역이 아니죠. 본인이 기술이나 장사로 성공하고 싶거나 승부사로 가고 싶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건 입시에는 안 맞습니다. 중학 수학의 경우 ④로 쇼부보는 애들도 많아요. 보통 '머리가 좋다'라는 안이한 표현으로 설명되나 고등학교에 가서 죽씁니다. 중학 수학은 구체적 사례나 이미지로도 딜할 수 있지만 고등 수학은 반드시 추상적 세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과 수학의 경우는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 당사자의 머리가 수리적 모델을 구동할 수 있는 추상적인 수리적 세계가 얼마나 잘 깔려 있고 진화해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똑똑하거나 공부가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눈치 갔을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 안다면 이과수학이 어렵다거나 꼭 가애받아야

한다거나 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소리임을 깨달으실 겁니다.

+ 여담 +

기하와 벡터가 힘든 이유는 죄다 ④로 접근해서입니다(...) 이과 기하와 벡터는 사실 추상과 구체를 정말 왔다리갔다리 잘 해야하온데 그림이 주어지니까 중학교 때처럼 보조선 잘 그으면 구체적 이미지로 풀린다하는데 그건 매우 힘듭니다. 주어진 도형들을 명제로 환원(추상화)하고 그 다음 다시 그려야(재구체화)해야합니다. 그런데 보통 공간도형의 명제나 성질을 대충 읽고 넘어가니까 그게 안 되죠. 그 상태에서 xxx 강의만 들으면 된다거나 xxx 교재만 보면 된다고만 하니 무한 루프

2.20 [학습공학 018] 맹목도

2015.12.17

안 좋은 풍토가 이것이죠.

강사를 교주로 믿는다. 아울러 인쇄본들이 형편없다.

지식도 명시지와 암묵지가 있습니다. 명시지는 기록가능한 것, 암묵지는 기록이 어려운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이 아닌 '강의'라는 측면에서 존중받으려면 암묵지여야하죠 A라는 강사가 실제로 사람을 수백명 죽인 암살자라면 그의 '살인론'은 직접 들을 가치가 있겠죠(그리고 나란히 경찰서에 간다거나) 실제로 픽업아티스트(...) 분야라는 어둠의 사교육분야에서는 다수의 여자들과 사귀었다는(...) 강사들이 그걸로 장사질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의 경우 그 강사"만"의 독자적인 컨텐츠가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본인이 정말 그 분야 박사급이라서 교과서도 다시 써내고 하는 강사는 다른 시험에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수능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탐구라면 예외일지 모르겠지만요(탐구는 지금 교과서만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들을 때에는 **강사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개성을 무시해야합니다.** 과학적으로 강의를 듣는 법이라는 건, 그 강의가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강사가 어떤 소스를 근거로 뭘 연구해서 그렇게 전달해볼까** '고민'해보는 겁니다. 그 강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테고 그들도 공부해서 전달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썰을 풀어보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 만약 "내가 똑같은 강의를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라고 스스로 고민해보시면 됩니다만.

사실 수학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정파와 사파가 있사온데 정파라는 건 수학, 수학교육론까지 전공하면서 본인이 수험을 넘어서 아예 학문을 완성시킨 케이스라고 하겠고 사파라는 건 그냥 문제를 많이 풀고 꼼수를 알아내서 그걸 그럴싸하게 가공해 소개시키는 경우라고 하겠는데 당연히 사파강의는 딱 한번 정도 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듣고 싶으면 정파 강의 정도인데 이건 제가 아는 한 '거의' 없고 시중 참고서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경우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파는 "~하게 푼다"라는 것만 강조하지만 정파는 "왜 ~ 풀이가 나오고 출제자는 ~ 한 문제를 낼까"라는 걸 고민시키지요.

물론 수험은 수험일 뿐입니다. 학문을 하면 수험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통수가 오더라도 혹은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비하려면 '학문'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뿌리-줄기-잎 구조가 완성되어야 사람이 불더라도 날라가지 않지, 잎만 있으면 날라갈 것이고 줄기만 있으면 쓰러져버리지요. 그렇다면 강의를 골라듣는다는 건 저런 '정파' 강의 하나를 잘 들어서 "학문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수일지 모릅니다. 그런 강의는 첫강만 제대로 들어도 몸과 마음이 떨리고 새로 태어난 듯한 느낌이 오지요. **학문을 한다는 게 참 즐거운 것이구나라는 느낌이 정말로 옵니다.** 그런 강의는 한번 들어도 다시 듣고 싶어질 정도이고, 시중 전문서를 뒤져보아도 전문서가 그 강의를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강의가 있느냐하면 그건 아닙니다요. 저렇게 강의하려면 본인이 정말 20년 넘게 구르거나 아니면 정말 박사급은 넘어가야 하는데 그 정도가 있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현재로선 강의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강의 들으니까 괜찮던데요 하겠지만 끝까지 들으면 아실 겁니다. 그걸로는 절대 퀄리티를 대적할 뇌 상태까지 만들긴 힘들어요.

그럼 1년동안 상담한 결과 넣으면 전 사설 인강은 여름 이후에 문풀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까닭 말씀드리지요. 상담하면서 안 좋다고 하는 경우가 **100% 사설인강파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의 진학실적이 좋은가 아닙니다. 사설인강을 들은 사람들은 진학실적이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가 골고루 배치되어있습니다. 님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확률 단원에서 독립이 무엇인가 배웠을 테니 문제풀 때나 쓰지 말고 여기서 적용시켜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사설인강파들은 ”**생각을 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꽤 흥미로워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타 강사 mp3를 듣다 보니까(뭐 수능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더군요. 애들이 강의를 듣는 걸 선호하는 이유는? 머리가 안 아프고 듣기 좋아서이지요. 책을 읽을 때는 불편하지만 강의를 보면 **기분이 좋아서입니다**. 그럼 **왜 기분이 좋지?**

언제 행복한지 묻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간단하죠 - 행복한 건 우리가 그 때에는 ’**생각**’을 안 하고 느끼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강의를 들으면 왜 기분이 좋냐도 마찬가지겠죠.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3개월 전에 추론하고 나서야 부모 돈 졸라 까먹으면서 사설강의 들었던 친구들이 왜 아는 것이 많으면서도 기본적인 사고가 안 되었으며 심지어 똑똑하다라고 알려진 친구들조차도 그것은 일종의 흉내냄에 불과한가하는 의문이 다 풀리더군요. 생각은 ’**명제의 부정**’을 말하는 겁니다. 부정은 괴로운 과정입니다. **부정을 하려면 느낌을 절단해야하거든요**.

만약 생각하는 게 행복한 일이라면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을 안 하겠죠. 매순간 생각을 할 테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건 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수학능력시험의 취지는? 더 물어보고 말 것도 없겠죠. 킬러문제라고 하는 말 정정합시다.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2~3점은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입니다만 4점은 무조건 생각을 해야합니다. 생각해야하는 문제를 킬러 문제라고 환치시키면서 xxx 강의나 xxx 교재 보면 된다라고 하던 거야말로 세뇌 아니던가요?

고액과외를 한다거나 대치동 강의 들으라 하겠요. 그런데 이건 수십년 전부터 지속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대학 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출세했는가. 냉정히 따지면 그게 아니던데 말입니다. 면허 주는 의대라면 모르겠는데 이제 면허자들도 늘어난다면 자유경쟁은 치열해지겠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겠죠.

짧은 시간이 수험에 관한 전반적인 걸 리뷰하는 강의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건 EBS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생각하는 법을 익히는 강의라면 신중히 잘 골라야합니다. 안 그러면 그 강사의 ’노예’가 되면서 그 강사 좋다고만 하겠죠. 이게 소크라테스가 등장할 시절 소피스트들에게 변론술만 주입받는 데 거액을 지불했던 명청한 시민과 뭐가 다른지 묻고 싶네요.

환경이 좋아야 성적이 좋다라는 씹쓸한 상관관계도 있습니다만. 질문을 많이 하고 그걸 답해보고 고민해보는 횟수가 많은 학생이 결국 잘 됩니다. 여기서 도입할 지표가 일종의 ’맹목도’입니다. 생각이 없이 무조건 ~하자 무조건 ~들으면 된다 하는 수준인데 맹목도가 높은 사람은 정말 운빨을 따르는 경우고, 맹목도가 낮은 사람은 운이 나쁘더라도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냅니다. 하지만 맹목도가 낮은 사람은 50명 중에 1명도 될까말까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 뱀꼬리 1 + 심지어 핀업아티스트들조차 -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 아주 충실한 교재를 냈죠(...) 그런데 한국은 뭐 터무니없는 강의로 팔아먹는 듯. 이

분야도 은근히 마니아(...)들이 있어서 보는데 결국 진화심리학과 사교술을 적당히 융합시킨 듯.

+ 뱀꼬리 2 + 최초 수능만점자는 질문이라는 걸 아주 잘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들었던 질문은 매우 안드로메다성이었던 한데. 뛰어난 학생이라는 건 사설강의 맹목적 추종하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걸 충실히 하면서 그런 강사들이 답하기 힘든 질문을 만들어서 던지고 스스로 그 답을 찾는 친구들이죠.

+ 뱀꼬리 3 + ”그럼 한마디 한마디마다 피로도가 높고 생각해야하는 기분 나쁜 강의를 들어야하는 거네”라고 질문하면 좋은 답변이겠죠. 사실 그런 게 좋은 강의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런 강의는 인기가 없고 안 팔리죠. 다 달콤한 것만 찾으니까요.

2.21 [학습공학 019] 푼다

2015.12.26

해설집에서는 A→Z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은 아, AZ인가보구나라고 그냥 수인합니다. 그렇게 암기하면 그 패턴 문제는 바로 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능 기출에서는 A에서 Q까지를 물어보죠. A라는 조건이 나오면 반드시 Z로 풀어야 한다라고 암기했고,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 좋은 점수가 나오던 학생들은 무너집니다.

여기서 푼다는 의미를 다시 짚어봅시다. 보통 학생들은 문제를 푼다는 것을 ’답을 낸다’로 혼용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혼동이죠.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이 푸다의 한자는 해(解)이고, 해의 용례는 해석, 해체, 해부.... 쓱싹 자르고 나열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푸는 수학문제의 답이란 대부분은 ’방부등식의 근’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근을 구하는 것'과 '문제를 푼다'라는 것을 생각없이 섞어쓰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을 구하는 건 문제를 푸는 과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미 푼다라는 말이 타락해버린 것 같으니 차라리 문제를 '해부'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군요. 어느 콕콕의 미녀칼럼니스트 분께서 저 기록을 쓰시기도 했습니다만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건 '문제'라는 시체가 주어지면 그걸 해부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해부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푼다'라는 것의 본의미를 잡아야한다는 건 뭔가 서글픈 일입니다만 그래서 도대체 A~Z까지 모든 과정을 다 하나하나 보는 컨텐츠를 어디서 채워야하는데? 그것은 시중문제집의 양치기 - 그리고 모든 해설을 다 읽어보고 비교해보는 과정에서도 절반이 되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교과서', '수리논술', '인강'도 그렇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왜 그런 풀이가 나올 수 밖에 없나하는 것, 즉 우리가 배우고 공부한 것을 "100% 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원자명제"들로 스스로 해부하고 재조립하는 것에서 얻는 것입니다.

아까 한 일지러가 도저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친구는 아직 그 원자명제들까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문제에서 a, b, c, x 같은 게 주어지면 무조건 그 미지수가 자연수냐, 정수냐, 실수냐라는 걸 무조건 따져야합니다. 적어도 양식있는 교사들이 쓴 교재는 그런 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략된 경우도 있죠. $a:b$ 같이 주어진 경우라면 굳이 실수라고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실수의 정의를 아는 사람이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자면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문제라는 것은 '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명시적으로 주어진 조건, 암시적으로 주어진 조건, 그로써 파생되는 조건들로 교집합을 구하거나 혹은 여집합을 구하는 식으로 하여 근의 범위를 제약하며 그 와중에서 식, 그래프, 논리로써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명제들로 나열해나가는 게 바로 문제를 '해부'해가는 과정이지요. 제대로 해부된 문제들은 읽어보면 정말 맛있는 생선회와 같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친구들이 어처구니없게도 ”문제를 푼다 = 답을 구한다”라고만 알고 있어서 수년동안 해매고 있습니다. 답을 구한다고만 착각하니까 인스턴트 풀이에 집착하고, 그 인스턴트 풀이가 가능해보이는 야매교재를 찾으려고 하죠. 본인이 직접 회쳐야하므로 칼을 갈면서 매일매일 칼질을 해보아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 회 만들어주는 기계 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2점 문제가 그냥 먹어도 되는 멸치라면 3점은 광어, 도다리가 되겠고 4점은 마구로나 볶어라고 할 수 있겠죠.

푼다라는 것은 ”자르다”라는 이미지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솔로깡님이나 허혁재님이 다른 논의를 제기할 수 있는 떡밥이 나오기도 하는데 근대 서양에서 동양을 앞서나간 것들의 공통점은 ”자르다”이지요. 담론들을 분해해서 추상적 관념으로 잘라낸 철학과 수학, 외과술이 발달해서 현대의학의 기초를 이룬 것이나 신과 인간을 분리하고 아울러 자연에서 자원을 잘라내 자본으로 축적한 자본주의 등. 반면 한국과 중국은 그런 잘라내는 과정을 꺼린 경향이 있습니다(일본은 외과수술, 생선회, 사무라이) 대상을 철저히 자르고 분해하기보다는 음양 오행과 성리학의 장막 속에서 ’순환론’적인 것을 추구했죠. 그리고 그런 담론의 유전자(?) 같은 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푼다 = 답을 낸다 내지 비기를 구사한다... 라고 오해한 것도 이런 데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학문제는 보통 AIZ BPY SOX 이렇게 개념들을 뭉쳐놓았죠. 이걸 다 잘라서 A, I, Z, B, Y, S, O, X로 분해하고 우리가 아는 질서에 따라서 ABIPQSXYZ로 나열하고 저기서 빠진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채워나가면서 풀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한다는 친구들이 그런데 저렇게 안 하고

AIZ → AIDS BPY→ SPY SOX→ 19금

이렇게 연상해버린 다음에 엉터리로 풀이과정을 써나가거나 해매버리죠 많이 풀고 패턴화된 친구들일수록 그 패턴을 절대시하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패턴에만 끼워맞추려 합니다. 평가원의 수능문제는 이걸 매우 정확히

저격질하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과서나 개념서에 나온대로 해부해나간다... 이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더 빠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건 본인들이 해부해가면서 만들어야합니다. 사실 그런 스킬이나 방법이라는 것은, ”불필요해보이는 것을 skip 한 단축과정”인 경우가 많죠. 수학에 있어서 모든 공식은 사실 개념들의 논리 전개과정을 ’압축’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즉 공식을 보더라도 그게 어떻게 증명되고 또 연관된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꽉 썰을 풀어낼 줄 알아야합니다. 참치든 소든 잘 해부하는 사람이라면 칼질을 하는 순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내부의 뼈, 장기 등을 보고 있겠지요. 문제를 잘 해부하는 사람도 마찬 가지입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동시에 그 문제의 해부도를 바로 연상해서 어딜 잘라야할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수학에만 국한된 접근방법이 아닙니다. 국어도 영어도 탐구에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아직은 황금의 3개월이 1/3이 끝나갑니다만 그래도 ”칼을 예리하게 갈고 다듬는” 데 부족한 시간은 아닙니다. 자를 수 없는 단위까지 잘라내보시길 바랍니다. 강사나 책의 지침을 맹목적으로 좇지만 말고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100% 참인 명제들로 대상을 잘라버리십시오.

2.22 [학습공학 020] 암기

2016.01.05

원칙적으로 암기는 해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암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정확히 이야기해야하죠.

공부가 지식을 입력하는 과정이라면, 시험은 지식을 인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양자가 대등한가? 그렇지 않지요. 수능에 실패했는데 주변 사람들에

게 나 30번 잘 풀어요 해보았자 뻥전 한푼 안 떨어집니다. 여담이지만 기왕 그 렇게 된 것 사교육으로 나서면 되니까 대학 대충 가도 된다 해보았자 나이먹을 수록 절감할 겁니다. 이 분야만큼은 정말 '졸업한 학교 네임'이 중요하단 걸요. 명문대 안 가면 어찌나, 내가 수학을 잘 하는 걸... 이건 거꾸로 말해서 다른 친구도 그렇게 수학을 잘 하면서 잘 가르칠 수 있고, 공부 대충 해도 운좋아서 명문대 간 다른 라이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으므로 그건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험 : 공부의 비중은 대략 7 대 3 으로 잡아야 합니다. 공부를 엉터리로 해도 시험만 잘 보면 되느냐? 예, 슬프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운빨 제외하고 시험을 잘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지식의 인출이 매우 '신속 정확'해야합니다.

가령 이과 과정에서 미적분 2에 해당하는 삼각함수 심화공식을 써야 할 때 컴퓨터급으로 인출되어야합니다. 고수들일수록 거드름 피우면서 시험장에서 유도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개소리입니다. 유도할 시간이면 1~2문제는 풀어댈 수 있습니다. 물론 문풀에 필요한 유도가 있습니다만, 그런 유도과정 역시 암기되어 있어야합니다. 수능 본시험에서 삼각함수 심화 공식 유도가 뭔지 깨달아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수학이 암기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개념, 정의, 성질, 공식 등은 아주 정확히 암기되어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문풀 패턴조차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탈패턴화된 상태에서 암기하고 있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자기가 아는 패턴이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긴장하면서 풀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시험에서의 암기는 절대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부터 중요합니다. 시험의 암기와 공부의 암기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건 기존의 이해 vs 암기로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이건 한쪽이 필수적 배제된다라는 착각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암기와 이해는 둘 다 필요합

니다. 다만 적용 영역이 다를 뿐입니다.

지식을 입력, 즉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암기하면 안 됩니다. 지식을 입력하는 과정은 그 지식들을 원초적으로 납득가능한 원자명제들로 분해해서 그것들을 흡수해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음식물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 기본적인 당, 아미노산 등으로 흡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지요. 여기서 다시 한자를 봅시다.

이해(理解)

저번 19번 글에서 언급된 한자입니다. 이 의미는 '해부'라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소의 뿔을 잡고 칼로 잘라나간다, 소위 회쳐나간다는 이야기이겠죠. 다들 이해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럼 이해가 뭐냐고 하면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원래 한자로 돌아가면 되겠죠. 이(理)라는 건 추상적이고 근본적인 깊이 자체, 해(解)는 칼로 사정없이 자르고 썰고 쪼갠다. ○○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걸 잘개 쪼개서 이(理)에 대응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암기(暗記)는? 어두울 암(暗)이 의미하는 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보지 않고'도 쓸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그럼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고전에 보면 흔한 이야기가 있죠. 통달(通達) 다시 말해서 사물을 잘개 쪼개서 이(理)로 만들고 궁리하면 그것들이 통해서 깨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쪼개서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로 알게 되고 마음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이후부터는 '암기'도 용이해진다라는 이야기이겠죠.

우리가 혼자 책을 읽건, 강의를 듣건 그 어느 쪽이든 필수목적은 이해입니다. 이해를 시켜주는 책이 좋은 책이고, 이해를 시켜주는 강의가 좋은 강의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책이 요란한 광고를 했는데 정작 이해시킬 대목을 교과서나 타 책에 맡긴다면 그 책은 정말 나쁜 책입니다. 어떤 강사가 스킬을 난사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질문에 답 못 하고 근본적인 것을 납득시키지 못 하면 그냥 약장수인 것입니다.

수험사이트에 보면 xxx를 보아서 점수가 올라갔다거나 ○○○를 들어서 2등급 나왔다라는 글을 보는데 피식 웃습니다. 점수는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될 수도 있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등급은 혼자 공부만 한다고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잘해야 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님이 공부하는 참고서든 듣는 인강은 '독점'하는 게 아니지요.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를 두고 싶으면 "얼마나 제대로 잘 이해했느냐"(공부), "얼마나 신속정확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암기했느냐"(수험)으로 나뉘는 겁니다.

참고서든 강의든 남들이 xxx 본다 xxx 듣는다 그런 것에 귀기울이지 마십시오. 일단 **자기가 뭘 모르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남들 하라는대로만 하면 시험 전날에서야 "내가 xxx을 몰랐구나"를 깨닫는 올지도 못 할 일이 벌어집니다. 황금의 3개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일찍 시작하라는 이유도 별 게 아닙니다. 일찍 시작해서 망하든 말든 공부를 해야만 자가 뭘 모르느니 알 수가 있고, 그래야만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면, 그것을 해결하는 쪽, 즉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나 강의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아니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면서 남들이 xx 좋다라고 하면 그것 따라가는 병신행각이 아닙니까?

만약 남들이 자기가 모르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이해시켜주는 책이나 강의를 골라 성공했다 칩시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건 비주류가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성공하면 그 비주류 책이나 강의는 순식간에 주류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떠벌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비주류 책이나 강의를 광고하고 있겠지요. "자기가 모르는 것이 뭔지 안다"를 잘 알고, 그 다음 독학이건 강의건 '이해'를 제대로 하는 긴 여정을 밟고 날면, 스스로 뭘 암기해야하는지 혹은 뭘 버려야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때가 되어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암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암기해야할지 남들에게 물어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했듯이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암기만 해서 시험에 합격한 운좋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제대로 하고 암기할 때 10이 필요하다면, 그냥 암기만 하는 경우는 1000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암기한 데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한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해만 어설프게 하고 암기를 안 했다면 시험장에서 죽쑤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해 O, 암기 O :: 이해 X, 암기 O :: 이해 △, 암기 X(이해 O
이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암기도 O이 됩니다)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3월 정도 되면 자기가 뭘 모르는구나 아실 것
이니 이해 O, 암기 O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3월달에야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 5월달부터 또 모평의 싸이클에 휘말릴 것이니 욕심 버리고 이해 X, 암기
O라도 하길 바랍니다.

2.23 [학습공학 021] 공부는 수동태

2016.01.13

사실 노오력은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제가 지금 아 이건 부족
했구나라고 느끼는 건

”참는 방법”

공부에 있어서 머리보다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 일종의 '관찰'과 '종합'
에 따른 결론이면 (사실 이건 경제지리학 쪽 관련한 교양서에서 미국, 유럽인들
이 연구결과도 자주 내놓았죠) 거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참는
능력”이라고 생각.

파티 구성해서 레이드 갈 때에는 탱커는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탱커가 없으

면 공격을 하기도 전에 순삭당하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체는 우리만이 아니죠. 공부는 상호과정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은 우리의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는 우리의 지능을 테스트하고 있죠.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시험은 우리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능동=공격이라고만 생각해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들 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상태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염밀히 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1% 정도이고 99%는 공부하는 상태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한가지 재밌는 현상을 설명해볼까요. 강의를 해보거나 가르쳐보신 분은 느끼실 것인데 그럴 때에는 정말 시간이 잘 가고 피로한 게 덜합니다. 반면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는 매우 피로하죠. 열핏 생각하기에는 강의하거나 가르치는 게 더 피곤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강의를 듣거나 공부하는 게 강의를 하거나 가르치는 것보다 더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르쳐보는 사람들은 ”야, 내가 적성에 맞는 일을 하나보다”라고 착각하겠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공격=능동은 그리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건 방어=수동인 것입니다. 남들을 가르칠 때에는 그냥 나의 지식을 전달해가는 과정입니다. 반면 남에게 배울 때에는 그 배우는 내용으로 내 뇌를 바꿔야 하고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침을 당해야하는 것이죠.

강사가 힘들다... 글쎄올시다. 우리나라 현실상 웬만한 교재는 거의 다 짜깁기하면서 그게 위대한 양 애들에게 사기구라까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정작 강의하는 것 자체는 매우 재밌습니다. 혼자 떠들면서 학생들에게 뭔가 주입시킨다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부류도 없지 않을 걸요. 다른 일 하라고 하면 못 할 겁니다. 왜냐면 다른 일들은 '수동태'인 반면, 가르친다는 건 정말 99% 능동태이니까요. 물론 '강의'를 위해 ”공부하는 것”(즉, 공부하는 상태를 당하는 것)이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공부한다가 아니라 '공부하는 상태를 당하는 것', 즉 수동태가 공부의 본질입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한대씩 얻어맞으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강요받고 주입, 세뇌당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도 해보아야하는 것이지요.

공부의 본질은 사실 저것입니다. 특히 수험공부의 본질은 "얻어맞는 것", 가장 먼저 수동태적인 입장에 취해서 개조당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럼 개조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인내심입니다. 힘들고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 때일 수록 참고 버틴다라고 해서 탱커질을 잘 하는 사람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콕콕 내에서 인평을 할 때에 저 친구는 잘 하겠군... 이라고 볼 때에 1순위는 머리가 아닙니다. '참을성'이지요. 물론 그 참을성이 무조건 수동태로만 전환해버리면 스스로 생각할 줄을 모르니 바보가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거야 방법론을 잘 제시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바뀔 수는 있습니다. 탱커가 마비 상태에 걸린 것이지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것저것 거창하게 ~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참을성은 없다 그런 친구는 수능에서 5년 이상 구른다고 해도 별로 이상할 게 없습니다.

수능현역합격수기(말하지만 뭘 해도 현역; 재수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같은 걸 읽을 때에는 환경을 가장 많이 보는데 글투든 아니면 수기에 드러나는 공부환경 같은 것을 보면 집안은 보통 중산층 이상이고 부모들은 한가닥하는 직업인 것도 보지만 일단 자녀에게 독서를 시키는 동시에 '인내심'까지 전수한 것까지도 확인합니다. 똑같이 인강을 들어도 대치동 학원을 다녀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의 효과를 누리는 친구들은 탱커 능력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싸가지거 없든 인내심이 바닥이든지요. 자기들이 대놓고 잘한다고 하지도 않는데 결과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대졸 이후에도 잘 나가지요. 그러나 입시판의 고수다 뭐다.... 그게 수능판에서 만 알아주지 대학과 대졸 이후에도 알아줄까요?

인내심을 보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사온데 자신들이 공부한 시간, 참고서의 문항과 페이지 수를 달력에 표기하면서 피드백해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답답함이 덜할 것입니다. 일지 쓰라는 것도 그런 맥락이죠. 앞으로 제안하

겠지만 꾸준히 일지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해주고 감상해주는 것도 정례화 시키면 좋겠죠. 결국 수험판은 누가 오래 버티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인내심이 있어야 가장 큰 적, 즉 자기 마음의 변덕스러움과 대적할 수 있습니다.

2.24 [학습공학 022] 금단증세와 역금단증세

2016.01.15

그냥 야매이론이니 알아서 걸러들으시길.

달콤한 자극을 정기적(?)으로 반던 뇌가 그 자극을 받지 못 하면 그런 자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당연. 마찬가지로 괴로운 자극을 받지 못 하던 뇌에서는 그 자극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임.

전자가 금단증세면 후자는 역(逆)금단증세.

뛰어난 고수들이라면 둘 다 극복했을 것이고 그냥 평범하다면 역금단증에세 벼벽댈 것이며 막장인생이면 금단증세도 못 이기고 있을 것임.

습관적으로 자위하던 사람이 이제 그만 뛰야지하다가도 어느 새 야동이나 특정 부위에 손이 가는 것은 뇌의 명령. 이건 술담배게임도 마찬가지임. 의식적인 차단이 없으면 끊는다고 하다가 다시 즐기고 있음. 뇌는 원래 자기 정체성을 위해 학습하기를 정말 싫어하지만, 쾌감을 주는 것은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학습해버림. 그래서 뭔가 안 좋은 걸 끊는 사람은 금단증상에 시달릴 수 밖에 없음.

거꾸로 공부 역시 일정한 학습량을 하면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리 공부를 못 할까, 머리가 나쁜 걸까'하는 우울한 느낌이 오는데 사실 이건 공부하기 싫어하는 뇌에서 '주인님 그거하자'(...)라고 변덕을 부리는 것임. 그래서 여기에 넘어

간 당사자는 신나게 놀다가 당연히 후회하지만 한편 뇌는 쾌감을 얻었기 때문에 시치미 떼는 것임.

n수를 하는 사람들이 눈빛이 맛탱이가 가거나 인격적으로 불괴하는 게 별게 아님. 적어도 내가 접한 케이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하나씩 문제가 있음. 저런 금단증세나 역금단증세에서 대부분 좌절. 대학 좋은 데 갈 필요가 없잖아, 공부 안 하면 안 되어요라고 본인들은 진지하게 말하지만 그 때마다 '아, 상대방의 뇌가 이런 식으로 주인을 꼬드겨서 작살냈구나'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재밌는 건 실제로 공부를 하는데도 자살을 외치거나 변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이 경우는 나쁜 걸가? 아님, 이 경우는 뇌에서 체념하면서 최후의 단말마를 외치는 광경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공부를 하면 뇌에서는 더욱 퇴폐적이거나 범죄적인 망상을 유도하면서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경향이 있음. 그래서 당사자는 온갖 정신병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공부하고 있는 기이한 양상이 벌어지는 것임. 이것이 바로 역금단증세의 최종 단계임. 그렇게 해서 교재, 강의 회독수가 확보되고 뇌에서 항복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수월해짐.

어떤 강의 보냐 교재 읽냐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다고 하는 게 이런 이유임. 수험에서 정말 중요한 금단증세와 역금단증세 극복은 말 안 하고 어느 교재나 강의가 좋아요 이 지랄하는 건 그 본인이 공부를 안 하니 역금단증세도 안 거치는 것이고, 자위나 술담배에 항복하는 거니 금단증세도 시달리지 않는 것임.

그럼 스트레스는 뭘로 푸나요? 공부로 풀면 되는 것임.

이 색기가 장난하나? 아니, 수능공부가 싫다면 다른 자격증 시험 - 가령 제빵기능사나 조주사도 좋으니까 그런 잡기 같은 걸 공부하란 것임. 그게 아니면 정말로 헬스클럽에 가서 배에 전제군주제를 실천하는 것도 좋음. 부지런히 학습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걸로 자기 뇌를 항복시켜야하는 것임.

그럼 눈치빠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임. 머리가 좋냐 안 좋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공부할 수 밖에 없다라고 뇌를 납득, 항복시키는 것'이네요. 그럼 환경이 좋은 데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게 잡힌 것이네요

정반대로 환경이 안 좋거나 공부와 거리가 먼 친구들과 대화해보면 이 친구들은 욕망의 절제나 금욕과는 지구반대편에 떨어져있음. 솔직한 건 좋지만 지나치게 욕망에 끌려다니고 있음. 삶의 목표가 이상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

자위든 술담배든 하면서 풀어줘도 공부가 되잖아... 라는 친구들에게 묻고싶음. 그럼 거꾸로 그렇게 수험에서 성공한 친구들이 여유있게 스트레스 풀면서 간 게 몇이나 되냐고. 무엇보다 금단증세도 못 이겨내는 사람들이 과연 역금단증세는 초월할 수 있을까? 금단증세는 단지 술담배 등이 하고싶다라는 것인 반면 역단증세는 스스로 '공부해보았자 소용없어, '난 자살해버려야해'라는 식으로 더 고난도로 나오는데?

2.25 [학습공학 022] 결국 성공을 바라는 속물들이 아닌가.

2016.01.22

"저, 공부가 적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웹툰 그리고 싶은데요, 팬찮을까요"

보통 이런 식의 질문은 그냥 대화나 하고 싶다, 그리고 상대가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깔려있다. 대충 돈받고 상담하는 사람이나 어떻게 구워삶으려는 사람은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고

물론 상대가 정말 심각하거나 자살할 지경이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우가 나을 수도 있고 여성들의 경우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다가 스스로 문제해결해버리기 때문에(애당초 해결책을 원한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걸 원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 경우는 간단하다

”어, 맞는 말씀이네요. 그럼 내일까지 웹툰 그려서 보여주세요”

저 웹툰을 '장사', '노래', '운동'으로 바꿔도 다 똑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저런 경우 성과물을 기한 내에 마쳐 보여준 케이스는 여태껏 단 한번도 없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본인들이 공부가 적성이 아니라 다른 게 정말 간절하다면 벌써 성과물을 내놓았지 그냥 '입'으로만 ~ 하고 싶다라고 하겠나. 자기들이 정말 좋아서 하는 건 금지시켜도 한다. 공부가 좋은 녀석은 공부하지 말라고 몰래 책 들고와 밤새서 공부하고 음악이 좋은 녀석은 알아서 작곡에다 연주질해서 유튜브에 올려 평가받고 있고 만화가 좋은 녀석도 디씨 같은 데 올려서 온갖 막장평가를 받으면서도 행복해한다.

박사들도 고졸사원 채용에 줄서는 세상에 누가 '공부만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나. 중요한 건 실천이다. 열심히 일해서 바로 돈벌어오는 고졸이, 입으로만 의치한 가서 출세할 거야 하는 N수생보단 낫다. 그런데 다 알겠지만 어느 분야든 '수험'만 아닐 뿐이지 미친 듯이 공부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도둑질해야하는 건 똑같다.

자, 그럼 저런 '도피적' 이야기는 왜 하는 걸까.

그건 본인들이 성공하고 싶어서이다. 수험에서는 실패했지만 다른 분야에 가면 숨겨진 재능이 일본만화 주인공처럼 드러나서 1등할 수 있을 거라 상상하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열불나는 걸 참을 수도 없고 자살하고 싶어진다.

그럼 본인에게 솔직해지면 된다. ”난 성공하고 싶다, 남들 위에 군림하고 싶다, 공부 잘 한다고 주변에서 칭송하는 것 듣고싶다”

그럼 그 길로 다시 전력질주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노력을 안 하고

다른 길로 도피하려 할까. 그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실패를 두려워할까? 잘못된 환경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아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당했기 때문이지. 하나 예를 들면 왜 너는 성적이 안 나오니 하면서 실패를 겪기만 하면 자녀를 갈구고 인격적 모독을 주는 정신나간 부모들. 그리고 무조건 승리만 해야하지 패배는 없다라고 그저 입으로만 자녀들을 갈구는, 정작 자기들이 공부하라하면 평계대는 부모들.

그런데 생각해보자. 항상 이긴다는 게 있진 하나? 백전백승 그런 게 어딨나. 항상 연전연승하던 나폴레옹이든 히틀러든 그 끝은 어땠나? 흔히 드는 이순신도 짧은 시절에는 막장이었으며, 결국 끝에는 전사하지 않았나.

1번 성공하려면 9번 실패는 해보아야한다, 실패의 선물은 바로 ”지혜”이고, 거꾸로 지혜는 실패가 아니면 얻을 수 없다. 이걸 알고 9번 실패할 걸 99번 실패해야지, 그럼 돌아오는 1번의 성공은 대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걸 모르고 그저 우리 아이는 완벽해야해하는 부모들이니 자기들이 천재이고 너무 머리가 좋아서 대입성적이 잘 나왔다고 하는 허세들이니 그저 이런 데에 영향받아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공부만 해도 잘 될 수 있었던 친구들이 휘둘리고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10대 시절부터 잘 생긴 엄친아로서 항상 높은 성적을 거두고 어쩌구저쩌구 하는 게 우상? 실제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몇이나 20대 후반부터 잘 나가는지 내가 궁금, 그런 사람이 그래서 누군데? 거꾸로 부모 극성으로 실패없이(?) 명문대 들어갔다가 한번 굴러떨어져 재기불능 상태로 빠진 케이스는 꽤 있는 건 아시나? 학벌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성인기에 겪을 실패를 선행학습한 케이스가 많다는 건 아나?

일침 가하면 공부가 내 적성 아니여요하는 친구들의 실제 생활을 보면 '방만한 케이스'가 많다는 것도 지적해야할 것이다. 이들은 입으로는 자기들이 공부가 질렸고 적성에 안 맞다... 라고 하지만 실제 어떻게 사는가보면 이미 폐인처럼 사는 케이스도 많다. 엄마가 차려주는 세끼 밥은 꾸역꾸역 먹고 용돈 받아쓰면서도 '노오력? 웃긴다', '헬조선은 탈출이 갑' 이 딴 드립이나 치고 있단

것이다.

2.26 [학습공학 023] 계획술의 핵심은 줄이는 것

2016.01.27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은 100명 중 1명 꼴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왜 계획을 실천하기 어려운지 안다.

우선 계획을 실천하기 어려운 건, 계획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계획은 우선 자기가 실천 가능한 만큼만 세워야 한다. 이건 '능력'과 '현실'의 문제다. 하지만 다들 계획을 세울 때에는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으로 세운다. 즉, "당위"와 "이상"으로 세우는 것이다. 당위와 이상으로 세운 계획이면 당연히 실패할 수 밖에 없다.

통일은 우리의 미래다라고 백날 외쳐보았자 그게 실천이 되나 중요한 건 통일이 왔을 때에도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 예산을 마련해놓고 있느냐는 것이다. 하루에 100문제도 견사 못 하는 친구들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하루 200문제를 잡는다. 이게 실천 가능했다면 계획 따위도 불필요했을 것이다.

그럼 계획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줄이는 것"이다. 계획을 세우는 건 한마디로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실천을 잘 하는 요령은? 당연하지. "양"을 줄이는 것이다. 아니, 당신은 양치기를 하라면서 한편으로 양을 줄이라니 뭔 소리인가? 당연히 수능 날까지는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건 '결과'로서의 양이다. 그러나 매일 공부할 때에 푸는 양은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야 한다. '과정'으로서의 양은 적어야 좋다는 것이다. 총 20,000문제를 푼다고 하자. 이걸 10일로 나눠 하루 2000문제를 푸는 건 비현실적인 일이다. 그러나 20,000 문제를 200일에 나눠 하루 100문제를 푸는 건 가능성 있다.

결국 계획이란 ”더 많은 시간자원을 확보해 총 공부량을 분할, 단위 공부량을 줄인다”로 요약된다. 생각해보면 별 것 없지만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다. 아마 다수가 성공한 사람들의 수기를 보면서 나도 허리띠 조르고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다가 올해를 날려먹을 것이다. (그것도 그 성공한 사람들은 수년 전부터 시작한 사람들이고 환경도 좋다는 걸 간과한 결과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고 그에 맞게 작업량을 줄여주는 사람이 현명하다.

2.27 [학습공학 024] 문제해결의 핵심

2016.01.27

모든 문제는

항(=핵심 요소)들의 관계로 요약된다.

국어와 영어와 사탐에서는 주로 명제와 표를 쓰고 수학과 과탐에서는 식이나 그래프를 덧붙여 사용한다.

읽는다라는 것은 항들을 파악하고 - 덧붙여 항들의 갯수인 계수, 항들의 차원인 차수까지 - 더불어 그것들이 속해있는가 포함하는가(집합),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어느 게 우월한가(등식과 부등식) 상관, 인과관계를 어떻게 나타나는가(함수) 등까지 파악하게 된다.

물론 위와 같은 문제해결의 테크닉을 교과과정에서나 인강에서 바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보통은 ’패턴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익힌다.

교과과정을 떠나 사회 활동에서의 모든 문제는 다음과 같은 해체 및 재구성 과정을 거친다.

- ① 읽기 - 사실관계 파악 - 인문, 사회적인 것인가, 자연과학적인 것인가
- ② 분해 - 그 사실관계들 중 무엇을 강조하고 소거할 것인가 - 여기서 법
률, 경제, 철학적인 기준 발동
- ③ 환원 - 대안이나 구제수단을 어떤 결로 결정한 것인가 - ”물리적 가능
성”(자연과학) ”윤리적 타당성”(인문과학), ”경제적 합리성”(사회과학)

저런 분해와 환원에는 다양한 각론적 틀이 있고, 이것이 대학에서 배우는 전
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철학이라는 걸 알게 된다. 사실 서유럽이
득세한 것은 자연과학 이전에 중세시대 종교철학이 성숙되면서 그로서 '생각하
는 방법'이 발달한 덕분이다 (사실 철학 없는 수학은 산수고, 철학 없는 과학은
망상일 뿐이다) 문제를 분해하여 환원화는 과정에서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냐
하는 걸 세밀히 따져야하는데 이 점에서 인문과학적인 것이 상당히 유용하다.

위와 같은 접근으로 가는 교육이야말로 가장 낫겠지만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특히 주입을 강조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운이 좋아서 저런 틀이 머리에 박혀, 평소에도 저런 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머리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반면 운이 나쁘거나 본인이 노력을
안 하여 저런 틀을 익히지 않고, 교조주의적이고 집단세뇌적인 것에 끌린 사람
은 평생 바보로 살 것이다.

2.28 [학습공학 025] 공부를 환경으로 바꿀 것

2016.01.30

학습의 4차원은 이해, 암기, 반복, 그리고 응용이다.

이 중에서 뇌를 길들이는 것은 **이해와 반복**이다. 암기는 뇌를 겁박하는 것, 응용은 뇌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는 뇌를 설득시키는 것이고, 반복은 뇌를 체념시키는 과정이다. 인강을 듣는 것은 뇌를 납득, 설득시켜서 특정 구조를 주입시키는 것이고 (전에 얘기했 다시피 뇌는 공부를 싫어한다) 반복을 시키는 것은 그래야 뇌가 그 공부를 '환경'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뇌는 공부는 싫어하지만 **환경**에는 적응 한다. 공부를 **환경**에 수렴시키기 위해 필요한 게 '반복'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강보다 실강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실강의 집중도가 높은 건, 인강은 단순한 멀티미디어 정보에 불과하지만, 실상은 그 자체가 공부환경이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것보다도 공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인간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라면, 현명한 사람은 공부를 '**환경**'에 수렴시키고자 할 것이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그 뇌가 '공부'를 거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런 친구들은 새로운 정보를 즉석에서 이해, 반복하여 환경화할 수 있는 패턴이 들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29 [학습공학 026] 어째서 공부할 때 달콤한 걸 먹는 게 좋을까.

2016.01.30

파블로프의 개와 같은 원리다. 뇌는 공부를 싫어한다, 하지만 쾌감을 좋아 한다. 공부하기 싫어하지만 오르가즘(...)을 원하는 뇌와의 끝없는 싸움이 수험이다. 자위를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렇다. 조금만 노력(?)해서 쾌감을 얻을 수 있는 자위를 하지 뭐하려 힘든 공부를 하려 하겠나 특히 공부를 괴롭게 하려는 친구들일수록 상담해보면 "실은요, 밤마다~"라는 케이스가 많다.

공부 자체가 즐거울 수는 없다. 그러나 뇌를 속일 수는 있다. 가령 xxx 초콜

릿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그 쇼콜렛은 반드시 '공부할 때에만' 먹는 걸로 정하자. 물론 공부하자마자 먹는 건 안 된다, 100문제라면 적어도 80문제는 풀었을 때 먹으면서 나머지 20문제를 푸는 걸로 잡으면 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공부할 때에는 살찌는 것 신경쓰지 않고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 뇌는 그러한 쾌감을 공부하는 쾌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건 음악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음악이 집중력을 떨어뜨리거나 후크 송화될 수 있다는 위험은 있다. 그러나 본인이 공부할 때 잠이 오거나 명하다면, 차라리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라도 공부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다만 이 경우도 공부를 할 때에만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는 철칙을 지켜야 한다. 반드시 공부는 엄숙하게 그리고 완벽한 환경에서만 하야한다는 것을 벼려야 한다. 물론 공부를 환경에 수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완벽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함은 '뇌'가 적응하고자 하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지, 완벽한 독서실 완벽한 교재 완벽한 책상 이런 게 아니다.

집중한다는 건 기합을 외치는 것도 마음씨가 정화된 것도 아니다. 야동을 보거나 밤에 몰래 자위할 줄 아는 사람이면 '집중'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중은? 그건 다시 말해 자기가 하는 행동에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뇌에서 즐길 수 있는 걸 말한다. 공부에 집중하는 방법은 외적으로는 방해가 되는 것들을 치우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공부를 즐길 수 있게 세팅하는 걸 말하는 것이다.

하다 못해 정말 야한 것에 빠져서 주체 못 하는 사람이 있다치자. 그럼 차라리 국어나 영어를 그런 걸로 대입시켜 공부하시고 수학이나 과학문제도 그런 것과 결부짓거나 모에화(...)시키는 것이 아예 공부를 포기하고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이다.

요컨대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을 공부하는 도중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공부=쾌감이라고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30 [학습공학 027] 복리효과

2016.01.31

1.001 : 365일 - 1.440배 1.440 : 005년 - 6.197배

1.440 : 010년 - 38.404배

1.440 : 020년 - 1474.903배

매일 0.1%만 자신이 발전한다고 가정하면 365일이 되면 1.4배, 5년이면 6배, 10년이면 38배, 20년이면 1474배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저 0.1%는 본인이건 타인이건 감지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저 0.1%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쌓이면 기하급수적인 결과를 낳는다.

0.1%의 차이 : 똑같은 공부라도 2년 더 시작하면 2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게 5년이면 무려 6배 차이가 난다. 하루로는 변화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못 하니까 ”저 녀석은 머리가 좋아서”라는 **유전자 타령을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변화의 결과, 즉 합수값이지, 실제 변화율, 즉 미분계수를 파악하기란 힘들다. 설사 미분계수를 파악한다고 해도 0.1% 가지고 뭘 하겠어라고 비웃으면수 결국 수학에게 비웃음당한다.

그리고 눈치빠른 사람은 갑자기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다.

0.1%씩 늘려서 저런 결과라면 0.1%씩 감소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어제보다 0.1% 못한 삶을 사는 것을 지속하면

1/1.001 : 365일 - 0.7배

1/1.440 : 005년 - 0.16배

1/1.440 : 010년 - 0.02배

1/1.440 : 020년 - 0.0006배

물론 10년도 되지 않아 강제로 노예생활하거나 자살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재수, 삼수하면서 오히려 '망해가는' 것도 이로써 설명된다. 예전에 말했던 허력도 저절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공과 관계없이 0.1% 성장만 한다면 - 물론 소득이나 공부량으로 계량해야겠지만 - 되는 것 아닌가?

맞는 말이다.

전공선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 0.1%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0.1%를 0.5%로 늘릴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여기서 상담하는 친구들에게 쓴소리를 던지는 이유다. **미리 미래를 재단할 것 없이 자기가 길을 잡았으면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면 된다.** 그리고 어떤 교재를 보느냐 하기보다 어제보다 1문제 더 풀면 된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 상담을 해서 그냥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종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들은 마이너스 복리효과로 막장코스를 밟는 것이다.

학습에 관해 말하면 어떤 인강이나 학원이나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 복리효과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다. 황금의 3개월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는 데 당연히 나는 '저런 병신들'하면서 비웃는다. 이런 친구들은 **복리효과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게다가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건 5월까지라는 건 다 알건데?)**

누구보다 빨리 시작하고 더 많이 읽고 많이 푸는 것이 전제된 하에서 명품 강의나 교재를 고르는 것이다.

이런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는 있다. 그런데 본인이 납득했을 때는 보통 5년 이상은 흘러간 후다. 남들은 벌써 자기보다 6배는 성장해버린 것이다. 더군다나 고3 때만도 못 한 삶을 살다면, 즉 0.1% 후퇴를 꾸준히 했다면 본인은 1/6으로 쇠퇴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36배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이 뺄글 시리즈 중에서 이번 편만큼 공포스럽고 소름끼치는 글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관념적으로 아 나는 의대 갈거야 그렇게 하지말고 전국에서 50등안에 들 각오로 공부해야지 안 그러면 승산은 없다.

더욱이 현역이나 재수로 SKY 의치한에 간 경우는 저런 복리효과를 톡톡히 누린 경우가 많다. 첫째, 가정환경이 무난하다, 둘째, 본인이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서 10년 이상 했다, 셋째, 좋은 사교육을 일찍 이용했다. 본인이 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더 많이 노오력할 수 밖에 없다.

2.31 [학습공학 028] 여우와 곰

2016.02.03

선생들은 한번 가르쳐주면 알아듣는 애들을 좋아한다. 한번만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고 하니까 이 아이는 머리가 좋군요, 잠재성이 있어요 그런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는 실제로 의문이다.

비열이 낮은 녀석은 한번만 학습해도 되는 **여우**같은 녀석이다. 한번 설명하면 바로 '주입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검증이나 검토에 약하다, 그리고 좋지않은 것을 배우면 그것도 바로 배워버린다(...) 수학설명 해주니까 바로 학습하는 친구들이 사이비 종교 교리도 바로 학습해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비열이 높은 녀석은 한번 가르친다고 해도 안 된다. 3, 4번, 아니 심지어 10번을 가르쳐야 할 때도 있다. 그런데 이게 학습능력이 부진해서? 아니다. 이들은

곰같은 애들이라서 상당히 의심이 많고 보수적이라 함부로 주입당하지 않아서이다.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면 학습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친구들이므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장 선생 입장에서는 여우 같은 녀석이 좋다, 조금만 일했는데도 학생 성과가 잘 나오니까. 그리고 그런 학생이 있으면 돈벌이가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학 진학 이후로 이런 여우들이 성공한 케이스를 보지는 못 했다. 뒤늦게 두각 드러내면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는 건 여우가 아니라 곰이다, 혹은 여우같은 곰일지도 모르겠다.

실제로는 여우들이 문제다.

왜냐면 여우들은 나쁜 것도 함부로 배워버리니까. 그럼 그 나쁜 것을 지워버리라고 할 수도 없다. 한 때 공부 잘하다가 추락한 인간들이 대부분 이런 여우과들이다. 나쁜 데 빠지거나 잘못된 방법론을 학습해버려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 곰의 경우는 '반복'만 확보되면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준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시간'과 '관리'다. 자기가 특정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5번은 봐야한다고 본다면, 그냥 5번을 반복해버리면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는 것이다.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줄어든다.

다만 문제는 곰이 '여우'를 흉내내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곰은 곰 테크트리를 밟아야하지 여우를 흉내내지 말아야한다. 내가 보기에는 그냥 진득하게 하면 좋은 성과 거둘 애들이 3~4년 날리는 걸 보면 대부분 자기 스타일을 망각한 결과가 있다. 예컨대 100일 정도만 영어에 옮인하면 재활이 성공할 수 있는 녀석이 그것도 못 견디고 단군신화의 호랑이가 되는 케이스가 많다. 남들은 한달만 인강듣고 끝냈는데요라는 데 현혹되는 것이다. 그냥 진득한 스타일로 100일 가면 될 것을 남들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다가 시행착오 5번 저지르고 시간만 날리고 성과도 보지 못 한다.

콕콕에서 일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곰이니 괜히 여우 흉내내지 마시기들 바란다.

2.32 [학습공학 028] 일주일에 며칠 공부?

2016.02.07

의대에 가실 겁니까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7일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가볍게 말하지. ”어, 올해는 힘드시겠네요” 어안이 병벙해서 이렇게들 이야기한다. ”뭐 어쩌라고”

답변은 간단하다.

”일주일에 10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알 것이다. 저게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시간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중층활용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8시간 공부하고 나머지 4시간을 그냥 쉰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은 8시간 공부하고 나머지 4시간을 ’자기가 더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쉰다. 이러면서 벌써 두 사람분의 공부는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1일에 1.5일을 공부할 수 있다.

노예들은 하루를 어떻게 편하게 보낼지나 연구한다.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몇시간 일하고 얼마를 버나 계산한다. 그러나 성공한 경영자라면 노는 시간까지도 투자해서 시장을 늘릴 수 없을까 한다.

이건 공부에 있어서도 맞는 말이다. 공부가 아니라 입시에 미친 놈들은 합격하느냐 마느냐 그것보다도, 자기가 전국에서 몇등인가 그걸 따질 것이다. 어떤 문제라도 내면 다 맞출 수 있고 남보다 잘 하는 걸 생각하지, 어디 갈 수 있느냐 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다. 사실 xx대에 갈 수 있을까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튼 것이다. 당연히 xx대에 갈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소위 천재나 엄친아라는 아무개보다 얼마나 앞섰느냐 따지는 것이다.

왜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한지 여기서 드러난다.

그냥 수험생이면 하루에 몇시간 공부할까를 따지겠지만 초수험생이면 어떤

공부로 휴식을 취할까 그런 걸 고민하고 있다. 마인드 자체가 다르니까 휴식과 공부관도 다르다, 스트레스 받는 구조도 다른 것이다.

그래서 엄마들 극성이 그렇다. 자기 자식들을 평범한 아이나 실패한 아이 옆에 안 두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긴 하지만 일리없는 게 아니다. 스타일 하나하나의 차이가 사실 엄청난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상당수는 그게 뭔 소리야 미신일 거야, 머리좋은 게 장땡이야라는 진짜 미신 같은 소리를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본 바는 머리는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두뇌가 뛰어난 경우 그게 잘못된 스타일을 학습하면 데미지를 더 입는다. 하지만 '마음 가짐'이 다르다면, 즉 어렸을 때부터 삶과 교육의 철학을 달리 주입받는 경우는 정말 무시무시한 격차를 낳는다.

서른이 가까워져도 에라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행복해 하며 잉여질하는 사람도 있고(물론 나도 그렇지 않나) 방면 사춘기에 가까워졌는데도 자기 혼자 세사람 뜻을 왜 할 수 없나 고민하는 예의바르고 능력좋아 짜증나는 녀석들도 있다.

그럼 결국 노오력하다라는 건 수식어의 문제일까. 평범하게 노오력해서는 쓸모없는 것이다, 본인이 지배자가 될 각오로 비범하게 노오력하지 않으면 사실 답이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단지 돈만 벌고싶다고 하면서 그런 고통을 감수할 생각이 없으면 **답은 없다**. 상담을 해줄 때에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한다, 왜냐면 그 경우 상대는 아직은 평범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공부하면 그래도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다. 사실 SKY 공대급이면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요즘 의대라면 비범하게 공부해야할 것은 너무 자명하지 않나?

이런 것은 강요도 아니라 그냥 내가 쿨하게 바라본 진리다. 더군다나 IMF 이후에 수정된(...) 10대들의 경우, 부모들부터 맞춤형 결혼, 거기다가 전략적인 임신빨이라도 받았는지 연령이 내려갈 수록 더욱 더 무서운 괴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고2 올라가는 세대들 이하부터는 뭔가 상당히 무섭다)

저렇게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무소유라도 읽고 욕심이라도 줄이는 게 좋을 거다. 노력과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꿈만큼 절망적인 건 없다. 꿈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다, 같이 이루는 것이다. **내 밑에서 추락해 줘야하는 경쟁자들과 함께.** 경쟁율이 100대 1이면 거기서 99명의 꿈을 짓밟아야 내 꿈이 이뤄진다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진리를 다들 망각하고 있다.

2.33 [학습공학 029] 정신적 거세

2016.02.08

아내가 사랑하는 건 남편이 아니라 아들(...) 그게 교육에서는 결론적으로 정신적인 거세로 나타난다. 딸시집보내기 싫어하다가 정말 혼기 놓치게 만드는 아버지처럼 아들을 품안의 자식으로만 키우려고 하는 어머니들 때문에 마마보이가 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욕망이 사라진 경우가 있다.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학습과정에서 일종의 '강박'으로 나타난다. 수학은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야 영어도 무조건 정해진대로만 읽어야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아시다시피 생각은 이미지 → 문자, 문자 → 이미지. 이 끊임없는 교대수열. 이미지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면 아무리 공부해보았자 한계가 온다, 물감이 없는데 그림이 설명할 리가 있겠나. 다양한 방식으로 오감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의 성욕이 있어야 저런 이미지 능력도 원활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걸 모른 채 그냥 자식을 무조건 잡아서 강요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부모님들 때문에 무채색 학생들이 생기곤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지 능력이 없으므로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러니 좌절해버린다.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노오력해버리면 소용없다, 그 장애를 일단 걷어내야한다.

해외 영화, 해외 만화, 해외 드라마를 적어도 사흘에 한편을 보는 걸 권장하는 이유다. 이국적인 건 무조건 감수성을 자극하게 되어있다. 거기다 해외 작품

은 한국의 심의, 겸열을 받지 않아 감각적인 게 선명한 경우가 많다.

아울러 노래방 같은 곳을 가도 좋지만 때때로 마트, 백화점에 가는 것도 권장한다. 미친 것 같지만 식료품 코너에 가서 개처럼 코로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고 구입할 생각이 없더라도 화장품, 의류, 가구, 전자제품, 서적 등을 하나하나 보고 디자인, 성능, 가격, 향기, 소리 등을 접하는 것도 좋다.

탁월한 지능은 선명한 감수성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수능문제 도 그것의 맛과 향이 있고 촉감이라는 게 있다. 하다 못해 2차원이라는 고상한 취향의 소유자가 각 문제들을 캐릭터화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지적경험이다.

감각을 무시하면 자아는 불완전한 명제로 쪼그라져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명제화된 사람이 거짓이라고 증명되어버리면?

2.34 [학습공학 030] 후행학습

2016.02.26

분명 똑같은 시간을 기울였는데도 강의가 이해가 가지 않고 문제도 안 풀리고 자기가 머리가 안 좋은가보다... 라는 친구들이 많다.

길게 쓸 필요가 없이 이유는 간단하다. ”**기초**”가 **없으니까** 건물로 친다면 지반공사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상누각을 지어버린 것이다. 바닥이 흐물거리는데 층수를 높일수록 어떻게 되겠나. 더 붕괴되기 좋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수학에는 오히려 ’**후행학습**’이 필요하다. 수학을 못 하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도 사교육을 못 받아서도 아니라 엉터리로 잘못 배우거나 연습을 게을리한 채로 스kip한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계산 실수를 자주 한다면 초딩 계산 연습을 다시 해보아야 한다. 기하학 문제가 나오면 얼어버린다

면 초딩 도형과 중딩 기하도 다시 공부해야 한다. 경우의 수가 약하다? 당연히 수2 집합, 그리고 초딩 수학도 다시 공부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후행학습(아마 이 용어도 내가 처음 쓰지 않을까 싶다만)이란 개념 자체가 그리 쓰이고 있지 않다. 거기다가 이상하게도 아랫 학년을 공부하면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이런 후행학습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끝까지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것이다.

기초가 안 되어있어서 이해가 안 가고 문제가 안 풀리는 데도 하류들은 이걸 모르고 ”**인기 강사**”의 ”**족집게 특강**”만 들으면 해결될 것이야라고만 믿는다. 만약 해당 강사가 그런 문제를 알고 강의 중에 후행학습을 시켜준다면 구원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게다가 하류들일수록 공부는 안 하고 일류가 본다는 교재만 잔뜩 사들인 채 풀지를 않는다. 후행학습이 필요한데도 이걸 무시하고 명문대 간 친구들이 하는 커리만 따라하면 될 거야...라고 믿는데 뭘 리가 있나.

급할 수록 천천히 돌아가라는 말은 격언에 불과한 게 아니다, 이건 바로 경영이다. 상위권을 달리는 친구들의 교집합은 ”**기초**”가 정말 튼튼하다는 것이다. 계산이 신속 정확하고 문제를 꼼꼼히 읽는 데다가 여태껏 해왔던 교육과정 중 빵꾸가 없으니 실수도 거의 없고 이해도 빠르다.

기초가 안 되어있는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 더 걸리더라도 정말 국영수 기초를 제대로 하고 가란 것이다. 하다 못 해 올해 시험에 늦더라도 내년 시험에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기초만큼은 정말 단단히 하라는 것. 이걸 안 하면 입시가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저당잡히는 상황이 온다**. 기초가 제대로 다 잡혀있으면 그 다음부터 공부하는 속도는 지수함수 형태로 증가한다.

2.35 [학습공학 031] 라이벌을 구입하라

2016.02.28

누구나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계획은 누구나 짠다. 그러나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는 건 힘들다. 강의와 교재 구입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한다. 그러나 강의와 교재를 제대로 활용하는 건 아무나 못 한다.

그렇다면 현명한 수험생이라면 계획을 실천하게끔 강제하는 것, 강의. 교재를 적시에 소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 이걸 신경쓸 것이다.

물론 당연히도 이것까지 신경쓴 사람은 없다. 계획을 짜면 그걸로 만족해버리고, 강의와 교재를 구입하면 그 다음 방치해놓는 것 역시 누구나 하는 짓이다.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수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라이벌”을 잡고 경쟁하는 것이다. 그냥 냅두면 공부 안 하는 인간들도 자기 라이벌이 책을 피면 피로를 잊고 공부하게 된다.

사람이 신기한 게 평소에는 돈이든 아파트든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자기 친구’가 거액을 벌었다거나 아파트를 구입했다라고 하면 의욕이 생긴다. 선의이든 악의이든 라이벌이 있어야만 나태해지지 않고 공부하게 된다. 스트레스 받는다? 공부하기 싫다? 이걸 해결해주는 게 라이벌이다. 라이벌이 있어도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어차피 그냥 당사자가 이미 공부를 포기한 것이다.

실강이 인강보다 나은 게 그거다. 실강을 들으면 라이벌이 확보된다. 돈을 주고 강의 뿐만 아니라 ’라이벌’들을 구입하는 것이 실강이다. 그런데 인강은 그게 없다. 수강생들의 진도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면 좋겠지만 이게 지원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인강이 좋겠네... 하는 친구들이 실강생을 못 따라가는 일이 벌어진다. 그걸 강사들은 자기 강의에 집중한 결과라고 자화자찬하겠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단 ”강제성”과 ’라이벌” 차이가 크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다.

다만 온라인에서도 이제 라이벌 시스템은 구현되지 않을까 싶다. 왜냐면 온

라인 게임부터가 라이벌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는지도 설명된다. 인강은 이제 개인 방송 아니면 온라인 게임으로 진화될 것이다)

- 왜 부촌 집값이 높은지
- 엄마들이 기쓰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하는지
... 등이 이 라이벌론으로 설명된다.

비싼 교재 여러 권이나 강의를 살 돈이 있으면 차라리 '공부 잘 하는 학생'에게 밥을 사주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낫다.

2.36 [학습공학 032] 엉터리 계획술

2016.03.07

인강 내용을 기억 못 하는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 내용은 잘만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는 스토리가 없지만, 막장 드라마에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죠. 더 들어가면 스토리는 기호와 신호로 환원되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끌리거나 추구하는 근원적인 게 있다... 가 되겠는데

탁월한 강사라면 딱딱한 전화번호부만 가지고도 스토리를 잘 만들겠죠.

이해가 되려면 일단 해당 내용이 스토리로 와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학습자 본인에게는 '이미지'로 새겨져야합니다. 저 스토리와 이미지가 수험지식의 양대 축이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 이걸 모르시더군요. 공부해 본 사람이면 다 고개를 끄덕거리겠지만, 안 했거나 대충 한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수학에서 꿀교재만 고르면 1등급 나온다... 그런 게 어딨습니까. 거짓말이지 물론 한권만 보더라도 올라가는 천재들이 없지는 않은데, 이 친구들도 좋은 가

정에서 조기교육으로 두뇌가 완성된 케이스입니다. 평범한 친구들이 올라가려면 기본교재를 3회독하거나 아니면 3권 정도는 돌려서 천천히 기초부터 쌓아야 합니다. 기초적인 것을 반복해 숙달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재미있게 파악하고(스토리), 훈련 과정에서 형상화하면(이미지) 그 다음에는 굳이 인강을 듣지 않아도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이 키워집니다.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많이 시간을 할애해야하며, 중간에 지치지 않도록 단위시간당 학습량은 줄여야합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하라는 겁니다. 3개월이 확보되고 안 확보되고는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실패하는 흔한 유형 -

- ① ② xx만 보면 되지 않나요
- ③ 저 하루 12시간 할 건데

일단 ④ 하는 인간들은 양 망하기 딱 좋죠.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건데 정말 ⑤가 가능했다면 그 전에 대치동 소수정예 학원에서 더 업선된 교재로 가는 친구들 다 명문대 갔겠네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좋은 케이스는 선행과 후행이 정말 잘 되어있어서 거의 10년치 사교육을 한 친구들이죠. 분명 전 올해 초에 풍산자부터 차근차근 보라고 했는데도 이걸 안 지키고 지금 와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으신데 '단기간에 빨리 끝내려는 망상' 버리시고, 기본부터 하시기들 바랍니다.

특히 ⑥가 문제입니다. 아니 평소에 공부도 안 하는 친구들이 12시간을 참 잘도 하겠죠.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다고들 착각들 하시는데 실제로 하루에 순 공부 6시간만 지키는 것도 어렵다는 걸 나중에 알게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속력입니다. 본인이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6시간 할 공부도 하루에 4시간 하는 걸로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계획술의 핵심은 그 실행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100% 이행가능하도록 분할, 분배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들 하죠. 공부 잘 하는 애들은 널렬하게 공부하더라. 그거 머리 좋은 것 아냐? 이 광경에서 100% 확실한 건 그런 말 하는 친구들은 정말 머리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 하는 애들이 '널럴하게 공부할 수 있는 스케줄'로 공부하니까 공부를 잘 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것이죠. 왜냐? 공부는 빽세게 어렵게'만' 해야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있고, 본인들이 공부를 안 해보았으니까요.

공부 잘 하는 친구들이 하루에 널럴하게 공부해도 될만큼 스케줄링이 되어 있다면, 이 친구들은 100%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단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고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구간마다 사교육 지원 잘 받고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공부해야하는 총량을 나눠주는 시간을 늘렸기 때문에, 단위기간동안 공부해야 하는 양은 남보다 적으면서 학습총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널럴하게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덜 받고 계획은 100%에 가깝게 이행하면서 실패없이 자기 학습량을 늘려나가 복리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반면 풋내기들은 무리하게 계획을 잡습니다. 당연히 이행률은 결국 0%에 수렴하고, 그동안에 들인 노력과 시간은 매몰비용이 되어버립니다. 계획이 번번히 실패하니까 실패와 불행에 중독되어버리고, 하루 순공부 12시간은 해야지 라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교재와 인강타령만 하고 있죠(공부 잘 하는 애들은 선택 고민 없이 진작 다 끝냈을 건데) 무엇보다도 여전히 공부는 빽세게 해야한다, 그런데 자기는 빽세게 못 하네, 공부할 팔자가 아닌가봐... 하면서 스스로 망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공부 잘 하는 애들이 '널럴하게 공부하는 게 비결'이라는 쪽으로 생각만 했더라도 인생이 꾼이지 않았을 건데 말이죠.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3월이니까 최대한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수능에 필요한 공부량은 줄이는 것(가령 선택과목 선별)을 해서 스트레스 관리 잘하면서 계획을 100% 이행하는 그걸로 잡아야지, 계속 인강 교재 타령하다간 2017 바라보면서 피눈물이나 흘리겠죠. 오히려 현명한 사람은 2018을 목표로 삼으면서 그에 필요한 공부량을 다 계산한 뒤 역산해서 하루에 얼마나 공부할 수 있을까 추린 뒤 이걸 더 줄이는 방향을 강구해서 '널럴'하게 갈 수 있게 계획을 짤 텐데 말입니다.

”아니, 그럼 널럴하게 공부해야만 한단 말인가”

그게 아니죠. 널렬하게 짜놓는다는 건 다시 말해서 공부가 정말 안 되는 컨디션임에도 계획을 100% 달성할 수 있게 세팅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하다가 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보되면 공부할 것을 더 늘릴 수 있겠죠. 그건 본인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무턱대고 추가하는게 아니라 2~3개월 하면서 확실히 안정되었다라고 하면 늘리겠죠.

전쟁에서는 결국 적보다 많은 병력을 동원하는 게 이긴다고 하죠(란체스터 법칙) 이건 수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더 편리한 환경을 확보해놓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려면 누구보다 먼저 시작해야 하고 그 다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제거해야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정신으로 승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은 자기를 초인으로 가정하고 단기간 내에만 끝낸다라고만 마음먹으면서 자기를 학대하려 하죠. 다들 매일 컨디션이 최상인 것으로 가정하고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실천 못 하고 좌절하는 바보짓을 합니다. 일본인은 초식동물이니 풀만 먹어도 된다라는 식의 발상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2.37 [학습공학 033] 수험 RPG

2016.03.14

가끔 워3 카오스를 한다. 물론

'너 왜 디 안 하냐' '네가 사람새기냐. 이 뱀암종자야' '이 녀석 때문에 게임 못 하겠다 판프자'

라는 온갖 악플(?)에 시달리지만 이 게임이 재밌는 이유는 간단, 승부 룰이 정말 긴박감이 넘치기 때문이다(개인적으로는 룰보다도 재밌다능) 그런데 카오스 입문을 할 때 자주 맛본 악플이 있다.

'이건 RPG가 아냐 이 xx야'

카오스는 승률 계산이 정말 중요하다. 5:5 할 때의 캐릭터 밸런스(스턴, 테러 캐릭터 확보, 힘캐의 적절한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초반에 협조플레이를 잘 해서 킬수를 올려 상대방이 텁텁을 못 하도록 방해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그런 시도에 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라인에서 텁텁하다가 사냥 도는 적캐릭터들이 급습할 것 같은 예감이 되면 잘 튀어야 한다. 그리고 아군이 한판할 때 잘 합류해줘야하며, 적들이 테러 들어올 때 역테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머리를 굴리며 학대하는 게 재미인데

가끔 보면 싸움을 하기보다 **한가롭게 사냥질을 하면서 아이템 쇼핑을 하는 캐릭이 있다.** 이걸 보고 "RPG하지마"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아군이 있으면 그 판은 물건너간다, 이런 애들이 적군에 200원을 제공하는 고문관이니까.

공부와 수험의 차이를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부만 하면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다"라는 것이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한다. 이 공부가 바로 CHAOS의 RPG 행태와 똑같은 짓인 걸 모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경쟁을 망각한 학습행위고 수험은 **경쟁자들을 의식하고 그들을 쓰러뜨리는 학습행위다.**

왜 학원에 가는 게 승률이 좋은지 아나? 거기는 경쟁자들이 보이니까. 경쟁자들을 의식한 학습행위를 하게 된다. 반면 독학이나 인강은 경쟁자들이 보이지 않으므로 '공부 RPG'를 하기 딱 좋다. 마찬가지로 어떤 교재가 좋아요 어떤 강의가 좋아요 극혐질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질문할 바에는 실제 경쟁자들이 뭘 공부하고 있는지 탑 시크릿을 캐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이야기해보면 주식과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주식도 가치투자니 기술투자니 하지만 교집합들을 구하다보면 '작전세력'을 읽는 게 답이라는 걸 알게된다. (심지어 작전에 해당하는 자들이 가치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치투자가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재무제표 보고 큰 돈 묻어두었다가

예측과 다른 하락에 개당황해 기술투자로 갔다가, 처음에는 돈을 벌지만 그 다음에는 또 하락을 맛보면서 거액을 털린 뒤에야 아 역시 투자도 '경쟁'을 전제하는구나라는 진실을 늦게야 안다. 부동산 역시 그렇다, 눈치에다 후각, 거기다가 여성 특유의 육감을 갖춘 복부인들이 거의 다 해먹는다. 당연히 이들도 자기들이 마크 대상인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은밀히 움직이면서 정부정책과 법령을 연구해 짭짜게 움직인다. 그렇게 프리미엄까지 따놓은 다음 그걸 호구들(=장래 하우스푸어)에게 팔아먹어 벌어대는 것이다.

수험 RPG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코스가 공개되는 걸로 착각한다. 말 하지만 그런 것은 웬만하면 드러나지도 않는다, 누가 비급을 대놓고 싼 값에 팔겠나. 설령 비급이 있다고 해도 그건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발견하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이 경우 현실적인 건, 공부 잘 하는 친구들이 하는 코스는 다 완료하고 그 다음 프리미엄을 추가하는 것이다. 물론 '다 풀면 된다'에 덧붙일 수식어는 "남보다 빨리, 더 신속히, 더 많이" 초반에 렙업 빨리 하고 남이 먹을 사냥감을 자기가 먹어버린 진영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최고의 스케줄? 남들이 고3 때 하는 것을 미리 고1이나 고2 때 끝내놓는 것 이지. 아무리 머리 써보았자 1~2년 일찍 빨리 끝내고 회독수 높인 것을 이길 방도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 한 "RPG 플레이어"들이 정말로 많다. 마찬가지로 어느 교재를 봐야하나요라고 하기보단, 그 교재들을 가능하면 다 보도록 '시간확보'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이런 단순한 해답을 모른다, 뭔가 한권만 보면 될 거라고 착각을 한다.

자신의 공부가 정말 바른 길인지 아는 방법은 상위 1%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상상해보는 것이다. 신기하지만 이건 직접 보지 않아도 공부 안 한 자신들도 안다. 상위권들이 어떻게 공부할지. 아주 지독하게, 집요하게. 그리고 문풀이 남들의 수십배를 호가하며 항상 뭔가 읽고 있고 암기하고 있을 것이다....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 그럼 이대로 실천하면 된다, 하지만 진짜 실천도 보면 그렇지 않다.

물론 고렙도 가끔 킬당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뛰어난 수험생도 실전에

서는 망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n수의 원인은 n수생들 스스로가 고백한다. ”저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T_T ” 당연히 공부는 열심히 했겠지, 다시 말해 공부 RPG는 했지. 하지만 경쟁 게임은 하지 않았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뭐하나, 결국 고렙 캐릭터들을 킬하지 못 하는데.

공부와 경쟁 중 그림 뭐가 우선시되느냐 공부를 한다고 경쟁을 하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 공부의 마스터베이션으로 끝날 수도 있다. 반면 경쟁으로 들어가면 공부는 하게 된다. 학원강사들은 절반의 거짓말을 한다. 독학으로는 불가능하다, 강의를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다. 독학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강의가 좋아서가 아니라, 강의를 듣는 라이벌의 존재가 경쟁 상황을 조성해주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머리가 좋다는 건 이미지에 숙달된 것이지만 한없이 공부해도 즐겁다라는 것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정말로 그 학문의 마니아나 오덕이 된 경우다. 다른 하나는 수험경쟁게임에서 남들을 킬하고 자기가 노데스인 상황을 즐기는 것, 즉 수험경쟁에서의 승리에 도취한 경우다.

저걸 깨닫는 건 나이와 상관이 없다. 20대 중반을 넘어서도 경쟁임을 여전히 모른 채 공부 RPG에만 빠져있는 케이스야 셀 수 없이 많고 이제 여드름이 막 나려고 하는데에도 시험으로 남보다 우위에 서는 것 자체를 즐기는 케이스도 널렸으니까.

2.38 [학습공학 034] 교재 집착증

2016.03.16

회사의 경영상태는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고 학생의 공부상태는 서재와 가방을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우선 특정과목의 교재가 5권 이상 넘어가는 데 ‘깨끗’하다면 십중팔구 망해가는 코스다. 반면 특정과목의 교재가 기본서-기출-연습서 정도만 구비되어있고 ‘필기’로 더럽다면 망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

다.

회계에서 순이익 조작은 재고자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수험에서도 교재들을 많이 구비하는 것을 '공부'한 것으로 인식하여 본인의 수험 실적을 조작할 수 있다. 뭐 윗 내용이야 상당히 보편적인 것 아니 새로울 건 없는데 하나 추가하자면 '팬심'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n수생 중에서 특정 저자의 특정 교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런 곳을 구경해보면 **수년 전부터 특정 교재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공포스러운 것이 아닌가.

수험생들을 관찰해볼 때 이런 부류가 있다.

- 특정 강사의 A 강의가 좋다 소리치면서 지나치게 집착
- 특정 저자의 B 교재를 무조건 완비해서 그걸로 수능을 완벽히 대비한다.

이 케이스도 반드시 망한다. 저런 친구들은 일단 수힘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이고 아울러 특정 교재나 강의에 집착하면 스케줄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공부 잘 하는 친구들은 교재에 집착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교재는 도구이고, 강의는 그저 안내일 뿐이기 때문이다. 책도 굳이 많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자기 머릿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이지, 서재가 얼마나 풍부하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머리에 들어가지 않은 교재는 그냥 재고덩어리나 뱃살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고 굳이 단권에 집착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교재 20권이 있어도 그걸 발췌독만 하면서 필요한 것만 소화시킨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중요한 건 기본적인 교재의 개념과 패턴이 일단 당사자의 머릿 속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게 된 사람들은 교재나 강의에 그리 집착 안 한다. 그냥 좋은 게 있다하면 '보충용'으로나 듣고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가져간다. 하지만 머릿 속에 공부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특정 교재를 완수하고 특정 강의를 완강해서 수능만점에 간다는 판타지를 계속 연상한다. 개인적으로 교재나 강의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구는 이유가 그런 판타지에 빠진 환자들이 널렸기 때문이다.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나면 두뇌가 자동학습 상태로 들어가고 그 뒤부터는 텁욕스럽게 해당 지식을 흡수한다. 그러나 두뇌가 알파고(...)와 비슷한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고 반복한다.

라는 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으면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공부를 해보지 않은 애들은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럼 왜 이런 당연한 게 전파가 안 되냐하면, 잘 하는 친구들은 '그거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서 말을 안 하니까. 뇌를 학습지속상태로 만들어야한다는 걸 모르는 친구들은 업자들의 광고에 의존하면서 그 업자들이 말하는 풀셋이라는 데 미친 듯이 집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업자들은 어떻게 해서 수험생들을 속일까하는 것에 골몰한다.

2.39 [학습공학 033] 성공부등식과 실패부등식

2016.03.19

박승동이 제시한 회독은 n회독때도 전체 책을 다 보는것 모 정신과 의사가 제시한 방법은 1회독때 겉핥기 2회독때 발췌독 3회독때 정독 모 고시 3관왕은 1회독때부터 단권화해서 2회독부터 전체를 다 읽는것 사람마다 다 회독공부법이 다른데, 갑자기 "이런거는 다 아는줄 암"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험생들 입장에선 어리둥절해 할 수밖에없죠

고시 3관왕 시절과 지금은 참고서부터가 다릅니다요. 지금 원칙적 폐지 상태인 사법시험 1차의 민법기본서는 25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런데 과거의 민법은 많아보았자 300쪽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부했던 사람들이야 그 기준대로만 생각하시 쉬워서리. 수학의 정석도 과거 것은 양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부담이 덜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험이건 참고서가 두껍습니다. 이걸 1회독 때 전부 다 본다는 건 미친 짓입니다. 처음에 전부 다 훑어도 되는 것은 '수능특강' 수준입니다. 물론 전 이것조차도 분할해서 회독수 높이라고 권하겠습니다.

공부를 못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위시간당 학습량과 학습수준 ; 자신이 소화시킬 수 있는 단위시간 당 학습량과 학습수준이라는 실패부등식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부등식대로 하면 그 날 학습은 성과가 안 나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지요.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단위시간당 학습량과 학습수준 := 자신이 소화시킬 수 있는 단위시간 당 학습량과 학습수준이라는 성공부등식을 지켜야합니다. 성공부등식대로 가면 공부했던 생각이 안 들지도 모릅니다만, 스트레스도 덜 쌓이면서도 정말 안전하게 자기 계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의욕이 가득차서 실패부등식대로 가니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 이지요. 공부 잘 하는 애들은 성공부등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니까요. 자신이 실력이 없고 초보일수록 더 시간을 많이 잡아서 단위학습량 및 수준을 줄이고 천천히 가야합니다. 원래 회독수 학습법도 일본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 쪽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내에서는 뭔가 왜곡된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국내 강사들이 말하는 학습법을 따라가는 애들이 왜 소수만 성공하는가, 즉 다수는 실패하는지 답이 나오지요. 의지와 열정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 나머지 실패부등식대로 공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위한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일당백할 수 있단 소리인데 무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원래 회독 학습법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기초한 겁니다. 처음부터 완

벽하게 다 읽어보았자 시간지나면 까먹습니다. 복습을 해야 망각을 줄입니다. 그 복습을 세는 횟수가 바로 회독수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는 동시에 처음에 무리하지 않게 나선형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난이도를 나선형으로 천천히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회독수를 늘리는 것인데 다수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읽는다라고 착각했으니(...) 그러니 공부 실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겁니다.

강의가 좋은 건 '핵심'만 짚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을 짚어준다는 건 양을 줄여주는 것이고 양을 줄인다는 건 즉, 자신의 능력 내로 학습량을 줄여주므로 성공부등식을 충족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책을 읽을 경우 자기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량을 늘려서 진도는 진도대로 못 나가고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습니다. 즉 명강의가 소화가 잘 되는 가장 원칙적인 비결은 "양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양을 다시 늘려야한다는 과제는 남아있는 것이지요.

수학의 정석이 문제인 게 이것일 겁니다. 학습자가 계획을 잘 짜서 분할을 하면 괜찮겠지만 보통의 학생에게 그런 능력을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온갖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는 쉬운 내용으로 나선형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에베레스트와 맞닥뜨리고 좌절해버리죠.

학습계획은 결국 학습량/시간 이란 분수에서 시간을 적절하게 늘려 단위학습량을 줄이는 것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친구들은 단위학습량 ↑ 이란 망상에 빠지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공부 잘 하는 친구들이 한시간에 100페이지를 본다면, 초심자들은 한 시간에 5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만 봐야합니다. 그리고 쉬운 내용으로만 해서 전반적인 진도를 훑어나가야 개략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미국의 학습법에 나온 SQ3R이 있습니다만 이건 국내 실정과 안 맞습니다(대학교 과정에서는 좀 맞을지 모르지만)

2.40 [학습공학 034] 수평적 사고(lateral thinking)

2016.03.30

차근차근 계단식 추론을 통해 엄격하게 결론을 도출해나가는 게 수직적 사고이다. 대표적인 것이 대전제-소전제-결론의 삼단논법이며 초창기 수능이 아닌 현재 수능 수학에서 요구하는 사고법이다. 이 수직적 사고와 다른 것이 수평적 사고 lateral thinking 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8257&cid=51072&categoryId=51072>

소위 창의적인 사고는 저결로 나오는데 문제는 현행 교육과정이든 사교육이든 그 어디서든 가르치지 않는다. 사실 이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 1) 오렌지 10개를 샀다. 집에 가서 질투심들이 많은 아이 셋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오렌지를 하나라도 버리거나 내가 먹어서도 안 되고, 한명에게 몰아줘도 안 된다. 어떻게 할까?

ex 2) 학원 입시설명회가 너무 각광을 받은 나머지 원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자칫하면 사고가 나기 좋다. 입구에서 강의실까지만 천천히 걷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ex 3) 아래가 절벽인 커브길이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온갖 장치를 해도 과속을 하는 차들 때문에 사고가 난다.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수능수학에서처럼 접근하면 꽉 막힌 답안이 나온다. 래터럴 씽킹의 핵심은 우리가 사로잡혀있는 기준의 가치관이나 프레임의 맹점을 공략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이론은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고려하지 못 한 변수들도 많아서이지만 이론 자체가 상아탑에서나 먹히는 '그럴 듯한 착각'인 경우가 많아서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인정하고 그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면 래터럴 씽킹적인 결론이 나오게 된

다.

입시로 친다면 초기 90년대, 2000년대 초반 수학까지는 이른바 '야매' 전술이 먹힌 것만 봐도 된다(특히 극한) 말이 야매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야매라고 보기 어렵다. 이 야매가 바로 래터럴 씽킹이기 때문이다. 다만 고교수학은 그것들이 틀리지 않았으며 교과서적 방식이 무조건 옳다라는 신념 하에 푸는 것이 윤리이고 평가원은 이러한 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근 5년동안은 래터럴 씽킹이 먹히지 않게 해놓았다. 하지만 래터럴 씽킹이 안 먹힐 리는 없지 않나. 다만 래터럴 씽킹을 하려면 교과서의 3배를 넘어서는 다른 과정까지 공부해둬야한다. 그럴 바에야 래터럴 씽킹을 포기하고 그냥 교과서대로 가는 게 '나은' 방법인 것이다

하지만 국어, 영어, 그리고 탐구는 이 래터럴 씽킹이 먹힐 수 있다. '닫힌 집합'인 수학과 달리 국어, 영어, 탐구는 '열린 집합'이기 때문이다. 출제자의 의도라는 것이 수험외적인 내용에 한수 굽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저 과목들이다. 이것들은 때로는 출제 오류, 복수 정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수학 공부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것의 맹신에 거부감을 느끼고 다른 것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부질없는 일이다. 래터럴 씽킹은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과 사고 자체를 뒤엎고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지, 이상한 꼼수를 암기하거나 야매 풀이의 집착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원이나 해고한 짜깁기 교재는 래터럴 씽킹을 어떻게 하느냐 가르치기보다는 그런 래터럴 씽킹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비싼 값에 팔아먹는다. 물론 아무 것도 모르는 학생들은 그 부산물을 암기하기만 하면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단단히들 착각한다.

아래는 뭔가 타당해보이는 답

answer 1) 오렌지들을 갈아서 쥬스로 만들어 나눠주거나, 오렌지들의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한 뒤 나눠주는 것을 꾀한다 answer 2) 입구에서 강의실 사이에 서서 무료로 '자료'를 나눠준다. 자료를 받기 위해 천천히 걸어가게 될

테니까 answer 3) 모든 차선을 없애버리고 펜스도 최소화한다. 운전자들은 그걸 보고 신중해져서 감속하게 될 것이다(실제 사례 있음)

+ 고교수학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수직적 사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걸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입시수학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개 뻥이다. 그거 잘 해보았자 참고서 팔아먹기 그것 빼고는 안 됨. 수학이 뭔 소용이 있나요라고 질문하는 게 정상이다. 그럼 답변은 "수직적 사고" - 라고 해주면 된다.

++ 수평적 사고는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커리큘럼도 학위도 없다. 그러나 수평적 사고를 잘 하는 사람이 현실에서 성공한다.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은 수직적 사고로 안 풀리거나 무한 재귀인 경우가 많다. 소위 이걸 '눈썰미가 좋다', '수완이 대단하다'라고 표현한다.

+++ 써놓고 보니까 이게 꽤 중요한 떡밥인데. 왜 이공계가 심오한 것을 배우는데 현실에서는 짜리가 되어버리는가...에 대한 단서일 수도 있다. 실제로 변태적인 수준으로 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상아탑을 벗어나면 현실에서는 너프당하는 중요한 이유일 수도.

++++ 에디슨이 조수에게 전구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던 일화 검색해서 찾 아보시길.

2.41 [학습공학 035] 스피드

2016.03.30

이 스피드야말로 정말 오답의 원흉이다. 물론 다 빨리 푼다고 틀리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푼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틀보스"라는 말 그대로. 틀리고 보니 스피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면서 나는 빨리 풀어야한다고 말한다. 글을 읽는 사람은 '그래서 어찌라고'라고 한마디할 것이다.

우선 빨리 풀게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콕콕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 뇌의 도그마적 명제 2가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 명제 1 - 우리 뇌는 자아정체성 유지를 위해 학습을 싫어할 수 밖에 없다.
- 명제 2 - 우리 뇌는 지루한 것을 피하기 위한 온갖 시도를 한다.

스피드도 착한 스피드와 나쁜 스피드가 있다. 소위 착한 뇌물, 착한 독재... 이런 이야기는 아님.

성실히 일해서 번 일당 50,000원은 착한 돈이지만, 불법 성매매를 하거나 사기쳐 번 500,000원은 나쁜 돈이다. 돈의 액수만 보는 사람들은 500,000원에 눈이 멀어서 그걸 별려고 한다. 당연히 인생이 잘 풀릴 리가 없다, 그건 나쁜 돈이기 때문이다. 돈의 본질은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이다. 그 흐름은 인간의 행위 고 따라서 윤리가 없을 수 없다. 나쁜 돈을 버는 사람은 나쁜 흐름에 휘말리는 것이다. 소위 수험가에서 돈많이 번다 어찌구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 동정해야한다고 하면 '너 정신승리지'라고 하는 한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시간' 축으로 사고할 줄 모르는 듯. 나쁜 돈을 버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작살날지 모르지.

스피드도 그렇다.

나쁜 스피드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답이 나온다. 왜냐면 그건 '필수적으로 밟아야 하는 과정'을 생략해서 속도를 높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수학 문제를 '대충 읽는다'거나 써야할 풀이과정을 안 쓰고 조건도 정리 안 하며 계산도 분수도 모르고 암산으로 한다거나 아울러 검산까지 안 하면 오답이 나와야 정상인 게 아닌가? 그런데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필수적인 것을 빼고 '빨리

풀어야' 좋다는 식으로 잘못 가르쳐 나쁜 스피드를 전파시킨다. 이 나쁜 스피드가 배이는 시점이 바로 중딩 때이다. 문제는 중딩 수학에서는 이 나쁜 스피드가 먹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잘한다고 깝죽대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확 발려버리기 시작한다.

그럼 좋은 스피드는?

그건 처음부터 천천히 꼼꼼히 풀어나가면서 회독수를 늘려나가면 저절로 생긴다. 근거는? 그건 위에서 말한 제2명제를 떠올리면 된다. 비슷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 풀고 회독수를 늘리다보면 '숙달'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일단 뇌에서 이걸 지루해한다. 뇌는 지루한 업무를 무의식 부서로 옮겨버린다. 그리고 뇌에서 실수하면 이 지루한 것을 또 천천히 해야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차곡차곡 하면서 회독수를 늘리다보면 스피드는 저절로 늘어나게 되어있다. 이거 안 되는 데요... 라고 하면 구라다.

문제는 나쁜 스피드의 오르가즘에 빠진 친구들이 그 쾌감을 못 버린다는 것이다. 다 포기하고 처음부터 바른 길로 차분히 풀어가면서 좋은 스피드의 세계로 간생하면 되지 않느냐하는데 마약중독자들 치료만큼이나 매우 어렵다. 게다가 이건 회독수를 늘려야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다.

지금 이 시점에 올해 수험 할 수 있어요, 저 아래 말 듣지 말아요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은 잘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문제를 푼다... 라는 것에는 물결 10년에 걸친 교육과정이 압축되어있다. 똑같은 문제를 푼라고 하더라도 A 머리는 알파고인데 B 머리는 빗살무늬 토기다. 이 혼격한 차이를 사람들은 '머리' 차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어떤 식으로 훈련되어왔느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걸 머리 차이로만 두는 사람들은 '환경'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것이다. 머리가 좋은 친구라도 나쁜 환경에서 잘못 배우면 이상하게 가버린다(재밌는 건 이런 친구들은 롤총들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착한 스피드는 하다보면 저절로 키워지는 것, 즉 우리 뇌에서 지루한 걸 피하기 위해서 알아서 확보해주는 것이니 빨리 풀려고 하지말고 천천히 풀어서 다 맞도록 하자.

2.42 [학습공학 036] 시간 감도

2016.04.06

책을 읽거나 문제를 풀 때에 가장 중요한 성격 항목을 더 구체화하면 이건 CPU의 클록킹에 비견될 수 있는 '시간 감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준비물 : 초침이 있는 시계 ; 나 자신

절차 :

1. 초침이 있는 시계를 준비한다.
2. 초침이 정확하게 12를 가리킬 때 눈을 감았다가 꼭 1분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눈을 뜬다.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 아래 해석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16초 이상(즉, 초침이 44초가 되기 전에 눈을 떴다)

불같이 급한 성격, 이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무리하게 일정을 세운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다하겠다고 과욕을 부리다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말아먹는다.

→ 계획을 무리하지 않게 세울 것, 그리고 본인이 계획한 것의 절반 정도로만 실천할 것.

마이너스 15~6초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처리하는 사람이다. 타인이 약속시간에 늦는 걸 용납하지 못한다. 기다릴 줄 모른다, 좀 더 느긋하게 빈 시간을 즐기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 계획을 잡을 때 여백을 두실 것. 그리고 쉰다는 것의 효용을 느낄 것.

마이너스 5초~플러스 5초

시간에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다. 시간에 대한 의식이 높고 스케줄 관리 능력도 좋다. 그런데도 스케줄 관리가 안 된다면 게으름 때문.

→ 게으름만 피우지 마셈

플러스 6초~15초

다소 느긋한 성격이다. 조금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 스케줄이 느슨하지 않은지 점검하자

→ 게으름만 피우지 마셈 2

플러스 16초 이상

남들이 15분 밖에 안 남았다고 안절부절할 때 15분이 남았다고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결출한 인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명청한 취급을 받을 것이다. 시간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 이런 경우야말로 스탑워치를 써야할 듯.

학습방법의 문제는 당사자가 어떤 성격인지 구별하지도 않고 플래너 쓰니 잘 되더라 스탑워치 써야한다 그런 건데. 이건 시간감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

급한 사람이 스탑워치 쓰고 공부시간에 환장하면 말아먹죠. 반수해서 올해 수험 쇼부보겠다는 사람들 보고 2년 보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척 보아도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뭘 해먹을 수 있습니까. 바로 활활 타올라서 미이라가 되어버리지.

뭐라고? 그럼 아직아 네 놈은 어디에 해당하냐고.

제가 마이너스 20초입니다. 저도 왕급한 성격이죠. 그래서 급한 성격이 어떻게 말아먹나 똑똑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파는 그냥 느긋하게 일정 길게 잡고 하루에 최소공부량을 지키다 보면 급상승합니다. 반면 플러스 파는 스탑워치 등으로 타이트하게 짤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방법은 사람의 케이스에 따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2.43 [학습공학 037] 수학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법

2016.04.11

1. 채점

채점을 뺄간색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음, 뺄강은 ”가장 중요한 것” - 즉 틀린 문제나 모르는 문제에만 해야함 일본 도쿄대 공부법에 보면 파랑색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검은 색으로 하면 됩니다. 펜 색깔 고려해서 이것저것 쓰는 시간도 아까우니 말이지요.

뺄강은 정말 다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제에만 쓰시길 바랍니다.

2. 문제 아래 풀이는?

정식풀이는 자잘한 계산이나 A4에 하고, 문제 아래 여백에는 풀이의 핵심만 한줄 두줄로 '키워드'만 적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훑어보면서 그 키워드만 보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풀었나 기억이 나면 됩니다. 기억나지 않을 때에야 해설지를 보거나 다시 풀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문제 아래 에다가 모든 풀이를 다 적는 경우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훑어보기도 어렵습니다.

3. 문제를 다시 풀어야하는가?

처음에 맞춘 문제 - 즉 풀이가 해설과 일치하거나 동등한 - 는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틀리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빨강표시하거나 형광펜으로 박스칠한 문제만 다시 풀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 시간에, 틀리거나 중요한 문제를 3~4번 더 돌리는 게 효율적입니다. 처음에 맞춘 문제는 다음에도 맞출 확률이 높지만, 틀린 문제나 몰랐던 문제는 또 그럴 가능성성이 높습니다.

4. 해설지를 안 보고 답만 보고 채점하는데요?

삼계탕에서 닦은 안 먹고 국물만, 생선회에서 회는 안 먹고 쫄끼다시만 먹는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자기 풀이와 해설은 꼭 비교해보시길. 수학 실력이 이 때 늘어나니까요. 사실상 인강, 학원, 과외로 수업듣는 거나, 해설지를 보면서 풀이를 비교해보는 것은 비슷한 과정입니다. 장기적 효율성을 보면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 모르는 문제는 답을 보아야하는가?

4점 이상의 문제는 문제 측면에 자기의 도전방법을 요약해 적어두고 다음에 다시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도전하면서 전략을 짜는 것 자체가 실력입니다. 인강과 학원의 문제는 그런 도전 기회를 차단해버린다는 것이지요. 스킬북 보고 찐다 하느니, 아무개 강의 듣고 좋다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고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소프트한 스포 가지고 공부한 친구들이 늘겠습니까. 결국 맨땅에 헤딩해서라도 자기가 전략을 세우는 친구들이 올라갑니다. 이걸 소위 문제를 ”발효시킨다”라고 하죠. 모르는 문제는 풀지 말고 곱씹어보면서 한 일주일간은 계속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서라도 안 되면 해설지를 손으로 가리면서 위에서 한줄, 두줄, 세줄 식으로 보면서 최소한의 실마리를 갖고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어디서 꽉 막혔는가 알 수 있습니다.

6. 기출문제집을 2권 이상 가도 괜찮은가?

기출문제를 한번 풀었다고 그걸 아는 것은 아닙니다. 기출도 결국 10회 독은 해야 그 깊은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허용된다면 기출문제집을 또 한번 푸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시 풀어서 다 100점 맞는다면 안 보아도 되겠습니다만.

7. 한권 가지고 여러번? 아니면 여러권 가지고 한번?

한권의 경우는 위 3번입니다. 틀린 문제, 어려운 문제만 여러번 보라는 것 이죠. 그런데 결국 여러권 보아야합니다. 책들이 커버하는 범위가 다 차이가 있고, 문제 경향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됩니다. 신사고 라인의 경우는 대수적인 변형, 풍산자 시리즈는 발상의 변화나 역함수적 접근, 기출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리고 정석의 경우는 본고사 시절의 발상...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양하게 맛보면서 체험해야 머리가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시중교재들을 착실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결과는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아, 그리고 위에서 깜빡했는데

틀린 문제는 반드시 번호 아래에 자기가 틀린 이유 ”계산실수”, ”암산해서”, ”그래프 못 그림”, ”기호 실수”, ”딴 생각”... 이런 것들을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2.44 [학습공학 038] 문제의 인식과 해결

2016.04.14

감각이 떨어지거나, 인지능력이 낮거나, 그리고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 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변명하기 힘든 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이다.

수학능력시험에 평가하는 건 그 학생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인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오산이다.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그 문제의 정체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출제자가 그 문제를 낸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도구를 이용하길 원하는가, 아울러 그 도구들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사용하길 바라는가.

저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별 다른 사교육이 필요없을 것이다. 저게 생활 습관화되어있는 사람, 즉 문제 인식 능력이 매우 뛰어나 남들이 보지 못 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제대로 정의할 줄 알며, 그리고 풀이과정을 세우는 사람은 수능시험 따위로는 재단하기 어려운 참인재다.

능력자라는 게 별 것이 아니다. 능력의 척도는 스펙이 아니라, 문제해결이다.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지 못 했던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능력이 참된 의미의 문제해결능력이다. 강의를 많이 듣고 어떻게 푼다...

라는 기술을 익혀보았자 한계가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 친구들은 문제를 비문제화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정말로 참다운 문제가 나오면 아예 읽지를 못한다. 반면 참고서를 안 보더라도 평소에 사소한 것 가지고도 심각하게 고민하는(ex : 어떻게 하면 방귀로 감미로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친구는 최소한의 도구를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의 3가지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한다, 즉 자기가 원하는 결과 수준을 조정한다
- 둘째, 문제의 주어진 조건을 완화한다, 다시 말해 복잡한 문제라면 그걸 단순화해본다
- 셋째, 자신의 능력을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양치기하는 것이 무난한 해법이 된다.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조건이 단순한 것부터 연습해나가면서 자기 능력을 높여가는 과정이다. 이것 이외에 특효약이나 꿀코스라는 것이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꿀강의를 들었다 한들 그것이 문제를 인식, 정의, 해결,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환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었다라는 건 정말 조심해야한다 정말 스스로 머리를 굴리면서 최소한의 도구로 그 문제를 푸는 사고를 복합적으로 해서 해결해오는 A가 있다면 반면 문제의 풀이과정을 암기하고 특정 문제는 어떤 스킬을 써서 풀어야하는지만 배운 B가 있다. 곁보기에는 둘 다 문풀량은 비슷해보이지만 실제 능력차이는 넘사벽이 아닐 수 없다. A는 불의타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지만, B는 바로 포기해버리고 다음 해를 기약해야할 것이다.

학생들이 머리가 좋다 나쁘다 계산이 빠르다 느리다... 그런 건 그냥 무시해도 된다. 말하지만 그딴 건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다. 머리가 좋으면 뭐하나, 정말 문제가 나오면 해결을 못 하고 시스템을 만들지도 못 하고 수동적 스펙만

쌓으려하는데 반면 머리가 나쁘다고 하면서도 사소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실천해나가는 친구들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당장 수능에는 챔피언일지 모르지만, 길게 보자면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2.45 [학습공학 039] 눈 면자의 숫자

2016.04.20

가치를 쫓는 것이 투자고, 차익을 쫓는 것이 투기다.

그런데 돈을 쫓아 투자를 하면 돈은 오히려 도망을 간다.

돈만 생각하니까 시세만 보게 되고, 가치가 아닌 가격만 눈이 들어온다.

마찬가지로

실력을 쫓는 것이 공부고, 점수를 쫓는 것이 수험이다.

그런데 점수만 쫓아 수험에만 치우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떨어진다.

점수만 집착하면 맞추는 데에만 급급하게 되고, 그래서 실력이 아닌 꼼수에 집착해버린다.

점수는 운의 영향을 받는다. 반면 실력은 악운조차도 이겨내는 것이다.

수험생인 이상 점수에 신경쓰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점수는 어디까지나 실력의 지표로서만 의미가 있다.

각종 모의고사에서 고득점을 거두다가 실전에서 나가리나는 경우는 진정한

실력이 없다는 얘기다.

이걸 그 나이 또래들은 알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실력은 그 사람의 본성과 성격과도 관계있어서이다.

쓸데없이 나이를 먹다보면 인간이라는 게 더 눈에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수학문제를 스스로 풀 때에도 혹은 가르칠 때에도 이것은 사람의 성격과 마음 문제로 귀착되는 걸 알 수 있다.

스킬이나 테크닉을 백번 가르쳐줘보았자 가짜 점수만 늘어난다.

반면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 급한 성격을 어떻게 고쳐야하는지, 초조한 마음을 다 잡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라하면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그 학생의 실력이 차츰 늘어나는 걸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수학공포증이라는 게 사라지는 것도 확인한다.

적어도 인간을 보라 하는 건 탁상공론만은 아니란 얘기다.

숫자는 양면적이다. 객관적으로는 명쾌하지만 주관적으로는 명쾌하지 않다.

숫자는 그대로이되 그 숫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욕망** 혹은 **불안**에 사로잡힌다.

그 욕망과 불안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숫자는 더할나위없는 유용한 도구지만, 그렇지 못 한 사람에게는 악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숫자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오히려 숫자를 보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한 예로 특정직업을 가지면 월 2천을 번다더라는 얘기는 실제로 본인에게는 허구에 불과하더라도 그 욕망에 불을 붙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본질과 가치를 알 수 없게 된다.

극단적으로 말해 성적표를 보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

성적을 모르니 실력을 모른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친구가 어려운 문제와 난해한 텍스트로 집중훈련을 받는다면 그 래도 실력이 안 오른다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성적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소신있게 한길만 쭉 파므로 휘둘리는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현재의 사교육 시스템은 ”총각 놀다가”, ”오빠, 잠시 쉬다 가세용”하는 홍등가처럼 정신없이 번잡하다.

거기에 휘둘리는 수험생들은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정력만 낭비해버린다.

그럼 입시를 떠나서 정말로 미래에 이공계 과목, 특히 수학이 올킬을 하나?

수학 어디에도 마음, 본질, 가치 따위란 없다. 굳이 한가지 건질 게 있으면 ”아름다움”. 그 외에는 정말 찾을 수가 없다.

수학을 잘 한다고 윤리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숨겨진 가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수학이 최고야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마음, 본질, 가치를 읽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셈이다.

우리가 숫자를 보는 건 그걸로 본질을 간접적으로 알기 위해서일 뿐이다.

2.46 [학습공학 040] 눈 먼 자의 숫자 2편

2016.04.21

가령 입결이라는 것에 수능 이전에 신경쓰는 사람들은 '허영심'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어디 가야하는데 몇점 나와야하는가 보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다. 그것만으로는 내 점수를 높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 같이 쓰라는 말이 정답이다.

그런데 이 속담이 먹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승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점수만 해도 그렇다. 그냥 개처럼 공부해서 점수를 높인 뒤에 정승처럼 지원하면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승처럼 공부하고 개같은 인생이 되어버린다.

가장 할 짓 없는 것이 과거의 입결 정보에 집착하는 것이다.

첫째로 중요한 건 미래이지 과거가 아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정보라는 건 그저 과거의 재탕이 아닌가?

둘째로 좋은 대학은 점수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다. 그럼 점수를 높이면 되지 왜 저런 쓰잘데기없는 데 신경을 쓰는가?

모의고사 등급이 1등급 나오느니 만점 나오느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던 사람들이 수능에서 망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냐면 모의고사는 잘 해보았자 시험용 문제이거나 과거의 문제 재탕이어서이다. 이 사람은 과거에만 강한 것이다.

하지만 수능은 꼭 예측하지 못 했던 문제를 낸다. 매년마다 출제 경향은 그렇게 통수를 먹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과거의 정리에 집착한다.

그렇다면 그런 통수에 예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면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수험생이라면 수험사이트에서 미주알고주알 떠드는 건 신경쓰지도 않을 것이다.

그나 시중에서 많이 푸는 문제집들을 모두 구입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교재들을 여러번 돌린 다음 확신이 들 때 모의시험을 쳐볼 것이다.

그리고 오답이 나오면 감사해할 것이다. 그래야 내 단점들을 파악하고 조기에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의고사 문제가 터무니없다고 해도 욕하지 않을 것이다. 터무니없는 문제가 미래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나 난관을 막아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험사이트에서 잘 나간다하는 사람들에게 고개숙이면서 이것저것 캐낸 뒤 쓸모있는 정보만 얻으면 서슴없이 다시 공부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공부의 목표수준은 ”출제자의 심리”를 읽고 ”출제자의 함정”을 파악하는 수준까지 잡을 것이다.

사실 이 정도면 다른 것은 다 필요없다.

그리고 점수도 참조만 하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건

반복되는 오답의 패턴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려하면서
내 성격과 능력에 어떤 문제가 있나 다시 고찰해본다.

모의 잘 나온다 하거나 수험 어찌구 하는 건 그냥 무시할 것이다. 어차피 그들
은 '과거'에만 빠삭한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목숨을 좌우하는 건 평가원이 준비하고 있는 불측의 문제다. 당황하지 않고
그걸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보자, 이만큼 심플한 진단이 있나?

그런데 다수는 이렇게 하지 못 한다. 왜냐면 여기 콕콕러들 다수도 '숫자의
노예'인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나.

숫자는 명쾌하고 합리적이라고만 하지만 앞편에서 말했듯이 그건만이 아니
다.

숫자는 우리의 **욕망과 불안**을 자극한다.

까놓고 말하면 소개팅할 상대의 마음이 착하다 혹은 괜찮은 사람이야... 는
별로 자극을 주지 못 한다.

그러나 키가 얼마마던가 신체사이즈가 어느 정도라거나 한다면 거기에는 현
혹되는 게 인간들이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다수는 시험 점수가 몇점인가 거기에 현혹되지, 실제로
그 점수 이면에 있는 본질적 실력은 관심조차 없다.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다 낮게 나오면 그
책임을 평가원이나 신에게 전가하려 한다.

이 수험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사기꾼들이 있지만 더 흥미로운 건 그 사기꾼들에게 낚이는 학생들이다.

똑같은 시간과 자본이 주어져있는데도 바보짓을 한다. 그러지 말라고 해도 바보짓을 결국 하고야 마는 것이다.

공부만 하더라도 실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지도 않거니와 본인들의 습관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은 숫자 중독자들이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항상 점수나 등급이란 데에 매여사는 것이다.

물론 점수나 등급에 매여살더라도 본인이 매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서 유치원 때부터 쌓인 실력이 있으면 결과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개뿔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별 필요없는 숫자에 현혹되는 건 야동에 빠져사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어느 친구가 수학 5등급이 나온다. 다수가 아, 답이 없군요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그 친구가 빠져서 **3만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고** 해도 답이 없다 이야기할 것인가?

이 때 숫자의 가치는 5등급 || 3만 문제이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런 수긍을 할 수 밖에 없다.

3만문제를 푸다는 것 자체가 고부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서 보면 참 본인 결과는 별 것 없는 사람들이 어느 학원이 좋니

어떤 교재가 괜찮으니 말은 많다.

그러나 그건 말 뿐이다. 정말 중요한 건 별 볼 일 없는 학원이나 쓰레기 교재도 좋으니 직접 학습을 해서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다들 계획은 그럴싸하게 세운다. 그리고 일지를 쓰는 사람으면 돌이켜보면 알 것이다. **초심을 지키기 정말로 힘들다는 것**

예컨대 문제집 A, B, C를 제안하면 그것도 모자라니 더 해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A도 겨우 1회독하는 수준으로 끝낸다.

계획을 세울 때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라는 욕망과 불안감이 '숫자'의 조작을 부추긴 결과 비극이 되어버린 것이다.

실력을 높이고 싶으면 어떤 공부를 하면 되나

그거야 힘들게 공부하면 되지. 양을 슬쩍 늘리거나, 난이도를 높이거나, 공부시간을 더 많이 늘리거나.

다만 고통이 크지만 점차 줄어들면서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47 [학습공학 041] 눈 면 자의 적응과 습관

2016.04.23

모든 다짐, 모든 소망, 모든 결심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거짓말을 해놓았어도 거기에 ”실천”이 따르면 **참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쟁이라는 원죄를 안고 출발합니다

거짓말쟁이에서 탈출하기 위해 실천을 하는 것이지요.

습관이 무서운 건 한번 중단하면 그걸로 거의 사망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공부를 놓은 사람은 다시 돌아가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나이먹는다고 해도 뇌가 특별히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멍청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먹으면 공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건 정확히 말해서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공부를 한번 중단하면 10년치가 그대로 무산되어버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건 세뇌론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인격파괴하는 게 별 게 아닙니다. 시계도 없고 핫빛도 들이지 않는 암실에서 일주일간 재우지 않으면 됩니다. 정신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 아니면 바로 폐인이 된다죠. 수면리듬만 망가져도 컨디션이 망가지는 게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적응의 문제도 있죠. 청소를 하는 건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라는 말이 있죠. 무슨 뻔한 공자님 말씀이냐... 그게 아닙니다. 방을 안 치우는 사람은 끝까지 안 치우게 되는 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평소에 청소를 하지 않고 조금만 어질러진 것이나 먼지가 쌓이는 것도 관대하게 처리하면, 그 돼지우리를 더럽다고 못 느끼게 되어서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시선에서는 더러워보이는 방이 자기 눈에는 더러워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치우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조금만 공부를 안 하더라도 자기가 공부를 덜 했구나 자책하게 되죠. 그러나 공부를 손에 놓게 되면, 나중에는 1시간만 공부한 것도 많이 공부했다고 자뻑해버리는 게 일도 아닙니다. 예,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는 건 상향평준화 뿐만 아니라 하향평준화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이 괜히 너는 수준높은 애들과 놀아라... 하는 게 차별적인 발언만은 아닌 것입니다. 수준높은 사람들과 놀고 수준높은 경험을 하면 그만큼 성장을 하지만, 정반대로 가면 그만큼 쇠퇴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부가 힘들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냉정히 말하면 ”그건 수준이 낮았다”는 인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시기에 지치는 건 당연하고 놀 때는 놀아야하며 힐링할 때는 힐링해야한다고 봅니다. 그건 다수가 평범해서이

지요. 그러나 잘 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도 아깝다고 공부하고 있으며 그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되어서든 평범한 사람들은 이 잘 하는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조금씩 나아가야합니다. 현재의 자기에 만족해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은 간사해도 느슨해지기 좋고, 조금만 느슨해져도 그걸 용인하는 순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번 놓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 이론상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한번 놓은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1등하던 친구가 공부를 손에 놓는 순간 그 자리는 다른 경쟁자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등수는 하락하겠죠. 한번 내리막길에 적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등수가 주욱 내려가더라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게 됩니다. 가장 나은 건 잠시 쉬고 다시 죽어라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통스러운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그러나 멘탈이 그리 강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다독여주는 어른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때는 공부 잘 했는데 지금은 절망적입니다”라는 친구들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공부를 하겠다... 라는 무수한 거짓말을 듣지만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저 자신도 못 믿는데 말이죠.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느낌조차도 소중한 지식이니까 여기 기록합니다만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상태 자체는 참 억만금을 지불하더라도 갖추기 힘든 것입니다. 지금 후회한다면 그런 것이겠죠. 왜 진작에 그 좋은 습관을 버렸을까, 왜 하필 그 나쁜 습관에 물들여졌을까.

그렇게 가면 공부에 휴머니즘 따위는 허용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2.48 [학습공학 042] 후행학습의 필요성

2016.05.02

중학교 수학에서는 두가지는 챙기고 나와야 한다. 하나는 연산능력, 다른 하나는 기하학적 사고. 이 두가지만 제대로 챙기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애로사항이 줄어든다. 연산 능력이 뛰어나면 피로도가 줄어들고 문풀속도가 남보다 2~3 배는 빨라진다.

본인이 연산능력이 부족하다면 패배감이 느껴지더라도 중학교 수학 교재를 빨리 풀고 돌려보는 후행학습을 하는 게 좋다. 계산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그만큼 확보한 시간과 두뇌 메모리로 더 창의적인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학은 창의력이니 논리력이니 이론상 그럴싸한데, 실전에서는 그게 안 먹힌다. 왜냐면 창의력이고 논리력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력과 연산력이 뒷받침되어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테크닉이 아무리 출중해도 체력이 없으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없다. 아무리 스킬을 많이 알아도 연산능력이 젬병이면 답이 없다.

룰 같은 게임을 해본 사람은 속성치(공격력, 방어력, 민첩, 힘, 공격속도 등)의 사소한 차이가 중대한 결과 차이를 가져온다는 걸 알 것이다. 평소에 문제를 잘 풀지만 시험에서만은 저득점이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쉽게 지친다는 것이다. 평소에 잘 뛰던 사람들도 수중에서 뛰라고 하면 느려질 수 밖에 없다. 시험보는 상황이 그렇다 평소에야 한두문제씩 풀고 여유부리니까 문제를 잘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시험시간에는 중압감 속에서 20 문제 이상을 풀어야 한다. 처음 1~5번까지 잘 풀다가 5~10번, 11~20번에서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평소라면 풀 수 있던 것도 못 푸는 경우가 생긴다. 결국 체력부족이다. 이런 경우라면 당분을 적절히 보급해서 두뇌 피로를 줄이고 문풀을 더 많이 해서 연산능력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이런 걸 진단하지 않는 사람들은 역시 엉뚱한 방향으로 노력한다.

연산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면 입시기간을 늘려서라도 초등, 중등 교재를 풀면서 다시 계산력을 잡아놓는 게 정답이다. 고등학교부터 성적 차이가 고착화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고등학교 과정은 '실력'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력을 배양하기 힘들다. 초중학교 때 기본이 잘 다져진 사람은 그걸 평생

가져가지만, 그렇지 못 한 친구는 고등학교 과정만 하기 때문에 영성한 기본으로 버텨내야 한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머리 차이라고 진단할 것이다. 두뇌 차이라는 건 물론 있다. 그러나 두뇌가 뛰어난 사람도 기초가 안 되어있고 그 부실한 기본실력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다. 정말이지 공부를 잘 하지 못 할 것 같은 사람이 두뇌가 훨씬 뛰어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 더 답이 없다. 머리가 좋으면 뭐하나. 기본이 안 되어있고 자존심이 강해서 그 기본을 다시 다지자고 하면 거부해버리는데. 한편 칠뜨기에다가 그냥 어리버리한 학생도 기본이 잘 잡혀있으면 순조롭게 간다. 그래서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더 자신있게 공부하는 피그말리온 효과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주모를 부를 것이다.

2.49 [학습공학 043] 강사 대처법

2016.05.06

어떤 강사가 좋다 나쁘다 순위만 나오지 성격별 대처법에 대해선 나오지 않았다. 강사는 상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다루는 일반적인 테크닉을 학습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기가 듣는 인강이라거나 학원강사라거나 과외교사에 있어서 어떤 스타일인지 확인해보고 아래와 같이 대처하자.

울트라리스크형 강사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 좋아하는 스타일, 결과를 중시하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인강이라면 모를까 만약 학원이나 과외라면 학생들을 노예 부리듯이 할 것이라서 답답할지도 모른다. 다만 이런 형은 책임에 강하고 거짓말을 하지 못 한다. 그러니 학생 개인의 요구사항이나 불만을 거리낌 없이 말하라

원숭이형 강사

인간관계에 원만하고 ~하자라고 추임새에 능하지만 대신 하는 게 없다. 강의가 치밀하지 못 하며 계획을 잘 못 지킨다. 인강 쪽에서는 찾기 힘들다. 물론 OT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기한을 못 지키거나 하는 예외도 없지는 않다. 이런 강사는 관리 잘 해주는 원장을 만난다면 괜찮긴 하지만 아무튼 학생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겠으나 인강에서는 사실 규제할 수 없으므로 그냥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니면 완강된 강의를 듣거나

고양이형 강사

마음이 여리고 조용하다. 나긋나긋하고 여성적이며 상처를 잘 입는다. 이 역시 살아남기 힘든 유형이다. 바꿔 말해 이런 고양이형 강사가 살아남았는 건 실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인강이라면 역시 완강된 걸 듣는 게 좋겠지만 실강이라면 학생들이 이 강사를 격려해나가는 스타일로 가면 시너지가 좋을 것이다.

알파고형 강사

모든 게 완벽에 가까운데 인간미가 없고 거의 로봇이다(이걸 보자마자 대부분 모 강사를 떠올리겠지) 인간미가 없고 살벌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알파고형+독설파들이 인기는 좋다 (주입은 시켜주니까) 이런 강사들에겐 인간성을 기대하지 말자. 이 강사들의 가르치는 방식은 꽤 논리적이므로 이걸 모방해서 적극적으로 베끼면 된다.

목동형 강사

학생들보고 알아서 하라는 케이스이다. 썰을 그럴싸하게 풀며 과제를 별로 내주지 않아 인기는 좋지만 실속이 없을 수도 있다. 인강 쪽으로 들을 때는 초보자들에겐 좋지만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면 안 될 것이고, 실강일 때에는 역시 학생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학생들을 방임하는 스타일이라도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그만큼 해주려고는 한다.

선도부형 강사

융통성이 없이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스타일이다. 사실 가르치는 점에서는 안 좋다. 가르친다는 건 어떤 이치를 설득력있게 설명하는 것이라서리. 이런 스타일은 기숙, 독재학원의 관리자에 더 맞다. 만약 과외라면 피하는 게 좋다. 왜냐면 그런 선도부형에 적응하다보면 바보가 되어버린다.

떠먹여주는 강사

하나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설명하고 만족하려는 강사들로서 자기가 다 가르치면 학생들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시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될 수도 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자기 스스로 과제를 해보아야한다.

성희롱/욕설 강사

최악의 강사 중 하나. 물론 인강에서야 나오지 않지만 실강에서는. 강의실을 작은 사회로 구현하여 온갖 욕설과 성희롱도 한다. 그런데 학생들도 거기에 물들이면서 점차 관념이 무뎌진다는 문제가 있다. 빠져나오는 게 답이다.

카리스마형 강사

최악의 강사 중 하나. 첫째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한다. 둘째로 많은 학생들이 효과를 보지 못 한다. 카리스마는 논리 없이도 상대를 납득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강사의 카리스마로 해당 지식을 주입받지만 자기 걸로 만들진 못 한다. 즉, 사고능력이 정지된다는 것이고 수험상담을 해보면 '이 친구는 사고가 왜 굳었을까'하는 걸 보면 카리스마형 강사를 거친 케이스가 많다.

반사회적 강사

최악의 강사 중 넘버원 수업시간에 하라는 수업은 안 하고 이상한 정치 이념을 주입한다거나 비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는 유형이 있다. 물론 인강에서는 찾기는 힘들다.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강사들이 마녀사냥에 가까운 정도로 얻어맞은 적이 있어서리 그러나 인강을 제외한 실강 쪽에서 찾기 어려운 건 아니다.

행동심리학에서 나온 DiSC 이론.

- D = 주도 경향
- i = 감화 경향
- S = 안정 경향
- C = 신중 경향

자기가 저 중 어느 점에서 부족한가 판단한 다음, 그 부족한 점이 강한 강사 를 찾아 강의를 듣는 편을 권장하고 싶다.

2.50 [학습공학 044] 논리의 해악

2016.05.09

수학에 있어서 논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실제로 논리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시험은 영 험편없는 경우가 많다.

이게 공부를 안 해서인가. 그것은 아니다. 이건 논리적 사고가 **집중과 몰입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공부가 생각대로 안 되는 여러가지 이유 중 핵심적인 것이다.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리야 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아니오”라고 부정하는 습관부터 키우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일단 먼저 부정해보고 왜 부정할 수 밖에 없는지 밀어붙이다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으면 그제서야 긍정하면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긍정하다가 부조리하다고 뒤늦게 깨달고 피해를 한참 본 다음에 아니오라고 ... 하지도 못 하고 양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다. 덜컥 예스라고 했다가 피해를 본 뒤에는 나중에 자존심과 수치심 때문에 그걸 부정 못 하고 속으로 꿩끙 참는 것이다. 한국인이 비논리적인 이유 중 하나다.

이 ’아니오’가 바로 집중과 몰입을 방해한다. 평상시에 수학을 잘 푼다고 정말 논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 성적이 옛같이 나오는 주된 이유라고 본다. 그 친구들은 시험 시간에 시간 부족을 느낄 정도로 정말 느리다. 왜 느리고 하니 문제 푸는 흐름을 타지 못 하며 사소한 데 집착을 한다. 그래서 시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갓이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실적은 사실 형편없는 게 당연하다. (당연히 그 추종자들도 그럴 수 밖에 없다. 그 잘못된 패턴을 당사자도 모르는데 이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말로 답은 잘 구한다. 탐문해보면 그렇게 이르는 과정이 논리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이다. 이미지는 부정확하지만 그 속도나 범위는 좌뇌적 사고 저리가라다. 특정 사실을 떠올리기 위해 10가지 이상의 명제를 조합하는 친구와 이미지 전체상을 동영상으로 떠올리는 친구가 비교가 되겠는가. 물론 그런 친구들은 정말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킬러문제에서는 힘든 경우가 많다.

- 이 이미지 구사력이 좋은 것을 머리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물론 그 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좌뇌적 사고, 우뇌적 사고가 뭔지 모른다 -

비논리적이지만 집중과 몰입이 되는 우뇌적 사고와, 그 집중과 몰입을 깨지 만 논리적인 좌뇌적 사고를 잘 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도대체 이걸 어느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조절해야하느냐는 건 참 힘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예 우뇌적 사고로 밀어붙이면서 그 이미지를 정교화한 사람도 있겠고, 반면 좌뇌적 사고로 밀어붙이되 스피드로 담보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양민의 경우는 이걸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양치기 문풀을 하면서 대략 일정 단계에서부터는 그 패턴을 '논리'와 '이미지' 양쪽으로 스스로 정리해야한다가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사실 이것도 봉뜬 이야기다.

분명한 건 논리적으로 따진다라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란 것이다.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 정말 그렇게 접근해야하는 사안이나 문제에서만 그러는 게 좋다.

시험 합격자들이 회독수를 늘리라는 건 정확히 말해 자기가 보는 텍스트들을 '이미지화'하라는 것과 같다. 실제로 많이 보다보면 페이지 전체가 포토 메모리화되어가는 것을 노리는 것이다.

2.51 [학습공학 045] TOC 이론 - 개괄

2016.05.09

TOC 이론 : 회사의 목표 - ”현재에서 미래에 걸쳐 많은 돈을 버는 것” 이를 수험에 적용하면 ”고득점을 받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TOC 이론의 창립자 골드렛은 회사의 목표로 ”현재에서 미래에 걸쳐 많은 돈을 버는 것”임을 주창했다. 그럼 TOC가 기존의 경영이론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건 시스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조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제약조건은 비유하면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이다. 사슬을 세게 잡아당기면 어디서 끊어질까. 당연히 가장 약한 고리이다. 그 사슬의 운명은 약한 고리에 달려있다.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면 수험생은 어디서 무너질까, 당연히 가장 약한 부분이다.

골드렛이 더 골에서 예시한 건 ’자녀’의 하이킹이다. 주인공 알렉스 로고가 보이스카웃 아이드을 데리고 하이킹을 나간다. 대열 중간쯤에 유난히 걸음이 느린 허비라는 아이가 있는데 허비보다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점점 앞으로 나아가지만 허비 뒤쪽의 아이들을 그 느린 허비를 앞설 수 없어서 속도가 체진다. 이 하이킹의 목적은 아이들 전원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다. 선두 애들이 아무리 빨리 목적지에 도착한들 의미가 없다. 대열 끝의 아이들까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해야 비로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 하이킹 대열이 시스템이라면, 가장 걸음이 느린 허비가 제약조건이다. 즉, 대열 전체는 이 허비의 걸음속도에 지배당한다. 그래서 알렉스 로고는 허비를 맨 앞에 세우고 허비의 걸음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간다.

이걸 수험에 응용해보자. 많은 수험생들이 평균화의 환상에 빠져있다. 만약 국수팀이 1등급이 나오는데 영어가 3등급이 나온다 친다면 국수가 괜찮기 때문에 영어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가 국수팀이 1등급이므로 국영수 모두 1등급인 친구와 맞먹는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어 3등급이 그 수험생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건 TOC 이론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은 그걸 공정하려하지 않는다. 그 문제는 사소할 거야라고 일부러 외면해버리니 결국 ’끌려다니는’ 것이다

제약조건, 즉 보틀넥은 성적만이 아닐 수도 있다. A라는 친구는 글씨를 못 쓰는 것 B라는 친구는 시험장에만 가면 졸아버리는 것 C라는 친구는 계산실수

를 자주하는 것. .. 이런 식으로 각자의 제약조건은 다르다.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 건 이 제약조건을 개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조건을 알고 개선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 제약조건에 신경쓰느라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못 하니까. 하지만 이 제약조건을 제대로 개선하고 나면 그동안의 마이너스 분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2 [학습공학 045-1] TOC 이론 - 실천

2016.05.10

참조 : http://newsplu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09/2012040900662.html

TOC 이론에서는 부분최적화는 무의미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반드시 최적화는 전체로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자기가 수학을 잘 하니까 수학으로 만회하겠다... 라는 건 평균적 사고로는 그럴 듯 하다. 그러나 평균적 사고로는 절대로 가치를 높일 수 없다(평균은 최고치보다 높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 수학을 잘 한다면 수학에 매진할 게 아니라 가장 못 하는 과목에 자원을 할당하는 게 맞다.

제약요인은 특정 과목일 수도 있고, 특정 행위일 수도 있다. 국어와 수학을 둘 다 못 한다라고 해서 잘 보니 비문학 독해가 꽝이고 수학 문제를 대충 읽었기 때문이라면 그 사람의 제약 요인, 즉 보틀넥은 바로 '독해 실력'으로 잡아둬야 한다. 이런 걸 잡아낸다면 자신의 독해 실력을 키우고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는데 생각한 것의 10배 이상의 자원을 투자해야한다. 그걸 잡지 못하면 다른 걸 공부해보았자 실력이 늘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자신의 시험점수와 독해 실력 사이의 연결지점을 보아야 한다. 독해 방법을 달리하거나 습관을 고쳤을 때 점수 상승폭이라거나 시험 스트

레스 등을 스스로 느끼고 체크해본다. 그로써 점수가 조정된다는 걸 확인한다면, 자신의 독해 실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겠지만 공부시간 할당이나 교재 배경에 있어서도 상당한 여유분을 둬서 어떤 식으로든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이하 '버퍼링') 예컨대 비문학 독해에 대해선 어느 교재가 좋냐 따지지 말고 구입할 건 다 구입해두고 보통 1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면 3시간을 할당하면서 타 과목은 문제만 푼다면 그 독해는 오답노트까지 만들어 꼼꼼히 정리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점수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숙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제약요인이 독해실력에서 ”계산능력”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독해실력을 극복하면 그 다음에는 계산이 느리거나 부정확하다라는 것이 그 다음 극복할 약점이 되기 때문이다.

제약요인은 비단 과목이나 행위만이 아니다. 그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일 수도 있고, 휴대폰이나 최유정일 수도 있고, 심지어(...) 콕콕과 콕쳇일 수도 있다. 인정하기 힘든 요인이 알고보니 제약요인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이걸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다. 꼼꼼히 수치화시켜서 그것들을 조절해보면 된다. 가령 콕쳇이 문제라면 로그인 횟수와 채팅 시간을 기록해서 그걸 통제해보는 것이다.

한달 뒤에 치르는 6평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오답분석을 꼼꼼히 해서 무엇이 ’장애’였나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문제가 본 수능에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자기의 제약요인이 끝까지 발목을 잡는다는 건 100% 트루다.

2.53 [학습공학 046] 원리중심적 사고와 목적지향적 사고

2016.05.10

수학문제 풀이에 있어서는 기하냐 대수냐 하는 것은. 더욱 근본적으로 가면 원리중심적 사고냐(일명 데카르트 사고), 아니면 목적지향적 사고냐(일명 드러

커식 사고)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떡밥이다. 이 이야기는 아마 내가 처음 하지 않을까 싶다. 왜냐면 원래 수학 참고서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니까.

원리중심적 사고는 교과서를 중시하는 것이다. 즉 기본 정의와 성질을 철저히 익힌 상태에서, 주어진 문제를 잘 해부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정통파적 방법이다. 개인적으로도 이걸 매우 강조하는 건, 고교수학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문제에서 미적분이라고 나오면 미적분의 정의를 떠올려가면서 문제를 해부해나가며 바로 전진, 다만 꽤 고지식하다.

목적지향적 사고는 출제자의 통수를 치는 방법이다. 이른바 시중에서는 사파로 알려져있다. 이건 꼼수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일본어의 '야리코미'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 유튜브에 올라온 게임 공략을 보면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방법으로 클리어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개발자도 생각 못 한 경우다. 개발자가 생각 못 한 상상을 초월하는 발상으로 개발자가 게임 시나리오에서 내세운 과제를 실현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기존의 꼼수와는 다른 건, 꼼수는 도구에 집착하지만, 이런 목적지향적 사고 - 일명 게임의 야리코미는 도구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직 목적만 바라본다. 다시 말해 문제가 원하는 '답'만 구하면 된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문풀 실마리는 어디서 발견하나? 그거야 당연히 문제의 목적을 읽고 역으로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뭔가 생각해낸다. 고교수학(뿐만 아니라 대학수학에서도)에서 쓸 수 있는 툴은 의외로 한정되어있다. 또한 출제자 마인드라는 것도 생각 이상으로 단순한 경우가 많다. 원리중심적 사고처럼 기본 정의와 성질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원하는 것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나 거꾸로 진행하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목적지향적 사고는 정말로 사파로 보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그런데 별로 탐탁치는 않다. 왜냐면 고교수학은 그냥 데카르트 수학 자체니까 당연히 데카르트적 접근법으로 가는 것, 즉 구식 과목에는 구식 스타일로 접근하는 게 정론이다. 구식에 구식으로 대응한다... 뭔가 불편하다. 다만 출제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수험생들의 백분위를 가른다는 목적에 사로잡혀 있다고 본다면 데카르트적인 사고에만 집착할 이유는 없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목적지향적 사고일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이 분야 책은 다음과 같은 게 있었다.

모 인강강사가 수업시간에 신랄히 비난한 책인데, 사실 저자 스펙으로만 보면 절대 까일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그 강사는 배움이 얕아서 책의 취지를 모르는 것 같다. 이 책은 고교수학을 신랄하게 풍자하면서 고정관념을 벗어나라는 주제다. 데카르트 사고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다. 고교수학을 잘 한다는 애들이 정말로 머리가 좋은가?

절대로 아니다.

머리가 좋은 애들은 모범생이 아니라 악동들이다. 이들은 출제자의 통수를 쳐대면서 더 높은 차원을 지향하지 하라는 말은 듣지 않는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머리 좋은 애들일수록 공부를 못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 왜냐면 이들 입장에서는 공부가 **지루하기 때문**이다. 게임하라고 하면 12시간도 풀파워로 하는 애들이 공부 2시간을 못 하는 게 머리가 나빠서일 것 같나? 두뇌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나? 그냥 지루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내가 수집하고 연구한 책 중에서 발상을 뒤집은 책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위 책도 좋은 예였다(물론 지금 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수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데카르트적 사고 70% + 야리코미 30%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목적지향적 사고는 공교육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고, 이건 본인들이 그렇게 훈련해봐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도 모른다. 집안이 좋고 다양한 경험을 한 친구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게 다름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저런 야리코미를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온갖 문제를 다 풀어본다면, 역으로 목적지향적으로 변태적인

풀이, 변칙적 접근이 가능한가 시도해봄직도 나쁘진 않다. 물론 기본이 철저히 되어있다는 전제하에서는

2.54 [학습공학 047] 랜체스터 법칙

2016.05.22

기온이 1도 상승 → 지구온난화 가속 → 바다에 침식되는 토지들 증가, 심지어 국가 붕괴 → 난민발생 기온이 1도 상승 → 식생의 변화 → 식량 생산에 치명적인 불연속점 발생 → 이하 동문 기온이 1도 상승 → 미생물계의 변화 → 전염병의 변화 → ..

이에 벼금가는 것으로는 환율, 금리, 출산율 등이 있다.

작은 변화로만 알려져있지만 실제로 '합'을 구하면 엄청난 변화인 경우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편성이 없지만 거대한 변화면 주목하고, 보편성이 있지만 작은 변화면 주목하지 않는다.

가령 공부시간이 10분 차이가 나는 게 사소해보이지만 이건 공부시간 뿐만 아니라 삶 전체와 관계된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 공부시간 조절을 정말 사소하게 생각한다. 매일 12시간 공부할 수 있다고 머릿 속으로만 믿는다. 하지만 이걸 실사해보면 매일 꾸준히 12시간 공부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사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장관급도 해먹을 수 있다. (실제로 장관들이 그렇게 공부해온 사람들이 아닌가)

자기가 하루에 몇시간 공부하나, 몇 문제 풀 수 있나, 그리고 오답률은 얼마인가. 이것들을 실사해보는 건 매우 귀찮은 일이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무의미해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들은 그 학생의 실력에 매우 강력한 연계를 갖고 있다. 만약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느다면 그 때부터는 정성적인 것, 즉 학생의 성격, 환경, 트라우마 등을 분석해보아야겠지만. 대부분은

저런 숫자적인 것으로 결정난다.

나무위키의 랜체스터 법칙

<https://namu.wiki/w/%EB%9E%80%EC%B2%B4%EC%8A%A4%ED%84%B0%20%EB%20%EC%95%EC%99%99?from=%EB%9E%80%EC%B2%B4%EC%8A%A4%ED%84%B0%EC%9D%98%20%EB%20%EC%95%EC%99%99>

학습에 있어서는 랜체스터 법칙이 정말 절대적이다. 우리편 6명과 상대편 6명이 싸우면 서로 3명 3명 쓰러지고 비길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편이 12명이고 상대편이 6명이면 우리편 6명은 살아남고 이기는가 하면 그게 아니다. 개략적으로 적으면 $12^2 : 6^2 = 4 : 1$ 의 차이가 난다. 상대편 6명이 쓰러지면 우리는 1.5명이 쓰러진다.

이걸 학습에 적용시키면 공부시간, 문제 숫자 같은 것은 절대 일차함수가 아니란 이야기다. 문제집을 2권 제대로 푼 녀석은 1권 푼 녀석보다 4배 더 잘한다고 계산할 수 있다. 선행을 2년 전에 한 녀석은 사실 8년 앞선다는 얘기다 (시간은 고차원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보통 이 시점에 상담을 청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저 랜체스터 법칙을 생각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노력과 결과가 '정비례'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1년 내에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 수험을 저런 랜체스터 법칙으로 설명하자면 222 등급을 달리는 사람이 의대에 가려면 생각한 물량을 세, 네제곱 시켜야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그렇게 최상위권을 달리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선행은 기본인데다가 엄청난 학습량이 쌓인 상태이다. 이 친구들을 노력으로 이기려면 1차원적인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 시간을 더 많이 잡고 어느 정도 성과로 이어지는 노력과 시행착오를 하면서 정말 장기간 '인내'해야한다.

상술하자면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을 올리기 힘든 이유가 이걸로 설명된다.

중학교까지의 내신은 정말 1차 함수적으로 결정된다. 대부분이 그 때 수험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특목고 가는 라인이 아닌 경우는 보통 문제집 양치기로 가볍게 결정되기도 하고 그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중학교 성적은 나중에 서울대 의대 갈 녀석이건 아니면 콕콕대 갈 녀석이건 똑같이 100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부터는 절대로 아니다. 이 때부터는 적나라하게 평가된다. 대체로 어느 학교건 최상위권을 달리는 애들의 학습수준은 중위권과 비교되지 않는다. 이미 일차함수적 패러다임으로는 접근되지 않는다. 로그적 분석을 해야 차이가 보일 정도다. $\log(\text{학습량})$ 이라고 했을 때 최상위권이 6이고 중위권이 3이라고 상위권이 2배 했다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 밑이 10이라면 1000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

그런데 중학교 수험의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이걸 모른다, 아니 사실 평생동안 모를 수도 있다. 가장 먼저 선빵으로 공부하면서 학습량을 늘리면 그것이 새끼쳐서 계속 불어나서 저런 랜체스터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내신 따서 갈 수 있지 않느냐 내신 망하면 정시 가면 되지 않느냐... 이게 부질없는 게, 그거 따질 때가 대략 고2이다. 그런데 고2 부터는 이미 학습 우위가 양극화 현상을 보여준다. 고2 내신 잘 따는 녀석들은 그걸 이미 중학교 때부터 다 준비해온 놈들이 많으며(물론 학교 수준에 따라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수능 대비하면 된다는 사람들은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안이하게 예상하다가 6월 무더위를 맛보고 나서야 고2 때 끝내야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다.

그럼 루저들은 죽어야한단 말인가.

그냥 꾸준히 공부하면서 공부가 공부를 새끼치는 현상을 기다리는 수 밖에는 없다. 아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인내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레 삼수, 사수(...)하는 것도 보편적이 되어버린다. 왜냐면 혼역으로 가는 녀석들이야 3, 4년 미리 앞서 공부한 녀석들이 있으니까 아래야 공평(?)한 것이다. 자기가 비록 현시창이지만 좋은 대학에 가고싶단 사람들은 자기보다 10년 앞선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잡아야하나 고민해야한다. 당연히 늦게 가야하는 폐널티는 붙는다. 하지만 늦게 가더라도 '달성'만 하면 된다. 그러나 달성률도 낮다. 왜냐면 자기 나이에 자괴감을 느끼고 공부기간이 훨씬 길어야한다는 것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베티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재능이 개화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마법진처럼 발동하기 시작하면 실력이 a_1 인 지수함수처럼 올라가기 시작한다. 바로 그 때를 노리고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사람마다 달리 온다. 당연히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면 더 늦게 온다. 그 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고생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은 단군신화의 모에 타이거가 되어버리고 만다.

2.55 [학습공학 048] 쪽지 퀴즈

2016.05.27

텍스트 :

센수학이나 마풀의 개념 부분 등

방식 :

센과 마풀의 "목차"를 백지에 적음. 그리고 퀴즈라고 소리치고 그 목차 아래에 기억나는 내용을 정확히 적기

Ex)

1. 공간에서 평면의 결정조건 4가지를 적으시오
2. 미분계수의 두가지 표현방식을 적으시오

3. $y = |g(x) - t|$ 의 미분문제에 관한 모든 논점을 적으시오(참고로 이건 마플에 있다)

평하자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학습방법이다(공개하기 싫을 정도)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A4에 손글씨, 아니면 워드로 목차만 기록해놓는다 그 다음 하루가 지난 다음 그 목차 아래에 자기가 기억하는 핵심 내용을 적는다. 그리고 채점해보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하시는 분이 있겠는데 수학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 성질, 공식을 '복기'해가는 과정이다. 그걸 정확히 복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복기를 반복하면 된다. 한데 다들 이상한 교재에 낚여서 자꾸만 쓸데없는 문제를 풀고 있다.

센수학이나 마플 개념 - 그리고 해설에 나온 심화개념이나 문제에 숨어있는 수학적 팩트(신승범식 표현)을 정확히 모르고서 이상한 실모 문제 풀어보았자 수능장가면 아주 정확히 발린다. 그것도 기본 개념조차도 기억 못 하기 때문에

보통은 저런 퀴즈를 내면 처음에 어리둥절한다. 그런데 이거 10문제를 본인이 내고도 본인이 100점도 못 맞는다(나도 그렇다) 책을 읽고 문제를 풀 때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건 '착각'이라는 걸 보여준다. 가능하면 워드로 치는 게 좋다. 이런 퀴즈는 최소 10번은 치고 답을 적어야만 아주 정확해지기 때문이다. 1번만 봐서 안다는 건 그런 머리를 갖고 있을 때나 먹히는 것이다. 우리가 평범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10번은 퀴즈본다, 그 자세로 가야한다.

제3장

실패와 재도전

3.1 실패와 재도전 01

2015.11.13

어제 어디서 오답이 났는가 반드시 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답은 정해져있죠.

1. 아예 건드리지도 못 했다
2. 문제를 잘못 읽거나, 풀이과정에서 실수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건드리지 못 했던 문제는 알고보니 평소에도 못 풀었던 그런 문제들의 집합에 속해있고 문제를 잘못 읽거나 풀이과정 실수한 것도 역시 평소에 하던 그런 것이었다.

일 가능성성이 매우 높단 것입니다. 자, 이걸 파악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걸 극복하고 재도전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갈지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 외에는 시험날 컨디션 관리를 개차반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트라우마가 떠 오른다거나 기타 등이 있지만요)

이런 것들은 평가원이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평가원이 수험자 개개인의 성향까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수험자 개인이 냉정하게 파악하면서 스스로 넘어 서야 하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유감스럽지만 수능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수능이 무섭다고 다른 데 도망가도 따라오는 귀신입니다.

어제의 오답을 정리한 다음 그 틀린 문제, 아리까리한 문제와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기만 해도 내년에는 넘어설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은 여기서 ”아 수능 그만둘까”하면서 실은 놀고 자빠지다가 내년 3월까지 날려드십니다.

무엇보다 점수가 잘 나오건 안 나오건 그건 정확한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영어점수만 해도 자명합니다. 전 영어가 어렵게 나올 거라는 데 있지도 않은 머리털을 걸어댄 사람입니다(...) 근거 : 다들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더란 것 이죠. 그런데 평가원은 통수의 달인 아닙니까. 그리고 다들 공부한다는 게 EBS 연계만 보더라던 것(...) 이렇게 공부하는데 평가원이 어렵게 내면 끝장나겠군이라는 생각이 들립니다. 실제로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 물어보니까 공부한 건.... 그렇게 점수 받아도 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온 사람들은 제가 아는 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케이스입니다(제가 미친 듯이 잔소리하고 욕까지 한 경우가 많죠) 반면 생각보다 안 나온 케이스들 - 즉 제가 관리하는 범주에 들어간 경우(즉 상원)는 - 결국 충고를 안 지키거나 본인이 공부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얘기한 자기의 약점을 못 넘어선 경우입니다.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고득점이든 저득점이든 그건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단 것 이지요. 따라서 ”나는 수능에 안 맞나봐, 이만 포기하고 현실에 ‘수능’할래”라고 하는 것은 호환과 마마에 필적하는 구시대 관습적인 미신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찌릿하자면 작년 11월부터 제가 빨리 공부하라고 했는데도 **아아주 여유있게 2월 3월에야 시동걸다가 6 7월달에야 비로소 공부다운 공부**를 시작해서 올라갈려는 찰나에 컷당한, 즉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아쉬운 결과 거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많을 거예요. 어제 챗방에서 어그로 고신 어느 할아버지 가수 좋아 하던 소녀는 자기가 놀았다고 하지만 이건 기만 짓이죠. 이 분 혼역이어도 점수 잘 나온 이유는 제 입장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 첫째, 이미 올해 초에 제가 권하던 문제집은 거의 다 풀어서 남들보다 반년은 앞서있었다.
- 둘째, 본인이 자기 약점을 잘 극복한 케이스였더라는 것
- 셋째, 남들은 막판에 후달릴 때 본인은 보위 빠질을 하면서 심신안정이 가능했다라는 것.

뒤늦게야 공부시작한 분은 아이고 n수 어떡해하지말고 내년 수능 대비 빨리 하세요. '겪어'보셨을 테니가 이제는 제가 설득할 필요도 없겠죠? 공부 남 위해 서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좋으라 하는 거지.

3.2 실패와 재도전 02 - 노오력 이야기

2015.11.13

노오력노오력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어제 상담하고 탐문하면서 다시 느꼈지만, 그냥 노오력한만큼 나옵니다.

- 첫째, 노오력은 연속함수여야 한다. 그런데 사람은 1분간 열심히 한 걸 1년동안 열심히 한 걸로 착각한다.
- 둘째, 정말 노오력하는 사람들은 자기 노오력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노오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오력을 많이 한다고 착각한다.
- 셋째, 노오력을 포기하는 사람이 끌려갈 건 약장수 아니면 점쟁이들이다.

자기는 노오력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징징댈 시간이 있으면 정말로 많이 공부했는데 왜 안 나왔을까 하는 '치명적인 이유'를 찾겠죠. 왜냐면 그 이유만 찾으면 신발 속 압정을 꺼내듯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시험이 망했더라도 그 이유를 찾으면 다시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험 실패로 인한 손해나 좌절. 이거 도망간다고 극복이 안 됩니다. 시험은 시험으로 이길 수 밖에 없어요. 도망간 곳에 낙원 따위도 없을 뿐더러, 추노꾼들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1번 실패해도 도망가면 그 1번이 죽을 때까지 따라오지만 9번 실패해도 1번 성공하면 그 9번 실패가 자산이 되는 게 시험입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일상의 합리적인 계산과는 차원이 달라요.

아, 물론 노오력은 스칼라가 아닌 벡터입니다. '방향'이 매우 중요하죠. 가령 잘못된 방향 - 예컨대 수학에서 탈패턴화를 하지 못 했다거나, 영어가 쉽게 나올 거라고 근거없이 짐작해 소홀히 했다거나 10월에 막판 정리를 잘 해야하는데 자꾸만 실모나 실모 이벤트에 끌려다녔다거나 하는 것 - 대로 공부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지요.

성공하는 사람은 세가지 특징이 있죠.

1. 남이 뭐라든 노오력한다. 자기가 좋아서 노오력한다.
2. 남의 말을 듣는 척 하고 듣지 않는다. 자기가 꼼꼼히 판단하고 검증한 방침에 따라 '침묵하는 소수'로 행동한다.
3. 실천은 자기 뇌와 심장에 맡긴다. 단지 평소에 '준비'만 철저히 한다.

어제 액상탄마님이 제 입장에서는 매우 감격스럽지만 경악스러운 글을 올리셨죠. **한국에 있는 문제집은 그냥 다 풀었다.** 아주 명쾌한 해답입니다. 수험가지고 장사질하면서 그걸로 폐돈벌고 자랑질하는 천민들의 그럴싸한 방법론 따위는 불태우는 것이죠. 이 분 말대로라면 이래서 사탐은 만점이 나옵니다. 그럼 수학은 왜 그러느냐. 그건 간단하죠 - 수학은 패턴화에서 반드시 탈패턴화를 해야하는데 이 분은 그 단계까지는 못 갔죠.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이 분, 이렇게 공부 안했으면 수학도 그 점수도 안 나옵니다. 본인은 매우 분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자면 ”오우,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네”라고 박수라도 쳐주고 싶죠.

현재는 한탄할 때가 아니죠. 시험 못 보았으니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노오력해서 안 되나봐. 이거 우리들에게 잠재된 **노비 유전자의 발현입니다.** 남들 눈치나 보고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합리화할까 정당화할까 핑계를 댈까하는. 승분는 항상 지는 경우도 없고 항상 이기는 경우도 없습니다. 확실히 쳐야 또 확실히 이기죠. ”나는 수능이 안 맞나봐.” - 이건 패배를 인정하기 싫고 주인이 매질 할까봐 무서운 종놈의 마인드입니다. ”아, 이번에는 졌네. 제기랄.... 으아악....

영어 열심히 공부할 걸.... 내년에 두고보자 다 짓밟아주마”라는 게 고구려 무사의 마인드죠.

그럼 남은 370일은 충분한 기간인가. 아니죠. 저 기간도 모자라죠. 하지만 좀 쉬셔야할 테니 다음 주에는 빨리 시작하셔야겠죠.

3.3 실패와 재도전 03 - 출제경향과 어리석은 다수 이야기

2015.11.13

다수를 따라간다는 건 정답이기도 하고 오답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수를 따라간다는 건 염밀히 말하면 ‘위험회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수로 뭉치면 명백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많죠.

- 전자제품, 식료품 : 이 경우 다수가 소비하면서 겸증해준 케이스

하지만 다수를 따라가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죠. 그건 바로 ’소수’만이 승리하는 경우, 즉 **투자 아니면 시험입니다**. 매년 수능 보시면 알지만 수험생들은 자기들이 ’대비 안 한’ 과목에서 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왜 대비를 안 하느냐. 그 과목은 쉽게 출제될 거라고 믿어서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믿느냐, 여태까지 그렇게 출제되었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말해서랍니다.

자, 제3자로 타자화시켜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이십니까. 이 글 읽는 상당수가 저 케이스죠.

수험사이트에서 뭐라고 지껄이든 - 이 글조차도 - 자기 소신껏 다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정답이었지,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게 출제 경향인데 이건 어렵게 나오고 저건 쉽게 나올 것이다를 믿는게 바보죠. 어제 시험은 **전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 수험사이트 들락나락거리던 (아마 공부도 제대로 안 했을 걸요) 사람들이 뭔 깡으로 물수능 비난하

고 100 100 100 을 외쳤는지 생각하면 어이가 없지 않나요?

인터넷의 단점이 이거죠. 어리석은 데 선동당하거나 세뇌당하기도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정보 A가 있으면 그걸 자기만의 정보라고 착각하기 쉽죠. 컴퓨터는 개인용이니까. 하지만 그걸 수백명 이상이 보았다면 더 이상 필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는 '소수'만 누릴 때 가치가 있죠.

자 본격적으로 비판해볼까요. 실모가 좋다고 얘기를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수만' 누릴 때나 의미가 있죠. 많이 팔리는 실모라면 저라면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모의 문제 퀄이라는 건 평가원의 그것과 거리가 있거나와 특히 해설은 시중교재만도 못 한 경우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다수"가 본다면 그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걸 풀 시간이 있으면 제 단점을 극복했을 것이고 수학의 경우라면 차라리 어떤 발상들이 가능한가 그거 노트정리나 했을 겁니다.

어제도 흔한 고득점 인증을 보면 사일런트 마이너리티더군요. 즉, 침묵하던 소수. 비결에 대한 대답을 보니 '목동'이었습니다, 예, 양치기였단 것이죠. 그럼 수험에 대해 떠들던 수험생들은 어땠나 안 보이던 사람들도 많더군요.

새로울 게 전혀 없는 현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험사이트가 없는 게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3.4 실패와 재도전 04 - 나쁜 공부 야기

2015.11.13

여기서부터는 논란이 되는 이야기이고 아마 이 글 이후로 제가 안 보일 수도 있는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밀한 법칙을 추구하자면 성역은 없어야겠죠.

허혁재님의 오수썰을 겨냥하죠(그 후 아폭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글을 다들 어떻게 감동적으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아무튼 허혁재님은 막판에 역전승을 거두었으니가 저걸로는 해피엔딩이죠 - 그 글에 쓰이는 대로 하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 그 글은 보충과 해명이 필요한 게, 매번마다 왜 본인이 실패했는가에 대한 분석과 반성이 있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 5수해도 되는구나라고만 안일하게 생각하기 좋습니다.

제가 왜 여기 창을 겨누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좋은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배웁니다. 청년기에 술담배 피우고 불건전한 19금에 빠져들고 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나쁜 공부'이죠. 문제는 우리 뇌는 나쁜 공부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이율배반적인 기관입니다. 다른 장기와 달리 '자살'을 명령하는 곳입니다. 다른 장기들은 주인의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뇌는 그렇지 않죠.

오수썰의 문제는 거기서 잘못된 공부습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장 자신도 의식 못 하는 좋지 않은 스타일이 영웅적으로 게시되어있다면 다른 수험생들이 그걸 보고 배울 가능성성이 높죠. 만약 이걸 본인이 잘 거른다면 괜찮겠지만요.

그런데 수험가들의 상품을 보면 제가 아는 한 "SKY 혼역합격"은 별로 없더군요. 꼭 그런 사람이 잘 가르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수험 실패 바이러스"가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 잘못된 관습 중 하나가 10월에 모의고사를 막 풀어대거나 새로운 문제를 도전하는 것 이지요 아마 다른 공무원이나 고시 시험이면 난리날 이야기입니다. 10월은 매일 시험시각에 맞춰 뇌를 컨트롤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 공부한 것을 다 정리하는 시간이지 무슨 실모를 풀어댄다든가 파이널 문제를 도전한다든가 그럴 시기가 아니죠. 그런 걸 하려면 8 9월에 했어야합니다. 그걸 풀고 정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시간이라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수험이란 뇌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입니다. 문제를 풀고 충격먹은 뒤 정리하고 하는 데 족히 1개월 이상은 되어야 자기 것이 됩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건 그것이죠. 저 사람들, 정말 수험이 뭔지 모르는구나. 공무원 수험가 같은 데 보시죠. 거기 강사들이 강의를 언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진모하는지, 그리고 막판에 뭘 시키는지 시험 5~6개월 전에 기본강의 다 끝내고, 2~3개월 전에 진모강의 진행하고, 그리고 1달 전까지 OX 정리하는 식으로 스케줄을 짜놓습니다. 거기 강사들은 물론 오랜 장수생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이 합격생 출신(변호사 포함)이죠. 수험의 대가들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정반대로 수능 수험시장은 그런 수험의 고수들이 와서 힘든판에 말이지요.

무슨 새로운 문제 푼다거나 기발한 발상.... 어제 시험에 그런 게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인수분해해보면 쓰인 것들은 단순한 것들입니다. 물론 일부 과목고수들이 묘기를 보여주죠. 한데 수험생 본인들이 시험장에 써 쓰지도 못 할 묘기라면 그게 소용이 있나요?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제 시간에 풀고 맞는 게 장땡입니다. 노가다 풀이를 하더라도 점수 따는 게 목표죠.

노오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걸 지적하겠습니다. input이 많아도 효율성이 꽝일 수도 있죠. 똑같은 물도 젖소가 마시면 맛있는 우유가 되지만 뱀이 마시면 맹독이 됩니다. 잘못된 시스템에 올라타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성과를 낳긴 커녕 꼬라박는 수가 있어요.

합격하는 사람들은 대개 침묵하는 소수들입니다. 제 수험은 과거 수험이므로 세대 차이가 없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합격기를 분석해보거나, 콕콕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 결론은 간단하더군요.

문제집을 남들보다 많이 풀 것, 남들보다 빨리 많이 공부할 것, 집중할 것만 집중할 것, 제대로 정리할 것

재미없죠? 너무 기본적이죠? 그런데 기본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건 다른 사람들도 재미없죠. 이른바 '업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학생들이 다 저렇게 공부를 해대면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시중교재만 열심히 풀어대고 딴 것 신경쓰지 않고 자기 공부만 해서 성적이 오르면 일학전금의 꿈은 날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뭔가 검증되지 않은 썰을 풀어대죠(그 사람들 스페이 좋은지는 뭐 본인들에게 물어보시죠) 상당수가 그런데 현혹당하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인지부조화를 거쳐서 자기가 대학에 가려는 건지, 수험상품 마니아인지 혼동해버립니다.

그런 상품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나 선택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본 공부도 안 된 친구들이 막판에 공부에 질려서 그런 상품에 돈바치면서 굽신굽신거리고들 있더군요.

1년동안 한 이야기고 어제 시험 결과로 어느 정도 드러난 것도 있으니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성적이 좋았다는 경우는 역시 침묵하는 소수의 양치기파들입니다. 무엇보다 영어가 쉽다는 수험가 이야기나 수험사이트 썰만 듣고 그걸 믿은 사람은 손해를 보았죠.

내년에는 부디 그러지 마시기들 바라겠습니다....니다만 그러지 않을 정도면 진작 공부 잘 하거나 합격했겠지요. 아무튼 저는 부조리한 것을 지적 안 하는 건 비겁하다 여기므로 여기서 통렬히 지적드립니다.

3.5 실패와 재도전 05 - 상식 파괴

2015.11.14

1. 1. 수학 5000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라, **5000문제를 틀리고 오답정리해야** 실력이 늕니다. 실상 강의라는 것도 강사 하는 말대로 받아쓰기이니까 편해서 그렇죠. 그건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틀려보고 왜 틀렸나 분석하고 그걸 넘어서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진화된 동물입니다.

2. 배경지식이 필요없는 건 수학입니다. 국어, 영어만큼 배경지식이 도움되는 과목도 없습니다. 배경지식이 필요없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해야할지. 물리 빠삭한 사람은 국어 A형 더 쉽게 풀었겠죠. 물론 배경지식이 없으면 추론해야겠지만 이 역시 다른 배경지식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1수하시는 분들은 1년 아깝다 또 이런 오만방정 떠실 건데 그럼 1년동안 책 200권을 읽어보세요. 책 읽을 시간이 이 때 빼고 있나요?
3. 좋은 교재 찾다가 좋은 n수 합니다. 안 좋은 교재를 피해가는 건 맞습니다. 안 좋은 교재 피하는 방법? **비닐랩 씌운 것만 피해도** 80%는 다 피합니다. 그리고 수험사이트에서 자주 회자되는 수상쩍은 교재는 그냥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게 적중했던 이야기 듣지도 보지도 못 했음. 서점에서 딱 내용 공개해놓은, 현직 교사들이 쓴 교재들이나 우선 다 푸세요. 그리고 기출 문제집 나오면 기출 2종 이상 반복해 돌리시길. 어차피 교재 추천해 달라는 초보들, 그거 해줘도 소화 못 시킵니다. 또 인터넷 사이트 어슬렁 거리고 있지요
4. n수하는데 돈 나간다 그딴 이야기 하지 말고 EBS 들으세요. EBS 강의 웰이 사설을 능가하는 사례도 있는 판국에 왜 비싼 돈 쓰나요. 강의평 검색해보면 2013년 강의인데 2015년에도 '고맙습니다'라고 후기 올라오는 강의 같은 게 좋은 강의입니다. EBS 강의도 듣지 않고 나 돈 없어 어떻게 공부해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돈없다고 평계대는 것일텐데요
5. 어렵게 공부하세요. 이번 수능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2015 수능 기준으로 공부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영어 쉽게 나올 거라 한 사람들 책임지나요? (저야 영어 쉽게 나오면 머리칼이 자라겠지에 한 표 던진 사람입니다) 수학만 잘 하면 된다, 국어나 영어는 EBS 연계 보면 된다고 한 사람들이나 업자나 그 업자 패거리들이

뭐 하나 책임진 것 보았습니까. 사실 이거 고민할 것도 없음. 그냥 전과목이 어렵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공부하면 되죠

6. 이제 시험은 360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 시험 준비를 내년 3월 오기 전까지 마무리한다고 해야 그나마 성공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가겠지... 가 아니라 그냥 지방대가 300일 걸리면 평범한 사람 기준으로 서울대는 1500일 걸린다 - 이 기간을 어떻게 단축하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즉 원래 4수해서 서울대 간다가 아니라 평범히 공부해서는 4년이 넘게 걸렸던 거다, 이걸 어떻게 줄이는 것이냐로 바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 4 장

교재 이야기

4.1 교재 이야기 ; 숨마쿰셀

2015.11.05

올드 숨마쿰의 장점

1. 상위권
2. 허세
3. 어머니 안 계신 난이도

올드 숨마쿰의 단점

1. 불연속
2. 기초 부족
3. 구하기 어렵다.

제가 아는 숨마쿰은 3가지임

- 7차 교육 이전 숨마쿰 : 올드 숨마쿰
- 7차 교육 과정 숨마쿰(현 고3까지) : 7차 숨마쿰
- 개정 숨마쿰(현 고2부터) : 개정 숨마쿰

개정과정은 약간 안타까운 게 있음. 숨마쿰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게 하위권에게 너무 불친절하다, 그리고 기초 문제가 부족하다여서인가 이런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보는데 그 결과 숨마쿰만의 장점이 희석되어 버렸음.

원래 숨마쿰은 안경 낀 수학남녀가 허세 부리는 용으로 딱 좋음. 이게 비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단히 중요함. 수학 시험의 불안감을 날려주는 게 '나 정말 어려운 문제집 풀었다'라는 허세임. 솔까 요즘 나오는 것 중에선 블랙라벨과

실력 정석 빼고 허세부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음(아니면 사진 속 일본 교재 '붉은색' – 아카차트로 가든가)

저기 숨마쿰 중에서 좌측이 올드, 우측이 7차임 사실 현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7차로도 상위권용 개념은 괜찮다고 생각함. 정석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편이 낫다고 보는 게 있음. 올드 숨마쿰 자체가 과거에 정말 수학을 잘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짜깁기한 경우였음. 문제 난이도는 알보칠 수준임. 7차 숨마쿰은 약간 희석시킨 알보칠 정도인데 서술이 더 쉬워짐. 톡쏘는 맛이 약하긴 하지만 요즘 교재에 비하면 그래도 난이도 있는 편임. 개정은 보다가 필요없다라고 보아서 구매하지 않았음. 왜 그렇게 개정했을지 이해는 가는데 – 고객들은 중하위권이 많으니까 – 이건 뭔가 좀 아깝단 생각도 들고 있음. 과거 교재의 어려운 것만 다 요약해서 별권 발행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음.

개정과정 생까버리고 올드 숨마쿰대로만 팔았어도 잘 팔리지 않았을까 싶음. 수생이 많이 늘었거니와 수험생들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서 고난이도 문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 사실 실모는 붕어빵 아니면 질소과자스러워서 – 4점 3 문제 풀려고 30문제 전부 구입한다는 딜레마 – 상당히 비싸게 구입하는 것임.

저 당시 저자진들이 과거 모 사이트 레전드인 걸로 알고 있음. 이 경우는 인정할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초기에는 서술이 너무 불연속적이고 어렵다라고 보는데 여러번 읽고 느낀 것은 어, 그래도 정말 상위권 허세부릴만하다였음. 교과서 따로 보란 말도 없음, 오히려 교과서상 개념을 자기들이 더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음.

4.2 교재 이야기 : 풍산자썰

2015.11.06

링크

사지 멀쩡한 사람들도 교재 대충 쓰는데 이 저자 분은 불편한 처지에서도 교재를 꽤 잘 쓰는 편이다. 혹자는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다. 저자 처지를 내 세워서 마치 공정무역 커피 맛있다고 빵치듯 광고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 것.

우선 이 교재는 '수포자용'이라고만 오해를 사고 있는데 절대로 아니올시다.

수포자용이라는 건 이 교재가 쉬워서가 아니다. 사실 이 교재의 유제나 연습 문제는 어려운 건 대단히 어렵다. 다만 그 어려운 것이 조잡한 교재의 고난이도 문제나 스킬 요하는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수능에만 적합하다는 이야기다. 허세만을 좋아하는 수험생들은 "어라, 수포자용이라고? 정말 쉽겠네. 그럼 내가 보면 안 되지"라는 프로세스로 움직여서 그런 것이지

이 교재는 중하위권을 배려해서 그렇지, 수학 개념의 독창적인 해석이나 수록 문제는 상위권용이다. 사실 풍산자의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개념 설명은 오히려 키려 문제를 풀 때에 매우 요긴한 것이다. 이 교재로 공부해보신 분은 웬만한 수험수학의 팁 – 다시 말해 수능에 필요한 정도 – 은 다 들어가 있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상위권을 배려(?)하는 교재는 사실 누구라도 쓸 수는 있다. 적당히 짜깁기하면서 문제를 대충 어렵게만 내놓고 해설 무성의하게 쓰고 이거 이해 못 하는 건 네가 공부 안 해서임 ㅋㅋ 이라고 구라까면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교재집필의 고수라면 '중하위권'용 책을 쓴다. 게다가 이 교재의 개념 설명은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올 정도이다.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 웬의 개념 설명이 갤xx이라면 풍산자의 개념 설명은 아xx가 아닐까. 그 이야기는 거꾸로 말해서 개념 설명이 너무 직관적이고 감각적이므로, 논리적으로 엄밀한 부분은 취약할 수 있단 이야기인데 이건 다른 교재로 보충하면 된다.

이 글을 읽는 고1, 고2는 뭔 교재로 재기해야 하나... 하면 이 교재로 틀잡는 걸 권한다. 교재 권장에서 가장 중시하는 건 '부작용'이 있거나 혹은 잘못된 것을 엉터리로 배우는 게 아니냐는 것인데 물론 이 교재도 그런 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한도에서는 발견된 건 없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양 치기를 하기 힘들단 것인데 이건 쎈이나 RPM을 병행하면 된다.

개념의 감각적 해석 – 문학적 비유가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몰라서하는 이야기다.

여기서 다시 교재뒷담화를 하면 나는 기본적으로 교재 저자들이 국어 실력이 없고 문과적 소양이 부족한 경우는 피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고 계산이 빠르고 수식이나 그래프 구사가 뛰어난데도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왜 안 나오는지 아나? 이런 애들, **국어 실력이 꽝이다. 문과적 소양이 없다.**

수학 문제는 수식이나 그래프로만 쓰여진 게 아니다. '한국어'로 쓴 것이다.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가 뭔 의도인가 그걸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독해는 유감스럽지만 수학교재들에서 누락시킨다. 수학교재들은 대체로 수리적인 풀이만 선사하지, 문리적인 해석에 대해선 언급을 피한다. 그래서 이른바 문제집은 많이 풀고 인강은 들었는데 결정적인 데에서 막히는 '괴혈병'에 걸리는 것이다.

이건 잘 나간다는 수학고수들 관찰해보아도 그렇다, 그 친구들의 계산, 발상력은 보통 학생의 3~5배는 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공부가 편중되어서 국어나 문과적 소양이 나가리나버린다. 그래서 문제를 잘못 읽은 채로 자기 확신에 빠져 엉뚱한 데 해매기도 하고, 개념의 논리로 풀면 간단할 것을 자꾸만 화려한 기교와 수식을 연마하다가 맛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과서를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수학을 국어적으로 읽으라고 하는 것이다. 풍산자의 개념 설명이 이 점에서는 (다소 부족할지 모르나) 종합비타민제 역할은 해주고 있다. 수학을 잘 한다는 친구들일수록 이런 점을 경시한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터무니없는 점수를 맞는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평소의 모의나 사설모의, 그리고 시중교재는 패턴화되어있다. 그래서 문제를 대충 읽어도 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능은 교수들이 새롭게 '내는' 것이다. 그래서 출제 방향을 다소 비틀거나 꼳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석을 잘못 하면 나가리나기 딱 좋다. 국어를 무시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몇에 걸려드는 것이다.

4.3 교재 이야기 : 말이 필요없는 증명 셀

2015.11.10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하면서도 유명하지 않은 책이다. 제목 그대로 '그림'으로만 증명을 한다. 단, 난이도는 고교 과정을 훨씬 벗어나는 수준까지 이르며 볼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으며 쉬워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어렵다. 이 책을 처음 접한 건 과거의 해적판(...) - 과학고에서 P.S.S.와 더불어 수입해서 들려보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보면 된다.

수학에 있어서 소위 직관이라 알려진 'Visual Thinking'의 정수를 담은 책.

다만,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보면 되고 수능용으로는 추천하지는 않을지도(올해 수능이 나와보아야 알겠지만) 그건 이 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최근 3년간 수능은 Visual Thinking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가원이 싫어하는 건 캐일리 해밀턴 정리나 로피탈만은 아닌 듯. 상위권이면 순식간에 풀 수 있는 이른바 '직관풀이'라는 걸 더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도형이나 그래프로만은 풀 수 없게, 혹은 풀린다고 착각하면서 오답유도를 하게 하면서 반드시 '식풀이'를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교과도 논리와 식과 언어를 강조한다고 친다면, Visaul Thinking이 탄압받는(?) 시대인 듯.

하지만 그와 별개로 책 자체는 전지구적 명저이므로 수학에 관심있는 사람은 '보길' 바란다. 지능지수 높이기에는 딱. 다만 수능 준비라면 구입하지 말길 (이라고 하지만 공부 안 하고 쇼핑 좋아하는 친구는 또 구입했다가 광광 우렸다가 되겠지)

4.4 교재 이야기 : 교과서썰 1

2015.11.11

교과서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교과서스럽지(?) 않은 사례들이 많다.

사실 이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다. 몇몇 저자나 강사들은 교과서가 중요하다, 교과서스럽게 공부해야 한다라고 한다. 이거 그럴싸한 말이긴 한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강의든 교재든 그래서 교과서스럽냐... 하면 그건 아니었던 말이다. 교과서를 예로 들려면 출판사, 저자 라인, 페이지 등을 명기해야 하지 않나? 수능이 아닌 공무원이나 고시 참고서의 경우는 '참고문헌' 인용을 한다. 그거 집필자가 교과서를 읽고 짜깁기했다는 근거다.

그런데 내가 보았던 어떤 수학교재들은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 교과서 출처를 표시한 것도 아니고
- 그렇다고 교과서 내용 인용하지도 않았으며(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 내용은 내가 아는 한 전혀 교과서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그냥 까고 말하지. 저거, **교과서를 안 보았단 이야기 아닌가**. 그리고 교과서를 강조한다면 나처럼 ”두산, 미래엔, 성지 교과서 같은 것 보세요. 아, 물론 이건 7차 교육과정입니다”라고 하면서 쥐챘이나 하면 그만이지 강의나 책을 팔아먹을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 하기 전에 ”도대체 교과서스럽게 공부한다는 게 무얼 이야기하는 걸까”라는 질문부터 답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우도 냉정히 이걸 추리해야 한다.

1.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건가

2. 교과서 정신(?)을 따라가는 것인가.

즉, 형식적 구분인가, 아니면 의도적 구분인가 이것도 명기해줘야지. 하지만 겉으로 교과서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교과서도 잘 인용 안 하는 책들에서 이런 섬세한(?) 구분을 기대할 리는 만무하고 그냥 내가 정리해보면 당연히 2번이다.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느냐 안 되어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 당국이 강조하는 '실질적인 교과서 수준의 발상'이 중요하단 거지.

만약 수록이 문제라면 전체 출판사 다 검증해보아야하잖아.

하도 수험가에서 저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거금 들여서 교과서 익힘책 7차 과정 – 무슨 고려출판사나 박영사까지도 다 구매해보았다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읽어보고나서 1번을 폐기할 근거를 찾았다.

수학익힘책 기준으로 친다면(설마 익힘책도 교과서가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로피탈도, 케일리 해밀턴도, 그리고 적분에 별 이상한 정리 같은 것들까지도 다 교과서 내용으로 보아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출판사들마다 저자 라인이 다르고, 저자 라인들도 조금씩 강조하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적분과 통계에서 중앙교육에서 낸 책은 몇몇 내용은 시중교재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는 것.

이론 뿐만 아니다. 단원 마무리할 때 나오는 퀴즈나 일화 같은 것들도 내용을 보면 준수리논술급도 있고 소위 교과서스럽다라고 알려진 걸 능가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실증해보면서 한가지는 알았다. 아, 교과서 강조해댄 사람들, 정작 교과서 보지도 않았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바뀐다. 교과서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 (X) 모든 교과서 익힘책들을 다 들여다보면 시중교재를 능가하는 케이스도 있다 (O)

그렇다면 수록은 이제 무의미하다. 교과서에 실렸으니 그게 최고다라는 건 이제 폐기해도 되는 이야기인 것이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교사용 지도서 같은 것만 하더라도 대학교 수학의 내용까지 수록한 걸 본다면 가령 미래엔 지도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안드로메다는 저리 갔다는 걸 보면 형식설은 버려도 되는 것이다. 다시 한마디 : 교과서 강조해대는 사람들 그럼 교과서 제대로 본 것 맞냐? 아니, 뭐 보기라도 했다면 제대로 짜깁기 인용이라도 했겠지.

그럼 그럼 교과서적 정신은 무엇?

교과서에서 다들 안 읽고 넘어가는 : 단원의 취지, 학습목표, 공부하는 방향 같은 guide나 advice를 얘기하는 것이다. 가령 성지의 경우 단원 구성은 (제목) - (학습 목표) - (생각 열기) - (탐구활동) - (이론) - (문제) - (생활 속에서 만나는 수학) 이렇게 되어있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제목, 이론, 문제 - 이걸 참고서로 강화해 푼다. 하지만 학습목표, 생각열기, 탐구활동, 생활 수학 같은 건 참고서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거나 대충 넘어가지 않나. 그런데 이거야말로 사실 교과서의 정신이 아니겠나.

”저게 수능에 도움이 됩니까”

”수능이 무얼 측정하죠”

”사고력이죠”

”이론만 암기하고 문제만 푼다고 사고력이 늡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학습 목표를 알고 공부한 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알아야죠”

교과서에 들어간 이론은 사실 그리 새로운 건 없다. 그러나 저런 ‘목표’, ‘생각 열기’, ‘탐구활동’, ‘생활수학’, ‘쉬어가는 이야기’ 등은 수험과 관계없어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질적인 것이다. 사실 저 가이드라인들이야말로 교과서 정신의 정수가 아니겠나.

그리고 현실에서 교과서스럽게 공부하라는 건 사실 '여집합'의 의미가 있다. 이건 즉, 사교육에서 강조해대는 어떤 꼼수라거나 스킬을 쓰지 말고, **순수한 정의나 이론만 가지고 문제를 풀라 그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2차 곡선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공식부터 쓰지 말고, 2차 곡선 – 포물선, 쌍곡선, 타원의 정의를 떠올리고 어떤 성질이 있었나 연상한 다음 주어진 문제들의 조건을 저 2차 곡선의 성질, 정의 순으로 대응시켜보면서 실마리를 파악하라는 것이지 A 선생이 B한 문제는 C로 풀라고 했지 해햇 ... 어엉 ... 안 풀리잖아... 라는 짓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강의나 책들은 입으로는 교과서를 강조하는데 내용은 전혀 교과서스럽지 않다. 더 놀라운. 아니 놀랄 것도 없는 사실은 이런 모순을 수험생들이 지적하는 것을 못 보았다는 것이다. 하기야 봉어빵에 진짜 봉어가 안 들어갔냐 하는 게 더 어리석은 짓일지도 모른다.. 봉어싸만코야 설탕과 초콜릿맛으로 먹는 것이지 뭘. 그러나 사소한(?) 모순을 저지르거나 그런 걸 지적하지 못하면서 수학을 공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것도 지적 못하면서 무슨 수학문제 하나 어려운 것 풀었다고 좋아하나.

그와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교과서를 다 구입하면서 피눈물(?)을 흘렸지만 지금은 컬렉터로서의 실속없는 자부심(?)이라는 걸 갖게 되었는데 교과서에 실린 이론이나 문제보다는, 앞에서 말한 교과서 정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야말로 저자들의 정성이 들어간 진국임을 맛보게 되어서이다. 특히 나 같은 독서광으로서는 강의보다야 그런 쓰잘데기없는(?) 내용들에서 더 얻는 것들이 많기도 하지만 고교수학이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를 보는 실마리로서 얻은 게 많아서이다.

다 늙은 머리로 퀄러문제를 풀 때 도움되는 것은 사실 저런 것이지, 연구해 본다고 들었던 사설인강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인강은 지금 느끼지만 들을 때는 그럴싸했지만 실제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얄팍했다(이채형 강의만은 예외) 오히려 깊은 사고에 도움이 되는 건 저런 교과서 정신, 일본 책이었다.

시간나는대로 글을 쓰겠지만 – 몇몇은 이런 것도 부풀려서 교재 내서 돈번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참 정신나간 사람들이고 – 수학은 어떤 특정한 스킬이나 패턴을 암기해야만 하는 과목이 아니다. 특정 스킬이나 패턴을 암기하는 과목일수록 오히려 웃돈을 주더라도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다.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학은 '요리'와 비슷한 과목이다.

무턱대고 설탕을 부어대고 조미료 뿌리거나, 인스턴트 요리 가져와서 뜨거운 물 붓는 걸 제대로 된 요리라고 하나? 물론 급하면 그렇게 먹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다수 수험생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수리논술이든 4점짜리 문제든 그건 "자, 여기 신선한 광어 한마리가 있으니 손님을 만족시켜봐"라는 수준으로 내는 것이다. 즉, 단서 몇개만 줘놓고 그걸로 문제의 목적을 달성하라고 하는 '해결과정'을 묻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스킬, 꼼수가 먹히나? 뜨거운 물만 부으면 조리되는 인스턴트 식품만 먹은 애들이 저걸 다룰 수 있겠어?

그런데 그게 공교육과정에 없는 게 아니었던 거지. 바로 '날재료부터 요리하는 것'을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제시해주었으니까.

제 5 장

교재 뒷담화

5.1 교재 뒷담화 : C D E F

2015.11.05

추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엉터리로 추정하는 사례가 없기만을 바란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특정 대상을 언급하기보다도, 책을 이딴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추상화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임. 간혹 이 글 보면서 자기를 썹는 건가하면서 도둑이 제 발 저린 케이스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럴 시간에 공부나 하거나 책이나 고치길.

저번 알파벳은 A, B로 썼음. 그리고 내가 보기엔 그 저자들은 남자가 아니라고 분명 밝혔음. (적어도 악플(?)다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이번에는 C, D, E, F를 논하겠음

C : 서문만 거창한 문제집

이 문제집을 쓰는 사람은 집필을 위해서 일까지 그만두었다고 서문에 밝힘. 나야 컬렉터니까 구입 그런데 저자는 집필 기간동안 놀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 문제 100% 모두 그냥 기출문제다. 그럼 기출문제를 그냥 무단으로 베낀 것이 아닌가. 해설은 그럭저럭 가독성이 있다, 쪔을 잘 읽는 기분이긴 한데, 이 사람 강사라지? 그런데 책은 많이 읽은 것 맞나?

이 케이스는 강사가 함부로 책 써서 돈벌고 싶어서 출판 나선 케이스다. 그런데 강의와 문제를 만드는 건 별개의 문제지. 문제를 만든다라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것도 나중에 쪔 풀겠지만, 문제를 제대로 만드려면 정말 교수급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자작문제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문제 만들 능력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출만 몽땅 베껴넣었다. 그럼 해설은 어떤가?

뭐. 실모들보단 낫다. 이게 뭔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런데 그 해설이 정말

돈주고 살만한 것인지는 의문. 비슷한 값에 10배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마풀에 비하면 그다지 두드러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한권 가격이 참 더럽게 비싸다, 저번에 말했던 B 가성비만 최악이 아니었어. 그나마 B는 짜깁기 내용으로 새로운 걸 접할 수라도 있는데(수능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 이건 뭐 기출 해설 소프트하게 해놓은 주제에 폭리를 받아먹고 있나.

내년에도 설마 나올리는 없겠지. 대형서점 런칭은 어느 정도 했던 모양인데 판매량은 글쎄.

D : 고시 방법론을 응용한 문제집.

서브노트가 좋아보여서 구입한 문제집이다.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가성비 최악. 이 문제집은 저자들 학벌 스펙이 그럴싸하다. 그리고 문제푸는 방법론 – 즉 형식적 측면도 새로운 건 있다. 그런데. 그게 전부다(...) 그리고 그 모든 엑스가 서브노트 한권에 다 있다(...) 다시 말해서 서브노트만 챙기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다.

이 저자들도 C와 비슷한 케이스다. 그런데 C는 저자 한명이기라도 했지, 이 문제집은 저자가 여러명이고 다들 스펙이 좋은데도 모두 기출해설만 했다라는 게 문제다. 그리고 지금 가격 확인해보니까 이것도 가성비 F4에 들 정도네 저자들이 문제 해설 셀만 그럴싸하게 풀지, 자기들도 문제를 만들 능력은 '없다'. 그런데도 서문에서 만들라고 고생했다라고 하는 건 뭘까.

문제푸는 방법론도 사실 냉정히 보면 그다지 새롭지는 않다. 이거 내가 알기론 고시 2차 답안작성 방식 그냥 베껴온 경우다. 수학문제 푸는 방식은 이채형이나 강필 인강을 들어도 좋지만 일본 책들 찾아봐도 잘 나와있다. 아니, 조금 부담되더라도 수리논술 양식을 참조해도 된다.

이거 뭐 책 내용도 없는 거 비싼 종이에다가 칼라풀 인쇄만 했는데 저자들이 뭔 생각이었나 궁금하다. 아무리 보아도 학벌빨만 더럽게 믿고 애들 혼혹해 학원 수입이 많아지니까 욕심이 생겨 출판계로 나아가보자라고 한 모양이다. 책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전에 학생저자들 개념서 함부로 보지 말라고 했지만 '강사' 책도 이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E : 강사가 낸 낚시용 문제집

참고로 이 강사는 꽤 스펙과 실력이 좋다. 그런데 책을 내려면 다 낼 것이지 일부만 내놓고 넬름 도망가버렸다(...) 이건 씹는다기보다는 그 강사의 안목이 참 근시안적이라고 덧하고 싶다. 우선 이 교재는 지수, 로그, 수열에서 나름 접근 스킬이 나쁘지만 않다, 특히 군수열적 풀이에서는 접근이 꽤 명쾌했다고 본다. 그래서 이 교재 후편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그렇다고 이 강사가 그럼 일타로 잘 나가나. 그런 것도 없다. 양 어차피 수명이 있는 것 실전개념서 출판이나 다 해서 출판계 점유율이나 높이지 뭐 했나.... 라는 생각이 듈다. 지금도 일하고 있으려나?

F : 명문대 합격을 핑계로 낸 질소과자

아름부터가 노골적. 이거 학생저자가 낸 책이고 일단 스펙이 후덜덜해서 좋 아보이지만 속지 말자. 수학 전분야를 다 터치하는 것 같은데 알고보면 기출문제 그럴싸하게 만만한 것만 추려내서 해설 적당히 함. 수험론적인 걸 강조는 하는데 그거 어차피 다 아는 내용, 그러니까 챕길 게 '수험생들이 하는 xx'를 추려낸 것. 나머지는 볼 게 없다. 저자 스펙 내세워서 장사질한 사례고 내가 이래서 학생 저자들을 일단 불신하고 보는 것이다. 목차 구성은 나쁘지 않아서 이 녀석 머리는 좋구나 했는데, 이거 결국 설령설령 대충 내용 채워넣었다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여기서 E 빼고 나머지는 도대체 왜 출판했나 하는 생각이. 물론 부분적으로는 챕길 게 없진 않다. C는 말투(...), D는 서브노트, 그리고 F는 목록. 시간 되면 이것만 다 추리고 나머지는 다 버릴 생각이다. 원래는 다 버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 저것들'만' 쓸모가 있다. 그런데 나야 뭐 급박하지 않으니까 저것 빼 먹기만 할 수 있지, 적지않은 거금을 투자해 저것들을 구입한 수험생들 인생은 어찌된 것일까. E는 괜찮다면서 왜 깡냐라고 하는데 후속편 수년간 기다려봐라.

짜증 안 나나. (는 건 뻥이고 후속편 나중에 적당히 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별게 없더라는 함정)

가성비는 뭐. 지금까지 보면 C, D도 만만치 않게 최악이란 느낌이 들면서 그 돈을 모아서 미소녀 화보를 직구했으면 눈보신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위험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있다. 일단 C의 경우는 해설 말투, 그런 것 필요 없고 그냥 EBS 기출강의 들으면 되는 것이고 D의 경우는 수학문제풀이와 관련된 책에 훌륭히 나와있거나와 고시 2차 답안 작성 같은 것 따로 구해보면 된다. 그리고 F의 xx목록은 본인이 직접 일기를 쓰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풀이만 차분히 쓰면 다 해결된다. 그리고 E도 사실, 저 정도 텁은 풍산자에 있다(풍산자는 저자 분이 불편한 현실에서도 책 잘만 쓰시더라)

수학교재 구입하려는 분은 이 글의 추상적인 단점들 보고 구매할 때 신중히 고려하길 바란다. C는 그냥 뭐랄까, 경기 어려운 시절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경우는 내가 보기엔 양 쪽만 풀 줄 알고 자기 공부는 안 하는 도태 케이스인데 D는 .. 강의까지 내가 찾아서 다 확인해보았는데 나도 조심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이 역시 별로 발전은 없다, 그냥 학벌빨로 버티고 있어. F는 이제 책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의미에서 잘 된 일이다. 그런데 이건 양심이 아니라 그냥 저자가 바빠서 도망간 것 같다. 일단 C는 그거 풀다간 같이 한심해져서 서민이 될 판이고 D는 형식이 그럴싸한데 형식만 만들고 나머지 개념과 기출은 양 표절한 수준, 그래서 내가 블랙리스트에 넣었다. F는 뭐.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조심해야 할 판이다. 이런 놈은 사기를 잘 칠 것 같다. 그럼 E는? 소심하지. 실력과 내용이 좋은데 통크게 장사 못 하니까 결국 뜨지 못한다.

그렇다능.

5.2 교재 뒷담화 : G H I J K

2015.11.07

가르치는 사람은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건 두가지 이유임.

- 첫째,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친다.
- 둘째, 배우지 않으면 본인이 교주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첫째까지는 아는데 둘째를 경시하고 그렇게 괴물이 되어가는 사람들을 본다. 가르치면서 선생님 선생님 받들여지고 하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은데, 그게 1년동안 지속되면 안하무인. 그래서인가 강사들이든 저자들이든 인간성 측면에서는.... 언급을 하고싶지 않은 경우라고 정리할 수 있다.

교재 G : 지금은 스산해져버린 온갖 스킬 꼼수의 향연

이 교재는 구하기 어렵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벼릴 생각도 없다. 왜냐하면 스킬 꼼수와 사파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만큼이나 잘 모아놓은 기록도 없기 때문이다. 읽고 정리해보면서 오, 한 때 인기를 끄셨다는 분이 어떻게 독창적으로 해석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인기를 끌었는지 그것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이 저자에게는 나 개인적으로는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단지 이 분이 '인기'에 취해서 이미지 관리나 하다가 발전없이 도태된 것이 아쉬울 뿐이지만.

우선 저 스킬은 재밌게 가르치고 싶은 사람에게는 매우 요긴하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쓸만한 건 있다. 가령 문과 21번 퀄리에서 다항함수 조건 주고 $f(k)=?$ 하는 문제에 쓰일 스킬 같은 것이 다 나와있다. 하지만 그 뿐. 그 외에는 수능에 도움될 건 없다. 이게 상당히 유감스럽다. 끝까지 읽고 정리해보면서 느낀 건 한편으로 매우 감사하다는 것,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파로 가면 진화를 못 하는구나하는 경고였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강의에 너무 충독되지 말란 이유기도 하다)

지금 수학교재 함부로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날고 기어보았자 저 분의 책을 따라가긴 힘들 것이다. 이 책은 노량진 홀로서기에서 구매한 책이다(pdf 파일

따로 복사하려고 커피 마시면서 노가리까다가 재밌어보이기에 구매) 가성비는 좋다고 할 수 있다. 매우 저렴했으니까 – 수십만원 들어야 겨우 몇줄 챙기는 스킬들이 2만원 내외로 수십개는 나와있음. 어떻게 보면 사파 수학으로서 실력자인데 지금은 어디서 뭐하는지 알 수 없다(...) 그냥 은퇴하신 건가. 교주놀이 끌을 보는 기분? 잠깐, 이거 뒷담화 맞긴해?

교재 H : 대학교수들이 쓴 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수학교육과 전공이 아니면 그다지 기대하지 말자, 그냥 경문사 책이나 보거나 일본책을 보는 게 맞다는 것만 얻었다. 이 책은 가격이 꽤 세다(담긴 내용에 비하면). 일단 저자들은 스펙이 상당한 교수님들. 왕년에 나 수학 잘 했어라는 심정으로 쓰신 책인 것 같은데 아뿔사. 기출 실어놓은 게 1990년대 초기 수능 기출. 그거 해설로 매진한 건 좋은데 책 내용 상당수가 그냥 오일러 정리(...) 복소수 개념에 대한 회전변환 같은 거야 괜찮게 적긴 했는데 교수님들, 이거 요즘 수능과 무관하다고욧. 스킬이 안 실린 건 아닌데 그 스킬들이 사실 별 소용이 없는 것들(...) 어떻게 된 게 저기 G만도 못 하냐(사회적 스펙은 더 좋구만) 이건 뭐 똥뱃살 더럭더럭 찐 왕년 권투선수가 이종격투기 게임에 나와 상대도 경로우대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교수라고 무조거 믿으면 안 된다라는 선례를 남겨주었다. 수험용이 아닌 그냥 심심풀이 책이면 괜찮지만, 수험용으로 보았다면 그 학생은 +1 확정.

교재 I : 패턴정리 잘 되어있다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영~

이 사람은 학별도 괜찮고 아예 이 분야에서 가르친다라고 해서 구매. 이거 일다 문과용인데 – 뭐랄까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저자는 방송에 등장한 걸 보니 선량한 사람이고 게다가 이 분야만 적극적으로 판 경우이긴 한데 아무래도 강의만 하다보니까 책은 그냥 실망스럽게 만들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 문과 수학인데 문제에 대해서 '패턴적인 접근'만 하고 있다, 결국 탈패턴까지는 못 가고 있다. 다시 말해 ~하게 풀어야 한다라고만 기술하고 있지, 왜 그런 풀이가 나오나, 그리고 수학적 정의에서 어떻게 그런 자명함이 나오느냐

없다. 게다가 문과수학인데 편미분은 왜 동원했느냐 도대체(...) 수학 외 다른 자전적인 얘기까지 쓰고 그건 감동스럽긴 한데. 결국 뭐야, 발전이 없잖아(...)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 사람은 깔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 분야 세계를 보면 정말 '신사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냥 아무 것도 아닌데 대충 올라가서 수험생들에게 위세떠는 천민들이 있고, 자기들이 원래 공부를 잘 했기 때문에 중하위권을 배려하는 신사들이 있다. 적어도 이 저자는 신사이다. 다른 건 몰라도 힘든 사람들을 위해 상담해주고 선량한 마음으로 소박하게 일하면서 교육 본연에 충실한 건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람, 무엇보다 교재 추천 목록이 나랑 거의 흡사하다. 비슷한 교육코스다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G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책의 스킬은 감사. 이건 내가 따로 연구 해보아서 콕콕에서 공개할 수도 있음. 다만 G로 공부하면 수학을 제대로 공부 했다... 라고 하긴 힘들다는 점에서는 문제인 책이다. 실력자들이 보면 읽을 수 있지만. H는 대학교 수학은 고교 입시수학과 다르다는 반례로서 충분치 않나 싶다. 그리고 사실 본고사 세대가 '암기수학'을 했다는 반증임.

I는 맨 앞에 쓴 그 교주가 되지 않길 바란다. 자전적 기록이나 고발서를 보면 이 사람 꽤 괜찮다 느낌도 있지만 안 타락한다라는 보장도 없지. 이 사람도 2d에 취향이 있다면 내가 적극옹호하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 뭔소리하는거지 내가?

...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섭하지

J : 교주놀이의 대가

이 책도 지금 벼려야할 것 같아서 보고 있다. 이 경우도 신랄하게 까야할 것 같다.

- 첫째, 저자가 내가 보기엔 공부를 안 한다
- 둘째, 교재가 제목이든 내용이든 자가당착이다(교과서를 강조하긴 하는데

해설은 why가 없지 이상한 패턴 위주냐. 이런 책들 꽤 있네?)

- 셋째, 실으라는 문제는 기출 대충 짜깁기로 실어놓고 북한에서 수령님 찬양하는 듯한 글들은 곳곳에 박혀있냐?

이 역시 가성비는 시궁창. 아, 이걸 내가 왜 샀지 -- 저자 스펙은 글쎄, 내 입장에서는 뭐 아래놓고 자랑질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있다. 그나마 위의 G는 저자가 스킬 정리라도 했고, H는 교수답게 양 수험과 무관한 신선놀음 볼만했고, I는 착하기라도 하지. 그나마 스킬이라는 것도 사실 스킬이라고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양 그렇게 풀어라 하고 적혀있다 -- 그렇다고 수학 전 범위를 포괄하나, 이것도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설명 필요한 대목은 다른 책을 참조하라고 버젓이 적혀있다. 그냥 기출 중심으로만 해설 그럴싸하게 해놓고 양 마무리. 그런데 설명이든 해설이든 참 말투가 '교주'스럽다.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게, 개념 엉터리로 인용한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이게 왜 그런가보니까 교과서나 기본문헌을 제대로 인용한 게 아니다. 아무래도 어디 강의 베껴서 대충 적은 티이다. 강의 중에서 교과서 개념 부정확하게 인용하는 것만 골라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딱 적은 모양인데(...). 이렇게 잘못된 지식은 전파된다. 수학사랑에서 나온 박교식씨의 수학용어사전 같은 것도 안 보았나. 용어도 부정확하게 쓰고 있고 '야매용어'를 야매라고 언급도 안 하고 적었다.

두가지가 미스테리하다. 일단 이 책이 왜 잘 팔렸지? 그리고, 이걸 내가 왜 샀지(...) 이것도 구매하면 10만원은 넘어가는데 -- 어떻게 보면 나도 사기당한 셈인 것 아닌가 해서 지금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져오기 시작한다. 열람본을 보고 문장의 거시기함을 직감했을 때 그 때 구매하지 말았어야하는데.

아마 다른 책들을 안 보고 이 책을 보았다면(뭐 그럴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난 아무래도 중대한 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 수학책인지 아니 주체사상 경전인지 헷갈릴 정도의 책이다 -- 저자 소개부터 머릿말부터 중간중간

자뻑이 아무래도 '수령님 쓰시는 축지법~'이라는 노래가 딱 BGM으로 적절하거든 -- 시장을 믿을 수 밖에.

K : 아재 xx 서요?

이 책은 마이너하다. 대충 고중숙 스타일의 교양서를 꿈꾼 듯 하다(고중숙씨가 쓴 책은 이과 학생이면 꼭 읽을만하다) 그런데 이 아재께서는 xx 서는지 안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펙만 보면 최고대학 대빵이신데.... 다른 건 모르겠고 미분과 극한에서 뭔가 썰을 장황하게 푸신다. 뭐 이건 재밌게 나도 공부를 했는데 - 중간부터 갑자기 xxxxx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신림동에서 가끔 플랫카드 걸리는 유사과학 세미나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문제(...) 이거 아재 치고는 참 귀여우시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공계가 생각보다 사이비 종교에 낚이거나 괴상한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떠올리고 있다.

그래도 중간에 미적분에 관한 그럴싸한 썰은 읽을만해서 보는데.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겠다. 유사종교 경전도 자주 읽다보면 정들어서 빠지거든(...) 그래도 이 아재는 J보단 낫다. J는 척 보아도 사기꾼인데 이 아재는 사회스펙상 돈욕심낼 처지는 아니고 정말 순수한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지금 J와 K를 동시에 버릴까, 아니면 J만 불살라버릴까 고민 중. J를 그냥 유포시키는 건 대한민국 학생들 IQ를 떨어뜨려 국력의 저하를 꾀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인다 말야. K는 그래도 논리라도 분명하지, 종교적인 메시지가 강해서 문제지만(...).

+ 그래도 다시 한번.... 이라고 훑었지만 J는 참 구제불능이다. 얘는 대놓고 돈만 벌려고 책썼네. 그것도 강사 여러명이 협조해서 써도 힘든 판인데 뭔 깡으로 대충 쓰면서 주체사상을 피력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이 사람도 참 멘탈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것 같다. 스펙 보니 이해가 가긴 하다. 확실히 I와 대조적이다.

++ 내 이야기는 아니고(...) 과고 출신들은 참 선량하다는 게 문제. 이게 웃

긴 게 과고 출신들은 수학, 과학 같은 걸로 사람들 계몽해야한다 그런 실속없는 선민의식(?)이 있어서 손해보고 있고 비과고출신들은 장사질해먹으려 하면서 실속 챙기고 있다.

5.3 교재 뒷담화 : L M N

2015.11.08

우물 밖을 나가보지 못 한 개구리는 우물이 우주인 줄 안다. 동전 밖에 만져보지 못 한 아이는 아빠가 500원 내와, 1000원 줄께라고 하면 500원을 꽉 쥐고 잽싸게 도망간다.

한 때 동양적인 것에 대해서 비결에 대한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다. 동양에는 뭔가 숨겨진 것이 있을꺼야... 그렇게 도사들은 밥벌이를 하였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검증된 건 없었다.

태권도가 고구려 무술이라고 믿는 바보는 없을 것이며 역시검도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는 바보는 없을 것... 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속는 사람은 끝까지 속게 되어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싸한 말에 속아넘어가는 것이다.

비급이 사라진 자리 : 대용량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 있는 메모리.

L : 배운 사람 눈에는 시큰둥, 안 배운 사람에게는 비급

신비주의 마케팅으로 나온 케이스다. (입시수학을 공부 안 한 사람)에게는 그럴싸해보이는 책이다. 왜냐면 패턴화, 유형화시켰는데 분량이 적어보여서다. 반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책이고 이게 어째서 비급으로 취급되나 의아스럽다. 하지만 우리는 대놓고 말을 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 태권도와 검도가 실제로는 일본 무술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하면 맞아죽기 밖에 더

있겠나. 어찌보면 싸구려 마케팅과 과장광고에 속아넘어가는 수험생들이 죄다, 이건 누굴 탓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비급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대조해보았는데 풍산자와 비슷? 쎈과 일품 조합에는 그냥 캡도 되지도 않았다

일부러 어렵게 꼬아낸 문제를 낸다 → 그걸로 애들을 공포감에 빠뜨린다 → 이 교재를 보면 해결할 수 있어. 그럼 그 교재로 일본 본고사 문제 같은 것을 풀 수 있을까. 전혀 아니올시다. 역대 수능 문제가 그럼 저런 식으로 어렵게 꼬아냈나. 올해까지도 어떻게 낼지 봐야 알겠지만, 꼬아내는 것과 새롭게 내는 건 다르다.

그 말많던 2014 기하 문제. 이거 제대로 예측하거나 풀이방법 제시한 강의나 교재가 시험 전에 있었던가. 작년 2015년 30번 문제만 하더라도 고1 수학 – 짹홀 발상에다가 2×2 매트릭스 사고법이었는데 이거 작년에 얘기했었던가. 난 무턱대고 까지는 않는다. 정말 제대로 적중시키고 좋은 방법론을 제기한다면 칭찬할 것이다. 하지만 2년째 그런 사례, 내가 아는 한 단 한번도 없었다. 사실 있다고 한다면 그 강사나 교재는 광고없이도 대박났을 것이다.

M : 책은 매우 좋았으나

뒷담화 대상은 아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지금도 활발히 활동했으면 아마 콕콕 이상은 아니었을까 싶다. 책을 쓰는 법도 알고 있고, 무엇보다 돈보다도 수학을 좋아하는 인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았다. 과거 책을 지금도 양 출판하면 되는데도, 공포마케팅으로 가도 되는데도, 이 사람은 그리 하지 않았다는 게 신뢰의 근거다.

일단 A형 수학에 있어서 가장 직관적인 접근법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하겠다. 다만 꼼수는 꼼수다, 엄밀한 정의에 기초하기보다는, '감각'적인 풀이로만 간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 점만 명심한다면 매우 좋은 보충서가 될 것이다. 다만 이 책을 연구해보다가 다시 쎈, 풍산자를 보고 다른 교양서를 공부하고 나서 느낀 건, 이 책의 스킬이 그리 약빨이 좋은 것만은 아니란 것이다. 학생 저자의 한계점이 지적된 경우다.

하지만 과거 책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 사람의 실력만큼은 대단히 좋다. 간헐적으로 이 사람이 올리는 기출 풀이 같은 것을 보면 요즘 수험가에서 떠도는 떠들썩한 것은 다 알고 있고, 관능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것부터가 다음 책을 기약할만하다고 본다. 사실 이 사람의 신간을 개인적으로는 매우 고대하고 있다.

이 사람은 돈버는 걸 포기하는 대신 제대로 수학을 배우기 위하여 학업코스로 갔다. 정말로 현명한 선택이다. 그저 인기에 휘말려서 대충 책 내면서 결국 돈벌이의 마수에 빠져서 짚은 시절을 날리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그렇다. 나중에 콕콕에서 이 사람의 책을 리뷰할 수 있길 바란다.

N : 명문이공계를 졸업했다고 해도 그 당시 수학과 지금의 수학은 다른데

이 책은 단행본이다. 제목은 참 거창하다. 중딩 버전까지 나왔다. 만화 xxx 트를 원용한 건 뭔가 손발이 오글거리는데 수학과 관련된 어설픈 썸, 연애 스토리 도입은 뭐란 말인가. 수포자가 어떻게 해서 수학을 공부하게 되는가 하는 식의 접근은 나쁘지는 않은데, 이미 이 분야 선구자는 일본의 '수학걸'이 있다. 게다가 책값이나 두께에 비하면 담긴 내용은 보잘 것 없다.

도대체 이 저자들은 뭔 생각으로 그런 책을 썼을까... 전형적으로 자기들이 이과의 명문대를 갔으니 자기들이 수학을 잘 한다라는 포부 때문일 거다. 하지만 본인이 수학을 잘 하는 것과, 정말 입시에 도움이 되는 수학 썰을 푸는 건 정말 다른 문제다. 실제로 학원이나 과외 쪽에서 가장 잘 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수학과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가르친다는 건 소통이지, 일방적으로 푸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책이 그런 경우다. 저자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것이다.

얄궂지만 같은 제목의 다른 책은 매우 좋다. 다만 그 다른 책의 저자는 스펙만 보면 정말 지狎대란 소리를 들을 정도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치성향도 너무 노골적. 하지만 수학적 사고에 있어서는 그 다른 책의 저자에서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우물 안 두꺼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끈임없이 배울 수 밖에 없다. 왜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머리가 돌이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직접 겪으며 탐구. 교훈은 그거더라 학교에서는 매일이 사실 새롭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학년도 올라가고 시험도 치르고 진도를 강제로 나간다. 변화를 강제당하니 뇌가 자극을 받고 그러므로 머리를 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면 대체로 반복적인 일상과 업무에 갇힌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니 그런 변화없는 삶에 순응해버리면서 머리는 점차 둔해진다.

그나저나 이 단계까지 가니까 결국 모른다... 라고 다들 그러시는데 그래야 당연하지만 생각보다 교재풀이라는 게 좁다. 아마 학생들은 누군가 마케팅한 교재가 정말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공부하겠지.

진정한 비급이라면 다음 주 목요일에 나올 문제가 들어있어야하지 않나.

5.4 교재 뒷담화 : O P Q

2015.11.10

우리나라에서 수학 대중서들도 역시 마케팅의 힘으로 팔린다.

김용운 교수님의 ”재미있는 수학여행”이 표준일 것 – 이 시리즈는 좋다 : 단 김용운 교수님이 과거에 썼던게 더 좋다. 왜 이런 건 복간을 안 하는 걸까.

그런데 그 이후로 나오는 교양서들은 저 재미있는 수학여행을 못 벗어나고 있고 사실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왜 잘 팔리는 걸까.

학부모들의 무지이다.

자기 자식들이 수학을 잘 하길 바라는 어머니들은 수험을 잘 모른다 그래

서 수학에 도움되는 책이라고 알려지면 무조건 구입을 하는 것이다. 이 시장이 생각 외로 크기 때문에, ”수학을 잘 할 수 있다”라는 표제만 달고 그럴싸하게 내용만 채우면 팔린다.

O : 범죄뉴스 인용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최근에 관악 성추행으로 검색해보시면 된다. 빙산의 일각. 강 셀 나온 김에 조심스레 적어볼까? 이제야 정의가 구현되는구나... 가 아니라 ‘에게해’를 조망하는 기분이다. 대다수 의식있는 학생들이 왜 대학원 진학을 기피하는가, 그리고 전공보다도 교수님들의 인성과 성격을 따지나 그 이유란 게 있다. 꼭 말은 안 하겠지만 장년교수 – 20대 여대생의 I.얼레리꼴레리.YOU는 쉬쉬해서 그렇지 원래부터 있었다.

더 듣고 싶겠지만 여기서 끊고(댓글로도 묻지 마슈. 그리고 난 기사만 찾아보라고 했수다) 일단 책만 보자면 내용이 역시 에게해 2탄이다. 그리고 저 사건이 터진 후 헌책방에 10권 이상 늘어선 그랜드 캐년까지 목격했다. 출판보다는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책일수록 책 표지에 저자 사진을 크게 싣는다 (그것도 미소짓는 걸로) 뭐 그건 모르겠고 내용만 좋으면 되잖아 하는데 입시 수학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것이 쓸모가 있느냐하면 그건 아니다.

셀 나온 김에 적으면 대학교부터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런 건 없다. 고교까지 사교육은 그냥 돈만 쟁기지 그래도 웬만한 경우는 지킬 건 다 지킨다. 퇴출이 그만큼 빠른 시장이어서이다. 것보다도 한낱 과외교사조차도 공부해야하기 때문에 딴 걸 신경쓸 여유는 별로 없다(막장사례가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대학 진학 이후는 캠퍼스의 가면을 쓴 사회 현실이다.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대학생은 보호받지 못 한다. ’개인 책임’으로 산다. 하지만 대학이기 때문에 은연 중의 갑을 관계라는 건 존재한다.

상상도 못 하는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쉬쉬하는 경우는 많다. 그건 명문대일 수록 심하다. 그 사건이 노출되면 피해자도 많은 걸 잊는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남자들은 그것을 믿고 뒷을 판다.

이전에 적었지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교주놀이 하다가 더 막 가는 거, 이거 정말로 심하다. 사회에서 까이는 게 크리스천이던가. 한데 개인적 경험으로는 크리스천들이 차라리 이 점에서는 나았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신앙심으로 살기 때문에 굽힐 줄 알고, 굽힐 줄 아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도덕이란 게 있는 거다. 반면 신 쪽까하면서 자연과학과 합리주의로 모든 게 설명된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주가 되고 막 간다.

P : 다작

뒷담화 대상은 아닐지도 수학교양서 어디든지 올라와 계시더라. 그런데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볼 수준인데 신기한 게 정말 어디든 이름이 올라와 있다. 좋게 말하면 열정적인데.... 중요한 건 이 분의 대표작이라는 게 있나 보면 사실 기대한 수준만큼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다작하는 사람도 없고 정열적이라는 점에서는 높이 쳐줘야하지 않을까. 그게 실제 현재 입시수학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학의 대중화에서는 확실히 기여하는 게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운 건 그 본인만의 개성이라는 게 부족하다가 되겠음.

Q : 사실 쓸모가 없는 직관수학

한 때 휙쓸었던 책이다. 그리고 추천사나 스펙 등을 보면 으리으리하다. 그 직업인 분이 수학에 관한 책을 쓴 경우는 거의 없을 걸? 그런데 이 분, 원래 가르치는 일을 했었다. P와 달리 이 분은 개성이 있다. 철저히 직관수학을 강조하고 있어서이다. 최근에 냈었던 그 책보다 훨씬 10년도 넘은 옛날에 '직관수학'에 관한 책을 낸 적이 있고 당시는 혁명적인지라 인상깊게 읽었다. 그래서 직관수학이라는 걸 나도 추종한 적이 있는데.

직관수학의 단점 :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머리만 좋으면 된다고? 멍하니

보면 된다고?

만약 직관수학으로 가능하다면 뭐하러 사람들이 식을 만들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랬겠냐. 그런 결로 가능하다면 수학이란 학문이 필요없었을지도 모른다. 수학적인 사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려고 만든 학문이 수학이다, 속칭 말해서 '머리 나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수학이 아닌가.

밥 로스의 참 쉽죠~ 급. 물론 나쁜 책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이걸 고교생들이 보았다하면 써먹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은 저자 분이 더 상세히 분석하고 해설하면서 한 여러권의 시리즈를 만들어서 난이도를 낮추고 정식교재화하면 대박났을 것이다. 한 때 잘 팔렸으니까 안 본 사람은 없겠지만, 끝까지 읽은 애들이 몇이나 있을 것이며, 읽었다고 해도 그걸로 도움이 되었을까.

사실 위 중 어느 것도 고교생에게는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본다. 굳이 수학적 사고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접하고 싶다면 아래 책들을 읽길 바란다.

현직 교사가 고교생의 눈높이를 잘 헤아린 책이다. 입시에는 당장 상관관계가 없어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교수학의 접근법에 대한 '수학 철학'으로서 이만한 입문서는 없고 사실 그 이상도 필요하지 않다(그 이상 필요하다면 문제접근방법이겠지만 이건 차후에 논할 듯) 어째서 ~ 한 풀이가 나오느냐, 그리고 ~ 한 접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하기 위한 철학적인 교양을 쉽게 설명해놓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쉽다. 그리고 요점은 웬만큼 다 담아놓았다.

그렇다고 저기서 스킬이나 무슨 수험 꼼수 기대하진 말길. 하지만 제대로 읽고나면 '수학적으로 사고한다'의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건 보장한다.

5.5 교재 뒷담화 : R

2015.11.19

진짜를 보지 못 한 사람들은 가짜에 환호하고 그 가짜에 환호하는 우매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는 게 참즐거움이 아닐까 싶다.

일단 R의 저자는 - 현재 e-book으로 밖에 못 구하지만 - 그리스 기하학과 현대 수학에 관한 꽤 탁월한 수필(?)을 냈다. 고교수학의 차원에서 뭔가 서양수학의 정신(?)이라는 걸 알고싶다면 꽤 읽어볼만한 책이다. 무엇보다 국내저자가 저런 책을 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놀랍다.

그런데 저건 수험서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양타령해요? 아니 뭣 책인지는 아나 그런데 R은 매우 탁월한 책이다. 이 책은 일본책을 누를 수 있는 마스터피스임. 그런데 저기 목록에는 안 올라갔더라는 것. 정말 저자나 일부 구매자 아니면 알 수 없는 꿈 속의 책이 되어버렸다. 물론 나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라고 얌냠거리고 있는데 누구든 소개해줄 생각은 없다. 궁금한 사람은 저 저자분과 개인적 연락을 해서 구해보시든지(그렇다고 개인적 연락을 해서 구했다는 건 아니니까) 아니 e-book은 있을지 모르지만 뭐 알아서 찾아보시도록

일본 책과 다른 것 - 일본 책은 마치 독일인들처럼 정교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사실적이다. 그런데 도통한 맛은 없다. 반면 R은 세세한 지엽적인 건 빠져 있는데, 문풀 방법을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도통한 경지를 적어놓았다. 앞의 두 책을 쓴 것도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여서일건데, 이 정도면 현직교사는 가볍게 넘어서는 내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수학에서 어떻게 잘못된 방법론을 가르치는지도 세세히 적어놓은 건 현직 교사도 못 하는 거지.

아마 저자가 출판사 선택을 잘 하면서 이 책에다가 현재 기출 퀄리문제만 잘 융합시켰어도 그냥 컨셉만 잘 잡은 병신같은 책들을 누르고 잘 팔리지 않았을 까도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건 공유되어보았자 나도 재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머리칼 갯수만큼이나 비밀로 처리. 뭐 찾을 사람은 찾겠지, 정말 적당

하만 헌트 던져도 다 찾더라.

제 6 장

일지 가이드

6.1 [일지 가이드 160108] 가이드 제시

2016.01.08

2월말까지

- 국어

- 최소 : 최근 3년치 기출 문제를 풀거나 강의만은 들어놓으실 것
- 평균 : 화작문 문제집 한권은 제대로 돌려서 오답정리할 것

- 수학

- 최소 : 풍산자 등을 모두 다 풀 것
- 평균 : 쎈 또는 마플까지 다 풀 것

- 영어

- 최소 : 국어에 준함
- 평균 : 문법서, 구문서 한권을 제대로 빼거나 그에 준하는 강의 하나 완강, 영어어휘집 돌리고 있을 것

- 탐구

- 최소 : 수능개념 강의 과목마다 돌릴 것
- 평균 : 기출 다 분석해볼 것, 그리고 개념서 한권 돌릴 것

이것만 2월말까지 다 한다면 그 다음 일주일간 놀러갔다 오셔도 됩니다. 11월에 시험치고 나서 공부할 땐 저 정도야 하겠지... 라고 망상을 품는데 사실은 4월되어어서도 못 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일단 평균치는 해야 승산이 있고, 최소는 해야 '인간'대접은 받습니다. 막말 하자면 남학생들은 최소 못 하면 그냥 군대 가시고 (군필자라면 빡센 삶의 현장 찍으시거나) 여학생들은 그냥 연애-결혼 코스 가는 게 어떻냐고 권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국영수팀 중에 2개 정도는 평균, 2개 정도는 최소 유지 정도가 낫겠죠. 그리고 돈이 많은데(!) 공부가 안 된다하면 '오프라인' 사설학원, 학생수준 높은 데 가십시오.

아마 여기 와서 일지 쓰는 분들이면 어느 수험사이트건 다 돌아다니면서 글 읽겠지만 결론은 결국 ”양치기”라는 건 확인했을 겁니다. 양치기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 중에 양치기 안 한 사람은 없다는 것. 일지들을 쭉 보면서 늘 확인하지만 본인이 '교재나 강의 고를 때 목표한 학습량'과 실제 학습량은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선택장애 겪지 말고 2월말까지 '최소'는 다 끝내주고 인간대접받으시길 바랍니다.

6.2 [일지 가이드 160110] 강의

2016.01.10

사설 들으실 분은 가도 좋은데 효과야 딱히.

- 국어

기출강의만 빠른 배속으로 돌려들어보는 것 권하겠음. 선생들이야 뭐 다 한가닥하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어느 선생을 듣느냐가 아니라 A 선생은 ~하게 보고, B 선생은 %하게 보는 구나... 라는 차이를 본인이 발견하는 것임. 국어는 정답을 찾으려는 태도 때문에 말아먹음. 국어 과목의 특징상 정답이란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에서는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죠. 왜 정답이 존재할 수 없어서 C도 답이 되고 D도 답이

되는가, 그런데 왜 시험에서는 C만 인정해주느냐 라는 논리프로세스를 익혀야 합니다. 이럴려면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차이를 봐야하는 것이죠.

정답을 찾는 태도보다도, 왜 오답이 정답보다 더 타당한가라고 소피스트적으로 억지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뭔 소리야, 오답이 타당하다고 하면 국어점수가 나올리 없잖아. 자기가 억지주장을 하기 때문에 왜 그게 억지인지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 수학

나는 풍산자도 뭐도 모르겠다하면 그냥 EBS 수능개념강의만 따라가는 것도 권하겠음. 그런데 이거 90강에 육박하니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3강은 들어야 한달만에 따라잡을 뻘, 그리고 수능기출강의까지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으음. 사실 이 정도도 안 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자기 인생이 운이 안 좋아서 꼬였다 혀소리나 하고 있지. 아랫 글에서 적었지만 수학점수 잘 나오니 어찌니 하면서 결국 상술로 연결시키는 그런데 속지말고 남들이 뭐라 비웃든 개무시하고 풍산자(쎈)-마플로 가거나, 아니면 수능개념-기출강의라도 꼬박 따라가세요. 실제로 EBS 수학강의 다 따라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따라간 사람이 깔 리도 없고) 게다가 올해는 3,4점 코스까지 마련할 모양이니

- 영어

윤연주, 윤장환은 믿고 들어보는 강의라고 생각. 개념강의 목록 보아도 넘 치기만 하지 부족하진 않음. 저게 마음에 안 들면 작년강의 찾아 들어도 좋고. 그런데 영어는 결국 보편지문 같은 걸 많이 읽고 양놈들 사고방식을 제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죠. 빙칸추론 안 되는 건 간단, 한국인의 정서와

양놈 논리가 불일치하는데 우리 정서대로 풀면 오답 나오기 딱 좋죠. 역시 이것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임.

- 탐구

말이 필요없음. 그냥 개념-기출강의 따라가면 그만. 다만 시중교재로도 답이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사설 들어야할 건디 그런 건 대충 3, 4월 이후로 다른 사람들 평가 들어보면서 좋은 것만 골라듣길 바라고 그 이전 까지는 둔 강의 및 교재과 양치기 문풀로. 물론 화생방 훈련이나 화투질, 무두질로 가시는 분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일단 위의 것들은 자기가 정말 xx 과목에 뭐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만 따라가면 됩니다. 둔 수능개념, 기출강의 우습게 보지말고 쭉 따라간 다음에도 개판이면 저 욕해도 상관없습니당. 괜히 xxx 강의 들어야한답시고 웹질이나 하면서 3월까지 놀다가 그 때부터 코스프레해서 n+1이나 하지 마시고요

그럼 저것들을 다 들으면 뭐하나. 3월부터 EBS의 논술강의 들으시면 됩니당. 수능과 관계없잖아? 아뇨. 논술강의는 반드시 도움이 됩니당. 시중에 쓸데없는 내용만 담고 비싼 야매교재 같은 거 찾지말고 EBS 강의나 충실히 들으세요. 그래도 모자라면 그 때 가서 사설강의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프리패스 혹해서 인생 저당잡히지 말고요.

6.3 [일지 가이드 160111] 수학 개념 증명해보기

2016.01.11

풍산자, 쎈, 마플, 일품, 라벨에는 문제에 쓰여야하는 정의, 성질, 공식, 팁 등이 나와있다.

- 풍산자 – 감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설명
- 쎈 – 정말 필요한 것만 알뜰하게 적어둠(처음에는 왜 이렇게 빠진 게 많아 하겠지만 나중에 내공늘면 알 것)
- 마풀 – 수능에 쓰일 수 있는 수준으로 응용, 심화시켜놓음
- 일품, 라벨 – 고난도 풀이를 위한 수준으로 정제해놓음

그런데 저기 빠진 것들이 바로 '증명'임. 쎈 기준으로 가자면 개념 설명의 공식들은 증명되어있지 않은 것들이 많음.

2월말까지 최소공부량 달성하시면 본인들이 보신 책의 개념 설명에 빠진 증명들을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교과서, 다른 참고서, 인강을 통해 얻은 걸 가필해보시길 바람. 특정 단원의 특정 공식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걸 복기해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문풀실력이 늘어남. 예컨대 확률과 통계에서 중복조합 공식, 자연수 분할 공식, 집합 분할 공식의 경우는 – 수식적 설명, – 국어적 설명이 양쪽 모두 가능한데 이것들을 찾아보고 채워넣는 게 중요함. (특히 확률과 통계는 해당 공식이 왜 나왔는지 생각 안 하고 풀면 '산수'가 되어버림. 그 공식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분명 복기할 줄 알아야 함) 중복조합은 작대기를 이용한 증명이라거나 아니면 $a+b+c=k$ 와 같은 증명으로도 족하고 자연수 분할 등도 이에 준함.

수학이 양이 많은데 왜 이리 내공을 들여야하냐, 강 빨리 풀면 안 되냐 뭘 과정 쓰고 그러냐 할지 모르지만 이게 국어, 영어, 탐구 문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푸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얼마나 '정확한 논리를 정교하게 구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일러드리고 싶음. 자기가 보았던 참고서에 나온 개념은 강도에게 포박당한 상태에서도 줄줄 암송할 줄 알아야 하며 모든 공식이 다 어떻게 유도되는지 그 전제, 조건, 과정, 맥락도 술술 풀어댈 줄 알아야함, 수리적 사고력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임.

그럼 이걸 진작하지 왜 양치기를 하고 하느냐.... 저런 증명은 어느 정도 패턴화가 되어있지 않으면 받아쓰기만 하더라도 당장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임. 선문풀하고 후증명해보고 나서야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나 반성해볼 수도 있으며 잽싸게 교정이 가능함. 그러면서 논리라는 걸 세울 수 있음.

본인이 논리가 잡히면 그 다음부터 고난도 문제에 스스로 부딪쳐서 '자기 논리로 문제를 해부해보는' 것을 경험해보시면 됩니다. 이걸 직접 해보아야 실력이 늘지, 다른 것 해보았자 절대 안 늘어요. 이걸 늦어도 5월부터는 해야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웬만한 양치기는 5월 이전에 끝내놓아야 함. 6평부터는 소위 퀄러문제에 대해서 본인들도 풀고 토론해보고 그래야만 안 무서워하지 안 그러면 시험 끝날 때까지 꿀교재니(그런 게 어딨어), 특정 강사 강의 들어야하니 그러는 겁니다.

6.4 [일지 가이드] 30번 쓰신 분들 이상

2016.01.12

일지 게시판에 쓴 게 지워져서리 여기 올립니다. 어차피 들어와서 공부할 회원들은 다 모인 것 같아서.

가칭 '하원' 게시판은

- 칼럼 작성한 콕창
- 일지를 쓰는 학생(30번 이상)

에게 권한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지를 쓰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현재 공개 일지를 쓰셔도 좋 은데 핵심은 올해 시험 대비하는 분들끼리 - 상위권 허세 신경쓰지 말고 - 서로

조언해주면서 친목질하며 수험을 영위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지 피드백은 '일주일에 한번씩 합산'해서 올린 것을 보고 드림. 작년은 매일 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더군요.

수험사이트들이 지나치게 상위권 명문대 의대 간다에 치우쳐있는데 그런 건 별로 관심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로 허세 피우는 건 정말 싫어해서리. 어차피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 각자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성과 거두고 자기 인생 펴나갈 수 있나 그런 것이 취지죠. 작년과 달리 수험고수 (...)들도 많아졌고 조언 줄 사람들도 늘어났으니 사이트에 기여하고 자기도 고수가 되겠다(라지만 붙는 게 좋겠죠) 고 마음 먹으시면 일지 꾸준히 쓰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건 정보보다는 '안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게 부족했으니.

조건은 어찌되었든 일지에 하루에 1번꼴로 30회씩 올렸느냐는 것이고 내용상 허위거나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공부했느냐하는 것입니다. 가칭 하원은 대신 어그로를 끌거나 공부에 방해주거나 하면 자격박탈도 꽤 쉽다는 것이 제약조건으로 불겠네요.

+

덧붙이면 수험정보는 어느 정도 비공개성이 필요하다일 건데 뭐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죠.

6.5 [일지 가이드 160116] 지금 공부가 되고 있는 증거

2016.01.16

우울하다 힘들다 공부하기 싫다

라고 하는데 꾸준히 교재는 풀고 있으면 지금 이건 정말 공부를 하고 있단 증거임(가을에 겪으실 걸 지금 미리 겪고 있음) 반면 공부가 너무 잘 된다거나 아무 생각 없다면 좀 의심을 해보아야할 듯.

공부를 하다가 우울해지는 건 아래 얘기한 '역금단증상' 때문입니다. 원래 뇌는 공부하기 싫어한다 → 공부 상태가 지속된다 → 뇌에서 공부를 안 하기 위해 우울한 상태에 빠진다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2월 첫째주까지만 달리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주는 어차피 '설날'이 있어서 공부 하라고 해도 못 할 각이죠.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질문을 때리거나 인강, 과외를 이용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의문은 "탐구"나 "반복"으로 해결됩니다. 생소한 지식체계에 자신의 뇌를 적응시켜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힘들더라도 규칙적으로 반복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복하다가 뇌에서 적응하는 순간 저절로 이해가 되는 유례카 순간이 오면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쌓여왔던 의문이 거의 다 풀리기도 하는지라.

아 그리고 총회자격부여되신 분들은 상단 안전구역에서 총회에 나오는 '안식처' 게시판 그리고 기록실에 나오는 총회일지를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안식처 게시판은 칼럼이나 일지를 일정량 이상 쓰신 분들께서 자유게시판처럼 이용하면서 부담없이 글을 쓰시면 되겠고(수질관리합니다) 현재 일지가 노출되는 게 거북하다 하실 분들도 많으니 그런 분들은 총회일지를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7 장

etc

7.1 일격 레이드 들어갑니다.

2015.08.12

링크

제 팔은 절대 안으로 굽지 않습니다. 콕콕에서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야 거침없이 할 말을 합니다. 저런다고 일격이 나쁘다라고는 안 하겠지만, '아쉬운' 것은 당연히 지적하는 거죠. 그래야 내년에 더 좋아질테니까요. 제작자분들이 단기적인 이익에만 눈이 멀었다고 보진 않아서요(불행하지만 그런 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좋은 교재를 만들고 싶으시면 하나하나 다 개선해나가셔야합니다.

불모지 템에 보면 교재 사냥터와 교재 레이드가 만들어졌지요. 교재 사냥터에서는 마치 저평가 기업 고르듯 각자가 보는 소박한 교재 올리고 평가해보고 다른 사람들 반응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일격 레이드 등을 그대로 연동해서 따라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사이트들을 가보면 지나친 과장이나 혹은 까내리기가 상업적인 목적 하에 자행되고 있던데 그딴 건 당연히 할 리는 없죠. 그냥 차분하게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고, 광고가 안 되었는데 괜찮은 건 평가해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0회차 – 즉 포장지 뜯고 해설지 훑어보면서 개선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건 만든 분들에게 꽤 엄하게 지적드리는 데, 저건 제작과정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개선가능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12회차까지 레이드 가면서 이제 개인 가격을 매기겠습니다만, 저것 때문에 우선 -10000원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손발이 사라진 건 다행(...)입니다. 뭐 그게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일은 1회차 A, B형 간략 리뷰 올라가고 레이드 참여자들(현재 상원 국한)에 대한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레이드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

도 비슷하게 연동해서 가시거나 아니면 뜻맞는 분들끼리 진도 빼서 가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일격에 대해서는 – 제가 제작자는 아닙니다만 – 쓴 소리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 死만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

아, 물건너갔다.

7.2 공부법 책은 사실 거의.

2015.08.14

소위 공부하는 법 가르쳐줄께... 하는 케이스는 99% 장사치입니다. 그런 건 돈받고 파는 건 아니죠. 그러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검증해야하지 않나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공부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 고시합격자 집단의 수기 읽어보면 새로운 것 그런 것 없어요. 결국 얼마나 시간낭비 줄이고 많이 (반복해서) 보느냐입니다.

일본의 공부법은 그나마 낫습니다만 이것도 별 것 없습니다. 일본의 한 미모 (?) 변호사가 7번 읽기법 낸 거. 그걸로 끝입니다. 이것말고 다른 공부법 책들도 많습니다만 사실 무쓸모이죠. 뇌의 생리를 고려한다든가 더 효율적인 자료 정리한다든가.. 뭐 쓸모 없지 않은데 효율은 낫습니다. 그런데 이건 ”옆에서 잔소리해주고 빠파로 갈겨주는 사람” 미만잡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 전자파를 차단할 것, 컴으로부터 격리된 시간 가질 것 - 자기가 약속을 어기면 고통을 입도록 시스템 짜놓을 것 - 책상과 의자에 투자할 것

이런 게 중요하겠죠. 공부법 책 사들 돈이 있으면 독서실을 끊든가, 컴퓨터 없는 방에서 쓸 수 있는 넓은 목재 table 사는 게 낫습니다. 사실 컴 얘기 나와서 그립니다만 다 필요없고 컴과 맷폰만 멀리해도 성적 올라간다는 게 불편한 진리죠.

돌아다니다보면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걸 봅니다. 수년 전부터 주욱 보였지만요.

7.3 실모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 다시 적습니다만.

2015.08.14

일격 1회 A,B형을 풀고 최대한 틀려보려고 하면서(어디서 실수할 것인가) 리뷰하고 해설 비교하면서 느낀 건데.

그 저자 분들의 생각과 달리 기존의 제 입장 – ”야매교재 보지 말고 검증된 것 가지고 철저히 보아라”하는 것 이 주장 고수해도 되겠네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모 보는 건 그냥 자살행위입니다. 문제가 좋네 안 좋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하나를 틀리더라도 그걸 정리하면서 깨닫고 실력을 키우고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실모를 보아야하는 건데

뭔가 본말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되어버렸죠.

일전에 키배(?) 비슷하게 뜨면서 야매교재 옹호파(?)에서 그럼 일타, 일격은 왜 말이 없냐라고 하기에 그렇게 입으로만 나대는 케이스 경멸하는 차원도 있어서 지금 일격 하나씩 시간 들여가면서 리뷰합니다만. 1회차만 봐도 느껴지는데 전혀 제 생각은 바뀔 게 없을 것 같네요. 리뷰다는 것도 그렇자면 철저히 야매 스러움을 벗어나고 품질강화하라는 조언입니다. 만약 판매량에만 신경쓰고 (이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 것을 아시겠죠) 자기가 스타라고 착각한다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딱인 걸 무슨) 그거 불행한 일이지요.

실모는 정 보려면 하나만 제대로 보시길요. 전 오히려 A, B형 1회 리뷰하는 것도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 판매량 가지고 자랑하는 케이스 있던데 그건 사실 한심한 겁니다. 독자들이 평가해야지 업자가 그러는 건 웃긴 것임.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마 여기도 예외는 아닐 것인데. 광고 차원이라면 모르겠고 출판사가 그러는 것까진 이해는 가는데 저자가 그러는 건 정말 쪽팔린 겁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해설에 공들이세요.

+ 작년 말부터 시비 거시던 분들은 정작 하나라도 뭔가 기여한 건 없다는 것 재차 확인. 실천 안 하는 사람은 경멸하지 말입니다. 익계건도 그렇고 야매교재 논쟁도 그렇지만, 어설프게 시비는 걸지 자기가 상처입을 걸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은 대놓고 경멸하지 말입니다.

+ 일격까로 읽힐지도 모르겠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까의 입장에서 지금 검토하고 문제삼을 건 다 삼아 지적하자 그 입장입니다. 1회차만 보면 문제는 퀄리에 한해서 컨셉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컨셉이 괜찮은 게 다는 아니고,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는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지요. 그런데 해설은 더 손봐야할 건 있어요.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무리입니다. 최종 마무리가 약간 부족하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제가 쓰는 보고서가 약간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차원에서 보자면 보면 볼수록 괜찮다...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 건 아예 가격을 주관적으로 산정해 넣었고 근거를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점수 안 나왔다고 좌절하시지 마시고, 약재 고아먹듯 문제 자체를 계속 여러번 풀고 생각해보세요.

+ 이것도 얘기해야겠는데 야매교재 논쟁 중 하나가 쎈수학으로 부족하다,

실모가 최고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도무지 근거가(...) 그 분들 쎈수학이라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쪽으로 확신이 듭니다. 실모도 실모 장점이 있겠지만 내용이나 회독수 상승시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선 쎈수학, 정석 등을 따라잡을 게 없어요.

+ 더 공포스러운 게 실모 판매량이 증가한다.... 뭐 다 좋은데 판매량이 많다는 건 '기본적인 공부도 안 한 친구들이 실모를 본다' 그 이야기인데. 이거 업자들이야 그렇다 치고 소비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가는지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웹에서 문제 좋다 하는 것에 혹해서 자기 상황 모르고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 한편 쎈 등의 시중교재, EBS 본 사람에게는 일격 실모는 도움이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보여요 다만 그 겹치지 않는 부분은 시중교재와 EBS 등을 충실히 했을 때 그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게 함정이지만요.

7.4 국어는 강답이 없습니다.

2015.08.19

링크

간만에 칼럼에 좋은 글이 올라와서 토론하다 느낀 것이죠.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일단 적으면 수학 실모는 만들기 쉬운 편입니다. 왜냐면 참조할만한 소스가 꽤 많고, 더군다나 조금만 꼬아내도 오류가 생길 일이 별로 없어요. (당사자가 실력이 거품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국어는 그게 아니죠. 잘 내더라도 오답 시비의 가능성성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어는 화작문을 제외한다면 절대 정답이 하나만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게 국어란 과목의 본질이기 때문.

그래서 국어는

- 사설인강, EBS인강
- EBS 문풀이나 실모
- 기출

그 어느 것도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애매한 걸 굳이 억지로 얘기한다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국어적 사고”라는 게 있긴 하겠고 그게 기출을 통해서 키워지기는 하는데 한계가 많죠.

간혹 수험사이트들 돌면 국어 실모나 문제가 얼마나 개판이냐... 라는 지적을 봅니다만 그거야말로 오만한다고 봅니다. 그거 제작자나 그런 사람들 제가 알리는 없으니 옹호해주는 건 아니고(그렇다고 구입하란 얘기도 아니지만) 수학 실모가 난립하는 반면 국어나 영어는 별로 없거나 '변형'이라는 이름으로 짜깁기 가는 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만들기 어려우니까 말입니다(다만 만들기 어렵다면 만들지 말든가, 제대로 만들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동안 국어는 평가원에서도 꽤 난이도를 자제한 편이긴 한데 작년 시험 기점으로 수학 뿐만 아니라 국어도 ~하게 출제하면 된다라는 것을 눈치깼다고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되죠. 수학은 즉 쉽게 내면서도 나름 변별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 - 쉽게 내는 게 추세긴 하지만 - 을 알아챈 것 같고 국어도 역시 어떻게 하면 오답시비 안 내면서 수준있게 낼 수 있는지도 파악한 것 같더군요. 여기 쓰긴 그렇습니다만 그런 정황은 역시 일본 쪽 입시문제에서 발견된 것이긴 한지라.

지금 고3이면 모르겠고 고2라면 요즘 독학용 교재도 많이 나왔으니까 이과라고 하더라도 인문논술의 사고법 정도는 익혀두시는 게 좋지 않나가 지금으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일 겁니다. 비문학, 문학 독해는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 속으로 미니논술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식의 문제풀이로 갈 가능성성이 높습니다. 영어의 빈칸추론이 이미 그런 수준이지만요.

+ 상관없어보이는(?) 인문학 질문이 나와서 그러는데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 인문학자들이 해게모니를 잡고 있던 국가나 사회는 부유해졌다”

소크라테스야 왕따당해서 사실상 살해당했고 플라톤은 군주 한명 과외제자로 잘 가르쳐보려다 배신당했고(그러기보다도 라톤이 형은 덕후였잖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가 무려 알렉산드로스여서 요새로 치면 마케도니아 스터디 원장으로 잘 나갔다가 물수능, 아니 외지인 추방정책으로 물 더럽게 먹었죠

애시당초 인문학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었다면 옛날 국가들이 삽질을 겪지는 않았겠고 경제학이 나타날 이유도 없었겠죠. 조선왕조 500년이 왜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았는지만 봐도 좋습니다.

+ 수학 교육의 의의는 저런 인문학의 '광기'를 막아주기 위한 브레이크라고 해도 사실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아마 수학을 가르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국어' 공부만 하면서 또 이 지옥불 반도는 21세기 예송논쟁이나 하겠고... 가 아니라 문돌이 어르신들이 쓸데없는 것 가지고 답없는 논쟁 하는 것 보면 끝이죠.

7.5 공부 못 하는 애와 잘 하는 애의 결정적인 차이.

2015.09.02

하위권이 중위권으로 올라서거나 중위권이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상위권이 최상위권이 되는 과정은 태권도의 다리찢기와 비슷한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가령 중위권이 하루에 푸는 문제량이 ‘100개라고 하자 그런데 하위권 애들은

공부하겠어요... 하지만 80개 정도를 일주일 정도 지속하면 짜증을 내거나 그만 두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중위권 애들을 얹기로 상위권 코스에 맞춰 150문제에다가 킬러 10문항을 풀게 하자 머릿 속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서 공부를 거부하려 한다

'말은 잘 하는 사람'은 신용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학생들의 신용수준은 개차반이다. 공부를 잘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만 공부하는 상태를 만들어놓으면 그 유지를 하지 못한다.

공부를 잘 한다라는 건 단지 좋은 인강과 교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걸 소화할 수 있도록 학습량이 늘어야 하고, 그 학습량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릇을 바꿔야 한다. 그 점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성격'이고, 그렇다면 공부를 잘 한다라는 건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아마 학생 개개인들은 그걸 알기 힘들 것이고 사실 관심도 없겠지만, 여러 사람들을 – 최소 5명 이상 경험하다보면 교재도 스킬도 강의도 아닌 '성격'(그리고 그걸 좌우하는 집안환경과 유전)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이상과 달리 현실은 "그 자식은 그렇게 망할 수 밖에 없어"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도 그런 것이다. 그 점에서 보자면 인강이나 대형학원 강의는 준비할 게 많다 해도 편한 것이 있다. 강의를 듣던 말던 학생들의 성격에 신경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 공부를 못 하는 애들이 머리가 나쁘고 철학이 없나 짤방대로이다. 머리가 좋은 케이스가 많고(오히려 좋으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문제) 개똥철학은 정말 많아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용돈을 쓰면서 개똥철학을 논하는 케이스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없고 자유가 없는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 정당화를 한다. 유감스럽지만 수험은 '자유를 포기하고 의미 같은 걸 추구하지 말아야' 성공한다는 진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 점에서 보자면 중2병적인 것을 촉진하는 일종의 인문학적인 개똥철학이나 소설작품 등의 해악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각자 자아를 찾아라, 의

미를 갈구하라,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라... 감동적이긴 한데 사실 '생산-소비'의 틀로 본다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정말 자아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뭘 자유롭게 '생산'해서 그걸 '소비'와 '투자'로 연계시킬 수 있느냐 따져야지 그런 게 되어있지 않은 이상은 순전 말뿐인 개똥철학은 뇌내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일찌 철이 듣다는 것도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수험판에서는 고득점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갑절 이상의 학습량을 유지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그 '장애'를 넘어서는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야하는 것이다. 50문제 풀면 공부하기 싫어지고 다 때려치우고 싶어하는 근성, 조금만 공부하다가 바로 인터넷 접속하거나 딴짓하는 습관. 중하위권들은 이런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서 좋은 교재와 강의만 찾는다.

그럼 사설강의는 어떤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든 '달콤'하다. 실제로 강의를 듣고 공부가 재밌어졌다하는 것은 인정할 측면이 있진나 반면 위험한 것도 있다. 인기있는 강의란, 실력을 높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들을 때 피로감이 덜 하고 재미있는 강의'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런 강의가 재밌는 이유는, 특정 단원의 특정 내용을 공부할 때 반드시 거쳐야하는 '어려운 과정'을 생략하거나 꼼수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한 내용은 단지 이해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지루해도 암기해야 하며, 부단한 연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강이 이런 것까지 책임져주기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하위권이 인강을 듣건 학원을 다니더라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것이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다.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는 대목, 즉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목, 헌독을 깨고 새독을 빚는 대목 이런 것들을 3~4개는 거쳐야만 비로소 공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개똥철학 읊는 잉여'로 전락한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상당수는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분명한 건 수험은 자기 의미를 찾는 과정도 아니고 자유는 일찌감치 포기해야하는 비인간적인 경쟁이란 것이다. 이 점을 수긍하지 않는다면 그냥 수험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게 낫지 않나...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 아니 인

류사회에서 그런 동물의 왕국급 경쟁이 없는 곳이 어디있을까.

7.6 2016년도 9평 A형, B형 수학 분석

2015.09.02

B형 총평 : 30+0-5 팩트 : 평가원은 쉽게 내면서 실점 나오게 하는 방침 터득

B형 문항별 분석

- 1~6 : 생략. 그런데 이걸 내면서 출제자는 어떤 기분이 들까.
- 7 : 이거 식 말고 그림으로 푸는 게 좋죠. 1차변환 고수들은 행렬을 안 쓸 수 있으면 안 쓴다능.
- 아마 7번 틀렸으면 보나마나 3과 3root(2)를 헷갈렸을 겁니다.
- 8 : 이거 x 범위 제한 뒤서 난이도 높이지
- 9 : 생략
- 10 : 이런 거 틀리는 애들도 있죠
- 11 : 익힘책 수준
- 12 : 좌표접선과 기울기접선 공식은 잘 활용. 그런데 이런 건 주관식으로 내면 더 좋았을 듯
- 13 : 생략
- 14 : 부피구하는 문제 : 출제자가 너무 착해서리 $(e^2 - 1)\pi$ 를 선지에 안 넣었죠.

- 15 : ★ 쉬운 확률 문제 : 단, 식으로 접근하려던 친구들 시간 많이 잡아 먹었을 겁니다. 오답률 생각보다 높지 않을까
- 16 : 점화식 문제 : 그나마 중간 정도 되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힌트가 많아서리.
- 17 : 9평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행렬 합답형. 어째 실전에서는 어렵게 내지 않을까, 역시 쉬웠습니다.
- 18 : ★ 오답률 높다고 보는 통계문제 $P(Y_i=26)_{i=0.5}$ 라는 조건 안 쓰면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선지도 착하지가(?) 않습니다.
- 19 : ★★ 업그레이드해서 30번으로 내도 좋았을 2차곡선 문제 P의 위치를 하나로만 생각하기 쉽죠.
- 20 : 뭔가 무색해지는 무등비 쉽습니다.
- 21 : 19금 장면이 나올 찰나에 스탭롤이 올라가는 적분그래프 문제입니다 (...) 이거 틀린 사람들 이불은 오늘 무사하실까?
- 22 : 생략
- 23 : 생략
- 24 : 생략
- 25 : 생략
- 26 :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 정사영은 그냥 장식품
- 27 : ★★ 그래도 꽤 흡족한 중복조합 문제였습니다. 요즘 중복조합은 케이스나누기 필수
- 28 : 불멸의 사인법칙
- 29 : ★★ 푸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범선벡터 풀이도 있고 아니면 평방 풀이도 있음. 평방 풀이시 '내분' 잘 이용하세요

- 30 : ' ~의 정리'만 잘 쓰면 끝나는 심거운 문제

A형 총평 : $28+2-3$ 팩트 : B형이 어렵다고 A형으로 도망간 학생들 자살각

- 1~6 : 생략
- 7 : 계차수열 정의알면 한줄 풀이
- 8~11 : 생략
- 12 : 좌표 계산할 수 있느냐 하는 기본문제
- 13~14 : 생략
- 15~16 : 생략
- 17 : 문과 수열치고는 대략 중간 정도
- 18 : 합답형 쉽게 나왔네요
- 19 : 케이스 구분은 중복조합 문제에선 이제 필수
- 20 : ★ 대소관계 잘 파악해서 무등비
- 21 : ★★ t의 범위에 따라 함수, 도함수 정의한 뒤 문제에 제시된 부등식의 의미 파악하고 풀면 됨
- 22~26 : 생략
- 27 : ★ 계산 충실히
- 28 : 생략
- 29 : ★★ 정규분포의 정의를 아느냐 물어보는 문제

- 30 : ★★★★ 통수갑. B형에 냈으면 변별력 좋았을 문제임. 숨겨진 m의 범위를 찾아라
- 30번 문제는 저도 헤맸는데 '가수'는 자릿수와 독립해있지 본다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자릿수를 만들 수 있음. B형 풀고 싱겁네 하는 분들도 A형 30번은 풀어보시길.

사견

EBS 수특, 수완만 꾸준히 풀었어도 200점은 나오는 출제였습니다. (반론하고 싶으신 9평 문제와 직접 비교해보면 끝) 난이도로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도 않았기 때문. '기본'적인 걸 소홀히 하면 어이없이 틀릴 수도 있었던 문제들이 많았죠.

그런데 9평의 목적은 결국 막판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고3들 수준이 대략 어떤가 시험해보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쉽게 내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제가 아는 한 올해 고3들은 수준이 낮지 않은 편이라서리. 그러면 본 시험은 쉽게 나오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언

1. 실점한 문제에 관해서는 까다로운 것 100문제 정도 풀어보시길 예컨대 A형 30번에서 나가리났다하면 지표와 가수 관련된 4점짜리 문제만 골라서 풀어보라 그런 이야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2. A 문제는 ~하게 푼다는 스킬보다는 문제 리딩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실모비판론과도 맥락이 닿습니다만, 현재 자알 팔리는 교재들 중에서 '리딩'을 도와주는 교재는 별로 없어요. 틀린 문제에 한해선 교과서와 개념서 정독을 해보시고 어떻게 리딩을 할까

궁리해보시길 바랍니다. B형 21번과 30번은 리딩만 잘 하면 그냥 풀었으니까요.

3. **EBS 무시하지 마세요. 아마 저보고 EBS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느냐 어찌나하겠지만** 제 경우도 매일 수학문제집을 풀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평균적으로 나은 게 EBS라서 그렇습니다. 이번 9평이 본 시험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출제 경향은 현재 EBS가 그나마 잘 반영하고 있다는 데 유의하시길요.
4.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좌절하지 마시길요.** 다시 풀어서 맞는 문제라면 그건 가망이 있습니다. 다만 컨디션이나 멘탈, 무엇보다도 실전연습이 덜 되어있어서 그래요. 꼭 실모 풀 필요 없이 시간 재서 수학문제 푸는 훈련을 계속 하십시오.

7.7 수재의 조건

2015.09.03

1. 매일 예습복습을 꾸준히 한다.
2.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실천할 수 있는 단 한가지 약속만 지킨다.
3. 자기 주장이 약하다, 그러나 실천은 강하다.
4. 참고서 10권을 한번 보기보단, 1권을 10번씩 본다.
5.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 길면 1년 반까지 기다릴 수 있다.
6. 자기가 상위권에 속했다는 자부심 하나로 스트레스를 품다.
7. 남들이 10문제를 풀면 50문제를 풀 준비를 한다, 결국 남들보다 많이 하려 한다

8. 필기, 메모광인 경우가 많다.
9. 자기의 문제점부터 인식하고 타인에게 그런 지적을 가감히 듣는다.

재수삼수해도 안 되면 저 체크리스트 중 과반은 날라간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어른들이 사위나 며느리를 맞아들일 때에 상대 집안을 본다는 꼬대스러운 건 시대착오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일리가 없는 건 아닌 게, '환경'이 실제로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암시하는 경우가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걸 가지고 유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유전을 잘못 이해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성격"이라는 게 이 글을 쓰는자가 현재까지 종합해 본 결론임. 머리가 나쁘다 하더라도 수험에 맞는 성격이면 어찌되든 잘 되지만, 반면 머리가 좋은데 수험에 안 맞는다면 소용없다는 생각.

이제 현재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는 가부장 체제에다가 뭔가 군사독재 분위기였는데, 역설적으로 이게 학생들을 '수험생'으로 최적화시켜주었음. 의심하지 말고 시키는대로 받아적고 암기하고 시험쳐라, 못 하면 몇 대 맞고 숙제하고 다시 보라. 수험의 정답은 저것임. "단순하고 무식하게 공부"하는 것.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구속적인 분위기가 사라짐. 적어도 과거에 비해선 정말 자유로워졌음, 그런데 이게 수험에는 좋지 않음. 그런데 문제는 '상류' 집안이거나 상위 '중산층' 집안은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수적으로 키움. 이게 마치 해저심층처럼 장기간 그 학생의 수험에 영향을 주는 것임. 인내에 익숙하고 하라는대로 일단 할 줄 암. 반면 자유롭게 키워진 수험생들은 유감스럽지만 인내심이 정말 약하고, 자기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상술'에 정말 잘 낚임.

똑같은 대한민국이니 뭐니하지만 아파트 단지별로도 소위 수준이라는 게 차이가 '극명히 나는' 게 슬픈 현실임. 대한민국 아줌마 극혐 치맛바람 왜 휘둘러 네이버에서 개념 맷글 달리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아줌마의 최상위 종족인 복부인은 세계 최강이며, 또한 교육열 역시 세계에서 날리는 수준임. 이게 근거가 절대 없는 게 아님,

논지와 상관없는 셀 보충하면 복부인들은 정말 돈냄새 기막히게 잘 맡고, 기획재정부도 모르는 돈의 흐름과 향방도 직감적으로 예측함. 그래서 정부가 시키든말든 자기들이 느낀대로 투자함. 실제로 그들의 수익률이야말로 어떤 금융회사보다도 나을 것임.

이건 교육열도 마찬가지임. 자녀를 키우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아파트 단지나 환경이 뭔 소용이냐 하지만 여자들은 그런 데 민감해서 그런지 돈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서 자녀들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고 실제로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음. 물론 황새 따라하는 뱃새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님.

아마 본인들이 공부를 잘 한다라고 착각하겠지만 어떤 친일시인의 말대로 7 할은 가정환경이 빚어낸 것임.

그럼 n수생으로 가봐서 관찰하면 실패하는 사례 예를 들면 그럼

첫째, 자기가 하고싶은 공부만 하려한다 둘째, 자기가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독학이 위험한 이유이기도 함.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공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점수를 높여주는 공부를 안 한다는 역설이 발생함. 국어가 약하면 국어, 탐구가 약하면 탐구에 바로 투입해서 남들의 10배는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럼 수학은 어찌죠? 영어는 어찌죠? 하면서 또 우왕좌왕하다가 귀중한 시간을 날려 먹음.

셋째, 자기의 스타일을 고집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지 못 한다. 넷째, 문제풀이 자체가 결국 '자신의 성격'이 칠할을 좌우하는 것을 모른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문제푸는 스타일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교정받아야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임. 그런데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다면 그건 '사고'와 '실행'의 문제고, 이걸 좌우하는 건 자신의 성격임. 예컨대 성급한 사람이 실수를 안 할 리가 없고, 처음 보는 문제에 겁부터 먹고 바로 공황장애 빠지는 경우면 어찌겠나.

이것만 봐도 처음에 뭘 해야할지는 답이 간단한데... 문제는 이걸 고치라고 조언을 해도, 사실 고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임. "나는 너무 소중하니까". 그냥 공부만 많이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

물론 수재의 조건을 일률화시킬 수 없음. 그러나 최소한 지켜야 할 것들이 존재함. 특히 자신의 성격이 저런 것과 위배된다면, 당장은 호전될 수 없을지라도 바로 고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음.

어제 수학 B형의 경우만 하더라도 조금만 생각해도 풀릴 것을 어려워보인다고 손도 못 댄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았는데 이게 지식의 부족 탓이기만 할까.

7.8 수학 B→A형 돌릴 때 참조하실 것.

2015.09.06

B형 수학은 온갖 무기가 동원되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그래서 교과외적인 무기도 – 쓸모가 있다면 써도 되는 겁니다. 총 대신 탱크를 몰고가도 되고 무인기를 써도 좋습니다. 안 되면 주먹으로 가격해도 되서 꼼수나 스킬이 일정 정도 먹힙니다.

다만 요즘 와서는 화력보다는 '스나이핑'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꼼수나 스킬의 효용도 떨어지고 있어요. 문제가 쉽고 적고 떠나서 정말 교과서 개념 충실한 친구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반면 A형 수학은 맨주먹 빼고는 아무 것도 쓸 수 없는 격투기입니다. 격투

기이면서 형식을 정말 잘 지켜야하기 때문에 맥살 잡는다거나 할퀸다거나 그런 거 안 먹힙니다. 흔한 지수로그 지표 가수, 격자점, 그리고 문과 미적분에는 꼼 수는 더더욱 안 먹힙니다 A형 쉽지쉽지 그러는데 요새 킬러 수준으로 치면 A형 30번이 B형보다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B형 잘 푸는 친구들이 A형 격자점에서 혜택대는 경우는 널렸습니다. 특히 성격 급하고 계산 실수 잘 하고 문제리딩 못 하면 답이 없죠.

본인이 자잘한 잡스킬 모르겠다, 기백은 정말 공간감각 없어서 안 되겠다. 하지만 논리력은 명쾌하게 식을 통한 접근 정말 잘 하며 정리갑이다라고 하면 A형 가진 다음에 시중 교재에서 지수로그와 격자점만 확실히 정복하시면 100 점은 어렵지 않을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잔실수가 많고 멘탈 개판이고 그렇다 라고 하면 먼저 그 습관부터 고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제가 검증해본 바로는 수학은 지식보다는 이 역시 '성격'의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 숫자와 기하 감각을 졸라게 익하고, 고교 진학 전에 그리스 소피스트처럼 묻고 따지고 생각하는 싸가지없는 습관 들이면서 모든 것의 답을 궁구 하려는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고교수학을 잘 하는 것이고 저 중 하나라도 안 되면 운이 좋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매우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7.9 이 시점에 감성파든 열심히 한다 하지 마셈.

2015.10.16

"아, 열심히 해서 n수 하지 않을 거야" 냉정히 말하겠음.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노력과 운과 상관없어" 이거 수힘이든 뭐든 겪어보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요.

저런 식의 메시지는 마지막 소중한 시간조차도 부질없는 감성에 젖게 만들

며 본인의 실책을 극복 못 하고 결국 '정신승리'에 빠지게 하는 길입니다.

공부 초에는 만점받을 수 있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라고 자신을 과대 평가하다가 공부 말에는 이제 나 어떡하지라고 발 동동구를 거라고 작년 말에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뽕맞지 말고 일찍 공부하라 나중에 시간없어서 힘들 것이다 그냥 생각없이 양치기 하고 빨리 오답정리하는 게 낫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험은 아직 안 끝났으므로 단언은 안 합니다. 그러나 저 예측은 거의 다 들 어맞고 있습니다요. 다만 '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지만 쪽지 보내시는 분 중에서 충고대로 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 모의에서 고득점 나오면서도 뭘 풀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반면, 뒤늦게 공부시작해서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은 자기 인생을 넘어 남들까지 탓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말리아도 시리아도 아니지요. 넘들이 공부를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 것이라면 그건 정의로운 결과이니 거기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목표를 못 이루었다면 다시 시작하거나 다른 길로 가면 되지, 별 이상한 감성에 빠질 이유가 없죠. 하지만 운이 나쁜 게 분명하다면 그건 올해 운이 안 좋은 것인데 불운이 내년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운이 나쁜 건 어쩔 수 없다, 다만 그 나쁜 운을 밀어낼 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고 다시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잘 치를지 못 치를지는 '무의식'이 정말 잘 알고 있죠. 그 무의식이 '야, 넌 올해 힘들 거야'라고 하면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다들 현 시점에 감성주의에 빠집니다. 마치 술을 마셔서 현실을 잊어버리듯 그렇게 '현실부정' 을 하면서 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가 실제로 현실극복에 도움을 준 사례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래도 힘들어, 난 안 될 거야'라는 비관주의가 잘못된 자아를 바꿔

도움준 사례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마음을 비우고 수험의 본질을 돌아가집쇼.

국어 – 45, 수학 – 30, 영어 – 45, 탐구 – 40을 8시간에 걸쳐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본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건 어렵다는 킬러문제, 그리고 본인이 헷갈리거나 공부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다 풀어내고 저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남은 시간이 촉박하면 가장 중요한 것에 할애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올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자신이 생각하더라도, 전략이 틀렸으면 저 작업에서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결과는 노력한대로 나옵니다. 다만 그 노력은 '타인'이 봐도 대단하다라고 느껴져야하는 거지, '본인'만' 인정하는 건 소용이 없지요.

노력을 정말 한 사람이 노력을 까는 경우는 없습니다. 노력을 하지도 않은 인간들이 노력도 필요없다고 하죠. 노력 까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노력과는 인연이 없죠.

그럼 20일이 남았는데 어찌나 하는데 이 20일은 과거 100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일단 기온이 쌀쌀해서 공부하기 좋고 시험이 코앞이라 긴장되며 그동안 공부한 게 쌓여서 가속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가속효과를 누릴 수 없으면 올해 시험은 그냥 마음편히 보는 게 낫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울러 이제 정말 웬만한 사이트 출입하면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건 피하십시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들락나락거리면서 잡글의 감성주의에 빠져서 올해 정말 낭비 안 했다라고 양심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 격려글조차도 쓰지 않을 겁니다. 내용도 뻔하지만 이건 아무런 도움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타인이 보기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평가받는 좋은 결과가 나와야하는 것이고 본인은 했다고 하지만 타인이 보기에는 저 놈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냐 하는 사람은 망해야 '정의로운' 것이 아닌가요? 시험공부도 대충 해놓고 나중에 내 인생 흐흐흐하면서 시험 잘 보길 바라는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면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 건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마음 비우시고 20일동안 후회 없는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날은 잘 보든 못 보든 '냉정'하세요. 절대 냉정하시길 바랍니다. 킬려 어려운 것 나오면 어찌지 10평 잘 보았니 하는 것 다 개소리고 어차피 대부분은 시험 당일 날 냉정을 못 지켜서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도 틀리고 조금만 찬찬히 읽어봐도 맞는 문제 다 틀리지요.

그래도 위안을 원한다면 그냥 시험상황을 얘기해드리죠. 올해 시험은 응시자 풀이 최악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 마지막이지요. 9평과 10모 컷 만 보아도 문제가 아주 쉽다고 할 수 없는데도 그런 컷들이 나왔습니다. 현역 조차도 평균적으로는 잘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기존 시험의 온갖 노하우와 시행착오까지 다 파악할 수 있으므로 특히 불리하다 할 수 없겠지만 본인이 정말 잘 치렀다고 하면 그보다 더 잘 치른 과수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열심히 했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노력은 안 하면서 여행이나 바라는 사람에게는 올해 같이 변명하기 좋은 해는 없겠지만요. 아울러서 이제는 취업이 되는 게 이상한 시대가 와서 대학졸업해놓고 또 수능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n에서 n+1이 된다고 해도 과거에 비하면 덜 부끄러운 시대이다라는 데 위안을 가져도 좋겠지요.

아무튼 냉정히 공부하시길요. 그리고 제가 보아도 '아 이 친구는 열심히 했어'라는 케이스는 대박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중요한 건 이 대목인데, 바로 그 결과를 인정하고 다시 도전하면서 '공부 그만 하세요'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하는 사람은 내년에 대박나겠고, 귀중한 시간에 감성에 젖어서 하라는 공부 안 하고 그걸 핑계로 놀아제끼는 사람은 평생 힘들겠죠.

7.10 콕콕에서 노력한다고 보이는 수험생

2015.10.17

14명 정도입니다. 이 경우는 세가지로 확인하는데

1. 일지 – 일지 공부량을 보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1.5배 정도 공부한 케이스
2. 학습란에 올라오는 문풀 글 – 일지가 없어 모르지만 문제 보는 안목이나 풀이에서 내공이 확인되는 케이스
3. 쪽지 – 쪽지로 주고받는 경우에 확인되죠.

그런데 노력했다하는 건 3개월 이상 정말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날 정도로 공부한 경우만 말함. 적어도 제 기준으로 보아도 그 정도 역시 '서울대'급을 노린다면 평범한 정도입니다. 실상은 1~2개월 정도 하고 힘들어죽겠다하면서 가을의 수필가로 갑니다. 그래서 여간 안타까운 경우가 아니죠.

특히 그나마 공부한다고 하던 게 8월 이후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이제 그나마 공부가 되려고 하는데 수능 코앞이면 좌절해서 공부를 싫어해버릴 수 있는 거죠. 1~3월달에 저랬으면 순상승기 탔을 건데 말입니다. 보통 슬럼프 주기는 2주, 1달, 3달, 6달에는 오게 되어있고, 이 시기를 넘기면 실력은 비약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찍 공부를 시작하는 게 답입니다.

가끔 오는 한심한 질문이 6시간만 해도 되어요... 라는 건데 먼저 6시간 일주 일을 해보고 질문하지도 않은 케이스여서입니다. 그런데 12월부터 6시간 꾸준히 하더라도 지금 모평이면 올 1등급은 맞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특히 이번 교육청 이과라면요)

이건 논쟁이 붙긴 하지만 1년간 일지–상원 루트 나름 보면서 소프트하게 조언해주는 결과를 보면 이게 수능합불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결국 3개월 이상 꾸준히 해본 사람들은 모평에서 좋은 성적도 나오지만 수능 걱정을 하더라도 정말 건설적으로 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다른 여건 탓할 필요 없습니다. 100일 정도 웅녀 인간되기 프로젝트 따라하는 게 정답이란 것이죠.

다만 문제는 그거. 올해 수능은 2년 3년 바짝한 괴수들도 응시한다는 것. 원래 응시 안 하냐하겠는데 경쟁 과열이 높아진 듯.

그리고 앞으로 콕콕이 여학생 위주로 갈 거라고 보는 합리적인 이유는 **여학생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남학생들은 그에 비하면 너무 많이 흔들리네요.

커리가 정해지고 스트레스와 감정문제만 해소되면 정말 하루 6시간은 우습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필요한 건 '고급정보', 그리고 일종의 감정적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멘토 아니면 계시판의 존재만 있으면 되지요.

노오력을 이야기할 때는 여학생들은 언급될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연애만 아니면 거의 다 공부를 시작하면 열심히 하니까요.

문제는 남학생들인데

이건 뭐. 칼럼을 써도 그 내용 너 마음에 안 들어 어찌구 '공격'하는 한심한 종자들도 대부분 남학생들이지만 오래 관찰해보면 왜 선진국도 여풍이고 우리나라도 여풍이 강한지 그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속은 생각하지 않고 '자존심'에다가 '감정' 중심으로 행동하는 게 남자들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예외가 아니려나

7.11 10일 남았는데 입시에만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2015.10.31

나이 쳐먹어서 늙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입시생들은 수험을 하기보단 수험코스프레질을 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시험 한달 앞두면 해야될 건 본인 틀린 것 철저히 점검하고, 기본서 다시 회독수 높이고, 아울러 시험 시각 맞춰서 시험 치는 연습하고 그 뿐입니다. 사실

이것만 제대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계획만 짜면서 수험업자들이 기획한 상술대로 놀아납니다.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어차피 이건 수능치고 나서 결판날 문제라서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공부한만큼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부한다는 건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집중한다는 건 세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공부 외 다른 건 차단한다 둘째,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 본인이 공부하기 싫더라도 – 공부한다. 셋째, 나를 잊어버린 상태 – 정신들고보니 10시간 이상이 흘러가 있다.

이게 되는 학생과 안 되는 학생이 갈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되는 학생은 그 되는 상태가 뭔지 끝까지 모릅니다. 그게 되는 사람들이 쓰는 교재는 매우 간결하고 핵심을 잘 짚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쓰는 교재는 정말이지 장황합니다. 현실은 후자의 교재가 많이 팔리고 있고,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입시에서 물을 먹죠. 그래서 공부해도 안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집중을 정말 하고 공부하지도 않았을텐데 말이지요.

10일 남았으면 학습란에 제가 제시한 글이나 즐미님이 쓴 글대로 가주세요. 그것대로만 하더라도 대단한 것입니다. 10일동안은 가능하면 다른 데 휩쓸리지 말고, 교재도 더 이상 따로 추가하지 말고, 갖고있는 것만 제대로 다 '실제 수능'에 맞게 푸시고 틀린 문제는 3~5회 이상 다시 풀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도 안 하고 자기가 공부했다고 착각하면서 부모탓, 환경탓만 하는 스팩이 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가능하면 콕콕 접속, 아니 웹접속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난 다음 수능 보기 까지 한번이라도 접속하면 떨어진다... 라고 주문을 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일이라는 황금같은 시간을 날려먹고 수험사이트나 오가는 스팩질이나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겠죠.

작년말부터 학습일지부터 시작해 올해 상담까지 다 추려보았습니다. 콕콕에서 작년부터 이유없이 공부법 가지고 시비걸면서 스팸교래 추천하는 양반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제가 틀렸나 다시 점검하고 실증적으로 갔지만 결론은 결국 '양치기' 최고이고 '집중하는 게' 답입니다. 이 글 읽는 몇몇은 작년에 제가 충고했음에도 그 이행 안 지키고 지금도 스팸질하거나 뒤늦게야 실천하고 아 진작 할 걸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그래도 후자는 낫죠?) 상담글에서도 확인되고 제가 관여 안 했지만 최근 탈곡하시고 공부하러 간 분의 글에도 나오죠. 그냥 님들이 하던데로 양치기하고 집중하면 됩니다. 10일동안은 님들이 틀린 문제 약점 점검하고 극복하는 건 충분한 시간입니다. 물론 안 할 사람은 끝까지 안 하면서 머리탓, 세상탓, 부모탓, 우주인탓하겠죠.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대학을 안 가는 게 세상을 위해 좋습니다.

올해도 자기가 못 나올 거라고 하지만 의외로 대박치는 사람들은 셋 정도는 있을 겁니다. 신비주의는 아니고 일지 보거나 상담할 때 아 이 친구는 내가 본받고 싶을 정도로 공부했구나 하는 케이스가 있죠. 그런 경우는 시험에서 예상 외로 잘 나옵니다.

하지만 평소에 모평이나 실모뽕맞거나 하면서 산만하게 공부하고 집중 안하는 경우는 '역시나'가 될 수 있으니 10일동안 똑같은 물을 뱀이 마시게 해서 독이 될 것인지, 소가 마셔서 맛있는 우유로 만들 건지 본인이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서 만약 감점나온다고 하면 그건 시험 난이도가 아니라, 본인의 공부가 어디까지 완성되어 있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시험날도 하루는 24시간이고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집니다. 잘 마무리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7.12 자기 머리를 믿으세요.

2015.10.31

두가지 케이스입니다.

양치기를 한 사람은 시험날 신기하게도 문제를 보면 문제가 쑥쑥 풀립니다. 즉, 수험뇌가 완성되어서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문제가 해석되고 풀리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본인이 할 건 자기 풀이를 의심하고 계속 검토하는 것입니다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돌아가는데 너무 빠른 나머지 브레이크가 안 걸려 문제를 잘못 읽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런 건 제가 경고드린 분이 몇몇 계십니다. 반드시 문제를 종이로 가려서 한줄씩 읽고, 조건 하나당 번호 붙이길. 국어를 풀 때는 특정선지가 답인 이유, 답이 아닌 이유 명기하고 수학은 반드시 조건들을 찾아내 번호 다 붙여서 그것들 다 썼는지 확인하시는 것.

양치기가 안 된 분들은 다소 의식적이지만 작위적인 생각을 하셔야할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맞긴 한데 문제는 이게 엄청난 피로도를 선사하며 속도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 봐도 하나하나 자기가 써나가면서 풀어야하는 분들은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모드로 가시길 바랍니다. 즉, 이 경우는 스피드업을 하면서 문제를 보고 '연상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는 쪽으로 가야만 제 시간에 맞출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양치기가 선행된 분은 자기 뇌의 엔진을 믿되, 브레이크를 잘 걸어주시면서 실수를 방지하시라는 것 – 브레이크 모드 양치기가 안 되어있지만 의식적인 생각으로 풀겠다하는 분들은 연상을 많이 해서 문제 실마리를 찾는 엑셀 모드로 가시길 바랍니다.

브레이크 모드는 본인이 문제푸는 실마리가 너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본인이 논리적으로 그걸 검토해서 OX질을 잘 해야합니다. 반면 엑셀 모드는 떠오르는 실마리는 터무니없는 것들도 다 적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문제를 아예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시험 망할까 어쩔까 그런 반응은 당연한데, 자기 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님

들이 직접 뛰는 게 아닙니다. 님들의 경주마는 두개골 안의 그것입니다. 경주마를 잘 먹이고 다독이고 하는 쪽으로 신경쓰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달리는 건 기수가 아니라 말이지요.

7.13 학벌의 장점.

2015.11.02

고등학교 졸업 이전에 부딪치는 악은 대부분 **폭력**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부딪치는 악은 대부분 **사기**임.

폭력은 어떤 것이든 법망에 걸릴 수 있습니다. CCTV가 도처에 깔려있고 개인도 스마트폰으로 증거자료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는 잡아내기가 어렵죠. 상대가 속이면 – 전문용어로 기망행위를 하면, 본인이 거기에 낚여서 행동함으로써 범행이 완성되니까.

사기의 원동력은 인간의 **탐욕과 무지**입니다. 그런데 탐욕이야 욕심을 줄이면 된다고 보면 되긴 하는데(라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음) 무지는 이건 정말 답이 없음. 우리가 아는 것보단 모르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 사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정치, 경제, 법률, 자연과학, 기술 전반에 빠삭해야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보조개만 보고도 심리를 파악할 수는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닐 뿐더러 사기치는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데다가 냉혈한입니다.

그럼 사기꾼을 잡아내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은근히 속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고 이 글을 적는 저 자신도 제가 모르는 사기에 이 중삼중으로 걸려있다라는 게 정확한 진술일 거예요. 공부하고 나서야 아 내가 속았구나를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다 털린 뒤지요.

사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상대가 뭔가 제시할 때 ”아니오”라고 거부해야하고 특히 다수결이 좌우하게 되는 소통에서는 백분토론할 때처럼 설득력있는 자

기 주장을 발휘해야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먹히는 건 국어영역에서 말하는 논리가 아니란 겁니다. 첫째로는 감성, 둘째로는 외모, 셋째는 권위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벌이 유효하게 먹힐 수는 있음. 사실 사람들은 그 주장의 내용이 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음. 그냥 좋다 유리하다하는 걸 결정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xx대 출업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 있겠군... 이라는 게 사람입니다. 메시지 이전에 메신저의 스펙부터 보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학벌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 뿐더러 사기꾼일지라도 상대가 일단 xx대 출신이라고 하면 설불리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물론 같은 xx대 출신이라거나 그 이상이라면 다르겠지만) 물론 xx대 출신이라고 밝혀졌지만 하는 짓이 영락없는 호구라면 얄짤없지만.

공부에 있어서는 어떤 주장이 오갈 때 ”나는 그럼 xx대인데 당신은 어디 다니십니까”라는 걸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가는 경우가 가능. 매우 재수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학벌주의 저주에 걸려 있다라는 건 똑같음. 당연히 이건 금전과는 거리가 멽니다요. 가능하다면 저런식의 쓸데없는 싸움은 안 하는 게 협명하지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온오프에서는 그 덕분에 사기꾼들을 잡아내고 혀소리 한 걸 잡아내는 건 가능했다고는 생각함. 그 이야기는 거꾸로 말해서 이런 케이스가 아닌 경우는 지금도 사기꾼들에게 놀아나는 케이스가 널려있을 거란 이야기죠.

아, 물론 수능 이후에 만화 검은사기는 보시길 바랍니다. 패턴이 늘 반복되긴 하는데 한번 볼 가치는 있음. 재밌는 건 이 만화에 실린 사기수법이 수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즉, 사기수법이 만화책을 통해 먼저 들어옴 (...)

7.14 수능출제는 통수

2015.11.02

난이도가 높다 낮다... 그런 건 무의미. 출제가 예상가능한 영역인가, 예상 불가능한 영역인가. 이런 게 중요함. 올해 수능이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하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출제 경향이 2014년도와 2015년도 수능과 어떤 점에서 똑같고, 어떤 점에서 다르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과거 복기해봅시다. 이과수학만 보자면 2014년도 역시 '통수'였고 2015년도 어떤 의미에서는 통수였습니다. 둘 다 당시 수험생들이 준비하던 방향과 다른 각도에서 출제했음. 전설의 2012년도 스타일에 맞게만 공부한 2014년도 수험생들은 29번에서 제대로 통수를 먹었고 그래서 기하와 벡터에 치중했던 수험생들은 2015에서 또 한번 통수를 먹었음(난이도가 하향되었다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어려웠죠)

그리고 지금 수험생들은 2014와 2015 반반무 많이로 공부하고 있는 현실임.

평균적 방향

- 국어 - 어렵게 나올 것이다, 화작문 대비 철저히 해야징~
- 수학 - 2014와 2015의 중간정도 보자. 으음, 이번에는 확통이려나?
- 영어 - 쉽게 나오겠징. 그래도 불안하니까 듣기가 불안
- 탐구 - 극헬이겠지.

그런데 문제는 다들 자기가 대비하는 방향으로 출제되고 있을 거라고 '착각' 하는 것인데 과거 5년동안 수험생들의 의도대로 100% 출제된 경우는 없음. 수

험생들이 대비하지 않은 방향으로 엿먹이는 건 지속됨. 당연히 사설학원이든 인강이든 실모든 그런 거 적중시킨 적도 없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시험이 불안한 사람들은 2014, 2015 기준으로 자기가 잘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건데 실제 2016년도 시험 출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14, 2015에 최적화된 사람이 열흘 후 수능에서 죽쏠 가능성도 높고, 2014, 2015에 맞게 공부되어있지 않았는데 조금 공부한 게 2016 스타일과 너무 잘 맞아 대박날 수도 있고. 정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것임.

예컨대 저래놓고 나서 갑자기 국어에서 문학을 어렵게 내고, 수학은 느닷없이 행렬이나 지수로그 격자점을 헬로 내버리고 영어 빙칸에서 고난이도 2문제, 순서잡기에서 헬난이도 내버리고. 탐구는 정작 쉽게 내면?

뭐 그대로 맛가는 거죠. 다만 이런 데도 안 흔들리는 사람들은 기본이 충실히 되어있는 케이스겠죠. 그리고 지금도 문제 점수 잘 안 나오다는 사람이 좌절하는 심경으로 치렀는데 대박날 가능성도 있음. 작년 이맘 때도 일지 체크해주면서 확인했는데 시험 전에 절망적인 심정으로 달린 사람이 대박 나기도 하고, 공부 거의 다 완료했던 사람이 문제 실수해서 날라가기도 하고. 염밀히는 시험 전에 분명히 공부에 흡이 많은데 점수가 잘 나오니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되고 반면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공부 안 한 학생으로 취급받고.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인 뇌를 믿으라고 하는 수 밖에 없는 거임. 시험 칠 때 절감하실 것입니다요. 공부 안 되어있다라는 기준도 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지식이 기준일 건데, 실제 수능의 문제풀이력은 무의식적으로 나오지요.

10일동안 기상시각 잘 조절하고 뇌 관리 잘 하면서 평정심 유지하는 게 나을 겁니다요. 예기치 않은 데에서 퀄리문제가 나오면 어찌 풀까하는 걸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게 좋긴 할 것입니다만.

+ 생각해보니까 만약 탐구를 전부 다 물로 내버리고 영어를 불로 내버리면 그 때는 ”영어 공부했어야하는데”, ”탐구 필요없네용~ 국영수나 할 걸”... 뭐 이

럴 뺄이고. 작년만 해도 수학은 저도 불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실전미 만잡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차피 정부는 퍼센테이지만 잘 조정하고 복수정답만 안 내면 욕 안 먹죠.

+ 실전주의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탐구를 제외하고 국어영어수학은 각 과목 당 2~3문제씩이 결국 발목잡고 그 문제 하나당 10~15분씩 소요되는 일이 벌어 지죠. 출제자라면 이런 식으로 내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이 경우 수험생에게 중요한 건 차분히 문제, 지문을 읽고 '논리적'으로 정답을 유추하거나 확률 높은 걸 찍거나 하는 것일텐데.

+ 지금 수험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2015년도 출제 경향의 부채. 즉, **다 만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가장 큰 문제인 듯** 하지만 예기치 않게 난이도가 헬이어서 만점의 저주라는 게 올해 깨질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절대 과거 경험으로만 접근하면 안 됨.

+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어나 수학에서 예기치 못하게 통수 맞고 그 뒤로 만 점강박증에 자포자기해버리는 경우. 혹은 생각보다 쉽게 나온 국수인데 영어가 어렵게 나와 통수맞는 케이스

7.15 교재퀴즈

2015.11.04

Q. 가성비가 최악인 동시에 최고, 다수의 수포자 양성, 소수의 수학고수 양 성한 책이 뭔지 기술하시오.

속내가 뻔히 보이고 가입일이 최신인 '선플'을 가장한 '악플'이 있어서 글자 웁습니다. 이 사이트나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활동을 하려면 **지능적으로 하셔야죠**. 아무튼 그 분들 덕분에 수능 이후 콕콕 사이트 운영에 대한 좋은 참조례가 마련된 건 감사.

그리고 전 올해 초부터 특정교재를 대놓고 '실명'으로 까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고소미 먹이는 정신나간 놈들이 있기도 하지만 언급할 필요도 없는 교재는 대놓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타락하는 기분**이어서 말입니다. 특히 교재에 대해서 추궁하면 답 못 하고 도망가는 케이스라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A, B 교재가 궁금하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힌트 드립니다. 그 저자들 **남자**가 아닙니다. 그 범주에서 찾아보시길

뭐 그건 그렇고 저기 Q에 해당하는 교재가 뭔지 한번 답들 해보시길. 사실 이 교재는 가성비가 대한민국 최악인 동시에 최고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정복하면 수학 최고수가 되죠. 너무 쉬운 문제인가?

그리고 이건 콕콕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고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본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콕콕과 여기서 교재내는 사람들을 온갖 방법으로 공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교재비판에 대해서 적죠

우선 교재명 언급만 하면 경찰서 출두 가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거 가지고 먹이는 사람들 있나? 그렇지요. 별금 싸게 나오는 것까지 고려해서 민사까지 감안해서 일부러 자기가 피해입었다고 썰까지 푸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런 질문 하겠죠. ”일일히 자기 교재가 어떻게 언급되나 그거 찾는 사람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심지어 동료나 부하(?)들을 통해 알아보거나 제보받기도 할 걸요.

그 사람들 하는 짓이 비겁하든 안 하든 어찌되었든 법의 논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부러 '제3자'인 척 리플을 달아 질문을 유도해서 **법에 저촉되는 발언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품질이 아니라 명성만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진실된' 이야기일지라도 자기 교재에 관한 부정적인 평이면 개입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 끝에 시장점유율을 유지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라, 별로 좋은 교재가 아닌데도 뭔가 있나보다'라고 생각하고 구입하는 거죠.

옹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걸 기다릴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제가 권하는 건 간단합니다. "언급하지 않는다고 고소미 먹이진" 못하니, 첫째, 그런 교재들은 아예 언급하지 말고 좋은 교재만 언급한다. 둘째, 언급하고 싶으면 특정하지 말고 '단점'을 추상적으로 적는다(추상적 단점만 가지고는 특정 못 합니다)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저저번에 올린 글도 참 흥미롭습니다만 저는 A, B가 어떤 교재인지 언급도 안 했고 그런 댓글이 안 달리길 바란다고 분명 적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단점'만 적었는데도 몇몇 분들이 교재 특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 의심하는 건 죄송하나, 평소에 활동 안 하던 분들이 댓글을 다는 건 좀 그랬습니다. 게다가 특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부러 특정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입일이 바로 11월 4일인 모 분께서 아예 B가 뭐냐고 멋대로 특성을 하기 시작하시던데

오늘 가입해서 '선플'을 가장해 B를 특정교재로 특정화시키려고 해서 엿먹이려한 사람, 아이디가 무려 **huntpoc**이더군요(조어관념 참 촌스럽다) 정보공유가 안 되는 것 같죠?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것에서는 유기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허혁재님이 콕콕의 비영리사이트적 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적극 안 나서고 있고, 영리적인 건 T 모 까페로 이전해서 그렇지 절대 망사이트는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콕콕 사이트, 쉼터가 망해서(?) 그렇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험에 관한 일종의 정의 관념이나 의미이지, 어디처럼 금전적 이해 관계가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여기 적지않은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번 글로 낚시질을 해보면서 누차 확인한 바입니다. 이 사항은 허혁재님에게 제보되었으니 사이트 운영에 반영될 것입니다. 비겁한 질 해서 콕콕

사이트 흔들어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공부나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일부러 약자인 척하면 뒷공작하는 거 밝혀진 사람 꼴수는 과연 안 읽힐 것 같죠? 그리고 어떻게든 수험계에서 돈이나 벌어보자라는 사람은 이 사이트에 열씸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게 이제 어떤 뒷공작질하거나 선플을 가장해서 저렇게 나오거나 하는 경우들, 그걸 역으로 법에 얹게 만들어볼까 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예전에 제가 ○□ 대학계시판에서 활동했을 때, 거짓말아니고 거기 수험생들 흙수저들 불쌍해서(...) 이런저런 정보글 달았는데요. 아무튼 수험계가 참 웃기더군요(흙수저 얘기하지만 저야 금수저들과 놀아난 적이 있던 흙수저죠 --)

하도 웃겨서 거기서 졸업장 인증 때리고(그런 짓 쪽팔려서 이제 안 합니다만) 이런저런 정보글만 쓰는데 정보글만 써도 딴지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xxx 강사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서 간접광고하는 사람도 있었죠. 현실은? 그 때 거기 알바들 활약했다는 거 나중에 밝혀졌죠? 뭐 심지어 제가 거기 활동하는 것까지 파악해대는 모 학원도 있더구만요. 학원들이 머지 않아 CIA에 진출할 모양입니다.

EBS 인강 칭찬하고 시중교재 부당하게 까이는 것을 변호한다고 까임. 심지어 EBS 알바란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들이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더러운 세계죠. 만약 콕콕 사이트도 비슷하게 간다면 저도 그냥 떠나버릴 것입니다.

7.16 개념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2015.11.04

책 쓴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써볼까'일 건데요, 냉정히 말하면 책 쓴다는 건 의사의 수술행위에 비견된다고 봅니다. 책 한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사고'하는 건 강의나 책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우선 정석을 예로 들어봅시다. 전 정석을 매우 괜찮은 교재로 보고 있음. 학창시절에 썼던 교과서가 실력정석이기도 했지만, 지금 다시 봐도 책 5권 분량을 1권에 정말 빠짐없이 잘 넣은 책이라고 생각함. 게다가 예제-정석-유제라는 편집도 뭔가 논리적이거니와 이대로만 가면 일단 지식은 갖춰지죠.

그런데 정석의 저런 체계적 구조가 동시에 단점이 되어버립니다. 예제 아래 '정석'이 있는 구조로 학습해버리면, 학생들은 특정 문제는 특정'패턴'으로만 풀어야한다고 학습해버립니다. 이건 일종의 강제이기 때문에 수학을 '싫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실제로 부모님이 사준 정석 보고 수학이 싫어진 친구들도 많습니다. 책 자체는 괜찮은데 이 편집이 지닌 단점 - 고수 입장에서는 정리가 잘 된 책이지만 고수가 아니면 '암기'로만 비쳐지는 것 그래서 정석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책 혹은 가장 더러운 책이 됩니다. 아예 안 보거나, 아니면 수십번 보거나 하기 때문에.

정석을 뛰어넘지 못하고 정석에 익숙한 사람은 새로 보는 문제를 못 풁니다. 거기에 일대일대응하는 정석이 안 보이니까요(...)

수능 수학 기출 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정작 쓰인 개념, 스킬은 교과서를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벗어난다고 보이는 경우도 출제 실수로 교과외적으로 풀리는 것이지, 교과서를 벗어나는 걸 의도하진 않았죠) 그래서 교과서를 잘 본 친구들이 수능은 잘 나오는데, 정석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늘에 빠진 친구들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실력정석은 시중 문제집을 다 풀고 1등급 나오고 만점 이상을 노릴 때 '보충서'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책 자체는 정말 나무랄 것도 없고, 그게 일본 것을 베낀 것일지라 하더라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게, 이거 '좋은 것'을

제대로 베낀 경우여서입니다. 시작은 베끼는 것일지라고 하더라도 반세기동안
버텨온 역사라는 걸 가볍게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건 다른 개념서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긴 합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개념이 '어떤 순서'로 학습되고 '어떤 관점'으로 조명되어야 하는 '독법'
이 중요한데 그걸 책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인강으로 가거
나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문제를 풀 때에는 한 문장, 한 구절식 끊어 읽으면서 거기 주어진 조건에 어
떤 논점들이 연결될 수 있는가 떠올리고 정리한 다음, 문제가 원하는 답에 도
달하기 위한 과정을 '논술'할 줄만 알면 되는 건데 간단해 보이는 이런 과정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국내 책은 찾기 어렵기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이런 건 '개념서'로 포섭하는 건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4점짜리 문제
를 풀기 위해서는 오히려 수리논술을 공부하는 편이 낫겠죠. 그냥 기출문제집의
해설이 기막히게 잘 쓰여있다면 그게 그냥 개념서보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수학적 도그마로서의 개념서 : 점
- 실전문제의 논리적 풀이를 설명하는 개념서 : 선
- 해당 수학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실사례와 연결시켜 보는 개념서 ; 면.

이렇게 개념서의 용도를 구분해야지, 개념서 한권으로 다 해결하는 건 어렵다
라고 보는 것이죠.

- 점 : 교과서도 좋습니다. 시중교재로 가면 형식면에서는 씬, 감각면에서는
풍산자, 증명면에서는 셀파가 있죠.
- 선 : 기출문제집들을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개념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시
하는 식으로 책을 만들어나가야합니다.

- 면 : 수리 논술 교재(예컨대 남호영) 같은 것부터 시작해 각종 기출을 보면 됩니다.

당연히 이 글은 간혹 책을 쓰면 되지 않겠냐하는 허대장에 대한 디스인데요, 이건 허대장이 책을 쓸 능력이 없다... 가 아니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전에 제가 차트식 수학 구입을 권장해서 사보셨을 건데, 거기서 눈여겨볼 게 바로 '해설'입니다. 차트식 수학은 한문제 해설도 정말 일본인들의 장점이 묻어날 정도로 꼼꼼히 적어둬서 그걸로 개념서가 필요없게 했습니다. 이제 일격 A형 다 팔렸다니까 말씀드리면, 일격 A형 해설도 그런 식으로 더 보강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내년에 다시 치는 분이 없길 바라겠지만 다시 시작하신다면 기출을 보면서 본인이 참조하는 교과서나 검증된 기본서를 유기적으로 참조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 제시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는 – 뭐 여긴 훔쳐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제가 싫어하는 교재 저자라도 베끼라는 차원에서 제시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보는 기본서 – 정석도 좋고 교과서도 좋고 아무튼 그 중에 하나를 허대장님이 정하십시오. 그 다음 일타삼피를 내건 일격을 낼 때, 해설에 책 참조 페이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가령 30번 기하와 벡터 문제, 쎈수학 기하와 벡터 p.xxxx : 이렇게 말이지요. 아마 이렇게 참조만 하는 건 해당 출판사들이 확실히 반대하지 않는 한 오히려 고마워할 것입니다. 교과서에만 들어있는 내용이라면 뭐 그건 인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외의 경우라면 학생들이 많이 보는 기본서를 가지고 표시해주면 이건 상호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굳이 억지로 기본개념서를 집필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당해년도 EBS 수특, 수완과 연계시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만.

+ 일단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 난 수학이 싫다하는 경우는 머리보다 책을 의심하시길 바랍니다(만약 공부를 하는 경우라면요) 1등이 보는 교재 따라

본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소화 못 시키면 꽁나죠. 어려운 교재 보지 말고 쉬운 교재 골라보는 게 장땡입니다요. 정석을 굳이 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17 그냥 평상시대로 하십시오.

2015.11.05

제가 수험사이트 쪽에 꽤 비판적인 이유를 적어보겠습니다.

- 첫째, 수험이 뭔지 잘 모르면서 허세를 떠는 경향이 있다,
- 둘째, 별로 실전적이지 못 한, 비현실적인 낭만주의를 강조한다.
- 셋째, 실전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장사에 혈안이 되어있다.

작년 말에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보통 이 기간은 공부기간에 가산하지 말라는 거, 이거 실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멘탈이 알아서 부서지거든요. 이거 매년마다 보이는 현상이라서 별로 새로울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만약 님들이 수능날이 12월이라고 착각했다면 지금 긴장되거나 공부가 안 되거나 포기할 마음이 들까요. 갑자기 수능이 15일 뒤로 연장되면 우왕 기회다 하면서 달릴 사람은 달릴 것입니다. 즉, 이건 마음의 문제란 겁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압박이 되느냐.

전 시험 한달 전에 오프 모의든 실모든 그런 건 더 이상 추가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콕콕도 올해 친 모양인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실제 도움이 되느냐.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잘 나온다고 수능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수능을 잘 칠 사람이니까 그것도 잘 나온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것이 수험생들 마음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다주고 쓸데없는 낭만주의를 부추깁니다.

사실 시험은 그냥 '내일'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얘기는 즉, 지금 일주일이 남았건 3일이 남았건 달라질 건 없다는 것입니다. 수능은 지식의 암기량으로 치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기본적인 걸 똑바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시험날 얼마나 집중이 잘 되어있느냐 그것이죠. 그럼 눈 부릅뜨고 포스를 발휘해야 집중이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동안 시험 리허설만 출창하면서 시험날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게 조절하면 되지 지금은 뭔 교재 본다 그럴 때가 아니죠.

이렇게 긴장하고 하는 건 올초부터 여름까지 그랬어야하는 거지, 지금은 오히려 이완을 하면서 여유롭게 시험대비를 해야할 차입니다. 막판 정리한다 뭐다 하는데 지금 괜히 후까시 잡고 긴장해보았자 그거 일주일 못 갑니다. 오히려 소집일날 맥이 확 풀려서 더 맛이 간다니까요.

원양어선 냉동고 이야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운나쁘게 냉동고에 갇혔는데 나오지 못 합니다. 자기가 죽어간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정말 얼어(?) 죽습니다. 나중에 문을 열어본 동료들은 놀라죠. 자기 동료가 냉동육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냉동고가 꺼져있어서 그 안은 '상온'이었거든요.

실제로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은 지금 연초에 비할 데가 아닙니다. 실력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놔가 그만큼 단련되어 있지요. 왜 불안하나? 그거야 지금은 끊임없이 자기 비하를 해서입니다. 그럼 왜 비하를 하나? 시험이 부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 못 하는 못난 놈이라고 생각해야 안정이 옵니다. 사람은 불안할 때 자기 비하를 하면서 '나쁜 결과를 정당화시킬' 준비를 하죠. 하지만 이건 나쁜 방향으로의 진화이고 '노예'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근성이 남아있는 결과죠. '나쁜 결과를 정당화시키'는 건 혼나기 싫어서입니다. 즉 남들은 과거에 혼났던 망령에 사로잡혀서 평계 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과가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그렇다고 당장 죽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혼낸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혼낸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도와주지 못 한 주변 사람을 혼내든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빠뜨리거나 그걸 부각시키지 못 한 교재를 혼낼 준비나 하시지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돈도 자기들이 지불하고 공부도 해놓고, 나중에 인강 강사든 교재든 가족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진정 갑(甲)은 공부하는 본인들이지, 공부 안 한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부해도 시험성적인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놀라운 것도 아닌데 뭘 강박을 가지고 주변 눈치를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수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남 눈치나 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밥먹고 숨쉬고 화장실 가듯 그렇게 치세요. 어떻게든 돈이나 벌려는 업자들이나 이걸 이벤트화합니다. 그게 수험생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모르면서요. 수능 끝나고 나올 때 매우 허탈하실 것입니다(n수생은 이걸 기억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쉬우면서 아 그것만 더 공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겠죠. 사실은 정확히 침착하게 문제 읽기만 해도 풀리는 것인데 괜히 긴장하거나 울거나 그래서 풀 수 있는 것도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능 시험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지 자기가 공부한 방향과 약간 '엇갈려' 있을 뿐입니다. 화제가 되는 문제는 늘 새로운 것이어서 그렇지요. 그렇다면 새로운 문제를 대비하려면? 침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새로운 문제를 푸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선입견이나 지식'이라면 버려야 합니다.

예컨대 수학의 경우만 하더라도 고정관념적인 패턴이 문제풀이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어의 비문학 지문 문제든 영어의 빙칸도 수험생의 고정 관념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케이스이지요. 이건 즉 지금 긴장하고 계신 분들이 강박적으로 암기하는 지식이나 풀이가, 오히려 수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수능 시험을 치를 때에는 오히려 그동안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뭔 뜬구름 잡는 소리냐 하겠지만 수능문제는 정말 뇌에서 알아서 푸는 것이고 우리 의식은 그걸 거들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주일 남긴 지금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비장함? 단단한 각오?

아니면 감동적인 세리머니? 그딴 건 연초에 했어야하지요. 꼭 사람들이 연초부터 봄까지는 여유부리며 놀다가 지금 와서는 바짝 긴장하는데 이거야말로 웃긴 겁니다. 11월 11일에 예비소집이죠? 그 날은 친구들과 가볍게 대화하고 시험장에 다녀오고 그 다음 집에서 와서 가볍게 막판정리하고 푹 주무세요 그럼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가장 중요한 것?

건강관리입니다. 지금 마지막 수능이니 뭐니 그러면서 맹렬히 달리는 거 기특하긴 한데 그러다가 쓰러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공부시간은 최소시간으로 잡고 수능시험 시각대에 맞춘 과목배정으로 문풀하면서 그냥 컨디션 관리를 하세요.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서 점수 나오는 것 가지고 위안을 받고 싶어하겠지만 그건 시험 당일 컨디션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영수탐 모두 약한 것만 골라서 아주 느리게 – 수능시험 시각대에 맞춰서 훑어 보고 여유있게 보내도 좋습니다. 주의하세요, 지금은 감기 시즌입니다. 게다가 수능날은 춥지요. 팬히 막판에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건강 날라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부담감은 문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은 문제를 유연하게 읽지 못 하지요.

저 자신도 현역으로 대학에 들어갔고 나름 공부 잘 하는 인간들 틈에 있었으며 콕콕에서도 작년에 성공한 분들을 정리하면서 보면서 느낀 것 그대로 적는 겁니다. 합격하는 사람들은 뭔 실모 본다 어떤 교재 본다 이런 걸로 후까시 잡지도 않고 이상한 입시교주 승상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교재 정해서 그거 여러번 풀어서 자기 것 제대로 만들고, 정말 '핵심'적인 것만 제대로 스나이핑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오프건 대화해보면 느끼지만, 절대 장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에 비해 느슨하고 심지어 나사가 빠진 경우도 봅니다만, 집중할 때는 제대로 집중합니다. 평소에 느스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집중할 때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에 비해 실패하는 사람들은 참 이것저것 많이 별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감당을 못 해대죠 여러번 n수 하는 이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이유는 '집중'하지 못 해서입니다. 본인은 머리가 나빠서... 라고 정당화하겠지만 틀린 이

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습관'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습관이 잘못된 사람은 하나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여러군데 일 다 별여놓고 수습을 못 해요. 대단히 산만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응시할 때에는 본전 찾겠다고 더 일을 크게 벌이다가 또 말아먹습니다.

이 정도면 메시지 전달은 충분히 되었다고 여기네요 자기가 계획안 것의 절반으로 줄이고, 11월 12일에 풀집중이 가능하도록 이제 심신을 이완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시험 시작에 해당하는 시간동안만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유있게 보내시면서 '감기 걸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당황스러운 문제를 읽으면서도 침착하게 분석해서 그걸 풀어내는 자기 모습을 계속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7.18 운명

2015.11.06

사주팔자가 다 맞나 안 맞나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터넷 덕분에 검증을 할 수는 있다는 것. 점집 50군데를 돌아본 사람이 정작 맞춘 곳은 2곳 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 '확률'은 그냥 원숭이에게 OX를 맡기는 것보다 낫다.

그래도 사람의 운명이란 건 왜 정해져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해보면서 느낀 것. 그건 '익숙함'과 관계가 있어서라는 것이 요즘 드는 생각이다. 불행함에 익숙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으면 불안해 한다. 공부 못 하는 것에 익숙해진 학생은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 불안해 한다. 이게 뭔 개소리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관찰하고 경험한 바로는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다.

유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어설픈 유사과학적 접근이 아닐까. 과학적 접근이라는 건 관찰을 오랜 기간 해보면서 데이터를 축적해보고 가설을

검증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전적인 것이 실제로 검증된 적은 내가 아는 한 별로 없다. 부모가 유전자가 좋아서 자녀가 좋다면, 반대로 부모가 평범하거나 못난이인데 자녀가 좋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부모가 유전자가 안 좋아도 자녀가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면, 부모 유전자가 좋아도 자녀가 안 좋을 수도 있단 얘기가 된다.

정말 제대로 검증해본다면 드라마처럼 의사가정과 서민가정의 자녀가 산부인과에서 바뀌었더라.... 는 걸로 '가정환경'이라는 통제변인 조절이 있어야하지 않나.

예전에 모 프로그램에서 쌍둥이 사주를 검증해본 적이 있다. 일란성 쌍둥이 자매였으므로 ④ 동일한 유전자 ⑤ 동일한 사주 - 그런데 한명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그 결과는?

한국에 남은 사람은 무속인이 되었고, 미국에 입양된 사람은 '대학교수'가 되었다. 이 당시 사주관련한 까페나 블로그에서는 대난리가 났다. 당연히 업자들의 그럴싸한 변명이. 이게 시사하는 바는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라는 이야기이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 그리고 명문학교에 갔느냐 못 갔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자기가 머리 탓을 하는 학생들은 우선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있는가 그로부터 검증해보면 된다. 그냥 검증하지 말고 정말로 공부를 잘 하는 레전드들과 하나하나 비교해보면서 체크해보면 되는 것이다. 사소한 차이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내 입장도 수정해보긴 해야겠다. 내 경우는 어느 교재든 사실 그리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비판한 A~F 교재도 사실 본인이 열심히 본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생각해보니 이건 내가 어느 정도 많은 교재를 거쳐서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단 생각이 들어서 수정해야할 것 같다. 교재도 일종의 환경이라면 '교재 잘못 선택해서 인생 맙아먹은 케이스'가 많다라는 게 논리적인 결론이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얘기해줘

야 할까.

공개적으로 교재 실명을 대면서 칭찬하거나 비판하기 힘든 이유는 현실의 민감한 이해관계 때문이다. 내가 양심과 노력으로 그거 검증해서 얘기해보았자, 당사자 입장에서는 – 어차피 자기는 죄책감 없다, 돈만 벌면 장땡 – 속이 타버릴 뿐이지. 또한 내가 좋다고 했는데 이걸 믿고 선택한 사람들이 정작 그 교재 때문에 망했다고 한다면(사실 교재보다는 다른 이유가 크다고 보지만) 이건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재 추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재가 하향평준화되는 이유. 이건 시장의 축소도 축소지만 한가지 격세지감을 들어볼까. 합리적이 된다는 건 좋은 일인데 이게 과거보다 어떤 의미에선 이번 모 가수 제제 사건만큼 세기말이라고 느껴지는 게 가만히 보면 다들 눈에 표시를 하고 다닌단 것이다. 이거 수험생들은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타락한 내 눈에야 훤히 보인다. 말로는 좋은 문제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건 공산당 독재 하기 전에 농민들 꼬실 때 하는 소리고, 현실은 나중에 자기 교재가 얼마나 많이 팔렸나 그런 걸로 자랑하고 위세떨고 다니는 참 거북한 광경을 보게 된다. 이런 것을 비판하면 ”너 질투해서 그렇지”라는 반응이고 심하면 고소미를 먹기 일쑤인 것이다. 물론 그런 교재들이 훌륭한가....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동화책이 괜히 고전인 게 아님. 그렇다고 그 사람들 실적이 훌륭한가, 내가 보기엔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더 유감스러운 건 그런 사람들이 위세를 떨고 다니니까 지금 수험생들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도 저 존경스러운(?) 선배님들처럼 되어서 교재 팔아서 수천수억을 벌어볼까 그 궁리를 하는 게 보인단 이야 기다. 참교육이 따로 없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수험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교재 만들어서 그걸 팔 궁리해볼까라는 쪽으로 간다면 사실 심각하다. 그렇게 벌어댄 돈, 그 자신이 날려버리는 짚은 시절에 비하면 정말로 풍돈이다. 당연히 돈에 눈이 멀어댄 사람에겐 이런 충고가 안 들린다. 돈은 거짓말아니고 나중에 어떻게든

벌 수는 있지만, 공부와 경험에 투자했어야 하는 그 짚은 시절은 수천억을 줘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 경우는 나중에 나이먹으면 정말 후회들 한다. 그 시절에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움이나 일이라는 게 있다.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참 무서운 것이다. 인간이 운명을 바꾸기 어려운 것은 자기가 익숙한 환경이나 달콤한 금전적 수익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정말 자기가 '폐망하는' 길이라는 걸 안다면 과감히 벗어날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걸 알았다면 그 직전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과감히 미국으로 탈출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미래는 사실 – 자기가 보고싶지 않은 미래일수록 – 매우 터무니없어보여서 무시하기 좋다.

이번 시험을 치르고 결과가 시원치 않은 사람은 우선 '환경'부터 점검해보는 걸 추천한다.

운명을 바꾸는 법 – 소위 개운이라고 한다면 그건 굿판이나 부적일 수도 있겠지만(사실 그리 효과는 크지 않다) 가장 좋은 건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이다. 사주팔자를 신봉하는 입장인 경우도 죽을 운일 때 외국으로 튀어서 겨우 악운을 피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글이 있다. 사는 곳을 바꾸기, 공부하는 곳을 바꾸기.... 이것만큼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없을 것이다. 인강과 실강의 차이도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인강은 혼자 듣는다. 따라서 자기가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도 그걸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실강에서는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을 보게 된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안 하면 뒤처지는 것을 본다**(이게 가장 중요하다) 방에서 혼자 공부하는 건 인강에 준한다. 그러나 도서관에 가면 열심히 책읽는 사람을 보고 거기에 싱크로를 맞추게 된다.

교재가 감성적으로만 쓰여져 있다. 이런 교재를 본 사람은 감으로 문제를 풀 것이다. 교재가 스킬 위주로만 적혀있다. 스킬에만 의존할 것이다. 교재가 논리적이다. 시간이 걸리지만 그 수험생은 논리적으로 문제를 푼다.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쉬워도 자기 환경, 즉 관성을 바꾸기는 매우 어려워보인다. 공부하겠다고 다짐만 하면서도 1년 넘게 안 하는 사람들도 널렸다. 그 사람들은 다시 시작해야지 하면서 교재 주문하고 계획짜는 걸 한 수십 번은 반복했을 것이다.

운명을 바꾸기 힘든 이유가 이런 데에 있지 않을까.

사주팔자를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운명이 정해져있다면 이건 사실 필요가 없다. 운명을 바꾸고 싶어하니까 사주팔자를 따지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사주팔자에는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없다. 단지 언제 좋을지 나쁠지 그것만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세계사는 사실 서양이 동양에 승리한 게 1부다. 지금은 그 서양을 배운 동양의 패자부활전 과정? 자본주의 산업혁명 여러가지 말이 많지만 그것들도 결과이지 근본적 원인은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종교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일부가 얘기하듯 하느님을 믿어서 어찌구 그런 게 아니다. 기독교는 신과 인간이 계약 관계이다. 즉, 인간은 자기가 의무를 이행한만큼 신으로부터 권리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독교의 사고방식이 적극적이고 개척적인 역사의 진보를 낳는데 기여한 것이다. 동양에는 이런 사상이 사실 없다(억지로 정신승리하려고 맹자 이야기를 끌어내거나 양명학을 얘기하지만 다들 한계가 뚜렷하다)

7.19 콕콕에서 교재평할 때 룰을 정해드리겠음.

2015.11.07

과거 게시물 보면서 댓글(?)을 보면 제가 왜 교재평을 구체적으로 안 했는지 그 이유 이제야 이해가시는 분 많을 겁니다.

저야 허심탄회하고 가볍게 글을 써도 두가지 면에서 부담이 되어요.

- 첫째, 그냥 가볍게 쓴 것인데 조회수가 높아진다(... 이거 ○□ 게시판에서 도 그랬음 ... 그런데 그런 내용조차 조회수 높았으면 얼마나 막장이었냐)
- 둘째, 그거 해당 저자들이나 출판사가 보면 가만히 안 있음. 소통은 개뿔, 어찌되었든 비겁한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교재 평을 안 할 수는 없겠고. 이건 안전한 룰이 없나 싶어서 생각해보는데 간단하더구만유. 다음과 같이 적으시길 바랍니다.

1. 칭찬하는 교재는 구체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평해준다 : 단, 이건 권해줄 수 있는 교재에 한한다.

호의적인 비평글은 구매자의 구매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자기 교재 좋다고 하는데 뭐라하는 정신나간 업자는 없겠죠.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건 그래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단점은 구체적으로 사실지적만 하면 되는 것이겠죠

2. 칭찬하지 않는 싫은 교재는 그냥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노 코멘트”, ”언급제외”, 아니면 ”잘 모릅니다”라고 언급한다.

생각해보니 이게 그나마 무난하더구만유. 언급하지 않는다고 고소미 먹이면 그냥 이 대한민국이 정신나간 나라라서 말입니다. 사실 제가 교재 저자라면 누가 깐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명할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나라에는 비정상들이 많아요. 뚝이 더러우면 피해갈 수 밖에 없죠, 그렇다면 위와 같이 그냥 한줄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교재비평글을 쓰라는 게 아니고, 콕콕 회원 분들이 교재 질문을 받을 때는 저렇게 한줄로 답하란 이야기.

3. 교재 비난을 하고 싶으면 추상화시켜라.

가령 ”Z라는 양반은 탐욕스럽고 여자나 밝히고 한두번 쓰레기버린 게 아니고 인성 쓰레기다”라고 익명성으로 적는다면 이거 자기가 Z니까 문제된다고 나서는 정신나간 사람은 없겠죠. 설령 엉뚱한 사람이 자기 욕한 거지라고 갑툭튀해보았자 이건 법과 관계없어요. 다만 추상화라는 것은 정말 철저한 익명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령 ’그 실전모의고사 개쓰레기야, 필적확인문구가 현 정권 비난하는 시사적인 것이었어. 신문기사에 난 적도 있었지’라고 한다면 이건 안경 낀 이토 준지처럼 보이지만 실은 colorful bone으로 알려진 모 모의고사 저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죠. 하지만 반면 ’거창하게 광고했는데 기출만 박아놓았더라’, ’분명 스킬 다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스킬 별로 없더라’ 이렇게 기술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교재값 비싸더라’ 혹은 ’팬들이 많다’도 그렇죠. 이건 엄연히 복수형인지라.

아무튼 최근에 있었던 모 사건을 보고나서 그렇다고 교재 비평 문화를 활성화 안 시킬 수는 없고 어떡하나 하다가 서로 낮붉힐 것 없는 룰을 정하면 된다고 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4번 추상화를 할 때에는 가령 교재 둘을 섞어서 가상의 교재를 가정해서 적어도 되겠고 혹자는 일부러 몇몇 사항들을 바꿔넣어서 아예 논란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한 익명화죠. 그 경우 모 교재로 특정하는 사람 자체가 악플러 이거나 그런 걸 노리는 세력이라는 게 드러날 정도로 말이죠.

앞으로 콕콕 사이트는 계속 성장할 테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동시에 ’악인’들도 적지않게 들어올 겁니다. 조만간 회원등급이나 권한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을 거라고 예고 받은 바 있는데, 저런 룰을 관습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특히 나쁜 교재야 특정할 필요없이 ’나쁜 특징’을 가지고 추상화하면 그것만으로도 정보전달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영진 차원에서도 만약 그런 추상화된 비평글에 특정교재나 강사

지목하는 댓글이 달리면 그건 삭제하고 그 회원은 권한 박탈하거나 차단시켜야겠죠. 이렇게 하면 교재 비평글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정보부족으로 시달리는 수험생들에게 시원한 사이다가 되겠군요.

아울러 문제가 많은 출판사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교재는 '양해 구하고' 금지어로 지정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원수가 늘면 어떤 게시물에다가 어떤 트러블일 날지는 모르겠는데 운영자 분 입장에서는 아주 번거로운 일이 되겠죠. 그렇다고 여기가 상업주의적으로 모업체 교재만 아니면 광고 안 되는 그런 곳도 아니긴 하지만요.

7.20 실패의 원인은 계량 실패

2015.11.09

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주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자주 실패하는가...는 한번쯤 고민할 문제가 있어요. 운이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만, 애당초 통제가능하지 않은 건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게 나음

실패하는 사람들의 실패습관이야 여러가지 많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밸런스가 깨져있단 것입니다.

A라는 프로젝트에 100이 필요, 보상은 1000, B라는 프로젝트에 50이 필요, 보상은 250, C라는 프로젝트에 300이 필요, 보상은 10,0000 그리고 자원이 1000이 주어져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가지 해답이야 나오겠죠. 그런데 오답은 지적할 수 있겠군요. 저기서 **2개 이상 선택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아니 1000이 있으면 $100+50+300$ 을 훨씬 초과하니까 상관없지 않냐 하는 질문이 따르겠죠 이런 질문을 하니까 망한단 것 이죠.

현실은 덧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프로젝트는 반드시 시행착오라는 걸 하게 됩니다. 명목상 A가 먹는 자원은 100입니다. 하지만 이건 '성공'했을 때의 기준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3~5번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500 이상을 낭비해버리고,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현실의 모든 작업은 반드시 실패하는 횟수를 전제해야하는 것인데 똑똑하고 욕심많은 사람일수록 이걸 고려하지 않죠. 실제로 이런데 A, B,C까지 다 했다면? 1000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게다가 집중도 못 하고 실패는 더 늘어나니 자포자기하게 되죠

둘째로 자원소비는 산술평균적으로 이뤄지진 않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수험 이야기를 한다면 2등급에서 1등급 올릴 때 10시간이 필요하면, 1등급에서 만점권까지 가려면 10^2 시간이 필요합니다. C는 명목상 300입니다만, 실제로 진행하다보면 300이 더 늘어나게 될 때 이게 1차 함수가 아니라 지수함수 꼴로 늘어납니다.

셋째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계속 생긴단 겁니다. A를 했다가 실패했다고 칩시다. 그럼 실패한 A를 정리하는 프로젝트 A1, 다시 재도전하는 A2, 그리고 실패 원인을 뿐리뽑는 D 프로젝트가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 프로젝트 하나는 절대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도 진행하다보면 꼬리치고 새끼치면서 일감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만회하는 건 '학습효과'겠죠.

n수생들의 실패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목표 계산을 잘 못 한 것이 가장 큽니다. 멀리서 보면 에베레스트 산도 손바닥 안에 들어가죠. 그러나 실제로 등반을 하면 헛ㄷㄷ 예쁜 여자도 사귈 때는 행복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여자가 흔한 동네 미용실의 욕지거리 아줌마로 진화하는 건 삽시간입니다(그러니 2D로) 문제집은 한권이죠. 그러나 대략 500문제가 있고, 여기서 오답이 150문제이며 모르는 문제가 30개면 프로젝트는 180개로 증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하죠. **가장 자원이 적게 드는 것을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은 낫지만 그건 확실히 내 자본이 되기 때문이죠.

한데 수험생들은 올해 수능을 치고 또 1년이란 기간이 주어진다고 착각들 하겠죠(자기 청춘을 깎아만든 시간인데) 아마 올해 학습하신 분이 있어 몇몇은 정신들 차리겠지만, 그래도 또 허송세월하며 3월까지 날리는 사람 분명 있습니다.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에베레스트산이니 꼭대기까지 금방 오른다고 착각하게 문제건만 그런 건 고려 안 하고 공부는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는 둥 머리가 나빠서 그런다는 등 원인을 엉뚱한 데 찾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콕콕에 계시죠. 그리고 정상적인 과정들 보입니다. 제가 봐도 미친 듯이 공부했는데, 지금도 덜 공부한 것 같다고 그립니다. 예, 이게 정상입니다. 이 분들은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서 산소부족으로 허덕이는 것이거든요. 반면 얼굴빛 좋으면서 아, 이번 시험 어쩔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산 언저리에서 쉐르파와 노가리끼며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은 가장 편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년에 또 치고 내후년도 갈테니까요. 그 빛은 이자쳐서 깊게 되어 있죠.

필승해법은 '적의 수를 줄이고 다수로 포위해서 섬멸한다' 즉, 각개격파죠. 일대일로 싸우면 멋져보이지만 죽을 위험도 높죠 그러나 비겁해(?) 보일지라도 30대 1로 승부하면? 평화적으로 마무리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일대일 승부, 혹은 일대백 승부를 선호합니다. 당연히 죽죠.

공부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일찍 합격해 가는 사람들은 꿈은 크지만 욕심은 적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려 합니다. 하지만 성급히 올라가지 않죠. 차분히, 늦게, 소극적으로 계단까지 만들고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올라가므로 추락하는 일은 없죠. 그 반대로 욕심이 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바로 실패란 말을 이마에 써두고 있습니다. 마린 2명을 히드라 30마리에 보내는 미친 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 수험은 '낭만'이 됩니다. 왜냐고요? 실패를 포장이라도 해야하니까요.

상담쪽지 보내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하고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크게

욕심내지 말고 ”작은 것”부터 확실히 끌장내라. 너무 당연한 교과서적인 이야 기지만 실천하기는 가장 힘듭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사자 한마리를 사냥하다 망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사자 12마리를 한마리씩 공략해서 성공합니다.

7.21 기싸움

2015.11.09

”우리가 사는 곳은 현실인가 가상인가”

여러가지 썰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수만장의 논문이 나오겠지만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엄밀히 따지면 현실 그대로가 아니죠.

우리의 뇌를 통해 인지하고 재구성한 **가상현실**이죠.

수능시험을 앞두고 왜 멘붕하게 되느냐. 싸우고 싶지 않아서 평계를 대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험생이 군주, 장수라면 싸우고 싶어서 웅장한 bgm이 깔리면서 의욕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우리들은 대부분 양민, 노비들의 자손입니다(족보 그거 구라인 것 다 알죠? 진짜 양반 별로 없어요) 얻어맞고 학대당하던 그런 하층민스러운 기질이라는게 유전되어서인가 힘든 상황이 오면 포기할 준비부터 하죠. 왜 평계를 대느냐, 그래야 떨 혼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세팅해야하는 건 ’냉정하게 킬러문제를 스나이핑’하는 전투 게임으로 가야하는 것입니다.

1. 공간의 장악

수요일에 예비소집한 다음 장소 통보 받겠죠. 아주 멀지 않다면 시험장소

에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가서 내가 내일은 뺃속까지 다 짜내서 높이 올라가겠이라고 선포하고 오면 됩니다. 간혹 곳곳에 부적을 붙이거나 콩팥을 뿐리거나 심지어 몰래 노상방뇨까지 하는 케이스도 있던데 뭐 그건 제가 권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의식을 치르는 것부터가 호랑이가 영역권 표시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니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시험 당일에는 무조건 일찍 가신 다음 시험치르는 교실의 복도를 다 걷고 화장실에서 용변보고 거울보고 썩소 짓고 하시길요. 주변 공간을 왜 스카우팅하느냐. 그래야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낯선 공간에 있으면 경계심을 발휘하므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자기가 정확히 어떤 공간에 앉아있으며 주변에 어떤 지형지물이 있느냐를 알고 나면 더 이상 그 주변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2. 시간의 장악

시험시각에 맞춰 해당 과목을 푸는 리허설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6시에는 일어나셨을 거라 믿겠습니다만 화, 수요일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세팅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시각에 맞춰 반드시 해당 과목을 공부하거나, 설령 수업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국어 시간이야” ”지금은 수학 29번으로 내가 $n+1$ 을 하면서 가슴앓이할 시각이지”라고 중얼거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시험 전날은 10시에 무조건 주무세요. 화, 수요일에 일찍 일어났다면 잠이 안 올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자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11시 넘어간다... 새벽 1시, 2시까지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시험날 발휘해야 할 정신력과 체력을 이 때 낭비하는 불상사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더 일찍 자서 당일 새벽 4시, 심지어 3시에 일어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서 문풀하고 시험 리허설 치고 수능장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올빼미들은 일어난 다음 한참이 지나야 컨디션이 좋아지니까요. 수능시험이 끝난 뒤에 커챗 와서 나 인생 어떡해 그러지 말고, 시험 종료가 되면 탈진 상태에 빠질 수 있도록 세팅해놓으시길 바랍니다.

3. 음악의 장악

벌써 암울맨 링딩동이 떠돌아다니고 있던데. 그보다도 아침마당 bgm이 더 위력적이죠.

정 안 된다 싶으면 평소에 듣던 음악을 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까지는 음악 중에서도 우울하고 슬픈 걸로 가시면 됩니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음악을 들으면 오히려 뇌에서는 이런 데 쓸데없이 호메오 스타시스를 발현해 우울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슬프고 우울한(한편으로 차분한) 음악을 들으면 뇌에서는 긍정적으로 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악이 대리 비관을 해주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울한 게 사라지는 것이죠.

단, 노래가 들어간 음악은 절대 안 됩니다. 게임 bgm이나 military music 같은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음악 자체를 안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힘들면 그나마 나은 걸로 덮어씌우란 것입니다.

4. 수험사이트

올해 망했다고 다른 친구들 발목잡는 사례들 벌써 보입니다. '캐스랙'이라고 욕한사발 하고 접속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5. 잠재력의 발휘

내 무의식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신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실제로 문풀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무의식입니다. 문제를 푼다는 건 엄밀히 말해 뇌에서 알아서 풀도록 우리가 '잘 읽는' 것입니다. 문제해석을 정확히 한다

면, 그리고 문풀절차만 지킨다면 문제는 저절로 풀립니다. 공부를 했음에도 문제를 못 푸는 건, 당사자의 뇌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까지 공부가 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이 문제를 잘 해독하지 않아서 그렇고, 그 다음으로는 절차를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해석과 절차 이게 안 되면 10년간 공부해도 수능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100% 안전성을 보증하면 무의식은 편하게 발동함으로써 문풀 아이디어를 쏟아냅니다.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부정확하게 문제를 읽거나 절차를 안 지키면, 무의식은 발동하긴 커녕 사려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어차피 수능시험은 10문제 중 9문제는 님들이 아는 문제, 1문제가 모르는 문제입니다. 9문제 중 3문제는 그냥 푸는 문제, 3문제는 실수해서 망할 수 있는 문제, 나머지 3문제는 살짝 꼬아낸 문제입니다. 현재 출제 경향으로는 누구든 저 1문제에서 당혹스러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선 누구나 출발선이 똑같습니다. 아울러 실수할 수 있는 3문제, 살짝 꼬아낸 3문제는 시험당일날 맑은 정신으로 해석만 잘 하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참고서 볼 때가 아니라 위 1~5를 정확히 준수하실 때이니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믿건마말거나인데 구석기 시절 제가 수능을 칠 때, 전 그 추운 날 시험장에서 반팔로 조깅을 했고 수돗가에서 일부러 머리를 감고 세수를 박박한 뒤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낯선 곳과의 기싸움은 선방했죠.

물론 저러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또 생각나서 적는다면 웃 두껍게 입지 말고 반팔+얇은 상의+얇은 외투. 이런 식으로 여러겹 입고 가시고 양말도 두겹 신고가시길요. 난방에 따라서 추워질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으니 이거 가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골치아픈 게 발이 추운 건데. 발은 따뜻할 수

록 좋으니 양말 2겹 신고가는 건 매우 권장할만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뜨겁게.

7.22 검증되었네요.

2015.11.12

어제와 오늘 새벽에 계속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무엇이 옳은 공부 범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자뻑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예측한 것이나 충고한 건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그래서 말을 삼가야겠습니다. 이 때가 위험하니까)

1년 정도 지나면서 그 공부법을 실천해서 성적을 올리거나 목표를 이루지 못 했더라도 전진한 케이스들이 있으니 이제 이 분들이 '영리목적과 관계없는 순수한 학습공동체'를 일궈나가시면 되겠지요.

몇몇 분들이 돈과 관계없이 왜 이런 걸 상담해주느냐에 대한 답변은 **투자가 폐자부활전 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확인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제 인생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악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매우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을 위하는 척 하면서 곤경에 빠뜨리는 자들.

상담 질문글이 있는데 나는 답변해드리기 어렵고 한꺼번에 글로써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이고, 어제 시험에 응시해서 썰을 푸는 분들의 글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증된 것

1. 인강 쪽까, 양치기 만세
2. 일지-상원 시스템의 효용성

3. 시험 일주일 전 컨디션 관리의 효과

4. 실모 무용성

5. 뇌를 믿어라.

작년에도 비슷한 주장을 했고 반론이 많았으나, 올해 콕콕 수험생들로 이건 확인되었네요. 특히 5번은 그걸 항의하는 사람조차도 본인이 철칙을 어긴 게 과학적(...)으로 밝혀져버렸습니다.

7.23 장사철과 광고시즌 시작이군요.

2015.11.15

속을 사람이야 속겠죠. 사실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겠죠. 4점짜리 어떻게 푸느냐 그러신 분들 많을 건데

- 마풀
- 쎈 등의 개념서
- 일품, 라벨 등의 좀 수준높은 문제집

이걸 다 풀어보고, 그 다음 교과서 읽어보시면서 '문제해결의 전략'이란 것을 쭉 생각해보면서 그걸 풀어보는 훈련 하는 것 빼곤 답이 없습니다.

적중적중거리는데 정작 그런 식으로 100%면 마풀이겠죠(별 문제들이 다 들어가있으니) 자꾸만 무슨 적중거리는데 그 논리면 적중 안 하는 문제집들 없고, 설령 그런 것 산다고 해도 공부 안 하면 아무 소용없으며, 무엇보다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적중 기준으로 따져도 적중 안 된 실모들이 훨씬 많으니까 내년에도 상술에 좀 휘말리지 마십시오.

실모야 보충용으로 푸는 건데 지금은 정말 무슨 인디아나 존스의 성궤, 성배처럼 송상시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너는 마풀을 왜 권하느냐 할 건데 간단합니다. 가성비가 가장 좋은 기출문제집이고 단점은 '분량이 너무 많다' 정도여서입니다.

그리고 광고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학생들만 보지 말고 실패한 학생들부터 좀 돌아보시죠. 뭘 자기 것 봐서 잘 나왔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일부인 것 아시죠? 5명이 성공하면 45명이 실패입니다. 교재가 많이 팔렸다는 건 그만큼 그 교재 고객들 실패한 사람도 더 많아진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교재추천 함부로 안 하는 이유가 이딴 식으로 '교묘한 상술전략' 같은 게 있어서입니다. 그 분들은 이런 데 홍보하지 말고 다른 데서 좀 홍보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사이트는 비영리성 분명 강조한 곳일텐데요. 영리적인 까페는 탑라인 가시면 되지요.

사이트 일궈온 사람들은 영리적으로 교재 홍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자기 공부 고민 털어놓고 이걸 극복하고자 한 사람들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특정 교재 좋다라고만 하는 분들은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7.24 문제 평

2015.11.15

어떤 교재가 적중했더라... 는 건 적어도 제 기준에서 보면 없습니다(그 기준대로라면 기출은 100% 적중이겠죠) 올해 A, B형 퀄러문제라는 것을 다시 풀고 훑어보고 정리해보았는데 홍보하느라 떠들썩한 곳과 달리 네이버 블로그들 검색만 해봐도 별씨들 괜찮은 풀이들 올려두고 알아서들 하네요

1. A형 30번 지수와 로그 같지만 실제로는 '부등식의 영역'(고1 수학) 문제입니다.
2. B형 21번 역함수 미분, 그리고 그래프에 의존하지 않고 함수의 방정식화로 근을 구해 케이스 나눈다는 점에서 역시 고1 함수 문제입니다.
3. B형 29번 14년도보다는 그래도 나아진 벡터 문제입니다. 이건 너무 오소독스해서리, 장점이 뭐냐면 14년도와 달리 단면화 찍기가 안 통했어요
4. B형 30번 이 문제야말로 패턴, 업자들 풀이로 가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수의 '설계'에 관한 문제이니까요.

간략히 말해서 새로운 건 없어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이 없지 않네요. 고1 수학이 제대로 안 되어있으면 저 문제들 중에서 29번 제외하고는 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다수가 고1 수학을 대충 넘기고 이상한 스킬이나 특정한 풀이 같은 데 집착하다가 수능 뜨면 양 죽어버리죠. 퀄러 문제들은 패턴이고 스킬이고 안 먹힙니다. 원초적으로 문제에 쓰인 모든 조건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연상할 수 있는 모든 기본 개념들을 동원하면서 모형을 설계해나가야합니다.

A형 30번의 경우도 범위 잘 잡아서 그래프들을 설계하고 그걸로 그림 잘 그린 다음 문제의 목적이 최단거리임을 알면 풀 수 있었습니다. 다만 숫자들이 기죽이는 게 있어서 격자점만 기대한 친구들은 나가리났겠죠. B형 21번은 이거, 사실 국어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좋다고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수식적 표현을 의미적으로 파악하는 훈련이 되어있으면 바로 풀지만, 그게 안 되어있으면 패턴스킬질이나 하다가 안드로메다로 갔겠죠. B형 29번은 사실 14년도에 나왔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굳이 평할 건 없겠고 B형 30번도 매우 좋은 문제인 게 특정 논점에 치중한 스킬 풀이가 아니라, 논점들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모형을 잘 만들고 검증해보는 접근 방법으로 가면 아주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학교든 학원이든 과외든 배우기 힘들 것입니다요. 특히 B형 30번은 보면 볼수록 좋다는 평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제대로 탈폐탄화 아니면 정말 힘든 문제여서입니다. 본인이 문제에 혼혹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다양한 논점들을 자유롭게 논할 수 있어야 풁니다.

기출에서도 굳이 안 나온 거라면 30번 정도일 겁니다, 비슷한 문제는 올해 6평 30번 정도. 내년부터는 이 30번 비슷한 것들 – 즉 단원에 얹매이지 않는데 학생들의 수리모형 만들기를 강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걸 대비할 수 있는 교재가 있나.... 글쎄요. 함수를 직접 만들고 설계 한다라는 일종의 함수모형화에 관한 직접적인 교재는 발견하기 힘듭니다. 간접적으로 제시한 건 있을지 몰라도. (어째 그런 교재가 없지는 않다는 생각인데 좀 찾아보아야겠습니다) 고1 수학부터 바탕이 철저히 되어있고, 본인들이 직접 문제출제 같은 걸 해본 사람은 잘 풀었을지 모릅니다. 30번 자체가 국어로 치면 일종의 작문을 요구하는 즉, 논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런 문제가 나오면 '맨땅에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맨땅 문제죠. 특별한 스킬이나 암기사항이 필요한 문제들은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A형 30번이 요구한 건 그래프화 - ; 케이스 나누기 - ; 부등식의 영역이었고 B형 21번은 함수 그래프의 해석에다가 역함수 미분 B형 29번은 그냥 벡터 조작 B형 30번도 등장한 논점들로만 치면 깊은 건 없음.

어차피 이걸로 썰 풀기는 그렇고 공부들 하시려면 기출 신판 나오면 뭐 빨랑 정리하고 시중교재들 다 풀건 푸시는데 그 다음에 수리논술 문제들 한번 건드려들 보시기들.

현실적으로 인강 고르시겠지만 (추천해달라 가르쳐달라 댓글은 삼감) 패턴화, 유형화되는 건 피하시고 구태의연한 것도 거르시고 올해 30번 같은 걸 잘

대비해주는 것 고르시면 되겠죠.

7.25 고1수학 투자하시기들 바랍니다.

2015.11.15

일전에 고1수학이 중요하다고 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뭐 그건 예측이 맞다할 게 아니라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원래 고1 수학이 수능 범위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총론'이기 때문입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 행렬, 지수로그, 수열, 미적분, 확통, 기하는 "각론"이었죠.

총론은 고교수학 전체를 가로지르는 공통적인 내용, 각론이야 각 분야의 지엽적이면서도 개성있는 내용을 말하는 바입니다. 총론이 제외된 건 이건 '각론'의 내용으로 포함시켜 출제하겠다는 것이지요.

개정과정에서 수2는 문과수학 범위지만 이과수학 범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수2가 이과수학에서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총론적'으로 출제된다는 것, 즉 다른 각론에 포함되어서 출제된다는 이야기이지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니죠.

최근 3년간 수능출제에서 특기할 것. – 직관수학 멸종 : 직관수학으로 해결 한다거나 하는 거 신기하게도 소리없이 사라졌습니다. – 스킬필요 급감 : 행렬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케일리나 로피탈 논쟁도 없습니다. – 연속된 통수 : 국어나 영어도 그렇다 치고 수학도 키러는 잘 보면 고1수학. 문과 수학 30번은 격자점 냈다가 부등식의 영역.

통수에 대비하려면? 그러니까 시중에서 말하는 출제경향대로'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평가원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격질하는 것이지요.

이름난 실모들만 가지고 특정경향만 공부한 A 교과서나 시중교재로 전범위
다 기본을 공부한 B 물어볼 것도 없이 B가 유리합니다.

하도 문과 수학 30번이 어렵다라고 해서 오후에야 자세히 보았습니다만. 감
상 3가지

1. – ”고 1 수학 정말 공부 안 하셨구나”
2. – ”A형 수학도 변별력 갖추긴 어렵지 않겠네”
3. – ”갓가원과 EBS가 사설 능가했구만”

지금 EBS 비난하는 사람들 없고, 올해 시험 이후로 평가원이 물수능냈다고
하던 입공부들 싹 들어가버렸죠.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범위 상관하지말고 고1수학 철저히 하시고 특히 고1
수학 어려운 문제, 사정없이 풀어버리길 바랍니다.

공부하다보미면 위에서 말한 각론 – 즉 지수로그함수미분적분학통 그런 것
들은 결국 고1수학에 뒤집어씌우는 스킨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7.26 ebs 인강을 완강하고 사설 들으세요

2015.11.16

지금 도저히 공부할 방법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요.

그냥 ebs 들어가서 강의 따라가십시오.

1. 공짜이며 다운받을 수 있다.

2. 선별수강 가능하고 환승해도 된다
3. 강의력이 이미 일부 강의는 사설을 능가한다.

요즘은 안 듣습니다만 한참 인강 연구(?)할 때 처음에는 사설을 들으면서 오거렸는데 나중에 EBS를 들으면서 오오오오오오웃 거렸고 그 때 내린 결론은 '사설 함부로 듣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설강의 뭐 들을가. 본인이 EBS 강의 완강이라도 해보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강의 듣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수강한 강의 '완강'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인강의 문제는 딴짓입니다. 35분 강의 한 15분 들으면 살짝 쉬다고 웹서핑하다가 30분 날려먹고 그러고 있죠. 인강 듣지 말라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막고 싶다?

파일 다운받은 뒤에 인터넷 끊고 보거나, 아니면 맷폰으로 옮겨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강사가 좋냐. 그런 질문은 하지도 말고 사실 그런 것 따지지도 마세요. 그런 것 따지는 친구들이 성공하는 걸 본 적도 없습니다.

7.27 수험판의 세뇌

2015.11.16

교재와 인강 추천 글이 콕콕에 함부로 올라오지 않길 바라는 궁극적인 이유는. 제 눈에는 최소한 이 판은 제정신이 절대 아니란 겁니다.

인터넷 없이 동네서점에 나온 교재 꾸준히 공부하면 목표성취했을 친구들이 괜히 끌교재 끌인강 찾는다고 서핑질하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특정 교재, 인강의 광신도로 전락해버리는 걸 많이 본다 그거죠.

작년부터 적지않게 상담은 했고, 콕콕 내에서 아니 저 대머리 늙은이는 왜 이렇게 사람을 단정지어... 그러실 건데 그런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를 것 같지만 '실패'하거나 '하류'로 전락하는 보편적인 패턴이라는 건 존재하고 그 중 하나가 저 '세뇌'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은 그 세뇌를 하는 자들은 많이 벌어들이고 있으며 그런 세뇌를 고발하는 것 자체를 일체 차단하려한다는 것이죠.

만약 상담을 하려면 이런 질문이 와야죠 ”생1을 50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올해 수능 B형 30번을 시간이 걸리지만 안정적으로 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정작 질문은

”~ 교재 좋아요?”

”~ 인강 듣고 싶은데 어떡해야하죠?”

....

수험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저런 질문을 하지 않겠죠.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결국 나쁜 정보에 노출됨으로써 그 자본의 먹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나쁘다 싫다 노오력해보았자 뭐하냐 가서 시위하자? 다 좋은데 한마디로 웃기고 있네요입니다. 본인들이 이미 상품의 노예이고 광고에 계속 영향받고 있는 것조차도 해결 못하면서 뭘 자본주의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제가 해주는 상담의 요체는 재미없습니다. 비만환자들에게는 ”기름진 것 덜 먹고 운동을 하라”라는 재미없는 조언이 유일한 해결책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환자들에게는 ”걍 검증된 교재나 보고 인강 줄이고 문풀 오답 정리 충실히 해라”가 되겠습니다. 물론 양치기를 해도 안 되는 특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그런데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란 게 있더군요.

세뇌를 느끼면서 답답한 건 이것이죠.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제가 보기엔 성적이 안 오른 건 그 사람들이 마케팅에 세뇌당해 구입하게 된 '교재 탓'이 크거든요. 비만 환자들에게 야, 네가 지금 우걱우걱먹고 있는

햄버거부터 스팩통에 넣으라고 하는 게 속시원한 해결책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다들 화내거나, 뺏기기 싫어서 더 쳐먹기 시작하겠죠.

방금도 인터넷을 서핑해보니. 역시나 아니나다를까 또 호구들을 낚기 위한 밀밥깔기 언플이 시작된 모양이더군요. 내년에 망하기 싫은 분들은 콕콕에 올라온 성공기든 실패기든 진짜 수험을 치열하게 하신 분들께 직접 여쭤보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겠죠. ”그럼 너는 왜 여기서 찌질대냐?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저야 이렇게 답하죠. ”어차피 호구들이 그런데 낚여줘야, 즉 깔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남들이 올라갈 수 있음”

7.28 중하위권이 희망이 없을 리는 없고

2015.11.16

뭐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사온데 적어도 제가 관찰한 바는 그럼. 중하위권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ADHD, 공황, 인지 장애가 있는 경우 : 문제는 이걸 본인과 가족도 모른다는 겁니다.
2. 공부한 걸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 한 경우 : 이것도 복합적 문제로 나뉩니다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한 경우라고 해야겠죠.
3. 학은 하는데 습(習)이 되지 않은 경우 : 보통은 업자들에게 낚여서 학은하는데 습은 못 합니다.

일지를 분석하든가 상담을 해보면 공부한 양과 질, 그리고 성적은 비교적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제 시각에서 보면 ’잘 되는 이유’

와 '못 되는 이유'란 건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그거네요. 암세포도 생명인데... 라고 암세포에 정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시험지만 봐도 숨이 가빠오는 친구는 숨이 안 가쁘면 초조해하고 생각하는 법을 못 배운 친구는 생각하는 경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번 인강에 중독된 친구는 끝까지 인강만 따라가려 합니다. 그래서 문풀 경험 이 부족하니 실전에서는 발리죠.

중하위권을 상위권으로 올리기 힘든 이유는 노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학습자 본인이 그 상태에 너무 친숙해져서, **변화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즉, 기존의 자신을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고향 떠나기 싫다 그겁니다. 심지어는 스톡홀름 증후군도 아니고 그렇게 공부를 못 하거나 계속 실패하는 사람으로 간다 죽겠다는 생각까지 하죠.

상담 청하는 분들은 부디 교재나 인강 그런 거나 질문하지 말고 자기가 바꿔야하는 것이나 청산해야 할 악습이 뭔지 그것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악습을 고치지 못 하니까 **노력해도 안 됩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만 그 악습의 정체가 비로소 드러납니다만요.

7.29 +1수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2015.11.16

입시 상담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한 수작인 경우가 많다는 거야 아시겠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인간을 이해하고 그 인생에 개입해서 부정적인 걸 잡아내고 치유한다... 를 통해서 저 역시 인간을 탐구하고, 또한 그럼으로써 저 역시 제가 상실했다고 느낀 걸 치유하는 느낌을 받는다가 더 강합니다. 다만 제가 선택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깊이 들어가보면서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이론바 감정이입이라는 걸 안 할 수가 없고, 뭔 중2병스러운 이야기냐 하겠지만 데미지를 입지요.

화두 중의 하나가 왜 장수생들이 피폐해지느냐입니다만.

원론적으로 말하면 장수생들은 잘 이끌어주는 구심도 필요하지만 1번 실패하면 사실 본인도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그로써 온갖 성격적 변화를 거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콕콕 사이트가 이 점에서는 자부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남의 상처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건 아직 없는 것 같고(홍보질은 강경하게 까고보는 것, 이거 유지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공부한 사람들끼리 솔직히 사연을 털어놓기 때문에 힐링이 된다는 것이겠죠.

님들이 +1수를 고민한다면 이건 단지 다시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재수에서 삼수, 삼수에서 사수로 가면 반드시 상처를 입습니다. 실패는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한 이유를 분명히 직시하고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데도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밟아둬야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를 정말 제대로 계산하고 움직여야합니다. 즉, 실패의 인정과 고찰, 아울러 성공을 위한 과정의 치밀한 설계. 이게 없이 +1 수를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치료하지 못 한 상처가 결국 깊아버리기 때문이지요.

교재를 추천해달라 인강이 뭐가 좋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환자**들입니다. 반면 생각없이 무조건 교재, 인강 홍보해대는 사람들은 장삿꾼들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착각하는 건데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얼마나 자기들이 나쁜 짓을 저질렀나 느끼면 죽고 싶어 질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수입이 들어올까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고소득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혈안이 되어있겠죠. 그냥 한마디로 제정신들이 아니죠.

상담하다보면 안 맞는 교재나 인강 구입하느라 아까운 시간 날리고 상처입은 케이스를 정말 많이 접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상품을 샀는데 성적이 그 따위로 나왔으니 이건 자기 탓이 아니냐고 자학하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걸 접하다보면 정말 장삿꾼들에 대해선 좋은 감정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1수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가면 '자살'까지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담

할 때에는(이것도 피곤해서 저도 어지간해선 피할 겁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할 수 밖에 없고, 내가 그 사람으면 어디서 상처입었거나 실패했나 다 이입해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장삿꾼들은 한번이라도 자기들이 '자살까지 몇발자국 남은 학생들'을 가지고 장난질치나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보지요. 저는 얘기할 때마다 이 친구가 죽으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수백번은 해보았는데 말입니다.

+1수를 권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마 오해한 분도 있겠지만요. 권유한 분들은 일지나 그간 행적으로서 제가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실패했다면 그 실패한 이유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패한 이유가 분명하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 이유를 제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상처를 극복하려면 일단 성공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충고한 걸 듣고 바로 시작하는 분들은 수능 보기 전 그 피말리는 기분, 다시 살리시길 바랍니다. 1년이 늘어났다고(?) 해서 여유부리겠지만 그래선 안 됩니다. 11월 초에 느낀, 전신의 피가 메마르는 초조함을 다시 살려야합니다. 남들이 비아냥거리든가 가족이 눈치주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 님 인생 책임져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전신장애가 되더라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니면 무시해도 됩니다. 실패했을 때 비아냥대던 사람이 있으면 성공해서 다시 만나면 됩니다. 말 못하고 억지로 칭찬하면서 속으로 부글부글대는 걸 즐기면 됩니다.

이 지겨운 수험을 더 해야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1년이란 시간을 더 가치있게 쓰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험이 그럼 시간을 무가치하게 보내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자기가 진정 바라고자 하는 것을 노오력해서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면 그건 매우 가치있는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것을 이룬다면 그 뒤로 인생은 (당분간은) 매우 충만해집니다. (왜 당분간이냐면 인간은 또 간사해서 언제 그랬다는 듯이 자만하고 다시 나태해지기 때문입니다)

+1수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자기가 괜찮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올해 실패했

다면 그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그 상처가 곪아서 자신이 잠식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수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종종 힘들 때마다 상당히 정신적으로 괴로워합니다. 자기가 실패자, 낙오자라는 생각 때문에요. 이걸 치유하는 방법은 ”실패”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제대로 했으니 그 반대로 나아가 성공도 할 수 있음을 차분히 바라보면 됩니다. 1년이란 시간을 가치있게 치열하게 보내면 시험 당일 ’뇌가 알아서 문제를 풀어주니’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몇발자국 떨어진 곳에 있는 사신(死神)도 의식하길 바랍니다. 인간은 실패하면 모든 걸 리셋하기 위해 어리석은 선택, 즉 자살을 하는 충동을 받습니다. 자살하지 말기 위해 열심히 하라, 혹은 무한긍정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터무니없는 사건일수록 매우 익숙한 일상이 될 수 있으니, 긴장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님들은 내년에 적어도 3~4번은 자살충동을 받을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엉엉 울고싶다, 그냥 산에 들어가고 싶다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건 냉정히 말하면, 공부하기 싫어하며 주인을 배반까지 하는 뇌의 ’변덕’이기도 하고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오면 알아서 먼저 쉬거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도 해야겠지요. 시험볼 때까지 말 안 듣는 뇌와 계속 싸워야할 것입니다. 시간내서 자기가 내년 수능에 실패해서 안 좋은 충동을 받아 정말 자살했을 때... 를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그런 안 좋은 충동에 휩싸였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상상하면서 **미래를 과거형으로 복기해보는 것도 권해볼만합니다.**

1년 전과 달리 콕콕이 좋아진 것이 있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 협조적으로 나아갈 수 있단 것입니다. 작년에는 일지를 일일히 체크해주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진지하게 자기 수험경험을 늘어놓고 조언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관리’해주고 ’따끔한 지적’을 해줄 수 있는 동료들을 찾으시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겐 한 없이 관대하나 남에겐 엄격합니다. 본인은 시간관리를 못 하고 한없이 늘어져도 남의 공부에는 매우 엄격하고 현명한 관리를 해주지요. 이런 것을 이용하려면

타인과 손을 잡는 것도 매우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울러 상대가 괴로워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걸 도와주다보면 자기의 문제도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제가 눈여겨본 분들에 대해선 개입은 모두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고 머리가 빠지다보면 합격보다도 이렇게 힘들게 노력한 순간이 더 인상깊고 가치있었다, 자기 인생이 바뀌는 중요한 시간대였음을 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승사자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다가오지 못 합니다. 최소한의 학습량을 유지하면서 회독수와 문풀 수를 늘리고 오답을 정리하면서 혼자 스스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를 하다보면 어느 순간 인간을 넘어 신과 하나가 된 듯한 몰입을 경험하실 것이고, 아 이게 바로 그것이구나를 느끼실 겁니다. 그 순간이 되어야 변덕스럽고 말 안 듣던 뇌가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천상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깊이 개입하면서 수험을 넘어 인생상담까지 간접적으로 하게 된 분들은 잘 될 것이라고 계산한 바입니다. 부정적으로만 훌러갔을지도 모르는 분들이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즐거운 경험입니다. 거액의 돈을 주고도 느낄 수 없는 희열감이지요.

그럼 모두 스타트하시길 바랍니다.

7.30 교재 vs 놀이 하지 마세요

2015.11.17

현대판 어부지리

조개 : 야, 난 셈을 풀겠어

학 : 야, 난 마풀을 풀겠어

이러면서 vs 놀이로 3달 허송세월

여부 : 봐들. 난 다 풀었지롱

교재를 한정해서 골라야하는 건 공부량이 원체 많은 고시 공부에 한해서이고 수능은 사실 공부량이 많은 과목이 아닙니다요.

단권화는 머리에 하는 것입니다. 원래 단권화란 개념도 교재가 변변치 못한 수십년 전에 먹히던 것이고 지금은 웬만한 교재들도 양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다들 착각하는 건. 교재에 내용이 많다고, 그게 공부하는 님들 머리에 지식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란 겁니다. 양이 1000인 교재도 5번 보면 님들 머리에 300 정도 들어갈까 말까요. 반면 양이 500인 교재를 30번 보았다면 님들 머리에 2000이 들어갑니다.

단권화는 머리에 하는 것입니다. 노트 정리? 그것도 노트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천되는 것이지, 노트 잘 만들었다고 해도 시험 시간에 가지고 못 들어가는데요

교재 뭘 풀어야하나, 중복문항 피해야하지 않나.

까놓고 말해서 낭설입니다.

기출은 공부하려면 정말 개개 문항을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 풀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평가원의 의도라는 것, 출제원리라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풀었다. 그건 무의미하죠.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내가 설명할 수 있느냐, 심지어 변형출제까지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변형출제 가능할 정도면 실모는 필요없습니다. 실모가 사실 기성문제 변형출제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냥 닥치는대로 반복해서 풀고 암기하고 그게 공부의 시작입니다.

공부 잘 하는 애들이 교재 vs 놀이 하는 것 단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물론

'업자'들은 그걸 조장하죠. 그게 마케팅이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업자들은 자기 교재만 보라고 하죠. 학생들이 다른 교재 보면 자기 교재가 형편없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교재 뭐가 좋냐.... 라고 하는 게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말고 그냥 다 푸세요. 다만 개념서만큼은 그냥 현직교사들이 쓴 것이나 교과서 보는 걸 권합니다. vs 놀이 굳이하려면 개념서일 건데 이상하게 이건 안 하답니다만,

7.31 죽음의 절벽

2015.11.18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10^{10} 인데 지수 계산을 할 줄 몰라서 10×10 으로 계산하거나 10^{10} 으로 보는 것까지 그렇다 치고 그냥 10만 해놓고 난 노력 했는데 안 된다는 게 보이죠.

우물 안 개구리라는 표현은 이런 데 쓰는 것이죠. 동네 뒷산만 본 사람 입장에서는 백두산, 한라산, 에베레스트산이 어떨지 감이 잡히지도 않을 테고 산골 짹에서 개울만 본 사람이 바닷가에 간다면 순간 압도당하겠죠.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껏 가본 호수가 넓은 줄 알고 난 노오력을 많이 했다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바다에 데려가보는 수 밖에 없겠죠**. 한번 정말 시간이 난다면 서울대 도서관이나 신림동 고시촌 같은 데에서 –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 그 사람들 어떻게 공부하나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몇년간 공부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단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판검사교수의사변호사인 쪽이 평균적으로 공부를 잘 하는 건 유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부에 들이는 노력에 대한 눈높이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상담해보면서 느끼는 건 다들 들여야하는 노력의 양을 잘못 계산하고 있단 것입니다. 1010 이 필요한데 10X10 정도 해놓고 안 된다라고 하고 있죠.

수학만 보더라도 유치원 때부터 조기 교육 시작해서 고3때까지면 가히 10년 넘게 교육받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든 아니든 그런 노오력은 기울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오력 까는 병신들은 스렉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스렉들은 저 금수저들이 '노오력을 안 하고 부모에게 얻어먹기만 했을 것'이라고 소설쓰면서 자기는 노오력한다고 소설쓰거든요. 말씀드릴까요? 금수저들일수록 더 노오력을 열심히 하고, 게다가 인성조차 더 좋습니다. 그럼 흙수저는? 말로만 노오력한다고 해놓고 말초적인 유흥에 빠진 경우가 더 많고 인성은 더 개차반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주제에 나중에 이 사회가 개판 어찌구 말로만 지껄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 싫으면 그럼 '괜찮은 나라'로 이민 간다 가지 왜 아직도 안 가나모르겠습니다.

격한 말투일수록 진실성을 담보하니 이게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더 적지요.

부모들이 왜 자기 자식들 내신이 불리하더라도 좋은 학교에 보내려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허영심 없는 부모들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런 부모들은 실패합니다. 잔인한 진실은 그겁니다. 자기 아이들이 수준낮은 애들 만나서 타락하지 않길 바라는 겁니다요. 그럼 이 이야기에 풀발기하겠죠. 네가 흙수저와 서민 까고 있니?

집 밖에 나가서 근처 유흥가에다가 법망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서는 업종 장사하는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어떤 계층인지 보시죠. 물론 금수저들도 비밀스러운 소비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규모로 치면 전자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신림동 고시촌이나 노량진 가면 공부하는 사람들만 보지 말고 근처에 발달한 다른 사업을 보시죠. 학원과 서점과 독서실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유흥업 종부터 심지어 유전, 생식을 이용한 이상한 사업까지 가장 먼저 생기는 동네입니다.

니다. 자기들이 수험에 실패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이 실패한 이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서야 지킬 자존심도 없어서 그 때서야 실토하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소한 걸로 왜 실패해'라고 부르짖죠. 그게 정말 '사소한' 걸까요?

공부하다가 조금이라도 딴길 가면 그거 수험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험 실패면 다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거든요. 남들이 공부하다가 럴을 하거나 연애질을 하면 그 때는 "저승사자"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나이 처먹으면서 느끼는 건 죽음은 늘 그림자처럼 우리 뒤를 따라다니고 기회를 엿본단 겁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언제 뛰질지 모르겠지만, 저도 살면서 느낀 게 정말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던 녀석이 가버리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행복해보이던 사람도 갑자기 부고가 뜨는데 나중에 알고보면 그럴만한 숨겨진 사연이 있었단 건데 특히 수험은 자기를 대수술하는 과정인지라 이게 실패하면 인생포기=자살이라는 게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거 왜 죽냐... 그럴지 몰라도 본인들은 그렇게 못 느끼죠. 조금이라도 일탈한다면 그건 저승사자와 키스하는 것입니다.

수험은 그럼 재정의되죠. 승천을 목표로 죽음의 절벽 앞에서 도움닫기. 무슨 개뿔 중2병급 표현이냐... 할지 모르나 저건 제가 보기엔 진실입니다. 절벽에 떨어진다고 해도 죽지는 않겠죠. 다만 절뚝거리며 살 각오는 해야합니다.

공부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강 기술이나 배우고 일이나 하자... 라고 말로만 그러지말고 그럼 일주일간 알바 뛰어보고 해보세요. 옛같아서 공부하는 게 낫다는 걸 하루만에 느낄테고 그런 걸로 일할 노력이면 강 공부해서 좋은 데 갈 수 있다, 내가 게을렀다라는 걸 일주일만에 납득할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건 매우 힘들다라는 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공부를 힘들게 하는 건 싫어하시죠? 힘든 공부일수록 운명을 바꿀 수 있단 이야기인데?

+

최근 심각하면서도 재밌게 보는 게 경제의 지리학인데. 사는 데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 강남 강북 집값 격차가 커진 게 자본가의 음모? 너무 구태의연한 이야기죠. 오히려 그건 사는 사람들의 교육, 생활습관, 그리고 외모까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

쉬운 예 들어드릴까요?

남자들이 헤벌쭉하는 흔한 요조숙녀. 그런 요조숙녀를 양성하려면 부모가 사자돌림이거나 대기업 중역 이상이어야 하고 사는 곳은 서초강남송파목동이나 여의도는 되어야 하며 학교는 정말 때묻지 않은 명문교여야하며 부유한 교회, 성당, 사찰. 그리고 먹는 것이나 의료서비스도 최상의 것으로 받아야 '완성' 되죠.

여자를 완성시키는 건 비단 성형수술만이 아닙니다. 결국 환경이죠. 그런데 그런 환경은 그 부모나 조부모들의 '노력'의 결과죠. 그런데 남자들은 이런 여자들을 너무 날로 차지하려고 하죠.

집값이 비싼 곳은 저런 요조숙녀가 많습니다. 반면 집값이 저렴한 곳은 해맑은 여자애들도 때가 되면 술집에서 일하거나 못난 남자 만나 폭행당하고 있죠.

+

그럼 언제까지 노력? 노력 자체가 즐거워지는 순간요. Runner's High가 올 때까지. 이번에 액상탄마님이 인증한 것에 오, 잘했구만 했지만 아직 부족하다 느낀 게 그거예요. 아직은 노오력 자체에 쾌감을 느끼지 못 했군. 즉, 열심히는 하지만 결국 미치진 못 했군 정도. 더군다나 대화해보면 분명 1년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1년 전은 강 바바리안이었는데 지금은 조선시대 말까지는 왔죠. 그 때야 아이구 내 인생 그랬지만 지금은 몸에 좋은 보약을 챙겨먹으려는 적극성 까진 띠고 있죠.

그러나 아직 수학적인 사고 – 즉 합리적인 사고방식까지 체화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죠. 팀의 준에이스는 갔지만, '감독'까지는 못 되었다는 것이죠.

1년 공부해서 저 정도면 상당한 것이죠. 남들은 10년 넘게 공부해서 겨우 가는 수준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1년 공부해서 저만큼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또 빨리 추락할 수 있단 이야기죠.

7.32 문과 이과 전향에 대한 썰

2015.11.18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성공/실패를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와 더불어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죠.

1. 도전 자체는 새로운 것일수록 좋다.

저야 현실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커리 제시하면 안 될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전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비관론을 펴진 않습니다. 수험은 말 그대로 도박이기 때문이지요. 문과;이과 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건 사실 제대로 추궁 들어가면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이유로 어린 시절에 수학을 잘 못 해서 문과 갔는데 지금은 머리가 트여 이과수학을 잘 할 수도 있기도 하는 등 중요한 건 본인의 적성, 취향까지 감안해서 얼마나 잘 맞느냐인데. 사실 이건 아무도 검증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부딪쳐서 도전해보지 않는 이상은 정말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도 '실패'를 생각하고 도전 자체를 기피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실패할 걸 각오하고서라도 성공할 수 있는 걸 염두에 두면서 도전해보는 사람이 살아남지, "아, 나는 되지 않을

거야”하면서 칼을 뽑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물론 제가 다시 수험생이 될 이유는 없지만)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 낮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별 의별 수작을 다 부리면서 노력할 것이고 실패했을 경우에 충격을 줄이고 그 실패조차도 자산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놓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로 자포자기하지는 않을 거란 것이죠.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자기가 직접 부딪쳐보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는 겁니다. 내가 위기에 도전하지 않으면, 위기가 나를 찾아옵니다. 저는 다소 운명론자이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까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만 사실 운명이란 것도 일종의 기호적 매트릭스 라는 점에서 그건 고정되었는 동시에 고정되어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것 외에는 운명을 바꿀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야 뭔가 저주 같은 것을 깨기 시작한 콕콕의 한 사람이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고 색안경 껴도 낙원이 아니라 했는데 맞는 말이죠. 도망치면 운명은 못 바꿉니다. 도망칠수록 운명은 공고해집니다.

2. 그럼 문과 → 이과는 무모하기만 한가?

그건 아닙니다. 일단 분량의 차이는 열심히 하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과수학도 편한 건 있습니다. 제대로 틀을 갖추면 그 다음에는 학문적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과수학이 경우는 이종 격투기와 같아서 쓸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격자점 나올 걸로 생각한 사람들이 30번 고등수학에서 말아먹었듯. 그러나 이과수학의 경우는 온갖 화력전이라 개살벌하지만, 본인도 여러가지 다채로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 공부량을 확보하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이과수학의 여러가지 tool들을 쓸 수 있으면 문과수학보단 낫다는 것이죠.

수리적 마인드나 설계 측면에서는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 문과 30번이든 이과 30번은 ”설계”를 할 수 있어야하는 문제였죠. 다만 문과수학

의 경우는 평면좌표축과 정수론에 치중해있다면 이과수학의 경우는 공간좌표에다가 공간논리적 감각에다가 실수까지 확장된다가 차이 정도인데 이게 넘사벽인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에 따라선 이과수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수학의 컴플렉스를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수학의 경우는 결국 제대로 공부하느냐 그걸로 결판나는 것이죠. 예컨대 문제유형만 외운다거나 무슨 실모의 적중율 따진다...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수학 공부는 결국 자기가 기본적인 것을 철저히 하고 tool을 능숙히 다루면서 논리기하대수 사고를 통해 새로운 유형이더라도 침착하게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거지, 예상유형을 암기하고 정리해놓는 것 이 아니죠. 사실 이런 방식이면 이과생이더라도 문과 30번은 못 풀었을 겁니다.

3. 과탐은 어떠한가?

사실 과탐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건 다들 어렵게 내는데 어떻게 대비할지는 뚜렷이 안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과생들이 과탐에서 겪는 고통이 문과생들이 과탐을 공부했을 때보다 덜하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언어능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문과생과 이과생이 똑같이 과학을 공부한다면 문과생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탐에서 난감한 게 바로 말장난을 까는 것인데 이건 이과생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언어외적인 것 - 즉 기하나 수리적인 과탐킬러의 경우는 사실 이과생들도 툴을 스스로 개발하거나 강의참조해야한다는 점에선 딱히.

4. 그렇다면 왜 문과 → 이과는 어렵다 하는가?

절반 정도는 과장된 허풍이 있다고 여깁니다만, 세뇌론에서 얘기하듯 이과;문과라는 추상적 고정관념이 다수의 무의식에서 실체화되어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게 직접 검증되었느냐... 그건 아니란 것입니다요. 흔히 드는 예가 이과에서 문과 가니까 등급이 올랐다는 것인데 이게 변인통제가 충실히 된 건 아니죠. 이과수학을 공부하다가 문과로 간 경우야 당연히 더 많은 내용이 선행되었거니와 당사자가 공부기간이 기니까 그런

것이지요. 이걸 제대로 비교하려면 정말 문과생과 이과생이 똑같이 둘 다 모르는 내용을 동일하게 학습했을 때의 학습성과로 봐야합니다만. 가령 집합과 명제를 똑같이 친다고 하더라도 이과생이 더 유리하다고 확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공부량과 강의가 동일하다 가정 하에)

이과생이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 원래 이과교육이 뛰어나서인지, 공부량이 정말 많아서인지 그것도 구분해야겠습니다만 이 역시 딱히 검증된 건 없다는 측면에서는 수험자본이 만들어낸 일종의 세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거니와 저건 평균적인 수험생들을 염두한 것이고 수험생 개인으로 치자면 또 역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험생 개인이 공부할 의욕이 많으면 공부하는 방법을 깨달았으며 올바른 커리를 맸는다면 이과로 전과한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결과는 알 수 없는데 처음부터 단언하는 경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5. 그렇다면 이과 공부는 어떻게 해야하나?

수리 감각이나 머리가 좋아야 한다기보다도, 오히려 기본적인 교과서 개념을 더 철저히 암기하고 따져야하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문과수학이 감각을 요구하고, 이과수학일수록 이론적인 걸 더 많이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과수학이 이과적이고, 이과수학이 문과적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다만 이과수학 과정의 텍스트는 언어적으로 풀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와 수식으로 요약되어있죠. 만약 문과생들이 이걸 타당하고 합리적인 텍스트로 풀이하면서 이야기하듯 공부해나간다면 이거야말로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싶더군요. 왜냐면 이과생들이야말로 문과적 소양이 없다보니 그런 텍스트 풀이를 하지 않고 생각없이 암기하다가 좀 심화된 출제로 나오면 대비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수학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떻게 푸느냐 보다도, 자기가 공부하는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는 문과생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문과에서 그런 올바른 '리터러시'를 교육한다고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만.

전과하신 분들이면 현역 고3 올라가는 이과생과 비교하면 됩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을 테고 황금의 3개월간 공부하시면 능가하면 능가했지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무 것도 바꿀 수가 없죠. 윗 글은 위로가 아니라 그간 제가 생각하고 분석한 바인데 아마 납득가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따져서 어떻게 승부할 것인가를 계산하고 노력해야지 아, 그래도 이과는 무리야.... 라는 태도라면 사실 **앞으로 살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남들이 그해주기를 기대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너가 되고 남들이 루저가 되기 때문이죠.

세뇌론을 쓰게 된 경위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그냥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적당히 살다가 삶을 정리할 건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합니다. 아무 도전도 안 하고 꿀빨다보면 편히 살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불행과 사고가 직접 찾아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찾아간 위기는 기회가 되지만, 수동적으로 맞이한 기회는 위기가 되죠.

물론 말이야 쉽죠. 의지대로 저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경험상 20명 중 1명 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상류층에 올라가는 거지, 그저 도망가면서 공부하고 적당히 학교 잘 가면 풀릴 거야... 글쎄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던지요?

마인드 차이라는 건 참 사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걸

언어로만 보면 못 느끼는데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을 비교해보면 빼저리게 느껴요. 남들이 고정관념에 갇혀있을 때 자기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감행한 사람이 그게 부정적인 것일지라도 뭔가 해내기는 합니다. + 여담적으면

그럼 과거의 그 훌륭한 이과천재들이 지금은 뭘하고 계시나라는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사실 다들 평범해졌죠. 사회에서 인정받는 천재(?)들은 정치가, 고위공무원, CEO 정도인데 이게 이과 공부와 관련이 있나 의문. 현재는 검증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터라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 첫째, 미소 짓고 노오력만 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자들을 어떻게 짓밟을까 사악한 고민을 신나게 한 사람들이죠.
- 둘째, 위에서 말한대로 도전하는 것에서 브레이크가 없었던 겁니다. 뭐 무모하게 하면 망했겠지만.

12월 이전은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나는 해도 안 된다라거나 부모님 눈치 본다... 이런 글쎄요. 내년 10월 정도에 얼마나 쓸데없는 고민이었는지 빼저리게 깨달으실 듯.

++ 그리고보면 수학 잘 하는 사람의 소위 현학적, 허세적 태도가 '넘사벽' 신화를 공고히 한 콘크리트였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뭐라고 해야할까나.

7.33 n수하지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2015.11.19

맨큐의 경제학 앞에 빌 게이츠나 농구선수가 대학을 포기하고 협업에 뛰는 걸 얘기하면서 기회비용을 언급하죠. 만약 본인이 대학에 안 가거나, 그리고 대학을 그냥 그런 데 나와도 더 가치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삼수 이상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수의 기회비용이 삼수를 하지 않는 기회비용보다 더 높은 케이스이죠. 즉 삼수를 안 하면 더 문제인 케이스가 생각 외로 많다는 것에요.

저야 이런 걸 독려해보았자 딱히 수익 같은 것이 생기지 않기에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말할 수 있는데

대학 안 가고 기술 배우면 된다..... 그럴 사람이면 진작 중딩 때부터 그래왔겠죠. 삼수보다 더 나은 도전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 정도. 그런데 이것도 경쟁률은 수능 처리가 할 수준이라는 문제가 있죠.

기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기술도 '남이 돈을 지불해야' 의미가 있는 것 이죠. 과거에 제자 한명이 강 목공술을 배우면 대학 갈 필요가 없기에 한마디 했죠. 그럼 "누가 돈을 주는데?", "....." 기술도 어떤 분야 기술이냐, 수요가 많으냐, 그리고 진입해오는 라이벌이 있느냐 없는냐 다 따져보아야죠. 그리고 장사. 이거 정말 장사능력시험이라는 영역 새로 신설해야 할 듯. 손님을 휘어잡고 기름칠 잘 하며 광고 신나게 해먹는 언변술 등은 국어영역, 공급수요에다가 재고납기 다 계산하고 수익을 계산하는 것은 수학영역, 거기다가 각종 행정적 규제, 법률, 세금 등을 탐구영역으로 하면 사실 이것도 공부할 것 많죠.

그것도 그렇거니와 가만히 분석해보면 재수해도 삼수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재수, 삼수할 때 제대로 공부한 케이스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임(...) 다시 말해서 올바른 공부 안 하면 $n+1$ 해보았자 실패의 귀납법 완성이죠. 이거 어그로일지 모르는데 몇수 해도 안 되는데요... 이거 졸라 파고 들어가면 공부가 엉터리인 경우가 강 대부분임.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함. n 이 3 이상 넘어가면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허력(=실패를 조장하는 힘) 더 늘어나버립니다. 가끔 팔수 구수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팔수 구수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법을 5년 넘게 학습해버린 것임.

걍 소주 노가리 까듯이 어이 살만하냐 하듯 분위기말하면 명문대에 꼭 가라 할 건 아닌데 제가 명문대에 가라고 한다면 **일단은 합격을 해야 다년간 쌓인 체**

중이나 컴플렉스가 해소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음. 명문대 합격한다고 해서 효용이 그리 크나 그건 아닌데, 사람이 달라지는 건 있음.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느끼면서 내가 병신이 아니었구나, 단지 잘못된 방법이나 시스템을 타서 날 과소평가했구나, 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 문제였구나하는 것. 저거 명문대 대신 공무원이나 전문자격 시험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눈여겨볼 사람들이 명퇴한 40대 이후임. 이 사람들은 님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는데 잘 눈여겨보아야 함. 명퇴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새로운 걸 학습할 능력이 없다는 거임. 회사형 인간은 쫓겨나면 답이 없음. 닭집 창업한다고 하지 만 말이 좋아 창업이지 거액의 권리금 주고 프렌차이즈 가야죠. 아는 게 없으니까 – 그 때부터 빛의 향연. 왜 개나 소나 닭집 창업하느냐 의심품겠지만 이건 당연합니다. 그나마 수요가 있고, 운 좋으면 남의 치킨시장을 잡식해먹을 수 있으니까.

굳이 대학에 간다기보다도 ”새로운 걸 학습하는 방법”을 알기 위한 측면에서 수험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10년 뒤, 아니 5년 뒤에 한국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 것도 모름. 분명한 건 새로운 것을 배울 자세는 되어있어야 하고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시험을 만들어서라도 응시해야 할 판이죠.

7.34 독학을 권유하는 이유

2015.11.20

여기서 말하는 독학이란

- – 강의는 그냥 보충용, 가장 중시하는 건 ”설명이 부족한 책도 자기가 설명을 하면서 읽기”
- – 국영수탐 하루에 수능시험 문제의 1.5배 풀기를 말하는 것임.

일단 강의를 듣는 것은 혼자 책을 보다가 잘못 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이 경우 간과하는 것이 있죠. 그럼 '강의'는 잘못된 게 없나. 유감스럽지만 많습니다.

독학의 단점은 시간이 처음에 많이 걸리고 불안하다는 것. 장점은 늦어도 6개월 버티고 나면 비로소 "나다운 것"을 알면서 자존심의 새싹이 돋아난다는 겁니다. 강사에 의존하면 끝까지 강의에만 빠져버리죠(이건 세뇌된 상태니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첫키스를 할 때, 심지어 첫날밤을 보낼 때에도 인강을 틀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강사가 정신교육하면 혼자타임 오지 않을까)

학습의 목적은 스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강의는 어디까지나 보충용이지요, 지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따로 메모하면서, 사이비 이론이라도 좋으니까 스스로 설명해보려고 하세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특히 수학은 한문제 가지고 한달 정도까지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과정에서 늘어나는 거지 강사가 찍어준다고 늘진 않아요. 강사가 찍어주면 처음에야 문제가 잘 풀리니까 오우 좋다 하겠죠. 세뇌론에서 말했듯이 쾌감의 원천은 '논리적 사고의 증진'거든요. 강의 듣고 기분이 좋은 건 모르는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독입니다, 나중에는 생각하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 강의만 의존합니다.

물론 생각을 하게 도와주는 강의도 없진 않죠. 하지만 그런 강의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도서관에 가서 역사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어떤 책을 읽어야하느냐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 저라면 서슴없이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책은 사실 모든 분야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미래도 가상의 역사죠) 역사는 기록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해도 어찌되었든 FACT이기 때문에 다양한 함수관계가 응축되어있습니다. 그 역사를 읽고 해석하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책읽는 것도 내년 2월까지일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물론 이건 평범한 케이스에 관해서이고 제가 학원가라고 하는 케이스는 무조건 학원 가세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7.35 n수할 때 부모말을 들어야하나

2015.11.21

n수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참조'만 하지 들을 이유는 없음. 저 이야기는 부모님들이 자식의 인생을 다 책임져준다라는 걸 전제한 것인데 부모님들이 재산에게 '부양'의 대가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 지언정 다른 거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음.

나이먹은 어른들이라고 하더라도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느냐 그것도 아님. 그렇다고 철저하게 내 자식은 ~하게 해야한다고 조사하거나 고찰할 분도 없음. 보통은 다른 사람들 말 : ~카더라 수준을 보고 ”애야 ~ 이게 좋다고 하던데”라고 하는 게 대부분임

그리고 본인 인생은 본인이 사는 것임. 부모말 듣고 잘 되었다고 해도 자기가 잘했다고 미화할 것이고 부모말은 참조만 했을 뿐인데 나중에 망하면 이거다 부모님 때문이예요라고 책임전가할 것임.

어떤 위로든 대화든 사실 결과 외에는 소용없습니다. 수험장삿꾼들이 정말 학생들 인생 신경쓴다고 생각함? 그거 개소리죠. 얼마나 별 수 있을 것인가나 생각하지. 부모자식간도 비정함, 부모님들도 자녀가 말 안 들어처먹어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해서 두둑한 돈봉투 바치면 좋아하시지 무능한 효자 효녀 좋아... 개뿔입니다. 입효도를 누가 좋아하죠? 그건 누구라도 싫어할 것 같은 데.

7.36 여러가지.

2015.11.21

1. 좋아하는 교재일수록 독

참고서를 보는 건 궁극적으로는 '지적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교재나 강의를 선택해야하는데

대개는 자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교재나 강의를 선택한다. 국어를 잘 하는데 수학을 못 하는 친구는 수학을 공부해야겠지만 대개는 국어를 더 공부하려 하고, 문풀량이 부족한 친구들은 문풀을 많이 해야하는데도 계속 인강을 들으려고 하며, 반면 문풀이 충분한데 생각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어야하는데 관성대로 공부한다.

교재추천을 달가워하지 않는 건 여러가지 면이 있는데 이것도 한가지 이유다. 어차피 추천해보았자 자기가 좋아하는 교재만 본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교재는 **쓸모없는 교재라는 것을**. 봐야한다고 듣기는 했는데 보기 싫은 교재들이 실제로는 도움되는 교재들이다.

2. 자존심

수험생의 가장 큰 적은 자존심이다. 재수생까지는 자존심이 강하다. 그러나 삼수부터는 이게 무너지는데.

자존심이 적당히 무너지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럼 선생이 하라는대로 자신을 개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변화하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존심이 너무 무너지면 폐인이 되어버리는데 역설적이지만 자존심이 높을수록

더 많이 꺼져버린다. 이 케이스가 서울대에서 참 많았던 것으로 안다(지금도 있겠지)

자기가 공부를 잘 한다라는 의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뭘 하든 자기의 학습시스템이 얼마나 살상력이 좋으냐만 따져야지. 영원한 1등도 꿀등도 없는데 사람들은 과거 경험만 가지고 그걸로 자신을 과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돌도끼 잘 던져 싸우는 족장님이 첨단 로봇이 전쟁하는 시대에도 위너가 될 리는 없지 않나.

3. 성격

정말 수험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성격도 변하는 케이스다**. 물론 다 변한다는 건 아닌데 공부를 성공적으로 한다는 건 기존의 실패를 극복한다는 얘기고, 기존의 실패를 극복한다는 건 어리석은 행위를 낳은 성격을 고치는 데 성공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수험에서 성공한 인간승리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건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다만 이건 본인이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일 뿐.

개인적으로 조언주거나 할 때에 어떤 교재를 보느냐보다 강조하는 게 사실 이 대목이다. 성격이 바뀌면 사고방식도 바뀌게 되고, 사고방식이 바뀌면 문제를 푸는 스타일에도 영향이 있게 된다. 특히 수학의 경우는 절반은 성격이 먹고 들어간다. 성급해하거나 자뻑성이 강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기는 어렵다. 차분하고 꼼꼼하면서도 생각이 깨어있고 마무리를 잘 하는 친구들은 뭘 교재를 보든 점수가 잘 나온다. 거꾸로 말해서 수학공부를 한다는 건 수학뇌를 만들기, 수학에 어울리는 성격으로 바꾼다... 라는 것이다.

7.37 개정 과정

2015.11.22

고3 올라가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올해 시험 친 고3 이상이 그거 물어보면 강답이 없음.

수학 기출이 뭔 적중으로 푸는 게 아니죠. ”사고력” 단련하려고 푸는 거지. 제2코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행렬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중요함?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변형해서 어떤 논리로 쓰이는가 하면 개정과정 상관 없이 공부하는 거지. 고3 이상이면 어지간히 공부 안 한 사람 아니면 개정 전, 후 따질 필요 없음.

단 전반적으로 개정전이 난이도가 높음. 자, 여기까지 말해줍니다. 그 이상 까지 다 떠먹여줘야하는지도 의문이고 이런 걸로 질문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내용비교도 안 해보았단 얘기인데(네이버 검색만 해도 뜬다) 이건 답 없는 것 아님? 그게 답답합니다. 이런 질문은 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라면 제가 기존교육과정 배운 사람이면 기출 가리지 않습니다.

7.38 수학문제풀이에 있어서 국어의 중요성

2015.11.22

수학문제에 쓰이는 언어는 3가지이다.

1. 문자, 수식
2. 기하, 그래프,
3. 개념, 성질

인강 강사들이 유행을 타는 게 1번으로 먹고 살던 사람은 2, 3번이 대세가 되면 날라가고 반면 2번으로 먹고 살던 사람은 1, 3이 대세가 되면 날라간다. 최근 추세는 2번을 죽이고 1번과 3번을 강화하는 쪽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3번이다. 왜냐면 1번과 2번은 사교육이 온갖 주입과 암기로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3번은 그런 걸로도 먹히지 않는다.

최근 퀄리 문제들은 반드시 저 (문자, 수식)이나 (기하, 그래프)를 국어적인 (개념, 성질)로 해석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치는 걸 요구하고 있다. 물론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없다고 할지 모른다. 자기들은 그게 무의식적으로 체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잡으려면 반드시 국어적 해석, 즉 개념, 성질로 포섭해보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21, 29, 30을 아마 감각적으로 풀어댄 사람도 많겠지만 정말 똑바로 공부한 사람들은 머릿 속에서 교과서 목차-개념-성질을 검색하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명히 짚었을 것이다. 그걸 똑바로 밟은 사람은 안정적으로 풀었을 것이다. 반면 아무리 수학문제를 풀었어도 저 3번 항목을 이용하지 못 한 사람은 힘들었을 것이다.

아마 저번부터 수학을 국어처럼 풀어라하는 것이 궁금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이거다. 그리고 교과서를 보라는 이유도 그런데, 수학을 국어처럼 공부할 수 있는 줄글을 그나마 명쾌히 쓴 경우여서이다. 가끔 수학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그 부분을 빼먹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어적 해석 없이도 풀다보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건 수화로 말이 통하는 것과 동급이 아닌가? 풀다보니까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거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먹히지 나머지 9명은 안 통한다. 다시 말해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고 미국인과 눈빛과 손짓만 교환해도 의사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소통을 할 수 있나?

게다가 저 3번 항목을 제대로 짚어야 어째서 출제자가 그런 문제를 어떤 의

미에서 냈고 풀이가 어떤 필연성을 갖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가끔 고수라고 하는 자들이 무조건 풀어준다... 하면서 풀이를 내고 환호한다 그러는데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런 풀이가 나오는지에 대한 '국어적 셀'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런 과정없이 머리가 좋아서 푼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방식이 한계가 없다고 보는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수학문제를 풀 때에 꼼수나 스킬 이건 안 쓰는 게 좋다. 간단하다. 그런 꼼수나 스킬로는 풀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이다. 교과서의 답답한 풀이는 소박해보이지만 사실 이거야말로 커버 범위가 넓다, 그리고 실수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실수하는 케이스는 간단하다, '순서'를 안 지켰기 때문이다. 밟아야하는 징검다리를 안 밟고 점프했다가 물에 풍당 빠지는 것이다.

요새 학생들은 순수한 수리적 사고 – 즉 식변환이나 그래프, 기하 패턴 파악능력은 좋다. 선행학습의 결과다. 그러나 처음 보는 문제를 어떻게 교과서상 개념으로 포섭할 것인가는 정말 약하다. 독서량이 부족해서 국어 실력이 좋지 않아서이다. 추상적 개념을 다룰 수 있는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보니 포섭력도 약한 것이다.

그래서 풀이 방향이 알려진 건 정말 빨리 푼다. 한데, 조금이라도 꼬아놓아서 풀이방향을 알 수 없는, 즉 개념과 성질로 차분히 생각해야만 접근 방법을 알 수 있는 건 드리지 못 한다. 즉 문제의 독해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다.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봐야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애국가 1절 암기하는 수준으로 줄줄 나와야한다고 본다. 교과서의 개념논리 흐름에 맞춰 풀이해야 낚시에도 안 걸리고 실수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 개념들의 세부사항을 알아야만 낯선 문제를 수학적 개념에 포섭시켜 풀이방향을 잡을 수 있다.

수능수학이 과거보다 쉬워지는(?) 측면은 있다. 그런데 조심하자, 쉬워진다는 건 다른 내용의 양적 측면이 줄어든다는 것이지 그 질적 측면도 쉬워진 건 아니다. 올해 시험도 과거에 비하면 쉽다고 하지만 풀이 방향은 다르다. 과

거 2012년도까지의 문제는 발상 면에서 어렵다, 하지만 이것들은 아이디어를 잘 잡으면 논리가 없어도 맞았다. 논리가 없어도 맞다는 건 순서를 안 지켜도 일단 발상만 떠오르면 그려저려 답에 근접할 수 있었단 이야기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시험은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발상을 크게 요구하지는 않지만 순서를 못 지키면 풀 수 없거나 오답으로 끌려가도록 내고 있다

7.39 그러니까 노력한 근거를 대야지

2015.11.23

그런데 실증해보면 본인은 노력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게' 보여서 말입니다.

추궁해보면 잠시 게임했다고 알고보니 하루에 2시간씩 게임한 게 6개월. 공부 시작한 건 고작 4개월인 경우. 살짝 연애했다고 하는데 더 추궁해보니까 그냥 1년의 절반 이상을 연애에 투자. 하여간 별의별 사례가 다 있음.

시간 검증은 그렇다 치고 그럼 풀어대 문제집 물어보면 횡설수설하다가 양치기 안 해도 되거든! 양치기 예외가 이번에 액상탄마님의 경우인데 수학은 그런 측면이 있었고 이 분은 사탐은 공전의 점수 나와서 오히려 검증된 경우임. (수학은 공부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고, 특히 수리적 사고라는 건 1년만에 되지 않는다... 는 걸 보여준 좋은 경우인 것 같음)

작년 이맘때쯤인가 그래서 하도 짜증나서 제안한 게 일지 시스템. 그 이후로 교재 추천하는 질문은 몽땅 기각먹임. 일지 꾸준히 쓰는 사람들에게 조언 때려주고 어떻게 하나보았고 최근 10일동안 1명씩 다 읽어보고 확인해보았는데.

노력 했거든요 하는 거짓말까는 인간들은 강 원양어선 타고 매일 참치나 먹고 살았으면 좋겠음. 일지 쓰는 사람이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님. 그런데 잘 나온 과목과 못 나온 과목 비교해보면 **공부량에 확실히 비례함**. 수능시험의 그리

비합리적인 시험은 아님. 하긴 그럴 수 밖에 –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우연성의 좌우도는 낮음. 교재 차이? 그런 건 없음. 어떤 교재를 보았느냐보다도, **기본교재'들'을 많이 보고 양치기했느냐**가 좌우함 강의 차이? 극단적으로 말해 강의 안 들어도 된다고 얘기해도 될 정도임. 그리고 작년말부터 공부한 사람들이 승률이 높음,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찍 공부한 사람이 이김.

노력해보았자 소용없다는 사람들은 그럼 1년동안 일지 쓰면서 공부하면서 호출하고 질문하고 피드백해 본 뒤에도 그러나 보셈 수능시험은 그럴 수가 없음 시험임. 응시자가 도대체 몇명인데. 그리고 노력 까는 인간들의 문제는, 자기만 망하면 상관없는데 그런 개구라를 까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것임.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질려버린 후배들은 그래서 특별한 인강이나 교재 부터 봐야하는구나 착각해서 해서 상술의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문제임.

그런데 양치기만 해도 안 되는 경우는

- 국어 – 독서량이라는 게 정말 많이 좌우함. 독서를 생활화한 애들은 사실 테크닉도 필요없음
- 수학 – 수리적 사고, 문제 읽는 법, 그리고 문제 읽고 알고리즘 짜는 법은 알아둘 필요가(그런데 이거 정작 가르치는 인강 없음)
- 영어 – 영어적 사고, 직독직해 필요함. 특히 전치사에 대한 감각이 강조됨

이라고 얘기하면 됨.

7.40 개정 해매는 분들을 위한 조언

2015.11.23

원래 교재추천이나 코스 같은 걸 일일히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나 그래도 불안해하는 분들을 위해 적습니다.

올해 시험을 친 고3을 포함한 n수생

1. 기존 교재 버리지 마실 것 : 기존 교재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2. 빠진 내용의 기출이라도 푸실 것 : 수학적 아이디어나 발상이 어디가는 것은 아닙니다.
3. 개정과정에서는 확통, 기벡만 추가로 살필 것 : 그러나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재배치되었을 뿐이고 확률은 정수분할 정도만 보면 됩니다.
4. 기출은 그냥 보던 것 보실 것 : 내년에 기출문제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기출만 추가된 정도입니다.

올해 시험을 칠 고3

1. 과거 교재 볼 필요는 없음, 넘들 대상으로 한 교재를 보면 됨, 그 교육과정으로 7차 교육과정 따라갈 수 없음.
2. 기출이 새로 나오면 보시길 바람 : 그런데 문제는 많이 푸세요.

그런데 둘 다 신경쓰실 건

1. 고1수학의 비중 높이실 것. 올해 수능 기출 킬러는 스키만 고2 수학이었지 실제 발상은 고1 수학 쪽이었습니다.
2. 전과목 포함해 마지노선을 4월말까지로 당기시는 게 좋음, 개편 혼란 때문에 아마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3. 시중교재와 교과서에 충실할 것.

1번의 경우는 이걸 왜 아무도 지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들이 변별력이 좋았던 건 다름 아니라 문제푸는 과정에 있어서 고1 수학을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라도 고1 수학 우습게 보지 마시길요. 이과의 경우도 범위에 직접적으로 안 나온다는 것이지, 어려운 문제를 만들 때 고1 수학 원리 안 쓴단 말은 없었습니다. 2번의 경우는 그냥 겁주는 게 아닙니다. 올해도 5월 정도에 실력이 결정될 사람은 다 결정되었습니다. 안 믿다가 나중에야 네 말이 맞았다 그래 잘났다 어찌구 반응이지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방황하지말고 4월 까지 졸라 달리시길 바랍니다. 노시려면 4월까지 마치고 노세요. 3번의 경우는 뻔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내년 출제가 어떻게 나올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예비 평가 시행을 아직 안 했죠? 일차변환과 행렬이나 제2코사인이 빠졌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문과 수학은 오히려 늘어나버렸고(집합 명제 가지고 킬러내면 뭐 대박일 듯. 90년대 수능 한번 풀어보세요) 이과 수학의 경우도 외려 더 어렵게 낼 수 있는 여지가 커졌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특정 출제 경향 따라서 공부한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올해 실모 보면 된다 그거 경험해부신 분은 알지만 별로 의미없는 것 보았죠? 실모는 보충용으로나 먹혔죠. 또한 기출 역시 좋은 소스가 될지 모르나 이것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남들 보는 시중교재, 고1까지 포함해서 빨리 시작해서 더 많이 끝내세요. 그만한 대가는 분명히 보장됩니다.

센수학은 과거보단 쉬워졌습니다. 단 창의문제는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고 경향이 다르니 풀어보시길 RPM은 바뀐 게 없죠(...) 블랙라벨도 크게 바뀐 거 없으나 개념서로서의 성격이 강해졌고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잘 정리했습니다. 주목할 교재는 올림포스 평가문제집과 일등급 수학입니다. 새로운 변종을 경험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올림포스 평가문제집과 일등급 수학은 다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시험 때까지 남은 기간은 '모자라'지요. 내년 수험생들은 시간부족에 더 시달리겠네요.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니 쓸데없는 질문이 없길 바랍니다.

7.41 모의고사만 출장 푸는 게 안 좋은 이유

2015.11.25

모의고사를 내는 사람이건 푸는 사람이건 해당 모의고사들이 특정 경향에만 치우쳐있다는 것을 절대 모릅니다.

이른바 평균의 함정이죠. 그게 모의가 나빠서만은 아닙니다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출제빈도가 높은 문항을 우선순위로 계재한다는 게 문제임. 출제빈도가 높은 것을 풀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쑥싹 잘 풀리니까 이게 정말 효과가 좋은 걸로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결과적으로 우물 안 개굴짱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수능은 평균에서 꼭 벗어난 걸 내거든요.

모의가 미래지향적이어야하는데 실제로는 과거지향적인 경우에 불과한 게 많다가 함정입니다. 물론 저자들도 적중시키고 싶어는 하죠. 그런데 그게 될 리가 있나.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모의고사만 믿는 건 현명한 전략은 아닙니다요.

작년에 모의고사에 비판적인 것을 보고 저 녀석 괜히 그런다 하실 분들도 있었을 건데 근거없이 저런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요. 미래에 대비하고 싶으면 남들이 안 가는 방향, 커버하지 못 하는 것까지 다 준비해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수의 확신이라는 건 매우 높은 확률로 다수의 패배를 의미하기도 해서리

시중 기본서는 당장 수능과 거리가 멀어보이긴 하는데 이것만큼 미래를 준비하기 좋은 책은 없습니다. 반복하다보면 행간의 내용이 다 드러나죠. 그런데 모의고사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의 경우가 안타까운 것은 지나치게 다수의 확신을 따라가더라 그것입니다. ABC에서만 나올 거라고 공부했는데 DEF에서 나왔다고 평가원을 욕하죠.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A~Z 다 공부했어야하는 건데요.

올해 시험 치고 복기해보라고 한 기한 다 지나서 적는다면, 정작 자기가 집중적으로 공부한 것이 쓸모가 없다는 걸 느껴보라는 얘기였습니다.

내년도 4월 말까지 공부 해놓고 남들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비밀병기 준비하듯 공부하면 됩니다.

7.42 교재 : 한국사 강의없이 틀잡고 싶다면

2015.11.26

역사신문

남경태의 종횡무진 시리즈

참고로 동서양사도

2

를 보면 지엽은 모르지만 틀은 잡을 수 있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역사신문 시리즈만 구매를 권하고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으면 빌려보는 걸 권하겠음.

역사신문 시리즈의 장점이 절대 지루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서술 방향은 오히려 좌파 쪽이긴 한데 술술 읽힐 것입니다.

그러고보니까 이원복의 면나라이웃나라도 볼만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냥 강의를 듣는다면 사설강의 들을 필요 없이 EBS만 가는 걸 권함.

그런데 그 강의조차 듣기 싫다 난 양 책 읽을 거야라고 하면 동네서점에도 있을테니 참조해보시길.

7.43 몰입한 상태

2015.11.26

세뇌론에 적겠지만 수험장에서의 멘탈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미리 간략히 적으면.

- A – 몰입을 해본 적이 없음, 그래서 신유형이 나오면 긴장하고 평소보다 능력치가 떨어짐
- B – 평소에는 느슨하지만 몰입을 할 수 있음, 시험에 임할 때 자신을 잊고 몰입 상태에서 문풀을 시작함.

멘탈 붕괴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본질에서 벗어난 거임. 낯선 상황에 긴장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A는 그 긴장에서 당황스러운 상태로 가는 반면, B는 바로 자기만의 몰입된 상태(일종의 세뇌된 상태)로 가죠.

우리가 호흡을 의식하면서 하는 건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사실 생각없이 합니다. 일일히 생각하고 말하진 않죠. 아니 일상 영역에서의 행동은 의식하고 하는 게 없어요.

한 분야에서 공을 들인 고수들은 그 분야를 무의식적으로 해냅니다. 일일히 신경쓰지 않으니 피로감도 덜 하고 그래서 더 잘 해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해본 적이 없거나 이걸 의식하지 못하면 당연히 노오력에 회의감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 – 일종의 임장감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해 기적적으로 뭔가 완수한 사람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상태에 도달하려면 개인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무수히 많이 반복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비상 상태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정확히 입에서 튀어나오도록요. 강도가 칼을 목에 대도 그 내용이 다 정확히 나오도록 학습되어있어야 비로소 공부입니다.

이게 멘탈과 관계있느냐. 글쎄올시다, 덜덜 떨고 파랗게 질리더라도 그 모든 지식을 복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공부입니다. 그럼 이게 비현실적인 노력... 까진 아닐텐데 말입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정확히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인들이 있을텐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멘탈 타령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덜 하고 싫어하는 사람으로 밖에 안 보이죠.

기출을 왜 여러번 푸느냐. 아는 것 반복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때 피식 웃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그냥 데이터의 저장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하게 학습한 바를 행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험 때 긴장 안 하고 싶다. 유일한 방법은 '실성'하는 거죠.

그리고 약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권하겠습니다. 차라리 심호흡을 하고 자기최면을 하는 걸 익히세요.

7.44 인터넷 강의 문제점

2015.11.28

인강 없던 시절에도 그런 것 없이 서울대 가는 사람은 잘만 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강의 문제는 상당히 많다고 여기는데 근본적인 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날려먹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말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개소리 하나를 저격하죠 인강이 다 다뤄준다? 웬만하면 저격 안 하겠는데 저건 정말 개소리라서 한마디 합니다.

헛소리입니다. 저도 과거에 3년동안 듣고 정리해보았는데요. 일단 인강이 다

다뤄준다라고 느끼는 건, 본인이 '책을 읽을 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학에서의 문풀 사고법 빼고 나머지는 모두 책에 있습니다. 아니, 책에 더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지요. 궁금하면 님들이 신나게 필기해보신 다음 시중교재와 비교해보세요.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책을 읽는 게 힘들거나 아예 몰라서 처음에 입문용으로 듣는 건 추천할 만합니다. 하지만 틀을 잡으면 바로 본인이 책을 읽고 스스로 정리하고 **추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늘어날 수 없습니다. 어디든 상담해보면 인강 때문에 흥한 경우보다 **망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흥한 경우는 혼자서도 독학이 가능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기교육을 받은 케이스가 많고 집안환경이 좋습니다(왜 이런 건 언급하지 않는 걸까)** 반면 집안 환경이 좋지 않고 조기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인강으로 가서 잘 되는 케이스는 없네요.

인강의 장점은 들을 때는 소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소화는 잘 되는데 계속 배가 고프단 것이죠. 저런 거 그냥 필기노트로 해서 수학독본처럼 그나 서술체로 가는 게 수험생의 시간을 단축시켜주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예컨대 EBS에 보면 강의자막을 HWP 파일로 정리해주죠. 필기만 제공된다면 차라리 그것을 파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인강의 문제점이 심하다고 보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매우 안 좋은 수학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럴싸한데 실제론 기본 사고를 말아먹게 만드는 책이죠. 그런데 이 책, 온갖 **인강을 짜깁기**했더군요. 짜깁기한 저자도 문제가 많지만 이건 인강 내용 그 자체도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잘 짜깁기한 것도 아닌 것 같지만)
- 둘째, 강의를 바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럼 연구나 개발은 언제 하느냐는 것입니다. 매년 강의가 똑같고 심지어 틀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새롭다 신박하다 하는 풀이라는 것도 사실 학문적 체계가 의심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 수능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수능에 인강이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나 한가는 의문이 들더군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x등급에서 x등급으로 올린다... 이런 광고도 참 의문이 많습니다. 가정환경이 좋고 조기교육을 받았으며 체계가 잡힌 사람들을 올리는 건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강의 없어도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죠. 하지만 정말로 사고방식이 막장이고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경우를 올린 케이스는 사실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이런 것을 연구해보는 게 취미 (?)이기도 해서 조언해주고 캐리해주면서 느끼지만 이거 단순히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푸념도 들어주고 쓴소리도 거꾸로 적절히 해주고 **성격** 고쳐야 하는데다 가 **가정환경** 전체를 다 뒤집으면서 '사람'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느끼는데 과연?

저런 걸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본 사람이 머리 타령하겠죠. 아닙니다, 뭘로 가든 성격이 문제입니다. 다운증후군 환자거나 정말 뇌를 다쳐서 맛간 경우가 아니라면, 온라인 게임이나 야동이 가능하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공부환경의 문제죠. 그리고 이 점에서 인강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인터넷 접속을 유도하거든요.

그리고 한가지만 그냥 제가 발견한 사실 적죠.

상담이든 대화이든 해보면 참 유약하구나라고 느껴진 케이스들이 많고 다 추적해보면 독서는 빈약한데 정말 모든 것을 '사교육'으로만 의존했고 그렇게 키워진 케이스입니다. 겉으로는 똑똑한데 급소만 찌르면 그냥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것 보면 한심하고 짜증나서 '독서'를 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캠 접속 줄이고 도서관에 가라는 이야기입죠

사교육이나 인강으로만 머리가 채워진 친구들이 솔직히 과연 정상일까, 실제로는 멀쩡해보이는 '환자'들이라는 게 제 개인적 평가입니다.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자문자답해본 친구들은 느립니다. 정말 튼튼하게 자아가 성장하고 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선생이 가르쳐주는 걸 따라하는 것만 시도한 친구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입시까지는 그게 운좋아 먹히더라도 그 다음이 문제겠죠. 이 친구들 대화하는 것 대사 분석하면 ”트라우마”에 비견되는 명제의 반복을 계속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적어보겠습니다. 대화하면서 이 친구들을 치유하는 건 그 명제를 다른 명제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그 근원 자체를 해체시키는 것이지만 그건 다른 문제겠죠.

인강을 듣고 싶으면 사설 신청하지말고 EBS 입문강의나 열심히 들으세요. 그 다음 시중교재 풀면서 잘 안 되는 단원, 이해 안 가는 내용, 문제들을 따로 메모해놓고 그걸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는 걸 해보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걸 스스로 해결해야 다른 것도 해결됩니다. 오래 고민한 다음에 인강으로 해결(될 건지는 모르지만)하는 건 권합니다. 스스로 고심하고 아파보아야 실력이 올라가지 날이 하라는 대로만 해서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려지는 것입니다.

콕콕 내에서도 +1수를 권하거나 적극 하라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 첫째, 어떤 환경에서도 당사자가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사실 이 경우는 제가 더 이상 조언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 둘째, 여러모로 가능은 한데 본인이 뺄짓을 해서 말아먹은 경우 : 그럼 이 건 뺄짓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그 외에는 알아서 하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단, 모군은 그 좋은 환경 버프업을 받았으면 하늘에 감사할 것이지 뺄소리는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쓰는 글이라도 그런 글에 혼혹되어 정말 인생 날라가는 애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올해도 상담쪽지 받고 조언해주면서도 또 확인했지만 대책 없이 인강만 듣다가 망한 케이스가 90%입니다요. 혹자는 무슨 무료데이터... 개소리입니다. 일지쓰라고 하는 건 수험생들이 ”저 열심히 공부했는데요”라고 징징대니까 그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나보자, 네가 공부하는 기록 써보고나 징징대라 하는 차원이 강하지, 사실 그 외는 도움될 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모처의 잘못된 사상이나 습관에 전염되는 건 강경하게 거부하는 바랍니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호구는 호구대로 되고. 이거 제 알 바는 아니라고 쳐도 너무 눈에 끌립니다. 꼴불견이지요.

+ 학원가야하는 케이스 있죠. ”혼자서 정말 공부가 안 되어서 인터넷 접속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껌 없는 데에서 정말 순수히 다른 친구들 따라 공부해야합니다. 그런데 학원조차도 ‘집단적인 학습 분위기’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것도 독학가능하면 도서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환경’을 구입하는 건 적극 권할 일입니다. 환경은 상관관계가 뚜렷하니까요.

+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재나 인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환경, 그 다음 습관을 바꾸세요. 그리고 반드시 라이벌을 잡아야 합니다. 공부에 유리한 것만 늘리고 불리한 것은 제거하는 환경을 잡아야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 반드시 절박한 심정으로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습관을 고치면 성격도 따라갑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벌을 정해야합니다. 라이벌이 수험 스트레스의 진공 청소기입니다.

+ 그리고 다시 말하는데 남자 수험생들은 자기를 험오하길 바랍니다. 이 색기는 망했다... 라고 하는 남자 1순위는 나르시스트입니다. 나르시스트가 극성 맞은 엄마와 결합하면 마마보이가 되죠. 남자는 승부에서 지고 깨지고 다치고 심지어 기절까지하고 그러다 일어서고 싸우고 무기 바꾸고 흉터 생기고 그러면 서 성장하는 거지, 나 잘 생겼다 존잘 이딴 드립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순간 더 이상 진화할 수 없고, 그 순간부터 내리막길인 것입니다. 왜 충고해줘도 안 먹히고 계속 그 지경인가 하는 케이스들 보면 공통점이 못난 자기 자신을 극도로 사랑합니다.

+ 현역으로 척척 붙어서 SKY 가는 친구들이 사회에서 잘 나갑니다. 이 친구들은 나르시시즘에 안 빠지거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과거의 자아를 버릴 각오가 되어있고 좋은 게 있으면 바로 갈아탑니다. 학습에서 중요한 건 ’환경과 습관’이라는 걸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티는 안 나지만 성과는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n수생들은 인간문화재도 아니고 자기만의 ’전통’이라는 걸 고수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끝까지 그걸 안 버리려고 하죠. 자기 방식대로만 가겠다, 고집센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 내가 했던 방식으로만 갈테야.... 실패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o이 커지면 더욱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포기조차도 정당화합니다.

+ 더 무서운 건 여학생들은 저런 나르시시즘은 없단 겁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 달리 출산 때 피를 보기도 하지만, 우선 '화장'을 하는 게 어색하지 않죠. 그건 자기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타인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정말 마인드가 다릅니다. 필기시험에서 여풍이 강해지는 이유가 이 때문일 것입니다. 여자들의 단점이라는 정보와 체력 부족은 인터넷과 관리로 해결되니까요.

7.45 영어에 관해서

2015.11.30

형식이 다르다하지만 TOEIC과 TEPS가 도움이 됩니다. 국어는 PSAT/LEET 가 정통코스가 되어간다고 생각해서 이 남자, 아니 이 영어는 어떨까 보았음.

최근에 영어가 어떻게 나오나 궁금해서 3일(...) 정도 공부했는데 **만만해보이는 토익조차도 오랜 세월동안 진화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일 정도로 패턴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차이를 순수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L/C조차도 간단한 추론, 순발력을 꽤 요구합니다. 호주발음이 듣기 개판이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요, 문항과 답변이 직접 대응이 아닙니다. **정해→판독→해석→여러가지 명제들 추론→답 고르기** 이와 같은 과정을 짧은 시간내에 거쳐야합니다. L/C 파트 2부터 파트 4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이더군요.

R/C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문은 매우 쉬운데 선지에서 꼬아내던데 역시 위와 같은 영어적 추론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읽기→판독→해석→**

여러가지 명제들 추론 → 답고르기 거기다가 복수지문들까지 보니까 대충 190 문제부터는 이미 머리가 지쳐있음.

그리고 느낀 바 – 아, **빈칸추론의 핵심이 저기 있었군**. 영어가 힘든 건 간단합니다. 단순히 해석을 넘어서 ”영어 자체로 사고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에 근접한 게 필요는 없지만 호기심에서 다시 쳐보았던 토익 시험에서 옛보이더군요. 어제 그래서 시험을 마치고 서점에 가서 토익과 텁스 교재를 죽 훑어보았습니다. 성인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보니 교재 질은 매우 좋더군요. 책이야 유명한 건 다 좋아보였습니다. 패턴 정리가 꽤 잘 되어 있었으니까요.

올해 시험에서 영어 망쳤는데 다시 시작하실 분들은 어차피 대학가서 치러야 하는 시험이니 저런 시험들 응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냉정히 말해서 그냥 수능 수준의 영어가 도움이 되나.... 최근 강사추천도 올라오곤 하지만 그런 행태는 제가 혐오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English 자체로 사고한다는 점에서는 어휘나 지문 수준이 다르다고 해도 저런 공인영어시험을 공부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괴서 성문종합영어에 나온 명문들을 주로 읽어보시면 되겠죠. 읽어보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어권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 조선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한참 다르기 때문입니다요. 여러 학생들이 골치아파하는 **빈칸추론**은 말이 **빈칸이지** 실제로는 ’주제추론’입니다. 그런데 English Writing의 경우 topic을 부각시키는 매우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걸 공부하면서 **빈칸추론** 문제를 풀 때 선지를 보지 말고 직접 주제를 추론한 다음 그 다음 선지를 봐야 안 낚이지 그냥 보면 거의 낚인단 이야기죠.

뭐... 내년에 +1수 하실 분들은 국영수팀 모두 수능을 넘는 상위과정 다 공부해야할 것이다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상위권이 되고 싶다는 분은 성문종합영어 잘 도전해보세요. 지금 날린다는 영어강사들도 젊은 시절에는 이거 공부 안 한 사람은 없음. 재밌는 건 다 성문종합영어 까는 사람들도 나중에 자기가 강의하는 내용이 성문스럽게 변하고 있다는 것.

7.46 빛개념에 대해서

2015.11.30

5수생이 있다칩시다.

보통 이런 경우 어떤 관념이 문제나면 자기가 날려먹은(?) 4년만큼의 본전을 챙겨야한다는 **보상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더 높게 잡으면서 자기가 수험고수이니 더 많이 하겠다 그래서 꼭 성공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죠.

사실 생각해보면 별 의미없는 자기학대에 불과합니다. 목표치를 높게 잡는다고 해보았자 그 4년이 빛나는 것도 아니죠. 4년동안 공부했다면 당연히 구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도 학습되었을 뿐더러 '해결되지 않은 원인'이 있단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하느냐.

일단 4년은 잊어버려야합니다. 그냥 4년동안 병원생활, 식물인간, 징역살이, 외계인에게 납치... 당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아요. 그 4년은 경제학적으로는 매몰비용입니다. 뭘 하더라도 사실 복구는 못 해요. 심지어 성공한다 하더라도 4년이 의미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들 이런 매몰비용을 복구하겠다고 목표를 무리하게 잡는 걸 넘어 학습방법도 터무니없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저 4년은 안 돌아옵니다. 내년에 시험치는 사람이면 겸손하게 자기가 고3과 똑같다고 여기세요.

만약 개인의 성찰과 반성, 그리고 기본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라면 유의미하다고 반문할 수 있긴 하겠죠. 그러나 이 경우 손해는 더 큩니다. 4년동안 해서도 되지 않는 **실패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여러번 쳐도 안 되는 이유는 공부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실패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게 가장 큩니다. 학원

에서는 공부하는 방법이나 지식을 전수해주겠지만, 학생 개개인의 실패 패턴을 지적해주거나 잡아주진 못 합니다. 본인의 과제죠.

하지만 이걸 하는 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에 근사하기 때문에 혼자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달리기를 잘 하는 친구에게 너는 달릴수록 불행해지니까 달리지 마라고 하거나 아주 얼굴이 예쁜 여학생에게 자네는 얼굴이 불행의 근원이니 차도르를 쓰고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도록 하는 것과 동급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존심을 포기하고 여태껏 살아온 방식을 과감히 바꾸지 않으면 실패는 또 반복되죠.

빚을 못 갚으면 파산신청하고 생활하는 게 낫습니다. 내년에 다시 시험 응시할 분은 과거는 싹 잊으세요. 과거에서 챙길 건 오직 교훈, 그리고 자기의 실패하는 패턴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구식무기를 버리고 신식으로 갈아타면서 자기를 잊는 사람은 살아남겠지만 계속 한탄만 하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또 실패합니다요.

7.47 최근의 동태에 대한 비판입니다만

2015.11.30

강사 개개인이 착하건 악하건 관계없이 누구 강의가 최고예요... 라는 식의 글이 올라오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 한 행태입니다. 최소한 그게 검증되었다라고 볼 근거도 없지 말입니다.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건 일지 꾸준히 쓰고 자기 성적 공개한 케이스이지 나머지는 믿을 것도 없습니다. 사이트가 가장 힘들 때에도 꾳꿋이 활동하고 자기 공부하면서 소신껏 밀어붙여 올라간 케이스면 몰라도 나머지는 솔직히 아니라 고 생각하는데요.

그럭저럭 사이트가 잘 버티고 하한선 찍고 상승세 찍을 때나 와서 모 강사가 최고예요라는 행태는 그 강사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안 좋아하는 사람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죠. 아무리 좋은 강사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설강의가 뭐 한두푼도 아니고. 듣고 싶으면 여름 때 정말 부족한 것만 골라 들으세요.

이제 또 강의 교재 홍보철이 시작되죠. 이 사이트도 졸라 모니터링당할 거예요. 자기 영업방해되는 글 있나없나 설마... 돈에 눈먼 사람들은 별 짓 다 합니다 만요. 유감스럽지만 가장 한적해야 할 이 사이트조차도 제 눈에는 이미 **자본의 마수가 뻗쳐있습니다**.

약 1년 전인가. 일지조차도 시비 걸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 기억하고 있죠(시비걸 이유가 없을텐데) 심지어 그 때 학습론도 하도 시비걸어대고 해서 짜증나서 지웠습니다. 그 사람들 누군지 몰랐다는 건 오산. 양 싸우기 싫어서 냅둔 겁니다.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어차피 인생 말아먹을 인간들이라서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제가 영리사업 도 안 취하고 그냥 애들 불쌍해서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것'을 시비걸었을지는 알고있지 말입니다.

몇몇 영리활동 취하는 사람들은 일지조차도 무슨 목적이다 생각하실 건데 그딴 것 없습니다. 공부하는 패턴이든 방법은 님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해서는 안 되는 공부법까지도 다 정리했구만 무슨. 다만 질문하고 상담하려면 일지는 쓰는 성실한 사람이 아니면 안 받아준다는 건 당연합니다. 올해 실패한 사람들도 있지만(아마 조만간 연락받고 또 소통하겠죠) 대부분은 생각한대로라서. 이런 걸로 돈벌려는 사람이야 딱 한 사람만 집어서 성공사례라고 하면서 바로 영업질 들어가는 추한 짓이나 벌이겠죠. 그런 건 영 관심이 없지 말입니다. 핏덩이들 어떻게 성장하나 그거 보는 게 재미지 뭔 저런 걸로 수험재벌해서 나르시시즘 빠지게?

그리고 제발이지 사교육에 너무 매몰된 짓 좀 하지 맙시다. 나이가 몇살인데 강사 강의 교재찬양만 하고 있는지. 가정환경이 좋아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사교육받은 걸로 강사추천하고 다니는 건 제 입장에서는 뭐 저 병맛 하기 전에 과연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정말 궁핍해지는 상황이 오면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 말입니다. 제가 저성장 가치주로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을 겪고 막장환경에서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각성해서 제대로만 캐리되면 남들 10년치를 1년에 달성할 수도 있어서 과거의 실패는 별 의미가 없죠. 벗어나기만 한다면.

일전엔가 어그로 끄는 모 분이 대화방에서 일지 결과 가지고 시비를 거시던데 수준 참 인증하시더군요. 뭔 일지 가지고 결과 공개해서 다 자기들 수준이죠. 그딴 건 관심도 없습니다. 저도 학교 스펙은 꿀릴 건 없는 사람이라서 양말하지만 웬 잡졸들이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수험생들 공포심 이용해 장사하는 건 별 관심 없어요. 그보다 더 관심이 있는 건 **절망적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올라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노하우를 얻으려고하느냐? 아뇨. 노하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하우는 너무 넘쳐서 탈이죠. 중요한 건 본인들이 실제로 넘어서느냐이겠죠. 어디로 올라가느냐보다도, 본인이 '상승하길 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라는 건 저걸 넘어서는 게 없죠. 돈 많이 번다 그걸로 과시한다... 뭔 진주 물고 있는 돼지도 아니고. 어차피 누구나 다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명한 건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도전하고 벽을 넘어서느냐하는 것이죠.

물욕이나 세속적인 것에만 사로잡히는 돼지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아직 이 걸 구분 못 하는 사람들도 널렸을 것입니다만. 살다보면 인간의 형체를 했지만 악마인 경우도 있지만 양 짐승이나 가축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끔 보면 수험을 이런 식의 극복이 아니라, '자본'의 먹이로 타락시키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사나 모르겠죠. 물질을 지배해야지 물질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상품을 이용해야지 상품에 끌려다니면 안 되지요.

적당히들 해처드시길 바랍니다.

7.48 고1수학 풍산자 풀고있는 팀

2015.11.30

풍산자 다 풀거나 혹은 풀고 있을 때고 고난이 있으면 올림포스 문제집 사서

링크 J 모 강사 강의 듣고 따라가시는 것 권하겠습니다. 다 따라가지 말고 해당되는 단원만 가지고 올림포스 사서 거기서 문제되는 것만 발췌해 들으세요

사실 수학 답 없으면 그냥 EBS 올림포스 따라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함. 강사들도 그리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공짜. 올림포스 문제도 어려운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통과 기벡은 제가 유일하게 들을만하다라고 하는 모 선생님 강의는 아직도 EBS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설에 돈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돈 쟁여두었다가 내년 여름방학 이후에 평 좋은 선생 것만 몰빵해 들으세요. 그 점에서 소위 프리패스라는 건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선택권을 엄청나게 제약합니다요.

7.49 EBS에 꿀강의 많으니 그거나 들으셈.

2015.11.30

소위 시중에 파는 비싼 것들도 별로 크게 나을 건 없음.

전에 이것 가지고 언쟁붙을 때 재밌는 게, EBS 욕하던 사람들에게 그럼 누구 강의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거기서 **다들 어버버대더라** 그겁니다. 도대체 EBS란 말이 나오자마자 무조건 EBS 까기만 하던 사람들이 강사가 누군지도 모른다라 :)

특히 수학은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게 없고 – 내용이 빠지면 더 빠졌기 때문에 – 적당히 강사조합만 잘 짜고 인강 들으면서 딴짓만 안 하면 저렴하게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는 수특 쓴다고 하지만 강사는 정작 자기 프린트로 보충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 문제는 되지 않아요. 인강 듣다가 딴짓 안 하는 것만 지키면 뭐 딱히.

이런 조언이야 '재벌'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싫어하겠죠. 그래서인가 가만히 공개 게시판이나 사람들 많은 커뮤니티에 보면 "돈 안 들이고 가는 저런 방법" 조차도 비난하는 병맛들이 있고 몇몇 지능파는 슬그머니 xxx도 좋지 않느냐 혹은 ○○○는 어때요라고 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아마 여기 게시판도 슬그머니 모니터링당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 생리가 그런 곳이라서

장담하는데 EBS 강의만 충실히 들어도 딱히 사설보다 모자라다고는 못 느낄 것이고 오히려 몇몇 강의는 훨씬 좋다는 판단도 들 겁니다. 저기도 강의 대충하는 곳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저기서 이채형, 손광균, 고동국, 서정원, 정승제도 뭐 들을만한 강의고 교재집필진으로 유명한 김원중 선생님도 수리 가형 찍고 있네요. 들을만한 강의 없다고 평계낼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 또 장사치들 난리치고 홍보하고 겁주고 그럴 시기가 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나 그런 거 소비하라고 하고 님들은 소박하게 시중교재나 열심히 풀고 강의는 EBS로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충분히 넘치니까요.

설마 EBS 추천했다고 비추먹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 하기야 내년에도 어떻게 팔아먹고 부자될까 하는 돼지를 입장에서는 꾸에엑 소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만.

7.50 선택과목 고를 때는

2015.12.01

백분위나 표점이 아니라 '상위권이 얼마나 적으냐', '난이도는 얼마나 되느냐' 이거 기준으로 가야합니다요.

아까 챕방에서 지2 백분위 96이라고 하면서 갓폭이 아니라 조폭(...)이라고 하는 아우성이 전체 2과목의 백분위가 공개되면서 간사하게 바뀌는 드라마가.

일단 비교가 되지 않죠. 올해의 경우 생2는 100일을 돌려도 2등급 따기도 힘든데 지2는 EBS 강의 하나 빨리 들어주고 한달 돌리면 정말 공부 안 한 게 아니면 만점 받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절약되는 시간만 보더라도 지2가 압도적으로 나았죠. 혹자 생1이나 화2 백분위 가지고 어 좋은 과목 아냐.... 그것들은 이미 수학보다도 어려워진 과목들입니다. 왜 생2 하는 것 안 말렸냐고 저에게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당(...) 지2 해서 망했다고 하시는 분은 생2 가면 100% 망했죠. 사문과 생윤 선택은 제가 올해 극도로 말렸죠. 결과야 뭐. (그러니까 아말든 인생망 아래보았자 소용없음. 난 분명 충고했음)

제가 조언드리는 건 중하위권 대상이지 상위권은 아닙니다. 전 수험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라서리. 우선 생1, 생2, 화1, 화2를 기피하는 이유는 간다. 노력으로 '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 킬러문제를 공략할 수 있는 교재나 강의가 거의 없습니다. 사문과 생윤도 마찬가지요. 변별력 가를려고 온갖 장난질 다 쳐놓기 때문에 노력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선택하실 분들은 인기가 덜하면서도 상위권이 덜 포진한 것 고르세요. 다시 말해서 사교육 시장이 덜 형성되거나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좋아하지 않는 과목을 고르는 게 낫습니다.

수능이 쉬워졌다... 그거야 수학만 전부인 줄 아는 구시대의 잔재나 하는 말이죠. 실제로는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과거에 서울대 합격한 사람이 요즘 수능 치면 과연? 솔직히 저도 장담 못 해요.

무조건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닌데 노인네가 충고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길.

7.51 강사 오개념 발생하는 이유

2015.12.03

강의 2시간을 준비하려면 20시간을 쏟아부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강의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럴만한 시간이 있을 건가. 오히려 수학이 가르치긴 더 수월할 겁니다. 교과서적 개념을 넘어서 원시적인 것까지 뚫고나면 그 다음이야 어떤 문제가 나오든 고교과정 수준에서는 해설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국어, 영어, 탐구는 아니죠. 특히 탐구는 그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다 추론되는 게 아니라 일일히 자료 찾아보고 가야하는 것이라서리. 강사가 박사급이거나 강의를 적게 하는 대신 엄청 공부하는 스타일이라면 믿을만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저라면 안 믿을 것입니다.

수능 시장이 이상한 것이죠. 공무원 사법 행시 CPA 쪽은 강사들이 자기 자랑할 시간도 없고 사실 홍보질도 필요없습니다. 저긴 정말 실력대로 검증되고 있어서리. 교재 오탈자에도 더럽게 욕먹기 때문에 강사들이 짜깁기 책이라도 열심히 만듭니다. 만약 문제 하나라도 빗나갔다... 그대로 퇴출당하거나 복귀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강사는 교재는 공부하는지 그거보고 고르세요. 대부분 강사, 교재평은 3/4가 강 홍보에다 알바질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도 솔까 사설들을 필요 없고 EBS 들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EBS는 거기 담당 PD도 졸라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서 오히려 검증 면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교재는. 저라면 EBS만 보겠고 사실 신사고, 천재, 두산동아 등에서 만 내는 교재 위주로 가겠습니다. 저자보다도 출판사를 믿겠음. 여기 교재들도

오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임. 그냥 수험생을 돈으로 보고 대충 책부터 내자하는 경우라면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 신사고 알 바란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신사고에서 낸 책들이면 웬만한 것 다 커버가 됩니다. 거기다가 EBS까지... 이거 다 볼 시간이나 있을까?

탐구에서 물지와 삼사 조합 얘기하는 이유는 별개 아닌 게 물리는 애당초 지엽 문제로 오답시비 걸릴 게 별로 없고, 지구과학도 사실은 과학이라기보단 매우 정밀한 시나리오라서 여기 나온 지엽도 실제 지엽은 아닙니다요. 그에 비해 화학과 생물은 고교과정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죠. 삼사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해석에 따라 달라지긴 하더라도 '기술'로서의 역사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조작질 안 하는 이상 오답시비 걸릴 일이 별로 없음.

재작년 이맘 때쯤인가 모 게시판에서 탐구가 수능을 좌우한다고 했을 때 비웃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할지 모르겠음. 그 당시에 EBS가 좋다라고 얘기해주고 앞으로 탐구가 정말 중요하다 생명과 화학 분산시키려고 어렵게 낸다라는 예측은 맞았기도 하지만 아마 야매교재도 점유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것들이 엉터리라는 게 참 많이 검증들 되어서리.

7.52 자존심을 버려야 자신감이 생긴다.

2015.12.03

둘 다 성을 自로 써서 그런가 같다고 여깁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자존심이 강하면 자신감을 잃기 쉽죠. 반면 자존심을 버리면 참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죠.

고민상담해보면 대부분 문제가 자존심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잘났다, 내가 사랑스럽다... 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는 조언보다는 그런 자존심을 네

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읽습니다만.

해결책은 두가지이죠. 하나는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 – 쉽지가 않음 다른 하나는 자존심을 높이고 실제로 그렇게 자기 스펙을 높이는 것 – 한계가 있음.

사람 보면서 아 이 인간은 망하겠군이라고 평가하는 첫째 기준은 자존심이 크냐 아니냐입니다. 자존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요.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하는 일이 있으면 이성을 잃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평가, 자기의 외모, 아울러 어떤 부나 권력의 과시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맘에 빠지다보면 나중에는 곁은 화려한데 속은 파삭 쪼그라드는 거죠.

남을 칭찬할 줄 알고 때로는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행복한 게 별 게 아닙니다. 자존심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윤리에 부합하게 사는가 그거 하나만 보면 되지 나머지는 양 신경 꺼버리면 애당초 걱정할 것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죠.

자살시도 자체도 자존심 때문이죠. 사실 객관적으로는 별 것도 아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프라이드에 상처를 입으면 죽고 싶어하는 거죠. 마치 세상이 다 끝난 듯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나중에 이기면 된다... 라는 마인드로 가야지, 내가 잘 나갔었는데 생각하는 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7.53 메모 : 시스템

2015.12.05

순수히 경험과 관찰에 의한 짤막한 기록이니 양 믿거나 말거나

1. 나이먹는다고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님, 오히려 나이에 맞게 성장 못 하면 좌절함. 성장은 연속함수가 아니라 불연속함수, 경험이 쌓이면서 내 적모순이 심화되면 어느 순간에 이를 정리하기 위해 각성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 때야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음. 각성하지 못 하면 성장은 없다.... 보아도 좋음. 남자들이 평생 철이 들지 않는단 이야기는, 평생 성장할 수 있단 이야기.
2. 다수에게 강의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더 어려움. 다수는 5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중 최소 20%는 알아서 올라가기 때무네 그걸 자기 실적으로 가산하면 됨. 그러나 한 사람은 정말 제대로 공부한다는 건 '인생'이 바뀌는 문제임. 상당한 난이도가 있음. 가르치거나 상담할 때는 반드시 충격을 주지 않으면 안 됨. 그렇지 않으면 각성할 수 없고 각성하지 못 하면 성장은 안 함.
3. 대기만성은 맞는 말이긴 한데... 초기에 성숙한 사람은 크게 성장할 수 없음. 초기에 성공만 한 사람은 한번 실패하면 계속 곤두박질함. 반면 오래 실패하면서도 스케일을 넓힌 사람이 그 벽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는 승승장구. 다만 이건 사람마다 시기 차이도 있거니와 각성하지 못 하면 글쎄, 그리고 큰 그릇이 만들어지기 전에 작업이 중단되면?
4. 성공과 실패는 2가지 유형이 있음. 좋은 시스템에 편승해서 성공하는 A, 다른 하나는 좋은 시스템을 자작하는 B. 나쁜 시스템에 올라타서 실패하는 C, 다른 하나는 나쁜 시스템을 자초하는 D. 전반적으로 A, D 비율이 높음. B와 C는 적음. 수험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B임. 당연히 희소할 수 밖에 없음. 수험 상담을 해보면 D가 많음. 잘못된 시스템은 본인의 자존심과 직결되어있어서. 그래서 자존심이 완전히 날라갈 때까지 실패를 자초함.

5. 나쁜 시스템을 자초하는 사람은 그냥 군대에 가거나 현장 학원 가는 게 나음. 군대에 가면 기존의 잘못된 시스템을 리셋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현장 학원에 가면 공부잘하는 애들을 모방해서 좋은 시스템을 주입당할 수 있기 때문임. 독학재수는 스스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나 그런 시스템에 길들여진 사람이 해야 효율이 찔지, 공부 시스템이 안 잡혀있고 본인이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으면 자살행위임.
6. 자기가 B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B 정도면 이미 '창업주' 역량이 있음. 공부할 필요가 있나? SKY만 보아도 보통 **A→D 케이스**가 많음. 엄마의 skirt wind로 용케 좋은 대학은 갔는데 그 다음은 엄마도 커버 못 쳐주고 자기도 자존심 하나로 잘못된 시스템 고집하다... 그 다음으로 **C→A**는 많이 관찰, **C→B 케이스**는 딱 두 건만 확인.
7. 7. 과거에 사람들이 텍스트를 반복해서 암송, 필사하게 한 것은 성공적인 시스템의 틀을 주입한 것이라 보면 됨.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시험치는 사람들이 사서삼경 암송한 게 뭔 바보같은 일이냐 하겠지만 사실 그 텍스트들이 대단한 것은 시스템의 모듈에 해당.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특정 텍스트들을 반복학습하면서 시스템 구축할 수 있긴 있나. 보통 입시 상담은 어떤 좋은 시스템에 올라타야하느냐 묻는 정도니까.
8. 8. 언제까지 콕콕에서 상담질을 할지는 모르지만 상담가질을 하고 싶은 사람은 위에 준해서 생각해보시면 됨.

7.54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

2015.12.06

A : 금수저 환경으로서 어린 시절 조기교육, 그 추이로 연고대 합격 가능
: 서울대 합격

B : 막장 환경에서 뒤늦게야 공부시작하고 5수 넘김, 대학도 못 갈 경우
였는데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서성한 합격

이 경우 누굴 선택할지는 뻔하다. 나라도 B를 고른다.

A는 저 상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상승할 수는 없다. 만약 그가 B의 역량이 있었다면 이미 유학가서 미국에서 한가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투입된 것치고는 효율은 낮다. 반면 B는 저 결과만으로 초라할지 모르지만 투입된 게 마이너스인데도 끝내 그걸 플러스로 돌리고 올라갔다. 대학수험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친구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도전해서 올라가고 실제로 내가 관찰해보는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다.

물론 학별로 치자면 어그로 끄는 이야기지만 국내대학에서는 '서울대'에 들어가면 그 이하는 대학으로 안 보인다. 그러나 인생 전체로 치자면 서울대가 중요할까,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20대에서 서울대 혼역으로 합격했는데 거기서 성장이 멈춘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반면 그냥 똥통대학에 들어갔다쳐도 그 사람이 엄청난 포텐셜을 지니고 있으면 이 사람은 가히 새로운 창업주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소위 "머리가 결정한다"거나 "양극화론" 같은 걸 까는 이유는 이것들은 엄밀히 말해서 객관적 기술보다는, "그러니까 하류층은 공부하지 말고 거지같이 살아라"하는 걸 조장하기 위한 카스트 제도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국사 공부하다보면 왜 왕족과 귀족이 불교를 환영했는가 하는 설명으로 "현 신분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 진짜 기득권층은 절대 하류층들이 노력 따위는 못하도록 한다. 모든 것을 다 '유전자'로 돌려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세뇌한다.

여기서 상담하는 사람들 – 이제 일지쓰는 사람 빼고는 거의 다 하지 않겠지

만 – 얘기하다보면 문제가 되는 건 못 배우고 몰라서가 아니라,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거나 잘못된 저주에 세뇌당한 경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집착한다거나 본인에게 별 도움도 안 되는 강박적 메시지를 광신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

한번에 서울대에 갈 수는 없다(굳이 서울대에 갈 필요도 없지만) 하지만 여러번에 걸쳐 올라가면 갈 수 있다고 확신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올라가면 되는 것이다. **요컨대 과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그걸로 일단 스타트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끓은 정신적, 물리적 족쇄를 벗으면 된다.** 공부해서 과거보다 올라간다, 나아진다라고 확신만 들면 그대로 공부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하나 성공사례를 스스로 만들다보면 가속이 붙어서 나중에 급상승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 해먹을 수 있을리는 없지 않은가.

실패하는 이유는 두가지이다.

- 첫째는 서두르기 때문이다.
- 둘째는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초조할수록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쉬운 길을 택해야 한다. 빨리 가야한다고 암벽등반하다가 추락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물론 막장환경에서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도 계속 안 되는 굴레라는 게 있다. 그런데 엄연히 말하면 이건 유전자가 아니다. **환경 문제가 정말로 크다.** 환경 개선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에 순응해버린 노예의 마인드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발목을 잡는다. 어느 쪽이든 마음만 먹어서는 곤란하다. 조그마한 과제라도 성공시켜나아가야만 변화가 있다.

7.55 정말 돈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2015.12.06

정말 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 시기는 알바 뛸 게 아니라 다시 공부 달리고 있어야 할 시즌이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음.

11월 ~ 2월 : 대학생 인력공급 넘침, 업자들의 착취가 가능하고 추워서 일하기도 고달픔. 이런 시기에 공부 안 하고 일하면 올해 5~11월까지 달렸던 **공부 감각이 모두 소실되어버리죠**. 그래서 3월달에 예열한다고 해보았자 감각 찾는데 3개월 날림. 그래서 실제로 6월달부터 시작. 그대로 반년이 증발되어버림, 아래놓고 또 입시 실패했다고 엉엉댐.

차라리 지금 공부해서 내년 3월까지 달리고 그 때 알바 뛰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알바 뛰고 공부하겠다... 그 알바비 많아보았자 3개월 300만원. 그런데 11월부터 2월까지 공부해서 얻는 게 300만원의 10배는 넘어서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도달하는 결론임. 본인이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뻘짓'하는 거죠.

7.56 인강을 들을 때 처음부터 배속 높이진 마실 것.

2015.12.06

빠른 배속으로 돌려 듣는 것이 뇌활성화에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되긴 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로직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라는 걸 전제합니다.

인강을 듣는 이유는 ”생각하는 방법을 보고 따라하기” 위한 겁니다. 단순히 듣고 보는 게 아님, 탁월한 강사들은 어떻게 문제를 읽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풀어나갈지 그걸 복기해주죠. 일부 머리가 빠른 사람들은 그걸 지겨워하면서 2배 속 이상 돌리는데

이렇게 하면 내용이 일단 해마에 저장은 됩니다만 아마 곧 잊어버릴 겁니다.

임팩트가 없기 때문이죠. 실력있는 선생일수록 중요한 부분은 매우 '슬로우'하게 저음 깔면서 강조합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가줘야 제대로 인지되면서 내 것이 됩니다. 정확히 말해 그 강사의 사고 프로세스를 내 머리에 복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재생속도를 높인다는 건 야동을 10배속으로 돌리는 것과 똑같은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단 강의를 들으려면 제대로 들어야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1배속으로 여러번 반복해 들어야하죠. 대략 1.2 ~ 1.4배속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2배속으로 가면 현명할 것 같지만 그만큼 흡수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강의가 세뇌라고 해서 무작정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강의를 듣는 목적이 '제대로 세뇌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뇌당하고 나서 그 다음 배속을 높여 반복해 들어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시간 단축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듣겠다고 빨리 듣고 음미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배속을 적당히 하면서 들어주고, 나중에 복습용으로 빨리 들어주는 게 낫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들었다면 그 다음에야 1.8배속 이상 가더라도 뇌에서 인지하면서 숙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활용한다면 사설강의도 별 필요도 없습니다. EBS 강의로 쏠쏠한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사설강의는 여름 이후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알짜만 챙기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는 처음에 비판적인 태도는 갖지 마십시오. 그냥 내 머리에 강사가 말한 것을 덮어쓰세요. 어느 정도 세뇌당한 다음에 비판해도 늦진 않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강사가 말하는 방식, 속도, 어조부터 시작해 제 스쳐까지 그냥 흉내내는 것도 좋습니다.

7.57 하나마나한 이야기

2015.12.07

자꾸만 쓸데없는 걸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죠.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꿈에 부풀어서 한시간 동안에 다 자란 돼지 한마리를 다 먹을 거야... 문학적으로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나요?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저걸 먹을 수 없죠. 계획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사실 실천도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계획량 ; 실제 업무량 이라는 부등식을 지켜야하는데 보통 계획을 자기 능력치의 5배 이상 잡아놓고 공부가 안 된다고 그러죠 지금 알바 뛴다 공부 3월에 시작한다는 사람들도 이런 케이스예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인간들은 특징이 있죠. 계획만 참 거창하게 짜기 좋아한다는 것. 왜냐? 계획 짤 때는 즐겁거든요. 그리고 계획 못 이루면 다시 우울증. 그러다가 계획 짜면 또 즐거움. 공부 안 하고 쾌감을 누릴 수 있음, 이것도 어떤 면에서 마약입니다.

그것도 그렇거니와 쓸데없는 걱정 - 즉 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공부를 못 한다거나 못 생겼다거나 하는 생각은 백날 해보았자 아무런 이득 자체가 없어요. 그거 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강의 듣거나 책을 읽거나 피부관리, 표정연습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푸념 늘어놓는 게 정말 자기들이 걱정해서... 혀소리입니다. 그것도 역시 쾌감을 얻기 위한 거죠. 자기가 못 났다라고 해서 다운되어있다가 남에게 격려, 칭찬을 듣고 다시 쾌감 누리고 또 우울해하고. 자기가 정말 진지하게 못 났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조차 안 해요. 학원가거나 바로 병원가는 거지. 이것도 그냥 어찌보면 중독적 행태입니다.

가끔 보면 남자 녀석이 무슨 기생오래비도 아니고 자기면상 올리면서 존잘 이러는 병신같은 케이스도 그렇죠. 그거 보면 ”이 녀석 정신적으로 맛이 갔구나”라는 걸 느끼는 경우가 많죠. 뭔 남자가 못 났으면 얼굴 팔아먹고 있느냐란 생각도 들지만, 남들이 어떻게 반응해줄나 그거에 쾌감 느낀다면 그건 다른 데에서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으며 자아도 흔들리고 있단 이야기거든요.

위 세가지 유형. 병적인 쾌감에 중독된 케이스입니다. 자기 공부에 바쁜 사람은 저럴 여념도 없어요. 그래서 전 저런 사람에게는 그냥 진실된 평가 내려주

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한번 받아주면 그 다음부터 '쾌감' 얻으려고 병적인 행태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건 근절하고 끊어내야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 받아주면 끝도 없어요 정말이지.

저 공부 계획 어때요... 라고 할 시간에 문제하나라도 더 풀고 나 못 생겼어... 할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꾸미고 코디할 것인지 연구하고 자기 얼굴 사진 올릴 시간이 있으면 가서 이웃이라도 도우면 됩니다.

자기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4~50대 이후에도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얼굴 타령 참 지겹게들 하는데 그거 어차피 30대 이후에 노화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나이먹을수록 빛이 발하는 건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현명한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가 못 생겼다 어찌구... 매력이라는 것은 외모도 외모지만 그 전에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계획중. 자기가 실패한 기간동안 그냥 소박하게 공부 했어도 합격했을 거라고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정신승리 얘기가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공부하면 매력이 늘어납니다. 눈빛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아무리 잘 생기고 예쁘면 뭐합니다. 눈빛이 흐리멍텅하면 기둥서방 술집여자지.

7.58 공부시간 산정법

2015.12.11

가장 현실적이고 탁월한 견해. ”암기하는 시간만 공부시간으로 정한다” 가령 12시간 책상에 앉아있다, 그 중 암기한 시간이 2시간이면 공부시간은 **2시간으로만 잡아야 한다**.

그런데 수능은 암기와 거리가 멀잖아요.

ⓐ 문제풀이를 하고 해설을 읽고 정리하는 시간

ⓑ 필기한 것을 '읽고 암기하는' 시간

사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공부시간에 빼야하지 않을까.

강의를 들어도 기억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건 좀 애매하다. A 강사 강의는 한번 듣기만 해도 기억될 수도 있고, B 강사 강의는 안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정형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에서 킬러문제를 해결해나갈 때의 ”논리적 접근”이라는 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체험-체화를 거쳐야하는데 이건 어떻게 잡을 것인가(사실 이걸 강사들이 해결해줘야하는데 이런 강의는 정말 찾기 어렵다)

아무튼 공부시간이 많다고 해도 소용없는 게

공부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해도 ’암기 등에 쓰는 시간’이 0시간이면 그건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열심히 장사를 했다. 하루에 1000만원 어치를 팔았다. 그런데 비용이 1000만원이다, 이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인강을 열심히 들었다. 그래서 정리를 안 하고 거의 다 망각해버린다.... 이게 공부인가?

남는 건 결국 ’기억’ 밖에 없다. 단지 그 기억이 시각적 기억이냐 청각적 기억이냐, 그리고 심상 기억이냐 경험 기억이냐 추상 기억이냐 그 차이일 뿐이다. 역으로 말해서 인간이 기억을 못 한다면 학습이 필요가 있을까.

다들 공부했다고 하소연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학습’회계’ 관점에서 들어가보면 인과관계는 매우 잔혹해진다. 강사들은 ’이해’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그 지식을 암기하고 있단 사실을 망각해버린다.

그렇다면 암기는? 반복이지.

그렇다면 공부의 실패는?

- ⓐ 암기할 대상을 잘못 고르거나 누락
- ⓑ 암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걸로 정리되지 않나?

입시기간이 길어지고 똑똑한 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

- A 관점 : 우와 수능 어렵나봐, 저 사람들 저렇게 실력좋은데
- B 관점 : 암기시간 재보면 얼마나 나올까.

유감스럽지만 B 관점이 옳을 가능성이 높다. 공부할 대상을 잘 선정하고 많이 반복하고 암기한 것 가지고 자기가 남들보다 머리가 좋고 우월하다라고 과시하는 허세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1번 읽고 기억하면 머리 좋은 것이 아닌가요? 10번 읽고 기억하면 그건 머리 나쁜 게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10번 읽는 게 나쁘단 말인가. 9번 더 읽는데 100년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만약 10번 읽어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쿨하게 10번 읽으면 된다. 1번 읽어서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예민하고 날카로우며 학습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학습하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10번 읽어야 하는 사람들은 2번 읽고 포기한다는 것이다.

학습 비결이라는 게 별 게 없다. 사실 그 노하우라는 건 대형서점에 전시된 책들에 나와있다. 물론 '비결'이 아닌 가짜 비결들도 많다. 그리고 수험시장은 그런 가짜비결조차도 비싼 값에 파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비결을 몰라서 아니라, 비결에 집착하다가 가짜 비결에 끌여서 허송세월한 케이스가 빼놓을 많다는 것이다. 그 친구들이 "암기시간만 공부시간"이라는 극단적이지만 매우 간결한 것을 받아들일까, 그럴 리야 없지 않나.

+ 사례

내가 괜찮다고 보는 모 콕콕리는 특정 과목 인강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저건 매우 정상적. 이과 처음 시작해서 이제야 인강보면서 바로 이해간다면 그게 거짓말이나 사기이지 정상이겠는가. 그 인강도 반복해서 3~5번 듣고 책도 10번 읽어야 한다. 그래야 이해되는 게 정상이다. 내가 흡족한 건 ”모른다”고 분명히 고백한 것이다. 허세들의 문제는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다가 발리는 것이다. 제대로 안다는 건,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가 그걸 분명히 아는 것이다.** 자기가 모르는 것, 못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올라간다.

금수저들은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개소리. 자기들이 처한 환경에서 돈걱정없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만, **환경 자체에서 그런 학습지식이 수도없이 반복주입된 걸 본인들이 모른다.** 환경은 에스컬레이터나 달리는 기차와 같다.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긴 움직인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걸어 가야 할 순간이 온다. 모 의원 아들 청탁 사건 같은 게 벌어지는 게 그 때문이다. 사교육 빨이 먹힐 때야 환경이 좋은 걸 모르고 지 머리가 좋은 걸로 안다.

그러나 스스로 해쳐나아가야 할 때는? 그 때는 정말 흙수저 미만잡이다.

+

사실 또 한편으로 흥미로운 것은 요즘 x스쿨 사태에서 보다시피 자기들이 금수저라고 대놓고 말하는 금수저는 없단 것이다. 다들 흙수저인 척 하지. 그리고 이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금수저들도 **자기들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x스쿨이 정말 제대로 공부시켰어도 x시 존치 반대했을까. 자기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실력이 없으니까 무서워하는 거지.

간혹 보면 건물주 미만잡 금수저 미만잡 거리는 애들. 그럴 시간에 공부나 하지 뭐하나 모르겠다.

7.59 개인적 검증.

2015.12.11

- A. 인강 30시간짜리 들어봄

들을 때는 개꿀. 복습 안 했음(...) 3일 지나니까 다 까먹음.

- B. 인강은 살짝 듣고 기본문제풀이해본 것

반복횟수 보니 대략 5번은 넘어감 어렵듯이 기억남

- C. 지금도 백지 복기 가능한 과목(뭔지 물어볼 필요는 없을 듯)

가끔 뺄짓하긴 하는데 이건 백지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가능. 연구용으로 인강을 들은 적은 있지만 그건 별로 도움 안 되었음. 이미 그 이전에 독학으로 완성 다만 상세한 이론 연구를 위해 온갖 책을 찾아 읽고 스스로 연구해보았음.

황금의 3개월에서 1/9가 지나감. 이 시점에서 경고하고 싶은 건, 시간 많이 남았다고 여러 과목 동시에 진행하지 말고 2~3과목으로 좁히고 목표량을 100이 아니라 10+10+... +10으로 조개서 그 10 하나를 끝낼 때마다 스스로에게 상주도록 조개고. 처음부터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을 수도없이 반복하라는 것.

10page 분량이 있다고 칩니다. 그럼 이게 정말 10page일까요? 실제로는 100page 여야합니다. 10회독은 해야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도 10page에서 100page 분량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참고서 내용이란 것은 '요약, 압축' 된 것이죠. 공부하다보면 요약, 압축된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2월까지 공부할 때 만약 1회독만 하는 거라면 그 계획은 폐기하고 다시 시작하시길. 예를 들어서 탐구과목을 2개 해서 2회독하는 것과 탐구 과목 1개를

해서 5회독한다면 후자가 낫습니다. 분량을 줄이고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 공부의 비결입니다.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시간 많다고 전과목을 다 건드려보면서 인강까지 다 듣고 학익진(...)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거 양도 많지 성과도 단기간에 안 나오지, 일주일 지나면 다 때려치우고 싶어집니다. 타겟을 철저히 좁히세요. 황금의 3개월동안 한과목만 봐도 좋습니다. 범위를 좁혀서 회독, 반복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무슨 아무개 강의 듣는다거나 특별한 교재 봐야한다거나 그럴 필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가 안 되는 건 회독수가 적고 연습이 부족해서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인의 사고 프로세스가 문제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요. 하지만 대부분은 회독수가 적어서 안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방황하다가 모 선생 강의 듣고 깨우쳤다하는 케이스. 물론 모 선생이 잘 가르쳐서 그럴 수 있지만, 그 모선생 강의를 듣는 시점에 '회독수와 연습'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몇번을 반복해야하나? 하루~사흘에 1번이라고 하면 10번은 최소한 봐야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시험에서 날라가기 때문이죠.

7.60 첨단장비의 노동환경

2015.12.12

공부 노력은 안 중요해, 그냥 xx 강사 강의만 들으면 된다. 그냥 가볍게 반문하겠음

제 친구 중에서는 당시 특목고-서울대 라인 밟은 사람들 많습니다(아시는 사람은 챗에서 들었을 테니 말 안 하겠음)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누구 하나 라도 공부방법을 깨달았다, ~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단 한명도 없었고 저 역시 '올바른 공부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목숨 걸고 말하라고 하면 말을 못 하겠

음.

그런데 ”지금은 놀고 그냥 나중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게 참. 거기 댓글 단 사람 중에서 몰x군은 작년 이맘 때에 제가 늦으니까 빨리 했는데 안 했고 래x은 플래너 인증 요청하면 알겠지만 죽어라 달린 분이 그런 댓글 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자기 약점이나 방향이라는 건 ’죽어라 공부하고서도 한계에 부닥쳤을 때’에 비로소 느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전제라는 건 죽어라 했을 때를 전제하는 건데 웃긴 건 공부에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정작 죽어라 공부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자기가 약점이나 방향이라고 느끼는 것이 정말 ’진짜 약점이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가장 위험한 생각이 이거죠. **1000시간 공부할 바에는 강 약점과 방향 잡고 10시간 공부하는 게 더 똑똑해**. 아마 다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임. 그래서 +1수를 늘리는 겁니다. 왜냐? 약점과 방향을 잡는다는 건 훌륭함. 그런데, 자기가 아는 그 약점이 진짜 약점이고 그게 전부라는 보장이 어디있죠? 빨리 양치기하라는 이유가 별 게 아닙니다. 그래야만 그나마 진짜 약점과 방향을 알 수 있어서입니다. 그건 본인이 알지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불편한 진실은 ”아, 빨리 시작하면 뭐해. 아, 양치기하면 뭐해. 강 xx 인강 듣고 방향 잘 잡으면 되지” 이 메시지조차도 **공부량을 줄이거나 공부를 안 하려는 아주 교묘한 평계**라는 거죠. 정작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확신은 안 합니다. 공부하면 할 수록 자기가 더 모자르다라는 걸 깨닫거든요. 졸라 달릴 수 밖에 없지 O, X 확 떨어지는 것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첨단장비 강 훔쳐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데 훔쳐쓰는 건 한계가 있죠. 고장나면 어떡할 거임? 그리고 자가 생산은 언제할 것임? 남들이 가볍게 쓰는 맷폰조차도 하드웨어-모듈-부품, 소프트웨어-모듈-코드. 이거 하나하나 분해해보면 수십년, 아니 수백년전부터 진행되

어온 지식, 육체 노동자의 노동이 집약된 결과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것이죠. 어디든 사람의 '손길', 즉 노동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야 그걸 천박한 자본주의적 거래로 너무 가볍게 소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공부가 돈을 주고 상품만 딱 구입하면 능력치가 올라갑니까. 그렇다면 누가 공부를 합니까, 양 돈주고 능력치를 사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다는 데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비싼 돈 주고 컨설팅을 한다... 아니 그게 효과가 있으면 다 그걸 구입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수율을 보자면 그것들도 형편없는 걸로 압니다.

7.61 잡담

2015.12.13

• 정석

정석부터 잡으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석이야말로 1등급 넘어서면서 수리적 사고가 숙달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집합-명제로 함수관계로 환원시키거나 모든 운동을 벡터와 변환으로 보거나 심지어 소리까지도 삼각함수로 근사시켜서 주기를 논하거나.

... 그 정도가 아니면 처음 보는 건 그냥 자살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 수학이 쉬워졌다 어쩐다하지만 그건 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것 - 특히 최근 경향을 보면 소박한 "수리적 사고"를 검증하는 건 성공했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시험이면 정석을 주교재로 삼는 건 실익이 적습니다. 과거 수학시험이야 DB 승부다

보니까 우리보다 수학 선진국인 일본의 온갖 패턴이 들어가있던 정석을 그냥 공부해도 동

최근 수학은 심지어 내신조차도 선생들이 업그레이드되었기 때문에 '암기만 해서' 푸는 것은 안 냅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독해하는 능력입니다. 거기에 정석이 직접 도움을 주진 못 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정석은 독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 **돈을 주면 특효약을 얻을 수 있다?**

공부에서 참 흔한 이야기입니다. 콕콕에서도 그렇게 일종의 야매교재를 칭찬하거나(그래서 올 수능은 적중하셨나) 특정 강의나 학원만 지독하게 신성시하는 경우가 있었사온데.

그러니까 그 특효약이 뭔지나 가르쳐주었으면 합니다. 자기만 따라오면 공중부양이 가능하다 기경팔맥이 뚫려서 200살까지 산다 그렇게 드립치면 뭐해요. 실제로 그게 뭔가 보여줘야지.

다 필요없고 올 수능만 봅시다. 그래서 적중한 교재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시험전까지 실모 안 보면 망한다 누구 실모 좋다고 했는데 실제 적중도는? 수학에서 고1수학 발상 나온다라고 한 사람 단 한명이라도 있던가. 영어는 쉽게 나오니까 그냥 상관없다고 하더니만 어렵게 나오니까 평가원이 그렇게 출제하면 안 된다 드립치질 않나. 이거 다들 보면 그냥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음.

- **멍청한 짓을 반복하면 바보다.**

상담하면서 늘 느끼지만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멍청한 짓을 반복해서"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잘 못 느낍니다. 저야 상담해줄 때야 온화하게(?) "~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권유형을 취하지요. 그러나 그게

정말 내용상 권유형은 아닙니다. 제가 상담해주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피상담자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말아먹는가”하는 걸 먼저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써보고 이야기드리는 것이죠.** 피상담자가 A라는 코스로 가면 망할 게 분명하면 ~A에 해당하는 B, C, D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놓고 A로 가면 망한다... 했는데 정작 A로 가면 망한 사람들이 ”너 나비난했지”라고 해서 권유형 취한 거지 내용 바뀐 건 아닙니다.

상담이야 책임감있게 해줄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에이 안 그래도 되잖아요”라고 해서 잘못 가도 그건 **제가 알 바도 아니죠**. 지금 황금의 3개월 1/6 지났죠. 자, 지금이야 마음 편하죠? 2월 말 되면 또 사람들 마음 바뀝니다. 상담이야 해주겠고 정말 상대가 그렇게 한 경우에는 나름 응답을 하지만 또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할 경우는 아니죠. 더군다나 대놓고 말 안 하지만 익명성을 이리저리 바꾸거나 시험해보거나 하는 한심한 케이스도 많던데 그건 당사자들이 알겠죠?

덤으로 상원이 아닌 경우 상담은 늦게 대답해줍니다. 신중히 답할 것도 있지만 ’먹튀’만 하는 케이스는 제가 좋게 보지 않아서요.

7.62 다수의 선택

2015.12.15

출제경향은 다수의 생각을 배신하는 경향이 있다. 작년 수학과 국어 출제 수준도 그랬고 올해 영어 역시 마찬가지였다.

수험사이트에 올라오는 코메디성 글이 많지만 가장 웃긴 것은 일개 학생이나 대학생이 ”평가원 너희가 그렇게 출제하면 안 된다”라고 훈장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별력을 갖추려는 평가원으로서는 다수 학생들을 통수먹이는 건 당연하지도 않나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 입시 결과도 기대 이하지만 입시를 떠나서 앞으로 사회 생존도 염려된다. 그건 수능시험의 본질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다수를 위한 시험이라면 다수가 하는대로 가도 된다. 예컨대 운전면허시험이라거나 토익 700점 넘기는 수준이면 다수론대로 따라가도 된다. 그 정도의 결과는 ”다수”를 위해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학능력시험은 소수를 위한 시험이다. 개나소나 만점을 외치니까 우와 나도 만점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그런 만점을 받는 건 소수다. 그것도 그냥 소수가 아니다. ”다수”의 생각과 행동을 읽고 있는 소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① 다수가 보는 시중 교재나 강의는 빠삭해야 한다. ② 출제자 수준을 넘어선 소수여야 한다.

둘 다 충족해야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라도 X 가 되어버리면 거기서 날라가버린다. 본인은 소수에 속한다고 하지만 시험만 치면 어이없이 실수하거나 날라가는 경우는 ①가 안 된 것이다. 본인은 시중교재를 충실히 풀었지만 어려운 문제에서 막히는 건 ②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럼 다수와 소수를 둘 다 선택하라... 그래서 힘든 것이다. 분명 **다수의 행렬**에 속해서 영화를 관람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나 혼자 비상구로 도망갈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 다수의 행렬에 묶여있으면 극장 화재 시탈출하지 못하고 압사당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비상구에 있으면 영화를 보지 못하고 허송세월해야 한다.

7.63 과거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

2015.12.18

선행을 미리 했던 학생들이나 특목/자사고 간 친구들이 공부를 ’잘’ 하는 건 맞다. 그러나 신기한 건 그들 모두가 수능을 잘 치르진 않는단 것이다. 수시로

잘 갈지는 몰라도 정시는 생각보다 수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이것도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우리가 하는 공부 – 특히 사교육+기출 중심의 공부는 ”과거의 문제”를 푸는 공부이다. 물론 과거의 문제를 학습하고 익히는 건 기본이다. 하지만 수능 문제는 ”미래의 문제”다. 과거의 문제에만 집착하면 **미래의 문제를 풀기 어렵다**.

그래서 입시판은 늘 이변이 발생한다. 그냥 기대 안 했던 A가 고득점을 받는다. 그 때까지 A를 천대하던 사람들이 ”너는 잘 할 줄 알았어”라고 입장을 바꾼다. 유망주이던 B가 터무니없는 점수를 받는다. 사람들은 짹 침묵해버린다. 그렇다고 A가 잘하고 B가 못 한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 단지 출제’경향’에 안 맞았을 뿐이다. 이런 경향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운”이라고만 치부하기 좋다. 물론 운이라는 건 없지 않다. 그러나 운은 ’인과관계’를 정확히 모를 때에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피적 개념에 불과하다.

잘 할 줄 알았는데 못 나온 케이스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모평 등급에 연연한다 (모평은 어디까지나 과거 문제의 짜깁기일 뿐이다, 물론 6,9평은 다르지만)
- 기출과 인강을 돌리려고만 하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막연히 푸는 것과 생각하는 건 다르다)
- 자신의 단점을 개선하려하지 않는다(수험은 자기를 바꾸는 과정이지 수험 상품 소비가 아니다)
-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공부는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다. 환경이 도와주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의지로 환경은 바꿀 수 있다)
- 절박하지 않다(사실 이게 가장 크다. 내가 느낀 n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당사자들이 지나치게 편하다는 것이다)

분명한 건 2017 수능은 2016 수능이 아닌데 사람들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라볼 것이란 사실이다.

대충 이런 체크리스트로 나눠진다.

1-1 수능을 수능으로 보는가

1-2 수능을 학력고사처럼 보는가

2-1 어떤 문제도 원점으로 돌아가 풀 수 있도록 하는가

2-2 과거 기출문제를 암기하는데 그치는가

3-1 기본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3-2 잡기에 맹목적인가.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 안 해왔다를 떠나서 저것들로 한번 점검해보면 대답하기 싫은 방향으로 답이 나온다. 분명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맞는데.... 문제는 n수생 이상부터는 실패하는 방법도 학습해버린다라는 게 문제. 실력 1000을 높이는데 동시에 허력을 900을 높이면 $1000 - 900 = 100$ 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허력을 공개하는 건 꺼린다.

여담이지만 벌써 한달이 지났다. 2016 수능까지만 1/12가 지난 셈이다. 다른 시험 전까지는 아 일주일만 있으면 공부했을텐데... 라고 간절히 호소하지만 지금은 그딴 건 없다. 인간이 다 그렇게 간사한 동물인 것이다.

전 분명 일찍 시작하라고 했으니 나중에 원망하지 마셈.

7.64 [콕콕운영제언] 콕콕사이트의 보수적 운영

2015.12.18

일단 1년간 주욱 관찰해보면서 확인한 것은 '비공개'로 "상호신뢰가능한 회원들끼리 소통하는" 것이 공개된 공간에서 서로 믿지 못 하는 것보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심리적 위안 : 사실 이게 가장 크죠.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호소하는 것
- ⓑ 질서있는 갈등 :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으레 다툼과 갈등도 있지만 상호 신뢰에다가 중재절차가 반영된 터라

ⓒ 안전한 소통

아까도 챗방에 보니까 '아무 말도' 없는 회원이 호출을 해보니 바로 나가버리던데.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싶지만 부적절한 의도로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악용해버리는 경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곁으로는 정정당당한 책 하면서 뒤로는 이중 아이디나 부계정을 써서 타인 행세하는 비겁한 인간들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게 진화해서 일부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엿먹이기 위해 발언을 유도하는 질떨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콕콕이 너무 친목화되어가느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알려둘 것은 여기는 영리 사이트가 아니란 것이죠. 핵심멤버가 자기 책을 팔아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사이트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목적은 n 수의 안식처 수험생들끼리 소통하고 정보교환을 해서 자기들의 벽을 넘어서는 극복의 축적이지요. 저도 '상업주의'와 무관하게 그런 게 가능할까 하는 방법의 검증과 시스템의 확립을 위해서 여기 있는 거지 천박하게 자기 광고해서 컨설팅비용이나 야매교재로 재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배격'하는 걸 목적으로 하죠.

그러나 돈이 걸린 곳은 어디나 더러운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까지 무단으로 개방해버리는 경우 문제가 터집니다. 올해 있었던 몇가지 사건

들만 보더라도 사실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말하건대 이 사회에서 승리하는 건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윤리 따위는 개나 주더라도 돈으로써 법을 이용할 줄 아는 사기꾼이 일단 우세합니다. 현실이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벽'을 쌓는 건 불가피 합니다.

일단의 비공개 게시판이 있는 건 양해하셨으면 합니다. 꾸준히 활동하고 글을 쓰며 공부하려는 분들은 환영하고 받아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비공개 게시판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공개 게시판의 경우는 수험생들이 **자기방어하기 위해 일부러 성적을 과대발표하거나 무리한 공부를 하는 식으로 파멸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수험생들의 허세라는 건 자기 방어적 성격이 강하단 것입니다. 만약 수험생이 남 눈치를 보지 않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면 저런 허세를 부리지 않아도 되었겠죠. 콕콕에서 중시하는 건 누가 좋은 대학에 갔느냐가 아닙니다. **수험에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의 완성이죠**. 우리가 모든 게임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한번은 지게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건 졌을 때 그대로 쓰러져있지 않고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비공개 게시판이 늘어나는 것이고, 적어도 외부인이 보기에 친목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비치는 건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챗방조차도 사실 '안심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격요건을 제한해야하는구나를 확실히 느낀 새벽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관리자 허님을 포함해 몇몇 사람들은 대화 참여자들의 i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호출했을 때 말없이 나간 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불편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대화방도 재편해서 lv 1 이상이 아니면 – 즉 게시글을 쓰는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대화방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분명 이 사이트는 작년보다 나아졌습니다. 슬프지만 이건 자본으로부터 견

제를 당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죠. 무슨 무협지를 쓰느냐.... 하겠지만 슬프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 와서 경험한 것들도 내막 알아보니 장난아니었어요. 교재에 대한 솔직가감한 평가조차도 업자들에게는 치워버릴 방해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실제로 수험시장은 '여론'이 중요합니다. A 교재나 B 강의가 좋다고 하면 다들 우르르 소비하죠. 액수도 장난이 아닙니다. 콕콕러들이 선량한 의도로 수험시장을 평가한들 그건 타인들 눈에는 "자기 장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 안 비칠 겁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이 사이트는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 나름대로의 사이트 문화로 정착시키겠지만 피해야 할 강의나 교재를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무조건 그 경우는 "언급제외", 즉 볼드모트급으로 분류할 것이니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상품이 언급제외되었다고 나서는 업자 분은 없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추천해야 할 강의나 교재도 거의 공짜거나 가성비가 좋은 것으로 한정하는 쪽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

챗방 이용자 분은 처음보는 닉이거나 말없는 경우는 말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왕관이용자 분들이나 lv이 좀 높으신 분은 수상한 닉이 있으면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 씹쓸하지만 이런 장치가 아니면 안전한 챗도 불가능해진 상황이 오는 것 같군요. 대화방에서 제재하는 방향은 "벙어리" 아니면 "ip밴"이온데 벙어리는 사실상 대화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ip 밴 밖에 없습니다. 퇴장기능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번거로운 걸 막으려면 가장 많이 쓰는 콕방을 일정 레벨 이상으로 자격제한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불가피해보입니다.

+

오늘 새벽에 대화방에서 제가 말을 걸었던 "x토x" 회원은 바로 탈퇴했군요. 그냥 말을 걸고 자기 소개를 하라고 했을 뿐인데 바로 탈퇴라. 물론 그 전에 ip로 대략 어느 지역인지는 확인해보았긴 했습니다만.

7.65 여려가지

2015.12.21

1. 실모, 그리고 교재

그 저자들조차도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넘어서 과거 본고사 것이나 일본 것까지 다 연구했을지는 의문입니다(저야 보유만 했습니다만) 쎈이나 EBS 문제가 안 좋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블라인드 테스트 던지고 싶음.

일단 실모는 ”수리적 사고가 잘 잡힌 친구”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어있으면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이트와 관련있는 일타삼피 – 고득점 N제 – 조차도 교과서나 시중 기본서 양치기가 안 된 친구들은 보면 안 됩니다.

일타삼피를 포함한 실모는 실제로 참신해보일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학원가” 냄새를 못 벗어나죠. 저는 이런 걸 흔히 ’사파’라고 부릅니다. 물론 사파 내공을 쌓아도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나쁠 건 없지요. 그런데 정파 – 즉 교과서나 기본 틀이 잡혀있는 친구들이라면 실모의 독을 마셔도 소화시키기나 하지 그게 안 된 친구들은 상담해보면 안 본 실모가 없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봐도 답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과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적중도는 안 좋죠. 30번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쎈으로 넘치고, 30번 자체는 고1 수학 꽁이면 못 풁니다.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격자점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대비하다 텔린 케이스도 있었을 것이고 이과 수학은 더욱 그렇습니다. 30번 문제는 아예 사파적인 것은 대놓고 꺼져라고 외치지 않던가요? 문이과 불문하고 고득점 킬러문제는 ’패턴’이 먹히지 않고, ’생각’을 여러번 해야하며, 매 과정마다 정확한 식과 그래프 전개 요구한다.... 였습니다. 무릇 어떤 교재가 좋다고 하려면

근거는 분명히 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 ”좋다”라는 썰만 듣고 잘못된 수험 전략을 짜는 건 본인 책임입니다만 치러야 할 대가가 상당히 크네요.

지학사에서 나온 풍산자 약점공략 시리즈 주목. 엄지손가락 듭니다. 구성이 색달라서 저자진들을 보니 으음, 에이스들이고 교재 접근이 매우 훌륭하네요. 그리고 신사고에서는 특작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마플은 잡싸게 팔리는 모양이더군요. 여기다 EBS까지 추가되고 하면 사실 교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골치아플 것입니다.

2. 인강

인강의 문제는 지나치게 길다는 것입니다. 한 코스를 완료하려면 하루에 3시간이어도 기본 2주일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필기를 다 해야하고 여러번 들어보아야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작 하고 나면 그 지식들이 다시 ’증발된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20배는 더 빠릅니다. 반복해서 읽고 암기하는 것이 학습의 정도죠. 사실 이 때문에 인강을 들을 때나 아하 하는 사람이 점수는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인강듣다보니 복습하고 문풀할 시간과 체력이 날라가죠.

인강은

- 과목의 감이 없어서 큰 흐름을 잡는다거나
- 이해가 안 가는 대목만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거나
- 문제푸는 큰 틀을 익힌다거나

이 정도에 국한해서 보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알차게 활용하고 싶으면 mp3만 따서 이어폰 끼고 듣고다니면서 시간 절약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만. EBS 수능개념 강의 정도만 듣고 문풀 하시다가 5,6 월 되어서 자기의 약점이나 취약 과목 및 단원에 관한 것만 골라서 듣는 게 낫다고 충고드립니다.

3. 왕따

여기서까지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참 **미개하고 비겁한 짓입니다.** 물론 왕따를 시켜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나, 그 이유는 당당히 공개할 수 있어야죠. 해도 되는 왕따라는 건 그 대상이 주변인들에게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대화가 안 통하는 케이스 정도인데 10대에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4. 환경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산다면야 걸어가기만 해도 온갖 문화를 누릴 수가 있죠. 그러나 본인이 독도나 마라도에 산다면? 수험생들은 자기 환경이 얼마나 축복(저주)받았는가를 모릅니다. 공부를 자기만 한 줄 알죠. 70%는 부모님이 해주신 것일텐데 말이지요(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곤)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투자한 녀석들이야 기출만 풀고 학원만 다니는데 왜 고득점이 안 나오냐 하겠죠.

공부는 사실 환경이 전부입니다.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사고방식도 달라진다는** 걸 의미하죠. 지적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독서도 많이 해야하고 공부 잘 하거나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할거야라고만 부르짖지 말고 환경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환경을 바꾸라는 건 방해받지 말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지적자극을 받을 수 있는 '독서'와 '강의', 그리고 '경쟁' 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5. 고레카와 긴조

현책방에서 다시 겟해서 읽는 자서전입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 – 이 양반은 부모가 부자도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니다. 20세기 초

일본의 젊은이들이 그랬듯이 초등학교만 졸업한 뒤 옷가게 사환으로 일 하다가 '책'을 읽고 중국-유럽으로 건너가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은 게 14 살이더군요(...) 정말 홀홀단신으로 건너가 일본군도 따라다니고 들개에게 죽을 뻔하고 굽어죽기 전까지도 갔다가 부기(회계) 실력으로 기회 잡아서 일본군에 납품하다가 나중에는 중국인들의 동전을 녹여판 주괴를 수출해 수억씩 벌어들였는데 춘원의 혁명군에 투자했다가 지는 바람에 졸딱 망해 서 자살을 생각했던 게 19살 - 미성년. (주괴 수출이 허가되지 않을까봐 세관장을 권총으로 협박한 장면도 인상적인데 생각해보니 고2가 그랬다는 게 흠좀무) 그 이후로도 대박과 쪽박을 반복하다가 3년간 도서관에서 온갖 경제 서적과 자료를 탐독하여 고수가 된 뒤에 31살에 경제연구소를 신설해 교수까지 제자로 삼고(초졸이면서) 사업하면서 고위층과 연줄 맺고... 그 이후는 알아서 책구해서 보시길.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용광로 고로를 설치했을 것입니다. 그게 포스코 박물관에 있다던데)

자꾸만 유전거립니다만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일례가 되겠습니다. 나는 한 때 성적이 잘 나왔는데(중학교 때겠지만) 지금은 왜 그럴까 하기 전에 책 한권이라도 더 읽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실력테스트해보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건 철저하게 바꾸고 개선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6. 공부를 한다 -

는 것으로는 안 되고 **미쳐야합니다**. 수학에서 미적분을 공부하면 사회의 모든 현상을 미적분으로 생각해보아야합니다(실제로 그렇게 쓰이고 있지요) 국어에서 이해가 안 가는 지문을 읽는다면 강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네 이버 검색이라도 해서 관련된 화제들이 어떤가 다 찾고 생각해보아야하고 영어는 아예 외국인에게 내가 구사할 수 있는 대사 목록으로 암기해버려야겠죠.

머리좋은 사람도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과탐의 화학

과 생명과학은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에 환장한 ’마니아’들 아니면 꺼져라고 소리치고 있죠. 관점을 바꿔 보자면 생1의 경우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억울하겠지만, 본인이 유전성애자(...)였다면 아니 이런 천국이라는 소리가 나왔을지도 모르죠.

소위 지능지수 천재 – 에 대한 열광은 1990년대에나 유명했던 걸로 압니다만 지금은 nerd의 시대죠. 머리좋냐 안 좋냐보다도 본인이 얼마나 거기에 미쳐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지 고득점을 맞는다... 로는 분명 실패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과목에 얼마나 미쳐있느냐는 겁니다.

7. 사교육의 미래

뭐길요 인류의 기원인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거겠지. 가 아니라 실제로 아프리카 방송 스타일이 ’학습효율’ 면에서도 훨씬 낫죠. 지금 가장 앞서나간 게 EBS 인강이죠. 사설 인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라, 강사님에게 세뇌당하여라, 교재에 애정을 품고 5000원짜리 50000원에 사라 하는 거면 EBS 인강은 발췌해 들을 수도 있고 콜라보 강의도 있지만

이 어느 쪽도 피드백은 약하죠.

전국에 입시고수들은 늘어나니 머지 않아 그 사람들이 출판사와 모종의 협약을 맺거나(사실 맷을 필요가 있나, 부수 늘려주는데) 직접 아프리카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모르는 것 설명해주고 피드백받고 별풍(...) 받는 식으로 가겠죠. 피드백도 피드백이지만 채팅창에 여럿이 들어온다는 것부터가 이미 학원분위기 연출인지라. 그리고보니 콕도 어차피 대화방 있으니까 나중에 일격, 일타 저자분들이 공지하면서 채팅창 띄우고 같이 문제푸는 타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가능하잖아?

7.66 괴담

2015.12.21

흡혈귀나 좀비 화의 문제 -

흡혈귀나 좀비가 하루에 2배씩 개체를 늘린다고 한다, 한달 뒤는? 2의 30제곱은 약 $1000,000,000 = 10억$ 사실 흡혈귀나 좀비 자체가 과학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지만.

1. 수학괴담

하~상위권 통틀어 한문제 푸는 데 평균 5분이라고 치자.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를 합쳐서 대략 가정 그럼 2000문제라고 하면 10,000분 = 대략 166시간이 나온다. 그럼 하루에 수험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수학시간은 2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이건 83일이 된다. 일주일에 6일 공부한다고 하면 14주이고, 그렇다면 대략 3개월이다. 자, 그렇다면 셈만 하더라도 대략 7~8000문제가 되는데 그럼 1년. 그런데 내가 듣는 괴담은 xx고 애들은 쎈, RPM, 라벨 다 푼다... 인데 그렇다면 2000문제가 아니라 15,000문제를 넘어가는 꼴인데 그럼 몇년이 걸린단 이야기인가.

이게 시사하는 논점은 꽤 많다. 첫째로 한문제에 5분당 걸릴 일은 없다. 많이 풀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단축. 그러나 고난이도를 대비하면 한계가 있으리라 둘째로 실제로 시중교재까지 저렇게 제대로 다 풀어대는 경우는 별로 없다. 만약 있다면 그건 문제가 중복되어서 시간이 별로 안 걸려서이다. 셋째로 저런 괴담은 공부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자녀 압박용으로 퍼뜨린다/

이렇게 수치화해서 접근하다보면 말도 안 되는 괴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렇다면 그렇게 괴물적으로 처리한다는 xx고 분들이 다 입시 결과가 좋으신가?

2. 실모

의아스럽운 것 : 실모가 좋다, 많이 팔린다라는 이야기는 듣지만 정작 검증해보면 정작 제대로 적중한 적은 없는데다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데 왜 '많이 성공은 못 하시느냐'이다. 가령 10,000부가 팔린다면 그럼 그 중 몇 명이 드라마틱하게 올랐다거나 그 검증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런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그것도 그렇지만 실모 양치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다면 – 실모 1만원당 4회분 치면 여기서 의미있는 문제는 1회당 3문제 정도 그럼 1만원에 12문제 정도가 유의미하단 얘기다, 나머지 문제야 시중교재들이나 기출에 널려있다. 한 문제당 1,000원인데 이것들이 적중한다면 그리 비싸지는 않지만 적어도 실모 양치기란 말은 뭔가 이상하다, 풀 대신 고기를 뜯어먹는, 웬지 개처럼 날렵한 양들을 몰다가 알퐁스 도데의 별 같은 분위기에서 아가씨 대신 아저씨를 만나는 기분?

수학문제 풀 때에만 논리적일 게 아니라(아니 그것도 논리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냥 실모 좋다 나쁘다 떠나서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수년 째 이런 논의가 안 된 것 자체가 신기하다. 모처에서 모 강사 교재 비싸다... 라는 논의보는 기분임. 메시지는 좋다 그래, 그런데 그 메시지와 메신저가 모순이면 이상하지 않나?

3. 모두가 의사가 된다면

그나마 의료계통은 공급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의아스러운 건 많다. 흔히 하는 이야기가 고령화 덕분에 노인들 시장으로 한 의료 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뭐 훔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지. 그 노인들이 '돈'을 지불할 의사와 의향이 있나. 막연하게 고령화라고 표현하면 그럴 듯 하지만, 실제로 2~30년 후 호구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부유한 노인분들이 얼마나 되나가 중요하지 않나.

6~70년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나라가 부유해지면 결혼을 많이 하고 출산률이 늘어나니 이 분야로 투자하자. 지금 현실은 어떤가? 혹자는 가난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195~60년대와 비교해본다면 아무리 헬조선이니 뭐니 해도 비교될 수가 없다. 지금 저출산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민주주의', '남녀평등', '자아실현', '개인주의'다. 이게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고를 떠나서, 사람들 가치관이 더 이상 가족중심이 아니며 출산과 육아 자체를 '행복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

그럼 앞으로 의사가 무조건 잘 나갈 거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의 섬세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내일의 주식시장도 모르는데 먼 미래의 흐름이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건 어렵다. 그나마 선형적이고 기술적인 예측 하나만으로 보는 건 정확성이 있다 해도 '개인의 장래'와 관계된 건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건 예측불가이다.

4. 인생 재단

자식이 재수하거나 삼수하는 등 20대 때 실패하는 경우에 비아냥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그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왜 위인전에 으레 등장하는 실패 에피소드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을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죽음 직전까지 실패한 경우도 많다. 오히려 큰 성공 직전에는 무시무시한 실패가 있는 패턴이 많지 않나.

중요한 건 실패를 했다기보다도 그 실패한 시점에서 가만히 무릎꿇고 노느냐, 아니면 그걸 극복하려 하느냐 그게 아닌가. 좋은 기회는 아무 것도 아니면 위기가 되지만, 위기는 잘 대응하면 기회가 되는 것이라는 건 표어가 아니라 실증 사례이다. 다들 정주영 이병철 돈 많다 어쩌구저쩌구만 하지 그 사람들이 정작 겪었던 실패나 불행, 그리고 뭔가 새로 시작할 때 받은 비아냥은 신경쓰지 않는 듯.

사실 성공하는 사람들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지 않을까.

- 첫째, 남들과 다르고 터무니없는 것을 공부하고 준비한다.
- 둘째, 적극적으로 일을 벌이면서 실패를 자주 한다. 그런데 실패해도 일어나려 한다.
- 셋째, 그를 비웃는 사람들이 대단히 평범하고 명청하다.

성공을 미래형으로 보느냐 과거형으로 보느냐 그 차이다. 성공'한' 사람에게 박수가 의미가 있을까, 성공'할' 사람에게나 의미가 있지. 하지만 대중들은 성공'한' 사람만 쳐다본다.

7.67 학생 모의고사는 단 한번도 검증된 적이 없죠.

2015.12.22

링크

- 첫째, 저 짤방의 학생은 실모를 푼 게 아닙니다. 사설모의고사들을 많이 풀었던 것이죠(...) 현재 언급되는 실모들은 학생 모의고사들이 주류입니다. 글쓴이가 제목대로 검증되었다고 하려면 저 여학생이 학생모의고사를 300회 풀었느냐를 보여줘야죠.
- 둘째, 글쓴이께서는 정작 이과 수학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정작 본인께서 이과수학을 공부해보시고 갖가지 교재들을 풀어보시고 저런 말씀을 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도 않은 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글은 제목부터 고쳐야합니다. 일단 글쓴이께서는 수험도 수험이지만 '검증'이 무엇인가, '근거'가 어떤 건가 그것부터 확실히 하셔야하지 이과

수학도 모르시고 거기다가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던 방송 인터뷰를 ”학생모의고사를 양치기하면 된다 검증되었다”하는 글을 실모양치기 효용검증사례(이과편)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드립니다.

문과수학에서 글쓴이 성적 이상을 ’실모 양치기’ 안 하고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암이 있다 칩시다. 허강탕을 먹어서 나온 케이스도 있고, 허강탕을 먹지 않고 나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강탕을 먹어서 나온 케이스가 허강탕이 가격창렬이지만 최고다라고 하다가 허강탕은 먹되 그 이전에 항암수술은 받아야지... 라고 하면 그건 매우 우스운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가 왜 실모에 비판적이냐... 그냥 이 사이트 혼자 ’정상’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실모찬양론이 올라오는 건 어른의 사정이 있죠.

- 첫째, 학생들이야 다 보지 않았으니 실모가 좋다고만 말하겠죠.
- 둘째, 실모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럼 실모가 나쁘다라고 말할 리는 없죠.

그런데 이번 칼럼란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미래 허강탕 판매업자이자 현재 실모 저자인 분이 실모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시고 반면 글쓴이 같은 분께서는 실모를 많이 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 정도면 교통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만.

실모든 사설인강이든 적당히만 이용하면 나쁠 거야 없죠. 그런데 문제는 별로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좋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1등급을 받지 못 하는 다수의 중하위권 학생들이 그 호구가 되어서 자신의 공부까지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흔히 실모찬양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 1등급 안 나오는 애들은 기본교재부터 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1등급’ 대상으로만 판매할 리는 없잖습니까. 1등급 대상으로만 한다면 돈을 벌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1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도 팔아야 재벌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학생저자가 아닌 실제 교사, 학원강사 및 원장, 박사급 이상은 능력이 없어서 어려운 문제집을 안 내셨을 것 같나요. 그 분들은 현재 학생저자들 저리가라할 실력의 소유자들입니다. 어렵게 못 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독자들을 위해서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 분들이나 그 출판사들은 허위과장광고 따위는 안 한다는 것이죠(이게 뭘 시사하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만약 그 분들도 ”이 모의고사만 보면 1등급이 나온다.”라는 식의 광고를 하는 게 안 부끄러웠다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실은 모의고사를 내서 버셨겠죠.

학생모의고사라면 그냥 끗끗한 아마추어리즘이 생명력이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마치 지금은 ”공인된 필수과정”처럼 인식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적중이 되느냐 물어보면 올라오는 답변은 ”그러니까 강 실전경험을 누리기 위해서” 이라는데 실전경험이면 그냥 다른 저렴한 파이널 풀거나 시간재 풀거나 복사집에서 학원사설모의고사(이것도 복붙성이 많지만)들을 제본받아서 풀어보아도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겸증. 여라가지 차원이 있지만 적중도로만 보자면 그냥 역대 기출, ’분석’만 해보면 됩니다. 시중에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학생모의고사를 풀어야한다는 논거의 맹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사실 수능 기출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패러다임이 다른 문제”를 냈다는 것입니다. 가령 적군이 화살을 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레이저총을 들고 온다거나 이번 미술전에서는 정물화로 승부보아야지 하고 갔는데 갑자기 추상화를 그리라고 한다거나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학원가 모의고사나 문제집은 보통 창의성이 없습니다. A라는 기출이 있으면 그 A만 가지고 A', A'', A''', A'''' 이렇게 꼬아내죠. 당연히 이렇게 가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능기출은 A 시리즈를 기대하고 간 학생들에게 B라는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못 푸는 것이죠.

학생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저는 이 글 보는 저자들이 혹시 상처(?)라도 받을까봐 해서 말 아낍니다만 사실 일필까지를 포함해서 과연 기출의 그 참신한 패러다임 쉬프팅까지 간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앙받는 실모들을 몇

달 전에 서재정리하다가 과감히 버렸는데 도대체 그것들이 왜 추앙받는지는 3일동안 보아도 모르겠더군요. 그냥 아마추어리즘 학생모의고사라고 하면 어, 해설이 이렇게 부실하고 문제도 꼬아낸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정도였지만 정말 이게 수능에 도움이 되는 걸까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 밖에 없겠더군요.

...

그리고 수학문제가 과거보다 쉬워졌다.... ”어렵다”와 ”쉽다”의 구분 자체가 참 애매하고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쉬워졌다고 하면 그 어려운 방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무조건 다 96, 100이 나와야겠지요. 하지만 실증 사례를 보면 평소 모평에서 잘 나오거나 실력자라고 하던 친구들의 결과가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자 이걸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연도 반복되면 필연으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사실 수학문제가 쉬워졌다... 라는 것은 어느 한가지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요.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말하면 요즘 수학은 쉬워진 게 아닙니다. 단지 문제를 꼬아서 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과정으로 풀어야만 패러다임 쉬프팅에 대처할 수 있게 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은 명계새우초콜릿맛이 나는 짜장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짜장 아이스크림을 요구합니다. 다만 이 짜장 아이스크림은 짜장면의 기본을 잘 지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점수가 깎이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21, 29, 30에서 내는 생각하는 문제가 수리적 사고가 잘 박혀있지 않으면 풀 수 없게 낸다는 것입니다. 수리적 사고가 체화된 친구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냥 어렵다는 문제를 컬렉팅하는 친구들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풀이과정을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죠. 하지만 시험장에서 떨리지 않고 이 신문제를 풀어낸다는 건 컬렉터들에게는 난감합니다.

다른 하나는 터무니없는 실수입니다. 21, 29, 30을 풀어댄다는 친구들이 웬 수학 B등급도 안 되는 것에서 터무니없는 실수를 해서 감점당합니다. 기본적인

개념과 연산의 문제인데, 이런 것은 쎈이나 RPM 같은 것만 충실히 했으면 그냥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 어느 쪽이든 학생 모의고사를 꼭 풀어야만 대비된다... 라는 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학생 모의고사에 집착하거나 그것들에 의존해버리면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앞의 것을 대비하려면 어려운 문제를 잡다하게 풀 게 아니라 시간 제한 걸어놓고 4점짜리를 스킬없이 순수히 교과서상 개념으로 본인이 '과정'을 분석해보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자기가 생각 못 했던 새로운 유형을 "교과서"에서 배운 것으로만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이 풀다보면 그래도 유형의 교집합이 있어서 대처가능할까"라는 식은 먹히기 힘들죠.

뒤의 것을 대비하려면 역시 시중교재로 양치기를 하면 됩니다. 학생 모의고사들은 생각보다 빠진 게 많아요. 출제 경향 쫓는다고 하다가 어 F 개념은 나오지 않아라고 하다가 정말로 F 개념이 나와버리면 다 침묵해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유형이 다 망라된 교재로 양치기하는 게 낫습니다(가격도 착하죠)

+

더불어 노골적으로 말하면 모의고사라는 것들도 창작한 문제를 공유하고 평가받고 싶어서 쓴다... 라가 아니라 그냥 - 이거 아닌가요? 돈을 버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대로 문제를 만들어서 효용을 준다면 재벌이 되든 뭐 하든 그건 욕먹을 게 아니죠. 문제는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 그리고 '아마추어리즘'으로 도피입니다. 가령 학생모의고사라서 이윤추구 동기가 적다면 대단히 싸게 팔 것입니다. 돈욕심이 없다면 문제가 다소 표절끼가 있다거나 해설이 엉터리여도 양해할 수 있죠. 그건 정말 아마추어리즘이니까요.

반면 값이 비싸지만 프로의식을 추구한다면 품질이 좋아야합니다. 정말 문제가 순수 창작이고 하나하나 개발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며 해설도 백종원 요리방송만큼 이해할 수 있어야 하죠. 돈값을 한다면야 비싸게 팔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돈버는 건 프로인데 품질이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돈은 프로처럼 별겠다는 건데, 품질 문제가 지적되면 아마

추어로 도피한다는 것입니다.

7.68 해설은 읽는 것이죠

2015.12.23

수학의 해설을 보는 게 문제느냐 하는데 사실 그건 ”읽는 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유명강사의 강의 내용이나 해설은 그리 큰 차이는 없는데(접근방법 차이나 디테일은 있을지 몰라도) 강의를 듣는 것은 괜찮고, 해설을 읽는 건 안 되느냐 말인가.

읽는 것은 대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뒤 논리적으로 타당한 순서로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수학 강의는 똑같은 내용을 더욱 상세히 쪼개서 ’순서’대로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해줍니다. 그 문제의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면서 기본 정의, 성질, 공식에서 어떻게 실마리를 잡아 풀어가는지 **순서대로** 이야기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읽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도 그 ’절차와 과정’을 주입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도 일정 시점에서는 한계에 부딪치겠죠. 남이 생각해준 것이지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반면 교재 해설은 지면과 분량의 한계상 풀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압축’해서 썼기 때문에 그걸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의도라든가 요건 해석 → 관련된 교과서상 개념 찾기 → 이용할 수 있는 조건과 단서 → 알고리즘 구성 같은 게 간략히 나와있죠. 그래서 본인들이 읽을 실력이 없거나 읽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해설을 보면 ”푸는 패턴”으로 전락해버리는 게 해설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읽으려고 하면서 그 문제나 해설을 쓰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행간까지 쪼개서 순서를 잡으려고 하면 강의 이상의 무엇인가를 선사해줍니다.

요컨대 해설을 본다와 읽는다는 건 다릅니다. 단순히 보려는 자에게는 해설은 쓰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읽으려는 자에게는 해설은 무궁무진한 소스가 될 수 있죠. 단순히 보려거나 들으려는 자는 사실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독해하거나 청해하려는 자는 쓰레기 교재를 금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설을 읽지 않고 무작정 풀어대니까 되었다... 그리고 칭찬하는 댓글이 달렸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만약 교재 해설이 정말 문제가 많다면 그래도 됩니다. 최소한 제가 자비로 구입해 명성대로인가 확인해보았던 학생 실모들 몇몇은 해설을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되었을지 모르니까요. 또한 온갖 문제를 다 모아내서 보충용으로는 좋은 RPM의 경우도 도대체 이건 해설이 맞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셈이나 다른 교재들 – 즉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고 저자진들도 검증된 경우의 해설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서점에 등장하는 유명한 기출 문제집들도 해설을 잘 꼽아 씹으면 인강 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수학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푸는 데 성공한 경우라도 반드시 해설과 비교해서 읽어보아야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어디서 부족한가 또는 논리적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풀지 않고 해설을 보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5번 정도 풀어보는 시도를 하고 그 실패의 과정을 남긴 다음 해설과 비교하며 읽어야 합니다. 해설을 수천번 보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설을 1번 제대로 읽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다는 건 현상을 그냥 궁정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읽는다는 것은 현상을 의심(부정)하고 그래서 ”왜?”라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의하고 부정하고 가정하고 하면서 현상을 해체하다보면 ’납득할 수 밖에 없는’ 명제 단위까지 도달합니다. 참과 거짓이 분명히 드러나는 단계까지 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수학실력은 수학공부가 아니라 국어공부를 통해서 늘어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좋다가 고등학교 때 추락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공식으로 ”수학 = 국어 + 산수”를 들기도 합니다.

연산하고 답을 낼 줄만 안다면 그건 산수이겠지요. 사실 다수가 수학을 산수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학은 왜 그런 답이 나오느냐 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은 왜 나왔느냐하는 발상, 또한 발상은 어디서 나왔나 … 묻는 과정입니다.

한국이 안전사고에 둔감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기성세대만 욕할 것도 없습니다. 안전사고라고 하면 고속성장이니 불감증이니 말이 많습니다만 간단합니다. “논리적 지침을 안 지켜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인 것은 빨리 빨리가 아니지요. 빠른 것은 좋은 것입니다. 빨리 빨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고 skip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주매주 베라이어티한 사건사고가 터지는 것이죠. 작년에 선박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된 것 어느 것 중에도 ”체계적인 논리”란 것은 없습니다. 문명사회의 모든 사건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수학이란 과목에서 ”풀면 된다”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직에 앉거나 큰일을 벌이면 분명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수학은 본디 유럽들 것이었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순환론적인 특성이데올로기(ex 음양론)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은 2000여년 발전이 지체됩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항상 부정하고 의심하고 회의했습니다. 기독교도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논쟁을 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세기 경부터는 이미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자기비하도 필요할 때는 해야합니다. 우리 전통에 수학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회의하고 성찰하고 검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학을 배워서 ’근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대인 = 즉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과 교양이 필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흙수저 금수저는 ’자본’이죠. 하지만 자본만 갖추면 뭐합니까. 생각할 줄 모르는데 다들 인터넷 글, 댓글만 보고 베끼고 짜깁기하면서 그게 ’교양’이라고 착각하겠지요. 그런 교양의 기본으로서 수학을 배

우는 것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댔다 어떤 것이든 풀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분명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이건 입시 수준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 행동 방식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밟고 있는 과정이 정말 문제가 없는가, 합당한가 따지지 않고 답만 구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는 분명 초기 성공을 거둡니다. 실 속 위주로 과감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승률은 높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필수과정들을 스kip해버리면 챌린저호 꼴이 나버립니다. 분명 입시를 위해서는 점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겠지요. 하지만 명문대에 가는 것이 ”더 크게 망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하면 ”근대인”이 되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 원래 우리 한국의 것에는 수학이 없으니 수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그런 결함을 보완해야겠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입시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한 경우도 아 나는 모자라단 말인가... 라는 감상은 그냥 한달 전에 끝냈어야하는 문제고 냉정하게 자기가 왜 실패했나 수학문제를 차분히 풀 듯이 그 해를 발견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부가닥을 못 잡았다면 역설적으로 그건 본인들이 입시수학을 풀 줄만 알지, 그걸 체화시키지 못 했다는 이야기이겠죠.

++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뒤늦게 언급하자면

가애든 동네학원이든 인강이든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인스턴트 풀이 야말로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패턴 문제풀이라는 건 인스턴트 풀이가 가능합니다. A라는 문제가 있으면 ④로 푼다, 이런 문제이죠. 그리고 사교육에서는 대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간편하고 쉬워서 다들 선호합니다. 그러나 수능 경험해보신 분은 아시죠. 어려운 3점이나 4점에서는 인스턴트 풀이가 안 먹힌다는 것을요.

ㄱ에서 ㅎ까지 가려면 ㄱㄴㄷㄹㅁㅂㅅㅇ ... ㅈㅊㅋㅌㅍㅎ 까지 순서대로
밟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자음”이라는 개념으로
통치고 ㄱ~ㅎ로 요약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요약을 하려면 먼저 자음체
계를 제대로 배우고 납득하여 머릿 속에 체계를 단련시킨 다음에 가야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교육시키는 경우가 적단 것이죠. 학교에서 엉터리로 대충 가르
치는 경우도 많고 학원도 가애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나마 인강은 다수가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덜할지 모르나 사실 심사하면 문풀에만 치중해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저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
으면 수강생이 줄어든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 한다 = 인스턴트 풀이가 가능하다... 라고 착각하는 수험
생들이 헤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그래서 ”하나”로 다 끌낼 수 있다는 컵라면
스러운 것을 요구합니다. 수학은 컵라면처럼 3분 내에 물끓여 넣으면 완성되어
야하는데 왜 연애하는 내 친구는 잘 되고 나는 안 될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 ”
쟤는 머리가 좋고 나는 머리가 나쁘다”라는 카스트제도 가설을 세우고 믿고 그
렇게 망해갑니다.

수학을 못 하는 이유는 상당수 그렇습니다. ’푼다’ = ’한큐에 해결해야한다’
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수학문제든 한큐에 해결되는 건 사실 없습니다. 2
점짜리 계산도 실제로 냉정히 들어가면 그 숫자가 어떤 집합에 속하는가, 그 연
산은 xx 법칙이 성립하는가, 주의해야 할 조건은 없나 다 면밀히 따져야합니다.
이런 게 귀찮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가르치는 게 우리들의 잘못된 교
육이죠. 수학은 컵라면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지켜야 할 논리 과정들을 모두 떠
올리고 그걸 순서대로 순열, 조합시키는 개념들의 이항정리라고 보면 됩니다.

공부를 못 한다는 친구들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논리적 체계’가 안 잡
혔기 때문입니다. 체계가 안 잡혔다라는 건 ”사고나 행동, 즉 일의 순서”를 못
지킨다는 것이지요. 논리는 결국 ’순서’입니다. OX, 즉 참과 거짓도 근본적인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가리는 것이지요.

제가 가르칠 때애는 절대 빨리 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스피드를 혐

오해서? 왕년에는 세자리세자리 곱도 암산으로 해댔습니다. 지금은 두자리두자리곱은 가능한 수준이지만 저도 왕년에 암산마니아였고 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의 폐해를 알고 있습니다. 스피드를 높이는 손쉬운 꼼수는 ”과정”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즉, 다 순서대로 밟지 않고 중간에 뛰어넘는 것, 즉 스kip해 버리는 것이죠. 열심히 숙련하고 올바른 기법을 개발하면(올바르다라는 건 그 기법이 모든 순서를 지키면서 근거를 갖추었다는 겁니다) 속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거에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스kip을 해서 스피드를 높이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결과는 본인들이 아실 것입니다. 사실 이건 글을 읽거나 쪽챗에서 대화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뭔 궁예질이냐 하겠습니다만. 스kip하거나 물타기 해서 점수 억지로 올리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말과 글에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N수까지 가는 경우는 운빨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알고보니 기준에 공부 잘한다고 했던 것이 스kip으로 이뤄낸 거품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찬찬히 기초부터 한 친구들은 올해 시험도 그렇지만 천대받다가 정작 시험점수는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시작하자, 이게 황금의 3개월 모토입니다. 그런데 공부는? 남들보다 천천히 하자. 다들 이걸 모르시더군요. N수가 실패하는 이유는 3~4월에 야 공부를 서둘러서 하기 때문입니다. 서둘러서 하니 부실공사가 되어버리고 스kip으로 완성된 실력입니다. 이런 친구들일수록 더 천천히 개념을 읽고 더 천천히 문풀을 해야합니다. 대신 스kip하는 것 없이 논리적으로, 답답하게 해야하죠. 처음에는 아래도 되나 할지 모르지만, 모든 순서를 다 밟으면서 훈련하다보면 ‘참속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천천히 공부해야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느리게 하는 공부를 빨리 시작하라는 것인데, 대부분은 늦게 시작해서 성급하게 공부하려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오르겠습니까.

7.69 과잉언급되는 천재들

2016.01.01

중수와 고수를 나누는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고1 수학 최고난이도까지 숙달되어있느냐 – 블랙라벨, 실력정석 문제를 껌으로 풀 수 있느냐.
2. 국어실력이 탄탄한가
3. 성격이 급하지 않고 차분한가

고1 수학이 매우 잘 잡혀있으면 미적분도 사실 한달 내면 수능 수준으로 거의 다 정복할 수 있다. (여기서 머리타령할 사람이면 고1 수학을 반복하는 걸 권하겠음. 고1수학은 정말 총론 중 총론이다). 그러나 인강을 줄창 듣고 진도를 마친 친구라고 할지라도 고1 수학이 잘 안 잡혀 있으면 계속 문제가 터진다. 국어실력이 꽝이면 문제를 읽을 줄 모르거나 조건을 누락한다는 것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성격인데 – 수학 공부에 있어서 노력이란 ”차분한 집중이 가능한 성격”의 형성까지 의미한다. 성격이 불안하거나 매우 급하거나 해서 문제를 해부하기보다는 답만 구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절대 발전할 수 없다.

그럼 위 3가지가 잘 된다고 천재인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환경만 잘 갖추고 트레이닝 코스를 잘 만들면 1~3은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천재의 요건은 **대량생산은 불가능해야하지 않나**.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뛰어나도 천재라는 딱지를 붙이는 게 문제인 것 같다. 보통 천재라고 하려면 그 혼자만의 두뇌를 가지고 나머지 세계인구를 상대하는 수준, 즉, 집단이 이뤄놓은 문명을 개인이 바꿀 수 있을 정도여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준에 관대한 듯?

그것도 그렇지만 주제파악 못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본인이 개막장 환경에서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싶어서 올라간 경우, 이런 경우라면야 ’수재(秀才)’ 정도로 칭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인간의 영역이라는 이야기다. 천재(天材)에서 천(天)이라는 게 뭘 의미할지 생각해보아도 야

저런 표현은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다. 그 뛰어나다는 것도 선천적인데 생각해보면 수험지식은 선천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선천적인 게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다.

노력은 $[\log(a)X]$

노오력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은 로그함수일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여기다가 가우스 기호까지 처리는 해야한다는 것. 다만 밑인 a 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환경, 성향, 성격, 취향, 절박함 등이 어우러진 것. 될 놈은 된다 안 될 놈은 안 된다라고 하거나 노오력해보았자 소용없다는 케이스는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우선 보아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가르치는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이건 결국 "성적은 유전자가 좌우하니 난 모르겠다"라는 책임방기와 똑같고 후자는 나가서 노가다도 안 뛰면서 엄마가 주는 밥이나 쟁겨먹는 댓글중인 경우가 많다. 어차피 이건 간단히 반박되는데 남의 자식보고는 어차피 유전자가 좌우한다고 하는 인간도 자기 자식은 노력시키려고 하겠고 댓글 달면서 헬조선 싫어노오력해보았자 소용없어하는 놈은 집안 다 망하고 굶어죽을 지경가면 그 때에는 또 먹고살려고 노오력하고 있다.

핵심은 노오력의 성과는 아주 천천히 나타난다는 것이다. 만약 a 가 10이라고 하면 10, 100, 1000, 10000.... 이런 식으로 가야만 겨우겨우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물타기'를 한다. 바로 $[\log(a)X] + F$: 즉 F 라는 상수를 일시적으로 더해 결과를 높이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사실상 거품으로 성적을 올리고 자기가 공부를 잘 한다고 착각하다가 입시에는 죽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 저기서 F 라는 것은 사교육의 족보나 꼼수 혹은 야매교재를 보면서 일시적으로 점수를 올리는 경우. 이 친구들은 수험경향이라거나 무슨 평가원 코드라거나 어려운 이야기는 잘 하다가도 정작 시험성적은 개차반 이거나 쉬운 것도 대답 못 한다.

노오력은 정말 정직하게 해야한다. 자기가 스스로 한 노력의 성과는 안 사라진다. 그게 혹자 재수삼수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실패의 늪에서 일어난 인간은 정말 빨리 성공의 낙원으로 가기 때문이다. 순수한 노력

X 를 기울여서 만든 $[log(a)X] = S$ 는 X^S 로써 작용한다. 정직하게 노오력한 사람들은 일화천금의 유혹이나 아주 명청한 사기에 당하지 않는 이상은 잘 나간다고 보면 되겠지만, 반면 자식사랑한다고 부모가 사교육시켜주는대로 거품실력을 올린 친구들은 사실 그 이후로는 잘 나가기 어렵다.

다만 현 입시가 순수히 노력해서 '현역'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다. 대략 짐작하면 평범한 애가 혼자 공부해서 하려면 +2년은 더 추가되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 왜냐면 학교는 도움이 되긴 커녕 방해가 되는 케이스도 많고, 지금 입시가 참 구조가 옛같아서 공정하지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걸 본인 노력으로 이겨내야한다는 것만큼은 올바른 정론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럼 천재는?

입시는 천재를 원하지 않는다. 실제로 천재가 있더라도 현행 교육제도에서 매장당한 케이스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천재들은 부풀려진 케이스가 많다. 실제 입시에서 원하는 건 두뇌가 아니라 '엉덩이'라는 게 중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건

1. 환경

2. 습관

3. 기초

이 세가지이다. 이 중 하나라도 되어있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애로사항을 초래한다.

4. 성격

이 역시 만만치 않지만도 들 수 있겠지만 사실 1~3만 제대로 되어있으면 덩달아 치유되는 것이다.

부모가 우리 아이 천재예요하는 경우나 자기가 천재라고 착각하는 아이들은 실제로 머리가 좋냐... 하면 그건 아니다. 수험과목이 신체 스펙을 요구하는 스포츠도 아닌데. 그러나 기본기가 정말 잘 되어있는 경우. 남들이 한 패턴 떠올리려면 30초 걸릴 걸, 본인들은 1초 내에 3개 정도 떠올린다는 것. 한마디로 지식로딩 속도가 좋다는 것인데 이게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충분히 훈련과 숙달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건 본인들이 정말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글을 읽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믿는 n수생들이 그런 환경을 자기가 스스로 조성 못할 것은 아니다.

습관은 두고볼 것도 없다. 적어도 내가 보았던 공부 잘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내가 그에 속했던(...) 때도 그랬지만 정말 엄격한 청교도적 생활 습관 유지하면서 학습량을 꾸준히 달성해서 목표량 혹은 목표량의 30% 초과달성을 하루도 빠짐없이 3달 내내, 기상시각은 일정히 유지하고 공부에 방해되는 것은 멀리하면서 그렇게 살 때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기초. 모두가 망각하지만 실제로 수능 어떤 과목이건 어려운 문제가 안 풀리는 건 그와 관련된 기초가 잘 안 잡혀있어서 그렇다. 수험에서의 창의력이건 순발력이건 그건 가장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기초가 숙달되어있느냐 뿐인데 그런 기초적인 것일수록 '쉽다고' 무시하는 케이스들이 많다면. 물론 그 무시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천재 따위는 수험에 필요하지도 않다. 그러나 '수재'가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그 수재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 습관, 기초는 분명히 갖춰야 한다.

부모

서글픈 이야기지만 성적이 나쁘거나 공부하기 싫은 케이스는 가정환경과 무관하지 않더라는 것 뛰어난 학생이군요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부모들이 이런 '깨인' 분들이 계시다니'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 내가 봐도 머리는 좋은데 왜 공부는 못 할까하는 경우는 정반대. 그리고 여기 추가하자면 조기교육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하는 게 참 오래 가는 것 같다. 5~6살에 어떤 조기교육을 성공적으로 시켰다면 그게 10년 이상 복리로 늘어나는 셈이니 그 차이는 무시하기

어려운 게 아닐까.

아래저래 상담하는 경우 내용 절반 이상이 사실 부모님들 문제다. 그리고 내 조언은 간단하다. 성년자가 되었다면 부모님에게 정신적 의존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 그리고 나도 나이처먹으면서도 느끼는 건데 어른들 하는 말이 다 옳은 건 아니다(내 말도 다 옳은 건 아니지 않나) 잔인한 진실을 적으면 자식들보고 n 수 그만두고 대학가라하는 경우는 진지하게 자녀 인생을 고민하기보다는, ”**댁 아이는 어디 갔나요**”라는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게 많다. 자기 자식의 인생보다는, 자기 체면을 신경쓰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

한데 나중에 ”엄마가 N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야 책임져”라고 하면 반응은? ”그럼 공부하지 왜 내 말 들었냐.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할 것이지” 따지고 본다면 스무살 넘어서도 부모님 시키는대로 사는 것도 웃긴 일이다. 그 때부터 하지 말아야할 것을 고르는 건 본인의 ‘윤리’로 해야하는 것이다.

대학가도 별 거 없다는데 왜 공부해야 하나

엄밀히 말하면 공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이십대 중반을 넘어서 공부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다. 대학은 어떻게 보면 본연(?)의 기능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취업기관이 아닌 학문기관으로(...) 하지만 대학이 취업을 시켜주든 말든 자기가 노오력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경험은 다른 성공들의 가능성은 높여준다.

10년 전까지야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취업해서 조직에 빼를 묻고... 아니 양 조직 기생충으로 들러붙어 살아간다는 게 먹히긴 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연령이 다 먹고사는 것, 그리고 내가 뭘 공부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공부할 수 있는 걸 고민할 수 있으면 그나마 행복이다.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 수능을 포기하고 다른 시험을 공부한다거나 바로 돈버는 노선에 뛰어들면서 한달만 지나면 느낄 것이다. 그나마 국가와 사회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지고 참고서 가격도 저렴한 편인데다가 정보얻기 좋은

게 수능이었음을. 아마 이런 걸 가지고 ”저 늙은이는 팔자 좋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할 사람도 있지만 내 반응은 간단 ”자기들이야말로 아직까지 배가 불러서 팔자 좋은 지 모르지. 왜 진작 내 말 안 들었을까 후회할테니 구경이나 해야지 흥 흥”

대기업 취업이라는 개념도 아무리 늦어도 10년 내에는 사라지지 않을까. 인류문명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무슨 아프리카 BJ 들이 잘 나간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왜 그들이 잘 나가게 되었는가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 그만큼 그들이 돈을 벌었으면 누가 돈을 잃어쓸까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조직들이 무너지고 초개인들 – 즉 부지런히 노오력하고 공부해서 개인 능력을 키워 영업하는 개인들이 잘 나가는 세상은 현재완료. 어떻게 보면 공부할 건 더 늘어나버린 것이다. 예컨대 자기를 연예인으로 내세워서 이 미지 팔아먹으면서 돈벌어보았자 본인이 책을 안 읽고 공부한 게 없어서 무개념 발언을 하거나 상식도 없어서 엉뚱한 답변하면 한순간에 날라가는 거지.

황금의 3개월 중 1/3

콕콕 내에서도 공부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 초가을 정도 되면 반응은 달라질 듯. 여기에 대해선 이견이 많지만 참 답답한 듯. 작년에 안 겪어보셨나. 시동 걸고나서 본격 공부가 되려면 최소 3개월은 지나야 한다. (물론 하루 12시간 내내 공부만 하는 독종 케이스는 제외. 그런데 독종이라면 황금의 3개월 말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았나)

수험은 남을 이기는 것이고, 남을 이기려면 더 많이, 그리고 더 일찍 공부하는 수 밖에 없다. 찔릴 놈들이 많겠지만 적어볼까

-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다
- 앞서서 공부한 사람들을 압살할 수 있는 꿈의 교재나 강의가 있을 거라 착각한다
- 수험사이트 검색하면서 그런 거 없나하는데 시간 허비한다.

그런 게 있을 턱이 있나. 머리 좋은 놈은 노오력하는 놈 못 따라간다. 물론 노오력하는 놈은 좋아하는 놈 못 따라가지. 그런데 노오력하는 인간들끼리 비교하면 일찍 시작하고 반복을 많이 한 놈을 못 이긴다.

내가 EBS 강의 빠는 가장 좋은 이유는 그건데

- 첫째, 발췌해서 들을 수 있다.
- 둘째, 정말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고 기교가 적다(기교는 남는 게 없다. 기초적인 것만 남지)
- 셋째, 다운받은 다음에 반복청취할 수 있다.

황금의 1개월 날린 사람들도 딴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취약한 과목 EBS 다운 받은 다음 2월말까지 돌리길 수능개념 강의로 xx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과 관련된 선생들 인강 올해판을 다 다운받고 이해 안 가더라도 끝까지 시청한다. 필기까지 끝냈으면 그 인강의 mp3 버전을 다운받은 뒤, 스마트폰에 넣고 dice player 같은 걸로 1.5 배속 재생하면서 계속 듣고 다니셔라. 그렇게 해서 최소 3회청을 달성해도 힘들면 그 때 사설들으면 되는데 보통 강의를 1번 다 돌리고 그 다음 또 돌린 다음 3회청까지 하면 그 과목 체계는 거의 다 잡힌다.

이것도 본인들이 '안' 해서 그렇지 뭘.

7.70 인강 활용법

2016.01.02

- EBS 강좌 기준 -

국어, 영어

동영상강의 : 한번 듣고 필기만 할 것, 필기할 때에는 곱플레이어의 캡쳐 기능을 이용하는 게 편함. 즉, 강의 들을 때는 캡쳐만 하고 듣고 나서 필기 하시라는 이야기 (이것이 EBS 강의 추천 이유, 일단 다운받은 다음 곱플 같은 것으로 배속수 조절하면서 필기는 캡쳐하면 되므로 흐름이 끊기지 않음) 그 다음은 mp3 강의 다운받으신 다음 통학, 산책할 때 음악 대신 들으실 것. 최소 3회정 이상하면 강의 뽕을 뽑을 수 있음. 언어과목의 경우는 순수한 음성만으로 알고리즘 강화가 가능

수학

천천히 들으실 것. 무엇보다 필기가 중요함. 역시 곱플 캡쳐 기능을 이용하는 게 편리할 것임. 강의를 한번 들어준 뒤 필기 제대로 하실 것. 그런데 필기를 어디할 것이냐가 문제일 건데 이 경우는 노트 아니면 A4에 따로 필기하는 것을 권함. A4에 필기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바인더링 제본할 경우를 고려해 좌측 란은 비워두시길 바람. 수학강의는 mp3 강의에서 얻는 것은 없을 것임, 필기한 것을 반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동영상강의를 빨리 돌려보는 걸 권함. 역시 한번만 들어보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강조

과탐/사탐

수학에 준함, 단 음성강의를 들을 가치는 있음. 국어, 영어 강의가 지겹다면 탐구강의 음성만 듣고 다니는 것도 도움이 됨. 문제는 필기일 것인데 이게 강사가 올려준 pdf만으로도 커버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시간이 걸리겠지만 역시 노트나 A4에 따로 필기할 것을 권함. 강사마다 캐바 케이긴 한데 그 필기를 개념노트나 시중기본서에 단권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나중을 생각한다면 단권화하지 말고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제본할 것을 권하겠음. 어차피 단권화는 머리에 하는 것이지 책에 하는 것이 아님.

사설강의가 더 나은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질 것임, 처음 듣는 맛이 다르니까. 그러나 최후에 남는 건 기교가 아니라 '기본'임을 강조하고 싶음, 수능에 준해서라면 기교가 먹히는 경우는 드물음. 기본 지식이 반복, 압축, 집적, 세밀, 융화되어 가면서 실력이 되는 것임. 재미없는 강의라도 여러번 들어서 그걸 거의 암송할 수 있을 수준으로 만드는 게 훨씬 나음. 잘 고른 강의를 나중에 2배속으로 들으면 그 강의속도대로 뇌가 움직임.

강의를 인상깊게 듣는 법?

손과 발을 움직여주는 게 핵심임, 자세한 원리는 나도 모르겠지만 들으면서 손가락으로 강사 하는 말을 필사하는 흉내 내거나 강사의 리듬에 맞춰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사소한 것도 집중도를 높여줌. 실강은 강사들이 일종의 연극을 하는 것과 유사해서 몰입할 수 있음, 그런데 인강은 영화를 보는 것과 같아서 몰입도가 떨어짐, 가능하면 1.3~1.4 배속으로 돌리고(말이 빨라지면 듣는 사람도 긴장하니까) 캡처는 곱플 기능을 이용해서 간편히 하길 자막이 지원되는 경우 혹은 그게 아니라면 강사의 말을 그대로 돌림노래식으로 반복하는 것도 좋음.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BGM으로 깔고 강의를 들어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강의 자막 파일

정 강의 듣기 싫으면 간혹 올라오는 강의자막 hwp를 다운받아 출력해보는 것도 답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음. 물론 자막이 지원되는 강의라는 전제

강의는 한번 들어도 되지 않나요?

아무개 강의를 따라가서 고득점 나온 건 아무개 강의가 훌륭해서일 수도 있지만 – 사실 요즘은 다 공부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강의 질은 큰 차이는 없음 – 오히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청취하고 필기한 것이 더 중요한 듯. 즉 반복이 중요 강의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뇌당하는 과정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반복세뇌'당하는 과정에서 지식 주입당하는 효과는 무시 못 함.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 어르신의 인사들, 이가 탄탄 이가탄.... 등의 광고가 대중들을 휘어잡는 힘 : 반복

7.71 수학에서 꿀교재 찾으려는 망상은 버리시길.

2016.01.04

상대적으로 수험에 좋은 책이 있을지 몰라도, **한권으로 다 대비되는 꿀교재는 없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실력정석도 본인이 아주 뛰어난 실력자가 아니라면 '안 보는 편'이 낫습니다. 정석은 풍부한 수학적 소스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주입식'으로 적어놓았다는 것이고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급자까지가 실력정석을 보면 생각을 하기보단 '암기'해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암기해버리는 방향으로 공부하다보면 **시험에 나올 문제만을 담는다는 꿀교재를 찾는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교재로 치면 현 수능은 교과서'만'으로도 대비가능합니다. 하지만 교과서만 봐서 무리잖아, 당연하죠. 교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문제를 해부하는 '행동' 영역이니까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인강을 들으면 좋은 건, 인강에서는 그 문제 해부 방법이 소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문제 해부를

해봐야하는 것이지, 백날 해부방법만 알아보았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인강이나 듣고 (EBS 인강으로도 충분합니다) 문제 해부 절차를 양식화시킨 다음, 어려운 문제를 해설을 보지 않고 수일 걸리더라도 혼자서 풍풍 수리논술 풀 듯이 해부해보는 경험을 해보아야합니다. 이런 해부에 여러번 성공하면 수학 실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바뀌게 됩니다.

수능에 나오는 역대 기출에 쓰이는 도구는 모두 교과서 수준에서 끝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지양되어가는 분위기이며, 아울러 교과서 개념만으로 스스로 풀 수 있게 공부해야지, 자꾸만 잡스킬이나 잡개념에 의존하려하면 **실력은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기출분석을 해보시면 되는 데 그 어떤 것도 야매 교재나 학생 모의고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정과정으로만 치면 시중에 좋은 교재는 많이 나왔고(그걸 다 풀 수 있을지도 의문) 정말 문제해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높다면, 작년 기출 경향으로 본다면 수리논술 문제들을 그 절차에 맞게 풀어보는게 더 낫습니다.

위와 같은 것만 지키면 수학은 그리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마치 수학을 잘 한다는 것이 유전이라거나 어떤 특정한 교재만 보아서 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장삿꾼들이 있죠. 당연히 그런 교재나 방식은 개인적으로 분석완료되었습니까만, '도움이 되기는 커녕 학생들 사고방식까지 맡아먹을 수 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교과서상 개념들을 아주 정확히 익히고 그걸 순서있게 나열해나가는 '논리적 양식'을 습관화시킨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A - 중학교 수학과 고1 수학이 철저히 완비되어있지만 고2 수학 부터는 모른다 B - 중학교 수학과 고1 수학은 그저 그렇지만 고2 수학 진도가 선행되어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 A와 B 중 누가 잘 하느냐... 논할 필요가 없고 A가 그냥 무조건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A는 수학의 총론적인 부분이 매우 잘 잡혀있어서 수능 범위 내용들은 'skin' 정도로 인식되고 진도나 이해가 매우 빠릅니다. 이런 친구들은 고2 수학 진도를 - 수능 기출 문제까지 병행하면서도 - 현행 과정으로 6개월 정도로 끝냅니다. 반면 B의 경우는 선행은 되어있지만 제대로 이해할 힘도 없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되어있지 않아 지루한

암기로 수학을 받아들입니다. 유감스럽지만 많은 사람들이 B에 속하고 그래서 입시에 망할 수 없다고 해서 장삿꾼들 배나 불려주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21, 29, 30이 도저히 안 된다는 분들은 오히려 속도를 늦추세요. 그냥 시중 교재만 착실히 풀면서 하루에 2문제식 그냥 저런 문제들을 애써 답구하려하지 말고, 문제를 끊어읽고 어떤 개념을 써야할까 생각만 하십쇼. 그렇게 가다보면 어느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문제를 해부하다가 유레카 하면서 답까지 도달한 자기 자신에 희열감을 느낄 것입니다.

잔소리

+ 정석은 거의 30년 넘게 발전이 없었다... 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건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기도 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정석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굳건한 위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학실력이 되는 사람은 정석을 읽으면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초심자들이 정석을 본다면? 혼자 억측하는 건 무리이므로 거금 들여 일본 책과 교재들을 연구했지만 현재는 정석같은 방식을 고수하는 책은 드뭅니다. 차트식 수학조차도 해설은 매우 친절한 편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알고리즘을 부드럽게 적시한 편입니다.

+ 문제를 암기하지 말고 개념을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개념 암기라고 하면 문제씬에 나온 개념 + 각 공식과 정리의 증명 + 유의사항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데 학생들은 개념 암기는 안 하고 자꾸만 야매교재에 나온 이상한 스킬이나 문제패턴을 암기하고 있더군요. 수능에서 21, 29, 30을 제외한 나머지는 셈 B형 수준에서 거의 다 풀립니다. 21, 29, 30은 거의 다 신패턴아니면 기출반복이죠.

+ 그리고 간혹 보다보면 수험을 하기보다는 xxx님의 xxx 강의를 듣는다, xxx 교재를 푼다라는 수험코스프레를 더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득점을 받아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xxx 강의나 xxx 교재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언플이나 광고가

자행되었는지 몰라도, 수험의 목적을 잃고 xxx 강의나 xxx 교재를 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7.72 일지 뉴비들에게

2016.01.04

일지에 대해서 무슨 장사를 한다거나 자랑질(...)을 한다거나 하여간 그 당사자의 인격을 보여주는 반응들이 있습니다만. 일지 제안한 것은 별 개 아닙니다. 칼럼을 쓰니까 별별 질문들이 다 날라오는데 '실천적인 공부'와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어서였습니다. 공부를 정말 한다면 날라올 수 없는 질문들이 귀찮아서 (...) 일지 쓰라고 한 것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상담해준다고 글 쓰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배너 광고에 올라오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라 그럴지 모르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별 관심도 없습니다. 상담해주는 것을 기화로 노골적으로 장사하는 인간들은 매우 천박하다고 여기고 있어서입니다. 그렇게 돈벌어보았자 곧 날려먹죠. 그런 사람들의 그릇이야 뻔하니까요. 제가 관심이 있는 건 "공부를 못 하는 사람들이 극기(剋己)하고 성공하는 과정"의 반복과 일반화일 뿐입니다. 입으로만 헬조선이니 흙수저이니 그러지 말고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금수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실제로 모색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일지 쓰시는 분들은 대략 2주차 되셨을 것이고 본인들이 양심이 있다면 느끼셔야합니다. 공부를 안 할 때에는 뭐든지 다 공부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하루 최소 공부량도 채우기 힘들구나라는 것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막연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학습량을 정말 늘려야하는 경우는 간혹 보다가 지적해드리겠지만, 지금 10일차 넘게 쓰신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정말 원없이 노는 시간 가지시고 나머지 6일은 정말 보수적인 학습량을 최소한으로 책정하고 그것이라도 100% 달성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콕부심(...)이고 뭐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현재 콕콕 사이트가 1년동안에 공부를 그래도 하려고 하는 알짜 회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이트 주인장이든 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말 공부하려는 사람들만 우대하고 활동하게 하는 시스템이죠. 게다가 여긴 상업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일격도 졸라 까는 곳이기 때문에 특정교재를 보아야한다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좋은 게 어떤 건지 판별하면서 공부 경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일지를 쓰실 때에는 하루에 공부한 것과 놀았던 것, 몰라서 질문해야할 것과 깨달은 것 등을 중심으로 적고 일주일에 최소 한번 정도는 다 '합산'해 정리시간을 갖고. 중요한 고민이나 질문에 대해서 콕콕사이트 네임드들에게 호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딴소리 +++

이 사이트가 실모나 사설인강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어쩐다 그러는데. 이게 정상인 겁니다. 솔직히 제가 돌아보면 타 사이트는 지나치게 '상업주의'에 몰두해있고 xx를 안 듣거나 xx를 안 풀면 망한다... 라는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품이 좋다면야 그걸 권하는 건 안 말립니다만, 곰곰히 보면 장단점이 제대로 검토된 적은 없습니다.

학생인 척 해서 xx 좋다 하는 알바들은 꽤 많습니다. 그걸 방지하려면 거의 공짜로 누릴 수 있는 컨텐츠 빼고 나머지는 정말 엄격하게 비판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 비판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강사나 교재라면 그냥 '배제'해도 됩니다. 그건 정말 자기들이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인터넷 글 보고 우왕 좋겠다 하면서 구매해보니까 생각보다 별로라서 후회하는 사람 한둘이 아닐 건데요?

7.73 표절

2016.01.07

아마 언젠가 대한민국 교육 전체가 표절이라고 된통맞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1. 사교육 분야는 원체 고수가 널림, 지금 수험사이트들을 보면 자기들이 고수라고 하면서 돈 많이 번다 어찌구 하지만 그건 다 개소리고 고수급으로 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노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인강도 잘 찍지 않고 그냥 오프라인 강의로 활약하거나 아니면 업계를 떠났거나 그럼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간단한데 별만큼 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그런 걸 **인강으로 공유해보았자, 그리고 교재로 내보았자 100% 표절당합니다.**
2.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표절에 관대. 물론 합리적인 기준은 있겠죠. 가령 모의고사 어려운 것 100문제를 1년 걸려서 만들었다 하면 그건 창작이라고 볼 여지는 있는데, 수학 전분야 다른 것을 500쪽 넘게 쓰는 게 1년 정도 밖에 안 걸렸다 하면 100%는 아니어도 일단 표절 의심은 갑니다. 뭘 이런 걸 표절이냐 아니냐 하기 전에 '국제적 기준'으로 따지면 되고, 게다가 '참고문헌'과 '출처표기' 제대로 해보면 답 나오죠. 고교생이면 모르겠는데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이런 게 뭔 표절이예요'라고 하면 이미 '공부할 권리'는 포기했다고 보면 되겠죠. 대학에 들어가서 등록금을 낸다는 것은 본인도 이미 '지적재산권의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높은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표절에 있어 매우 엄격한 논문까지 쓰겠다는 것인데 말입니다.
3. 그럼 표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느냐. 책수집하다보면서 느끼는 건데, '표절했다고 보기 어려운, 그리고 저자 본인이 정말 창작했다고 할 수 있는' 책들이야말로 일찍 절판될 뿐더러 빨리 사라지더라는 것. 특히 국내의 수학 책들은 유전자풀로 말하면 자가복제 갈라파고스 열화복제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노력해서 성과 공개하면 '이런 데 표절이 어딨냐 양 하는 거지'라고 베푸버리니 충분히 독창

적인 수학책을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집필을 안 하는 거죠. 수년 걸려 제대로 써보았자 보상 못 받는데 뭐하러 공개함? 대신에 그런 것들을 짜깁기 표절해서 적당히 구라까는 교재, 아니면 문제수로 승부보는 교재들만 살아남는 것이죠.

4. 표절이 아닌 책들은 분량이 컴팩트한 대신에 그 문장 하나하나마다 논리가 잘 잡혀있습니다. 제가 수집하는 책들이 주로 이런 것들임, 이런 책들을 찾아 읽어야 생각하는 법이 바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저자스펙을 보면 30대 중반 이상은 넘어서고, 박사 이상이거나 아니면 그만큼 필드에서 활동했거나 뭐 그렇죠. 거기다가 참고문헌을 제대로 적시합니다. 이런 저자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남의 저작물도 존중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표절한 책들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나중에 나이 먹으면 자기가 그런 책을 냈다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함.
5. 아무튼 표절하는 현실 인정한다 치면, 적어도 남의 표절을 까려면 자기나 자신이 속한 쪽의 표절도 다 까야죠. Clean Hands의 법칙은 최소한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까지는 않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피해입었다는 쪽은 그럼 오리지널인가?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건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오랜 역사를 보면 현재 인기있는 사람들이 든 교재든 찰나의 포말에 불과할 건데? 게다가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태생부터가 말이 좋아서 일본에서 받아들인 것이지 일본 것들을 수도 없에 베끼지 않았나?
6. 동대문 보따리 장수가 프랑스, 이태리 명품 짹통을 만들어 돈을 버는 것까지는 좋은데(.. 라고 하지만 이거 상표법 위반이죠) 거기서 자부심을 갖고 ”내가 명품을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라고 착각해버리면 답이 없죠. 처음에야 ’생존’하려고 표절한다고 하겠지만 그 표절로 부를 쌓으면 슬그머니 ”나 원래 잘난 놈인데”라는 자아실현(?)으로 생각이 바뀌고 분

수를 읽는 것입니다만. 본인이 창작실력이 없는데 성과는 내야 하니 남들이 표절이라고 확인할 수 없는 쪽을 찾아 표절하게 되겠지요.

7. 그래서 사실 교재 고민하는 사람들도 ”짜깁기 표절한 것들 중 어느게 좋아요”라고 고민하는 것이니 웃길 따름인 것임. 어차피 강의나 교재나 다 베낀 것들 투성이면, 그냥 양많은 것 선택하면 되는 데 뭘 고민하는 건지. 수능에서 강사들 오류 저지르는 것이 뭐겠음, ’짜깁기의 오류’인 것이죠. 강사들도 그냥 지식 정리해주는 업자 정도로 보면 되는데 슬그머니 ’참선생’의 반열에 서려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강의라는 것도 방만한 지식을 정리해준다... 정도로 보면 그냥 그런 것 잘 해주는 강의 하나만 아무거나 들어야 함. 표절문제 제기되면 이 바닥이 원래 그렇다 하는 곳인데 xxx 들어야한다하는 건 남대문, 동대문에서 뭘 사야할까 고민하는 것과 똑같음. 어차피 최종정리는 자기가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8. 교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사설이니 EBS니 따지는 건 양 웃긴 짓이긴 함. 그러나 EBS 권하는 건 그나마 이제 무난하게 정리되어있어서 그런 것이고 여러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거죠. 어차피 다 짜깁기면 저렴한 가격에 많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교재 고르면 되는 것임. 이게 무슨 박사급 논문쓰는 것도 아니고 양 다 짜깁기한 것 가지고 노는 것인데 이건 뭐 패스트푸드 점에서 햄버거 브랜드 따지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에 까다롭게 굴려는 것과 별로 다를 바도 없죠.

7.74 확통에 추가된 분할

2016.01.08

누가 도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험의 정석 – 스케줄링이 바로 저 자연수의 분할에 있다. 이게 나중에 경영과학 같은 데 쓰는 것이기도 하는데 내용은 잘 도입하신 듯.

자연수 분할의 수 : $P(n,1)+P(n,2)+\dots+P(n,n)$ 성질 : $P(n,k)=P(n-k,1)+P(n-k,2)+\dots+P(n-k,k)$, $P(n,k)=P(n-1,k-1)+P(n-k,k)$

고교 확통의 흥미로운 점은 2가지.

- 첫째, 제목은 명색이 확률과 통계인데 정작 제목에 없는 '경우의 수'가 진주인공이라는 것(경우의 수만 잘 마쳐도 사실 90%는 끝남)
- 둘째, 미적이나 기벡과 달리 '현실의 영역'에 절반 정도 걸쳐있기 때문에 학생 본인이 스스로 풀이방법을 개발할 수 있고 해봐야하는 것.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스스로 경우의 수를 만들어보고 그걸 본인의 현실 문제에 대입해보면 되는데 자연수 분할을 일종의 '학습량' 분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보기 – 가령 $n=100$ 문제라고 하고 $k=스케줄$ 단위라고 하면 합리적인 공부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물론 발상이 그렇지 그렇게 다 고지식하게 접근하라는 이야기는 아님)

그리고보니 경제수학의 전조인가.

7.75 카스트 제도

2016.01.09

인터넷은 신(新) 중세시대를 도래시킨 것 같다.

말의 영향력이 커진 사회다. 조회수와 추천수가 많으면 그 말은 사실이 되어버린다. 열람자들이 그걸 일일히 검증해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그냥 조회수, 좋아요가 많으면 믿는다. 초기에 인터넷이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정보격차나 폐쇄사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있었다. 현실은 거품정보 양산, 그리고 기존의 폐쇄사회를 붕괴시킨 것은 맞지만 새로운 폐쇄사회를 낳고 있다는 것.

수험의 경우는 웃긴 게 있다. 무슨 갓~~ 시리즈가 돈다. 10대 애들이야 철이 없으니까(?) 그런 컬트에 열광한다 치자. 어차피 수험이라는 게 결국 사교육에서 지적재산권 전수받고 그걸 정리해서 팔아먹거니와 수험 잘 한다고 천재도 아니고(수재라면 몰라도),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서 왜 함부로 갓~~ 을 붙이지? 누구나 처음부터 공부를 잘 한 것은 아닐텐데?

수험이 의미있는 건 '노력'으로 가능한 승부여서이다. 천재들만 시험을 잘 보고 엉덩이로 공부하는 애는 못 본다면 이 게임이 재미가 있겠나. 그런데도 마치 수험에서 천재가 존재하는 양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갓~~ 어쩌구 하는 것, 소꿉장난이나 서바이벌 게임 치고는 이미 '업자들' 논리까지 개입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꼴불견이다. 인터넷에서 이런 컬트에 빠지지 않고 그냥 착실히 공부하면 인생 꿨을 친구들이 이런 데 휘말려 시간낭비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대체로 흐름이

갓아무개 등장 → 모 과목 몇분만에 다 풀고 만점 → 갓~~은 ~~~ 강의나 교재를 좋아해 → 수험생들을 위해 전격판매

그런데 과거에 저런 것 없어도 공부할 사람은 했고 잘 나갈 사람은 잘 나감.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저런 게 정말 도움이 되나 다년간 보지만 내 기준에서 보자면 저게 썩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일단 교재들을 보면 4~5등급 애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저런 것들을 보았다는 친구들이 이미 1~2등급이라면 그런 걸 보지 않아도 잘 나올 수 있었단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학과 과학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왜 수험에 대해서만큼은 카스트 제도식 미신을 전파시키는지 모르겠다.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마나한 이야기고(저런 말한 녀석이 자기가 망하고 있을 때도 저 말을 추종할까)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건 수험에 있어서는 큰 상관관계는 없어보이고(환경이나 선행이라면 모르겠지만 글쎄.) 예컨대 아인슈타인이나 퀴리부인 같은 사람들이 한국의 수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까? 에디슨이면

몇등급 봤을까.

갓이과 어찌구하는 녀석들이 극혐인 이유는, 수험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도 **이과적 분석을 하지 않는다**. 마치 수학과 과학을 잘 하는 게 천부적인 재능이고 신의 영역이라는 식으로 중세시대 마인드로 돌아가는데 이걸 보면 사이비 종교 집단 – 가령 일본의 오움진리교에서 도쿄대 나온 이공계들이 있더라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다. 고교수학문제를 빨리 풀면 뭐하나, 이미 사고방식이 르네상스가 오기도 전 중세 봉건영주 수준인데

수험에 미신이 있을까. 작년 수능도 콕콕 내에서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실패한 것이 범죄는 아니지. 물론 실패함으로써 당사자는 징역 1년 이상에 벌금 3000만원 이상에 처해지는 죄수가 된다. 사실 재수생들 부터는 죄수생인 게 맞다. 그래서 수험은 프리즌브레이크 석호필의 탈옥인 것이다. 하지만 탈옥한다고 예수부처알라를 외치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웨홀이 열려 나갈 수 있더라... 이걸 믿는 바보는 없지 않나.

노오력하면 보상이 오나요 그러는데 이건 OX 문제가 아니라 부등식 문제 가 아닌가. 중학교 과정까지 마친 친구가 서울대급으로 가려면 사실 5년은 걸린다고 보는 게 내 생각이다(평균적이고 일반적인 기준) 그런데 이미 선행해서 중학교 때 고교과정까지 미리 보는 녀석은 그 5년이 3년으로 감해지는 것이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정심없이 놀다가 아 이제 공부해야하겠다하면 5수는 당연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는데요... 라는 친구들을 얘기 하다보면 노력은 분명 했다. 하지만 그게 '기준치 미달'이라서 그렇지. 노력하다가 중도포기하는 친구들의 토테미즘이 곰이 아니라 타이거라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다. 쑥과 마늘을 먹고 버티라고 했는데 이런 것 해서 뭐해 하고 뛰쳐나간.... 뭐 종족변식에는 성공하시긴 한 것 같다.

길게 공부해야하는 게 당연한데도 실패하는 사람 다수는 ”아, 이걸 왜 해야 하는데”라고 하다가 저기 갓~~~ 시리즈들을 본다. 그리고 그 갓~~~ 들의 노하우만 알거나 그들이 보았던 교재만 보더라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런데 있으면 이 글을 쓰는 내가 먼저 낼름했을 것인데 **내가 아는**

한 그런 건 '없다'.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는 툴과 스킬이라는 것도 수능에서는 안 먹히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소위 지식의 효율적 가공 같은 것 – 2x2 매트릭스나 MCSE 같은 건 이미 공개된 것이고 무엇보다 저런 것들은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올해 수능을 응시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무의미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걸 누가 아나? 목사, 스님, 무당들도 수능은 무서워한다. 합격에 대해선 다 침묵한다. 심지어 밤마다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악귀들도 어려운 수학 문제 냅다보여주면 된다, 수학문제도 못 푸는 악귀는 병신처럼 보이지 않겠나. 뻔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공부에 미쳐있는 상태'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고 우선 수능과 관계없이 숨쉴 때마다 본인이 공부한 텍스트나 문제가 연상되는 그런 충만한 상태까지 가면 되지 않나.

학별이 무의미한데 공부해서 뭐하냐는 질문도 있다. ~별이 의미하는 것은? 학별, 재별, 문별, 군별 등의 특징은 "경쟁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과거에 서울대만 졸업해도 먹힌 이유는 간단하다, 서울대에 합격한 뒤에는 **공부를 안 하더라도 '갓서울대'**니 뭐니 해도 칭송받아서이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대를 가던 노인대를 가든 **공부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서울대에 들어가더라도 본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기 때무네 학별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명문대에 가면 '너 공부 좀 했네' 정도만 본다, 사실 그 정도면 족한 것이다. 그 뒤에도 공부할 건 우글우글하다. 세상의 변화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활동무대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잡을 수 없다.

수능을 치건 안 치건 어찌되었든 공부는 계속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동네의 한적한 공인중개사도 지역 아파트 브랜드동호수 견적 다 외우고 어떤 매물이 오가는지 금융시장이 어떤지 딱 궤뚫고 있어야 살아남는다. 하다 못해 노점상조차도 어느 거리에서 몇시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지 단속은 어떻게 해야 피하는지 그런 건 다 연구한다.

그런데 오죽 수험판만 신기하게도 카스트제도적 인식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 할 뿐이다. 공부 못 하는 친구는 죽을 때까지 못 하나? 석달 불잡아놓고 국영수

문풀 1000개 이상 시키고 인강 빨리 돌리고 하면 스트레스는 받지만 호전이 있을 건 당연하다. 문제는 이걸 '안' 한다는 것이다. 왜 안 하냐? 해도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럼 왜 실패하냐? 여기서 어물쩍댄다. 자기들은 했다고 하지만 실제 기록을 보면 공부를 안 한 경우가 많다. 그나마 이건 낫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냥 수험사이트보니까 반드시 ~ 강의 보고 ~ 교재 안 풀면 안 될 것 같단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 강의 보고 ~ 교재 풀어도 이해가 안 간다는 것. 그냥 자기들이 바보라는 것을 인정했으니 공부해보았자 소용없다란 결론.

인생을 포기하는 매우 합리적인 결론이 아닐 수 없다.

7.76 문과의 시대가 다시 오지요.

2016.01.11

그게 누가 뭐라고 해도 권력, 돈, 그리고 이성을 휘어잡는 것은 문과를 졸업했건 이과를 졸업했건 ”말글”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관념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인간은 ’기술’을 지배하고, 마음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럼 그 마음을 이공계 학문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그런 술한 시도가 벌어지고 있고 경제학 같은 경우도 투자심리를 계량화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심리가 어떤지 마음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수학계통이 다시 인기(?)를 얻은 이유가 기업에서 수리적 사고능력을 중시 해서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과거동안 ‘비즈니스’에서 써야하는 수학적 사고의 틀이 새로운 게 생긴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이공계 인기는 간단합니다. 원래 취업시장에서 이과는 그냥 능력있는 노예, 문과는 잘리기 쉬운 ’동지’로서의 인식이 있었는데 문과 취업시장은 헬 중의 헬이 되어버렸고(루피, 동료는 필요없다), 이제는 기업에서 원하는 건 노예 아니면 아웃소싱이어서입니다. 문과가 망한 게 아니라, 문과 쪽이 매우 중요한데도 우리나라의 문과 교육이 진보도 발전도 없어서 그래요. 대졸하고 나서 4개 국어 기본인데다가 법률, 경제, 경영, 심리에 쌈박해서 개인창업이 가능하고 바로 해외진출 가능한 다음 욕먹었을지. 의치한

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지만 선결 조건은 '인원수 제한'이죠. 만약 면허가 없었다면, 그리고 인원수가 과다배출이었어도 그랬을까 하냐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인터넷 덕분에 화이트칼라 일감이 사라졌다... 는 건 맞는 말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언어의 영향력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기존문화교육이 관리자를 위한 것으로만 교육되어서 그렇지, 'CEO'를 위한 문과 교육의 수요라면 출지 않았을 겁니다(공급이 없어서 그렇지)

다수가 좋다고 하는 건 너무 맹목적으로 쫓지 마세요. 그런 것 없습니다 - 다 돌고 돌게 되어있어요. 먹고살기 위해서 의치한이나 공무원에 간다는 건 타당한 이야기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10대 분들이 기성세대와 차이가 없는 게 '대학 간판'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에 너무 매몰되었다는 것인데 대학은 근본적으로는 '공부하라' 가는 곳이지, '취업하라' 가는 곳이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간판을 보는 현실 때무네 대학 간판을 높일지 몰라도 그 간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뭘로 하든 그걸로 독보적인 실력을 보여주겠다... 그런 각오로 가는 곳이라고 봅니다. 남들이 카더라하면서 답은 []다 하든 말든 그건 5년 뒤에는 언제 그랬나 얼마든지 말바꿀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인터넷이 등장해서 정보처리를 해주니 공부할 게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그 컴퓨터나 인터넷도 믿지 못해서 모든 걸 다 끊어차고 암기하고 공부해야해서 공부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죽을 때까지 학생이어야하는, 그리고 죽기 전에는 죽음이 뭔지도 공부해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현재의 경기불황 경제위기는 더 이상 기존의 싸이클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뭔가 변한 것입니다, 즉 세상이 또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미래예측서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전문직이 아니라 '영업능력'입니다. A라는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한국에 수요가 없다... 그럼 아프리카 남미까지 뒤

져서 팔아버리는 게 더 중요해진 것이지요. 꼭 국제적이지 않더라도 뭔가 '팔아대는' 것 자체가 사실 재화와 화폐의 흐름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

믿거나 말거나 모르지만 진짜 무서운 부자들은 있는 척도 안 하지만 아니 스스로 겸소하게 삽니다. 파리떼들을 막고 싶어서도 그렇겠고 돈이 가족들을 타락시킨다는 것도 그렇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배고파야만 볼 수 있는 게 있다"

부자도 오래가는 부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자가 있는데 후자가 더 많습니다. 이 경우 그가 갖고 있던 돈은 정말 그의 돈이었을까, 아니면 돈이 의지를 갖고 당사자 품에 들어왔다 나가버렸을까. 명백히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지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즉 부릴 수 없는 돈이라면 그냥 세상이 나에게 맡겨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과분하게 들어온 돈은 내 것이 아니죠, 그냥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릴 뿐. 언제든 나간다고 해도 이상한 게 없는 겁니다. 남이 돈 갑자기 많이 벌었다 질투할 것 없습니다. 그 돈은 다시 나가거든요. 눈 앞에 잔칫상이 차려져 있는데 그게 무려 500인분입니다. 내게 남겨진 시간은 3시간입니다, 어찌겠어요? 아까워서 꾸역꾸역 저먹다가 배터져 죽는 게 해피엔딩일까요?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사주분석해보면 '재운'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돈이 잘 들어오는데 다시금 신기할 정도로 돈이 무섭게 나가버린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맞는다는 건 아닌데 그런 패턴은 있더구뇨. 재극인이라고 해서 재운이 강하면 인성(=배움, 학습, 인내)이 극당하죠. 사주가 맞고 아니고 떠나서 이건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돈에 눈이 먼다... 라는 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쓰지도 못 할 돈인데 집착하다보니 자기 오성마저 망가지는 거죠. 돈을 번다... 라기보다 돈을 의지있는 생명체로 여기고 "돈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돈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 갖추기"로 바꿔야겠죠. 일본과 미국의 거부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재벌들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의 도덕성 여부를 떠나보자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한가닥

해먹었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읽고, 남들이 안 하는 걸 착수하며, 사람을 부렸으니까요.

물론 빵을 외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반드시 돈을 쓰기 위해 공부한다고 하면 이건 '먹고살기 위해 몸을 팔아도 된다'와 똑같은 얘기가 되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7.77 자위권 해결 실천편

2016.01.14

- 도움(?)이 되는 온갖 컨텐츠들을 외장하드에 넣은 다음 꽁꽁 싸맨 뒤 깊숙한 곳에 박아넣을 것
- 욕망이 발동하면 무조건 외출할 것 – 이어폰 낀 다음 휴대폰에 저장한 EBS 인강을 플레이하면서 나가 15분 이상 걸을 것
- 그게 힘들다 싶으면 그냥 수면 취할 것.
- 그런 식으로 해서 달력에 표시해나갈 것. 마치 쿠폰카드처럼 그게 30개 모이면 놀러갈 것이다라고 약속할 것.
- 충동을 이기고 일주일차 이상 가면 몸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느낄 것임. 2주차를 넘기면 자위에 빠져있던 때와 달라짐.
 - + 산책할 때는 그냥 나가지 말고 인강 다운 받은 것이나 음성녹음 같은 걸 끼고 움직일 것. 국어, 영어, 탐구 같은 것은 음성녹음만 들으면서 산책하는 게 학습효과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적절한 자위는 도움이 된다.... 라는 논리면 적절한 술담배마약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는 건 그냥 안 하는 게 나음. 그리고 그것도 못 할 바에는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게 바람직

+ 공부가 안 되고 피곤하면 소설이나 만화책을 보아도 좋지만 이것도 자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어서. 그냥 이어폰-인강 들으면서 나가거나 아니면 수면이나 보충하는 게 나음.

+ 보통 청소년 상담에서 ”신중한 검토 끝에 합의보거나 조절하는 게 낫습니다”의 의미는 ”**걍하지 마 병신들아**” 이 소리임.

7.78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도전을 못 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2016.01.14

제가 n수 조장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서 해명(?) 비슷하게 하지요.

일단 여러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도전 자체를 포기하려하겠죠. 사실 이거 아무 것도 안 해도 해결됩니다. 나이먹으면 **도전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처먹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패조차도 장기적으로 보자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게 다른 도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무인도에 살면 웬수조차도 마주치면 반갑다란 말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성공 vs 실패라는 틀로만 보려고 하겠지만 사실 이건 불완전한 구분입니다. 성공, 실패의 전제는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전이 항상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실제로는 ”도전할 수 있나 도전할 수 없나”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윤리

적이다 비윤리적이다 따지든, 가난하냐 부유하냐라고 하든, 혹은 금수저냐 흙수저냐 하는 것. 이건 거의 다 유치한 것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나 의미있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고 몸이 편하면 자기가 잘 생겼느니 돈이 많으니 권력이 높으니 하면서 참 혀친 자랑을 하면서 그걸로 만족을 느끼려하겠죠. 그러나 본인이 말기암이라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 죽기 직전이면 "근심 없이 숨쉬는 것 자체가 행복임"을 느끼는 겁니다.

자꾸만 시험실패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올바른 공부방법으로 빠세게 하면 시험으로 승부볼 수 있는 것이면 3~4년 내면 불습니다. (다시 말해 저걸 초과하면 그건 본인의 방법이 문제가 많거니와 제대로 공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수썰에 비판적입니다) 님들은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건 매우 배부르고 한심한 고민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님들과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강제 노역당하지 않고 총들지 않고 수험에 몰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시험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헬조선 거리는 사람도 해외 여러국가 다녀오면 현재 우리나라라는 살기 나쁜 곳이 아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도전할 수 있을 때에 남 눈치보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이 말에 수긍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제가 알 바는 물론 아닙니다. 그건 본인들이 나이먹으면서 느끼는 것이니 제가 뭐라할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고싶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못 가면 그건 평생 한이 되는 것만큼은 트루입니다.

다만 도전을 한다면 자기에게 쓴소리해줄 수 있는 사람들 2~3명은 확보해놓고 매일 잔소리를 들으면서 도전하십시오.

7.79 [공지] 콕콕 총회

2016.01.15

- ⓐ 일지를 30일 이상 작성한 사람
- ⓑ 칼럼을 3편 이상 작성한 올린 사람
- ⓒ 운영진 및 기존 상원멤버
- ⓓ 콕콕 사이트와 유관한 교재를 출판하거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일단 이 중 하나에 속하면 저에게 알려드리면 총회 자격을 드립니다('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입니다) 저 요건을 만족시키면 뭔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게시판에다가 카타록 일지(비공개 일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게 쉬운 반면 나가기도 쉽습니다. 즉, 어그로를 끈다거나 비속어를 쓴다거나 하면 쉽게 방출됩니다. 공개적으로 일지 쓰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거나, 그냥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얘기하고 싶다고 하거나 일종의 친목 도모하면서 오순도순(...) 수험에 매진하겠다는 분들은 저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댓글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확인한 다음 바로 사이트 관리자에게 보고해서 출입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개 일지는 다 공개하기 그런 것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사온데 그런 건 줄어들 것입니다. 총회의 1차 기능은 수질관리(...)이겠죠. 그리고 제 경우는 당연히 상원, 총회 순으로 관리하고 피드백합니다.

7.80 각자에게 맞는 배우는 방식은 다릅니다.

2016.01.17

A는 독서가 최적이고 강의가 취약인 반면 B는 강의가 최적이고 독서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C는 강의-복습 주입방식을 좋아하는 반면 D는 토론하거나 자기가 가르치면서 깨닫는 걸 선호할 수 있죠. (사실 흥미로운 건 D입니다. 분명 자기는 그 내용을 모르는데 남에게 가르쳐야한다는 과제가 주어지면 제대로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깨달으니)

이게 사람마다 참 방법이 다 달라요. 제가 xx만 들으면 된다, xx만 보면 된다라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인데 사람마다 이렇게 접근방식이 다른 만큼 학습의 보편타당한 원리는 정말 신중히 접근해서 추출해야하는 것일지언대 수 험 컨설팅을 하면서 특정 상품만 좋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건 금단, 역금단증세와 다릅니다.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것과, 현재 듣는 강의나 교재가 안 맞아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졸라 노력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년간 껌씹고 오토바이타고 다녔다더라하는 것)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신중히 얘기하면서 접근 방법을 고려해보아야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만 한다면 다년간 고생했던 것이 3개월 내에 해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부머리라는 것은 절대 1차 함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불규칙한 $f(x)$ 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 가우스 함수이지요. 그게 일찍 트인 학생도 있지만 늦게 트인 학생들도 많습니다. 수학을 문자로만 접근하는 학생도 있지만 반면 이미지 - 그것도 자신의 운동이미지로 연상해서 가는 학생도 있는 등 접근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수학에만 한정해 말하면 참 재밌습니다. 국내 수학 사교육은 마치 자기 강의만 들으면 된다, 모 교재만 보면 된다는 식으로 만병통치약을 강조한다 그런데 경문사에서 나오는 수학교육에 관한 책이든, 일본에서 나오는 양서들을 보면 수학을 왜 학생들이 싫어하게 되었나라는 걸 진지하게 고찰하면서 나름의 해결 방식들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1등급도 거품 1등급이 있단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2~3등급으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죠. 당사자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반공사가 약한 마천루 부실공사'라고 하면 짹 설명될 터인데 말입니다. 사실 수학공부는 출제 경향이 바뀌더라도 점수 변동이 적은 게 당연할 터인데 말이죠. 아마 이 점에서만큼은 수학의 정석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수학의 정석 입장에서 국내수학 교육은 자기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들로나 보이겠죠. 물론 우리가 아무 기초도 없이 정석을 지향하면 타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 다 무시하고 빨리 가고 싶다고 소위 합격기에 나온 커리만 따라가는 건 위험합니다. n이 3이상 되어버린 사람들이 사실 이런 부류라고 봅니다. 자기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 한 채 계속 부실공사만 한 것이죠.

7.81 계획을 짜고 실천하는 법

2016.01.19

여러 번 언급한 이야기이겠지만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올리지요.

1. 목표달성을 필요한 작업량을 산출한다
2. 주어진 시간을 산출한다.
3. 작업량을 시간단위로 나눈다. (하루 필요작업량)
4.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업량을 냉정하게 계산한다 (하루 가능작업량)
5. 3번과 4번을 비교한다, 만약 하루 필요작업량이 하루가능작업량보다 크다면 하루 가능작업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런데 보통은 위와 같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하죠.

사실 그러기 힘든 게 어떤 교재까지 공부해야하냐 그걸 몰라서 그런데 해답은 간단합니다. 2016년 5월까지 EBS 수특, 시중교재, 기출을 다 끝낸다고 잡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다 끝내려면 11월 말에 시작했어도 힘들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도 머리가 아프다면?

그럼 수능 시험 당일에 풀어야 하는 문제량 : 국어 40, 수학 30, 영어 40, 탐구 40을 보정해서 국어 120, 수학 100, 영어 120, 탐구 120 문제 가량을 꾸준히 할 수 있느냐만 측정해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만 진정한 고수라면 저 정도는 하루 내에 풀어낼 수 있어야겠죠(거의 다 아는 문제여야하고)

이 시기 되어서 업자들이 또 광고질해대고 장사하자... 하겠지만 그런 건 라이벌들이나 권해주시고 넘들은 그냥 기출, 시중교재나 풀어서 저런 양적달성이 가능한지나 검증해보세요. 특히 수험교재들은 적어도 사견상으로는 신사고, 천재, 미래엔 등에서 나온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며 수학의 경우 특작, 수능다큐, 풍산자의 그 테마별 시리즈, 블랙라벨 수능전략서에다가 교과서만 봐도 다른 야매교재는 볼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이러고도 세뇌당해서 자꾸만 이상한 교재들 보겠다는 분들 계시는데 인생 그렇게 낭비해도 제 알 바는 아니지만 최근 3년동안 정말 적중한 사례나 있는지 한번 검증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빨리 풍산자와 쎈, 마플 풀어야한다고 했는데 벌써 1월 중순입니다. 한 달 반 지나면 3월이네요. 냉정히 말해서 그거 다 끝낸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7.82 부채도사

2016.01.21

재작년부터 이미 평가원의 출제를 '사설'이 못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것.

개인적으로 예측한 것 중에서 맞은 것은 화생하지말라, EBS가 다시 중심이 될 것이다. 결정적으로 틀린 것이 바로 2015 수능 수학 난이도.

전자는 대충 수험생들 현황이나 온라인에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교재 연구(?)라는 걸 하기에 알 수 있지만 후자는 평가원에서 독자적으로 내리는 것이나 사실 뭐라고 할 수가 없었죠. 물론 소가 뒷걸음질치듯 작년 수능에서 영어가 다소 어렵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건 맞았으나, 그건 평가원을 해킹해서가 아니라 다들 영어를 물로 본다면 통수작렬 가능성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경쟁과 출제의 교향곡입니다. 대체로 경쟁이 어떤 상황인지 출생년도에 따른 수준은 짐작가능합니다. 가령 현재 고2~고3들은 꽤 현실적이고 선행 3년치는 기본이라서 정시로 따라잡으려면 수년 걸린다... 정도는 IMF라는 대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평가원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변별력이 없다고 하면 아예 물로 내버려서 실수하는 걸 노릴 건가, 확 마그마로 내버릴 것인가. 이건 부채도사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후자가 가능하다고 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럼 일주일치 주식이나 맞춰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들의 대략적인 수준이나 사교육 공급-수요 같은 것들이야 일정한 경향성을 띠고 있기에 그런 경쟁 정보에 의한 예측은 개연성이 있지만 평가원이 정말 어떻게 낼 것이다라는 건 사실 제대로 맞춘 사람은 단 한번도 없거니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장사를 해대는 업자들은 수능 이후 몇달동안은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다만 지금 하나 머리털 걸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올해 실패하는 수험생들은 '학습량' 부족 때문에 아작나기 참 좋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럴 수 밖에 없어요.

- 첫째, 사교육 어느 쪽도 2017 수능이 ~하게 나올 거다라고 자신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
- 둘째, 이 역시 학생들도 몰라서 그냥 꾸역꾸역 공부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

특히 재밌는 건 이와 관련해서 기존 교육과정에서 썰 풀었던 사람들도 지금

은 유의미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단 사실입니다만... 사실 이건 안이할 수 밖에 없는 게 고2들 모의고사도 그렇고 작년 수능에서도 '신호'라는 것을 분명히 던져주었다는 것이고 그건 정말 왕도를 통해 공부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애들을 엿먹일 수 있겠구나라는 실마리를 대충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뻔한 이야기지만 N수생들에게는 더 가혹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교과서와 기본을 무시하고 모의고사나 강의에만 의존하는 N수생들에게는 더더욱요.

2015 수능에서 평가원은 "우린 쉽게내면서도 너희 엿먹일 수 있어"라고 경고했고 2016 수능에서 평가원은 "논리적이지 못 한 녀석, 모델링 못 하는 녀석은 꺼져. 탐구는 복불복"이라고 얘기했죠. 각자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이것만 봐도 방향은 잡히지 않나요? 국어 영역 공부해서 어디 쓰나. 이런 데에 써야지. 사실 2015와 2016 연속으로 '업자'들의 그건 털렸죠.

올해 다시 N수하겠다는 분들은 작년보다 보수적으로 기간 잡고 학습량은 3 배 이상일 거다 각오하고 가세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그냥 기본적인 교재나 푸세요. 적어도 제가 돌아본 바, 업자들도 감 못 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과목이든 낼 수 있는 방향이나 소스는 참 무궁무진하거든요.

7.83 수학 기본서 평가

2016.01.22

평도 점수도 주관적 수학의 바이블 ★★★★☆☆☆☆

장점

- 해설이 친절함
- 문제의 등급별 구분이 과외에 좋음(숙제내주기 좋은 구조)

- 어려운 문제가 괜찮은 것들이 있음.

단점

-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보면 깊이가 없음. 초기에 비해서 발전이 없음.
- 문제 유형이 생각보다 망라적이지 않음
- 독자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책은 아님, 교과과정을 쉽게 설명해주기 위한 눈치

수학의 정석(실력정석) ☆ or ★★★★★★☆

장점

- 제대로만 본다면
- 가령 5회독 이상이라면 포스 작렬함
- 행간에 숨겨져있는 내용들이 장난 아님, 개념과 연습문제 하나가 최종보스급인 게 있음.
- 이 책을 제대로 정복하고 수학 못 한다는 친구는 못 보았음

단점

- 대부분 베개로 라면 받침대로 씀, 사놓으면 뭐하나 읽지를 못 하는데
- 문제를 해설이 못 따라감, 그리고 초심자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해설이 아님
- 소수의 실력자를 낳은 동시에 다수의 수포자를 양산. 다들 자기가 소수가 될 거라고 해서 딜려들지만

숨마쿰라우데(구판, 7차, 신판) 평균해서 ★★★★☆☆☆☆

장점

- 실력정석과 온갖 학원가 수학을 적당히 비빔밥화해놓았으며 개념 설명이 납득가는 수준
- 편집이 매우 괜찮은 수준이거니와 적어도 학생들이 쓴 교재 치고는 억지 가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음.
- 적어도 몇몇 설명이나 문제는 최상위권 지향

단점

- 구판이 가장 좋다는 건 개정해나가면서 하향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
- 실린 문제가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남, 수학교재가 안 그런 게 어딨냐만 사실 실린 문제나 연습문제는 아쉬움
- 처음 풀 때는 뭔가 괜찮은데 나중에는 실력정석이 끌리기 시작하는 이 느낌은 뭘까.

풍산자 수학 ★★★★★★☆

장점

- 개념 설명이 쉽지만 핵심을 잘 짜르고 있고, 실린 문제도 쉬워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것들이. 저자가 신경쓴 티가 역력함
- 시중 나온 책 중에서 돌리기 가장 좋은 책임. 일단 수학 기본서는 빨리 돌릴 수 있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 독학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책

단점

- 저자가 최신 수능 경향을 반영 못 하거나 생각 안 하는 걸로 보임. 이건 다른 교재로 보충하길 바람.
- 이 시리즈만으로는 수능 대비할 수는 없음. 그냥 기본서 중 기본서로 보는 게 좋음

문제 쎈 ★★★★★★☆

장점

- 가장 망라가 잘 되었으며 단권화하기도 편리함. 등급 구분도 잘 되었고 개념 '편집'도 괜찮음. 탄탄한 안정성
- 수험 동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음. 다수가 보는 무난한 책이면서도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음.
- 실린 문제수에서도 타의추종 불허함.

단점

- 개념 쎈을 보기도 어중간한 개념 설명. 개념 설명에서 증명은 타참고서보거나 인터넷 검색해서 알아서 채워넣을 것
- 해설이 간혹 납득 안 가는 것들이 있음. 그리고 일부 해설은 너무 억지 티가 나는 것도 없지 않음
- 가장 좋은 풀이 엑기스나 유형조합을 하필 해설에만 넣어서. 다수 학생들이 그걸 놓치고 있음(...) 이거 따로 편집해서 핸드북으로 팔 것이지

마플 : 기출 ★★★★★★☆, 개념 ★★★★★☆☆☆☆

장점

- 기출 : 유형별 정리 잘 해놓음, 양이 꽤 많은 편, 문제 선정 괜찮음,
- 개념 : 기본 개념에다가 기출을 잘 노임

단점

- 기출 : 해설이 다소 억지인 게 있음, 다른 단원에 있어야 할 문제가 잘못 섞인 경우도 있음.
- 개념 : 보충 개념서일지는 몰라도 이걸로 처음부터 가면 독학가능할까?

유난히 설명이 잘 된 수학 ★★★★★☆☆

장점

- 개념서면에서 특화. 설명이 매우 상세함, 그리고 신선한 접근이 돋보임
- 도해적 설명 자체가 매우 괜찮음.

단점

- 업데이트 되지 않음, '개념보충서'로만 간주하는 게 좋음, 특정개념이 정말 이해가 안 갈 때에만 봐도 됨
- 문제선정이 아쉬움(업데이트가 안 된 탓이 큼). 상세한 설명은 해법셀파나 교과서를 참조해보아도 된다는 점에서 대체성.

수학의 원리 ★★★★★☆☆ 장점

- 개념이나 문제가 꽤 크리티컬한 것들을 잘 겨냥해놓았음. 핵심 사항의 핵심적인 설명을 알고 싶으면 보시길
- 저자의 내공이 느껴지는 책. 심화개념서를 보고싶은데 정석이 싫다면 이 책으로 가는 게 좋다고 권함

단점

- 중심이 되기는 뭔가 아쉬움. 상위권용임을 차라리 표방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서브로는 좋지만 메인으로는 그닥임
- 생각 외로 독학은 어려울 수 있음, 책이 애당초 중상위권 이상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

제가 보지 않았거나, 별로 수험과 상관없다고 느껴지거나, 비평할 필요가 없는 것 등이면 언급은 안 합니다. 참고로 위에서 보통은 2~3 종류는 보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수능은 위의 것들로도 넘칩니다. 수능에서 커버가 안 되는 문제들은 사실 어떤 강의를 들어도 힘들 것입니다. 본인들이 부지런히 연습해서 수리적 마인드를 안 키우는 이상은. 메이저 출판사가 낸 것들은 거의 다 괜찮으니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지 뭘 보느냐는 딱히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국내수학은 거의 다 짜깁기이죠. 대부분 수학의 정석에서 파생된 것이고, 정석조차도 뿐리는 일본인이라. 물론 주체적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공부해서 교재에 반영하는 새로운 흐름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걸 잘 구분해야합니다.

A – 일본 것을 열화복제한 것이 국내 사교육 시장에서 진화된 경우

B – 일본 본토에서 최근까지 발전해 온 것을 국내에 유입시킨 경우

그런데 짜깁기 스킬이 수능이나 수리논술에 먹히지는 않죠. 교과서가 재부각된 게 그런 이유. 왜냐면 교과서가 역설적으로 B 경향을 잘 반영해서리그 저자진 분들이 경문사 등에서 낸 책을 보면 연구를 엄청 열심히들 하셨죠. 사실 한권으로 정리되는 게 있을지는 의문. 완성시키는 건 자기 머리이지 책이 아닐텐데.

7.84 [교재글] 개정교육 과정인데 비싼 교재 살 필요가 있나요.

2016.01.22

분명 이런 가상의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적습니다만. **자연수와 집합의 분할 빼고는 사실 구입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자연수와 집합의 분할은? 웬 기준으로만 치면 내용에 비해서 웬 역시 문제 해설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머리 쓰시다보면 자연수, 집합 분할의 추가정리는 스스로 발견하실 수 있겠죠.

지금 참고서 시장이 웃긴 게 메이저 출판사 교재조차도 그냥 기존 과정들 개정에 맞게 재배치하고 문제수준 '하향'한 다음 신유형과 기출 덧붙인 수준입니다. 그럼 실제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 건지 대비되어있는가... 하면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시중 교재와 기출 문제집이나 열심히 풀다가 EBS 수특, 수완 나오면 그거나 풀면서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의 경향을 매번 주시하면서 눈치작전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수험생이라면 풍산자, 웬, RPM, 일품, 라벨, 일등급, 실력정석 중 택 3하고 교과서 꾸준히 풀다가 이해가 안 가는 건 EBS 강의 아니면 사설 메이저 강의 공신력있는 것 하나만 따라가면서 돈 안 쓰고 모아두고 있다가 6평 치고 나서 좋다는 게 확인된 문제집이나 강의를 구입할 것 같네요. 실제로 시험 경향에 맞게 보정한 교재들은 그 때 정도야 나오겠죠. 학생들도 어리둥절할 뿐만 아니라 교재 만드는 사람들도 다들 어리둥절해야 정상입니다. 제가 교재 만드는 사람이면 가만히 눈치보면서 모평 어떻게 나오나 본 다음에 7월달에야 낼 듯.

콕콕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현재로서는 출제경향은 모르겠으니 그냥 기본교재나 다 풀다... 와 같은 농부모드로 가시길요. EBS에서 출시하기로 한 교재 보니까 3, 4점도 있는 걸 보니 풀만한 교재들이 부족해서 망할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6월에 가서 학습량이 부족해서 교재들을 소화 못 해서 내년을 기약해야하는 불상사의 가능성성이 높을 뿐이죠. 작년까지의 교재 보신 분들이라면 굳이 바꾸진 마세요. 달라지는 것 생각보다 없고, 오히려 하향된 측면도 없지 않으니. 정말 꼼꼼히 만드는 업자들이라면 아마 6월 정도는 지나야 낼 것입니다. 그래야 경향성이 거의 다 파악되니까요.

아마 올해는 교재 리뷰를 쓰지 않을까 싶은데 – 다를 가치가 있는 것들만 – 교재와 관련된 글은 댓글란을 닫기로 합니다. 본문은 별 문제도 없는데 생각없는 사람들이 교재를 특정하거나 일부러 대놓고 모 교재 아니냐라고 특정하려하던 수상한 아이디들도 있어서(부끄럽지도 않냐?) 그런 건 아예 차단해버릴 생각이어서입니다.

적어도 제가 언급하는 교재들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공부할 가치는 있는 것들이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 다만 기존 이과였는데도 삼각함수 같은 것이 힘들다거나 문과였다가 이과 갈아타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개정 교재로 가는 게 편합니다.

++ 현명한 학생이라면 6평 전까지 시중교재 풀 수 있느 것 다 풀고, 그 때 가서 출제 경향 파악되면 거기에 집중하겠죠.

7.85 수험계의 착취

2016.01.29

편의상

A – 업자

B – 상위권

C – 하위권

으로 잡자.

A라는 업자는 B를 겨냥한 상위권 교재나 강의를 낸다. 그런데 여기서 주 의할 것은 상위권을 가르치는 것이 하위권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더욱 손이 덜

가고 쉽다는 것이다. 왜냐면 심화로 갈수록 낼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거니와, 상위권 학생들은 핵심만 짚어주면 알아서 따라오거나 청출어람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합격률이 높게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건 저건 그 상위권들은 A를 거치지 않았어도 좋은 결과를 내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C의 선택이다. C는 자신이 하위권인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결과에 더욱 절실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보약 아니 머리에 좋은 것은 빚을 내서라도 하려고 한다. 그래서 A 업자가 B로써 결과를 내보인 그런 비싼 상품을 구입한다. 물론 그 결과가 어떨지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위권들이 상위권이 되는 코스들은 분석하기 쉽다. 왜냐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분석하고 말 것도 없다. 이 사람들은 일단 n 이 3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수험과정을 보면 1~2년 정도 시행착오를 하다가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서 '쉬운' 것부터 반복을 엄청 많이 하다보면 드라마틱하게 오른다. 소위 머리가 좋다는 친구들은 대부분 환경이 좋고, 환경이 좋다는 건 어린 시절부터 예습, 복습 등 반복이 습관화된 경우가 많다. 학교와 학원이 시간적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지만 효과가 좋은 건? 수업이 아무리 엉터리여도 그리고 야자가 야만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 시스템은 반복을 보장해주거든.

그럼 A가 파는 상품이 도움이 되는가?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않다. 하위권들에게 도움되는 건 없다. 그러나 A가 벼는 돈은 '하위권'들의 눈물이다.

기성세대고 뭐고 다 욕할 것도 없다니까. 자기들이 속한 수험판에서의 착취도 스스로 극복 못 하면서 무슨. 하위권들이 상위권이 되는 방법은 훨씬 더 쉬운 교재와 강의를 더 많이 반복하는 것 뿐이다. 반복을 하다보면 이해와 암기도 최소량이 보장되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면 뇌에서 공부의 쾌감을 느껴 계속 공부하게 된다. 반면 상위권들이 본다는 코스 가면 당연히 이해부터 될 리는 없고, 그래서 자기 머리가 나쁜가보다라고 연속좌절하는 것이다.

단원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그 전 단원이나 기초 과정에 돌아가서 더 많이 연습한 다음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관련 내용에 관한 EBS 강의 여러개를 3번 이상 들어보면 된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거짓말할 것도 없다. 저렇게까지 반복했을리도 없거든. 뇌를 길들이는 방법은 반복 뿐이다.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호구가 될 위험도는 낮아진다.

물론 자기들이 어려운 수험생일 때는 업자들을 욕하다가, 자기들이 그 입장이 되면 수험을 신비화시켜서 장사하려는 더욱 악랄한 인간들도 있지만. 뭐 인간세상 돌아가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게 아니겠나. 운이 좋아서 – 가령 찍은 게 맞아서 – 수험에 성공한 사람도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그리고 정말 실력이 좋은 선택받은 존재라고 과시하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물론 그딴 것은 더 나이먹어보면 알겠지만 없다. 수험만큼 평범한 것도 없으니까.

7.86 여러가지 잡담

2016.02.01

1. 환경

어제 총회챗에서 상담하면서 종합한 건 다들 공부머리가 있고 노력할 여지는 있는데 환경이 문제입니다.

집독학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집은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공부하기 싫어하는 동물입니다(공부를 함부로 해버리면 자기정체성을 상실하는 탓입니다) 공부는 강제당해야합니다. 그러니 공부를 강제하는 환경을 우선 조성해야합니다. 집에서 하면 시간낭비를 안 하고 편히 집중할 수 있다하겠지만 실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 거의 없습니다.

학원을 가도 좋지만 도서관이 가능하면 도서관에 일찍 출근하세요. 도서관에서 최소 4시간을 버티면 됩니다. 4시간 하고 공부가 질렸다면 책을 빌려 봐도 좋고 도십시오. 심심하다하면 인강 mp3 끼고 여행(?)을 가거나 몰링을 하세요 특히 집에 있다가 폐인된 분들은 하루에 1시간 30분은 쏘다녀야합니다.

2. 진로가 뭘지 모르겠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코 앞의 일도 처리 못하면서 왜 지구반대편을 걱정하느냐입니다. 수능이 코 앞이면 수능을 잘 치고 그 다음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무슨 입결상담이니 그런 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점수 잘 받으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다들 자기들이 합리적이라고 착각하겠습니다만 솔직히 한시간 뒤에 뭘 일이 일어나지도 모르는데 미래를 기정사실화하고 고민하고 있죠. 수험생들이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공부하기 싫은 뇌의 평계일 뿐입니다.

ex) 한의사 안 망해요?

한의대 가서 졸업한 다음에 따지세요

3. 과고의대 떡밥

가장 한심한 논쟁입니다. 우선 세금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정 주제가 되면 그 전문가가 된다는 게 떠오릅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왜 과학자 꿈에서 의사 꿈으로 바꾸느냐 그것부터 고려 해야죠. 간단히 말해서 똑같이 착취당해도 과학자들은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대우는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과고 출신들이

특정 커리큘럼 밟고 자격 요건 통과하면 의사만큼의 경제적 대우 해주는 걸로 해결할 문제죠. 그러나 10년 넘게 훌렸어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뭐 어쩌란 건지?

만약 직장인이라면 ”유학갔다오는 대신 우리 기업에 5년간 복무해 그 지식을 활용해야한다”라고 계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특목고 생들에게 ’강요’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거기 직접적인 법률 상의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말입니다. 경제적 보상이나 그런 걸로 유인 할 생각 안 하고 ”투자한 만큼 뺄내내라” 이런 한심한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문제죠. 가령 지금 변호사가 과거만큼 인기가 좋나요? 떨어지고 있죠. 보상이 낮아진다는 걸 아니까 그런 겁니다. 의사로 몰리는 걸 막고 싶다? 그럼 이공계 처우 높여주든가, 아니면 의대 정원 늘리든가 하면 됩니다.

왜 본질적인 해결은 간과하고 그냥 ’만만한 학생’들만 두들겨대는지 모르겠음. 이 나라가 헬조선인 이유는 간단해요. 법 지키고 노력하는 사람들만 두들겨대니까 헬조선이죠. 애당초 그 어원도 그런 데서 유래된 것이고 그런데 이 나라는 가만히 보면 ’공부 열심히 하려는 사람’부터 작살내려고 하지요.

과학고 죽이기가 아마 초반에 있었죠. 비교내신제 날려먹기가 어디서 찌른 결과더라하는 루머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왜 카이스트가 아니라 서울 대에만 가느냐(...)라고 겐세이먹인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메시지 같지만 지금 보면 그냥 어이없는 공격입죠.

이공계 대우가 좋다면 의대로 빠지는 경우 드물건데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도 이거 나아진 게 있나요? 장학금 지원해줄 테니까 노예나 되라고 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여기에 고분고분 따름? 이공계 살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살릴 생각도 없어요. 이공계가 나라를 살린다하면서 드립치면서 자기 자식은 다 고시, 의대로 보내던데 뭘 자기 자식들을 그런 데 보낸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식들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겠다는 뜻이죠.

그럼 거꾸로 과학고 등에도 세금지원을 안 하면 이제 누가 과학고에 가나요. 다 일반고 가서 내신 학살하고 돈 많이 버는 데 가겠지. 그래놓고 나면 이 놈의 나라가 헬조선이니 이공계가 망한다 또 그딴 드립치고 있겠죠. 과학고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가면 욕먹고, 일반고 가서 의대 가면 욕 안 먹고. 이건 문제없나보죠?

7.87 국어에 정답이 있을까.

2016.02.01

문법(文法)이야 확실히 O, X 를 가릴 수 있죠. 왜냐면 문법은 어떻게 써야 하느냐 지시하는 것이니 이랬다저랬다하는 게 곤란하니까.

문학/비문학 독해 문제에서 100% 정답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음. 1번 선지가 정답이고 2번 선지가 오답이라고 하는 건 1번 선지가 더 타당한 것이고, 더 타당하다는 것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1번 선지가 2번 선지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지 모든 관정에서 1번 선지가 O고 2번 선지가 X여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풀 때에는 다양한 패널들이 있다고 칩니다. 패널 유재석, 김구라, 강호동, 조혜련 등 그리고 그 패널들이 각 선지마다 O나 X 패널을 들면서 지지나 반대를 표시하겠지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는 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국어에서 O, X가 분명히 갈린다라고 착각하는데 사실 이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거꾸로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은데 어찌나하는 경우는 점수는 안 나올지 몰라도 사실 이게 정상인 것이죠.

국어에서 100% 정답과 오답이 갈리는 문제를 아예 그렇게 명쾌하게 낸다면 모르지만 사실은 그 수험생 자신의 가치관과 관점미 그런 수험국어에 맞게 '토르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수험국어의 관점이라는 건 정상

적인 사고와 거리가 멀거니와, 나중에 사람을 정말 꽉 막힌 선비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수학과는 다릅니다, 수학의 생명력은 창의력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분명히 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인 학문이니만큼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밝히지 못 하면 쓸모가 없지요.

그러나 국어의 독해 쪽은 참과 거짓이 명쾌히 밝혀진다는 게 사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국어 독해를 풀면서 왜 이게 답이고, 저게 답이 아닌지 모르겠다하는 거야 말로 실제로는 정상인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왜 특정 선지가 정답인지, 오답인지 검사와 변호사 입장에서 주장해보는 식의 ”나흘로논쟁”을 해봐야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관점에서의 O, X 합산으로 다수결을 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적어도 수능기출은 다수결은 가능하게 출제해놓으니까요.

한데 시중 참고서든 강의든 국어에 무조건 100% 정답이 있다라고 해버리니까 여기서 상식있는 학생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A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B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뭔 소리야 하면서 말이죠.

국어 = 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 = 다양한 관점에서 O, X를 검토해보면서 나흘로논쟁으로 다수결을 해볼 것

수학 = 답은 하나다 =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접근법으로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것.

그런데 지나치게 수학이 강조된 결과, 수학에서의 접근법 그대로 국어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거나 이야기해보면 순수한 국어적 관점을 몰각해버린 케이스도 적지 않아요. 우선 독서량부터 절대적인 결핍상태가 많지요.

7.88 실패하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음.

2016.02.02

이 시기에

1. 논쟁

2. 게임

3. 커챗

과거에는 왜 어른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라는 말을 했나 반항하기도 했는데 지금 나이쳐먹고보니 그냥 그게 다 진리다. 기성세대나 상류층이 다 해쳐먹어서 그렇지 않느냐고 했을 때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개념파에 해당하는 어른들이 ‘다 자기 탓이다’라고 해서 화냈던 기억이 있는데 자기 탓이라는 건 비단 ’노오력’ 뿐만 아니라 ’학습’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뒤틀게 알았다.

예컨대 열심히 노오력하는 노예가 있다고 치자, 노예가 해방되는 방법은 하나다. 세상을 전복시키든가, 아니면 도망쳐버리든가, 아니면 몰래 공부를 해서 권력을 얻어 노예문서를 불태우든가 저렇지 않고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기약은 없는 것이다. 하다 못해 부패하고 썩어빠진 어른일지라도 ”**공부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다. 젊은이들을 어떻게 착취해먹을지 고심하는 사장이라도 공부 이야기에서는 1%는 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망하는 애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본인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2월이 되었는데 게임하고 있거나 이상한 논쟁이나 벌이고 게임을 한다면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망하는 거지 그럼 흥할 일이 있나? 지금 공부 안 하고 막판에 몰아치기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몰아치기가 성공한 예를 알고싶다.

실패한 이유 가지고 하늘 탓할 것 없다. 공부한 것 따지면 되는 것이지 상담해보면 결국 구구절절한 사정도 ”**공부하기 싫어서 꾸며낸 구라**”가 대략 95%는 된다. 공부할 놈은 정말이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책 읽고 문제풀고 있다. 자기가 내일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사과나무 대신 기출문제를 암송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놓고 시험치고 나서는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기 스스로 말한다.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주변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지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닐텐데?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절대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겸손도 있지만 사실 저게 맞는 말이거든, 아무리 해도 해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공부임.

분명 집 떠나서 도서관에서 꾸준히 공부하라고 얘기했고, 게임 손에 잡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으며 황금의 3개월 날리면 힘들 거라고 했는데도 이걸 어기는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봐야할까?

7.89 우유부단한 게 가장 최악

2016.02.05

주식에서도 돈잃는 가장 최악의 패턴은

- 오르기 직전에 못 견디고 팔아버림,
- 떨어지기 직전인데도 오르고 있다고 사들임.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전형적인 예다.

마찬가지로 ~ 할까 하는 사람들의 패턴은 세 가지이다.

1. 부모님 충고를 듣고 ~ 하는 경우
2. 부모님 무시하고 망하든 말든 해보겠다라고 하고 소신껏 나가는 경우
3. 어느 것도 못 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

저 중 최악은 3번이다.

인생은 터제 RPG가 아니라서 선택을 보류하는 동안에도 시간이 흘러간다.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2개 중 하나를 택일강요받는다면 어느 걸 먹을까 눈돌릴 동안 다 녹아버린다.

그럼 꼭 이런 이야기를 하지. ”실패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아 뭐 이런 병신들이 다 있나.

실패가 남는 게 없긴 뭐가 없어. ”지혜”와 ”교훈”을 얻는데. 책에 쓰여진 그런 것 말고 본인이 괴로워하면서 체득한 자기만의 지혜와 교훈인데 아니 무엇보다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도전하는 사람이 남과 다른 게 있지. 그게 ’용기’ 아냐? 가슴 근육 키우고 배에 군주제 실현한다고 용기 있는 게 아님,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그래 해보자 나서는 게 용기 아녀? 용기 키운다고 해병대 갈 필요가 없다.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도 해보는 게 용기지. 남들이라면 무섭다 손해본다라고 할 때도 ’에잇, 경험이다’라고 하는 게 용기 아냐?

지혜도 없고 교훈도 없고 무엇보다 용기도 없다면 – 특히 그게 남자면 – 그 사람이 좋은 대학 가더라도 인생은 별로 기대할 건 없다.

물론 용기와 만용은 다르다. 용기있는 사람은 실패를 하더라도 적어도 ’안전선’은 마련해놓는다, 하지만 만용을 부리는 사람은 자살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만용은 ’용기없는 사람’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빠지는 극단적인 상태다. 용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만용”을 부리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똥통대학 양 다닐까요 아니면 재수할까요. 사실 20대 전체로 보면 어느 것이든 큰 차이는 없다. 똥통대학을 다니더라도 본인이 영업력이 출중하고 인맥 잘 잡아서 그 분야에서 먹거리를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재수를 하면 죽기살기로 해서 학벌 높이면 되는 것이다. 그 어느 쪽이든 실패하더라도 본인이 복기하면 지혜, 교훈, 용기를 모두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선택이 모든 걸 좌우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역시 그렇게 믿었지만 요즘 생각은 달라졌다. 우리 스스로가 용기도 없고 신중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괜히 '선택' 탓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럼 당시 선택은 그 당시에는 나름 신중히 숙고한 결과 아니었던가. 선택을 어느 쪽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쪽을 선택했으면 그냥 그걸로 밀고 나가는 게 답이다.

선택을 잘한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땅땅거린다, 나도 저렇게 살고싶다”라는 망상. 제가 말씀드리겠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 제대로 망합니다. 미신론적인 추명학으로 말하면 별 노력도 안했는데 돈이 굴러오는 사람은 재운이 들어오는 건데요, 그거 절대 공짜 아닙니다. 재운이 나갈 때는 정말 신기하게 잘 망합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지혜도 용기도 없고 무엇보다 따라온 사람들이 다 돈보고 따라온 사람들이라서 재운이 나가면 정말 비참하게 망하고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이야기한 김에 더 적으면 '비정상적으로 좋은 운'을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는 데 능력과 실력은 ”나쁜 운”이라도 걷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자들은 운이 나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쁜 운이 걷히고 좋은 운이 오면 대성하죠.

괜히 어설프게 선택 잘 하면 인생 트인다 그딴 망상 갖지 말고. 소신있게 결정하세요. 결과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보다도 어떤 노력을 했느냐로 좌우되니까요.

7.90 콕콕에서 연구할만한 주제들

2016.02.07

- 어떤 볼펜이 수학풀이에 더 적합한가?
- 풀이과정에서 연습장 공간을 어떻게 분할하여 나눠볼 것인가

- 시험장에서 떠올릴 수 있는 과목 '두문자'는 어떻게 개발할 수 있나?
- 카페인을 이용한다면 어떤 타이밍에 먹는 게 좋은가?
- 적정 수면 시간과 타이밍은 어떤 타입이 좋나
- 과도한 공부 이후 반드시 오게 되는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공부할 때 들어도 무해한 음악은?
- 주의 환기를 위해 봐도 좋은 사진이나 그림은?
- 문제를 읽을 때 어떤 순서로 어떤 개요를 그려나가야하는가?

...

찾아보면 주제는 참 다양하다.

....

수험칼럼 따위가 아니라 사실 저런 걸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표해보는 게 과학의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자뻑은 아니고 스스로도 학습일지를 읽거나 상담해보면 어느 정도 패턴을 파악해볼 수 있지만 이건 아직 '미신'에 불과하다. 왜냐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니까.

그런데 로켓트에 들어갈 엔진이라거나 인공 심장에 들어갈 판막에 들어갈 '부품'의 정밀성. 그런 정밀성을 갖춘 학습공학이나 학습시스템을 정리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겠나. 사실 사소한 필기습관이라거나 볼펜 종류만 가지고도 성적이 바뀌어 그걸로 인생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특정 강사 강의나 인강만 들으면 잘 할 수 있이라는 토테미즘 부족사회 제정 일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효율성있는 시스템을 맍아 바뀌어나가느냐 하는 과학의 시대가 이미 왔어야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요즘 드는 생각이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자본은 황금도 화폐도 아닌 결국 '지식'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식도 뇌로 숙달된 것이 아니면 죽은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수능에만 집중된 것이라면 나 역시 업자 장사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사실 저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전 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다. 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자가교육시스템이란 어떤 것일까.

일종의 독설적 칼럼이라면 나도 신나게 쓸 수 있고 심지어 주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미신투성이인지는 안다. 그렇다고 학습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느냐하면 그런 건 아니다. 미연구된 분야가 많다. 가령 A4 용지만 가지고도 학습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참 방법이 많은데 국내에서는 이것조차 정리된 것도 없다. 콕콕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총회까지 들어와 글을 쓰는 분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연구하고 결과를 대조해보았으면 좋겠다.

7.91 모 강사 자서전(?)을 읽고

2016.02.07

유명하다는 강사 자서전(?)을 읽었다. 물론 거기서 뭔가 기대한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았나 보기 위해서이다.

꽤 괜찮은 요식업 만화로 국내번역명 '라면요리왕'과 '라면서유기'라고 있는데 참 통념을 깨는 만화다. 장사해먹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싸구려 입맛에 맞춰야 한다라는 무시무시한 진실이 통념없이 드러나있다. 진주인공 대머리 세리자 와부터가 은어로 맛을 낸 진짜 라면을 내도 안 팔리자 에라 모르겠다라고 기름 기 듬뿍인 라면을 냈는데 그게 잘 팔려서 대박난 케이스다.

모든 이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요리를 내면 돈을 번다.... 그건 거짓말인 것이

다. 마찬가지로 오늘 들으면 내일 죽어도 좋은 그런 강의가 정말 인기가 좋은가? 사실 그렇지 않다. 수억대 연봉 강의는 들어보고나면 내 개인적으로는 실망한 경우가 많았다. 혹시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런 강의들이 잘 팔리는 건, 생각하는 게 **싸구려인 학생들이 원하던 싸구려 내용이기 때문**이다. 사실 무턱대고 강의듣는다는 친구들은 혼자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아니, 그보다 공부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공부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강의 내내 유머를 적절히 넣고 쉬운 내용으로서 공부했다라는 포만감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욕설이 섞인 카리스마 강의로서 '마조히즘적'인 것을 일깨워주는 것인데

저기서 성공한 건 후자다. 내가 읽은 자서전도 후자를 참 적절히 써먹은 케이스다. 그 내용을 읽고난 것은, 컴플렉스 덩어리였던 사람이 참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나서 사람 다스리는 법을 알고나서 학생들을 어떻게 갈궈야 속으로 좋아하는지에 대한 '마조히즘적'인 진실을 일찍 간파했었구나라는 것이다. (물론 오해사기 싫어서 말하면 나는 이런 걸 대단히 협오한다. 일단 성격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데다가 변태같아서 그렇다)

강의기법이나 내용이야 뭐 별의 별 것은 없고.

그럼 왜 폭력적이거나 독설적인 강의가 인기가 좋을까.

- 첫째, 그런 폭력적인 것을 경험하고 나야 비로소 교육받았다고 착각하는 구슬픈 유전자 때문이다.
- 둘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육이란 뭘가 '학대당하는' 것이다. 조선인들에게 민주주의적인 교육은 필요없다.
- 셋째, 힘있고 폭력적인 메시지야말로 역설적으로 주입이 잘 되고, 이게 실제로 고득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넷째, 강사의 카리스마를 돈을 주고 소비하는 건 터무니없는 가격인 걸 알면서도 해외 명품을 소비하는 것과 비슷한 만족감을 준다.

그래서 저런 강사를 한번 듣고나면 xxx 들어라 하는 자발적인 전도사가 된다. 물론 이런 카리스마가 먹히는 건 길어도 한 5년? 특히 이런 강의들은 이상하게 현강이 더 강조되는 것 같은데 하기야 '폭력'은 인터넷보단 직접 마주보는 게 더 실감나지 않겠나.

그런데 문제는 저런 달콤한 폭력에 중독된 사람은 끊임없이 저런 강의만 찾아다닌다는 것이다. 왜냐? 카리스마있게 야 이 xx야 욕하면서 주입하는 그런 것에 길들여지고 나면, 민주주의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든. 게다가 혼자 망망한 느낌으로 사고하는 것보다 카리스마 강사가 이렇다 저렇다하는 메시지가 더 선명하니까 그걸 다 흡수해야겠단 절박감이 오지.

슬프지만 이런 수법은 앞으로도 꽤 먹힐 것이다. 가르치는 걸로 일단 호구 지책하려는 사람은 위와 같은 걸 잘 감안하시길. 그 당사자들이야 숨기고 싶은 노하우일지 모르지만 솔직히 노하우치곤 뭐 이런 싸구려가 다 있나 싶을 정도다. 이런 걸 부러워해서 '앞으로 강의하고싶다'고 하는 케이스는 타락하기 전에 정신차리거나 다른 버전으로 가는 걸 권하고 싶다. 솔직히 말이 카리스마지, 실제로는 시험에 절박해서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양 협박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나? 그리고 내가 아는 한 그런 식의 강의하다가 그만 둔 사람들, 다른 분야에서 일 제대로 못 한다. 그만큼 그 사람들도 비정상이 되었던 얘기거든.

나도 한 때 강의라는 걸 꽤 많이 들어보았지만 그런 강의가 도움이 되는 건 그런 강의 내용을 내 스스로 반박할 때가 아닌가 싶다. 혼자 책 찾아 읽어보면서 내가 들었던 강의 내용이 틀렸구나를 하나하나 찾고 논증하는 것. 그럼 그게 돈이 되어서? 아니, 그런 걸 하나하나 잡아내는 것 자체가 그냥 '재밌어서' 그렇다. 돈이 안 되는 학문이든 개발의 동기는, 과거에 몰랐거나 불가능했던 걸 내가 눈 충혈되고 밤새면서 '알게 되거나', '가능하게 만드는 그것'인데 소위 독재자처럼 군림하던 사람들의 그런 내용이 실제로는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게 구라인지 간파하는 게 그냥 재밌는 것이다.

7.92 라이벌

2016.02.07

혼자서 20km를 뛰라고 하면 못 뛴다 그러나 하프마라톤 대회라면 뛸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뛰는데 내가 멈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에어로빅 등의 GX도 그러하다. 혼자서는 하기 힘들지만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다. 독학재수, 특히 집독학을 비추하는 이유도 그렇다. 혼자서 하면 사실 공부를 하다가 자의적으로 중단하더라도 아무도 못 막고 본인이 수치심을 못 느낀다. 똑같이 공부하는 '라이벌'이 있어야만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일지를 쓰고 남의 일지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다른 라이벌들이 어떻게 공부했나 보고 자극받고 따라가는 게 효과가 좋다. 이 일지조차도 콕콕에서는 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해보였다. 공부에서 '경쟁'은 정말 필요악 중 필요악이다, 특히 가르치는 사람이 서로 비교질하는 게 그게 즐거워서가 아니다. 비교를 시켜서 마음에 상처받게 하고 열등감을 느껴야만 본인이 공부한다, 그런 말을 하면 "네가 안 해도 하잖아"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다른 점에서 문제가 많다. 경쟁을 좋아한다고 다 공부를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잘 하는 애들은 경쟁 자체를 즐기고 당연시 한다. 친구 아들 딸을 이야기하는 엄마가 옳다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 엄마들도 사실 경쟁하라고 부추기는 건 나쁘지는 않지 다만 부추기되 도움을 실제로 안 주니까 문제일 뿐이다.

서로 공부를 자기가 몇시간 했으니 어떤 교재를 몇회독했느니 하는 걸 자랑하는 것이 갈등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권장될 얘기다. 저런 얘기를 들어서 빠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빠침 자체가 본인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이 10시간 정말 공부한 것을 보고 슬프거나 우울한 감정이 들더라도 그것 자체는 본인의 기준치를 높여주므로 결국은 좋다.

최근에 왜 비교질을 하고 싸움불이느냐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서 내가 한소리해야겠다. 그런 걸 문제 삼으니까 당신들이 발전이 없는 거라고. 애들끼

리 경쟁하고 참고서 뭐 보나 서로 산업스파이질하고 공부시간 속이고 하던 것? 그거 내가 중1 때 하던 짓이다. 다시 말해서 옛날부터 공부하던 사람들은 저런 건 너무 당연시했단 것이다. 심지어 공부 잘 하던 사람들끼리 서로 속사정 잘 알면서도 8시간 공부한 걸 2시간 공부했다고 농담하던 게 겸손으로 통하던 시절도 있다. 그리고 이건 현재도 똑같은 보편적 진리다. 공부 잘 하는 애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건 라이벌을 어떻게 이겨먹느냐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프린세스 메이커 게임에 스트레스가 0이 되는 이벤트가 라이벌 등장인데 이건 정말 현실적인 것이다.

자기는 저런 비인간적인 경쟁이 싫다고 하면 그냥 '평범한 대학' 가서 '평범하게' 사시면 된다. 그런데 저런 것도 비판하거나 하고 실천도 못 하면서 남들보다 잘 살거야 그딴 드립은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곁으로는 성인군자숙녀인 척하는 우등생 남녀들이 속으로는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남들 하는 것 벤치마킹하는지 모르나?

소위 공부 잘 한다는 친구들의 칼럼도 읽을 때는 주의해야하는 게 그거다 얘들이 말하는 많이 푸는 게 그냥 많이 푸는 게 아니다. 다른 애들보다 최소 1년 이상, 그리고 2배 이상은 가는 게 평범하게 푸는 것이다. 자동차라고 하면 롤스로이스가 기본이고 간식이라고 하면 거위 간, 그리고 술이라고 하면 발렌타인 두자리 년수 이걸 평범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빈익빈부익부 가중되는 것이다.

일지 쓰시는 분들은 자기의 복제 캐릭터 아무개를 가정해보자. 일지를 하루 단위로 쓰던 일주일로 쓰건 그 아무개가 어디까지 공부했을 것이다라고 소설을 써보길 바란다. 그렇게 비교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태만하게 공부하는지가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총회에서 상담하는 분들 중 가능성있다는 분들은 의도적으로라도 경쟁하고 비교시킬 것이다. 물론 그게 싫으면 빼져도 되지만, 저건 그냥 놀이가 아니다. 저렇게 해야 사실 오래 버틸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

7.93 계획을 짜는 알고리즘을 간략히 적어보자.

2016.02.08

계획을 짜는 건 자기 컴플렉스를 푸는 게 아니다. 계획은 ”100% 실천가능한 공부단위”를 작성하는 것이다.

가령 쎈을 다 풀겠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다, 그냥 목표다. 이걸로는 절대 실천을 할 수 없다. 반면 ”하루에 쎈을 30문제 풀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3 달이면 100% 완료합니다, 30문제이니 지치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이게 계획인 것이다.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나라는 가축에게 사료를 언제 얼마나 배급할 것인가’ 이게 계획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계획을 짠답시고 비싼 사료만 사놓고 이걸 한번에 먹으려고 하다 배터져 죽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계획은 단위 공부량을 줄이는 것이다. 대신 양을 줄이되 현실성을 담보하고, 그럼으로써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을 끝내는 것이다. 다들 착각하는 게 하루 공부량을 많이 잡기만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그건 틀린 이야기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공부하는 게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계획은 ’자본’을 늘려나가야한다. 예컨대 쎈, 마플, 급품벨을 한꺼번에 푸는 것과, 쎈 먼저 그 다음 마플, 그 다음 일등급, 일품, 라벨 순으로 풀어나간다고 하자. 총량은 별로 다를 것 없어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전자의 경우 학생은 정말 아무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쎈, 마플, 급품벨을 모두 상대해야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학생이 쎈을 끝내면, 그 쎈이 자기 아군이 되어서 마플 공략을 도와주고, 마플을 마치면 쎈과 마플이 급품벨 공략을 도와준다. 즉, 하나 하나 완성해내가면서 자기의 자본을 늘려나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순서’대로 하나하나 공략해나가는 것은 한단계 한단계 아군(자본)을 늘려서 그 다음

적을 처리해나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대략 1주일이나 2주일 정도 잡고 2과목의 교재 한권씩을 끝내나가면 된다. 예컨대 수특을 잡는다면 매일 하루 30문제 수학, 하루 영어 10지문은 기본으로 보면서 월수금은 국어, 화목토는 탐구. 이런 식으로 진행해나가면서 3월말까지 끝내는 걸로 기한을 잡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다. 공부량이 적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다. 3월말까지 이것만 완수하더라도 4월초에 수특이 이미 내 '아군'이 된 상태다. 그만큼 실력도 늘고 부담이 준 상태에서 다른 교재들을 공략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아마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머리 탓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순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공부든 일이든 순서대로 처리해나가면서 자기 자본을 조용히 늘려가 나중에 규모를 키우는 것이 정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실력도 없는데 처음부터 실력정석이나 어려운 실모를 푸는 건 바보같은 짓이다. 절망적일수록 가장 쉬운 교재를 정해서 그걸 확실히 내 걸로 만들고 차근차근 나가는 게 공부다.

그럼 이렇게 쉬운 계획을 누가 방해하는가? 그건 자신의 **과욕**과 **불안감**이다. 욕심을 부리는 건 좋은데 그걸로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걸 '순서없이' 끝내려 한다. 게다가 불안감 때문에 이것저것 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 글을 보는 다수 n수생들이 사실 이런 코스로 세월을 날렸을 것이다.

명심하시길, 스피드와 물량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건 '순서'가 지켜져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순서를 지켜나가면서 조금씩 10원, 20원 쌓다가 나중에 10,000원, 20,000원까지 모으다보면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남들이 어떻게 한다더라 신경쓰지말고, 인내심으로 버티면서 순서대로 자기 자본을 늘려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서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기술은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켜준다. 이건 '인내심'의 적이다.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시작해야하는 것 뿐이다.

7.94 슈퍼 마리오로 설명하는 입시

2016.02.13

급식충(?)들은 모를 수도 있는 수퍼마리오 초판입니다. 보통 2시간은 걸리는 게임인데 4분 57초만에 피치공주를 구하는 동영상입니다. 현재 수능난이도에서 만점이 나와야하는 과목은 대체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런 플레이가 가능한 건

- 수도 없이 연습했기 때문이다.
- 적과 함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암기했기 때문이다.

그럼 실제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나

+ 초고수 플레이

잘 하는 친구들은 저 정도는 한다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당연히 연습과 암기죠. 물론 처음보는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보편적인 게임 진행'에 숙달된 사람이라면야.

강의에만 의존하는 건 프로게이머 방송만 보고 게임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7.95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이유

2016.02.15

믿거나 말거나 고교시절에 의무적으로 과학 보고서를 써서 내야하는 게 있어서 햄스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햄스터의 지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인데 참고서는 전파과학사에서 나온 스트레스 어찌구. 일단 가설은 스트레스가 지능을 떨어뜨린다... 였는데

엉성한 실험이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실험결과는 스트레스를 가한 햄스터가 더 똘똘했단 것입니다. 이거 실험을 엉터리로 했나 했지만 기한은 다가와서 그냥 그렇게 냈는데 이게 생물선생님에게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아니 다른 녀석들은 어떻게 쓴 거야 도대체)

...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는 이유는 그래야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자극을 받으면 기존의 인지구조가 변형되고 뇌에서는 그런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변화를 모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에 30문제가 한계량인데 50문제를 풀게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느낍니다. 이 경우 관찰되는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문풀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 즉 공부를 회피하거나 공부하지 않기 위해서 평계거리를 만드는 경우 둘째는 문제를 푸는 인지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것 – 즉 머리가 좋아지는 경우 셋째는 그 고통 자체를 즐기는 것 – 즉 공부변태가 되는 경우

대체로 둘째와 셋째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셋째를 권장하는 이유는 '천재'를 이기는 건 변태 빼고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첫째로 갑니다. 이유없이 짜증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 – 물론 당사자는 그럴 짜한 이유를 만듭니다 – 이력을 분석해보면 '공부 스트레스'를 받은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범재와 수재 갈리는지도 모르지요.

망치로 사정없이 두들겨서 변성시켜야하는데 대상이 고정되어있지 않으면 멀리 퉁거나가버리겠죠. 그리고 거기서 학습한 효과로 망치를 피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묶여있다면 망치로 얻어맞으면서 아주 단단해지고 치밀해지

겠죠. 감금, 수감되어있다면 지적자극에 얻어맞아야되고 그렇게 하면 뇌가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독학으로 하면 공부가 잘 된다고 하는 경우는 이런 본질을 모르는 경우죠. 사실은 하기싫은 공부야말로 진짜 공부입니다. 그런 공부를 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변성 단계에 이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다른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면 그동안 뇌가 재성형되고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하면 이렇게 쉬웠냐하는 느낌을 받죠.

.....

실패하는 이유는 별 게 아닙니다. 하기 싫은 공부를 안 해서입니다. 하고싶은 공부를 해놓고 공부량이 많다고 해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로는 뇌가 안 바뀝니다요.

7.96 슈퍼 마리오로 설명하는 고수

2016.02.15

포도님이 링크시킨 영상의 주인공이 더 막 나가는 플레이를 소개

개조(Kaizo) 마리오 3 스피드런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보는 도중에 여러번 감탄사를. 물론 여러번 죽기도 하셨지만, 컨트롤과 공략이 파이브 스타 스토리즈의 파티마급이 되시네용 대충 국어, 영어, 수학의 고수라고 하면 저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원판 마리오 공략 스피드런

스테이지를 뛰어넘는 마술피리 안 쓰고 그냥 공략한 건데 이걸 1시간 내에. 그것도 그렇지만 마지막 5분 영상이 압권입니다. 저런 식으로 클리어가 가능하

구나 아예 닌텐도 코드를 다 꿰뚫고 있었네.

이제 공부의 패러다임은 다름아닌 '게임'이죠. 남에게 자기가 문제푸는 걸 어떻게 뽐낼 수 있느냐 그 자체로 동기부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수학 양치기를 한계량까지 한 사람은 평범한 학생이 30분 끙끙거리는 걸 3~5분 내에 예술적으로 풀이하죠. 그게 처음보는 문제일지라도 – 그리고 그 맛에 공부합니다.

7.97 통과의례

2016.02.15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비현실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A란 사람은 못 생겼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성형을 합니다. B란 사람도 못 생겼는데 돈이 없어서 혼자 운동하고 얼굴요가(...)를 해서 저절로 미남/미녀가 됩니다.

외모지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람들이 선택할 건 B일 겁니다. '돈'을 주고 타인의 행위로 완성시킨 걸 A의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자가 성형인데 저런 경우는 자연미로 인정받습니다.

그럼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C와 D라는 공부 못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니다. C는 거액의 돈을 들여서 오버테크놀러지 기계로 뇌에 데이터를 전송 받아 똑똑해집니다. D는 거액의 돈으로 사교육을 받아 노가다 수험을 한 다음에 똑똑해집니다. 둘 다 거액의 돈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누굴 선호하겠습니까. 대답할 필요는 없겠죠. 이게 참 신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무의식에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논리가 서있단 것이죠. 원래 배우자를 선호할 때 받는 유전자의 암묵적 명령이라는 게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험에서 배우는 게 쓸데없다고 하더라도, 수험 자체가 유의미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이 정말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신화 코드'의 하나죠. 그런 통과의례를 거친 사람이야말로 종족변식에 유리하다는 유전자의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수험에서 배우는 건게 쓸데없더라도, 그것이 수험생 본인을 '단련'시켜준다는 건 바뀌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운이 나빠서 결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단련된 뇌가 어디 가는 게 아니죠.

모든 게 유전자 덕이다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계사 공부도 안 했는가 싶죠. 왕족, 왕족, 귀족, 하다 못해 천재의 가계도 같은 걸 추적해보면 그거 3대 이상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총회 계시판에서 언급된 합스부르크 왕가의 경우도 끼리끼리 혼인으로 금수저 극대화 전략 짰다가 유전병으로 말아먹었죠. 영국 왕실이나 일본 천황가도 상징적 존재가 아니면 이미 축출당했을 것입니다.

반면 흔히 언급되는 록펠러나 로스차일드, 발렌베리 일가의 경우는 '교육'을 **후덜덜하게 시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유대인이나 화교만 보아도 공통점이 있죠. 혈통은 사실 별 것 없는데 교육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 유대인들은 분파도 다양하지만 현재의 유대인들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그 유대인과는 정말 거리가 멍니다만 그들은 유대교 전통에 따른 탈무드라는 교육자본을 갖고 철저히 교육에 매진해왔으며 화교들 역시 이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수험가에서는 의치한 가면 월 얼마 번다 이런 걸로 무조건 거기 가야한다. 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저런 바람은 이뤄지지 않을 거라고 여깁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가 수요와 공급이라 하는데 이건 자본주의 경제를 절반만 언급한 것입니다. 만약 특정 직종이 공급이 통제되어서 그만큼 차익을 누린다고 하는 걸 시장경제는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건 여론으로 제도가 바뀌든 해서 그걸 반드시 날려버립니다. 그런 게 유지되면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죠. 게다가 정작 꿀빤다는 의료직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 분들이 대학교 갈 때 돈보고 간 것은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정작 그 때 돈보고 대학간

건 공대나 경영대가 아니던가요)

오히려 지금은 남들이 외면하지만 미래에 성장가치가 있는 전공에 가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똑똑한 놈들이 몽땅 의치한에만 매진한다면, 타 전공 분야를 10년 이상 바라보고 자기가 거기서 일인자가 되는 전략이 나은 것이죠. 그럼 그런 일인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건?

수험이라는 고통스러운 의례를 자력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돈보고 가라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돈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느끼는 것이지만 거액의 재산이든 돈에 대한 탐욕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소하게 살아야하는 이유는 저축을 위해서 혹은 청빈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야만 더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7.98 선택을 못 하는 이유

2016.02.15

흔한 고민이 반수냐 아니면 그냥 재수냐 그건데 이럴 때에는 본인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버려야하며 아울러 선택안은 다시 정리하면

1. – 대학교도 대충 다니면서 운좋게 반수
2. – 여전히 고졸, 하지만 남는 시간으로 딴짓하면서 재수하기
3. – 이것도 저것도 못 하고 그냥 끌려가기

이렇게 해야 정답일 겁니다.

체크리스는 ④ 할 수 있는 것, ⑤ 해야하는 것, ⑥ 하고싶은 것 인데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건 과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가령 학교 다니면서도 수능 칠 수 있다고 하는 건 애매합니다. 전과목을 B를 맞을 것인가 A를 맞을 것인가 분명히 얘기하고 과반이 A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등의 기준을 짜고 결정해야죠. 그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재수를 하자니 본인이 룰을 한 경력이 있고 하루 공부시간이 5시간 넘은 경우가 없으며 이걸 하면 고졸이다라고 하면 골치

- 반수 : 할 수 있는 것도 꽝, 해야하는 것 애매, 하고싶은 것 꽝이면 이 경우는 그냥 재수로 빨리 돌려야겠죠
- 재수 : 할 수 있는 것 애매모호, 해야하는 것 꽝, 하고싶은 것 오케이.

이렇게 나열해서 비교한 뒤 과감히 빨리 선택하는 게 나음

이건 거꾸로 말해서 뭘 '버릴지' 확실히 결정하라는 이야기임. **버리지 않으면 얻지도 못 합니다.** 다들 얻는 것에만 환장해서 버리는 것을 모릅니다, 버리지 못 하니 얻지도 못 하고 시간만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N수생들 보면 실패한 이유가 별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버리지 못 하고, 버리지 못 하니까 얻지도 못 하고, 그렇게 시간은 날라가고.

쓴소리하자면 벌써 2월 끝나가죠. 황금의 3개월 공부하는 사람은 이미 공부했죠. 아마 공부한 사람도 느낄 겁니다. 3개월도 금방 지나가는데 이거 공부할 것 더 널렸네. 하지만 공부 안 한 사람은 앞으로의 기간이 참 길다고 착각을 하죠.

다시 강조합니다만 버리세요. 그리고 그 놈의 자존심 제발. 이게 가장 큰 적입니다. 어그로끌자면 현역으로 유수 대학 못 갔으면 그 사람이 자존심 챙길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바로 부족한 것 인정하고 백의종군하고 노예생활해야 인간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을 채우는 '낭비적인' 방

향으로 움직이니까 시간만 더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장사치들 배나 신나게 불려주고 말입니다.

일지쓰라는 게 일단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질문하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고백하는 또 하나도 있죠. 일지를 꾸준히 쓰면 작성자가 자존심이 저절로 무너집니다, 자기가 공부를 생각보다 계을리하는구나, 엉터리로 하는구나를 확인하니까요.

7.99 수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2016.02.17

공부 + 경쟁 = 수험 입니다. 공부를 잘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결국 경쟁자들을 내리찍고 자기가 올라가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봐서 좋은 건 남이 봐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보면 이건 십중팔구 실패하겠구나 보는 겁니다. 다들 으르렁거리면서 앞서나가려고 미친 듯이 공부해도 실패해서 3~4년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공부를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자기가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안다는 것이죠.

씁쓸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렇다고 요즘 서민이나 하류층이 형그리 정신이라도 있는가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한명씩 잡아 추궁해보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본인이 게으름 피우거나 게임이나 환락에 빠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그리 정신은 정작 부모 스펙도 괜찮은 부잣집 자제들이 갖고 있다는 게 더 절망적인 사실이죠. 심심하시면 정말 명문대 진학 성공한 사람들 표본을 모아서 가정환경 확인들해보시길요. 집안이 하류이면서 자기가 서민인데도 불구하고 영화나 드라마처럼 뭔가 반전이 있을 거라는 근거없는 믿음에 빠진 케이스가 많습니다. 어느 수험사이트 가던 성공한 케이스들 가정환경 분석해보시죠. 가정환경이 안 좋은 경우는 정말 본인이 악바리 형그리 정신을 발휘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냉정히 말하면 올해 시험이라면 이제는 사실 전 일지 써온 사람들 빼고는 조언할 필요는 없다 여깁니다. 황금의 3개월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 절반 이상은 '결판'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3개월동안 공부한 것이 복리효과가 붙어서 정말 막판을 결정합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금방 지나가죠? 이제 5월까지도 순식간이지요. 사실 11월부터 2월까지 안 한 사람이 3월~5월에도 할 가능성은 낮죠. 자기들은 할 수 있다 착각합니다만요.

특히 웹검색하면서 꿀교재 꿀강의 찾으면 된다.. 혗짓하지 말고 문제집이라도 꾸준히 다 푸십시오. 그거 공부하기 싫어서 결국 책, 강의 수집한다하는 뇌의 발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황금의 3개월 기간동안 공부 안 했다, 그런데 게임을 잡았다 하는 남자분이면 그냥 병역 빨리 처리하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집독학하지말고 도서관에 가든 하다 못해 스파르타 학원에 가서 개고생하는 걸 권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아니면 내년이다.... 아마 내후년 혹은 내내후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7.100 공부는 자기 좋으라 하는 겁니다.

2016.02.17

"돈은 잃어도 머릿 속에 든 것은 잃지 않는다" 기억상실 크리는 어쩌고요. 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는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남 좋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힘들어죽겠다 미치겠다 노오력은 무슨 노오력이냐 하는데 솔직히 부모 든 누구든 공부 강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자식도 남남이거든요.

최근에 와서 어떤 미친 놈들인지 몰라도 의대 돈 많이 번다라는 선동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인가 개나소나 의대간다 어쩐다라는 식으로 병신들 같이 선동 당하는 사람이 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의대 가고싶다고 하는 건 '걍 날로 돈벌고 싶다'라는 저속한 욕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공대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부 안 한 사람이 운좋게 의대간다 칩시다, 재 앙이죠. 그 사람 손에 **한두명 목숨 잊을 게 아니니까요**. 돈만 바라보는 것은 미개한 '단식부기'적인 사고입니다. 현대사회의 틀은 복식부기죠. 차변-대변, 의무-권리, 임차-임대, 거액의 돈-무거운 책임

이렇게 보면 공짜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공짜가 없는데도 보면 사람들 사이에 격차라는 게 생기죠. 타고난 선천적 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누가 시간을 덜 '낭비'했느냐입니다. 만약 게임을 했다고 칩시다, 순간적으로야 즐겁겠죠. 그런데 그 게임을 한 즐거움은 절대 '적분'되지 않습니다. 공부는 매일매일 해도 그것이 효과없는 것 같지만 조금씩조금씩 쌓여서 복리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게임이나 환락은 할 때에는 매우 즐겁지요. 그리고 조금씩 인생을 깊어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효용? 사실 없어요. 없는 걸 떠나서 그런 걸 즐기는 평범한 사람들을 '병신'으로 만들지요.

부모님이 무능하건 유능하건 이런 건 압니다. 왜냐면 자기들의 성공, 실패가 저렇게 좌우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소한 한번 이상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독려를 안 하는데 물론 부모가 소라넷이나 가고 등산불륜이나 하는 개쓰레기인 경우도 있지만, '내 자식은 공부할 녀석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확신을 바로 잡으려면? 그거야 자기가 미친 듯이 변태적으로 공부한다는 걸 '실천'해서 보여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젊은이들은 '오랄 스터디'만 강합니다. 입으로만 ~ 하겠다, 그러니 돈 내놔.... 이런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기 공부 도움 안 준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고 정말 한번이라도 게임하지 않았나, 게으름피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었나.. 등을 돌이켜 보길 바랍니다.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눈빛이 살벌하거나, 변태적이

거나 그렇기 때문에 꽤 강력한 기를 발산합니다. 하다 못해 강도조차도 '절도'로 끝내야겠구나라는 느낌을 줄 정도죠. 공부에 빠진 사람은 그냥 거기에 미쳐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냉담한 겁니다. 공부에 미쳐있지도 않으면 그냥 그걸로도 과반은 실패한 건데 뭐 어찌란 거야.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걸? 그럼 안 하면 될 것 아냐. 나이가 몇인데 어리광부려?

7.101 재종학원이 나온 이유

2016.02.17

재종학원이 만능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인강보단 나은 이유는 바로 호손 이펙트로 설명됩니다.

링크

간단히 말해서 사람은 ”타인의 관찰“을 의식하는 순간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 돼지우리에서 살던 여자가 남친이 라면먹고 가고싶다고 하니까 방을 치운다
- 사단장님이 방문하신다니까 부대 전체가 깨끗해졌다
- 혼자서 못 뛰던 장거리 코스를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니까 완주할 수 있었다.

만약 강의 내용을 받아적고 정리한다면 그건 인강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과는 '실강'이 더 좋은 이유는 저걸로 설명됩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긴장하고 집중하니까요. 혼자 냅두면 대단히 태만해집니다.

생활습관 안 잡히는 사람들은 백날 계획 세울 필요 없이, 그냥 조직 속에 들어가거나 타인과 경쟁하는 모드로 가는 게 직빵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집단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혼자 죽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반전

다만 들어간 이상 거기서는 반드시 선두를 유지해야 합니다. 처음에야 좋다고 하지만 3, 4월 지나면 또 다시 거기서 태만해지죠. 파레토의 법칙이 어김없이 작용 결국 공부 안 하는 80에 속해서 집단으로 태만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도 20 안에 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른바 80의 합정에 빠지면 돈은 돈대로 내면서 작살날 수도 있습니다. 조직도 결국 평안함이 계속되면 "혼자 죽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비싼 돈 들여 갔다면 라이벌 정한 다음에 그 라이벌을 성적으로 작살내야 영화보러간다거나 술마신다거나(...) 하는 식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재종 갔으면 따라가면 되지.... 라고 하다가 관료주의 합정에 어김없이 빠져버리니까요.

7.102 수험은 중국무술이 아닙니다.

2016.02.18

무술 중에서 '기'를 발산하고 '내공'을 발휘한다.... 는 것은 뻬이죠 실제로 중국무술의 경우는 기껏 해보았자 그 기원이 명말청초 때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명맥 끊김. 기를 모은다거나 장풍 쏜다거나 하는 것은 무협지나 일본만화에서 나온 것이지 실제로 검증된 게 없어요.

그런데 특히 그런 무협지든 일본만화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주인공이 알고보니 혈통이 금족보였다 둘째, 주인공이 개고생하다가 기연을 만나 내공과 필살기를 전수받는다. 여담이지만 이걸 깨부순 게 헌터헌터인데 연재가 참 불안정해서리(특히 그 핵무기 장면은 소름이 쪘악)

그런데 공부 안 하다가 꼭 어떻게 공부해요하는 사람들이 저런 중국무술적인 발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이 보는 특수한 책을 자기가 보면 바로 깨달을 수 있다....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런데 그딴 건 단언코 말해서 없어요. 일부 저자들이 자기들 책이 굉장히 어쩐다 해서 비싼 값에 팔아치우는데 까고 말해 '무안단물' 수준입니다. 수학으로 치면 가장 좋은 책은 제가 보기에는 쎈수학입니다. 그리고 쎈수학을 권했습니다, 다들 아폭이 무슨 신사고 알바나 어찌구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쎈수학 C 스텝까지 다 끝낸 경우 생각보다 없어요. 국어요? 시중교재 다 고만고만합니다. 가장 좋은 건 본인이 깊이있고 어려운 책을 꼼꼼히 읽어왔냐는 것입니다. 영어요? 강의와는 무관해보입니다. 이것 역시 어린 시절부터 원서 읽고 미드 듣고 회화 꾸준히 해온 애들이 잘 합니다. 재종학원 찬양? 본인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특혜받고 자랐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저도 많은 표본을 보았다고 단언은 못 하겠지만 정리되는 진리는

- – 양치기를 꾸준히 한다고 성공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 중에 양치기 안 한 녀석은 없다.
- –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른다, 그러나 두뇌회전이 빠른 경우는 다 교육환경이 대단히 좋은 케이스였다.
- – 어려운 문제 잘 푼다고 자랑하거나 소위 수험경향 따지는 녀석들이 시험 당일 쉬운 문제에 털리고 색다른 문제에 통수맞는다
- – 수험서나 강의 명품 따지는 놈들은 최소 3년 내내 그러고 있다.

- – 성적은 회독수에 비례한다. 1번만 강의 듣거나, 책을 읽거나, 문제를 풀어보았자 소용이 없다, 10회독은 해야한다.
- – 수능에서는 출제 난이도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무조건 난이도 높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한다.

저기 어디 지름길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런 걸 알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종합격투기 나가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하는데 무슨 ~ 경을 외우고 기를 모으면 이길 수 있어... 이런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요.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뇌를 이식 혹은 복제할 수 있다거나 사람끼리 서로 USB로 연결해서 기억을 몽땅 전송해서 신경망도 복제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닌 이상 나머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중국무술이 망한 이유 중 하나가 문화대혁명이라죠.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다구리치니까 고수도 별 것 없었다고(...) 아니, 그 전에 무술이 대단하다면 다구리도 맞서 싸울 수 있어야하잖아.

현역 때 잘 하는 애들이 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꾸준히 해온 케이스입니다. 선행을 미리 한 애들은 딴 친구들이 3~4수 할 것을 미리 3~4년 앞당겨 공부함으로써 현역으로 가는 것이고 선행을 하지 않은 친구들일지라도 초, 중학교 때 공부하는 습관이나 틀이 잘 잡혀있어 한번 보면 바로 익힙니다.

적어도 수험에 대해서는 분명 과학적으로 정리되는 것들이 이미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무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무속이 과학으로 바뀌기 힘드니 결국 '종교'로 진화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정교재만 보면 된다, 특정강의만 들으면 된다로 바뀌죠.

적어도 교재 질문은 최소한 국영수팀 남들이 많이 푸는 걸 3회독은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하는 것 답변해주기 싫은 이유는 다른 걸 떠나서 본인들이 공부를 안 하는 케이스여서입니다. 안 할 건데 왜 질문을 하지? 실천하고

질문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답이야 뭘 해보았자 남들 많이 푸는 교재 그냥 달달 외우고 반복하고 하는 걸로 끝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쎈수학만 가지고도 10번 이상 돌리고 부족한 내용 검색질을 하든 타 수학교재로 보충하든지 질문하든지 채워도 그걸로도 수리영역 150%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복싱, 씨름, 스모가 차라리 현실적이죠. 특히 스모는 우스꽝스러운 뚱보들 때문에 겉이미지는 그래보입니다만 그게 살찌우는 게 오히려 현실적. 뭘로 가든 체중 키우는 것 못 따라간다.... 사실 테크닉은 '물질'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하다면 테크닉도 크게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건 동양의 신비인가요? 아니면 미국의 물량주의인가요?

++ 수험서 보아도 참 수요와 공급의 원리. 아마 쎈수학 같은 책이 소수만 갖고 있고 복제가 불가능했다면 한권당 가격은 꽤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1권당 1천만원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량복제되어서 판매되니까 사소해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수험서는 자기가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폐품입니다.

7.103 아주 흔한 수험패망의 루트

2016.02.18

A라는 책은 내용이 풍부하고 크게 손색이 없음, 그런데 이 책은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저렴합니다. B라는 책은 사실 내용이 틀린 게 많고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비주의적으로 광고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블을 학생이라면 A나 B나 모두 보겠죠. 그런 걸 가릴 시간이 있으면 광 다 보는 게 맞으니까 하지만 B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겠고 그 결과 B가 도태되어야하겠죠.

한데 재밌는 건 학생들이 B를 꽤 신경쓴다는 것입니다. 신경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아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좋아보이느냐, 읽어보긴 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남들이 B가 좋다고 하니까 웬지 보지 않으면 큰일날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A와 B를 모두 구입합니다. 하지만 수능 직후 A나 B나 깨끗합니다 (...)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수험이란(그리고 사실 삶이란) "뇌와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뇌는 그것의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등 자극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본 과학자가 쓴 책에서 그러더군요. 뇌는 주인을 배신한다고(반면 대장은 주인에게 충실하다나) 그런데 여기서 '불안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수험생은 누구나 불안합니다. 당연히 이 불안감은 공부로 이겨내야하죠. 하지만 공부도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는 공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려하죠. 그건 바로 "남들과 다른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수험생들일수록 남들이 보지 않거나 겸증되지 않은 **새로운 교재를 사려고 하지요**. 마침 그런 교재일수록 1등급을 보장한다거나 명문대 합격생의 그럴싸한 추천사(사실 글 내용은 별 게 없어요)가 달려있습니다. 자위행위를 하고 순간적인 쾌감에 행복해지듯 수험생들은 이런 새로운 교재를 구입하고 포장을 뜯을 때까지는 행복합니다. 다만 책페이지를 펼치면서 '역시 공부해야하는 건 마찬가지구나'하는 순간 **현자타임**이 도래하죠. "결국 끊임없이 공부하는 게"라는 걸 깨닫죠. 그리고 공부해야하는 참고서가 늘어납니다. 부담감도 곱절이 됩니다.

더 심해진 불안감에 다시 또 새로운 교재 없나 기웃거리면서 '공부 안 하는 평계'를 만들고 그렇게 교재 모으기 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지면 "강사님만 믿습니다 T_T"하면서 거금 들여 인강결제를 시작하죠. 그런데 그 인강도 듣다가 다

시 회의감이 들죠. 그게 인강이 별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서가 아니라, 이걸 듣고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교재로 돌아가 독학해야 할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n+1이 달성되죠

이걸 읽으면서 본인 이야기라는 데 찔리는 사람이 한두분이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관찰, 상담에서 적지않게 확인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극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거야 **인내하지 못 해서였죠.**

저 친구는 그냥 교재 늘리지 말고 시중교재 하나만 가지고 여러번 돌렸으면 진작 그 n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괴로운 것을 참아내면서도 참고서를 다 풀어내고 틀린 것 오답 체크하고 모르는 것 정리해서 질문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일정한 경지에 이르는 순간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면서 공부가 쾌감이 되는 순간, 즉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기 뇌를 굴복시키고, 불안감을 긴장감으로 바꾸는 경지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공부의 고통을 못 참으니까 시간과 돈을 있는대로 날려먹는 것 이죠. 학원 - 실강을 그나마 권하는 이유? 적어도 거기선 공부가 강제되고 도피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비싼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다니게 되고 그래서 저런 충동구매는 적어도 안 합니다. 학습량이 최소한 쌓이는 건 있단 것이죠.

여기 와서 기웃거리는 분들은 일지를 보고 그냥 따라하세요. 끌루트가 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겁니다. 그딴 건 없습니다.

위의 수험서 소비 패턴. 전형적인 사치된 장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공부도 안 해놓고 EBS 강의를 깁니다, 그런데 사설강의 찬양하는 이유는 결국 ”비싸서”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물론 사설은 꽤 재밌게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뭘로 가든 종착점은 마찬가지일터인데 말이지요. 공부에 지불하는 건 그런 수업료보다는,

”시간”과 ”인내”입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하겠죠. 당신의 이야기는 알겠는데 그건 꽤 평범하지 않느냐.

거시적으로 볼까요. 그런 평범한 것조차 제대로 해내는 학생들도 소수입니다. 누구나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지요. 그런데 그 계획을 50% 이상이라도 주어진 기간에 해내는 사람은 10명 중 1명 될까말까입니다. 여기서 등수가 갈리는 겁니다.

어떤 교재나 강의가 좋은지 또한 어떤 수험생이 잘하는가 하는 가쉽에 능통해서 계획을 그럴싸하게 세우면 뭐해요. 실천을 안 하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 안 하면 망상이죠. 그냥 공부하다보면 계획 세우기도 귀찮아집니다. 책 읽고 문제푸는 것으로도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계획은 이러쿵저러쿵 세우는데 지금 풀어놓은 교재가 없다.... 그 순간 본인은 그냥 쓰레기인 것입니다. 계획 세울 때야 즐겁게 하죠. 그런데 정작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을 넘기는 경우도 드뭅니다. 중간중간에 스트레스 받는다 하기싫다 이거 꼭 해야해 우리나라라는 너무 공부에 미쳐있어... 이렇게 또 가기 시작하죠.

7.104 과외 구할 때

2016.02.19

적당히 알아서들 구하시겠지만 학생 입장에서 선생을 검증해보는 것은 필수죠.

1. 기본 개념, 공식, 성질, 정리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가 확인해보자.

예컨대 수학이라면 dy/dx 의 정확한 정의,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라거나 '통계의 각종 정리'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이 나왔는지 증명가능한지는 확인해봅시다. 저걸 모르고 문제를 푼다면 그런 과외는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문제푸는 기계일 뿐인데 그럼 EBS 강의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상당수 문제 잘 푼다는 친구들이 저런 것도 설명 안 하고 '걍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걍 하면 된다' 수준이면 평범한 문제는 풀지 몰라도 새로운 문제나 통수 문제는 못 풁니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힘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사유해보고 하나하나 증명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걸 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걸 한 줄 안다는 건 적어도 그 선생이 꾸준히 공부한다는 이야기이죠.

2. 어떤 유형의 학생이고 어디가 문제이며 과거 몇학년 때 공부가 안 되었는지 정확히 짚어야한다.

과외가 학원과 다른 건 개인에 대해서 바로 문제가 뭔지 지적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한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의 경우라면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방향은 바로 나와야 합니다. 거의 점술가 수준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실 공부가 망한 패턴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짚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다 못해 학생의 방 - 특히 서재나 학부모 이야기 5분만 듣더라도 대충 과거 이력이 짐작이 가야합니다 물론 요새는 학부모나 학생들도 이런 건 다 검증합니다. 하다 못해 과외 처음 한다고 구라까고 하나하나 검증해나가죠.

3. 특정과목 전문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국어와 영어는 못 하지만 수학은 잘 한다.... 개소리입니다. 수학만 잘해서 어떻게 명문대에 가나요? 무슨 의사 전문의도 아니고 수험과목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공부 잘 하는 친구라면 국영수탐구 골고루 다 잘합니다요. 수학문제 풀이에 있어서 국어실력은 상당히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국

어 독해에 있어서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해요. 탐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어가 다소 동떨어지긴 했지만요. 그럼 석박이 잘 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수험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와 비슷합니다, 결국 누가 더 연구를 했느냐로 갈려요. 기출만 보아도 평가원이 어떤 의도인지 대략 짚을 수 있고, 수험생들 대부분이 어떤 경향에 치우쳐져있는지, 아울러 시중 교재, 강의가 어디서 부족한지 짚으면 그럼 답이 나옵니다. 수능에 올림피아드가 필요하나? 필요 없죠. 그러나 이과 수능에 수리논술이 필요한가? 기출 분석을 해보았다면 필요하다라고 말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 한명만을 본다면 수학을 가르치면서도 이 친구가 국어에 약하다는 걸 눈치끼고 국어 공부하라고 하거나 자투리 시간에 영어 질문도 바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별로 기대 안 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국어 영어는 못 하지만 수학은 잘 하니까 국영수 골고루 잘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 그럴싸해보이지만 사실 혀소리죠. 그런 논리면 국영수 골고루 잘 하는 친구가 수학만 했으면 더 잘 나왔을 것입니다.

4. 무료 보충 가능해야.

시간제 뿐만 아니라 진도에다가 난이도까지도 보충해줘야합니다. 제 시간에 못 끝내준다거나 진도가 밀린다고 하면 적정한 수준에서 보충해 줄 준비까지 되어있어야합니다. 적어도 책임지려는 사람은 보충을 해줍니다, 하지만 책임질 준비가 안 되어있다면 이건 생깔 것입니다 물론 교통비는 알아서 익스큐즈해야할 문제겠지요. 과외선생 중에서도 돈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반면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는 무료 보충을 기꺼이 해줄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학생이 실력이 올라가길 바라겠지만요.

5. 당연히 본인이 교재 없이도 즉석에서 문풀, 설명 가능해야

설명 불요라고 봅니다. 썬C스텝이나 기출 킬러를 제외하고는 그냥 즉석에

서 풀고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웬C스텝이나 기출 킬러라고 하더라도 답지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교과서상 어떤 개념을 어떻게 변형시켰으며 출제자가 어떤 의도였는데 어디서 빼사리났는가도 얘기해줘야합니다.

6. 상위권 전문은 피하시길 ★★★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얼핏 보면 상위권 전문이 잘 할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위권 전문이라는 건 상위권 학생만 받겠다 내지 상위권 내용만 가르치겠다는 건데, 정작 이건 가르치는 입장에선 어렵지 않습니다. 상위권 학생은 알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있거나 스스로 깨우쳐 따라옵니다. 원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게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 냅둬도 알아서 갈 수 있을 가능성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경우 선생의 역할은 별 게 없는데 실적이 상당히 부풀려집니다.

진짜 실력자들은 최하위권을 최상위권으로 만드는 경우이겠으나 이 경우는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이거 로또급 아녀?) 보통은 하위권을 중위권으로 만들거나, 중위권을 상위권으로 만드는 경우가 그나마 현실적입니다. 이건 손이 꽤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문제를 풀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의욕을 북돋아주고 학생이 겪는 슬럼프나 고민을 해결하는 걸 넘어 미리 예전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상위권들은 이런 애로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외 선생이 정작 하는 것도 없고 진화도 못 합니다. 하지만 하위권을 중위권으로 올렸거나, 중위권을 상위권으로 올린 선생들은 실력도 있어야하지만 대화능력이나 사람통찰도 잘 합니다. 안 그러면 사실 성적을 올릴 수 없으니까요. 그걸 알아서인지 모르나 학부모들은 '졸업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 잘 풀어준다... 이것만 하자면 과외 할 필요 없이 그냥 인강만 가면 되는 겁니다.

7. 7. 가격

가성비로 보아야겠는데 일단 가격과 수업 수준이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들도 보면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많고, 반면 가르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어찌되었든 돈만 벌면 된다는 케이스도 있지만, 반면 먹고살기 위해 이 짓 하지만 자존심은 지키자는 케이스도 있어요.

비싸게 부른다고 잘 가르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학부모들의 허영심을 알고 비싸게 부르는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그냥 척 보아도 사기꾼이 아닌가요? 가격을 높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만한 근거라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정말 학벌 별 것 없는데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케이스 적잖게 있더군요. 어떻게 보면 밑바닥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립니다. 정작 잘 가르치는 고수들은 사람을 별로 안 받으려 해요. 오래 할 일이 아니라 는 것도 알고 있고 대개 자기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적당히 시세대로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 자체가 꽤 어렵습니다만 어머니들이 잘 찾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 알아서 잘 구하시기들 바랍니당. 물론 과외 구한다는 건 본인이 '병자' 상태라는 걸 느낄 때나 도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만한 돈으로 차라리 집이나 차를 사거나 해외여행 가자 하고 EBS 강의 올라 듣고 매질하는 게 더 도움될 겁니당.

7.105 계획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음

2016.02.22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계획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다.

- 즉흥성이 강하다
- 성격이 격정적이거나 산만하다

- 뭔가 얹매이는 걸 싫어한다.

하여간 이외에도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계획을 짜도 실천도가 낮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계획을 아주 간소화시켜버리거나 차라지 짜지말고 ”과제”를 설정하고 ”3~5일 정도 테드라인” 잡은 뒤 그 기간동안 과제에만 몰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낫다 실천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계획이 실적으로 ’둔갑’해버린다. 그래서 계획만 짰는데 그게 공부한 것처럼 느껴져버리면 문제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계획을 포기하고, ”과제” 하나를 잡은 다음 단기간 내에 스펙트해서 그걸 끝내는 방식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제도 충고했지만 실천도가 낮은 사람은 전과목 골고루하기보다는 아무개 선생 인강 50강이라고 하면 그걸 20강 1부, 30강 2부라고 나눠서 1부는 4일동안 끝낸 뒤 하루 놀고, 2부는 5일동안 끝내기라고 가는 게 낫다. 물론 다른 과목은 건들지도 말고 그럼 열흘이 지나면 그 아무개 선생 인강은 다 청취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성과’는 생기고, 이로써 선순환 루트를 탈 수 있다.

자신이 계획을 세웠을 때 일주일에 3일 이상 날라가버린다거나, 실제 이행률이 50% 미만이라면 계획을 포기하고 단기과제 스펙트형으로 가는 것도 시도 해볼만하다. 이거 문제가 많냐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지적이 바로 아랫 글에서 말한 ’대안없는 비판’의 전형이다. 한 과제만 잡아서 그것만 몰두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건 실천과 성과는 담보해준다. 거창하지만 실제로 실행이 40% 미만인 것이야말로 최악인 것이다.

+ 그리고 이건 조심스럽게 말하면, 오히려 공부 잘 하는 애들은 계획형보다는 이런 단기스펙트형이 더 많지 않나 생각되는 것도 있다. 실제로 계획을 본인이 꼼꼼히 세워서 그걸 실천에 옮긴 경우야말로 찾아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물론 다수는 학원이나 과외가 시키는대로 따라가므로 적극적 계획형이라기보다는 수동적 계획형이 많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벼락치기의 마수는 사실 피해갈 수가 없다.

++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다 10명을 모두 공략하면 1:10으로 싸워야 한다. 반면 한명한명 공략해서 승리해 아군을 만들어나가면 1:1, 2:1, 3:1, ... , 9:1로 싸울 수 있다. 하나씩 처리하는 경우의 장점이 그렇다. 일단 달성한 과제는 그 다음 과제 공략에 도움을 준다. 반면 한번에 여러개를 처리하는 경우 본인은 그 여러 과목과 상대하느라 조기에 탈진해버릴 수가 있다.

+++ 두달 잡고 간다... 사실 이건 힘들다. 두달 동안에 지쳐버릴 수도 있고 뭔일이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든지 일단은 짧게는 이를, 아주 길어도 9일 내로 끝내는 게 좋다. 즉, 공부할 대상을 잘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하나하나 처리하란 말씀. 수학 전범위를 일주일동안 할 수는 없지만, 가령 ”미분1”만 본다고 하면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두달 이상 가는 독종도 없지는 않지만 드문 편이다. 사실 이런 성격이면 그냥 알아서도 혼역으로 좋은 대학 잘 간다. 그런데 안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지 않겠나

7.106 데드라인

2016.02.25

이제 황금의 3개월은 끝났죠.

그 다음 분기는

- 3월~5월 까지의 100일
- 6월~8월 까지의 100일
- 9월~10월 까지의 60일

그나마 제대로 공부하는 기간이 3월~5월까지인데 솔직히 이 때도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시동이 걸리는 대략 3월 중반 정도. 3평 보고 나서 일부는 3뽕. 그리고 4~5월에 좀 공부를 하고 6평을 치르죠.

그리고 6평 보고나서부터는 무조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새로운 교재들도 무진장 늘어나죠. 기초 실력을 쌓는 건 거의 포기, 이게 시험 당일까지 발목을 잡습니다.

데드라인을 제시하면

EBS 수특 – 늦어도 4월말까지 기출 정리 – 늦어도 4월말까지

이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해놓아야 안심합니다. 이걸 넘어서면 올해도 물건너갔다고 보셔도 되겠죠. 그럼 내년은? 역시 힘들 겁니다. 지금 고2들이 여간 잘 하는 게 아니라서(IMF 베이비라서 그런지 몰라도) 솔직히 지금 와서 학원 고르고 ~ 한다라고 했을 때 가능성은 꽤 낮아지죠.

여전히 인기강사 상품 쇼핑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신청했으면 제발 빨리 끝내세요. 수험이란 결국 남들보다 '많이', '신속히' 정리하는 놈이 이깁니다. 강사 믿고 끝까지 간다고 해도 확률은 20% 내외입니다 지금 와서 쎈 봐도 되냐 풍산자 봐도 되냐 그딴 혀소리하지말고(하려면 황금의 3개월동안 했어야지) 기출이라도 빨리 정리하세요. 이거 할 수 있을 거라고 다들 착각하실 건데 망상과 실천은 다릅니다. 실제로 해보면 경악하실 것입니다.

강의만 들으면 된다... 황금의 3개월동안 기본교재와 기출 푼 경우라면 먹히겠지만 그게 아니면 강의 들을 때는 행복하겠지만 문풀 들어가면 비명을 지를 겁니다. 지나치게 강의환상에 빠져서 게을리한 결과 개판오분전이라는 걸 꼭 본인 인생 걸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4월말까지 기출 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입시는 지금 시점에서 50%는 이미 결정. 공부 힘들어 죽겠다 어쩌다하는 사람도 11월부터 2월까지 꾸준히 공부했으면 여름에 우위를 확인하실템고 지금부터 학원강의만 따라가도 되지라는 사람들은 그냥 '형벌'받는다고 생각하고 죽어라하시길. 나머지는 양 담 없어요.

7.107 수학 커리

2016.02.25

1. 풍산자
2. 쎈 (복습용 RPM은 선택적으로)
3. 마플(마더텅이나 자이로 가도 좋음)
4. EBS 시리즈(수능특강부터 시작해서 N제, 수능완성까지 포함)
5. 급품벨(일등급수학, 일품 수학, 블랙라벨) 중 택2
6. 실력정석(바이블이나 수학의 원리 도 좋음) + 교과서(구할 수 있으면 교 사용 지도서도 좋음)
7. 선택적 실모, 혹은 구할 수 있으면 과거 본고사 문제

이렇게만 해도 11월까지 다 풀 수 있을지도 고민인데 교재 모자라서 혹은 강의 안 들어서 망하는 일은 없음. 사실 쎈과 마플까지만 다 풀어도 문제를 풀고 오답정리하는 과정에서 개념의 전반적 틀과 논리는 다 갖춰집니다. 마플까지 가면 안정적 2등급은 무조건 나옴(왜냐면 마플까지 끝내는 인간도 생각보다 적음)

EBS 시리즈 넣는 건 간단함, 시중교재를 살짝 비틀거나 색다른 문제를 군데군데 박아넣습니다. 급품벨은 당연히 풀어야합니다. 다 풀 필요는 없고 2개만 골라서 풀어도 좋죠.

1, 2, 3을 대략 4월까지. 4번은 나오자마자 순삭. 그리고 5번은 8월까지

그렇게 한 다음 실력정석을 보면서 필요한 것만 발췌해 읽고 풀면 됩니다. 정석은 초보자에게는 맹독이지만, 고수에게는 만독불침의 명약입니다. 그러니

까 5까지 다 하고 보면 됨 그 다음 교과서들을 주문해서 군데군데 잡다한 것들을 봅니다, ”이렇게 놀라운 출제소스들이 있다니”에 다시 놀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실모 보시면 됩니당. 출제자들의 마인드나 성향이 읽혀질 것이고 해설 보면서 실력의 한계도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곧 3월이니 1, 2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주욱 밀리죠. 지금 기출도 중간 정도는 풀고 있어야 합니다. 콕콕 내에서도 빨리 하라는 잔소리 듣고 하라는 대로 해서 실력이 늘어난 걸 절감한 케이스가 있고 반면 3월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저거 할까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대로만 다해도 안정적 1등급은 뜹니다. 저걸 해내기 힘들어서 그렇지. 저걸 다하고도 모자라면 그 때부터는 일본 문제집을 수입해보거나 경문사에서 나온 수학교양서를 읽으시면 됩니당. 기타 이상한 야매교재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그런 것 보다간 기본적인 사고가 망가집니다)

비밀이랄 것도 없어서 이건 그냥 그냥 공개합니다. 사실 다 아는 내용 아닌가 싶은데 무엇보다 고2 분들은 저거 빨리 끌으시길. 몇몇 상위권 표본들이 벌써 5까지 병행하는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님들은 수학을 빨리 정리하고 국어로 몰두하셔야할 것입니다. 2018년도 수능의 핵심은 '국어'인 것이 명백관화해졌습니다.

수학을 일단 저렇게 가야하는 이유는 '컷'이 높기 때문입니다. 컷이 높은 과목은 "실수'를 안 하는 게 핵심입니다. 심화의 필요성이 줄어들죠, 특히 학생들이 쓴 출처불명 야매교재 심화인 척 하는 건 자살행위. 그럼 컷이 낮은 과목은? 일부 탐구과목들이 있겠고 혹은 국어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아마 수학 컷을 낮출 일은 없어보입니다) 이런 과목들은 '심화'해서 공부해야합니다.

7.108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

2016.03.01

친구 : 곁으로 위로하는 척 하지만 뒤로는 킬킬킬 웃으며 행복해한다. 가족 : 역시 위로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별로 도움은 주지 않으며 나중에 왜 xx는 하는데 너는 못 하냐 나온다.

끝까지 배신 안 하는 건 자기가 공부한 것임. 돈은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 사정없이 떠남. 낭비도 무식한 놈이 하는 것임.

어차피 이런 얘기를 해도 다수는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은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하지만 결국 저렇게 되어있음, 진실의 맛은 씹쓸함, 거꾸로 말해서 씹쓸한 맛이 나는 것은 믿어도 좋고 달콤한 맛이 나면 의심해보아야 함.

아마 다수는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고 싶어서 공부할 것임, 그리고 그건 첫동기로서 나쁘지 않음. 그러나 중간부터는 사실 그것도 만만치 않구나 깨달아야 하지만 공부가 어려울수록 진입자가 적기 때문에 이 놈 덕분에 앞으로 생존할 수는 있겠구나... 그런 마인드로 가야함. 잘못된 걸 공부한 게 아니라면 이 놈은 어지간해선 배신하지 않음. 물론 잘못된 것을 학습하면 (얼치기 운x권 사상이라거나 사이비 종교 교리) 그런 건 정말 배신하지 않고 확실히 인생을 조져줌.

7.109 반도의 수학교재

2016.03.02

개정되었다는 교재들을 보면 그냥 개정이 되었는지 개정하는 흉내를 냈는지 의심이 가는 게 많음. 소감은 딱 : '이런 꿀장사가 따로 없겠구나'. 조금만 교과서만 봐도 교정할 수 있는 오류가 10년째 그대로인 경우도 많음.

그래서 교과서가 낫다는 말이 나오는 것임. 왜냐? 교과서 저자진들은 계속 연구하는 분이거든 그나마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며 해외수학교재도 번역 공부하는 분들이 보이니까. 일부 교과서 저자 분들은 '번역자'도 하고 계심, 그럼 번역 과정에서 좋은 책 내용을 흡수해서 교과서에 반영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

음?

반면 학생이나 학원강사가 잘 쓸 수 있을까. 솔직히 학생교재는 볼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함. 그 학생이 아무리 잘 써보았자 자기가 배운 사교육 내용을 그냥 짜깁기한 것임. 그리고 학원강사들도 강의하느라 연구하고 정리할 시간은 별로 없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설 쪽의 내용은 풍부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 자체가 저기 섬나라 것을 베푸온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진보하지 못 했다라는 문제가 있음.

이래서 역설적으로 교과서만 진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임 교과서를 보라고 하는 결정적 이유가 이것임. 정확히 말하면 **교과서 저자나 공교육 교사가 쓴 책을 보는 게 낫다고** 말해야 함. 웬이나 EBS 보라는 것도 포괄해 말하면 '제대로 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쓴 것'을 보면 되는 거라고 얘기함.

그리고 교과서의 장점은 잡스킬이나 지엽이 아님. 바로 "읽는 방법"을 선사해준다는 것임. 교과서에서 풍부한 내용을 기대할 필요는 없음, 어디까지 교과서에는 기본, 기본의 기본, 기본의 기본의 기본 이 나와있음. 그런데 최근 3년치 수능에서 특정 문제를 못 풀었다면 그건 스킬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읽는 법을 몰라서** 그럼 그럼 왜 읽는 법을 모를까. 그거야 기본도 안 되어있어서 그런 것임, 미적분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확통의 기본 프레임이 뭔지 그게 안 되어있으니까 문제를 조금만 꼬아내도 못 푸는 것임. 평소에야 맹물은 맛이 없어서 탄산음료나 커피를 마시겠지만 힘든 운동을 한 뒤에도 과연?

신기한 것은 일본인들은 책 한권 쓰는데도 수년걸리고 정말 제가 봐도 잘 쓰는데도 그걸로 재벌타령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정말 뛰어난지 책도 정말 쉽게 쓰고 그걸로 참 잘 벌어들이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모 아이돌 경쟁 프로그램이 일본 프로그램과 유사한 그런 광경이 떠오르는지

그리고 그런 천재(?) 저자에게 출처 물어보면 답을 한 경우가 없었음. 그래, 장사하셔야지.

+ 뭐 하기야 학창시절에 취미가 괴수님들이 쓰신 책이 뭘 표절했나 확인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참. 제가 확인한 사람만 무려 5분이었음. 일본책이고 미국 책이고 아니 베끼려면 제대로 베끼지 그것도 원생들 시켜서 대충 번역(...) 그러신 분이 제자들에게는 똑바로 살라고 그러던데.

++ 위에서 말했지만 최근 3년치 기출보면 스킬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의 '프레임'을 짜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평가원 문제는 진보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액을 지불하고 잡다한 스킬이나 이상한 문제 푸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죠. 문제 "독해력"은 인강이나 잡교재가 간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있으나, critical path는 결국은 혼자 끊임대며 철학자질하는 것입니다.

+++ 일본 것 베끼면서 대한독립만세라고 해보았자 아무 소용없죠. 입으로는 한민족 만세하면서 일본 걸 참 잘도 표절한다는 게 거참. 가장 미련한 게 자기들이 배우거나 애용하던 게 뒤늦게 일본 깃임을 깨닫고 이걸 '순화'시킨다고 억지로 명칭 바꾸거나 하는 것인데 그냥 일본식 표현쓰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자어가 대부분 일본산인 걸 알면 어휘 자체를 다 갈아엎을 것도 아니고.

7.110 승부는 곧 결정납니다.

2016.03.04

현실의 논리가 사람의 직관을 배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수험 스케줄도 마찬가지. 이제 6월까지 가면 그 때부터는 공부를 더 하기 힘들죠. 뭐 한다고 말은 잘 하는데 그런 사람은 20명 중의 1명 정도.

거의 다 9월까지는 끝낼 거야... 라고 하지만 9월 되어서도 못 끝내서 10월 까지 잡았다가 멘붕해서 양줄이려고 하다가 말아먹고. 거기다가 6월~8월은 무더위가 오죠. 지구온난화 덕분에 5월 중순부터 그럴지도.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때에 넉다운당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로 승패는 지금부터 100일 이내, 즉 5월말이면 95%는 결정난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죠.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소설쓰는 거야... 라는 분도 계시겠는데 저야 한마디.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여태껏 그렇게 살아오신 것임.

지금 이 시기에도 인강 뭐 들을까 고민하면 사실 답이 없다고 보는데... 왜냐면 공부량도 양이지만 그냥 마인드나 습관이 실패하는 유형 그대로라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하나 잡으면 '끝내는 결과' 모드로 가야지, 자꾸만 시작해야지... 하면 영원히 시작만 하게 됩니다. 시작에만 능한 사람은 '시작'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시작만 하면 영원히 '반' 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이도 한데.

황금의 3개월동안 어영부영하다가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하루 순공부 시간 8~9시간 잡고 5월까지만 공부한다...** 라는 마인드로 가는 게 현실적일 듯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 때부터 또 이상한 잡다한 교재에다가 작년에도 별 쓸모없던 실모 같은 것 보겠다고 돈쓰고나 있겠고. 물론 11월부터 공부하신 분은 하루 순공부 6시간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하루 쉬는 건 당연하고.

이번 한달도 공부 그렇게 못 하면. 그냥 내년 기약하는 게 나아요. 자신감 떨어뜨리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3월달도 공부 안 한 사람이 그 이후에도 공부 제대로 할 리는 만무해서리. 이런 사람들은 강 알바 뛰고 개고생하고 정신차리는 게 먼저임.

7.111 친구나 가족 다루기

2016.03.04

1. 자기보다 잘 나가는 친구와는 의외로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

러분이 n수생이고 친구가 잘 나가는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이면 자기가 폐를 끼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본인이 친구에게 더 많은 행복을 선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친구는 여러분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다른 잘 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못 느끼는 행복한 감정을 여러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죠. 눈치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아니 제 친구들은 안 그러던데요"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참 순진한 이야기임.

2. 부모님들은 실제로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자랑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얼마나 등골 덜 뽑힐까 하는 데 관심이 그러하고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금전적 지원을 한다면 이 분들이 님들 인생의 오너죠. 그렇다고 님들이 배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빚을 갚는 채권자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할 말은 없음. 명문대에 갈 필요 없다, 찍찍하게 자라다오... 라는 걸 믿는 순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배당(...)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투자'해달라고 할 게 뻔하다면 체면이라도 세워주야하지 않겠습니까.
3. 자기가 망하고 있을 때에는 부모님보다는 친구의 '악담'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부모님은 주주이므로 내부인이지만 친구는 경쟁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손님의 관점, 즉 객관적 입장에서 있기 때문이죠. 자기 문제점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 속하나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친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4. 부모와의 관계 설정이 문제일 건데 주주의 의견은 존중만 하되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받은 만큼 성과를 내서 체면을 세워준다... 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진로나 직업 설정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아주 잘 나가는 사람으로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분들이 아니라면 무시해도 됩니다. 예컨대 부모 말 들어서 진로

선택했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었더라.... 그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님들이 부모의 반대 무릅쓰고 원하는 길로 가서 죽어라 노력해서 대박 터졌다, 그럼 부모님은 자기가 기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인간 사 돌아가는 게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5. 간혹 가다보면 부모님이 자기 의사를 존중해주고 라는 식의 동화를 보는데 그딴 건 없습니다요. 의사존중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죠. 의사를 존중한 척 하면서 교묘히 설득하는 것이지. 자식 뜻대로 하게 해준다라는 건 그냥 '무관심' 아니면 '무관심을 가장한 관심' 양쪽인데 무관심은 사실상 포기입니다. 이래서 잘 된 케이스는 없어요. 반면 관심이라고 하는 건 부모가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위해 투자하겠죠.

가장 좋은 건 자녀도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도 그렇게 투자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럼 가장 안 좋은 건 둘 다 X냐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둘 다 X 면 사실 서로 원망할 깐덕지가 없어서 그나마 낫습니다. 최악인 것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데 부모가 투자한 경우죠.

7.112 사설 인강 따라가고 있으면 그걸 그만둬야하느냐.

2016.03.04

수험 끝났다고 훈수 두는 사람들이 아래라저래라가 먹히는 건 11~12월이고 지금은 하던 것만 끝까지 가야합니다.

가장 최악인 건 자기가 하던 걸 중단하고 다른 게 좋지 않을까...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느 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BS갔다면 그냥 EBS 가시고, 사설 간다면 그냥 사설 가시면 됩니다. 그럼 둘 다 유의미한 차이는? 그 다지 없습니다. 자기 통제 안 되어서 재종 간다면 재종 따라가는 게 답입니다. 다만, 재종에서 탑을 달려야합니다.

이 시기에 와서 저에게 쪽지보내서 강의 뭐 추천해달라 뭐하라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는 짜증납니다만 그냥 자기가 끌리는 것 하면 그냥 그거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인 이상 제가 잘 충고해줘보았자 그건 별 소용이 없어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던 게 있으면 그걸 완료, 정리하고 계속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강의나 교재 같은 거 평론이야 저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죠. 왜냐면 과목 내용을 그나마 알고 있고 심각하게 학생이 해당 교재나 강의와 안 맞는다 하면(이건 노력해도 안 되는 정말 극악의 케이스입니다) 그 때야 충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안 맞는다는 건 뻬이고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이죠. 강의나 교재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자기가 쓰레기인 건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냥 하는 것 꾸준히 하면 되는 거지 뭘 일일히 물어보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좋느냐 따지지 말고 하나라도 잡으면 꾸준히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뭘 따질 시점도 아니고 아울러 교재나 강의 추천해달라 그런 댓글 달면 상대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나 병자가 아닌 이상은 씹어버립니다. 자기들이 공부를 꾸준히 할 거라고 정말 진정 믿고 뭘 강의가 좋냐 따지는 것이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7.113 불행중독증

2016.03.06

여기 콕콕에도 있고 어디든지 널렸습니다만.

자기가 불행하게 살았고 힘들다.... 라는 걸 자꾸만 강조해대면서 거기서 자존감을 얻으려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지금 행복한 사람도 언젠가는 불행해지고, 불행한 사람도 언젠가는 행복해집니다. 새옹지마라는 말에서 눈여겨볼 건 고대, 중세에도 인간살이는 마찬가지였을 거란 사실입니다.

니다.

우선 과거에 자기가 피해를 보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을 원망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그냥 현재 노력을 하기도 싫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 싫다는 ”고급 평계“에 불과합니다. 왜 고급 평계냐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게 평계인지 모르니가 고급 평계지요.

과거에서 얻을 건 교훈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결국 ”자기 반성“으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내 인생 맡아먹었다? – 그럼 왜 그 부모 말을 그냥 듣거나 거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기 반성으로 결국 이어집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기본은 남이고, 분명히 내가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수 있거나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내 문제가 되지요.

무엇보다도 잘 찾아보면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딴 이야기지만 입으로만 서민타령하면서 못 살겠다 하는 거... 저는 그건 일단 의심해요 정말로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은 하루하루 입에 풀칠도 하느라 일하느라 정신없고 그렇게 목소리 낼 여유조차 없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힘든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아예 맛이 가서 말을 하기도 힘들어서 통각신경이 마비된 상태로 하루하루 살아간다거나 아니면 그걸 극복 하려고 부지런히 일해서 시간이 모자라죠.

그럼 너는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글을 쓰느냐하는데 제가 이런 쓰레기짓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온오프에서 이런 걸로 적발한 사례가 많아서 압니다. 확신적으로 말하는데 ’과거타령‘하면서 남과 비교질하는 건 오히려 여유가 넘친다는 이야기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실패한 건 ’타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의 스타일 문제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한두번은 상담을 들어줄 수 있지만 그것도 자꾸 하다보면 ‘당사자는 계속 그것에 중독되어서’ 또 쓰레기짓을 하죠. 과감히 혼낼 때는 혼내고 지적할 때는 지적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과거타령“하는

것에서 뇌가 쾌감을 얻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아니,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것도 나쁘지 않나.... 불행한 것으로 쾌감을 느끼는 뇌라면 그 주인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야 명백하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n수생들 많아요. 요즘은 실패를 하면 기본 5년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분석을 해보면 의식주 고민은 오히려 덜 하고, 인간의 기본 욕망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공부할 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계속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죠. 왜 그럴까... 라고 하며 다방면으로 해답을 찾았는데 지금 내린 결론은 당사자의 뇌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중독에 빠진 사람, 즉 뇌가 마약으로 쾌감을 얻는 사람은 계속 마약을 할 수 밖에 없죠 이게 게임이든 알콜이든 성적인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남자에게 학대를 당하는 여자들조차도 그런 학대상황에 안 벗어나는 경우도 일부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년동안 진전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xx 때문에 망했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반복해요. 본인도 괴로운 이야기일 건데 왜 그럴까. 간단하죠, 고통과 쾌감은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상당수 – 특히 ○ㅂ에서 오는 사람들은 – 는 여기 해당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언코 말하지만 이건 ’치료’의 대상이지 위로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말이 좋아 과거지, 그거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는 고급 평계죠. 비교해서 말하면 성공해나가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이 과거 타령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늘 미래를 바라보고 있죠. 과거에 이래서 망했는데 ... 할 시간이 있으면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정작 제가 타인에게 과거 불행이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살아오면서 정말 두자리 수 되는 사람들에게 저런 식의 불행중독증에 걸린 두자리식 ’인생한탄’ ”나도 한 때에는 잘 나갔는데 –”, ”이게 다 ○○ 때문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는 지겹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리고 그 사람들은 절대 그거 한번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십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년동안 안 변합니다(...) 그냥 정신차렷 소리 지르면서 공부하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으니까 한탄하는 거지 육박지르는 게 명쾌한 해결입니다.

7.114 미래준비자

2016.03.07

가난한 집안, 막장 가정 등의 문제는 그런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아래 불행중독증에 적었지만 그런 불행에 중독된 사람은 계속 불행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준비자들은 실패조차도 미래의 성공을 향한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지요.

아울러 불행중독자들은 자꾸만 타인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 났을까, 저 녀석은 그래도 ○○가 작을 거야라고 위안하지만 미래준비자들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 재능을 배울 수 있을까, 아니 그 사람을 부하로 삼거나 동지로 삼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히 생각해봅시다. 불행에 중독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 혼자 망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만 집착하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책임이란 걸 지지 않고 어떻게든 타인에게 전가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이건 실제로도 20세기 공산권 지도자들(이 사람들은 그 쪽 분야 대가였습니다)이 정말 잘 보여주었죠.

그리고 지도자들은 직접 일하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 잘 맞춰 적재적소에 인재들을 배치할 줄 알고 갈등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재들이 자기 전문분야를 공부하는 데 그친다면 지도자들은 사람을 공부하고 부릴 줄 알며 동시에 어떤 미래가 전개될지 생각해보고 가능성있는 시나리오를 짜서 그 방향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움직입니다.

불행에 중독되어있지 않고 항상 미래를 준비하니까 실패할 가능성도 낮지만 실패했을 때도 손절매를 빨리 하며 그리고 그 손실을 넘어서는 교훈을 얻어냅니다.

....

이 정도는 책에 다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자로 쓰여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실천을 못 하는 건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상담하다보면 수험상담이 야매성 정신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귀납적으로 발견하는 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정말 다르단 겁니다.

입시에 성공한 사람들은 쿨한 성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사에 집착하지 않으며 실패를 바로 인정해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열심히 공부한다... 와는 다릅니다. 그것보다는 자기 인생을 열심히 경영한다... 가 더 맞는 이야기이겠죠. 대화하면서 느끼는 일종의 공감각적 이미지는 ”사로 잡혀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N수생들은 대화하면서 이입을 하려고 하면 뭔가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주에 걸린 건데 그 상태에서만 노력해보았자 저주의 약효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기 과거가 어두우니까 집착을 하면 그만큼 보상도 클 것이다라는 미신이 작용하는게 아닌가도 싶은데 말 그대로 미신입니다. 과거가 힘드니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건 어디까지나 서사문학의 틀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런 힘든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 즉 **역경을 극복해야 잘 되는 것이지 역경에 집착하면 평생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7.115 [수험교양 001] 장우석, ”수학멘토” & ”수학 철학에 미치다”

2016.03.08

읽으면서 수학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몇 없는 책 중 하나. 사실 이 시점에 수험생이 읽는 건 좀 늦지 않을까 싶지만 수학에 관심이 있다면 쉬는 동안 읽으면서 사고를 체화시키는 것도 좋다. 우선 이 책부터 소개하는 건 간단, 괜찮은 수학책들은 주로 일본, 미국, 독일 책이다. (여담이지만 좋은 책을 고를 때에는 나중에는 저자고 출판사도 다 제끼고 국적부터 확인하는 습관부터 들게된다). 그런데 위 책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 치고 대단히 철학적이거나와 핵심적인 것만 건드리고 있어서이다.

내용 자체는 수험과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건 수험서에 맡겨야 하는 일이고. 진정 수학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무엇인가에서는 개인적으로 위 책들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고 생각한다. 수학멘토는 저자가 나름 수학과 철학을 접목시키면서 공부한 노트이고 수학 철학에 미치다는 것은 유명 수학자들의 연대기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수학이 발전했는가를 고ding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 이 2권을 둘 다 읽고 고민하다보면 아주 간략하게 ’근대 수학’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수험 수학을 공부하다보면 처음에는 문제가 풀리지만, 고수 단계에서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문제를 풀고 안 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일각에 불과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된다. 그럼 그 빙산은 어디서 떨어져 나왔을까라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거대한 남극대륙을 떠올리게 되면서 과거 수학자들은 어떻게 사유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된다(이 지점부터가 바로 29번, 30번의 시작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물론 위 책들을 읽는다고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수험생에 있어서는 초고수의 영역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개관서로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강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책들에서 의외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지 않나

싶어 소개한다.

7.116 입시 분석이 무의미할 수도 있는 이유

2016.03.11

1. 서울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큰 관심도 없음.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최상위권들은 어차피 끼리끼리 다 알고들 있어서 자기들끼라 우열 관계로 분석들 하고 있음. 저런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그런 케이스이고 가장 좋아하는 게 부모들인데 알고보면 공부가 뭔지 잘 모르거나 이며 현역이 아니며 저런 이야기에서 심리적 위안을 얻는 부류
2. 속칭 스나이핑해서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것도 정말 효용이 있는지는 의문. 대학에 들어가는 이유를 두가지로 분류하면 하나는 실속이고 다른 하나는 체면치레인데 실속있는 곳은 스나이핑한다고 해도 어차피 못 들어가고, ”나 대학갔다”하는 식으로 체면치레하는 곳이나 가끔 빠지는데 이런 데 들어가면 그 때야 좋고 지금 3~5월 봄날 캠퍼스 생활에 싱글벙글이지만 가을이 오면 현실을 체감하죠.

봄날의 햇살에 꾸벅꾸벅 졸다가 머리가 빠지지 않았던 과거의 꿈을 꾸었는데 정작 그 때에 저런 등급컷을 보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공부 정말 잘 하는 애들이 저런 걸 신경쓰던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냉수 마시고 생각해봄에 저런 걸 보는 친구들은 결국 공부량이 부족하거나 알고리즘이 잘 잡히지 않아서 고민하는 친구들 아닌가.

최상위권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무의미할 수 있는데, 정작 최상위권이 저런 걸 신경쓰는 건 ’초중딩’ 때까지라는 게 함정. 왜냐면 정말 전국에서 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야 선행으로 끝낼 걸 다 끝내든가, 아니면 어린 시절에 영재교

육 비슷하게 받아서 선행을 안 하더라도 한번만 듣고 열을 깨우치는 괴물들인데 그들에게 저런 분석이 의미있는가 하는 생각이. 게다가 저런 분석은 어디까지 점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야 검토하는 거지, 저런 분석 자체가 점수 자체를 올려주지도 못하는데 필요한 것이긴 함? 점수 자체를 올리려면 본인들이 죽어라 공부하든가 그게 힘들면 스파르타 시스템 들어가서 본인을 개조하든가 해야지.

참 쓸데없는 짓들 하는 거죠.

상담하다가 저에게 질책 들으신 분도 있죠. 가령 실력정석 한권만 보면 된다... 정석, 좋은 책이죠. 그런데 공부 잘 하는 애들이 교재를 줄이려 하는 케이스는 제가 아는 한 단 한번도 없음. 정말 한권만 본다고 하는 경우라고 해도 수십번을 봐서 마스터하는 케이스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건 비추. 왜냐면 여러권을 보면서 그런 복습효과도 생기지만, 무엇보다 수학교재는 각각 빠진 게 조금씩 있어서 이걸 보충해나가야함 그래서 "양을 줄인다"거나 "특정 강의만 들으면 된다" 이런 건 없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게들 있다고 착각하고 물어보고나 있음. 수학교재를 8권 풀어도 내신 1등급 장담 못 하고 특정 강의만 듣고도 인생 조진 애들이 많은데 그런 판타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냥 고3 중위권 수준이 쎈 열심히 풀면 격려는 해줍니다. 어차피 이런 친구는 상위권 끝자락이라도 들어가면 희망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고2가 고3들을 푸는 킬러까지 죄다 풀고 풍산자 쎈 마플 급품벨 실력정석 연습문제 껌으로 풀어도 그건 '모자라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푸는 친구들이라면 최상위권을 노릴 건데 전국구 최상위권은 경시대회 문제는 기본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다 끝내놓은데다가 두뇌 수준도 엄청 비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만으로도 부족하죠.

그런데 이런 후자들에게 입시분석이 의미있을지?

간략히 말해 다들 참 쓸데없는 땀에 사로잡혀들 있죠.

기본적으로 저는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과목 테크트리 정리에 관심이 있지 만 정말 최상위권이라면 그 때는 인격이 바뀌는데 – 솔직히 지금 수험사이트에 올라온 것들이나 거기서 명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최상위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상위권인인 친구들은 몇마디만 던져보아도 반응이 일반인들과 다릅니다. 말에 가시가 돋혀있다라는 건 기본인데다가 그들의 말 한마디한마디는 상대방의 뇌세포 집적도를 테스트해보려는 게 깔려 있죠. 그러니 어느 교재 봐야하나요 무슨 인강이 좋아요하는 질문은 그냥 단세포 이죠. 최상위권이라면 안 끝내놓은 게 없는데 그런 질문 따위 던지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눈으로만 짹 훑고 문제 푼 걸 가지고 어떻게 풀었냐 제가 질문하면서 논리적 흡결이 없나 확인해보아야하는 구만.

여담으로 머리좋다는 친구들이 짹 훑고 문제 푸는 건 ”초고화질 이미지”로 푸는 것이고 뭘 모르는 사람들이 유전타령하지, 사실 이건 다년간 사교육받고 훈련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 유전타령하는 사람들을 전 뱄으로 봅니다. 정말 아는 게 없구나 싶어서) 이런 친구들에게 논리 문제 내면 일반인들보다도 더 벼벽거리죠. 왜냐면 이미지 접근은 논리에는 안 먹히거든.

7.117 3평 가형문제 평

2016.03.11

1. – 새로운 출제경향이 안 보임, 기출의 반복 – 그냥 교육청은 이에 대해선 방관하거나 손놓은 듯.
2. – 눈여겨볼 것이 ”함수” 강화야 작년 수능 출제 경향이기도 한데, 이거 시중 사설이나 그걸로 대비되는 건 절대 아닐 건데?
3. – 돌아보면서 점수대들 보니 올해 고3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그리 틀리지 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재가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문제야... 라고 하고싶은데 내년에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올 뻬이고 (정확히 말하면 현재 고3들은 공부 안 하는 걸 고2들은 공부하고 있다라는 딜레마가) 올해판 마풀이나 급품벨 잘 풀었으면 무조건 96 이상은 나왔을 문제들인데 점수 보고를 보면 정말 어지간히들 공부 안 한 듯. 물론 n수생이 점수가 안 나오면 더 심각하겠죠.

상세문항 분석 올릴까 보았는데 전혀 그럴 가치가 없다고 보여서 그냥 넘어갑니다. 문항분석보다도 공부 안 하는 학생들 멘탈 분석을 하고 싶다고 하면 독설 치고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7.118 실력정석은 막판에 봐야 진가를 발휘

2016.03.13

실력정석 1권으로 뭉개고 보자... 라는 케이스가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국내 수학책에서는 탑일지 몰라도, 렙이 안 되는 사람이 손꼽았다간 기쁠려 미라되기 좋은 책이다.

개념 – 예제 – 유제 – 연습문제

다소 해설이 구린 것만 빼고보면 문제 하나하나가 일독할 가치가 있다. 특히나 이제는 기출만 무작정 짜깁기하거나 변형하면서 '수학 최고'를 자부하는 사이비가 널리는 시대에 실력정석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날 보고 정석혐오자라고 착각할지 모르는데 애당초 수학교과서를 실력정석으로, 영어교과서를 성문종합영어로 배웠는데 무슨(...)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석의 단점이 뭔지도 안다. 이 책은 수학이 어느 정도 반열에 들지 않으면 정말 수학을 극혐하게 만들기 좋다.

반면 교과서적인 것도 거의 다 마스터하고 시중 문제집에다가 기출까지 다

보고 나서 보면 정석 문제 하나하나가 거의 뒷쪽에 달하는 설명을 할 수 있는 떡밥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야기는 공부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석을 봐보았자 별로 효용이 없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정석이 직접적으로 수능 출제 경향에 도움이 된다... 그건 아니다. 정석을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에다가 계산력'을 극강의 협기적인 수준으로 늘릴 수는 있는 것이다.

가만 보면 하수일수록 정석부터 잡는 경향이 있다. 그거야 한권으로 끝내겠다는 망상 때문(...)

실제로 일본의 차트식 수학은 오히려 난이도 안배를 잘 하고 해설을 풍부히 달았다. 이에 가까운 책은 오히려 해법 셀파이다. 교재가 어디서 기원했으며 또 한 어떻게 변천했으며 그 원산지에서는 어떤 트렌드인지 모르니까 정석 한권만 보면 되는구나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특히 그 일본 트렌드를 잘 반영한 것이 역 설적이지만 교과서이다. 교과서란 형식에 얹매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좋은 것을 느끼면서도 그걸 말로 설명 못 하는 건데 당연하지, 그 중에서 일본 책까지 수입해 보면서 평가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지금 급부상하는 수학교재는 마플 출판사 정도. 기출도 원숙해졌지만 교과서와 시너지도 참신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아무튼 정석은 맨 나중에 봐도 되는 책이다. 시중교재 검증된 것만 풀고 교과서 마스터하고 기출도 여러번 돌리고 정석을 보면 어떤 걸 패스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심오한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다. 그럼 보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인데 왜 처음부터 실력도 안 되면서 정석을 보는 고집을 피우는지 알 수가 없다.

7.119 내신따기 힘들어진 건 사실이죠.

2016.03.14

원래대로라면 특목자사고 갔을 애들이 내신 노리고 그냥 일반고에 잔류하는 케이스가 증가했는지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내신이 정말 잘 나왔어야 하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나오지 않아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특목자사고 간다고 해도 탑을 달리지 않으면 깔아줘야하기 때문에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스트레스만 줄창 받기 딱 좋고 그렇다고 일반고에서 수능에 관한 노하우 같은 것이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 – 어차피 다 학원에서 배운다는 분위기이고

그래서 과거와 같이 굳이 좋은 학교에 가야한다라는 분위기는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시장의 자정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대신에 일반고 양민들이 내신 따기는 어려워졌다라는 부작용이(...)

다만 교육당국에서 뺄짓을 한 것이 바로 중딩 자유학기제인데 당연히 그 기간에 선행을 하지 못 하겠습니까(...) 교육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정부는 룰을 개정하는 뺄짓을 하죠.

아무튼 그래서 고2 올라가는 사람은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내신도 좋고 수능 공부도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몇이나 이걸 걸어주려나 그 다음으로는 내신이라도 잘 따놓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능공부보다 더 힘듭니다. 차악은 내신은 망하더라도 수능 공부라도 끝내놓는 경우입니다. 정시는 매우 힘들다 쳐도 수능으로 만회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내신도 망하고 수능도 망하죠(...) 그래서 1학기 여름방학 때 결단을 참 잘 해줘야합니다.

7.120 올해도 똑같네

2016.03.15

하라는 걸 11월에 안 하고 계속 땀짓하다가 3월이 되어서야 이제 어쩌면 좋냐 하는 패턴은 매년 다를 바 없는 듯. 그리고 그 상태로 6월이 된다. 그냥 올해 시험은 물건너간 겁니다.

마풀을 지금부터 풀면 되냐고 하는데 저는 고2들에게 풀라고 합니다. 그래도 늦기 때문입니다요. 애들 경쟁상대는 그냥 커리 다 맑은 애들이 아닙니다. 양민들이 10줄 풀어야 푸는 걸 눈으로 정확히 계산해 푸는 괴물들이 진짜 라이벌이라는게 문제죠. 속칭 머리 좋은(정확히 말해 머리가 잘 만들어진) 애들을 상대하려면 빨리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콕콕에서도 11월부터 빨리 시작하라 한 것인데

일지를 보니 그나마 저걸 지킨 사람들은 허덕대면서 자기 목표달성을 30% 가능성 정도는 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꿀교재, 꿀강의라고 할지라도 여러번 반복하는 것은 못 따라가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시간'일 터인데 말입니다요.

아마 4~5월에 허황된 광고하면서 교재 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말하지만 본인이 초고수가 아닌 한 그걸 잡는 건 스케줄 망가뜨리며 망하기 딱 좋은 짓입니다(교재검증이야 차치하고서라도) 수학교재는 자기가 다 풀고 오답정리하고 중요한 걸 떠올릴 수 있지 않는 한 그냥 '악성재고', '비계팅어리'입니다.

초짜이거나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무슨 꿀교재나 꿀강의 의존하는데 정작 그거 결과 물어보면 '기대보다 별로'라는 데 실망하고, 왜 그딴 걸 믿어서 양치기를 안 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그 반대는 사실 한번도 본 적이 없네요)

이렇게 보면 양민들의 문제는 머리가 안 좋다 그게 아니죠. 스케줄 자체를 잘 못 잡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수험기업이라고 하면 기업경영을 못 하는 셈이죠. 냉정하게 상황판단을 하고 플랜을 잘 짠 다음에 어떤 과정을 맑은 것인가 잡고 시행해야하는데 남이 이거 좋다더라... 하면 거기에 휘둘리면서 낭비를 합니다.

이제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나 콕쳇에서 콕콕수험고수들이 하는 말들은 서로 약간 다를지 몰라도 공통점은 있는데 최소한 시간 관리 측면에서만큼은 진짜 '보수적'으로 가야한다는 것, 즉 최악 상황을 감안해야한다는 것만큼은 진실이고 수험 최고의 거짓말은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 물건너가면 사실 내년 시험도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그나마 올해 고3들은 작년 고3에 비해 실력이 낮은 경향이라도 있는데 내년 고3들은 아주 잘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말입니다. (거기다가 영어 절평, 아주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싶음)

7.121 수험커뮤니티는 자칫하면 사이비 종교화되기 쉽죠.

2016.03.17

오프라인에서 수험사이트 아무개나 수험 컨설팅 어쩌구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론해줍니다. "제가 같이 수업들었던 친구들 절반 이상이 서울대 갔고 어쩌구저쩌구해도 그렇게 교주짓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친구들 진짜 학벌이나 경력이 정말 객관적으로 대단한가요?"

이렇게 추궁하다보면 왜 그런 데를 언급하느냐 하면 '말빨이 좋아서'라고 하더군요. 학생이든 학부모든 다 입시공포증에 걸려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종교의 기원이라지요.

냉정하게 말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수험썰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인터넷을 끊고 그냥 현강으로 학원수업들으면서 시중교재 열심히 파도 입시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을지 몰라도 인터넷에서만 언급되는 것을 맹신하면 5년 이상 날리는 것도 일이 아닙니다.

현상을 예측할 때는 변증법을 주로 사용하면 됩니당. 그런데 이 변증법을 쓸 때의 정반합에서 반(反)은 물질적 불균형에서 찾을 수가 있죠. 과연 수험시장이

정상적으로는 거액을 벌 수 있는 구조인가. 냉정히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 판도 정상이 아니란 얘기죠.

적지않은 수험생들인 결국 거액을 주고 '재고'를 떠안습니다. 재고라는 것은 소화시키지도 못 하는 참고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재고가 생겼다는 것은 이미 공부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수험에서 실패할 가능성성이 높지요

현재 일지를 써보시면서 총회까지 들어오신 분들도 열심히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느끼셨을 건데, 시중 교재조차도 단기간에 끝내기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이고 그럼 어떤 교재 보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그런 꿀교재물어보는 것에 빠질까요. 그거야 그 때는 수험이 과학이 아니라 종교여서 그렇지요 이 때 그들이 원하는 수험서는 '부적'입니다. 그것만 갖고 있으면 온갖 액운을 피할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구매한 다음에 서재에 꽂은 참고서는 풀지 않는 이상 애물단지입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구경하다보면 이 책만 보면 수능 1등급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부적'을 파는 사람들도 많죠. 아울러 자기들 말만 들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고 약파는 '무속인'들도 있습니다. 현실의 무속인조차도 갓 신내림 받은 사람이면 모를까, 2~3년 지나면 약빨이 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콜드리딩으로 말맞추기하는 현실일텐데.

더 좋게 말해보았자 그들은 수험떴다방 혹은 수험브로커 정도겠죠. 저는 그 사람들이 수능을 쳐서 정식으로 관악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터넷 글이건 책에서든 핵심은 피한 채 온갖 미사여구로 인간극장을 찍고 있더군요.

어차피 저는 그런 걸로 사업하는 건 별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과학적으로

이것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남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신속하게 돌아가는 두뇌를 후천적으로 만드는 커리가 필요하다 둘째, 시중의 상위권들조차도 알지 못 하는 특수한 교재는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의 경우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았고 같이 공부했으며 겪어보았으니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선천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후천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연 그런 환경들의 엑기스만 뽑아내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한가지 분명한 건 여기서 작은 것의 반복이라는 게 키라는 것입니다. 소위 '구몬' 시스템 같은 것 물론 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에 어떤 자극을 받았느냐하는 게 상당히 큰 역할을 끼치는데 그걸 2, 30대 양민들에게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관심사입니다.

둘째의 경우는 사실 입증된 적이 있죠. 과거에 과고, 외고에서 집중적으로 설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힘든 일이지만 그 당시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때는 인터넷 강의가 등장하지 않았고 주요소스를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의미한 이유는 현재 특목자사고에 가는 친구들도 머리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도 그런 성과를 못 거둔다는 것이지요. 2000년대부터 특목고에서 독점하던 것이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급이라는 것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농담처럼 한 이야기가 아니라 웬수학 같은 책이 소수만 보았다면 이건 정말 한권에 100만원 넘어가는 비급 취급받았겠죠.

비급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학 29번과 30번, 그리고 과탐 킬러를 시중인강이나 교재로 커버 못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출제자는 그걸 낸다는 점에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비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비급은 '출판되면' 더 이상 비급이 아니란 것이죠, 대중적인 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쇄적인 집단에서 소수만이 교육되고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는다.... 과거 특목고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와 비급이라면 이건 수백, 아니 수천만원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거니까. 하지만 시중에 많이 팔리는 것들이 이런 것을 담보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마약을 못 구하면 마라톤을 뛰면서 러너스 하이로 천연마약인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듯이 공부하는 수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사이비 종교들은 저 두가지를 얘기하지 않죠.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호구들을 혼혹해서 장사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7.122 공부에 있어서 회독수

2016.03.18

- 기본서 – 10회독
- 객관식 – 5번씩은 풀 것
- 기출 모의 – 3번 정도

평균화시킨 레시피(?)가 저 정도는 됩니다. 학교나 학원에 다니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저 정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달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강만 듣는 경우 한번 듣고 복습을 안 하고 끝납니다(피로도가 높아서, 거기다가 딴짓을 해서) 1회독만 하면 90%를 망각하죠. 짧은 시일 내에 다시 복습을 해야 그 망각도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강남 모 지역의 학원들은 실적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 실적은 겨우뚱할 수 밖에 없는 게, 애시당초 '시험을 쳐서' 우수한 애들을 뽑으니까요. 우수한 애들이란 어린 시절부터 관리가 되어서 머리가 만들어진 애들입니다. 이런 친구는 회독 습관이 들여있어 학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학원 입장에서도 한번만 가르쳐도 열을 깨우치는 애들이니 가르치기도 편하거나와 성과도 좋은 것이죠.

반면 회독수가 안 된 친구들을 저런 머리로 만드는 것? 시간과 노력도 많이 걸리지만 성과도 기대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런 친구들은 강 버리거나 아니면 은폐시켜버리죠. 그 점에서 인강만큼 편리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인강을 들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10회독이 쉬운 건가. 평균적으로도 그렇고 일지도 그렇지만 고3 기준으로 해도 5월까지 기본교재 2회독만 해도 다행입니다. 물론 초상위권들은 능력이 좋으니 더 많이 돌려 7회독은 해놓으며 시험 직전에 15회독까지 하기도 하죠. 수학문제 풀이 뿐만 아니라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그리고 출제자가 어떤 함정을 까는지도 달달 암송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위권들은 이런 경지를 모르니까 모 선생만 잘 따라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우물안을 맴도는 것이죠.

아무튼 10회독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머리나 수힘을 탓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 뛰어난 학원은 이런 회독수를 확보해주는 곳입니다.

제가 쎈이 좋은 교재라고 하는 이유는 A, B 스텝에서 내재적 회독수가 확보되는 편집구조여서입니다. 정석도 비슷할 수 있지만 정석은 난이도 격차나 편집에서 회독수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야매교재들에 대해서 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노트만 짜깁기해놓은 수준이고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저자들도 모르는 게 보여서요. 그 저자들 이력보면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죠.

수학의 경우 제가 양민들에게 권하는 코스가 (이건 수도없이 반복해서 이제 다들 외우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쎈(풍산자)를 보고 그 다음 복습용으로 RPM 선택 가능, 그 다음으로 마풀이나 마더텅을 보면서 급품벨 중 2권 선택, 그리고 EBS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실모중독자들이나 광신도들은 이걸 가지고 EBS가 안 좋다 깔 것입니다(라고 하지만 참신한 문제는 정작 EBS에 있던데) 이렇게 권하는 것은 저런 과정으로 가면 회독수가 확보되어서 양민들이 고수가 될 수 있는 현재로서 가장 안전한 나선형 코스여서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쎈과 풍

산자는 1~2회독 완료하고 마풀을 풀고 있어야하는 시점이지요.

지극히 평범하고 '실천가능한' 안을 분명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건 여홍이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은 여전히 수험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아무개 강사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상한 야매교재 봐야한다 그러면서 또 올해 1년 공치는 걸 야동 보듯 몰래 훔쳐다보고 있죠. 악취미(?)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쓰는 xx론의 근거는 "실패'입니다. 실패하는 과정의 반대로 가면 성공이 있기 때문.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그 친구들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비현실적인 안'을 일부러 고르는 것일수도 있어요. 수험실패를 일부러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싫다를 '넌 공부할 수 없어'라고 자포자기하게 미리 까놓는 것이죠.

7.123 회독학습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간략히 적죠.

2016.03.19

아래 글에 댓글로 적었습니다만.

센을 기준으로 한다면

- 1회독 : 개념 읽기 – 개념에서 유도하고 싶은 건 네이버 검색이나 교과서 참조 무방 – A형 풀고 오답정리
- 2회독 : B형 대표문제, 그리고 각 유형별로 난이도 中 문제 절반 풀고 오답정리
- 3회독 : B형에서 中 문제 나머지 풀 것.
- 4회독 : B형에서 上 문제만 풀어나갈 것
- 5회독 : C형 절반 풀 것 (짝홀 나눠서)

- 6회독 : C형 나머지 풀 것

이렇게 나눠 가시면 6회독 달성이실 텐데. 그리고 그 반복 과정에서 얻어질 것이 충분히 많을 텐데 말입니다. 저렇게 나눠가는게 처음부터 C스텝까지 다 푼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기억하기에도 좋으며 책을 내 것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Divide and Conquer 교법에 충실한 방법이고, 7번 읽기 공부법의 암마구치 마유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아마.

谮 한권 기준으로 한다면 1회독은 7일, 2회독은 14일, 3회독은 10일, 4회독은 10일, 5회독은 10일, 6회독 10일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아는 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모른다는 것을 파악해서 요령 알려드립니다. 아니 이런 건 안 배우셨나들 다 --

그럼 마풀의 경우는?

그거야

- 1회독 : 행복한 1등급 제외하고 홀수번만 풀어나걸 것
- 2회독 : 행복한 1등급 제외하고 짝수번만 풀어나가기
- 3회독 : 행복한 1등급 절반 건드리기 + 경찰대/사관 기출 절반 건드리기
- 4회독 : 행복한 1등급과 경찰 사관 기출 아작내기
- 5회독 : 행복한 1등급 최고난도 풀어버리기(분량이 별로 없어서리)

이것도 비슷하게 스케줄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 한권만 집중적으로 팔 필요 없음

가령 쌈과 마풀을 본다면 위에 제시한 쌈 1, 2회독 - 마풀 1회독 - 쌈 3회독 - 마풀 3회독 - 쌈 4회독 - 마풀 4회독 - 쌈 5회독 - 마풀 5회독 - 쌈 6회독

이런 식으로 조합해나가도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즉 공부해나가는 난이도의 함수를 미분가능하게 설계하는 게 묘미임

그런데 적극적으로 회독수 공부가 뭔지 물어본 사람은 오늘에야 나왔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물어보거나 핵심적 질문을 안 하고 저보고 '말바꾼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음. 저렇게 쪼개서 공부하는 건데 그걸 모르셨단 말인가(...)

그런데 말은 조금씩 바뀔 수 밖에 없는 것도 있음, 왜냐면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 가령 xx가 좋은 문제집이더라 하면 xx은 당연히 추가해야죠. 왜냐면 그래야 다른 수험생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니까. 예컨대 인수(는 보지 않았지만)가 좋은 교재라고 하면 이것도 추가하면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 짜는 건 위험하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풀 문제집은 생기니까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쎈과 마플만 제대로 풀면 4점짜리 대비책 여름에 따로 세울 것 빼고는 망해도 2등급은 끌 수 밖에 없음. 일지 쓰는 분들도 조사해보니 이 정도까지 한 사람도 거의 없고, 다른 데도 스텔스 잠행해보니 다들 입공부하고 있죠(그리고 망했다고 올겠지)

다만 이걸 알아두셔야 함

자기 등급이 올라갈수록 싸워야하는 적은 줄어들지만, 대신 그 적의 수준은 후덜덜하게 높다는 것. 예컨대 100위권에 든다면 100명만 승부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100명이면 정말로 공부로는 일당백하는 괴수들입니다. 일당백이 수사적 의미가 아니라 국수영 문풀이나 사고 흐름으로는 30명 양민을 연결한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7.124 1인자와 2인자

2016.03.20

성공은 반추할 수 없지만 도취하기 좋습니다. 실패는 기뻐할 수 없지만 반추할 수 있습니다요.

젊은 시절 많은 경험을 해보라고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말해주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뭘까 찾아보고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란, ”실패를 수습하고 그로써 교훈을 얻고 자신의 단점을 보강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기출 문제’입니다. 나의 실패는 **나만이 풀 수 있는 기출문제**입니다.

첫째, 문제의 존재가 확실하다 둘째, 무엇이 오답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 수 있다.

상담하다보면 누구나 자기만의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상담해주는 의도가 뭐냐라고 하겠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타인의 기출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실패를 겪고도 기출문제를 반복해 푸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외면해버린 채 다른 문제집을 풀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자는 소수고, 후자는 다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자가 성공하고 후자는 풀어야 할 기출문제집이 늘어납니다. 자신의 기출문제를 정복한 사람은 타인의 기출문제도 풀어보며, 아울러 자기와 타인을 위한 예상문제도 만들어냅니다. 그런 예상문제를 미리 만들어 풀어주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문제를 푸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정확히 예측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가상의 문제를 내보아야할 뿐만 아니라, 운명이란 이름의 출제위원이 내는 의도까지 읽어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매우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들을 가정해보고 해결하려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고득점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문제해결을 위한 재료라면, 지혜라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책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벌어진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미래의 문제까지 미리 끌어다 해결해야 늘어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건 오직 정보입니다, 정보 자체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중을 가리면서 의미를 부여해야 비로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지식 자체만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지성인 '지혜'가 있어야죠. 이 지혜는 본인이 직접 겪어보지 않는 이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N수한다 어쩐다고 하겠지만 냉정히 말해서 이 분들은 보고를 놓치고 있죠. 물론 저는 입시에 한해서는 현역으로 좋은 대학 간 것이 진짜라고 봅니다만, 이런 케이스는 고생과 실패를 별로 겪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매우 위험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수동적인 지식 축적은 가능해도 적극적인 지혜를 키우는 것까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인생을 추적해보면 3인자까지는 몰라도, 1인자나 2인자는 찾기 어렵습니다. 우연만은 아니지요) 하지만 1인자나 2인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학벌이 생각 외로 보잘 것 없고(?), 거기다가 실패한 적이 꽤 많습니다. 즉 이건 그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들의 기출문제를 정리했으며, 지식은 비천할지 모르나 지혜가 쌓였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 해보았자 소용없다라는 건 물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의 공격일 수 있지만 선해해본다면 '공부를 잘 해보았자 우두머리, 즉 리더가 되지 못하면 무의미하단' 이야기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우두머리입니다. 부하가 되어보았자 별지 못 합니다) 그런데 우두머리의 조건은? 남들이 쉬쉬하고 기피하는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고 주도하며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자기 목숨까지 걸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부딪쳐가는 사람이 1인자고, 자기 목숨까지는 걸지 않되 지혜를 제공하며 보좌하는 게 2인자입니다.

7.125 몇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2016.03.20

1. 작년 수능이 기대보다 망했는데 또 도전해야겠느냐.

다른 것을 떠나서 실패를 했다면 왜 실패했나 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분석이 없는 수험은 곧 종교행위가 됩니다.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종교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운좋게 성공해놓고 왜 성공했는지 이유를 모르면 어차피 곧 망합니다. 실패했지만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개선하면 그 다음에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해놓으면 도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보입니다. 실패를 좌우하는 건 상당히 '사소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원인은 알고보면 '빙산의 일각'이죠. 그걸 분석해보면 자기가 인식 못 했던 거대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그 문제를 잡아내어야 합니다.

재수가 삼수 사수로 이어지는 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그 미지의 대상을 모두 '운'으로 돌리죠. 운이라는 것도 우주적 차원에서는 필연이 됩니당.

2. 영어 처음부터 단어 외워야하느냐

이것도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말씀드립니다. 마더텅이나 자이 같은 기출 가지고 그냥 어려운 지문부터 풀고, 답 낸 이유 적고, 틀린 다

음 해설과 비교하고 해설 자세히 보세요. 즉 영어는 어려운 지문부터 강 공략하고 까이고 극복하길 바랍니다(이건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은 쉬운 것부터 회독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수학의 진정한 실력은 기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학의 기초 개념이야말로 사실은 '고차원 수준의 보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들을 익혀야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하게 풀면 되죠라는 식으로 인기 강사가 아무리 지껄여보았자 본인이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교과서 개념만도 못 합니다.

하지만 영어나 국어는 다릅니다. 영어나 국어의 사고법은 어려운 지문을 잘 해석하고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기본일 수도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자잘한 걸 요구하기보다도 실제로 학생이 어려운 지문을 잘 분석하고 분해해보느냐를 따져보길 때문입니다. 이런 건 본인들이 어려운 지문에 도전해보는 걸로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 수학이 찰흙을 빚어 뭔가 만드는 것이라면, 영어나 국어는 거대한 대리석을 깎아나가는 조각과 같습니다. 염선된 글들을 여러번 읽으면서 거기에 내재되어있는 사고법들을 익히고 이것들을 독해하는 걸 훈련하는 역삼각형 방법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어떤 식으로 푸느냐보다도, 각자의 '독법'이라는 걸 만들어야 합니다. 국어나 영어는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주관적인 논리에서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해 객관성에 근사시킨 것일 뿐, 그것들이 객관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어나 영어의 어려운 지문을 읽고 풀어가는 것은 표준화된 방법이 나오기 힘듭니다. 글을 읽는 건 독자 자신의 철학과 성격에 종속적입니다.

덧붙여 말하면 문과 분야의 객관성이란, 주관적인 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빚다가 나오는 타협적인 것에 불과하지 애초에 객관적인 것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형식논리학으로 참 거짓을 실제로 분별하는 건 어렵습니다. 애초에 세상이 연역논리로 설명되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어떤 주장이 참이다 거짓이다보다는, '더 옳은 점이 많다'라는 개연성, 타당성으

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수능 국어나 영어의 독해는 그 개연성과 타당성을 전제로 한 조건부 확률적 문제를 내고 있죠.

3. 시험 망하면 어찌냐

평생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던 4, 50대 아재들조차 모가지 잘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짊었을 때 실패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다가 거액의 빚을 지고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케이스가 적지 않네요. 승부를 했다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탁월한 투자가라면, 이기는 방법보다는 '지더라도 안 망하는 방법'을 궁리하겠죠. 다시 말해 공격력과 방어력 중 선택하라면 방어력이고, 딜러와 텡커 중 택해라면 텡커가 낫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특정 시험에 모든 것을 걸었다면 그것 자체를 강 바꾸시길 바랍니다. 수능을 쳐도 안 되면 원칙적으로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다른 길에 대한 의식이 수능까지 말아먹는 거라면 이건 제3의 안을 택해야겠지만요.

최근 헌책방에서 정말 엄청난 책을 구했습니다. 시세 잘 쳐주면 30만원짜리 일 건데 5000원에 구했죠. (그 저자는 당시는 평범한 엔지니어였지만 지금은...) 그런데 거기 명문이 적혀있더군요. 아무 것도 모를 때는 세상이 모순 덩어리인 것 같지만 알고보면 자기가 잘못 알고 있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수능에 응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수백만가지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만 보고 있는 거죠.

7.126 진도

2016.03.24

아부하기 싫어서 적는다면 지금 상당수가 '늦습'니다. 일단 이 시점에 뭘 봐야하느냐 물어본다면 이미 상당히 밀린 것입니다요. 이제 3월말인데 기출도 절반 이상은 다 돌렸어야합니다. 즉, 웬이든 풍산자든 하나는 끝냈어야한다는 얘기죠.

상당수가 자기들이 교재를 잘못 선택해서 혹은 강의를 안 들어서 아니면 잘못 들어서라고 착각할 건데 이건 무의식적으로 교재나 강의 탓을 하는 '책임전가'입니다. 실패 요인은 '진도'를 일찍 빼지 못 해서입니다. 즉, 스케줄을 못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다 1, 2월까지는 시간이 꽤 많을 거라고 착각에 빠지면서 설렁설렁하죠. 그런데 남은 시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의 1/3도 되지 않고, 해야할 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의 3배를 넘어갑니다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야 본인들이 경험해보시면 됩니다. 작년 일지 사례와 콕콕 입시 성과로 보건대 성적이 좋은 쪽은 정말 해야할 것을 남들보다 다 빨리 빼고 일찍일찍 돌린 경우입니다. 소위 수험사이트나 야매교재업자들이 강조하는 방법으로 성과가 좋은 건 거의 못 보았습니다요(좋으면 제가 그걸 추천했죠)

뭔 교재를 보아야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속도와 밀도를 높이는 데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풀지 않은 교재는 그냥 재고입니다. 뭐든 일단 끝까지 풀면서 뇌를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요.

진도가 밀리지 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얘기해보거나 글을 읽어 보면 '마인드'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전자는 자기 할 게 바빠서 사소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힘들어죽겠다 그 한마디입니다. 후자는 여전히 뭔 교재가 좋아요라는 질문을 병적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힘들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6월 넘어가면서 또 포기각 나오겠죠.

7.127 뭔 교재 보았냐 물어보지 말고

2016.03.25

1. 어떻게 실패했느냐
2. 어떤 환경이었느냐

이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SKY 불거나 의대에 간 사람들은 겸손을 가장해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라고 하겠지만 그건 개뻥이고 대부분은 천부적 환경이 좋거나, 아니면 본인이 노력해서 환경을 잘 만들어서 기존의 나쁜 환경을 극복한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실패하는' 코스를 피해간 것이죠 성공하는 방법을 모르면 실패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가면 일단 망하지는 않으니까요. 아울러 사람을 규정하는 건 환경입니다. 환경이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동양에서는 일을 도모할 때 따져보는 것으로 천시지리인화가 있습니다. 요즘 와서는 천시 = x수저로 바뀌는 것 같고 인화라는 것은 어떤 네트워크에 들어 가느냐 하는 걸로 결정되는 걸 본다면 역설적으로 남은 것은 지리인데, 이 지리라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가치도 자기가 어디서 사느냐 혹은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변화가 마천루 로얄층에서 보내는 것과 어디 달동네 폐가에서 보내는 게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런 점에서는 천시조차도 지리에 지배되는 감이 없지 않으며 또한 사람들도 변화가에 몰리는 것을 보면 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올해 수험 시작하는 사람 중에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디서 공부하느냐 하는 걸 먼저 물어보았고 실천했겠죠. 집에서 공부하지 말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질문할 리는 당연 없겠고 보통 안 되어서 질문할 건데, 그럼 그건 '집의 영향'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7.128 집착

2016.03.25

- 최상위권과 상위권 : 3년
- 상위권과 중위권 : 3년
- 중위권과 하위권 : 3년

너무 그럴싸하게 근사한 것 같은데 대충 이 정도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왜 저런 격차가 생기느냐 하는 건 ”환경” 차이가 가장 크지만, 누가 먼저 일찍 공부했느냐도 중요하겠죠. 초딩 때 고1 수학까지 견드렸다면 남들보다 6년 앞서간 겁니다. 무리하지 않게 공부하면 당연히 최상위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공부해야하는구나’라는 걸 너무나 뒤늦게 깨닫고 있는데다 그걸 깨달았을 때에는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마음은 급하지 그래서 올해 당장 합격하고 싶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공부 못 하는 친구들의 특징인 집착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집착하고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교재나 질러버린 인강에도 집착하고.

집착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행동양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사고와 행동이 효율적인 사람은 미래에 방해가 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버립니다. 이것들의 효용이 적다는 걸 알고 있어서입니다. 자기 교재나 인강에 지른 돈이 많더라도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합리적인 확신이 든다면 과감히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신경쓰는 건 경쟁자와의 승부죠.

상위권들은 집착을 해도 미래의 순위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낭비 요인이 없으니 더 쭉쭉 나가는 것이죠. 계속 그 자리를 지켰으니 트라우마 될 것도 없고

더 좋은 방식이 있다고 보면 과감히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전진해왔기 때문에 맑 천 견뎌야한다 그런 생각도 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자들이 문제라고 보는데. 다수의 중하위권들이 집착을 하는 요인 중 하나가 업자광고에 세뇌된 게 있어서입니다. xxx 강의나 xxx 교재 보면 안 되나요...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저런 강의나 교재가 좋다고 말하는 '배경'이 무엇이겠어요? 그런 걸로 돈 번 인간들은 지옥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7.129 교과외적(?)인 증명과정이 필요없는 게 아닐텐데

2016.04.01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보고 찾아본 결과는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달리 **공부한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A라는 문제를 연습했다고 치면 시험에 나오는 것은 A가 아니라 A" 혹은 A"B"라는 것입죠. 학생 중에서 난감한 경우가 "무조건 암기하라", "패턴을 외우라" 하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다라고만 암기하도록 배운 케이스인데, 이렇게 푸는 방식을 외우는 케이스가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암기할 대상은 '정의와 성질' 정도면 족합니다. 그리고 그 암기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죠.

그럼 수학공부를 왜 하느냐라고 하면 생각하는 방식을 연습하기 위해서입니다, 수학공부의 잇점은 딱 하나. "예술적으로 사고한다" 그 정도입니다. 잠시 딴 이야기하자면 공대에 가서라도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유감스러우나 수학을 쓸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공업수학이 수학?) 수학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그 전공자나 교육자들이나 하는 이야기죠.

일본의 전설적인 로켓공학자인 이토가와 히데오씨가 자신의 책에서 아래와 같이 얘기한 적이 있죠. 이토가와 히데오는 전투기 설계로 유명했고(하야부사), 그리고 펜슬로켓 아이디어도 대박친 분입니다. 그의 이름이 소행성에도 별을 정도죠(<https://namu.wiki/w/%EC%9D%B4%ED%86%A0%EC%B9%B4%EC%99%80>)
공대 진학하셔서 뭔가 똑딱 만드실 분이라면 이 분이 쓴 책은 읽어보시길 권하며.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비해기 회사에서 10년 간 전투기와 폭격기의 설계도를 그렸지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쓴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또 그 후에는 음향학과 의학기기를 10년 했는데, 이 사이에도 한번도 없다. 그리고 로켓 개발 10년 사이에도 없었다. 또한 조직공학 연구소에서 10수년 있는 동안 전혀 한 번도 없다. 그것 뿐인가, 초등학교에서 배운 산수, 중학교의 대수, 기하 고등학교의 미분 적분에서부터 대학의 수학까지 현재까지의 일에서 실제로 사용한 경험이 없다. 한번도 없다는 것은 조금 극단적이고, 2번은 있다. 한 번은 공학 박사학위 논문이었는데 '수학을 넣지 않으면 학위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이고, 또 한번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수학을 넣지 않으면 학생들을 바보로 만드니까'가 이유였던 2가지 기회 뿐이다. 선입견으로 비행기 설계에서는 수학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비행기 설계의 좋고 나쁨은 그 비행기에 타는 파일럿에게 좋은지 아닌지가 최대의 포인트이다. 조종사들이 어떤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발견하는지 발견하는 것이 설계의 가장 큰 뜻이고, 수학 등을 억지로 사용해도 훌륭한 비행기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왜 그렇게 몇천 시간이라는 시간에 걸쳐 수학을 공부해야하는 것인가 이해하기 어렵다. (중략)
수학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을 절차대로 생각하게된다는 얘기인데 찬성할 수 없다. 경험상으로 대학교수회의 때 수학과 교수의 의논이 가장 사리에 맞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만에 하나 수학을 하여 머리가 좋아진다면 미국의 대통령도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중략) 수학은 과학이 아니다. 기술도 아니다. 오히려 철학 분야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뛰어난 수학자의 업적을 보면 수학이라는 무기질보다도 예술적인 향기조차 풍기는 느낌이 든다. 산수,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절대 불가결하게 필요한 단계를 하나하나 올라가는 과정을 가르키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3+6$ 은 얼마인가하면 양손의 손가락을 이용해 9를 답한다. 그런데 다음으로 56이면 양손의 손가락으로는 부족해진다. 아이는 !?라고 하다가 발가락이 있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이 '오를 수 있다', '됐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면 기쁘고 자신감도 생긴다. 또한 자신감이 생기면 의욕이 생긴다. 즉, 어떤 단계라도 하면 된다. 오른다는 적극적인 성격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 수학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인용하다보니 수학공부의 의의까지 넣었는데 저는 저 생각에 동의합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수학공부를 많이 해야 들어갈 수 있는 학과에서는 정작 수학을 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왜 크게 반영하느냐. 그건 위에 인용한 대로입니다. 수학 자체가 좋은 머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 수학공부가 좋은 머리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계단식 상승의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면서 좋은 머리로 상승해 온 학생이 아니면 어려운 수학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수능에서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미친 듯이 암기시켜서 고득점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만큼은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머리로 성장해 온 학생'인지 확인할 수 있고, 아울러 입시의 공정성도 일정 부분 보장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학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어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머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3+6$ 을 손가락으로 세다가 $5+6$ 을 제시받은 아이는 발가락을 쓰겠죠. 그런데 그 다음 $30+14$ 라고 하면 엄마아빠형 누나친구의 손가락발가락을 다 동원하다가 그것들을 숫자로 추상화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식의 문제는 수학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어에도 영어에도 과학에도 있습니다. 다만 수학이 그 점에서는 더 적합하다... 정도이죠. 그런데 바로 이게 학습자의 머리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시에 최적화한다고 이런 '계단식 상승'을 제외하고 나올 것만 공부한다.... 당장 문제는 맞춥니다. 그러나 분명 벽에 부딪쳐서 못 뛰어넘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방법을 알지,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게 조금만 섞여도 거기서 생각을 하지 못 합니다. 수학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은 자기가 모르거나 난해한 문제도 스텝바이스텝으로 추리하면서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는 사고를 할 줄 압니다.

입시에 나오지 않는다고 어려운(?) 증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건 이걸 모르는 것이죠. 물론 과한 증명을 할 필요는 없다.. 가 아니라 사실 그걸 가르쳐 줄 선생도 없을 것입니다만 교과서에 나온 공식이나 성질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하는 증명을 해보는 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수능 수학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어디 정해지기라도 했답니까.

7.130 잔인한 4월

2016.04.01

11월부터 공부해 온 사람들은 이제 지쳐서 공부하기 싫은데도 관성 때문에 공부하고 있을 때임. 이런 분들은 최대한 버티다가 불꽃놀이 시즌 막판에 좀 쉬고, 수면시간을 평소보다 늘려주시고(6시간이면 7시간 잔다거나) 그래서 5월 초 까지 설령설령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래야합니다, 5월은 어차피 6평 때문에 긴장 바짝할 터인데 그 체력과 정신력 비축해야하는지라

보통은 수면시간을 줄이라하는데 왜 늘리냐 – 거기 답변은 간단합니다. 공부 외 활동에서 우리 정신 건강/육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수면 뿐입니다. 잠을 개운하게 잘 자고 나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려서 공부를 기분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수면시간을 줄여서 자기학대를 하는 건 명청한 짓이죠. 명한 상태에서 공부할 테니까. 물론 가을이 되면 수면시간을 저절로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봄날에 괜히 피로 쌓아두지마시라는 이야기.

그리고 공부를 2개월 이상 한 사람은 독학하는 사람은 학원 다니고 싶어할 테고, 학원 다니던 사람은 독학하고 싶어할 것인데 그게 정말 진지하게 공부방

법을 반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뇌에서 평계대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공부시간이나 학습량이 나오지 않았다면 진지하게 학원으로 갈아타야합니다. 다만 ”학습량”이 많이 나오는데도 그걸로 스트레스받아서 공부하기 싫다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라는 메시지가 주인을 기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131 개정수학이 개정 전 수학과 다른 것.

2016.04.02

궁극적으로는 경쟁을 더 가중시킬 듯.

개정 전 수학은 고 1 때부터 삼각함수와 순열, 조합을 박아넣어 그 때부터 다수의 수포자를 양산할 수 있던 데다가 행렬, 지수로그, 순열,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곳곳이 초심자에게는 대단히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현행 과정은 삼각함수와 지수로그함수를 미적분 2로 밀어넣어버렸고 초월함수나 로그함수 몰라도 일단 미적분1까지 끝낼 수 있게 해놓은 구조라서 수포자 양산이라는 비극을 초래하진 않을 듯. 다시 말해서 이전 과정은 원래 수학을 잘 할 수 있는데도 교과 과정에 치여서 중도포기하는 비극도 없지 않았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는 경쟁을 더 빡세게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시험 출제는 어차피 경쟁이 좌우하는 거라서 교과 과정이 쉬워지는 것과 별 상관없다는 것. 둘째로는 수포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고 평가원으로서는 불수능 출제를 해도 무리없다는 것.

교과과정이 쉬워졌으니까 만만할 것이다... 라고 하면 없는 코를 빌려와서 다치게 생겼다는 것.

특히 이번 과정이 인상깊은 게 '선행'이 무의미합니다. 공부하거나 연구해 보신 분은 알 것임. 수1, 수2를 제대로 하지 않고는 미적분 1을 못 하게 해놓았고, 미적분 1을 못 하면 미적분 2도 힘들고, 미적분 2를 못 하면 기벡도 못 하는 구조임. 선행한다고 진도 빨리 나아가보았자 별 실익이 없음. 고2 이거나 고2 올라갈 사랑이라면 학교 진도에 맞춰가면서 고난도 문제 푸는 게 바람직.

반면에 이전 과정은 선행을 하지 않으면 수포자되기 참 좋은 구조였죠. 교과과정 자체가 지나치게 눈높이가 높았음. 그래서 재능이 없어도 선행해서 감을 잡으면 이득을 보았고, 재능이 있어도 선행을 안 하면 교과과정에 치여 수포자 되기 좋았는데 그런 부조리(?)한 일이 현행 과정에서 벌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7.132 양민들을 위한 수학교재테크트리

2016.04.08

초심단계

1. 쎈수학 A형 + 수력충전이나 연개수문(선택사항)
2. 쎈수학 B형 下, 中
3. RPM (고난도 문제 제외)
4. 마플(마더텅 자이드 무방) 중난이도 문제
5. 쎈수학 B형 上
6. RPM 전부 다 풀 것 – **RPM 끝**

중간단계

7. 일품수학 개념만 정리
8. 풍산자 필수유형 고난도 빼고 풀 것
9. 마플(마더텅 자이) 최고난이도 문제 빼고 4점짜리 절반 풀기
10. 일품수학 1등급과 수능문제 절반 풀기
11. 풍산자 필수유형 고난도 문제 절반 풀기
12. EBS 올림포스 고난이도 빼고 다 풀 것.
13. 일품수학 1등급과 수능문제 다 풀기 – **일품 완료**
14. 풍산자 필수유형 고난도 문제 다 풀 것 – **풍필유 완료**
15. EBS 올림포스 다 풀 것 – **올림포스 완료**

고수단계

16. 수학의 바이블 고난이도 문제 빼고 정리 – 단, 이미 아는 문제는 스kip하고 읽어도 됨
17. 실력 정석 : 예제와 유제는 그냥 읽고 기본 연습문제 다 풀 것
18. 블랙라벨 스텝 1 풀기
19. 마플 최고난도 문제 풀기 – **마플 완료**
20. **수학의 바이블** 고난이도 문제 다 풀 것 – **수학의 바이블 완료**
21. 실력정석 실력문제 : 절반 정도 시도해볼 것. 단, 모르는 경우 별표치고 답지보고 정리
22. 블랙라벨 스텝 2 절반 풀기
23. 그동안 소박맞은 쎈수학 C 스텝 절반 풀기

24. 실력정석 실력문제 : 나머지 절반도 시도, 역시 모르는 문제는 별표치고
답지보고 정리 - **실력정석 형식적 완료**

25. 블랙라벨 스텝 2 나머지 절반 풀이

26. 쎈수학 C 스텝 나머지 절반 풀기 - **셈수학 완료**

27. 블랙라벨 다 풀기 - **블랙라벨 완료**

고수단계까지 완료 후, 자기가 틀리거나 별표친 문제는 다시 풀이 읽고
정리해 볼 것. 위와 같은 스텝은 1단원마다 해도 되고, 혹은 3~4단원별로
해도 됨. 가령 미분을 다룬다면 미분계수만 저렇게 돌려도 되고, 아니면
미분 전체로 다 돌려도 좋음.

그 이후

중간고수 점검단계

28. 교과서 구해서 풀어볼 것(선택적 : 안 해도 무방)

29. 기본 개념과 원리 증명해볼 것 :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지수의 확장 밑의
축소, 이항분포 공식 증명 등

30. 일등급 수학 그냥 꽉 풀기 : 일등급 수학이 가장 어려워서가 아니라, 난이
도 배분을 잘못해놓은 게 있어서 이 때 푸는 게 강 유리함.

최강고수 단계

- 이스터에그 : 콕콕의 모쏠 아무개를 납치해 자료 내놓으라고 한 뒤 그걸
풀 것

31. 고1 수학이 제대로 안 된 경우 위와 같은 과정으로 고1 수학 정리할 것 :
단, 4월부터는 권하고 싶지는 않음.

32. 수리논술기출 구해서 풀어볼 것 ; 정답에 집착하지 말고 일단 푸는 훈련을 하는 게 좋음.
33. 과거 본고사 문제 구해서 풀어볼 것 ; 구하기 어려우면 천일수학을 구매한 뒤 도전.

그런데 다수가 고수단계까지도 가지도 않고 그나 실모 봐야하느니 강의 들어야 하느니 그리고 있다는 게 함정. 어떻게 공부해야하지 말고 저기 적힌 단계별로 고수단계까지 다 완료해놓고 오셈. 고수단계까지 완료하고 나면 질문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받는 입장이 된다는 게 함정

저 단계로 해도 약 30회독임. 아무리 바보여도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음. 초 고수 단계까지 간 다음에야 경문사 책에 각종 서적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사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임. 이 단계까지 가면 패턴화고 뭐고 필요없음, 본인이 패턴을 만들고 있을 것임.

그리고 저런 접근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스케줄 짜서 공부하는 건 ’상식’이었는데, 요새 친구들은 그게 상식이 아니라 는 걸 뒤늦게 알고 놀랐음(...) 그게 인강의 폐해에다가 야매교재 문제가 아닌가 싶음.

스킬? 심화개념? 저것까지 하다보면 본인이 알아서 깨닫고 기억합니다. 저게 너무 많다고 해도 10회독 단계는 되도록 줄이실 것. 뭘 놓고 빼야할지 그딴 질문하는 인간은 걍 떨어지라고 저주할 것임. 그런 건 알아서들 하시길. 다만 올해 치는 사람들은 30회독은 무리일수 있으니 좀 빼야할 것임.

저렇게 공부하고 나면 이 판에서 사기치는 인간들 때문에 짜증날 것이고,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느냐에 지나간 세월이 한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 그럼 실력정석의 실질적 완료는?

그거야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실력정석이 좋은 점은 문제를 잘 선별해놓았단 겁니다 – 물론 고수들을 위해서. 실력정석은 실력이 안 되는 친구가 처음에 보면 기 빨아먹혀 망합니다. 그래서 10회독을 초과하지 않은 단계가 아니면 안 보는 게 낫죠. 그러나 해당 단원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서 귀신에게도 그 내용을 설명할 정도가 되면 매우 좋은 책이 됩니다. 나중에 되면 앞에서 공부한 내용 대부분이 실력 정석으로 압축정리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그걸 실질적 완료라고 평하겠음.

저 정도 공부하면 당연히 점수가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할 것입니다. 예, 맞아요. 다들 저 정도는 공부해야합니다. 당연히 저런 학생들을 시험쳐서 뽑는 학교가 실적이 좋겠고 저런 학생들을 이용해서 자기 교재가 실적이 좋다고 하는 야매들도 많은 겁니다.

저 과정의 의의는 일반 양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겁니다. 저거도 힘들면? 그럼 초심 단계의 문제집들을 늘려서 회독수를 늘리거나, 저 단계에서 인강을 선별적으로 들어주면 됩니당.

7.133 올해 시험치는 분들을 위한 테크트리

2016.04.08

과정은 아래 준해서 하되 정말 양 줄여주면

1. 마플(마더텅, 자이도 괜찮음) – 필수
2. 쎈 – 필수
3. 급품벨 – 하나만 보면 좋음(권하자면 일품)
4. EBS 수능특강 – LV 2, 3만 발췌해서 풀 것
5. EBS 수능완성 – 기출 빼고 풀 것

6. EBS N제 – 작년에 준해서 보자면 가성비 좋을 것이므로
7. EBS 올림포스
8. 실력정석 – 연습문제만 발췌독할 것, 실력정석이 싫으면 숨마쿰을 보아도 좋음.

이렇게만 하시길. 양민들을 위한 글은 고2나 내년 시험 노리는 사람 용이고 위 1~8은 올해 시험치는 사람들의 최저가이드라인임.

저렇게 다해주고 사설강의에서 '기하와 벡터'와 '확률과 통계' 최상위 문풀 강의만 하나 들어서 테크닉만 얻으면 될 것임.

7.134 콕콕에 자주 들어와서 공부를 못 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을 위한 과제

2016.04.08

그 분들은 행동양식을 바꿔야 하겠음. 일단 인터넷 접속이 너무 쉽다는 게 문제이온데 매일 공부한 교재 페이지의 사진을 3장 찍어서 일지에 올리는 것으로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하루라도 빠진다면 그건 공부 안 했다고 본인들이 실토했는 것이니 개망신이고 저 사진을 올렸다는 건 공부했단 증거니 인터넷 접속을 해도 되겠죠. 일지도 총회 이상은 '주간 일지' 작성으로 최적화하고 매일매일은 그냥 기록하는 것보단 맷폰으로 공부한 걸 찍어서 '갤러리' 게시판처럼 올리는 게 더 좋아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터넷 접속을 자주해서 공부 안 하는 양 해서 수능 끝나면 돌아온다..... 이거 절대 안 지킵니다. 농땡이 보존의 법칙은 어김없음, 콕 안 들어오면 그 시간에 땀 데 가서 노닥거리고 있을 게 뻔 하죠.

7.135 변명

2016.04.16

”처지가 불우해서 공부를 못 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디든 여러분들의 변명을 안 듣습니다. 돈 처벌라서 높인 실력일지라도 점수만 잘 나오면 우대해주는 것이고 리어카 끌고 가족 부양해서 공부하지 못 해서 점수 안 나오면 강 씹어버립니다 그게 사회입니다... 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거꾸로 입장 바꿔서 님들이 물건을 살 때 악독한 놈이 만들지라도 그 품질 보지, 그럼 착하고 불우한 사람이 만들었는 데 영락없는 불량이다라고 하면 사주겠습니까.

가끔 상담할 때 ”저는 노력했는데 왜 안 됩니까.”란 질문 많이 받죠.

그냥 말하께요. 본인은 노력하는 수준을 너무 낮게 보아서 그런 겁니다. 공부 잘 하는 애들이 가령 1만시간까지 채워야한다고 본다면, 공부 못 하는 친구들은 300시간을 해놓고 그것도 많이 했다 생각합니다. 다소 과하다 생각하지만 객관적 기준을 대자면, 한 과목당 3000시간을 누적해서 투자해보았냐 그걸 재어보면 됩니다.

저럴 각오 없는데 자존심 챙긴다면, 그냥 힘든 길 가실 필요 없습니다. 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각오도 안 되어있으며 병아리 오줌만큼 노력하고 죽겠다고 하려는데 최상위권 수준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적으로 얘기해보았자 소용없어요. 죄다 자기중심적으로 가기 때문에. 좋게 달래면서 ”그러니가 지금 출라 하세요, 버티기라도 해야합니다”라고 해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붕괴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험결과 뜨면 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그걸 인정 못 해서 타인 원망이나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객관화해서 고치는 거야 물론 타인 입장에서는 쉽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성공하는 사람들도 소수인 겁니다. 누구나 쉽게 극복하면 개나소나 다 성공했겠죠. 망하기 좋은 패턴 중 하나입니다. 이걸 알면 당사자가 알아서 뜯어고치는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지적하면 자기를 비난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걸 저도 아는데 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해온 노력이 성과를 못 맺은 건 그 성격 때문이니까요.

공부괴물들이 공부가 지겹다고 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얘들은 그냥 정말 지겨워서 지겹다고 하죠 -- 이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 던져주면 눈을 빛내면서 결국 풀어댑니다. 양민들이 일주일에 할 것을 하루만에 끝내버리고, 심지어 풀이과정 50줄 쓸 것을 5줄에 쓰는 얘들이 과연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얘들은 머리가 좋은 것보다는 틀이 정말 잘 잡혀있습니다. 자존심은 생각치 않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필사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여기 쓰는 칼럼의 내용을 자기가 생각한 양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즉, 이미 자기철학으로 흡수해서 좋은 건 다 한다 그것이죠)

양민들은 물론 양민의 방식으로 소박하게 가야합니다만, 자기들이 이루는 목표를 성취하려면 괴물들과 싸워야합니다. 자기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공부를 못 했다... 라는 변명이 괴수와의 경쟁에서 하나라도 참작될 수야 없죠. 이런 걸 모르면서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입시'든 어떤 '경쟁'이든 다시 생각해보셔야합니다. 경쟁을 할 때에는 반드시 비정상적인 "괴물"을 상정해놓아야합니다. 어느 분아든 그런 괴물은 최소한 한명은 있습니다. 자기가 평범하게 시작해서 그 괴물을 사냥하려면 어느 정도로 렙을 올려야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스트레스 받아야하나 정도는 감잡아야겠죠. 그래야 실제로 그 괴물들과의 경쟁 모드까지 가더라도 불연속을 겪지 않고 승리해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본인이 그런 괴물이 되는 것인데 괴물의 요건 중 하나는 **변태**입니다. 공부하는 고통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양민들은 공부 스트레스에서 고통을 느끼고 신음해서 그만둔다면, 괴수들은 공부하는 스트레스와 증압감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사기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다보면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교재 차이가 필요없다는 게 사실 이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교재를 보느냐가 아니라 저런 **괴물**이 되어가는 것이라서리 이야기해보면 괴물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게 터가 납니다요. 그런데 양민들은 괴물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그게 당연해보이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일지도 모르죠. 어린 시절부터 괴수들을 겪다보면 그 괴수들의 눈높이가 정상이 되므로 본인도 그런 괴수가 되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할테니까요.

7.136 다시 적는 인강에 대한 비판적 접근

2016.04.16

처음에 개념서를 본인이 읽고, 그 다음 기초문제집들을 최소 2권 이상은 돌리고, 오답정리하고 기출 풀어보고 깨져본 다음에 인강을 발췌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오답정리를 해보고 깨져본 다음에 듣는 인강의 흡수율이 좋지 이런 것 안 하고 인강만 계속 돌리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납니다**. 인강을 듣고 있을 때야 강사가 신기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문제도 예술적으로 푸니까 공부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을 키우려면 본인들이 직접 문제를 읽고, 그것들을 종이에 써보면서 정리해야합니다.

인강을 들을 때 공부가 된다고 하는 건 일종의 '마취 효과'와 비슷합니다. 들을 때야 고통도 안 느껴지고 흡수가 좋다고 생각해서 공부가 된다고 하나 문제는 그런 건 정착되기 어렵단 겁니다. 기분좋게 들은 건 뇌에서 기억을 잘 하려하지 않습니다. 남는 건 강사의 잡답이나 농담, 그리고 몇가지 신기한 스킬 정도일 것입니다. 투자한 시간에 비하면 효율이 정말로 낮아요.

강의가 좋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정작 그 사람들의 실적이 좋은 경우는 별로 못 보았습니다. 정반대로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수험기를 보면, 인강을 안 들어도 성공했겠구나 느껴질 정도로 스스로 문제풀이를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인강만 줄창 듣고 문제풀이를 안 한 케이스가 성공한 경우? 제가 아는 한 단 한건도 없습니다.

공부는 뇌를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뇌는 생존, 공포, 섹스, 고통 등에 관한 것은 정말 1번만 해도 잘 기억합니다. 그게 우리 유전자의 명령이니까요. 인강을 편히 듣는다는 건 그 정보가 뇌가 선호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기가 막혀도 그게 실력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정반대로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이나 특정 지식이 자신의 절박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그건 악몽처럼 끝까지 기억하게 됩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인강을 들은 건 정착이 안 되지만, 자기가 남에게 가르치는 건 정착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외형상 보기에는 입력과 출력의 차이인데, 실제로는 출력을 해보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건 가르치는 과정 자체가 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유전자의 명령으로 가본다면 가르친다는 건 남보다 우월한 지위에 서있는 것인니 뇌는 이걸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7.137 수학 사교육이 학생 발목을 잡는 경우

2016.04.18

A란 문제를 풀 때에는 반드시 B를 써야한다.

해당 문제 패턴에 쓰이는 스킬과 공식을 암기해라.

가장 답없는 게 저 케이스다. 왜냐면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고 각종 스킬을 있으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것이 자기 발목을 잡는 것임을 모른다. 수학 문제는 두가지다. 과거의 문제, 그리고 현재(지금 치는 시험)의 문제.

학교 내신이나 교육청 모의는 과거의 문제 비중이 높다. 그래서 저런 정석, 스킬 중심의 접근을 하면 점수가 오른다. 그러나 과거의 문제 연연하지 않는 새로운 문제야말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학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그냥 접근방법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특정 문제에는 특정 스킬을 무조건 써야한다고만 배우지, 그걸 **왜 써야하는지를 배우지 않는다. 아니 가르칠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게 궁금해 여러 인강을 듣고 책을 찾아보았지만 해답은 지금 지진으로 고생하는 그 나라 책에 있었다.

이런 스킬암기에 주력하게 되면 본인이 문제해결능력을 상실해버린다. 아무 것도 모르고 도구도 최소화되어야 본인이 문제를 분할하고 조건을 분석하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한다. 하지만 학원이나 교재에서 가르쳐준대로 ~ 만 쓰면 된다고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해버린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암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학공부의 목표는 문제를 암기가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머리를 만드는 것이다.

노력을 하는데 자꾸만 모르겠다. 라고 하는 케이스는 가만보니 저런 식의 암기형으로 머리가 맛이 간 케이스다. 이런 애들은 생각훈련,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강의 같은 것으로 치유하는 게 좋겠으나 유감스럽지만 그런 책도 강의도 찾기 어렵다. 게다가 그런 암기형 패턴을 폐기하지 못 한다. 교과서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 건 교과서가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스킬이 덜 실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웃고 넘길 얘기만은 아니다.

7.138 국어나 영어의 스킬적 접근이 문제인 경우

2016.04.19

고교수학의 문제풀이적 접근은 폴리야로 집대성된다.

링크

우정호 교수님이 번역한 폴리야의 책을 읽으면 어떻게 수학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고전적으로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는 문제풀이의 접근이 이미 일반론적으로 정리되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 문제풀이 접근법은 일본인들의 책을 구해다 읽으면 된다(번역된 것들이 있다)

주의해야 할 사실은 문제풀이 접근법은 문제풀이 스킬과는 다르단 것이다. 과장해 말하면 접근법과 스킬은 상극이다. 스킬 위주의 공부는 무조건 스킬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진다. 그래서 스킬이 안 먹히는 문제풀이가 나오면 멘붕해 버린다. 문제풀이 접근법은 초딩산수를 쓰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해해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국어와 영어에 대해서는 스킬이 중요하다는 것이 작년까지의 생각이었는데 이걸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0년대 후반까지는 국어나 영어의 독해나 문풀 스킬이라는 게 꽤 유용했다. 그런데 지금 수험생들이 그 스킬을 모르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사실 이것도 '과다'하다. 그럼 이건 스킬이 문제가 아니라 는 이야기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매년 줄어드는 게 있다. 그건 바로 '독서량'이다. 인터넷 속에서 살다보니 책을 읽지 않는다. 책을 읽지 않으니 다양한 텍스트를 접하지 못 한다. 알고 있는 텍스트가 없으니 창의력의 재료가 부족해지고 분석의 연습대상조차 없다. 이 상태에서 스킬을 알아 보았자 소용이 없다. 왜냐면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면 스킬을 쓰기 전에 뭔 소리인지 몰라서 포기해버린다.

스킬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 세대가 독서량이 많았다는 걸 간과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르치는 데 있어서 텍스트들을 하나하나 떠먹여주고 소화시켜주는 것은 상당히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독서량이 없어도 스킬만 가지고 풀 수 있다라고 하면 몸값이 비싸질 수 밖에 없다(어차피 입시결과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텍스트 소화량의 결핍"이 관건인데 문제는 이걸 현재 수험생들은 인식하지 못 한다. 애꾸눈의 나라에서는 애꾸눈이 정상이다. 절대적 독서량이 부족해

도 다 똑같으니 그게 정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체제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온 애들이나, 하다 못해 기출지문 양치기를 한 애들이 점수가 나온다. 그러나 이런 애들은 소수이다. 무엇보다 지금 많은 독서를 해야한다니... 에서 다른 좋은 스킬이 없을까 고민하게 된다.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말 매주 책 한권씩은 읽는다는 강행군을 해야할지도 모른다. 수험 방향은 자기가 속한 경쟁집단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현재 수험생들은 정말 책을 **지지리도 읽지 않는다**.

과장이 아니고 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 고 쳐도 그다지 존중하지는 않는다. 책을 읽지 않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글도 마찬가지)만 보거나 사이트 게시판 가서 거기 글 보고 휘둘리는 게 병신이지 어디 사람새기인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수의 쥐떼근성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추합한 정보나 느낀 바를 독서로 다져진 지성으로 스스로 가공해 누가 까다로운 질문을 해도 분명히 대답할 건 대답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인간이지, 그렇지 못하면 노예새기나 진배 없다.

좀 괜찮다 하는 사람들과 대화해보면서 질문해보면 오 이 사람은 책을 읽어 왔군... 하면서 어떤 책을 읽었느냐 파악한다. 만약 그 책이 뻔하디뻔한 탑셀러라면 안심해도 좋다. 그런데 뭔가 말하는 내용이 예외적인 데다가 읽는 책도 대중적이지 않으면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봐야한다. 책을 읽는 사람은 알 것이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책을 읽을 때이고, 그 때 우리의 눈길도 그 사람보다 그 책을 향한다는 걸.

더 오버해서 쓰면 요즘 세대들이 헬조선하는 것도 웃긴 이야기가 그들이 까는 기성세대만큼 고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지만(586 제외) 무엇보다도 책을 안 읽기 때문이다. 만약 이 세대가 일주일에 책을 3권씩 읽고 부지런히 학습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굽신거렸을 것이다. 그러나 맛풀질은 하면서 책을 안 읽으므로 '까도' 별로 후환은 없어보인다.

7.139 어른들이 공부만 하라는 거

2016.05.03

적어도 어른들 얘기 중에서 단 하나만 건지면 ”쓸데없는 짓 말고 공부나 하라” 내 입장에서 나도 꼰대들의 메시지 중 참말과 거짓말은 구분하는데 저 말은 정말 진짜다. 무능한 젊은이가 정의감에 차서 움직인다고 쳐도 현실적으로는 별 쓸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런 정의감조차도 실제로는 오랜 사색에서 나온 진정한 철학이라기보단, 선동당하거나 혹은 성욕을 감춘 결정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서이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노골적으로 말하지만 **자신을 비싸게 팔기 위해** 서이다. 이제는 대학을 졸업해 취업이라도 하면 정말 다행이라고 한다. 물론 앞으로는 취업의 개념조차 사라질 것이다. 이제는 일자리의 시대가 아니다 일거리의 시대다. 일거리를 스스로 찾아서 물고 와야하는 시대인 것이다. 일거리들을 물고오려면 본인이 비싼 몸이어야 한다.

그러면 사회 부조리가 벌어져도 침묵하고 공부만 하란 말입니까... 유감스러운데 이게 진리다. 본인이 능력이 없는 한 나서보았자 고기방패 빼고 뭔 가치가 있나. 일개 잡몹은 사회에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네임드 허어로여야 그나마 신경써주는 척이라도 하지.

그러나 적어도 내가 관찰한 바로는 다들 사회 부조리에 항거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호구가 되는 루트를 밟는 쪽이 많다. 특히 20대의 젊음이라는 건 그런 능력의 감가상각을 분식처리하는 점이 있다. 자기가 건강하고 젊음이 넘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양 생각한다.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곧 꺼질 텐데, 심지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선 5년도 못 넘길 수도 있다. 역산법적 사고 – 자기가 서른살, 마흔살 ... 그리고 뛰지기 직전이라면 어떤 루트를 밟았을까 하고 가정해 보는 방법으로 가면 답은 보인다. 나이먹을 수록 늘어나는 건 주름살과 후회일뿐이다라는 말도 진짜다(반대로 머리털은 줄어든다)

자기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벼려야하고 공부도 사실 별 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자본은 결국 능력으로 환원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외모는 학벌과 성적표이다.
- 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육체는 실무적인 능력이다.
- 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교양과 전문성이다.

가장 큰 착각은 공부하지 않아도 나답게 살 수 있다.... 공부 없이도 내가 존재한다... 라는 것.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야말로 망상이다. 공부 없이는 우리는 텔없는 원숭이에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배우지 않는다면 소말과 다를 바 없는 가축이나 노숙자나 거지 창녀들과 별 차이도 없다. 그 자아라고 하는 것 조차도 텃줄 떼고 교육을 받기 전에 부모 등이 주입한 패턴이다. 참자아라는 건 본인이 경험하고 배우면서 학습한 그 자체이다.

7.140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다.

2016.05.03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건 일단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왜 하면 안 되는 건가 스스로 생각하고 관찰하고 결론 내리고 생각하면 된다. 가장 간단한 건 자기의 아들 딸이 있어도 그걸 하게 허용할 것인가 자문자답하면 된다. 예컨대 포르노를 보고 히히덕거리는 사람이 그럼 내 딸이 야동을 찍는 것도 허락할 것인가... 생각하면 그냥 답이 나온다. 혹자는 이걸 가지고 가족을 언급하는 건 비겁하다고 항변하지만, 바꿔 말해서 자기 가족도 시키지 못 할 것이면 그게 문제가 아닌가 얘기하면 된다.

문제는 하지 말아야하는 건 일단 저질러 버린 다음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이다. 자기 개인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것

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멋대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식이라면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아마 지금 20대들은 '우리는 ~ 할 수 있다'라고 주입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인간답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틀린 얘기다. 왜 예수, 부처, 공자가 지금도 3대 성인인가. 사실 이들이 인간이었다면 지적 수준은 딱 지금의 고딩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종교적인 면을 떠나서 이 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우리가 '인간'답다고 하는 것들이 다 이 분들의 가르침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 이후의 인간적으로 산다는 건 이 분들 말씀에 주석을 다는 수준이라고 해도 지나친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가르침은 결국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게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얼핏 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지키니까 인간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해온 것이다. 저 분들이 위대한 건 "**하지 말라**"는 걸 가르쳤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신(神) 대접을 받아도 좋다. 왜냐면 우리가 아는 역사가 제대로 쓰여진 건 그 가르침이 전파된 이후여서이다.

혹은 이렇게 반론할 것이다. 인류사는 자유를 쟁취함으로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냐고. 그런데 그 원없는 자유는 문명 이전 야만 이전이 더 압도적이지 않았느냐. 그럼 그 시대가 이상향이냐. "**하지 말아야하는 것**"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늘려왔으니까 자유로워진 것이다. 자유는 '**하지 말라**' 위에서나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장사하려면 저런 하지 말아야하는 걸 깨뜨려야 한다. 그리하여 똑똑한 어른들은 남의 자식에게 "한계는 없어, 너희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은 뭐든지 파고 살 수 있어"라고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성도 상품화하고 노동력도 저렴하게 구입한다. 한편으로 그들을 협박해 온갖 상품을 팔아댄다.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모르는 청소년들과 20대들이 환상 속의 기득권 탓을 한다라고 보이는 건 전혀 지나친 얘기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취급하겠나.

가난만으로 모든 것이 보호받고 정당화되지 않는다. 가난하다는 사람들이 신나게 술을 마시고 돈을 마음대로 쓰는데 부자탓을 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 가난하다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즐기고 자기 학습을 게을리 하며 저축을 하지 않으면서 국가 탓을 하는 건 웃긴 것이다. 물론 이 글을 보고 자기는 빡세게 일하고 즐기지도 못 한다고 울분을 터뜨릴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머지않아 곧 탈출한다. 그리고 자기를 이미 그 방종의 무리들과 차별화시킨다. 오히려 내가 보는 그들은 자기가 정말 가난하고 고통을 받고 힘들다라고 착각 하지만 실제로는 즐길 건 다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7.141 왜 실패하는가

2016.05.06

사람들은 말이지, 눈 앞의 푼돈 얼마를 위해서라면 웬만한 일은 다 견딜 수가 있다네. 부자들은 그 특성을 이용해, 평생을 시중받으며 안락하게 살지... 왕은 혼자서 왕이 되는 게 아니야. 왕이 혼자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돈 따위는 필요없다는 천한 것들이 결속해서 반항을 하면 왕도 결국 사라지는 법일세. 하지만 가난한 자들이 왕이 되고자 돈을 바라면, 역으로 지금 있는 왕의 존재를 보다 견고하게 반석 위에 올려주지. 모두 그런 메마른 패러독스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돈을 바라는 이상, 왕을 쓰러뜨릴 수 없네.** 계속 매일 수 밖에 없지. 왕도 폭동을 막기 위해, 다들 고만고만 윤택한 기분으로 있을 수 있도록 주의하고 있다네. 실제로는 얼마나 뜯어먹히고 있거나 말거나 말일세.

- 도박묵시록 카이지의 진주인공 효우도 카즈타카 회장님의 말씀 -

관찰과 경험이 쌓이다보면 왜 망할 수 밖에 없나 하는 패턴들이 발견되는데 그 중 하나가 **우유부단**.

왜 우유부단이 문제냐면 이건 당사자가 스텀먹은 상황과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A할까 B할까 하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사실 아무 것도 선택 하지

못 하고 준비조차 하지 못 하고 그래서 기회를 날려먹죠. 속으로는 둘 다 가질 수 있을 거야라는 헛된 망상을 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둘 다 얻지 못 하지요. 아니, 결국 전부 잃어버립니다.

”아냐, 운이 좋아서 둘 다 얻을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물론 그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학과 공부도 하면서 수능까지 대비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때 당사자가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존재한다고 한들 자기가 그걸 모르고 써먹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손실을 인정할 때는 빨리 인정하고 정리해야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새로운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존심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자기가 낭비한다고 생각해서인지 그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기적으로 보자면 ‘왕’과 ‘노예’가 갈라지는 분기점이겠죠.

자기가 애당초 의도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황금빛이 나더라도 과감히 무시해버려야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보러가는데 길가에 1억 지폐 뭉치가 떨어져있더라... 하더라도 이걸 무시하고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1억을 주으면 시험보는 것보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로써 시험도 포기해야하고 앞으로의 선택이 문제가 됩니다. 자기의 목적을 망각하고 눈 앞의 이익만 좇는 거야말로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손자병법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죠. 적에게 작은 이익을 줘서 유인하라. 그 말은 다시 말해 훈돈에 낚이는 사람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실행하는 건 전쟁과 같죠. 30:20로 싸우면 우리가 10이 남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9:4 비율 차이가 나서 우리가 20이 남는다고 하죠. RTS 전략시뮬게임을 할 때에도 확인되지만 이기는 확실한 방법은 적보다 압도적으

로 많은 병력으로 적시에 적을 치는 것입니다. 병력을 쪼개는 건 원칙적으로 미친 짓이지요.

마찬가지로 자기 일을 할 때에 안 그래도 시간과 체력이 제한되었는데 더 많은 걸 한다는 건 없는 병력을 더 쪼개는 것과 똑같은 짓이죠. 물론 계획을 세울 때는 자기가 그만큼 할 수 있다고 터무니없이 자신합니다만 그래서 성공한 사례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한번에 여러가지 일을 해내는 사람은 이미 능력자이거나 아니면 타인의 도움과 협동 하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좋지 않은 대학에 다니는데 수능치고 싶다... 그러면 정답은 간단합니다. 수능에 올인하는 것이죠. 다만 부모님 눈치가 있다라고 하면 학교 다니는 척 하면서 수능에 올인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왕 다니는 것 학교 졸업장도 따야지'라고 마음먹는 순간 패배는 확정되는 겁니다. 자기의 병력들이 수능이라는 거대한 군대와 싸우고 있는데 그 병력 중 일부를 뺀다.... 전쟁으로 치면 미친 짓이죠 사실

7.142 인터넷의 수험정보

2016.05.07

사실 불필요한 게 다수. 아무개 선생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공해죠. 쓸데없는 정보가 많으면 거기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피해 본 수험생들이 꽤 많아요. 어떤 인강을 들어야 한다거나 또 어떤 교재를 풀어야 한다거나 하는 식의 정보를 가장한 광고글에 낚인 경우가 많죠.

그럴 바에는 나 자신의 "성격", "사고 스타일", "오답 유형", "취약 문제" 등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니 사실 수험판에서 굴러먹는 친구들을 보면 학원 홍보자 해도 될 정도로 참 이상한 분야까지 다들 알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의 문제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는 자기가 필

요한 것만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오프라인에서 탐문하고 곁눈질하고 캐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죠.

쓸데없는 정보가 많으면 프로세스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프로세스가 복잡해지면 오류도 늘어나고 나중에 통제도 못 하지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구조조정과 혁신의 논리는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핵심적인 것만 살리는” 것입니다. 핵심 프로세스만 잘 조합하고 싶으면 필요한 핵심 정보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정보는 상식과 통념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어야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건 ’변화’를 알기 위해서이죠. 상식과 통념에 순응하는 정보는 변화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 건 버려도 됩니다.

가령 지구과학을 선택해야 한다... 라는 건 작년까지는 매우 괜찮은 정보였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정보입니다만요. 지금 눈여겨보아야하는 건 지구과학 선택자가 많아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만 믿다가 우리가 어떤 통수를 먹을까 하는 것입니다. 개정수학이 그 이전 수학보다 내용이 빠졌다라는 것 역시 과거의 정보입니다. 반면 개정수학 과정에서는 수포자가 나오기 힘들어서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게 핵심정보겠죠. 하지만 이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현실은 늘 바뀌죠..

그러니 수험생은 그냥 ’하라는 공부만 하는 게’ 정답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기보다는 정보에 휘둘려서 공부 방향을 못 잡아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시험문제도 대부분 당사자의 교재나 학습커리로 커버되는 것이 다수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그걸 숙달하지 못 했다는 것이지만요.

7.143 수학은 결코 쉬워진 게 아님.

2016.05.10

양극화 사회에서는 평균적인 접근이 무의미함. A는 1억을 벌고 B는 한푼도

못 빤다고 하면 평균소득이 5천만원이 되는데 이게 정확한 자료라고 하지는 않음. 수학난이도가 쉬워졌다... 라는 건 걸러들을 필요가 있음. 그건 해당 응시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느냐하는 것까지 감안해야함.

20년 전에 저렇게 공부했으면 정말 신문기사에 나고 아주 천재라고 그랬을지도 모름. 그런데 이제는 중학교 때 정석을 다 마치고 간다라는 건 그렇게 놀라울 것도 아님. 선행학습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님, '할 놈은 거의 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유의할 건 상위권을 세분화시키면 그 내부에서도 격차는 매우 크다는 것이고 이건 IMF 이후에 태어난 세대부터 뭔가 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바가 없지 않음.

과거 사람들보고 요즘 수학과 과학을 풀라고 해도 자신있게 풀 수 있을지는 의문임. 게다가 난이도보다도 더 힘들어진 건, 응시생들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그렇다면 이미 수능 성적은 중학교 때부터 결정된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것. 왜냐면 그 때 다 끝내고 온 녀석들은 계속 공부할 테고 그럼 경험치나 레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격차가 벌어짐. 선행 안 한 친구들이 제 아무리 인강 듣고 실모 풀면서 간다고 해도 따라잡기 어려워지고 이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머리" 이야기만할 것임.

물론 대치동에 가지 않더라도 방법은 있음. 학부모나 학생 본인이 중학교 때 저렇게 공부하면 되는 것이긴 함. 그러나 다수가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함. 그냥 학교가 시키는대로 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임.

수1, 수2를 중학교 입학 전에 끝낸다는 건 남들보다 3~4년 앞선다는 이야기 그건 4~5수 할 것을 미리 앞당겨 현역으로 끝내는 것과 똑같음. 즉, 이건 머리문제가 아니라는 것임. 누가 더 빨리, 많이 공부하느냐가 결국 좌우한다는 이야기임.

7.144 수학강의에 휘둘리는 사람들

2016.05.16

연구차 인강 많이 들어보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었다 느낀 건 EBS 강의였음(...) 왜냐면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었고 그건 정말 나도 잘 써 먹고 있음.

그리고 인터넷에서 강의 세세히 말하는 글은 걸러들어야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글 쓰겠나 그렇게 강의 소믈리에가 가능한 실력자면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하고 있어야지. 하지만 어떤가, 일지분석을 하건 콕콕 합격자 분석을 하건 '지독하게 공부한 사람'이 잘 나가지 강의도 사실 무차별한데

교재도 그냥 시중교재와 기출 신나게 풀고 교과서 연구하면 되는 것 아님? 지금 기출이라도 다 푼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작년 11월에 마플 잡고 그냥 달리라고 했는데 이거 다 푼 사람 있거나 하겠습니까만.

교과외적 내용 담은 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과외적 내용이라고 하면 그럴 바에는 대학수학까지 다 공부한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중요한 건 교과외적 내용이 아니라 낯선 문제도 논리적으로 풀이하거나 특이점적 발상을 떠올리는 '생각하는 법'을 만들고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일티인데 정말 수학을 잘 하는 친구들은 교과외적인 것도 양 신경도 안 써요. 수험에 필요한 것들은 어차피 저절로 유도되는 것들이고 교과외적 내용 암기해보았자 수능에서 교과서 내 내용으로도 참신하게 꼬아서 내면 그거 못 풁니다.

주어진 조건 도구가 20이라고 했을 때 100이라는 목적치를 달성하기 위한 80 – 이건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전략짜는 걸로 채워야죠. 어떤 수학문제건 교과서적 기본원리를 문제의 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thinking을 해야하죠. 그런데 어차피 수학문제도 db화 가능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그걸 thinking이 아니라 pattern memorizing으로 해결하는 꼼수로 갑니다. 이게 내신까지는 어느 정도 먹혀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잘 안 먹힙니다, 왜냐면 수능은

꼭 새로운 걸 내니까.

매년마다 휘둘리는 호구들은 늘 생깁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올해 고2들이 참 역대급 실력자가 많다는 증거만 속속 확보되어서 강 무섭다능. 아이엠에프 이후 세대들은 정말 계획적으로 임신, 출산, 교육해서 그런가. 부모의 지적 자산과 경험까지도 강 상속. 시대적 환경이 꽤 무섭다는 걸 느끼죠.

7.145 [임시 공지] 6평을 치르실 분들은

2016.05.18

한시적으로 챗에서 6평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지 작성하시는 분 분만 아니라 올해 6평 치르실 분들은 임시 공개챗방에서 전략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교육과정 첫 6평이기 때문에 진득히 연구할 필요는 있어보이네요.

7.146 수학교재 중간리뷰

2016.05.18

즉흥적으로 쓰는 거라서리

아무튼 지금 와서도 수학 답이 없다 하는 부류를 위한 간략

1. 수력충전 ★★★★☆ : 확실히 수포자 구제용 맞고 필요한 계산 드릴 다 들어감. 서울우유급

2. 올림포스 ★★★★★ : EBS가 내놓은 진정한 야심작. 수수해보이는데 문제 하나하나가 서민수학의 결작, 단원 김홍도 그림.
3. 마플 ★★★★☆ : 시중 야매교재 강의 다 필요없고 이걸로 일단 정리. 그리고 부족하면 마플 교과서 추가.

지금 와서 쎈 보겠다는 분 시간없을 수도 있으니 쎈은 보충용으로 돌리고 아울해 시험 포기해야하나 하는 분들은 위 3개만 돌리세요 그럼

7.147 6월 지나면 힘듭니다.

2016.05.20

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잔인하긴 한데 경험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시간낭비시키기 그래서 그런데 기온이나 계절상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1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6월부터는 정말 양을 절반으로 줄여야하고 체력관리가야하거든요

그런데 6평과 9평 쓰나미로 정신적 충격 먹고 거기다가 온갖 잡서들이 유혹해서 자기 공부 제대로 못 합니다. 기본기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잡서라도 소화시키지, 나머지들이야 휘둘리거든요. 이거 재밌는 게 당사자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반발합니다. 그런데 타자 입장 되어보면 바로 납득갈 겁니다.

6월 되어서 확신 안 선다 하는 분들은 깔끔하게 올해는 그냥 운빨 기대하면서 가고 내년 대비하는 게 낫습니다만... 경고드리면 올해 고2부터 이상하게 미친 듯이 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정교과 과정의 위력인지 학부모들 뺨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합니다. 6월 되어서 힘들다 하는 분은 그냥 수학과 국어나 죽어라 파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최상위권 실력이 아니면 언제 시험을 쳐도 답이 없으니까.

11월~5월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이 과연 6~10월에 공부를 제대로 할 건지는 개인적으로는 심히 의문입니다.

이 글이야 작년에도 했던 소리이고 사실 개인적으로 트루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쓰는 건 괴로운 일이나 왜 이런 경고 안 했냐라고 욕먹기 딱 좋을 것 같아 다시 적습니다(...) 기출 돌리면 되지 않느냐... N수생도 풀지 않은 기출을 고2들이 다 풀었단 사례를 심심치않게 접하고 있습니다요(물론 상위권이겠지만)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사실 콕콕에서만도 몇몇 학생들이 쎈수학도 안 풀었다는 걸 보면서 한숨을 쉰 적이 있습니다만 진짜 최상위권들은 그런 건 거의 다 진작에 끝내고 공부 안 한 척 합니다. 인터넷에는 거짓 정보가 꽤 많이 올라오죠. 5월까지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은 6월부터는 공부량 줄이고(더워지니까 당연합니다) 최대한 환경, 체력관리 신경쓰면서 모의고사를 포함한 문풀에서 오답정리, 분석, 그리고 불량 해결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요.

6월부터 여학생들을 꾹꾹 쓰러지고 남학생들은 9월 정도 되면 다수가 멘탈 붕괴되고 이과 하다가 올해는 안 되겠다 하면서 문과로 도망가는 일이야 한두건이 아니고 이제 애꿎은 교육청과 평가원 욕하고 무슨 모의가 좋다느니 아무개가 것이라느니 허무맹랑한 '루저들의 사교파티'가 벌어질 겁니다.

7.148 [수학교재] 풍산자 필수유형

2016.05.20

선지와 문항만 다듬으면 쎈과 맞먹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게 아까움 상 문제에 해당하는 건 신사고 라인이나 RPM과는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문제들이 있음.

풀어보면서 참 잘 만들었는데 이거 출판사 뒷마무리가 부족하다라고 아쉬

음.

올해 연구해보면서 꼽은 유망주.

1.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2. 풍산자 필수유형
3. 일품

개정수학. 내용이 쉬워진 거지 문제가 쉬워진 것이 아니죠. 내용이 어려우면 오히려 문제는 쉬워질 수 있습니다(쓸 수 있는 잡기들이 많아지니까) 하지만 내용이 쉬워지면 논리가 명쾌하니까 더 꼬아낼 수 있죠.

7.149 모 수학교육에 관한 책을 읽어보았는데

2016.05.23

어느 학원인지 어떤 책인지 짐작은 다 가실 테고

1. 기본교재는 정석과 블랙라벨 ; 쎈조차 부족하다
2. 과학고, 자사고의 수업과정에서 쓰는 고급수학 등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
3. 선행은 실속있게 해야한다
4. 과학고생들이 보는 필독서 시리즈 같은 것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공부방법 면에서는 개념 복기를 해야한다 빼고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주목 할 것은 1번과 2번, 그리고 4번 같다고 보는데.

콕콕만해도 라벨은 커녕 셈조차 풀지 않은 학생들도 널려있었고(그러면서 실모 얘기하는 것부터가 뭔가) 고급수학을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본 과정을 마친 분은 저걸 공부해둘 필요는 없지 않고(특히 수학적 모델링)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과고생이 보는 필독서 시리즈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일부 책들은 확실히 인강 그 이상인 게 있습니다.

7.150 더위 한방에 무너지는 공부

2016.05.23

그러니까 사실상 5월까지라니까요. 지금부터는 의도적으로 학습량 절반 줄이고 체력보전에 신경쓰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에어컨으로 벼릴 수 있다 해도 체력 떨어지는 건 못 막습니다. 이제부터 1순위는 무조건 **무더위 베티기**, 그리고 **6평을 치면서 '절망'을 일부러 맛보면서 인내하자입니다.** 6평 치고나서 그 결과 가지고 자살한다 뭐한다 그딴 드립치는 사람은 이미 그릇부터가 간장 종지만도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6평에서는 '절망감'의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고 치세요.

남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럼 어떡하느냐 그럴 건데 더위는 모두가 공평하게 겪습니다. 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들은 극소수고 다른 사람들도 무너지긴 마찬가지니까 '덜' 무너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괜히 만용부리다간 학습량이 저절로 줄어드니, 그냥 스스로 줄이시고 일부러 휴식시간 늘리세요 결과적으로 똑같지 않냐고 하지만 '컨트롤을 하느냐 못 하느냐' 차이는 상당히 큩니다. 학습량을 줄일 수 있어야 늘릴 수 있죠.

그리고 고2들은 사실상 겨울방학까지 다 끝내야한다는 걸 인지했을 겁니당.

제 8 장

상담

8.1 [상담 001] 모범적인 사례 + 추가답변

2015.10.16

특정성을 주지 않은 상태로 싣습니다. 면대면 대화는 긴장감이 없어서리. 다만 게시물인 이상 평가는 길게 해드릴 수 있음.

4월달에 말씀하신 국어 오천문제 영어 삼천문제 수학 삼만문제(문과라서 몇 대로 비례축소해서 만오천 문제 풀었습니다..)사탐 오천문제 (합쳐서 만문제) 다 풀었습니다만 그래도 미친듯한 자신감대신 '아..잘나올까..'라는 생각으로 두렵습니다. 이게 보통의 반응인가요.? 적은 만족할 만큼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수능 미만 잡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되게 옛날에 시중교재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셨습니다만 같은 내용들을 이름만 바꿔서 파는거 제외하니 저희 집 근처 xx문고 기준으로 국어는 시중교재 10권 남짓. 사탐도 10권 남짓 이던데 제가 잘못샌걸까요..? 그래도 xx문고면 초 대형 메이커 서점이고 정말로 사탐은 거기에 있는 모든 브랜드를 다 풀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보는 과목을 제외하면 10권이 전부인것 같습니다. ○ ○ 문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더 나오지는 않구요. (물론 문제집 형식만 풀었습니다.)

아, 제 키가 1xx인데 지금 제 인증.? 정도 문제가 쌓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무섭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집앞에 있는 대형서점에 있는 문제집들을 어제부로 전부다 풀었습니다. 사탐은 정말로 모든문제를 다풀었고, (16000 정도 됩니다.) 수학은 rpm과 정석만든 회사에서 만든 책 제외하고 다풀었습니다. (수특.수완.정석.메가엔제.일품.블랙라벨. 마플.풍산자. 수능다큐 천제 이정도면 문제수가 약 15000정도 나옵니다.) 국어도 그냥 많이 풀었고. 영어도 많이 풀었습니다. 이제 시중에서 파는 문제중에서는 안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모를 풀어볼 생각입니다만 시중에서 팔고있는 실모를 봐야할지,

아니면 사설 학원에서 낸 모의고사들 (범위는 전범위)인 놈들을 풀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차이가 있을까요..

일지쓰고 상원 들어온 분은 아닌데 나름 충고를 듣고 그대로 실천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면 올해 시험이 안 좋으면 운이 정말 나빠서이겠죠. 하지만 이 정도면 내년에 시험을 친다 하더라도 1년 양 늦게 간다 케이스가 되겠죠. 다만 오답정리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만회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그 뒤 더 이상 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분은 실모를 적극 권장했습니다(저 정도면 편더먼털은 튼튼할 테이니 말이죠) 다만 실모 점수는 신경쓰지 않는 게 좋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현재 나오는 실모들은 출제적중율이 보장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문제 풀어본다 그 정도이기 때문이죠.

이 정도 하면 노력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불안하면서도 나름 자부심이 있죠. 남들이 잘 안 하는 양치기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양치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양치기가 되어있는 사람은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전략적인 불안감을 느끼지 내 인생 망했다 그딴 드립은 안 칩니다요.

저기 해당하는 분은 여기 댓글 말고 쪽지로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만.

- 첫째, 실모 점수 신경쓰지 마시라는 것. 실모는 어떻게든 팔아먹기 위해서 당치도 않게 어렵게 내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은 원래 행운인 겁니다.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걸 왜 '틀렸는가'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 둘째, 더 이상 풀 문제도 없겠지만 풀었던 문제집에서 틀렸거나 별표친 걸 다시 풀어보고 해설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맞았던 문제조차 다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니... 라고 놀랄 경우가 많습니다. 실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이죠.
- 셋째, 사설인강이나 EBS 인강 중에서 '어려운 강사'의 짧은 커리큘럼 하나를 소화시켜보시길 바랍니다. 들을 때 1.4 1.5배속으로 '문풀' 위주로 빨

리 가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내공이면 남들보다 10배 이상 인강에서 얻어갈 게 있죠.

인강은 대략 3~4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걸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시점 되면 감성주의에 젖는 경우도 있지만 문풀이 지겨워지고 혼자 읽는 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서입니다. 대략 강의평들 검색해서 괜찮다고 하는 것 과욕부리지 말고 2~3과목 정도만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성비가 나쁘더라도 소위 인기강사가 야심차게 냈다는 실모 같은 것(턱없이 비싼 것 있습니다)도 풀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 실모 그냥 가볍게 풀고 오답체크. 왜 오답이 나왔는지 사고과정을 반성한다
- 풀었던 문제집에서 다시 봐야할 것 또 풀어볼 것. 50문제당 2~3문제 걸릴 거임. 3회독 정도 하면 좋음
- 교재나 문제집이 지겨울 때 바로 남들이 듣는다는 강사 인강 파일 문풀 수준으로 들어주길(지금이면 얻는 게 많을 거임)

이렇게 해보시고 피드백은 쪽지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고인데, 다른 분들이 이 충고를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웃수험생과 같은 코스를 걸었을 때에만 효과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공부도 안 되었는데 저도 파일 들으면 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발암분자죠.

이어서 추가답변

답답할때마다 사탐 풀었기에 새로운거 없나 검색하려 왔다가 글 읽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위안이 된것같습니다.

말씀하신것중 2가지 (실모 부담 ㄴ ㄴ. 파이널 듣기)에서 ebs 파일은 다 들었습니다. 그외에는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듣고 있구요... 오답은 사실 전부다 꼼꼼히는 못했고, 문제풀때 주로 c (난이도별로 a.b.c로 체크했습니다.)라고 체크한건만 다시 풀었습니다.

아, 그리고 문제 실제로는 제 키의 1.5배정도 푼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키의 1.5배정도 풀었습니다 하면 '노인증 구라를.' 먹을것같아서 좀 축소했습니다. 지금 독서실이라 방 돌아가서 사진은 못찍고, d-100일때 사진 찍었던것이라도 인증겸 첨부합니다.

링크

저렇게 공부한 건 자랑할만하기에 일단 이것도 공개합니다. 저 정도라면 그 다음 추가로 권해드릴 것은 이거임.

”논점 실전 메뉴“ 만들기

틀린 문제나 4점짜리 골치아팠던 것 풀었을 때 그 풀이과정은 결국 '핵심키워드'를 얼마나 잘 떠올려 논점을 연결짓느냐인 겁니다. 지표와 가수 문제의 경우 ”지표들을 한변에 몰아넣어 양변을 정수조건에 묶는다”, 미분 그래프의 경우 ’3차 함수의 개형 3가지’ 국어의 경우 틀리기 쉬운 문법지엽 이런 것들이 단골로 쓰이는데 이걸 따로 수첩에 간략히 메모하시고 즉석에서 누가 물어봐도 답할 정도로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엑스만 모아놓고 반복해서 숙달하면 됩니다

이미 양치기를 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걸 벼슬인 줄 아는 평범한 수험생과 나는 다르다’라는 인식수준까지 도달했으니 그 다음은 님이 공부한 걸 요약정리해서 출제자가 어떻게 옛을 먹이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문제 풀 때 ’그게 뭐더라 가물가물’은 겪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문풀이 된 상태에서 인강을 듣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대다수는 인강만 듣고 문풀을 안 해서 나중에 아이구 내 인생 그리고 있죠. 강사들은 자기들이 아는 걸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합니다. 강사의 의도는 그래서 종종 빗나들어가죠. 하지만 학생이 기본서 회독수와 문풀량이 보장되어있다면 그 의도는 적중합니다.

이 점에서 공부도 안 한 주제에 xxx 강사가 좋은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은 발암 쇼핑홀릭이죠. 문풀도 안 되어있다면 강사 가릴 쳐지도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는 명강의 들어도 실제효과는 낮죠.

++ 컴 절제하고 원하는 목표 이루신 뒤 돌아와서 쪽지로 인생얘기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

8.2 [상담 002] 군대간 케이스

2015.10.16

작년에 시원하게 재수 말아먹고 삼수 가냐마냐 할 때 군대 추천해주셔서 현재 군대 사지방입니다.... x군지원했고 xx병입니다. 하루 전체 일과 모든일이 2시간 안에 끝납니다.

일은 칼같이 9시부터 17까지 합니다. 한달에 1주일정도 18시까지 행정반 전화대기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문과생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로 돌려서 **의치한수** 가고싶습니다. 17수능 생각하고있습니다. 워드마스터 1회독 거의 다했습니다.

늦은시간이라 정리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급해서 그려러니 해주십쇼 생각보다 군대가 편하고 재밌어서 노래방,BX,PC방,당구장 등... 방해요소가 많아

도 참 많죠 그 결과 입대하고 자대배치 받자마자 바로 공부를 시작하려던 마음은 선임들과 딩가딩가 놀다가 사라지고

머리가 바보가 됨을 느끼게 되어 다시 펜을 잡고자했습니다. 아래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과목 전체 노베이스라고 생각하시고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과탐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과탐도 추천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과목의 강좌나 그 과목의 선생 같이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부탁드리고싶습니다.

현재 모든과목이 노베이스기때문에 EBS 이하영 선생의 [기본개념] 왕초보를 위한 '이런 수학 처음이지?' 수강하고있습니다. 어제부터 듣기시작했고 7강 째 들었습니다.

정말 기초부터 탄탄히 잘해보고싶습니다. 이제 복지시설관 쪽은 쳐다도 보지않을 생각입니다.

저같은 놈이 읽을만한 칼럼이나 공부법 쓰신 것 있으면 링크 첨부해주시면 빼에 새길정도로 읽고 실천하겠습니다.

솔직히 17학년도 수능개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7학년도 이과 수능 도전할겁니다.

군대가신 걸 신의 한수라고 여길 겁니다. 나이처먹은 사람이 충고할 때는 (적어도 그게 상업적 의도가 없다면) 듣는 게 좋죠 그리고 병역은 빨리 끝낼 수록 좋습니다.

우선 그 충고를 들어주신 건 현명하다고 칭찬. 다만 상담내용은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물론 욕심은 많아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줄여야하죠.

2017 수능 응시는 좋습니다만 거기서 합격을 기대하진 마십시오. 권장해드릴 것은 이겁니다. 이과수학 '2등급' 나오기, 과탐 하나는 '1등급', 다른 하나는 '2등급'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군인에게는 매우 힘들지만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군대에서 독학공부는 어려울 겁니다. 이 경우는 그냥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EBS 인강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현재 듣는 이하영 것 들으면서 '올림포스'만 따라가십시오. 당연히 문제편을 권하겠습니다. 다른 교재는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림포스 한 교재만 보고 그리고 틀린 문제를 강의 따라듣고 아예 암기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2가지 과정이 있죠. 수능개념강의, 수능기출강의 수능특강 완성 강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권하는 건 수능개념강의와 수능기출강의가 나오면 그걸 들으시라는 것. 수특이나 수완은 수특과 수완을 풀 때에만 발췌로 강의를 듣길 바랍니다(EBS가 그게 잘 되어있습니다)

오직 이것만 유념하십시오. 왜냐면 현실적으로 저걸 하기도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것만 하더라도 2등급 이상은 반드시 나옵니다.

과탐 과목 선택은 물리1과 지학1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내년 수능개념강의로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탐스런만 가도 됩니다(사실 탐스런으로도 넘치지요)

내년 시험을 치른다기보다도, 강의 한번 제대로 들어보자. 결과는 신경쓰지 말자는 마인드로 가세요. 절대 다른 건 쳐다보지 마십시오. 성과없는 과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중간에 이거 성적이 오르는 것 맞나... 생각도 들겠습니까만 힘들수록 사실 그게 바른 길입니다.

+

올림포스는 뭔가 덜 정제되었지만 문제 참신성과 난이도는 나무랄 게 없습니다. 간혹 해설이 무리수이긴 하지만요.

8.3 [상담 003] 강의 듣는 법

2015.10.17

강의를 제대로 본다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로 들어주신 xx 강의를 듣겠다고 정했으면 우선 문제풀이부터 쭉한다음에 채점을 한뒤에 1강을 틀어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올림포스 강의 먼저듣고 문제풀이는 나중에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게보면 아주 기본적인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고수라면 문제를 다 풀고 필요한 부분만 강의 듣습니다. 본인이 중수라면 기초, 중급 정도의 문제만 예습하고 고급 문제는 읽고 강의 듣습니다. 본인이 하수라면 그냥 강의대로 따라가는 게 '베이스'는 다지는 방법입니다.

이 수험생의 경우 기초를 쌓는 상태면 강의대로만 따라가는 게 낫죠.

8.4 [상담 004] 막판정리

2015.10.17

9월 29일에 제대를 한 상황이고 현재 아파트 독서실에서 공부중입니다. 6월 평가원에서 수학 30번 1개 영어 3점 하나 9월평가원에서 영어 3점하나 2점하나 (도표--) 틀렸습니다.

제 원칙은 월화수목금 11 11 11 11 11 토요일 7 일요일 0 (시간)으로 잡고 올해 3월부터 계속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제 주제에 맞지 않게 훌륭한 동기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xxx xx학과를 4.2로 졸업한 친구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토요일에 한번 격주로 수학 모르는 문제 쌓아서 질문만 받는 학원에 가서 질문 해소하고 질문 해소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국어는 매주 일요일마다 xxxx

다닐 때 은사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국어 역시 수업을 듣는다는 것 보다 제가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것 중에서 모르는 부분을 모아서 질문하고 제가 별명이 4차원이라 --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모난 사고의 부분을 사포로 밀어버리기 위함입니다.

사탐은 6월에 세계사 한국사 쳤는데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사 하면서 제2외국어 안하기가 억울한데, 그렇다고 잉글리시 수준을 보자니 한국사 + 제2외국어하면 언수외가 무너져서 올해 잘 하는데 막판에 실점이 클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xxxxx xxx 선생님을 만나서(제 은사님입니다) 동아시아사로 바꾸는 것으로 작전을 잘 짜고, 책을 받아서 인강을 들었더니 세계사랑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9월에 다 맞았습니다.

상담의 요지.

1. 수학학습 부분입니다.

저는 문과입니다. ○ 이번 9월에 처음으로 30번을 해결하였습니다. 풀면서 음... 틀리겠지 하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 응? 올해 3월부터 푼 문제집 은

수능적해석 미적분 고득점 쟁취 이창무 선생님 개념의 정상 교재 수1 두권 수특 수1 미통 매달 치는 대성 종로 중앙 비상 모의(질문 받는 학원에서 받아 풀었습니다.) 수능완성

이창무 선생님 문제해결 전략 히든카이스 모의고사 일격필살 이정도 입니다.

아.... 군대 가기 전에 05~12 수1 교육청 기출 사설 다 풀고 오답노트 만 들어서 돌렸었고 11 12 미적 교육청 사설 다 풀고 같이 정리했었습니다. 물론 그 수능 14 수능에서 수학 4등급 맞고 12월에 -- 얼탱무 하면서 군 대갔지만. 말입니다.

요즘 공부는 올해 어느 순간 사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이 접근 방법에 천착했던 제가

어 이 문제는 교과서의 어떤 개념에서 파생되었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개념은 수학교과서를 찾아보고 리마인드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출과 수능특강 문해전교재 다시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권의 교재를 반복해도 시간이 빠듯한데

새롭게 어려운 책을 풀어야하나 라는 조바심이 듭니다. 수학 인강 하나 듣는데, 강필선생님 실수 방지를 들었는데, 매 순간 해설마다 제가 무릎을 턱탁 쳐서(교과서 개념만으로 접근하는 부분과 실수 검산 부분입니다) 수능 인덱스 지표가수 지수로그 함수 빨리 들을 생각입니다.

사실 05 12 까지 교육청 사설 돌리면서도 지표가수 지수로그함수가 가장 불편한데 위 인강 맛보기를 보니 제가 문제 풀면서 느낀 불편함들을 건드리는것 같았습니다.

2. 공부시간의 밸런스

하루 공부시간은 대략 12시간 2 3 4 3 으로 연 수 외 탐 인데 제가 11수능을 볼때 9평에서 1 2 1 1 이 나왔다가 영어 잡으려고 애쓰다가 수능에서 1 2 1 1 이 나와서 -_-

이 경험으로

밸런스에 예민해진 상태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부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극복했다란 이야기 같은데 수학은 뒤늦게야 '양적 축적이 질적 전환'으로 바뀌어서 수리적 사고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웬만한 걸 익명처리하지만 수학 커리는 익명처리 안 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저 커리는 괜찮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수학인강에서 '강필 커리'는 수리적 사고 배양에 좋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이 점에서 님이 걸어온 길은 꽤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뒤늦게 깨달았다라는 점이 있으며, 아울러 커리가 지나치게 평균화되어있습니다. 수리적 사고를 더 단단하게 하려면 소위 인강교재나 인기강사 것만 볼 게 아니라 다소 평균에서 벗어난 더러운 문제나 외진 것들에도 자신의 수리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나 보아야하는데 문제집 풀이 지나치게 '요즘 수험생들의 평균'에 모여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평균을 배신하는 출제가 나오면 당할 염려가 크지요. 더군다나 인강은 너무 명쾌하게 설명하는 바 - 즉 아스팔트 도로 깔아놓고 고속버스로 드라이브 시키기 때문에 그걸 들을 때는 뭔가 명쾌하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으나, 강의 다 듣고 시중교재를 풀면 어 이게 안 먹히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촉박하긴 하온데 강의는 거기서 늘리진 마시고, "기출" 잡다한 것들을 랜덤하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밸런스는 균형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있는 과목은 '실점'이나올 부분만 추려서 그걸 공부하시길. 예컨대 국어나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문법'과 '어휘', 그리고 몇몇 어려운 지문만 간략히 훑는 식으로 시간단축하고 나머지 시간은 수학과 탐구에 할애하는 게 효율적이지요. 특히 수학은 오답 5개 나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공부해서 다 맞는 그런 게 아니라 여태껏 공부했어도 틀리는 그런 문제를 하루에 5개씩 겪으면 남은 기간 100문제를 추릴 수 있을 텐데 그 100문제에서 본 시험에서 넘을 위협했을지도 모르는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보면 탐구는 공부한만큼 도움이 되지요.

다만 영어 듣기를 '몽롱한 상태'에서도 1.4배속으로 들어도 맞출 수 있도록 훈련해두시길 바랍니다.

8.5 [상담 005] 탐구대비

2015.10.19

저는 현재 학교 휴학을 한 반수생입니다. 6월 모의고사는 94 96 100 46 47 (물1 생1) 이였고 9월에는 100 97 100 46 39(물1 생1) 입니다. 10월은 집에서 시험을 봤는데 국어1개 생물1개 틀렸네요 3월부터 인강듣는 시간 제외하고 순 공부시간이 7시간 이상씩 나오도록 노력했었고 8월부터는 인강을 하루에 한두개나 안들어서 공부를 대충 10시간 정도 하는 것 같네요. 2/3/2/3 정도의 비율로 합니다.

사실 언수외는 쉬운기조로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덜합니다. 언어는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3개년AB+EBS), 수학은 기출을 여러 번 봤으니 EBS에 좀더 비중을 두고 정리하면서 실모 틀린부분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영어는 그냥 EBS한번 더 보면서 한주희 파이널 문제만 풀 예정입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탐구인데요. 정말 탐구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BS랑 기출이랑 지금껏 들어왔던 인강교재 문제들에 **사설2년치** 틀린거만

복습+완자 하면 충분할거 같기도 한데 새로운 문제에 대한막연한 불안함이 가시질 않네요 시험때 조금만 당황하면 멘탈이 자꾸 승천해버려서ㅠㅠ 이번 9월에도 생물 7번 문제가 잘 안풀리니까 쭉 말아먹었습니다. 당황하는 걸 방지하려면 새롭고 어려운 문제를 좀 더 풀어봐야하나요? 지금 남아있는 안풀어본 문제는 백호 파이널모의6회분, 와부 물리6회분, 최수준 모의3회분 있는데 좀 더 필요할까요? 초창기때 아폭님 글을 봤으면 그냥 시중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봤을텐데 지금 그럴시간은 없고..

질문을 정리해보면

1. 언수외 계획에서 수정할 부분
2. 탐구 마지막 정리방법
3. 시험장에서의 멘탈+체력문제

정도가 되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수험생의 경우는 '구김살 없는 완벽주의' 미학에 빠진 경우가 많죠. 즉, 자기가 돌리는 교재에서 자기가 오답이 안나고 회독수가 순조롭게 높아지면 된다는 건데.

예방주사는 아프게 맞아야 하고, 평소에 군사훈련도 빼세게 해야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6평, 9평에서 점수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건 수미잡입니다. 수능은 언제든 통수를 칠 수 있고, 올해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과 영어는 무조건 오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푸는 식으로 마무리하세요. 그게 찝찝하다할지 모르지만 시험에서 오답날 것을 미리 잡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탐구의 경우는 지금 체계 생각하지 말고, 닥치는대로 랜덤하게 '오답' 나오도록 푸시고 오답 나온 걸 정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생1 문제 나갔다고 하면 한문항에 20분 이상 정리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안 틀릴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리, 기본서 보면서 본인이 깨달은 바, 조심할 바, 출제자는

어떤 식으로 낼까 하는 것들을 메모해보시길 바랍니다. 탐구가 마냥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출제자라면 어떻게 엿먹일까 생각하면 답이 보이지요. 특히 내가 출제자라면 나라는 수험생을 어떻게 좌절시키는 출제를 할까라고 하면, 님의 무의식이 대답해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양이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지금은 그걸 어쩔 수 없고, 오답이 나오도록 문제풀고 다시 그걸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시험장 멘탈이라 함은 이건 재밌는게 지금은 불안한데 막판 시험날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죠. 긴장이 풀리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니까요. 지인 한명에게 '내가 한문제 틀리면 만월 준다'라는 식으로 내기 걸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당일날은 아침은 적게 먹고 점심도 그냥 커피나 초콜렛으로 갈음하시길 바랍니다.

+ 과목별 공부법

국어 - 문법 특화시켜놓고, 어려운 지문을 많이 읽어두길 바랍니다. 어차피 국어는 문법 아니면 독해일 건데요 화작문이 어렵게 나오면 이건 논리, 수학문제가 됩니다. 국어는 작년 B형 수퍼문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죠

수학 - 저라면 실모 문제 집착은 안 합니다. 왜냐면 특정패턴에 익숙해진 것 자체가 새로운 문제의 풀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서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교과서 개념 다시 점검한 다음, 랜덤하게 4점급 문제 5분 안에 푸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틀려도 관계없어요, 그 절박함이 중요하니가요

영어 - 통수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들 쉽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임란 전 조선의 국방인식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쉽게 내면서도 변별력 주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탐구 - 탐구는 기본서의 지엽 정리 철저히 하고(EBS 수특수완해설까지 다 외워야합니다) 반면 킬러문제는 킬러문제접근법을 본인이 쓸 수 있게 정리 탐구

가 어려운 건 암기와 응용 둘 다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즉, '용어'와 '식계산' 이 양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애매해지는 겁니다. 용어 정리는 기본서 다시 여러번 보면서 철저히 외우십쇼, 지금이 문자 단위라면 나노단위까지 갈 정도. 식계산 문제는 따로 그 알고리즘 정리해두시길 바랍니다.

++ 돈내기는 장난이 아니라 진짜 하십시오. 그래야 뇌가 그걸 인식하고 움직여줍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저 꼰대가 xx한다할지 모르지만, 시험에 실패하는 수험생들은 사실 별로 절박하지 않습니다. 수험생활이 대단히 편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 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라고 느끼면, 의식은 합격인데 무의식은 불합격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의식도 '돈'에는 엄청 민감하죠. 가족 말고 절친 잡아서 한문제당 1만원 그게 싫다하면 5천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점수가 나오면 돈을 주겠다라고 계약서 쓰고 해보시길. 이건 다른 분들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친구만 횡재하는게 아니냐하는데 이렇게까지 안하면 게임 좋아하고 야한 거나 밝히는 남들의 뇌를 설득시킬 수 없어요

+++ 사실 학원 다니거나 독서실 가면 공부 잘 되는 이유는 '지불한 돈'을 아깝게 생각해서인 것도 있죠. 나중에 글 한번 쓰겠지만 '시간'에 지불하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시간'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낸다는 건 금전적 비용을 지불해 시간적 비용을 아껴 최적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반면 교재에 지불하는 돈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교재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풀리는 것이죠.

8.6 [상담 006] 문과 마무리

2015.10.23

9월은 학원에서 봤고 93 100 100 50 48 (동아시아/한국사) 베트남어12점 : 틀렸던문항: 국어 문학 수필 보기문제 . 문학 현대시 첫문제 .비문학 18번?(답1 번이였던거) .한국사 13번 10월은 집에서 응시 98 88 100 44 47 (동아시아/한

국사) :틀렸던 문항 : 국어 어휘(마지막지문) . 수학 21.29.30 .한국사 -19번 동아시아사 -13.19번 10월 끝나고 멘붕와서 공부가 더 잘됐던거 같네요.

여태까지 저의 공부상태는 1주일에 될수있는한 풀로달리자고 공부를 못할 정도로 힘들면 하루 집에서 쉬고 일찍들어가서 자는 마인드로 공부했고 결과적으로 1주일에 하루 12시간 공부 (인강포함) 주말 7시간 하루 x 정도 공부시간 투여한거같습니다.

[국어]. 기출 90프로 :근거찾아가면서. 문학같은경우 용어 모를경우 인터넷. 사전찾아가면서 다시읽기[EX)영탄적.우화 등] 비문학 같은경우 추론을 필요로 할경우 지문내에 있는 근거로 찾아가면서 풀기. 화작은 지문에 있는내용

평가원은 오답시비에 휘말리게 하지않아야하기때문에 지문에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마인드로 기출을 분석했습니다. 하루에 1회씩 비문학은 LEET 2회독 문학은 옛날 기출 시/소설 2/3이상 풀었고 문법은 개념서 다시봤고 EBS 연계교재 2번 이상 풀었습니다. 화작은 EBS연계교재 다풀었습니다.

[수학] 실모 하루에 1회씩 풀고 + 이투스 고난도 문제집 다풀었습니다.

[영어] EBS 연계교재 다보고 관련인강 파이널만 빼고 다들은 상태입니다. 문법 자이스토리 기출로 다풀고 틀렸던 부분 다시정리했습니다. 영어 실전모의고사 1주에 1회정도 풀었습니다 어휘 -자이스토리 반정도했습니다. 고교영어듣기.수능완성 - 3/4이상

[한국사] 수능완성. 수능특강 단권화 했고 (선지 자료 A4용지에 잘라붙이고 외우고 ..ㅠ) 강민성 근현대사.국사 N회독 10번이상은 돌린거같습니다. 강민성 문제풀이 기출 16-06 평가원 동사X독 국사 10회독 사설 모의고사는 1/3정도 했습니다.

[동아시아사] 개념서 최경석 수능개념교재 20회독-진짜 토나올때까지 봤습니다. 수능특강.N제.파이널.완성 -한국사와마찬가지로. 사설.평가원모의고사 모

음집 끝 [베트남어] 개념인강만 다들었습니다. 수특 1/2?

대략적으로 공부 이정도 한거같고(더있을수도있지만) 9.10월 모의고사 보고 느낀게

9월: 국어 너무 날림읽기했다가 털렸다.. (솔직히 9평 쉬웠다고생각했는데..) 꼼꼼히 읽자. 수학 계산실수만 주의 . 영어 작년의 기억이있어서 더 꼼꼼히.근거 찾아가며 한국사-핵지엽대비 동아시아사- (솔직히 1컷50인줄알아서..) 이대로만

근데 10월 모의보고 국어 -어휘 ㅂㄷㅂㄷ,(근데 이거 풀때 어려울줄알았는데 쉬웠습니다.) 수학- 웬만해선 92 이하로 내려간적없는데(실모포함) 21.29.30 털린거보고 나중에 답보니까 아.. 내가 새로운 문제나왓을때 추론력이 부족한건가 싶고 실모만 푸는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했습니다. 그리고 21은 졸아서 손 못妖怪고 30번은 하나 잘못새서틀렸고 29는 아에 접근방법이 틀린풀이.. 영어-수미잡 (근데 저도 웬지 영어가 수능때 작년보단 어려울꺼같아서 걱정...) 한국사-현대사 파트 다시.. 동아시아사- 이게 제일큰 걱정이였는데 평가원은 개껌같이 풀었는데 (재수.현역때도 항상50) 이번에 44엿는데 실력으로 틀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번도 나오지않았던.. 부분에서.. 개념서에도 이상한데 구석에 박혀있는데 내고.. 근데 수능때도 그렇게 낼수있으니까 동아시아 다시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계기가 됫습니다.

현황은 대략 이렇고요.. 앞으로 수능때 까지 공부계획은 [국어] 1일 기출(최근 b형) 1일 사관학교 1일 사설.대종모의 화작-천제의약속 문법-천제의약속.인강교재.ebs 다시정리 복습.(지문에 근거한것.개념만으로 풀도록 연습.. 되도록) 문학- ebs정리.고전시가 n회독 비문학- peet/ leet 틀렸던 지문

[수학] 이거 쓰기전까지는 1일1실모 하고 2012-2016 평가원 문제 4점짜리 하루에 1회씩 .실모 틀렸던거 정리해놨는데 그거 하루에 4문제씩 풀라했는데(대부분 21.30) 칼럼보고 공부방법을 바꿔야되나 싶네요 아재말대로 제가 패턴화가 되었다보니.. 근데 수학은 불로나올꺼같고

그래서 수능완성 유형.실전편 다시풀거나 일타삼피 풀려고했습니다.

[영어] ebs 지문 다시풀고 변형문제 풀기-여태까지 안풀고 모아놨습니다. (그동안은 단어.구문을 안되는부분 외우자는 마인드로 공부해서) 문법- 평가원기출 모음 다시풀고 정리 실모 -3일에 1회 정도 듣기 -고교영어.수완 간접쓰기-자이스토리 모음집 기출- 2016-2009 평가원 기출 간접쓰기.주제.빈칸.어법.어휘.장문 만 근거찾아가면서 풀기 (실전처럼 x)

[한국사] 여태까지봤던거 a4용지 단권화하고 싸그리 암기 기출 15-06 다시풀기 강민성 파일.모의고사

근데 이게 하면할수록 어디선가 계속 까먹는부분이나와서 매우빡치는과목입니다..아..

[동아시아사] 개념서 다시 치사할정도로 다시보고 교육청.평가원 최근 3개년 보기

[베트남어] 수능완성.작년수능완성 기출 문제 풀고 (20분정도걸립니다.) 단어 다외우고 지문암기 -어느정도 효과가있는거같네요 요즘풀면 30점은기본으로..

이게 전체적 현황이고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xx대에서 공부하고있는데, (집이 xx라 통학 집-공부장소 까지 50분정도걸립니다.) 위치 변경하는게 좋을까요 ? 아침에 분당선타는게 극혐이긴하고 과동기한테 걸린적도 있지만 공부장소.밥먹기 는 괜찮은거같네요..공부집 중도 잘되는거 같고
2. 언수외탐 공부 계획에서 수정할 부분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3. 공부시간은 8시 30부터 -10시 30까진데 중간에 30분 졸고 밥먹는시간 총 합 1시간 정도고 공부시간을 더늘리는게 좋을까요?

제 감으로는 목표를 이루는 방향은 갔지만 이건 약간 늦게 시작해서 시험보기 직전 '아, 더 일찍 시작할 걸'이라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양적인 모자람'을 느낀다면 그건 방향은 맞는 거죠. 다만 시간이 부족해서이지

우선 질문에 답하면

1. 대안이 없으면 바꾸지 마시길. 전 통학은 강조합니다, 집에 있으면 공부가 안 되지요. 그리고 가까워도 안 됩니다. 멀리서 공부해야 긴장되기 때문에 공부된다고 작년 말에도 언급했습니다.
2. • 국어 - 화작문 고난도 대비, 그리고 비문학 과학 지문 읽어두실 것
• 수학 - 일부러 틀리는 걸 생각하고 4점짜리 문항 랜덤하게 잡아서 20분 내에 푸실 것, 시간 내 못 풀면 오답처리하고 해설 읽고 복기
• 영어 - 시간압박 실전테스트
• 사탐 - 한국사는 오답을 기본서에 체크해보실 것.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
3. 공부시간은 현 상태로 유지하셈. 그런데 이제는 문제수를 늘리지 말고, 과거에 틀렸던 문제 다 체크해서 기본서에 표시하셈 표시하다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함.

그리고 문풀은 이제 양치기가 아니라, 어려운 4점 문제 보고 좌절하는 경험을 계속 숙련시켜서 정말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떨리지 않고 전략짜서 풀 수 있는 자세를 맞추셈. 지금 누구도 뭔 문제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단 그 수능문제는

교과범위 내에서 다 풀립니다. 그럼 교과지식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도록 준비해둬야지

국어는 문법, 그리고 수학은 4점 칠러 계속 틀리고 오답정리하기, 사탐은 기본서 전략 이거 중시하면서 가시길.

아, 그리고 다른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전 쪽지'만' 상담은 상원 분들 빼고는 안 합니다. 쪽지로 문의할 분은 자기 이야기가 게시판에 공개되는 건 무조건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인적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지울 것이고, 혹은 부주의해서 처리 못 하는 건 수정하겠지만요.

8.7 [상담 007] 모범사례 분의 추가 질문

2015.10.23

상담사례1의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웬만한 파이널까지도 다풀고 (사탐은 시중에 있는것 다 풀었습니다만, 국영은 끈게 없고 수학만 좀 풀고 있습니다. 국영은 만점마무리 3 개만 풀 생각입니다.) 점수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만, 풀면 풀수록 두려움이 더 생기네요. 어짜피 목표는 서울대 상경. 점수로 말하면 만점인데, 요즘 들어서 종종 새로운 문제집 없나 xxx 이런곳을 들어가다보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졸게 됩니다.

뭐, 강사의 질이라던가 그런것말이죠. 사실 저는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고, 그냥 서점에가서 새로운 책들이 있나 없나 체크해서 있으면 전부다 풀고 그냥 아침 6시 30분에 나가서 11시에 자리 돌아가는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수학은 애초에 명청했기에 그냥 암기로 전부다 커버쳤고. 영어도 마찬가지. 문법 읽고 분석하고 단어 외우고 숙어. 국어는 그냥 독서는 지문요약 전체요약 근 거 찾기. 사탐은 그냥 풀면서 모르는 개념 나오면 단권화. 딱 이것들만 했습니

다.

근데 요즘 들어서 과연 이정도면 충분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집도 2열로 한게 제 명치정도 오고, (원래는 일열로 쭈욱 쌓았습니다만, 책마다 싸이즈가 달라서 어느순간 붕괴되더라고요. 그냥 이열이 좋은것 같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선생님별 ebs 개념강의 전부다 들었고 나름.. 할수있는건 다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거죠. 뭔가 '비책'같은걸 배워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국영수는 문과기준으로 따지면 비책같은게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스킬이 중요하다 이러는데 전 솔직히 문과레벨에서 스킬이 필요 하나 모르겠습니다.) , 한국사는 실모 종종 저도차도 못푸는 문제가 몇개씩 나오니 난 충분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태표적으로 최태성 강의에서 근초고왕이 가야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법흥왕 금관가야 진흥왕 대가야입니다.) 막상 실모에는 나오고.. 항상 한두개씩 틀리는걸 보면 참 기분이 묘합니다..

학원같은걸 다니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정도면 정말로 충분한걸까요.. 시험에 다가올수록 두렵습니다.

+ 인터넷에 널리 퍼진 이야기가 '실모짱짱맨'이라는건데 전 나름 많은 실모를 풀면서 (사람은 한국에 있는거 다 풀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실모짱짱이라는 분위기가 있나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전 많은 실모들을 보면서 '아, 이거 괜찮네' 라고 느낀건 한국지리 이투스 선생꺼 말고 없습니다. xxx이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한 한국사강사던데, 이사람 실모도 말할 필요도 없었구요.

그외에도 xxx라는 실모는 미친놈들이 abcde 음영을 제대로 안줘서 문제도 못볼레벨이고. 스캔을 뭘로 했는지 미세한 글씨는 보이지도 않을정도입니다.

전 왜그렇게 사람들이 '실모짱짱. 실모만 풀면 모든게 해결된다' 이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외에 유명 수학 모의고사도 '도대체 왜 이게 평가원급 퀄리티라고 사람들이 말하는거지?' 라고 생각드는놈이 있습니다.

++ 그 상담사례1 글을 보니 아래에 국어 오천 수학 삼만 영어 삼천 텁구 오천의 기준 궁금해하는 사람있던데 그거 보니 저도 궁금하네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올해 들어와서 학습론이라는 희대의 뺄글을 썼고 근거없는 비난도 먹었습니까. 중요한 건 하라는데로 '양치기'한 케이스, 그것도 작년 겨울부터 부랴부랴 시작하든가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여름에 했지만 구력이 있어서 그걸 달성한 케이스는 나름 성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분의 경우는 본인이 경험하면서 느꼈겠죠. 그래서 실수를 안 한다면 실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문제풀이는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의식은 그냥 '브레이크'에 불과할 뿐이죠. 문제풀이은 무의식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무의식이 너무 막 나가 뺄짓하지 않나 의식이 '논리'로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요.

소설 사조영웅문에 나오는 곽정은 순진하고 명청하지만 인생의 승리자죠. 애당초 무공에 소질도 없지만 나중에 천하제일고수 반열에 든 비결은 간단함

- 좋은 스승 만나서 시키는대로 다 했음 - 이상한 잡기나 사파 무공 같은 건 쳐다보지 않음, 정파내공을 다짐. - 구음진경을 강 **외워버렸음**.

이 분도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요새 말하는 훗수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이것 밖에 없습니다. 금수저 쪽이야 좋은 가애 선생을 만나거나 인강을 열심히 수강해서 스킬로 나옵니다. 당연히 효율성이 좋아서 단기적으로는 이길 수 없죠. 하지만 이 분과 같은 방식으로 규칙적 생활로 문제집을 모두 풀어버리고 회독수를 늘리는 건 '절대실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불안감이라는 것도 '최상위권의 불안감'입니다. 공부 안 한 것과는 달라요.

지금 고민하는 것도 사실 사소합니다만. 한국사의 경우는 두가지 권합니다.

하나는 namu.wiki 사이트에 가서 인물 중심으로 검색해보시면서 주옥 읽어보라는 것. 실모의 경우야 물론 교과서에 없는 거나 구석진 걸 내서 그러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잘 볼 수 밖에요. 만약 이것도 모자르면 공무원 국사 기출 문제집을 사서 한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답이 많이 나오겠지만 불안감이 덜 해질 겁니다. 동아시아사의 경우도 위키 참조를 권해드림

문풀량 기준은 뭐 그다지. 말 그대로 갯수에다가 회독수입니다. 100문제를 풀어서 20문제를 틀렸다 칩시다. 그럼 100문제 달성 다시 틀린 20문제를 풁니다. 그럼 20문제 달성해서 120문제 :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지요.

님의 경우는 이제는 아무 방법이나 취해도 관계없습니다. 말씀이 진실 그대로라면 내공이 빵빵하죠. 정말 스킬 같은 걸 알고싶다고 하면 돈 조금 내서라도 유명강사 파이날 들으면 되겠지만, 사실 EBS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애당초 스킬이라는 것은 '애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량 부족한 걸 메꾸라는 꼼수'적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요.

8.8 [상담 008] 수학 해설 비교

2015.10.23

다소 평균에서 벗어난 더러운 문제나 외진 것들에도 자신의 수리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나 보아야하는데

"기출" 잡다한 것들을 랜덤하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미적분은 가령 빽센 기출문제 + 실력정석 연습문제(홀수번 풀고 짝수번)

수1은 신승범 선생님 고난도 약점공략 뒤에 붙어있는 고득점 쟁취(인강 교재지만 더러운 문제 외진 것 같아서)만

문항번호가 나머지가 3인 문제 -> 나머지 2인 문제 -> 나머지 1인 문제 -> 나
누어 떨어지는 문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설지 보는 법이 미흡한데,

제가 맞은 문제도 어 이렇게 생각하네, 이렇게 수식정리하면 깔끔하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 해설지 보는 요령을 부탁드립니다.

수학풀이란 결국 '조건', '공식', '식변환' 혹은 '논리적 추론' 그 요소들의 결
합입니다.

일단 풀이는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A는 식으로, B는 그래프로, C는 그냥
개념 논리추론으로 풀 수가 있죠.

만약 자기가 푼 게 해설과 같은 방향이면, 자기 풀이와 해설을 비교해서 내
풀이가 부족한가, 아니면 쓸데없는 부가내용이 있나보면 됩니다. 부족하다면 그
건 빨간줄이나 형광펜으로 내 풀이에 '가필'해야합니다. 그게 내 풀이의 한계이
기 때문이죠. 쓸모없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다는 건 그 문제의 추론
과정과 전혀 관계가 없단 것인데 이런 걸 떠올렸다는 건 '패턴화'의 부작용이겠
죠.

자기가 푼 게 해설과 다른 방향이면 둘 다 수용하면 됩니다.. 문제 아래 여
백에다가 자기가 푼 방식을 요약해 적은 뒤 II라고 표시해놓고, 해설을 I이라고
해놓은 다음 해설 대로 풀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수학 보는 방법이 늘어납니다. 해설은 절대적이진 않죠. 어
떤 집필자는 그래프를 너무 좋아하고, 다른 집필자는 식풀이만 고집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리. 그런데 수학을 잘 한다라는 건, '박쥐질'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거입니다. 특정풀이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풀이를 쓸 수 있어야하는 것입

죠.

8.9 [상담 009] 패자부활전

2015.11.08

고3 이과 학생입니다. 저는 입시 실패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말부터 중3 말까지 놀아서 공부를 한자도 안했고, 책도 안펼쳤습니다.. 수학은 제 기억으로는 중1 집합부터 그만둔것 같습니다. 현재 성적은 고1~고3 내신은 모든 과목 6~7등급대 8,9등급도 꽤 있음. 9월 모의고사 기준 국어 A형 6등급 수학B형 9 등급 영어 6등급 물리1 지구과학1 6등급 7등급입니다. 각설하고, 대학교를 가지 않고, 육군을 12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지원해서 붙으면 가고, 안붙으면 3월부터 재수를 할생각입니다.. 그동안은 알바로 돈을 벌생각입니다.. 몇 가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1. 군대를 간다고 가정할시, 짬이 차고 GOP 근무말고 FEBA 부대로 왔을때 부터 일과 끝나고 조금이라도 공부를 할생각입니다. 국어: 독서, 신문 구독 영어:초등학교 단어, 중학교 단어, 고등학교 단어, 수능 단어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토익 텁스 단어 수학: 초등학교 수학부터 이렇게 공부를 할생각입니다. 시간이 안되면 다재끼고 수학만 할생각인데요.. 2019 수능 2020 수능 준비에 맞게 공부를 할려면 어떤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초등학교 수학은 개념원리에서 만든 쌩큐, 중학교 수학은 개념원리 중학수학 그리고 고등수학은 수학의 바이블 개념서로 공부할것입니다..
2. 계획이 너무 무리한가요? 초등학교 수학부터 할필요가 없을까요?
3. 마지막으로... 군대갔다와서 해도 늦지 않을까요..? 재수 삼수 이렇게 하다가 망하신분들 많다고 하셔서.. 군해결부터 할생각인데 현명한 선택일까

요..? 제가 노력에 비해 눈이 높은것 같아서.. 지방대 전문대는 가기 싫어서 군필재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긴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은 눈이 높아야 합니다. 눈이라도 높지 않으면 정말 노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가 대물림되는 이유는 부자 자식들과 거지 자식들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올라가려는 의욕이 없다면 평생동안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건 고통과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일이고 자살의욕도 수십번 들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가 문제는 그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안 해본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시를 앞둔 친구는 다 때려치우고 노가다 하고 싶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해서 입시는 아직 염두도 못 댄 친구는 공부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공통점은?

자기가 안 해본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일단 이 분이 군대 가시는 건 잘하는 겁니다. 어차피 군대 이전의 공부는 80% 이상 리셋되어버리니까요.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에서 군대 가는 거니까 잊을 건 없는 것입니다(이건 까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 이죠) 다만 평소에도 공부 안 했는데 군대 가면 공부할 수 있을리는 없죠.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갖진 않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가셔서 시간이 나시면 국어공부를 따로 하지 마시고 독서와 영어공부를 시작하십시오. - 서양고전소설(흔히 추천되는 셰익스피어 희극이라던가 모파상 소설이라던가), 동양고전(삼국지라던가 대망이라던가) - 영어 - 중학교 독해교재를 본다거나 토익공부를 시작한다거나

엥 뭘 소리야. 왜 이렇게 초라해할지도 모르는데요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의 문제가 계획을 지나치게 거창하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심자일수록 과목들을 분산시켜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평균적으로 잡습니다만. 장담하는데 저것 못 합니다. 고수들은 과목을 집중해서 한 과목을 제대로 끝낸다거나, 혹은 필요한 과정만 집중적으로 제대로 이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부한 것을 자기의 '양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더 능력이 좋아져 다른 공부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격 재수를 하려면 군 제대 후에 하시는 걸 권합니다. 수학은 그 때까지는 차라리 안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내년부터 수학이 어찌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정은 분명 하향되었다고 하겠지만, 어차피 입시는 경쟁이라서, 그 경쟁률에 따라서 난이도가 어찌될지는 불명이어서입니다. 무엇보다 기본 교양이 없으면 수학도 어차피 제대로 공부 못 합니다. 바로 군대 다녀오시면 21~22살 정도 일 건데 이때부터 정신차리고 2년간 공부해서 24살에 간다고 하면 그동안 노신 걸 다 만회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감당도 안 되는 입시 코스 밟는 게 아니라, 밑바탕부터 제대로 쌓아야합니다.

정말 군이 수학을 하고 싶으면, 이거 비아냥대는 게 아닙니다. '기탄수학' 시리즈 정말 초급부터 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면 피식할지 모르지만 이거 남 눈치보고 그럴 게 아닙니다. 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요. 말씀하신 사정대로라면 지금 남들 코스를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문의는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1. 3월까지 책 100권을 읽을 것 : 만화책 말고 정말 활자로 쓰여진 것들. 근처 도서관에 빌리셈
2. 영어공부 EBS인강으로 시작하실 것. 수준높은 것 듣지말고 그냥 기초적이고 쉬운 것부터 들어보셈

- 수학은 계산부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중1부터 멈춰있다면 기탄수학부터. 그런데 이거 시험모드로 100점 맞는 걸로 가셈

8.10 [상담 009] EBS 교재, 기출, 교과서만으로 100점

2015.11.17

16수능을 치룬 현역생입니다. 올해 초에 어찌어찌해서 알게 된 콕콕에서 칼럼글을 보고 깨달은 바가 많아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다른 애들은 온갖 인강 강사의 책을 펴놓고 인강을 보면서 공부할 때 아폭님이 말씀하신 대로 **EBS 교재, 기출과 교과서에만 최대한 집중하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수학은 살면서 100점 처음 맞아보네요 ㅎㅎ. 과탐도 모의고사 칠때마다 3등급 이상을 못받았었는데 지금 컷을 보니 다 2등급이네요. 제가 기대했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던건 아폭 님의 칼럼 덕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칼럼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물론 직접 댓글이나 게시물을 달면서까지 콕질을 안했지만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6,9월 성적보다 더 괜찮은 성적을 받게 되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양해하시길, 수험사

이트에는 분탕, 작전, 마케팅 하도 별의별 병신들이 널려서리) 진짜라면 축하드립니다.

단, 그건 님이 노력한 게 99%이니 스스로를 대견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제 칼럼 덕분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론 믿고 자기를 믿고 달려간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셨다면 더 올라가시고, 부디 후학들에게 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실까요. 다른 분들은 제 칼럼 읽는다 뭐한다 그런데 집착하지 말고 저 분의 사연에서 "**EBS 교재, 기출과 교과서에만 최대한 집중하려고**" → 이걸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8.11 [상담 010] 예체능의 경우

2015.11.17

어렸을때부터 미적감각에 센스가 있었고 나름 디자인센스가 있다는 소리도 들어서 저는 자연스레 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대에 들어와 보니 제가 생각한 미래와는 많이 다른 현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막에서 바늘 찾기 급의 대기업TO, 내가 생각한 디자인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디자인계의현실, 나보다 뛰어난 동기들... 이런걸 느끼면서 전공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정도 떨어질때로 떨어질때쯤 우연히 울지마톤즈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되었고 이태석 신부님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저도 의대에 가서 사람들에게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그럼 수능을 다시봐서 의대에 도전하면 되는거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제 상황때문에 여러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만약 내년에 수능을 다시 보게 된다면 4수를 하게 되는것인데 제 나이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바뀔수있을까하는 걱정이 듭니다. 사실, 현역때 그렇게 의지가 좋은 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역수능에서 실패를 했고 재수를 하는 동안에도 언수외 성적은 그닥 오르지 않았고 사탐성적과 실기성적으로 지금의 대학에 붙었습니다.

1. 제가 군대를 갔다오는게 나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군대를 간다 해도 언제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ㅠ
2. 수능을 다시보게 된다면 재종을 가는게 나을지 아니면 독학재수학원을 가는게 나을지..
3. 과탐선택에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현역 문과시절 사회문화, 세계지리 같은 뭔가 센스를 요구하는 과목보다는 그냥 우직하게 암기를 하는 법과 정치, 역사과목등을 선호했습니다. 과탐을 선택하고자 하니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각 과목이 어떤 감각(?)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아! 제 성적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성적이 무슨 의대냐! 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은ㅠ) 방금 풀어본 요번 수능 국어 4등급 영어 4등급이 나왔습니다. 수학은 제가 미대 준비생이었지만 학교수업을 충실히 들어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걍 교과서로 수1, 미통기 2번정도 돌릴 정도..)

늦은 시간에 글을 써서 죄송하지만 이 글을 보신다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우선 말씀드릴 건 콕콕의 레벨지수에 따라 당연히 '차등'을 둬서 대접할 수 밖에 없습니다. LV 0인 사람이 자기 이익만 채우고 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담도 늦게 답변합니다만 끈기가 있으면 뒤늦게라도 보지 않나 싶겠지요.

아마 이런 질문하겠죠. "야, 너 만인을 위한 하지 않았어" "그런게 어딨어/ 난 엘리트주의자야. 가짜 엘리트가 엘리트라고 깝치는 건 싫다"

제가 그럴 의무는 없죠. 저는 공부하려는 사람이나 노력하는 사람이나 인정해주지 그렇지 않은 데 그러는 척 하는 사람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상담내용은 상원이 아닌 한 무조건 게시판 공개하는 게 방침입니다. 익명처리는 분명히 하겠지만요.

일단 이 분. 모든 인생판단을 '즉흥적'으로 하고 있으십니다. 다큐멘터리만 보고 의료 쪽으로 간다.... 그거 흔한 의대로 전공을 바꾸는 이유인데 이래서 잘된 사람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봉사하고 싶어 의대 간다는 사람 중에서 그 초심 지키는 사람 어딨나요? 저희 때도 의대간다는 사람 보면 인터뷰 내용 지킨 사람 없고 다 부자되서 땡땡거리며 누리기만 하더구만.

1. 빨리 갔다오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공부가 안 되는 시간만 생길 것이니 그냥 군대로 보내는 게 낫죠
2. 재종 가세요. 독학재수가서 공부할 능력이 있으면 진작 갔죠. 그러나 재

종 간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해 본 적 경험 이 없으면 한번 가보는 것 - 2~3달 다녀보는 건 권합니다. 거기 시스템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울 수 있고 자기 시스템이 개판인 걸 확인해볼 수 있어서입니다.

3. 이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지금 이건 고민할 단계가 아닙니다 만) 보나마나 1년 공부하면 혹시 될까... 할 건데 말씀하신 케이스로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아마 재종가서 부리나케 해서 4~5월에 끝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굳이 선택하라면 지금으로서는 물지 선택하는 게 그나마 무난할 겁니다만.
4. 2등급 나와도 말씀하시는 진로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정적인 1등급 나오면서 남들에게 그 과목을 설명할 수 있어야 1년 내에 가능합니다. 일단 공부 안 한 분들일수록 너무 시험을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까놓고 말하면 수험 가지고 장사하는 학생저자간 업자간, 그리고 저조차도 수능보라고 하면 장담하기 힘들걸요. 시험을 잘 치르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5년 정도 정말 무섭게 달려와서 공부관성만으로도 사람 100명을 죽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 시험에 실패하냐? 간단하죠. 멀리 있는 산일수록 작아보이거든요. 산에 오르지도 않았으니 숨가쁠 리도 없고, 작아보이니까 너무 만만해보이죠.

그래서 다 쉬워보여요. 아, 내가 공부만 하면 의대에 가겠지. 산중턱에 오르는 순간 다 패려치우고 포기하고 싶다로 가죠.

현실적 조언을 드리면 지금 당장 재종을 가고 미친 듯이 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무슨 꿀조언, 꿀교재. 그딴 게 지금 어딨어요. 꿀조언이라고 해보았자 다 뻔한 소리이고, 그리고 꿀교재? 시험 전에 그렇게 팔아대던 교재들 올해 시험 과목 난이도 적중도 못시키고 발가락 닦은 것 가지고 적중했다고 야단법석 떠들면서 '또 호구가 되어주세요'이라고 있는 판이죠?

현실적 조언은 군대부터 다녀오는 겁니다. 왜냐면 군대가 걸리는 이상 공부도 집중할 수 없기도 하고 우선 내년 입시, 올해 출제 경향으로 보아서 매우 불확실해졌습니다. 한국사 추가되었고 수학 출제 경향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빨리 하고 싶다면 돈 생각하지말고 그냥 재종 따라가는 게 답입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ebs 따라가면 될 것이지만 자제력과 공부 관성의 문제가 걸리지요.

요약하면 우선 군대부터. 이거 다른 상담도 한 적이 있는데 최소한 군대 빨리 가서 후회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상담해서 강경하게 군대부터 가라고 했는데 군대 빨리 가라 한 걸 고맙다는 쪽지들은 받았네요(...) 다녀온 다음 군자금 모집해서 재종학원 가든가 아니면 EBS 인강 위주로 죽어라 공부한 다음 사설 인강 중 좋은 것만 골라 잡고 마무리 잘하는 게 해답입니다.

8.12 [상담 011] 하밀카르님의 경우

2015.11.17

안녕하세요 ㅎㅎ 하밀카르입니다 저를 아마 간간히 보셨을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매우 게으른 탓에 공부를 제대로 안했다 봐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왜 자퇴를 그렇게 반대하는지 몸소 체험했네요 이리저리 평계는 대지 않겠습니다 제가 못난탓이니.. 그래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탓에 포기할 수는 없으니 apoc님께 간절히 도움 요청합니다

국어는 박광일의 기출분석을 다 듣고 1년내내 기출뺑뺑이를 돌리려 합니다 인강은 부족한 부분.. 생기면 듣고(안들을 듯 하네요) 대종쌤 보편세만 들을 겁니다

영어는 상변쌤 구문커리 타고, ebs 돌릴 생각입니다 어휘끝도 꾸준히 돌리고요 팝송을 달고 살아서 그런지 신기하게 독해는 술술되는데 단어가 잡네요

생1은 큰 걱정은 안됩니다 교과서+기출 위주로 가고 한종철 프페가 있긴 한데 개념 돌리고 유전 파트만 심화강의 들어보려 합니다

지1도 내신때 했어성.. 생1처럼 하면 될 듯합니다

문제는 수학입니다 제가 초중고 모두 수학 문제집 한권을 제대로 풀어본 적 없는 게으름뱅이 빠가사리일 뿐만 아니라 자퇴하기전 마지막 수학시험에서 30점 나온 풍명청이입니다 신기하게 모의고사는 1등급이었는데, 그건 다 등급컷이 기형적으로 낮아서 그런겁니다 제 수학 머리는 딱 1을 알려주면 1을 아는 수준입니다 계산 더럽게 못하고 공간감각 꽝입니다 애구구.. 아 이렇게 쓰니까 희망이 없어보이네요

제가 끈기하나는 죽입니다 상받고 싶어서 밤새서 파이500자리까지 외워봤고(대체 왜 했는지 이해불가..이상한 잠재력이 있어요) 1학년때 친구가 놀려서 문제집 6권 풀고(수2 앞부분) 교과서랑 프린트 10회독 가까이 했는데 86점 나왔습니다 물론 그 후로 문과로 옮긴다 다시 이과로 옮긴다 학교를 어쩌구 저쩌구.. 휘청휘청.. 이꼴이 났지만.. 별 수 있나요 이제라도 하는수밖에요

재수는 정말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는 의대입니다 검정고시 공부는 쉬는시간에 틈틈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다음주까지는 시골에 있을텐데, 그 이후로는 apoc님 말씀대로 공부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수학개념은 생각의 질서로 빨리 돌려버리고 교과서로 다시 틀 잡고 아니 그냥 교과서는 외워버리려구요 머리에 남지를 않아서.. 국어, 영어가 '상대적으로' 튼튼합니다 국어는 작년a 100 작년b 96 이었고 영어는 ebs안보고 97이었습니다 둘다 하루에 1시간 30분 이상 투자하지 않으려구요

강필선생님의 ox학습법으로 쎈을 하루에 최소한 100문제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월화수목 양치기 금 친구 스터디(전 x지우고 어휘끝) 토일 양치기+개념총복습

이런 식으로 쎈 - rpm - 일품 이걸 아마 3월달까지 끝내고 그 후에 기출을

풀려고 합니다

쓰고보니 답정너네요... 이런식으로 공부하면 적어도 시간낭비는 아니겠죠??
수리논술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같은 금붕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칼럼 정말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D

(상담사례 게시글로 올리시던데, 저도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i

마지막 줄을 꽤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면 전 상담할 때에는 끝까지 후벼파는
스타일이니까요.

우선 이 케이스는 주변으로부터 '산만하다'라는 평가를 상당히 받았을 것이며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리 원만하지 않았을 겁니다가 아니라 매우 확정적입니다. 이건 개인비난은 아닙니다. 저도 비슷한 상태를 겪어보았으니까요.

우선 이 경우는 공황장애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 집중력이 강하긴 한데 그걸 통제하지 못 합니다. 또한 공부하든 뭘 하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불안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며 그 때문에 오프에서 주변인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은 매우 선량하고 착한 학생이지만 오래 앓아서 공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사람들과의 소통에도 다소 문제를 느꼈겠지요.

거기다가 이런 케이스는 강박증세도 있어서 완벽주의 집착이 매우 강합니다. 물론 이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심하면 긴장을 자주 하기 때문에 신체의 특정부위가 이유없이 아플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봅시다. 하밀카르님은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일주일 전에 받은 쪽지군요) 이건 전체적으로 지나친 강박과 억압에 쌓인 것 같습니다.

~ 해야한다... 이것부터 버리십시오. 자신을 조이는 것,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님은 스스로가 이자를 늘린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퇴, 검정 고시한 건 모든 걸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자, 과거 빚을 청산하고 모라토리움 선

언하고 새출발하면 된다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고보니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좌절감은 상당히 쌓여있을 테고 지금도 속으로는 분노가 뭉쳤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생각하는 방식과 감정의 문제입니다. 님은 지금 반드시 ~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강박이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공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제 말을 믿기 싫겠지만, 이런 사례는 제가 한두건 본 게 아닙니다. 제가 조언을 했음에도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성격 파탄나고 아주 이상해져서 인터넷에서 분탕질치는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고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의대에 가야한다거나 반드시 ~해야한다라는 것을 다 지우세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지고있는 짐부터 다 벗어야합니다. 목표를 최소한으로 해야해요. 대학입시 생각하지말고, 우선 '검정고시'만' 공부하십시오. 대신 검정고시를 수석급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님이 확실히 수석이 나온다고 확신이 들고 그게 검증될 때까지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우선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검정고시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남아돈다면, 국어 영어 수학 한과목만 잡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경고드ري는데, 방금 말한 검정고시 집중, 그리고 정말 시간이 남아돌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국영수 한 과목만 잡아서 문제집 '한권' 씩'만 끝내길 바랍니다. 만약 님이 여기서 하나라도 욕심부리면, 제가 솔직하게 말하죠. 님 인생 끝장납니다. 저주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밖에 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0대 이후로 욕심은 냈지만, 님이 노력한만큼 하나라도 제대로 성사시키거나 성취한 경험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님 뇌도 주인을 배신하고 싶어하죠. 만약 주인이 더 욕심내다가 아무 것도 못 이루면? 빽친 뇌는 그 주인을 나쁜 방향의 중독이나 타락, 폐인화, 그리고 심지어 사신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검고만 집중하고, 그게 시간이 남으면 국영수 한 과목의 문제집을 한권씩만 끝장내며 절대 강의는 듣지 마십시오. 이야기보면 비웃을지 모르지만, 최근에 계시판 보면 제 얘기가 맞았다라는 걸 확

인하는 글들이 있을 겁니다. 제 얘기 안 듣는다고 해도 제가 손해볼 건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이야기드리면, 전 미운 오리 새끼 고기를 백조고기로 팔아 먹는 것도 잘 하지만 남들이 망하는 것도 의외로 잘 맞춥니다(... 꼭 이런 것만 ...) 그런데 지금 님 커리대로 가면 저건 100% 망합니다.

계획이라는 걸 차라리 안 세우는 걸 권하겠어요. 그 계획을 세우는 님이 지금 현재 평정심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서입니다. 현재는 검고 성공시키고, 문제집을 한권씩 다 공략하는 그런 식으로 '정화'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대로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그걸 인증한다면 그 다음에는 제가 지시를 드릴 수 있고 콕콕 내에서도 님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또 화가 나는 게 저거 보니까 수험사이트의 상술이나 선동에 영향받은 티가 사실 너무 자명하네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인생 말아먹는 과정이죠.

8.13 [상담 012] 9수생의 경우

2015.11.17

안녕하세요 직접 쪽지를 드리는 건 처음입니다 2008년도 수능부터 2016년도 수능까지 한해도 빠지지 않고 수능을 응시해 온 장수생이라고 쓰고 인간 쓰레기라고 읽는 종자예요...

제 인생역정에는 별 관심이 없으실테니 짧게 요약하자면 실력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큼은 하늘 끝까지 치솟을 정도로 높아서 서울대 아니면 안 가겠다고 깁치다가 수능 응시횟수만 차곡차곡 쌓아서 결국은 지금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서울대에 꼭 가야겠다는 강박을 버렸지만 나이는 나이대로

처먹고 꼴랑 한학기 다니고 장기휴학중인 대학은 다시 다니기도 뗏하고 할 줄 아는 게 수능공부밖에 없어서 한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군대는 4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소 늦게 가도 부담이 덜했거든요...

아폭님 방법론을 처음부터 알았으면 일찍 공부를 시작하는 건데 작년에 원서라도 잘 써보겠다고 수험사이트에서 세월을 보내다 11~2월을 날리고 3월부터 공부를 했지요 그나마 이건 그동안에 비하면 빠른 편이었고 평소에는 6월부터 시작하거나 늦으면 8월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그 시간에는 책값과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수험사이트 눈팅이나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내가 N년을 공부했는데 8월부터 시작하면 충분하겠지'라는 잘못된 마인드 때문이었죠

수능 경험이 많다보니 머리를 수능에 맞게 최적화시키려면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몇년 전부터 6시에 일어나는 걸 생활화했었는데 올해는 꼬박꼬박 5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구요 3~6월에는 일주일에 순공부 평균 6시간쯤(한번 앉으면 7~8시간을 하긴 했는데 힘들면 일주일에 이틀씩 놀고 그랬음) 6월부터는 좀 체계가 잡혀서 일주일에 하루 쉬고 순공부 8시간 이상을 유지했구요 9월 모의 이후부터 수능 직전까지는 9시간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요즘 학생이 아니라서(....) 컴퓨터를 했으면 했지 스마트폰 갖고노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러 나갈 때는 아예 집에 두고 다녔습니다 어차피 폰으로 소통할 친구도 없구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올해는 그래도 '예전보단' 공부를 많이 했으니 더 잘 나오겠지 해놓고 시험을 쳐 보니 오늘 결과가..... 익명이니까 뻥튀기 전혀 없이 솔직히 적자면 국어 98 수학 80 영어 88점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쓴 것처럼 공부를 저딴 식으로 했어도 일정 점수는 유지됐었는데 지금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1교시부터 눈앞이 하얗게 되면서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글이 눈에 안 들 어오더라고요 제가 글 읽는 속도가 빠른 편이라 모의고사 볼때는 지문 다 읽어도 40~50분이면 1바퀴 충분히 돌리는데 이번엔 문제 먼저 읽고 지문을 어거지로 발췌해서 읽는 스킬로 간신히 시간 맞춰 풀었습니다

2교시도 분명 지금 풀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겠는데 시험 보는 중에는 워낙 떠는 바람에 다른 쉬운 문제에서도 벼벽거리면서 시간을 까먹는 바람에 아예 21번 30번은 손도 못 댔습니다 졸릴까봐 점심을 아예 걸렀는데도 간밤에 잠을 3시간밖에 못 잔 탓인지 약간 잠이 와서 3교시도 저 꼴이구요 (갑자기 뛴 난이도도 관련이 있구요)

4교시 되니 긴장도 다 풀리고 머리도 맑아져서 그럭저럭 수월하게 5교시까지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밥맛 떨어지는 실패담은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실 테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들입니다

1. 제가 지금같은 밥만 축내는 가축이 아니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육체 노동을 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쪽이 낫다고 보시나요?
2. 공부를 계속 한다면 수능을 또 봐서 한의대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7~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3. 처음엔 안 그랬는데 연차를 일년씩 쌓으면서 위에 서술한 시험 도중 겪는 불안장애? 시험공포증 비슷한 것이 생겨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험 칠 때마다 항상 저 모양으로 별별 떨면서 문제를 풁니다 덜 중요한 시험(토익이나 한국사능력시험)을 쳐보면 전혀 저러지 않구요... 시험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자고 간신히 잠들어도 2~3시간만에 깨 버리는 이상한 증세도 생겼구요 (근데 이 증상은 시험 한두달 전부터 마스터베이션을 끊어서 그런것일수도 있어요 일본인이 쓴 오나금 수기에서 나온 초사이어인 모드랑 굉장히 흡사하더라고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아시는지요? 정신과에 가 봤자 그냥 약이나 주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고 끌이더군요 청심원을 마시고 가거나 정신과에서 준 신경안정제를 먹고 가면 덜하긴 한데 그러면 오후부터 머리가 몽롱해져요

踽으로 공부하다가 이를 악물어서 볼 안쪽이랑 혀가 톱니모양처럼 되는 질병도 얻었습니다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21/2010062102073.html 대략 이런거.... 이것들 다 재수하기 전엔 없었는데 N 수 회차 쌓아가면서 생긴 증상들이라 혹시 비슷한 경우를 아시나 해서요

쓰레기 루저들이 징징거리는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 알지만 정말 누구에게라도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래 외골수여서 학창시절에도 친구가 별로 없었지만 수능 횟수 쌓아가면서 이제 연락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서요 부모님이 거는 기대도 저에게는 무겁고 또 다시 실망시켜 드리는 것은 마음아프고 친척들(특히 외가쪽)은 제가 실패해서 낙오자가 되어버린 걸 내심 고소해하는 눈치입니다

어쩌면 이 생활을 유지하는 게 내심 '편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직도 이러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구요 예전처럼 완벽하게 엘리트 코스를 척척 밟아 성공해서 세상에 군림하겠다는 망상을 버렸지만 어쨌든 저같은 낙오자도 노력하면 보통 사람처럼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쓰던 중에 한번 날아가서 다시 씁니다..... 정말 남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몇 마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만 시험 보면서 겪는 불안에 대해서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험을 9번을 보다보니 한번은 페이스가 무너져서 시험 며칠 전부터 스타크래프트나 하다가 시험보러 갔던 적도 있습니다만 우습게도 그때는 오히려 긴장이 덜 되더라고요 그 당시 점수도 지금

보다는 좋았었죠

이건 그냥 공부를 많이 하는 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궁금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패턴에 익숙해져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떨면서도
어떻게든 푸는데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은 그냥 말립니다

수능을 접고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려고 해도 저 증상이 또 도지면 답이 없
습니다 ㅠㅠ

저에게 개인적으로 답변해주시는 것이 내키지 않으신다면 관련 글이라도 써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수험생들도 (특히 N수생
들) 겪을 수 있거나 겪고 있는 문제일테니 저 말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
움이 될 거에요

브레인 프리즈 상태입니다. 신림동의 장수생들에게 자주 보이는 것인데 공
부를 3년 이상 하면 점차 드러나죠.

왜 그러느냐. 이건 오래 공부하는 건 '감금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9년동안
공부만 했다는 건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징역 9년을 살았다는 것과
근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독방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정신적인 불안감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절대 혼자 공부해서는 아니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소속감을 느끼고 싱크로나이징(?)을 해야합니다. 그런 리듬을 타야 정신적으로
상처입거나 맛가지 않지, 안 그리고 아 나는 성공할꺼야라고 하고 혼자 공부한
다? 맛갑니다요.

1. 육체노동을 하고 기술을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의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자 분이 "해보았느냐"가 관건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공부 안 하고 양 기술 배운다.... 치고 손이 안 부드러운 사

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바도 뛰어본 적도 없고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 만만해보이는 것이죠. 노가다로 뛰거나 기술로 돈버는 사람들이 정작 '공부'는 강조해대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는 함부로 할 말은 아니며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다면 벌써 기술 배우고 육체노동하면서 주경야독을 했겠죠. 육체노동하고 기술 배우면서도 공부하는 분들 있습니다.

2. 그건 님이 결정하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요? 공무원 시험이 좋다? 한의대가 좋다? 이거 디씨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어느 쪽도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다가 안 되면 내가 이 길이 아닌가봐라고 하면서 자신의 계으름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공부하는 사람으면 둘다 합격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사람이면 수능도 잘 보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죠. 반대로 어느 쪽도 하지 못 하는 사람은 수년 지나도 ~로 갈까라는 진로놀이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회피하려 하죠. 어느 쪽이든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제가 보기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3. 3-1 반드시 외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약은 '운동'입니다. 헬스 같은 그런 것 말고, 동네 아줌마들이 집단으로 하는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댄스. 이런 데 참여하십시오. 그걸 3개월 정도 하면 오랫동안 혼자 은둔생활하며 공부하며 생긴 병은 낫습니다. 정신과 간다 그런 거 별 소용없습니다. 혼자서 감금생활하면서 얻어진 병입니다. 이건 사람들과 부대끼고 수다떨고 땀흘려야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시간에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또 합리적인 척하는 간사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우선 병부터 치료하세요. 저렴하게 가서 같이 몸흔들고 땀흘릴 수 있는 곳 당장 찾아 내일부터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정도 땀을 흘리면 왜 진작 그걸

안 했을까라는 후회감이 들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잘했다고 하는 게 동네 아줌마들 가는 요가교실에서 1년동안 몸단련한 겁니다(...)

4. 3-2 친척들이 그러면 아 그런가보다 생각하면 되고, 스스로를 꾸짖고 앞으로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 전 겪는 불안요? 그거야 못 떨치죠. 님은 도망만 쳤으니까. 그럼 어떡하냐고? 불안해지셔야죠. 원래 시험은 불안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장난이냐고요? 님이 겪는 그건 불안이 아니라, 패닉 상태입니다. 불안하다라는 건 본인이 위험에 대비해서 긴장한 걸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 불안함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님 상태는 조금만 불안해도 넋이 나가서 그 불안함을 받아들 이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공부는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생각해야하는 문제는? 그거야 당연히 그런 문제만 자주 풀고 백지에 써대면서 훈련하면 되죠. 그런데 본인의 문제는 잘 아녜요. '스타크래프트' - 게임중독 상태. 님의 뇌는 공부할 때마다 '불안함'을 강조해서, 그 주인이 게임을 하는 상태로 유도하고 있군요. 즉 공부에서 쾌감을 못 느끼고, 게임이나 술이나 여자로 쾌감을 느끼게 되는 상태면 답이 없습니다.

이 조언을 본다면 결국 게임도 무조건 금지하십시오. 과거는 일단 잊으시고 우선 당장 '집단'운동하는 데 가입해서 땀흘리세요. 아울러 공무원을 칠건지 수능쳐서 한의대를 갈건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되 돈이 있다면 학원에 가서 집단생활 하시고, 그게 힘드시다면 도서관이라도 가서 도서관의 공부분위기를 주도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시험당일날 상태를 보아도 그렇지만, 님은 결국 장기간 공부한다고 했다가 게임 등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게임, 술, 담배 등 기타

노력하지 않아도 뇌에 쾌감을 주는 건 무조건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 차단하지 않고서 불안감을 없애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지요.

8.14 [상담 013] 감기

2015.11.17

안녕하세요. 21살 수능망한 삼반수생입니다.... 문과구요. 수능 3 2 2 3 2 맞았습니다..네..망했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한게..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시험을 치뤘 거든요... 전날에 링거 맞고 하루종일 누워 있어도 낫질 않더군요... . 감기 걸린 이유요?.. 저 2학기 6학점 반수고..(공부시간 정말 충분 했어요...하나는 애들이 대출해주고..) 룸메를 과 동기랑 했어요 편하게. 근데 수능 3일전 10시 반에 잠들고 갑자기 3시쯤 깻는데 제가 다 마르지 않은 이불을 덮고 있는겁니다.(룸메는 선의의 행동이었어요...제가 이불차고 자는 버릇이 있어서, 금방 빨래하고 건조대로 말린 룸메 이불을 그친구가 다마른주 알고 덮어준건데.....) 전 뭐지....하고 상황 파악안되고 다시 잠들었죠...(이때까진 왜 감기걸렸는지 몰랐어요.저 항상 도서관 갈때 무조건 마스크쓰고 다녔거든요. 옷 따시입고) 다소 무겁게 여느때와 다름없이 5시반에 일어나서 시뮬레이션하는데 평소보다 너무 힘든겁니다..전 이게 제 의지 문제인줄 알고 더 빡세게했죠....그런데 다음날 일어나니.....열이 진짜 상상초월 할정도로 올라가고...하.....진짜 자살하고 싶었어요....생각 해보니 아 그거 때문이구나...아...이렇게 내 노력이 끝이 나는 구나..... 수능 전날밤..이마에 물수건 몇시간 올려놓고 겨우겨우 잠들고.. 5시반에 깨어나 수능을 보러갔습니다. 반 포 기 한 상태로요. 가면서 제 1년이 떠 오르는데.ㅈ살 ㅈ살 ㅈ살 외치며 갔어요..... 국어 비문학만 개털리고 나머지는 다맞아 3....(이 상태에선 이해가 불가 했어요....비문학외는 다 가벼웠던 지문들이라..) 수학 계산 조온나게 말아먹고 20번 27번. 30번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88 fail..... 영어 가장 자신 있는과목....저 살면서 듣기 처음 틀려봤습니다 그것도 2개나요. 어?거기다 독해도 2개 더 틀렸네요. 빙칸3번째문제.문장삽입문제. ㅋㅋㅋㅋㅋㅋㅋㅋ90점ㅋㅋㅋㅋㅋ 생윤사 올림픽 정신으로 봤습니다.

더 이상 힘이 안나더군요. 9평 생윤사 99% 100% 수능 3등급 2등급 각각 -3문제 -2문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렇게 제 노력은 감기 한방에 날라갔습니다! 차라리 재수때였으면 좋아요! 삼반수 생각이라도 하지 근데 지금은!?!?!?! 사반수요? 헤해 어떡하죠? 군대 언제가죠? 저 어떡해야 할까요? 제 지금 대학이요? 충북대라는 학교입니다 15수능 411맞고 그냥 장학금 받고 닥 반수 하려갔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 어떡하죠? 저 점수로 옮기는 의미가 있나요? 저 다시 '또'수능 봐야 하나요? 저 인생 왜이러죠? 충북대 간판으로 사회나오면 저 뭐하죠?위 몇줄은 넋두리구요..... 1. 군대를 바로 가야할까요?.... 2. 한번.....ㄷ...더?.....그럴만큼 가치가 있나요 대학이?(아 물론 가치 있어서 했죠....근데 더이상...) 3. 그냥..여기서 학점 관리하고 세무사준비할까요? 아.....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까요.....죽고싶네요

감기 조심하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운이 매우 나쁘셨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죽을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죽는다고 해도 지옥경쟁률도 1:100인 시대입니다.

다만 일단 저건 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어는 사실 비문학이 중요했으니 감기 때문에만 다 망했다고 보기 힘들고 수학은 20, 27번 나갔다면 이게 문제며 영어는 자신있다 하지만 그거 9평까지의 쉬운 영어 기준이 아니었나 생각해보아야하고 생윤사는 제대로 난이도 높여 통수 치지 않았습니까?

실패분석해보시면 이거 감기 이유는 20% 정도고 나머지 80%는 평소 공부 대로입니다. 내가 6평 9평 잘나왔는데... 이거 의미없어요. 6평 9평 잘 보다가 본 시험 말아먹은 케이스도 많고, 그 정반대도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기대한 모 학생은 먹지말라던 고까페인 음료 열심히 홀짝거리셔 제 기대를 벗어났(...) 습니다만 정작 채점해보니 공부한 성과는 나더라는 것이죠.

1. 군대는 그건 님 선택입니다. 그런데 빨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언제든 가야하니까요
2. 내년에 해서 승산이 있다고 계산되면 가도 되는데. 이건 좀 아리까리하네

요. 내년 문과 수능 과목과 범위 보시면 되겠죠. 일단 수학은 오히려 늘어납니다(집합과 명제 때문에) 한국사는 필수며 사탐 과목도 바꿔야하겠고 국어는 통합입니다. 만약 지금 님이 12월부터 하루 6시간 공부 달릴 수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군대를 권하겠습니다.

3. 세무사 공부는 쉬운 줄 아시죠?

요약하면 2가지인데 12월부터 하루 최소 6시간 찍고 공부할 수 있다면 1년 더 도전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그냥 입대 신청하고 군대 갔다오고 그 전에 여행이나 하고싶은 것을 하는 걸 권합니다.

8.15 [상담 014] 다시 가닥잡기 시작하는 장수생

2015.11.19

장수생입니다. 나이먹고 대학수험공부하는 사람치고 이런저런 사연 없겠습니까만 그런 관심도없는 남의 사연 많이 들었을거라 짐작하니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금욕적이고 외로운걸 잘 관조하는편입니다. 공부에 습관 붙이는게 힘들었지만 한번 잡고나니 7~9시에 독서실 입실해서 11시에 집에오네요. 물론 중간에 지쳐서 좀 쉬는날도 있지만 공부를 아예 놓진않고 그냥 일찍 집에 가는정도고 2,3개월 지속했으니 한순간 바람은 아닌것같습니다. 일전번에도 수학때문에 문의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사칙연산빼곤 다항식도뭔지 몰랐는데 지금은 미적2 공부하고 확통과 기벡만 하면 되네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가 요새 좀 막막하네요. 날로먹은 고1수학 기름칠좀 해야되는지 미적1도 진도만 나간것같고 생각보다 진도는 잘 못나가고있고..... 그리고 생2지2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두 과목 모두 화학1보다는 나은것같은데, 비현실적인 욕심인가요?

1. 생2도 피하시길 바랍니다. 지2는 만점권을 가정한다면 할만하나 생2는 정말 최고수가 아니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지2하라고 했는데 생2 할 수 있다고 한 몇몇 수험생이 왜 그 때 안 말렸냐고 저에게 –

2. 수학은 천천히 가시길. 절대 빨리 가지 마세요 기본교재 쎈 - RPM 돌리고 일품, 일등급, 라벨까지 다 돌려야 비로소 체화가 됩니다. 마플 기출이 나오면 그것 한권만 돌리고 (일부 마음에 안 드는 해설은 네이버나 EBS 참조) 그리고 8월 정도에 수리논술 문제 하나씩 쉬운 것부터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대로만 해도 점수는 잘 나옵니다.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뿐.
3. 앞으로 3월까지 대략 2~3번의 슬럼프가 옵니다. 아니,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오랜만에 복귀해서 수학점수 말하면서 '말뿐인 조언'만 한 저에게 감사인사표하는 인증글 보시고 자신감 가지시길요.

8.16 [상담 015] 고학생

2015.11.19

수능 끝나자마자 운 좋게 바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xxx 선생님 사무실에서 인터넷 강의 교재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주로 하는 일은 공무원 xx 문제 해설지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한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재 작업이 끝나면, 이것은 제 동생을 넣어달라고 부탁 하였습니다. 다음 할 일은 xx 학원에 나가서 애들 시험지 주고 저는 제 할일하고 선생님 끝나면 다른 학원으로 같이 움직이는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아버지와 이야기를 했는데, 공부 해도 좋고 공부란 평생 하는 것 이니까. 어떤 공부를 해도 좋다고... 그런데 당신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순간 아... 위에 써 놓은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게되면 제 황금의 3개월은 아마 날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 겨울방학때 수업이 꽤 많고 방학 후에 한가 한것 같아요. 뭐 저랑 제 동생이 가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일단 제가 선금으로 돈을 50만원 받았는데,

◆저는 이 돈으로 질문하는 학원에 다니려고 했는데, 9수생 친구 이야기를 보니 차라리 이 돈으로 요가를 다니는 것이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계획은 5시반 기상노량진 xxx가서 xxx 선생님 강의 듣고 돌아오면 대충 10~11시 사이 아파트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점심먹고 저녁먹고 공부하고 9시 30분 부터 요가 집에 와서 11시 반까지 공부 주말에는 질문 받는 학원 격주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질문 받는 학원 선생님은 일단 수 1 수 2 쎈수학 한번 빠르게 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12월 중순까지 사무실에서 살까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갈까 생각중입니다... 집에는 알바한다고 이야기 안했습니다. 제 동생 알바급여를 주택 대출로 갚고 해서... 참...그렇습니다. 번거롭게해드려 죄송합니다.....

아 참 그리고 릿딧밋에 관한 것인데, 제가 부대에서 릿딧밋 이야기를 그 서울대 로스쿨 다니는 친구랑 이야기했을 때는 그 친구는 닭잡는데 소잡는 칼 쓰는 격이니 차라리 영어공부를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관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음... 비문학 마지막 지문 풀고 있을 때 20분 남아서 -- 저는 어이없었지만 제 실력이라 보입니다. ○올해 릿딧밋을 건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기본교재 X 회독수 + 문풀량 X 문제난이도)고난이도 문제를 혼자서 설명하고 풀 수 있는 비율X10 대충 정리한 거지만 일단 수험은 저걸로 좌우됩니다.

쪽지만 보아서 상황을 잘 알 수는 없는데 노력을 많이 하지만 지나치게 학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접근해보지요.

1. 강의는 EBS로도 충분하고 넘칩니다, 심지어 EBS조차도 번거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콕콕에서 이번 시험에서 비주류 - 제가 권한 방법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인강은 정말 아주 조금, 적당히 들고 문풀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최소 공부시간 유지하는 경우가 잘 나왔습니다. 또 혀락없이 자기 언급하냐고 하는 모양은 핫식스 뽕에 취한다... 라고 해서 말아먹을 위기였으나 공부한 내공 어디 안가고 나올만큼은 나오더군요.

제가 권하는 건 그겁니다. 만약 님이 작년에 독학만 했다면 올해 학원에 의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작년에 학원에 많이 의존했는데 성과가 미미하다면 그건 학원강의를 안 들어서가 아니라 혼자 읽고 풀고 정리하는 게 부족해서입니다.

학원을 줄이면 그만큼 비용도 감소됩니다. 정말 급하면 EBS만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EBS를 완강해도 모자라면 학원을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2. 학원을 줄이는 대신 스탑워치를 지참하시고 그걸 기록해보시죠. 하루 공부시간은 순공부 7시간 제안하겠습니다. 적다고 느껴지겠죠? 2주간 해보시죠. 할 수 있나. 현재부터는 하루 순공부 6시간으로 8월까지만 꾸준히 해도 올라갑니다. 한가지만 일러드리면 이 순공부 6시간 비웃는 친구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것도 안 하더군요.

학원을 줄이고 걸어서 30분 내외인 도서관에 다니세요. 식사는 도시락 등으로 때우시고 모든 돈은 참고서와 문제집, 그리고 프린트에만. 그래서 하루 6~7시간동안 스탑워치로 시간재가면서 공부하는 게 학원보단 낫습니다. 그럼 모르는 건? EBS를 전격 이용해도 좋고 수험사이트 질문게시판을 이용하십시오. 그럼 너무 늦... 혼자서 책도 찾아보고 풀이도 궁리해보면서 해결해보려고 하세요. 여태까지 그런 걸 안 하셔서 문제였던 겁니다.

3. 다른 애들은 어떤 사교육서비스를 받나... 그거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눈 감고 귀닫으세요. 궁금하시면 올해 그토록 떠들어댔던 문제집, 실모가 실제 수능과 얼마나 일치했나 확인해보세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상 쓸모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으나 일단 콕콕만 보더라도 성적은 '공부한 만큼' 나왔습니다. 공부한만큼 안 나왔다면 그건 특정 강사나 교재를 안 보아서가 아닙니다. 사고의 결함이 있거나 결핍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4. 남들 뭐하나 보지말고 자기확신을 가지고 학습량을 꾸준히 적분해나가세요. 공부의 비결이라는 게 별 게 없습니다. 작년에는 저 혼자 일일히 답변해야했으나, 지금은 제가 상담해 준 사람들이 상담해줄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그 분들이 저보다 낫죠(왜냐 직접 시험을 쳤으니까) 이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8.17 [상담 016] 디메님

2015.11.21

이과 생1지1 응시했습니다. 작년 수능 3 4 3 2 3 올해 수능 3 2 2 1 1 (가채점) 집 근처 대학을 다니다가 4월 즈음에 이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1학기 마치자마자 휴학을 하고, 7월 중순이 넘어서 수능을 한 번 더 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강의와 교재를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를 커뮤니티 사이트 대부분을 찾아보다가 콕콕으로 왔고, 이것저것 들어보고, 공부해보면서 50일 분량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9평이 끝나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50일동안 초시계로 21538분, 하루에 7시간 조금 넘는 시간을 투자했고, 공부했던 것들은 국어 마닳 1권 3회독, 2권 2회독 플러스 알파닷 2회독 수학 지학사 교과서 익힘책 3회독 개념 백지복습 N회독 5개년 연도별 기출 5회독 수능특강 2회독 + 틀린 것 해설포함 통암기 수능완성 2회독 + 틀린 것 해설포함 통암기 영어 E 적중 300제 지문만 3회독 고교영어듣기 실전파트 1회독 수능완성 실전편 듣기

1회독 파이널 그림에도 불구하고 완강 생1지1 수능특강 2회독 + 막힌부분 강의 수능완성 2회독 + 막힌부분 강의 자이스토리 1회독 수능기출플러스 1회독 수능공부를 시작한 목적은, 사실 딱히 하고자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주 4~5 일정도 정시출퇴근 하면서 단란한 가정 꾸리는 것정도.. 그래서 떠오른게 수능으로 치대나 한의대에 들어가는 것, 또는 7급, 9급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는 것. 예상 외로 노력한 것에 비해서 감히 받기 힘든 점수 받았고, 여러 사이트 모의 지원 해보면서 지방치대, 한의대를 기대해볼 수 있는 점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은, 제가 여러 사이트를 돌아보면서 생각했던 공부의 방향이 맞는 것 같고, 이대로 50일이 아니라 300일을 투자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거라는 것.. 틀리면 안되는 문제들을 틀려서 점수를 꾀나 많이 깎아먹은 것(국어 화작 / 수학 21, 29, 30 맞추고 그 앞 주관식 실수 / 영어 듣기 등).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듭니다.. 학교를 다니다 몸이 안좋아서 1년정도 치료를 받는 등의 이유로 수능은 두번째지만 나이로 치면 스물둘 미필4수생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요약하면 수험방법은 알았는데 학습량이 터무니없고 몇몇과목은 선정교재도 부족한 경우다. 이건 사실 너무 노골적이라서 굳이 충고할 필요가 있나 그러는데 일단 국어부터보자.

교재비평이 되니까 조심스러워지지만, 국어를 저 '교재만' 보고 점수가 잘 나올 리는 당연히 없다. 수험가에서 웃긴 얘기가 이 교재 한권이면 그 과목이 완성된다는 식으로 자랑하는 교재들 있는데 단언코 말한다. '거짓말'이다. 선택 한 교재가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저 교재만으로 국어 실력이 오를리는 없고 그래서 성적이 납득이 간다고 보는 케이스다.

콕콕 내에서 국어가 잘 나온 케이스. 거의 다 미친 듯이 양치기한 경우다. 그것도 그렇지만 난 국어에서 어떤 패턴교재를 찾는 건 미친 짓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썰 풀어보자.

수학은 패턴화를 했다가 탈패턴화로 가야한다. 왜냐면 출제자는 기존의 정해진 패턴을 변형하거나 신패턴을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어는 반대다. 국어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패턴화를 해야한다. 아니, 국어가 왜 패턴화를 해야합니

가. 간단하다, 국어가 패턴화가 안 되면 정답이 절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패턴화된 교재를... 헛소리다. 패턴화라는 건 본인이 국어문제를 많이 풀면서 지문을 읽고 그걸 '공식화'하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패턴화를 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어공부를 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문학, 비문학 지문이 주어지면, 그 지문들을 읽고 소재, 화제, 주제를 파악하고 여러 각도로 해석해보고 하는 것은 무질서해보이는 지문을 질서있는 소재, 화제, 주제, 글의 논리적 구조와 같은 패턴으로 바꾸는 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그 지문에 딸린 문제들은 절대 그 패턴을 못 벗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어교재든 만족스러운 건 없다. 왜냐면 그 패턴이라는 건 수험생 본인이 만들어내야하는 거니까.

본인은 화작을 틀렸다고 한다. 이건 원인과 결과가 너무 뚜렷해서 딱히 조언 줄 수는 없겠지만 만약 내년에 다시 한다고 하면 저 교재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수학의 경우는 교재접근과 방법은 좋았다고 본다. 다만 '교재량'은 3배로 늘렸어야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저걸 안 벗어난다. 그러나 문제는 저것만 공부해서는 수리적 사고가 숙달될 리는 없다. 21, 29, 30을 맞고 다른 걸 틀렸다면 이건 숙련의 문제다(매우 안타까운 케이스가 아닐 수 없다)

영어는 뭐. 대부분 저렇게 공부해서 통수맞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한다.

본인은 매우 깔끔한 성격이고 논리력이 좋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깔끔한 사람들은 복병에 약하다. 그래서 공부방향이 맞다라는 확신은 격려해줄 수 있지만 '위험하다고' 지적드린다. 시험공부를 한다는 건 늘 예기치 못 한 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다. 수험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존심, '자기 확신'이다. 특히 디메님 같은 분은 올바른 방법론을 갖고 있더라도 자기확신에 빠지기 쉬워서 불의타에 당하기 좋다는 걸 지적드림.

국어를 제외한 교재방향은 내가 권하던 바라서. 다만 분량 면에서는 수학과 영어는 많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고 아울러 이렇게 핵심만 집중하는 깔끔한 성격은 불확실한 출제에 당하기 좋다.

8.18 [상담 017] 목표는 타율적인데 방법이 자율적인 케이스

2015.11.23

문과졸업생이지만 이과로 시험보고싶다던 군복무 중인 놈입니다. 아재와 매일 주고 받은지 1달여가 흘렀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휴가나가서) 결론은 문과로 준비해서 대학을 가는 편이 낫겠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내신이 2점 중반정도 되니, 문과였으니 문과로 수능을 준비해서 교대를 노력보는게 좋겠다고 말입니다.

제대하면 나이가 벌써 23입니다. 아재 생각 어떠하신가요? 죽대 없어보여도 불안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태 제가 주도로 해온 선택은 모두 나쁜 선택만 냈거든요

작년 재수할 때도 자신 있다고 6월 평가원 이후 학원 나온것, 독학재수 시작 해서 주변 조언 모두 무시한것 아무리 망쳤더라도 서울 낮은 곳 원서라도 쓰지 않은 것 등... 모두 나쁜 결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하고싶은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과로 돌려서 준비하는 것도 의치한수를 가고싶은 것도 안정적인 자격증의 힘, 대학진학시 미래와 직접연결되어 있는 것, 다른 직종에 비해 QOL이 나은 것 등...

이거아니면 죽는다는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지 상담을 거듭할수록 마음먹은 쪽과 다른쪽으로 결과가 나올때 제선택이 또 잘못될까봐 번뇌에 휩싸입니다.

문과로 가서 교대를 준비할지 이과로 가서 의치한수를 노려볼지

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타율적인데 방법이 자율적인 경우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표는 자율적인데 방법은 타율적이죠.

다시 말해 자기가 하고싶은 방향으로 감, 대신 방법과 과정은 절대 고집 안 부립. 가령 내가 음악가가 되고싶다라고 터무니없는 목표 잡는다고 하더라도(요즘은 음악가 되는 건 터무니없는 건 맞죠) 그 길을 향해서는 선배나 성공한 사람, 그리고 학교나 학원의 조언 충실히 듣고 남이 하라는대로 해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은 왜 실패했느냐면 방법에서는 자기 고집을 피우는데, 목표는 남의 말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목표는 남이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뭐가 좋느냐 그렇게 살 거라면 인생 전체에 있어서 다 남이 시키는대로 할 겁니까? 남이 시키는대로만 하면서 자기 혼자 꿩꿍대는 게 바로 '노비'입니다.

겁먹어서 안정적인 길 찾으시는데.... 안정적인 코스가 지금 어딨습니까? 그런 거 있어보았자 경쟁자 몰려서 바로 아작나는데.

23살이면 늦은 나이 아닙니다.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해결하고 별어먹을 준비가 되어있는냐가 중요한 겁니다. 남이 하고싶은 길 정하고, 그걸 준비하는 필요한 시간, 노력, 금전 자원 계산해보고 그 다음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참조해보고 그 다음 자기를 감시해주거나 조언해 줄 파트너 부탁해서 선정하세요.

이 길 가면 망하는 것 아냐... 한마디합니다. 그런 걸로 고민할 거면 양 죽는 게 낫습니다. 안 망하는 길이 어딨습니까. 중요한 건 망하는 길로 가더라도 '안 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해도 망하기 좋은 길 같은 게 있죠(가령 과탐에서 2과목 선택을 선불리한다거나) 그러나 크게 망하는 길일수록 잘 보면 크게 흥하는 루트도 잘 보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 거기서 성공하려면 어떤 루트를 밟아야하나 하나하나 각론적인 걸 따져본 다음 중요한 것부터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8.19 [상담 018] 공대계열진학

2015.12.02

혹시 아폭님이 쓰신 글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인증까지 해봅니다. 나머지 과목은 못본걸로(...) ㅋㅋ; 그래도 반신반의 했던 성대 공학계열에 수시로 붙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아폭님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M

잘 치셨네요. 공대 계열로 진학해서 수학하신다면 1순위 : 영어 2순위 : C++, 엑셀, 통계프로그램 (기계 쪽이라면 CAD/CAM) 3순위 : 공학수학

입학 전까지 영어 파시고 토니 콕타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적표가 전반적으로 그 주인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게 부정할 수 없군요.

8.20 [상담 019] 이과수학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케이스

2015.12.02

일단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수학b형 6월에 4등급이었다가 8월쯤에

칼럼(정리론)에서 복습하라고 하고 3월부터 언제 까지는 미리 양치기 했어야 했다고 말씀하셔서 압축으로 8-10월 초순 까지 기출 일타삼피 일격필살 등 계속 양치기하고 11월까지 복습을 계속 했습니다.(9월은 2등급, 수능은 1등급이 나왔네요 ㅎㅎ..)(기출은 2주만에 2014-2016.9까지 3회독, 일타삼피 기백 2회독 나머지 5회독, 일격 틀린문제들 2회독) 이렇게 했네요.. ㅎㅎ

일단 저는 고3으로 수능을 쳤고 6월은 54433, 9월은 42413, 51435(익명이라..밝히겠습니다.)을 받고 재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학, 과탐은 그나마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칼럼을 보고 응용을 하여 어떻게 적용해야지 등을 느낌이 와서 하게 되었는데 국어나 영어, 과탐 같은 책을 30회독 이상씩 해보고 머리에 반복반복 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오르지가 않네요.(공부 비중은 국어·영어·과탐·수학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위에 공부 방법의 문제에 대한 상담도 받아보려고 셋지만 사실 진짜로 상담 받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 저희반에 공부 시간은 별로 인데 성적이 계속 잘나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를 계속 따라하며 저도 성적이 오르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성적이 오르니 안도감이 들면서 공부 시간은 늘어 가는데 계속 성적은 원위치로 돌아오더라구요.(원래 -; 오름 -; 살짝 더오름 and 유지 -; 원상태)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 문제는 알겠는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상담받고자 상담을 쪽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ㅎㅎ

일단 이건 꽤 보기드문 케이스인거라. 우선 용기있게 제 방법론을 실천해주세요 수학성적을 올리신 것에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 과목을 공부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30회독했다면 이건 다른 문제겠죠. 수학이 저렇게 올랐다면 이건, 공부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안 하셨다는 이야기이고 그나마 수학은 갈피를 잡았단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는 왜 그게 가능한가 분석해보니까 수학은 그나마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가 있었지만 국어, 영어는 초중고1까지 공부가 부진하거나 기초가 없지 않나 조심스럽게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영탐은 공부를

비교적 늦게 시작하신 걸로 보입니다(탐구는 일단 어떤 과목인지 알 수가 없고요)

익명처리로 진행되는 상담이니 국영과 탐구과목별로 어떤 교재들과 인강을 들었나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 얘기해주는 게 더 상세한 상담이 되겠죠

8.21 [상담 019-1] 이과수학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케이스 2

2015.12.10

저가 수학은 초등학교부터 엄마가 기탄수학 등을 꾸준히 풀리며 직접 관리해주시고 나머지 과목들은 그냥 중학교 내신 때 조금(?)하는 정도 중학교 내신도 22%였습니다.(아! 윤선생영어교실(?) 초등학교때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책은 진~~짜로 안 읽는 편이에요.(ㅜㅜ..) 친구들에 비해 영어나 국어 읽는 속도도 느리고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도 친구들이 ”국어 못할 껴 뻔히 보인다, 화작문부터 배워라. , 니 설명은 못알아 듣겠다 똑바로 설명좀 해라.”등등의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제대로 이해시키게 설명하려고 해도 잘 안되네요.)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건 고1 9월부터 친구 한 명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국어나 영어는 시작했고 과탐은 고2 겨울방학부터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네요. 과탐은 물1 지1을 선택 했었었구요. 국어는 6월때 5등급을 맞고 xxx 선생님의 xxx강의를 듣고 xx를 2회독 그리고 더 어려운 책(지문이 실려있는 강의책)을 미리 다 이해하며 풀고 하며 2등급 후반 까지 올라갔다가 아! 국어에 대해 이제 조금 알겠다!! 싶었는데 저번 상담에 제시했던 것과 비슷하게 (원래 -; 오름 -; 유지 -; 원상태) 단계로 돌아왔구요.

영어는 xx선생님 강의를 들으며 xx라는 책을 30회독 이상 했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90점 이상(3-4등급)을 올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과탐 중 물리는 xx선생님의 xx을 20회독 정도 했고 지구과학은 xx 선생님의 xx을 40회독 정도 했네요.

친구들이 반복쟁이라고 할 정도로 반복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니 친구들이랑 물리 실모 풀면 1-2등급 왔다갔다 거렸고 지구과학도 고정 1등급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어 영어 만큼은 죽어도 2등급 이상은 안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수능날 국어에서 멘탈이 너무 나가게 되면서 omr에 마킹도 한 두문제 못하게 되고 까지 하면서 멘탈 나간 채로 쳤으나 수학만은 1등급이 나와주더군요. 수학은 40분 만에 중복조합문제, 21번문제, 29번 문제, 30번 문제 빼고는 다 풀고 검토 3번하고 나머지 문제 고민하고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가 저가 수능 망하고 뭐가 문제인지 고민하면서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 공부할때 꼼꼼함이 없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험 생활때 자존심이 문제인지 엄마가 조언하는 말씀은 아니고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옳다(또는 국어나 영어가 안나오니 과외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엄마가 말씀하셔도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등) 하고 밀고 나가다가 실패를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은 이번 수능 실패를 계기로 자존심을 버리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이제 주변 소리를 듣기 싫어하기 보다는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해볼까라는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의가 산만하다'란 얘기를 들었을 것이며 말을 더듬고 그리고 뭔가 리스크를 거는 일을 할 때는 수줍어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서는 성격.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간단합니다. 생각과 행동을 '빨리' 하려고 해

서 그럼. 즉, 성급한 거죠. 그런데 성급하기만 하지 그걸 어떤 '순서'로 해야할지 모르니까 엉키는 겁니다. 이건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다른 선생의 잘못이기도 함. 어느 시점부터 그 '엉켜버린' 것을 정상으로 여기고 성장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해야하는 건 모든 작업에 자연수 번호를 매기고, 그 순서대로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국어든 영어든 읽을 때 끊어읽으면서 ①, ②, ... 을 매겨보면서 어떤 순서를 밟아야하나 스스로 알고리즘을 짜야합니다. 지금은 문풀보다도 10여년 넘게 엉켜있던 자신의 사고 프로세스를 교정하는 작업을 해야합니다. 이걸 안 하면 절대 못 올라가요. 문제를 풀 때에도 무조건 빨리 풀 자라는 게 너무 체화되어있음.

수학이 왜 잘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나마 수학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런 '엉켜버림'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백지가 다 낙서질에다가 라면국물 묻고 엉망인데 수학은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웃지 못 할 일입니다만 이게 본인이 왜 다년간 정체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단 분명 부모님의 잘못입니다. 자기 아들이 어디서 엉켜버렸는가 그걸 모르고 그냥 넌 꼼꼼하지 못 해라고 하는데 저런 식의 지적이라면 누구라도 합니다. 중요한 건 대안이 아닌가요?

수학은 그나마 순서대로 하는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어나 영어는 그게 안 되네요 무작정 인강 듣지 말고, 겸손하게 고1 과정 쉬운 교재들부터 천천히 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님의 잘못된 것들이 정화가 됩니다. 물론 수학과 탐구도 스피드를 버리고 정확한 순서대로 개념을 정리하고 설명해보는 훈련을 해야합니다. 이래서 모든 게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회복되면서 실력이 상승할 겁니다.

우선 국어는 서점에서 신사고 교재 같은 건 아주 잘 나왔으니 그게 수능에 도움이 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읽고 하라는데로 하시고 최종적으로 맷狄릿 지문, 문제까지 풀도록 계획짜고 가셔야합니다. 영어의 경우는 강의보다도 독학용 문법서에다가 구문서 다시 차분히 보시길요. 특히 영어는 전치사 위주의 구문을 살펴보는 수험외적인 책들도 보시길 바랍니다.

8.22 [상담 020] 느리게 가는 법?

2016.01.08

우선 점수로 사람을 판단하기는 힘들겠으나, 그래도 객관적으로 저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점수 일 것 같아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모평은 의미없으니 각설하고 그냥 평타는 쳤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 수능 : 84/84/80/46/45 (한국사 동아시아사)

저는 남의 말을 잘 안듣는 타입입니다. 다른건 모르겠지만 진짜 공부에 있어서는 주변 사람들 다 같았고 제가 짱인 맛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푸는 교재가 짱이고, 내가 듣는 인강이 짱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그냥 최고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수험생활을 했습니다.

어릴때부터 어디서나 리더였고 어디서나 센터에 있었습니다. 제 말을 안듣는 사람은 없었고, 어디서나 꼭 지도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점 성격은 자기중심적 꼴통이 되어갔고, 표면적으로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 남을 쟁기고 남을 위하여 사람을 끌어들였으나 내면적으로는 단지 너희들은 내 편일 뿐, 나와는 다른 계급이다라는 이상한 마인드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을 보면 제가 짱이 아니더군요 ㅋ 분명 저는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폭님께 질문 드리기 직전에도 이걸 물어보는 의미가 있을지 계속 고민했는데 분명 저는 어딘가 잘못되었으니 그걸 꼭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마인드부터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사실 남들보다 하등합니다. 그걸 인정하는게 아직 어렵군요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하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싶습니다. 이건 따로 세

미나라던가 강연 or 탐방이나 여행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독서로 해결 가능한지 애시당초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이 나르시시즘을 깨부수지 않는 이상 저는 그냥 혼자만의 승자로 남아 더이상의 진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우선 수능을 위한 공부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과목은 뭐를 풀어라는 궁금한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제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제 문제점을 진단해 본 결과 크게 3가지로 수능을 망했습니다.

1. 양치기 부족
2. 인강맹신
3. 대충대충하는 태도

1,2는 따로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불찰이라 따로 언급할 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3입니다. 국어가 만년 1등급이 나오면서 탄생한, 제 인생 최대 실수입니다.

국어를 풀때, 비 문학지문에서 1234단락이 있다고 할때 저는 1단락 읽다가 중간에 2로 넘어갔다가 3갔다가 4가고 다시 2갔다가 기억 안나서 다시 3 가고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막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풀리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되니 아 국어 꿀밥이네 ㅋㅋ 마인드가 박혔고, 이게 수학에도, 영어에도 전이가 됐습니다.

영어도 지금 풀때 잘읽다가 3문장 정도 건너뛰고 읽고 틀리고, 수학도 문제 끝까지 안읽다가 된통 당합니다.

전에도 쓴 글 내용인데 나는 먹는다 치킨 근데 그건 튀김옷 ~~~(눈이 아래로 내려감) ~~~~ 치킨은 맛있다! 중간내용 안읽어서 모름; 이게 뭘지;; 논리는 완성되어 있는데 해석을 못해서, 아니 안해서!!! 망하는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습관이 굳어져서 이제 꼼꼼함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결론은 국어였습니다.

국어에서 잘못되었으니 결국 국어로 고쳐야 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국어를 고칠까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책을 읽을 때도 읽다가 눈이 아래로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천천히 모든 문장의 글을 읽어 본지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군요 이제는 그러면 안되겠죠, 우선 하나 하나 한문장을 꼭꼭 눌러가며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잘 안되더군요 습관이라는게 .. —— 다 읽는다고 노력해도 어딘가는 건너뜁니다 계속 이 방법을 고수하면서 뿌리부터 악습을 뽑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대로 공부해보면 정말로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정상적인 남들 1시간 동안 하는 양이 2 라면 저는 0.5 걸릴정도로 오래걸립니다. 이건 대충 산 삶에 대한 속죄로 받아들이고 천천히 느리지만 열심히 교정해 나가면 되는 부분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오프라인 학원 가는 걸 권하겠습니까. 어차피 수험까지 하려면야. 그리고 리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나이까지는 생산적인 일을 해본 적은 없죠. 정말 멘탈 부수고 싶다고 하면 한 일주일잡아서 상하차 알바 가서 추노해 보시거나(...) 봄날에 서울대 같은 데 가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보면서 몸에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나 보시길.
2. 엄청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대로 가야합니다. 느리게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지, 급하다고 꼼수 부려보았자 더 시간만 낭비합니다요. 천천히 읽으면서 머릿 속에 그걸 요약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논리적 검증하면서 왜 이게 답이고 저건 답이 아닌가 '논술'적으로 접근하는 습관 들이 셜야합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 여겨지니 인생 전체를 위한 교정이라 생각하고 가도 좋습니다. 국어공부를 하시려면 해당 지문의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논술할 수준'까지 갖추면 됩니다(이건 타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다) 대충 적당한 등급 맞고 싶으면 서둘러야하지만, 정말 만점 수준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문제를 논술해보이겠다라고 가는 게 맞습니다.

8.23 [상담 021] 자위권

2016.01.10

고3때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한거같습니다.. 그때는 공부도 초반에만 조금 하다 안해서 게임같은것도 거의 매일했고 결국 재수하게 됐는데요 이런건 제쳐 두고 1월1일 딱 된 후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계획은 6:10기상 1시취침인데, 12시 50분쯤에 공부 다 마치고(다음날로 미룰때도 있습니다만) (중략) 하.. 이런거진짜 어떻게 해야될지 정말 고민돼서 쪽지보냅니다.. 간단한 답이라도 해주셨으면 ㅠㅠ

우선 생각해본건 3가지정돈데 1.금딸 - 이건 땡지 모르겠네요..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못한거 정리하고 남은시간에 좀 쉬는데 온라인게임, 디씨같은건 다 끊었는데 미연시 이거는 도저히 못끊겠더라구요 그래서 쉴때는 보통 미연시를하는데 이게 대부분 19금이라(..)..

2.일주일에 한번같이 기간마다 생각해본 가장 무난한 방법인데, 과연 이대로 됩지..

3.공부시간을 야애 조금 빼서 취침시간 맞추기 으.. 이거말고도 방법이 또 있을까요..?

조회수가 가장 높아질지도 모르고 온갖 논쟁이 오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위에 관해서는 ”하면 키가 크지 않는다”, ”머리가 나빠진다”라는 속설이 있사온데 키가 크지 않는다는 건 중학교 때 저런 데 선행학습(...)하던 녀석이 키가 컸기 때문에 반례. 반면 머리가 ’나빠진다’라는 건 절반 정도는 맞다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만화 은과 금에 나온 장면인데 - 그럼 속의 자연인(?)은 원래 대학 교수였던 사람인데 도박에 패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전직 대학교수이지만 감금 당하자 마자 시간도 봉괴되고 자의식마저 봉괴된 걸로 나오죠. 유일한 낙이라면 감옥에 설치된 TV를 통해 포르노가 나오면 그걸 보면서 **자위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위는 '마약'의 역할을 하죠. 그 순기능은 동시에 역기능이기도 합니다. 성욕을 해소해야하는데 못 한다 어쩐다 그런 자질구레한 걸 떠나서, 그걸 하는 이유는 그냥 뇌에서 쾌감호르몬이 나오는 기계적 과정 때문입니다. 위험한 이야기지만 그럼 마약을 한다면 대체할 수 있나, 예. 대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질문은 "규칙적으로 음주, 담배, 마약을 해도 됩니까"라는 질문으로 바꿔도 극단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중독은 '역치'가 있어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소되지 않는단 것이죠. 똑같은 수준으로 관리한다쳐도 그걸로 뭔가 무뎌지기 때문에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규칙적인 자위로 끝날 건가.... 는 건 다소 의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심각한 것은 '공부를 힘들게 하면서 러너스 하이 효과로 쾌감을 누려야하는데' 그걸 자위로 풀면서 러너스 하이 효과를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원동력은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성과를 조금씩 맛보며 거기서 쾌감을 얻고 가는 건데 그걸 자위로 미리 해소해놓는다면 "고행-극복-쾌감"의 선순환이 달성되기 어렵죠. 힘들게 공부할 것 없이 자위만 하면 쾌감을 얻을 수 있다... 면 뇌에서 공부하고 싶어지겠습니까. 뇌에서는 더 많은 쾌감을 얻기 위해 공부하지 말고 자위를 하라는 쪽으로 움직일 터인데 말입니다. 모아놓은 미연시나 자료가 아깝다면 외장하드에 다 박아넣고 꺼낼려면 귀찮은 곳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자료 애착(?)이 있어서 지울 수는 없을 터인데 그렇다면 한번 열람하려면 번거롭고 귀찮은 곳에 저장해놓으면서 자기 행동을 제약한다... 가 가장 낫습니다. 귀찮아서 그런 걸 안 보게 된다.... 는 걸 아시겠고 컴접속으로 그런 자료를 접한다면 그냥 환경을 바꿔서 컴을 쓰지 않는 곳으로 가길 바랍니다. 자기가 중독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마약환자는 없습니다.+ 리플에 답하면 - 공부에 성과가 보이면서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면 자위를 할 필요가 더욱 사라집니다. 카지노에서 잃기만 하다가 대박연전승을 거둔 사람이 자위를 하러 갈까요. 다시 도박하러 가지하라는 공부

는 안 하면서 pc방에서 를 10시간 하는 사람이라면 자위가 뭔지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자위의 문제는 그게 불건전해서가 아닙니다. 첫째, 노력을 안 해도 성과를 준다는 것둘째, 공부하기 싫어하는 뇌가 자위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수험에서 실패하는 게 아니죠. **스스로 무너져내리는 것**이지. 자기가 괴롭게 공부하면서 수북히 풀어댄 문제집과 더러워진 개념서를 보고 어느 순간에라도 공부한 것을 바로 암송할 수 있는, 그리고 공부하다가 날카로워진 눈빛에 만족해야하는데 자위를 한다... 규칙적으로 자위해서 성공했단 케이스는 못 들어보았습니다. ++ 남자의 경우 자위를 하면 체력이 떨어진다.... 는 것도 문제겠지만 사실 가장 커다란 건 바로 '현자타임'(...)이라고 불리는 시간입니다. 현자라고 하면 지력이 올라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요. 실제로는 가장 명청해지는 상태입니다. 우선 인간은 유전자의 명령을 받고 있는 동물인 것을 전제해봅시다. 공부하는 이유는 물론 공부가 좋아서이겠지만 대부분은 '힘'과 '돈'을 갖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돈은 당연히 매력적인 배우자를 갖거나 정복하는 것도 전제하는 것이지요. 차분히 공부하는 남학생도 내심으로는 좋은 대학에 가서 상위 1% 이상의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는 무의식으로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시사적으로 보여주는 게 영화 내부자들의 그 접대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이 영화가 화제가 되었던 것도 그 악인들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그런 장면을 겉으로는 욕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선망'해서이죠. 그걸 보고나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자위를 한다고 하면 저 욕심이 사라지겠죠. 공부 안 해도 좋아, 자위만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 라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자기를 불태워서라도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뇌에서야 주인 인생이 어찌되든 말든 오늘의 쾌감을 달성했다 하면 더 이상 학습하려 하지 않겠죠.

8.24 [상담 022] 글쎄올시다.

2016.01.19

저는 재수하던 시절 중간부터 강박증세, 공황장애 비슷한 걸 겪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한순간도 집중을 놓치면 안되고 시간을 허트루 쓰지 않아야만 하고, 반드시 SKY에 가야만 한다는 강박증세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너무 심해지니 병으로 도져서.. 가슴이 계속 답답해 숨도 잘 못쉬겠는 너무 힘든 날을 보냈었습니다.

그 때 생긴 마음의 병이 계속 남아 결국 공부도 원하는 만큼 못하고 수능도 망쳤었고 점수에 맞춰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니 그 당시 강박때문에 힘들었던 증상들이 서서히 잊혀지기는 했지만 간간히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고.. 완전히 치료한 게 아니라 그냥 덮어둔채로 살아왔었습니다.

9월까진 나름대로 잘 끌어올렸다고 생각하여

국,수,영,생1,지1 등급이 3 2 3 1 2 가 나왔었고 원점수로는 93 96 94 47 40 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결국 자기가 나올 수 있는 가장 다운그레이드한 성적으로 나오더군요.

결국 국,수,영,생1,지1 등급이 4 2 4 2 3 이 나왔습니다. 과목별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하였고 이번에 다시 하면 자신이 있습니다.

제 고민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저는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댓글로 한 번 길게 상담을 받은적이 있었는데..

”이과라면 굳이 학별 높이기 위해 다시 도전해볼 이유가 없다. 의치한 같은 전문직을 가는게 아닌 이상.”

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많이 고민을 해보았는데 사실 답이 잘 안나옵니다.

저는 이과지만 문과적 소양이 더 강한 학생입니다.

저번에 아폭님께서 산업공학과에 대해 간략하게 글을 쓰신걸 봤었는데.. 저는 학교는 어쩔수 없이 맞춰서 간거였지만 학과는 원해서 온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과 특성상 공대의 다른 학과들처럼 이과적소양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학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공학과는 제가 이과이면서 CEO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가게 되었던 곳이고 나름대로 매력을 느끼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분야로 나아가 기술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고 싶단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아폭님이 다른 문과학생들에게 학별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준 것과 비슷한 이유로

저 역시도 학별을 높이는게 많이 중요한 일 아닐까요?

사실 지금 학교를 졸업하면.. 남은기간 열심히 학점 따고 이것저것 스펙 쌓으면 대기업 들어가는게 그리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딱 그렇게 멈추게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열심히 돈 벌고 모으는것에 인생을 전부 쓰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사는게 평범한 삶이고 사실 이런 평범함을 이루기가 굉장히 힘들고 대단한 삶이라는걸 압니다..(보통 중간에 짤리겠죠..)

이런 삶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전 뜻이 그 쪽에 있지 않다보니 이 길을 걷고 싶지가 않습니다.

말은 멋있게 하지만 아폭님이 칼럼에서 말씀해주셨듯이 아직 만족하고 싶지 않고 더 욕심을 내고 싶은것 뿐입니다.

물론 이 길을 걷는다 하여도 100% 그런 삶을 살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그 때의 상황에 맞춰 제가 변화하고 도전해볼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확률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간판을 SKY로 높이는게 내 삶에 있어서 더 이득인가,

그냥 여기서 다른 노력을 더 해보는게 이득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좁은 시견으로 명확한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정답'은 없겠지만 아폭님처럼 시견이 넓으신 분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다시 SKY를 가는게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비생산적인 일일까요..?

(SKY만 가면 무조건 성공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려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시작일 뿐이죠....

그 출발선을 높이고 주변 환경을 좀 더 좋은것으로 만들고.. 아직 잘 모르겠는 사회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유리천장 같은것을 넘어서고 싶어서 SKY에 대한 도전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도전을 성취해내서 생기는 더 높아지는 자존감도 있을테구요..)

결국 제가 끌리는대로 선택을 하면 되는거지만..

2. 다시 하게 되면 이번엔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투과목은 지2밖에 할 자신이 없고.. 가장 완성되어있던 과목인 지1을 버려야 한단계 많이 아쉽습니다.

이거까진 그럭저럭 넘길수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투과목의 백분위가 헬이다보니

지금 제 성적대에서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게 욕심인지 아니면 가능한 도전일지 궁금합니다.

(투과목에 있어서 아폭님이 많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것 같아서요.. 저 역시도 불안한게 사실이구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6월까진 생1,지1,지2를 다 공부해보자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러다가 지2가 이번에도 폭발할 분위기면 지1으로 돌리는쪽으로..) 제 통찰력으론 어느정도 선에서 지2를 그만둬야 할지 감이 잘 안잡힐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아폭님의 조언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입니다. 님이 뭘 하고 싶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으며 어떻게 공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안 나와있습니다. 말씀하신 등급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슷한 데 있는 사람은 널렸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님이 SKY를 가든 대기업을 가든 그 뒤는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꾸로 대기업에 가서 임원이 될 수 있었는데 SKY 간다고 수능쳤다가 맙아먹을 수도 있고, SKY에 가서도 안 풀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전에 대기업에 가서라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럼 자기가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에서 뭔 일을 할 건지 안 나와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해놓고 비교하는 건 상당히 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내로 수능쳐서 SKY에 합격한다면 지금보다 '나을' 건 자명합니다만 문제는 그게 가능하냐의 여부이고 실제로 본인이 얼마나 공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글쓰는 것으로는 사업에 부적합합니다. 행동은 자기가 하되 판단을 남에게 맡겨서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면 그냥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으로 사는 게 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적게 번다고 탓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니까요. 반면 자영업자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됩니다. 왜냐면 빚도 많이 지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행동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이 날라갈 수 있는, 하다 못해 자기 아들을 머슴, 딸을 술집여자로 만들어버릴지도모르는 위험한 선택도 본인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대접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평범한 삶을 살기 싫다고 하는 데 질문은 매우 평범합니다. 사업을 하고 싶다 어쩐다하면 SKY는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본인이 좋은 아이템이 있고 사람 부릴 줄 알며 여기저기 다리도 잘 놓고 빚이 수억이어도 허허 웃을 줄 아는게 중요한 것이지, 나 공부 잘 해서 SKY 졸업장 땠다 이런 건 상관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포부라면 님이 저에게 사업안을 얘기해줘야할 건

데 그거 물어보면 답은 없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게 없다면 그건 좋게 말하면 몽상이고 나쁘게 말하면 망상입니다.

다만 공부를 잘해서 간판따고 싶다면 목표라면 주저할 것 없이 1년동안 빠세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전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나 공부해서 미쳐 죽을 것 같다라는 하소연을 했어야하는데 같은 질문이란 거죠. 이렇게 텀 주면서 같은 질문하는 사람은 반년 뒤에도 또 같은 질문하더군요.

과탐 과목선택은 공개적으로 말할 건 아닌데 이걸 수학 이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하던 건 2년 전부터 얘기했던 바라서요. 그런데 지금 공부하려면 등급 보다도 넘 하기 쉬운 것 하세요. 만약 지금 공부 그냥 하는 수준이면 서울대는 커녕 한양대 에리카도 힘듭니다.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는데 날로 n수생은 적 체되어 쌓이고 있고 수험 노하우는 미친 듯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소위 수험생들 돈 갈취하는 업자들이 다시 수능쳐도 좋은 대학 갈 점수 나올가.... 그렇지 않을 걸요. 다년간 죽어라 공부하면서 겉으로 공부 안 하는 척 하는 애들이 입시에서 잘 나갑니다.

지금 질문한 상황보면 이런 걸 고민할 게 아니라 빨리 문풀하면서 공부에 미쳐있어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콕콕 내애서 입으로만 공부하겠다... 저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실제로 매년마다 합격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겠다라고 말한 적도 별로 없이 북괴가 땅굴파듯 남몰래 공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입으로만 공부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교재들이나 구입해서 부모나 자기 등골이나 빨아먹고 인생낭비 할 가능성도 있고.

이제 1월인데 추상적인 이야기는 그만두고 공부하는 이야기나 합시다.

8.25 [상담 023] 내년 바라봐야하는 케이스

2016.03.28

저는 열등감이 심하고 환경탓을 하는 재수생입니다.

고3땐 공부를 해보겠다고 인터넷에 여러좋다는 인강을 다 신청해 듣기만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 누구보다 인강강사를 꾀뚫고 다녔지만 정작 하위권이였습니다. 이과였지만 수학을 a형으로 돌리고 수능을 봤습니다. 국수영물지 44564로 기억합니다. 그후 공부를 아애 안하던 친구들과 같은 대학을 간다는 것이 자존심이 너무상해서 아무런 생각없이 재수를 한다고하고 부모님과 대판 싸웠습니다. 부모님은 어쩔수없이 허락을 해주셨고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것과 달리 공부는 전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건 뭘까 하는생각에 아무생각없이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서 걸어오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후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꽉 들었습니다. (2월쯤) 몇일간은 공부법같은걸 짜면서 시간을 보냈고 마지막으로 고3때도 들었던 모 강사님의 쓴소리 영상을 듣고 공부를 하려고 영상을 들었는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가 쓴소리 영상을 듣고 울거라곤 생각치도 못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작년보다 열심히 하고 (10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부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방법이 계속되고 있다는것을요.. 전과목을 인강을 듣고있었습니다. 60%이상은 강의를 듣느라 허비했었습니다.. 수학은 주제도모르고 또 개념도 없는채 상위권 강사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여태까지한 공부가 아무 쓸모없는 것같고 강의를 들은 부분을 다시보니 기억이 안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실패한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되서 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말라는 모든것을 열심히 실천중이였고 실패로가는 지름길을 그 누구보다 빨리 달리고 있었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이제와서 또 공부법을 물어보는게 기분나쁘다고 하신글을 읽고 평계같은.. 말로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공부한것은 국어 : 개념강의 끝 , 마닳 진행중 영어 : 문법진행중 수학 : 미적1 2 통계까지 기본강의 미2 알텍같은 강의를 듣고 있고 복습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풀이를 외운정도에 미적 12 확률 강의는 거의 날림으로 들어서 남는게 없어서 노베이스라고 생각됩니다.. 과탐은 개념강의 한바퀴돌리고 교과서랑 함께 복습중입니다. 길게 주저리 주저리 죄송하고 기분나쁘셨다면 재차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은 없앨 건 없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비굴해보일 수 있는 표현은 진심이 아닌 것에나 가깝고 업자나 좋아할 이야기입니다.

우선 님의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의 흔한 전형입니다. 공부 하겠다... 라고는 하면서 좋은 인강은 찾는데 시중교재도 제대로 풀지 않은 것이죠. 그럼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자기가 불성실하고 게으름 피운다는 전제 하에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최소 공부량” 정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강의가 이해가 안 가는 건 ’강의 내용을 이해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끝까지 들으면 공부가 될 것이다”라는 잘못된 신념, 거기다가 이미 두뇌가 그렇게 최적화되어버린 겁니다. 본 사연에서는 안 적었겠지만, 강의듣는 시간 말고 나머지 ’놀았던 것’을 보면 분명 많이 놀았을 걸요. 까고 말하면 본인이 공부가 안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뇌에서 공부를 평계로 노는 시간을 확보해버린 겁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올해는 어렵고 내년이나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시해줄 것은 ’가장 쉬운 문제집’만 골라서 1단원씩 풀어나가라는 겁니다. 쉬운 문제집이라고 하면 풍산자 개념, 연개수문, 쎈 A, B형, RPM, 그리고 기출의 2, 3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 손대지말고 저런 것들만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만...

저야 눈치볼 것 없어서 냥 말하면, 과연 할 것인가... 의심이 드네요. 여기서 정답은 욕심 버리고 자기가 맙바닥인 걸 인정하면서 특정 범위 정한 뒤 그 쉬운

문제를 계속 반복해 풀어서 바닥을 다지고 모르는 것만 인강을 발췌해서 듣고 오답정리해나가면서 기회를 틈타 슬며시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식으로 가는 건데 사실 다수가 이걸 못 합니다. 자기들 실력을 개차반인데 꿈만 높으니까 밑 바닥부터 공부해야하는 걸 인정 못 하죠. 더 쉽고 빠른 길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하에 또 이상한 인강이나 교재만 두리번 거리면서 부모들 돈이나 쓰는 패턴이 많습니다.

자세한 공부방법은 아래 회독수에서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천천히 가면서 회독수 올리는 룰을 지켜라. 그것입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8.26 [상담 024] 슬로우비디오가 필요한 경우

2016.03.28

시험 당일 : 국어시간 멘붕. 평소와 다른 행동의 시전.

평소와같이 차분하게 화작문 다풀고(한 몇분 늦더라도) 비문학 썩 훑어만보고 차분하게 문학을 풀고 비문학을 차 분 하 게 풀어야 하는데 매번 순서대로 풀던 옛날의 관습을 잊지 못하고 화작문 다풀고 (안그래도 20분 좀 넘게 한 25분정도 걸린상황에서) 비문학 썩 볼 때 어려워보이는 지문들과 싫어하는주제들 (돌림힘, 법 지문)을 보고선 아 이거 미리 한두지문이라도 풀어버리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욕심부리다가 생각보다 돌림힘지문등등이 잘 풀리지 않자 멘붕 온상태로 시간만 날리고 문학으로 넘어감.

문학 갔다와서 비문학풀 시간을 보니 9시 30분이라 30분밖에 남지않은 평소보다 훨씬 쪼들거리는상황에 당황, 거기다가 읽는지문들은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상황. 머리가 하얘지고 시간은 흘러만 갔음. 읽긴 읽는데 내가 지금 뭘읽고있는건지를 모르겠는 패닉상황의 연출. 평소처럼 지문을 통찰하며 읽고

지문을 이해한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허겁지겁 지문 다읽었는데 하나도 기억안나는 상황에서 문제읽고 그부분 찾아서 풀고 또 다음문제 그렇게 풀고 하는 모든문제의 일대일대응화 현상이 발생. 한지문당 평소 4~5분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 가능했던 본인이 한지문에 10분씩 걸려서 풀어내고 그나마도 지문마다 존재하는 3점짜리 보기문제들은 멘붕상태에서 구체적 답의 근거도 확실치 못하게 대강짐작으로 풀어내는 현상 발생.

결국 10분남긴상황에서 두지문이상을 다 찍고 날려먹어버림. 찍은 문제중 한문제 맞고 국어 85점 3등급 끝자락 리타이어

결정적으로 국어 한과목 때문에 이번수능 의대입시도 실패함.

수학: 29번까진 만족스러웠는데 30번을 30분~40분정도를 시간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웬지 답일거같은 상황 2개를 놓고 이게 어느 지점부터 쭉 상수함수일까 아니면 다른상황일까(이때 가정한 이상황은 기억이 안나네요..)고 민하다가 후자로 찍고 후자의 답을 냈는데 채점후 대충 반응을 보니 앞의 상수함수였던 상황 같더라고요.. 결국 30번 하나 틀려서 96점

1등급 턱걸이. 수학은 각종 고수들이 말씀하시는 ‘탈패턴화’의 부족이 실패 요인이 아닌가

싫습니다. 아직은 30번을 맞출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영어: 국어시간때의 멘붕과 포기심정이 영향을 미친 시간.

정말 될데로 되라는 심정으로 시험을 치렀고 결론적으로 시간이 모자라진 않았는데

정말 실력대로 틀렸다. 빈칸 한지문? 순서한지문? 넣기 한지문? 등 3점짜리로만 3문제를

고루 틀려주심. 영어는 평소 어느정도의 방심,자만?(시험에 절대 영어는 어

롭게 나올수 없다)으로 인해 기본적 실력학습의 부족과 이비에스 내용정리 암기위주의 학습의 치부가 그대로 강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너무 대충읽고 대충 풀었으며 본인의 문제풀이 답 결정의 근거조차 명확히 정립하지 못한상황에서 '어차피 올 수능영어도 쉬울거임 ㅋ 이비에서 만세'라는 나쁨정신으로 시험 응시한 끌이 되었음.

지1-; 공부안한 부분(화학식)문제를 하나 틀려서(2번) 꼼꼼한 공부부족으로 분석됨 47점

생2-;결론부터 말하면 3문제 찍고 두문제를 답갯수법칙으로 (9평 20번처럼) 맞춰서

운좋게 47점 이지만 2등급 (1등급컷 48점) 시간도 모자랐고 수능끝난 직후에도, 채점하고 찍은거 맞은거 확인한 직후에도 내린 판단이 이과목은 해서는 안되는과목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음.

강대 아이들과도 문제도 만들고 유형별 희안하고 참신한 풀이방법 공유 및 문제빨리 푸는 스킬과 함께 대치동에서 돌아다니는 xxxx모의고사등을 단체로 복사해서 사용하는등 수학과 함께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던 과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날 3문제나 찍어야 했고 운좋게 두 개를 맞추고 하나만 틀린 상황에서도 2등급이 떠주시는걸 보고 노답이라는걸 느낌.

다시 한다면 생2는 벼려야겠다. 다니던 대학 전공과 관련있는 물1이나 생2 보단 집단수준이나 표점 등급컷 백분위 모든면에서 나은 생1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듬.

결론은 실패요인은 국어시간의 멘탈관리부족, 평소 연습때와 다른짓거리를 한 것? 이 가장 실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기출문제만 대충 쓰(날마다)풀어보고 시험쳤던 15수능 국어에서도 98점을 받았었는데

그보다 훨씬 열심히 일년내내 날마다 30분이라도 공부해가면서 기출,ebs정리까지 다하고 문법 암기까지 열심히 했던

16수능 국어가 85점으로 국어 한과목때문에 전과목이 리타이어당한 상황입니다.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어 때문만이 아니라 너무 학원가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전 문풀을 시킬 때 일부러 천천히 더 풀라고 합니다. 오답이 나오는 이유는 '빨리 풀어서' 그래요. 학원가에서는 빨리 풀라고 가르치는 게 대세인데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당히 위험한 공략입니다. 수능문제는 내신과 달리 야매 써서 빨리 풀면 이득이 되는 문제를 안 냅니다. 예술적으로 꼬아내버리죠. 평소보다 천천히 풀어야만 함정에 안 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빨리 푸는 친구들이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슬로우비디오** 돌리는 능력이 없으면 본 시험장 가서 망하거든요 슬로우비디오를 돌리는 능력이 있어야 디테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님은 국어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디테일한 영역에서 나가리나신 겁니다. 그리고 님이 다닌 학원공부가 그 것까지 보장해주진 못 한 겁니다.

평소에 공부하실 때 스피드를 강조한 결과입니다. 올해 공부하실 때에는

1. 일부러 천천히 풀어서 정답률 높일 것
2. 수능과 관계없지만 디테일을 보장해줄 수 있는 교재 볼 것 : 영어 - 실력, 수학 - 성문종합영어나 고난도 지문.
3. 난해한 것들을 '도해'로 정리하는 습관 들일 것.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닌데 '디테일'에 필요한 노력을 되어있지 않죠. 이런 스타일들은 과거의 전설적인 본고사나 요즘의 논술, 수리논술에서는 취약이 됩니

다. 답을 맞추는 데에만 주력하지, 왜 그런 답이 나오는가를 상세히 설명하는 공부가 덜 되어있기 때문이죠.

작년에 수능을 위한 공부는 했는데 그게 디테일이 부족한 사연자 분의 단점을 채워주진 못 했습니다. 올해에는 디테일을 채워줄 수 있는 교재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슬로우 비디오'를 찍는 연습을 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콕콕에서 이 조언이 필요한 다른 분이 계시죠

8.27 [상담 025] HOT6의 경우 : 실적내지 못 하는 건 버린다

2016.05.11

고민 글 : <http://kockoc.com/Nogari/768952>

1. 손실은 바로 인정해버리는 게 편한 길이다.
2. 기한 내에 실적을 낼 수 없으면 차라리 노는 게 낫다
3. 과거는 잊으라.

당사자는 여태까지 뚜렷한 실적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실패하니까 만회하려고 더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데 계속 말아먹습니다. 결국 자포자기애에 빠져서 현실을 궁정하지만 현시창이라서 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올해 수능으로 가려고 하지만 당연히 실적이 나오기가 힘들죠.

빨리 군대에 가라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2년을 잡아야하는데 벌써 그 2년에서 3개월 정도를 날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지적하면 당사자들(그리고 제가 그 입장이 되면 저 역시)은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변명 ≠ 실패**

라고 정리하면 끝납니다. 성공한 사람이 변명 같은 걸 합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도 부족하다라고 보면서 '나는 더 배고프다'라고 노오력을 하죠.

여태껏 보낸 시간은 교훈으로 여기고 미련을 안 가지시면 됩니다. 손실을 바로 인정하면 마음은 편해집니다. 그리고 수능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바로 인정하고 수학만 공부하면서 군대에 가기 전에 여행도 다니고 여러가지 경험을 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만 자아성찰이 가능해집니다. 실패하는 패턴을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꼬인 상태에서는 계속 공부해보았자 성과가 안 나옵니다요. 여담이지만 콕콕에서도 그런 친구들 꽤 많습니다만 자존심 문제건으로 제가 개입을 안 합니다(그럴 이유도 명분도 자격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꼬인 상태라는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20대 때 5년 실패한 걸 자산으로 죽을 때까지 실패하지 않는 것과 20대 때 잘 나가닥 30대 때 왕창 말아먹고 재기 불가능한 것 중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물어보면 그리 우울해지지도 않을 겁니다. 실패,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크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금수저가 계속 잘 나갈 거라고 보는 인식인데 전혀... 스펙이나 능력이 빠방하면 뭐하겠어요. 실패하고 고생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정적인 착오로 그릇된 판단을 하기 좋습니다.

실패를 선행학습한 셈 치고 재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쓰라린 패배감이야말로 배신하지 않는 소중한 벗이니 잊지 마시길. 가장 위험한 건 '자아도취'입니다.

8.28 [상담 026] 막연하다 막연한 목표

2016.05.22

평소엔 건강에 대해 별 생각을 안했었는데 수술받고 나니 건강의 소중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수험준비를 해야하는데 수술전에는 대략 평균 2등급대가 나왔었는데 근 2년간 공부시기를 많이 놓쳐 많이 하락했을것 같습니다. 목표는 의대입니다. 제가 아팠던 동안 환자에게 의사라는 이름이 주는 어떤 위안? 이런것들을 느끼며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군문제는 면제도 가능하다 했는데 그냥 공익이라도 가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가게될 예정인데 수험기간은 공익복무 기간 2년을 포함해 대략 2~3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이 시간동안 목표를 이룰수 있는지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뒤떨어져 시작하는 주제에 말입니다..

수학은 나름 좋아하고 아폭님의 커리와 칼럼을 보고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영어는 유학준비로 나름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탐도 ebs강의를 들으며 시중교재들을 풀고있는중이고 수학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들을 접하며 공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어는 참 애매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막연합니다. 즉, 본인이 '공부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실제로 자기 문제점이 뭔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수학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알 수 없고, 영어는 이미 절평인 것에 대한 어떤 대비가 되지 않았으며 과탐은 시중교재 어떤 걸 푸는가 막연히 나오지 않으며 역시 '계획'이라고 봅니다. 국어가 막연한 건 문법도 그렇겠지만 신속히 읽고 정확히 논점 파악해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이 되지 않아서겠죠.

수험은 자기 꿈을 내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응시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짖밟고 올라서느냐 그걸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시험 때 나를 배신하는 '나'를 억제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경우 문제는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만 말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집들을 언제까지 얼마나 끝낼 것이냐 그리고 모의를 쳤을 때 자꾸만 실수하거나 풀지 못 하는 킬러문제 어디가 빙약해서 무엇을 대비할지 나오지 않았단 겁니다.

이러면 구체적인 조언은 어려워집니다.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쉬워졌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내용이 쉬우니까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막연히 의대 목표로 삼았다는 분이 그냥 '따라가면'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핵심은 남들보다 월등히 잘해 격차를 벌여서 타인이 보고 '저 새끼는 괴물이야' 소리나올 정도로 공부하는 것인데 적어도 그 자세는 여기서 나타나지는 않네요.

콕콕에서 일지를 쓰라고 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본인들은 공부한다고 하는데 일지 진행만 보아도 그건 다수가 거짓말인게 드러나니까요. 말로는 ~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정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자기가 세운 계획을 3/4만 제대로 끝내더라도 성적은 잘 나옵니다 이렇게 막연히 하면 제가 다 조언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본인 스타일과 단점의 파악일 터인데 님은 '수험'을 소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빽세게 공부했다고 보기도 힘들고, 2등급이라고 하지만 그건 정말 공부하는 자세와 거리가 있습니다.

올해 시험은 올림픽으로 치시더라도 지금부터 일정 잡아서라도 시중교재들을 한권씩 끝내고 그걸 일자로든 어떤 식으로든 기록하셔서 보고하시길요.

제 II 편

general

제 9 장

세뇌론

9.1 [세뇌론 001] 시작하면서

2015.11.18

운명이 정해져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만큼 매력적이지만 골치아픈 주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을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인간이 걸어갈 때 장애가 되는 건 비단 '물리적'인 벽만이 아니라는 것, 정신적인 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죄수가 있다, 그 죄수를 가두는 건 1차적으로는 시멘트벽이다. 하지만 시멘트벽을 부수고 탈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걸 아는 당국은 어떻게 할까? 끈임없는 교육과 세뇌로 너희는 절대 탈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시멘트벽의 이미지는 곧 "빠져나갈 수 없는 감금 상태"라는 추상화된 기호로 학습된다. 그걸 학습한 죄수는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옥 자체를 시도할 수 없다. 이는 즉, '기호적 언어'가 그 죄수를 가두는 것이다.

범죄의 발생 - 체포 - 구형 - 형의 실시.

이런 뉴스의 생산과 유포야말로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 저런 범죄뉴스를 학습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무형의 벽에 갇혀 살게 된다. 정확히 말하면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언어의 벽을 넘지 못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건 기만에 가까운 이야기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정된 기호의 견고한 완성물이다. 머릿 속에 관념적으로 세겨진 그 기호의 감옥을 파괴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살아간다. 매트릭스가 온라인 세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아니 사실 인터넷은 디지털로 입력된 기호의 세계일 뿐 그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것도 사실은 "그 기호와 법칙으로 이뤄진 수학적 가상현실"을 머릿 속에 구축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런데 이게 운명론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학습한 기호들로 이뤄진 세상이라면 운명이라함은 그 기호들만으로 만들어지는 사건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나마 냉소적이면서 현실적인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9.2 [세뇌론 002] 인생은 곧 세뇌

2015.11.18

학습과 교육을 적분한 결과가 인생이라면, 곧 그건 세뇌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넓은 의미인 좁은 의미인 우리는 특정 기호들'을 의심하지 않고 주입받은 것에 갇혀 살아간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세상이 완전하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완전한 세상을 불완전한 감각에 의존해 일부 이미지만 조합하고 있으며, 이 역시 우리들에게 주입된 기호의 물리적 작용에 따라 편향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편향성을 만들어나가는 기호들의 필연적인 관계가 바로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실제로 운명을 결정한다면 이건 두가지로 설명해볼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이란 기호를 해체하고보자면 결국 원자덩어리들이고 그 원자덩어리들이 예정된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운명이란 결국 필연적인 우주 움직임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공부를 잘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부터 먹고자고싸고하는 것들을 원자, 분자의 움직임이라고 본다면 이건 물질들의 필연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운명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설명은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 원자나 분자들의 '기계적인 움직임'도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는 것. 애초에 우주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부터 역시 하나의 주관적 학설이고 주장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완

벽해 보이던 뉴튼의 기계적인 물리 이론조차도 실은 틀리지 않았나.

둘째는 바로 기호들의 필연성이다. 우리가 수학에 배운 것은 다양한 기호들의 조합이 필연적인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삶이 무수히 많은 기호들의 조합이고 인생이 그 기호들로 적분된 결과라면 우리 인간은 어떤 특정한 현상을 ”우리의 기호 체계”로서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을 인생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운명 관념이 생긴단 것이다. 가령 죽음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 있다. 너무 민감하다보니 모기가 죽는 것, 고양이가 죽는 것부터 시작해 자기가 먹는 야채, 생선, 쇠고기까지도 죽음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죽음의 패턴이 숫자 7과 관련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치자. 그럼 이 사람에게는 숫자 7과 죽음은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하나의 운명으로 형성되어버린다.

사실 이 둘째야말로 운명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일 것이다. 숫자 7과 죽음이 뭔 관계냐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글을 쓰는 사람이건 읽는 사람이건 하나하나 다 회의해보지 못 한 기호체계들을 ‘패턴화’시킨 상태라는 것을 자인하지 못 하고 있다. 우리가 쓰는 언어체계에서 그 뒤에 ... 스트코트교 등 부터 시작해 국어문법부터 어휘 중 필연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자의성) 다만 그렇게 학습하고 반복함으로서 이 모든 것이 진실이고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 바로 이걸 넘어서면 운명이 바뀌겠군요라고 하지만 이것조차 우리가 모르는 정체불명의 기호들로부터 도출된 뭔가 수상쩍은 결론이란 점에서 끝까지 기호에 사로잡힌다라는 문제가 생긴다. 아니 애초에 운명을 개척하고 넘어선다는 것 자체도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운명이란 걸 만든 기호들의 음모라면 어쩌겠는가.

9.3 [세뇌론 003] 교주들의 등장

2015.11.18

애초에 종교의 시작은 수상쩍은 데가 많다. 가장 수상한 것은 그것이다. 원시 샤머니즘 수준이 아닌 본격적인 종교의 시작은 '문명' 이후라는 것이다.

하나만 예를 들면 샤머니즘은 엄밀히 말해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 샤머니즘에서는 추상화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인간이 자연과 하나로 몰입하여 자연의 메시지를 얘기한다. 몰입한 무당들은 의식이 없다. 인간의 의식이 있다면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샤머니즘과 달리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들의 특징은 "언어"를 정말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나 경전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지 주입을 시킨다. 그리고 종교의 권능은 이 세상의 현상을 그 경전에 따라 해석함으로써 발휘된다. 실제로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기독교의 해석으로는 천국에 가있고, 불교의 해석으로는 윤회의 고리를 타고간다. 이는 자연과학적인 해석과 살짝 충돌하거나 비켜지나가지만 그 종교적 기호에 세뇌된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인 현상"이며 이로써 그 기호는 실체가 되어간다.

실제로 천국이나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존재하긴 할 것이다. 바로 "언어" 속에 - 만약 언어가 없었다면 천국이나 윤회에 관한 생각은 없었을 것이다. 추상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추상화가 불가능하다면 일반화시킬 수 없을 것이며, 일반화시킬 수 없으면 기호들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을 수가 없다.

어떤 종교가 사이비인지 아닌지 이 역시 절대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주들이 등장한 건 구어든 문어든 "언어"가 보급된 이후라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도 살아남은 종교들은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신흥종교들도 역시 말씀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나 게르만 신화가 종교가 되지 못하거나 중국의 도교나 일본의 신토가 그리 강력하지 못한 이유도 그렇다. 사실 이것들은 이미지로만 치자면 무수히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영감들 투성이다. 그러나 그것 뿐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것들은 결국 '말씀'의 차원으로까지 이어지지 못 했다.

이미지가 없고 황량한 말씀은 매우 빈약하고 허술해보인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추상화된 기호는 한번 학습되면 지워지지 않는다. 애당초 3대 종교 교주들이 자기들이 창시한 종교가 이토록 세계를 지배했을 것일지. 그 중 지구가 둑글다라는 걸 알았던 사람도 몇이나 있었을까도 그렇지만, 자기들이 남긴 말씀의 위력을 사실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건 어찌되었든 현대 사회의 형성에 이들의 말씀이 주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문명이라는 건 결국 '근거없는 말씀의 주입'으로만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문명의 허술함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광신도 집단에 불과할지도 몰랐던 ISIL이 생각보다 오래 가거나, 혹은 그들의 목적을 완성시킬 수도 있다 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거창한 담론을 넘어서서 사소한 일상이나 과거를 되돌이켜보아도 나나 주변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건 언어와 기호였다. 사주팔자나 타로카드의 장점은 이것들은 어떤 것이든 그럴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참 탁월한 기호란 것이다.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운명에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쓸만하겠지만 그걸 넘어서 그 언어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순간 우리의 이성은 석기시대 이전으로 돌아서버리고 만다.

9.4 [세뇌론 004] 마법사들의 암약

2015.11.18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기호의 세상이라면 그 기호를 움직이는 건 두가지이다. 하나는 물리적인 실체가 정말로 바뀌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인 실체를 해석하는 본인의 기호가 변하는 것이다.

이런 걸 깨달은 자들이 있다 - 유감스럽지만 이들의 직업이나 스킬은 그리 유형화되지는 않은 것 같다 - 단지 말로만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경우는 기호를 조작하는 수준까진 아니다. 단지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호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넘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마법사들이 있다. 그들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일수도 있고, 인터넷 강의를 찍는 강사일수도 있고, 일개 블로거일수도 있다. 사기꾼에게 속은 사람들은 자기가 당했다는 걸 알고 길길이 뛰면서 경찰서에 달려가지만 마법사들은 그들에게 속았다거나 영향을 받는다고까지 생각하지 못 하는 것이다. 끝까지 단물을 빨아먹히고 착취당하더라도 끝까지 그 마법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 마법사를 공격하는 어떤 시도에 광신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이 마법사들이 오래 가는 경우는 드물다. 이 마법사들에게 착취당한 사람들이 또 다른 피착취자를 영속적으로 생산한다든가 적당히 해먹고 중간에 건전한(?) 사업으로 빠지면서 양지에 발을 걸친다면 오래 갈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수익율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작년 세월호 침몰 사건 같은 것이 터질 경우에는 마법사도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그 마법사들이 자연과학적 법칙을 거스른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어느 나라건 그 나라의 사법체계 시스템에서 꼼수를 부려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거역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즉, 기호를 조작하고 세뇌하는 마법조차도 짧게는 수백년, 길게는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법'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성숙해진다고 하여 개인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다. 콕콕 사이트의 수험생들만 봐도 느끼지만, 개인의 기호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것이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최근에 픽업아티스트라고 하여 여자들의 기호를 공략하는 건 성행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식으로 교육되거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저 마법사들의 먹이가 된 호구들이 사라질 수가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마법사라는 기호가 주입되었고 아울러 그 마법사들이 어떻게 개인 세계를 농락하는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세뇌가 어떻게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입문에 성공할 것이다.

9.5 [세뇌론 사례 01] 외모와 인기

2015.11.18

딱히 세뇌론 사례라고 불일 견 없지만 응용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리. 적어도 음흉한 제가 보기엔 인터넷만 돌아보아도 우울증에 걸릴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건 SNS 때문입니다.

첫째, 얼굴을 드러내는 경우 둘째, 잘 생겼다 혹은 예쁘다와 같은 외모에 연연하는 경우 셋째, 인기.

지금은 아직 겸증될 시기가 아닙니다만 10년 정도 흐르면 이와 관련해서 환자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는 나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화되어버리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한창 인기있는, 속칭 리즈 시절이라고 할 때의 젊고 잘 생기거나 예쁜 시절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뇌되어버린 이상, 나이를 먹으면서 추해지고 늙어가는 모습을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아무리 곱게 늙어간다고 해보았자 젊은 게 좋은 거죠. 그럼 애시당초에 이걸 비교하지 않으면 차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터넷으로 자기 얼굴을 알리면서 유명해진 경우 - 그 사람들에게 전파된 꼴이니 이걸 수습할 수도 없거니와 자신의 외모로 유명해졌다는 그 시절에서 벗어나는 건 매우 괴롭단 것이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먹고사는 것 때문도 있지만 한동안 은퇴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지요. 거금을 들여서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다시 원래(!)의 자기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형의 결과야 뭐. 그거 오래 갈 수가 없죠. 늙어가는 자기를 인정하고 과거의 자기를 버리지 못 하면 괴로울 수 밖에요.

연예인들이야 이런 게 반세기는 되었지만 일반인들이 인터넷으로 자기 얼굴 드러내면서 한 게 싸이월드 때가 처음인가. 아무튼 10여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

습니다.

과거의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사형선고 받은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되어서 과거의 그 얼굴이 진짜 얼굴 역할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이라고 할 것이죠.

외모를 가꾸는 건 중요합니다만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마십시오. 정신이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 외모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본인의 지식, 교양, 기술, 실력에 투자하십시오. 벽에 뚩칠 할 때가 아니면 이건 티가 나긴 커녕 더욱더 좋아지니까요.

발상을 바꿔서 자기가 노화된 모습을 떠올려본 다음 거울을 보면 이보다 행복할 수 없을 테고 또 어떻게 늙어가야할지 방향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9.6 [세뇌론 005] 모두가 세뇌당하고 싶어한다

2015.11.19

우리의 고정관념 중 하나가 부정적인 것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한다는 것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않다. 부정적인 것이 정말 부정적인 것임을 진작 일소되었을 것이다. 술, 담배, 마약, 지나친 섹스 등이 나쁘다고 교육되면서도 지금도 고민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다.

덧붙이면 과거에는 저런 것들을 금기시라도 해서 균형을 이루었지만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음모가 ”다양성”과 ”상대주의”를 핑계로 그러한 금기까지 무너뜨려 10대들까지 마수를 뺀친다. 제제까지도 망사 스타킹을 신고 욕망하는 미친 세상이다.

그렇다면 세뇌는 어떨까 세뇌당하기 싫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다들 자유를 원하고 세뇌를 거부할 것이라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역시 그렇지 않다.

세뇌당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가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이다. 과장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100명 중에 99명은 세뇌당하고 싶어하고 있으며 이 글을 쓰는 자 역시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세뇌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학력이 낮거나 가난하거나 비윤리적인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다. 고학력자에다가 부자인데다가 윤리적인 사람들조차도 **세뇌를 원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를 예기한다. 이는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절대 자유, 절대 상태를 가리킨다. 그런데 재밌는 건 교회를 다니건 사찰을 다니건 뉴에이지 명상수행을 하건 심지어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면서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용어만 쓰지 않지 모두가 저런 니르바나를 원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보자. 니르바나 혹은 너바나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의심해 본 적이 있었을까. 아, 물론 여기 뚱글 읽는 사람들이야 이 색기 또 유도심문하네 하면서 ”아, 나 있어요”라고 개뻥을 칼 것이 뻔한데 100명 중 100명, 1000명 중 1000명. 그 누구도 니르바나와 너바나를 의심하거나 부정해 본 녀석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왜냐면 니르바나, 너바나의 문제를 그 누구도 지적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니르바나가 뭔지 이 글을 읽고 나서야 안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니르바나라고 하면 모두 좋은 걸 연상한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특정 기호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주입받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에서도 종교에서도 니르바나는 안 좋은 맥락으로 쓰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만약 니르바나가 뭔지 의심해보았으면 이건 단지 니르바나를 부정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정말로 새로운 세계로의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쇼펜하우어보다 더한 염세론자가 되었을 것이다.

니르바나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뇌당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가 시키는대로 해서 천국에 간다거나 아니면 수행을 통해 참자아를 완성시킨다거나 하는 사람들, 아니 더 넓은 의미로 남의 말을 듣는 사람들, 특히 종교의 세계관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뇌당하고 싶어하는 사람

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 욕심없이 xx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선행했다 너 색기는 우리 어머니를 세뇌당하고 싶어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싸가지없는 소리가 아니냐.

싸가지없는 소리인 것은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세뇌당하고 싶어한다'라는 진실이 바꿔는 건 아니다.

그럼 나는 거꾸로 반문하겠지. 천국, 천당 얘기하는데 정말 가본 사람이 있고 그게 실증이 되었냐고 참자아의 완성이라건 모든 욕망으로부터의 해탈이라고 하는데 그럼 단 하나라도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참스승이라거나 참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드러난 것은 어째서 돈과 seks, 그것도 아니면 권력 냄새가 지독하게 나냐고.

실증해보지 않은 것 - 즉 허구의 것이 추상화 과정을 넘어서 사람의 무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실체처럼 행동한다, 이게 바로 세뇌의 요체인데 그럼 그것이 세뇌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지?

...

컬트 Cult 는 종교적인 숭배를 말한다. 바꿔 말하면 일부 집단에 의한 열광적인 지지. 우리나라에서는 특정음악마니아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대중매체에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저런 컬트에 빠진 사람들은 온갖 것을 다 내주면서 니르바나를 찾아 수행하려고 한다.

현대인들에게는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는 열반의 상태는 천국처럼 들린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고 마냥 행복할 테니까. 전혀 욕심없이 교주나 지도자가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피세뇌자의 상태 그대로이다. 세뇌당하고 싶은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고 손쉽게 열반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고생없이 열반에 도달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세뇌라는 주술에 걸려 자유를 박탈당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조정당하면서 돈과 시간을 뺏기고 심지어 성폭력의 객체가 되기도 한다. 결국 인격이 붕괴되면서 폭력을 당하는 상태에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노예로 전락한다.

여기까지 진술은 제3자를 바라보는 것이라 무난하니까 카메라를 돌려보자. 이 글을 읽는 당신들이 바라는 미래상과 희망.... 이것들이 실제로 조작되고 주입된 이미지라는 생각은 해보았는가. 당신들의 일상, 공부습관부터 시작해서 ”나답다”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정말로 나다운 것들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것인지 한번이라도 의심해본 적이 있나?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면 답이 나오기보다도 화나거나 짜증나면서 이 색기 왜 아래 그런 욕설이 튀어나올 것이다. 당연하지. 저 질문은 당사자들의 게슈탈트를 흔들어버리고 이 역시 인격까지 해체시켜버릴 수 있는 위험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의심해본다’ 빼고는 세뇌와 적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무튼 모두가 세뇌당하고 싶어하고 지금도 그리고 있다. 수험생들조차도 실제로는 세뇌당하고 싶어하고 지금도 부지런히 자신들을 세뇌시키는 존재들이다.

+

눈치빠른 사람들은 내가 왜 인강이나 교재 추천을 병적으로 싫어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 인강 거의 듣지 않고 교재 양치기를 하라는 이유는 수험도 수험 이지만 그래야만 본인들이 직접 고생해서 세뇌 상태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특정 교재나 특정 강사를 승배하는 것은 이미 수험을 넘어 그냥 컬트다..

9.7 [세뇌론 사례 02] 우상화, 동양사상

2015.11.19

나무위키 링크

1. 우상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를 넘어서 개인우상화를 어떻게 해야하나 보여주는 나라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미지에 세뇌되면 통일을 찬성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기는 국민 다수가 마약과 성병에 찌들고 주체사상이라는 종교에 세뇌당한 사람들이다. 차라리 북한 정권이야말로 영악하기 때문에 합리적(?)일지 모른다, 무서운 건 그 주민들이다.

인터넷 까페나 블로그에 가보면 별 것도 아닌 사람들이 얼굴이나 패션 사진을 올리는 경우를 보는데 실소가 나올 수 밖에 없지만 - 10대라면 이해나 있지만 - 곰곰히 생각해보면 저것도 꽤 무서운 장치들이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이미지가 반복학습되면서 어느 사이에 실체화되기 때문이다.

미운 사람도 자주 보면 정든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뛰어난 업자들일수로 자기 이미지를 반복학습시키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닌 듯. 그 이미지가 부정적이더라도 실제로 그 이미지를 학습한 사람은 실물이 등장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질 수 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평소의 이성을 잃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임.

남북정상회담 때인가. 그 때 김정일 찬양까페가 생기고 심지어 김정일이 매우 합리적인 지도자인데 우리가 몰라보았다(?)라거나 미국의 음모다 해서 호감(!)을 품은 분위기란 게 있었다. 물론 그 진실이 뭔지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분명한 건, 부정적인 이미지로 알려진 사람에게조차도 대중들은 컬트적 찬양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비윤리적인 처신을 했던 방송스타들도 대중들의 그러한 면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뻔뻔하게 나서는 것이다.

개인 우상화를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당신들은 그럼 3대 종교 교주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온갖 위인을 다 비판하고 까발길 각오가 되어있나? 아니, 심지어 자기 가족과 부모조차도 혈연은 혈연이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비판하고 회의할 수는 있나? 이런 비판이 지나치면 그것이 다른 컬트가 된다. 특정인을 숭상한 것이 바로 중국의 문화대혁명인 것이다.

국영수를 잘하면 뭐하나. 저런 우상화에도 휘둘리면 어차피 끝인데.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사실 일본의 오움진리교가 거명된다. 오움진리교와 IS의 차이는 전자는 반란에 실패했지만 후자는 성공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당시 오움진리교에 엘리트들도 많았다(이걸 취재하고 도쿄대를 비판한 사람이 다치바나 다카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차도 적지 않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는데 거기에 명문대, 사자 돌림, 심지어 고위 관료들도 있는 건 아나.

2. 서양 vs 동양

꺄놓고 말하자. 서양이 우월하고 동양은 미개하다고 외쳐! 갓양인 만세! 똥송하옵니다.

.... 라는 건 슬픈 자화상인데 약간은 농담(그럼 나머지는 진담이라고 해야 하나)

진지빨고 말하면 그렇다. 소위 의심하고 회의해본다,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말할 수 없다라는 풍토는 서양에 있었지 **동양에는 없었다**. 동양에 구장 산술 있었잖아.... 헛소리다. 동양에 있던 건 산수였지 수학이 아니었다. 산수는 그냥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고, 수학은 말 그대로 모든 걸 의심하고 해체하고 '참'인 것만 골라 이론적 틀을 확고히 한다.

왜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배워야하나. 그거야 당연하지, 수학을 안 배우면

전체가 다 미개해지니까. 그런데 다만 지금과 같은 입시수학이면 이건 좀 곤란한 측면도 없지 않다. 지금의 입시수학이 '근대인'을 양성할 수 있나, 결국 수학사교육에 세뇌받아서 문제 풀이 패턴화에 미친 노예들만 양성한다는 비판은 맞는 소리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동양의 신비주의는 전두환 때로 돌아간다. 전두환 정권 시대에 유명한 키워드가 3S. (군사정권이란 이미지와 달리 문화적으로는 개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마 문화로만 보자면 민주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3S보다 더 유명한 건 국풍81이다.

나무위키 링크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서 재야에 은거했다는 온갖 동양 신비주의 고수들이 진치기 시작하고 특정 출판사의 온갖 동양사상 상품과 함께 서비스들이 IMF 직격타를 맞기 전 흥청망청 시절에 정말 잘 팔리기 시작한다. 동양의학, 사주팔자, 주역, 풍수, 침술, 요가, 단전호흡 ...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동호회 차원을 넘어 기업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 철이 없던 나는 이런 책들을 자주 탐독해보아서 알지만, 쟤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물질적인 서양사상은 끝났고 정신 위주의 동양사상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물론 그 때는 철없던 시대라 열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하나 다 검증해볼 수 있었는데 저 중에 맞은 건 한 10개 중에 2 3개?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충 말해도 맞는 수준이라고 보아서. 게다가 맞았다 틀렸다가 문제가 아니라, 당시 정신을 강조한다는 분들이 알고보니 돈과 여자에 미쳐있더라는 것은 꼭 하나씩 드러났거나와 사이비 종교화된 곳일수록 도대체 민족정신을 강조한다는 분들께서 그 조직과 경영조차 일본의 오움진리교를 베끼는 행태를 보여주었는지 참.

여담이지만 저런 동양적인 건 난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물론 상술 차원에서는 문제가 많은 곳도 많다.) 사주팔자는 개인 성향에서는 유의미한 이야기, 주역은 잘만 업그레이드하면 라이프니츠 모나드 이론, 풍수 역시 현대 자리이론 등으로 바꿀 수 있다. 요가는 그 동양 뿐만 빼고 실전적으로 익히면 이보다 좋은 운동은 없거든.

이거 실제로 문헌조사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종교단체와 부딪친 적도 있다 (...) 조직망 정말 짜는 곳이더구만. 그것도 꽤 좋은 수업이 되지 않았나 싶었고 시간나면 저런 곳들의 뒷배경이나 철학 같은 것이 어디가 원산지이나 분석해보았는데.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던 것?

일단 사이비 종교는 믿을 이유는 없다. 왜냐면 그들의 이야기가 맞으려면, 우선 그런 종교단체는 '하나'여야하지 않나. 우리나라만 해도 사이비 종교가 큰 곳만 추려도 두자리는 되는데, 일본과 중국에도 더럽게 많다. 전세계에 있는 석가모니불의 사리만 다 모으면 코끼리 몇마리분이 나온다던 데(석가모니불이 무슨 진격의 거인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나 비슷하지 않나?

그래도 종교집단이 맞는 건 가끔 무속인들을 불러서 예언을 한다는 건데 이건 신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이 역시 오컬트적인 것인지라 나름 찾아보고 조사해보았다는 것. 개인적으로는 귀신 같은 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파워가 세다거나 인간을 말아먹는다... 정도는 아니란 것이다. 무당들이 사람들의 과거를 잘 맞추는 건 콜드 리딩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일종의 뇌파감지(?) 같은 건데 다음에 있는 모 점술까페 가서 점사 검증보면 알지만 제대로 맞춘 곳은 정말 없다(...) 사실 귀신에 시달리는 빙의증세 보이면 가장 확실한 건 "이사"를 가는 것이다. 터가 나쁘다 무슨 사연이 있다 할 필요 없이 떠나면 된다. 아울러 잘 먹고 운동 꾸준히 하면 된다.

그런데 동양 vs 서양의 문제는 서양의 저런 '의심하는 습관'을 부정해버리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서양학문에서 배워야하는 건 엄격한 논증도 논증이지만 "그래서요?"라고 하면서 무조건 의심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버리는 습관이다. 가설이지만 아마 동양사상 장삿꾼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했을지도 모른다. 왜냐면 자기들이 하는 건 제대로 검증된 건 단 하나도 없거든. 서양의 저런 논리를 봉괴시킬 수 없다면 차단이라도 해야 고객들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이 때 호소하게 된 것이 바로 민족주의이고, 또한 일부 기독교에서 깽판치는 것도 매우 좋은 소재였을 것이다.

이런 서양 동양 대등론은 요즘 와서는 주장되지는 않을 것 같다. "두유노우김치", "두유노우강남스타일" 같은 유머는 그간의 지나친 국뽕에 대한 자학 개그이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의 기호들을 유입받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우쭐 안 개구리였구나 깨달은 바도 있고 IMF 이후 공중부양이든 열반이든 "금융자본" 앞에서는 깨갱하는구나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다들 합리적으로 변해간 덕분이기도 하다.

9.8 [세뇌론 006] 보잘 것 없는 운명관

2015.11.19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 인생이란 참 보잘 것이 없다. 그건 인간의 삶이 초라해서가 아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txt는 소설보다도 매우 빈약하고 초라하기 때문이다.

소설 = 픽션, 인생 = 논픽션 ... 그러니까 픽션이 더 허약하다는 편견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소설이 읽히기 위해선 치밀해야 하고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히는 소설은 호소력이 높은 기호들이 조합되어서

그 나름으로 타당한 결론으로 유도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망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지간해서 많이 읽히고 팔리는 작품들은 설득력이라는 게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인생관은 어떨까. 대단히 허술하다. 콕콕 남자를 예로 들어보자. 명문대 들어간다, 의치한 간다, 그리고 짧고 예쁜 글래머 여자를 만난다. 평범하게(?) 강남 50평 아파트에서 산다... 보통 이런 식으로 대단히 막연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본인들은 자기 인생이 소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해놓은 사람은 없다. 이는 거꾸로 말해서 각자가 자기의 인생 게임을 미리 시나리오 짜놓고 소설 수준으로라도 플레이하면 성공할 수 있단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운명관이란 사실 상당히 단순한 것이다. 크게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그리고 학업, 취업, 금전, 연애, 질병..... 생각해보면 운명에 들어가는 항목은 별로 없다. 저게 언제 어디서 터질 것이냐 그런 차원까지만 얘기해도 대단하다고 하겠지만 실제 이런 경우 예언가들이 던지는 '말씀'이란 항목 분류를 해보면 대부분 한정되어 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언이라는 게 과학적인가 아닌가 정말 맞는가 아닌가를 떠나서 쓸모없는 것이다. 그 마법사들의 예언은 대부분 내담자들의 관심사에만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작년의 세월호 사건이라거나 올해 있었던 온갖 급작한 사건들에 대해서 누가 한명이라도 제대로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 간혹 성지순례라고 하여 "질병이 돈다" = "메르스 유행"이라고 알려지기도 하지만, 이건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하차해버린 모 PD의 점술가 겸증인가 하는 프로그램 말미에도 거기 출연한 사람의 운명을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딱히. 왜냐면 후기들을 보면 별로라는 평이 많다.

이 경우면 그럼 가짜 점쟁이 행세는 가능할 것인가.... 그게 가능하다는 게 문제다. 왜냐면 실제로 미래는 미래 일이기 때문에 당장 닥치지 않으므로 어떤 말이든 던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담자가 그 말에 사로잡히는 경우 예언의 자기 실현이 가능해져버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너는 시험을 망칠 거야... 라는 예언을 듣는다고 하면 그 경우 망칠 가능성성이 크다. 만약 예언을 듣고 가볍게 어, 그냥

극복해보일 거야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예언도 그냥 흘려듣거나 생산적인 쪽으로 삼는다.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야겠네. 하지만 예언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유리멘탈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망칠 거라는 예언을 들으면 정말로 '망쳐야 한다'는 것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다. 그래서 실패하면 그걸 또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망한다고 했는데 정작 잘 보면? 그 때야 "운이 좋았나보다",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 "부적의 효과가 좋았지"라고 덕담(?)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이 경우 따지면 "잘되었는데 왜 야단이냐"라고 대꾸해버리지 않나.

오해살 것이 아닌게 난 이 분야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빙의라는 것도 일정 부분은 그런 현상이 있다 보면 그 비슷한 것을 체험했다. 그러나 관심이 많다고 체험했다고 해서 이 모든 걸 믿는다면 그게 사람같이 사는 건가. 인류가 기존의 통념에 지배당했다면 지금도 길가는 육식동물에게 잡혀먹하고 있는 신세였을 것이다. 인류의 진보는 '부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의식을 갖춤으로서 자연과 분리되고, 의심함으로써 종교와 분리되면서 지금 상태에 올 수 있는 것이다. 운명이 있든 없든 귀신이 있든 없든 이런 걸 무조건 신봉하지 말고 회의하고 따져보아야 진보가 있지 그게 없으면 그냥 '노예'다.

한가지 예만 들어보자면 잠을 잘 때 가위눌림을 자주 겪곤 했다. 소위 루시드 드림. 이것도 정말 영적인가 아닌가라는 건 지금도 해답을 못 내리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일단 짜증나는 경험이 문제가 아닌가. 어렵잖이 잠을 들면 환청과 환각이 보일 때는 기분이 뒤숭숭해진다. 그런데 1년간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 비결은 간단했다 - 온갖 잡것들이 등장하자 디씨에서 보았던 무시무시한 형님(누군지 말하지 마라)를 그 꿈 속에서 소환시켜보았다. 그리고 형님 믿습니다라고 외치니까 거짓말아니고 그 모든 환청과 환각이 사라져버렸다(...) 중학생 때부터 그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맹자님 외쳐도 소용없던 것이 디씨 합필갤에서 우스꽝스럽게 만든 짤방과 음원을 등장시켜버리니까 소리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럼 이것이 그냥 정신작용에 불과했는지 진짜

잡귀들이 등장했나 그건 모르겠지만 이 경험으로 치면 나는 예식장 사업하다가 말아드시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형님을 믿는 종교의 신자가 되어야 할까?

운명이란 것이 뭔지 회의해보자면 정말 비참해진다.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명백한 주관식 논술답안을 작성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1번 밖에 못 산다는 점에서 치자면 수백장은 나와야 하건만 실제로는 자소서 쓰라고 해도 한장도 채울 수 있을까. SNS 상에서야 셀카 올리고 나 예뻐 그런 거나 잘하지 실제로 우리는 소설주인공만도 못 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운명이라는 것도 애매모호한데, 재밌는 건 운명관이라는 건 더럽게 잘 믿는다는 것이다. 그럼 왜 그런 운명관을 믿게 될까? 그거야 간단하지. 뇌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럼 왜 뇌는 운명관에 의존할까? 그거야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그렇지.

정작 10대 때를 돌이켜보면 그 때 누구도 스마트폰을 끼고 다니는 환자가 있을 거라 예측한 경우는 없다. 사실 그 당시에도 미래의 과학기술이라고 해서 2010년대의 외계인 같은 삶에 대한 픽션이 있었는데 정보화의 경우는 오히려 그 픽션보다 지금이 더 진보했다. 설마 컴퓨터를 손바닥에 넣고 다닐 거라는 얘기 까진 나오지 않았지. 다만 로봇이 일을 대신 해준다.... 이건 너무 설부론 예측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 게임. 이 예측은 들어본 적도 없다.

우리가 무슨 시인이라도 되는 양 운명을 부르짖을 때 저런 기술의 진보나 생활의 개선은 왜 하나도 언급하지 않는 걸까. 그 점에서 우리의 인생, 운명관이라는 건 정말 조잡한 기호들의 나열이라는 것이 더더욱 분명해진다. 우리가 한달 뒤에 원양어선을 탈지, 대국가적 재난에 처해있을지, 아니면 강도와 인질극을 벌일지, 병원에 누워있을지. 이거 정확히 알 수 있나?

그러나 돌이켜보면 중요한 사건이란 늘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전혀 찾아올 거라고 여기지 않은 사건일수록 그렇다. 처음에는 황망해서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인간은 또한 적응의 동물이라서 수시간이 지나면 그 사건에 순응해버린다. 가령 올해 수능만 하도 그렇지 않나? 영어 쉽게 나올 거라고 다들 믿고 어렵게 나올 리 없어라고 했지만 결과는 어땠더라. 수능 치고 물수능 얘기 쏘옥 들어가

고 다시 불수능 이야기 오가는 거, 이게 천박하고 참 박약한 인간들의 지성이란 것이다. 그래도 복기는 해야지, **왜 과거에는 그럼 '잘못된 예측'에 빠졌던 걸까 하는 것.**

하지만 더욱 답답한 건 한번 세뇌된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겪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이다. A를 믿는 사람이 있다. A가 B라는 결과를 내놓는다, 그런데 현실은 C다. 그래도 그 사람은 A를 믿는다. 웬지 아나? 그렇게 학습해버렸기 때문이지.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긴 정말로 힘들다. 우선 세뇌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무의식에다가 말초신경까지 다 지배당한 상태다. 결과가 틀렸기 때문에 A를 까기보다는, A의 예언이 빛나간 건 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C도 그림 살짝 그러면 B가 된다는 식으로 과거 황우석 사태와 같은 인지부조화 증세를 드러낸다. 시리즈에서 논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앵커링'의 결과이다. 몸 속 깊숙히 박힌 갈고리침을 제거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다. 아프니까 강 박고 살테니 그냥 건드리지 말라는 게 거부반응은 너무라도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제거한다고 쳐도 다시 박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앵커링이 한번 되면 이걸 빼는 것은 정말 어렵다. $1+1=2$ 가 아니라 $1+1=-10$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로 수학을 풀라고 하면 풀겠는가?

마법사들은 인간의 심리가 이렇게 초라한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걸 이용해 돈을 번다. 여성 심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 바로 픽업아티스트들이고 물욕에 관한 심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피라미드 업체들이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지만 그 내용물이 보잘 것 없는 호구들을 구워삶는 건 간단하다. 적당히 띄워 주고, 자기가 그 내용물을 채워주고(세뇌), 그리고 적절할 때 꾸짖고 훈육하고, 다시 달래는 것이다. 생각보다 인간을 세뇌시키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석가모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가. 인생은 호흡기간이라고. 즉, 숨을 쉴 때 그 순간 뿐이라고. 사실 이것만큼 정확한 이야기는 없다. 석가모니가 원래 수학을 잘 했다는 설화들이 많은데(게다가 '인도의 왕자님' 아닌가. 인도수학은 뭐) 인생은 호흡기간이라는 건, 즉 인생의 순간변화율이고, 우리는 여기서 석가모니가 인생을 '미분할 줄 알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절반은 농담. 아무튼

가장 좋은 건 운명관이라는 것도 결국 만들어진 것이고, 이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다. 한 때 유행했던 시크릿 인가... 라는 책이 이걸 겨냥했던 것이고, 최면기법에서 파생된 NLP 역시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다.

궁금한 사람은 일주일동안 일기를 적으면서 자기와 영 상관없어보이는 분야에서 자기가 어떻게 성공, 실패하나 소설을 써보시길. 지금 입시를 시작하는 사람은 수험문학이라고 해서 내년동안 겪을 온갖 사건들을 미리 가정해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고 실패해나갈 건지 개연성있게 적어보면 된다. 그리고 놀랍지도 않지만 그거 대부분 적중할 것이다. 일단 이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하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인이 어떤 인간이지 잘 알고 있다.

9.9 [세뇌론 007] 원론

2015.11.19

1-1

세뇌된 상태는 주관적으로는 넋을 잃고 동상공간을 혼이 떠다니는 것과 같은 상태다. 동시에 객관적으로는 치밀하게 계산된 협구의 세계에 감금된 상태다.

이런 상태에 완전히 빠진 사람은 밤낮은 가리지 않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한 교주의 무리한 명령에도 아무 생각 없이 절대 복종하는 가하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서 절대자의 의미에 분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몰두의 비결은 행위 자체가 본인의 육체적, 정신적 Ecstasy에 연결된 것에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지만 동시에 수험생이 달성해야 할 상태란 점에서

부정할 수만은 없다. 저기서 세뇌를 '집중'이라고 하고 '허구'를 공부할 텍스트라고 하며 '교주'를 선생님으로 고치면 완벽한 입시의 경지이기 때문이다. 정말 공부에 미친 놈들은 10시간 이상 공부해도 고통을 못 느끼는데 이것 역시 Ecstasy라는 점이 그렇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뇌된 사람의 정신은 '현실과 분리된 가상공간'에서 노닐고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부에 미친 사람들은 공부한 텍스트들로 구축된 학습공간에서 노닐고 있다(즉, 이 경지까지 공부해야한다)

이렇게 현실과 분리된 가상의 공간으로 인생의 무대를 옮기면 누구라도 생각이 정지되고 끝없는 쾌락을 좇아 달려가게 된다. 여기서 쾌락은 굳이 성적 흥분, 권력 놀이, 금전욕, 혹은 나르시시즘일 필요가 없다. 쾌락을 느끼는 방법은 단 하나 - 논리적인 사고의 정지이다.

바꿔 말해서 세뇌된 것과 유사한 상태의 학습몰입은 이런 점이 위험하다. 적지 않은 인강을 들어대면서 트랜스 상태에 빠져 고득점이 나오는 학생들이 수능 시험 당일에 맛가는 이유. 본인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어떤 것이든 척척 풀어내는 패턴에 세뇌된 상태로 쾌감을 느끼지만, 그 쾌감의 원천은 '논리적인 사고의 정지'를 전제한 것이고, 따라서 논리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나오면 풀지 못하게 된다.

1-2

마법사들은 자기들의 호구들이 자기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 엑스터시를 느끼도록 바꿔치기할 수 있다. 바꿔 말해 위험한 사교육강사라면 학생들이 공부에 엑스터시를 느끼는 걸 넘어, 강사 자신을 위해 공부하도록 기호조작을 할 수 있단 얘기다. 아닌게 아니라 수험사이트들을 돌아다녀보면 그런 술수가 읽히는 경우가 많다(이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마법에 걸려든 사람들은 자기 존재 전부를 걸고서라도 세뇌하는 사람, 즉 마법사를 위해 진력을 다 한다. 자기 희생, 금욕, 수행, 고차원의 학습 등 본

래대로라면 고통을 수반하는 일조차 '고상하고 승고한 행위'로 형상화된다. 즉, 마법사들은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피세뇌자들에게 '유사' 니르바나 상태를 만들 어대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인강이 문제될 수가 있다. 인강은 그 자체가 강사가 원하든 원하지 않은 보급형 세뇌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혼자 책을 읽는 건 불편하지만 인강은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혼자 읽을 때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야한다, 그래서 쾌감이 끊기게 된다. 반면 인강을 들을 때는 사고할 필요가 없다. 낭랑한 가성 목소리에만 귀기울이고 생각이란 걸 안 해도 된다. 그러니 쾌감을 느낀다.

물론 이런 걸 악용하는 강사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 의지든 아니든 그 인강의 인터페이스 자체가 지닌 문제가 있다. 인강을 잘 듣는 방법은 간단하다. "생각을 멈추고 오로지 강사의 말에만 귀기울이는 몽롱한 상태에 빠지면 된다" 논리적 사고를 하며 듣는 순간 인강은 매우 불편해지고 번거로워진다. 하지만 생각을 하지 않고 강사시키는대로 하게 되면 인강만큼 편리하고 쾌락을 주는 건 없다.

1-3

학습이란 결국 내가 나를 세뇌하느냐, 아니면 남에게 세뇌당하느냐 이걸로 나뉜다는 것이 지금 드는 생각이다. 작년 말에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와 관계없이 인강을 줄이고 기본교재를 철저히 하라고 했고 그래서 온갖 수험사이트에서 온갖 인강을 다 들은 경우보다 성적이 좋은 경우(물론 반대도 있다)는 오히려 그동안의 인강이 독이 된 케이스다.

인강이 안 맞는 사람들은 사실 잠재력이 매우 좋을 수도 있다. 학습의욕이 넘치지만 본인의 읽기, 사고하는 속도가 남들과 다르거나 무엇보다 본인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인강이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설명된 개념서를 본인 페이스로 읽고 문풀만 신나게 하다가 고난이 도를 정리해보는 게 낫다.

그럼 반대로 인강을 들으면 안 되나? 그건 아니다.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타율적인 세뇌가 약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 상담 게시물에서 내가 EBS만 따라가라고 한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다(근거없이 아래라저재라하지는 않는다는 것) 본인이 사고력을 더 개선해야한다거나 혼자서 공부할 수 없으면, 다른 시스템에 올라타거나 혹은 신탁통치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어느 쪽이든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정리해야한다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9.10 [세뇌론 008] 간단한 테크닉

2015.11.22

나무위키 링크

윗 소개대로 세뇌의 시초는 중국이 6.25 전쟁 포로를 상대로 사용한 심리적 테크닉을 에드워드 헌터라는 저너리스트가 Brain Washing이라고 소개한 것에서 유래한다. 세뇌는 우리의 신경 수준에서 정보,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약간의 개입적인 조작을 보탬으로써 그 사람의 생각, 행동, 감정을 마음대로 통제하려 하는 것이다.

의식하는 수준과 무의식 수준의 차이

크게 잡아서 세뇌의 테크닉은 2가지이다. 하나는 피세뇌자가 그걸 의식하는데 하는 것, 다른 하나는 피세뇌자가 의식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세뇌를 의식하는 경우는 심리적 저항이 따른다. 본인은 싫어한다. 그런데 이도 강제로 따라오게 하는 기술이 있다. 첫째는 독방에 감금하기 둘째는 일종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면서 주종관계를 강요해 고정시켜버리는 것이다.

본인이 저항하더라도 강제력을 행사해서 어느 순간에 상대방을 컨트롤해버리는 방식인데 이는 수험생들도 자기도 모르게 당하고 있는 세뇌다 - 그건 바로

학교와 학원. 이에 관해서는 스텐퍼드 교도소 실험 참조 나무위키 링크

감투는 효율적인 세뇌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무의식하의 세뇌는 상대방에게 심어놓고자 하는 명제를 '숨기면' 된다. 예를 들어 "님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제가 책을 팔겠습니다"라고 한다. 그 다음 그 교재에 링크된 주소를 통해 들어온 사이트에 저자의 온갖 이미지를 도배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한다. 그렇게되면 그 교재를 보고 들어와 저자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저자를 '승배'하는 예속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 경우는 당연히 독자들을 자기의 신도로 만드는 게 목표지만, 처음부터 "교재평가를 바란다"라고 구라를 까야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법은 자기계발 세미나, 수험 세미나, 그리고 여러가지 상담에서 이용되고 있다. 사실 수험계에도 흔한 바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경우 콕콕이 안전한(?) 이유가 이거다. 우선 혀혁재군은 아무리 미화시키더라도 세뇌가 불가능한....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인강과 교재를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고 심지어 선량한 목적이더라도 그러한 게시물에 대해서 공격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그렇다 글이나 소통이 저 두번째의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대체로 성인들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 여성들의 경우 - 외모가 반반하고 잘 빠진 남자 주인공에 훌라당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수험만 아는 학생들의 경우는 - 특히 독서를 안 해서 문과적 소양이 부족한 지금은 더욱 심각하다 - 그냥 대놓고 잡수세요... 케이스가 많다.

실제로 상담이란 것을 해보면 도저히 보면 안 되는 교재인데도 왜 샀느냐 물어보면 이유를 대답 못 한다. A 교재나 B 인강을 안 보면 망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반복하는데 그럼 풀어보았느냐하면 안 풀어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왜 그런가 추적해보면, 그 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결국 교묘한 세뇌전략에

brain-washed 되어버린 케이스다. 여기서 난감한 건 그 세뇌된 메시지를 고발하고 자네가 세뇌당했다네... 라고 하는 건 '아 고맙습니다'란 반응보다는 '뭐여 지금 시방 나를 욕하는 거'라고 공격적으로 나오기 좋다는 것이다.

세뇌는 단지 메시지의 주입으로 끝나지 않는다. 피세뇌자가 세뇌자와 동일 시되거나 그 종을 자처하는 수준으로 간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입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재를 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황당한 케이스까지 보는데 이거 설명할 게 따로 있나?

이런 경우는 두가지다. 피상담자를 그냥 무시하기 아니면 가망이 있는 경우 믿지 못 하는 피상담자에게 커리 추천해주면서 반드시 맑아보아라하면서 치고 박고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피상담자가 자기가 무엇에인가 사로잡혔다 느끼면서 정신차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는 교재추천을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선 뼈딱한 시선을 안 보낼 수 없다. 이 세뇌가 결국 해당 수험생의 인생을 처절하게 말아먹는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런 경우. 게다가 나는 이런 걸로 이해관계를 딱히 추구하지 않는다(물론 세뇌된 사례들을 탈세뇌시키는 것은 매우 좋은 인생의 경험이 된다)

적어도 수험시장에 있어서는 누구든 일단 까고보아야지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건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강사든 교재든 자기들이 돈 주고 이용하는 건데 왜 xx님 하면서 숭배해야 하나? 말하지만 업자가 보여줄 건 하루종일 공부하고 연구하느라 거무튀튀해진 피부에다가 홀라당 벗겨진 대머리 그리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이지, 그 정반대의 '교주적'인 이미지가 아니다.

수험생은 돈을 지불한만큼 양질의 정보와 더 좋은 문제를 훈련할 기회만 가지면 되는 거다. 그런데 내가 보는 입시판은 "xxx님을 따르지 않으면 망해"라는 사이비 종교 메시지가 횡행하고 있다.

9.11 [세뇌론 사례 03] 긍정적인 활용 : 일지

2015.11.23

상대방이 세뇌를 의식하는 세뇌는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령 수학을 못 하는 A군이 있다 치자, 이 친구가 수학을 못 하는 건 다른 건 다 좋은데 문제를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

이 경우 다른 사람들은 ”야, A. 너는 왜 이렇게 문제를 못 읽니”라고만 탓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소를 흘리면서 그 A에게 ”오늘부터 콕콕에 수학문제를 올려주고 쉽게 풀어주는 선생님은 님입니다”라고 역할을 던져줄 것이다. 처음에 A는 장난하냐고 하겠지만 내 말을 들으면 네 머리칼은 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말 안 들으면 온갖 저주를 가할 거라고 얘기한다.

투덜대던 A군은 내가 시키니까 억지로라도 수학문제를 해설하는 RPG를 하는데...

에이, 저거 가정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저거 이미 작년말에 시작해서 올해 성공 사례 만들었는 걸요. 굳이 해설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일지가 뭔 효용이 있느냐 하는 사람은 세뇌를 공부하지 않은 케이스다. 상원 선발과 역할 부여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전부가 입시에 성공한 건 아니다, 그러나 마인드 면에서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내 경우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으로 나에게 일부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답변 자체보다도 ’저 사람에게 상담받으면 뭔가 된다’라고 자가세뇌하는 경우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 이해가 있지만, 이 경우는 난 무조건 매몰차게 대한다. 내가 장삿꾼이면 일일히 답변해주었을 것이다. 그래야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수험생 개개인이 자기 힘으로 극복하는 경우다. 위의 RPG 는 자기 힘이다, 게다가 저 RPG에 넘어간 사람들은 나와 맞장뜨고 놀고 있다 (...) 그러니 나에게 무의식적 세뇌를 당하진 않는다.

하지만 나에게 질문해서 뭔가 의존하고만 싶어하는 사람은 무의식적 세뇌를 받고 싶어하는 케이스다. 내가 수험가 장삿꾼들을 경멸하는 이유가 그거다. 실력이 아니라 무의식적 세뇌 - 교주로서의 추앙을 받길 원한다. 이런 케이스는 결국 자기마저 파멸시키는 것이다.

콕콕에서 일지와 칼럼을 쓰는 건 단순한 기록으로만 생각하면 무의미해보일 수도 있다. 반대로 일지를 쓰면서 공부한 기록을 알리는 나, 칼럼을 쓰면서 수험방법론을 개척하고 알리는 나. 라고 역할을 부여한다면 그 때부터는 ”일지와 칼럼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된다.

한편으로 인강을 찾는 서글픈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험생은 자기 역할이 없다고 믿고 있다.

xxx 선생의 인강을 듣는 다거나 xxx 저자의 책을 소비함으로써 xxx 선생이나 xxx 저자 왕국의 일원이나 서포터가 된다는 것으로써 쿠크다스같은 자아에 포장지를 입히는 것이다. 인강이나 교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자기가 기대하고 지탱할 수 있는 집단을 찾고, 거기서 역할을 부여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올해 내가 방법론을 제시해서 성공시킨 케이스가 과연 순수히 독학을 했기 때문’만’ 성공한 건 아니다. 이들은 자기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콕콕을 통해 좌표를 확인함으로써 혼들리지 않고 자기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나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건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경계하는 일이다. 내가 써먹고자하는 세뇌라는 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는 방법’으로서 결국 보조기를 떼어버려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긍정적인 세뇌가 먹힐 수 있다는 건, 훨씬 전에도 검증해보았지만 이번에 다시 검증해보고 틀림이 없다... 물론 이런 것을 더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하는 건 허혁재군 등이 더 생각해보아야하는 것이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이제 여기 일반회원들끼리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교재추천해달라하는 질문은 화를 내고 볼 수 밖에 없다. 그건,

교조화'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내가 오히려 신경쓰고 싶은 건 자아가 약한 수험생들이 자기 위치를 어떻게 부여받고, 어느 지점을 향해 운동할 것인지에 대한 진로고민이다. 만약 +1수를 하고 싶다거나 공무원 시험을 쳐야 한다거나 하는 건 기쁘게 소통해볼 수 있다. 이건 내가 악랄한 마음을 먹더라도 세뇌시키긴 힘든 분야이기 때문이다.

9.12 [세뇌론 사례 04] 나르시시즘

2015.11.23

이게 가장 위험한 케이스 중 하나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건 실패한 사람이건 양 멀리하는 게 좋다. 어느 쪽이건 망하거나 든. 여기서 주의 : 여자의 나르시시즘은 나르시시즘으로 치진 않는다. 여자가 자기 미모를 빛내는 건 대단히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의 나르시시즘은 그게 얼굴이든, 패션이든, 목소리든, 정신상태든, 자기자랑이든 내가 보기엔 양 아주 망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 블로그든 뭐든 자기 얼굴 사진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사이코로 분류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양 피해 간다. 일단 남자가 자기 얼굴 보고 허허헛거리는 건 아무리 보아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나르시시즘의 극단이 요즘에는 줄었을지 모르는데 서울대 - 고시 하다가 망한 케이스에서 정말 지겹게 보였던 걸로 기억한다. 이 양반들이 공부 잘 있다고 주변에서 칭찬해서 그 맘으로 서울대까지 왔는데 고시하다가 시험이 안 되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주변에서도 호응을 안 해주니까. 그걸 메꾼다고 자기 외모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철학자라도 되는 양 인생과 세상을 논하다가 나중에 정말 미쳐 버린다(....) 그런 상태에서 공부가 될 리는... 있겠냐. 그렇게해서 폐인이 되었다가 고향에 내려가거나 노가다 뛰러 가는 거지. 어제인가 모 분이 자기 고찰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거 말렸다. 간단하지, 그 모 분이 그런 글쓰기에 맛들이는 순간 저 장수생 코스 딱 밟는 것이거든. 장수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공부방향이 딱히 틀린 것도 아님, 노력도 상당히 많이 했음, 그리고 수험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시험이 안 되지. 그런데 대화하다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도 않는데 정말 강조해대는 것은 아나? 그거 본인이 야 모르지.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듣기에는 왜 자꾸만 자기를 노출하려고 하나 그 생각이 든다 그거지. 자기를 강조하고 사랑하게(...) 되면 가장 위험함. 그 때부터는 공부를 해도 머리에 안 들어가거든. 자기가 참 보잘 것 업고 병신 같다는 걸 깨닫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아동바동해야 공부를 하는 건데 자기를 관찰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환경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 게다가 나중에 자기 방법이 다 옳다고 착각하면서 균형감각을 잊어버림. 그런데 나 혼자 보면 외로우니까 남들에게 계속 자기를 드러내려 함(...)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호응해주지. 그런데 나중에는 슬슬 멀리한다, 아니 고추달린 남자가 저게 뭐하는 짓이냐 생각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 수년 째 계속 자기가 잘 생겼냐 얼마나 생각이 깊냐 너희들이 나만큼 고민해보았냐 이딴 소리나 하니까. 또 쫓겨날지 모르지만 혁혁재군도 살짝 디스해보자. 오수 썰도 나르시시즘이 과연 없을 것 같나?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장점과 단점을 다 추려보면서 고찰해보았다. 어찌되었든 대학은 갔으니까 해피엔딩(?)인 것이지만 오수썰을 딱 읽으면서 느낀 게 인간성이 괜찮은 남자조차 장수를 하면 나르시시즘을 필연적으로 겪는 건 어쩔 수 밖에 없다란 생각이었다. 나르시시즘에 빠지면 이게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 나중에는 진짜 병신같이 되어버린다. 이거 치유하려면 그냥 식민지배당하면서 근대화... 그러니까 타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상루트로 돌아가봐야 자기가 당시에 얼마나 병신같이 살았나 깨닫고 고쳐갈 수 밖에 없다. 물론.... 성공하고 나서도 나르시시즘을 더 발전시킨 답없는 케이스도 있다만 그건 특수한 케이스다. N 수생 이상 대화를 하다보면 남자 녀석들은 예외없이 나르시시즘 끼를 보인다. 그러나 경악스런 사실은 이거 **여학생들은 없다(...)**. 여자들이 나 예뻐 어찌구 하는 게 살아남기 위한 실전적인 진화임을 알 수 있다. 이 나르시시즘 증세는 동물 세계의 짹짓기가 금지된 문명 세계와는 맞지않는 도태의 증거가 아닐까. 여학생들이 상담하면 그 변덕 때문에 까다로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다 (...) 나르시시즘 그런 걸 겪지 않음, 캐리만 잘 해주면 일단 자기를 봐준다 신용해준다는 걸로 정말 잘 따라온다. 그런데 남자녀석들은 이거 안 먹힘, 중종 나르시시즘 걸리면 충고해도 안 들어먹음. 남자들 나르시시즘은 그거 백해무

익한 거니까 강 버리는 게 좋음. 서울대 출신 고시생들이 인생 날려먹은 게 이 때문이라니까. 남자가 군대, 직장 등의 조직생활하면 철든다는 얘기 왜 듣는지 아나? 조직에서는 나르시시즘을 허용해주지 않으니까. 조직에서는 남자 개인의 인격을 억제해버니까 나르시시즘이 방지되어서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여풍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돋보이지만 이것도 한몫할 거다 래알.

9.13 [세뇌론 사례 05] 언행일치

2015.11.25

”xx니까 xx이다”라는 게 한동안 유행했다. 안 좋은 의미로 - 정작 그런 구호를 외친 사람이 정작 xx본 적이 있는가. 청년들보고 고생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자기도 고생을 하느냐.

자기 자식을 미국 국적주고 카투사 보낸 사람이 반미 외친다면 위선자라고 불러야한다. 외제차 몰고다니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청춘들의 희망을 외친다면 강아지라고 얘기해줘야한다. 물론 메시지만 보면 되지 왜 메신저를 보냐고 공격해대는 한심한 자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속을 것이다.

휴머니즘적인 글은 솔까 얼마든지 주작해낼 수가 있는 시대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층을 속이고 착취하는 자들이 인생의 희망을 외치면서 거짓말하는 것, 지겹게 본다. 입으로는 자기가 올바르게 산다 노력한다 정신적 가치를 추종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본 적이 있을까. 그런데도 저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야 그 글에 낚인 호구들이 열심히 ’사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언행일치라는 게 주목받기 시작하자 저런 거짓말도 안 먹힌다. 연예인들조차도 과거에는 안 하던 고소미를 시전하기 시작한 모양이다. 당분간은 입을 틀어막을 수는 있겠지. 그게 정말 모욕감을 얻어서인가? 아니지. 자기 장사에 불리하지 않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이지. 하지만 그럴 수록 대중들도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건 아나?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나? 글쎄. 난 노력은 해야한다고 보지만 희망은 없다보는데? 노력하라고 하는 건 그냥 지껄이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내가 느끼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노력한 건 분명 보답을 하거든 그런데 희망이라는 것이 있진 하나. 이런 소리를 나에게 지껄이는 어른들은 적어도 내 경험상 모두 위선자였던데 말이다. 그리고 그 희망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나? ”**노력해서 내 자리를 위협하지 마. 알아서 굽어 뛰지든가**”

유감스러운 사실은 요즘 10대나 20대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 사회를 바꾸면 돼. 그럼 희망이 있을 거야**”라는 한물간 것에 세뇌당했다는 것. 이게 적게 먹고 운동하는 고통 없이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운동도 싫고 적게 먹는 것도 싫은 사람이 택하는 게 결국 수술일 건데 그럼 자기 노력 안 하고 강 사회가 다 뒤집혀야한다는 것도 뭐가 다른 이야기일까. 저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정작 자기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시키더라는 걸 알고는 있을까.

희망은 없지만 뒤쳐지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냥 이 한줄로 충분할 것 같았는데.

추가로 진실을 더 적어볼까?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 라이벌들이 알아서 죽어준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앙, 이 사회 참 절망적이야”라고 맞장구 적당히 쳐주고 우린 몰래 노력하면 되지. 사실 안 좋은 교재나 강의도 굳이 비추할 필요가 있나? ”앙, 그거 참 좋아”라고 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준 다음에 자기는 탈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옛말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매 한대 더 때린다라는 말 그대로다. 이런 종류의 지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간혹 가다가 이런 종류의 얘기로 시비거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심하다고 본다. 자기들이 노력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냥 슬랙처럼 살면 되지 왜 그걸 남에게 하소연하나. 그리고 사회가 xx해서 문제다 하면 군소리 말고 강 이민가버리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혁명을 일으키든가. 왜 입으로만 그러고 앉아있지? 그

사람들도 하는 짓 보면 사례 04의 나르시시즘 그대로. 그러다가 술이나 까먹고 나 잘났다 자랑질하다가 나중에 취업 어딜해 허둥지둥 그려는 거 한두번 보았나.

수험도 마찬가지이다. 난 강의나 교재 물어보는 것도 짜증나지만(그 시간에 풀면 되잖아), 도대체 강사 아무개가 어쩐다 교재 저자 저무개가 저런다 말하는 사람들 보면 '세뇌되었네 이 양반' 하는 생각에 이제는 지겨울 정도다. 돈 쓰는 사람이 갑 아닌가? 그럼 학생이 갑이고 강사는 을인데, 정작 돈은 다 바치면서 강사님 믿습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가 아니면 뭐냐. 그리고 강사가 가르친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기출분석해보면 나오지 않나? 그거 일주일이면 다 하는데 그럴 시도는 해보았나. 강의나 교재가 좋냐 안 좋냐 하는 건 그냥 본인이 비교해보면 되는 거다. 그럴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도 역시 세뇌당한 케이스인걸 부정할 수 있나?

이번에도 보면 뭔 놈의 저자가 쓴 교재가 좋다 하더니 역시나 수능 끝나고 다들 침묵이다. 저자들도 뭐 자기가 쓴 거에서 다 나올 거라고 하던데 일부 빼고는 광 꿀먹은 병어리고, 학생들도 그런 거나 능동적으로 분석해서 누가 실제로 도움이 되었나 파악하면 될 것을 참 엉뚱한 데 신경쓰고 앉아있다. 자기들이 세뇌당해서 레밍즈질하는 것도 모르고 "이 사회가 흉악해서 내가 노력해보았자 소용 어쩌구저쩌구" 한탄이나 하고 앉아있겠지.

수험의 비결은 간단하다. 자기가 판단해서 입시에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해서 그걸 밟으면 되는 거다. 그럼 스스로 부딪쳐서 공부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문풀을 많이 해보라는 이야기지. 무슨 인강만 들으면 시간이 단축된다? 그럼 뭐하나.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줄 몰라서, 자기 공부가 어떤지 알 수가 없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문풀하고 책읽으며 깨져보면서 나아가야만 자기가 어딜 보충해야 할지 알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뭐 이거 상담글이든 질문글이든 보면 수험생이 수년째 공부해도 본인의 공부가 뭔지 모른다. 그저 어느 인강이 좋나요? 교재가 좋나요? ... 이런 스바 음마니반메훔 구절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하여간 깔 건 까야겠다. '좀 친절할 수 없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내가 친절히 대해주고 일일히 맞장구쳐주다간 나도 병신될 것 같다는 게 딱 보이더라는 것이지. 일단 특정 강사나 특정 교재(적어도 내가 보기엔 저런 것도 팔리는구나 생각되던 것) 강조하는 인간이 잘 나가는 것 못 보았다. 이것도 사실 겸증이 된다. A라는 교재로 다 해먹으면 그 A 좋은 게 바로 누설되어서 대세가 되어버린다. 대세가 된 A 교재가 그럼 유의미한 효과가 있나? 결국 모두가 다 볼 것인데. 그럼 대세가 된 A교재를 평가원이 저격질하면 A만 본 사람은 다시 망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만능교재라는 건 사실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건 인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계속 의심해보고 자문자답해보면서 겸증해나가면 사소한 세뇌도 비켜나갈 수 있는데 그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도 무슨 소용이냐...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건 답답한 것이 아닌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 잘나가던 영어교재 Z가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 을, 병, 정이라는 강사들이 Z를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만의 교재 G, H, I, J를 낸다. 그럼 우린 어떻게 생각해야할까?

일단 Z를 보겠지. 왜냐면 갑, 을, 병, 정이 Z를 정말 잘 비난한다면 그건 그 사람들 실력이 Z로 키워졌단 이야기거든. 우선 Z를 독학한 다음에 G, H, I, J의 샘플을 보고 거기서 선택하겠지. Z라는 책도 단점이 없을 리는 없으니 맹신하면 안 된다. 하지만 G, H, I, J가 모두 Z를 보완해준다고 보장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Z부터 빠삭히 봐서 저 갑, 을, 병, 정의 수준을 따라잡고 비평하려하겠지.

그런데 현실은 G, H, I, J 하나 보고도 낚인 애들이 나중에야 Z를 보고 어라 강의내용이 여기 다 있었네... 이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9.14 [세뇌론 009] 반복은 덮어쓰는 과정

2015.11.27

수학적 사고는 미신을 제거해주지요. 논리의 출발은 ”부정“입니다. p가 거

짓이니 p가 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사유가 다른 문명권과 달랐던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수학교육은 '근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백신을 대량접종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모든 학생을 근대인으로 세뇌시키는 과정이라 하겠지요. 개인에게 수학은 대입을 좌우하는 짜증은 과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겠습니다만, 국가입장에서는 원시시대나 중세시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 학습공학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봅시다. **반복만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건 공부가 뭔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세뇌의 기본은 반복이지요. **반복없는 세뇌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뇌의 효과는 대단히 강력합니다. 약물이 정말 불가피한 경우라거나 신경이 손상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본인들이 어떤 경험으로 특정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살아왔는가 하는 케이스는 일종의 반복경험으로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잘못된 세뇌를 당하면 정신병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와 똑같은 이야기이지요.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 우선 시도해야할 것은 그 악몽을 지우고 좋은 이미지로 덮어쓰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악몽을 지우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그걸 흐리게 하거나 작게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지요.

전문적인 최면(참고로 문학에 관심있는 사람은 밀턴 에릭슨 참조)까지 논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는 공부 자체가 **일종의 세뇌이자 간접 최면이기까지하다는** 것을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년간 특정 과목들의 도그마들을 반복학습하여 그걸 숙달시키는 과정은 여타 어떤 세뇌보다도 매우 강력하다고 하겠죠. 이걸 엿볼 수 있는 예는 가령 특정 인강을 들으면 그 학생은 그 강사를 업자를 넘어서 부모, 스승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데 말이죠. 우리가 TV 드라마를 볼 때 배우나 PD에게 그런 감정을 품는가요?) 독학을 권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자가세뇌가 덜 위험하니까요(물론 매우 좋은 강의라면 그런 강의로 세뇌되는 게 낫습니다만) 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스스로 공부, 아니 자가세뇌를 해서 인간이 바뀔 수 있다면 그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지요. 운명 이야기가 나와서 적는다면 만약 삶이라는 게

주관적 심상의 연속체라면 세뇌로 운명이 바뀐다라는 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하고 야동이나 보던 청년이 감금되어 국영수탐구 공부를 강제당해 무수히 반복하다 사고 프로세스가 바뀌면 사람이 달라진 것이고 그럼 결국 운명이 바뀐 것이지요.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하느냐? 사이비 종교가 사람을 세뇌시키는 정도는 넘어서야 합니다. 그 정도까지 가야 떨린다거나 긴장한다든가 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공부를 한다... 수준이면 여전히 뇌는 공부를 거부해버립니다.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안' 푸는 것이죠. 수학공부를 한다 수준으로는 곤란합니다. 아예 수리적 사고에 세뇌당해버려야 합니다. 소위 수학을 잘 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보는 그들은 세뇌당한 '광신도'들입니다. 아래 학습공학에서 침착해지는 건 실성하는 것이라고 얘기드렸죠. 광신도는 이미 '실성' 속성은 갖고 있음.

차분히 공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한다.... 까페에서 여유부리면서 총칼 든 강도와 격대할 수 있단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본 것이죠. 이미 시험 문제부터가 제정신들이 아닌 것들입니다. 제 시간 내에 그것들을 풀어내려면 정상적 사고로는 불가능할 터인데이요. 물론 문제를 독해하고 의도를 파악하는 건 차분한 이성적 태도로 가야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리자는 겸은 양복 입은 깍두기들이 지켜주고 있어야하죠. 즉, 해당 과목에 세뇌당한 것을 기본으로 합리적 사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글만 하더라도 ㄱㄴㄷㄹ.... 제자 원리 제대로 알고 쓰는 것도 아니죠. 이 역시 사실 우리가 국어네 세뇌당한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수학적 사고의 세뇌라고 했을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가지 유형과 패턴으로만 세뇌당하느냐, 아니면 그 패턴을 해체하고 참 거짓을 따지는 수준까지로 세뇌당하느냐.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사소해보일지라도 단지 문제를 풀기만 하는 것과, 그 문제를 이루는 모든 개념을 의심하고 검증하는 건 다르지요. 유감스럽지만 전자를 강조하는 업자나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텔립니다. 심지어 문제를 많이 풀

었다고 하는 경우조차도 전자에 머무른 경우라면 안 되지요. xx 문제면 xx하게 푼다.... 라고 흔히 강의하거나 야매교재에 쓰여있는데로 가면 망합니다. xx 문제에 xx이 나왔는데 xx의 교과서적 정의는 무엇인가, xx는 식, 그래프, 개념으로 어떻게 표상되는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형되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형식적인 검증을 밟으면서 출제자가 어떤 루트를 따랐을까 읽어보는 방식으로 세뇌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맨 앞문단에서 말한 수학적 사고의 혜택이 드러납니다. 저런 식의 사유를 하면 본인의 문제까지도 인과관계를 파악하면서 내가 왜 불안해하거나 그런 충동이 드는가 하는 것도 분석되면서 매우 심각하게 여겼던 문제조차도 사소하게 생각하거나, 해결가능한 실마리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수학이 아닌 근대수학의 학습은 본인의 정신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 근대수학에만 세뇌된 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근대수학도 세련된 '도그마'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하다보면 성적이 높은 친구와 낮은 친구는 말하는 수준이 다릅니다만. 그건 머리가 좋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어떤 형식에 세뇌되어있나에 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형식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그 형식을 해체시키는 방향의 대화를 걸고 일종의 무질서를 초래해보면서 그런 건 유전이라기보다는 반복학습되어 세뇌단계에 이르게 된 양식에 불과하다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면 넘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감각과 연결된 일종의 형식논리의 반복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걸 크게의 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세뇌론에서 언급하는 마법사들은 개인과 집단의 삶이 그렇게 연약하고 단조롭고 취약한 형식의 구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장난질을 치고 있죠. 이게 뭔지 깨달으면 왜 인문학이 매우 비인간적이고 위험하며 강력한 학문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나”, ”가족”, ”사회”,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스러지기 쉬운 레고블럭인지 깨닫는다면 그건 제대로 공부, 즉 세뇌된 것이겠죠.

9.15 [세뇌론 010] 교주와 교단이 갖춘 무기

2016.03.25

일반적으로 교주들은 대단히 따뜻하고 인자한 면모를 보인다. 이 점에서는 북쪽의 김씨 왕조 수장이 초절정 고수일 것이다. 남몰래 정적을 숙청하면서도 그 자신은 인자한 아버지상을 표출했기 때문이다. 말을 잘 들으면 따뜻하게 해 주겠지만 안 그러면 죽어.

사람은 사상, 행동, 감정의 세가지 축 중 한가지만 무너져도 인격이 붕괴된다 생각만큼 사람은 강하지 않은데 잘 생각하면 컬트집단들은 이 셋 중 하나를 훈들 수 있다. 첫째, 기존 윤리와 철학을 포섭할 수 있는 매우 정교한 교리가 있다 → 사상 공략 둘째, 집단이기 때문에 실천이 그리 어렵지 않으며 쇼하는데도 탁월하다 → 행동 공략 셋째, 무엇보다도 피세뇌자의 어두운 감정을 다독일 수 있다 → 감정 공략.

이걸 벼텨낼 사람들이 있나? 견뎌내기 위해서는 논리적 부정을 생활화하며 뭐든지 의심해보아야 하는데 그 순간 본인은 매우 매몰차고 냉혹하며 감성이라고는 없는 '악인'으로 비치게 되는데 이런 악한 이미지를 뒤집어쓰더라도 진실만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없으면 십중팔구 세뇌당해버린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이런 '비관주의적인 회의론자'를 치유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

게다가 똑똑한 사람들이 세뇌당하기 쉬운 이유는, 세뇌자들은 항상 가치있는 '정보'를 던져주기 때문이다. 그런 모임들이 가상과 허구의 세계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상과 허구가 얼마나 허망한지 잘 알고 있다. 피세뇌자들을 요리할 수 있는 현실론자들답게 어떤 정보가 가치있는지 알고 있으며, 그런 가치있는 정보를 던져주면 회의론자들도 중독되어서 자기들의 희생물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금전적인 사고를 꼼꼼히 한다고 하는 아줌마들이 종교인들의 노예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가치있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 이

상을 넘어서면 과감히 컷해야하며, 자기가 구축해 온 지식에 포섭해버려야 흔들리지 않는다. 술 한잔이라면 모를까 수십잔을 마시면 고주망태가 되어 상대방의 속셈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나.

정보에 중독된 고학력자들일수록 세뇌자들의 '정보조작'에 당하기 좋다. 이 건 돈이 모이는 판에서는 자연스럽게 벌어진다. 수험판이라고 다를 게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수험판이 이런 점에서 매우 재밌는 곳이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가치있는 정보를 찾다가 n수해버린 사람들은 상당히 찔릴 것이다.

상품을 파는 업자들은 슬그머니 자신의 신상, 외모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우상'이 되기 위한 절차를 거리낌없이 저지른다. 객관적으로 보면 상품과 관계 없는 행각이지만 사실은 이런 행위야말로 고도의 세뇌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 호갱들이 구입하는 건 '품질이 나쁘면 선택 안 해도 되는 상품'이 아니다. 바로 돈을 내서 교주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다 품질이 기대 이하인 상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면서 아무개님의 정성이 들어갔다고 치자. 이 경우 호갱들은 그 상품이 좋은지 나쁜지 신경쓰지 않는다, 오로지 그 아무개님을 배알하는 신자의 마음으로 돈을 쓰게 되어있다.

이것이 세뇌술의 가장 원시적인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도 쓰는 작자들이 많은 것이다 그걸 쓰는 사람들의 연령이나 전공을 보면 정신분석이나 심리, 종교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으면 두가지이다. 남이 하는 걸 따라하거나, 아니면 비공개적 루트로 고객을 신자화하는 테크닉을 익혔단 이야기가 된다.

9.16 [세뇌론 011] 본인이 강하지 않으면 극한으로 공부하지 말 것.

2016.03.25

실제 세뇌란 말은 중국어인 'husi nao(스이 나오)'에서 파생된 것이다.

20세기의 공산주의자들은 각 진영의 전도사들은 상대를 포섭하기 위해 애를 썼다. 마르크스주의에 전염된 사람들이 실제로는 마르크스 사상이 뭔지 모른다.

세뇌를 할 때에는 상대가 극한 상태에 있어야한다. 극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 즉 중공이나 과거 러시아, 즉 소련에서 세뇌할 때에는 감금해놓고 당근과 채찍을 반복해놓는다. 일주일 내내 어둠 속에 지내게 하거나 일부러 식사/수면 시간을 교란한다. 초인이 아닌 이상 정상적인 사고가 무너져버린다. 정상적인 사고가 무너진 사람들은 현실감이 사라지며 그 상태에서는 **뭔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이한 상태**에 빠진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백”하고 용서받으려하는 것인데 이건 자아를 부정하면서 자존심까지 저버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모든 입구가 뚫리면 세뇌자가 원하는 대로 사상/감정/지식/정보 조작을 할 수 있다.

이걸 수험으로 연결시켜보면 수험생들이 꽤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고 느끼는 대목이 있다. 실제로 상담하다보면서 느낀 것인데, 실패한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극한’을 좋아하는 경향이 강하단 것이다. 매우 극단주의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선택을 하는 건 그렇다 치고, 공부를 할 때에 자신을 막 내던져 ’극한’으로 간다는 걸 선호한다. 물론 공부할 때에는 극한으로 결국 가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성적이 좋고 실적이 있어 자존심도 세겼고 자아가 튼튼해졌을 때이다. 반대로 시험에 실패하고 자존심이 사라져 ”고백”하고 싶어하는 게 본능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극한을 달린다?

대충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패턴들을 경험해왔다는 것에 소름이 끼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아뇨, 실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다만 하나 분명한 건 수험에서의 극한 상태라는 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사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으며 그래서 수험생활을 길게 겪은 사람이 살인충동을 겪거나 변태적인 분야로 빠지거나 맛가버리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극한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전제는 ”**자존감을 회복한 이후**”다.

9.17 [세뇌론 012] 집단세뇌

2016.03.25

강의는 사실 세뇌와 많이 겹친다.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강의에 집중하고 귀기울이는 건 좋게 보면 학습이지만, 만약 강사가 엉뚱한 걸 가르치거나 불순한 의도의 코드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일종의 종교집회와 똑같다고 할 수 있다.

학습론에서 혼자 공부하지 말고 도서관이나 학원에 가라고 하면서 혼자 공부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 위험한 것을 이용한 고육지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인간은 혼자서는 세뇌당하기 힘들다. 혼자인 경우는 더 많이 긴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대일 대화를 하며 비판을 하기 좋다. 그러나 집단 속에서는 달라진다. 우선 집단에 속한 이상 우리의 본능은 생존을 걱정하지 않으므로 경계심을 죽이게 된다. 거기다가 자기가 속한 집단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 꺼려진다. 그래서 집단 속에서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냥 mp3로 들으면 별 것도 아닌 뚝 공연을 실연으로 들었을 때에는 감동의 해일에 빠지는 원리와 비슷한 것이다. 인강으로 들었을 때에는 그냥 그런 메시지인가 하면서 다소 흘려듣거나 반사시키며 듣는다. 세뇌의 위험도는 줄어들 수 있어도 대신 학습효율이 떨어져 버린다. 반면 수십, 수백명의 열기가 가득한 강의실에서는 그 집단적 흐름을 따라 맹목적으로 집중하게 된다. 세뇌의 위험성은 커지나 그만큼 학습효율이 높은 것이다.

어느 쪽이 낫다고 할 수 없지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죽이려면 이런 특징은 알고 있어야한다. 공부가 잘 된다는 것은 그래서 두가지이다. 그게 세뇌를 통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양적 측면 때문에 그리고 효율성 때문에 우리는 세뇌적 학습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검토하고 비판하는 것이 없으면 그 세뇌적 학습의 약빨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9.18 [세뇌론 013] 분노의 에너지와 악의 저주

2016.03.26

스트레스가 쌓이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긴다.

하나는 **분노의 에너지** 다른 하나는 **악의 저주**.

소위 성격이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 저결 대충 표현한 것이다. 수험에 실패하는 사람일수록 세뇌당하기 쉬워지는 이유는 저것으로부터의 도피일 수도 있다.

뭣도 모르는 어른들이 화를 가라앉히라고 하지만 엉터리 조언이 아닐 수 없다. 경쟁 상황에 놓이면 분노의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쌓인다. 적절히 '공부 에너지'로 활용하라는 게 좋은 조언이다. 똑같은 핵분열도 통제를 잘 하면 저렴한 원자력 전기가 되지만, 실패하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의도적으로 폭발시키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분노 에너지를 공부 에너지로 적절히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진다.

다른 하나는 바로 악의 저주다. 자신의 실패나 상처를 처음에는 긍정하려하지만 결국에는 참지 못 한다. 인간이 재밌는 건 감정적 기복을 심하게 겪으면 그걸 예술 - 노래, 그림, 시로 표현하려 하는 것인데 수험생의 경우는 자신의 좌절감을 가지고 "나는 안 되는 놈이야"라고 자기 비하를 하는 예술을 하는 게 문제다. 그 예술이 소위 저주가 되어서 그 자신을 읊어맨다. 심하면 정말로 지하철 선로에 뛰어내리거나 한강에 다이빙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그런 싸구려 저주에 속지 말라는 식으로 조기에 가치관을 바꿔주거나 따끔하게 비판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이전 글에서 집단에 속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면서도 독학이 위험한 이유를 적지 않았는데 바로 위 두가지라고 할 수 있다.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분노 에너지로 초사이어인이 되어있는 데다가 저주의 언어를 불경처럼 외우고 다니

고 한다. 이 사람들은 상담해달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불행을 상대가 동감해주길 바라는 걸 넘어, 상대가 불행해지길 원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본인들은 이걸 보면서 찔리면서 '아 나는 그런 적 없어'라고 할 것이다. 그만큼 분노의 에너지와 악의 저주는 무시무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건 정말이지 디씨 고갤이든 ○ㅂ 대팍도 마찬가지이지만 수험생 사이트, 그리고 콕콕에서도 자주 접한다. 분노의 에너지나 악의 저주에 사로잡히면 심하게 말하면 5년 이상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시간을 날리게 되어 버린다. 그럼 5년 이후에는 왜 치유되느냐. 그거야 나이를 먹고 자신도 외형적 변화를 거치다보니까 허영심이 사라지는 탓이다. 거꾸로 말해 독학을 하던 사람들이 학원에 가면 저런 병이 완화된다.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애들이 많구나, 아니 나보다 심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분노의 에너지가 정화되고 악의 저주가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것이다. 동병상련을 느끼거나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갖는 것이 진통제 역할을 해준다.

이 효과를 맛본 사람들은 그래서 '학원에 가는 게 낫다'라고 충고하게 된다. 물론 자기들이 얼마나 끔찍한 분노의 에너지나 악의 저주 덩어리인지는 싸악 망각해버리고 말이다.

분노에 사로잡히고 저주에 걸린 채로 극한을 추구하는 것이 나을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1년에 쇼부보지 말고 2 3년 길게 가면서 자신을 정화한 다음 천천히 가는 게 낫다. 시험에 불을 확률도 낮지만 어쩌다가 운이 좋아 대학에 간다고 해도 정신이 엉망진창인 채 대학생활을 해낼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제 10 장

미래공학

10.1 [미래공학 001] 다보스포럼의 일자리 경고

2016.01.23

뉴스링크

인공지능, 바이오 등 하이테크놀로지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전문 기술직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단순직 고용 불안정성은 더욱 커진다. 보고서는 미래에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군으로 사무행정직군, 제조업생산, 건설채광업 등을 꼽았다. 사무행정직에서 470만개, 제조업생산 160만개, 건설채광업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재무관리(50만개) 매니지먼트(41만개) 컴퓨터수학(40만개) 등은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라고는 하는데 저걸 곧이 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건 기술 발달로 인한 대체 가능성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술로만 직업을 논하면 상당히 많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인기있는 직종이 프로그래머여야 하는데 현실은? 과거에 의대가 비인기였던 이유 중 하나도 그것도 역시 대체될 수 있다고 믿어서인데 지금은? 물론 의치한도 앞으로 매우 불안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고소득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간접적으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수 통제, 건강보험 시스템, 거기다 전문의 분과. 정부에서는 만약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의사들의 권리를 조금씩 박탈해갈 수도 있고, 사실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죠.

인간은 기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배하지 못 하죠. 그 마음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바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법률의 통제를 받게 되고 법률은 결국 여론을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독재가 되지 않는 한은 결국 표심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고, 그건 결국 다수의 의사를 죽게 되어있습니다. 예, 여기서 눈치 까셔야죠. 소위 전문직이든 고학벌은 '소수자'에 속한

다는 것입니다. 저기서 언급한 재무관리, 매니지먼트, 건설 수학 등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자면 그만큼 어느 사회에서 든 '소수'만이 담당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소수들은 정치적으로는 약자에 속합니다.

수협사이트에서는 지나치게 의사가 최고다라는 신앙이 강합니다만. 정작 의사들은 '권력'이나 '명예'가 있는 직업을 부러워하고 있고 (사실 돈변다고 해도 자기들이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갖춘 판검사들은 곁으로나 그렇지 실제로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뭔가 헬링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다 상대적 이지 않냐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건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부를 잘 하면 당연히 의치한에 가는 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지언정 정말 그게 좋은 길인가하는 건 회의적입니다. 고소득이 목표라고 하면 - 돈이 좋아서라고 하면 괜히 인술 베풀고 싶어서 의대간다 그럴 필요 없이 돈에 관한 전공을 밟는 게 나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위선적으로 남을 위해 봉사한다거나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럴 필요 없이 적당한 전공 밟아서 스스로 자기 이름 알리고 시민으로서 운동하다가 정당에 들어가 경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돈의 속성을 모르면 상당한 오류에 빠지는데 가령 의사들이 월 천 정도는 가볍게 변다에서 간과하는 것은 현재 강남 아파트 가격 - 대충 8억대라고 잡으면 뭔가 착잡해질 수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이 폭등한 게 바로 2000년대 초 중반이었는데(그리고 집집마다 부부싸움이 잦았다죠) 그 이전만 하더라도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3억대 정도 했고(이게 틀리면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때에도 의사들은 현 수준 정도는 온갖 합법적, 탈법적 수단으로 벌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초구에 살 적에 자주 다녔던 모 피부과의 경우는 강남이 별 게 없었을 때 동네 수준(?)으로 개업했는데 성실히 모아서 투자한 부동산 폭등으로 2010년 초에 100억대까지.

그럼 이 예를 왜 드느냐. 현금으로만 계산하는 경우 인플레를 감안 안 하기 때문에, 즉 실질 가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에 빠질 수 있단 것입니다.

부동산이 폭등해서 집값이 2억에서 5억으로 올랐다는 건 부동산의 실질 가치가 올라갔다기보다는 반대로 현금 가치가 그 정도로 형편없이 떨어졌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폭등의 배경에는 시중에 엄청난 자금이 풀린 탓이 컸죠. 그 자금이 풀린 건 당대 정치권력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런 걸 읽어낸 사람은 누워서 수십억을 벌었고, 그걸 모른 채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는 걸 믿은 사람은 앉아서 수억을 잃었죠. 사실 지금의 수저론을 낳은 빈부격차가 그 때 확정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아무튼 다보스의 경고대로 일자리가 바뀔 건 사실이라고 쳐도 저건 어디까지나 '기술'로만 평가한 것이니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게 좋으며 특히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당장 돈벌이 이전에 앞으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저기 법률이 내려간다.... 다소 회의적입니다만 법을 잘 안다는 것부터가 힘인데 과연 법조인이 그리 쉽게 망할까요? 법조인이 직업이 아니더라도 법을 공부해두는 것 자체가 삶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위에서 말했다시피 '돈'을 다루는 그런 전공을 가는 게 백번 낫습니다.

10.2 [미래공학 002] 의료인의 정원통제

2016.01.24

뉴스링크

살펴보면 2008년 국내 병원의 CT와 MRI보유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각각 36.5대와 17.5대 수준이었고, 병상수도 인구 1000명당 7.7병상이었다. 이에 반해 의대 졸업자수는 2008년 9.1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임상의사수는 0.3명늘긴했지만 평균에 크게 못미친다. 더구나 임상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다. 한의사

수가 지난 10년간 40%이상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늘지 않은 셈이다.

한의사수까지 포함해보자면 시장에 비해서 '공급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 다라고 한다면 저건 언제든지 어떤 정권이 들어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많이 벼는 것이 정말 의료 쪽이 블루오션이고 비전이 좋아서인가.... 라기보다는 수요가 확실하고 건강보험체계까지 갖춰져 있어서 수입을 보장해주는데 정월이 통제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바꿔 말해서 공대의 경우 만약 기계, 전기, 화학에 대해서 공대 석사까지 마치지 않으면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고, 그런 면허 소지자가 아니면 대기업에 입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울러 연구분야에서 일하면 해당 기술에 대해서 특허까지도 보장된다고 한다면 의대 저리가라일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공대는 그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왜 공대인들은 권리를 보장 못 하는가. 공대졸업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면 대기업의 입지가 약화되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의료 분야 쪽으로 먹거리를 창출하게 되는 경우 의료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의대가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선 IMF다 경기불황이다라고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사건은 아랫 기사에서 설명된 것입니다. 바로 '**의약분업**'이죠.

뉴스링크

결과적으로는 - 적어도 현재까지는 어설프다고 할지라도 상호원원을 보장 받은 구조입니다. 사회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의사들이 많이 번다 이게 다 수학을 잘 해서라고 자뻑하겠지만 문명권의 현대사회에서 먹고사니즘의 갈등은 모든 게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납니다. 사실 저런 것이야말로 본질적인 정치인데도 이런 것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외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말입니다.

그럼 의대정원이 앞으로 늘어날 일은 정말 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

적어도 제가 하소연 듣고 얻는 정보로 치면 그 세계도 수저론에서는 전혀 자유로울 수 없고 오히려 그 쪽 사람들은 상류층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보다 더 빽센 감도 없지 않지만 법률 쪽만 하더라도 로스쿨로 다양한 배출을 승인해준 것이 기성 세대가 법인화, 조직화로 거대자본화하면서 신규 인력들을 싸게 부려먹고 실질적으로 경쟁자들을 줄이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여기도 장담은 못 하는 것입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쭉 연금 잘 받고 갈 수 있던 공무원들도 지금 점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과연 앞으로 철밥통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일반론으로만 가더라도 의치한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 현재의 현상에 기초한 기대에 불과한 것이며 이것이 정확한 미래를 담보하지 못 하는 한 얼마든지 붕괴될 수 있는 판타지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보아야겠지만. 결국 권력을 현재 누가 쥐고 있으며 앞으로 누가 신흥강자가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제국주의적 식민수탈이나 선진국의 후진국 착취는 자본을 앞장세워서 저렴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원을 수탈해나간다로 요약되었지만 현재와 미래의 자본주의가 1순위로 꼽는 것은 바로 '인구'입니다. 이제는 선진국들이 발목이 잡힌 게 바로 저출산이며, 이건 이민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뚜렷해졌지만. 일단 물건을 만들더라도 시장이 있어야 개인이든 법인이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각광받았던 것이고, 현재는 출산율이 높은 무슬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지요.

10.3 [미래공학 003] 돈의 악취

2016.01.25

의대 가면 좋다 어찌구하는 것에 대한 기시감 풋내기 시절에 들었던 ”공대

가면 놀아도 취업하고 끌뺀다”와 똑같음. 현재 의대에 관한 환상과 전망이 당시 공대에 관한 그것과 똑같다고 하면 에이 그럴리가요 했지만

”**대기업이 무너질 리가 없다**”

”**쭉 이대로만 태평성대. 대학만 가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산다**”

라던 사람들이 그와 정반대 현실이 오자마자 소신(?)을 바꿔버리는 일이 벌어져버린다.

2000년대에는 좋은 데에 취업하고 싶어서 신의 직장이라는 xx은행 같은 데를 때려치우고 고시공부를 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한의사가 많이 별 수 있다 하면서 빽세게 공부해서 한의대 다시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신의 직장만 다닌다면 전문직도 필요없다...**라는 분위기가 아닌가? 돈을 적게 받아도 좋으니 안정성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서 과장이 아니고 늘그막에 공무원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도 널렸다.

여기서 얻은 지혜는 하나. 돈냄새가 싸구려 향수의 악취처럼 처럼 풍기기 시작하면 일단 거기선 무조건 탈출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도 지금 레지까지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돈냄새’ 맡고 의대 가진 않았다. 역설적으로 돈냄새를 맡았다면 공대에 갔어야할 것이다. 당시에는 그게 더 돈을 많이 버는 길로 인식되고 있었으니까. 금전의 악취가 풍긴다는 것은 수익성을 보장 못 하는데도 그 분야로 ‘개미’들이 푼돈을 털어넣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2000년대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IMF 때와 서브프라임 때 주식이 개폭락했을 때 슬그머니 매집해서 지금은 투자의 현인으로 칭송되는 사람들, 동일한 원인으로 부동산으로 옮인해버린 사람들, 무엇보다 유학을 포기하거나 공부를 못 해서 그 돈을 부동산으로 돌린 사람들. 다들 망할 줄 알고 손해보기 싫다고 손절매할 때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히 베팅한 사람들이 성공했다.

지금 의치한 열풍의 문제는 ”돈냄새” 보고 간다는 것인데. 실상은 어디를 가도 정말 이런 데에까지 의원, 한의원, 치과가 들어서 있다는 데 놀란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인구 절벽 현상으로 지방이 몰락하고 지방의 어여쁜 처자들조차 살 아남기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가지 않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구매자”들의 존재다. 의료서비스 공급이 늘어나는데 수요도 그만큼 늘어난다, 아니 실질 구매력이 담보되나? 혹자는 보험을 이야기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건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실토하는 것이다. 다들 무관심할지 모르지만 이번의 보육사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나.

콕콕에서 몇명은 소신껏 공대 지원을 한다. 사실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우선 하는 게 맞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은 공대에는 돈의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다. 마찬가지로 고득점 맞은 친구가 취업과 관계없이 인문학이 좋아서 인문대에 가서 술 안 쳐먹고 공부한다면 아마 달리 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뭘 해먹어도 크게 해먹을 수 있다. 남들이 비웃거나 가난하다고 깔볼 때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경주하던 사람이 나중에 큰일내지 그저 돈 많이 번다고 그거 따라간 사람들은 진짜 문자 그대로 평범하거나 그 이하로 밖에 살지 못 한다.

10.4 [미래공학 004] 인구 없는 화폐는 휴지

2016.01.26

화폐에 대한 가장 간명한 정의는 빚문서 이영애가 주연한다는 신사임당이 그려진 누런 종이조각은 ”소유자에게 정부는 50,000원 어치의 빚을 지고 있다”

사실 이것 이상 이하도 아니지만 이것의 함의는 중대하다.

빚은 갚는 사람 마음인 것이다.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가혹하게 나설 수 밖에, 아니 나서야하는 건 당연하다.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개털이기 때문이다. 채무가 5억인데 채무자의 재산이 5000만원에 불과하면 열심히 털어도

그것 밖에 받지 못한다. 그럼 앉아서 4억 5천만원을 폐먹히게 된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온갖 법률적, 사실적 수단들이 많지만, 이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빚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한다.

그리고 눈치빠른 사람은 여기서 파악할 것이다. 개인 대 개인인 채권채무 관계도 어려운 데 하물며 개인이 어떻게 정부로부터 빚을 제대로 받아내지? 개인과 정부가 지닌 힘은 비교할 수도 없지 않나? 거기다가 사실상 화폐 발행과 유통도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오르한 파룩의 ”내 이름은 빨강“에 재밌는 대목이 있다. 예니체리(=オス만 튜르크의 정예군)들이 급료로 받은 악체화를 물 위에 던졌더니 둥둥 떠서(...) 바로 솥을 뒤엎고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온다(이와 비슷한 원리가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왕관) 국가들이 멸망하기 전에 꼭 등장하는 것이 화폐에 넣는 금의 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이니 이렇게 정부에서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건 매춘, 사기와 더불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셈인 것이다.

그렇다면 A란 사람이 화폐로만 10억을 갖고 있다치자. 무엇보다 현금이 안정적이다라고만 믿고 갖고 있어도 그 재산을 보존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금리를 낮춘다면? 겁라면 1개를 1000원에 사먹다가 나중에 5000원을 주고 사먹는다면 10억의 가치는 2억으로 떨어져버린다.

이런 게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것이다. 월 천을 버네 2천을 버네라는 특정 전문인들조차도 직접 물어보면 자기들은 가난하다고(!) 한다. 이게 뭔 배부른 투정이여... 라고 하겠지만 사실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다. 그만큼 현물 가격도 미친 듯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저 정도 고소득자들 입장에선 나름 체면(?)이란 것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고 싶은 동네, 그리고 거기 생활비 등은 그들의 소득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다. 현대적인 이슈는 바로 인구절벽이다.

이 수치의 변화에서 파생되는 결론들을 논하면 끝도 없겠지만

- 첫째, 몇몇 시군구는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임계선을 넘어 인구가 줄어들어 제 기능을 못 하면 행정 서비스도 줄이고 통폐합당할 수 있다.
- 둘째, 공무원, 교사 인원도 대폭 감축되는 건 필연적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보험, 연금의 근간도 흔들리고 만다.
- 셋째, 개인의 몸값은 높아질 수 있지만 대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버린다. 분명한 건 소비시장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 넷째, 노인들도 일해야 한다.

....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화든 부동산이든 그 가치는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다. 돈 자체는 값어치가 없다. 돈의 가치는 그 화폐시스템에 지배당하는 노동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토지나 건물도 사람이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데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어떤 쓸모가 있는가. 가격은 곧 교환, 사용가치를 계량한 것이고, 교환과 사용은 그 행위주체인 사람들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관료들은 다문화라는 이슈 하에 이민을 장려하려 했으나.... 최근 난민사태에서 보다시피 이건 대안이 못 된다는 게 뚜렷해지고 있다.

그럼 앞에서 말하는 의치한 환상과 결부지어보자. 대학의 입결이라는 건 그 대학의 특정 전공을 함으로써 별 수 있는 평생소득을 반영한 것이다. 이 평생소득이라함은 앞으로 사회가 할 것이니 한 직업이 하게 별 수 있다라는 모형에 기초한다. 그런데 만약 이 모형이 허구라는 게 명백해지면 입결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그 기대소득은 달리 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입결이 미래의 모든 변동까지 감안할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정말로 그게 적중을 했냐하면 또 그것도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회적 변동은 '예측되지 못 하는'

데에서 나온다. 2000년대에 의치한에 가던 사람들이 외치는 건 고령화이기만 했다, 저런 인구절벽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제다가 더 중요한 사실, 과연 인구절벽만이 유일한 리스크인가?

10.5 [미래공학 005] 기계와의 결합 시대

2016.01.30

뉴스 링크

기계가 못 하는 활동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 떠올리기(ideation), 즉 훌륭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을 떠올리는 행동입니다. 단 어 같은 기존 요소들의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기는 아주 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시나리오별로 확률을 계산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하지만 그런 조합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 몫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앞으로 기술이 발전해도 가치를 잃지 않는 인간의 기능과 능력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찾으려 하죠. 하지만 저는 굳이 로봇과 경쟁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인간만이 가진 창의성은 기계와 만났을 때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계는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고, 이를 통해 참신한 전략을 짤 수 있는 인재들이 지배할 것입니다. 미래학자 케빈 켈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로봇과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따라 연봉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런 것을 '모라벡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로봇공학 연구자에 따르면 고등 추론에는 연산 능력이 거의 필요 없는 반면, 낮은 수준의 감각 운동 기능은 엄청난 연산 자원이 필요합니다. 35년간 인공지능 연구가 주는 중요한 교훈은 '어려운 문제는 쉽고, 쉬운 문제는 어렵다'는 것이죠. 즉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진화하면서, 애널리스트, 가석방위원회 위원, 공학자, 회계사, 의사,

운전자 등 관리직 혹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직업은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은 현재 기술로 어렵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관공, 정원사, 안내원, 요리사, 가정부, 간호사는 앞으로도 수십 년은 직장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저 이야기를 단순히 직업이 사라진다라고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단지 특정 직능만 가지고 먹고살기 어렵다고 보면 된다. 모라벡의 역설은 그래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대체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건 ‘고등 수준의 지적 작업’이다. 사실 이건 좀 어이없는 자충수 때이기도 한데.

고등 추론은 그 자체가 매우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어서 단순화할 수가 있다.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낮은 수준의 단순노동은 실제로는 단순하지 않으며 이런 건 기계로 대체하는 건 비싸게 먹힌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의학이 발달한다 하면 이건 오히려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쪽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발달한다는 건 더 상위 차원에서 ‘간단히 정리’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약사란 직업이 필요 없고(?) 자동 판매기로 충분하단 것도 제약회사서 워낙 약을 잘 만들기 때문에, 즉 이 분야 매뉴얼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한 직업이 송두리째 사라진다거나 몰락하는 일은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러나 헤게모니는 분명히 바뀔 것이다.

10.6 [미래공학 006] xx에 가라고 하는 어른들 얘기를 믿어야 할까

2016.02.04

195, 60년대 젊은이들은 쓸데없는 생각 말고 농사지으라는 이야기나 들었을

것이다. 197, 80년대 젊은이들은 기술 배워서 뭐하냐 대기업 사무직이나 가라, 공무원은 연봉이 짜잖아. 그리고 1990년대에는 게임과 만화해서 뭐하냐 천박하게 살 건데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당연히 1950, 60년대에 농사나 지었다간 농산물 개방에 막걸리나 마셨을지 모른다. 1970,80년대 젊은이 - 지금 장년층, 노년층들은 기술을 갖춘 사람이나 공무원 연금받는 분들이 그나마 낫다. 그리고 1990년대에 게임과 만화를 즐기는 걸 넘어 이걸 공부하고 생산하려 한 사람들이 지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어른들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가려들어야 할 것은 가려들어야 한다. 특히 주의할 건 지금의 40대 이상은 유례없는 고성장에 '중독된' 분들이다. 1년 지나면 빚내서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올라있고 인서울 대학만 졸업하면 대기업 취업이 가능했고 남녀가 사랑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이제는 환상이나 다를 바 없는 패턴을 학습한 분들이다. 유례없는 저성장을 이해하는 사람은 현 60대 언저리이다. 물론 이 60대들도 박정희 시절의 고성장에 뽕맞았긴 마찬가지이다.

지금 10대들이나 20대들은 돈과 취업이 보장되는 과에만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정말 자기들이 졸업할 때에는 그걸 '누릴 수 있느냐'이다. 지금 우리나라 어른들이 강조해대는 그런 분야는 미래 전망서에서 마이너스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계다가 어떤 분야건 영원히 잘 나갈 수는 없다(하지만 물론 자기들은 예외라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입시 한방으로 생계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물론 미래에 수요가 있다)로 가는 게 승률이 좋았다고 보는 게 맞다. 현재의 의치한 대접은 IMF가 터지기 직전 대기업 급인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건 그 분야가 정말 절대적으로 좋은 분야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나은 분야인지 따지는 것이고 '기업'에게 좋은지 '개인'에게 좋은지도 따져보아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절대적으로 좋은 분야는 없다, 다 상대적으로 나은 것 뿐인데 상대적인 것은 가변적이라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에게 좋은지 개인에게 좋은지인데 가령 공대의 경우는 기업 CEO 입장에서야 물고빨고할 게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별로라고 볼 수 있고 정반대로 의대의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큰둥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0.7 [미래공학 007] 젊은이에게 빚을 지우는 사회

2016.02.04

긴 말 필요없고 사실상 '미국식 개혁'을 한다고 해서 저딴 식으로 만든 것인 데 현 20대들에게 빚을 지운 세대는 정작 자기들이 빚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이제 586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은 이미 기득권이 되었고 젊은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노예가 되어주길 바란다. 세대간의 갈등은 2000년대에 조심스럽게 제기되었고 이제 가시화되어버린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10대나 20대들은 - 어떻게 보면 부모세대들이기도 한 저 세대들의 말을 안 듣는 게 생존하는 지름길이다. 소위 지금 꼰대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오는 '고성장' 시대에 살았고, 현재 20대들은 스펙 경쟁은 기본이고 '잘 태어나지 그랬냐'라는 소리까지 듣고 살아야 한다.

자기 세대의 채무를 후세에 전가하려는 게 한계에 부딪친 게 현재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독재나 친일을 까는 건 좀 의아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데 현재 20대들이 부딪치는 벼거운 문제들은 저 독재나 친일 쪽 세력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독재나 친일이라고 욕먹는 쪽들은 최소한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대해주려고 했던 쪽이다) 지금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 독재나 친일을 욕하는 사람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시작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 때 온갖 룰을 어겨가면서 흥청망청 잔치를 벌였고 이제 돈갚으세요라는 지불요구서가 애꿎은 20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저출산을 고민하는 건 좋다. 그런데 그러면 기성세대들이 흥청망청한 것

을 후세에 전가시키진 말아야하지 않나. 요새 젊은이들은 근성이 부족하다하는 건 얼핏보면 맞는 이야기인데 항상 그렇지만 '메신저 분석없는 메시지'는 무의미하다. 젊은이들의 근성을 탓하신다는 분들이 하나 같이 **내 집값 언제 오르냐 타령하는 것 자체가 이중적이지 않나?** 게다가 원칙적으로 말하면 근로자의 권리 뭐고 이전에 철밥통 영위하시는 분들만 나가주셔도 청년들의 숨통이 틀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건 또 신자유주의 반동이니 뭐니 슬그머니 막으시더라. 사실 북유럽식 복지니 그런 건 쓸데없는 논쟁이다. 자유롭게 경쟁하기만 해줘도 된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건 저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도 저 우선적인 인간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를 개혁해야 해, 하지만 내 부동산은 건드리지 마, 교육개혁은 해야 혀, 하지만 내 아이는 '면접'만으로 좋은 데 가야 해 이게 그들의 진심 아닌가?**

더 심각한 건 이런 문제의 본질을 슬그머니 "그러니까 xx당을 지지해야 한다"라는 괴상한 정치적 문제로 환치하는 것이다. 말하지만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청년들에게 경제, 금융, 법률 공부를 더 시키라고 하면 된다.

제 11 장

중2론

11.1 [중2론 001] 원인이나 결과나

2016.04.04

어설프게 아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물론 이 글을 쓰는 작자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가령 경제학 개론을 대충 훑으면서 독과점 시장의 메커니즘을 논하지 못하면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나 얘기한다든지 헌법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민주정과 간접 민주정의 차이를 말하지 못하면서 위임 민주주의가 뭔지 괴상하게 얘기한다든지.

대충 책을 읽은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 지식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검토하지 못 한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메시지는 거창하지만 실제 문제해결 능력은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개인으로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경우다. 차라리 그런 메시지를 구사하지 않았으면 현시창인 것을 알고 반성이라도 하겠지만

현실의 중2병이란 이런 것이 아니겠나. 중2병이 정말 무서운 건 평생 갈 수 있단 것이다. 그 상태로 나이를 먹으면 ”자살”이라고 정말 진지하게 외치거나, 오늘 아침 뉴스처럼 염산테러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중2병은 나도 결려본 적도 있고 지금도 결려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제라고 여기기에 적어본다.

중2병 증상 1 : ”원인을 찾아보자고 해놓고 과거에 집착하고 타인을 원망한다.” 원인과 결과 중 무엇이 중요? 다수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고 바로 기계적 대사가 튀어나올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가 뭔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이지. 그리고 원인 분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음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이지. 아울러 과정이 중요한 것? 그거야 앞으로의 많은 시도에서 역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닌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원인과 과정도 역시 결과에 종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수는 이상하게 원인과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본인들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이성적 사고를 하고 독립적으로 행

동한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그런 메시지를 주입한 현자들께서는 겉보기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하라... 는 좋은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인' 분석이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전락하기 좋다는 것을 도외시하고 있다. 입시에 실패한 n수생은 그 원인을 찾는다 해도 자기 탓을 하겠나? 결국 가족이나 친구나 담임 탓을 하겠지. 원인 분석이 외부나 타인에 대한 책임전가로 이어진다면 이건 하나마나 못하게 된다. 과정에 대한 강조가 역시 그렇다. 입시라면 일단 붙는 게 우선이지, 무슨 사이비 교주들의 강의나 교재를 완벽히 듣는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n수생들을 보면 반드시 아무개의 xxx 를 봐야한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과정을 강조하는 사고의 결과물이다. 혀영심으로 점철된 완벽주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시험에서 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옛날에 잘 했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교재 때문일까? 아무개 강의를 안 들어서? 평가원 탓일까" 이처럼 안 되는 원인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원인도 찾지를 못 한다. 결론은 일본을 공격한다 식으로 외부와 타인을 탓하는 걸로 바뀐다. 자, 이런 태도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겠는가 실제로 원인이 파악된다고 치자. 공부하려고 할 때마다 술먹고 와서 밥상 집어던지는 아버지가 문제였다 치자.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겠나? 우선 과거의 문제인 이상 타임머신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아버지 먹살을 잡고 과거를 돌려내 라고 한다고 배상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나? 문제 해결을 하려면 바로 그 때 했어야 한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들을 한다.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높일까", "어떻게하면 지금 반수하는 상황을 극적인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지금 만점을 불 가능하지만 국영수 -1 선방하는 결과는 낳으려면 뭘 보충하면 될까" 잘 되든 안 되든 이런 사람들은 현재 상황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질문한다. 어차피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해도 바꿀 수 없다면, 처음부터 결과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게 맞다. 둘 다 시간과 노력이 든다면, 결과 쪽에 초점을 두는 편이 나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 중2병들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조차 뭔지도 모른다. 아니, 입시를 계속 치는데 왜 치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미래 언제 어디서 어떤 수준의 삶을 누리고 있을지, 무얼 하고 살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지 물어보면 답을 못 한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어차피 알아도 별 소용이 없는 원인에 집착해 외부와 타인을 원망할 바에는, 터무니없는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고 방안을 모색해보는 게 더욱 생산적이지 않나? 그럼 왜 어른들은 **원인과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할까**. 그거야 당연하지, 그 사람들도 남에게 들은 이야기로 현자 코스프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이다. 실제 성공한 사람들 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나. 물론 실제 성공한 사람들도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그들의 이력을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 부도덕한 시도까지도 한다. 이게 윤리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해 심지어 소신까지 포기하는 건지 해석하는 건 자유다.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닐 것이다. 다만 눈여겨볼 건 이들은 철저히 결과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브로커를 동원해 거액을 주고 좋은 대학에 입학한다라는 것을 애당초 거부한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먼저 생각하고 고려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기여입학도 있기 때문이고 한국도 사실상 입학사정관제도나 수시입학제도가 부분적으로 그런 특징이 없다고만은 볼 수는 없어서이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처음에 고려하되, 결국은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방안으로 대체할 것이다. 거액을 주고 입시 프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효율적인 사교육 코스를 밟아나가는 것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운신의 폭이 넓다. 생각해보면 부도덕해보이는 것이면 처음부터 무서워하고 내빼는 것보다는 어,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겠군이라고 검토해보다가 결국은 안 되겠군이라고 X표 치는 게 더욱 능동적인 윤리관이 아니겠는가? 실패했던 과거는 그냥 내가 왜 실패했는가 참조하기 위한 학습기간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실 한번 실패해보았다면 성공하기는 쉬워질 수도 있다. '실패한 것과 반대방향'으로 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실패를 반복하는 건, 그 실패한 과정 자체에 집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원인, 과거, 과정 자체에 집착하기 때문에 벗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A란 코스로 실패했다고 치자.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일단 결과를 위해서 A를 버리고 B라는 과정을 서슴없이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양민들은 자기가 모자라서 부덕하다고 하면서 **다시 A로 성공해보자**라고 노오력을 한다. 원인과 과거에 대한 집착은 '자기중심

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 그 원인과 과거가 이미 자아의 일부, 아니 핵심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것이다. 이 때에는 "내가 만약 xxx이라면?"이라고 하면서 성공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행동해보는 게 낫다. 가령 "내가 만약 오바마라면"이라고 해보자. 밑바닥에서 놀다가 미국 대통령까지 올라간 능력자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걸 객관적으로 기술해본 다음에 바로 그대로 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자기보다 훨씬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모델을 불러내는 것을 '모델소환술'이라고 해보자. 이 모델소환술은 비루하고 엉터리인 자기 자신에게서 탈출할 수 있는 디센터술의 일종으로 매우 유용한 것이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콕콕에서 상담해주는 사람들도 이런 중이병에 빠진 분들이 없지 않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어떤 과정 자체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한다. 이런 분들은 마인드를 바꿔 결과중심적인 사고로 바꿔야 한다.

11.2 [중2론 002] 면 산일수록 작아보인다

2016.04.05

면 산일수록 작아보인다. 작아보이니까 만만해보이고, 만만해보이니 쉽게 오를 수 있다 착각한다.

초보자, 초심자일수록 시험을 너무 만만히 보는 이유가 이거다. 아는 게 없으니 만만해보인다. 그래서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시간을 방만히 쓴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산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직접 오르는 건 정말로 다른 문제라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그리고 이건 중2병 환자들을 키워내는 우리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교육은 실천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창의성을 강조한다고 말로만 그려지, 실제로는 '결론과 정답'을 정해놓고, 그것 밖에 없다고 강조를 해대는 게 우리나라 교육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메시지는 정말 그럴싸하게 소리친다, 하지만 "직접 해결해보라"고 하면 "자기가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나 거창하게 얘기한다. 그러다 루저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사장과 알바의 태도를 나눠보자.

똑같은 시간 10시간이 있다. 알바는 두가지다.

하나는 대충 10시간동안 놀고 시급 챙기는 것이다 - 물론 오래 가지 못하고 잘린다. 다른 하나는 박카스에 레드불을 마시면서 10시간동안 졸라 일한다 - 인정받고 그 다음으로 승진한다... 는 옛말이고 더 착취당한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뭔가. 대충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그 시간동안에 자기 학대를 하려한다. 어른들은 후자를 강조하지, 물론 '알바'를 못 면한다면 나도 후자를 강조할 것이다.

반면 사장은 어떠니?

사장은 바로 얘기한다. "10시간 가지고 뭘합니까, 1000시간"은 있어야지 아니 그럼 시간을 어떻게 늘려? 무슨 상대성이론도 아니고 사장은 어이없다는 듯이 말한다. "돈을 주고 시간을 사면 되지 않습니까. 알바 100명 고용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고용 경제학적인 건 침묵하고 사장의 태도를 보자. 사장들이 그 시간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이들은 그 10시간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걸 안다. 그래서 시간을 늘리려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똑같은 수험에 대해서 알바와 사장의 태도를 보자. 게으름 피우는 알바는 대충 공부하다가 수험 맬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1수하면서 룰이나 하고 있겠지. 자기학대적인 알바는 대학도 다니고 반수한다고 할 것이다. 학점, 수험, 건강 중 최소한 하나는 아작나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사장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나부터 계산할 것이다. 대가리가 금강석이더더라도 시간을 확보하면 해결된다는 수험 함수 정도는 알고 있다. 중요한 건 그 함수의 적분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속이어야

한다는 것 정도 역시 알고있다.

작년 11월에 내가 +1수를 종용하는 낭만주의자로 오해받은 적이 있을 건데 그 때야 그렇게 권한 건 당연하다. 바로 결단 내려서 +1수를 하는 게 낫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내 주장에 반론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1수론과 논쟁해는 과정에서 자기 확신을 얻을 수 있어서이다. 가장 곤란한 건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1수를 내가 권할 리는 없지. 지금 공부 시작하면 승산이 없지 않나. 가용시간 100일 정도인데 뭘 할 수 있지? 이 시기에 죽어라 일하면 된다 하는 사람은 그냥 알바 뛰어서 돈이나 벼는 게 낫다.

다른 데 돌아보니까 결국 11월부터 4월까지 날려먹고 이 시점에 공부하겠다고 부지런히 결제들 하는 사람들 보인다. 그러니까 그들이 호구인 것이다.

11.3 [중2론 003] 전부 아니면 꽝

2016.04.10

1. 전부 아니면 꽝

이건 여러차례 얘기할 주제다. 특히 수험사이트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들이라서 그동안 흥미롭게 보았는데 슬그머니 다룰 때가 되어서 적어본다.

한국인(혹은 동아시아인)의 주된 멘탈리티 중 하나는 전부 아니면 꽝이라는 것.

– 서울 의대 아니면 그냥 재수

- 금수저 아니면 자살
- 목숨걸고 죽어라 하고 망하면 양 자살.

반쯤은 농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절반은 진담이 된다는 얘기다. 전부 아니면 꽝이라는 사고를 보면, 그 사람은 철이 덜 들었거나, 어떤 안전한 환상 속에서 살아왔다가 보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본다면 아직 한국사회의 정신적 성숙도는 낫지 않나 싶다.

전부 아니면 꽝의 문제는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10번의 승부가 있는데 1번 지면 나머지 9번의 승부도 포기해버린다(실제로는 졸거나 하기 싫어서이다) 명문대에 가지 못 하면 인생이 아작나는 줄 알고 자포자기한다(그리고 자신의 쓰레기짓이 이유있는 양 정당화한다)

그것 뿐만 아니라 직업관도 그렇다. xx대나 xx과에 가지 못 한 나머지 직업은 망하나? 실제로 n수를 종용하거나 반드시 xx과에 가야한다는 것은 그걸로 벌어먹고 살고자하는 업자의 논리가 개입되어있다. 실제로 더 잘 별 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 하는 블루오션일 것이고 그걸 발견하기 위한 공부가 더 필요할 것인데도 마치 xx대나 xx과에 가지 못 하면 망한다고 하는 것 역시 전부 아니면 꽝의 사고방식대로다. 여기까지의 객관적 기술을 보면 알 것이다. 과연 전부 아니면 꽝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느 길을 가도 잘 될 수 없다는 것.

2. 평균적 사고

이 역시 합리성을 가장한 그럴싸한 사이비 판단이다. 예컨대 특정 직업의 연소득을 제시하면서 특정 직업이 아니면 살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단언하는 것인데 재밌는 건 정작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인생 경험(=즉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평균은 말 그대로 평균일 뿐이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 잘 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못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평균 말고 고려해야 하는 건 편차다. 연소득 평균만 보자면 왜 사람들이 소득이 적은 공무원을 현실적으로 선호하는지 알 수가 없다.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안정적'이고 '편차'가 적기 때문에 그 적어보이는 소득이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른 직업들의 소득은 그 평균 외에도 편차와 시계열 자료를 보아야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다. 평균적 사고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추세나 의미가 있다. 평균이 미래를 예측해준다? 그건 단순한 선형적 외삽법에 따른 결과인데 요즘 같이 변화가 빠른 세상에 이게 적중할 리는 없다. 통계자료에만 의존한 사고의 문제는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라고 '믿는다'는 것인데, 이 믿음은 그냥 버리는 게 좋다. 과거에는 미래였을 현재의 흐름을 정확히 예견한 사람이나 기관이 있던가? 단지 추상적인 트렌드만 읽어냈을 뿐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예언은 자기실현적일 수도 있다. 미래는 정보화 사회가 된다는 예언은 인력과 자본을 정보화에 쏟아부은 자기실현에 가까웠다라는 것이 더 타당한 이야기일 것이다.

평균적 사고는 모든 게 다 정해져있다고 가정하는 안일한 사고다. 이 역시 전부 아니면 꽝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고에 사로잡힌 것부터가 이미 감염 대상이다.

3. 한계수익적인 사고

빵을 1개 먹을 때는 +20, 2개 먹을 때는 +10, 3개째 먹을 때는 +5, 4개째 먹을 때는 0, 5개 먹을 때는 -5. 이런 경우 빵을 4개까지 먹는 것이 바로 한계수익(혹은 한계효용적)인 선택이다. 전부 아니면 꽝, 평균적 사고에 사로잡힌 중2병 환자들이 탑재해야 할 것은 바로 한계수익적인 사고다.

어떤 행위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말자, 자기가 꿈꾸던 목표가 물건너간다거나, 자기가 생각한 평균치에 미달하더라도 실망하지말자. 다만 그 행위를 하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수능시험에 망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그런데 지금 공부를 하면 어제보단 똑똑해지는 것 같다. 그럼 수능공부를 하면되는 것이다. 쓸데없이 놀거나 방황하는 것보다는 책 한자 더 읽고 문제 하나 더 푸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반면 더 나은 선택안이 있어서 - 자기가 보기에는 양 장사하면 더 많이 벼는 게 분명하다 - 수능공부 대신 장사를 해야한다. 그런데 기존에 해둔 공부가 아깝다... 라고 하면 서슴없이 장사를 하면 된다, 어차피 기존에 한 수능공부는 매몰비용이기 때문이다.

한계수익적인 사고는 상식에 어긋나보인다. 그러나 사실 정확히 판단만 한다면 매일매일이 '플러스'가 남는 선택이다. 남들이 xx가 좋다고 하던, xx 계통이 암울하다고 하든,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이익을 거두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정반대로 전부 아니면 꽝이라고 샤우팅을 하거나, 자기 선택이 평균보다 높다고 자위하거나 아니면 낮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하루 하루가 플러스가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뒤쳐진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 마이너스를 알면서도 자기가 선택을 잘하면 '평균이 높아지니' 상관없다고 착각하는데 하루하루 플러스도 못 하는 사람들이 횡재를 바라는 꼴이다.

즉,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를 살면 된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퇴화한다면 심각한 대책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다. 자기 진로가 어떻든 한계수익적인 사고에 따라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사는 걸로 1년이 지나면 무섭게 자라있을 것이다.

11.4 [중2론 004] 선택은 기회비용

2016.04.11

기회비용 : A를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가치높은 것을 포기한 비용

가령 수능을 실패했는데 서슴없이 군대가라고 조언하는 케이스는 어차피 군대를 안 가고 공부해보았자 2년 허송세월할 게 너무나도 뻔해보여서입니다. 이 경우는 군대를 가는 대신 공부를 2년간 유보해도 잃을 게 없으니 기회비용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군대에 안 가고 공부를 한다면 기회비용이 역으로 커지겠죠(일찍 갈수록 좋으니까요)

선택장애를 치유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 기회비용적 접근입니다.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하면서 A의 가치, B의 가치를 논하는 건 자기가 고려하기 어려운 C, D, E... 등을 누락시키는 문제가 있죠. 그 경우에는 A를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만 하는 것의 가치, B를 선택했을 때 포기하는 것의 가치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수라는 친구가 대학교를 포기하고 쌩n수를 한다고 칩시다. 쌩n수를 하면 이 친구는 대학교에 다니는 것 이외에도, 그냥 일함으로써 별 수 있는 근로소득, 혹은 공무원 시험 공부하기, 아니면 창업해서 대박내기 등도 고려해보아야합니다. 그러나 우리 철수는 쌩n수해서 성공했을 때의 가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은 상당한 문제가 있죠. “n수해서 실패해도 본전”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성공해서 +100이라는 효용을 얻으면, 실패해도 제로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특정한 사업을 벌여서 +10000000의 가치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 실제로는 -1000000이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라면 합격하더라도 손해긴 하겠지만요.

물론 이런 접근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역시 자기 책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무엇인지는 자기가 스스로 조사하거나 공부해서 파악해야하니까요. 가치라는 게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가치는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부터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치빠른 사람은 n수의 문제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건 바로 n수의 기회비용이 역설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재수할 때에야 아직 짚고 (!) 게다가 꿈이 있기 때문에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선택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수의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그러나 삼수, 사수, 오수... 가 되면 나이는 먹을대로 먹고 본인의 몸값이 낮아지므로 선택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년 더 공부한다고 해도 잃을 게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특정 선택을 함으로써 잃는 게 크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희망'인 것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n이 늘어날수록 나아지겠네요...라는 바보같은 질문은 없길 바랍니다. n수생은 결국 그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산이 줄어들어 이미 마이너스를 찍은 상태라서 잃은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금수저라면? 슬프지만 이 경우라면 n이 늘어나도 상관없을지도 모르죠.

11.5 [중2론 005] 돈을 버는 방법

2016.04.25

1. 수입을 늘린다
2. 투자한다.
3. 지출을 줄인다.
4. 부잣집 사위 혹은 며느리가 된다.
5. 전생에 나라를 구하고 부자집에서 태어난다.
6. 한건하는 범죄를 저지른다

뭔가 이상한 게 있지만 넘어 가면, 돈을 번다는 건 결국 저축한다와 똑같은 의미고, 저축하기 위해선 이 3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다.

- 첫째 수입 늘리기.

회사원 - 출세, 야근수당 이직등 부업 - 알바, 책 쓰기, 인터넷 사이트 제
휴광고 창업 - 치킨과 편의점

인간의 노동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이다. 당장 외노자를 쓰거나 기
업을 해외로 옮겨도 인건비 절감이 된다. 전문직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하
지만 그건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보면 된다.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곳은
어지간해선 찾기 어렵다. 부업은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무엇보다 이 역시
자기 몸을 망가뜨린다. 창업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 둘째 투자하기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등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판돈을 잃거나 돈이 묶여버린다. 기본 종잣돈과 공
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자기 돈을 날려버릴 수 있다. 게다가
스트레스도 와장창 받는다.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수능 최상위보다도
적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많이 벌었는데요.... 그거 얼마나 걸렸나 물어보
라, 많이 잃다가 운이 좋아 대박 한번 터뜨려 만회한 경우다. 이 때 들어간
시간자원으로 따지면 투자가 아니라 노동이란 말이 맞을 것이다.

- 셋째 절약하기

의식주 비용, 유흥비와 온갖 소모품, 집세, 통신료 등

한달에 100만원을 벌고 50만원을 쓰는 사람과, 한달에 2000만원을 벌고
2500만원을 쓰는 사람 중 누가 낫나. 지출을 줄이는 건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해 누구라도 실천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마음의 문제
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돈버는 방법이다.

돈을 버는 건 고전적으로 저 3가지 틀을 봇 벗어난다. 그리고 저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노력이 더 들어가는 건 절약하기, 즉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남들이 xx 샀다고 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만큼의 지폐를 침발라 세어놓은 뒤 밤마다 만지면서 지출을 억제하면 된다. 갑자기 충동적으로 구매욕이 드는 순간 바로 '일주일 지나서 구입하자'라고 장바구니만 등록해놓고 기다리는 게 바로 돈버는 길이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20대들은 어떤가. 정말 뼈빠지게 아끼고 허리띠 조이면서 헬조선을 외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라 사정 어렵다는 말을 안 믿는 이유는 그렇게 힘들다는 사람들이 휴일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비싼 커피숍을 애용한다. 우리 때는 이랬다... 하는 건 치사한 논법이라는 소리 들을지 몰라도, 내가 아는 한 지금 노년 세대가 바로 전셋집부터 시작하는 케이스는 아니었다. 그 분들 세대는 단칸방에서 출발해서 아끼고 또 아끼 모으고 또 모으니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그에 비해 젊은 세대들은 '한방'을 노린다. 그 한방이로또를 지르는 것과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다.

가계부를 소프트하게 쓰면서 자기가 얼마나 쓰는지 기록하고 지출을 억제할 것. 스트레스를 받으면 돈을 현금으로 모아두면서 그 지폐와 동전을 만지작거리는 걸로 대리만족할 것. 이건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숨겨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저런 걸로 알고 있다. 진짜 일부자들은 평소에 허름하게 하고 다니면서 바겐세일만 찾아다니고 식료품도 마감 직전 마트에서 구입하는 아줌마들인데 이런 분들의 낙이 자기 전에 금고에서 두둑한 지폐/수표 다발을 꺼내서 한장한장 세고 후루룩 넘겨보고 스킨쉽(?)해보는 것이라고 한다. 그 순간 현란한 광고에서 나오는 '돈 쓰세요'라는 저주가 사라진다나.

그렇게 보면 사실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는 매우 위험한 도구다.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는 돈이 숫자이다. 느낌이 없기 때문에 소유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느낄 수 있는 '소비'를 하려고 한다.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은 그 마이너스 액수가 자신의 피가 뺄리는 것인데도 그 액수가 늘어나면 뭔가 성취한다는 착각을 준다. 자기가 지출이 심한 사람은 돈을 계좌에 입금하기보다는 숨겨진 비밀 장

소 같은 데에 지폐와 돈을 차곡차곡 보관해보고 만져보는 걸 권하고 싶다.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가 어딨냐 하겠지만 이건 수학문제를 직접 손으로 풀어야 감이 생기는 것과 같다. 지폐와 동전으로 실존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돈의 후각이 발달하고, 후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읽어낸다고 한다.

경제학 하나 배워본 적이 없는 복부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잘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집에 미쳐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집값이 어떻게 오를지 그리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성 특유의 직감으로 읽어내는 것이다. 반면 경제학에 빠삭하다는 이론파들이 망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오직 머리로만 느끼기 때문에 실체에 접근하지 못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모든 행위가 디지털적이다. 그래서 느끼지 못 한다. 이런 불감증에 메마른 자아는 촉촉한 소비에 유혹당해버린다. 그래서 빗쟁이들로 전락하고 만다. 서울 변화가 - 강남 신촌 등에서 여유있게 소비하는 남녀들을 보고 절대 부러워할 게 아니다. 태반이 채무자들이다. 빚을 져도 부모에게 기대도 된다, 아니면 애인이나 미래 배우자에게 전가시키면 된다고 하는 쓰레기들도 널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저축 뿐이다. 즉 아껴쓰는 것이다. 부자처럼 살고싶다고 하는데 쓰기만 한다.... 남자는 농담 아니고 새우잡이배이고, 여자는 결국 결혼의 형태든 매춘의 형태든 자신을 팔게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껴쓰고 또 아껴쓰면서 그로써 살려낸 현금을 만지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자기가 구두쇠가 되어간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타인의 소비를 내심 경멸해야 한다(내심 경멸하지 곁으로는 아무 말도. 사실 간섭할 권리 있는 것이다) 철저하게 아껴쓰고 그 시간에 도서관이나 헌책방에서 좋은 책을 구해 읽으며 자기 뇌를 강화하면 그 때부터 희망이 보인다.

”있는 놈이 없는 척 하고, 없는 놈이 있는 척 한다.”

적어도 돈 문제에서는 이에 버금가는 진리는 없다.

11.6 [중2론 006] 노오력은 어디까지 해야하나

2016.04.27

운은 비와 같다. 비가 내려도 그걸 담을 그릇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누구나 운이 좋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운을 담을 그릇이 없다. 그래서 그 운이 지나가버린다. 그릇을 만들지 않고선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데 어찌란 말인가.

운이나 노오력이 소용없다 이야기할 때는 그 화자를 반드시 본다. 그리고 정말 노오력을 죽어라 해서 인정할만한 사람인가하면 개인적으로는 단 한명도 없다. 패시브 독설 스킬이 있어서 자체하지만 지적하려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가 있다.

정말 노오력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는 한 운타령을 안 한다. 운을 얘기하는 건 단 하나, 자기가 성공해도 겸손떨기 위해서이지. 노오력한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비가 내리는 데에도 기우제를 지내 신이 질려버리게 하는 정도다. 이들은 대개 괴물들이라고 불린다. 운타령사주팔자타령하는 사람도 이들 앞에서는 찍 소리 못 한다.

운이 있다고 해도 간단한 거다. 노오력을 해서 그릇이 그랜드캐년 수준이니 운이 좋으면 극대화된다. 운이 나쁘더라도 노오력으로 커버쳤기 때문에 잃을거나 망할 것도 별로 없다. 그래서 결국 운이 별 역할을 못 끼치는 것이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지, 취업하기 위해서 저 정도만 공부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노오력이라고 하지 않는다. 행운은 100배로, 불행은 1/100배로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자체가 **타인을 감동시켜야** 노오력이다. 자기가 노오력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로 남들을 공포에 빠뜨리거나 감동시켜보았지 차분히 복기해보면 된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100명당 1명꼴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다 **기득권**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본인들이 직접 그 **기득권**을 경험해보았나? 사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들은 그럴 일이 거의 없다. 뭔가 조직생활을 하고 착취당해보아야 피부로 느끼는 것이다. 그럼 반론은 꼭 경험해보아야하나요... 라고 하면 도대체 그 **기득권**이 그래서 누구냐... 라고 하면 뻔한 대답 나올 것이다. 이러니까 무시해도 좋은 것이다. 그런데 개나소나 **기득권** 드립친다. 그럼 그게 어디서 주입된 것이겠나?

그럼 타인을 감동시킬 정도로 노오력한 게 배신으로 돌아온 경우는? 없지는 않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적어도 내가 그걸 목격한 적은 단 한건도 없다. 그건 **기득권** 드립도 마찬가지다. **기득권**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처음에는 **기득권**을 욕하지만 곧 자기들이 그 **기득권**만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꿀빨 수 있구나, **기득권**이라는 사람들도 나름 속사정이 있구나를 알면서 **간사해진다**. 지금 갑 행세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갑 욕 안 했을 것 같나. 며칠 전에 모 시사 프로에서 폭력을 비판하는 프로의 진행자가 과거에 폭력을 행사했더라는 게 제보된 것과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분석해보면 세상은 의외로 공평한 것이다. 본인들이 인과관계를 따지지 못 했으니까 다 운빨인 걸로 착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필연적 인과관계라는 건 분명히 있다. 단지 그걸 본인들이 못 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다. 특히 운이 최고다하는 사람들은 '**노오력해보았자 소용없다**'라고 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 물론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닌 이상 냅둔다. 그래서 망해도 그건 나랑 상관없지 않은가.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서로 경쟁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노오력해도 소용없다 운이 최고야 하는 걸 오히려 부추기는 게 좋다.

+ 운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았자 소용없는 게 그건 대개 과거형이다. 운이 좋았다 나빴다라고 평가하는 게 대부분 아닌가. 운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형은 바로 점성술이나 사주팔자. 그런데 이걸 알아도 별 소용은 없다. 운이 좋다고 노력을 안 할 것인가. 그럼 운이 나쁘다고 포기할 것인가.

++ 내가 수험생이었다면 노오력해야해요 그딴 드립은 안 쳤다. 모두가 운으로 좌우된다, 노오력해보았자 소용없다라고 선동해서 경쟁자들 떨어뜨렸지. 실제로 중고딩 때 그런 일환(?)으로 만화책과 게임을 신나게 유포했으나 정작 공부하는 녀석들에겐 안 먹혔다는 슬픈(?) 후일담이. 청년들보고 거리로 나가서 시위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나라고 하면 이건 좀 흠좀무한 대목이지만.

제 12 장

헬조선

12.1 [헬조선 001] 로스쿨

2016.05.03

정치적 이야기하자면 20대들이 지지하는 모 정당이 알고보니 금수저만 좋은 일 해주었다는 확정적인 흑역사.

조선이 망한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지만 결국 망한 건 '신분사회' 때문이다. 신분사회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펼 수가 없다. 과거 시험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양반 자제가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는 응시하기 힘들었다. 그러니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것이다.

적어도 일제시대가 조선보다 나은 것이 이것이다. 일제시대에는 조선총독부 공무원 시험에 양반집 자제라고 딱히 우대는 안 했으니까.

3·1 운동의 불씨가 남아 있던 1922년 순사직 경쟁률은 약 2.1대 1 수준에 불과했으나 문화정치가 본격화한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 경쟁률이 10대 1을 웃돌았다. 1926년에는 856명 모집에 9천193명이 지원, 약 1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932년에는 854명 모집에 1만 6천193명이 지원해 19대 1로 경쟁률이 수직으로 상승했다. 순사 등에 대한 19.6대 1로 정점을 찍은 1935년 이후 순사에 대한 선호는 1936년 14.1대 1, 1937년 10.9대 1로 내리막길을 걸었으나 1920년대 중반부터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 경쟁률이 10~20대 1에 이를 정도로 순사직이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이를 두고 연세대학교의 장진은 "순사는 조선인 사회에서의 좋지 못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보장된 권한 탓에 해마다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리의 최말단인 까닭에 지원자의 학력 수준은 보통학교 졸업자가 80%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분석했다.

일제시대를 거쳐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고속성장할 수 있었던 건 뼈아프지만 "일본식 교육 제도"가 반도의 병폐를 씻어주었기 때문이다. 그 혜택을 입고 정신나간 지식인들이 일제 잔재이니 고등고시를 청산해야한다 어쩐다 하지만 이런 출세우기 시험이야말로 헬조선의 악습을 막아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

순사 너무 까지말자. 금수저, 흙수저론으로 보자면 나름대로 출세하려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구만)

로스쿨은 가장 한국적인 제도다. 곁으로는 공정한 척 하면서 결국 부모 빼 이 먹힌다는 것이 우리의 고유한 전통 음서제 그대로가 아닌가? 물론 이런 시도는 로스쿨이 처음은 아니다. 그 전에는 기여입학제가 있었으니까. 대학교 재정이 부족하니 돈많은 사람들에게 2~30억 받고 입학시켜주자는 것, 그러나 이 발상은 그들이 그렇게 옥하던 꼴보수정권 시절에도 통과되지 않던 것이, 기어이 가장 개혁적이고 서민적인 분 밑에서 어이없이 통과되었다. 더 빡치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터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강행했다는 것이다.

적어도 그 전까지는 입시비리가 의심되면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정말 국민여론이 장난이 아니었다. 예전에 이런 일이 터졌다며 장관 모가지가 날라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는다. 부정이 있지만 입학취소 불가요 ~ 법이 그런 걸요. 예체능은 왜 예외냐고 하지만 그건 간단하다. 이 분야는 양 실속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덜 하니까. 하지만 의대나 법대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분야다. 거기에 부정입학자가 있으면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로스쿨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시비중이 줄어든 지금의 입시제도 역시 그렇다. 극단적으로 말해 학생들이 공부는 덜 하고 스펙쌓기만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시 문이 줄어드니까 뒤늦게라도 공부하겠다는 친구들은 좌절해서 공부를 포기한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 서포트로 스펙 쌓아온 친구들은 자기가 뭐라도 된 양 귀족처럼 군림한다. 헬조선 미래가 너무 밝아서 눈이 멀어버릴 정도다.

이른바 일제 잔재 청산하고 개혁한다는 결과가 결국 이렇게 나타났다. 물론 그들은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다... 변명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취지가 안 좋은 게 어딨나.

정치 얘기하자면 헬조선하면서 특저 정당 지지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안 가

는 게 그렇다능. 저 로스쿨 제도 그 특정 정당이 강행하고 지금도 지켜주고 있다. 이게 로스쿨로만 끝난 게 아니지. 교육제도 전반을 금수저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렸다능. 수능 등급제나 등록금 폭등은 어휴. 역설적으로 그들이 비난했던 '먹방의 달인' 모 대통령이 장학금과 등록금 문제는 흙수저를 배려한 정책을 펴 으나... 욕먹는다. 이 친구들은 자기 삶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주입받은대로 호불호를 나뉘고 정의관을 주입당한다고보는 강력한 증거다.

지금이라도 그냥 일제시대 스타일로 가는 답이겠지만 그렇게 해줄 리는 없지. 그들이 신경쓰는 건 이 부와 권력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세습시켜주느냐....인 것이다. 이건 한편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흙수저 녀석은 절대 올라오지 마라...는 것. 그래서 그런 시험제도를 하나하나씩 없애버리는 것이다.

12.2 [헬조선 002] 도서정가제

2016.05.0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01_0014057073&cID=10701&pID=10700

출판시장 정상화.... 는 커녕 제대로 출판사들을 엿먹였다. 안 그래도 살림살이가 어려운 판에 책값을 정가로만 받겠다는 데 사람들이 호주머니를 열 일이 없었고 그로써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중고서적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알라딘 헌책방만 잘 나가고 다른 서점도 허겁지겁 중고책 매매에 뛰어들게 되었다.

도서정가제를 밀어붙인 모 국회의원이나 어느 출판계 거물께서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알면서 인터넷 서점 밀어주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사실 정가제로 개인적으로 피해본 것은 없다. 수학 참고서나 일본서적 구매

빼고는 새책을 구매하지 않거든. 북코아 아니면 알라딘에 나온 헌책 중 절판되어서 구하기 힘들거나 알고보니 명저인 것만 구하는데 신간 서적 사는 15,000 원이면 과거의 좋은 책을 5권 이상 구매할 수 있다. 그러니 새 책에 연연할 필요가 사라졌다. 수학 참고서도 이제 구매할 건 별로 없고 웬만한 건 지역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신청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과거에 교보문고나 반디앤루니스에 자주 갔다면, 이제는 깨끗이 정돈된 알라딘 헌책방에 간다. 보지 않는 책을 잘 선별해 팔아도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

고객 대부분이 나랑 같다면 출판사들은 어떻게 되나. 죽어나는 거지. 이런 이상향을 구현하신 출판 관계자 분들은 여전히 뽕에서 못 깨어나셨는지 완전 정가제에다가 중고시장 규제까지 하려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주제에 무슨 독자들에게 책의 향기니 하신지 모르겠다. 멋대로 가격규제해버리면 부작용 일어난다는 것이야 상식 중 상식인데 그걸 몰랐나. 단통법이야 통신 시장이 워낙 비 탄력적이니까 효과가 있다 치자(그래보았자 대기업 배불리기겠지만) 안 그래도 미디어 소비 스타일이 바뀌어서 책값 낮춰도 모자랄 판에 정가제 실시하면 사람들이 책을 읽겠니.

어설픈 정의관 토로하지 말고 그냥 냅두었으면 시장은 나름 균형을 찾았을 텐데 출판사 살리겠다고 하다가 시장교란시키고 대형서점만 배부르게 한 책임은 누가 지겠나. 헬조선에서는 그딴 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저 뉴스에서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나 하신다.

그냥 정가제 철폐하면 되잖아.

정말로 웃긴 건 현재 가장 이득을 본 알라딘은 도서정가제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12.3 [헬조선 003] 공대의 황혼

2016.05.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4/2016050400298.html

공돌이가 그만큼 많아지면 '공급'이 늘어나니 몸값은 싸진다는 건 당연. 거꾸로 생각해보면 만약 의치한이나 로스쿨 정원 늘린다고 했으면 바로 시위했을 텐데.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시위도 못 하고 아 그런가보다라고 얻어맞는 불쌍한 공돌이들.

사실 지금도 이미 많은데 이걸 더 늘린다.... 이제 공돌이면 취업 잘 된다라는 건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음. 곁으로는 수험생 배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학교들이 정원감축 안 하면서 먹고 살려는 꼼수.

12.4 [헬조선 004] 과학만능주의

2016.05.04

간단히 말해서 과학은 만능일 수가 없다. 추상적이고 100% 완결성을 꿈꾸던 수학조차도 그렇지 않은데 과학까지도?

혹시 사태로 정부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과학만능주의를 은폐한다. 과학은 완벽할 수가 없다. 오히려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걸 줄여나가는 것이 과학적인 태도가 아닌가? 그런데 정부만 탓하는 사람들은 정작 과학을 종교화한 케이스는 말하지 않는다.

현실 속에서의 과학은 자본에 놀아난다 학계는 돈을 대주는 자본에 불리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연구 결과 조작이라거나, 조작이 아니더라도 편향적인 방향의 연구 자체는 전문가 빼고는 검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이 사태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사건에서 드러났다. 사진 복붙인 것을 다른 전문가들이 눈치끼고 제보했다. 처음에는 주류언론과 정부조차도 음모라고 일축했으나 그 언수가 '해외대학'에 제보될 정도가 나서야 그 공범이 시인해버렸던 것이다. 믿

거나 말거나 난 당시에 황우석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했다. 물론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그 사람들은 바로 태도 바꿔 그럴 리 없다라고 한다. 이 패턴이 옥시 사태에도 반복된 것이다.

전문가의 말은 신뢰할 수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나 종속관계'가 없는 평행 세계의 전문가 혹은 죽은 전문가라면 말이지. 장사해야 하는 현실 속의 전문가라면 우선은 의심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문가들은 여전히 "과학만능"을 주장하면서 그래도 전문가를 믿어야 한다, 이게 다 정부탓이라고 말 한다. 아니, 그럼 당시에 문제의 제품을 승인한 정부관료들이 전문가 말을 그럼 안 들었겠나, 그리고 옥시 업자들이야말로 전문가 아니었나?

과학이라는 미명 하에 자사 영업에 불리한 담론을 차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 지금 비과학이 문제겠나. 한국사회에서의 과학은 판타지이자 스테레오타입 그 자체인데? 역으로 광우병은 어땠나. 사람들에게 생소한 온갖 전문용어로 범 벅되어서 광우병의 위험을 과장해댄 담론이 무한증식하지 않았나. 그 당시 광 신도들이야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안전했다고 변명하는데 헛소리다. 그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당시 가습기 살균제에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옥시 제품의 문제를 발견하는 전문가는 그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전문가였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건 바꿔 말해 이 문제를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덮었을 가능성이 높다.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논란이 되는 이야기하자면

고교과정만 배우면서 '과학이 만능'인 줄 안다거나 어떤 분야의 실무건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다. 실무가들은 자기 하는 일도 바빠서 그걸 판단할 겨를도 없고 그럴 이유조차 없다. 대학원생 이상급이 되면 언행이 달라지는 게 있다. 정말로 전문분야로 가면 매우 소극적이 된다는 것. 반드시 ~ 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안 들어맞는 경우가 많고 이론이 설명하지 못 하는 예외적 현상이 많다. 전공자들이 밥벌이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바로 그 예외다.

다른 걸 떠나서 옥시만 문제겠나. 지금 언급되지 않지만 '전자파' 공해 문제도 부각 안 되어서 그렇지 이것도 털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애시당초 흡연의 암유발도 과거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미국에서 뒤늦게 인정했는데 그건 이미 미국의 담배회사가 해외로 눈돌린 이후였다(즉, 뽕뽑을 만큼 뽑고나서야 정의를 실천했다는 미담이 되겠다)

12.5 [헬조선 005] 전문가

2016.05.06

현실에서는 그 전문가들이 바로 악의 세력인 경우가 많아서리. 사태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논리가 ”이게 다 검증 잘못해서이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라는데 그런 사태가 전문성이 없어서 터졌다며 맞는 말입니다만 실제로는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죠.

1. 황우석의 줄기세포 : 이 때 전문가들이 바로 황우석 집단이었죠. 국내에서는 검증 사실 불가. 해외에 알려져서야 실토판했습니다.
2. 후쿠시마 원전 : 도쿄전력 인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었나요?
3. 옥시 : 그 전문가들이 주범이었고 전문가 중 전문가인 교수들이 돈먹은 정도 포착되었는데요?

그럼 이건 전문가들의 문제. ”그래도 전문가들에게 검증만 맡기면 된다”라고 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는 주체를 다각화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해당 지식의 접근 권한부터 시작해 권력을 산학연정만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이 문제도 해당 산업과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의사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류학문은 죄가 없다... 이게 신기하지 말입니다. 인문 사회 과학이 자연과학이나 공학보다 나은 건, 적어도 '분식 가능성'이나 '거짓말'은 인

정해요. 하지만 자연과학이나 공학은 그걸 별로 다루지 않죠. 과학자의 윤리나 공학자의 윤리 그 정도로나 이야기하지 그 외에는 짹 침묵. 생명과학의 잡다한 유전을 배우는 사람은 많아도 '리센코' 사건 등을 배우는 사람은 없죠(모르는 사람이 많을 듯)

혹시 사태는 검증을 잘못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의도적으로 속이고 은폐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한두번 수준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주류만 믿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지 않나 싶고.

사실 거창하게 말할 필요없이 우리 주변의 전문가들도 다 알게 모르게 소소하게 남겨먹고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서리. 업자-고객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는 거짓말해먹는 게 일상임. 재밌는 건 자기들도 그게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먹고살기 위해 사기칠 수 밖에 없다는 것.

어제 인상깊게 읽은 뉴스가 있어서리.

<http://www.nocutnews.co.kr/news/4589174>

세무조사 관련 내부 비리를 폭로해 시민단체로부터 상까지 받았던 대전의 한 세무서 간부가 뇌물수수 비리로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세무조사 관련 정보 등을 가르쳐 주고 금품을 받은 대전의 한 세무서 간부 공무원 한모(59)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한씨는 지방국세청 감사계장 시절이던 지난 2002년 말 기자회견을 열어 "국세청 상부의 압력으로 대기업 4곳에 대해 추징한 세금이 부당하게 면제되는 비리가 저질러졌다"고 내부 고발을 했던 인물이다. 한 씨의 유죄 여부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게 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경찰 수사 결과만을 볼 때는 영웅의 추락이라는 탄식을 듣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영웅의 추락 어찌구 하는데 그건 알 건 없고 (젊은 시절 영웅 아니었던 독재자가 있으랴) 세무서 간부면 전문성과 그 분야 권력을 줘고 있으니 저렇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냐 싶은데 말입니다.

12.6 [헬조선 006] 관료주의

2016.05.11

앞서 과학에 대한 글을 썼을 때 그것이 실은 '관료주의'라고 지적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합니다. 전문가만 믿으면 된다는 그럴싸합니다만 더 깊은 함의가 있습니다. 그건 '관료주의'를 공고히 믿는다는 것이지요. 현실 세계에서는 결국 '직위'가 높은 사람들의 권력대로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전문성을 담보로 그들을 비판하거나 견제하지 못하면 그들 뜻대로 따라갑니다. 이로써 보이지 않는 관료주의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과학이란 말이 나오면 주의해야 합니다.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는 분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과학이냐고 얘기하려면 정말 그게 과학적이냐,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성찰이 담보되는 것인가 얘기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눈속임으로서의 형식화된 과학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의 반론을 차단하는 스테레오타입화된 과학이 되는 것이지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관료주의가 '과학'이란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적 사고나 성찰은 관료주의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한데 이야기해보면 본인들이 관료주의적인 것에 빠졌다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검증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인정했으니 닥치고 믿으라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문가도 납득할 수 있는 정보공개와 소통이 있어야합니다. 물론 그 정보공개와 소통까지도 거부해버리는 음모론자들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관료들은 정보공개를 싫어합니다, 정보가 공개될 수록 자신들의 권한과 권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과학 말고 민주주의라는 것도 역시 거죽인지 아닌지보려면 정보공개가 되어있는가 그걸 따지면 됩니다.

거창한 담론을 떠나서 한국에서 공부를 잘 한다는 건 '관료주의 수혜자'가 되는 것과 동급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입적 측면 이외에도 사람

들이 공무원, 변호사, 의사에 몰린 이유는 가장 '관료주의적인'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서열화가 되어있다, 둘째로 정보가 폐쇄적이다, 셋째 그들만의 리그가 가능하다. 이러니 충분히 갑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일반 양민들을 속이면서 착취할 수 있다는 특성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한국 현실과 교육의 괴리가 드러납니다. 현재의 역사적 흐름은 관료제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료제적인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그 관료제가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신 시장의 힘이 강해지고 있어서 다수의 눈치를 봐야하는 시대가 오고있죠. 하지만 교육은 여전히 '관료'를 키우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등수를 매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력의 서열화 자체가 예비 관료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예고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졸업하자 관료주의적인 것의 붕괴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 교육은 시장(market)을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고 특히 메이커가 되는 것 역시 준비한 게 없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우리가 왜 공부하는가 돌이켜보면 이건 '상위 관리자'를 키우기 위한 과목입니다. 시장을 공부하려면 경영, 경제, 컴퓨터, 온갖 공학 기술미술, 제2외국어 등을 어린 시절 부터 배워야하는데 이상한 게 아닌가요? 물론 국영수는 관료만 키우는 게 아니죠. 그런 관료주의적인 틀을 그 피지배자들에게 주입시키는 역할도 하죠.

나이쳐먹고 나니까 더 빠딱하게 봅니다만... 전문성을 강조하는 그 분들의 양심도 일부 없지는 않지만 본심은

- 복종하라

- 내놓아라

- 의심하지 마라

사실 이 3가지입니다. 저 중에서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져주겠다'라는 건

없습니다. 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이 헬조선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노오력을 하고 있고 그로써 저 관료주의가 단기적으로는 지탱되는 것이지요.

열심히 공부해 출세해 올라간다... 라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하지 않나 합니다. 아니, 저건 또 아적아... 가 아니라 저 발상 자체가 관료주의 시작이어서입니다. 이제는 금수저들이 스펙놀이로 관료주의적인 것을 유지하려한다면 흙수저들이 할 수 있는 건 관료주의가 덜 먹하게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걸 적는다면 그 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은 흙수저들의 발등찍기라고 할 수 있죠. 신자유주의적인 것이야말로 관료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개방하고 경쟁시키면 관료제의 단꿀이라는 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것이 악으로 포장되면서 경쟁을 줄이자라는 식으로 역으로 관료주의적인 것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짚은이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본의 음모를 막는다느니 이 사회가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한다느니 라는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나 그걸 유심히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12.7 [헬조선 007] 민낯

2016.05.15

과거총정리 : <http://onepageinfo.tistory.com/74>

문예상 : <http://news.donga.com/3/all/20070215/8407888/1>

공부를 잘해 선생님의 귀여움을 많이 받았고 명문대를 나왔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생계를 위한 직장 생활에 지쳐 있던 어머니, 친척집을 전전하던 어린 시절은 스스로 도저히 치유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다는 것. 그러던 어느 날 영화 '바그다드 카페'를 보고 나서 행복의 조건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을 받은 최 판사는 14일 통화에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외적인 조건이나 돈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보여 주고 싶어 이 글을 썼다”고 말했다.

개원 :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int-Legal-Info?serial=9458&type=Trends&tab=1>

그리고

체포 당시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팔을 물어뜯는 등 격렬히 저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특히 위선자는 잘 걸려낼 필요가 있다. 똑똑하든 인격이 좋건 그건 상관이 없다. 첫째로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그리고 무서운지 알아야 한다. 둘째로 돈을 잘 다스리되 절대로 돈에 영혼이 팔리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건 말만 쉽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위선자들은 경멸하는 걸 넘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관찰한다. 관찰기간은 1~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는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옛말은 정말로 틀린 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면 그걸 부러워하는 척만 해야한다. 그 무대의 2편에서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몰락하는 장면이 그려질 수 있어서이다.

흔한 경제, 경영 퀴즈에서는 이런 이야기만 한다. 10%의 100억이냐, 100%의 5억이냐. 그리고 전자를 택해야한다고 말한다. 계산만 보면 그렇다. 그러나 이런 퀴즈의 문제는 항상 그렇듯 숫자 이외의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일단 저 퀴즈만 가지고는 정답을 낼 수 없다. 문제는 도박으로 100억이냐 안정적으로 5억이냐 그게 아니다.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그런 배포와 기량이 있으며 그릇이 크냐, 그리고 정말로 돈에 끌려다니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다.

돈은 일종의 흐름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라고만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유능해도 돈을 못 버는 사람, 무능해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다. 중요한 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느냐는 것이다. 돈의 액수만 신경쓰면 나쁜 흐름이 뭔지 알지 못 한다. 막말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소녀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막상 오피스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그만두지 못 한다. 그 돈이 너무 달콤한 나머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쁜 흐름을 탈 때에는 조기에 빠져나오지 않으면 답이 없다. 권력과 돈과 섹스의 흐름을 잘못 탄 사람들은 정말 헛가닥 맛이 가버린다. 자기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할 것이다.

돈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나쁜 흐름을 타면서 많이 버는 사람을 경멸하지 않으면 '똑같아'질 수 있다.

12.8 [헬조선 008] 혐오발언은 계층화의 시작(메갈의 탄생)

2016.05.19

본격적으로 여혐 증후군이 터진 것은 1999년 군가산점 논쟁이었습니다. 한 가지 말하면 그 당시 혼소를 제기했던 이대 학생 편에 섰던 '이석연 변호사'조차 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실질적 정책이 있어야한다면서 이걸 아쉬워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잘못된 처리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여자들도 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높아지는 등 남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자들이 남자 조건 따지면서 결혼하는 풍토가 덜 했는데 IMF 이후부터 여자들도 남자들의 스펙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짹짓기하지 못한 '루저남'들이 생겨납니다.

그 과정에서 여혐이 보편화된 것이죠. 된장녀 논쟁이 그렇게 터지고 최근에는 김치녀 담론으로 표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메갈을 통해 남혐이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소수 맷돼지(...)들의 소행만은 아니죠. 다 은밀히 공감해주고 있으니까 세불리고 여론전에서 한몫하는 게 아님? 그럼 남혐이 왜 생겼냐, 위 공식대로입니다. **여자들도 이제 루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몸만 오면 받아준다는 남자들이 여자들의 외모, 키, 사이즈 뿐만 아니라 집안, 학력, 소득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루저녀들도 생겨납니다. 골드미스니 그런 건 환상이고 이제 여자들도 30대 건어물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단 것이죠. 여자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신랑감들은 모조리 20대 초반 여자들에게만 관심있지 20대 후반 루저녀는 관심이 없죠. 육체나 실력 면에서 좋은 남자에게 채택받을 수 없는 루저녀들이 어디다 화풀기 시작하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여혐하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메갈의 탄생을 좋아(?)해야 할지도 모르죠. 여자들도 똑같이 당하는 것인니까.

기존의 정사갤, 코갤, 그리고 일베의 루저남들 주장은 그거잖아요. **여자들은 결국 우리 루저남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건 메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자들이 차별받으니 사회적 약자이니 더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 **걍 남자들이 호구가 되어라.** 물론 조금만 생각하면 저 주장이 터무니없는 걸 떠나서, 현실화되기 힘들지요.

사회 현실은 어떨까요. 위너남은 위너녀랑만 결혼을 하려 합니다. 위너남 입장에서 루저녀는 노골적인 표현을 쓰면 '1회용품'입니다. 루저남이 위너녀랑 맷어질 가능성은 제로로 수렴합니다(이 환타지가 일본에서 히트쳤던 드라마 '전차남'이지요) 그리고 루저남이 루저녀랑 맷어진 결혼 생활은 불행해질 가능성 이 높습니다.

그럼 이 자본주의 사회현실을 개혁하자... 는 것도 판타지고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열심이 노오력해서 루저가 되지 않는 길 밖에 없다... 그게 답입니다. 위너들끼리야 서로 하하호호할 텐데 혐오발언이 생기겠습니까. 위너남이 위너녀에게 더치페이타령하겠습니까.

그러니 루저가 되기싫으면 헛소리하지말고 공부나 하라 6평 틀린 갯수에 1000을 곱한 만큼 뛰고 와라하는 교훈적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갖는 사람들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태풍이 불 지경임.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 안 하고 루저가 되려는 분들은 사람들로 안보임.

+ 과거에는 몸만 가면 받아주었냐...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랬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첫관계하면 무조건 결혼 확정임. 뭐 예외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분위기였음. 어떻게 보면 미개하다가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스펙을 따질 수가 없죠. 스펙 따지는 것도 연애를 많이 하고 그 후보들을 비교해봐야 가능한데 처음 만난 이성과 19금 가고 생식코스로 가는 데 그럴 격률이 있음? 그런데 지금은 '연애'란 이름 하에 각자 시제품을 이용해보지요. 그리고 꼼꼼히 따져보니까 남녀가 위너, 루저로 갈라지는 겁니다. 2000년대까지는 여자들이 유리했음. 왜냐면 남자들이 권력을 잃어가던 시기였고 여자들의 권리가 신장되는 흐름이었으니까. 그런데 2010년부터 이게 역전됩니다. 여권신장도 거의 끝났고 남자들도 영악해졌음. 게다가 서로 눈맞아 어찌구한다... 는 건 냉정히 말하면 남자들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루저녀들이 더 생겨남요. 경제력있는 남자들은 한참 연하만 바라보고 있음. 그래서 그 와중에 버림받은 세대녀들이 메갈리안 쪽으로 활동하게 됩니다요.

++ 남혐을 하건 여혐을 하건 메시지 뿐인데 그게 뭔 상관있다고 그러시는 지들. 그거 별로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전 남혐 발언도 양 어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고 경청할 건 경청함. 그런 극단적인 발언들일수록 오히려 진실된 측면도 없지는 않거든요. 루저들은 혐오발언 해보았자 사실 달라지는 건 없고 자기 인생만 낭비된다는 것을 알지 못 하죠.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백배 나을 건데. 사실 메갈에서 활동하는 그 코어 분들이야 10년 전이야 짧었으니까 아무 노력없이 '젊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먹고 들어갔겠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세상 참 잔인한 겁니다. 어차피 남자 여자 모두 나이먹고 노화하니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 그걸로 버텨야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자기 몸뚱이만 믿고 여성들의 공산주의 페미니즘에 지나치게 경도되었다가 정신차리고보니 뭐.

+++ 그리고보니 흄촘무한 게 성형수술 유통기한도 끝나갔다는 것도 참. 2000년대에 여자들이 그렇게 실리콘밸리에 투자해서 몸값 높여서 갔는데 그것도 약빨이 떨어지기 시작할 시점임. 반면 그 때 루저들이라고 까인 남자들 중에서 죽어라 공부해서 뒤늦게 올라간 사람들은 한창 어린 여자 찾기 시작할테고 광 돌고도는 자본주의 사회 순환 법칙임.

++++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순결이란 게 저런 스펙싸움을 막아주는 역할을 역설적으로 해주었다는 것도 재미있네요. 왜냐면 지금 기준에서 예쁘고 키 크고 사이즈 좋은 여자들은 연애경험이 많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니 순결론자 입장에서는 slut이라고 까이면서 강제적인 '평등'이 이룩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걸 따지지 않으니까 저런 여자들이 연애경험이 많은 적든 잘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지적하고 예측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음.

+++++ 대략 지금 20대 초반까지 여성분들은 윗 세대와는 다를 겁니다. 세대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그 윗세대부터가 문제지.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화될 거라고 여겨졌는데 이미 되었다고 생각함. 그 세대가 메갈 등을 중심으로 아랫 세대들도 같이 엿먹여보자고 선동하고 있는데 그 아랫 세대도 호락호락할 리는 없죠.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야 '여권신장'의 흐름을 타고 올라간 세대지, 자기 능력으로 올라갔다고 보기는 힘들 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력도 없으니 지금 도태되는 거지. 경쟁하지 못 하니까 여자들은 약자거든요.. 라고 하면서 받아먹으려고 함. 그런데 그 아랫 세대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 받으면서 경쟁에 익숙해졌음. 경쟁을 당연히 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정정당당하게 권리 쟁취를 하지 윗 세대처럼 여자들이 약자 타령은 별로 많이 하지 않을 것임.

그러니 기승전공입니다, 공부나 합시다.

12.9 [헬조선 009] 산부인과 참관문제

2016.05.23

이건 입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학병원이 갑자기 의대생들이 들어와서 환자 몸을 사실상 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이 무턱대고 다 대학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논리는 좀 아닌 듯.

”동의하라고 하면 다들 어차피 동의 안 할텐데 그럼 교육은 어찌하냐”

저 얘기부터가 환자들이 수치심을 가진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한다는 건이고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가 무슨 무급봉사직도 아니고 교육문제가 심각하다 싶으면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죠. 하다 못해 그 의사들부터 그럼 자청해서 교육을 위해 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혀(...) 다시 말해 의사 사모님들부터 그 학생들의 참관 대상이 대든가 해야죠.

그리고 만약 환자가 VIP라거나 상류층 여성이라도 참관 시킬지는 의문이지 말입니다. 인공지능이라면 하겠지만 인간이라면 저럴 가능성이 적죠. 일반인들도 수치심을 느끼는데 VIP나 상류층이 잘도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돌아보면 ”의사님들 마누라, 여동생, 따님부터 교보재로 쓰세요”라는 댓글에 대답은 전혀 못 함. 그저 한다는 이야기가 동의 받게하면 교육이 안 되니까 정상적인 의료가 힘들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특권의식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네요. 다른 직종조차도 당연히 교육이 필요합니다만 이 정도로 동의 안 받고 하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님들이 힘들다 어쩐다 하는데 그건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이죠. 문제는 의사님들이 일 힘든 건 알지만 ’무급봉사’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리.

이 문제는 의사님들 마누라 여동생 따님부터 VIP, 상류층 여성, 심지어 대통령 장관 재벌 여성들도 '교보재'가 되어주면 깔끔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랬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 해서 말입니다.

12.10 [헬조선 010] 시체팔이

2016.05.23

시체팔이의 근원은 유교이지요.

유교에서 뭐라고 하던 그 핵심은 "장례"이죠. 어떻게 상을 치를 것인가, 그리고 그 족보를 짤 것인가 하나 가지고 정치경제문화를 모두 쌈싸먹으니까요 물론 모든 시체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혈통이 좋거나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시체만 취급해오지요.

우리나라에서 볼만한 문화재라는 건 유감스럽지만 산 자보다는 죽은 자를 위한 것에 가깝습니다. 온갖 왕릉과 사찰도 그렇고 병풍 족자 그림 대부분이 무덤과 관계없는 게 없습니다. 수원성조차도 응건릉을 위한 것이었죠.

죽은 자 중심으로 정치 경제 문화가 돌아가니 조선이나 중국이나 정체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왜 망자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시체팔이는 매우 기막힌 사기캐입니다. 비판이나 반론을 원천차단하거든요. 죽은 자를 추모한다는 명목 하에서 상궤를 벗어난 일을 해도 제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너무하지 않느냐하면 고인모독이라고 탄압받습니다.

조선이 백성을 위한 나라였다고요? 이미 썩어버린 왕족과 양반들의 시체를 위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엘리트들이 몰두했던 음양오행과 풍수지리는 조상을 좋은 데 잘 모시면 자손들이 발복한다라는 믿음 하에 죽은 자에 치중해있었고

그래서 뒷자리를 둘러싼 산송문제가 정말 지겹게 일어났다 하죠. 풍수지리도 만약 산 자를 위한 쪽으로 나갔다면 그건 우연히 자연과학적인 것으로 재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죽은 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관념론으로 흐르고 그래서 별 이상한 것에 신경쓰기 시작했죠.

죽은 자를 위한 나라가 근대화 할 수 있었을까.... 그건 무리수입니다.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지배와 6.25까지 겪은 건 비극이긴 합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것이 없지 않습니다. 왜구라고 비하하던 일본에게 지배당하고 거기다가 사람이 어이없이 죽어나가는 한국전쟁을 겪고 나니 '시체팔이'로 돌아가던 유교적 지배체제가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쪽의 어느 나라는 공산주의 한다면서 '죽은 자'를 위한 나라로 되돌아가버렸죠.

요즘 와서 대한민국도 다시 그런 아름다운 전통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런 식으로 '망자'를 팔아먹는 작업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꽤 성과(?)가 좋습니다. 갓 쓰지 않고 도포만 입지 않았지 "죽음"을 이용하면 막 나가는 행패를 부려도 대우받을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아버린 거죠. 그동안 기쓰지 못하던 유교 바이러스가 이렇게 변종화되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요.

살아있는 사람은 평등해야한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도 평등해야 할 터인데 재밌는 건 산 사람들의 인권을 중시한다는 사람이 "죽은 사람"은 차별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고

그 점에서는 기독교가 지배했던 유럽이 나았던 건 적어도 얘들은 산 자여도 죽은 다음만큼은 평등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시신을 어디에 모시느냐 차이는 있어도 죽은 다음에는 똑같이 심판받는다 라고 하니 동아시아처럼 그렇게 극성을 부리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 엘리트들이 예송논쟁 따위 하지 않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자본증식'에 신경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유럽 애들의 사정권에 들어산 시기에 개혁군주라는 정조가 막대한 예산으로 자기 아버지 묘에나 신경씁니다. 수원성? 지금 보면 꽤 유명한 문화재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가 꽤 반동적인 군주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수가 정조가 개혁군주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로 할 말은 없습니다. 죽음으로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널려있거든요.

+ 그런데 조선시대 노비들이 죽은 뒤에는 과연? 들개나 물고기의 단백질 공급원이었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인지도 모르겠지만요.

++ 수입 담론 + 시체 + 폭력사태 유도 이것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갑질도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한두건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유형이 아닌 걸 찾기가 더 힘들어서리.

쓸모있는 담론이야 설득력이 있고 현실적중력이 높으니 시체도 필요없습니다. 쓸모없는 담론들은 감정에 호소해야하고, 그 점에서 '죽음'과 '폭력' 만한 띄밥이 없습니다. 시위할 때 대부분은 시위대가 폭력을 조장하죠. 그래서 폭력사태 유발을 해서 시체가 생겼으면이라고 유도합니다.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면 애당초 폭력시위는 하지 않았지)

물론 경찰이 죽은 건 취급 안 합니다. 자기들 시체가 아니거든요.

제 13 장

etc

13.1 세상보는 가치관에 대한 지적

2015.08.11

대통령이란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젊은이들 다 중동으로 가버리라는 말이 나올수 있는지 대략 상상이 가시죠? ㅎㅎ 그동안 칼럼 읽으면서 그래도 깨어있는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정된 재화의 분배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는 도출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재인 것을 알았기에 정말 딱 거기까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아니였네요. 제 댓글만 보면 아폭아재가 무슨 욕심덩어리로 보일 수 있겠지만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에서 결국 탐욕이 승리하면 손쉽게 금덩어리를 획득할 수 있었던 시절 금덩이를 모두 득치지해놓고 금덩어리가 모두 바닥난 지금 마치 노력이 부족해 금덩어리를 못 얻은 것처럼 (노력한다고 없는 금덩어리가 생기나?) 젊은이들이 게으르고 배부르다고 말하게 됩니다. 아니 노력해서 자기가 금덩어리 가져간게 무슨 문제냐? 아폭아재 말대로 정말 굶주렸던 시절 나라를 위해 힘쓴분들이 금덩어리를 많이 가져갔으면 말을 안하겠는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아재들의 평균적인 사고는 1인 1금덩어리 하자는 이석기의 수준과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아폭아재 생각을 양의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북한의 모습이 나오네요) 콕콕려 여러분들이 아폭아재의 댓글들을 통해 재벌들이 왜 탈세를 밥먹듯 하는지, 우리나라의 왜 온갖 불법과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땅땅거리며 잘 사는지, 어떻게 독재라는 틀린 방법이었음에도 결과가 좋았으니 (과연?)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깨달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른 척 하고 지나가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호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 첫째, 기본적인 경제 관념도 없다. 부를 기득권이 독점하고 안 나눠주는 것으로만 착각한다.
- 둘째, 기본적인 논리도 없으면서 계속 인신공격을 한다.
- 셋째, 느닷없이 박정희 이야기나 이석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꼴리는대

로 인신공격을 한다.

보통은 무시하면서 하지만 어차피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싶었는데 – 정치적인 설득은 피하면서 – 그래도 설명해주는 이유는 세가지입니다.

- 첫째, 제가 저랬기 때문임(그 때는 정말 세상을 선악이분법으로만 보았음)
- 둘째, 역시 단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익명의 댓글러를 통해서 극적으로 저런 오류에서 벗어났기 때문임.
- 셋째, 입시보다도 사실 저 이야기가 중요한 점들이 있기 때문.

우선 저 댓글러는 ”대한민국이 시장경제에 따라 굴러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있죠. 한정된 재화의 분배에 그리고 집착하고 있는데, 어째서 조선이 가난하게 살았는지 그런 역사적인 공부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 똑똑했죠. 그런데 실학자들의 대안이라는 게 다 이런 거였죠. ”한정된 토지의 분배” 즉, 재화를 늘릴 생각 자체를 못 했고 어떻게 하면 땅을 분배해서 ”다 같이 적게 먹는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는지에만 골몰해있었습니다. 그 때 서유럽은 이미 산업혁명 단계까지 들어서면서 – 물론 식민지 약탈, 착취와 함께 – 파이를 키울 준비가 착착 되어있었는데 말입니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기성 세대에 대해서 품은 증오감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1950년대 이후 대한민국 역사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런 식의 선악이 분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 독재가 잘못된 것은 맞죠. 그런데 그 독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경제성장이 무엇으로 가능했느냐”에 대해선 말을 못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경제성장이 결국 ”피와 땀”을 ’착취’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는 진실에 고개를 돌리지요. 세계사적으로 보았을 때 정당한 경제성장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니 인권타령이니 하는 서유럽 역사는 참 지저분하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기도 했던 – 박정희 비판자였던 정운현씨의 저서만 봐도 나와있습니다.

그 책 결론이 그거죠. 그냥 무덤 속 박정희 건드리지 말자. 애당초부터 까려고 집필을 시도했는데 정작 팩트를 발굴해보니까 깔 게 생각 외로 적고 왜 노인 세대들이 독재체제라고 해도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가 하는 점을 저자 본인도 발견해버렸다는 걸 읽다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글 한편으로 정리하는 건 힘든 일이지만 아무튼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동화적인 이분법'으로만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사로잡히면 20세기 공산주의 시행착오의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즉 폭력 혁명으로 혼계모니를 잡고 가진 자들의 재산을 털어 나눠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유치한 관념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 젊은 세대들이 힘들다, 그거야 간단하죠. "저성장"이니까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 하니까 일자리가 없고 – 거기다가 하필 신기술들이 기존 산업과 일자리를 뺏어먹는 것이기 때문에 – 일자리가 없으니까 취업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니까 1960년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중국과 동남아의 추격, 인간의 노동이 필요없는 산업의 발달,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들. 이렇게 이미 다양한 이유가 나와있는데도 여전히 "기성세대들이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남탓하는 이런 얘기는 조금만 반론하면 깨지죠. 흔한 예로 기업유보금이 있습니다(기업유보금이 뭔지 여기 아는 사람이 있으려나) 기업유보금 풀어서 복지 쓰면 된다라는 유치한 주장이 많죠. 그런게 그 유보금은 요즘 같은 시대에 그 기업이 안 망하기 위해서 갖고있는 생명줄입니다. 흔한 대기업 죽이기에 동조해서 그런 것도 다 복지에 써서 기업이 망하면 그럼 대한민국은 뭘로 먹고 살죠? 또 흔히 이야기하는 사례가 부동산 소유자들이 문제니까 세금 짙게 거두고 임대료 낮추고 그러자. 이 역시 경제학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종부세를 나름대로 거두고 있는 나라입니다(위헌적 요소가 많음에도) 세금을 올린다? 그 세금은 당연히 임대료 상승을 견인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되겠지요. 권리금을 인정해준다? 그럼 임차인들은 봉이 김선달식으로 가공의 권리금을 만들어내겠죠. 아니, 그거 무서워서 세를 내줄까요?

경제라는 건 꽤 복잡다단한 시스템이고, 특히나 선한 의도의 시도가 좋은 결과만을 낳지 않습니다. 흔히 박정희를 비판한다라고 하면서 스테레오타입으로 친일, 독재, 불공정, 재벌 독과점을 졸졸 나열하는 사람들. 이들은 사실 생각없이 다른 누군가 떠든 것을 그냥 받아서 얘기하는 수준인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한물 간 사상이란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나빠도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문제는 '좋은 결과'라는 걸 낳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단 것입니다. 더 웃긴 건 결과만 좋으면 되냐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칼자루를 잡으면 "의도는 좋았다"란 식으로 자기들이 저지른 나쁜 결과는 외면하죠. 더군다나 경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사실 저 글을 쓰는 사람은 과연 '헝그리하게' 살았을까하는 것은 역시 물어 볼 필요는 없을 건데 이 역시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다보면 철이 들겠지라고 봅니다. 다만 당사자가 철이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는 대략 짐작이 가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좌파니 우파니 사회적 정의니. 이거 신경을 쓰나요. 사실 철든 사람이라면 안 쓰죠. 왜냐고요? 그것들도 결국 누군가 팔아먹는 상품이지, 그런 것이 뭘 보장해준다라는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정의를 앞장세운 경우가 알고보니 더 많은 자본을 쟁기려는 시도였더라하는 경우가 100%입니다. 분배를 강조하자 정의를 실천하자 하는 경우는 그 메신저가 정계 진출을 하는 건가, 아니면 엽관주의로 공직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하다 못해 대형출판을 통해서 인세를 쟁기려하는 경우인가 빼딱하게 보면 이 중 하나는 반드시 걸리더군요. 친일 논쟁은 더욱 가관이죠. 모 정당에서 친일파 공격하는 주체가 알고보니 정작 자기 조상이 친일파여서 역전된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무려 40년 정도나 계속 된 조선-일본의 사례를 프랑스-나찌독일의 사례에 비교하는 것도 모순이거니와 정작 독립운동가들도 자기들의 혜개모니를 위해 친일파와 손잡지 않나, 서로 자기들끼리 암투별이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면 흑백논리로 접근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건가 깨닫게 됩니다(교과서로 배우는 근현대사는 정말이지 판타지이죠)

무엇보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군사정권의 문제를 깨닫고 박정희 개객기 어찌구 하는 입장이었는데 나이먹으면서 남의 부정 탓하는 자들이 정작 똑같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멘붕해서리 지금은 그냥 회색주의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재벌도 다 나름대로 장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만약 한국이 1960년대에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을까 하냐면 고개는 설레설레. 역사는 윤리와는 다르고, 특히 경제는 그것만의 로직이 따로 있다는 것. 이런 복잡다단한 것을 모르고 모든 것을 흑백으로 논한다... 자기는 정작 고기 잘만 먹으면서 육식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성향이건 역사적 입장이건 그건 각자의 판단에 맡길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싫어하는 건, ”입으로만 놀리는 자기 정의”를 남에게 강요하는 케이스예요. 제가 그런 데 호되게 당해보았기 때문에 더욱 강조하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도 과거보단 나아졌을 것입니다만 대학에 들어가신 분들은 ’선배’라는 종자들에게 일종의 사상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온건 한 형태건 강경한 형태건, 알콜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혹은 남선배이건 여선 배이건 말입니다. 제가 보는 최악의 폭력이 사실 그런 것이죠. 스스로 돈도 벌지 않고 그저 문자로만 세상을 접한 사람들이 뭔 뽕이라도 맞았나 자아도취에 빠져서 후배들에게 너는 반드시 XX주의에 빠져야 한다, XX는 강아지들이니 무찌르자... 뭐 이런 망발을 일삼는 경우 지금도 없기만 바라겠습니다만.

기억나네요. 저랬던 선배가 정작 자기는 군대갔다오더니 자기가 그토록 욕 하던 미국으로 냉큰 날라버린 것(...)

더 유식한(?) 말로 하면 제발이지 일상의 **파시즘**. 이런 거나 좀 자제합시다. 뭔 사회정의 외치고 독재 비판한다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이 파시스트라는 건 아시는지.

아울러 현 대통령의 중동발언.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전 철 저히 결과론자입니다. 의도가 어떻건 정치는 삶이고 결과물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저 발언 자체는 혀소리가 아니죠.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해먹을 수 있는 시장이 거의 없으니까요. 동남아까지 산업화 단계 성숙되고 나면 그 다

음은 이제 이란, 이라크 등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국처럼 바뀌겠고 이란은 이미 확정적이지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중동 가라'는 발언을 무작정 까대는 건, 혼한 경제신문도 안 읽었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해서 중동을 통해 경제발전을 견인할 건지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13.2 심심해서 쓰는 질문들

2015.08.11

수험사이트니까 수험 형식으로 냅니다. 세상사에 통달해서 이것저것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답할 수 있다고 보겠어요

001.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율이 20~30%에 달하는 화장 품 관련 기업 2곳을 적으시오

002. 3D 프린팅 관련업체인 ()는 중국 기업들과 총 200만 달러 규모의 카메라 모듈관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고자 품질기준을 강화하면서 카메라모듈 업체들 사이에서 자동화검사장치를 도입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003 정보는 독거노인이나 희귀난치성환자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라이프태그를 도입하기로 했다. 라이프태그는 착용자의 특이 건강상태를 담고있는 팔찌모양의 기기다. 스마트폰을 갖다대면 병명, 보호자 연락처가 나온다. 이 라이프태그로 기대를 모으는 곳은 ()다.

004 스마트 전구 관련주를 아는 대로 적으시오.

005 한글과컴퓨터, MDS테크놀로지, 다원텍 등의 지분가치 1000억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의 경우 금융 전자상거래 공공분야 전 부문에 걸쳐 암호화 인프라를 보유한 것이 강점이다.

006 핀테크는 ()과 ()이 결합된 서비스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다. 한국은 아직 핀테크 서비스가 나타나기 힘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어)가 통용되지 않으며 인구가 5000만으로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국내금융, 보안 산업 발전을 가로막던 요인으로 꼽힌 (브)가 올해에야 비로소 사라진다.

007 무인자동차가 도입되면 택시회사는 살아남겠는가?

위와 같은 수험질문 형태로 만들면 재밌는 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심하시면 한번 채워보시기들. 대졸자라도 관심이 없으면 사실 하나라도 답하기 어렵습니다.

저런 문항을 만들어서 답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필요한 공부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꽤 유치한 문항들입니다만, 저것도 답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 문항들은 실제 돈별이, 투자와 관계된 문항들입니다.

13.3 예쁜 자식은 때 하나.

2015.08.15

미운 자식이나 피섞이지 않은 자식은 오토바이를 사준다는 현대 속담이 있지요(ㄷ ㄷ ㄷ)

오해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 경우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교재'만 언급합니다. 따라서 교재를 비판하는 경우 전제는, 그 교재는 볼 가치가 있다, 다만 xx 한 점을 보완하건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꽤 많은 질문이 잇따를 것이고 그 중 90%는 교재질문이 아닐까 하는데 당연히 대답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왜냐면 서점에 가서 참고서는 하나씩 다 일별하고 상품가치를 평가해보기 때문이고 출판사, 저자의 동향 같은 것도 찾아보거나 추정해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EBS 교재만 보아도 거기 실린

저자들의 이력이나 흐름을 보면 앞으로 동향을 더 확인할 수 있죠.

현재 방침은 간단합니다. 쓰레기이거나 문제가 많은 교재는 ”언급”을 안 하거나 그게 언급된 경우 ”취급 안 한다고” 가면 됩니다. 웃긴 세상이라서 교재 저자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돈독이나 올라서 자기가 어떻게 인터넷에서 광고되고 평가되나 그런 것이나 신경쓰며 심지어 고소한 맛을 전파해서 입을 막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참 맹점이 많아서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건 절대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설마 언급 안 한다고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케이스는 없겠죠.

일격필살은 지금 2~3회 둘러보고 특히 B형 1회 30번 같은 것도 다시 봅니다만 머리칼 걸고 권하겠느냐 한다면 권하겠습니다. 단점이야 교재 레이드에서 신랄하게 까서 그런데 장점도 사실 여러가지 많죠.

첫째, **영계** 필진의 충원과 다원화 – 저자가 한명인 경우의 위험을 피했습니다. 사실 A형이 좋다는 평가가 있는데 3회까지 보면 B형이 낫습니다. 사이트 관리자 분은 범을 키우셨네요(저마다 독립하려면 어찌려고) 개인 이름만 내걸고 가는 경우는 풀어보면 느끼지만 편차가 심한 편이나 공동필진으로 가는 경우는 이 점이 덜합니다.

둘째, 가성비 : 12회에 21600원이면 한 문제당 60원 꼴이니 가격이 괜찮은 것이죠. 더 착한 걸로 EBS가 있긴 하지만 EBS를 제외하고 가성비 좋은 게 이것 말고는 있나. 혹자 알고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죠. 사실 일격 말고 다른 것도 검토해두었는데 – 본고사 짜라시라거나 – 지금 보니까 일격 정도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풀면서 발견한 미덕인데 해설은 좀 더 토의하고 파워업할 게 있어도 문제 자체는 꽤 많은 논점을 갖고 있어서 복습을 잘 하면 이 12회 분을 적당히 요약해서 마무리용으로 쓸 수 있다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더 검토를 해봐야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그 저자진들이 그래도 열린 사람들이라 고객의 소리를 들을 준비는 되어있는 거죠(그게 제가 콕콕에 온 이유이기도 하고) 단순히 팔아서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차이는 매우 큩니다. 주갤 같은 데에서 흔히 오가는 이야기가 주가 알고 싶으면 그냥 그 사장의 관상(...)을 보면 된다고 하던데 농담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뭐로 가든 그 사람이 성실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돈독에만 빠지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허사장 관상은 어떠냐.... 비밀입니다만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제가 여기 와서 뺄글을 쓰고 있을리는 없겠죠)

13.4 어머니와 아들의 싸움

2015.11.05

충효가 강조되는 이유는 뭘까, 현실은 충효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가정화합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렇다, 실제로 화목한 가정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수험생 자녀가 있는 집안은 성적이 '기압'의 역할을 한다.

보통 아버지들이 나서서 책임지는 경우는 그리 많진 않다. 보통 어머니들이 나선다. 이 경우 가장 많이 빈발하는 게 어머니와 아들의 싸움이다. 가장 애정이 많다보니 성적이 안 좋으면 싸우기까지 한다.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약자인 경우가 많다보니 관계가 대등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이 갑, 어머니가 을이 된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발생하는데 성적이 좋지 않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돌아가는 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게 갈까 전략적으로 사고하려 한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데 가길 바라면서도 결과가 안 좋거나 아들이 공부 안 하는 걸로 보이면 매우 답답해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을 위한다고 너 xx대라도 가는 게 어찌나, 너 왜 공부 안 하니... 라고 잔소리를 한다. 당연히 아들 입장에서는 저건 "너 왜 못 하니"로 보이는 공격으로 비친다. 그 뒤에 어떤 과정이 전개될지는 뻔하다. 이 글을 읽는 상당수가 겪어보았을 그런

문제다.

이 경우 해결책은 그렇다. 70%는 대체로 어머니에게 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거리를 둬야하고 개입을 적절히 제한해야한다. 어머니들이 나름 자식을 위한 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느끼는 불안함이나 스트레스를 아들에게 푸는 경우로 가기 십상이다. 나는 열심히 밥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했는데 너는 왜 못 하니.... 라는 것이야 여성으로서 당연하 사고 프로세스일 수 있다. 이건 여자들끼리라면 감성토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남자들은 이런 걸 공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남자들이 원하는 건 확실한 OX 결론에다가 분명한 대안이다.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없이 자꾸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비교질을 하면 아들은 폭발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간단하다, 올해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난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건 죄송스럽다, 하지만 열심히 했다. 어머니께서 날 위해 고생한 것은 인정한다, 이건 어머니 탓이 아니다. 하지만 요즘 수험이 보통 수험이 아니다, 그리고 난 노력해서 조금 늦더라도 내 꿈을 이룰테니 협조해달라. 이렇게 쿨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룰을 하러간다면 답이 없지만.

거꾸로 아버지와 딸은 어떨까. 이 경우는 정반대인 경우다. 일부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들은 두가지다. 나 골프치러가야하니까 몰라 알아서 해, 혹은 개입 한계를 두고 뒤에서 보조해주기. 그런데 이 경우 딸들은 또래 남학생들보단 정신적으로 성숙한 경우가 많다. 아버지가 우리 딸 예뻐, 머리 좋아 라는 식으로 인정해주고 지원만 잘 해주면 대체로 갈등할 이유가 없다 아버지가 무관심해서... 라는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자기가 초조해서 딸에게 스트레스 푸는 경우는 일반적이진 않단 이야기. 이게 수험에 있어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유리한 한 가지 이유는 되지 않을까 싶다.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야 딸에게 돈봉투와 함께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인자하게 쳐다봐주면 되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이 경우도 갈등은 심해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다. 가장 으르렁거리는 건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사실 갈등이 있어도 이건 '적분'이 불가능하다. 왜냐면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개입을 할 수도 없고, 보통은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맡는다는 것. 어머니와 딸의 경우는 물론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보통 어머니가 자기가 못 이룬 걸 딸이 이루는 것으로 대리만족시키는 경우? 그래도 이게 어머니와 아들보단 나은 게 감성토크가 가능할 뿐더러, 이 경우는 상하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낭비 같은 건 그다지 없다.

이와 더불어 논할 건 이건데 – 만약 학부모가 이 글을 보신다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 요즘 입시는 현 4, 50대분들 때보다도 더 고난이도다. 문제수준이 쉽다 어렵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야 삼수사수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지금은 삼수사수가 보편적인 케이스로 가고 있고, 심지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 안 된다고 다시 수능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덕분인가 10대들도 상당히 똑똑해지고 어른들보다도 수험 정보가 빠삭한 경우가 많다(수험 정보'만' 빠삭한 경우도 있지만) 게다가 정시폭도 좁아져서 패자부활전도 어렵다, 수시야 온 가정이 총동원된 총력전이 아닌가.

+ 핵가족화 영향도 강한데. 보통 형제가 있는 경우 차이가 크다. 이건 다른 얘기로 남학생들의 사회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남학생들은 남자 어른, 형제, 친구들과 적당히 어울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한 케이스는 어떤가. '마마보이'는 기본인 건 그렇다 치고, 사춘기가 오면 이 때가 문제다. 어렸을 때부터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운 어머니들은 아들이 영원히 귀여울 줄 알고 엄마 말만 듣고 잘 나갈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자란 남자애들이 잘 될 리가 있나.

그래서 마마보이 코스가 나중에 스트레스, 화를 주체 못 하는 케이스가 많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이걸 쉬쉬하기 바쁘고. 남학생들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어른에게 빠따질도 맞고 형들에게 뻥도 뜯기고 친구들과 싸움도 하고...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과장하면 저렇단 것이고. 저런 식으로 남성들만의 수직서열 교육 받고 가야 무난해지는데 요즘은 이런 게 힘들어진다. 어처구니없지만 이걸 해결

해주는 게 바로 '를'이다(...) 뭔가 왜곡된 현대사회의 구조 때문에 결핍된 것을 우회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면도 있다는 것을 어른들이 모른다는 것. 어머니들은 아들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아들의 남성성에는 무지하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 말만 듣고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해버리니 문제가 터지는 것이다.

남자로 자랐어야 하는데 치마 속에서만 자란 남자애들이 설령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하더라도 앞길이 순탄할지 장담하기는 힘들다. 한국사의 조선왕가도 그렇지만 곳곳을 보면 '창업군주'나 같이 활약한 '2세 군주'는 능력이 좋지만 궁궐에서만 키워진 경우 능력이 별로인 경우도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3.5 OX

2015.11.14

고교시절에 배운 국어영역으로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착각합니다만.

그건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입니다.

살짝 정치 이야기를 하자면 고 박정희 대통령이 고 김재규와 갈등이 벌어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뭔가 장황하게 설명만 하지 확실히 결론을 내지 못하는 김재규의 프리젠테이션 실력이라고 하더군요. 그에 비해 고 차지철은 뭔가 무모하긴 해도 확실히 결단을 짓기 때문에 신용을 얻었다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있죠)

인생은 OX가 아니라고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OX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고 죽음의 반대는 삶이죠. 사실 그 외는 문학적 상상력이나 말장난. 합격의 반대는 불합격이고, 불합격의 반대는 합격이죠. 사실 행복과

불행의 중간지대가 있으면 뭐하러 행복을 추구합니까? 합격과 불합격 사이에 다른 길이 있으면 시험공부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회색지대를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실제로는 '무책임'을 위한 변명인 경우가 많다는 걸 많이 경험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냥 심신의 위안을 주는 대화라면 회색지대를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극복을 하려면 재도전해서 합격하거나, 아니면 그에 벼금가는 다른 성공을 거두는 수밖에 없지 누가 와서 하는 위로든, 위로 그 자체로든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위로를 좋아하는 쪽은 사람을 속여먹는 사이비 종교인들이죠.

과정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과정도 결과를 위한 것이지요. 다만 인생살이에서 A를 의도한 B라는 과정이 실패하더라도 생각치 못한 C라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반면 D를 의도한 E라는 과정이 성공하더라도 F라는 참사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과정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 역시 결국 "과정이 복합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런 것입니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 바꿔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건 꽝인 것입니다. 반대로 의도가 나빠도 결과가 좋으면 어떻느냐. 인정은 해줘야죠. 다만 그게 다른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결국 '결과가 중요하느냐', '결과들이 중요하느냐'라는 단수와 복수의 차이지, 결과가 중요하다는 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결과가 나오면 왜 위로해주냐 열심히 노력한 걸 인정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이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에서 안주해도 좋다"로 끝나면 최악이 되겠죠. 나쁜 결과를 덮는 건 좋은 결과 뿐입니다. 나쁜 결과가 나왔다면 옮고 있을 게 아니라 다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어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흑백론적인 태도는 그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예, 꼴통들의 사고법이죠. 그런데 살다보니까 시비가 분명하고 책임지는 꼴통들이 낫더군요. 그게 아닌 교

묘한 회색주의는 결국 일은 일대로 별이고 책임은 책임대로 지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부류가 대부분이더이다.

거시적인 역사는 그렇습니다. 서양사에서 수학이 기여한 건 참과 거짓을 분명히 따지는 태도이죠. 검증되지 않은 건 과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이 세계를 지배한 것이죠. 그에 비해 동양은요? 참과 거짓을 엄중히 따지진 않았죠. 유교적 도그마, 불교적 윤회론, 도가적 순환론으로 검증을 회피했죠.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개인적 관찰은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지만 사람의 행동은 결국 그 결과가 극단적으로 갑니다. 괜히 빈익빈 부익부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릇이 있다라거나 팔자가 있다라고만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실은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지요**. 그 사소한 차이를 보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운명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요. 운명론의 장점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한 걸 생략하고 모든 걸 단순하게 왜곡시켜 결론내리기 좋다'

한자 공부 안 했으니까 국어 성적이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진술은 일면 비논리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진술은 현실에서 는 맞아떨어집니다. 저런 진술이 나오는 상황은 결국 한자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경쟁을 좌우하는 게 된 케이스인 경우입니다. 즉, 저런 진술이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이미 저 진술에서 말하는 바가 꽤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음을 응변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충고를 할 때 매우 극단적으로 단정하는 편입니다. 왜냐? 고 김재규식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건 '전달'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확실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유감스러우나,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정도까지** 가야합니다. 수술할 때 칼로 째지 않을 수 없듯이 말이지요. 당연히 그건 합당한 근거를 갖춰야합니다. 근거가 없는 극단적인 이야기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 참고로 화작문 말고... 인간의 심리를 갖고노는 화술 등에 관한 책은 꽤 많이 구비해서 쭉 읽어왔죠. 각자 유파는 다릅니다만. 제가 선택한 건 남자답게 직선적으로 바로 핵심을 짜르지만 상대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직설법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참 약합니다, 사소한 잡술로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텔링을 성희롱한 옆방 죄수를 한니발이 말로써 자살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군요.

링크

사채꾼 우시지마의 '세뇌하는 남자'란 에피소드 원안인 실제 사건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런 쪽에 대해서 공부해보셔도 되고 현대문명이 정말 '세뇌하는 벡터들의 합'이라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사실 상담을 할 때에 제가 주목하는 그 수험생이 뭘로 세뇌당했나 가리는 것입니다.

+ 수학을 공부할 때 탈패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간략히 예를 들면 기하와 벡터 문제를 풀 때 "집합" 단원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나, "명제" 단원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나. 심지어 정규분포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나 – 이렇게 해보는 게 탈패턴의 시작입니다. 그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겠죠.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 가능함과 불가능함을 직접들 검증해보아야합니다. A라는 문제에는 반드시 A', A''라는 해결방법 밖에 없다고 믿으면 그게 패턴화된 상태고 반면 전혀 상관없어보이지만 논리적 필연성이 있는 Y나 Z로 접근가능하다라고 믿고 시도해보는 게 탈패턴화된 상태의 한 예입니다. 눈 앞에 절벽이 펼쳐져있지만 사실은 투명한 강화유리 다리가 놓여져 있어 뛰어가도 된다라고 믿고 시도해보는 것이지요 (수학문제는 시도 하나가 실패한다고 바로 죽지는 않으니까요. 시간은 좀 걸리려나)

+ 그럼 탈패턴화가 뭔 상관이냐가 할 건데. 이 탈패턴화를 하기 위한 기초가 바로 저 OX를 믿는 것입니다. 즉, 수학은 정확히 참과 거짓을 구분해준다 – 즉

고교수학 내에서만큼은 시비가 분명하다라는 걸 알고 전혀 연관이 없어보이는 요소들을 결합해보는 것이 탈패턴화입니다. 넘들은 문제를 풀면서 A란 문제에 X, Y, Z를 써봐도 되는지 직접 시도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수학의 시비 검증성을 믿고 그걸 시도해보아야만 탈패턴화가 되는 것이지요.

13.6 위대한 세기 – 코셈 술탄 1회

2015.11.17

영상 링크

나무위키 설명 링크

전세계인의 성화에 영어자막을 단 버전이 이제 올라옴.

이슬람권이라고 해도 터키는 좀 달리봐야할 듯. 말이 이슬람 국가지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아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터키는 성속분리가 이뤄진 국가라서. 이슬람을 믿지만 실제 문화는 1화에서는 엉겁결에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남녀의 이야기에다가 역시나 전세계 아줌마들을 사로잡는 고부갈등까지 등장하는데 한국 드라마 그냥 능가. 강 비교가 되지 않는다.

- – 아메드 술탄이 즉위할 때 나이가 거의 수험생과 비슷했죠. 그래서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장면 구현은 잘한 듯. 즉위식 전에 떨려서 문 닫고 혁혁 댈 때 옆 호위대장 데르비슈가 격려하는 건 따로 메모하고 적어둘 대사인 듯. 터키 배우들 이름이 어려워서 언급은 안 합니다만 아메드 술탄 배우 잘 생기기도 했지만 연기 잘 하네요.
- – 납치당하는 우리 주인공이 저 간지나는 흑누나와 교감쌓는 건 뭐 스톡 홀름 증후군 흑누나 눈빛 정말 지리는 듯. 예니체리 꽃미남(보나마나 주인공 둘러싸고 삼각관계이겠지) 대사를 보니 저 시대에도 먹고 살기 힘든

취업난 때문에 목숨걸고 싸우는 예니체리 직장이 꿀직장이었구나란 생각이. (그런데 꿀직장이면 뭐하나. 예니체리는 원래 독신인데)

- - 시할머니(?) 사피예 술탄이 포스가 장난이 아님. 여자는 여러가지 이름을 갖게된다 이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꽤 명대사. 실제로 우리 주인공 쾨셈이 나중에 저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여자가 되죠. 역사적 사실로 보면 사피예 술탄 - 한덴 술탄 - 쾨셈 술탄 : 고부갈등 최강갑이 되어서 전세계 아줌마들 양 잡을 듯
- - 하렘은 여성 **내무반**. 저 시대 신병 받아라 하는 식의 농담이라는 건 집 단생활하는 어디든 있지 않나 싶음. 역사적으로 술탄 눈에 들기 위해 별 춤을 다 추고 거기서 발달한 게 벨리댄스라고 들은 바 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경쟁은 똑같은 듯. 자기 아이를 술탄으로 만들어야 Valide Sultan 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으니.
- - 로맨스 코드는 적절히 집어넣은 것 같은데 우리 주인공 아니스타시아보다도 아메드 술탄이 더 예뻐(?) 보인다는 게 참. 아나스타시아는 그리스인 여배우로 아는데 적국(?) 터키의 드라마에 나온 것을 보니 많이 바뀐 듯 (그리스와 터키의 감정은 한일감정 저리가라할 정도입니다)
- - 1화 제목이 사자, 늑대, 양인데 이게 참 절묘한 제목이네요. 사자 - 아메드 술탄, 늑대 - 주인공 아나스타시아, 양 - 예니체리 하지만 정작 극 중에서 아메드와 아나스타시아는 선량한 인물들이고(적어도 아나스타시아는 지금까지는) 예니체리는 매우 잔학무도한 광신자들인데 이들이 양(sheep)으로 묘사되다니 그런데 대사들이 참 문학적인지라 연기도 연기지만 영어자막 대사 읽는 맛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 - 단, 터키드라마 단점이 1호가 무려 2시간 30분. 진짜 보려면 날잡고 보든가 적당히 스킵해서 주요 장면만 봐야하지 않을까 싶음. 아무튼 배우들

포스가 쥐리고 남녀 주인공 외모가 시원한지라 눈호강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사극은 일단 우리나라 건 포기했고(무인시대 이후로는 맛갔음, 정도전도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습니다) 일본 것도 지겨운 센고쿠 지다이. 그래서 결국 알음알이로 알게 된 게 터키 사극인데 영어자막이 지원되니까 볼만하네요.

13.7 서적 : 동경대 강의록,

2015.11.18

별 ★★★★★★ + ★★★

그간 읽었던 기존의 사회과학책들을 모두 리셋시켜버린 책이다. 저자는 사카이야 다이치 – 일본 관료계의 이단아이자 학계의 괴물 중 하나 : 강연을 들은 학생들은 도쿄대 학생들

동경대라니 뭐 새로운 게 있겠냐라고 들춰보았다가 일주일동안 열병에 앓았던 기억이 새록. 사회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굳.

그런데 이런 책들은 특징이 있더군.

- 첫째, 그 쓸만한 책들은 거의 다 일본인들이 쓴 것이다.
- 둘째, 우리나라 책들은 쓰레기이다. 좌우를 떠나서 사고할 줄 모르는 애들이 많은 게 그 스랙 책들 때문이다.

이번에 삼사조합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혹은 비문학적인 사고가 뭔지 궁금한 사람들도 많을 건데 이를 위한 사고의 바탕으로서는 이 책을 읽으시면 된다. 이런 책은 비공개로 가도 좋다고 보지만 어차피 추천한다고 해도 안 읽을 놈들

은 안 읽기도 하겠고 사실 책을 추천 안 하는 이유가 그게 악용되는 경우 때문인데 이 책만큼은 악용될 이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윗 예측은 거의 다 맞았다. 한국사회도 사카야이 다이치가 말한 자가사회로 탈바꿈한지 오래다. 굴지의 재벌에서 그의 견해를 적극 참조해서 반영했다는 뒷 이야기도 있지만 이건 사족일까.

1. 일단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은 지루해보이지만 그건 아니다. 역사의 해석이 곧 미래의 전망임을 알 수 있다. 사카야이 다이치의 세계사 설명(아울러 일본사)을 보면 상당히 프레임이 정확하고 미래 예측까지 담보한 것이다. 그동안 몰랐던 서유럽 문명사에 대한 개괄적 프레임이 이 책 한권으로 깔끔히 정리되었다는 것.
2. 일본사회에 대한 실질적 비판과 전망이 두드러진다. 이 책을 읽고 감전되면서 일본 애니나 만화를 넘어 서적까지도 적극 읽으면서 비교한 것. 우리나라 지식인들이나 교수들은 일본과 비교가 되기 힘들다는 것.
3. 우리나라에서 책을 고를 때는 일본인 저자가 쓴 것부터 참조하도록 하자. 그게 좋은 책을 고르는 비결 중 비결이다.

13.8 [게임] 46억년전 이야기.

2015.11.19

링크

세기의 걸작 [46억년전 이야기], 그동안 과학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명왕성도 퇴출당하고 고생물학에서 수정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게임의 주제는 바뀐 것 같지는 않다.

초기에 피라미에서 출발해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그리고 인간까지 도달해 나가는데 최종보스를 무찌르려면 굳이 인간으로 진화할 필요는 없다(그보다는 드래곤, 박쥐, 아니면 익룡이 더 낫기도하고) 지금보다 파격적인 건 주인공이 진화하기 위해 약자들을 먹어치워 진화포인트 채우고 거의 식인이나 다를 바 없는 짓도 서슴없이 별인다는 것.

저 게임이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에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인기 얻기 훨씬도 전인 90년대였으니까. 사실 일어 못 하면서 강 액션플레이하는 맛에 하던 건데 지금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주제를 지닌 작품. 그 시대야 IMF 오기 전이라 다 국뽕맞아서 흥청망청 강 대학가면 무조건 대기업 취업... 그러는 시대였는데 어른들이 우습게 보던 일본 패키지 게임에서 진실을 설파하고 있었으니까.

죽을 때마다 진화포인트를 절반씩 빼앗아나가는 가이아는 2d 여신의 원조라 할 듯. 요즘 게임이라면 엔딩이야 인간이 되어서 가이아랑 (생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이겠지만 저 엔딩은 뭐랄까 '인류의 여명'이랄까. 아무튼 인간이 숲에서 지구의 주인이 되어나가는 동틀녘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

윗 영상은 꽤 슬픈 영상이다. 처음보면 이게 뭐야 ㅋㅋ 그러겠는데 6분대에 가면.

13.9 서적 : 카지노(김진명)

2015.11.19

김진명이 극우보수주의자건 쇼비니스트건 알 건 없고 유치뽕짝 어쩌구 전에 소설이 재밌긴 재밌습니다. 뭔가 유치한 것 같으면서도 한번 읽고 끝내지 않고 여러번 읽게되죠 이런 소설에서 문학성을 기대한다... 는 건 현학적인 것 같고 터무니없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재밌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김진명 작품 중에서 '카지노'는 좀 색다르죠. 편의점 과자 코너에 놓인 허니버터칩? (안 팔리고 비치돼있는데 수상) 물론 내용이 풍부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등장인물들이 뭔가 비현실적이고 깊은 한데 도박에 임하는 정신자세라거나 승부기법, 그리고 멘탈관리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것이 생각보다 잘 나와있습니다. (바카라의 세세한 규칙이 다 나와있는 건 아니지요)

읽어보시는 분은 왜 제가 이 책이 공부계획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굳이 구입할 건 없습니다. 도서관 어디든 다 비치되어있을 테니 대출해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생각 외로 재밌단 기억 때문에 현책방에서 구입할까 고려 중이긴 합니다. 어떤 승부에 임하거나 공부할 때 읽어둘 구절들이 있어서 말이죠.

+

허혁재님에게 드렸던 충고 중 하나가 저 책 말미에 나온 겁니다.

13.10 [게임] 화이트데이 신판

2015.11.19

아래 영상은 공포일 수도 있으니 함부로 플레이하지 마시길

오늘따라 학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언제 학교가 정상이었니?

나무위키 소개

링크

원작은 복돌이 때문에 망한(...) 비운의 걸작 귀신보다 무서운 불법복제, 허혁재군이 빽칩니다 염가판 주얼판으로 우연히 구매했다가 감동 쳐먹고 스트레

스 받을 때마다 방 안 조명 다 끄고 서라운드 스피커로 플레이..... 하다가 안경을 끼게 된 무시무시한 게임.

우리나라에서만 나올 수 있었던 걸작인 게 아니라 다시 나와서 기쁘네요.

매우 독창적인 설정에다가 스토리 철학이 꽤 마음에 들었음. 배경음악인 황병기 미궁가지고 이토록 사운드 잘 뽑아낸 게(... 황병기 미궁 이 게임 때문에 유명해졌을 듯 ...)

일단 주인공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도망가야함. 게다가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정신나간 수위가 더 무서움. 이 놈의 대머리 수위 아저씨 봉구형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밤새 일하심 학생들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학교에서 잉여짓 중인데 장년인 봉구형님과 달수형님은 휴식도 안 하고 근무 중. 조금만 소음 내도 내일 귀신들 저승사자 입시인데 방해하냐고 길낄낄 웃으며 배트 들고 쫓아오심. 신나게 따돌리고 여자 화장실에 처박혀서 흐웅하고 있으면 스윽하는 마찰음과 함께 머리귀신님 출현(...) 네가 거기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거기다가 등장하는 주인공들 사연이. 뭐 이미 스포 뜰 때로 다 떴지만 스토리 변경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국산 게임 치고 정말 설정 잘 해서 누가 귀신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귀신 사연도 참 불쌍. 학교괴담에서만 등장했던 귀신 거의 다 구현시킨 것 같네요. (칠판 귀신 - 수학문제가 안 풀린 걸로 한이 맷혀 죽은 여고생 귀신도 나온 것 같고)

...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없음. 그냥 얼굴보고 예쁘다 생각한 여고생에게 화이트데이 선물주겠다고 밤늦게 들어간 우리 이희민군, 이거 **스토커** 아녀? 도대체 연두고등학교는 뭘 숨길 게 많기에 수위 아저씨가 무슨 특전사, 해병대 수준 이런 인재들은 대기업 총수 사저나 청와대 경비로 갔어야하는 것 아녀? 도대체 자정녘에 청순한 여고생 3명이 수학교재 한권도 없이 학교에 기어들어와있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아니, 그리고 저 수위들은 보안 철저히 한다면서 미친 아줌마는

냅두고 있음? 당직교사는 없어?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교실 돌아다니다보면 참고서 한권도 안 보임(...) 학교 시설만 좋지 졸라 꼴 통 학교였던 듯. 구관이든 신관이든 공부한 흔적 일체 안 보임. 애새끼들 대학 진학은 강 포기하는 참교육 실현의 현장이었구나.

이러니까 학교 강당이 작살나도 소방차는 커녕 아무도 오지 않지. 누군가 학교를 개박살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학생들 대입특례전형을 받는 걸 기대했던 것 같음(...).

신판에서 지현양 비중이 좀 높아진 것 같고(구판에서는 정말 꿔다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 주인공 외모가 좀 기생오래비급으로 바뀐 것은 그런데 우리 수위 아저씨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나 햄쑥해지셨고 메인 히로인 1 소연이는 수학 1000문제는 풀어냈는지 졸라 초췌해졌고 메인 히로인 2 성아는 수시합격 개꿀이라도 빨았는지 왜 이리 피부가 좋아졌어?

... 어 그런데 양정화 성우는 10여년 넘게 훌렸는데 목소리가 그대로다 ... 이 것도 까악.

그나저나

이거 입수 못한 건 아깝다. 초레어 극강아이템 머리귀신 우산

저거 비오는날 밤 아래와 같이 이렇게 쓰고다면

링크

경찰서에 끌려가겠죠 뭐

13.11 머리가 좋은 경우

2015.11.21

간단히 말해서 공부할 환경이 아닌데 – 정상대로라면 농사나 짓거나 노가 다나 뛰고 있어야하는데 환경의 강요와 정반대로 '공부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케이스.

이 경우야말로 머리가 좋다라고 보는 케이스다. 두뇌회전이 빠른데 환경이 좋다면, 이건 환경 덕분이다. 이런 케이스는 좌절 몇번 경험하거나 환경이 나빠지면 다시 명청해진다.

하지만 환경이 매우 안 좋은데도 진짜 아득바득 공부해서 올라가는, 포기하지 않으려하는 케이스가 있다. 실제로는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같은 환경에 처한 동기들이나 친구들은 그 환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그런데 본인들은 계속 공부하려고 하면서 결국 '탈출'에 성공한다.

머리가 좋다고 하려면 환경을 극복하느냐로 봐야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건 이런 케이스들은 자기들이 머리가 좋다는 걸 모른다. 이 케이스들은 방법론만 잘 가르쳐주고 정신적 서포를 잘 해주면, 요즘 말로는 캐리 잘 해주면 정말 자알 올라간다. 바꿔 말해 자기가 환경이 옛같고 머리가 나쁘다라고 해서 안타깝게도 몰락하는 경우도 많다. 머리가 좋더라도 자기 확신이 지나치면 스스로를 몰락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부모가 밀어준다고 해서 그냥 좋은 대학 간다.... 이런 케이스는 잘 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그러나 환경을 넘어선 사람들은 사실 뭘 해도 먹고 살거니와 결국 이겨내는 걸 보게 된다.

13.12 위대한 세기 – 코셈 술탄 2화

2015.11.24

<http://www.alaturcaseries.com/kosem-episode-2-english-subtitles-please-use->

the-donate-button-below-to-support-the-translations/

2화 총평 : 전세계인 공략을 감안한 웰메이드

이번 화에서는 예니체리가 상세히 그려져 있어서 좋았고 하렘에서 여자들끼리 별이는 온갖 종류의 싸움(신경전, 예의전, 그리고 육박전)까지 벌어져서 만족. 로맨스, 음모, 가족애, 액션 등이 정말 잘 어우러져있음.

거기다가 주변부 인물들의 개성이 두드러지는데 칭기스칸의 자손으로 오스만 황제 자리를 노리는 샤힌 기라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만렙 캐릭터이고 웬지 짜리 기운이 강한 메메드 기라이는 알고보니 아흐메드의 고모와 러브레터 주고받는 사이(이 녀석이 어째 샤힌 발목잡을 뻘이다)

우리의 주인공 아나스타시아는 아직까지는 순수한 소녀 남주 아흐메트가 동생 무스타파를 죽이려다가 살리는 치유계 인물 역할 잘 해냈음((그런데 역사상 최악의 악녀 중 하나로 흑화할 건데 어찌될까) 마흐피류제가 아흐메트와 첫날밤 보낼 때 질투하는 표정 연기가 두드러지는데.. 아, 이 배우 아나스타시아 치칠리우(주인공과 배우 이름이 같고 국적도 같다)는 시즌 1에서만 나오고 그 뒤에 하차할 테고 흑화된 케셈(=어린 시절 이름 : 아나스타시아)은 Beren Satt라는 나름 유명한 터키 여배우가 맡는다고 하는데 위화감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봐도 귀여워 소리나와 쇼타증후군을 부추기는 무스타파 꼬맹이는 연기 할 때 힘들었을 것 같다. 거의 1시간 분량동안 울고 쫓기고 감금당하고 심지어 교살당하기 직전까지 최악의 경험까지 연기 다한 건데. 실제 역사에서 무스타파는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 감금당해 살았고 술탄으로 즉위했을 때는 금치산자 수준이었음. 그 미치광이 술탄이 꼬맹이 시절에는 저렇게 귀여웠다니... 에서 저쪽 시청자들의 심금을 수백번은 울렸을 듯.

샤힌 기라이는 카리스마 장난 아니네

22:30 – 아흐메트 살해용으로 쓰려다 실패한 사자 시체를 해부하는 장면(사

자=황제라는 점에서 은유적) 54:30 – 콘스탄티노플을 탈출하려는 무스타파 일행을 공포스럽게 막는 장면 56:51 – 무스타파 일행의 공범에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태연히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한니발 렉터급으로 대처하는 장면.

배우가 보통이 아니라서(캬. 눈빛 보소, 형님 저를 가지세요...) 검색해보니

링크

교육적 차원에서 예니체리 훈련장면도 흥미 일단 주인공 이스켄데르(=알렉산더)는 '안드로'가 본이름이 아님. 타인사칭을 보니 이거 분명 첩자 같다. 능력이 범상치 않고 예니체리 내부를 유심히 탐문하는 걸 보니

34:00 – 내무반 우두머리를 뽑을 때 달리기 시합한다는 건데 실제로는 brain test. 이스켄데르는 꿀찌하면서도 1등하는데 01:40:30 – 군대 내무반의 아침, 오스만이 당시 잘 나갔던 건 일찌기 저런 식으로 근대적 조직체제의 군대를 훈련시켰다는 장면 01:45:00 – 예니체리가 실은 거대한 요리사 집단이기도 한 것을 보여줌 ; 참고로 예니체리의 거의 모든 용어는 요리 용어였음.

극 중 마지막에 손자에게 복수하려는 사피예 술탄의 대사가 ”솥을 뒤엎고 수프가 끓어오른다”라는 건데 예니체리가 솥을 뒤엎는다는 건 말 그대로 '역모'를 의미하는 것임. 이 드라마에서 예니체리가 반역하는 건 최소 2번은 일어나기 때문에 솥을 뒤엎는 장면은 여러번 나온다.

가슴아픈 캐릭은 마흐피뤼제 술탄. 자기 부모도 모르고 그냥 하렘에 혼남해서 황제에게 몸바치고 아들 낳을 것만 생각하는 걸로 훈련된 소녀인데 지금으로 치면 정시로 대학가려는 친구인데 낙하산으로 아나스타시아가 훙 오더니 술탄 마음을 빼앗아 갔으니 실제 역사도 불행함 아들인 오스만 2세가 즉위하기 하는 데 젊은 개혁군주 오스만 2세의 운명도 참 박복했거니와 마흐피뤼제 술탄도 30 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이유가 불명. 아마도 코셈에게 암살당했을 것으로 여겨짐(드라마에선 그렇게 그려지겠지) 배우는

링크

사실 외모는 좀 투박한데 몸매는 육감적인 – 애 잘 낳게 생긴 걸로 묘사되었으나 캐스팅은 나쁘지 않은 듯.

반면 아나스타시아는

링크

이 정도면 고생한 엘프는 되지 않을까 싶고

기대된다는 배우 Beren Saat(성년의 코셈 연기)는

링크

사랑과 전쟁을 잘 연기할 배우로 보임(터키에서는 매우 유명하다던가) 나머지 꽃청년(주인공인데 나머지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예니체리(첩자) 이스켄데르 역

링크

술탄 아흐메트 역

링크

저거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무슬림이라고 찍을 사람 아무도 없겠지. 학교에서도 터키 형님들이 오셔서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돼지고기 못 먹는 백인 정도. 이슬람 관습만 아니면 사실 터키, 이란 남녀가 전세계를 쪽 발라버릴 거라고 생각함.

중간에 무슨 배우사진 올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2화는 참 잘 짜여졌다고 생각. 우리나라 제작진들도 저걸 열심히 표절 벤치마킹하겠지.

+

한편 흥미로운 건 그리스-터키 관계는 한일 관계 저리가라할 정도로 앙숙. 사실 민족주의도 그리스 독립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가 후덜덜한지라. 그런데 터키 사극에서 그리스 출신인 코셈 역을 그리스 배우인 아나스타시아가 맡은 것을 보면 문화적으로는 역시.

위대한 세기 이전 버전에서야 하기야 그리스에서도 이 터키사극이 인기가 매우 좋아서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문화적 침략이라고 시위까지 했다던데 그와 별개로 저 드라마 제작진들은 그리스에서 추파를 던지기로 한 듯. 하기야 코셈이 그리스 여자가 아닌가. 거기다가 베네치아를 강조하고 이탈리아어까지 극중에 집어넣은 것을 보면 유럽 시장까지 다시 정복하려고 한 듯.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작가를 포함한 드라마 진들이 국뽕은 그리 빼지지 않았다는 것. 자기 조상들이 잔인하고 야만적인 것도 광 사실 그대로 집어넣음. 그리스인들이 왜 독립할 수 밖에 없었나 하는 것도 집어넣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집어넣는 건 힘들겠지?

다른 이야기지만 중국에서는 대만을 역사적으로도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 장제스조차도 좋은 의도로 그랬다라는 식으로 띠우기 시작하던데.

13.13 환경 얘기

2015.11.28

상식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10명 중 2명 꼴도 못 됩니다.

그러나 저 환경에서 자란다고 다 공부를 잘 하거나 비뚤어지지 않느냐 환경은 가정환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안 좋은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 이

경우만 머리가 좋다고 평가하는데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잘 나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당위가 현실을 보장해주는 건 아닙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담론이 놓치는 것은 정말 ”상위 1%”라는 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인격자 부모 밑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랐다’는 것으로 정의해야 정확하다는 겁니다.

유전자 얘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전 유사과학자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염색체냐고 놓거는 순간 말을 못 하죠. 왜냐면 자기들이 검증한 것도 아니거든. 그냥 들은 얘기 썰 푸는 수준이죠, 그게 그 사람들의 수준이죠. 그러나 환경은 나이먹다보면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공부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도대체 환경 차이도 논하지 않는 사람들이 뭔 유전 타령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 말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고 그저 들은 썰대로 읊는 사람들이 어떨지 뺀하기 때문에 성인들이 이러면 차단리스트 감이죠.

우리의 도전이라는 건 그냥 좋은 환경에 들어가기 위한 시도입니다. 입시도 ”최고의 교육환경, 취업도 ”최고의 근무환경”, 결혼도 ”최고의 생활환경”에 들어가려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올라설 때의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그 차이에서 ’노력’, ’사교육’, ’교재’ 등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을 다 빼고 남은 것이 비로소 ’머리’라고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온갖 교육 다 받고 노력을 습관화시켜 서울대에 갔다고 머리가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막장 집안에서 태어나 어디 북한 저리가라하는 동네에서도 교과서만 가지고도 인서울 들어가면 이건 머리가 매우 좋은 것입니다.

노력 해보았자 소용없다라는 사람들, 한명한명 보면 그 사람들이 흔한 택배 상하차 알바부터 정말 밑바닥까지 고생한 적이 있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경우는 무시합니다. 정말 고생해 본 사람이거나 진짜 올라간 사람이면 노력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특히 경쟁의 핵심은 자기 경쟁자들을 노력하지 않도록 선동, 도발하는 겁니다. 제가 경쟁한다고 해도 그럴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하지만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환경“의 준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것도 환경이지만 본인이 노력하거나 머리를 굴려서 자기가 만드는 것들도 역시 환경입니다. 즉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환경과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당연 우리의 초점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어떤 강의냐 교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능이란 시험 – 즉 제시간에 문제 정확히 풀어내기 위해서 일단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해야하느냐부터 고민하세요. 수능 당일날 집중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니 꾸준히 유산소운동 한다거나 기상시각 조절하는 것. 자기의 경우는 아침에 저혈압 증세가 있으니 무조건 걸어서 도서관에 가서 3시간만 공부하고 집에 가서 낮잠 30분 잔다거나 부모님이 시도 때도 없이 부부싸움하니 어쩔 수 없이 혼자 나가서 살거나 아니면 하루 웬종일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간다거나 시각적 사고가 강해 교재 읽는 게 더 잘 되면 교재 읽기로 커버치기, 반면 청각적 사고가 더 강해서 강의 듣는 게 편하다 싶으면 학원을 간다거나 도서관에서 인강을 줄창 듣는다거나. ...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개선해보고 그렇게 가세요. 무조건 생각없이 업자들 손에 놀아나지 마시고요. 도대체 자기 인생 바꾼다라는 사람들이, 절박해 미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지도 모르고 환경 개선에 의지도 없이 안이하게 나중에 수험상품 쇼핑하는 것보면 저 색기는 양 대학 떨어져도 싸다란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학에 간다고 한들 요즘 대학도 살벌하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그 이후 취업전쟁은 애당초 불공정을 깔고 들어가 거요.

일지를 쓰던 일기를 쓴자가 ‘매니저’라면 나라는 답없는 녀석을 어떻게 매니지먼트할 건가 하는 마인드로 가세요. 혼자 관리가 안 되면 경쟁하는 친구와 서로 딜해도 좋고, 그게 안 되면 현강 들으러 가세요. 학원 가는 건 강의력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간사해서 남들의 시선에 놓이면 방만해지거나 딴짓하는 게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뭐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 한다? ↵ CCTV

놓고 찍으면 그거 거의 다 본인이 땀짓하고 게으름피우고 태만한 걸로 귀결됩니다. 자기야 안 그렇다고 하고 싶죠? 그럼 님들이 한번 도서관 가서 다른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나 뒷짐지고 평해보세요.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자가 남들 공부는 참 신랄하게 평가합니다(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혼자서 공부 안 되면 그 환경 떠서 남들과 같이 싱크로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적의 답입니다. 합격이고 뭐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도서관 가서 가장 먼저 앉고 가장 늦게 일어나는, 누가 오래 자리 지키나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부가 안 되고 올해도 시험 망했다 하는 사람들, 슬그머니 말 걸어보면 공부 외의 온갖 연예, 문화, 시사 이런 건 '차암' 빼삭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은데 그런 걸 할 시간은 널렸나보지요.

13.14 A, B, C의 비교

2015.11.28

특정인 지적 댓글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 느끼고 정신차리라고 쓰는 글입니다. 칭찬도 있고 훈계도 있습니다.

- A – 환경을 극복하고 올라서려 한다, 과거에 사로잡혀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커리를 제가 잘 압니다. 양치기 기본에다가 효율적 인강으로 단기적 목표 성공 그런데 가끔 얘기하면 과거에 많이 집착합니다. 당연히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지요. 안 좋은 환경에서 스스로 공부환경을 쟁취하고 이겨낼 테니까 슬럼프 몇번 겪겠지만 극복하겠죠

- B – A와 비슷한데 자신감이 떨어진 케이스

잘못된 정보에 사로잡혔다가 어느 정도 올해 극복했습니다. 흐름을 탈 줄 아니 오버하지 않으면 성장하겠죠. A와 차이가 있다면 이 경우는 그냥 자

신감 문제입니다. 자신감은 스스로 성과를 거두고 대화하면서 쟁취할 문제죠. 다만 대화할 상대들의 수준을 높이는 게 필요할 겁니다.

- C – 머리는 좋은데 잘못된 습관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러나 두뇌가 습관을 못 이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당장 해야 할 일을 늦게야 하고 후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A, B보다 절박감이 매우 덜 합니다. 지금도 안이해졌는데 자칫하면 내년에도 올해 전철 또 밟는 거죠.

대충 본인들은 이걸 알고 쪽지로 테러할 건데 뭐 겪는 일이니까. 차이가 있다면 A는 제가 하는 말은 그대로 잘 들었고, B는 남에게 한 말까지 캡쳐해서 다 들었고(이건 소름끼칠 정도였음) C는 제가 가장 많이 말해주었는데 가장 많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제 말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지만 하라는대로 했는데 제대로 안 하고 고집피우다가 나중에 제 탓 하면 심히 골룸하다고 지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또 청자들과 알바들 들어온 티 나던데 그 자들이 아니면 너무 관심이 많은 댓글을 쓰시더군요.

뭐가 무서워서 여기 와서 청자질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저주받아 죽으라고 덕담 기도해주고(이건 관계없잖아) 그리고 일지 꾸준히 써서 인증한 사람 빼고는 역시 대접할 필요 없다는 쪽으로 가닥잡으면 됩니다. 반면 눈치코치 모르고 활동하는 사람은 관심 끊습니다.

이중아이디로 활동하다가 걸린 사람들이야 많죠. 관상에도 티가 나죠. 개버릇은 못 준다는 이야기 사실인 듯.

13.15 빛개념에 대해서

2015.11.30

5수생이 있다칩시다.

보통 이런 경우 어떤 관념이 문제나면 자기가 날려먹은(?) 4년만큼의 본전을 챙겨야한다는 **보상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더 높게 잡으면서 자기가 수험고수이니 더 많이 하겠다 그래서 꼭 성공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죠.

사실 생각해보면 별 의미없는 자기학대에 불과합니다. 목표치를 높게 잡는다고 해보았자 그 4년이 빛나는 것도 아니죠. 4년동안 공부했다면 당연히 구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도 학습되었을 뿐더러 '해결되지 않은 원인'이 있단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하느냐.

일단 4년은 잊어버려야합니다. 그냥 4년동안 병원생활, 식물인간, 징역살이, 외계인에게 납치... 당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아요. 그 4년은 경제학적으로는 매몰비용입니다. 뭘 하더라도 사실 복구는 못 해요. 심지어 성공한다 하더라도 4년이 의미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들 이런 매몰비용을 복구하겠다고 목표를 무리하게 잡는 걸 넘어 학습방법도 터무니없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저 4년은 안 돌아옵니다. 내년에 시험치는 사람이면 겸손하게 자기가 고3과 똑같다고 여기세요.

만약 개인의 성찰과 반성, 그리고 기본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라면 유의미하다고 반문할 수 있긴 하겠죠. 그러나 이 경우 손해는 더 큩니다. 4년동안 해서도 되지 않는 **실패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여러번 쳐도 안 되는 이유는 공부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실패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게 가장 큩니다. 학원

에서는 공부하는 방법이나 지식을 전수해주겠지만, 학생 개개인의 실패 패턴을 지적해주거나 잡아주진 못 합니다. 본인의 과제죠.

하지만 이걸 하는 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에 근사하기 때문에 혼자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달리기를 잘 하는 친구에게 너는 달릴수록 불행해지니까 달리지 마라고 하거나 아주 얼굴이 예쁜 여학생에게 자네는 얼굴이 불행의 근원이니 차도르를 쓰고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도록 하는 것과 동급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존심을 포기하고 여태껏 살아온 방식을 과감히 바꾸지 않으면 실패는 또 반복되죠.

빚을 못 갚으면 파산신청하고 생활하는 게 낫습니다. 내년에 다시 시험 응시할 분은 과거는 싹 잊으세요. 과거에서 챙길 건 오직 교훈, 그리고 자기의 실패하는 패턴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구식무기를 버리고 신식으로 갈아타면서 자기를 잊는 사람은 살아남겠지만 계속 한탄만 하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또 실패합니다요.

13.16 산업공학에 관하여(초안)

2015.11.30

일명 Industrial Engineering :

그 시조는 Fredreick Winslow Taylor https://en.wikipedia.org/wiki/Frederick_Winslow_Taylor 경영학의 아버지.

경영학과 같은 계보. 산업공학이라기보다는 공업경영이란 말이 맞음. 공업에 더 특화된 경영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공학”이라는 말이 적절.

그러나 실체는 어디든 마찬가자이지만 희대의 ’박쥐학과’ 일단 좋다는 것에

는 다 빨 걸치고 있음. 그래서 학부과정에서 돈과 무관한 건 안 배운다. 우선 수학도 공수는 빼고 선형대수학과 통계학으로 쇼부. 나머지 과목들은 경영학과와 공학에서 쓸만한 것만 가져와 '뿌리없이' 배움 대신 수행할 과제는 컨설팅업체의 결과물 비스무리하게 내놓아야함.

한마디로 이것저것 다 견드려보는데 깊이 다루지 못 함. 그러나 이것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은 학부과정에서는 어차피 전문성은 크게 기할 수 없음. 학부과정에서는 시야가 넓어야 함. 그 점에서는 이 박쥐학과적 안목이 도움이 된다는 것. 그래서 막말로 진출분야는 거지와 국회의원 빼고는 다 가능하다는 말이 있음.

뿌리는 없지만 꿀이라고 하는 이유는 취업부터 대학원인데 쓸만하다고 하는 알짜 분야의 대학원으로 빠져나갈 수 있음. 수학, 컴퓨터, 경영과학, 생산관리, 품질관리 금융공학, 제조공학, 통계분석, 시뮬레이션 기타 등. 사실 대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공학은 "관리자"의 안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건 정말 알짜들만 제대로 모아놓은 것임.

교수에게 뭘 배워야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나온 3가지 답변은 산업공학의 3대 학문 : 수학, 컴퓨터, 통계학

13.17 20대를 넘기면 부모가 아니다.

2015.12.01

어디서든 상담을 하다보면 가정문제가 많다. 가정이 화목한 사람은 돈이 없더라도 행복한 줄 아시길. 다시 말해 하하호호 행복한 케이스는 정말 찾기가 어렵다.

대가족 체제에서는 권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으니 부모들도 윗사람 눈치보는 게 있었다. 그리고 가부장 시절에는 남편은 돈을, 마누라는 밥을 주기

때문에 역시 견제기능이 발휘되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개개인이 돈도 벌고 밥도 다 하는 시대에는 눈치볼 것조차 없다. 사소한 갈등으로도 공격성을 내비친다.

3, 40대가 과연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건 나조차도 회의적이다. 나 이와 인격은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 얼마만큼 배우고 경험했느냐에 달렸을 뿐. 그래서 이야기들 들어보면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케이스도 정말 많다**. 부모에게 기눌린 케이스, 부모에게 기대하지만 좌절하는 케이스.

내가 제안하는 건 거리두기이다. 그리고 본인이 성인이 되었으면 부모도 과거의 부모로 보지 말길. 키워주고 교육시킨 것에 대해선 빚이라는 건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부모에게 기대하진 말라는 이야기.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그 세대 어른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 그러나 부모에게 많은 걸 기대도 하지 말란 이야기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폭언을 퍼붓거나 해도 그냥 이건 '개무시'하는 게 답이라고 본다.

가능하면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부모님과 떨어져있는 것, 대면시간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답이라고 생각된다. 상담해보면서 느끼는 대부분의 문제가 '대면시간이 기니까 의견이 충돌하는 것'으로 정리되는데 인간관계 잘 유지하는 비법은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다. 아주 가까워지지도 않고 아주 멀어지지도 않고. 부모자식이니까 가까워야한다고 보기 좋지만 글쎄, 원래 자식이 성년이 되면 부모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게 정답이 아닌가.

이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다, 다 자기들만 겪는다라고 착각하겠지.

13.18 환경 넘어서기

2015.12.01

자기 처지를 불행히 여기는 사람들도 많음. 꽤 많이 공감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꾸짖을 때는 꾸짖는다.

불행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그 불행함 자체를 평계로 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자기가 판자촌에 살았다고 공부 안 하고 유흥 즐기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건 인육까지 먹으며 엽기살인 일삼은 지존파나 유영철이 동정받아야 한다는 논리와 똑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문제는 그걸 극복해야하기보다는 평계로 쓴다는 것이다.

한번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안 되는 이유다. 좋은 집안에서 교육 잘 받은 친구들이 잘 나가는 이유 중 하나는 평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정도까지 부모가 잘 해주었는데 네가 못 하면 누구 책임인 줄 알지... 예답변을 못 하니까 열심히 한다. 그러나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 실패를 전가할 대상은 많다. 그러나 전가해보았자 피해는 누가 입을까.

속칭 이걸 **피해의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실 사회적으로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과 계약질을 하는 건 피하는 게 좋다. 이들은 그 피해의식만으로 자기들이 계약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가기 딱 좋은 사람들이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욱 엄하게 대해야 한다.

환경 탓만 하다간 아무 것도 못 바꾼다. 바람피우고 술마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부전자전이 되는 이유? 그 아버지 탓만 하는 가운데에서 그 아버지를 배워버리기 때문이다. 진정 극복하려면 그런 아버지를 혐오하고 우습게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는 경멸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아버지가 어찌구... 하면서 그걸로 환경 탓만 하면서 벗어날 노력을 안 한다. 그리고 자기도 똑같은 길을 걷는다.

아래 부모글과 연관짓는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억압만 당하면 역설적으로 그 부모가 선망 대상의 위치에 놓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모를 배워버리고 만다. 넘어선다는 건 2차원에서 놀다가 3차원으로 시야가 넓어지는 걸 말한다. 자기를 학대하거나 못 되게 구는 사람을

마치 체스의 말처럼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나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다간 똑같아져버린다.

넘어선다는 건 여러분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 빼고 길이 있을까?
실패한 것을 만회하려면 그 실패를 반드시 객관화하고 사소한 걸로 여길 수 있
어야 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당한 좀비를 불태워버리듯 과거의 자기를 서슴없이
버려야 한다.

적어도 내가 관찰하고 느낀 바 – 그리고 수험상담을 해주는 것도 나 나름
대로의 수행이지만 – 는 그렇다. 부모가 학대한다면 가장 편한 물리적 방법은
대면시간을 줄이고 공간도 따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부모에게**
감염된 나를 어떻게 처리해버리느냐이다. 폭력이 무서운 건 고통과 상해 때문만
아니다. 로봇을 때린다고 해도 고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인간은 얻어맞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 안 좋은 방향으로 감염되어버린다. 그래서 같은 행
동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마법사들은 이걸 읽고 그 사람들을 세뇌시킬
수 있다.

상처에 공감해준다는 것만이 절대 능사는 아니다. 상처입었다는 사람들도
곰곰히 보면 그 상처를 이용하는 비겁한 모습이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13.19 3s

2015.12.05

사고의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머리가 나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그냥 99%
라고 생각하면 된다.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머리가 나쁘다라고 하는 '명제'를
생각없이 자신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경우고 보통 그런 사람들과 대화해보면서
분석해보면 알고리즘이 엉켜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스피드를 포기하고 순서대

로만 사고, 행동하면 해결될 것을 엉뚱한 데 답 찾는 경우가 많다.

1년간 분석해보면서 느낀 결론이란 게 참 허망.

- system
- sequence
- speed

이 3s로 그냥 결정나는 듯. 사람과 대화하다보면 어느 사이에 그 사람을 추상명제화시켜서 분석가능하게 되고 그 명제들끼리 서로 논증되면서 추론되는 결말이라는 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게 아닌가하는 중2병급 망상도 들긴 하지만 공부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잘못된 시스템에 사로잡혀서 그렇고 문제풀이가 안 된다는 경우는 시퀀스 통제력이. 그냥 순서대로 사고하면 되는 데 그걸 못 해서 무조건 추종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게 스피드. 시스템과 시퀀스가 잡힌 다음에 스피드를 높여야. 스피드를 추종하면 시스템과 시퀀스가 망가진다.

13.20 메모 : 칭찬

2015.12.05

- 가장 아름다운 미인 : 칭찬

남녀외모야 30대 넘기면 어차피 다 아재 아짐 되니까 그건 알 바 아니고. 사람들이 정말 고파하는 건 '칭찬'이라는 사실 엘리자베스 테일러 리즈 시절의 외모라도 진정성이 담보된 칭찬보다 예쁘지 않음.

만약 모든 사람이 서로를 칭찬해주고 다닌다면 칭찬이 먹히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칭찬이 잘 먹힌다는 건, 사람들이 서로 차갑고 혹독하단 이야

기이겠지. 늘 부정적인 평가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려니. 나폴레옹조차도 ”우리 황제폐하는 칭찬하는 아첨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란 칭찬에 흡족해하지 않았다고 하던가.

- 인간관계, 저주풀기

바른 소리를 하면 인정받겠지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부딪혀보면 다를 것이다. 아첨하지 않고 정말로 칭찬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칭찬하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실속이 없더라도 은연 중에 상대방을 ’무의식적’으로 칭찬할 수 있는 거라면 그 관계는 꽤 오래간다.

칭찬이 지나치면 아첨이 되는 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게 상대방을 웃애고 있는 저주를 푸는 것이라면(판타지스럽긴 하지만 이건 실제로 그렇다) 권장할만하다. 예컨대 본인이 아름다운데도 못 생겼다고 착각하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다. 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혐담하고 깎아내려서. 이 경우 예쁘다라는 말을 10번은 해줘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동의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 저주가 풀린다는 황당한 일이다.

- 트라우마

어린 시절에 윗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자아의 핵심인 경우가 많다. 생각없이 던진 걸로 보인 ’폭언’을 수십년 품고 산다든가. 특정인의 언행을 분석해보고 상호피드백을 하면 남들과 다른 ’아픈 개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아픈 개성은 어린 시절로 추적해 가다보면 보통 상처와 연관되어있다.

미국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여자들이 비만일 가능성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해석하기로는 그렇게 해서 성적매력을 줄여서 도파하고자하는 것 이었다든가. 꼭 이 경우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자기파괴적인 행위”는 도피를 의도한 경우가 많다. 도피를 해야만 괴로웠던 과거나 현재에서 유리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 미래는 불확정적 명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사실 명제일 뿐. 그나마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매우 부정확. 운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 : 개인은 자기 미래를 명제화시켜 거기에 맞춰 행동하기 때문. 사실 인과관계가 딱히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어버림. 일단 믿기 시작한 순간 절대불변의 명제가 되어버림.

시간이 뭐냐하면 보통 시계를 가리키겠지만 그것도 인위적으로 정한 하나의 계량수단. 그리고 심리적 시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1초가 1시간처럼, 1시간이 1초처럼 실제로 와닿기 때문에 이것도 딱히. 물리적 시간은 객관적이지 않느냐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리적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

- 행복은?

생각이 정지될 때. 논리는 거짓말아니고 ’현자타임’을 유발, 자기가 몰입하는 상황을 칼로 자르고 해부하는 것이 ”의문”이고 그 의문문을 던진다는 건, 주어진 명제나 상황을 ’부정’해본다는 이야기. 그 때는 절대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칭찬의 기능은 저런 ’의문문’을 차단해준다는 것임. 그럼 칭찬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닙니까. 개인이 품는 의심 중에선 별 소득도 없는 쓸데없는 의심들도 많기 때문. 나 못 생겼죠, 머리 나쁘죠, 이렇게 살다간 이번 생 답 없죠.... 등은 하나님나한 의심. 이런 건 보통 저주받은 결과임 그 저주를 풀어주는 칭찬은 적절한 것임.

13.21 글을 읽을 때 3가지 문장과 3가지 틀

2015.12.10

3가지 문장

- ⓐ 기술
- ⓑ 설명
- ⓒ 주장

기술은 저자를 배제해도 상관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술.

설명은 특정한 대상이나 현상을 이치에 맞춰 논리적으로 풀어쓴 것. 어떻게 보면 기술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님. 설명은 기술이 글쓴이를 통해 해석되어 재기술된 것임. 그래서 '의도'와 '관점'이 있음.

주장은 말 그대로 글쓴이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위 기술과 설명에다가 연역 추론 혹은 귀납추론으로 논증하는 것. 물론 현실에서는 논증 없는 주장도 많음. 그러나 수능 지문에 등장하는 주장은 거의 다 논증임. 의도, 관점, 강조, 한계는 당연하지만 '토론', '비판'도 뎅달아 따라나옴.

글을 읽을 때 **기술, 설명, 주장을** 나눠서 구분하는 것이 체화되어 있어야함. 기술은 상대가 아무리 개새끼더라도 받아들여도 되는 것 설명은 일단 수용은 하되 내가 다시 한번 검증해보아야하는 것 주장은 상대가 여친 혹은 엄마더라도 일단 '아니오'라고 부정해봐야하는 것.

그 다음으로 글을 읽을 때 중요한 3가지 틀

소재 – 화제 – 주제

④ 소재 : 글의 대상.

⑤ 화제 : 글쓴이가 소재를 가공한 것 - 설명문은 여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음.

⑥ 주제 : 글쓴이가 화제로서 말하고자 하는 것 - 설명문이 아닌 글은 이게 부각됨.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저런 소재-화제-주제를 묻고 답해야 함.

.....

국어 독해의 시작과 끝은 저걸로. 상세한 내용은 공개된 것으로 적기도 그렇지만 어차피 공부할 인간들은 저걸 체화시켜 알아서 끝낼 것임. 저 틀도 못 잡고 문제푼다면 점수가 올라갈 리도 없겠지만 앞으로 인생살이도 힘들 것임.

과거보다 국어교재는 확실히 퇴화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국어교재가 현재보다 10배는 더 나았다는 생각. 수학은 야매방향으로 강조되는 기이한 풍토기도 하지만(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자연대, 공대 가서 잘 할지도 의문) 사실 심각해진 것은 국어. 인터넷 이전의 미개한(?) 시대에도 기본적으로 교육되던 것들조차 찾기 어려워짐. 거기다가 독서하는 학생들을 보기 힘듬.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음. 윗 방법론도 그렇지만 기본교양 조차 부실한 학생들이 많음. 어디선가 읽은 게 16 수능 A형은 특정 지식에 치중해있어서 불공정한 출제다... 옛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임. 그 정도는 우등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익힌 교양수준이었다고 얘기했을 것임.

딴 이야기하면 과목 중요도는 영어 & 국어 ????????????????? 수학

업자들이야 화날 이야기겠지만 사실 지금 입시수학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 본인이 수학 관련 학과에 진학해서 그걸로 호구들 낚아 장사하고 싶다면 입시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공대조차도 수학은 별로

필요없음. 공업수학조차도 그냥 주어진 텍스트 암기도 벅찬 판인데 뭘. 고교수 학에서 배워야하는 건 근대적인 사상, 그리고 '문제풀이의 자세' 그 이상 그 이 하도 아님.

가장 중요한 건 영어. 왜냐면 영어텍스트는 항상 신선한 충격을 주기 때문. 영어(와 일본어)로 쓰여진 책만 읽고 살아도 미개해지는 건 막을 수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걸 남보다 앞서서 판단할 수 있음. 어차피 대학가면 다 영어 원서 본다는 거야 알고 있음. 공학 같은 경우도 교수 강의는 버려도 되지만 원서는 버리면 안 됨.

영어를 잘 하다보면 국어도 덩달아 잘함. 어차피 국어의 읽기 기술이라는 것도 영어에서 가져온 것 아닌가? 그보다도 국어를 열심히 하면 '사기' 당할 확률이 줄어듬. 위의 6가지 틀을 응용하면 상대가 말하는 걸 기술, 설명, 주장으로 분류해서 기술만 수용하고 설명은 반수용하고 주장은 씹으면 끝남. 그리고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역추적해서 화제, 소재로 분해하면 끝나는 일임. 의도파악이라는 건 이걸로 정리됨.

13.22 자아 집착

2015.12.09

무사가문 출신의 료마는 20대 초반까지 검술훈련을 받았다. 어느날 료마가 동향 무사인 하가키 세이지라는 옛 동료를 만났는데 그는 무사들이 보통 많이 갖고 다니는 장검을 차고 있었다. 료마는 그에게 실전에서는 단검이 다루기가 좋다고 하였다. 그렇겠다고 생각한 친구는 단검을 갖고 다녔다. 단검을 찬 그를 보자 이번에는 료마가 품 속에서 총을 꺼내며 총 앞에서 칼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 총이 미국회사 스미스&웨슨(Smith&Wessen)이 만든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친구도 바로 총을 샀다. 세번째 만나 친구의 총을 본 료마는 이제 부터는 세계를 알아야한다며 서양의 만국공법(국제법)책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실제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기쿠수이(菊水)에서 발매한 료마 소주가 있다. 칼 레벨 – Smith & Wseen 레벨 – 만국공법 레벨이라는 참 해괴하지만 의미심장한 라벨링이 되어있다.

일본이 운만 좋아서 조선을 집어삼킨 게 아니다. 료마가 사망한 연도가 1867년. 19세기 중반에 조선의 집권자들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유교 체제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지만 일본의 엘리트들은 이기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과감히 과거의 것을 쳐냈다.

승부에서 이기려면 과감히 바꿔야 한다. 시험에 장애가 되는 건 운도 출제 경향도 제도의 불합리도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 서 정말 나를 버리면서 과감히 베팅했나... 하며 그것도 아니란 이야기다. 칼을 좋아하며 냉병기만이 진정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총탄이 오가는 전쟁에 나가면 어찌되겠나. 사서삼경만 외운 선비가 오랑캐 학문을 배울 수 없으니 수능에서 수학, 영어를 빼달라고 하면 용납되겠는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자아는 바로 ’임종 직전에 야 완성될지도 모르는’ 미완성 그 자체다. 하지만 대화나 상담을 해보면 각자가 지금의 모습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느끼곤 한다. 다들 유치원 다닐 시절의 꿈을 지금에 품고 있나? 사달라고 했던 장난감이나 인형을 지금도 고집하나? 자기가 **바뀐다**는 것을 다들 인정하려는 경향이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은 분명 변화 한다. 자기가 **바뀌느냐**, 아니면 스스로 **바꾸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 승리를 생각하면 과거고 나발이고 과감히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그래도 과거에 많이 노력한 것들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망상인데 패러다임은 연속적인 게 아니라 불연속적인 것이다. 구시대적 체제가 발전해서 진화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모순이 누적되고 폭발하고 붕괴해야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것이다. 만약 경쟁자가 없다면 아무렴 상관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쟁자가 있으면 먼저 바꾼 사람이 이긴다.

10년 뒤에도 현재의 마음을 유지하고 싶은가.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10년 뒤에 우리는 절대 지금의 우리가 아니다. 미래에는 ~ 할 거야라가는 포부에 대해서 난 99%는 그냥 무시한다. 그 마음이 과연 10년, 아니 5년 뒤에도 유지될까? 그나마 스스로 바꾸면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안 좋은 방향, 퇴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안 좋게 바뀐 다음 얹어터진 다음에야 나도 한 때 잘 나갔는데 왜 이렇게 살까 하다가 세상 탓을 또 하겠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20대의 모습이란 거의 다 허상이다, 그건 30대도 40대도 마찬가지겠지. 죽기 직전이야말로 참자아. 그런데 이게 좋다는 보장은 없다.

각설하고 저 에피소드는 우리 한국인에게만 비극으로 다가왔다는 후일담. 실제로 일본의 엘리트들은 만국공법(=국제법)을 잘 활용해 조선을 참 평화롭게 먹어치웠기 때문이다.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 청, 러시아와 전쟁 별일 때 맷은 조약들로 무난히 먹어치우기 위한 준비를 다 해버렸다는 것.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없던 유생들이야 뒤늦게 국제법을 알아보면서 혹시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까 부질없는 희망을 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보통 을사조약을 을사오적 매국노 이토 히로부미 개객기로만 접근하지만 그냥 먹어치워도 되는 것을 왜 굳이 '외교권을 박탈'하는 속국화로 나갔을까 생각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본 애들은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조선이 자주국이라고 하여 수천년간 중국의 속국이었던 조선을 독립시킨다(...) 당시 일본의 속내를 모르는 조선의 엘리트야 일본이 진정한 은인 T.T 그랬지만 그럴 리가 있나. 일본은 당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눈치를 보면서 '합법적'으로 조선을 합병하기 위한 과정을 참 천천히 밟아왔던 것이다. 아무리 국력이 개차반이어도 어째서 허무하게 먹혔을까라는 걸 우리가 되물어보아야 하는 과정을 보면 참 일본은 치밀하게 수십년간 준비해서 그 보답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그런 치밀함이 군부의 폭주로 날라가면서 나중에 다 토헤내고 일시적으로나마 망했던 것.

여기 오는 수험생들은 두가지다. 부모가 참 공부를 잘 해서 자녀에게 그 교육모델을 세습시킬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 한 경우. 교육모델이 세습된 녀

석들은 순둥이에다가 뭔 이런 어리버리가 있나 해도 성적은 잘 나온다. 자기들만의 검증된 모형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건 이미 나이먹은 부모가 검증한 경우여서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 한 경우라면 정말 과감히 '나'를 버려야 한다. 자기 삶의 방식이 부정적인 결과이면 편집증적으로 개선하거나 아니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한다.

13.23 평가라는 건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2015.12.10

A가 잘 나갈 때 A를 칭찬하는 병신보단 A가 망하더라도 A의 가능성은 읽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

잘 나갈 때에 칭찬해주는 건 사실 개나소나 할 수 있다. 왜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냥 적당히 아무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아무에 중독된 A가 어떻게 될지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반면 A가 해변에서 파도만 보면서 나도 한 때에는 잘 나갔는데~ 한탄하고 있을 때 앞으로 크게 되겠군... 지금이 기회다라고 격려해주는 건 그냥 빙말할 게 아니라 정말 '근거'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의 이면을 보고 미래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작업이야말로 논리적이어야 한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 똥발 시절의 강남을 빛내서라도 모두 매입했을 것이라거나 1990년대로 돌아가면 SK나 삼전 주식을 샀을 것이다라는 탄식은 흔하게 듣는다. 그러나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냥 지금 하면 되는 거지. 지금도 저평가된 것과 고평가된 것들이 널려있다. 그걸 정확히 꿰뚫어보는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자가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고작 머리 쓴다는 게 "그럼 자금 흐름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군. 부자들을 따라가면 되니까"라는 것이겠지만 이걸 역이용한 게 바로

작전세력들이 아닌가.

이건 수험도 마찬가지이다. 입시에 한번 실패하고 나면 자기를 '쓰레기'로 취급한다. 쓰레기로 취급당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막 나가게 된다. 반면 운이 좋아서 찍은 게 다 맞아 합격한 사람은 정말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이 역시 막 나가게 된다는 건 마찬가지이다.

올해 수능에서 실패했다고 치자. 그런데 우리가 1년살이 운명인가? 10년의 스케일을 감안해보자 B는 올해 수능에 승리해서 대학에 간다. 그런데 적성에 안 맞아서 학점이 안 나온다. 3년 뒤 또 수능쳤는데 이번에는 안 된다. C는 올해 수능에 실패했지만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공부해 내년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합격한다. 3년 뒤 대박나서 수억대 부자가 된다. 터무니없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올해 수능에서 실패했거나 아쉬운 전적을 거두었다면 이걸 철저히 분석해서 그 다음 승부는 어떻게 임할 것인가 싸우고 있어야지, 과거에 집착하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다. 게다가 주위의 평가는는 건 무시해도 좋다. 평가는 그 내용보다도 **평가자의 스펙을 더 보아야하는 문제다**. 한국사회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는는 걸 기대하는 건 미련한 짓이 아닌가. 평가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미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저평가된 것을 싸게 매입해 비싸게 팔고 있었을 테니까.

자기 교재만 보면 잘 된다고 하는 업자들이 현재 수능결과에 책임지고 있나? 반면 저 애는 도저히 수능 안 될 거예요하는 사람들은 그 당사자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급선회해서 찬양하는 건 콕콕에서도 있었다(...) 현명한 사람으면 올해 수능은 짹 지우고 내년 수능을 생각하며 지금 달리고 있어야 맞다.

13.24 머리좋은 사람들의 꼼수

2015.12.18

전문직 A의 경우는 원래부터 1000명씩 뽑아대던 텃에 사실 위기가 오고 있었다. (다른 전문직 B와는 다르다. 전문직 B야 분과별로 나눠지거나 워낙 로딩이 길기 때문에 선후배 시장경쟁이 심하지 않다)

그 와중에 대학교들은 시멘트 비용 선투자를 해서 전문교육기관(?)을 신설했다. 그리고 정부관료와 의원들은 A를 전문교육기관으로 뽑는 걸로 사실상 밀어붙여버렸다.

사실 이건 매우 큰 사건이다. 저 교육기관 통과 이후로 ”돈있고 집안좋은 애가 다 해먹는 건 당연하다”라는식의 사회적 인식이 퍼지기 시작. 적어도 그 전까지는 가난하든 안 하든 ’공부만 잘 하면’ 존중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었는데 저런 법안이 통과되어버리고나자 공부 잘 하면 뭐하나 집안이 좋고 돈이 많아야지라는 대중적 인식이 확산되어버렸다.

그리고 8년 정도가 흘렀다. 원래 그전부터 우려가 많았지만 교육의 질이나 평가에 대해서도 참 듣는 이야기가 많다. 무엇보다 그 전문직 A는 매우 위기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예정된 코스로 진행되기 시작한다.

- 이 사회의 거룩한 분들이 **자녀들의 직업세습**에 성공하셨다. 7년은 매우 충분한 기간이었다.
- 인원수 과다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시 성골과 진골을 나누면 된다
- 성골과 진골을 나누면 평범한 A들은 성공할 수 없다. 어려운 시험에 통과하거나 SKY를 나오거나 부모 쉴드가 강해야 한다.

물론 위와 같은 걸로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머리좋고 높으신 분들의 잇속 쟁기기라는 건 정말 ’법망의 틈새’ 내지 ’반사적 이익’이라는 형태로 실현된다라는 씹쓸한 것만 재확인. 내가 10대 시절에도 돈많은 사람들을 위

한 '기부금 입학제' 같은 게 나오다가도 철퇴맞기도 했다. 그게 불완전하게나마 관철된 형태가 저것이다.

자세히 적긴 그렇지만 지금 10, 20대들은 그걸 알까. 정작 자기들의 기회를 앗아간 게 바로 자기들보고 사회를 바꾸라고 하던 그 사람이라던 걸. 언론에 간혹 B나 C같은 사람들이 젊은이들보고 사회를 바꾸라고 한다. 그런데 그 B나 C가 직접 나서서 사회를 바꾸긴 하셨나, 아니 자제분들은 어렵니까라고 물어보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한다라는 건데 웃기는 이야기다. 그 메신저가 실천하지도 못 하는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겠나.

왜 그 거룩하신 분들께서 한국은 공부에 찌들었다, 입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능력이 아닌 인성을 보아야 한다라고 외치셨는지는 그런 분들의 '자제' 분들이 어떤 식으로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갖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자기들이 불리할 때만 서민과 대중"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다.

요즘 들어 더 재밌는 건 금수저들이 흙수저 흉내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저 A와 관련된 교육기관 학생들이 일부러 흙수저 흉내내면서 금수저 아니예요라고 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되겠지만 그나마 아직까지는 '부모 잘 두었네'라는 소리는 비아냥으로 들릴 수 있는 세상이라 그런 점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법이라는 건 국회 소관이고, 의원들은 여론에 신경쓰기 때문에 그 여론을 속이려면 '서민'인 척 해야한다. 더 웃긴 건 그 서민인 척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듣고 자기가 기득권과 싸운다라고 착각하는 부류가 아닐까 싶지만.

13.25 미래예측

2015.12.26

논리 ≠ 현상

why?

우리가 아는 질서 = 환상 세상 = 환상 진짜 세상 = 우리의 오감이 불완전한 이상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 수학자들의 기막힌 수리모형과 컴퓨터만 구비되면 영원히 부를 창출할 수 있다... 라는 환상이 무너진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습니다.

링크

시간이 나시면 윗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우상화한 '이공계 천재'들이 실제로 어떤 사건을 쳤는가 잘 나온 책이죠.

1. 미래예측이라는 건 믿을만하나.

역사는 타임머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명이 알건 10,000명이 알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A라는 직업이 잘 나갈 거라는 고급정보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고급정보가 99%로 맞다고 합시다. 무엇보다 그 A라는 정보를 다 해독할 수 있다 치면 그 이 예측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다수가 A라는 직업으로 몰려서 경쟁이 치열해지겠고, A라는 직업분야의 과잉공급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 이후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접하는 예측이라는 것은 거의 다 대중적으로 공개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만 믿고 움직이는 건 위 메커니즘 때문에 이득을 주지 못합니다. 대중들이 읽지 못 하는 파격적인 가설을 읽어낸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당사자의 독해력에 달린 것이라.

2.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사람도 훨씬 좋은 컴퓨터를 이용한다.

앞으로 세상은 더 진보될 것이고 그래서 이공계 지식이 필요하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좀 겨우뚱합니다. 예컨대 C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16비트 시절 컴퓨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성능이 좋은 맷폰을 잘만 쓰고 있죠. 만약 16비트 시절 흑백모니터 당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던 사람이 단순히 기계의 진화만 보자면 2010년대에는 프로그래밍을 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다.... 라고 엉터리 예측하겠지요. 그런데 현재 미래 예측에 대한 신문기사가 거의 이 수준입니다. 만약 맷폰으로 이성을 유혹하거나 하는 등 SNS질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히려 국어실력이죠.

그 점에서 보자면 미래예측은 참 쉽습니다. ”어라, 컴퓨터가 발전하네. 컴퓨터가 다 대체하겠네?” 이거 하나로 결론을 정해놓고 부합하는 근거만 모아놓으면 되니까요. 어차피 미래예측은 맞지 않아도 누가 와서 돈 내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충 써도 되는 것입니다만 이와 별개로 그런 예측글을 쓰는 사람들의 교양이라는 게 짐작이 가죠.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하나.... 차라리 그 시간에 서양철학을 공부하고 체화시켜서 올바르게 사고하는 것을 익히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기술로서의 프로그래밍은 사실 별 도움도 되지도 않고, 오히려 기계론적인 것만을 심화시켜 편협한 관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미래를 읽고 싶으면 역사 공부를 해야 한다.

한 15년 넘게 보면서 ’검증’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확인해보는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저자들이 누군지 가르쳐줄 필요는 없다 봅니다만 비결은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사”와 ”심리”에 강하다는 것. 저기 어디도 수학 등 이공계 과목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이 사는 문명세계이고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이 문명세계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역사 = 절수 따기 옛같은 암기과목**이라는 잘못된 인식이죠. 동서양 고종세의 ’상품, 교역’ 역사 같은 것을 읽다보면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텐데 말입니다.

정말 공부가 안 된다 그런데 시간은 헛되이 보내기 싫다라는 분께 권하는 건 첫째는 외국어를 공부하라는 것. 그런데 첫째도 싫다면 도서관에 가서 그냥 재밌게 쓰여진 역사책들을 수십권씩 읽어보라는 겁니다. 다들 꿈이 커서 내 재능을 발휘... 는 헛소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다니면서 간지나게 살아보고 싶다 그러는 건데 실천을 제외하고 비결만 보자면 그건 역사책에 나와있지 수학이나 과학에 나온 것 입 아닙니다.

4. 미래예측의 정확성 담보 : 추상성

구체적 현상을 반드시 부정할 수 없는 '추상화된 개념'으로 환원해보면서 그것이 왜 다른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가 이게 논증이 되지 않으면 미래 예측이 아니라 공상과학 수준도 못 미치는 학설이 된다고 하겠죠. 예컨대 유력한 예측 중(뭐 이건 출처는 묻지 마시길. 그냥 저도 검증해보고 싶어하는 것이라서) 하나는 다시 종교의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이런 논증이더군요.

- 첫째, 미국, 유럽, 동아시아는 공동체가 모래알처럼 쪼개지는 개인주의로 갔거나 가고 있다. 이런 모더니즘이 극에 달하면 개인의 자아 까지 해체위기를 겪으며 이건 상품이나 이미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 빈 공극을 채워주는 건 바로 신앙의 문제고 또한 다시금 공동체를 복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 둘째, 출산율이 높은 집단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이다. 종교를 믿지 않는 개인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에서 비율이 줄어든다. 반면 근본주의적인 종교를 믿는 공동체들의 출산율은 높다. 그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어간다

그렇다면 종교 이전에 카운셀러가 – 이게 수익을 창출할지는 몰라도 – 주류가 되어간다는 판단인데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카운셀링을 10대

들은 사교육, 그리고 그 이상은 역술가, 무당, 목사, 승려들이 담당하고 있죠.

이미 검증되었다고 하는 예측은 이른바 ”호연사회” – 즉 개인들은 자기들의 취향에 따라 뭉치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간다는데 콕콕사이트도 그렇겠지만 요즘은 아프리카 잘 나가는 BJ 들이면 (뭐 잘 나가야겠습니다만) 남 부럽지 않다고도 하죠. 과거 법인사회에서 이제 초개인사회로 가고 있다.... 가 되겠고 그 때문에 각자의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개개인이 각자 방송하는 시대라면 그만큼 더 많이 배우고 훈련해야하는 것.

13.26 공포게임에 등장한 참고서들

2015.12.28

수학의 정석 색깔보니 개정 과정인데. 깨알 같은 현장재현(...) 거기다가 피문은 정석도 등장.

챗과 결합된 인터넷 방송이야말로 수십명 앉혀놓고 히틀러식 연설하는 강의보다 훨씬 더 집중하기 좋고 상호 피드백이 가능한 진화된 체제라는 것이죠. 기존 인강이 영화라면 아프리카 방송은 '연극'이 아닐까 싶은데.

저라면 기존 과외 + 학원 강의 장점만 살릴 수 있다는 것.

갑자기 과거가 생각납니다만. 고등학교 시절에 언어영역 문제집을 풀 시절. 참고서 저자들이 바로 학교 선생님들이라 무려 저자직강이기도 했는데 당시 등장했던 지문이 ”흥을 돋구면서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마당놀이에서 영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국어선생님이 그랬죠. 뭐 썰이야 그럴싸한데 어떻게 스크린으로 관객과 영화가 상호작용할 수 있냐.

라는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만 그 피드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세상이 왔죠. 그 당시 와우를 어찌 알았을 것이며 1인 방송이 쉬워졌다는 것을 감히 예측?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건 안 바뀌었습니다만.

- ex) 저런 방송을 잘 하려면 어찌되었든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야하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

13.27 부모 자격

2015.12.29

가정이 '사랑'으로 유지된다라는 말만큼 허황된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남녀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많은 커플이나 부부가 '속물적' 이유로 헤어지거나 추태를 보이진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 진짜 인격자들이라고 느껴지는 케이스가 없지는 않은데 "윤리적, 종교적 의존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능력이 좋으면 한 배우자에게만 성실함을 다하긴 힘들 것입니다. 물적 조건이라는 건 바뀔 수 밖에 없고 상대의 성적 매력도 곧 질리거나 노화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찾는 키크고 잘생긴 부자 남자들은 '바람을 피우기' 딱 좋고, 남자들이 찾는 예쁘고 어린 베이글녀들 역시 유혹하는 남자들이 많으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판이 대문호 양성소라고 하지만 전부다 주작은 아닐 것이고 저 역시 보고듣고 경험하는 것 보면 막장. 가령 건물주들이 웃는다는 변화가의 유흥 숙박은 '남녀의 바람'이 아니면 영위되기 어렵단 말조차 있죠.

그렇다면 사랑만으로(?) 맷어진 남녀가 자식을 낳더라도 잘 키울지는 의문이지요. 그 사랑은 허구에 가깝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거의 10억에 가깝게 들어가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그 반대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실체가 없기 때문에 O, X 를 가릴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힘**

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이런 문제로 적지않게 상담하면서 느낀 건 ”사랑만능론”을 주장하는 인간부터 잡아서 조리돌림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가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자기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라는 잘못된 풀이법을 전개하더군요. 해법은 간단할텐데 말입니다.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악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최소한의 도덕도 강제하기 힘든 곳입니다. **가족구성원에게는 온갖 육체적/정신적 폭행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집 밖에만 나가면 인격자가 되는 경우** 그리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야 간단하죠. 집 밖에 나가면 법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니 그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그런 일이 지켜질 수가 없지요.

제다가 더 심각한 차이는 그나마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우는 반면에 어른들은 교육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 교육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자기보다 많이 배우고 경험도 많으니 이 분들의 언행이 옳겠구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기 탓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격이 망가지다가 나중에는 폭발하는 것이지요.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건 금전적인 것만 의존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식은 부모인데 실제 인격으로 치면 부모 자격이 의심스러운 사람도 꽤 있습니다. 본인들이 냉정히 판단해서 ”낳아준 분들이지만 인격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지체없이 그냥 ”낳아주고 키워준 건 고맙고 그 빛은 갚겠습니다만 제 인생은 제가” 이렇게 나서야합니다.

물론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폭행당하거나 상처입은 건 인정 하지만 그걸 본인들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려는 경우도 간혹 없지는 않더군요. 부모가 뭘 어떻게 하든 자녀 양육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그건 본인들의

태만한 학업 핑계가 될 수 없는데 그리는 친구도 가끔.

아무튼 요새 제가 느끼는 건 그건데 그 놈의 사랑만능주의가 생각보다 문제 가 많다는 것. 시간이 갈수록 부모자격이 없는, 그리고 그걸 상실해나가는 어른 들도 많아지고 있단 것입니다.

13.28 저녁이 있는 삶이 불가능한 이유

2016.01.08

'이게 다 기득권층 때문이다' 는 그냥 일본을 공격한다 식의 도피.

실제로는 저녁없는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 "모두에게 살기 좋아졌기 때문" 이라는 역설.

- 교육수준이 높아졌다, 모두가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
- 실제로는 계층간 이동이 활발하다
- 전지구적 경쟁이 벌어지면서 경쟁 싸이클이 0918에서 2400으로 바뀌어버 렸다(해가 지지 않는 경쟁)

우리가 자고 있을 동안에도 부지런히 사업계획을 짜면서 어떤 상품이나 서 비스를 어떤 고객에게 팔까, 그리고 경쟁자 누구를 몰락시켜버릴까 고민하는 사 람들이 전세계에 널려있다. 전세계를 향해 뛰는 대기업일수록 그래서 저녁 따위 는 있을 수 없다. 저녁을 즐기면 그대로 추격당하기 때문이다. 그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관(官)은 경쟁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 고위직일수록 인간다 운 삶은 없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건 결국 모두가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단 이 야기이다. 즉, 살기 짜증나는 건 역설적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

기 때문이다. 나 혼자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은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면 '저녁있는 삶'은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이 촌놈들을 멸종시켜버렸다.

흙수저 금수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야말로 인터넷에 떠도는 밑을 무분별하게 복제한 것이 아닌가. 역사상 지금처럼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 세상은 없다. 안 그럴 것 같지만 냉정히 비교해보아도 그렇다. 소위 금수저에 해당하는 사람들조차도 "전 금수저 아니예요", "민중 만세,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라고 빙민 가면을 쓴다. 가진 사람들일수록 인기를 모으기 위해 일부러 없는 첫, 못 버는 척, 힘든 척 한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버리는 순간, 그리고 있는 척 해대면 오래 못 갈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진 자들이 신경쓰는 건 교육이다. 그건 후계자 교육도 그렇지만 이제는 본인 교육도 무시할 수가 없다. 교육받지 못 하면 야생에서 생존할 수라도 있었던 석기시대 사람만도 못 하기 때문이다. 20세기라면 10년 교육을 받아 30년을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10년 교육을 받아도 10년을 따라잡을 수 없다. 모두가 자유롭다, 모두가 경쟁상대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진보한다 - 그러니 자기교육을 하지 못 하면 도태당해버린다. 다들 먹고살기힘드니 뭐니해도 계속 승부에서 이기거나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있다. 그 사람들은 학벌이 보잘 것 없을지 몰라도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 교육 및 훈련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런 데 저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13.29 외모지상주의.

2016.01.10

아주 보기 흉하다면야 어쩔 수 없다쳐도 그냥 평범한데도 잘 생겨지고 싶다 예뻐지고 싶다고 하는 병자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그냥 컴플렉스 덩어리들입니다

다. 생긴 대로 걱정없이 근심없이 씨뿌리는대로 먹고살면 되지 저 존못이니라는 개드립치면서 괜히 ”나 잘 땡겼지? 나 에프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 극혐. 얼마나 결핍감을 느끼면 지 얼굴 가지고 저러고 있나 그러는 것이죠.

물론 잘 생긴 남자나 예쁜 여자는 보기는 좋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피상적인 관계일 때만입니다. 참매력이라는 건 얼굴 이전에 그 사람의 ”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럼 그 뇌는? 많은 경험과 독서와 공부를 해야죠. 어느 자리 건 가서 화제를 유도하는 이슈메이커 아니면 분위기 잘 살리고 노는 회식부장 스타일이 낫죠.

일단 이건 진짜 나이 처먹으면서 느끼는 거라서 적겠음. 남자의 경우는 기생 오래비과는 잘 해보았자 소용없습니다. 눈빛이 맛탱이 간 경우가 많거니와 어차피 노화 못 이김. 남자는 그냥 눈빛 하나로 90%인데 (뭔 나루토 찍냐하면 할 말 없지만) 이건 진짜 그 사람의 경험치, 공부치에 비례하고 있음. 남창할 것도 아닌데 꿀피부 자랑하고 무슨 지가 옷가게 마네킹도 아니면서 고급 옷 걸쳐보았자 눈빛이 마약한 듯 맛탱이가면 답 없음. 여자들은 아무리 외모 그래도 슬프지만 연령빨이 가장 강해요. 마찬가지로 노화 못 이깁니다요. 얼마나 곱게 늙느냐 – 평소에 많이 웃고 다니고 좋은 생각하고 다니면서 청정하게 살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길거리에서 보는 흔한 아지매들이 10년 전에 소라넷급(...) 모델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당.

외모만으로 서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면 그냥 관계 끊는 게 좋습니다. 얼굴 잘 생기고 옷 잘 입는다... 하는 인간들이 나이먹으면 가는 게 양 콜라텍, 등산 그런 것이고(뭘 말하는지 알 것임)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예술을 감상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지 그걸 보아야합니다. 저 중 하나라도 안 되어있으면 그냥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모에 치중하는데 도덕관윤리관도 없고 머리에 듣 게 없으며 학습할 의욕이 없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먹고자는 것이나 좋아하고 나중에는 남녀관계로 마제정이나 고려시대 말기를 연출하죠.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과연 배우자에 충실할까,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보았습니다. ’난 안 그러는데요’ 해도

그래서 전 안 믿음. 트리밍 잘 되어있어도 향수를 뿐이고 화장을 해도 돼지는 그냥 돼지인 겁니다.

13.30 머리가 좋다는 것의 정리

2016.01.25

대체적으로 여러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단언코 말하면 이건 훈련으로 어느 정도 보정이 가능한 것들.

1. 인내심이 강하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즉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마법이 먹히지 않는 골렘과 똑같은 내성이라 보면 되겠는데 혹자는 차분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인내심이 매우 강한 것이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냉정한 판단과 확실한 실천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은 사소한 데 안 흔들리는 걸 넘어, 중요한 것에도 안 흔들린다. 그래서 ”독하다”라고 할 수 있다.

2. 끈기가 있다.

인내심이 자알 버티는 것으면 끈기는 **오랫동안** 버티는 것이다. 이것 역시 중요하다. 끈기가 있어 오래 버틸 수 있다면 공부를 오래할 수 있고 그래서 가시적 성과도 맛본다. 12시간 공부해야 진전이 있는데 A는 끈기가 없어 8시간만 하고, B는 끈기가 많아 16시간을 한다면? A는 아무 것도 얻지 못 하지만, B는 뭘 하든 성과를 보기 때문에 슬럼프가 덜하다.

3. 약속을 잘 지킨다

계획은 누구라도 거창하게 잘 세운다. 그러나 계획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 1000명 중 1명이다. 계획을 안 지키는 사람이 공부했다라고 자부할 자격이 없다, 물론 현실은 노오력했다는 사람들 보면 계획을 지킨 경우 별로 없음.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자신과의 약속”이다. 왜냐면 얼마든지 파기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긴 대가를 심하게 치러야 할 것 역시 자기와의 약속이다. 계획이란 말을 쓰기보다는 자기와의 약속이란 말을 쓰는 게 더 적절

4. 언어능력이 풍부하다.

수학조차도 언어능력이 풍부한 사람이 잘 한다. 첫째는 이해능력, 둘째는 표현능력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구체적인 것을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 언어능력을 좌우하는 건 바로 ’대화 경험’과 ’독서’이다. 언어능력이 없으면 국어와 영어에서 바로 타격을 입는다. 아래에 논하는 이미지 능력과 차이는 바로 가치 판단이다. 언어능력이 좋아야 가치판단을 정확히 내릴 수 있다. 조기교육 하에 이미지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많다(인터넷 덕분이기도 하지만), 하지만 실제로 언어능력이 좋은 경우는 드물다.

5. 이미지 능력이 좋다.

추상적인 이야기를 던지면 그걸 구체화된 이미지로 상상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다. 두뇌회전이 빠르다는 게 별 게 아니라, 감각 이미지와 행동 이미지가 잘 형성된 경우다. 특정한 상황에 필요한 이미지를 즉시, 선명하게 떠올릴 수록 신속, 정확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다. 여기서부터 머리뿔을 타고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장애가 아닌 한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다.

중요도는 1_i2_i3_i4_i5

13.31 인간의 탐욕

2016.01.26

여전히 철지난 진보 vs 보수 이야기가 있던데 뭐 이건 정치 글을 쓰기보단 그냥 시행착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만. 대략 과거대선을 보면 1997년과 2002년은 극적이긴 해도 모두 현재 야당 쪽이 뽑혔는데 그 때도 사실 그럴만한 이유는 있었어요.

첫째, 당시 여당의 장기집권에 질렸다 둘째, 사회정의를 바로 잡고 싶은 열망이 강했다.

그런데 재미난 게 그 지지계층들이 2007년에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극적인 게 그거죠.

”부동산 폭등“

당시 대통령님께서는 집을 사지마라,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정말로 사람들은 그걸 믿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행정계획도시라고 해서 세종시를 개발하자 시중에 물경 200조나 되는 돈이 토지보상금으로 풀립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서울의 강남부동산으로 몰려버리면서 ’투기열풍‘이 조장되죠. 투기열풍이 조장되면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건설사들에 자금이 돌면서 일시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미필적 고의‘인가 하는 건 해석에 맡겨둘 문제입니다만(사실 고의 같은데) 이렇게 레드x나 핫식x를 과잉복용한 대가는 언젠가 치르게 될 거라는 예측이 있었죠. 그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만.

아무튼 당시에 집 판 사람들은 수억을 손해보고 반면 대통령 말을 믿지 않고 강남의 돼지엄마들처럼 빗내서 집산 사람들은 수억을 벌었죠. 그리고 집집마다 가정불화가 많아집니다. 수백만원 가지고도 싸우는데 수억이면 칼부림 안 나는 게 다행이죠. 종부세 그런 것 하나도 안 먹혔죠. 거대한 자금이 풀렸는데 그게

뭔 소용이겠음 그런 걸 눈치까는 사람이 집 한채만 구입할 리가 없죠. 그렇게 당시에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거기다가 펀드열풍도 장난이 아니었으니.

그런 빈부격차의 카오스를 겪고난 사람들이니 정의고 뭐고 다 모르겠다, 아니 정의에 대한 회의론이 감도는 것이죠. 그 다음 선거 결과는 아실 것입니다. 아마 이건 앞으로도 10년 넘게 쭈욱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동산 게임 앞에서는 기존의 역사라느니 철학이라느니 정의라느니 다 무색해졌습니다. 궁정적으로만 보자면 한국이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로 발돋움했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인데 역사적으로는 지혜가 쌓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상의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정치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느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럼 부동산을 바로 잡으면 되지 않느냐....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적지않은 중산층과 서민의 자산이 그 부동산에 연동되어버렸기 때문이고 만약 세금을 많이 거둔다고 하더라도 그건 바로 조세전가가 이뤄질 것입니다. 세금을 거둔다고 하면 어차피 임대료를 높여버리겠죠. 이런 문제의 해법은 늘 그렇지만 '공급' 확대 -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중요한 관공서를 지방으로 보내거나 하는 것인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고, 게다가 그런 시도가 있으면 항상 투기가 엮이게 되어버립니다. 지방혁신도시의 사례처럼 실패한 경우도 적지 않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시의 대학교육 - 고급교육이 저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게 되어있느냐였는데 그게 아니었죠. 욕을 먹는 저자 분이 바로 공병호, 그리고 역시 비판을 많이 받은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같은 책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나마 적중을 시킨 게 저런 '탐욕스러워보이는' 저자들의 책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학수험에 몰두하는 학생들은 다 돈이 안 되니까 의치한으로 몰린다 그건데 만약 의치한조차도 겨우 본전을 챙기는 수준일 것이다... 로 되어버리면 그럼 그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어...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일수록 그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가정해봐야 합니다.

이 점에서 사실 한국인들은 트랩에 종속된 것인데 하나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끓여있어서 열심히 부동산에 착취당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이 대학에만 국한되어 있지, 어떻게 먹고살고투자하는 가에 대해선 거의 까막눈이나 다를 바 없단 것입니다.

13.32 화낼 줄 아는 법

2016.01.28

우리나라 교육 중 잘못된 것 :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것이다.

참는다는 건 본인의 의사, 의지에 따라서 주어진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는 것이다. 이것은 부조리한 것에 무조건 침묵하는 것과 다른 것인데.

어른들은 어린 사람들에게 참으라는 건 후자의 의미에 가깝다는게 불편한 진실.

사람은 웃을 줄도 알아야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화를 잘 낼 줄도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화를 낼 때 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화를 내지 않으면 폭력이나 자해, 그보다 더 끔찍한 극단적 행동에 호소해버리고야 만다.

그런데 우리나라 꼰대들은(... 그리고보니 나도 꼰대인가 ...) 어이어이 좋게 해결해, 다 참으면 그만이야(물론 본인이 그런 경우는 참지 못 한다) 화내지마, 웃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한다.

우리나라만큼 인내를 강요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로써 모두가 인격자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싫은 것은 싫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인데 이런 건 왜 안 가르칠까. 무조건 ”네”, ”Yes”라고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제 권리를 못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3~4월에 대학가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이상한 걸 강매하거나 괴상한 동아리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린 애들일수록 ”아니오”라는 걸 못

하는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한 결과다.

화를 내는 것은 고함지르는 것과 다르다. 무작정 고함을 지르고 샤우팅을 하는 것은 그냥 히스테리를 부리고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다. 고수들은 상대가 히스테리를 부리도록 냅둔다. 히스테리를 부린 사람은 그게 부끄러워서 저자세가 되어 불리한 조건도 감수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화를 내는 사람은 폭발하지 않는다.

첫째,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방을 쳐다본다. 둘째, 하고싶은 말, 해야하는 말을 아주 정확하고 또렷하게, 그리고 분명히 전달한다. 셋째, 자기가 화를 낼 수 밖에 없는 윤리적이거나 상식적인 이유를 말하며 상대방의 부조리함을 고발한다.

자신이 진정 분노했다는 것, 그리고 이를 바로 잡을 수 밖에 없다는 의사, 즉 뜨거운 마음을 상대에게 전도시키는 작업이다.

타겟에 정확히 미사일을 쏘는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폭발해버리는 걸 화를 내는 것이라 착각한다. 제대로 화를 내는 건다고 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끄러워'는 한다. 즉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다.

만약 수치심을 느끼지 못 한다면 그 때에는 화를 내야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상대는 이미 정상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럴 때에는 정말 싸우거나 아니면 멀리해버리는 단계로 가야한다.

13.33 공부보다 인간성이 중요하다?

2016.02.07

이건 논란이 있다. 일단 공부보다 인간성이 중요한 건 맞다. 공부는 노력해

도 되지만 인간성은 노력에 비례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인간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아냐**는 것이다.

실제로 안 좋은지를 아려면 겪어보아야하는데, 겪어본다는 것은 상대가 악인이면 우리가 이미 손해를 본다는 얘기다. 게다가 **악인일수록 미소짓고 착한 척 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영업용 미소라거나 장롱 윤리라면 애교지, 실제로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놈이 더 무서운 녀석인 경우가 많다.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갑자기 옛날이 기억나서. 어린 시절에 한 어르신이 그랬다. ”공부가 뭐가 중요해? 인간이 되어야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보니까 그 어른은 인간보다는 개과에 가까우신 분이었고 그나마 **배신하지 않고 남은 게 공부였다**.

그렇다고 해도 인간성이 안 중요하나. 그건 아니다.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과 엎히면 본인 인생도 망한다. 그런데 그 인간성을 알기 위해서는 역시 사람 공부를 해야한다고 정리되는 것 보면 결론은 정말 간단한 것이다.

인간성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당연히 최악은 인간성이 나쁘고 공부도 안 하는 경우겠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공부” 하는 걸 믿는 게 나을 것이다. 그나마 공부한다는 건 그 사람도 ’노력을 중시하는’ 률을 준수한다는 이야기고 사실 노력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 인간성의 전제 이기 때문이다.

13.34 하류교육

2016.02.08

애시당초 의전원이나 로스쿨이 독과점 구조 깨고 자유로운 교육 하겠다 다양한 성을 충족시키겠다... 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결과야 보시다시피. 제도 하나 바꾼다고 공부의 본질이 달라지겠냐만, 그리고 공부의 본질은 ”주입식”이 아닌

가. 특히나 카리스마 강사들이 잘 먹히는 것도 그런 이유, 사고는 정지시키질 몰라도 주입은 정말 잘 시켜주기 때문이다.

내 경우도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이 없는 게 아니라서 '자유로운 토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교육은 아닌 것 같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부모들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게 아니다, 나름 성과를 보고싶어한다. 거기다가 학생들조차도 참교육 그런 건 사실 별 관심이 없다, 오로지 **성적이 오르거나 수능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실 이거야말로 절박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사람들도 간사하긴 마찬가지다. 곁으로는 과정이 중요하다거나 취지가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이든 물질적 보상이 따라오길 바라며 결과가 좋길 바란다는 점에서는 속물과 큰 차이는 없다. 자기 전공이나 소신을 보통은 20대 초까지는 강조한다. 물론 20 후반이 되면 왜 진작 주입식 공부해서 의대에 안 갔을까, 혹은 공무원 시험을 치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다고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그런 조언을 안 해주었느냐면 사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취업난이다 백수 천지다라고 해도 할 놈은 한다. 다만 그 준비는 10여년에 걸친 장구하고 무서운 과정이다. 자기 주관을 강조하면서 자유분방하게 간 사람들이 사실 목적을 이루는 경우는 별로 없고(역시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다) 주관이라는 것은 없지만 극성 부모가 시키는대로 하면 나중 일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평타는 치는 결과까지 나오는 경우는 많다. 부모가 강하게 막아준 것에 고맙다라고 말하면 훈훈한 해피엔딩은 되지 않을까 싶지만.

다들 부의 세습만 경계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격차를 넣는 건 바로 지(知)의 세습입니다. 부의 세습은 계량화할 수 있고 세금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당히 가혹한 편이다(물론 탈세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지의 세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실 이걸 막아야하는지도 의문이다. 오늘자 금수저 기사에서 영어유치원 월 200만원이 지적되던데 사실 월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을 파시즘적으로 교육시키려

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다. 부의 세습만 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복지를 하면서 밥먹이자고만 하면 그건 바보들이다. 저 사람들은 물론 많은 걸 사회에 환원하겠지만, 이 경우 환원되는 건 어차피 '뻥튀기된 재산'이니만큼 그리 타격이 크지 않다. 그보다도 그들은 자녀들에게 유품가는 교육을 시켜서 실력과 지위를 보장해주려고 하지 않는가.

반면 하류층의 교육은 민주주의를 따라간 결과 – 무슨 선행이냐 책이냐, 마음껏 뛰어놀아라 – 일본에서 비판받는 여유교육을 완전히 따라갔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하향평준화되어버린 것만큼은 사실이다. 다소 논외적인 사실이나 서율의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라면서도 체형, 얼굴에서도 인종분화(...)가 이뤄지고 있다. 영어 절대평가를 한 이유야 여러가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건 그렇다. 현재 수험생들의 영어 격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출제하기가 참 어렵다. 그나마 EBS 연계로 어떻게든 강제로 평준화시키긴 했지만 이것도 극에 달해버린 것이다. 정말 궁금해지는 데 10년 전에 영어광신이라고 하면서 비난하던 지식인들은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시켰을까, 그렇게 비판받던 그 영어 광신도(?)들이 결국 그 부모들 뜻대로 잘 나가는데 말이다.

금수저 흙수저 논쟁도 사실 대중들의 자업자득(?)이 아닌가. 이게 갑자기 이뤄진 결과가 아니다. 적어도 2000년대 초에는 이 정도까지 격차가 지적되지는 않았다. 다만 2000년대 중반부터 교육의 하향평준화라는 게 얘기되었고 하필 이걸 예리하게 지적한 데가 바로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에서 격찬한 책이 바로 미우라 아츠시란 사람의 '하류사회'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418162

지금 보면 뭘 이런 당연한(...) 내용이냐고 할 건데 당시에는 설마 저럴리가 하면서 판타지로 치부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 책과 비슷하게 되어버린 것이다(목차만 훑어보아도 다들 반론 못 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조선일보는 일단 집중해서 볼 수 밖에 없다. 중요한 떡밥을 정말 잘 짚어내기 때문이다)

그럼 2006년? 직장인 - 재테크 - 부동산 주식 펀드 열풍 학생들 - 열심히 해서 학벌 세탁하기, 의치한 갈아타기. 당시에 뭐하러 토익을 보냐, 나라를 바꿔야한다(...)라고 했지만 결과야 보시다시피. 천박하다 소리 들어도 열심히 재테크하거나 학벌세탁이나 의치한 갈아타기에 성공한 사람은 그나마 마지막 열차를 탄 것이다.

사실 헬조선 어찌구하는 것도 거부감이 드는 게 그걸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러한 상태로 바뀌게 되었는지 인과관계를 짚어야하는데 역시 그런 건 없다.

+

더불어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128396

이 책도 당시 참 관심있게 읽고 정말 그렇게 되나 보았는데 다는 맞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다. 지금이야 수저론으로 상식이 되었지만, 역시 2000년대 초중반에는 부모 설드라는 게 먹히리라고 보지 않았기도 해서리.

교육측면에서는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276285

이건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로 맞다. 더군다나 상담하면서도 느낀다. 특히 지금 수험생들은 당시로 치면 거의 초딩들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도 인과관계는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다.

++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저런 걸 지적하는 책을 쓴 것은 본 적이 없다 (... 당시도 예송논쟁이었지 아마 ...) 일본인들이 쓰는 미래예측이라거나 적어도

거기에 버금가는 건 일단 믿고가는 게 좋다.

+++

뭔 얼치기 사회과학도 아니고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3/05/0301000000AKR20130305217500002.HTML>

통계자료 댈 필요조차 없는 문제일텐데.

첫째, 널려있으니까. 양극화는 지금 다들 동감, 동의하는 사안이군요. 둘째,
그건 그냥 2000년대 당시 바로 피부에 와닿았고 지금도 지속되는 문제인데 참.

그 시대 양극화 진행을 겪고 목격한 사람에게 '뇌피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회과학이나보군요. 이 경우라면 정상적인 태도는 ”교육비 지출이 부의
양극화를 낳지 않는다”라는 통계자료를 먼저 본인이 제시하면 되는데 그게 있
으려나요?

+++

아니 무엇보다 이것도 참 어이없는 정책이었죠.

참여정부 수능/내신 등급제 링크

이해찬 세대 링크

다수 대중들이 저기 휩쓸리는 동안 상류층들은

링크 교육비 격차 자료 보시면 끝나네요.

당사자가 겪지 않았다면 스스로 검색해보고 통계자료만 보아도 뇌피셜 이야

기 못 할 것이고 이거 검색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이 정도면 그냥 '뇌피셜'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진의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아니, 무엇보다 사회과학 강조하는 사람은 글을 읽고 "뇌피셜"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리는 없을텐데 말입니다.

13.35 대중의 선택이 현명한가

2016.02.08

사실 이건 너무 간단히 논증되는데 – 간략히만 보아도 주식투자만 해보아도 체감할 수 있지만 –

대중들의 선택이 어리석은 게 아니면 똑똑한 소수가 절대 군림할 수가 없다.

대중의 선택이 우매하다라거나 자업자득(?)이라는 데 발끈했다는데 그건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지적하는 건데 뭘 어찌란 건가.

물론 다수의 선택이 옳은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이 경우는 **"다수의 선택으로 위협이 분산"** 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식료품이나 전자제품, 그리고 살아가는 몇가지 상식에 있어선 소위 다수의 말이 맞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검증된 것에 한한다. 실제로 다수가 한다고 해도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 중 검증되지 않은 건 나중에야 해악이 드러나 경악하는 경우가 많다. (ex. 폐섬유화를 촉진하는 걸로 알려진 가습기. 로마시대의 납 등)

실제로 대중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더욱 많이 하며 그로써 생기는 차익을 똑똑한 소수가 누린다. 대중들에게 물건과 서비스를 파는 기업이건, 돈놀이를 하는 금융사나 보험사건 어떻게 대중들을 갖고놀까 그걸로 매일 머리를 쓰고 있고 국회에 통과되는 법률과 명령, 규칙 등은 그것의 진정한 의도나 side effect가 알려져 있지 않다. 사실 대중들은 그런 것을 알지도 못 한다.

혹자는 이것조차 대중 탓이 아니라 지배계급 덕분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것도 무의미한 이야기다. 대중이 똑똑하고 현명하면 지배계급에 착취당하는 일 이 벌어질까? 가령 노동문제만 하더라도 원샷보다 사실 더 해악인 것은 바로 불체자들을 마구 수용하고 지문날인을 받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걸 막을 수 있었던 당시에 그걸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지는 심히 의문이다. 나중에야 이게 국가탓이야라고 할 때에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가령 지금 무상보육(누리과정)이나 급식 같은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 복지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다들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다. 그것도 국가를 거치기 때문에 100원을 내면 80원만 서비스받는 격이다. 그에 비하면 사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인 '지'(知)의 격차에 대해선 아무도 신경쓰지도 관심쓰지도 않는다. 사실 교육격차는 국내문제만 아니라 한중일 전체로 보면 심각한 것인데, 결국 노동경쟁력이 교육수준에 좌우되는 것. 그리고 저 인구 수 많은 중국에서 어떻게 밀고 들어오나 보면 사실 지금보다도 10년 뒤가 가망이 없는 것이다. 예컨대 10년 뒤에 그 때에는 중국제가 더 이상 대륙의 기상이 아니고 중국인들의 교육수준을 우리가 못 따라잡으면 끝나는 것이다. 말하지만 이런 건 우려될 때에는 다들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항상 현상으로 나타나고 난 뒤에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나온다.

수저론에서도 불편한 것은 대안이다. 흙수저라고 무작정 우대할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능력있는 사람을 대우해주느냐이다. 현재의 논란은 빈부격차를 넘어, 금수저면 별 노력을 안 하고도 프리패스하고, 흙수저는 노오력을 해도 기회를 안 주는 경우다. 그런데 이 역시 입시제도를 '다양성' 확보라고 수시나 입학사정 관제로 바꾸거나 면접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혹자는 수시도 열심히 한다, 학점이 좋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다들 알지 않나, 수시만큼 가정환경 뺨을 많이 받는 경우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대중들은 언론에서 고발하는 '결과'로서의 현상에만 예민하지 진짜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둔감하거나 사실 알지 못 한다. 혹자는 이런 걸 거리에 나가 시위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제는 모든 것이 '시장 논리'에 연계되는 식으로 나오는데? 가령 이번에 사드 배치와 같은 미국 무기를 쓰는 문제를 자주 국방으로만 접근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비싼 무기를 사주는 대신 미국에 수출시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리베이트성 관계를 안다면 말이다. 다시 말해 사드를 배치한다 안 배치한다하는 문제도 결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시장을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건 정권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다.

물론 이런 배후사정에 표피적으로만 접근하면 음모론의 함정에 빠지기 좋다. 즉, 그 모든 것이 특정주체가 설계한대로만 된다는 것인데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건 다들 아실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시장을 확보하거나 룰을 더 유리하게 고치기 위한 경쟁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면 우리가 속한 대중이 명청하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한다'라는 걸 일깨워주는 측면에서도 좋다. 반면 대중이 혁명하고 역사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착각한다면(슬프지만 역사에서 그런 대목은 없다. 프랑스 혁명조차도 배후는 부르주아) 공부하지 않고 누군가의 마리오네트인형이 될 뿐인 것이다.

한국근대사로 따지면 군부독재시절은 어차피 독재자들의 뜻대로였으니 대중들이 면피를 할 수가 있었지만, 정말로 직선제로 정치적 의사를 행사할 때부터는 다르다. 그 때부터는 스스로의 책임이 된다. 그런데 현실은 현저히 낮은 투표율 - 선거날에는 놀러갑니다라고 정리되기도 하지만 역시 역설적으로 민주화가 된 이후부터는 오히려 빈부격차는 커지고 가계부채는 날로 늘어간다라는 건 "그래도 대중들이 명청한 건 아니예요"라고 면피하기만은 힘들다.

+

조선왕조가 일본에 먹힌 것은 백성들 탓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시 조선은 군주제였으니까. 그러나 4.19 혁명 뒤 다시 독재자가 등장한 건 국민들 본인의 책임도 있다. 독재자들은 '혼란'을 틈타 집권한다. 그런데 그건 국민들 스스로

가 그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거나 부추긴다. 그리고 그게 커져서 스스로 감당 못하면, 누군가 대신 해결해주길 바라고, 그게 독재의 탄생을 낳기도 한다.

미대입시에 떨어진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한 것도 저런 메커니즘이 덕분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를린은 혼란의 극치였고 당시 독일 사람들은 그걸 자기들이 수습하지 않고 누군가 정리해주길 바랬다. 만약 독일국민들이 스스로 그걸 해결했다면 나찌독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다들 히틀러를 욕하지만 실제로 욕먹어야할 사람은 당시 독일 국민들이었던 것이다.

작금의 풍토도 사실 크게 다를 바는 없다. 먹고살기 힘든 걸 스스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국가가 알아서 해달라, 우리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줘라 하고 요구만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의 독재를 출현시키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 재밌는 건 가장 극우적인 독재는 초기에는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나타난다는 것.

13.36 교육격차와 지리격차

2016.02.09

교육격차 → 지역격차 → 부동산 계급 → 끼리끼리 → 조선시대

따분하지만 인상적인 책이다(출판사부터가 김영사다) 도서관에서 빌려읽은 계기는 아마존저팬의 한 깐깐한 일본인 리뷰어가 보기드문 별 다섯개를 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다.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책을 읽은 후 분석해보는 사회 현상이 정확히 위 책에서 얘기한 룰을 따라간다.

진정한 격차는 사실 교육격차이다. 부의 격차는 정부정책으로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유권자들이 마음먹고 투표해서 영향줄 수 있다. 그러나 교육격차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교육격차는 결국 지역격차를 낳고, 한국사회 특성상 지역격차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고, 그들만의 리그를 조성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한국사회는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거칠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희망은 그런 교육이 차라리 무쓸모하다는 것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 실제로 직업의 지리학이란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 **교육 강화 → 첨단산업 분야의 직업 → 가치 창출 및 혁신 → 해당 지역이 부유해짐** 이런 루트를 밟는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미 몇몇 교육특구는 집값이 비싼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헤게모니가 무너질 일은 당분간 없어보인다. 그럼 거꾸로 교육이 지역격차를 낳는다면, 거꾸로 지역도 교육에 영향을 주느냐 할 수 있다. 이건 '클러스터 링'으로 설명된다. 극성 학부모나 경쟁이 심한 학원이 있는 곳은 정보가 빠르고 분위기도 분위기마다가 효율도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질좋은 조기교육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는 사람들의 직업, 소득, 교육'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직업과 소득도 교육이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별 의미없는 담론에 빠질 바에 과거 교육정책을 복기해보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른다. 한국 최강의 첨보종족 강남 아줌마들은 진작에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던지도 모른다. 그들이 진작에 은밀히 교육정책이나 교육시장에 영향을 주었고 아파트 재건축 등에 힘을 행사하며 부를 유지해온 것은 그야말로 연구대상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명쾌한 결론은 나온다. 미래에 어떤 직업이 좋을지는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건 '고급두뇌'가 되어야한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버는 건 결국 저런 고급두뇌들을 상대하는 직업으로 보면 간단해진다(의사부터가 그렇다)

비싼 돈을 들여서 외모까지도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다. 다만 바꿀 수 없는

건 '두뇌'와 '키'와 머리카락이다. 그렇다면 이제 초점은 한 인간의 두뇌를 어느 수준까지 달성시킬 수 있느냐하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로 간다. 교육이 결국 장래의 직업, 소득, 그리고 지리까지 결정해버리는 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결국 고급교육+미개척분야라고 한다면 이 분야로 미리 눈돌리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

13.37 복부인들

2016.02.09

”의사 좋아요?”

”공무원 좋아요?”

”앞으로 뭘 직업이 좋아요?”

좋은 직업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본인이 공부를 안 하는데 소용이 있을까. 앞으로는 직업도 직업이지만, 이제 사람을 더욱 볼 건데? 의사나 변호사라도 실력있는 사람 찾는 것 아냐?

실력없는 의사라면 사람 죽이고 작살나겠고 지적능력없는 공무원이라면 일 엉터리로하거나 민간에 휘둘리다가 망하겠지. 수험사이트에서 대학서열화나 의대 강조하는 이유가 정말 좋아서 그럴 것 같냐. 그런 걸로 '장사'해야하니까 그런 거지.

과거 50년간 대통령 빼고 진짜 승리자가 누굴까? 공대 박사? 의사? 변호사?

아니다, ”강남 아줌마”들이다. 농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생각보다 저런 직업들이 돈을 그리 많이 벌지는 못 한다. 의사만 하더라도 사실 학업 기간이나 로딩을 보면 그것에 비해 많이 받지는 못 한다. 그 사람들은 다 그만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만큼 받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거두며 수입도 제한한다. 그러니 실제 재산 증식은 '부동산 투기'였고, 이건 아줌마들이 정말 맹활약한 것이다. 이 분들이 무서운 게 '폭락'할 거라는 경제전문가의 예측도 가볍게 무시하게 만들고 집값 유지를 넘어 상승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게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떠나서 눈여겨볼 건, 저 분들도 과연 공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아마 가방끈은 생각보다는 짧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지만 계층이 계층이니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아줌마들끼리 정 보교환하고 탐색첩보전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 정성이면 차라리 본인들이 입시치는 게 나을 정도다. 뭉칠 때는 뜰뜰 뭉쳐서 자기 지역의 이권을 수호하고,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남편들을 침대에서 사주해서 사실상 밤의 대통령(...)으로 활약하시고 거기다가 자녀들까지 고급교육을 시켜 계속 해계모니를 유지해나간다. 건물주 금수저의 배경은 사실 저런 치열한 노력에 있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결국 공부하는 게 살아남는 것이다.

김광수나 선대인 같은 전문가들의 부동산 폭락론은 설날특선드라마도 아니고 10년넘게 지속되어 왔지만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다. 왜 그런 걸까, 정량적인 분석은 그 방법론이나 데이터로는 틀린 건 없다. 그렇다면 정성적인 분석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분들의 문제는 부동산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인 걸 까먹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대단히 불확실하며 예측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는 걸 모른다는 것도 있다. (사실 이 분들의 예측을 보면 부동산이 뭔지 잘 모른다라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운 게 많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들이 놓친 건 아랫 글에도 적었지만 **교육격차**다. 국토의 진정한 의미 : 농경시대는 농지, 공업시대는 공장과 식민지, 정보시대에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누리꾼이라는 말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부는 '첨단산업'을 주도해나가는 **과학기술과 그 고급인재로부터** 나온다. 미국이 자국의 비밀을 유출해나갈 수 있는 외국인들에게 교육문호를 개방하고 장학금 지원해주는 것? 잘 해주면 어차피 알아서 미국으로 귀화할 것이고 그게 미국의 국력이 된다, 실

제로 우리나라 고급두뇌들도 미국으로만 가버린다. 폭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은 아파트, 토지, 이자율만 보지, 거기 사는 사람들의 '교육'을 보지 않는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부는 그런 교육동네가 좌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집값이 쉽게 떨어지겠는가. (혹자는 교육과정 개편이 이를 작살내리라고 하지만 그다 지. 어차피 저런 동네의 교육은 알아서 잘 돌아간다)

만약 진로 선택이 그 전공으로 진학한 다음 철밥통을 누리는 거라면 양 망상을 버리는 게 좋다. 이제는 어느 직업이건 공부해야 한다. 역으로 말하면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떤 직업이건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다. 의치한도 생각만큼 대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공부하지 않은 직업인'에 한해서이다. 거기서 탑인 사람은 잘 나갈 것이다. 당연히 공대든 자연대든 인문사회대든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공부를 안 해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도태되는 것을 가지고 그 분야가 망한다라고 오버하는 게 현실 아닌가?

가능하면 콕콕에는 부자들만 웠으면 좋겠다. 10대와 20대의 부자란 수억 소득이라거나 외제차라거나 아파트가 아니다. 부의 기준은 바로 두뇌다. 매일매 일 푸는 국영수 문제나 읽는 책이 자산인 것이다. 실제 이건 문학적인 비유가 아니라 정말 냉정한 현실적인 지적이다. 공부를 하는 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자본'을 축적해나가는 것이다. 내가 1000문제를 풀었다면 10문제 푼 녀석보다 100배나 부유한 것이다.

나는 머리가 안 좋아, 공부해도 소용없어, 좋은 대학 가는 놈은 한정되어있어, 아 이 빌어먹을 운명... ? 이거야말로 삼류 업자들이나 공부 모략가에게 '세뇌', '선동'당한 결과가 아닌가?

노오력해도 소용없어, 이게 다 기득권 때문이야, 민중은 진보한다... ?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놀도록 냅둬라. 망하려면 자기들이나 망하라고 하든가. 사실 실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 임여들이다. 정말 노오력하고 노오력 욕하는 사람들은 단 한번도 못 보았다. 정작 기득권층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노오력은 잘만 한다. 그리고 민중이 진보한다는 데 왜 그 사람들은 공부는 안 하고 유흥산업의 호구가 되어주시나.

13.38 고소득층 교육비가 7.8배

2016.02.09

링크

저런 현상은 바람직하나 바람직하지 않느냐를 넘어서 왜 저런 일이 벌어지나 봐야한다. 이건 앞서 얘기한 '지의 격차'로도 설명되는데

- 하류 : 돈만 본다
- 상류 :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본다

국가에서 돈은 뺏아갈 수 있다, 그러나 능력을 뺏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미래에는 고급인재는 어느 나라건 환영한다. 그 미래에도 '대한민국 만세'거리고 있을 리야 없지않나.

지금도 하류들은 수저론 T-T 거리면서 대기업 법인세 빼액~ 복지 확대 까 악~ 만 거린다. 그런데 이게 사실 도움이 되느냐 하면 안 그렇다는 게 문제지. 실제 '부'는 교육으로 이전되고 있구만.

다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저소득층이 구매력이 없어서라고 해도 7.8배는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그건 바꿔 말해야지. 현명한 선택을 상류와 하류 중 어디서 하겠나? 하류들은 그저 국내에만 시선이 머물러있어서 복지확대나 부의 재분배만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상류들은 이미 세계 전체를 바라보고 있고 국경을 넘는 능력의 확충을 목표로 한다면 교육비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저건 수험사이트에서 말하는 쉬운 수능 비판과는 거리가 있어보이기도 한다.

더군다나. 저출산까지 감안하면 사실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격차는 훨씬 더 커진 것이다.

참조할 수 있는 모형이 중국 화교들일 것이다. 화교들은 원래 국가를 안 믿는다. 그들의 기원부터가 정부의 탄압을 피해 본토에서 탈출한 것. 특정 국가에서 가서 유대인과 같은 짓을 한다. 동향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 지역의 경제를 손에 쥔다, 단 나머지는 그리 욕심내지 않는다. 쓸데없는 낭비는 안 한다. 그러나 자녀 교육 투자만큼은 정말 천문학적 수준으로 한다.

지금이야 대중들은 낙수효과 어디있냐 대기업이 부를 분배해야 한다 복지 를 늘려야한다고만 소리치겠지만 저렇게 해서 능력치가 넘사벽이 되어버리면 그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사실 이거야말로 답이 안 나오는 문제다.

저거의 해결책은 공교육 강화 – 즉 학교도 결국 학원화시키는 것, 신자유주의 개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걸 하는 순간 교육이 무슨 산업이냐 입시냐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다. 물론 그걸 주창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는 좋은 교육을 시키지. 사실상 계층이동은 이제 맥이 끊어지는 게 아닐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란하요'라는 영화가 1989년에 히트친 적이 있었다. 성적을 비관한 여학생이 자살한다는 충격적 엔딩이었다고 하지만... 요즘 이런 게 개봉되면 뭔 한물간 소리하나는 평을 들을 것이다. 실제로 행복은 성적순이 되어버렸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성적이라도 매겨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현실이다. 사람들이 응시 같은 드라마를 보는 건 재미있어도 그러겠지만, 그 시대가 지금보다 살기 좋았다라는 미화된 추억도 한몫한다.

그러나 그런 고성장 시기가 다시 돌아올 일은 없어보인다. 적어도 저 시기에는 소위 재벌이나 졸부(강남 개발로 앉은 자리에서 떼돈 번 사람들)들은 자녀들이 개차반이다 망나니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특히 그런 졸부 자식들이 '오렌지족'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걸로 혀를 쫓아 차면서 말세라고 소리쳤는데...

생각해보면 저건 희망적(?)인 것이다. 부유층 자제들이 공부를 안 하니 부를 대물림하기 힘들어지고 거기다가 소비까지 증진시키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있는 놈들이 더 한다는 의미가, 가진 자들도 자녀들을 철저히 교육시킨다.

사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사회정의나 형평성을 고민할 위치는 아닐 것이다. 결국 교육해서 올라가는 저 라인에 끼느냐 못 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일 뿐.

13.39 특혜

2016.02.10

대한민국은 감성팔이가 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건은 있죠. 요구하라 얻어낼 것이다. 부정적인 것도 있죠, 하지만 브레이크는 없다.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거나 정의를 추구한다면 '부당한 특혜'를 누리지 않는 걸로 실천해야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기하게도 메시지는 메시지고 실천은 상관없다라는 논법을 써먹는 사람들이 많죠.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구호는 선동이되고, 선동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결국 피해를 줍니다.

특히 정치가 그런데, 이건 삶의 문제로 직접 느껴보아야하는데, 그 이전에 메시지로만 접한 사람들이 많아서리. 그래서 명문대 진학해서 증세와 복지 정책 지지하다가 자기가 대기업 입사한 뒤 세금 뜯기는 것에 빡쳐서 변절해버리죠. 북유럽식 복지 해야하니 부자증세해야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 대상에 해당한다는 걸 아는 순간 소신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선량한 시민들만 손해를 봅니다. 과연 그런 특혜까지 가는 걸 알았어도 그들을 응원해주었을 것인가... 라는 건 다소 회의적입니다. 동원되는 논거가 '어차피 대학경쟁은 불공정하다'라거나 (아니 그럼 대학을 없애버리든가 그럼)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마찬가지로 국가는 과한 보상이나 부조리한 것도 책임져야하는데?)는 논거인데 엄밀한 검토 없는 정치적 의사란 늘 이렇게 부조리함을 낳습니다.

이런 걸 일찍 깨닫는 게 좋을 건데 말입니다. 약자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할나위없이 강자들이고, 반면 강자라는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이 실제로는 약자를 배려하는 면도 없지 않다는 것.

결과적으로는 광우병 집회 이후 퍼졌던 냉소주의와 같은 결과를 낳아버리겠네요. 지인들은 그 당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했지만 저는 '기껏 뜻있는 사람이 일궈놓은 진보운동이 이제 다 망했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간단, "근거"도 없거니와 "일관성"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이죠. 취지는 좋지 않았느냐...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광우병은 한우도 자유롭지 않은 문제였고(한우가 오히려 미덥지 않은 게 많았죠) 처음에는 국민 건강을 강조하더니 급기야는 청와대로 진격하자 해버렸으니(...)

더군다나 이해찬 세대와 더불어 그 때의 10대들이 지금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있죠. 아마 성향이 안 바뀌었다면 작년에 광화문에 나갔겠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자기 앞가림도 바쁘거든요 자기들보고 사회를 바꾸라고 하던 어른들이 사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고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고 특히 대입보다 더 부조리하고 '잘 태어났느냐'까지 확인하는 취업시장에서 물먹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곤대충고가 이 점에서는 맞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하세요**" 그 다른 생각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싫은 사람이나 그 자녀에게는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공부할 때입니까? 나가서 사회를 바로 잡아야지**"

13.40 혁신

2016.02.10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진보하는데 정부는 1차함수적으로만 움직이고 있으

니 따라잡을 수가 없죠.

의치한교대가 몰리는 이유 중 하나만 불편한 걸 제시하면 저기는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과연 현재의 기득권이 10년 뒤에도 유지될지는 회의적입니다.

원격진료는 계속 반대에 부딪치고 있으며 교육기관들은 사실 가장 보수적입니다. 아이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건드리기 까다롭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해 다른 곳의 취업이 힘든 건 경기도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다른 분야는 '진보'했기 때문입니다. 담배 피고 노가리까기나 하는 화이트칼라들이 컴퓨터로 대체됩니다. 정말로 이윤창출을 하는 영업이라거나,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창조하는 기획연구개발이라거나 이게 아니면 쓸모없어진 건데 이건 거꾸로 말해서 취업이 잘 안 된다 → 시스템 진보에 성공했다 →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이며 리스크가 적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던져봅시다. 그럼 시대 진보를 따라가지 못 하는 분야에서 언제까지 자기 밥그릇을 수호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제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적인 것으로도 커버 안 되는 혁신적인 게 등장하면 애매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p2p, 토텐트, 웹하드로 저작권도 무용지물화되었지만 방송국은 해게모니를 잊었습니다(거기다가 종편 등장도 한몫하겠지만) 저작권을 수호하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프리카 1인 방송 체제가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인터넷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겠고, 지상파 방송사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서 들어왔는데 그 해게모니가 봉괴되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마 이런 건 미래예측서에서 얘기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터무니없이 느껴졌지만요 여담이지만 연예기획사들은 그런 사소한(?) 저작권에 신경쓰기보다는 세계적으로 규모를 넓혀서 공연료, 광고비 등을 받는 전략으로 바꿔나갔고 그래서 살아남은 것이지요.

이미 정착된 키워드가 1인 기업입니다. 시대가 이미 그렇게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거대해지거나, 아니면 아주 미소해지거나. 즉, 전세계를 아우르는 다국적 법인화되거나, 혹은 뛰어난 초개인으로 영업하거나. 그런데 이걸 대학에서까지도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에 대처 못 하고 있죠. 거기다가 아프리카 1인 방송, 1인 기업에 더불어서 쏠쏠이 이문을 남긴 게 '직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처음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고, 국내 호객들을 갖고놀던 대기업은 할 말이 없으니 말돌리기 시전했죠.

특정업계가 잘 나가는 것을 '과거'와 '현재'만 바라보고 그걸 자기가 누리겠다라고 할 때 주의하시길. 결국 혁신은 하게 됩니다. 그 업계가 자발적으로 혁신해서 사람을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혁신당해서 사람을 잘라버리거나 물론 이걸 특정업종이 잘 나간다 어쩐다 이런 걸로 단순화시키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살아남겠죠, 다만 철밥통은 없습니다. 예컨대 문과를 예로 들자면 대학교 문과들이 그렇게 된 건 자기들이 혁신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구조조정하고 과 통폐합으로 인원수 조절하고 고급과정은 대학원 과정으로 바꾸고 경쟁을 강조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과에서도 초엘리트들은 잘 나갑니다.

+ 회사가 사람을 자르는 건 비극으로 인식됩니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곳이 주가가 유지 혹은 상승합니다. 그래야 회사의 미래가 밝으니까요. 정반대로 인력을 뽑아놓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곳은 썩게 되어있습니다.

13.41 교육비 격차 : 가축에게도 밥은 먹인다.

2016.02.11

대략 2000년대 초반에는 약 3배 정도였던 게

링크

극빈층의 교육비 비중은 3.97%에 불과해 최고 부유층과의 격차가 **2.65배**에 달했다. 이같은 격차는 2·4분기 기준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다.

현재는

링크

계층 간 교육비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연간 기준으로 2010년 소득 5분위는 월평균 교육비로 1분위의 6.3배, 2011년에는 6.1배를 쓰는 것으로 집계 됐다. 하지만 2012년(6.5배)부터 2013년(6.6배), 2014년(**7.9배**)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저 격차가 좁혀질 일은 이제는 요원해보인다. 10년 전에 약 3배, 지금이 8배라고 한다면, 그 다음 10년 뒤에는 어림잡아 15배가지도 치달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건 이미 교육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교육격차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넘사벽 차이도 이로써 설명된다.

링크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교육 격차는 무려 100년에 달했다. 브루킹스 산하 ‘보편교육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레베카 윈스롭 선임연구원이 29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인터넷판에 기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누구나 일정 수준의 보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된 게 산업혁명 이후 번영기인 19세기 중반이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1948년 유엔인권헌장이 발표된 뒤에야 그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현재와 같은 학교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단지 학교교육이 본격화된 시점만 100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었다. 학교에 들어가서 이수받는 교육 기간을 따지면 문제는 더 심각했다. 선진국으로 분류된 나라의 성인들을 조사해봤더니, 학교교육 이수 기간이 평균 12

년이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6.5년으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그럼 이 격차가 줄어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레베카 선임연구원은 개발도상국의 6.5년의 교육 이수 기간이 12년으로 늘어나는 데에만 6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 됐다고 밝혔다. 또 교육 이수 기간이 4.5년인 후진국의 경우 85년이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그 사이에 선진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2100년에는 선진국의 평균 학교교육 이수 기간이 14년을 넘어서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12년, 후진국은 11년을 넘는데 그쳐 여전히 격차가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교육 기간과 함께 교육의 질도 문제라면서 “현재 선진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과 수준을 개발도상국이 따라잡으려면 역시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벌어지는 내전은 물론 방치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조장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내전이 만약 ‘교육’으로 이어진다면 더 이상 유럽, 미국, 동아시아는 저 지역의 자원을 착취할 수 없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도 그렇다. 당신이 상류층이면 하류에게 밥을 먹이겠나, 책을 읽히겠나. 당연히 밥을 먹인다. 온갖 휴머니즘적인 배려로 – 어차피 **가축도 밥은 먹여야하니까**. 한 때 무상급식이 정의인양 포장되었다, 물론 그걸 추진하신 분들의 자녀교육은 절대 평범한 게 아닌 걸로 안다. 남의 자식들에게는 밖에 나가 뛰어놀라고 하고 경쟁을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자녀들은 특목 고에다가 좋은 대학을 나와야하는 이중성. 물론 밥먹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교육격차는 다들 눈을 감았다, 이런 게 세상인 것이다.

하류들은 지금 복지가 확충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건 실현될 것이다. 하류들 자신의 빚으로 어차피 상류들은 겉으로는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돈 낸다 생색내지만, 그건 다시 벌어들일 수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종세 없이 그냥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다 책임지면 된다고 ‘말’로만 이야기한다. 물론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과 같은 교육격차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그렇게 복지를 책임지는 대신 더 많이 벌어들일 테니까.

사실 그 포퓰리스트들의 진정성도 의심이 간다. 그들이 서민들의 교육이나

실력 양성에 대해 제대로 신경쓴 적은 없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과정을 쉽게 내야하면서 주장하는 게 하향평준화이다. 그들이 활약하면서 살기가 좋아졌다면 모르겠다. 혹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나에게 발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관찰한 바, 그런 이들이 활약할수록 격차는 계속 커지기만 했다. 그리고 그게 10년 넘게 지속된 현상이다. 그리고 그들 중 명망가는 정계에 투신 한다.

심지어 몇몇 매체에서는 토익과 공부가 아니라 거리로 나가라는 무책임한 소리를. 자기들 기자 뽑을 때 그래서 학벌, 스펙, 영어점수를 안 보시던가? 기사 쓸 때에는 서민들을 위한다 하지만 정작 인재채용에서부터 경영은 정반대로 하면서 뭔 이야기하시던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는 공부 밖에 없다. 공부를 하려면 대학도 대학이지만 저런 상류들에게 말빨이나 머리빨리 지지 않는 수준까지는 달성해야 한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라는 건 단지 공부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기서 책을 읽으라는 이야기이다. 살아남는 비결이 거기 도서관에 있다, 단지 우리가 그것들을 안 읽을 뿐이다. 그저 계시판에 올라오는 말초적인 화제에다가 뉴스 댓글만 보고 추종, 따라하면서 남의 호구나 되는 삶을 살 것인가.

13.42 수학 과학 과잉

2016.02.11

이게 정말 쓸모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전문적 지식이 아닌 '사고하는' 방식이라면 다양한 철학을 익히고 문제해결적 태도를 익히는 건데 지금의 수능 수학이나 과학은 조선시대 과거제도처럼 뭔가 이상하게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수학은 정말 현실의 문제해결을 수리적으로 해결해보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별 쓸모 없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그런 경험을 하나 제대로 해보는 게

비싼 인강보다 낫다는 것이고, 과학도 실험을 제대로 하고 보고서를 쓰지 않은 것은 그냥 죽은 사람들의 똥만 먹는 행태일 터인데

개인적인 인상입니다만 (물론 근거는 꽤 많이 찾아질 겁니다. 이게 참 뚜렷해지고들 있어서) 현재 토끼띠 이하부터는 수학과 과학이 문제가 아니라 '국어'와 '인문사회' 교양 결핍이 아마 대두될 겁니다. 해리포터나 나니아 연대기를 원서로 읽히지만 고전 소설이나 세계 명작, 그리고 삼국지를 읽는 애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친구들도 탐문해보면 이런저런 교양은 없구나... 라는 판단인데

이게 실제 스펙으로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10대들이 나중에 차별화되고 싶으면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좋다는 뻔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하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차별화가 가능할 겁니다. 남들이 영어에 빠져있다면 몰래 한자와 한문을 익히고, 남들이 수학과학에만 빠져있다면 온갖 역사와 고문(古文)에 통달하고 사실 이렇게 해서 '독특한' 인재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잘 나갑니다.

스마트폰과 가상현실의 증가로 기존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인들이 외로워질 거라고 했습니다만. 역설적으로 지금은 개인이 쏟아내야 할 텍스트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외모와 체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문자메시지'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다양한 언어와 문자, 그리고 육감적인 표현력에다가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의 매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종이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헌책방 애용자들이 유리해지는데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하더군요.

13.43 강남강북격차

2016.02.11

며칠 전 의사 친구가 해준 이야기.

xx대 병원에서 일할 때는 : 주로 오는 사람들이 강남 노인네들인데 말만 노인네지 의욕적이어서 이것저것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려 한다.

현재 xxx 병원에서는 : 사람들이 순박하고 착하고 어리석다, 암수술 보험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암이라고 하면 죽으려고 한다(...)

사실 이야기하다보면 기승전'부동산'되는 게 기성세대(...)의 성숙한(...) 대화가 아닌가 하지만 어떤 화제건 '격차'는 참 공통주제다. 물론 이건 일종의 쾌락을 준다, 사파리 동물원의 즐거움과 같다, 밖은 위험하지만 나는 안전한 데에 있다는 느낌? 적어도 상류에 속하는 사람들로서는 격차 이야기는 즐거울 수도 있는 것이다.

강남강북 격차가 뚜렷이 나타난 게 아마 2000년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 그 전까지는 단지 '돈많은 출부들, 천박한 것들'이라는 인식만 있었지 실제 그런 격차는 적었던 이야기다. 아이러니컬하지만 그 강남 사람들 이야기로 – 비록 몇가지 범죄나 불성실한 걸로 연루되더라도 – 평균적으로는 근면 성실 의욕적인 건 사실이다. **부자인데 잘 생기고 키도 크고 예의바르고 인격자이기조차 해서 열받는다....** 라는 말이 헛말이 아닌 것이다. 일부 정의론자들은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양쪽을 경험해보면 확실히 느낀다(물론 부자들에 게는 그들 특유의 위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동안 격차도 벌어졌지만 동시에 '경쟁'의 기회도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게 철밥통 때문이기만은 아니다. 사실 수능과 공무원 시험 빼고는 이제는 경쟁의 기회가 사실 없다. 언론에서는 공무원 시험 열풍이 망국적이다라고 참 속편하게 개탄하지만, 그럼 다른 경쟁의 기회나 패자부활전은 존재하는가? 빈부격차를 걱정하는 기자나 아나운서조차도 실제로는 '상류'들이다. 방송에서 가난한 아이나 애들 보고 눈물짓는(?) 여자 연예인들도 연상의 사업가 만나 귀족처럼 살며 육아예능을 찍으려 한다.

물론 심증 뿐이긴 하고 물증은 없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능력을 테스트한다는 게 참 상류들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 온라인 필기시험이 문제가 많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필기시험의 대안들이라는 것들이 '부모 잘 만난 애들에게 유리하다'라는 진실을 왜 말을 못 하나. 그 이야기는 과거처럼 필기시험의 비중이 커다면 패자부활이 가능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제도에 막혀 좌절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식인들은 단지 '혐오'의 폭력성만을 문제 삼는다. 그 지식인이 어디서 살며 무엇을 먹으며 자식교육은 어떻게 시키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지만. 저런 격차에서 발생하는 혐오가 어째서 '자기혐오성'에 가깝냐는 것에 대한 분석은 없다. 보통 혐오하는 사람들은 지금 2~30대들인데 이들은 2000년 대부터 정말 여기저기 휘둘리면서 사실 얻어맞은 세대들이다. 격차사회가 되어 간다는 것을 알았으면 부지런히 공부했을 사람들이 부조리한 제도나 여러가지 선동 등에 참 많은 걸 낭비했다. 그러니 이는 자기 환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거다. "내가 괜히 이상한 펩에 빠져서... 광 실속있는 공부나 하거나 재태크나 할 것을 T_T" 그런데 진짜 기성세대는 저렇게 젊은 세대들을 속이거나 이용해 먹고 또 다시 거리로 나가라고 하니까 이젠 먹히지 않는 것이다.

13.44 결혼 격차

2016.02.12

교육격차 말고도 간과하고 있는 것은 결혼격차. 단순히 남녀가 만나는 수준이 아니다, 자녀등급까지도 직결된다. 고스펙과 저스펙이 만나는 일은 드물다, 고스펙은 고스펙끼리 어울리게 되어있다. 남자의 고스펙과 여자의 고스펙이 어우러지면서 빈부격차의 효과는 더욱 더 벌어져버린다.

결혼을 꺼리는 이유가 국가의 복지가 부족해서는 아니다. 사실 육아나 결혼을 복지 탓을 하는 건 '베이비붐 세대'를 설명할 수 없다. 그보다는 결혼은 '신분과 계급'을 결정하는 일생일대의 도박이라는 게 중요하다. 결혼 전에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시대라면 결혼이 지닌 의미는 결국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건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신경을 쓴다, 자신과 자녀의 계급을 결정하기 위해

서는 고스펙 배우자를 만나야한다. 한데 그런 고스펙 배우자는 드물다. 저스펙 배우자를 만나기 보다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

교육비 격차도 여기서 발생한다. 부부 양쪽 전문직이라고 하자, 양쪽이 월 1000을 번다면 월 2000만원 소득이므로 교육비의 여유가 생긴다. 하지만 남편이 일용직이고 아내는 살림한다면 많이 잡아도 월 300만원이다, 교육 투자는 꿈도 굽 수가 없다. 아울러 이런 빈부격차로 인해 지역간 격차도 커져버리고 이것이 현재의 미친 부동산으로 나타난다. 이것이야말로 피부로 느끼는 삶의 문제지만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이런 실태를 고발하든가? 사실 이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방송인과 기자들도 결국 '상류'다(방송인이나 기자가 '서민'이라고 보는가) 이런 넘사벽 격차 앞에서 '죽창',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찌란 말인가. 근원은 여러가지이겠지만 확실한 건 "교육의 차이"가 가장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화제를 바꿔서 그럼 베이비붐 세대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복지는 커녕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도 출산율이 폭증했다. 단지 피임율이 낮거나 아니면 별 다른 방도가 없어서일까? 그 때는 한국전쟁 이후였다. 상류층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극소수였고 사실 대부분이 가난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으로 신분과 계급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없었다.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느냐가 결정적이지는 않았단 이야기다. 더군다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적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격차를 줄이는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될 수 있다. 그 격차를 줄이는 건 절대 하향평준화가 아니다, '상향평준화'였다.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수학과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하류층들의 입시 실력을 높이는 게 방법이다. 아울러 대학들도 진작 구조조정을 하고 보다 과통폐합과 더불어 현실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였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소위 '진보'라는 미명 하에 지체되거나 정지당했고, 그 대가를 지금 20대들이 치르고 있다(...)

13.45 쉬운 수능이 격차를 더 벌였다.

2016.02.13

링크

본지가 최근 10년간(2005~2015학년도) 수능 성적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쉬운 수능을 쳤든 어려운 수능을 쳤든 고득점이 많이 나온 고교 순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이과 수능 상위 각 5000등 이내(서울 최상위권대 합격 가능 수준)에 드는 학생을 가장 많이 낸 상위 학교를 쉬웠던 수능과 어려웠던 수능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비교적 쉬운 수능이었던 2007학년도 수능(국·영·수 평균만점자 비율0.85%)과 어려웠던 2011학년도 수능(만점자 0.21%)에서 상위 5000등 이내 수험생을 많이 배출한 고교는 2007학년도 수능에선 상위 10개교 모두 외고 또는 자사고였고, 2011학년도에는 10개교 중 9곳이 외고·자사고, 1개가 일반고였다. 상위 20개교로 보더라도 2007학년도 수능에선 일반고가 6개, 2011학년도엔 일반고 5개로 큰 차이가 없었다.

링크

불수능 반대입장

흔히 문제가 쉬우면 작은 실수 하나에 등급이 갈라진다는 이유를 드는데, 문항의 난이도와 실수 여부가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는 근거는 없다. 또 시험의 변별도가 낮으면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도 한다. 하지만 수능이 대학 입학 사정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대학은 수능뿐 아니라 내신 등급, 비교과 활동, 면접, 논술시험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선발 기준을 다양화하면 수험생의 창의적 소양을 도출하는 데도 훨씬 유익하다. ... 비교육적 평가다. 만점자 비율이나 1등급 컷 등 최상위권에 초점을 맞추어 시험의 난이도를 판정하려는 태도는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만점자는 거의 예외적인 사례에 속하는데, 이 기준으로 시험의 난이도를 해석하는 것은 전체 시험의 난이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대가 될 수 없다. 수능 출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이상적인 덕목은 일관성과 안정성 유지다. 이 원칙이 지켜지는 한 수험생은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초 해당 학년도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을 공지하면서, 큰 틀에서 전년도의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변별력 강화 혹은 대학 선발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여년간 지켜온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간 축적된 이 중요한 노하우를 가벼이 방기해 버릴 이유는 없다. 사교육비 조장 문제다. 수능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변별력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는 과도하게 증가할 게 뻔하다. 한 번 시험의 고난도를 체감한 수험생이나 학부모라면 그 불안감에 비례해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심리는 가일층 팽배해질 것이고, 공교육의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질 뿐이다.

불수능 찬성입장 시험이 어렵기만 하다고 변별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적절히 배합해야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가 전문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 등이 평가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교육부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같다. 이렇다 보니 거의 해마다 수능에 대한 논란과 항의 사태가 끊이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능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면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주장이 ‘쉬운 수능’을 고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하기야 선행학습금지법이라는 전대 미문의 해괴한 법이 제정되는 정치권의 수준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강박관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불수능 쪽이 더 논리적이라고 보는지라 사실 저기서 불수능을 반대하는 분의 논거는 몇가지가 뒤집혔죠.

- 첫째, 수능 이외의 평가항목들이야말로 부모님 빨을 많이 받습니다. 인성, 면접, 스펙... 이런 것만큼 부모님 능력 테스트죠.
- 둘째, 만점자 비율에 대한 답변은 그냥 회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양 무책임으로 나선 거죠
- 셋째, 일관성과 안정성 유지는 매년 난이도에 대해 거짓말한 것과 다름없는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죠.

사실 사교육비 이야기도 이제는 한물간 이야기입니다. 그럼 EBS에서 거금으로 잘 나가는 강사 스카웃해서 고급과정 신설해도 되는 겁니다(이게 그리 어려운 건지) 사실은 지금 사교육 과잉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죠** 잘 가르친다라는 것이 과연 입담이 좋고 농담을 잘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건지가 관건인데 잘 나간다는 강의들이 사실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온갖 알바 공작질이 성행하는 것이지요.

난이도 하향은 지금처럼 공부할 게 늘어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 한, 이른바 관료주의적 편의라고 볼 수 밖에 없지요.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격차를 벌였습니다. 수능 쉽게 낸다고 상위권들이 공부를 안 할리는 없지요. 반면 중하위권들은 그런 하향평준화 기준에 맞춘 공부를 하니 대학 과정까지 감안하면 그냥 내리막길입니다.

결국 이건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EBS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으니.

이 사태의 본질은 다음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링크

인권위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에 30대 지원자와 합격자 수 등 원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이 가운데 고려대만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일부 로스쿨이 신입생 선발에 나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응시자 제출 서류에서 지원자의 나이를 알 수 있게 하는 항목을 삭제해 달라”며 이 대학들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다. 이들 대학은 1한겨레에 “인권위가 요구한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아무리 인권위라도 해도 원자료를 마음대로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법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인권위가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도록 돼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인권위법처럼 다른 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인권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로스쿨들은 ‘과태료를 내고 말겠다’는 태도다. 연세대 로스쿨 관계자는 “전국에 로스쿨이 25개나 있는데 3개 대학에 집중해서 나이 차별 논란을 제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도 “(인권위에 자료를 제출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다. 서울대의 경우 법학적성시험(리트) 성적이 전국 꿀찌인 30대 이상 ‘허수’ 지원자들이 10여명이나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게 현실입죠.

실제로는 사교육비를 줄인다 과도한 경쟁을 막는다하지만 뒤로는 결국 '학력'까지 상속하는 걸 방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13.46 어째서 하류가 더 막장이 되었나

2016.02.17

이건 가설입니다만 – 물론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명제죠 – 대중의 자업자득(?)인 하류들의 교육빈곤화에 맞먹는 이야기이니 불쾌하실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은 패스하시길.

IMF 이전에는 조금이라도 빚을 지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했으며 돈을 벌면 무조건 저축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게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검소하게 사는 것이 장려되었으며 특히 신용카드는 딱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신용카드는 안 씁니다. 딱 한번 발급받은 게 있는데 지인 분이 실적 올려야한다고 등록해준 뒤 한번도 안 쓰고 잘라버렸죠)

그런데 IMF 이후에는 빚을 지는 게 장려되었고 신용카드가 남발됩니다. 개

인들이 빚을 지면서 소비를 늘리니 기업들은 살아납니다. ”**기업부채가 가계부채로 전용되었다**”라는 말이 이것이죠. IMF 극복이니 뭐니 사실 그건 체감 못하는데 해외여행 갈 사람은 다 가고 쓸 사람은 다 씁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들어서부터 빚을 안 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지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커진 씀씀이는 줄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많은 3, 40대가 앞으로도 막장일 수 밖에 없는 게, 실질강건의 풍토가 사라져버리고 빚내서 흥청망청하기 시작한 때 20대를 보낸 세대라는 것이죠. 지금 60대 이상처럼 보릿고개를 겪거나 고생하지도 않았어요. 평균적으로 10대는 평탄하게 보냈단 것이죠. 어떻게 하면 겸소하게 살면서 윤리적인 걸 실천할까 하기보다는, 남들이 구입한 명품은 왜 나도 구입하지 못 할까, 친구는 유럽갔다는데 나도 가야겠네... 이런 마인드가 대부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살기 힘들다라는 말은 가려들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롤스로이스를 못 모니까 불우이웃, 결혼하는데 남자가 3억 집 못 해오면 파혼... 이런 게 현재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렴 삶을 살려면 월 1000은 기본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라 그런 직업이 의료계 쪽이네... 하면서 다 서로서로 의치한 거리는 것이죠. 그저 많이 번다라고만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사명감이나 책임감 그딴 건 없습니다. 이제 개인이나 사회나 완전히 병들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10대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최소한 20대~40대들은 혹독한 도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기업부채를 가계부채로 옮기는 전략 – 즉 신용카드를 남발해서 서민들의 소비를 늘리는 후유증이 지금도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법과 윤리도 아작내기 시작하죠. 자기가 돈많이 번다고 자랑하는 속물도 있지만, 더 한심한 건 그런 속물을 보고 나도 그래야지하면서 배금주의에 눈먼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껴쓰고 더 많이 배우고 미래를 향해 투자할까... 그러기보다는 배금주의나 한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서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게 정상이라고 착각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까지도 학대해서 몰래 살해하여 암매장하는 것도 적발되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의 도덕 그딴 건 없습니다. 오직 ’타인’에게 잘 보이

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설교하는 번듯한 종교인이어서 xx님이라고 인정만 받으면 딸아이 죽여도 관계없는 것이죠. 이제 윤리관 그딴 건 없거든요? 많이 벌어서 타인들에게 '상류층'이라고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인간답게 사느냐 그딴 건 모르는 겁니다. SNS에 어떤 뾰샤시한 사진이나 올릴까 이 고민이나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콕콕에서도 저에게 커리 물어보는 사람은 무조건 까고 볼 건데 간단해요. 커리를 제대로 물어보는 사람은 기본적인 걸 공부하면서도 꽤 크리티컬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건 일방적인 Q&A가 아니라 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분좋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집 한권도 제대로 풀지도 않으면서 ”~ 좋냐?”라고 확인만 받고 하라는 공부는 절대 안 합니다. 다시 말해 공부도 안 하는 병신들이 참고서니 강의 평가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하류들이 신용카드 빚내서 명품이라고 알려진 것 충동구매해놓고 나서 나라탓하는 짓을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디씨든 ○ㅁ든 어디든 간에 정말 '합격'은 못 했으면서 수년째 똑같은 강의, 교재평만 하고 있는 고정닉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알바를 뛰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쓰레기짓하면서 똑같은 썰을 풀고 있죠. 그 양반들이 그럼 머리가 없어서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인간들은 잘못 교육받아서 그래요. 실천이 우선이니 정신없이 공부하고 있어야한다, 코 앞의 일도 처리 못 하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는 미친 짓을 하지 말아야하는데 이 인간들 보면 수년째 참고서 한권도 제대로 안 보고 뭐가 좋냐 하다가 2~3년 날리고 재종이나 고시원 가야하냐 이러고 앉아있죠.

자,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 첫째, 자기통제를 못 한다.
- 둘째, 배수의 진이 없다

- 셋째, 무한한 자유

만약 신용카드 남발이 없었다면 하류들이 빚지는 일은 적었을 겁니다. 쉽게 빚을 낼 수 있으니까 마음껏 소비해서 기업 좋은 일만 한 것이죠. 그렇게 쓴씀이 가 커진 건 잘못 교육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따끔하게 훈나고 배워야하는데 그렇지 못 한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를 많이 해야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그럴 듯한 궤변으로 사치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자기 탓이 아니라 나라탓, 정부탓, 사회탓이라고 미쳐가기 시작하죠.

수년째 공부 안 하고 그러는 잉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모들이 바로 내 쫓아버리거나 일을 시키거나 했어야하는데 그 부모들이 자녀를 방임하거나 무서워해서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서 그저 썰뿐인 수험을 인터넷에 풀면 몸에 전기라도 통하거나 밥이 안 나오거나 하는 등 제재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게 없죠. 사실상 자유가 무한하게 허용되고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잘못된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한다? 돈자랑하는 게 문제가 없다? 헛소리입니다. 결국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안 따진다면,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까다롭게 증오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막장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돈 많이 벌고 명품 사는 건 안 말리는데, 그런 걸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모른다는 게 문제죠. 명품 자랑하고 다니면 본인은 결국 '윤리적인 일이나 봉사'도 안 하고 그저 돈쓰는 걸 자랑하고 다니는 돼지라는 걸 모르는 것이죠. 우왕, 저 친구 성형 괜찮은 데에서 했나봐, 차 외제차네, 웃은 이태리제 명품이네... 하면서 부러워하는 인간들도 돼지들이죠.

자기들도 황금만능주의나 방종에 빠진 걸 모르면서 부자들 증오해보았자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말입니다. 부자들을 정말 이기려면 본인이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겸소하게 살면서도 부자들보다 가치있게 산다는 걸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사라집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면 그건 재벌이 독점해서도 혹은 정부가 무능해서도 아니면 안보가 위험해서도 아니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사람들이 근면, 건실하고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지혜를 짜낼 수 있다면 다시금 일어섭니다. 그러나 그런 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13.47 전문가 드립

2016.02.18

잘 알지도 못 하는 자가 '책임있는 발언'을 회피하기 위해 쓰는 흔한 말장난이죠.

A : "#@\$@#*(*(ㄴㅇㄹㄴㅇ라고. 그럼 네 주장을 해보렴" B : (할 말이 없다) "너는 전문가 아니잖니.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그래?" →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이 경우 A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A : "그럼 그렇게 말하는 너부터 전문가도 아니잖아" B : "그래, 너도 나도 전문가도 아니니까 이건 끝도 없어" → 양비론

시도 때도 없이 전문가 드립 쓰려면 그냥 자가기 전문가 테려와서 전문가 보고 대신 발언하라 하는 게 낫죠. 하고 싶은 말은 많다, 하지만 자기는 '모른다', 하지만 네 말을 공격하고 싶어라고 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전문가 드립입니다. 말 하지만 그럴려면 직접 전문가들을 데려오시거나, 그 문제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전문적 답을 제대로 인용해오면 됩니다. 그러나 늘상 그렇듯 B와 같은 인간들은 "내가 왜 그래야하는데"라고 또 회피해버리죠.

여기서 인간성이나 능력 테스트는 사실 걸러지죠.

그럼 믿거나 말거나인데 진짜 전문가들은 어떤가 제 뇌피셜 기억에 살려서

이야기 적죠

- 의새 -

A : ”야, xx 병역 사건 어떻게 생각해. 그거 확실히 그 사진 이상하지 않아?”

C : ”으으음, 그건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사실 ~ 라고 말은 하는데 나도 정확히 장담할 수 없어”

- 변새 -

A : ”야, 그 사건은 ~ 잘못한 것 아냐.”

D : ”사실 나도 잘 몰라. 그건 그 분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아야지. 기록을 더 봐야 알 것 같은데”

이상은 지인에서 기억나는 사례인데

- 첫째, 신증함을 강조한다.
- 둘째, 자기도 모른다라고 무조건 말한다.

그럼 과연 '전문가' 드립을 치시는 분들은 정말 전문가를 만나보셨는지는 가히 의문.

왜냐면 사회에서 xx 전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전문가라기보다는 사기꾼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쁘고 피곤해하고 꼴통스럽습니다. 귀찮은데 왜 불러 그런 케이스

- 기계 전자 -

A : ”아이고 이 노트북 이상해요. 자꾸만 꺼지고 아무래도 CPU나 팬이 잘못된 것 같아요. AS 되나요 ? T_T”

D : ”... 이거 강 포맷하고 윈도우 다시 까세요 ...”

A : ”이 자전거 브레이크 고칠 수 있어요?”

E : ”(뜸 들이다) 이거, 강 새거 사는 게 빠르겠는데. 아, 돈이 좀 깨지겠는데 그래도 수리하시겠나?”

가장 흔히 접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상기할 수 있죠.

전문가들일수록 '돈 안 되고 귀찮은 것'은 매우 싫어한다. 하지만 '돈'을 주면 그래도 구색을 갖추려고는 한다. 물론 소위 그 전문성이란 '현금'에 따라 달라진다.

전문가 드립치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부터 전문가가 되시든가**.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가 드립은 안칩니다. 자기가 공부해서 그걸 줄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배우려고 하지.

공부 안 하고 전문가 따져보았자 전문가 사칭하는 사기꾼들 – 즉 거짓말의 전문가들에게나 넘어가죠. 입시판에서도 아이고 선생님~ 거리는 아줌마들이 많죠. 선생이 어디 학교 출신이라더라 진도는 어디까지 빠진다더라 하면서 간 빼줄 것처럼 다 하지만 자기가 그 과목도 모르는 채 '어디 나온 선생이라더라' 그런 거나 따지는, 즉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자녀가 공부 잘 하길 좋아하는 부류. 이런 케이스들이 자녀를 정말 잘 망칩니다. 하도 흔해서 그냥 얘기하다가 스포 때리면 짐장이냐는 반응도 지겹게 나오죠 자기들은 모르죠, '흔한 케이스'라는 걸요.

+ 전문가들도 결과를 100% 보장은 못 하죠. 그리고 의견들도 갈리고 다만 자기들이 책임회피를 하는 방법만큼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 진짜 전문가라고 하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 때 ”죄다 공구리쳐 야한다”라는 서균렬 교수였죠. 그런데 그 때 전문가가 서균렬 교수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특정한 사건에 ”냉소적”으로 ”잔인한 해답” 제시하는 게 가장 전문가스러운 듯.

13.48 관계 = 돈

2016.02.21

모 소설가의 소설을 읽다보니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옴.

자식이 공부를 못 해서 고민하던 아버지가 재산 1억 5천만원을 털어 공부 잘 하는 학생 셋에게 급부로 제시하면서 계약을 함. 자기 아이가 시험에 붙을 때까지 친구로 지내달라고. 그리고 그 세 친구 덕분에 무사히 시험에 합격.

픽션이면 픽션이라지만 사실 저게 정말 '환경'의 핵심을 짜른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 부모들이 극성을 떨면서 학군 좋은 데로 이사가거나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만나는 사람들의 클래스에 따라서 자녀가 영향을 받는 것이 성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

물과 공기를 사먹어야하는 세상이 설마 오겠어 하는데 오고야 말았음. 마찬 가지로 인간관계도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다.... 사실 성매매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지만 친구 관계도 이미 간접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음.

이렇게 보자면 "교재", "강의" 이전에 훨씬 중요한 게 바로 '무형'에 가까운 삶의 양식 – 즉 행동과 습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음. 1등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1등하는 친구에게서 배울 것을 배우고 그 친구와 경쟁하면서 뎅달아 올라가는 것임. 반대로 실패하는 친구가 있다면 본인이 그걸 비판하고 개선하지 못 한다면 뎅달아 실패할 수 있음.

물론 절대적인 성공, 실패 공식은 없음. 왜냐면 게임의 룰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험도 매년마다 룰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 예컨대 수학도 꿀강의 꿀교재본다에서 기초교재본다는 걸로 바뀌는 것도 그런 것임. 만약 당사자가 성공하는 양식을 복제하거나 거기에 전염된다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 반대면 실패하는 것임.

그래서 이게 오싹한 이야기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란 자기를 흥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망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핀볼처럼 충돌해나가는 과정임. 본인이 분별력이 있어서 잘 취사선택한다면 모르겠지만, **우유부단하고 잘 훨쓸리는 성격이라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다간 막장이 되어가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는 마녀사냥하는 종교재판관의 포지션을 취하는 것도 나쁘진 않음. 조금이라도 해롭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컷하고 검증된 방식만 채용해 그걸로 노력해가야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10대들이 이걸 알아서 할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나 멘토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임.

무엇보다 관찰하면서 느낀 것은

성공과 달리 실패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사실 그럴 수 밖에 없음. 성공패턴이 쉽게 학습된다면 누구라도 성공할 것임. 반면 실패가 많다는 건 실패하는 패턴은 학습하기 쉽거나, 따로 학습이 필요하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그걸 따라간다는 이야기임. 자영업하다가 말아먹는 경우도 그렇고 n수하다가 깨지는 경우도 관찰 분석하면서 느끼는 건 당사자가 종교처럼 집착하면서 버리지 못 하는 뭔가 있음. 사실 그게 실패의 요인인데 그걸 '버리려'하지 않음. 반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투를 자를 때는 자르고 창씨개명도 할 때는 해버림. 아예 자기를 버림. 자기를 버리니까 실패하는 패턴도 덩달아서 날라감, 그러니까 청소는 확실한 것임.

결국 자녀교육을 시킬 때는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성공하는 사람들 곁에 가깝게 둬서 거기에 전염되도록 한다... 이거야말로 잔인하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임.

13.49 대안없는 비판

2016.02.22

보통은

ⓐ 인신공격, Ⓠ 비난, Ⓡ 대안없는 비판, Ⓢ 대안있는 비판, Ⓣ 대안 어떤 문제에 대한 반응은 저 다섯가지로 나뉘어지는데

ⓐ, Ⓠ는 그냥 노골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한 것이니 적대관계를 도출하는 반면 Ⓢ, Ⓣ는 그래도 뭔가 준비하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 우호관계를 조성하는데

가장 애매한 것이 Ⓡ이다.

사실 이건 그 당사자는 자기가 '비난'했다라는 걸 면피하고 싶으면서도 자기 이야기가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형식을 취하고 싶은 것인데 이 때 "그럼 대안은 뭐니"라고 하면 당연히 말을 못 하면서 "그럼 대안이 있어야 비판을 하느냐"라는 말을 한다.

물론 '대안'이라는 게 항상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안있는 비판만을 주문한다는 건 가혹해보일 수도 있다. 엄격한 논증과 고찰 하에서 비판을 하면 구체적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상적 대안까지는** 나온다.

아무튼 20대 초에는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대안없는 비판도 괜찮은 건가 아닌 건가 그랬는데.

지금 내린 결론은 "대안 없는 비판"은 참고할 수 있지만 그걸 하는 사람, 즉 대안없이 비판만 하는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문제해결의 의욕이 없기 때문이다. 어디든 끼어들어서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만 하고 그런 걸로 한자리 해먹으려는 경우가 많지 실제로 정말 중대한 권한이 주어지거나 하면 일처리는 제대로 못 한다. 사실 비판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뭘 해먹겠나.

정말 문제해결에 의욕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해결'해놓거나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나서 '비판'한다. 다시 말해 불이 났다면 누가 불냈어라고 짜증만 내지 않고, 먼저 불부터 다 끈 다음에 범인을 심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실천이 '비판'을 금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중요, 다만 비판은 실천이 담보되었을 때에만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문제해결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과 관계없는 미주알고주알은 그냥 소음 공해 아닌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걸려내야할 사람은 다시 말해서 ”실천 여부”만 보면 된다. 뭔가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네가 해결해 봐...** 라고 하면 온갖 평계 대서 빠져나갈 사람부터 먼저 걸려내야 한다. 사실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만 멀리 하더라도 삶은 매우 평화로워진다. 갈등 대부분이라는 게 사실 ’언행불일치’에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상당수 차단되기 때문이다. 말로만 ~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면 피곤한 일들이 사라진다.

+

개인적으로는 실천도 높은 사람은 뭔 이야기를 해도 일단은 듣는다. 적어도 이런 사람은 뭔가 진정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다면 그다지. 일단 이런 사람들은 아직 철이 없나, 그 생각 밖에 없다. 자기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로운 정보도 준 게 아닌 데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나서는 거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계는 ’거래’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거래는 상대방에게 급부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임을 모르는 것 같다.

아주 어린 애라거나 10대 학생의 경우는 차지상 거래로까지 따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성인이라면 달라지는 문제지. 타인의 글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으면, 자기부터 구체적 근거에 기반해 설명을 상세히 하시면 된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거래가 되는 거지. 이건 인격 이전에 ’거래관념조차 없는’ 뭔지 모르는 무전취식범에 다름이 아니지.

13.50 ”때리면서 말렸어야죠”

2016.02.22

”때리면서 말렸어야죠”

진짜 이건 내가 화자이기도 하고 청자이기도 하다능 인간은 애초에 간사

ex 1 -

A : ”야, xx고는 졸라 빽세. 내신 때기 옛같다니 다른 꼴통고 가자”

B : ”아, 열심히 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팬찮아욧”

일년 뒤

B : ”아니, 왜 안 말렸어요 T-T”

A : ”네가 간다면서”

B : ”때리면서도 말렸어야지 으흑흑”

ex 2 -

A : ”공무원 시험 쳐”

B : ”에이, 별 거 없잖아요. 나 해외 나가서 원피스를 찾을거야”

오년 뒤

B : ”나 왜 그 때 붙잡아두고 공부 안 시켰어요 T-T”

더 쓰다보니 패턴이 똑같아서 라는데 정말 많다. 결혼 버전이야 음성지원되는 수준이다보니 생략

그게 사람은 초기에는 꿈과 이상을 보지말, 말기에는 결과와 금전을 본다는 씁쓸한 진실. 무조건 어른들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어른들이 뭔가 말리면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알아야한다는 것.

단순화시킬 수 없지만 독재자 부모가 시키는대로 해서 성공하는 경우와 본인이 정말 민주주의적으로 판단해서 성공하는 경우 중 어느 게 많을까.

경쟁은 그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따지진 않는다.

사실 본인은 특정 시험에 합격 못 하거나 혹은 특정 지역에 못 산다고 하더라도 정신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친구'가 특정 시험에 합격하거나 특정 지역 고급 아파트에 입증했다는 걸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심하면 우울증이나 정신병 차원으로 가기도 한다.

엄마들은 자기 친구 아들딸을 언급하면 안 된다. 오히려 자기 아들딸의 친구들을 언급해야지 친한 친구가 자기보다 잘 나간다고 느끼면 빡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걸 모를까

아무튼 처음에는 민주주의적이고 자상해서 좋다는 사람들도 나중에 결과가 시망이면 욕하게 되어있다. 반면 독재자적이고 성격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보장해주면 그 때에는 굽신거리게 되어있다.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죠... 라는 건 어디까지나 좋은 결과가 보장될 때에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만약 어른들이 반대하는데도 특정한 선택을 한다면 나중에 왜 안 말렸느냐는 그런 걸 안 따지는 각서는 쓰시라는 이야기

13.51 직업소득 비교가 한심한 이유

2016.02.24

보통 대학가는 사람이 졸업하면 10년 뒤일건데 그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역대 직업예측이 맞아떨어졌냐. 그건 아니지요. 오히려 10년 뒤에 잘 나갈 직업들은 저평가되었거나 혹은 태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건 해당 직업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걸 봐야한다는 것이죠.

- 첫째, 누구 돈을 먹느냐.
- 둘째, 기술 진보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 셋째, 공급과 수요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죠. 이렇게만 분석해보면 수험사이트에 올라오는 썰은 구라가 될 가능성이 꽤 높아집니다.

그럼 의사들은 그럼 서로 치료해줘서 경제활동하나요? 떡팔러가는 친구 A와 술팔러가는 친구 B가 서로 물물교환해서 떡과 술 같이 먹고 한 것도 수입으로 쳐줘야하나요?

의치한 말고 다른 직업이 망했다라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전문직이 버는 돈이 그 다른 직업인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의치한 백날타령하는 인간들이 기본적인 사고조차 안 된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아니 돈을 써줄 사람들이 망하는데 그럼 의료인들이 버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다른 직업이 망하면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도 개판일 건데 돈을 벌어서 뭐합니까. 쓸 수가 없을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는 ”수출”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들 주제파악 못하고 왜 기업 우대하느냐 어찌나하는데 자원도 없고 이제 노동력도 중국만도 못

하게 된 나라에서 뭘로 벌어먹죠? 좋든싫든 대기업 밀어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경쟁이 되어야 달려 벌어와서 수입해오는 거지. 입으로만 단군 한민족거리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이루는 태반은 거의 다 '수입'한 겁니다. 그리고 말하지만 꼬우면 각자가 한번 대기업 역할을 해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수출해보고 달려벌어오면 되는 거지 뭘 그러나. 입으로는 딱 대기업 욕하면서 정작 취업할 때는 x성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하는 케이스 참 지겹게 보지요.

지금이야 그나마 의료인들이 상대하는 고객들이 돈이 있으니까 의사도 고소득 거둔다하는 거지 **그 의사 이외의 직업이 다 망해보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이런 근본적인 것도 따지지 않고 소득이 어찌고 비교하는 것보면 참 개한심들 하죠.

저성장시대인데 그럼 거기서 공무원과 의사는 잘 먹고 나머지는 다 백수되고 굶어뒤진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지만 말이 안 되죠. 그럼 지금 공무원과 의사가 나아보이는 건 왜 그러냐 다소 과장되어있어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다른 직업들이 '망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1980~90년대의 경이적인 고성장 시대에 비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변동성이 커져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따지면 아직 '망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분야건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100명 중 10명이 실업자가 된 것으로 이게 심각해보여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한국 제조업은 잘 나가는 편입니다. 미래가 암담해보여서 그렇지

오히려 특정직업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시장 논리"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는 게 더 낫겠죠. 제가 업자라고 하면 안 그래도 저출산 때문에 **고객(=수험생)**도 줄어가니 신규 고객 창출하기 위해 의대 빼고 다른 직업 다 망한다 그럴 듯.

+ 그리고 의료 바이오로 먹고 산다... 그럼 미, 중, 일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수입품은 다 잘 들 쓰면서 시야가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돌아가는 꼴 보면 대충 보이죠 뭘

아주 어린 시절에 중공이 있었던 시절 – 삼국지 읽으면서 중국 관광갈 수

있을까, 공산권인데.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런 건 없었죠. 그러나 지금 현실은?

++ 똑똑한 척 하는 지금 담론에서 걸려들어야할 것. ”강남 2세 마인드” 부모들은 강남에 정착해서 직접 개척한 사람들인데 자녀들은 그냥 강남 수저들인 케이스인데 이 친구들은 똑똑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실속이 없어요. 파더 쉴드 장난 아닌데다가 시야가 강남을 못 벗어나죠.

대체로 금수저로 지목되는 게 이들인데 별로 열등감 안 느껴도 됩니다. 유능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다만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류들은 곧이곧대로 믿죠.

13.52 가격 가치

2016.02.25

소득은 가격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건 '가치'의 일부일 뿐.

가치 ≠ 가격

공기의 가격이 0원이라고 해서 공기의 가치가 없다고 할 리는 없다. 반면 수백만원한다는 금반지가 배고픈 상황에서 소용이 있을까.

뭐가 좋나요... 하는 흔한 질문은 결국 ”가치”를 물어보는 문제다. 가령 인강의 경우 가격으로 치면 사설 ; EBS로 보인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사설 인강보다 EBS 무료 인강이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다.

가격은 시장이 형성되어서 거래자들간의 경합이 붙었을 때 붙는 것. 그 이야기는 시장의 범주에 들지 않거나 혹은 듣다 하더라도 거래자들의 경합이 없다면 가격;가치 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나오는 말이 결국 '가치투자'가 진리라는 것인데 그럴 듯한 논리이지만 사실 실천성에서는 많은 면이 공백이다. 그럼 '가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특정직업이 돈을 많이 번다.. 그걸 못 한 게 후회가 된다.. 정작 그런 직업인들과 얘기해보면 자기들도 불평불만이 많다. 무엇보다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이라면 빽센 것은 기본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모든 걸 '가격'으로 평가하려 한다. 가치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일단 잡히고 나면 변동이 덜 한 반면에 가격은 시장 논리에 따라서 폭등, 폭락할 수 있다는 걸 간과하고 있다.

그런 가격만능주의자는 싸구려 상품도 비싼 가격이 매겨지면 명품인 줄 아는 무식한 고객과 똑같다. 직업을 이야기하려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그로써 당사자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생각해보아야하는데 무작정 돈을 많이 버니까 좋은 직업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 경우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런 사람 자체를 멀리하면 된다.

가격으로만 따지면 소위 '오피', '조폭', '사기꾼'도 매우 좋은 직업이 될 것이다. 어찌되었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이니까 말이다.

수험 외적으로도 공부해야하는 이유 첫째, '가치를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 서이다. 둘째,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그런데 그런 가치와는 별개로 그냥 가격에 환장한 돼지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짹퉁명품도 고가에 내세우면 아무 생각없이 빛내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다.

13.53 심리회계 – 원금을 어느 선으로 둘 것인가.

2016.03.01

공황이 오는 기준은 ”원금”을 잃었느냐

예컨대 100만원을 걸었다고 치자. A는 101만원, B는 99만원이다. 별 차이는 없어보일 것 같지만 심리적인 동요는 다르다 A는 원금을 안 잃고 1만원을 번 것이라서 차분하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B는 원금을 1만원이라도 까먹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회수할까에 집착하면서 판단을 못 하고 만다.

그럼 우리가 B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는 ? 원금 기준을 95만원으로 낮추라고 하면 될 것이다 아니 애당초부터 100만원으로 투자할 때 원금을 80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른다

이건 수험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이 어떤 눈높이를 갖고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들이 생각보다 성과가 안 좋으며 한 번 실패를 해버리면 미친 듯이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저절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그런 특목이나 자사고는 학교가 교육을 하기보다는 평가를 하는 쪽인데, 보통 내신기출만 봐도 뭐 이런 SM쇼가 다 있나 할 정도. 문제는 그게 수능과 사실 거리가 면 경우도 많고, 만약 학생 본인이 소화 못 시키는 경우 주화 입마되는 케이스도 있다 짐작되지만 이건 더 상세히 검토할 사안이라서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눈높이를 말하면

특목자사고에 간 친구들의 눈높이는 보통 사람보다 높다. 허영심에 가득찬 부모님들이야 거액을 내면서 자기 자녀가 남과 유별나게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겠지만 이건 다시 말해서 저 친구들의 ”기준 원금”이 높다는 것이다. 그

래서 이 친구들은 조그만 성과에 감사하지 않으면서 대박을 거두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 위에서 바로 B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되기 좋다. 만약 한번 시험을 쳐서 실패해버리면 자존심도 크리티컬하게 상처입고 이걸 어떻게 '대박'으로 만회할까.... 하는 생각에 계속 무리수를 두고만다. 차라리 처음부터 본인이 운이 좋아서 좋은 학교에 왔으며 자기는 머리가 좋지 않고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기초부터 다지고 가면 되었던 것이 무리수를 두면서 물결 5년 이상을 낭비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시험을 치른다고 하면 오히려 꼴찌에서 시작한다고 마음먹는 편이 그래서 바람직하다. 가령 자기가 5등급에서 시작한다고 본다면 2, 3등급이 뜬다고 해도 차분하게 왜 더 올라갈 수 없는지 여유있게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무조건 1등급이라고 한다면 저건 성적이 떨어진 것이라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지.

13.54 이미지 차크라

2016.03.02

좌뇌와 우뇌로 설명하자면

ⓐ 논리적인 사고를 꼼꼼히 할 수 있느냐,

ⓑ 아니면 이미지를 잘 구사할 수 있느냐.

이 두가지로 나뉨.

천부적으로 머리가 정말 좋아서 이해가 빠르고 문제를 신속히 푸는 것으로 보이는 고수들이 있음. 물론 공부를 열치기로 하거나 적당히 야매교재 만드는 파들이야 이걸 머리가 좋다고 통치겠지만 적어도 내가 분석하고 탐문한 결과는

”이미지, 즉 심상구사능력”임. 문제만 보아도 관련 정의와 개념, 그리고 식과 그래프와 도형이 바로바로 연상되는 것임. 엄밀한 테스트는 아니지만 이런 친구들에게 ”이미지”와 무관한 문제를 내면 평범한 학생 수준이거나 그만도 못 함. 신속히 풀어댄다는 것은 다년간 쌓인 차크라... 아니 **심상 능력**이라는 가설을 반박하기는 힘들어보임

그런데 이 경우 심상만 강조하다보면 술법에 환장하다가 나중에 개차반이 되어버린 오로치마루로 전락할 수 있음. 이미지로 다 풀리다보니까 ’논리적’인 것이나 ’기본 개념을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복기’하는 것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임. 게다가 공부를 잘 있다고 주변에서 떠받들어주고 본인도 거기에 만족한 나머지 이런 단점을 눈치채지 못 하다가 결정적 크리 한방 먹음. 적어도 수학은 이런 이미지파에게 다소 불리하게 출제되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즉 논리를 강조하기 때문. 다만, 탐구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이런 이미지파들에게 불리한 출제는 되고 있지도 않고 되기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함.

즉, 결국 이미지 차크라를 갖추는 것이 손해볼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임. 하다 못해 본인이 록리여서 그게 힘들다 하면 ’풀이과정’을 신속정확하게 적는 훈련을 해서 보조를 해야함(전과목 모두) 어정쩡한 이미지 차크라는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조장할 수도 있음. 사실 수학을 망하는 흔한 코스인 ”**중딩 때 잘 했는데 고딩 올라와서 망했다**”가 이 케이스임. 중3 때까지야 어설픈 차크라를 발현하더라도 스피디하게 100점 맞는 게 가능하지만 고딩수학은 이런 게 잘 안 먹히기 때문에. 다만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논리력’을 훈련한 경우에 논리적 사고를 정확히 하는 경우는 확인했음. 물론 이 경우는 부모뻘이 큼 – 유전자보다는 바로 가정, 교육환경. 논리력을 갖추었다고 확인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근거가 있어야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기 때문.

아무튼 이런 괴수들은 패턴화도 필요없음, 문제를 한번만 풀어도 그 패턴을 그대로 이미지 차크라로 흡수함(...) 다시 말해 어떤 새로운 과제나 문제를 풀 때에 거기 나온 패턴들을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습관도 들어있거니와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이미지의 중력으로 그런 것들을 빨아들인다고 보면 되는 것임.

대략 초딩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았다고 가정하면 반올림해서 10년 정도 그렇게 훈련된 것이니 능력 차이가 크다고 할 수 밖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사실은 최근에 등장하는 이런 괴수들이 과거의 괴수들보다 더 하드코어하다는 것임. 소위 영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이 먹고 활약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음. 가짜 영재였거나 아니면 재능이 잘못 발현된 경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과거의 평가 시스템도 좀 병맛이었다는 것인데 최근에 등장하는 무서운 괴수들은 인터넷 시대가 펼쳐진 이후에 부모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양성된 애들임. 아마 다들 관심없겠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교재들을 보면 두뇌개발을 섬세하게 신경쓴 내용과 편집이 돋보임.

이 추세라면 지금 20대도 현재 10대들에게 밀리겠고, 현 10대들도 아마 ... 물론 ”아니 댁말과 달리 요즘 애들 바보이던데요”라는 얘기도 맞는 말임. 중하위권은 더욱 더 뒤쳐지고 있으니까.

13.55 제가 느낀 10대 후반~20대 중반의 문제

2016.03.07

”경험”해보지 않고 남의 판단에 의존하려 한다.

재밌는 건 이른바 환락(술담배19금) 같은 건 하지 말라고 해도 잘만 하면서 수험에 있어서 참고서나 강의는 그냥 서슴없이 본인이 들어보고 평가해보는 등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데

경험해보지 않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는 케이스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 분야에서 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소비자들이 제정신이 아니니 돈을 팍팍 쓸 테니까요.

자기들이 부딪쳐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뭔가 창출해 볼 수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팀 단위로 과제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대부

분 맨땅에서 시작해야 할 것인데 부딪쳐보지 않고 계산하기만 해서 뭐가 좋을까... 우유부단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프리라이딩만 하기 딱 좋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결국 남이 시키거나 가르쳐주는 일만 하겠다는 이야기이겠죠.

웃지 못 할 현상이지만 인터넷 쇼핑이 그런다죠. 특정한 상품의 이미지와 평가를 보고 하앍... 하면서 구매해서 배송오길 기다림 상품 포장을 뜯을 때까지 행복함, 그런데 상품을 본인이 만져보고는 혼자타임, 그리고 그 상품은 훽 던져 둠. 소위 이미지와 평가에 중독된 '똑똑한 소비자'들의 자화상입니다.

50대 중반 이상 꼰대들이 뭐 이런저런 걸로 욕먹어도 절대 현재 젊은 세대들이 뭐라할 수 없는 게 저 세대 분들은 가방끈도 짧고 뭐해도 맨땅에 헤딩해서도 만들어낼 건 다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뭐가 좋냐... 그러기보다 직접 부딪쳐서 경험해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배워나갔기 때문에 황무지에서 나라를 일궈낸 것 이죠. 그러나 뭐 이건 저도 반성해야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주어져있을 건 다 주어져있으면 그 꼰대들보다 생산성이 높아야 하는데 정작 경험은 안 하고 평가가 어떻느냐... 그것만 보다가 아무 것도 안 함.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확실히 경쟁이 빡세지고 힘들어진 건 맞다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과연 시대탓이기만 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고난이도는 6.25 이후 폐허에서 시작한 노인 세대들이 최고지 지금은 그에 비하면 훨씬 낫다보이느데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화시키는 것 같아서 적자면 전반적으로 저렇단 것이지, 지금 10대 후반~20대 중반도 상위권은 예외입니다. 아래 언급한 미래준비자들의 특징이 강해서 학습 성취라거나 경험 스펙 쌓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아재 이거 환타지 쓰는 거지 뇌피셜이지 하면 '이 색기 정말 세상물정 하나도 모르는구나'라고 한숨이나 짹 내쉬어야죠. 학력보다 무서운 게 '제량할' 수도 없는 경험 스펙입니다. 부모들이 이것저것 다양하게 경험시켜주면서 자식들을 예비 정치가, 예비 CEO로 키우는 케이스는 거의 티가 안 나죠.

다른 이야기지만 대학교에서 수시나 지균리들이 학점이 잘 나온다.... 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보아야하는데 그럼 대학공부가 잘못된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죠. 대학공부야말로 사실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하거든요. 프리라이딩에다가 족 보빨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사회에서의 경쟁상황에서는 저건 사실상 허용되기 때문에 뭐라할 수도 없죠. 지금도 많은 수험생들이 책만 졸라 파서 좋은 대학만 가면 인생 필거야... 라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고, 대입 후에는 정말 공부 빼고도 온갖 음주가무부터 시작해서 잘 생기고 키도 훈칠하고 성격도 좋고 거기다가 정치에다가 사업까지 잘 할 것으로 보이는 애들이 넘친다는 것, 내가 수험만 죽어라했는데 저 녀석들은 수험 뿐만 아니라 저런 것조차 부모나 친척을 통해 견습받았다는 데에 아주 경악할 겁니다.

저런 경험 스펙을 이기기 위해선 본인들이 용기있게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것만 빼고 부딪치고 느껴보아야하는데 정작 현실은 하지말라는 건 하지 말라고 해도 경험하고, 해보아야하는 건 이런저런 평계를 대면서 멀리들하죠

13.56 정치적 낭만주의의 종말

2016.03.08

앞으로는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단지 '낭만주의'가 사라졌을 뿐이다.

그럼 낭만주의가 사라진 배경 : 가난

이런 가정을 해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전쟁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만 하고 내치에만 신경썼으면 낫지 않았을까. 독재자들은 뭐하려 그렇게 욕심을 부릴까, 현명한 의사결정으로 국민들도 부유하게 키워주면서 땅땅거려도 되지 않을까.

물론 독재자들도 바보는 아니다. 독재의 비결은 별 게 아니다. 피지배자들을 궁핍하고 무지하게 냅두는 것이다. 북한 독재가 오래가는 것도 막장독재를 했기 때문이다.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순진한 발상. 재들은 절대 인민들이 풍족해지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의식주가 충족돼야 '정치적인 욕망'이 생긴다.

대학 1학년 때 심리학개론에서 배우는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 그대로이다.

북한과 반대되는 경우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박정희 정권 말년이나 전두환 정권 때 민주화 운동이 나름 활발했던 건 역설적으로 저런 독재 체제에서 경제 발전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서 지금은 민주주의도 별 관심도 없고 정치에 대해서도 무관심에 수렴해가는 것은 사는 게 정말로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죽어라 공부해서 학점도 4점대 만들고 인턴질 해도 취업하기 어려운 2010년대 반면 적당히 시위에 참여만 하고 술먹고 연애질해도 과사무실에 제발 취업해달라 대기업에서 홍보하던 1990년대

독재자들이 일반적으로 막장 통치를 하는 건 저러한 사실을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어서이다. 아랫 것들을 궁핍하게 못 살게 하면 '앞가림'하는 데 바빠서 기어오르지 못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 독재자들이라고 하면 총칼만 떠오르기 쉽지만 실제로 그들은 '엘리트 문돌이'들이자 '낭만주의자'들. 어떤 언어를 구사해서 사람들을 휘어잡을지, 그리고 어떤 식의 책략을 써야할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독재자가 오래 해먹고 싶다면 좋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 김일성도 말글에는 한가닥하는 양반이고 폴포트도 그렇다, 정작 이 분야는 이공계 출신은 그리 많지는 않아보인다 –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 겉으로는 정치인들을 꾸짖고 이 나라가 부동산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는 지식인들조차도 자기 자녀들은 유학보내고 있고 그 자신도 부동산 게임에 골몰하는 데다가 대학에서 갑질하는 경우가 많다. (여담이지만 그런 지식인들이 대학등록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찾아보시길. 그

들의 진면목이다) 이제는 저성장 시대인 건 부인할 수 없고 어떻게든 판에서 살아남아야한다... 라고 해서 다들 착취에 몰두한다. 물론 착취당하는 젊은이들도 그 판에서 살아남아서 그 다음 젊은 세대들을 착취해서 그 빚을 갚아야지라고 계획 중일 것이다. 그럼 이 판이 뒤엎어질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같은 추상적인 원리가 현실에서는 사교육비 증가로 나타난다. '학생부 스펙'을 위한 사교육까지 창궐한다. 빚을 내더라도 순위 안에만 들면 나중에 갚을 수 있을 거이다라고 다들 기대를 한다. 단지 무서운 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폭락'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다수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참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은 '가난해져버린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 낭만주의를 버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세상이 바뀌어서 다들 아프리카 방송이나 게임 방송을 보고 해외 드라마를 시청하며 주말에 가끔 대형영화관 가는 세상인데 비싼 돈을 내고 자신들의 열정이 담긴 연극을 보라고 강요하는 꼴인데 이걸 누가 믿겠는가. 거기다가 그 정치적 메시지에는 실제로 중요한 사회의 "룰"을 제대로 고치는 건 없다.

그럼 룰의 개혁은 약자에게 유리한가. 이게 중요한 대목이다.

13.57 딜레마 : 진보는 강자들에게 유리하다.

2016.03.08

콕콕에서도 가정환경이 힘든 친구들과 적지않게 상담하는 편이다. 물론 내 경우는 잔인한 해답으로 충고를 해주지만 사실 그 뿐이다. 물질적인 지원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래도 나는 애들 위하는 척 하면서 장사는 안 하잖아"라고 얘기하겠고 사실 그 뿐이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2000년대에 벌어졌던 진보 실험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경고하지만 이걸 보고 '정치적 성향에 거부감 느낀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뒤로 가기를 놀려주길 바랄 뿐이다.

일반적으로 **진보가 서민에게 유리하다** 라고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엉터리이다. 사실 이런 간단한 거짓말을 다들 간파하지 못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 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특정한 메시지의 주입은 사람들의 사고를 마비시킨다는 중요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많은 청년들이 나중에 당황한다. 서민들이 진보를 지지하고 부자들은 보수를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서민들이 보수를 지지하고, 오히려 강남부자(특히 젊은 자제들)들이 진보에 호의적인 딜레마가 발생한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국개론을 펴거나 서민들이 우매해서라는 정신승리를 하기 시작한다, 참 한심한 이야기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 알지 않는가. 여태까지 모든 입시제도는 "교육의 진보"를 위해 변경되어왔다. 수시든 입학사정관제든 어떤 것 이든 표면적 명분은 좋았다. 아니 실제로 그것들이 정말 입안자들의 진심이 담겨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무의미해진다. 룰이 바뀌었을 때 빨리 적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이겠나?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겠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온갖 제도들조차도 똑똑하고 부유한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일이 벌어진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소수의 예라는 게 그나마 '입시경쟁'의 일정 부분 순기능이 있던 부와 지위의 세습 차단 효과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건 다들 알고 있다.

입시만 해도 이 정도인데 그럼 경제, 노동은 어찌겠나. 이건 내 성향이지만 내가 스스로 진보에 표를 던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런 진보적인 것 자체가 빈부격차를 벌이고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서민들을 더욱 노답으로 만든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파업 같은 것도 단지 대기업-노동자

의 틀만 강요하는데 실제로는 ”정규직”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머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들은 나가 죽으라고 하는 진심이라는 건 그리 알려져 있지 않다. 2000년대 당시야 그럴 리야 있겠느냐 하겠지만 지금은 어떤가,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았나.

현재 보수에 표를 던지는 서민들은 그런 데 정말 제대로 치여버린 사람들이 다. 그래서 룰이 가능하면 변경되지 않길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룰이 변경되어 버리면 서민들이 해왔던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다. 반면 정보력이 빠르며 제도나 법률을 악용하는 강자들일수록 더욱 해먹을 기회가 많아진다. 그래서 곁으로서는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진보를 추종하며 착한 척 하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뇌피셜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들은 절대 자기 것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교육제도로 돌아가보자. 돈없고 빼없는 학생들에게는 정시 확대야말로 최고다. 물론 돈있는 애들이 앞서나가는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시는 노력으로 커버칠 수 있는 영역이란 게 있다. 그러나 절대 힘있는 자들은 이걸 바꾸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공교육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서 절대 정시확대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빈익빈 부익부를 더 늘리는 건 자기들 알 바는 아니며 오히려 대학에서는 이런 걸 더 반길 수가 있다. 대학도 ’힘있고 부유한 학생’들이 입학하길 원하지 더 이상 개천 용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제도든 하다 못해 대중적인 교양서든 ”룰을 바꿀 때 차익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선 잘 소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번 사기당한다.

- 첫째는 공교육에 사기당한다.
- 둘째는 공교육이 기득권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정치적 낭만주의자들에게 사기당한다
- 셋째는 투자만 잘 하면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칭 투자의 달인들에게 사기당한다.

적어도 '속지만' 않는다면 공부의 성과는 특특히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13.58 인공지능

2016.03.09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로봇은 이제 변호사, 회계사, 금융 앤널리스트, 의사 등 전문직 영역까지 넘보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특히 방대한 양의 문서들이 오가는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더욱 기대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재판에 들어가기 전 수백, 수천장의 문서를 일일이 읽고, 새로운 사실관계를 찾아내 그에 맞게 서류를 다시 작성한다.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이 이를 대신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뿐 아니라 정확성 면에서도 사람을 능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미국의 신생 벤처기업 '주디카타(Judicata)'는 법리와 판례 등이 담긴 문서를 구조화된 정보로 바꿔주는 기술을 개발해 변호사들의 업무를 일부 대체하고 있다. '부당 해고를 당한 히스패닉계 동성애자 남성'에 관한 기존 판례를 모두 찾아줘 변호사가 도서관을 직접 가거나 검색하는 데 드는 막대한 시간을 절약해주는 식이다.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 잡글을 읽는 분들이 부딪칠 문제이니 각오하셔야하지 않을까

링크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ICT의 융합이 골자다. '인더스트리(Industry) 4.0'으로도 표현되며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제조업혁신 3.0 전략'과 개념이 비슷하다. 빅데이터, 인공지능(로봇),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스마트(smart)'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다. 기계들은 갈수록 똘똘해진다.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기계가 늘어난다. 자동화보다 기계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생산성은 더 높아진다. 사람의 손을 대체하는 기계도 빠르게 늘어난다. 4차 산업혁명은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정보기술(IT)은 물론 자동차, 바이오, 의료,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중추다. 디지털에 기반한 ‘자율주행 자동차’(무인 자동차)의 상용화시대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 분야 선두는 구글이다. 자동차 메이커가 아니라 인터넷 검색 업체가 무인 자동차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엔진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말해준다.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현대자동차 등 기존의 글로벌 자동차업체들도 무인 자동차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프트웨어 강자’가 혁신을 주도한다. 기계들이 서로 연결되다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은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변혁적 풍경이다. 가전제품·전자기기뿐 아니라 헬스케어, 원격진료,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기기)들이 서로 연결돼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에 맞춰 일을 처리한다. 냉장고가 주인 마음을 읽고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는 식이다. 영화 같은 얘기지만 인간의 현실로 하나둘씩 파고드는 기술이다. 사물인터넷은 초연결사회다. 인간이 인터넷을 통해 기계와 연결되고, 기계와 기계가 서로 연결되는 사회다. 스마트폰의 진화는 IoT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바꿀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기도 한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방대한 정보량, 엄청나게 다양한 정보형태, 초고속 전파속도, 새로운 가치 창출이다. 데이터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데이터가 바로 자본인 시대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앞서간다. 빅데이터는 인간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빅데이터의 대가 쇤베르크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인과관계에 집착하는 사고의 습관을 버리라”고 강조한다. 빅데이터가 어떤 지표나 성향을 보여주면 ‘왜’라는 데 지나치게 집착해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그 연관성을 빨리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야 인터넷이라는 게 정말 상용화될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1~2년 사이에 다 바뀌더군요. 사람들이 손바닥만한 것으로 영화를 보고 다니면서 화상통화한다... 뭐 이미 과거가 되어가고 있고

기사에서 드러난 인공지능은 이제 '상용화'를 앞둔 것이라고 하겠는데(대표적으로 무인자동차) 거두절미하고 이건 사람 vs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 vs 인공지능에 지배당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저기서 굵은 글씨 처리한 쉰베르크의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저렇다면 오히려 이공계 사람들이 더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단 이야기입니다. 이공계의 장점이 핵심만 찾아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건데 빅데이터 시대에는 그게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13.59 실패를 미리 경험해보라고 하는 어른들

2016.03.09

젊었을 적에 실패를 경험해보아야한다...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메신저들은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생각해보자면 소위 루저들은 이미 실패를 밥먹듯이 경험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루저라는 게 바뀌기는 한 것인가. 더군다나 금수저라고 일별되는 사람들이 정작 실패 경험은 적은 것은 무얼 이야기하는 걸까. 마리텔에서 뜬 다음 편의점에 온갖 사진이 도배되는 한 요식업체 경영자님도 왕년에 사업에 크게 실패했다고 하지만 집안 배경이 막강한 점을 본다면 이게 진짜 실패일까... 라는 점에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한번 실패한 다음에 그걸 수습하지 못하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 당사자를 계속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패턴이 혼하지 않나? 잘 나가던 사람이 한번 빼끗한 다음에는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도 어디든 가면 혼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상담이라는 걸 해주다보면 분명 상대방이 실패하는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상대방은 그게 망하는 길인줄도 모르고 있고, 무엇보다 그걸 고치라고 조언하면 화부터 내는 케이스도 없지 않아서

제대로 말해야지, ”일찍 실패를 겪어보되 그걸 제대로 수습하고 교훈을 얻어야만 자산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불편해진다. 10대들이 실패하는 경우 그럼 누가 수습하고 가르쳐줘야하나, 그건 부모님들이 아닌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자

녀에게 공부하라 이것저것 경험해보라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 사건 터졌을 때 수습해준다거나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실패를 위로하는 것 : 사실 위로야말로 가장 싸가지가 없는 짓이 아닌가. 왜냐면 위로는 **돈이 안 들거든**. 돈이 들지도 않고 뻔한 소리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위로의 순기능이다.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정말 물질적으로 돋거나 그 일을 해결하는 데 기여해주거나, 아니면 강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깔끔하다. 더군다나 실패한 애들이 '위로받는 쾌감'에 빠져버리면 그건 불행중독과 비슷한 루트를 밟아버리고야 만다. 젊었을 적 고생은 돈주고 산다... 라고 말이 들리면 일단 그 말을 어떤 어르신께서 하나봐야한다. 물론 메시지는 메신저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메시지의 진정성은 그 메신저로 결정된다.

남의 아이에게는 공부하지 말고 거리로 나가서 굴러봐라, 실패를 많이 해보라고 하는 상류층 인사가 자기 자식들도 과연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굴릴까. 하다 못해 고생시키는 경우라도 최악의 상태로 가지 않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지원해준다.

난 노오력주의자이긴 한데 무조건 노오력한다고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 말했지만 진보(?)를 혐오하는 건, 진보를 평계로 률을 바꿔 타인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지만. 불행중독자들나 실패중독자들은 노오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친구들은 잘못된 패턴 자체를 다 알아엎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잘못된 패턴이 어디서 비롯되었을 것 같나. 혹자는 이렇게 말하겠지, 성공에서 우러나온 자만심. 물론 그것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소설, 만화, 애니에 자주 나오는 것이라서 과장된 것 뿐이다. 일단 성공할 확률부터가 낮지 않나. 그보다는 아예 조명되지조차 않는 실패의 트라우마부터 언급하는 게 더 타당함에도 이건 얘기되지도 않는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번 실패한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는 성향도 강해지고, 냉정한 판단보다는 기도에 의존하게 되며 실패로 받은 상처가 한이 되어 감정적이 되기 쉬운데다가, 그 책임을 타인에

게 전가시키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젊은이들보고 고생해보라하는 노인분들은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주진 않는다.

꼰대들의 이야기도 가려 들을 건 가려 들어야한다. 그게 얼마나 간지나냐가 그런 걸로 따지면 안된다.

1. 그 사람이 돈을 내는가
2. 그 사람이 정말 실천해주는가

성인군자인 척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이먹고 추궁해보니까 반응이야 군이 적을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13.60 인공지능이 무서운 점.

2016.03.09

1. 나이를 먹지 않는다 – 즉 원칙적으로 수명이 무한정. 그에 비해 인간은 2~30년 교육시켜서 20년 굴리면 많이 굴리는 것이고 그 외는 사실 쓸모가 없어서리.
2. 감정이 없다 단점도 없지 않겠지만 사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인간의 감정 때문에 벌어지는 실패와 참사가 더 많은지라.
3. 욕심이 없다 뛰어난 인간은 욕심 때문에 다른 길로 빠지거나 사리사욕을 쟁기지만 인공지능이 그럴 일이 없다는 것.

이것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 적어보니까 그냥 '신' 아니면 '부처님'이네요. 수명 무한정이고 감정 문제가 안 겪고 무욕이니.

그런데 이걸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뺏는다, 즉 대체한다고만 보는 건 단순한 + - 셈법이 아닌가 싶은데. 여태까지는 인간+인간+인간+... + 인간인 덧셈식 발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인간 X 인공지능 : 이런 곱셈적 발상으로 가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인간}, 혹은 인간^x이라는 지수적 발상으로 가야하는 게 아닌가. 인간이 자기 영역을 뺏긴다기보다는 이제 새롭게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할 듯.

13.61 메이드 로봇의 꿈이 멀지 않았다.

2016.03.09

걷어차일 때 마음이 아프죠.

기계음이 나서 그렇지 만약 사람 스킨만 씌운다면야

4족 보행로봇입니다. '승마'의 개념이 좀 바뀔지도 모르죠

보다시피입니다.

일단 여기 결합되어야 하는 것은

- 3d 프린팅

- 양자 컴퓨터

까지 있어야합니다.

3d 프린팅이 상용화되지 않으면 로봇사회의 수급을 지탱할 수 없고, 양자 컴퓨터까지 가야만 인공지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

것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한 개인이 저런 로봇들을 부리며 더 많은 일을 해야하는 시대가 온다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13.62 인공지능처럼 공부하면 된다.

2016.03.11

인공지능처럼 공부하면 되죠.

1. 좋은 알고리즘을 갖춘다
2. 학습패턴을 늘린다(양치기)
3. 감정과 욕망을 자제한다
4.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
5. 아름답지 않더라도 이기는 길만 궁리한다.

그에 비해 인간은

1. 나쁜 알고리즘에 집착한다
2. 양치기를 피하려 한다.
3.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지 못 한다
4. 특정한 경우에 집착한다(특히 과거집착)
5. 아름답게 지는 방법에 도취한다

개인적으로는 알파고의 2연승을 지지하는 건데 이건 역설적으로 소위 머리 좋다고 해서 기득권 해먹으려는 사람을 '소박한 인공지능'이 제대로 엿먹인 케이스라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 말이 인공지능이지 실제로는 인지컴퓨터라고 보는 게 맞고 이 인공지능의 발전에는 '인지 과학'의 역할이 매우 큰데, 이건 신성화되고 신비주의화된 학습법을 과학화한 것 이죠.

인류 사회의 진보는 저 인공지능이 담당할 겁니다. 적어도 말도 안 되는 아래와 같은 핑계를 대진 않겠죠.

링크

그런데 문제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던 이상적인 것들 – 윤리, 아름다움, 진보 등을 정작 인간이 실천 못 하는 데 인공지능은 해버린다는 게 문제고 학습 역시 그렇습니다.

전에 수업시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웠을 때 강조되던 게 '학습'이었는데 이것이 원래 인간의 그것을 따온 것이라는 것.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인간이 했으면 왜 인간은 이걸 실천 못 하는 거야?"

13.63 인공지능 소녀 vs 아이돌

2016.03.11

vs

저 시대가 오면 아이돌도 끝장날 것 같은데(...) 참고로 저 인조인간 소녀는 파이브스타스토리즈의 발란쉐 파티마 휴트랑. 최약체 주인을 꼬셔서 강자와 승부하는 식으로 주인을 학대하는(...) 그 장면은 여기 <http://www.gearsonline.net/forum/viewtopic.php?t=1>

안 그래도 파이브스타스토리즈에는 현실 여성들이 저 파티마들을 극혐(질투)해서 신체 노출에다가 복장까지 온갖 규제를 다 하는 설정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남성 파티마도 없는 건 아닌데 웬지 비중이 적죠 물론 중 최강 기사가 파티마였더라하는 것. 링크

그런데 지금도 연재가 안 끝나기는 커녕 1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을 것 같은 게 더 공포인데과학 좋아하는 분들은 공부 안 되면 저 만화 소장해보시면 됩니다 (왜 빌려볼 수 없는지는 직접 보시면 아실 테고) 생각보다 꽤 심오한 작품이라서리(짜깁기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짜깁기도 참 예술적으로 해서) 투명드래곤 급 설정도 이렇게 말이 될 수가 있구나 생각되죠.

13.64 금융, 제조, 실업이 궁금하면

2016.03.12

ktbook.com 고교 교과서에 보면

링크 ([ㄱ ~ㄹ](#))

여기 가보면 다양한 서적들이 있는데

관심있는 몇 개의 교과서를 주문해보니 내용이 훌륭함. 사실 집필진들도 그 분야에서 내노라하는 분들입니다.

특목고로 분류되는 마이스터고야 이미 떴지만 공고 상고 등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현재까지는 학력이 낮아서 기피된다고 하지만 과거 외고의 선례로 보다시피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기성세대들도 '기술'이라도 익혀두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지 그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교과서 내용들이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에 비하면 사설인강들의 교재라는 건 사실 기출과 잡개념 짜깁기이고(...) 님들 배우는 국영수라는 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가위질당한 것이거나와 전체적

으로 하향되어온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메이커“의 시대로 가는 추세이죠. 인공지능이 위협하는 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인데 이 직업들의 공통점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속달시켜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이 정도 밖에 못 하고 사실 지금도 그 정도 밖에는 하지 못 합니다.

역설적으로 인공지능이 침해하지 못 하는 최후의 분야는 ’종교‘입니다. 왜냐면 종교는 비합리적이기 때문. 그건 ’제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걸 설계하고 제작한다는 것의 초기 과정 자체는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지금 실업계는 저평가되었죠.

다수의 2, 30대들이 자기를 명문대에 갔으니까 현재의 5, 60대들처럼 땡땡 거릴 시기가 언젠가 올거야라고 기대하는 건데 과연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지. 5, 60대야 고성장시대니까 자리가 많아서 문제였던 하지만 지금은 학벌 뿐만 아니라 ’빽‘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고, 꼬우면 자기가 창업하는 수 밖에 없는데 창업을 배운 적은 없잖습니까.

13.65 신용

2016.03.13

추한 것을 혐오하지 않는 자는 아름다운 것을 칭찬할 수 없고 나쁜 것을 증오하지 않는 자는 좋은 것을 사랑할 수 없으며 화내지 않는 자는 사실 싸우지 조차 못 한다.

나이 차먹으면서 소위 어른들 말씀이 얼마나 옳은가 그것도 검증해보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야“하는 것은 잘 가려듣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다. 저기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것은 적당히 눈치 보아서 ’굳이 싸울 필요 없는 것‘

은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 정도로 그쳐야지, 저걸 양비론적인 판단을 정당화하는 걸로 가거나 본인의 호불호를 버리는 걸로 가리는 말라는 이야기다.

말이라는 것도 그런데 인간관계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에 연연해야하는가, 아니면 인간관계가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약속을 저버리는가.

전자가 미학적으로도 그럴 듯 해보이지만 사실 '실리적'으로도 좋다는 판단이다. 상대에게 좋다고 해서 약속을 어기거나 싸바싸바하고 가면 상대가 결국 나를 우습게 보게 되어있다. 왜냐면 약속을 어기는 순간 그건 '신용'이 날라가는 것이고,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의 가치는 낮아지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도 소용없다, 그 사람이 신용이 없는 사람으면 언제든지 여포처럼 배신해먹을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냐 질문하는 데 사실 하나마나한 질문. 본인부터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일단 책임을 지는 자세를 지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며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칼같이 잘라버리거나 불이익을 주고 하는 것만 지키면 된다. 본인이 신용을 갖추면 모여드는 사람들도 신용있는 사람들이니 서로 협조해나갈 수가 있다. 반면 본인이 신용을 버리면 신용있는 사람들도 사라지고 신용없는 인간들끼리 모이니 서로 통수나 먹이게 되어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가족간에도 칼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가족관계 이기 때문에 신용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잘못된 통념이 퍼져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가 자식 통수를 때리고, 자식이 부모 통수를 먹이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가령 금전적 지원을 받는 n수생이면 공부만 하는 것이 신용을 지키는 일인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정반대로 자녀에게 뭔가 약속하고 그걸 어겨먹거나 그저 자녀를 체면의 도구로 보는 부모들도 많다.

신용을 지키리면 잘라버릴 건 잘라야 한다. 하다 못해 상대가 부모라고 할지라도 약속을 어기면 화를 내야 하고, 반면 자기가 약속을 어기면 그 대가는 치러야 한다. 여기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다간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추락해나가는 것이겠고 어그로 끌자면 지금 자기 처지가 개막장이

라고 하는 사람들, 아마 가족들도 신용이 있지도 않겠지만 본인도 과연 신용이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닐 것이다. 자기 길을 잘 가는 사람은 단순히 노력을 하는 케이스가 아니다, 말이 천금의 가치가 있는 사람, 즉 그 사람의 말이 법이나 다른 름없는 사람이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쳐지만 호소하는 사람이면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내 경우는 일단 멀리할지 않을까 싶은데 인정에 호소하지만 신용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인정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엿먹이기 좋고 실제로 많이 당해보았다. 자기가 얼마나 불우한가 비참한가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안 겪어 보았겠냐만 문제는 그래놓고 통수치는 경우가 많았단 것이다. 통수를 치지 않는 사람들은 반면 필요한 말만 하고 약속을 꼭 지킨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무섭다, 한마디가 법이니까. 하지만 어떤 친분을 강조한다고 해도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그 말이 결국 '거짓말'인데 내가 좋게 볼 수 있을 리가 없다.

이십대 후반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인정에 휩쓸렸고 참 많이도 얻어맞았는데 위와 같은 가치관대로 가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자를 사람은 잘라버리고 신용있는 사람에겐 조심하고 하니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갈등이 줄어들어 해피해졌다.

13.66 M갈리안 현상

2016.03.13

이른바 M갈리안 현상 – 한남충 비하라는 것에 충격을 먹는다거나 그것들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들이 순진하게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 (이런 남자들은 와타나베 준이치라는 의사이자 작가의 수필을 읽어보길 권함(통찰력이 꽤 좋은 사람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남자 ? 여자인 것 같지만 생존력, 공격력을 포괄해 소위 독하다라는 개념으로 치면 사실 남자는 여자에게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남자들은 카사노바가 아닌 한 꾸미거나 거짓말을 칠 줄 모른다, 이건 선량하기 보다는 무능에 가까운 개념, 그러나 여자들은 기본이 일단 자신을 꾸미고 보는 것이다. 거기다가 조직 차원으로 갔을 때 온갖 권모술수와 정보능력, 소위 정치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남자가 여자를 따라갈 수 없다.

M갈리안 현상은 '뭐 당연한 것 아냐'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게 일본 만화나 애니를 단속하고 게임을 공격한 YWCA 아줌마들에게서 이미 드러났다. 미용실 계모임(...)이야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엄마들이 주류일 수 밖에 없는 학부모 모임만 보아도 그렇다. 여자들이 결혼하고 엄마가 되면 모성애 때문에 지독한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원래 저게 **본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똑똑하냐를 알 수 있는데 월스트리트 금융 엘리트들을 능가하는 게 우리나라 복부인이라는 것을 아시나. 일선 여교사부터 어린이집 원장에다가 여교장, 거기다가 약사나 공무원 등이 밤새 부동산 토론하고 스터디하는 복부인 집단,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 집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규제법률이 결국 복부인들과의 싸움인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나면 폐미니즘은 참 공산주의만큼이나 허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잘 나가는 여자들이 폐미니즘에 관심이 있거나 신경쓰기조차 하느냐는 건 사실 의문, 학생 때야 좀 관심 갖지만 나중에 사회물 먹고 본격적 돈벌이하면 그런 때가 있었지... 라는 건 공산주의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오히려 불편한 진실은 진짜로 남녀평등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냥 '공격용 무기'로서 폐미니즘을 써먹으려 했다... 라는 건데 세상은 의외로 공평해서 여성들이 차별 받는 분야도 있지만 반면 남자들도 역차별받는 분야, 즉 여자들이 이득만 보는 분야도 많다. 물론 남자들이 자기가 이득보는 분야를 말하지 않듯, 여자들도 그런 걸 인정할 리가 없는 것이다.

원래 여자들이 남자보다 강하고 무섭다라는 건 여자들도 잘 알고 있다. 내색 하지 않는 것이고 그럼 결론 : 그냥 이런 걸 모르고 엄마가 해주는 밥이나 먹고 살아온 **마마보이** 남자들이 병신이다 그 이야기지.

거기다가 IMF 이후부터는 가부장주의가 한물가버린 데에다가 가정에서 남

자가 위축되는 게 두드러지고 엄마들 목소리가 커진다. 그걸 보고 자라는 아들 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봄직한데 그래서인가 연령대가 어려 질수록 여자애들은 정말 강해지는데 남자애들은 소심해지기 시작한다. 일종의 '섬세함'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남자애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 중에서 '희소한 마초'라고 할 수 있는 애들 – 즉 남자답고 씩씩한 경우는 10명 중 1명 꼴인데 역시 그 아버지가 권투나 격투기를 한다거나 정말 '형님' 소리가 나오는 그런 산적같은 분이더라.... 는 케이스.

물론 이런 글의 진 취지는 "그러니까 남자들이나 자기 일이나 잘 하고 능력과 힘을 키우자"가 되는데 꼭 이런 글 보면 '너 여깄이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자들이 살기 어려운 줄 알아'라는 시비가 걸리곤 하는데 나야 뭐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그럼 실천하거나 살기 좋은 곳으로 이민 가세용'이라고 하거나 '오전 시간 대 스타벅스나 백화점 가면 돈 쓰는 건 누구게웃'이라고 얘기하면 그만. (냉정히 말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여자들에게 천국인 곳이고, 남자들이 월급통장 맡기는 경우도 참 유례없을 텐데)

그리고 애초에 남자가 여자랑 논쟁하는 것도 참 쓸데없는 짓이다. 논쟁해서 결론이 날 것 같냐 하면 절대 아님. 논쟁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지향하는 바가 그냥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평행선을 그을 뿐. 남자로서 다른 남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건 '대화가 주제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는 과감히 컷하라'하는 것만 권하는 것일 뿐. 가령 탕수육 논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떡볶이로 바뀐다거나 우리가 어디서 탕수육 먹었나느냐하는 걸로 싸움질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우주의 온갖 삼라만상을 논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13.67 인공지능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

2016.03.14

인공지능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것 : 우리가 이미 전기로 돌아가는 기계문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특히 컴퓨터 없이는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

해졌다라는 기본적인 현상조차 망각하고 있다.

인공지능보다도 더 현존하는 위험은 바로 원자력 발전소, 하지만 그 덕분에 저렴한 전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인공지능이 법조인, 의료인, 교사를 대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공리공론 나열할 바 없이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된다.

ⓐ 기능 : 적어도 지금 추세로 보자면 인공지능이 훨씬 낫다라는 걸 부인 할 수 없다.

ⓑ 비용 : 당연히 인공지능이 낫다

ⓒ 윤리 :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자동차도 타지 말고 인류를 위협하는 원자력부터 날리고 밤에 호롱불 밝히면 된다 .

여러가지 관점에서 검토해보자면 대체는 확정적이다. 물론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통제하며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의 '집단지성'에 의존하고 있지 않나, 뭘 해도 빡하면 검색질해서 그걸로 대답하는 시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깨닫는 건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다. 하다 못해 강의도 무조건 현강으로 들어야지, 고작 강의를 녹음 한 인강으로 감히 배속수 조절하는 것부터가 문제있는 게 아닌가?

즉,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뭘 일자리를 잃느니 아우성치는지 모르겠다. 물론 해당 전문직은 매우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값싸게 애용하는 농산물과 공산품도 '자동화'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의 한숨이 담겨있지 않나.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건 그런 분야를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나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의 그런 속도가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지구촌이 될 수도 없고,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기도 힘들어진다.

어제 이세돌이 첫승을 거둔 것은 매우 뜻깊어졌다. ”이미 대단해진 인공지능을 한번 이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알파고가 3승하면서 이미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세돌의 첫승은 ‘이미 인공지능이 우월해졌다’라는 걸 전제하는 셈이 된다. 인공지능이 반신(半神)으로 격상된 것이다.

그래도 인간이 잘하는 것은 그거 아닌가, 바로 학습과 적응. 인공지능이 우월해서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거기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던 게 있지 않나? 지구가 이 모야 이 꼴이 되고 인류멸망의 가속이 촉진된 것은 바로 인간이 지구의 실질적 지배자가 된 이후라는 것. 다시 말해 인간이 그냥 인공지능의 말을 충실히 따르며 보좌한다면 그 인류멸망의 주범인 인간=주인이란 전제가 무너진다는 얘기다. 물론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것도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덕분에 지금 예정된 암울한 시나리오가 수정될 수는 있는 것이다.

13.68 금수저의 시대

2016.03.16

오늘 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의 이력서를 보건대 거참, 자녀 이력을 그럴싸하게 만드는 모범적인 교과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겠더군요. 더 소름끼칠 것도 없는 건 본인이 금수저인데 흙수저 문제에 공감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건데.

정작 흙수저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느라 정신없는데 본인들이 금수저이거나 금수저에 가까운 사람들이 흙수저를 살려야한다고 말하고 있죠. 서민 복

지를 확충해야 한다거나 하는 사람이 알고보니 기득권이라는 건 지겨운 패턴이라서리. 실제로 입시전형이 다양화되면서 간접적으로 음서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금수저의 시대가 터진 것인데 여전히 바보들은 일제 잔재가 청산이 안 되었다거나 이게 군사정권 독재 때문이다라고 혗진단을 하고 있죠. 그 음서제 용인이 2000년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2000년대에 터졌던 교육과 부동산 문제가 바로 2010년대의 수저론으로 지적되고 있죠.

일제잔재청산이나 군사독재비판은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것이 현안과 큰 관계가 있을지는 의문. 그러나 정작 지금의 문제와 관계없는 과거사 언급이란 오히려 '현안'을 은폐하기 위한 고도의 공작인 경우가 많죠. 부동산과 교육에서 기득권 챙긴 자칭 진보인사께서 군사독재를 비판해서 여론을 거기에만 골몰하게 하면 자기가 공격받는 일을 피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 기득권이 공격받으면 '너 친일파지?'라고 받아쳐서 문제의 핵심을 흐리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들 속아넘어갔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일제잔재와 수시입학 비중은 정말 1:1000의 문제입니다. 일제잔재의 경우는 청산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 잔재가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요. (엄밀히 말하면 1945년 이후 대한민국시스템이 그냥 일제가 남기고 간 시스템을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것일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수시입학 비율은 사회적 계급을 결정한 문제고 이건 학업성취와 독립적으로 말하면 부의 세습 비중을 늘려줍니다. 정시도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건 마찬가지이겠지만 적어도 '기회의 평등' 면에선 달라집니다요.

이 경우 그 위선자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위선자들에게 속아넘어간 대중이 문제인지... 답하기 곤란하겠지만. 결국 그 대가는 **대중들이 치릅니다**.

13.69 그 분들도 피해자들입니다

2016.03.17

<http://m.cafe.naver.com/sayalang/1612>

그 분들이 또 일을 저지르신 모양. 그 한심한 분란짓에 대한 답변이 매우 훌륭한지라.

우리나라 남자들도 하는 짓이 하도 막장짓이 많기 한데 – 3만 코피노, 소위 '영업'이라고 뺏치는 접대, 가정폭력 – 문제는 소위 '미러링'이라고 평계대는 걸로 해서 똑같은 폭력을 저지른단 것임.

그런데 알고보면 저 분들도 알고보면 피해자들임, 일단 남성우월주의나 가부장주의를 극복하자는 건 좋은데 그 윗 선배들이 주창한 폐미니즘에는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방법은 전혀 나와있지 않죠.

이건 희대의 떡밥쟁이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똑같습니다. 자본론에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여겨볼만한 중요한 설명들이 있죠. 그런데 그 '공산주의' 사회를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할 건데라는 말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세계의 절반 정도가 정말 50년동안 삽질을 하며 살아야했죠.

폐미니즘 책들을 읽어보면 나름 그럴 듯한 개념들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라는 말은 나와있지 않죠. 아무리 정교한 이론도 결국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많이 퍼줘야한다"로 귀결된다라고 해도 지나친 얘기가 아닙니다. 백마디 말보다도 여성들끼리 어떻게 해서 기존의 남성우월주의나 가부장주의와는 다른 대안이 가능한지 보여줬어야죠.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이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방법이 나오지 않은 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되었죠? 현실에서의 모순이 발생하면 그걸 해결하긴 커녕, 정치적 탄압과 숙청을 일삼았죠. 그나마 소련과 중국은 뒤늦게 개방이라도 했는데 북한은 결국 주체사상이라는 희대의 사이비 종교국가로 가서 뻃뜯고 있게 되죠. 그 공산주의를 "어떻게" 구현할지 마르크스는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요 양반

도 글빨만 좋았지 직접 땀흘리고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씰씰이가 해픈 금수저였죠. 게다가 친구 앵겔스가 보내주는 생활비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죠. 가정부를 범해서 사생아 낳고 입양보낸 것도 흑역사고.

실제로 페미니즘 투사들이란 사람들도 '싸우는' 건 좋지만 과연 실천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는지 가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에 감화받으신 건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대안이 없으니 이 분들도 인터넷 폭력으로 가는 것이죠. 분명 페미니즘 사상이 맞는 것 같은데 **대안은 없다** → 이게 다 **한남충과 거기에 의존하는 여자들 때문이다** → 혁명! 2000년대초인가 페미니즘이 등장했을 때 괜히 까인 게 아닙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마초의 곡해나 탄압으로 보였겠지만. 문제점 비판은 좋다 그건데 그래서 '그 좋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하는 대안이 없으면, 이건 폭력을 정당화하는 선동에 불과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헬조선인들이 천조국을 빠는지 알아봅시다. 단지 이게 헬조선이 조그만 반도국이고 천조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경찰국가라서 그런가요?

헬조선은 입으로만 떠들지 실천은 못 합니다. 어른이고 아이이고 목소리는 큅니다, 비판은 그럴싸하게 해요. 그러나 직접 나서는 거물은 없습니다, 외려 비판만 하면 되지 대안을 왜 요구하냐라고 화를 냅니다. 천조국은 그들의 200년 역사를 보면 항상 실천이 따라옵니다. 공부 이전에 일단 '일'을 하라고 하며 노동의 중요성을 설파하죠. 이들은 그 노동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바꿔나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0년 이후에 전세계를 사실상 지배합니다요.

물론 중국과 일본에 끼인 신세와 드넓은 아메리카 대륙이 펼쳐진 상황이니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 가치관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관리'(혹은 대기업 사원)가 되는 마인드를 깔고 갑니다. 그에 비해 미국의 대학은 학생이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모님들 마인드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들어가

승진하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그런 조언이 먹히나요?

중국에는 문혁 세대, 일본에는 전공투 세대, 그리고 한국은 386 세대. 현재의 결과는 좀 다르지만 공통점은 '대안 없는 메시지'에 혼혹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생각하던 이상향이라는 건 허구에 불과했으며 그들 스스로가 젊은 날의 자신을 '배신'합니다. 바꿔 말하면 철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초기 폐미니스트들이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저런 피해자들이 양산되진 않았겠죠. 요즘 저 분들 하는 행동에 말이 많은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사그라듭니다. 그 분들이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리. 문제는 그동안 낭비한 시간을 보상받을 수가 있겠냐는 건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불편한 대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를 담당하는 여성고객에서 저분들이 차지하는 지분이 크다는 것인데. 소비자로서는 그렇다 치고 그럼 '생산자'로서는 어떻느냐고 물어본다면 여기서 모순이 생기죠. 소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장려되어야하는 것이죠, 단 전제는 그 소비자는 경제 시스템에서 '생산자'여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소비는 생산에 비해서 과도한 편입니다. 이런 모순을 결국 **"능력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걸로 해소하려 하죠**. 초기 폐미니즘은 이런 결혼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는데, 요즘 문제되는 그 분들은 **'돈없고 키작은 한남충'**을 까지 돈많은 남자를 비난하진 않습니다(물론 이혼이나 결별시에 적지않은 위자료를 뜯어내고 재산분할한다는 걸 전제하죠) 그런데... 이게 발상만 그렇지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철없는 대머리 아재가 2d 미소녀와 현실 미연시를 한다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저 분들을 이용해먹는 드라마 작가나 업자들이겠습니다만.... 이건 나이먹고 나서야 다들 깨달으실테고.

13.70 먹방이 뜨기 시작한 이유

2016.03.18

과거 90년대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소설 동의보감(드라마 허준), 한 권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등이 대박난 적이 있다. 그에 대한 출판시장의 분석은 명료했다고 알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미친 듯이 일하면서 소득이 늘어서 여유가 생기고보니까 ”자존심”과 ”정체성” 문제에 대한 욕망이 생겼다는 것.

하지만 요즘은 저런 민족주의나 국뽕이 안 먹힌다. 이제는 먹고살기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뜬 것이 ’먹방’이다. 김준현이나 이국주 같은 푸짐해보이는 연예인들이 인기를 모은 것도, 각종 배우들의 연기에서 ’먹방’이 필수요소가 된 것도,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이 뜨기 시작한 것도 그렇다. 과거보다 가난해지고 배고프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품위나 자존심은 살리고 싶다 여기서 먹방이나 소위 요리/셰프쇼만한 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들은 정신이 순수한 독립적인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다.

수험서로 돌아가보아도 그렇다. 도저히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 맞나... 하는 책이 역설적으로 많이 팔린다. 사실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건 품질과 관계없는 경우도 있느냐는데 그래도 합리적인 이유를 알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안단물부터 시작해 검증 안 된 암치료제들도 많이 팔린다는 것, 특히 ”부적”이라는 것은 고가에 팔린다는 것에 비춰보면 이런 현상은 가볍게 설명된다. 아, 지금 수험생들은 정말 불안하구나. 그러나 서점에서는 원래는 부적을 팔지 않잖아, 그러므로 부적을 대용하는 뭔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그런 부적을 파는 사람들은 적절한 시점의 교주 코스프레도 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부적들은 너무 위대한 나머지 효능을 보는 사람도 선택해준다. 공부 잘 하는 사람들만 선택해주는 신묘한 부적들)

개인적 의식이든 집단적 의식이든 정말 사소해보이는 것 – 즉 물질적인 것

에 거의 좌우된다고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능력에 비해 돈이 많이 벌리는 사람들은 거만해진다. 능력에 비해 돈이 적게 벌리는 사람들은 환병을 앓거나 겸손해지거나 그 중 하나다.

수험에서 정신론만큼 허망한 것도 없는 이유다.

13.71 그들이 원한 건 평등이 아님.

2016.03.18

말하지만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95%는 "우월"을 요구한다고 보면 된다.

이런 논리가 평등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역사적 사례를 보면 적어도 20세기 후반부터는 평등을 요구한 결과가 역차별을 낳는 '우월주의'인 경우가 왕왕 보임.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임. 그리고 이건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구분하면서 뭐가 같고 다른지 세세히 따지면 끝도 없는데 이런 복잡한 것을 생략하고 무조건 '같게'라고 하는 건 그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임. 가령 10년 죽어라 공부한 사람과 10년 논 사람은 똑같이 명문대에 입학시키자하는 게 평등이라고 볼 수는 없음.

모처에서 '민주화'라는 것이 비추기능로 쓰이는 데 이 유래가 되는 걸 목격한 적이 있죠. 이x루스에서 현재 여당을 지지하는 모 블로거 글이 계속 차단, 삭제당했음. 사실 삭제당할 이유도 없는 합리적인 논거의 글이어서 그 신고자에 대한 비난이 있었는데 변명이 가관이었음

"민주화를 위해서입니다"

그 이후로 민주화라는 게 그런 식의 내로남불을 비아냥대는 표현으로 쓰이

기 시작했죠.

한국사회도 저런 민주주의적인 이념을 평계로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하거나 이득을 누리는 케이스가 적잖게 많고 본인이 남을 부양할 필요가 없는 학생 시절에나 왜 그런 것을 까느냐 민주주의 시민이라면 관용으로 이해해줘야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정작 자기가 책임을 져야할 나이가 되면 바로 **우회전**해버리고 말지요. 그 때부터는 아무 것도 안 하고 민주주의를 평계로 남의 피 뺏아먹는 존재가 확실히 느껴지니까.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자기가 ~ 할 테이니 ~ 하지 않느냐 하는데 제 답변은 간단함. 미래형으로 얘기하지말고 현재완료형이나 현재형으로 얘기했으면 좋다는 것임. 다시 말해 입으로만 어찌구 하지말고 본인들이 그에 필요한 것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함, 평소에 정의 어찌구 하는 사람이 다 자기 돈 걸리면 그 때는 짹 입장 바꿈.

이번에 M갈리안이 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씹치남이니 갓양남이니 그런 거야 알 바는 아니지만 하지만 데이트를 하건 뭘 하건 자기가 먹은 밥값을 자기가 내는 게 당연한 건이 아닌가 하는 지적은 해야겠음. 그게 거지근성이지 그럼 뭘 잘 했다고 그러나. 말로만 평등하지 말고 자기몫은 자기가 책임지시면 됩니당. 물론 남자가 밥값을 다 낼 수는 있는데, 적어도 더치페이파들은 남자가 사주면 고마워하지만 더치페이하지말자파는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건 인간성과 가정교육에서 강 문제가 있는 것임.

복지 문제도 그런데 이거 증세해야한다고 하면서 님들 세금 거둔다고 하니까 짹 입장 바꾼 모 사이트 사례도 있어요. 상위 10% 증세해야한다고 했는데 월 200 이상이 상위 10%에 해당한다고 하는 걸 뒤늦게 알고 입을 다물어버린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런 것도 모르고 북유럽식 복지 주장했다는 이야기인데, 남의 선동이나 받아쓰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버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우리나라가 너무 인터넷이 잘 보급되어서 행동 이전에 키보드를 두들기길 좋아서 그러는데 평등이 어찌고 소수자의 인권 어찌구 하는 사람들이 정말 길

바닥에서 고생 직살나게 하고 돈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하면 진짜 소신 있는 영웅캐릭터 빼고 나머지는 짹 돌아서버릴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인터넷에서 몽상주의적인 이야기하는 애들 보면 '아 애들은 고생 안 해보았구나'라고 추론해도 별로 틀리는 게 없어요. 본인들이 정말 독립해서 자기 수명 깎은 돈으로 밥벌이하는 사람들은 저런 주장 안 합니다.

요즘와서 엽기범죄에다가 그냥 집단적으로 맛이 가는 사례가 왜 생겼냐 해보니 저 '민주화'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다는 걸 나쁘다,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꾸짖을 건 따끔하게 꾸짖어야하는데 그걸 지적하는 순간 '혐오'라느니 '차별'이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흐지부지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걸 떠나서 이제 민감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내가 묻고 싶음.

1. 의대에 가서 인술을 베풀고 봉사하고 살고 싶어요

이거 전에 소감문으로 지겹게 들었음. 그 분들 어디 가시나. 그냥 수도없이 접하는 사례는 다 돈을 어떻게 버나 고민하는 케이스던데. 따라서 거짓말.

2. 이제 여성이 주도하는 화목한 가정.

이게 가장 궁금함, 한번도 못 보았기 때문임. 물론 그 분들 말로는 여자가 돈을 벌어주고 남자가 가정에서 일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작 그럴 능력을 갖춘 여자들은 자기보다 더 능력이 좋은 남자들과 결혼하심(...). 그래서 저런 사례가 생기는 경우는 남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인데 이 경우 남자는 이혼위기에 처해짐(...) 아니 뭐 결혼부터가 이미 남자는 2억 집해오고 여자는 3천만원 혼수해오면 장땡인 시대임, 강 '거짓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접해본 가정들은 잘 돌아가는 경우는 유감스럽지만 남자가 더 능력이 좋은 '보수적인 가정'이었습니다.

3. 불체자들이 한국에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그 고통스러운 한국으로 불법으로 들어오시나, 가장 이해가 안 가고 있음. 게다가 그 고통을 겪는다는 분들께서 수원역 앞 정육점(...) 앞에 주말이면 줄서고 계시고 로데오거리에서 여학생들에게 수작거는 건 아시나. 명목상 저임금이지만 본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벼는 수준으로 벌어가고 있음 이 분들께선. 거기다가 결혼전략으로 다문화가정 하면 또 쏠솔한 지원금 받으심 그러므로 이와 관한 이야기도 거짓말. 고통 겪는다면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시면 되잖아(...)

4. 우리나라는 서울대가 문제

'댁 자식이 서울대에 합격해도 취소시키겠군요'라고 하면 어떤 답변이 나올까 대학교에서 일하는 강사나 교수들은 등록금 문제에는 침묵함, 그렇게 기득권 까대던 분들이 자기 자식이 서울대에 가거나 자녀가 판검사급이 되면 짹 침묵한다는 걸 발견함. 그리고 그 때 대는 평계 : "난 실제로는 보수적인 자유주의자였습니다"

...

쓰다보니 거짓말쟁이들이 짜증나서 더 적기도 그렇고. 아무튼 입으로만 ~ 하겠다, ~ 할 테니 대우받고 싶다... 라는 건 일단 양 무시함. 모든 미래형은 처음부터 거짓말임, 즉 그걸 실천해야 참말이 되는 거지 실천 안 하는 이상 거짓말인 것임. 콕콕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겠다 - 이거 일단 거짓말부터 한 것임, 본인들이 열심히 해야 비로소 거짓말쟁이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키배를 뜨건 소통을 하건 상대가 ”저 ~ 할 거거든요”라고 하면 한숨부터. ~ 할 게 아니라 **당장 하면 되잖아**.

사람답게 대우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그에 부합하는 일을 하든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일텐데 부모님이 자꾸만 제 꿈을 가로막아요... 라고 할 자격은 일단 자기가 죽어라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전제하는 것일텐데 기본적으로는 세끼 밥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이상은 발언권은 양 없다고 보는 게 명확할 것임.

13.72 목소리만 내면 뭔 소용이 있나.

2016.03.23

1. 드라마나 영화에서 '선역'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실생활에서는 악역인 경우가 있다. xxx가 실생활에서 개차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xxx가 착한 주인공을 연기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더 중요한 사실은 xxx도 입으로는 나쁜 놈을 깡을 거란 이야기다.
2. 최근 뉴스에서 아이를 남몰래 죽이거나 버린 부모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도 역시 다른 뉴스나 드라마에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못 살게 구는 타인의 소식에 혀를 차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이들 역시 악인을 비판했을 것이다.
3. 자기가 을(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헬조선은 왜 젊은이들을 못 살게 구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사실 이들이 얘기하는 건 별로 믿을 필요가 없다. 정작 그들이 갑(甲)이 되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때 기성세대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10년 지나고 보니 더 해먹더라는 게 현실이다.

4.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이 아이와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하던 사람들이 체벌이 줄어든 이후 학생들끼리 폭행을 넘어 엽기범죄까지 저지르는데다가 일진놀이를 하는 데에는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뭐 이런 분야 운동가들이 알고보니 자기가 사적 영역에서 은밀한 폭력에 중독되어있더라고 까발겨진 경우도 적지 않다.
5. 다시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를 하면 – 작중에서 분명 작가는 주인공의 입을 빌려 돈만 아는 세상을 비난한다. 그런데 정작 뉴스 등을 통해 확인해 보면 그런 작가들은 엄청난 인세를 챙기고 있다. 황금만능주의를 까면서도 '거액'을 벌어도 되는구나... 그런데 이렇다면 까일 대상은 없지 않나?

쓰다보면 참 끝도 없을 것 같다. 어린 시절에는 착하게 살아라, 인간성이 좋아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난 이렇게 반박했다. "지금은 나쁘게 살래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착해지면 되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한 말이지만 저게 정답이었다. 그리고 내 말을 내가 배신했다가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했다. 정말로 사람 말을 믿고 착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의심'을 안 했다가 데였거든. 그리고 인간성 타령하던 어르신들은 종적을 확인해보니 인간성이 좋은 커녕 막장의 행보를 보여주더라는 현실.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건 '문서'와 '공부'다.

업자들은 말과 행동의 괴리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거짓말을 하는 걸 당연시 한다. 업자들의 권력을 호구들의 무지에서 나온다. 호구들은 말과 행동이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호구들은 3년간 정치인들이 병신짓을 하다가 막판에 쇼를 하면 거기 감동해버린다. 반면 업자들은 정치인들이 3년간 잘 하더라도 막판에 쇼를 하는 순간 '너 불합격'이라고 매겨버린다.

한가지 예만 들어도 그렇다, 피라미드 계통 장삿꾼이든 영업맨들은 '인간미'에 호소하는 전략을 편다. 영업맨들과 대화나누는 호구들은 물건을 사지 않으면

미안해서라도 거액의 돈을 쓰게 되지만 업자들도 씨익 웃다가도 막판에 '곤란합니다, 지금은 바쁘니 다음에 얘기하죠'라고 차단해버린다. 설명을 신나게 듣지만 정작 물건과 서비스의 품질은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진보적 메시지야말로 더 많은 호구들을 늘리는 짓이다. 사실 사회가 진보하는 해답은 여기에 있다. '메시지'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된다. 정치인이 뭐라고 치장하던 개무시하고, 그가 여태까지 실제로 뭘 달성해왔나 어떤 문제해결을 했나 그것만 따지면 된다.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정치인들의 주가를 신경쓰면 그게 무서워서라도 정치인들을 일을 열심히 하고 딴 짓을 안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나, 선거철만 되면 프로야구경기처럼 패갈라 싸우다가 선거 끝나면 늘 통수에 당한다.

현재 20대들이 헬조선이라 힘들다 한다. 뭐 다 각자 힘든 건 마찬가지이겠지만 중요한 건 어차피 이들이 소리쳐보았자 그건 무시당할 거란 사실이다. 왜냐면 순전히 메시지에 불과하니까. 사회 전체는 이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실천이 없는 메시지'는 그냥 무시해 버리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고발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던 순진한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현 시대는 고발을 해도 바로 '명예훼손'으로 맞받아칠 수 있다. 네티즌들이 거기에 동요되어보았자 한 일주일 정도만 공격질하다가 질려버린다. 떡밥이 사라지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모 드라마로 모 지역 범죄 사건으로 당시 가해자들을 응징하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어땠나? 알파고 떡밥에 끝나버려지.

13.73 질적 교육

2016.03.24

1. 천재로 태어났는데 정글에서 자랐다
2. 평범하게 태어났는데 영재교육을 받았다.

둘의 결과는 어떨까 가정하면 끝나는 일이라서리. 물론 유전은 무시 못 하죠. 뇌가 문제가 있으면 나이먹어도 유아 수준에 머무르니까. 1번은 선천적으로 동물적 감각이 뛰어나면 정글에서 생존왕으로 살아남겠지요. 그런데 '문명적인 것'은 유전적인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이미지 프레임 하나를 처리할 때 열가지 이상을 동시에 떠올린다거나 손으로 써서 계산해야하는 것을 암산으로 끝내버린다거나 하나의 명제를 보면 그와 관련있는 일곱가지 이상의 명제를 떠올려서 바로 개요를 짤 수 있는 것은 분명 교육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현행 교육과정에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서리. 공교육의 목표는 호구를 키우는 것이지 천재를 키우는 게 아니죠.

이 문제는 일찌감치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한다.... 라고 얘기하죠. 늘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라고 질문하면 답을 못 합니다. 그렇다고 어떻게가 답이 없는 건 아니지요. 그냥 어른들이 하는 과정을 적당히 요약하면서 뭔가 만드는 과제 던져주고 팀을 가르쳐주고 두뇌를 단련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런 것들은 드는 비용이 매우 큽니다.

이래서 파더마더 쉴드가 참 중요한데 – 부모가 애초에 지적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태어난다면 사실상 그 분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물론 부모가 지적수준이 높아도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으면 결과는 기대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이 이게 명백히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 고대 : 선택된 왕족과 귀족만 제대로 교육받았습니다.
- 중세 : 종교인과 상공업자들까지 확장
- 근대 : 일부 노동자들에게까지 확장
- 현대 : 여성과 포함해 모든 사람까지 적용

사회진보의 척도는 교육 대상의 확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만큼 '격차'라는 것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신분제가 합리적(?)이었을 수도 있는 이유는 특권계층이 교육을 독점했으므로 능력과 문화를 그들이 책임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질은 왕족만 갖고 있다라고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교육을 그들이 독점했으니까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교육을 다 없애버리고 강남애들만 교육받는 것이 10년 이상 이어지면 사회의 모든 중책을 강남 애들이 해먹고 나머지는 그냥 잉여질이나 하고 살자라는 걸로 체념해버리겠죠.

다만 교육의 양적인 면은 확대되었어도 과연 질적 수준까지는 담보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닐 것입니다. 저기서 질적이란 말이 중요하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을 대거 받아들이자... '양적 인구'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질적 인구'라는 점에서는 아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은 자식을 천재로 만드는 질적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거기까지는 책임지지 못 하죠. 교육과 복지는 (최저 수준)이란 수식어가 교묘히 숨어있으니까요.

13.74 인공지능이 나왔으니 공부를 안 해도 된다?

2016.03.25

역사의 진보란 교육받는 객체의 확대입니다.

20세기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교육의 권리를 받는다면 21세기는 이제 사람을 제외한 동식물부터 인공지능까지 교육받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귀족이 아니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여러분들이 두들기는 컴퓨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노예였음. 그 때에는 교육이 즉 계급이었습니다. 노예나 노비들이 들고 일어나보았자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아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니다요. 아는 게 없으니까 소통할 수 없고, 소통하지 못 하니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가 교육받는 세상입니다(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터넷 활동으로 인공지능을 키워주고 있는 셈) 이제는 인간이 안 하면 인간취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직 죽는다 어쩐다 해도 ”해당 직무의 인공지능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 자”로 수정하면 그만입니다(...) 언론에서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한다는 것의 전제가 ’일반인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즉 접근권의 보편성인데 그럴 리는 없잖습니까.

13.75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경우는 불길하다.

2016.03.27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다짐도 빨주노초파남보로 분리되는 햇빛처럼 분리해보아야한다.

정말로 잘 하고 있는데 겸손을 가장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리치기 슬럼프였는데 그걸 극복하고 공부하는 맛을 알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짐하기

그런데 이건 5%도 될까말까하고

대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궁지’에 몰렸을 때 하는 말이다. 정말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한다라는 말은 별로 안 한다. ”힘들어죽겠다”, ”피곤하다”, ”더 편한 길이 없느냐” 이러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오력 해보았자 소용없다는 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금수저 때문에? 아니면 기득권층이 워낙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 그 사람이 노답이라는 얘기다. 그 사람은 그저 인터넷과 매스컴이 떠드는대로 반복하는 앵무새이니까.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면 마찬가지로

상속으로 거지가 된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횡재의 기회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돈을 많이 버는 경우는 일종의 '곱셈 효과'로써 성공한 것인데 이건 누구에게나 분명 기회는 오게 되어 있다. 거기다가 나중에 논하겠지만 '곱셈'은 "같은 덧셈의 반복"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오력만 해서 힘든 이유는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은 "머리"로 돈을 벌기 때문이다. 노력보다는 않고 머리를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조정한다. 이들과 대적... 아니면 모방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결국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즉, 단순 노오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다. 그렇게 머리를 쓰기 위한 더 색다른 '학습'을 해야한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혁명한 수험생이라면 자기가 변절할 거라는 현실을 미리 인정할 것이다. 자기가 극단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놀아제끼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즉 학습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사실 입으로만 떠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저 자신을 학대하다보면 공부가 되는 걸로 '착각' 한다(그거야 공부를 안 해보았으니까, 아니 뭐라도 성사시켜본 적이 없으니) 정 말로 실무적인 사람이라면 죄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부터 찾아서 시스템을 만든다. 어디에 진지를 구축해야 유리한가, 그리고 무기나 식량은 다 잘 되어있는가, 병사들의 사기는 괜찮고 앞으로 날씨는 어떤가. 그렇게 하면서 가능하면 손실을 접게 입는 지구전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이런 걸 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그냥 '우라' 돌격하다가 고기방패되는 경우나 다를 바 없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실패하는 패턴을 수험에서 만 반복해먹는 게 아니란 것이다.

13.76 만우절 기념 폭론

2016.04.01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13.77 스포츠와 게임

2016.04.01

최소한의 운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면 '균형' 때문입니다.

우선 현대문명이 편리해졌다라는 건 프로세스 컷, 혹은 행위 삭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사려 직접 상점에 가서 고르고 결제한 뒤 가져와야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간략히 결제하면 배송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우리 일상에서는 균형을 깨뜨리기도 하죠. 비만이 많이 먹어서만 일까요. 열량만큼 몸을 움직인다면 그런 게 생기지도 않죠. 다들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생활합니다(이거야말로 근본적인 혁신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은 대략적으로 낮밤 주기에 맞게 진화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불균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적지 않은 콕콕러들이 콕챗을 하면서 그 불균형의 노예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만.

이 신체의 불균형을 잡기 위해 운동하라는 건 전문적으로 스포츠 수준까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걸어주고 광합성을 하는 정도로 족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뭔가 싸이클에 맞춰 움직이라 그 이야기죠.

스포츠의 경우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이 글로 다른 분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포츠 = 건강이란 것이야말로 고정관념이 아닌가 합니다. 조금만 실증해보아도 뒤집혀질수 있는.

만약 스포츠를 해서 몸이 정말 좋아진다면 왜 '스포츠 마사지'라는 분야가 발달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사지를 하는 이유가 신체 속의 피로요소

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건 거꾸로 말해서 스포츠 분야의 사람들이 그런 걸로 고생한다고 얘기되는 것이니 스포츠=건강이라는 통념은 붕괴됩니다.

스포츠=건강으로 인식된 것은 어떤 운동이건 모두 햇볕에 탄 건강한 피부, 아무진 역삼각형 신체, 가슴이 두근거리는 말근육... 일 것인데 정작 사람들이 요절하거나 노년에 고생하는 건 근육 때문이 아니라 뇌혈전, 뇌출혈, 심장마비, 심근경색, 심부전, 간경변, 각종암.... 등의 '내장' 문제입니다. 이런 내장은 근육 보다는 '신체 싸이클'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포츠 선수들의 신장이 일반인에 비해 안 좋다거나(소변 검사)라는 건 수십년 전부터 나온 얘기고 그들의 전성기가 끝난 뒤에는 일반인들보다 더 골골해 사는 것부터 시작해 평균수명이 높은 편도 아니죠. 오히려 지나친 신체 활동에다가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빽빽한 스케줄로 노폐물 축적이 심하고 그걸로 내장 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중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라는 말은 "신체 싸이클을 회복하기 위한 수준의 부담없는 운동을 한다"가 적절할 듯.

이런 식의 분석을 하면 마찬가지로 '게임 역시' 저격당합니다. 사실 게임도 이제는 스포츠의 영역에 들어서지 않았나 싶은데 스포츠가 건강에 좋고(그리고 춤바람난 아재 아줌마들도 춤이 건강에 좋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 교미가 더 좋아서겠지) 특히 두뇌에 좋다는 말을 많이 하고 게임도 그렇지 않나 하지만

정작 사회에서 스포츠나 게임으로 성공한 사람은 '상업성'이 있는 분야에서 탑을 보여주는 소수 뿐이고 나머지들은 들러리들로서 얻는 것이 그리 없다... 라 하겠지만 무엇보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건강이라거나 엄청난 두뇌수준을 보여 준다...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알파고로 각광받은 바둑도 사실 그걸 잘 둔다고 그 사람이 정말 머리가 좋아 학술적 발견을 이끌어내거나 크게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면 글쎄요. 그것

도 팬들이 있어서 돈이 오갈 수 있으니가 그런 것이지. 생각해보면 수학 역시 입시과목이 아니라면 과연?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면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참이라고 생각하던 명제들이 하나하나 붕괴되기 시작하죠.

공부하다 휴식하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한다, 혹은 게임을 하면 된다... 어느 쪽이든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답은 뻔합니다. 그냥 먹고 싶은 것 적당히 먹고, 구경하고 싶은 것 적당히 구경하고, 아니면 그냥 '자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활동하거나 그런 게 없으면 수면을 취하는 게 합리적인 휴식이란 것이죠.

다소 비약일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확실히 우수하다고 파악된, 그것도 유전자보다는 역경과 교육으로 우수해졌다고 보이는 유대인들. 그들의 풍습이 바로 4000년 전통의 '안식일'. 즉 일주일에 하루 쉬고 정말 아무 것도 안 하는 건데 그들의 우수성이 여기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는데 '휴식의 효용'을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인류사회에 공헌한 게 일주일에 하루 휴일을 만든 것이죠.

13.78 트럼프가 인기를 모으는 이유

2016.04.04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개드립을 칠 망정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 더 정확히 말하면 대중들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짓말에 질려버렸음. 그럴 바에는 개드립이 낫다는 것임. 이건 우리나라에서 여당 지지율이 높아진 이유와도 비슷함. 기독교가 보수꼴통이라고 하면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하면서 다문화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아야하는 분들 그 사람들이 최근 유럽 난민 사태부터 IS에 대해선 침묵하거나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 좋은 예임. 사실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 보수적인 개신교보다 더한 폭력성이 있었음. 이걸 짹빼고 편견 갖지 말아야 한 결과가 현재임.

인종차별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인종별로 학력, 소득, 범죄율 차이가 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음. 왜 대기업만 지원하죠? 중소기업도 살려야죠라고 하는 누리꾼들이 폰이나 컴퓨터를 어디 것을 사겠음? 정치적 메시지와 소비행위가 엇갈려버린 이상, 즉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순간 그 말은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임.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 자기들과 노선이 다른 쪽을 강경하게 배척함.

그러다보니 오히려 정치적 소수가 시끄러워지고, 정치적 다수는 침묵해버림. 그러니 인터넷에서 진보 쪽이 더 많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철만 되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남. 과거에는 군사정권 독재의 잔재가 남아있었거니와 아직까지 사람들이 공권력 무서운 줄 알아서 몸사린 게 있었음. 그 때야 정부가 탄압하지 말아야 할 대상도 탄압하고 희생양으로 만드니 다양성을 추구하자라는 메시지의 실효성이 있었음. 그러나 지금은 너무 정반대로 달려가면서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소수를 무조건 보호하자 하다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예컨대 불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사람들은 불체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나 그들로 인한 임금정체에 대해서 짹 침묵해버림. 게다가 그런 진보적인 쪽을 팔아드신 정치인이나 학자 나오리들은 정작 자기들은 보수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감.

이걸 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해지는 것임.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닌 것임. 일찌기 미국에서부터는 히피, 여피를 겪으면서 이에 아주 냉소적이 되어버렸고, 일본은 전공투 세대에 대한 성찰이 지금도 이어져내려옴. 유럽에서 극우파 정권들이 부활하고 심지어 콧수염 히씨의 중2병적 책이 인기 모으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정치적 약자를 가장한 소수들이야말로 강경한 꿀통들로서 우리의 삶을 침략해오는데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들에게만 인내와 희생을 강요하느냐, 빽치지 않을 수 밖에 없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한낱 광대로만 보였던 그가 무섭게 치고 올라온 이유가 이것 때문임. 그의 발언 하나하나는 적어도 미국의 백인 중산층들이 하고싶은 솔직한 이야기임. 그의 주한미군이나 동북아 안보

에 대한 발언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라면 틀린 이야기는 아님, 주한미군이 미국 이익 때문에 한국에 남아있는 것이다라는 건 사실 우리들이 하는 주장일 뿐이지, 여태까지 주한미군의 수혜를 톡톡히 보았던 건 사실임.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게 고마워하나? 양키 고품이라고 까기나 했지. 알고보면 하나도 잘 해준 것은 없는 북한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이라고 관대하게 대하고, 세계사적 측면에서 한국에 잘 해준 게 훨씬 많은 미국에 대해선 적대적으로 굴어야한다는 비일관적 태도를 취했음.

그나저나 트럼프는 꽤 대단한 인물임. 대통령 후보로만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이미 그 전에 부동산 재벌로써, 그리고 ”거래의 기술”이란 책에서 보다시피 그 분야는 참 천재적인 인물임. 예능쇼를 잘 해서 그런가 대중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음. 작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하는 개드립 때문에 사그라들거라는 사람들이 지금 현상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음? 20세기의 온갖 정치학적인 수사가 이미 안 먹히고 있는데도 여전히 20세기의 담론에 빠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광인으로 보였을 것임.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못 된다 하더라도 그에게 환호보내던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바뀌는 것도 아니죠. 이제는 더 이상은 정치적 올바름을 가장해서 그냥 수사적으로만 그럴싸한 메시지 얘기해보았자 먹히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확실히 시대가 또 바뀐 것입니다.

+ 제가 미국인이었으면 샌더스 지지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언행일치론자라서리. 다만 미국 역사상 캐네디 이후로 또 암살당하는 대통령이 될지도(...) 그 나라는 뭔가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정치인이 암살당해서리.

++ 미국도 이득을 취한다고 할지 몰라도 그건 거래가 아니라 우리가 입는 수혜이기 때문에 고마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닌지. 만약 미국 안보우산이 아니면 군복무기간도 현재의 2배는 늘려야 하고,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나게 증가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지만 누릴 것은 못 누리는 일도 일어나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대신 우리가 미국의 무기 사주고 있지 않느냐. 맞는 말입

니다만, 그럼 자주국방한다고 해서 미국 무기 구입 안 합니까?

단지 대상이 미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까고보자하는 논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한미 FTA에는 그렇게 시위해대더니 한중 FTA에는 침묵, 위협이 극도로 과장된 광우병에는 아주 떠나갈듯하게 시위하더니, 멜라닌 분유나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에는 다들 침묵하죠. 이 정도가 되면 합리적인 척 하면서 미국 까는 논리가 어느 진영에서 생산해댔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고작 나온다는 얘기가 트럼프가 저 발언 하니까 ”미국이 이익이 되는데 왜 철수하겠어 ㅋㅋ”라는데, 그거야말로 대착각이죠. 미국 입장은 이제는 주한 미군을 빼내서 인계철선 부담 없애고 대신 한국 보고 자주적(?)으로 북한, 중국 상대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도 책임은 안 질 테니 알아서 하라 그건데, 이 걸 막는 것이 바로 ”의리론”이 아닐까 싶은데. 무조건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 준 것 없다 하면 미국에서야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싫어하는데 뭐하려 그 짓을 하냐 하면서 빼면 그만이죠.

물론 이게 미국을 찬양하지 말라, 미국도 이익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냉정히 손익득실 따지면 이거 사실상 일방적인 원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익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트럼프가 그걸 알고 벌써부터 수사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게 틀린 말은 아니라서 우리도 가만히 선거를 지켜봐야합니다.

반미감정이야 군복무기간이 늘어나고 국방비로 내야 할 세금 항목이 신설되거나 그러면 단번에 날라가지 않나 싶은데. 원래 누리기만 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연해보이던 게 상실되면 어떤 입장 취할지야 뭐.

13.79 성격이 급한 사람의 문제

2016.04.07

그 테스트는 '시간감도'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만.

성격이 급한 사람의 문제는

1. 과욕을 부린다 → 터무니없는 스케줄을 짠다 → 자폭한다
2. 사소한 것에 민감하다 →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 빨리 GG 친다
3. 필수 단계를 생략한다.

하나만 있어도 치명적인데 보통은 3가지가 있죠. 성격 급한 사람은 독학재수를 하기 좋아한다는 것도. 그래서 **망하기 딱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학원에 가면 다른 친구들과 보조를 맞추므로 자기 성격이 급한 것을 보정할 수 있을텐데. 학원이 싫다면 최소한 도서관이나 스터디를 해도 되는데, 자기가 무슨 달려라 하니도 아니고 빨리 달리고 싶다보니 n수의 끝까지 달려라 콕창이 되어버립니다.

성격 급한 건 하루아침에 안 고쳐집니다(제가 그러니 잘 알죠) 1번의 경우는 그래서 계획을 안 짜는 걸 권합니다. 그냥 과제 하나 정한 다음 그걸 천천히 끌내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빨리 끝낸다고 해도 대충 할 게 뻔하거니와, 당사자가 정말 잘 지칩니다. 2번의 경우는 둔감력을 키워야합니다. 사소한 것도 그냥 대범하게 넘기고 고통을 덜 느끼는 식으로 가야해요. 3번의 경우는 사소한 행위라도 5~10단계로 세분화해서 실천하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에 메모지에 뭘 해야할지 하나하나 적고 그걸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조언조차도 성격이 급한 사람에게는 귀찮은 걸로 보이겠으나, 저대로 만 한다면 그 사람은 기존에 저질렀던 실패들을 반복하지 않으며, 적체된 부채들을 조기에 청산할 수 있습니다.

13.80 혼인율 최저

2016.04.07

시골이 도시보다 뒤떨어지는 이유는 하수구가 없기 때문이다.

시골에서는 오페수가 그대로 티가 난다. 폐기물이 발생하면 그대로 지저분해지고, 폐수가 생기면 하천이 더러워진다. 사람들이 얼마 없고 다 아는 사이인데다가 노인들의 입김이 강하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아야하며(예외적인 야만 행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소비의 기회가 없다. 그야말로 시골은 자기만족에 빠진 나머지 자유가 제약당하는 그런 공간인 것이다.

반면 도시가 시골보다 발전하는 건 하수구가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수준만 지키면 각자 뭐하고 놀든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욕망을 마음껏 해결하고 돈만 있으면 더럽게 놀더라도 내일의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도시다. 다시 말해서 도덕에 꽉 매이지 않아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자유가 있으니 새로운 것들이 늘 고안, 실천된다. 기존의 가치관 구속이 심하지 않아 좋은 것이 바로 채용된다. 환락을 즐긴 찌꺼기는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다음 날 깨끗이 샤워하고 멀쩡하게 다녀도 되는 곳이 도시다.

아무리 대자연이 좋다고 한들 시골 인심이 최고이죠라고 한들 이건 다 거짓 말인 것이다. 그 누가 답답한 곳에 가서 살려하나. 그래서인가 원래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도시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적당히 욕망을 충족하고 자기들 만의 룰을 지키지만, 촌사람들이 도시에 오면 자제력이 없어 막 나가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수구가 무한하다고 믿는 것이다.

역대 혼인율이 최저라고 한다. 물론 내 경우도 별로 결혼은 생각이 없는데 지식인과 언론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출산율이 낮고 혼인율이 떨어진 게 정말 **집값 때문이겠나**. 그런 논리라면 과거 베이비붐 세대에는 단칸방에 살아도 애 둘 셋은 넣고 살았다. 과거에는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라는 헛소리는 하지 말자. 어느 시대에나 희망 못지 않게 절망은 있었으니까.

불편한 진실은 그것이 아닌가? 이제 결혼이 거추장스러워졌기 때문이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녀 공히 성욕을 채울 수 있다. 아니, 결혼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이 다양하게(?) 채울 수 있지 않나? 유명한 인기인들이 뒤늦게 결혼하는 이유가 뭐나. 즐길 건 다 즐기고 이제 막판에 '꼰대' 노릇을 하고 정착하겠다는 얘기다. 그건 생전에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죽기 전에야 세례를 받아서 '깨끗한' 상태로 천국에 가겠다는 것과 비슷하다. 적어도 90년대까지는 프리섹스에 대해선 상당히 보수적이었고 혼인 전의 관계나 임신에 대해선 정말 가혹해서 결혼이 강제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있나?

거기다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졌다. 많이 넣는 것보다는 1~2명 나아서 집중적 투자를 하는 게 낫다. 딱히 자녀를 낳지 않아도 어차피 남의 자식들이 일해주는 걸로 생기는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다. (거기다가 자녀를 안 넣은 걸로 폐널티를 입으면, 국가보고 왜 차별하느냐고 시위하면 된다) 그렇다면 원없이 연애질을 즐기다가 한계선에서 "집안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M&A를 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모른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결혼이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었다. 유교적 가치관 내에서는 남녀간의 연애라거나 성적인 것들이 터부시되었고 결혼을 하지 않고 이런 걸 즐기면 제재받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즐기고 싶으면 결혼을 하면 되었다. 즉, 결혼이 바로 하수구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다. 물론 결혼해놓고도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적다고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결혼이 바로 욕망실현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결혼이 더 이상 하수구 역할을 해주지 못 한다. 욕망을 방해하는 족쇄가 되었다. 결혼=시골, 미혼=도시와 같은 구조가 완성되었다. 사

람들이 선망하는 건 다양한 사람들과 즐기는 프리섹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극강의 자아실현을 하는 것 등이다. 현재의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는 어느 쪽이든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혼을 하지 않아야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더럽게 놀 수도 있다(이제는 더럽게 놀아도 제재받지 않는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왜 점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나. 사실 일부일처제가 인류 탄생 때부터 있던 제도가 아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 역시 과거의 신분제도와 비슷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대책에 대해서 '경제적 문제'만 언급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짹이 없는 것이다. 물론 이 사회의 많은 것들이 유물론적으로 설명되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사상이 왜 틀렸나. 그는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 활동을 물질적인 것에 종속된 관념으로 명쾌히 정리해버렸다. 그걸 맹신한 공산주의자들은 수많은 인민들을 도탄에 빠뜨렸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복지를 강화하자,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 집값 문제를 해결하자. 이건 그냥 대책부터 정하고 원인분석을 하는 게 아닌가.

10년 내에 두가지가 사라진다고 보고있다. 하나는 취업,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혼인이다.

물론 극단적으로 저게 zero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는 포장지는 있는데 속은 텅 비어버린다. 예컨대 취업의 경우 분명 취업들을 형식적으로 한다, 그런데 그 다음 3년 내에 다수가 퇴사해버릴 수도 있다. 이미 비정규직을 뽑는 것 자체가 '개인 대 개인'의 계약으로 가고 있는 경우다. 혼인의 경우도 그렇다, 이제는 혼인이 이혼의 예비절차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간통죄가 사라진 이상 외도를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변호사를 통해 돈을 얼마나 주고받느냐 문제가 되었다.

저출산 현상이 기득권이 다 해먹어서? 과거 봉건제 시대에 그래서 저출산이 있던 건 아니지 않은가. 첫째는 피임이 가능해서이고, 둘째는 자식을 낳기보단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확실한 해법이 뭔지는 안다. 하지만 그건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이기이에 선택할 수가 없다. 저출산의 원흉은 "자유"다. 세계적으로 저출산 현상은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반면 무슬림 국가들이나 살기 힘든 곳이 오히려 출산율만큼은 높다(물론 사망율은 예외다)

그럼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위 영상처럼 되어서 점점 아이큐가 낮아질 수도 있다(어떻게 보면 대자연의 조화가 아닌가)

그런데 그 전에 가장 유력한 것은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192691

이 책에서 경고한 바처럼, 출산율이 높은 종교인들이 득세하면서 근본주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근본주의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심 때문에 애를 낳는다. 이게 사소한 차이로 보이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지수함수적 변화라는 것. 특히 저출산 재앙을 목도한 종교인들은 사회를 중세 시대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고 할 것이고 이건 정말로 잘 먹힐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혼은 다시 상식적(?)인 수준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물론 지금의 민주주의나 자유지상주의는 물건너가겠지

13.81 자전 확대

2016.04.12

<https://www.hankookilbo.com/v/e59f2a6643204521a60fcd49cdba8d70>

대학이 신성한 상아탑이라는 메시지와 관계없이, 저출산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죠. 게다가 수시나 정시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도 무관치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뽑고 난 다음에 갈라버리겠다는 것이죠. 10여년전인가 대학이 무슨

취업하는 학원이냐... 라는 지금 생각하면 매우 배부른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는 취업만 시켜준다면 갓학으로 인정받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선 역시나 수구 기득권 자본의 음모... 하더니만 구조조정 못 한 채로 현 상황까지 와버리니까 다 침묵. 대기업들도 노조의 입김이 강한 곳이 유감스럽지만 오늘 뉴스 뜬 거제도 꼴이 나버립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구조조정 **당해버리지요**.

그건 그렇다 치고 저래버리면, 대학 과정까지도 선행학습해버리는 케이스가 생겨나겠네요. 입학하자마자 유리한 과목과 좋은 학점으로 '돈되는' 분야으로 갈 것이 뻔하니. 과거에야 학과별로 모집해서 경쟁을 줄면서 계급장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릴 듯. 다시 말해서 상위권 고딩들이 대학교 과정 미리 준비한다고 대학국어(...)를 미리 공부하고 김x종 교수님 미적분 책을 보고 대학 물리, 화학 선행하는 것도 일도 아닐 듯(영어야 뭐 이미 그 정도는 지금 다 선행하고 있으니)

13.82 취업과 결혼

2016.04.12

생각해보면 조선 말기에 '양반 제도'가 감히 사라질 거라고 믿었던 사람도 없겠고 말 그대로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1940년대에 일본이 전쟁에 져서 물러날 거라고 본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담이지만 더 이야기하면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에서 독립하는 것보다는, 잘 나가는 일본 밑에서 조선인들의 세력을 키워서 크게 한건 해먹자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잘 나가는 조선인들이 자기보다 못 한 일본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기도 했따는데. 현재와 같은 취업제도는 역사가 사실 100년도 될까말까이죠.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소설에서 보다시피 조선인들이 취업과 실업으로 고민했던 게 일제시대였지 조선시대는 아니었음. 그리고 지금과 같은 연애결혼도 역사가 50년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애결혼이라는 것도 산업

화된 1970년대에야 본격화되었고 그 전까지는 농경사회였으니 부모가 점지어 주거나 선보는 식으로.

현재의 실업이나 미혼에 대한 진단의 문제는, 이게 근본적인 변화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에야 법인이 사람을 고용해서 착취해먹는 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고용이 늘었겠으나 정보화 시대에는 일시적으로만 부려먹거나 아웃소싱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럼 정규직을 많이 뽑는 건 미친 짓이 되어버립니다. 씹쓸하지만 결혼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히 시대착오적이 되어버립니다. 프리섹스가 보편화되었고 간통죄가 사라진 이상 배우자에게 종속될 이유가 없고 맞벌이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도 돈으로 키우고 있죠. 거기다가 결혼의 관행이라는 건 불만족스러운 게 많죠.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선택이 해답이죠. 이미 사회가 변했다, 그리고 저것들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생각하면 현재의 비정상이 알고보니 '정상'인 것이죠. 저것들을 비정상으로만 보면 그냥 일시적인 문제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게 정상이라고 본다면 그럴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다른 현상까지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1980년대~2000년대는 정말 배부르게 살았구나... 라는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즘 586 비난론의 일부이기도 한데 비난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적어도 이 586식 가치관이나 당위적 명제는 지금 봐도 시대착오죠. 다만 지금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지는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늙은 세대는 여전히 박정희 시절 환상에 젖어서 그 쪽 정치세력을 지지해주면 그 시대의 호황이 올 것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고, 젊은 세대는 지금 먹고살기 힘든 게 다 기득권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간판만 진보지 한물가버린 쪽을 밀어주고 있죠. (그런데 가장 불편한 진실은 그 늙은 세대가 1980년대 민주화를 달성한 세대인데 지금은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일단 빚을 내고 취업과 결혼으로 가면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다는 환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취업과 결혼이 정말 그만큼의 수익을 보장해주느냐를 검증해보아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 갔다가 때려치우고

공무원 시험에 몰리며, 연애도 '소득이 많거나 집안이 좋은' 배우자를 골라서 정략적으로 하게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시장주의를 경멸하는데 현실에서는 철저히 시장주의를 추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런 시대흐름을 그나마 이야기한 사람이 공병호(...)입니다. 거의 책을 찍어내다시피 하는 분이라서 책의 희소성은 떨어지지만 메시지 자체는 지금 보면 그리 틀린 건 없었죠. 유하 감독의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도 지금 보면 참 소름이 끼치네요. 처음 보면 정말 이런 로맨스물이 있구나, 감우성씨 엉덩이 탄탄하구나... 그랬는데 지금보니 남녀의 복잡한 심리라는 게 참, 유부녀가 애인과 남편을 오간다.... 는 건 당시 웬 미친 발상이냐고 했는데, 지금은 어, 이런 경우는 현실에도 널렸어(...)라는 게 인식이고

그 다음은 무엇이 해체될까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가 그 다음을 잘 시사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13.83 롯데월드타워

2016.04.12

졸릴 때 보면 좋습니다.

저것도 지을 때 상당한 풍자글이 많았는데. 소위 문인들은 토목공사를 비판하면서 그게 시대정신인양 이야기하지만 경부고속도로, 63빌딩, 남산타워, 청계천, 그리고 롯데월드타워는 결국 "인식의 수준"을 바꿔버리지요.

청계천도 왜 자연하천이 아니냐 하는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비판이 많았으나 일단 그게 뚫리고 나서는 다들 서울 한가운데 인공 녹지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죠.

과거에는 서울에 상경한 촌사람들이 63 빌딩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지만

지금은 에이 시시해하여도 롯데월드타워를 밑에서 올려다보면 하늘이 저렇게 높았나를 실감하게되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빌딩들이 더 많이 들어서겠구나라고 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그런데 마천루의 저주가 여기에도 먹힐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

13.84 국가 신용등급

2016.04.15

링크

호불호가 갈릴 지점이긴 하지만 저걸 무시 못 하죠.

선거에서 수권 정당이 누가 되느냐 그런 건 큰 차이를 낳지 못 합니다. IMF 다음부터는 국가는 거의 회사나 다름없이 변해서리. IMF 이전까지는 정말 경제, 경영 관념이라는 게 없었음. 으쌰으쌰하면 경제가 다 살아난다 믿었죠. IMF 터지고나서야 알았던 것이죠. 위대한 한민족은 양 허상이고 제삿상 시루떡마저 '달려'라는 것을 현 야당이 집권할 때에도 무디스, S&P, FITCH 눈치 보는 경제정책 꾸쳤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된다.... 는 건 이제 먹히기 어려워요. 전세계적으로 단순노동 가치는 낮아지고 대체되는 추세라 인정받는 건 고급노동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정말 '자본'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문제죠.

아니 이 꼴대가 왜 그러냐 하는데 이건 기시감 때문입니다. 아이엠에프가 터진 뒤에 노동법 날치기 통과 반대나 노동투쟁이 아이엠에프가 원인이라 주장이 비웃음을 산 적이 있었죠. 그 당시 주류설이 이게 다 개발위주 독재, 분배를 안 한 것 때문이다라고 했고 저도 그걸 믿었는데

나중에 이것저것 공부하고 느낀 건 저 이야기가 개소리만은 아니었다는 것

입니다. 개발위주 경제가 원인이 되긴 했죠. 개발을 안 해서 아프가니스탄 수준이었으면 아예 망할 리도 없으니까. 성장해야 망하죠(...) 당시 아이엠에프도 유tan에 맞아서 치명상 입은 게 컸고, 당시 정치권이 잘 대처하면 잘 넘길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시 노동자들 기득권 지킨다고 했다가 다 망해버렸고, 구조조정을 안 하니까 구조조정을 **당해버렸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부자들은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공적자금이야 회수 못 하고 증발댄 것도 많았고 외국계 자본은 혈값에 알짜기업을 먹었죠 현재의 건물주들도 그 당시 혈값된 땅, 건물을 구입한 사람들이고

지금이 저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노동개혁(?)은 하긴 해야 할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외국계 자본이 나가는데 별 수 있음? 그럼 부자들이 세금 더 내라, 대기업이 다 부담하라 하겠지만 그럼 부자들은 외국으로 토끼면 그만이고 대기업도 외국계 자본 나가면 양 망하죠. 삼성은 염밀히 말하면 외국인 회사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은 위대하다... 라고 하는데 그럼 망하는 경제가 복지확대로 늘어날지는 가히 의문입니다. 복지 확대를 하면 빚이 늘어나는 거지 그걸로 생산성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느는 건 아니죠. 한국경제는 내수경제로 버틸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지금 그나마 버티는 게 중국 덕분이라서 알아서 중국에 박박기고 있는 현실인데 저러다가 중국 쪽도 여의치않으면?

노동개혁(?)이라는 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 때는 그냥 각자도생하는 걸 기대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노동개혁은 되겠죠. 우리가 하든가, 아니면 **당하든**가. 그런데 하면야 중장년층 울상이지만 청년층은 살아도, 당하면 둘 다 답이 없겠죠

아마 야당도 이걸 안다면 결국 은근슬쩍 여당이 하던 걸 좀 소프트하게 가지는 않을까 싶지만 하필 내년이 대선이라서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1997년대와 비슷하단 느낌이 들고 있어서리. 생각해보면 머리좋은 사람은 더 벌어댈 수 있는 구조이긴 하니 그 사람들이야 환호하겠네요.

돌아가는 것 보시면서 금전적인 분야에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13.85 [인물 vs 인물 001] 제갈량과 사마의

2016.04.19

경영에 있어서는 미국식 합리주의, 일본식 품질주의, 그리고 중국식 다면주의가 있다. 이 근거가 뭐냐고 한다면 그거야 절반은 뇌피셜이다. 미국식 합리주의는 테일러리즘, 즉 시스템을 잘 설계하고 그걸 밀어붙여 수율을 높인다, 다만 인간에 대한 통찰이 없다. 일본식 품질주의는 잇쇼肯메이 정신에다 도요타 시스템으로 재고를 최소화하는 전제 하에 근로자가 달인이 되어 품질을 극대화, 이게 미국에 lean system으로 역수입되긴 했다만 이 역시 불확실성에는 대응할 수 없다.

중국식 다면주의는 그 실체가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부터가 바로 뇌피셜의 영역이다. 가령 삼국지의 유비는 천하를 눈물을 흘려서 집어 삼킨다. 초한지의 항우만큼 인간적이고 능력좋으며 효율적인 지도자도 없다. 그러나 그 항우는 무능하고 비정하며 곡선적인 유방에게 패한다. 그런 중국인들의 역사적 노하우가 허세만이 아닌 건, 화교를 포함한 중화권의 성장을 보면 된다. 중국인들이 역사적으로 강조한 건 시스템보단 사람이었다. 그것도 사람의 이면과 본성을 통찰해온 것이다.

삼국지에서 제갈공명과 사마중달을 비교하면 다수가 제갈공명이 한수위라고 평할 것이다. 다만 천운이 따라주지 않은 거라는 주석을 붙이면서

그러나 실질로 보자면 제갈량은 사마의보다 못 한 인물이었다. 유교적 관점에서나 혹은 일본식 스타일로 보자면 제갈량이 더 비장하고 극적인 인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갈량은 저 중국식 다면주의 측면에서는 낙제생이었다. 그건 바로 '사람'을 통찰할 줄 몰랐으며 자존심이 강했던 것이다.

우선 삼고초려 얘기부터 보자. 이게 허구인지 아닌지 떠나서 이 얘기부터가

제갈량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시 허구이지만 오나라에 가서 키 배를 뜨는 장면도 제갈량이 매우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오장원에서의 승부에서 족쇄로 작용한다.

제갈량이 마지막 북벌을 하면서 위의 사마의에 어그로를 끌어지만 사마의는 철저히 반격하지 않는 전략을 세운다. 여자옷을 보내고 분을 보내 도발하여 다른 장수가 화를 내도 사마의는 아무런 미동을 보이지 않았다. 즉, 사마의는 자존심 따위는 승리를 위해 버릴 수 있던 인물이었던 얘기다. 실제로 제갈량 사후 사마의가 조상과 권력다툼을 할 때 일부러 정신나간 척 치매걸린 척했던 것도 자존심이 없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만약 사마의가 제갈량처럼 자존심이 강해서 심리전에 휘말리는 냄비였다면 삼국지의 결말은 매우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이건 실제로 그들의 승진 과정만 보아도 그렇다

제갈량은 요새로 치면 융중에서 책이나 읽으며 백수짓을 해도 굽주릴 게 없는 나름 금수저였다. 그리고 자신을 초빙하려 온 유비를 두번이나 쫓아냈으며 세번째 만남에서 등용되지마자 바로 요직에 앉아 권력을 행사한다. 이건 바꿔 말해 제갈량은 낮은 직급의 일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 따위는 할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그에 비해 사마의는 애초에 후한의 군역소에서 일하던 하급관리였다. 낮은 데서부터 출발해 일하다가 조조에게 인정받아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인물이다.

공명과 대진할 때도 마찬가지다. 공명이 사마의를 떠보기 위해 사자를 보냈을 때, 중달은 다른 건 궁극의 말돌리기 기술로 회피하면서 핵심적인 것만 묻는다. 공명의 잠자는 시간, 공명이 뭘 먹는가. 바보같은 사자는 자기가 존경하는 공명의 일상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한다. ”우리 승상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까지 켜챙 군사일에 힙쓰고 계십니다. 작은 일도 다 쟁기고 식사는 적게 하십니다”

사자가 돌아간 후 사마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공명은 식사 양이 적고 할일이 많다. 이건 공명이 부하들에게 큰일을 맡기지 못하는 걸 말해준다”

”이제 공명의 목숨은 얼마 남지 않았다”

공명이 사망한 후에도 사마의는 공명이 이끌던 촉군을 추격하려고 하다가 도중에 중단하고 뒤쫓지 않는다. 이것이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았다라는 문구의 진상이지만, 이건 사마의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미끼도 물지 않는 냉정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사마의의 손자가 진을 건국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편 공명이 정치적으로도 공명정대했다라고 보기만도 어렵다. 첫째로 마속을 중용했던 것. 만약 사마의였다면 마속 같은 인간을 중용하지도 않았겠지만, 중용했어도 브레이크 장치는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명은 선주 유비가 마속을 쓰지 말라고 유언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기 수제자라고 중책을 맡긴다. 보다시피 말아먹는다. 둘째로 위연을 홀대했던 것. 물론 나중의 일이지만 장안을 공략하는 건 위연의 방법이 훨씬 더 나았다. 그러나 공명은 위연을 터무니없이 홀대했고 끝까지 푸대접을 한다.

즉, 공명은 단지 백성들을 부리는 정치는 잘 했을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인재들을 다루는 데에서는 짱병이었다는 것이다. 선주인 유비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그 놈의 말빨과 눈물로 각 지역의 인재들을 쓸어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파죽 땅이 위보다 작아서 어차피 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하겠지만 사실은 틀린 얘기다. 원래 촉이 차지하던 곳은 중국에서 꽤 비옥했던 곳이다. 문제는 바로 그 놈의 인재풀이었다. 유비가 근거지가 없어 사방을 떠돌아다니고 자존심도 죽였기 때문에 본인의 매력으로 인재들을 쓸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13.86 관상술과 사주팔자의 문제.

2016.04.19

음양오행과 관련된 동양적인 것들의 문제는 이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기원된 서유럽의 철학, 과학과는 다르단 것이다.

우리가 배우는 서유럽의 수학, 과학, 철학은 참과 거짓을 명쾌히 나누려고 한다. 그 참과 거짓을 가리지 못하거나 모순이 생기면 기존의 패러다임이 붕괴되고 다른 패러다임으로 간다. 그리고 이것이 서양이 세계를 재패한 이유다.

그런데 동양학문이라는 것들은 – 사실 학문이라고 보기는 무리일지 모르지만 – 이런 서유럽식 접근방법으로 가면 낭패를 본다. 말하지만 이것들은 True나 False로 명쾌히 구분되지 않는다. 음양이란 말부터가 모든 사물에는 이면이 있단 얘기이다 오행부터가 대상 하나를 개별적으로 고찰할 수 없고 반드시 관계측면에서 바라보아야한다는 얘기다. 즉, 서양학문은 참이냐 거짓이냐 명쾌히 따진다. 그리고 거기다 확률, 통계적인 기술과 장치를 마련해둔다. 그에 비해 동양학문이란 것들은 애초에 참과 거짓을 따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 것들은 사이비다라는 말은 틀린 이야기도 아니다. 왜냐면 애시당초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도 힘들지 않나. 달의 위상변화를 보아도 그렇다. 서양적 패러다임으로 치면 저 달은 모월 모시에 보름달이다라고 정확히 말한다. 동양적 패러다임은 '달은 차니까 기운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동양적인 것들이 심오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다. 뛰어난 요리사라면 퓨전푸드겠지만, 평범한 요리사라면 개밥이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학문을 직관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직관이 아니면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상술이나 사주팔자를 '참과 거짓이 뚜렷이 구분된다'고 믿고 여기에 미쳐있다 망한 사람이 많다. 풍수지리만 예를 들어보자. 고전적인 풍수지리는 배산임수에다가 남향을 선호한다. 북으로는 산, 남으로는 강 실제로 조선시대 건축물들이 이런 셈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강남이 이 고전적인 풍수지리 틀에 맞춰져있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방위 개념을 절대화시켰기 때문

에 그렇다. 북쪽방향이 반드시 그 북쪽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주팔자의 경우도 그렇다. 아마 한번 정도는 소문난 곳에 가서 죄인이 된 심정으로 자기 사주를 물어보고 과거맞추는 것에 놀랄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미래는 못 맞춘다. 이걸 가지고 혹자는 콜드리딩이라고도 하는 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건 그렇다. 우리가 평가하는 과거는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된 것이다. 과거 당시에는 매우 잘 나간다 혹은 좋았다 느껴진 게 지금 생각하면 최악이고, 그 역도 성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 먼 미래로 가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서양적인 OX로 명확히 구분되나?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참과 거짓으로 재단하려하지 않나.

아무튼 이 분야도 참 골치아프기 때문에 나름 책을 읽고 정리해보고 느낀 건 사람들의 접근방법 자체가 애초에 틀렸다는 것이다. 사주관상 그런 것들부터가 검증 안 된 사이비가 많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유의 틀'부터 다르다. 예컨대 시간 개념을 보자. 서양식 시간 개념은 시분초로 미세하게 나눠서 한 점이라는 걸 따지려고 한다. 즉 정오라고 한다면 12:00:00로 한 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에 반해 동양적 시간 개념은 한자 풀이 그대로 時間 – 즉 시와 시 사이를 중시했다. 보통 '오시'(午時)라고 한다면 그건 자정 개념이 아니다. 어렵잖이 11시와 13시 사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접근이다. 그건 바로 서양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동양적 사유로 간다면, 좋은 것 이면에 나쁜 것이 있고, 나쁜 것 이면에 좋은 게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이면을 통찰해 흐름을 잘 탈 수 있을까하는 것으로 가야지, 뭔가 단정하고 가는 건 이미 접근방식이 틀린 것이다.

어떤 미녀를 보고 뽑반했다. 그녀가 좋아졌다.. 라는 건 실제로는 까놓고 말해 교미하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운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당신의 운은 바람직하지 않겠네요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런 건 없어 하면서 노력을 해서 그 여자를 쟁취한다. 그리고 결혼하고 늘 그렇듯 초반에만 좋다가 사랑과

전쟁을 찍고 이혼해버린다. 그리고 본인은 그 전보다 더 안 좋아진다... 자, 이걸 좋다고 할 것인가 나쁘다고 할 것인가. 그래도 본인이 노력해서 적어도 교미까지 가고 인생 화끈하게 산다는 점에서 보자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상처만 남고 화평하지 못 했으니 나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럼 어느 쪽이든 사실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역시 스킬보다 개념이 중요하다는 게 먹히는 영역이다. 직관으로 쭉 바라보는 거라면 가장 중요한 건 잡다한 이론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을 관(觀)하는 본인의 마음이 맑아야한다는 것이다. 즉 욕심을 버리고 아주 차분하고 온화하게 자신의 비극까지도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통 관상, 사주, 풍수에 혈안된 사람들은 욕심과 불안에 휘둘리고 있다. 그러니 **똑바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똑바로 볼 수가 없으니 사기꾼에 휘둘리기도 하고 지나치게 운명론적인 데 빠져서 스스로 접싯물에 코박고 익사해버린다.

13.87 성과 계급

2016.04.25

이건 20대 초에 지겹게 보았던 스테레오 타입의 명제 중 하나가

성(sex)은 계급이다.

그런데 납득이 가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동어반복에다가 네가 부르주아 마인드에 젖어서라나(...) 그래서 그냥 무시했던 명제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나서야 귀납적으로 납득이 가기 시작했다.

과거 봉건영주의 초야권으로 설명하거나 귀족 이상부터는 소위 처녀성을 따지지만 그 이하는 신경쓰지 않는다면 것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은밀한 속어에서 드러나는 권력관계.

헬기방자한 시절에야 성은 신비이고 호기심이며 욕망부터 부추기니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게 너무 과잉이 되어버려서 초딩들도 알 걸 다 아는 세상에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 그건 바로 **권력**.

성과 관계된 온갖 변태적인 것들이 사실은 ”권력”적인 것들의 요소를 강화 시킨 것에 불과하다. 권력이란 말이 납득이 안 가는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권력은 적어도 20대 후반 정도는 되어야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둘째는 공교육에서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주입당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평등하다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포르노, 즉 야동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성욕 때문에만 그걸 본다고 하는 건 오산인 것 같다. 보는 목적이야 제각각이지만 실제로 야동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권력’이다. 그 권력이 명쾌한 논리가 아니라, 신화화된 기호로 표상되어 있다. 이 말이 너무 현학적이면 ”원초적 이미지”로 그려져있다 보면 된다. 그런데 이런 야동들을 즐기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아니다. 이 대목부터가 중요하다. 야동을 보는 사람들은 이 사회의 ’호구’들이다. 그래서 야동을 보면서 몰입 (...)하면서 자기가 권력자라도 된 것과 같은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곰곰히 생각해보자. 포르노에서 평등한 관계가 나오나? 물론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공과 수가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0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로 대등한 경우는 없다**. 사람들이 포르노를 보는 심리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물 간 고대, 중세’ 시대를 다룬 사극을 보는 것과 같다. 사극의 낭만이라고 해보았자 반민주적인 봉건주의에다가 무식한 전쟁으로 인적자원이나 낭비하는 광경, 혹은 귀족이나 왕족이라는 코스프레를 뒤집어 쓰고 평민들을 농락하거나 혹은 농락당하는 코스프레쇼일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열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챗방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나쁜 남자들이 여자들이 많이 괴인다”.

그건 당연하다. 첫째로 대중매체에서 강조하는 사랑이란 말은 사실 실체가 모호한 일종의 선동에 가까워서이다. 발끈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그럼 사랑

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나? 그리고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왜 깨지고 망하나?

둘째로 그 나쁜 남자들은 바로 사람들이 소망하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결국 눈이 맞거나 심쿵한다는 건 상대와의 관계가 불평등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그 불평등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계급이 아닌가. 이과 수학으로 얘기하면 불평등이 벡터라면 계급은 바로 시점과 종점이다. 문과 수학으로 얘기하면 불평등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면 계급은 각 점들의 좌표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성이 계급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비로소 오게 된다.

보통 이맘 때 쯤에는 대학교 신입생들이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대다수는 깨진다. 군대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금방 질려서인데 이유야 간단하다. ”평등”하니까. 평등한 관계에서 권력은 생겨나지 않는다. 권력이 없으니 결국 성적인 것도 무의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것 말고 그냥 매력이 있어서.... 라고 하는 순간에도 움찔할 것이다. 매력부터가 이미 타고난 것의 불평등을 전제하지 않나?

사람들이 까대지만 실제로는 궁금해하는 건 바로 사주팔자, 그 다음이 픽업아티스트술(...)이다. 픽업아티스트에 관한 것도 여러가지 책을 읽고 거기 나온 대사를 연구해본 결과는, ’감언이설’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로 정리된다. (여담이지만 이 분야가 의외로 과학적이다 -- 바로 진화론을 철저히 써먹고 있기 때문이다. 진화론과 국어의 만남)

13.88 소수자의 딜레마

2016.04.29

소수자들이 배려받을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그들이 소수자이기 때문. 그

러나 그 상태로 모두가 행복했습니다라고 끝날 리가 없다. 배려받는 것도 잠시 뿐이고 그 소수자라는 컴플렉스 때문에 다수의 상식을 깨고 자기들이 주류임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동성애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다양성의 존중 문제로만 해결될 수 있을 거라면 이미 진작에 해결되지 않았겠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애들은 옳지 않다라고 단정하는 순간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딜레마가 생긴다. 그 옳지 않다라는 단정도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일종의 폭력성을 간접적으로 띠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 사태 이후 유럽의 무슬림들을 존중과 배려로 바라보는 시선은 사라졌다. 솔직히 말해 싸늘해졌다라고 보면된다. 어떤 존재건 소수자일 때는 그 진면목을 알 수 없다. 그들이 소수자임을 벗어날 때에야 비로소 진면목이라는 게 보이는 것이다. A가 억압받고 차별받을 때는 A는 정말로 선량한 존재인데 펍 박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차별이 끝나는 걸 넘어서 A가 권력을 쥐면서 갑질을 하게 되는 순간은 어떻게 될까. 재밌는 건 그 순간에도 A는 자기가 약자(들)이라고 강조할 것이다. 이것만큼 편리한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메시지건 정말로 그 누드 메시지 – 즉 '솔직한 욕망'이라는 걸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 예컨대 한국여자들이 서양남자들과 만나다니 이건 불결하다…라는 말은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서양남자들을 부러워하는 심리가 담겨 있을 수 있다. B라는 애가 여자들은 조신해야한다고 한다면 그 B는 새디스트 C라는 애가 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외치면 그 C는 마조히스트. 다소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자면 ”착한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일 뿐이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메시지가 참이냐라는 반론에 날라올 것이나 유감스럽지만 역사적으로 선량한 존재들도 없고 진정한 의미의 이타주의적인 실천을 하는 경우도 찾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학벌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진정한 이상 사회 구현보다는 학벌로는 해먹기 힘드니 다른 걸로 출세해야 하니 이 학벌 게임을 무효로 하지 않을래... 라는 걸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 x대생이나 x고생은 별 것 아니었습니다, 노력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실은 캠플렉스 덩어리인 게 보이지 않나. 실제로 x대 나오건 x고를 나오건 신경쓰지 않는 사람은 x대나 x고를 형식적으로 라도 추켜세워줄 것이다.

개인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는 그 소수자들의 옹호자들은 지금 아는 한, 오히려 더 한 갑질을 해댈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고속후진해버린 것으로 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들이 소수자들을 옹호하고 변명해주는 것은 정말로 그 취지에 공감해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약하거나 밑에 있는 그 소수자들이나 약자들을 보호해주면서 반사적으로 '권력자'가 되는 효과를 나오기 때문. 그리고 시간 지나보니 주류 쪽에서 더 큰 권력을 누릴 수 있다면 고속후진 정도야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13.89 양적축적은 질적변환을 초래한다.

2016.04.29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사실 아무 것도 설명하지 못 한다라는 말 다음으로 양적인 축적은 질적인 변환을 초래한다... 라는 말은 매우 즐겨쓰는 말이고 실제로도 그렇다.

운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수년동안 그 관련한 점성술이나 팔자 책을 읽어보았는데 지금 정리해보면 한가지 문제가 있다.

서양적 사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모순”의 발견이다. 이 모순이 발견되어야 비로소 기존의 것들이 전복되면서 새롭게 발전하게 된다.

반면 동양철학 – 정확히 말하면 음양오행에 따른 어떤 기(氣)의 설명은 상생

상극의 순환을 따라 조화로워보이지만 여기 어디도 '모순'이라는 게 없다.

물론 성급한 절충론자는 그럼 모순과 순환을 둘 다 챙기면 되겠군요... 라고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가장 알맞지만 현명한 태도다. 그러나 굳이 경중을 두자면 순환은 모순에 비하면 깨도 되지 않는다.

그럼 이걸 우리의 가치관으로 가져오자.

운이나 환경 타령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동양 철학적 사고를 하고 있단 것이다. 좋은 운이 오면 나쁜 운이 오겠지, 나쁜 운이 지나면 좋은 운이 오겠지라는 건 그럴 듯 하지만 사실 그렇게 순환한다는 100% 증거는 없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는 결국 그런 운이라는 패러다임을 무조건 믿고 보면서 그 틀 안에 자신을 가둬버리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또한 수저타령하는 환경론도 마찬가지다. 이건 사실 역사로도 반례가 많다. 한국만 하더라도 20세기 100년동안 정말 적지 않게 변했지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다 잘 된 것은 아니다.

운이나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모순'에 이르는 것이다. 모순에 이르게 되면 한 세계의 붕괴를 맛보게 된다. 상술하자면 우리가 보는 세상의 틀이 붕괴된다는 것이다.

노오력을 하는 이유는 별 게 아니다. 성과를 맛보기 위해서? 노오력이라도 안 하면 답이 없으니까. 그것들은 부분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일지도 몰라도 근본적인 답은 아니다. 노오력을 하는 이유는 노오력하다가 그 양적축적이 질적 변환을 초래하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기성 세계관의 모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노예가 죽어라 일하면 좋은 세상이 온다 믿고 죽어라 일했다. 그런데 죽어라 일해도 좋은 세상은 오지 않았다. 그럼 그가 헛되게 일한 것인가? 적어도 그는 죽어라 일해보았자 좋은 세상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런 가치관의 모순에 부딪치게 된다. 노오력해보았자 소용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가 어떤 허위와 허상에 사로잡혀있는가를 전신으로 느끼게 되면서 새가 알을 깨고 나오게 된다.

여기서 성미가 급한 사람은 노오력 뿐만이 아니라 그냥 삶 전체가 특정한 모순에 도달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현학적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맞는 이야기다. 관념적인 삶과 죽음이나 생과 사는 그저 '닫힌 세계'이다. 그러나 본인이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삶은 열린 세계에 좀 더 가깝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가 믿고 있던 세계가 붕괴되는 것을 운좋게 경험할 수 있다. 알다시피 중세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믿고 있던 종교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 했다. 바꿔말해 우리들도 이 자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전부 진리인 줄 알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 한다. 자본주의를 반대한다는 사람들의 메시지도 거의 쓸모가 없는 건 그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면서 모순에 부딪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온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동양철학적인 순환론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

거창한 이야기 그만두고 수험으로 돌아오면 간단하다. 공부하는 것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건 맞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죽어라 공부하는 건 기존의 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공부가 힘든 건 당연하다. 기존의 내가 모순에 부딪쳐나가는 과정, 즉 나를 부정하는 과정이다. 힘든 공부를 하려면 기존의 나로는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행해나가야하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만약 본인이 양적축적 → 모순의 발견 → 질적 변환이라는 싸이클을 빨리 탄다면 이만한 행운도 없을 것이다.

13.90 지식

2016.04.29

일반적으로 지식이 정보보다 우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지식은 정보를 가공해서 체계화한 것이므로 정보에 없는 가치를 담고 있다가...그 골자인데 그럴 듯 하지만 실제로는 틀린 소리다.

지식의 문제는 그 자체로는 **모순이 없다는 것이다**. 아니 모순이 없어야지 뭔 소리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수험생이라고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어떤 분야건 활동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어느 분야건 이론과 실무는 일치하지 않는다. 모순의 머리카락 정도는 보이고 있단 것이다. 그럼 그 모순은 어디서 배태되는가? 세상이 모순의 집합이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앎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이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 듯하게 말해도 실무에서 발리는 이유는 모순을 다루지 못 하기 때문이다. 실무상 문제는 대부분 그런 모순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분야로 가보자. 분명 경제학 이론상으로는 재정거래(아비트리지)는 성립할 수 없고 공짜 점심이란 존재할 수 없다. 시장은 균형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아비트리지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시장의 모순을 파악한 투기꾼들은 엄청 벌어들이고 있다. 거기다가 시장은 매일 붕괴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불안하다. 수험분야로 가볼까. 분명 교과서만 열심히 읽고 기본적인 걸 충실히 하면 잘 나온다는 게 원리인데 실제 성적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또 웃긴 건 그렇게 성공한 친구들은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니 어느 걸 따라야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정보는 지식과 달리 아직까지 모순의 '원석'을 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는 같이 가져가야 한다. 실시간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지식을 뒤짚어 엎을 수 있는 모순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지식은 반드시 실천과 결부되어야만 비로소 지혜로 탈바꿈한다(지혜=지식+실천) 상술하자면 본인이 실무 과정에서 그 지식을 어떻게 가감하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키워지는 것이다.

모순을 보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모순이야말로 변화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보는 건 세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예언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는 것을 지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에 의지하는 걸로 나타난다. 왜냐면 예언이야말로 미래에 어떤 일이 전개된다하는 '모순없는' 진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언을 믿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무엇보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의존적인 병신이 되어버리고 만다.

둘째는 예측 과거의 자료나 패턴에 근거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시나리오 및 확률로 계산하여 선택한다. 적어도 예언보다는 적극적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역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과거 일이 반드시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정말로 중요한 사건은 ”늘 새로운” 것이다.

셋째는 모순의 응시 미래의 변화는 현재 시스템이 품고 있는 그런 모순에서 변증법적으로 비롯되는 것임을 알고 그 모순을 먼저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치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현실에서 너무 당연하게 먹히고 있는 것이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향해 발산해가는 것. 혹은 호황일색에다가 100% 긍정과 찬양으로써 수상한 것들부터 보는 과정이다. 다만 이것은 아직까지도 암묵지적인 것에 속한다.

이 세가지를 모두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예언과 예측의 문제는 당사자가 특정한 시나리오에 ‘사로잡혀’버린다는 것이다. 예언은 그렇다 치고 예측을 보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한국사회가 암울하다는 예측을 들은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되는 양 착각해버린다. 앞으로 로봇기술이 발달해 노동력을 대체해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인구가 줄어서 1인당 자본이나 일자리가 늘어나 안정이 될 수도 있다. 애당초 저출산이 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정상이었고 과거와 같은 다출산이 비정상이지 않았나하는 식으로 통찰하다보면 정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13.91 제2의 IMF

2016.04.29

1997년 당시인가 S모씨께서 경제위기가 온다는 식의 글을 썼다가 설렁탕 드시러 가셨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독극물일수록 달콤한 향기를 내고 위험한 곳일수록 절경을 뽑내며 사기꾼일수록 좋은 사람인 척 하지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얼핏 보면 전세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다 오르는 것 같아 호황인 것 같지만 실제 민심은 선거 결과에서 드러났다시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것이죠. 분명 뭔가 이상하게 굴러간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보이니까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집안에 빛이 있으면 어떻게든 갚는 쪽으로 가는 게 낫고 – 극단적으로 말해서 수익성이 없는 대학교 학과에 진학할 바에는 그 돈을 킁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 – 본인들도 철저히 허리때 졸라매고 아껴쓰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 치킨이나 피자도 끊고 편의점 음식도 가능하면 금지하고 지출 내열 철저히 적고 통제하시길.

1997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적인 문제였지만 이번이 위험하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상실되어버린 상황이어서입니다. 공부 잘 하는 학생이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하필 시험장 뒷자리 녀석이 조폭이어서 망했다하는 게 전자라면, 정말로 실력이 없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실적이 안 나와서.... 라고 하는 게 후자이겠죠.

경쟁력 상실도 상실이지만 이걸 정부, 시장, 시민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글쎄요. 결국 **누군가 희생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희생해주는 사람은 늘 약자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정체되어있으니. 즉 다들 질주하다가 멈춘 상황이니 루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선 부활의 기회가 되겠죠.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이 레버리지 효과를 누렸던 경우 양날의 검에 베여 오히려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잃을 것도 없으니 고효율에 절약형으로 자기 분야를 준비해나가면 희망이 있겠죠.

+ 검색하다 읽은 흥미로운 글

링크

++ 흔히 경제위기 와서 집값, 건물값 떨어지면 주워담는다... 하는데 그건 현금으로 10억 이상이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개드립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

손으로 잡는 짓인데 그게 정말 금덩어리인지 아니면 참치캔뚜껑급 칼날인지 모른다면 누구나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997 IMF는 그래도 일시적인 걸로 끝난 셈이고 서브프라임은 그나마 잘 대처했기 때문에 끝났지만 이번 건 그렇게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치한은 잘 나간다, 그래도 건물이 최고다...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반론이 나옵니다. 의치한도 환자가 와서 돈을 써주지 않으면 답이 없고, 건물도 들어오는 임차인이 없으면 부질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 다수가 가난해지는데 나 홀로 돈변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돈의 가치는 그 경제활동의 흐름 속에서 창출되니까요.

13.92 목숨값 : 마이크로모트

2016.05.06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널드 하워드 교수는 '마이크로모트'라는 개념을 고안했다. 마이크로모트는 우리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감수해야하는 비용의 단위다. 마이크로모트는 사망가능성의 100만 분의 일이다. 우리는 1천만 달러를 받고 인생 전체를 팔진 않겠지만, 10달러를 받고 그 100만분의 일을 파는 건 허락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이크로모트는 한 단위에 10달러인 셈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더 안전한 차나 비행기를 탈 것인지는 현실적인 결정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경차는 해마다 100만대당 109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중형차의 경우 100만대당 53만명이 사망한다. 우리의 마이크로모트를 단위당 10달러라고 가정하면 경차로 1마일을 가는 비용은 0.0109 마이크로모트인 반면 중형차로 1마일을 가는 비용은 0.0053 마이크로모트이다. 우리가 10만 마일을 자동차로 달릴 때 경차의 안전비용은 10900달러, 중형차의 안전비용은 5300달러이다.

출처 : 알라딘 중고시장에서 님들이 찾으삼

신뢰성 100%가 아님에도 우리가 현대문명의 이기를 '위험'하지만 누리는 건

과학이 아니라 경제적인 걸로 설명한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하니 자동차를 없애자라고 하면 절대 과학적으로는 반박할 수 없다. 왜냐면 정말 그걸로 사람이 안 죽는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도 설마 하겠지만 사망 원인이 자동차로 기록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없앨 수 없는 건, 이 자동차 때문에 사실 삶이 쾌적하거니와 더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교통과 수송 기능을 포기하면 그로써 사라지는 목숨이 많아진다. 당장 구급차도 그렇지만 이로써 사회적 기능이 정체되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그리고 이걸 그나마 제대로 설명해주는 개념이 위에서 상술한 마이크로모트이다. 우리는 목숨 전체를 내놓진 않는다. 단지 그 일부를 떼어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건 수협이든 노동이든 뭐든 사회 전분야에 적용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숨의 일부분을 조금씩 매매하고 있다. 부자들은 일부를 팔고 나중에 더 많이 수거하는 반면, 서민들은 사람들은 많이 팔고 일부만 수거한다고 해도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왜 대기업에서 월화수목금금금하던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옮겨타는지도 이걸로 설명된다(목숨값을 버는 거니까)

상품과 서비스는 과학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모두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과 소비를 하는 건 '싸기' 때문이다. 엄밀히 따지면 건설도 양자역학(...)에다가 상대성 원리까지 적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걸로 건설을 중단한다면 손실이 더욱 커진다. 그리고 이 경제원리를 따라간다는 건 '어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걸 사회적으로 떠들 수는 없다. "그 선택이 몇몇의 목숨을 위협할지도 모르지 경제적이니까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걸 돌려서 말한 게 '전문가들이 겸증한 과학'이라는 수사다.

예컨대 후쿠시마 방사능이 한반도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건 편서풍 덕분입니다... 라는 건 구라로 밝혀졌지만 다들 이건 침묵한다. 왜냐면 그걸 떠들어서 한일관계 경색이 되어보았자 이득볼 게 없기 때문이다. 중국산 미세먼지가 한

반도를 급습해도 반도민들은 침묵해야 한다. 우리가 중국에서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만 천문학적이다. 하지만 '경제' 때문에 이렇게 여론을 조작한다고 조차 말까지 할 수 없다. 그래서 미세먼지 일부가 한반도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과학적 수사로 넘어가는 것이다.

마이크로모트의 지불자는 정부가 아니라 '본인'이다. 어떤 사건이 터져도 그건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 검증을 확실히 하면 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일 수 있다. 첫째, 그건 정부나 전문가 카르텔이 만든 일방적인 메시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둘째, 발언자는 자신의 마이크로모트, 즉 목숨값을 전혀 생각하지 못 하고 있다.

아니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이 목숨값이라는 개념을 중고 교육에서 가르치진 않는다. 중고 교육에서는 과학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야한다고만 얘기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위험천만한 얘기다. 그건 결국 권력자들의 말을 듣는 충실한 '종속자'들만 양산하자는 것이 아닌가.

이과짱임이라고 해보았자... 그 이과짱들도 교수든 연구자든 '대기업'과 '정부'가 주는 돈에 기대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정부는 개개인의 목숨값을 아주 저렴하게 매긴다. 우리나라의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이 과연 소신껏 연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건이 터져보았자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우선 죽은 사람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런 것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사실 이 논쟁을 하면 우리 모두가 병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는 정말 우리가 요구해야 할 권리를 못 쟁기고 있다라는 결론이라서리.

그리고 선의의 시도조차 실은 돈을 쪘는다라는 것을 보이는 게

가령 설탕세를 부과하겠다 하면서 비만과의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건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복지를 강화하는 것은 - 그게 실효성이 떨어져도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인구수를 늘려야 역시 장기적인 돈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100% 추진되지는 않는다. 언론조차도 대기업 스폰서가 없으면 영위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은 조져도 적당히만 조져야 한다.

어떻게 보자면 합리성이라는 환상으로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목숨값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전혀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혹시 사태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전자파나 첨가물의 해악은 어떤가? 간혹 TV 방송에서만 공포마케팅으로 조장되지만 결국 없던 일처럼 지나가지 않나. 물질은 아니지만 딸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TV에서 성적 대상으로 여중생, 여고생들이 소비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지만 과연?

이런 걸 곰곰히 생각만 해보아도 어디든 부조리는 가득차 있다. 다만 그걸 하나하나 해결하기 힘들고, 우리 개인은 개인의 문제만 해결하기도 벅차지만 문제는 그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조차도 정부나 전문가의 말을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자기 권리를 포기할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한몫하는 것이 결국 ”담론” 형성인데, 이 담론 형성을 담당하는 자들이 바로 지식인들이다. 하지만 이 지식인들조차도 중요한 건 침묵한다. 그런 건 자기들의 일자리와 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다.

원칙적으로 말해 일반인들도 검증해야 한다. 만약 검증 주체에서 일반인이 빠진다는 건 ’주권포기행위’나 맞먹는 것이다. 직접 할 수 없다하더라도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그런 시도조차 몇이나 있었느냐는 의심스럽다. 개인적으로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세월호 유족들의 다소 선을 넘어보이는 것과 같은 활동이 이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다. 이 사람들이 막 나가지 않았다면 정말로 조용히 묻히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거의 갑질 비슷하게 나갔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로 보상받고 이슈가 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하면 이들의 행동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다. 문제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지도 못 했단 것이지만.

13.93 역산적 사고법

2016.05.07

서른살이었을 때 무엇을 후회하고 있을까, 마흔살이었을 때 무엇을 후회하고 있을까. 죽기 직전에 어떤 것을 후회할까.

일단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즉, 이상적인 미래상을 정한 다음에 그 미래상을 미래의 현실 시스템과 결부지어 교정한 다음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과정을 밟아야하나 보면 되는 건데.

한데 상당수가 ”과거지향적”인데다가 ”누가 잘못했나”하는 식의 데카르트 사고의 노예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단지 과거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지금 훨씬 더 잘 나갔을 텐데...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정작 자기가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할지 그런 게 없어서 결국 모든 것에서 탑이 된다는 망상에 빠져있습니다. 다수 수험생들도 그렇지만 콕콕러들도 이런 경향이 없는 게 아니죠.

예컨대 대학과 자격증에 관한 생각도 뭔가 잘못되어있습니다. 대학도 ’창업’, ’취업’을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미국에서는 창업을 취업보다 더 쳐주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분위기죠) 만약 본인이 창업, 취업에 자신이 있고 그만한 역량이 있다면 대학과 자격증은 그냥 악세사리일 뿐입니다. 먼저 말해서 자기가 마흔살에 어느 직장에 어떤 부서 직책을 맡고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역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못 하니까 재수, 삼수까지 하면서 명문대에 꼭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오히려 망가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10년 뒤에도 과연 학벌만 가지고 베텔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기가 서른, 마흔살이 되었을 때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도 정확히 보아야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신의 직장(공무원 포함)이나 대기업 때려치우고 고시친다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변호사가 훨씬 더 많이 변하고 얘기하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들 신의 직장이나 대기업에 못 들어가서

안달이죠. 절대 변호사가 망할 리 없어라고 했습니다만 미래 예측서에서는 의사나 변호사를 오히려 몰락 1순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마 의사가 라고 하는데... 절대 그럴 리 없어라는 게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 고양이처럼 바뀌니 이런 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산적 사고는 미래를 개척하는 유일무이한 사고법입니다. 수학도 이 역산적 사고로 굴러가죠. ”해가 있다면”이라고 가정하면서 ” $x=?$ ”라고 잡는 것이 그것이니까요. 이러한 x 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때려맞추기를 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산적 사고를 쓰지 않으면 그냥 자기의 운명에 수동적으로 순응해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현명한 친구는 국영수를 잘 하는 친구가 아니라, 현실을 꽤 정확히 예측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미래상을 정확히 잡고 거기에 매진하는 친구가 아닐까 합니다. 고딩에게 현실예측을 바라다니... 라는 것이 안 먹히는 이유는 어차피 이 분야는 연령성별불문하고 다들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얄궂은 블루오션입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성적대는 대로 대학과 전공과 직업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알아서 좋은 자리가 들어오겠지라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중학생이 어른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어른들은 돈에 감염되어버렸거든요)

13.94 봉괴

2016.05.08

일본의 빈집 링크

테슬라 예약주문 40만대 링크

알파고 시대 우리아이 알파백수로 링크

우버의 확장 링크

매년 초마다 발간되는 박영숙 교수의 유엔미래보고서를 완전히 무시하기만은 힘들 것 같다. 이 책도 짜깁기라고는 생각하지만 짜깁기도 정말 꼼꼼히 된 짜깁기다. 풍부한 자료에서 쓸만한 것만 추려낸다.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던 것들이 저렇게 기사화된다.

그 전에 무엇보다 우리가 알던 자본주의 틀이 무너지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색다른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이 온다. 그건 기업들이 '이윤추구' 이전에 '사회적 공헌'을 내세움으로써 실현된다. 이제는 사회적 공헌을 하지 못 하는 기업은 살아나지 못 한다.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알던 것들 90%가 거짓말로 판명났다고 보면 된다.

우선 기사들을 보자. 일본의 빙집이 시사하는 건 우리가 알던 부동산 시장의 붕괴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혹시 부모님이 부동산에 환장하셨다면 바로 말리길 바란다. 철저히 현금을 확충하고 빚을 줄여야 하는 시대다. 지금이 제2의 IMF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상태로 접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미분불가능한 뾰족점이었다면 지금은 미분가능한(...) 접점이라는 차이 뿐이다. 이 상태에서 어디 하나라도 무너졌다간 아작이 나버린다. 그것도 그렇거니와 우리나라로 빙집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중이고 무엇보다 일본을 10년 늦게 따라간다. 괜히 전셋값이 높은 게 아니다.

테슬라나 알파고가 시사하는 건 우리 사회 후진성이다. 현기차 등이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누가 더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테슬라 생산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성 생산/소비는 중세시대 수준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은 기존의 이권 때문에 그런 중세시대적인 것을 지키고 있다. 2018년에 코딩 교육을 하고 문이과통합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늦은 게 아닌가. 우버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통과되지 않은 걸로 안다. 물론 카x

오 쪽이 그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 과격한 혁신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다.

그동안 제시되던 패러다임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졌다. 이럴 때는 ”갈아타라”는 게 답이다. 우리가 알던 기성의 교육이나 산업은 화석이 되어갈 건 분명하다. 물론 기성 시스템에서도 안 되는 사람은 갈아타지도 못 할 게 뻔하다.

13.95 인간관계

2016.05.08

개인적 경험에서 오래가는 순

(오프없는) 온라인 :::: 중고등학교 친구 ; 그 외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과거에 하이텔, 나우누리 시절에 번개(...)라는 걸로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양식을 즐기고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는 게 없는 이유가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오프에서는 철저히 외모와 재산이라는 걸 보기 때문이다.

이제 어느 정도 웃기냐면 채팅방에서 영혼을 나누었다는 남녀가 오프를 트고 서로의 외모에 실망하니까 어떻게 평계를 대고 안 만날까. 이런 궁리를 하던 게 그 당시 PC 통신 시절의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덜한 이유는 이미 온라인에서 끼리끼리 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진짜 오래가는 친구는 힘든 시절을 공유한, 다 같이 짊어 뛰지면서도 서로의 오줌을 나눠먹는 그런 사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저기 듣고 관찰하고 경험하고 상담하다보면 현금 다발에 서로 배신하거나 생끼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본인이 만약 잘 나갈 때에 다가오는 사람들은 본인이 못 나가면 그대로 떠

날 수도 있다고 여겨야하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못 하다. 그걸 무의식적으로 알기에 잘 나가던 사람들은 더 외모에 신경쓰고 빛을 내서 더 화려한 소비를 하려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가 자취를 곧 감춘다.

순수하게 오래 가고 싶으면 온리 온라인으로 하는 게 낫다는 게 경험적인 판단이다. 저기서 중고등 친구조차도 일년에 1~2번 만나는 수준이니까 오래 가는 것이지 그 이상 가면 현실적인 이해관계상 힘들어진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돈 빌려줘', '좋은 보험이 있어'라고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당연하다. 아무리 친구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은 주지 말아야 하며 일부러라도 만나는 횟수를 줄여주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그에 비해 순수 온라인은 서로가 거리를 분명히 확정지어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넘어선다는 불문율을 지키니까 더 치페이처럼 편한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지금은 연락을 안 하지만 (그런데 언제라도 트면 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 중고딩 친구니까) 정말 인간관계에서는 너무나도 환상적이어서 양다리가 아니라 문어다리 수준으로 엽색행각을 벌인 친구가 진리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람 사이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내 경험상은 저 말은 진리이다. 물론 거리를 유지해도 오래 가지 않는 관계도 없지 않는데 그건 어차피 '비즈니스' 관계인 것 뿐이다. 얼치기들은 비즈니스 관계를 진정한 관계로 오해한다. 예쁜 여자가 갑자기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 대해주면 정말 자기를 좋아하나보다라고 착각하는 남자들이 좋은 예다. 비즈니스 관계는 그냥 비즈니스로 쿨하게 끝내야 한다.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이 겪는 건 사람 사이의 배신이다. 그건 누구나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인간관계가 자산이라도 되는 줄 알고 일부러 잘 꾸미거나 친절한 척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정말 낭비다. 하나의 이미지를 구축해놓으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일 수 밖에 없다. 외제차나 명품백에 거금을 쓸 수 밖에 없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런 데 돈을 쓰지 않으면 무시당하니까. 차라리 무시당하고 강 손절해버리면 되지 않냐 하지만 사람 심리가

그렇지 못 하다. 여기서 또 말리는 것이다.

하나 재밌는 예만 들면 어디든 커뮤니티가 망가지는 길은 간단하다. 모 사이트에서는 자기가 여자인 걸 드러내는 걸 금지시켰는데 그거 경험과 관찰에서 우러나온 썰일 것이다. 보통 잘 나가는 커뮤니티는 일반적으로 마니아 덕후 남자들이 완성해놓는다. 이들이 열정적으로 자료 올리고 행사 진행하면서 사람을 모은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활성화되면 하나의 작은 사회가 완성되는데.... 재밌는 건 이런 데가 있으면 귀신 같이 냄새를 맡고 들어오는 새로운 여성회원이 늘 있다. 온갖 애교에다가 착한 소녀 기믹으로 오빠 어찌구 하고 들어오는데 문제는 바로 '오프모임'에서 터진다. 그 때까지만 해도 유비 관우 장비의 의형제 정신으로 벼텨오던 남자들이 오프에 참여한 여자가 예쁘더라면 그 때부터 심각해지는 것이다(...) 자기들은 초연한 척 하지만 결국 그런 예쁜 애가 슬그머니 갑질을 시작하고 남자들이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자기가 잘났다 경쟁한다. 거기에 질린 다른 여성회원들은 점점 활동을 중단하기 시작하고 갈등이 표출되면서 판 살림차리러 나간 사람들은 독립해서 나간다.

저렇게 망가진 커뮤니티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 그럼 여성들만이 모인 사이트가 괜찮겠네요 – 라고 하는 것. 검색 사이트에는 모르지만 알만한 사람은 아는 그런 곳들이 없는 건 아니다. xx 오빠 팬클럽이라거나 드라마 덕후질 같은 경우야 꽤 오래 간다. 그런데 이런 곳은 남자들이 보기엔 '군기'가 잡혀있다(...) 빠심이나 팬심 아니면 베틸 수 없는 곳이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되는 것은 증오심(남혐) 정도. 이걸 빼고 나면 사실 여성사이트들은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그 회원들은 다시 남성들이 모이는 사이트 공략을 시작한다는 뻔한 패턴.

13.96 커뮤니티 활성화 방법 – 자존심 상처입히기

2016.05.09

키배 조장 → 자존심 환자 발생 → 게시판 헤게모니 욕망 → 악순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양적완화술 중 하나. 게시판에서 키배가 벌어지면 거기서 패한 사람이나 이긴 사람이든 자존심에 사로잡힘. 자존심에 사로잡힌 사람들(특히 남자들)은 게시판 승부에 환장함.

타인이 보기에 보잘 것 없는데도 특정 커뮤니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음. 왜냐며 그 사람들은 그 커뮤니티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임. 그래서 과장해 말해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온라인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남의 문제로 보지 마셈.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게시판 뿐만 아니라 과거 싸이월드도, 블로그도, SNS도 다 그렇습니다. 이 맛에 중독되어버리면 그 이후로는 답이 없어집니다. 중독의 배경은 다름아닌 자존심이지요. 당연히 그런 건 본인 인생을 위해 그만둬야 하는데 그런 건 근절되지 않죠.

본인이 사이트 열어서 장사치되고 싶다하면 이 방법 쓰면 됩니다. 다만 칼부림 날 가능성이 있죠. 참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키보드 몇자로 마음이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겁니다. 이건 게시판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게시판에서 서로 의견 다른 걸 존중하고 그냥 토론은 토론으로 끝나게 하고 그 이상 가면 무조건 컷시켜야 작성자들도 하면 안 되는 것임을 알고 그러지 않는데 그런 것을 방지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바뀌는 것이죠.

게다가 저런 상태에서는 어느 커뮤니티에서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침묵하는 능력자들이 질려서 떠나버리지요. 활동 회원을 보는 척도는 그 회원의 ”공헌도”와 ”비판도”를 종합해서 따져야합니다.

공헌도가 높고 비판도가 높다면 실천자

공헌도가 높고 비판도가 낮으면 종속자

공헌도가 낮고 비판도가 낮으면 방관자.

공헌도가 낮고 비판도가 높으면 **파괴자**.

당연히 실천자를 늘려야합니다. 파괴자는 언뜻 그럴 듯 해보이지만 그냥 암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환자들을 양산하는 전략은 피해야 합니다.

13.97 고민의 절반 이상이 과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2016.05.09

아래 적은 역산적 사고법을 참조해주시고 그에 따라 행동하길 바라고.

과거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사둔 땅이 올랐다거나 주식이 배당금을 준다는 것도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약속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결과는 '선택'과 '실천'할 때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강령술한다고 시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간혹 죽었다고 착각한 케이스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을 망치는 게 자존심과 과거 집착입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단 한건도 없어요. 흔히 하는 착각이 자기가 죽어라 하면 과거의 실패조차 성공을 위한 자산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헛소리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성공했으니까 재평가하는 윤색에 불과하지, 정말 그게 자산이라면 지금 도움이 되어야죠. 나는 삼수, 사수했으니까 다음에는 입시 성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게 가장 흔한 미신입니다. 그런데 바꿔 말해 3번, 4번 실패했으니까 실패할 확률도 크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이야기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되, 현재 지금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 역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조건입니다. 자신의 단점은 자존심을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존심을 버리면 단점도 처리할 수 있단 이야기죠.

그러나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은 **정말로 몇 없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은 없지만, '포기당하는' 사람은 물론 많죠. 정말 제대로 망해버린 뒤라면 말이죠.

서른이나 마흔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어떤 걸 했어야 덜 후회할까 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자기가 **지금 가장 하고싶지 않은 선택이라거나 자기 자존심상 허락할 수 없는 것을 택하면 됩니다.** 그게 알고보면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13.98 1년 뒤 일은 고민해보았자 무의미하다.

2016.05.11

한국의 주력 산업이 중국에게 털리고 있을 거라는 예측은 10년 전에 겨우 나올까 말까였죠. 짱깨라고 업신여겼지만 지금은 주권을 내주면서까지도 중국인에게 굽신거리야 할 시절이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중요한 걸 10년 전에 알고 예비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개인 차원에서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조직에 들어가거나 학업을 밟습니다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변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지의 변동에 대비하도록 늘 준비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하라는 준비는 안 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험사이트 학생들을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너무 정확히 알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다고 준비 따위 하는 것도 아니지만요. 준비는 안 하고 어떤 직업이 좋나 서열놀이나 하고 앉아있죠. 쓰레기라고 불려도 별로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다.

1년 뒤는 커녕 사실 내일, 아니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

릅니다. 그나마 계획을 세워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예측불허의 사건은 늘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예측불허의 사건이 안 터지는 방법은 우리가 전지전능해서 미래를 모두 알고 있어서 피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죠. 그러니 미지의 사건과 조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미래를 훤히 안다는 것의 문제는 '자기예언 실현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해도 공부할 수 없어, 그냥 편의점 알바로 살아야겠다"라고 좌절하면서 그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정말 편의점 알바만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기 시야를 좁히고 노력을 안 하죠. 예, 뇌가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13.99 일본 로스쿨 정원미달

2016.05.13

링크

우리나라는 정확히 일본을 따라가죠. 전여옥의 일본은 없다라는 책에서 깡던 일본의 온갖 음란한 풍습, 반도민들이 더 해먹었음. 원조교제한다고 일본 애들 문란하다고 깡지만 한국은? 성상품화한다 어쩐다 하는데 여학생의 성을 상품화한 아이들은 더 잘 팔아먹고있죠.

세대간의 특성이나 직업문제도 그렇죠. 재밌는 건 15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가 무슨 바깥 일이냐, 살림이나 해야지라고 하면서 전업주부가 암울하다가 했는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전업주부야말로 여성의 상위계급이라는 이야기가 미우라 아츠시의 [하류사회]에서 나와서 기묘하다 했건만 지금도 여자들은 전업주부 이제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저것도 정확히 따라갈 겁니다. 한 때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드라마 [공부의 신]도 원래 일본 원작에서는 주인공이 변호사지만 돈을 벌 수 없어서 학교 재생사업에 나선 것이었죠. (여담인데 이 작가 만화야말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훌륭한 교본인데 번역이 잘 안 되고 있죠)

13.100 안중근 의사 논란

2016.05.13

개인적으로는 아이돌은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안중근 의사 모른다고 마녀사냥당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원태우 열사'아는 사람 몇이나 있을지. 원태우 열사 모르지? 그럼 갈굼당해봐라하면 다들 억울하다 하겠죠.

사실 안중근은 세컨드죠. 퍼스트는 원태우 열사. 안양역 에스컬레이터에 부조로 새겨지신 분이죠. 그 근처 철로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를 전복시켜 죽이려 했던 대담한 분인지라. 쫄아버린 동료가 철로에 놓은 돌을 치워버리니까 짱돌로 이토가 탄 객실에 크리를 먹여 얼굴에 유리조각이 박히는 부상을 입힌 분입니다. 고문당해서 고자(...)가 되신 분이지만 조국의 광복까지는 보고 돌아 가신 분입니다.

안중근은 모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에게는 그럼 원태우는 아느냐 따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안중근이 유명하다... 라고 하는 건 그건 본인들이 역사를 적극적으로 알려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배웠다는 것 밖에 되지 않죠.

사실 안중근도 꽤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긴 했지만 '반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중근은 냉정히 말하면 '친일파'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재판 받을 때 자기가 '일본 천황을 위해서 간신 이토'를 죽였다라고 만 이야기했지, 일본 제국주의를 까지는 않았거든요. 즉, 일본은 서양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지켜주었고 그래서 러시아와 싸우지 않았느냐, 그런 착한 일본이 한국을 먹어치울 리 없고 일본 천황도 그럴 분이 아니다(참고로 안중근은 '일왕'이라고 하지 않고 '천황'이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토 히로부미가 농간 부려서 그런 거다, 이토만 죽이면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하죠.

지금 보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죠.

오히려 이토는 조선을 강제병합까지 시키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보호국'으로 관리하길 선호했죠. 사실 조선왕조 입장에서도 그 정도까지 타협을 보려고 했던 것 같다고 봅니다. 이토가 죽자 고종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고 예우를 기렸거든요. 어차피 나라도 작살나는 판이라면 왕조라도 존속시키는 게 남는 일이었는데

이토가 살해당하자 오히려 강제병합이 빨라졌죠. 이토가 살해당하자 오히려 일본의 강경파들이 더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 조선왕족은 일본 황족에 편입되었고(사실 조선왕조가 고려왕족들을 어떻게 살육했는가 반추해보면 관대한 (--) 조치일수도) 그냥 깔끔하게 병탄당해서 사직이 무너져버렸죠.

사실 이토야 우리 입장에서는 원수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진보'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메이지 혼법의 초안을 만들었거니와 무엇보다 '인권'을 강조했으며 전쟁보다는 외교를 선호했죠. 당시 조선의 엘리트들이 이토에게 괜히 넘어간 게 아닙니다. 원래 동양평화론도 안중근이 아니라 이토가 원조였어요. 이토가 원조 동양평화론으로 한중일이 합쳐서 서양으로부터 아시아를 보호하자라고 하면서 구워삶자 하니까 다들 헛가닥 넘어가버린 것이죠. 그러나 조선은 무조건 일본에 흡수되어야한다는 것보다는 '보호국'이라도 가는 게 낫다는 건 그 당시 엘리트로서는 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인데 이토가 죽자 이게 물건너가버립니다.

그렇다고 안중근 의사의 이토 사살이 폄하당할 건 아니지만 이게 과연 '치밀한 계산'에 따른 합리적 판단인가하는 건 다소. 안중근이 이토를 죽이면서 발표한 15가지 이유를 보면 당시 정치적, 국제적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죠. 예컨대 메이지 천황의 아버지 고메이 천황이 암살당했다는 루머를 그대로 담은 것도 그렇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직접적인 반일은 없습니다. 모든 원인을 그저 이토 히로부미 개인에게로만 돌린다는 게 치명적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첨병이 바로 메이지 천황인 걸 간과하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일본인은 고대사 컴플렉스가 강하고, 중국인과 한국인은 근대사 컴플렉스가 강하단 말이 있죠 그래서 일본이 얘기하는 고대사, 한국 중국이 말하는 근대사는 걸러들어야합니다. 흔한 반박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라고 하지만 그건 객관적 근거가 없는 한 하나마나한 이야기죠. 동아시아 역사 기술은 '패배' 컴플렉스를 화장하는 데 치우쳐져있고, 이건 공자의 춘추필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고교 과정이라면 입시니까 어쩔 수 없이... 라고 쳐도, 입시가 아니라면 냉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 보호국화하더라도 어차피 일본이 조선을 먹기는 마찬가지였냐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약간 국뽕적 시선이 있다고 봅니다. 이토도 성격이 좋아서 보호국으로 관리하겠다가 아니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반도는 직접 관리하기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 곳이어서입니다.** 국토의 70%가 산지고 평야가 적고 자원도 종류만 많지 물량은 별로입니다. 외교를 선호하는 파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굳이 직접 관리해 돈들일 필요 없습니다. 협조만 받고 비옥한 만주나 중원으로 가는 게 낫죠 반면 전쟁을 선호하는 강경파 입장이야 다르죠. 호전파들은 보호국화한 조선이 통수칠 수도 있으니 **병참기지화**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되었죠.

++ 또한 일제시대 수탈을 이야기할 때 조심할 게 많습니다. 가령 토지조사사업으로 농민들이 땅을 잃었다라는 기술이 교과서에 되어있는데 이건 원래 조선에서 농민들이 양반들에게 종속된 상태였다라는 걸 은근히 은폐하고 있죠. 사실 달라진 건 크게 없어요. 수탈했다고 하는데 합병 이후 농지들을 독식하던 지주들은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쌀도 일본 본토에 팔아먹어서 일본농민들을 올 상에 빠뜨리죠. 교과서에서는 쫓겨나다시피 만주로 갔다고만 나오는데 이것도 딱히. 그 당시 만주는 드넓은 평야에 무주공산의 기회의 땅이었으니까 간 것이죠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면서 중국을 침략할 때 조선인들도 한몫하면서 실리를 쟁긴 건 사실입니다(...)

+++ 이토가 온건파건 아니건 뭔 차이가 있느냐하면서 기존의 역사관을 유지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래선 발전이 없죠. 이토가 장기적으로 치밀하

게 식민지화하려 했으니 더 잘 죽인 것 아니냐하는 논법은 두가지 문제가 있죠 첫째는 그건 이미 식민지화될 거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장기적인 것이지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닐텐데요 둘째는 우리 측도 일본에 완전히 복속당하지 않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걸 간과한 겁니다(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텐데)

그리고 일본의 노엄 촘스키인 마루야마 마사오부터가 이토가 죽어서 일본이 강경노선을 걸었다고 얘기했고 이에나가 사부로라고 태평양 전쟁을 반대한 사학자 역시 이토의 죽음을 베트콩이 베트남전 반대 운동가를 죽인 것이라고 얘기했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중근의 저격이 이런 나비효과를 불러왔다라고 볼 여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지적해도 그럴 리 없다라고 눈을 감는 사람들도 많죠. 그 눈감은 사람들의 양산이 바로 우리나라의 한국사 교육이라서 사실 한국사 교육은 그냥 안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될 정도.

++++ 독립군을 너무 추켜세워주는 것도 문제인데. 6.25, 즉 한국전쟁의 전초가 이미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의 '분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도 역시 가르치지 않죠. 윤치호 일기에서 지적했던 바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기호파와 서북파로 나뉘어 분열상태였고 그 와중에서 사상적으로도 민족주의파와 사회주의파로 갈라져 있다는 것. 이 분야를 공부해보면 이승만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나마 국제정세를 가장 잘 읽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심지어 일본이 설마 미국을 치겠나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당시에 JAPAN INSIDE OUT을 써서 일본의 해악을 경고한 사람이 이승만. 그 외 나머지는 사실 객관적으로 따지면 정세를 읽었다 보기 어렵죠

13.101 국가입장에서는 전문연 이제 해줄 이유가 없어요.

2016.05.17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글이지만 그냥 핵심만 적겠음.

1. 전문연 자체가 ”이공계 인력을 굴려서 고성장 시대에 과실 따먹는” 시대에는 유효한데 지금은 고성장 시대가 아니죠.
2. 이미 ’국내’ 이공계 석박은 넘치기 시작했으며, 차후 교육과정에서 이과 문과 구분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초딩들은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3. 정부에서 관심있어하는 대상은 해외 석박입니다.
4. 기업에서 관심있어하는 대상은 국내 석박 쌍값에 굴려먹기인데 **병특 없어도 가능해졌습니다**(그 때야 저런 데 취업 안 하려고 했죠)
5. 원래 이 제도는 **특혜였지** 당연히 보장된 권리가 아니었죠.

댓글보니 그냥 해외로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 해외로 가는 걸 정부는 더 좋아 할지도 모릅니다(...) 해외라 보았자 미국 일본 유럽인데 어디가든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배타적이 되면 최상위 아니면 다 국내로 되돌아오니까요. 그리고 무엇 보다 국민여론이 중요한데 이해관계자들 빼고는 반대 안 할 것 같은데(...) 소위 국익 이야기하면 사실 한류스타 빼줘야 한다는 딜레마 그 사람들 1인이 벌어오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부조리. 정부에서는 사실 특례 주고 싶으면 **‘중동가는 젊은이’** 주고싶은 심정일지 모르겠고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그냥 신속히 손절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아보입니당. 조심스럽게 적는다면 이거 만약 언론에서 취재 조사 들어가면 당사자들에게 더 불리하면 불리해졌지 유리할 건 없어보여서(...)

13.102 전문연 논란

2016.05.18

오르비링크

글이 어그로성이긴 하지만 딱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댓글들이 더 문제 있다고 여김, 검색하면서 찾아볼 생각을 해야지 인신공격을? 그리고 이게 문제가 없는 제도만은 아니었다고 여기죠. 사적으로 보고듣고하는 것도 없지는 않기도 하지만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세계일보 단독보도 출·퇴근 멋대로…'군복무' 신분 잊은 연구요원들

국방부의 갑작스런 발표대로만 진행되지 않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놓치는 게 그것이죠. ”정말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제도” 였나. 개인적으로는 국방부 발표는 언론플레이성이 다소 없지 않고 아울러 유예기간도 꽤 비현실적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들과 별개로 저 제도가 정말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인가라고 물으면 정말 마땅한 대답이 나올지는 의문. 별로 비리가 없지 않나 하기에는 한국은 발견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 뿐이고 어디든 털면 그냥 먼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이 초웅기하는 수준인지라 그리고 내부자들은 같이 연루되면 그 죄의식이 사라집니다요. 사건사고로 등장하는 용의자나 범죄자들이 다른 범죄자들을 안 욕하고 살았을까요. 내로남불이지. 다른 것 떠나서 저 제도에 대해서 만약 언론이 뭔가 떡밥을 물고 들어가면 과연 어찌될 것인가. 공보의나 전문연을 완전히는 없애긴 힘들지 않을까 싶지만 국방부 정책과 별개로 만약 저 실태라는 게 언론에서 캐고 들어가면 그 때 결과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95가 잘한다고 해도 나머지 5가 문제가 있다면? 이와 별개로 흥미로운 건 이 걸 수험생들이 관심갖는다는 건데(참 쓸데없는 짓) 현재 대학생 2~3학년까지는 몰라도 수험생들이 저 제도에 관심갖는 건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때는 정말 없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발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적어도 현 대학생 1학년까지는 그래도 구제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어야하는데 지나치게 짧게 잡았네요. 아마 유예기간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저렇게 되면 전문연 바라보고 공부한 분들은 신뢰가 깨지면서 피해를 보는 거죠. 거기다가 공보의 폐지는 사실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13.103 남혐 여혐을 막을 필요가 없음.

2016.05.18

어느 쪽이든 다 그렇게 주장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리. 어차피 말 뿐인 주장은 의미가 없죠.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상대 진영이 뭘 주장하느냐 그건 별 의미가 없는데 일일히 거기 대꾸하고 하는 것도 바보같은 짓이죠.

예컨대 남자들이 막을 위시한 여성 진영이 뭘 하든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두려워하는 건 여자들이 정말 노오력해서 실력으로 남자 자리 차지하고 가모장 행세하고 자기들 말대로 것양남(...)을 국내에 데려온다면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메시지 뿐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아무리 여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호구짓하고 있는데 사실 누굴 까리. 더치페이하고 싶다 하면 눈높이 낮춰서 그런 여자 만나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쁜 여자 만나고 싶다고 다들 그리고 있잖음, 그래서 그만한 대가를 결국 지불한다고 보면 손해보는 것은 아님.

가만보면 세상 은근히 공평함.

가장 극혐인 건 남혐 여혐 부질없다 하면서 기득권을 욕하자(그 기득권이 누군데 그래서) 남자 여자 억지로 화해하자 그건데 갈등이 생기면 싸울 건 싸우고 투쟁할 건 투쟁하는 게 낫지, 괜히 억지로 화해시킨다고 해서 그거 억누르다 간 나중에 더 큰일납니다. 여자들도 여혐을 계속 당해야 뭔가 바꾸고 남자들도 남혐을 접해야만 반성하고 바꾸지 무슨 이 사회가 혐오사회냐 그런 것이야말로 철없는 짓입니다.

저 개인이야 남자지만 사실 여자가 남혐 어찌구 하더라도 메시지가 일리있으면 고개 끄덕이고 어 그래 ... 그리고 할 것임. 가장 중요한 건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실적을 얼마나 거두며 자기가

돈을 얼마나 쓰느냐 그거라서리 부모님께 말로만 사랑해요 하는 것보다 저축해서 선물세트라도 하나 바치는 게 실질적 효도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리꾼들이 말로만 그렇지 실천하는 것 보기나 했음?

상대집단을 격하해서 혐오한다고 해보았자 자기에게 돌아올 콩고물 없어요. 뭘 하든 능력자만 대우받게 되어있어서리. 남혐한다는 여자들이 그래서 실제 잘 생기고 유능한 남자 오면 거부하고 여혐한다는 남자들이 쭉빵미녀도 깔 것 같음?

실제로는 남혐 여성들은 '여성 아이들' 까기 정신없고, 여혐 남성들은 엄친아 남자는 못 건드리면서 왜 여자들이 후궁노릇하느냐 울고 있는 게 현실임. 그런데 그 까는 애들이 과연 왜 까겠음? 뭐 타당한 이유가 없지 않겠지만 동기는 광 '컴플렉스'임. 이쯤해서 언질을 던지면, 뭔가 비판하는 분들은 정말 자기의 명분이 천명인지 아니면 컴플렉스인지 그건 구분해보시길요. 이번에 설현 같은 애들이 정말 안중근 의사 몰라서 까였겠습니까. 자기를 컴플렉스 자극하는 예쁜 애라고 까인 거지.

다시 말하지만 입으로만 뭐라 하는 건 사실 무서워할 것도 없음.

13.104 마이크로소프트 입사시험 마지막 문제

2016.05.19

링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큅니다.

13.105 그래서 남혐 여혐의 대안이?

2016.05.20

남혐 여혐은 둘 다 하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대안이 뭔지 궁금하지
말입니다(...)

예컨대 남자 무서워 못 살겠다 그건 이해는 갑니다만. 이 논리는 한가지 딜
레마에 부딪칩니다. 그런 어떤 식으로의 요구도 '남자'에게 하지 말아야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죠. 다시 말해서 남자 경찰관이라거나 남자 경호원도 믿을 수가
없다고 봐야 일관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경우라면 여성들이 호
신술을 배우거나 하다 못해 군사훈련(...)이라도 받아서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키
는 게 대안일 터인데.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그렇습니다. 이거 남혐 백날
해보았자 소용없어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미친 놈들은 본인이 막는
수 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여혐도 딱히... 착한 여자 만나고 싶다는 남자들이 그래서 착하
지만 못 생긴 여자 찾는 경우는 없더구만요. 말이야 한국여자들은 어찌구하면서
결국 이런저런 남자들 후리는 여우같은 경국지색 여인들에 훌려다니더구만. 그
리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돈만 밝힌다... 라고 할 게 아닌 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여자들의 미모도 '금전'으로 환원할 수 있는지라.

한국사회는 참 재밌는 게 문제제기는 잘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번 강남 문지마 범죄
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이야기 나와야하는데 이게 여성혐오증 없앤다
고 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왜 다들 이런 질문은 안 하는지 모르는데
그 범인이 '여자들에게 무시당했다'라고 말했다던데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실제로 여자들이 남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는 왜 문제 삼지 않는지
그건 좀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능. 즉 사건의 본질을 보기보다도 먼저 "이 사회는
여혐이야"이라고 결론을 정해놓고 사건을 훼어맞추는 분위기?

천하제일 추모대회(...)라고 해도 딱히 이상할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것도
유구한 동아시아적 전통이죠. 고인의 장례의식에 집중하고 그 재해석에 골몰하
지, 정말 산 사람을 위한 대안을 세우지 않는 것. 남혐 여혐할 시간이 있으면
도대체 이런 사건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런 데 집중해야하는데 정작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포스트잇 붙이는 사람들도 사실 그 사건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자녀들이 학대당해서 부모에게 살해, 유기당한 게 1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녀혐오'라고 하던가요? 이것도 사실 자녀혐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죠. 이런 걸 노리는 세력이 없다는 것.

남자들이 문제야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어떡할래”라고 할 때부터 답답해집니다. 그럼 추모를 할 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로 하여금 치안확보를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호신술 교육기회를 달라 그래야하지 ”한국남자가 문제야” 백날 그래보았자 바뀌는 것 하나도 없죠. 아니, 이 모든 걸 남자 탓으로만 돌리는 것부터가 사실 가장 위험한 '남성종속적인 사고'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결국 자기가 해결해야하고 그럴 의지를 보이는데 사실 그런 집단적 의지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걸 포스트잇이나 화환으로 추모대회 하는 것이야말로 ”예송논쟁”에다 ”당쟁”으로 허송세월하던 조선시대 관행 그대로가 아닌가 하는.

13.106 [영화] 님포매니악 1, 2 (스포 주의)

2016.05.20

님포매니악 = 색정광 라스 폰 트리에의 이 경악스럽지만 매우 철학적인 영화에서 등장하는 색정광은 여주인공 조만이 아니죠. 이상은 스포성인지라.

색정광 증세를 못 이기고 온갖 성관계를 하다가, 나중에는 잊혀진 오르가즘을 되찾으려고 중독적 행위를 하는 조에게 상담해주는 모쏠(...) 샐리그먼이야 말로 색정광이었다는 사실. 샐리그먼은 조에게 상담해주면서 사실은 그 이야기

에 자신의 지적인 자신을 덧붙여 추상적인 오르가즘을 느끼려 합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 자신의 현학주의적인 추론과 상상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조의 색정광 인생은 쾌락에서 고통으로, 과잉에서 상실로 바뀌어 온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녀의 섹스는 결국 중독이었다라는 걸 샐리그먼과 상담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엔딩 직전에 금욕주의를 선언하면서 섹스중독자들을 치유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만...

샐리그먼은 여기서 실망해버리는 것이고 결국 상담을 마치고 그는 조를 덮치다 그만(...)

영화 제목이 시사하는 바는 달리 ”마음의 평정”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일깨워주면서 위선적인 지식인을 까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샐리그먼이 상징하는 건 르네상스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유럽의 지성 그 자체겠죠. 성경을 근거로 마녀사냥을 실시해 여자를 잡아와 온갖 고문을 자행하고 마침내 시신을 해부하여 백과사전적으로 완성한 지식의 총집합. 이 영화의 메시지는 그런 서구적 사고에 대한 반박이자 해방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의 권총 한방보다 충격적인 건 ”어차피 넌 수천명의 남자와 잤는데 나랑 자도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샐리그먼의 위선적인 발언. 거기에는 사실 공감대라는게 없죠. 그가 많은 책을 읽었던 지적이든 간에 그건 다 소용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 위안 – 즉 평정심이라는 건 하늘의 햇님과 같습니다. 흐린 날 빼고는 늘 볼 수 있고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지만 사실 영원히 잡을 수 없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니 기억 속에 묻고 있던 잊어버린 사람들 – 중독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평정심이라는 것을 잡지 못 해서 그토록 방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도 있고 반면 느끼지 못 해서 괴로운 사람도 있지만 무엇보다 불안한 자기 마음을 추스리긴 정말로 힘듭니다. 불안하니까 중독에 빠지나... 중독은 결국 신경을 마모시키고 더 강한 자극이 아니면 느낄 수 없게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위선적인 샐리그만에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지라 사실 영화를 보면서 내내 찔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샐리그면은 조의 경험에 실제로는 황홀해하면서 자기만의 해석을 덧붙이고 코멘트하는데 히익 저건 내가 하는 짓이잖아.

그러므로 샐리그면과 달리 2차원에 정사영이나 해야겠다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결론으로 마무리~

+ 샐리그면에 가까운 인물은 플라톤이겠네요. 거기에는 데카르트가 살짝 혼합된?

13.107 [논란주의] 여혐 프로파간다의 이유

2016.05.20

말머리상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저 나름대로 시장분석을 한 것이니 그렇게 받아주시길. 사실 저는 강 그런가보다라는 방관자에 가까운지라

결혼시장의 변화가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남자와 여자 결혼할 때

남자는 최소 1억 5천만원의 전셋값을 마련하고 여자는 3000만원의 혼수를 준비한다

이게 핵심이라능. 그리고 이건 진짜 다들 침묵하고 있죠.

지금 남자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처럼 여자들에게 퍼주기 그만하자, 그리고 자기들도 여자들처럼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사귀겠다라고 바뀌고 있는 것이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혐 지적이 말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게, 그럼 과거

에는 여혐이 정말 없었겠습니까. IMF 이전에는 여혐이 없어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때에는 여자들이 그냥 결혼이나 하고 살림이나 해야한다 취급받았으니까. 사실 그 때가 더 심각한 겁니다. 한반도 역사상 여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때가 현재라는 사실을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이 때 여혐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이제야 여자들도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혐이라는 건 뭔가 핀트가 안 맞다는 것이죠.

아랫 글에서 적었지만 이제는 여자들도 'give'해야하는 시기기 왔거든요. 그녀들도 경쟁해야 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2000년대처럼 권리신장하는 시기는 끝났기도 했지만 저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비혼으로 가는 추세는 점점 커질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결혼문화는 확실히 거품이 많이 껴있거든요. 집값이 하락할 일은 당분간은 없어보이지만(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10년째 주장하는 평론가들 안다) 제 생각에는 5년 내에 결혼(과 취업)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사실 꽤 많은데 유럽 쪽만 하더라도 결혼을 하기보단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뒤 동남아 쪽으로 가서 딸, 손녀뻘 여자를 품는 남자들이 늘어나질 않나(...) 우리나라로 이미 프리섹스가 상용화되었고 피임에다 낙태까지 자유자재로 해서 결혼의 의미가 너무 많이 퇴색되어버렸으며 커플도 연령차가 커지고 있어서 굳이 결혼을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결국 저런 거품성 거래가 지속될 거라고 신뢰한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메갈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도 여혐을 문제삼는 다수의 여성들은 이런 시장의 변화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10대나 20대 초까지는 공부할 시간도 많고 혼인적령기와 거리가 머니까 상관없을 건데 거기 도달했거나 넘어선 여자들은 힘들어집니다. 공부에다 자기계발을 열심히 해서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여자들이라면 사실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하려고 하죠. 혼자서 자유롭게 취미 생활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여자들은 남자들이

펴다주는 결혼하는 걸 노리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남녀평등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준에는 여성들이 약자였다고 하니까 남자들이 생각 외로 양보를 많이 했던 편입니다(이걸 인정 안 하려는 분들도 많지만) 한국에서 남자들만 군대 끌려가는 것도 그렇고, 위에서 말한 결혼비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결혼을 하면 통장은 여자가 관리했죠. 그래서 결혼하면 시댁 돈은 내 돈.... 이라는 게 관행이었는데

남녀평등으로 가면 이게 깨진다는 것이지요.

자,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왜 그들이 '여혐'이라고 주장하는지요

'여혐'이라고 하면 다시 여자들이 '약자'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걸 남자 여자의 정치공학적인 문제로 환원해서 이게 다 남자들이 여자를 혐오하기 때문이라다고 하면서 여자들이 약자라는 프로파간다를 강조하면, 남녀평등이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기 시작하는 여자들의 과거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아울러 인터넷에서 유포되거나 혹은 과장되는 여성들의 문제점이라는 채무도 일소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건 더 비약해 말하면 ”우리는 이제 남녀평등이 싫어요. 그냥 과거로 돌아가면서 대우받을래요”라고 바꿔 말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건 다른 여성분들이 심각하게 비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답변을 안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분이 어떻게 사나 그리고 어떤 결혼을 하나 보면 되니까요. 실제로 20대 초에 이런 걸로 다른 여성분들과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답이 안 났지만, 시간이 흘러 보니 그렇게 보수적인 남성과 마초를 비난하시던 분이 정작 ”시댁 재산이 많고 소득도 괜찮은 마초”들을 만나 여자로서 행복히 살더구만요(...) 다시 말해서 남녀평등 주장하던 분들이 결혼은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그 분들이 전생에 애국이라도 하셔서 한미모하셔서 그런 것이고(그런데 페미니즘은 그 미모팔아먹는 것 까지 않나?) 그렇지 못 한 분들이야 뭐...

게다가 저 분들도 막차는 잘 탄 것이죠. 지금 같이 제2의 IMF가 온 시점에 저렇게 정신나간 결혼을 할 남자들은 별로 없죠. 이제는 각자 플레이인지라 정말 남자나 여자나 열심히 공부해서 각자 능력 키우고 대등하게 가야합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20대 초반까지는 별 문제는 없다 보이지요. 그러나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콕콕에 들어오는 여학생분들도 많으실 건데 저거 보고 휘말리지 마시고 넘들 공부 죽어라 하세요. 우리 사회가 이제 부모님 세대처럼 남녀가 화합해 결혼하다는 건 개뿔이고, 이제는 정말 개인으로 살아가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소위 정상적인(?) 결혼은 위너남과 위너녀 말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모도 사실 한 때이고 결국 돈발라서 관리 잘 받아야 짚음 오래가는 것인데 이것도 본인이 졸라 공부해서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은 힘듭니다. 공부 안 하고 외모타령 해보았자 별풍선이나 타먹는 아프리카 BJ녀들 빼고 답이 있겠습니까.

여성들은 전성기가 일찍 오기 때문에 – 즉 미모가 꽃이 피는 20대 초중반까지, 남자의 눈에는 진화심리학적으로 '생식'하기 좋은 시기 – 별 노력을 안 해도 꿈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거 20대 후반부터 아작납니다. 그래서 그 때 선배들이야 주가 떨어지기 전에 빨랑 결혼해서 호구(...) 잡자 하는 식으로 결혼하는 사례들도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 먹히겠어요? 제가 보기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밀리는 건 신체적 파워 이전에 중년, 장년층이 되었을 때에 실력과 자본이 없으면 재기가 힘들단 겁니다. 하다 못해 남자들은 망하더라도 노가다판을 떠거나 온갖 굽은 일을 하면서 베틸 수 있는데 여자로선 그걸 하기도 힘들죠.

지금 선동하는 메갈언니들이 그 세대니까 반면교사 삼으시면 됩니당.

13.108 [논란경고] 여자가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권리

2016.05.20

그게 추상적으로는 당연하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정작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은 밤에 술마시고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게 아이러니. 우리가 떠받드는 천조국만 하더라도 뉴욕 밤거리에 여자가 지나가보셈, 거기 남자들이 어떤 반응 보이나

정작 치안이 개판인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건 터져도 별 문제 삼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 아니 이건 약간 좀 비꼬아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왜 여자들 보고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하느냐 문제삼는 분들이 **치안이 개판 5초전인 다른 나라에 가서도** 살도 그렇게 대자보 붙이고 시위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네요 아니, 정말 그 정도로 위험한 나라면 강남역 10번 출구라고 해도 그 자정에 포스트잇 붙이는 게 가능하긴 할까.

그렇다고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현실 인식' 측면에서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치안을 구축한 건 일단 '남자'들이 아님? 국방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지만 자정 넘은 시각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남자들이죠. (사실 치안 측면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정말 궁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정도면 다른 나라 여자들이 환호할 정도로 우수한 측면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게 참 궁금

이번 사건 같은 것 막는 거 "추모 메시지" 해보았자 의미없다니까요. 확실한 해결책을 세워야지 그런 차원에서 과거 군사정권 때 있었던 "통금조치"를 하면 어떨까 하면 돌맞아죽겠죠? (그걸 해제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정권 때) 남녀공용화장실 없애고 화장실을 조캔다....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예 그런 곳은 어떤 건물이건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신분 조회한다... 이것도 확실한데 이건 또 반대하겠죠.

피해자가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님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재발 안 하려면 어떤 해결책을 내세워야하느냐는 거지. 그런데 현실은 참 말도 안 되는 생트집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혐하지 말라는 건데 그건 핀트 잘못 잡은 게 아님? 결국 이 문제는 '정신병자'나 '사이코패스' 같은 애들 범죄 어떻게

막느냐... 그러는 건데 여혐 때문이다라고 하면 어이구 답이 안 나오지요. 혹시 원하는 게 ”인터넷에서 여혐 글 차단 먹이고 그런 글 쓰는 놈들은 처벌하라”고 하는 것이라면*(어 이건 가능성 있어보이네) 자기들이 알아서 파시스트 사회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솔직히 피해자 추모와는 관계없이 그냥 화풀이하는 것 같은 데 정말 우리나라 치안 좋은 걸 모르고 그러시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여혐이 성총권을 뚫고가서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여자들이 밤에는 거리를 걷지도 못 합니까.

13.109 [논란경고] 한국의 치안지수

2016.05.20

링크

여기 가서 확인하셈, 혹시 1위에 왜 한국이 없냐 하는 반응 보이면 답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눌러앉는 경우가 치안이 좋아서라는 게 큰 이유가 되죠. 그리고 결핏하며 이민 간다는 사람들, 말로만 그렇죠. 타국이 치안이 좋은지 따져보기는 하셨나.

이 현실 보면 저걸 가지고 '여혐 범죄'라고만 소리치는 사람들은 과연 생각이 있는 건지는 좀 의심이 갑니다. 거꾸로 말해서 한국이 치안이 안 좋았으면 이런 논쟁도 안 터집니다. 치안이 안 좋은 나라면 강남역 술마시는 사람들도 없고 뜰하니 그 정도 범행은 일어나지 않죠. 밤 8시 이후면 아예 못 다닐테니까.

냉소적으로 말해서 여자라서 두렵다 무섭다 하는 분들 심정은 이해합니다 만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도 다소 회의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치안이 안 좋은 나라 수준에 맞출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그 반응은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싫으면 이민 가겠다... 그럴 리야 없죠. 그럼 통금조치 하자, 당연히 반대하겠죠. 호신술 교육하고 군사훈련 받아서 몸 지키도록 하자, 이건 아예 시위하겠죠.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실제로 여혐이더라고 하더라도 본인 몸은 스스로 지켜야하고 사회적으로 요구할 건 분명히 구체화시켜 요구해야하는 데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것도 남자들에게 뭔가 요구하는 식으로 '의존적 행태'로 간다는 게 가장 심한 문제죠. 그런데 남자들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성범죄 저지르고 수작 부리고 폭력 휘두르는 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 차원에서는 그러지 말자고 윤리적인 행위만 할 수 있을 뿐, 다른 나쁜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막을 수도 없죠. 게다가 성폭행 범행현장에서 범인과 싸우다 죽은 남자 장례식에 정작 도망간 여성피해자는 나타나지도 않았다죠? 여자란 이유만으로 희생할 이유 없듯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티 돌아다니다보니까 재미있는 게 "여자친구와 ~하게 대화했다", "강남역 여혐 범죄사고로 헤어졌습니다" 이건데. 비위 맞추는 수준이라면 몰라도 거기서 여자 말을 들어야할지는 의문입니다. 말하지만 문제 해결이라는 건 남자라고 특별히 깎고 여자라고 특별히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빠가 지켜줄께... 라는 치킨순살 멘트 원하는 여자라면 양 빼이니 그냥 헤어지라고 오히려 권하고 싶습니다.. '남자들이 문제가 많아'라거나 '우리 여자들은 불안해 미치겠다'라면 뭐 그런 반응이면 모르지만. 남녀평등 주장할 거라면 일단 도와 달라면 모를까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지 매드맥스 보고 퓨리오사에 환호할 때는 언제고.

하여간 이 광경은 다음 짤방으로 요약됨

매우 적절하다

13.110 주식할 때 망하는 패턴 중 하나가

2016.05.20

물타기입니다. 사놓고 떨어지니까 수익율 높인다고 그 주식에 또 돈을 퍼붓는 것이죠. 그런데 예측과 달리 또 떨어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원래 가격보다 오르면 나오는 수익으로 손해 메꾼다고 빛까지 지다가(...)

이게 공부도 마찬가지임요.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게 망하는 지름길. 자기 능력은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올바른 길입니다.

6월달부터 빠세게 하면 된다.... 체력과 지구력은 돈과 같습니다,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하건지? 체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치고 나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 이것도 잘 추스려야합니다.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지만, 원래 못 했는데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제 시간은 2배 빨라지는데 해야할 일은 생각한 것보다 최소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무리하지 않게 벼텨나간다는 자세로 가야하는 것이죠. 실력과 점수는 머리카락과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늘어나는 것인지 늘어나라 한다고 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벼락치기 하라고 하지 않았냐 하는데 그거야 더워지기 전까지입니다 (...) 이제 더위가 시작되었으니까 관리모드 가야함요. 그리고 냉정히 봐서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이 힘들다 하면 내년까지도 염두에 두시길요. 어차피 공부하는 자세가 안 되어있으면 대학 가도 소용없습니다. 서울대도 은근히 학업 못 따라 가서 휴학, 유급, 자퇴 코스 가는 사람 없지 않거든요. 앞으로 10년 공부해야하는 것 밑바탕 잘 잡는다라고 마음먹고 제대로 하시기들 바랍니다.

13.111 인공지능의 김대식 교수 썰

2016.05.20

링크

◆ 김대식; 학자도 아니고 유발 하라리 분은 정말 훌륭한 역사학자이십니다. 제가 유발 하라리라면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역사학자이고 호모사피엔스 역사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는 600장 책 맨 끝에 한 장에 들어 있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의 100% 또는 95%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파키스탄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우리는 당연히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또 한 번 느끼는 건 ‘이야, 대한민국 국민 머리 또 언론인들 머리 안에 상당히 깊게 박혀 있는 지적인 사대주의가 여기서도 나오는구나’. 우리가 100년 전부터 결국은 세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됐죠. 어떻게 산업 발전 할까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만들까요? 환경보호는 어떻게 할까요?

◆ 김대식; 결국 우리가 100년 전부터 했었던 것은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습득하고 이해하고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고 타인이 이미 경험한 문제들을 우리는 겪다 보니까 먼저 경험한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보고 압축성장으로 빨리 배운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답을 모릅니다. 아무도 경험을 못 해본 것이기 때문에.

◆ 김대식; 연구분야에서 좀 앞섰겠지만 인공지능 사회는 아무도 경험을 못 해본 거죠. 우리가 기술적인 건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직업의 50%를 대체하고 이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알파고 덕분에 어떻게 보면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보다 인공지능의 이 문제성은 우리가 먼저 본 거거든요.

◆ 김대식; 저는 이걸 사실은 약간 역사적 행운이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었어

요. 이야, 우리가 250년 전에 산업혁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 것도 모르다가 당했지만 이번만큼은 우연의 결과로 우리가 먼저 눈을 뜨고 봤기 때문에 먼저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 김대식; 이 세상을 남의 답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우리 눈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적나라하더라도 위험하더라도 무섭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부모님들, 우리보다 좀 더 큰 어른들 눈을 통해서 대신 보려고 하는 약간 좀 어린 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서 우선 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까지 표현하셨는데 답답하단 말이에요.

◆ 김대식; 당연히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물어볼 수 있겠지만 결국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의 사회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사회복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정답을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상당히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 김대식; 물론 미래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10년, 2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10년, 20년 후에 지금 10대들이 직업을 선택해야 될 나이에는 다른 건 몰라도 기계가 국영수를 우리보다 잘할 거라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렇다면 지금 10대 이하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국영수를 배운다는 것은 불도저가 등장하는 시대에 열심히 삽질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10대 이하들은 나중에 커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하고 경쟁해서 직업을 얻어야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친구들한테 기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기계가 우리보다 당연히 더 잘할 것들을 열심히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겠죠.

◆ 김대식; 우리가 지금 돈을 내고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것이 불과 100년,

200년 전에는 우리가 꼭 했었어야 하는 행위들입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웬만한 성인 남자는 하루 종일 벽돌을 짚어지고, 무게를 짚어지고 건물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 사람들한테 퇴근하고 네 돈 내고 어디 가서 무거운 짐을 2시간씩 드세요. 누가 했겠습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꼭 했어야 할 노동적인 행위를 우리가 돈을 내고 취미로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대부분 육체적인 노동과 지적인 노동을 기계가 하는 순간 인간이 손을 놓을 필요 없이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30년, 40년 후에는 그게 우리의 취미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 김대식; 기계인 척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만둬야 할 것은 반복성이 있고 내가 볼 때도 내가 하는 일이 기계적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아까 현실을 말씀하셨는데 이 현실과 인공지능을 보면 재밌는 현상이 하나 일어날 것 같아요. 그건 뭐냐하면 인류역 사상 인간은 항상 이기는 자 쪽으로 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 30년 후에 기계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지금 대체하고 더 잘나가고 더구나 동시에 기계는 인간이 가진 단점들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죽지도 않죠. 밥도 안 먹죠. 잊어버리지도 않고 더구나 이세돌 9단은 우리가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알파고는 구글이 원하기만 하면 100만번 복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zero marginal cost. 아무 돈이, 추가비용이 안 드는 상태로. 그렇다면 인간의 심리상.

우리가 가진 가치관의 99%를 버려야 할지도 모른단 생각이 듭니다(...) 여태껏 접한 인공지능 썰 중 그나마 유용한 이야기네요. 나머지야 그냥 무속 수준의 얘기였으니

사실 가장 찔리는 건 한국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무턱대고 정답부터 찾는다. 이건 수험에서도 마찬가지인 듯. 정답에만 집착하면 킬러는 못 풁니다

13.112 일본의 풍토 : 곤카쓰

2016.05.21

링크

알고리즘

1. 남자들의 결혼기피
2. 결스푸어현상
3. 전통적인 남녀역할로 복귀

일본에서 만난 젊은 남성들은 결혼에 대해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오히려 남자들이 결혼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여기자 타격을 받은 것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여성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되레 여성들이 ‘결혼 활동’에 더 적극성을 띠게 만들었다. 특히 3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가 은퇴하면서 수입이 급감한 2000년대 후반부터 결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파라사이트 싱글’ 자녀에게 부모가 더 이상 지원을 해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이 약해지자 젊은 비정규직 여성들은 다시금 결혼이라는 전통적 해법을 찾아 나섰다. 청년 스스로의 욕구가 아니라 부모에 의해 등 떠밀려 결혼 상대를 찾아나서는 형국이 됐다.

2012년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44%가 ‘아내가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3년 전보다 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후쿠시마 미노리 도코하대 교수는 “여대생을 포함해 전업주부를 꿈꾸는 20~30대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일벌레 남편’과 ‘가정주부 아내’라는 부모세대의 젠더 화된 생존 전략이 다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나리오.

1. 재산에서 주택 비중이 높은 586 세대의 몰락 : 집값 하락
2. 캠거루 가족을 지탱하기 어려워짐. 남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게 당연 해짐, 여자들이 일자리 찾기 힘들어짐.
3. 경제력 있는 남자에 대한 한국판 취집 현상 늘어남.

핵심은 경제력입니다. 지금 이미 여성들이 경제력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이들을 지탱해주던 5,60대 부모들의 지원도 힘들어집니다. 이 와중에 일베와 메갈이 생겨나서 그러한 빈곤을 인정하지 못하고 ”혐오”로 세몰이합니다. 물론 아무 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세몰이므로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일본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은 성비불균형이 있어서리. 다만 서울의 경우는 여초 지역이니 저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한국도 이 길을 따라하고 있다고 보는 증거가 근래의 메갈 활동이죠. 만약 여자들이 속편하게 앉은 자리에서 아무 준비없이 시집갈 수 있다면 저러진 않았을 겁니다. 원래 메갈의 주본거지가 디씨의 아이돌, 연애인 갤러리인데 그러면 딱히 짐작가는 것이죠. 저런 걸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다른 길로 가야지 똑같은 길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 왜 혐오활동을 하느냐. 그 혐오 행위에서 연대감을 느끼면서 공동체의 소속감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혐오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소속될 공동체가 없고 거의 외면받기 시작한 루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메갈의 경우도 기성 사회에 대한 반항이 투철한 여성들의 모임이죠. 이들의 결속은 한국남자를 혐오하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그 결속력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넓히기 위해 한국남자들에 대한 증오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색다른 걸 창출할 수는 없지요. 일단 이들은 루저들이니까요. 일베가 기발한 컨텐츠를 제작해보았자 한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SNS 문화도 한몫하죠. 페이스북의 핵심은 그 사람이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 소속되어있느냐 하는 '스펙'입니다. 구경하다보면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유령조직'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런 데 소속되어있다라고 뻥카치는 경우도 봅니다만. 가족보다도 SNS 친구와 더 많이 대화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인맥에 소속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사진'으로 증명해야합니다. 그래서 '보여주기'로 치중하는 추모대회를 여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어서 그렇다면 정말 점잖게 '조의금'을 냈을 것입니다.

13.113 강남역이 시사하는 것

2016.05.21

저걸 보고 절망했다는 남자도 철이 없긴 마찬가지이다. 원래 여자들 저런 거 몰랐다는 거냐

여학교에 환상을 품지 말라고 하거나(여학교가 돼지우리보다 더럽다라는 이야기) 아줌마들 집단이 무서운 거 다 헛소리가 아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여성고객 다루는 건 인간관계 중 최고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영상의 저 남자는 매우 순진하게 '설득'할 수 있다고 믿은 모양이다.

굶주린 식인종 부족에게 가서 성경을 읽어주면 다들 기독교도로 개종할 수 있다고 믿는 풋내기 선교사나 다름 없다.

현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저런 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고 모래알로 황금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실 돈줄은 대부분 여자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알지 못 하면
굶어죽기 딱 좋다(...)

다른 사람들은 메갈과 워마드에 화가 날지 모르지만 나는 그다지... 그게 메
갈과 워마드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여자들이 그런 거 몰랐어?**

남자들은 성욕만 없으면 초식동물에 가깝지만, 여자들은 성욕이 없어도 기
본이 육식동물이란 사실을 나이처먹고 나면 알게 되는 것 몰랐나?

무엇보다 저 린치당하는 남자는 경험이 없는지 말하는 게 참 어리버리.

연애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빠 그러는 것 속지 말고 집단 속에서 그 여자가
어떤 완장차나 꼭 보아야한다(...)

물론 적극적인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 적어도 그런 여자가 명청하지 않다면
남편까지 먹여살릴지도 모른다.

남자들이 여자들 본능을 저 정도로 몰랐느냐... 라는 게 더 의아스러울 정도
다.

이성과 논리 그게 먹히는 줄 알았나. 그냥 저 자리 갔으면 딱 완장차기 좋은
여자 지목해서 연설을 시켰어야 한다.

여자들이 스스로 눈물 흘리면서 다 털어놓게 만들면 저 남자는 호감도가 올
라갔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저 남자는 자기가 말할 게 아니라, 여자들보고 떠들라고 했어야
한다.

여자들이 왜 모였겠냐? 평상시에는 여자라는 강요 하에 얌전하게 얹눌려살아야했는데 저 장소가서 분출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이걸 모르고 ”선교” 가능하다고 믿는 남자들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진짜 영악하고 똑똑한 사람은 퀸베충(...)인 듯. 그거 하나로 인지도 올리면서 팬들을 모았으니까.

남혐이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이 깔깔대고 떠들어댈 수 있는 기회나 장소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나.

그리고 저 정도 동영상 가지고 린치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그녀들이 불쌍하다.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것.

13.114 그리고 떠들게 냅두지 왜 끼어드는지.

2016.05.22

주장이 타당하면 다 납득할 것이고, 주장이 이상하면 그 정도 밖에 안 되었느냐... 그 정도일 터인데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 ”남자들은 잠재적 가해자예요”라고 소리치면 ”아, 그래요”라고 하고 양 가볍게 대꾸해주면 지나가면 그만이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냥 냅두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거 주장하는 여자들이 과연 현실을 바꿀 힘이 있는 능력자일까. 담론과 시위. 그거 어느 쪽이든 힘이 없으면 정말 쓸모없는 것이다. 여자들이 한국남자 못 되었어요, 다 거세해버려야한다고 소리친다고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막말로 거기 이부진이나 이명희가 참석한 것도 아니다.

거기 참석한 여자들이 ’여성 인권’을 위하여 가난한 남자도 바보온달처럼 키워주고 결혼하고 뒷바라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어차피 시간 지나면 왜 그런 바보같은 시위를 했을까 하면서 잊혀질 권리 주장하면서 돈많은 남자

나 찾으려 할 터인데 뭘 무서워하는지. 역으로 거기 대꾸하는 일베 애들이 힘이 있나. 이제 천하제일 丙申 대회 개최하고 그냥 노는 것이지.

보루토 보고 히잉 나루토 죽은 거야라고 소리쳐보았자 그거야 나루토팬들이나 광분할 일이지 현실에 영향 미치는 것 없다. 막말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정말 '물질적'인 것을 내놓거나 자기 '시간'을 바쳐서 실제로 뭘 해내느냐 그런다면 몰라도 그냥 모여서 쓰잘데기없는 이야기나 하면서 한풀이한다면 양 냅두면 되는 것이다. 이건 초창기 촛불시위 당시 미군도 알았고,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이명박 정부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정말 이념이나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보나? 그런 사람은 정말 없다. 배부르고 할 짓 없을 때나 눈물 흘리며 쇼하지, 배고프면 밥 어디있나 어슬렁거리는 건 다 똑같은 것이다. 사람은 먹고 싸고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다. 현학적인 담론보다 국밥 한그릇이 더 임팩트가 있단 것이다.

다만 한가지 짜증나는 건 이 때문에 '옥시 사태'가 묻히고 있다 그 정도다. 그러니까 다들 병신들인 거다.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 해악을 끼치는 상품은 신경쓰지 않는다. 그저 "같은 X자로서 불안해요" 이러고 있는 건 정말 한심한 짓이다. 그 정도 열정으로 옥시제품 불매운동 대대적으로 벌이고 대기업에 항거하면서 자기들이 환장하고 남을 명품 백, 스카프 같은 것 불태웠으면 여성 고객이 무서운 줄 아는 옥시 쫄아서 양 엎드렸지.

아무튼 저는 상호비존중입니다. 남혐 하는 것은 안 말리고, 당연히 여혐 하는 것도 안 말림. 담론이든 시위든 그거야 나름 지겹게 겪어서 양 무시함. 인간에 대해서 딱히 신뢰도 안 해요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와서 이 뺨글 읽는 학생들만 봐도 한숨 나오는 데 무슨, 당장 가서 공부나 하시면 좋겠고

+ 여성에 대한 입장도 위 주갤선언문의 깔끔한 그대로입니다. 남성들 X 잡고 반성하라하는 여자 떠들라 하면 그만임. 다만 그런 여자는 양 비존중하고 무시하면 그만이라서리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죽겠는데 우리집 강아지도 오야오야 키워주었는데 손등 물어뜯었을 때 원효대사의 스켈레톤 워터 마신 깨달

음 그대로였음. 절대로 처음부터 잘 해주면 안 된다. 통수 맞는다 -

++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성에게 수작 건 적도 없고 당연히 성희롱, 추행은 진짜 면나라이야기인데 제가 안 하니 역으로 여자 쪽에서 시도해오는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임? 연애하면 좋다느니 보드라우니(...) 그건 개뿔이고 이거 돈먹는 하마인데다가 깨진 사람들 상담하느라 노이로제 걸린 것만 생각해도 크윽 그리고 뭐가 예쁘다고. 다 나이먹으면 어렸을 때 보던 옆집 아줌마임. 안 늙는 건 부르마 누나랑 아스카랑 레이였음.

+++ 그리고 이건 그냥 떡밥인데 던지면 지하철이든 버스든 여성들 있으면 불편함. 시선처리 잘못 하면 오해사기 딱 좋아서(...) 제가 표정 잘못 지었다가 순간 파렴치한으로 몰리고 촬영당해서 경찰서 가서 형사랑 농담 따먹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없을 것 같음? 이거 나름 심각합니다. 그나마 봄까지야 괜찮았지 이제 노출의 계절이 오면 썬그拉斯라도 껴야하나 생각 중인데 썬그拉斯 끼면 영락없는 중국산 깍두기이고 그래서 이어폰 끼고 더러운 원서 하나 끼고 다닐까 생각 중입니다. 오해 안 사려고

13.115 [만화] 보이즈온더런

2016.05.22

만화 다 보고 나면 위 짤방이 극혐이 되죠(다 보고나시면 압니다)

만화야 구글링해서 찾으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가 분이 찌질한 남성들의 심리를 참 잘 파악하는 작품을 쓰시는데(르 상티망, 보이즈온더런, 아이엠어히어로) 그 중 압권이 보이즈온더런입니다. 콕콕하는 남학생들이 아직까지 숫기 없고 철 없으면 이 만화부터 읽어보라고 싶을 정도.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기 좋은 몇 안 되는 작품입니다. 정의는 언어가 아

니라 내 주먹(보이즈온더런)과 총(아이엠어히어로)에 있다. 그리고 여타 일본만화와 달리 찌질한 남자 심리나 그런 남자 속이는 여자 심리가 정말 리얼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작품 끝까지 카타르시스가 해소되는 건 아닌데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면 '아' 하는 탄식과 함께 이런 게 철드는구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진짜 남자라면 키배도 시위에 집착할 게 아닙니다. 싸우거나 일해야지 매일 매일 노동으로 피로해지거나 정말 목숨걸거나 다치는 것 각오하고 싸우거나 그려는 거지. 오늘 강남역 영상이라는 걸 보니 노동과 싸움과는 거리가 먼 찌질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죠

13.116 [논란주의] 동영상

2016.05.22

안중근, 윤봉길의 독립투쟁을 이은 백색테러

한국 민주주의 쾌거를 보여주는 강남역 시위

”재기하라”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한국여자들

이런 민주주의 여러번 하면 후진국화되어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어 개꿀. 제 딴에는 다 자기가 하는 얘기가 옳고 그걸로 설복시킨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카니발' 내 살아 생전 저런 추모는 처음 보았다. 창조경제는 간데없고 창조추모 - 저 분들 죄다 상조 취업하면 대박이겠다.

그래도 하나는 긍정적이네 저 정도 패기부리는 여성 분들이라면 범죄 피해자가 될 리는 없잖아. 범죄자가 접근하기도 전에 암에 걸려 사망할 걸? 그리고 이런 영상이 돌면 여성 판타지가 사라져 성범죄자들의 의욕이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

시위하는 사람은 알 것 없고 누구라도 내 앞에서 시위가 좋다느니 담론 최

고라느니 하면 강 진짜 저주한다. 내가 그런 것 참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담론 질이면 고딩 때부터 했는데 이거 '소용'없음. 저런 짓 해보았자 남는 건 없거든. 아주 광기에 빠져있음,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향수에 나오는 그 궁극의 향수 뿐 리면 강남역 10번 출구는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아주 난잡한 광경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거다.

저러면서 다 밥은 먹고 다녔겠지

그것보다 강남역 지가는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애초에 저런 시위 같은 것 안 했으니까 비쌌지, 저렇게 뚫린 걸 보니까 강남역도 강 하향평준화 망할 분위기인 것 같다.

강남역 말말말

재기해! 재기해! (뛰어내려 죽어버려!) 01:12야! 사진찍지마! 1:33웃지마 씨발!! 1:40야! 사진찍지마! 사진찍지마! 사진찍지마! 사진찍지말라고!!! 1:54사진 찍지마!에 해병대 빨간모자와 충돌 1:50그럼 너네도 죽이고 고소하면 되겠네? 4:34재기해~! (뛰어내려 죽어버려!) 30:57재기해~! 한남대교가서 재기해! (뛰어 내려 죽어버려! 한남대교가서 뛰어내려 죽어버려!)32:02소추소심! 소추소심! (고추가 작으면 마음도 작다) 32:10뽕았다 뽕았어 33:04소추소심! 소추소심! (고추가 작으면 마음도 작다) 35:06숨쉴한! 숨쉴한! (한국남자는 쉼실 때마다 한번씩 패야한다!) 36:23재기해! 재기해! (뛰어내려 죽어버려!) 36:30울지마 울지마 36:49야 뭐라고? 고추가 작아서 안들려!!! 37:22하 시발 쫓까고 저리가라 개새끼들아! 39:58얘기 집에가~ 40:07여기 명석 깔려있다 아무나 나와라~ 42:46창민아~ 팬티내리자~! 42:59

13.117 희생자 오빠의 반응

2016.05.24

1. 피해자 오빠의 반응

링크

2. 그들의 반응

링크

3. 결국 기사화

<http://news.nate.com/view/20160524n19555>

4. SNS 반응

유가족도 씹는 패기 유가족도 씹는 패기

5. 잡설

호랑이 양담배 피다 폐암걸려 가죽을 남겼는데 알고보니 점박은 사자였더라 그럼 친아빠는... 이라고 물던 시절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박해받기 때문에 잠재력을 발휘 못 하고 있다 이게 다 남자 때문이다라는 논리가 꽤 잘 먹힌 시절이 있었다.

유교 때문에 한 집안의 엄마, 누나, 여동생이 희생하면서 아들만 밀어주니까 아들이 잘 나가는 것 아니냐. 여자도 얼마든지 똑똑하니까 그런 불합리한 게 사라지면 사회가 훨씬 좋아지지 않겠느냐.

세월은 흐른다

공산주의는 진작에 무너졌다. 유럽의 진보는 '무슬림 혐오'로 바뀌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인기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많이 좋아지긴 했다. 다만 그 여성해방이라는 건 기대 이하였다. 다들 강남역만 바라보겠지만 잊고 계신다. '청와대'부터가 현재 주인은 여성이다.

공산주의는 '착한 자본가'와 '사악한 노동자' 혹은 '노동자를 선동하는 사기꾼'은 말하지 못 한다. 유교에서는 사악한 군주, 위선적인 사대부, 폭력 남은 언급하지 않는다. 페미니즘의 여성은 '악녀'나 '찌질한 여자'가 없다.

이러니까 저런 사상들은 정말 걸려들어야 한다니까. 예외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코드니까 예러가 터질 수 밖에 없지.

개인적으로는 남자니까 이래야 한다 여자니까 저리야 한다... 라는 구태의연하고 케케묵은 관념 따위는 필요없다. 그냥 남자 여자 관계없이 어떤 실적을 보여주느냐만 따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여자는 약자고 착하니까 보호받아야 한다와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속물이니까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해서 대등하게 대하자 중 어느 게 평등일까?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는 게 모든 남자가 다 성 범죄나 폭력을 저지르는 건 아니란 것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자들도 할 말 없는 사례는 정말로 많다. 이런 걸 하나 얘기하면 마법의 키워드가 나오지. "찌질해" 그런데 원래 인간은 찌질하니까 별로 소용없는 말이다.

자기들은 여자니까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겠고 이미 유족들마저 무시한 포스트잇이 추모라고 착각하겠지만 정말 멀쩡히 살아가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메시지는 설득은 커녕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

아가는” 점에서 짜증만 날 뿐이다. 남자들이 마초라서 포스트잇이나 저런 시위를 싫어하는 게 아니지 핑코나 여중생 폭행에다가 유가족 모욕에서보다시피 본색은 절대 추모가 아니라는 걸 원래 알고 있었거든.

물론 이와 별개로 저런 시위는 좀 계속하면 좋겠다. 그래야 호구 남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으니까 적어도 저게 일부 급진론자들의 소행으로만 알던 사람들이 이번에 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 이슬람도 그들이 소수일 때야 평화의 종교지 IS와 난민사태 겪고 나서야 사람들이 무슨 평화는 평화하면서 짹 입장 바꾸듯, 남녀간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번이야 말로 ’여성들도 잠재적 폭력배’라는 걸 보여준(그들의 논리대로) 최초의 사례이니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잠재적 가해자... 뭐 좋은 논리인데 그렇게 따지면 일부 여자들이 돈많은 나쁜 남자 선호하는 것도 일반화시켜도 되겠지 뭘. (사실 이건 일반화시켜도 된다고 보던데... 자 논리는 예외없이 처리해야지?) 남자들도 강 자기들이 잠재적 가해자라는 걸 인지하고 남성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게 좋아보인다.

여자들을 보호할 이유도 없고(요즘 같은 험한 시기에 보호한다가 인생 아작나기 좋다) 데이트 비용 분담할 필요도 없고(그거 하나 하면 요즘 5만원은 기본 아냐? 그렇게 먹고살기 좋냐) 아울러 굳이 자국여성 고집할 필요 없다. 한국녀는 것양남 만나고 한국남은 외국녀 만나면 되는 거지 뭘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남자들 밥해준다 가사노동해준다 할 것도 없다. 맞벌이해서 똑같이 벌어오고 가사분담 육아분담 철저히 시집살이... 요즘 그딴 게 있나 각자사는 거지. 다만 결혼하려면 집값 절반은 여자들도 분담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명쾌한 해답이지만 정작 실천할 리...가 있나 인터넷으로만 떠들고 다 그리고 끝나겠지.

그런데 다들 하는 이야기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자녀만 있으면 딱히 결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말 진지한 생각임. 가사노동이야 어차피 본인도 혼자 하고 거의 다 기계에 의존하며 10년 내에 로봇이 나와 해줄텐데 애들을 양육도 어린이집. 전업주부조차도 애 맡기고 커피숍가서 수다떨고 백화점 가는 게 현실인데 무슨.

+

그리고 쟤들이 일부라는 옹호는 하지 맙시다. 극단적 일부의 소행이었으면 그 집단에서 사죄하고 그 일부를 제재했어야죠.

++

적어도 현 대통령이 실정을 저질렀어도 '여자 대통령'이라고 남자들이 까지는 않았을 터인데 말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깁니다. 한국 시위역사상 가장 빠 같은 시위라고 여겨서 이 글 썼음. 그 전까지는 광우병 시위, 용산 참사를 깼죠. 광우병은 정말 선동 자체였고 용산 참사는 신나와 화염병을 자기들이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유라도 명쾌했지 이건 뭐 딱히 –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야말로 혐오부추기다가 유족까지 '한남충' 공격 유휴. 이런 사람들이 빠빠지게 먹여살려주고 키워준 자기 아버지도 '한남충'이라고 보고 있을 게 뻔하고. 무엇보다 저 집단 애들이 정말 땀흘려 일하고 고생하면 저딴 빠 시위는 하지도 않았겠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절박한 심정에서 그런다면 이해는 가는데 이번 것은 아닙니다. 여혐 공박하면서 자기들이 남혐 부추기고 있고, 남자들 잠재적 가해자라고 하더니 자기들이 폭행 저지르고 다니며 추모한다더니 갑질 하지도 않은 유족들 까고 있고 참. 이런 것 얘기한다고 '너 여성에 대해 분노하는 짜질이냐'하면 전 더 상짜질이가 되겠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할 것 아냐

13.118 도서평가제

2016.05.26

책(특히 인문서)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다는 것.

책 한권 잘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새움출판사에서 나온 [출판 24시] 참조)
그러나 그 책이 독자에게 효용을 주느냐는 건 다른 문제다. 정가제 찬성자들의
문제는 출판사와 종이책의 가치를 고평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는 역사서 한
권이 '나무 위키' 페이지 하나만도 못 하다라는 게 현실이다.

위키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하면 사실 위기는 출판사들이 먼저 선점하면서
저작권 문제를 분명히 했어야 한다. 그러나 출판사 관계자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 했다. 그리고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이다.

도서평가제 찬성자들이 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걸까 하면 그 배경에는 '인
문학'이 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인문학을 점점 경시하는 이유다. 인문학을
공부하면 세상 돌아가는 데 달통한다면 누구라도 공부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인문학에 몰두한 사람들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는 '광신도'라는 인상이 강하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야. 진짜 깨인 사람이라면 '반례'가 되는 사례가 나
타났을 때 기상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년간 특정
학문을 공부한 사람보고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건 매우 잔혹한 이야기다. 수년간
시간과 돈을 들여 특정 이론을 공부한 사람은 그 이론이 쓸모없고 틀리다는 걸
발견하더라도 그 이론을 버리기보다는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한다(인지부조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좌파든 우파든 교육문제에 개입하는 이유다. 어린 시절
부터 심어진 특정한 가치관은 매우 충격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해
서는 사라지진 않는다. 골수 시장만능주의자든 공산주의자든 선비(...)나 폐미니

스트들이 가치관을 바꾸긴 매우 힘들다. 가치관을 바꾸는 순간 그간의 세월이 무상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통일을 한다 쳐도 골치아픈 게 북한 사람들이 정말 그 주체사상을 포기하지는 못 할 거라는 사실. 인생 전체가 그 주체사상에 저당잡혔는데 순간 부인당한다, 죽고싶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념을 전파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다. 내가 경험한 그런 ~ 주의는 종교와 같다. 그게 실제로 현실에 도움이 되는가... 자기들이야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건 없다. 오히려 위에서 얘기한대로 인지부조화에 빠져서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한다. 이데올로기를 공부한 사람이 현실을 바꾸긴... 현실이 바뀔 거라고 자위하다가 궁해지면 그 사상을 팔아먹으려고 노력한다. 혹은 현실이 안 바뀌면 자기들이 바꾸면 된다라고 정신승리한다. 이게 '통진당'의 에너지원이다.

그 사람들은 긴 말 할 필요없이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었나 그리고 정확히 예전했나 그것만 보여주면 된다.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쓸데없는 현학적 논의를 덕지덕지 붙이는 것이다. 실증을 못하면 결국 반론자의 입을 봉하기 위해 폭력까지 가한다.

그런 건 관계없이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런다?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런 쓸데없는 데 연연하지 말고 그냥 돈 주면 된다니까. 어떤 이념을 공부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성공모델이 누군지 제발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진보한 건데요. 그거야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력이 높아져서 물질적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거지.

극단적으로 말하면 xx 주의 같은 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공부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게 내 판단이다. 그런 걸 공부해서 정말 좋아지면 내가 지금도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느낀 거, 그런 것은 정말 과장된 것이라는 사실. 그런 게 정말 심오했으면 그걸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파워를 갖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었어야지.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면 꼭 그 사람들은 답을 제대로 못하면서 너는 속물이니 왜 물질적인 것만 따지니 세상 그렇게 각박하게 살지마 조용한 데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

상이 나아지는 거야라는 소설을 써댄다. 솔직히 이게 사이비 종교의 논법과 뭔 차이가 있나. 그냥 대답만 하면 되잖아.

도서정가제는 실패했다. 그런데 그걸 밀어붙인 사람들은 여전히 현실 부정을 하면서 완전 정가제를 해야한다 라고 얘기한다(...) 그 옹고집은 어디까지 갈까. 그거야 쓸데없는 책은 안 읽어도 된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할 때까지 지속되겠지. 그리고 그 끝까지 가면 그걸 밀어붙인 사람들은 ”실제로 본 뜻은 그게 아닌데 왜곡된 것이다”라고 말 돌리기 시작할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서 배워야하는 건 ”자본가”로 살아가는 법이다. 이게 뭔 소리인가 하는 사람들은 시행착오해보면서 그럼 공부해보시면 안다. 이건 내 말이 맞다고 자신한다. 심오한 이데올로기를 배운다 치자. 그래보았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에는 전혀 답하지 못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결국 ’자본’으로 수렴된다.

도서정가제를 주장한 사람들은 왜 책이 안 팔리는가부터 시작해 사람들이 책을 다시 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은 안 하고 정가제로 돌아가면 유통이 정상화되어 출판사가 수익이 늘어서 더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다 라는 형식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빈틈이 많은 판타지에 의존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중고서점이 더 확장되는 현실을 예측할 수 있을까. 지금 한다는 게 왜 대형서점이 중고거래에 진출하느냐 분개(...)하는 건데 정가제 아니었으면 중고서점거래가 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자기들이야말로 중고서점의 친부라는 걸 모르는 것 같다.

13.119 갚으면 된다

2016.05.26

윤리에 호소한다는 건 그다지

바람난 남녀는 자기의 간통을 '로맨스'라고 바라보고 있음. 사실 그건 평계 대려면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우자가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아서 죽을 것 같아 바람떴다... 라는 개드립도 가능하죠.

사건사고 뉴스에 나는 범죄들이 정말 범죄자들이 자기가 비윤리적인 걸 자각하고 저지르는 건 아니죠. 다 나름대로 평계를 대고 변명할 여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친딸을 xx한 파렴치한 친부나 계부들도 어쩔 수가 없었다 평계를 대지요.

보통은 이렇게 요구하죠. "사과해"

그런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사과하면 그만? 돈을 안 갚고 사과하면 그만?

사실 가장 확실한 건 "갚는 것"입니다. 다만 살인이나 손발 자르는 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사회적 피해를 넣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지 원래대로라면 원상 복구 아니면 응보형이 정답입니다. 이걸 전제한 다음에 '인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갚는 걸 전제하지 않는 인권타령은 '책임회피'입니다.

만약 이런 글이면 보통 "네가 뭐라든 나는 xx 할 건데 왜 시비냐"라고 하지만, 미래형은 원래 거짓말입니다. 실천이 있어야 참말이 되지요. 취업하면 엄마 아빠한테 잘 할게요... 이게 참인 것 같죠? 본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뜯어먹겠지만 산전수전 겪으면 부모님들은 그게 거짓말인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윤리타령하지만 현실이야 뭐. 결국 돈문제 가면 대부분 다 치졸하죠.

지금하고 있는 공부들이나 열심히 합시다. 지금 하는 공부도 지독하게 안 하면서 미래에 ~ 하겠다라고 하려면 먼저 입술에 침부터 바르시고. 누구나 발언권은 있죠. 그리고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예, 존중만 하고 채택 안 하면 그만입니다. 흔한 남녀갈등 떡밥도 그렇습니다. 여자가 돈을 많이 내면 여자 말이 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자가 더 많이 분담하잖아요. 젠더 문제니 성차별이니 그런 이야기하지말고 여자가 더 돈을 많이 내면 여자 말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 돈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돈을 적게 내고 주장해보았자 존중만 받고 끝날 뿐이죠. 수험생들도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말은 역시 존중만 하지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발언-책임을 대응시킬 수 있어서 무질서가 줄어듭니다. 길게 말 할 필요 없이 부모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부모에게 그만큼 돈을 갚으시면 되겠고(성년자라면 필수) 상대와 얘기할 때 자기 발언의 실효력을 확보하고 싶으면 실적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특히 돈문제가 걸리면 거래는 분명 대등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권한 갖고 싶다? 그럼 돈을 더 내시면 되지요.

이렇게 하면 말끔히 정리되는데 현실은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이데올로기 끌어와서 아주 천외마경을 만들고 있죠. 며칠 전 강남역 문제도 포스트잇 타령하지 않고 자기들이 돈내서 피해자 구호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뭔가 했으면 되는 것이지요. 돈은 내기 싫다, 그런데 남자들은 사과하라.... 이러니까 짜증만 유발시키는 겁니다.

적어도 이 글을 보는 분이면 고길동이 정말 전사라는 사실은 알고들 계시겠죠. 혐오감정 어찌구저찌구 그거. 그냐 서로 혐오하시는 데 그러니까 서로 의존을 안 하면 됩니다. 남혐도 여혐도 다 근거가 있음, 뻔한 이야기니까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물질적으로 의존하는 것까지 무시하고 정당화하지 맙시다. 진짜 이것까지 부인하면 그건 인간이길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남충이라고 비하하는데 금전적 지원은 받아야겠다, 김치녀라고 까지만 돈은 뜯어내도 상관 없다... 이건 미친 것이지요.

13.120 금전거래는 부모자식형제도 정확히 해야한다.

2016.05.27

이건 부모님들의 잘못이 크다. 부모님들의 고민 중 하나가 자식들끼리 불화가 생기면 어떡하냐... 인데 결국 불화는 생긴다. 왜냐면 '분배' 문제를 정말 공정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가령 물려줄 재산이 9천만원이라고 하자. 그런데 형제가 셋이 있다. 그냥 삼등분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알고보니 장남이 대학을 포기하고 경제활동하면서 기여한 게 있고 차남은 경제활동을 안 하는 대신 대학에 가서 등록금 지원을 받았으며 막내는 아직 학생이라 뭔지 모른다.

이런 경우에 3등분이 가능하느냐 하면 그건 아닐 것이다. 가령 9천만원 중에 5천만원을 장남이 기여한 것이라면? 하지만 차남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가 대졸해서 대기업 가면 갚을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막내는 재산관리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 관리해줘야하는데 형들을 믿을 수 있을까.

게다가 부모라고 해도 자식들을 차별하는 게 많다. 예쁜 자식과 미운 자식이 엄연히 나뉘기 때문이다. 예쁜 자식에게 더 주고싶고 만약 법만 아니라면 몰빵해주고 싶은 부모도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엄연히 유류분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매우 복잡해진다.

결론적으로는 부모자식간이라도 금전거래는 분명히 해야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상당히 물려터져 있다. 그래서 터지는 비극이 많다. 이런 걸 보다 보면 돈문제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선 참 곱게 보기 힘들다.

도박목시록 카이지에서는 '목숨보다 돈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온다. 사실 반례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돈이 생명에 필적해나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생각할 거리는 많다. 여기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학문 때문이 아니다. 바로 돈 때문이지.

기본적인 금전거래감각도 제대로 안 하면서 추상적 담론을 이야기한다... 잘 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돈문제에 있어서 매우 비굴한 자세를 취하면서

거창한 메시지를 이야기한다... 미성년이면 이해는 있지만 성년이라면 이야기는 다르다. 일반화시킬 수 없는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절했는가 똑똑히 알고 있다. (더 적자면 돈과 이성 문제가 지저분한 사람은 그냥 조기에 차단해버리는 게 낫다)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곱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야 네가 뭘 아느냐 공부는 해보았느냐. 그런 것 필요없다. 그냥 그 단체 재정구조를 보아서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리고 일하는 간사들은 임금을 어떻게 주느냐 보면 된다.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간사들은 저임금 받고 있으며 착취 당한다면 그 쪽에서 하는 얘기가 거창하든 말든 양 무시해도 된다. 정말 올바른 곳은 회원들이 알아서 회비를 내며 일 시킬 때 임금을 정확히 준다. 시민단체가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면 결국 정부나 특정 정당 입맛에 맞는 활동을 하게 된다.

우리사회에서 소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륜을 저지르고 마누라 자식을 폭행하고 하는 등으로 많이 까인다. 물론 그건 분명히 까야할 건 많다. 그런데 왜 그러면서도 마누라와 자식들은 헤어지지 못 하는 건가도 생각해보아야지. 그건 그 가부장이 돈을 벌어오기 때문이다. 물론 돈조차 벌어오지 않는 더한 막장도 있지만 이 경우는 바로 이혼해버린다. 그러나 남편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 하는 아줌마들이나 아버지라고 하면 이를 바득바득 가는 친구들도 결국 의존한다. 그거야 '돈벼는 것'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은 뭘까. 사실 돈벼는 것만큼은 인정해줘야 한다. 그게 아니면 본인들이 벌면 된다. 그리고 콕콕에서도 알바 뛰어본 친구들이 많겠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도 알 것이다. 나이가 어릴 때는 돈벼는 게 쉽다고 생각하면서 어른을 불신하게 되지만, 자기가 그 어른이 되면 정말 '아버지의 진심'이 뭔지 알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진심의 척도는 돈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돈을 지불해주는 사람을 까면서, 자기에게 사실상 한푼도 주지 않은 사람들 말'만'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인터넷 세상의 세뇌효과일지도 모른다. 부모 자식간의 대화는 줄었다. 그 시간에 다들 인터넷이나 SNS를 한다. 자기랑 대화하는 사람 말에 빠지는 것이다.

재밌는 건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받은 만큼 갚아보라'하면 결국 변명하게 된다는 것이고 나 역시 그 점에서는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아무리 부모 자식간에 원한이 있더라도 차분하게 부모가 나에게 얼마를 썼느냐 계산해보면 그리고 판 같은 데 올라오는 주작인지 아닌지 모르는 막장썰을 읽어보면 '내가 행복한 케이스구나'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른 건 떠나서 give&take 안 하고 자기들이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난 그 친구들을 쓰레기 취급할 것이다. 무협지의 흔한 코스가 원수에게 가족을 잃은 주인공이 무림고수에게 갚을 때 '궂은 일'부터 하는 것이다. 세상물정 모르는 친구는 당장 필살기나 가르쳐주지 일부터 시켜먹네 답답하다... 라고 느낄 것이지만 경제관념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수업료를 저렇게 받는구나"라고 생각 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런 관념을 갖는 것이다. 심지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조차도 이런 경제관념이 없으면 정말 답이 없어진다.

+

여담이지만 공정거래 금전거래만 똑바로 한다면 본인이 뭘 하든 누구든 말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 그것도 허황된 것으로 별이겠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부모에게 기대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허락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트루다.

최근에 대작으로 걸린 모 가수만 하더라도 사실 자유로운 영혼이었다지만 그 배후를 보자 대작이든 아니든 그림이 고가에 팔려나간다... 이것이 바로 그 자유로운 영혼의 '진면목'이었다는 것이다. 거래는 어찌되었든 거래 아니냐 라면 할 말은 없다. 다만 그게 불공정거래로 보인다는 게 문제지.

아무튼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안 끼치고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하겠다는 게 법이나 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누구든 말릴 자격이 없다. 자기가 번 돈을 쓰는 시도라면 진심으로 노력하게 되고,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실패하더라

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게 많다. N수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야 셀 수 없이 많지만 '자기 돈'으로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큰 이유다. 자기 돈으로 하는 거라면 매우 절박하니까 죽기살기로 하게 된다. 돈나가는 것에 피말리니까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보통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다.

물론 돈쓰지말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차용증은 쓰고 하라는 것이다. 학원비를 고가로 지불해도 좋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부모에게 갚는다고 약속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비단 N수 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대학에서 졸업한 이후에도 필요한 가치관과 습관의 정립을 위해 필요하다. 이런 관념없이 그냥 부모가 지원해주는 데로 N수하고 운좋아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도 부모가 다 대준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으니 갚을 필요가 없다고 치자... 이런 친구가 열심히 살 것 같나? 인간은 간사한 존재인데?

과거에는 저런 게 없어도 먹고 들어갈 수 있다. 기성 체제는 공부만 잘하면 '일자리'가 보장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결혼과 취업이 사라지는 시대다. 이제는 일자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본인이 일거리들을 물어와야한다. 남녀간도 프리섹스를 자유롭게 하는 시대라면 배우자를 독점하는 걸 전제로 한 결혼도 무의미해진다. 결혼제도가 의미가 있다면 이제 '계약혼' 정도일 것이다. **상호 행위, 재산, 그리고 자녀에 관한 계약 전반**. 신랄하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건 3년이 지나면 감가상각되는 권리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변화에 맞는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이 N수를 하는데 N이 얼마나 그건 사소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친구들도 많다. 돈을 정말 사소하게 생각하는 걸 넘어 기본적인 거래관 자체가 없다. 저런 거래관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금전감각이 물러터진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로 보일 것이다.

13.121 [뉴스] 올해 가장 더운 여름 확률 95%

2016.05.28

링크

미국 항공우주국 NASA가 2016년의 여름이 사상 최고로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 항공우주국 NASA 관계자는 “올해 들어 4월까지 기온을 미루어 볼 때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확률이 95% 이상이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도 “137년간 기상 관측 이래로 지난 4월은 가장 온도가 높은 달을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한 달도 빠짐없이 가장 더운 달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알아서 잘 대비하시길